

조선신보

朝鮮時報

조선신보 사진보도

The People's Korea

COREA POPULAR

La Corée Populaire

조선신보

1 =

축쇄판

1988(2) / 3월·4월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3월 1일
(음력 1월 13일)
화 요 일
【루계 제10146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130503(〒162)
〔日刊〕 月額 2,000円

새로운 길을 개척, 토대를 마련

조국과의 합영추진을 위한 동포상공인들의 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합영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국과의 합영추진을 위한 동포상공인들의 모임이 2월 27일, 아다미 깅쬬깡에서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과 합영하면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바칠수 있어서 좋고 자본이 늘어나서 자신의 립지조건을 튼튼히 하는데서 좋을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과의 합영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우리 애국적상공인들.

2년간의 활동실적을 서로 더듬어보며 《기어이 성사시키겠다》고 결심을 새로이 하는 그들의 열의가 모임전반에 흘러넘쳤다.

2년간의 실적 토대로 더한층의 전진을

모임에는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신상대, 전연식부의장들, 강택중경제국장, 상공련 리종태회장, 최일수리사장, 각 현상공회 회장들 그리고 합영사업추진위원회 리사들, 합영을 하고있는 동포상공인들 13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국제합영총회사 등 조국의 여러 합영 회사에서 보내온 많은 축전들이 소개되였다.

이어서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 전연식회장이 사업보고를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상공련합회결성 40돐기념 재일조선상공인감사단을 접견하시여 합영사업에 대한 교시를 주신 2년전의 그날을 되새기며 감개무량한듯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그는 합영사업이 자신들의 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일뿐만아니라 애국애족의 대를 이어나가는 숭고한 사업임을 확신하고 지난 2년동안 의욕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말한 다음 금후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산따마상공회 김중권회장, 유한회사 파끄 총무부장 홍영호씨, 모란봉주식회사 해외사업부 부장 권종기씨가 합영사업의 경험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였다.

경험토론들은 참가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모임에서는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맺음을 하였다.(별항)

이날 모임에 앞서 비데오록화편집물 《합영사업의 2년간의 궤적》이 상영되였으며 제2부 축하연에서는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이 피로되였다.

축하연의 시작과 마지막엔 총련영화제작소에서 만든 비데오《사회주의조국과의 합영》이 상영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평양비단합영회사의 정동선리사장은 《실생산에 이어 올가을을 지향하여 천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다시마를 취급하고있는 시모노세끼상공회 김의명회장은 《제3국에로의 가공품판매를 시도해보겠다.》고 포부를 말하였다. 평양단밤영흥당의 리영삼사장 역시 《조국에서의 단밤연구소건설을 전망성있게 다그치겠다.》고 의욕을 표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합영생산품과 사진 전시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합영생산품의 전시실을 돌아보았다.



조국과의 합영추진을 위한 동포상공인들의 모임

발전의 열쇠는 책임성과 역할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의 맺음 (요지)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합영사업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국과의 합영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여러분들의 높은 충성심과 애국적열성에 대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 기간 합영사업에서는 많은 전진과 귀중한 경험이 이룩되였습니다.

합영사업추진위원회가 무어져 짧은 기간이였으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해설선전하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서 강연회, 간담회 등에 수많은 동포상공인들이 망라되였으며 많은 상공인들이 합영을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였고 조국의 대표단, 일본의 기술자들도 호상 왕래하여 기술교류를 깊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기간 수십건의 합영대상이 구체화되였습니다.

합영사업자체가 처음으로 시작한 초행길이여서 애로와 난관도 동반되였으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합영사업을 시작한 개척자로서의 높은 책임성과 함께 반드시 성사시켜나가겠다는 확고한 립장과 자세로 투신해왔습니다.

그 고심어린 나날에 오늘은 2,3세 젊은 상공인들이 자기의 기업 발전과 함께 대를 이어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심정으로 합영사업에 나서고있으며 총련 산따마, 야마구찌현본부들에서 이 사업을 기관화하는 좋은 싹들도 나오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재일조선상공인들이 조국과의 합영을 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원만히 추진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셨기에 우리는 비록 새로운 길을 걷는다 해도 이처럼 착실하게, 보람있게 일을 추진하고있는것입니다.

오늘 남조선괴뢰도당과 미, 일반동들의 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나 우리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옹호보위하며 조국과의 합영사업도 크게 전진시켜야 합니다.

조국과의 합영사업은 총련사업의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추세로 보나 재일동포상공인들의 립지조건을 튼튼히 할 요구성으로 보나 반드시 성사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애국활동입니다.

그 정책적요구를 깊이 파악하면서 우선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2차리사회에서 토의결정된 내용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영사업을 현본부와 현상공회가 토의장악하고 기관화, 대중화하며 담당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 상공련합회와 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현저히 높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올해 합영사업을 크게 전진시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07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재일조선 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07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재일조선 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이 2월 27일 저녁 조선출판회관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과 김수진교육국장, 교직동중앙 박광택위원장, 중앙교육회 김창현회장, 류학동중앙 리룡행위원장을 비롯하여 간또지방의 각급 학교 교원들과 교육관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소개한데 이어 교직동중앙 박광택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새해 1988년에 즈음하여 106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지 몇달도 안되는 사이에 또다시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접한 기쁨과 감격에 대하여 감명깊이 말하였다.

그는 격동되는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총련조직에 굳게 뭉쳐나아갈 때 필승불패한다는 립장을 확고히 세우고 맡은바 애국과업을 힘있게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 이어 도꾜중고 채홍열교장, 산따마제1초중 손진룡교장, 사이다마초중 주순길교장이 토론을 하였다.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이 이날 모임맺음을 하였다.

그는 지금 내외반동들의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로골적인 모략소동, 특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파렴치하고 용서못할 폭압행위가 벌어지고있는 속에서 교육관계 일군들과 전체 교직원들이 굳게 단결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를 단호히 짓부셔 우리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사업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학생받아들이는 사업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 학년도를 맞이함으로써 4월의 명절을 빛내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덕에 보답하자고 말하였다.

이날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올해 민족교육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모임참가자들

사 설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굳세게 싸워나가자

3.1인민봉기 69돐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책동과 모략소동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가진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제와 일본지배층 그리고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더욱 긴장하고 첨예한 국면에로 접근하고있다.

이는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우리 공화국을 걸고드는 사건을 조작하고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비렬한 책동을 감행하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들의 자작자연극인 남조선려객기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내외원쑤들의 반공화국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2월부터 시작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핵전쟁을 가상한 실전연습으로서 우리 나라를 공공연히 위협하고있다.

미국은 이번 군사연습만이 아니라 《서울올림픽안전담보》의 구실밑에 앞으로도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할것이라고 떠벌이고있다.

또한 일본지배층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이 범죄적책동에 발맞추고있다. 로태우의 《대통령취임식》에 달려간 일본 다께시다수상은 로태우와의 회담에서 올림픽과 관련하여 괴뢰도당과 일본의 외무, 경찰당국들이 《안전대책련락협》을 설립할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일본이 이제까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재침을 전면적으로 강화할뿐아니라 《치안》과 군사적분야에 있어서도 보다 깊숙이, 더욱 로골적으로 쳐들어가겠다는 야망을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되여 35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여 13년이 지났으나 지금처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 남조선괴뢰들의 발광적인 무력증강과 전쟁도발 책동으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된바는 없었다.

우리는 오늘의 조성된 정세가 복잡할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의 두리에 굳게 뭉쳐 굳세게 나아가야 할것이다.

3.1인민봉기는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며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조선인민의 존엄을 온 세상에 과시한 전인민적인 반일투쟁이였다.

이 정신은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실현되였으나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인 남조선은 민족의 자주권이 미일반동들에게 깡그리 짓밟힌 땅으로 전변되고말았다.

우리는 오늘의 이 긴장하고 엄혹한 시기 3.1인민봉기를 되새기며 민족의 자주권을 전국적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힘써나가야 한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우리 나라가 제기한북남련석회의마당에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삼천리강토에서 전쟁과 분렬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굳은 신념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시대를 밝히시며

혁명실천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상리론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것은 사상리론활동을 혁명실천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가시는것이다.

실천결합은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야 기성리론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실정에 맞게 적용할수 있으며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사상과 리론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사상리론활동을 혁명실천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사상리론가들의 활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상리론활동은 혁명실천, 다시말하여 사회적 진보와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사회력사발전을 추동하는데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 목적과 사명이 있다. 한편 혁명실천은 사상리론활동의 바탕으로 되며 사상리론의 진리성, 혁명성, 현실성을 검증한다.

그러므로 사상리론활동은 언제나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그것은 사상리론가들의 활동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혁명실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사상리론활동을 혁명실천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가시는 내용을 두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그 하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언제나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상리론활동을 벌려나가시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데 대한 혁명실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상리론활동을 개시하시고 벌려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혁명활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실천은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의 출발점으로, 바탕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일찌기 대학시기에 조선혁명의 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고 벌리신 과학탐구와 사상리론활동은 그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그이께서 정치경제학연구의 목적을 조선혁명의 실천과 결부하여 제시하신것,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문제를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전략전술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밝히고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혁명실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과학적리론으로 전개하신것들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새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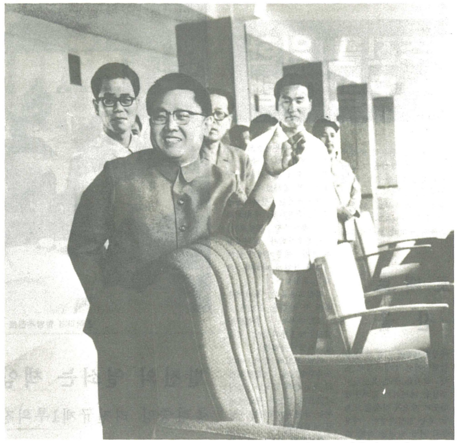
다른 하나는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 사상과 리론을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추상적인 공리공담을 단호히 배격하시며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실천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신다.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의 전로정은 주체시대를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일관되여있다.

그이께서 혁명운동의 지도적원칙들을 새롭게 정식화하신 사상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개척과 계승완성 과정의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밝히신 리론들은 혁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문제가 당면한 실천적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의 요구에 해답을 준 리론들이다. 뿐만아니라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계속된다는것,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한나라 혹은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여도 내외원쑤들의 반항을 면할수 없다는것 그리고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진리를 천명하신것은 그 뚜렷한 실례들로 된다.

이렇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이 혁명실천과 유기적으로 통일되고 결합된것으로 하여 그이께서 내놓으시는 모든 사상과 리론은 다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으로, 주체시대와 그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으로 된다. (계속)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 학습실

근본립장과 방법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에 자주적으로 대하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할것을 요구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근본내용으로 규정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이라고 밝히시였다.

인식과 실천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립장과 방법은 철학적원리, 세계에 대한 견해로부터 흘러나오는 사고와 행동의 원칙이다.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은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주는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먼저 오늘의 세계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로부터 흘러나오는 방법론이다.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이 내놓은 유물론적립장과 변증법적방법보다 비할바 없이 우월하다.

유물변증법의 립장과 방법은 사실 옳은것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써는 본질적인것을 가려볼수 없으며 인간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없다.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모든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언제나 사람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 견지에서 보며 언제나 사람의 주동적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의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한장의 사진에서

묘향산의 등산길

묘향산(모양이 기묘하고 향기가 그윽하다 하여 묘향이라 불리움)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5대명산의 하나로 알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뜻을 받드시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묘향산을 인민의 휴식터,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오늘 묘향산에는 몇개의 등산로정이 닦아지고있는데 이 등산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분도 바로 그이이시였다.

1981년 5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묘향산에 오르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만폭동과 상원암에 오르시였고 비로봉지구의 험한 골짜기를 오르내리시며 형제폭포와 비로봉에 이르는 두 갈래의 등산길을 새로 개척하시였다.

비로봉은 묘향산일대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로서 골짜기와 등산길은 하도 깊고 험하기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곳이 많았다. 그래서 동행한 묘향산의 력사박물관 관장도 곬을 헛갈리는 판이였는데 그이께서는 인젠 내가 길잡이를 해야 되겠구만 하고 소탈하게 웃으시며 선두에 서시기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안전다리는 어디에 놓고 휴식장은 어디에 만드는가 등 등산길을 꾸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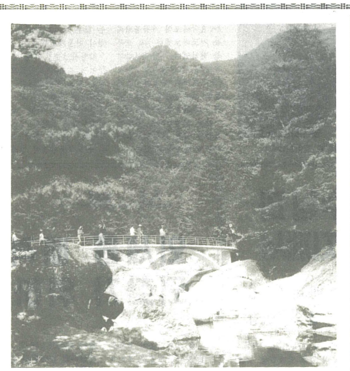
박물관관장은 그보다 8년전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묘향산을 올라간적이 있었다. 그때 그이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가파로운 벼랑턱을 한치한치 더듬어오르시였는데 인호대에 이르시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구상대로 이 아름다운 산과 물, 경치들이 모두 인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하여 이바지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묘향산에 등산길을 잘 만들어놓으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묘향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수 있을뿐아니라 신체단련에도 좋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때 벌써 묘향산을 인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관광지로 훌륭히 꾸리실것을 구상하고계시였던것이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묘향산을 찾아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지만 이 등산길에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이 미쳐있음은 알지 못할것이다.



오늘날 묘향산은 인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되였으며 수많은 인민들이 여기로 찾아온다.

세계의 목소리

고전적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학습하고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은 완성된 세계관

마그시미나 갈시아 즈니가

저는 새로운 세계관,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창시하시고 인류의 철학사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옳바른 방도를 밝혀주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께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제가 문헌을 연구하여 깊이 간직하게 된것은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이야말로 세계관으로서 응당 담아야 할 모든 원리를 포괄한 완성된 세계관이라는것이다.

세계관의 사명은 사람의 운명 개척을 위한 방도를 밝히는것이며 그를 위해서 세계관은 응당 세계의 일반적특징과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명확히 하고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 철학적세계관은 주로 세계의 일반적특징을 규명하고 세계에 대한 견해를 확립하는데만 머물렀다.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은 물질세계의 일반적원리를 밝히는 원리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는 원리를 다 포괄하고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체의 세계관은 과거의 철학적원리가 가지고있었던 일면성을 극복하고 세계의 본질과 사람의 운명개척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규명을 준 철학적세계관이라고 할수 있다.

(뻬루 잉가갈시라소 데 라 베가대학 교수, 박사)





테마(죽마)

배리

3·1봉기의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귀에 쟁쟁하는것은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졌던 《조선독립 만세!》의 웨침소리와 함께 일제의 치떨리는 대중적학살만행으로 인한 아비규환, 죽음의 신음소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수원군 제암리 학살사건은 그 전형적실례이다. 1919년 4월 15일 제암리에 기여든 일제군대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 마을 주민들을 교회당에 모이게 하고 밖으로부터 문을 굳게 닫고는 교회당안에 총탄을 쏟아부었다. 한 녀성이 자기 아이를 창문으로 내밀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제발 살려주시오.》고 애타게 웨쳤으나 일제야수들은 그 아이를 총창으로 찔러죽였으며 시체와 부상자로 찼던 교회당과 그 주변의 집들을 마구 불살라버렸다.

▼이러한 잔인무도한 만행으로 제암리에서만도 300여명이, 수원군전역에서는 1천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학살당하였다. [illegible]

[illegible] 은 실로 4만 6,681명에 이르렀다.(박은식《한국독립운동지혈사》)

▼그후 일제가 강점기간 조선인민에 대하여 저지른 귀축같은 탄압, 고문, 학살만행과 강제련행, 랍치, 노예로동강요는 참으로 헤아릴수 없다. 해방후 일본당국은 이 천인공노할 죄행들에 대하여 우리 인민에게 사죄 한번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려 했고 남조선재침과 공화국적대시정책을 일관하여 추구해왔다.

▼그리하여 일본당국자들은 제암리학살사건을 방불케 하는 광주대학살의 장본인 전두환, 로태우역도들을 부추겨왔고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종 괴뢰도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의 공범자로 나섰다. 일본당국자들은 그 누구를 향해 《테로범행》이요 《제재》요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국제무대에 나가서까지 떠들기전에 저들의 《선배》와 남조선의 《모범적인 동반자》가 수없이 저지른 테로와 대량학살, 집단랍치에 대하여 [illegible]

목소리

조선과 여러 나라 사이에서

(의정서, 합의서 조인)

꾸 바 인 도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꾸바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위원회사이의 사업의정서가 얼마전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의정서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주현옥위원장과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 리까르도 단싸씨가스대사가 수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도공화국사이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합의서가 2월 17일 뉴델리에서 조인되였다.

우리 나라 무역부 리성록부부장과 인도상업성 비서 아이. 엔. 바르마가 합의서에 수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지역운동으로 꽃핀 조일녀성들의 우호

결성 10돐을 맞이한 도꾜 아라까와일조부인회의

일본과 조선의 우호를 바라며 도꾜도 아라까와구의 일조부인들의 호상 리해와 련대를 깊이자는 목적으로 조직된 아라까와일조부인회의가 결성 10돐을 맞이하여 축하모임을 가지였다.

2월 20일 저녁 회장인 산파르 아라까와에는 지역적인 범위에서 일조우호련대운동을 꾸준히 벌려온 일본녀성들과 동포녀성들 240명이 모여들었다.

남녀평등권발포 30돐을 맞는 녀성동맹지부의 축하모임에 참가한 그날부터 호상 련대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여 무어진 이 회는 10년동안 달에 한번 대표자들의 모임, 두달에 한번 정례회를 꼭꼭 진행해왔다.

까다로운 행사들을 조직하는것이 아니라 오락모임, 료리교실 등 녀성들이 즐기는 기획들을 짜고 회원들의 수준에 맞게 영화를 통한 정세학습 등을 진행하여 조선의 통일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학습하여왔다.

하나의 지향밑에 굳게 결속된 녀성들의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축하모임은 시종 열기로 들끓었다.

축하모임에서는 동 부인회의 모리야 도시꼬대표와 녀성동맹 아라까와지부 김옥선위원장, 녀성동맹 도꾜도본부 김정화위원장,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도꾜련락회 야마구찌 미야꼬대표, 아라까와구의회의원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2부에서는 녀성동맹 아라까와지부 녀성들의 노래,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학생들의 춤, 일본보육원 어린이들의 리듬체조, 일본녀성들의 민요와 춤이 피로되여 시종 흥성거렸으며 가수 신따니 노리꼬씨가 특별출연하여 모임을 한층 즐겁게 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의향으로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공화국에 대해 취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당장 걷어치울것 등 4가지 항목을 제기한 호소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아라까와일조부인회의 축하모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도꾜부인련락회도 학습

도꾜도하의 17개 일조부인단체를 망라하고있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도꾜부인련락회에서는 1월 30일에 100명규모의 신년회를 가진데 이어 2월 23일, 각 단체 대표들의 참가밑에 젠스이도회관에서 학습회를 조직하였다.

학습회는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일본정부와 보도계의 악선전에 추종하는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속에서 다시한번 자기들의 립장을 명확히 하자고 조직된것이다.

학습회에서는 평론가 나까가와 노부오씨가 《지금 〈한국〉은, 조선은, 일본은—남조선비행기사건과 로태우 새 〈정권〉 발족으로부터 생각하다》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의문점,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 남조선정세에 언급하면서 원점에 돌아서서 사물을 보아야 한다고 한 강사의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은 사건의 내용과 본질을 재정리하였다.

강연이 끝난후 도꾜련락회의 년간활동방향이 토의되였다.

새학년도 나머지 31일

가족모두가 참된 조선사람으로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에 편입한 리령희(초3), 리승희(초2)학생

《우리 학교가 정말 좋아요.》라고 입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리령희학생(초급부 3학년)과 리승희학생(초급부 2학년).

이 자매들은 작년 9월,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에 편입하였다.

여러 사정으로 하여 일본학교에 다니던 그들이였으나 총련과 녀성동맹 지부일군들 그리고 동포들의 꾸준한 권유와 도움으로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됐다.

《어려운 일도 많지만 본인들이 우리 학교가 좋다고 하니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사이좋게 우리 말 공부를 하는걸 보니 역시 조선사람은 조선학교에 다니는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고 감명깊이 이야기하는 김순례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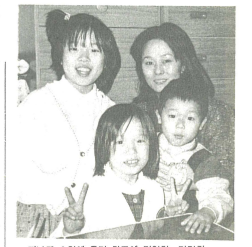
국어과목을 좋아하는 령희와 체육을 좋아하는 승희, 이제는 둘 다 우리 말로 진행되는 수업내용도 알아들으며 동무들과 잘 어울려 사이좋게 지낸다.

2학기에는 최우등생이 되였다.

보건관계의 사업으로 아이들과 언제나 같이 있지 못하긴 하나 어머니는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되여 이전보다 더 명랑하게 되였습니다. 나자신 동포학부형과의 사귐도 많아졌고 그들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아무 걱정없이 학교에 보내고있습니다.》고 말한다.

《어머니, 어머니》하고 졸라대는 어린 두명이 다음날에 있는 예술발표모임에서 피로할 노래와 춤을 어머니와 막내동생 앞에서 멋있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조선사람으로 떳떳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모습에 뜨거운것을 느꼈다고 한다.

《난 4학년생이 되면 무용소조에 들어가 장래는 무용수가 될래요.》하고 이야기하는 령희와 그옆에서 수집어하면서 웃는 승희 그리고 래년이면 우리 학교에 입학할 막내동생 기욱이. 온 가족의 얼굴에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랑의 빛이 넘쳐나고있었다.



지난해 9월에 우리 학교에 편입한 리령희, 리승희학생의 가족들

각지에서 내외반동들의 모략소동을 견결히 규탄

시즈오까

남조선려객기사건을 기화로 일본우익깡패들의 하마마쯔조선초중급학교와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위협행위가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월 22일, 총련본부 조귀련부위원장을 비롯한 본부대표들이 시즈오까현 경찰본부에 대한 항의요청행동을 벌리였다.

여기에는 일본사회당 시즈와 렌다로현의회의원을 비롯한 4명의 현의회의원이 동행하였다.

총련본부대표들은 현경본부 방범경라(防犯警邏)부장을 만나 사건에 대해 해설하고 요청문을 랑독한 다음 우익깡패들의 이러한 위협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했다.

대표들은 이날 현청기자구락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즈오까지국】

도찌기

총련 도찌기현본부 조길수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들은 지난 2월 23일, 도찌기현 경찰본부를 찾아가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련의 파괴, 협박 사건들을 엄격히 단속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사회당소속 현의회의원들 9명의 동행하에 현경당국을 찾아간 11명의 각급 기관 대표들은 최근시기 총련기관과 학교들에 협박전화가 빈번히 걸려오고있으며 전차간에서 《조선인은 당장 돌아가라》고 모욕을 당한 사실들에 언급하면서 이런 범죄행위는 반동들의 모략적인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과 관련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경찰당국이 조선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도찌기지국】

야마구찌

총련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지역상공회, 조은후원회, 시모노세끼조선청년상공인협의회의 주최로 지난 2월 20일, 시국강연회가 진행되였다.

시모노세끼시모루파레스에서 진행된 강연회에는 관하 일군들과 동포들, 각계각층 일본사람들 250여명이 참가하였다.

강연회에서는 잡지 《세까이》 야스에 료스께편집장이 《미제의 대남조선정책의 본질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 그는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미제의 대남조선정책의 본질과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 력대남조선괴뢰정권의 만행에 대해 력사적으로 해설분석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남조선비행기사건의 본질과 배경에 대해 언급한후 앞으로 일본이 조선문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를 들면서 제기를 하였다.

한편 이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야마구찌현민회의 제7차총회가 보쬬엥에서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주최자를 대표하여 아베 잇세이의장(야마구찌대학 교수)이 연설한데 이어 래빈으로 초대된 총련본부 엄장범위원장, 오자와 가쯔스께중의원의원이 각각 연설했다.

기조보고와 토론이 있은후 일본정부의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채택되였다. 【야마구찌지국】

나라

조청 나라현본부에서는 지난 2월 21일,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괴뢰도당의 모략책동과 이에 추종하여 공화국의 권위를 헐뜯는 기사를 게재한 신쬬샤에 대하여 항의하는 가두선전을 벌렸다.

이날 본부관하 많은 조청원들과 함께 현하 일본사회당, 부락해방동맹 청년부, 일조련대위원회의 일본청년들이 제이아르(JR), 김떼쯔 나라역두에서 8천장의 삐라를 뿌리였다.

또한 역두에서는 총련본부일군, 일조련대위원회 대표가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날조선전의 엄중성과 본질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나라지국】



시모노세끼에서 진행된 시국강연회

오까야마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오까야마현 부인의 회가 2월 21일, 녀성동맹본부와 부인의 회 주최로 총련본부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일본의 각 정당, 로조, 민주단체 등 각계 녀성들과 녀성동맹일군들 80여명이 참가했다.

모임에서는 총련본부 김봉근위원장이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모략소동의 진상과 배경 등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참가자들은 정세가 긴장될수록 우호련대를 더욱 강화하여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셔나갈 결의들을 가다듬었다. 【오까야마지국】

아이찌

일본부인유권자동맹 나고야지부는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선전물(회보 2월호)을 작성하여 모든 회원들과 광범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선전활동을 벌렸다.

선전물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수사결과》의 기만성과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보도하고있는 일본의 언론보도기관의 그릇된 자세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이른바 《제재조치》를 운운하고있는 일본정부의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부당성을 규탄하고있다.

한편 지난 2월 4일에는 젠덴쯔로조 도까이지방본부에서 약 100명의 로조원들이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학습회를 진행하여 내외반동들의 모략소동의 본질과 그의 정치적배경을 까밝혀 이를 규탄하였다. 【아이찌지국】

가고시마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가고시마현 부인의 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 역원회의를 가지고 일본정부가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걷어치우고 량국간의 우호관계를 개선하는데 힘쓸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가고시마지국】

도꾸시마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도꾸시마현 이께다위원회총회가 지난 2월 18일에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총련 도꾸시마현본부 김태규위원장이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본질과 진상》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일본정부의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이에 앞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도꾸시마현민회의에서는 16일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꾸며낸 자작자연극이며 국제적모략극이라는 내용의 삐라 3,000장을 도꾸시마역전에서 살포하였으며 12일에 자치로 도꾸시마현본부의 주최로 진행된 토론집회에서는 총련본부위원장의 강연이 있은 다음 일본정부에 보내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한편 세이부지구로 31차정기대회에서도 6일 일본정부에 보내는 항의문을 채택하였다. 【도꾸시마지국】

돗도리

돗도리현로동조합총평의회는 지난 2월 25일에 있은 제60차림시대회에서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하여 공화국에 대하여 취한 일본정부의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하였다. 【돗도리지국】

2월명절을 경축하는

쥬시고꾸지방초급부 축구대회

—히로시마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46돐을 축하하는 쥬시고꾸지방초급부축구대회가 지난 2월 21일에 히로시마에서 열리였다.

대회에는 히로시마제1, 오까야마, 구라시끼, 시고꾸, 시모노세끼 초급의 선수들, 일군들과 학부형들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선수들은 경기마다에서 일상시 련마해온 기술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백열전을 벌렸다.

긴장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열린 대회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모시고나갈 뜨거운 결의로 충만되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오까야마초급이 1위를 차지하였고 2위에는 히로시마제1초급이, 3위에는 시모노세끼초급이 각각 들어갔으며 10명의 선수들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되였다. 【히로시마제1초급】



일상시 련마해온 기술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

총련 기후현 세이노지부 사무소 새로 수축

총련 기후현 세이노지부사무소가 새로 수축됐다.

30여년간 쓰던 사무소를 《우리 힘으로 수축하자》고 관하 젊은 동포들이 중심이 되여 지난해 8월을 전후하여 수축사업이 진행되였다.

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관하 젊은 동포들이 애국사업의 거점을 훌륭히 마련해보자고 련일 열성껏 활동함으로써 막대한 금액을 모아 수축사업을 완료(지난해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46돐에 즈음하여 얼마전 수축축하모임이 진행되였는바 참가자들은 기쁨에 넘쳐 《면모를 훌륭히 바꾼 사무소를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고 말하면서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기후지국】

취재길에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자기의 과업으로 간주하는 동포녀성

~혹가이도 삿보로지부관하 최희순동포를 만나~

언제 멎을지 모르는 큰 눈이 오는 엄한의 땅, 혹가이도. 이곳 취재길에서 우리는 이번 남조선려객기사건의 본질을 까밝히기 위하여 모든 열성을 다하고있는 한 동포녀성을 만났다.

녀성동맹 혹가이도 삿보로지부 남분회 최희순위원, 다방을 경영하고있는 평범한 동포녀성이다.

그는 놈들이 각본대로 허위선전을 퍼뜨릴 때마다 분격을 누를길 없이 자신이 할수 있는껏 정치선전사업을 벌리고있었다.

《내 가슴속에 있는 그 분격을 누가 풀어주는것을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힘자라는껏 해야 한다고 맘먹었지요.》

그는 자료란 자료를 다 보고 리론적으로 무장하는 한편 다방에 오는 손님들에게 사건의 본질과 그 배후관계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려나갔다.

어느때는 혹가이도방송국의 한 역원이 점방을 찾아왔다. 그는 주인과 함께 새벽까지 그와 이야기하면서 끝내 납득시키고는 그 역원을 통하여 일본전국적으로 방영되고있는 방송프로앞으로 편지를 보내였다.

《나는 이번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한명의 조선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왔습니다.

나는 여러 방송보도를 들으면서, 또 자기자신 연구를 깊이면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자고 했고 그 과정에 이번 사건의 진실은 공화국이 어떻다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하여 꾸며진 날조극이란것을 확신하였습니다.

…

올해로 83살난 나의 아버지는 58년전에 헤여진 녀동생이 남조선에 있고 나의 언니가 되는 딸이 공화국에 있는 속에서 지금 페암으로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처럼 념원하던 통일된 조국도 못보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고향땅을 밟지도 못하고 이국의 이슬로 사라질것입니다.…

조국의 통일,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입니다 절대로 가로막을수는 없는것입니다.…

인도적인 립장에 서서 진실을 바로보고 나의 호소를 들어주실것을 마음속으로부터 부탁드립니다.》

그의 편지는 그대로 그의 마음의 호소였다.

또한 그것은 사건의 진상을 알려나가기 위해 가가호호를 돌아 삐라와 《조선시보》 호외를 뿌리는 한편 일본신문판매점에 가서 일본신문과 함께 1만 8천부에 달하는 《조선시보》 호외를 뿌려주도록 사업한 그의 열성의 발현이였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까밝히는가 어떤가는 우리 재일동포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 동포 한명한명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알려나가야 하지요.》

눈, 눈, 그 어디를 가나 은세계가 펼쳐지는 혹가이도. 여기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려나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있는 평범한 동포녀성인 최동포를 만난 우리는 동포들의 그처럼 높은 애국심이 있는 한 검은 막이 덮인 얼음벽은 산산쪼각이 날것이라는 확신을 얻을수가 있었다. (진상부)



간절한 념원을 담아 열성껏 편지를 쓰는 최희순동포

신상옥, 최은희 미중앙정보국의 추잡한 꼭두각시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의 광대놀음

신상옥, 최은희를 리용하여 미중앙정보국이 벌리는 악착스러운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기승을 부리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은 신상옥, 최은희를 손아귀에 거머쥐면서 괴뢰어용언론과 미, 일의 일부 언론을 리용하여 그들의 무슨 《수기》란것을 발표케 하는 등 극히 악랄한 방법으로 사실을 외곡날조하여 어떻게 하나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하며 내외여론을 기만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지난 1986년 3월 공화국과 합작영화를 제작하던 신상옥, 최은희를 손아귀에 거머쥔 미중앙정보국이 수년동안이나 그들을 리용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준비하여왔으며 저들이 꾸민 남조선려객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한 모략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허위기만의 모략선전을 대대적으로 감행해나서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공화국의 높은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헐뜯음으로써 로태우의 군정연장소동을 두둔하며 올림픽의 서울단독개최강행을 합리화해보려는 내외반동들의 또하나의 모략책동이다.

《랍치》운운은 새빨간 거짓말
영화제작은 자유의사에 따라

본거지는 오지리, 웽그리아
서방나라를 자유로이 래왕

우선 미중앙정보국에 롱락된 신상옥, 최은희가 70년대말에 공화국에 《랍치》되였다느니 뭐니 하고있는것부터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들이 공화국과 합작하여 영화를 제작하고있었던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로서 신상옥, 최은희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한것이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그들자신이 수차례에 걸치는 자본주의나라 언론인들과의 회견에서 명백히 밝힌바가 있다.

례컨대 그들은 1984년 4월 10일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일본의 《요미우리신붕》특파원과 만나 공화국과 합작영화를 만들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때 신상옥, 최은희는 《자유의사로 북조선을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이해 4월 2일에 괴뢰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랍치》운운한데 대하여 강력하게 반격하였다.

그들은 《우리 두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랍치되여 대남모략에 리용되고있다고 하는 남조선당국의 발표는 진실과 동떨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북이 마련하여준 칸바스에 우리들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자유로운 작가임에는 다름이 없다》(《요미우리신붕》 84년 4월 11일부)고 언명한것이다.

그들의 이 발언이 그 어떤 강요에 의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은 그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등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지어는 오지리, 서부독일 등 자본주의나라들까지 자유로이 오가면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던것을 보아도 명명백백하다.

뿐만아니라 《두명은 평양에 살고있었던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의 근거지는 웽그리아의 수도 부다페슈뜨와 오지리의 윈이였다》, 《행동반경은 넓어 유고, 체스꼬슬로벤스꼬, 쏘련의 공산권은 물론 런던영화제, 베를린영화제 등에 출석하고있을뿐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는 뮨헨에 촬영소를 설치하여 〈심청전〉의 제작에 들어가고 있었다》(《마이니찌신붕》 86년 3월 19일부)는 지적이 이를 더욱 명확히 증명해주고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저명한 영화인 그리고 남조선의 언론인들까지도 자유로이 만났었다.

그때 그들을 만난 일본의 한 영화인은 두명이 공화국과 합작영화를 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박정희대통령과도 친했던 그가 촬영소를 비롯한 자산을 정리하고 최은희씨와 함께 한국을 탈출한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독재정권이 ……에서 일어……없는 부패……문이였다고……리신붕》 8……일부)는 ……있다.

바로 이……공화국에 ……

자금횡취 노린 파렴치범
미정보기관의 감시하에서

미제침략군 야수들이
주민에게 또다시 집단폭행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포항에서

인민을 두려워하는자들의 망동
《로동신문》론평

급속히 퍼지는 《죽음의 병》인 에이즈병 환자가 련속 발견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이 그 원흉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2일 (음력 1월 14일) 수요일 【루계 제10147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130503(〒162)
〔日刊〕 月額 2,000円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책동과 모략소동을 견결히 규탄단죄한다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20여만명이란 력사상 최대규모의 대병력과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군사기자재를 투입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1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책동과 모략소동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총련중앙 한덕수의장과 리진규제1부의장이 리계백, 박재로, 서만술, 신상대, 배병두 부의장들, 권순휘사무총국장과 각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또지방 총련본부 책임일군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해 내외반동들이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긴장한 정세속에서 공화국을 과녁삼은 대규모의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아만 가고있다.

하여 이날 대회장은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민족적의분과 함께 내외반동들의 로골적인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짓부시고야말 불타는 결의를 안고 달려온 간또지방 동포들의 열기로 차넘쳤다.

대회는 《미제야 물러가라》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 박재로부의장이 연설을 하였다. (연설은 2면)

이어 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구보다 마나에참의원의원, 총평 미시마 시즈오 교육문화국장,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부인련락회 사무국장인 일본부인회의 시미즈 스미꼬의장들이 련대연설을 하였는바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고있는 시기 도발적인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견결히 규탄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함께 투쟁해나갈 의사를 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청 도꾜도본부 김경호위원장, 녀성동맹 산따마본부 강창희위원장, 상공련합회 김정수부회장들이 성토를 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들의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과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을 준렬히 규탄단죄하면서 전쟁연습의 즉시중지를 요구하며 공화국이 제기한 북남련석회의를 지지, 실현시키기 위한 일대 정치선전사업을 벌려 기어이 조국통일을 앞당기고야말 뜨거운 결의를 다지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들의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을 규탄하며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으로부터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사회주의조국의 권위를 옹호하고 총련조직을 지켜나가리라는 참가자들의 결의가 충만되는 가운데 대회는 《조선은 하나다》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대회가 끝난 뒤 기록영화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책동과 모략소동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3.1인민봉기 69돐 기념 평양시보고회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3.1인민봉기 69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2월 29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허정숙동지와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정신혁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덕신부위원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룡준부위원장을 비롯하여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이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같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류호준서기국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그는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분노와 울분의 폭발이였으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용감히 일어나 싸운 전인민적인 반일항쟁이였다고 지적하면서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희생도 무릅쓰고 용감히 일어나 싸우는 숭……

미행정부는 유골문제해결의 법적, 인도적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군사정전위원회 공화국측 수석위원이 미국측 수석위원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평양 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은 2월 16일 미국측 수석위원이 미군유골을 넘겨줄것을 요구해온것과 관련하여 1988년 2월 29일 미국측 수석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유골문제와 관련한 립장을 거듭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측이 우리를 걸고드는 편지를 보내온것은 유골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며 국제여론을 오도해보려는 부당한 처사에 불과하다.

돌려주는 문제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토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정전협정과 합의사항은 유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돌려준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유골을 발굴하는 사업과 발굴된 유골을 돌려주는 문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권능에 속하지 않는다.

유골문제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한것은 미행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화하며 응당 추진되여야 할 우리와의 그 어떠한 협상도 반대한데 있다.

우리의 해당부문이 1986년 2월에 제기한대로 ……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실무적협의를 진행하였더라면 유골문제는 벌써 해결되여있을것이다.

지어 미행정부는 지난해말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재향군인 조직들, 개별인사들의 부탁에 의하여 우리 해당부문에서 발굴해놓은 유골을 그들이 와서 받아갔는데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1월 3명의 미국회의원들이 판문점에 와서 유골을 인도인수하는데 참가하겠다고 한것을 고려하여 유골을 넘겨주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나 미행정부가 남조선괴뢰……사건을 조작하고 우리를 당치않게 걸고들면서 《제재조치》라는것을 취하는 한편 우리를 반대하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그것마저 실현될수 없게 하였다.

미행정부는 유골문제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하게 한 법적, 인도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측이 《비리성적》이니 《비인도적》이니 하면서 우리를 걸고든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미국측이 정전협정과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유골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군사정전위원회에만 계속 매여달리는것은 그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관심이 없다는것을 스스로 보여줄뿐이다. 미국측은 유골문제를 더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제기하지 말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미행정부에……

《정권》강도배의 인기전술
《로동신문》, 기만적인 《대사면》조치놀음을 규탄

【평양 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29일부 《로동신문》은 로태우일당의 이른바 《대사면》조치놀음을 론평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다. 죄없는 사람들을 불법무도하게 체포구금하고 ……놓으면서 《은전》이요 《관용》이요 하고 낡은 류성기만을 돌리며 《인도주의》의 너울을 써보려는것이야말로 위선과 기만에 찬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로태우일당이 이번에 내놓은 사람들은 대부분 ……

량심범의 전원석방 요구

서울에서 재야인사, 학생, 구속자가족들이 집회와 시위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가 성명 발표

재일교포정치범구원단체들이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재일교포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원단체 성원들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에서 한

총련중앙 박재로부의장의 연설

동포 여러분!

오늘은 조선인민이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거족적으로 싸운 3.1인민봉기 69주년기념일입니다.

우리들은 선렬들의 애국투쟁을 돌이켜보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악랄한 모략책동을 조작하며 새 전쟁 준비를 위해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치솟는 분격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지난 2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벌리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이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과 미국본토 및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7만여명과 남조선괴뢰군 13만여명, 도합 20여만의 대군을 동원한 최대규모의 전쟁연습입니다.

미제는 최근년간 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핵탄두를 발사할수 있는 각종 미싸일들을 비롯한 핵운반수단들을 투입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지휘를 전문으로 하는 전략사령부를 동원하고있으며 전면핵전쟁시에 미국대통령과 그의 군사보좌관들이 타고 지휘하는 공중핵지명기인 《이4비》까지 동원시키고있습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조선에서 핵전쟁을 가상한 핵예비전쟁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땅에 무려 1,000여개의 핵무기를 이미 끌어들이고있습니다.

남조선은 핵무기배비밀도에서 구라파의 나토지역보다 4배나 높으며 극동최대의 핵화약고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가 무엇때문에 남조선에 핵무기를 가져다놓고 공화국북반부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핵전쟁연습을 벌려야 한단 말입니까?

미국은 우리 조선으로부터 1만키로나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지구의 동쪽에 있는 우리 조선은 서반구에 있는 미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인민은 어느 한때도 미국의 리익을 침해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조선사람은 미국땅에 돌하나 던진 일도 없고 미국의 풀 한포기 해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방후 근 43년간 미국은 우리 강토 남녘땅을 점령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해왔습니다.

미제는 1958년 1월에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1976년부터는 매년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 실시해왔습니다.

미제가 핵전쟁을 도발하면 우리의 삼천리강토는 말 그대로 재더미로 되고말것입니다.

핵전쟁의 참화는 북과 남을 가리지 않을것입니다.

핵전쟁의 참화는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도 그 어떤 계층의 사람도 가리지 않을것입니다.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금수강산삼천리 자기 강토를 사랑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 어떻게 방관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존재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 다음에 사회제도와 주의주장을 가려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민족의 운명과 민족의 생존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화국정부는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두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최근년간만 하여도 공화국측에서는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제안들과 북과 남의 군사당국자회의를 가질데 대한 제안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들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북과 남의 무력을 축소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조선인민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10만명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들에 응하지 않고 금년에 또다시 《팀 스피리트 88》이라는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으니 이 어찌 용서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치솟는 의분으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규탄하며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소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미제는 모든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물러가야 합니다.

미제국주의는 우리 조선민족이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입니다.

이번의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도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공모하여 꾸며낸 모략극이라는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이 폭로되여가고있습니다.

2월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을 환영하여 차리신 연회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우리 공화국을 걸고드는 사건을 조작하고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비렬한 책동을 감행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각종 모략사건을 꾸며내여 반공화국소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위기를 수습하는데 리용하였습니다.

이번 려객기사건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6월항쟁에서 폭발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대통령선거》에서 로태우의 《당선》을 조작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꾸몄다는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려객기실종사건이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남조선괴뢰들이 자작자연한 모략극이라는것은 이미 폭로된 몇가지 사실만을 가지고써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우선 려객기가 실종하자마자 그 행방도 모르는 시점에서 즉시로 남조선괴뢰들은 《북의 소행》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미리 계획적으로 각본을 짜놓았다는것을 자체 폭로한것입니다.

지금까지 비행기의 잔해도, 탑승한 사람들의 시체도 그 어느 하나 발견되지 않고있으며 그것들을 찾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이 안다만바다에서 회수했다는 뽀트라는것도 실종된 비행기의것이 아니며 남조선괴뢰들이 가짜로 조작했다는것이 드러났습니다.

비행기의 폭약을 장치했다는자는 《에치107》이라고 불리우는 두명의 남조선의 《안기부》 요인이라는것도 밝혀졌습니다.

남조선괴뢰들은 아부다비에서 내린 남조선고관들의 이름을 일체 밝히지 않고있는데 이 가운데 진짜 폭약을 장치한 2명이 들어있기때문입니다.

남조선려객기의 승무원들이 말한바와 같이 《싱이찌》는 짐을 가지고있지 않았고 《마유미》는 쇼르다백 하나만을 가지고있었다는것도 명백히 되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들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마유미》의 《자백》이라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이 《마유미》의 중학생때의 사진문제와 관련해서 폭로되였습니다.

남조선괴뢰들은 《김현희》를 어떻게 하나 평양에서 자란 《북의 공작원》으로 날조하기 위해 그 녀자가 어릴 때인 지난 1972년 11월 2일, 북남조절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조선측 부위원장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고 하면서 3장의 사진을 뻔뻔스럽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거짓말이고 조작입니다.

총련중앙은 지난 2월 4일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꽃다발을 준 장소가 평양이 아니라 판문점이고 꽃다발을 받은 대상이 북남조절위원회대표가 아니라 북남적십자회담대표들이며 그 시기가 11월이 아니라 8월이며 평양의 중학생이 아니라 개성시내 만월중학교와 선죽중학교 학생들이라는것을 밝혔습니다.

총련중앙은 물적증거로서 남조선의 《동아일보》 1972년 8월 29일부와 《조선일보》 8월 30일부를 내놓았는데 이에 대하여 남조선괴뢰들은 지금까지 일언반구의 말도 못하고있습니다.

《마유미》의 이른바 《선서문》과 《자백서》라는것도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한 작문이라는것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속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고 남조선사람만이 쓰는 표기법이 160개이상이나 있습니다.

《마유미》의 자필이라고 하여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에 게재된 《선서문》에 남조선표기법 그대로인 《규율》이라고 했다가 지적당한후 다음날 조간신문들인 《한국일보》, 《조선일보》들에 《규률》자로 수정해서 발표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남조선신문인 《조선일보》마저도 1월 19일부 코람란에서 《…텔레비죤에 나온 김현희는 또박또박 서울표준어를 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마유미》의 《자백》이라는것이 아무런 신빙성이 없고 《안기부》가 써준 각본을 외워읽었다는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남조선의 여러개 대학들에서는 려객기실종사건이 로태우일파의 자작극이라는 큰 벽보가 수많이 나붙었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남조선괴뢰들이 꾸민 모략극의 내막을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뻔뻔스럽게도 이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외에 남조선괴뢰들을 두둔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안전보장리사회에서 그들의 책동은 실패하고말았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괴뢰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언제나 상투적으로 모략을 꾸며왔습니다.

《박정희저격사건》이 그랬고 《랑군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1972년 8월 23일, 실미도의 공군특수병 24명이 란동을 일으켜 서울로 공격해 들어갈 때 《북의 게릴라가 쳐들어왔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다.

《김대중랍치사건》때도 현장에 공화국제담배를 놓아두고 범행을 우리 나라에 덮어씌우려고 하였습니다.

1986년 9월에는 아세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이 크게 확대되자 《김포공항폭파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남조선《대통령선거》에서 로태우가 불리하게 되자 려객기실종사건의 모략을 꾸밈으로써 《선거》정세를 로태우에게 유리하게 역전시켰으며 《투표전날》에는 《마유미》를 서울로 끌고옴으로써 로태우의 득표에 리용하였습니다.

범죄라는것은 동기가 있는자가 저지르기마련입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며 올림픽공동주최의 실현을 위하여 1월 13일 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 정당, 사회단체련합회의를 열어 북남련석회의 준비회의를 가질데 대한 편지를 1월 14일 남조선측에 넘겼습니다.

우리측의 성의있는 이 제의는 내외여론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당황망조한 남조선괴뢰들은 1월 15일 그 무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동족간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참으로 로태우일당은 민족의 단합이나 조국의 통일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자들은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에 복무하며 북과 남사이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반공과 《안보》 소동을 벌리면서 군사파쑈정권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고있습니다.

나는 민족의 영구분렬을 획책하며 범죄적인 모략사건을 조작하여 저들의 집권야욕을 추구하는 로태우괴뢰도당을 민족반역자로 락인찍고 견결히 규탄단죄합니다.

2월 25일 남조선괴뢰들은 《대통령》감투를 전두환으로부터 로태우로 바꾸어쓰고 군부독재연장을 《합법화》하기 위한 《대통령취임식》놀음을 벌렸습니다.

로태우는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보통사람》운운의 허튼소리를 늘어놓고있으나 이자는 미제의 손때 묻은 특무이며 군사깡패의 두목입니다.

로태우역적은 박정희사살사건이후 모처럼 도래한 민주화에로의 《서울의 봄》을 압살한 장본인이며 전두환과 함께 《12.12쿠테타》를 일으키고 광주에서 동족을 대량학살한 원흉입니다.

로태우가 등장해도 남조선의 군사파쑈체제에는 아무것도 달라질것이 없습니다.

최근 로태우도당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치범들은 석방하지 않을뿐아니라 45명에 달하는 재일교포정치범들은 한사람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태우역도가 전두환과 다름없는 극악한 군사깡패분자라는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로태우의 집권을 반대하고 《로태우는 물러가라》고 요구하여 치렬한 시위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24일에는 남조선전역 66개소에서 반대 시위와 집회를 벌린데 이어 25일 당일에는 서울의 16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전주, 성남, 수원, 부산, 마산, 대구, 순천, 창원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들에서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대시위가 힘차게 전개되였습니다.

로태우도당은 그 어떤 잔꾀를 부려도 남조선인민들을 결코 속일수 없습니다.

6월항쟁에서 보여준 남조선인민들의 노도와 같은 그 투쟁의 힘은 로태우괴뢰도당을 반대배격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새로운 승리를 거두게 될것입니다.

나는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로태우도당의 군정연장책동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용감히 일떠서고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성원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반동지배층들이 남조선괴뢰들과 공모결탁하여 공화국과 총련을 적대시하는 부당한 정책을 추구하고있는데 대하여 분격을 금할수 없습니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일어나자 기다렸다는듯이 남조선괴뢰들의 모략책동을 뒤받침해나섰습니다.

일본당국은 일본려권의 소유자인 《마유미》를 국제법에 어긋나게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특히 남조선괴뢰들의 날조품인 《마유미》의 소위 《자백》과 관련하여 떠들고있는 일본인녀성운운의 광란적인 소동은 일본당국이 얼마나 악의에 찬 반공화국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마유미》의 《자백》이 거짓인데 《은혜》라는 녀자가 존재할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나라에는 일본에서 수십년 살았으며 일본풍속을 잘 아는 귀국동포가 근 10만이나 있습니다.

함께 귀국한 《일본인처》도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유미》에게 일본풍속을 가르치기 위하여 일본에서 일본녀성을 랍치해갔다는 이런 허황한 말을 그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란잡한 생활을 했다는 녀자가 하물며 조선말도 모르면서 대학을 졸업한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양했다는 이런 엉터리소리는 도저히 리치에 맞지 않는것입니다.

지금 일본당국이 일본에서 행방불명이 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마저 우리와 결부시키려고 하며 수백만장의 포스터까지 붙이고 소동을 벌리고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용인할수 없는 부당한 책동입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 각지에서는 우익깡패들과 반동분자들에 의한 총련기관과 산하단체들에 대한 파괴협박, 폭언 등의 망동행위가 련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지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들이 빈발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당국은 이번의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이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입니다.

일본정부는 《남조선일변도정책》을 실시하고 36년간 조선에 대한 식민지략탈정책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사죄도 없고 한푼의 보상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본당국은 이번에 일본에 온 우리 나라 무역선 《만경봉》호의 선장이 요꼬하마부두에 한발자국 내려 꽃다발을 받는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선박을 방문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보일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재일동포들을 모독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못할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차별적조치들을 즉시 중지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과 제반 합법적권리를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포 여러분!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결탁한 모략책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내외원쑤들은 자주의 길로 확고히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공화국의 위신이 높을수록 그를 헐뜯기 위하여 지난 40년간 온갖 모략과 방해 책동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총련조직에 굳게 단결된 재일동포들의 힘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언제나 총련을 파괴와해하기 위하여 날뛰여왔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이 창건된후 40년간 우리들은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을 그때마다 짓부시고 승리하며 전진해왔습니다.

해방후 오늘까지 일본반동들은 우리들의 권리를 스스로 보장해준적은 단 한번도 없고 언제나 침해하고 탄압을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박차고 굳건히 제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1948년 미제점령군이 《비상사태》까지 선언하고 우리 학생을 쏘아죽이고 우리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고 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그에 대항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승리했습니다.

반동들이 《외국인재산취득령》을 만들어 우리 동포들의 부동산을 몰수하려고 하였을 때에도 우리들은 전동포적인 투쟁을 벌려 저지했습니다.

엄혹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 사람들이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던 그 시기에도 우리는 신심을 잃지 않고 조국을 옹호하여 투쟁하였으며 마침내 조선인민은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반동들이 우리 동포들을 일본렬도안에 수용소와 같은 형태로 가두어두려고 했을 때도 우리는 싸워서 귀국의 권리를 쟁취하고 조국에로의 왕래의 권리, 제3국에로의 려행의 자유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괴뢰《한국국적》을 강요하려 하였을 때에도 단결된 투쟁으로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거주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우리들은 일본당국의 거듭되는 박해와 탄압정책을 물리치고 악명높은 《외국인학교법안》과 《외국인출입국관리법안》을 몇번이나 폐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일본당국의 끊임없는 차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동포들의 생활권과 상공인들의 기업권을 튼튼히 지키고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민족적긍지를 안고 당당히 전진하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총련은 적들의 모략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포들은 물론 광범한 일본인민들과 세계사람들이 이번 모략사건의 진상과 그 본질을 점차 정확히 알게 되였으며 우리에 대한 지지운동이 확대되여나가고있습니다.

내외원쑤들의 어떠한 모략과 파괴 책동도 우리의 단결된 힘을 깨뜨릴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전체 재일동포들은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옹호보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합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합동군사연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합시다.

우리는 민족간의 화합과 단합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북남련석회의를 열렬히 지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핵전쟁준비와 모략소동을 폭로하는 대내외선전해설사업들을 더욱 광범히 벌려야 합니다.

전체 재일동포들은 총련조직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인권, 기업권, 생활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들을 더욱 튼튼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총련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더욱 빛나게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재일동포들은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계속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는 대회참가자들

첫째도 둘째도 분회와 동포들 속으로!

총련 아이찌현본부관하 전임일군들

《1만호방문담화운동》을 성과적으로 벌리자

총련 아이찌현본부는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지난 2월 17일부터 《1만호방문담화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1만호방문담화운동》은 메이쮸, 메이낭지부를 비롯한 모든 지부관하 분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앙으로부터 지부에 이르는 총련의 각급 조직 일군들은 분회에 내려가 분회위원들과 선전원들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곳 본부는 지난 시기 사업경험으로부터 분회는 우리 동포들의 기본생활거점이며 분회가 움직여야 총련사업전반이 활성화된다는 인식밑에 이 운동을 통하여 분회를 요구성에 맞게 더욱 강화할것을 예견하고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서 1.4분기내에 총련회원들을 다지는 사업에 힘을 기울여 그를 계기로 모든 분회들에서 위원회, 학습반을 정상화하여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궐기해 나서도록 한다는것이다.

본부는 《1만호방문담화운동》을 벌리는데 앞서 2월 10일에 전임일군들에 의한 분회담당소조원들의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는 총련 본부와 지부, 각 단체, 사업체 일군들과 교원들이 참가했다.

분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 더군다나 오늘과 같은 긴장된 정세속에서 내외반동들의 모략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총련사업에서 전진을 가져오는데서 분회담당소조원들의 역할은 자못 중요하다.

그들이 어떤 곤난이라도 맞받아나가 분회방조사업을 자신의 본신임무로 여겨 분회장, 부분회장, 위원들의 일을 진심으로 도울 때 반드시 은을 내는 법이다.

이날 모임을 계기로 일군들은 분회담당소조원된 자각,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분회담당자들은 이 기간에 3명이상의 동포들과 사업을 하여 그들을 군중핵심으로 키우는 사업 등을 짜고들어 본부관하 모든 분회를 활성화하자고 나섰다.

총련본부 강윤경위원장은 새 결의를 가다듬는 분회담당자들에게 총련지부와의 련계를 깊이면서 분회를 활성화하는 첫 공정인 분회 위원회, 학습반을 잘 지도하여 5호담당선전원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동포상공인들을 분회의 주인으로 적극 내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긴장된 정세속에서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들을 묶어세우자고 호소하였다.

분회담당소조원들은 자기앞에 부과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올해 6가지 주력과업과 8가지 주요목표를 8월말까지 수행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할 기세에 넘치고있다.



총련 아이찌현본부관하 일군들은 《1만호방문담화운동》을 힘차게 벌려 동포들을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로 추동하고있다.

지난해경험을 살리는 총련 메이또지부

총련 메이또지부관하 분회담당소조원들은 본부의 호소에 호응하여 곧 분회에 내려가 분회위원회를 가지였다.

이곳 지부는 지난해 각 분회의 실정에 맞게 담당자를 설정하고 그들이 부분회장을 겸하면서 분회장, 부분회장들의 사업을 돕게 함으로써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지부에서는 지난해의 귀중한 경험을 살려 담당자들의 분공을 기본적으로 바꿈이 없이 거주분회에 고정화함으로써 당면하여 분회 위원회와 학습반의 정상화에 힘을 돌리도록 했다.

총련 야스이분회에 거주하는 총련본부 강윤경위원장은 총련, 녀성동맹 분회 위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올해 총련의 운동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지금 동포들속에서 큰 관심사로 되고있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에 대한 배경을 분회위원들에게 해설하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공화국과 총련조직에 뭉쳐야만 일본에서도 떳떳이 살아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총련분회 김쌍대분회장은 《반동들의 모략이 우심해질수록 분회위원들이 합심하여 동포들과 발맞추어 분회앞에 제기된 애국과업을 꼭 수행해나갑시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분회담당소조원들이 사업을 적극 벌린 결과 총련 야스이분회에서만이 아니라 이곳 지부관하 8개의 모든 분회들에서 2월명절경축모임을 성대히 가지게 되였다.

총련 메이또지부관하 분회담당소조원들은 《1만호방문담화운동》을 벌리는것과 동시에 《우리 말을 배우고 쓰기 위한 8개월운동》이 진행되는것과 관련하여 분회장, 부분회장들이 우리 말과 글을 쓸수 있도록 적극 방조하며 지부관하 학교와 조은지점에 우리 말 교실을 내와 이 운동을 적극 일반화해나갈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또한 젊은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벌려 그들을 분회의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30대의 젊은 분회위원들을 더 많이 육성해나간다.

분회담당소조원들은 당면하여 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감행되는 괴뢰도당들의 《고향방문》책동을 분쇄하고 분회조직을 튼튼히 꾸려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궐기해나설 집중방조사업을 벌리고있다.

※　※

《첫째도 둘째도 올해를 군중로선관철의 해로 하자!》

총련 아이찌현본부 분회담당소조원들은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분회활성화의 구체적성과로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내이자

총련 교또부본부 분회담당소조원들의 모임

조성된 정세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분회담당소조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분회를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하여 총련 교또부본부에서는 2월 19일, 분회담당소조원들의 모임을 본부회관에서 진행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본부 신중학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분회활성화에서의 담당소조원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지적한 다음 지난해 보다 튼튼히 꾸려진 분회들과 그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동포들의 이러한 기세를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분회담당소조원들이 분회위원들과 합심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때에만 분회를 활성화하는데서 성과와 전진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소조원들이 누가 보건말건 자기 맡은바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동포대중을 명실공히 분회사업의 주인으로 내세우며 애국과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에 이어 총련 니시징지부 박정호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분회담당소조원들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분회와 동포들 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여 분회조직을 활성화한 구체적인 사업성과로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모든 소조원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분회조직을 그 어느때보다 활성화하여 총련애국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결의를 다지고있었다.



모임에 참가한 소조원들은 분회조직을 활성화하여 총련애국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올해사업의 첫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50일간집중행동》 전개

총련 홋가이도본부

《모든 일군들이 분회와 동포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사업하자!》

총련 홋가이도본부에서는 독자적인 《50일간집중행동》(2월 10일~3월 31일)을 힘차게 조직전개하고있다.

본부는 4월명절과 2월명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사업을 다채롭게 진행하여 그 과정을 통해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또한 조국통일, 대내외 정치선전 사업을 힘있게 벌려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공화국의 새로운 구국방안을 적극 해설선전하며 특히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날날이 폭로분쇄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2월명절과 관련하여 각 지부와 기관 단위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덕성실기 《숭고한 뜻》에 대한 집체독보를 하는 한편 동포들에 대한 사상동원사업을 적극 벌림으로써 2월 15일에 도적인 경축모임이 성대히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각 지부와 분회에서도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진행되였다.

총련 하꼬다떼지부에서 일본사람들과 함께 경축모임을 가지는 등 2월명절을 경축하는 모임에 수많은 동포들과 일본사람들이 참가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의 본질을 까밝히기 위하여 본부는 총련동포 100%에 대한 전호방문운동을 적극 벌리면서 민단, 미조직 동포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 특히는 수차례에 걸친 대외정치선전사업을 통하여 5만 5천장에 달하는 《조선시보》 호외를 뿌리였다.

이런 사업들과 함께 학생받아들이는 사업목표를 120%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과 입학원서접수자를 다지는 사업, 《세금신고》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본부는 올해 총련의 6가지 주력과업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워진 목표와 행동계획에 따라 분회와 동포들 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고있다.

이번 《50일간집중행동》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본부는 5호담당선전원체계와 분회담당소조원체계를 재정비하고있다.

또한 총련 삿보로지부에 대한 집중방조사업을 벌리고있는바 본부와 지부, 단체, 사업체 일군들이 2인1조가 되여 분회를 고정 담당하면서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사업의 돌파구를 이번 집중행동기간에 기어이 열어제끼고야말 일념으로 사업을 힘차게 조직전개하고있다.



《50일간집중행동》을 힘차게 조직전개하고 있는 총련 홋가이도본부관하 일군들

분회담당소조사업을 힘차게 벌린다

~800개 조를 무어~

총련 후꾸오까현본부

총련 후꾸오까현본부에서는 오늘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폭로분쇄하는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계속 심화하면서 관하동포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본부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는 구호에 따라 분회담당소조사업과 동포방문의 계획을 내놓았는바 총련에서는 2인조, 3인조를 700개~800개 구성하여 전호방문사업의 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각 지부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분회담당자, 소조원모임을 진행하고 2월명절경축사업과 제반 분회운동을 안받침하기 위한 실천사업에로 나섰다.

2월에만 하여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 46돐을 계기로 모든 지역과 단위에서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실질적으로 궐기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는 정치선전사업을 호별방문, 해설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각 단체와 사업체들의 사업실천도 다양하다.

상공회와 조은에서는 2월명절을 기념하여 기다큐슈지역 젊은 상공인들의 강연의 밤을 진행(13일)하였고 또 《세금신고》에 종래보다 많은 동포상공인들이 오도록 선전을 하여 8일부터 지역상공회별로 창구를 열었다.

녀성동맹에서도 400명으로 150개 조를 무어 녀성들에 대한 방문담화사업을 벌리고있다.

긴장된 정세하에서 이곳 본부에서는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다지는 사업에 많은 힘을 돌리고있다.

2월 13일이후 각 학교의 교원들을 중심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한 동포대상에 대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오늘 담당소조사업의 작용으로 각 분회에서 위원회와 학습반이 정상화되여가고있으며 5호담당선전원의 활동도 시작되였다.

고베동포등산모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46돐을 경축하는 고베시내 동포들의 등산모임이 지난 2월 21일에 진행되였다.

이날 모임에는 일상적으로 등산활동을 하고있는 동포애호가들을 비롯한 동포가족들 50여명이 참가하였다.

찬바람이 불며 때로는 눈이 내리는 속에서 신고베역을 출발한 일행은 이날 롯고산의 산길을 거쳐 이찌가하라, 시오가하라부터 모도마찌에 이르는 약 12키로메터의 로정을 힘있게 걸었다.

점심시간에는 시오가하라에서 불고기모임을 가지고 흥겨운 한때를 보낸 참가자들은 동포애 흘러넘치는 교류를 통하여 친목과 뉴대를 더욱 깊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올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심을 한층 높여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모략책동을 짓부셔나가기 위하여 튼튼한 몸과 굳센 의지를 키울것과 총련애국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것을 굳게 결의다지였다.

【효고체협】



등산모임에 참가한 고베동포들

조청 아이찌현 가모지부에서

(조청원들의 결의모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 46돐을 관하청년들이 충성의 결의를 새로이 다지게 하는 마당으로 하자는 취지밑에 조청 아이찌현 가모지부에서는 지난 2월 24일에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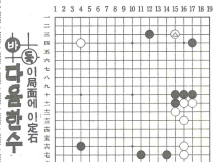
경축일색으로 단장된 지부사무소 강당에는 관하 조청원들(40명)과 관계자들 모두 60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지부 정덕렬부부장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나가는 길만이 참된 삶의 길, 애국의 길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조청 니시야마반 리철훈반장, 후까다반 리정욱부반장이 내외반동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반공화국모략에 미쳐날뛰고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은 더 굳건해질뿐이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그이의 위대성을 적극 해설선전해나갈것이라고 결의다졌다.

【조청 가모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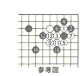
바둑 이局面에 이定石 다음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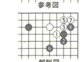
白先手

右上隅 白△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局面인데 **参考図**처럼 三々에 붙어가는 수가 일반적인 定石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右辺에 黒의 벽이 기다리고있는 상황에서는 黒14까지 로골적으로 공격해올수도 있는것입니다.

이럴 때는 **解説図**처럼 白1에 마늘모(尖)붙임해서 먼저 安定시켜야 할것입니다. 黒2때에 3으로 뻗친 경우의 응수는 다음번에.



参考図



解説図



남조선괴뢰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요원과 미국 씨.아이.에이 요원들의 빈틈없는 감시를 당했다는 《마유미》와 《싱이찌》는 폭약을 장치할수가 없다.



아부다비에서 남조선고관 여러명이 어째서 내렸는가? 또 그 사실은 왜 공개안되였는가?



《마유미》는 폭발물을 비행기안의 객실선반우에 놓아두고 아부다비에서 비행기를 내렸다고 하는데 기내의 검사와 청소를 했을때 어찌하여 발견되지 않았는가.



범죄에는 동기가 있는 법. 이번 사건으로 최대의 수익자가 된것은 남조선괴뢰도당. 그들에게만 이번 사건에 의미가 있고 리해관계가 있다.

만화로 보는 《마유미》의 새빨간 거짓말



두부 하나와 술 한병정도의 폭약으로써는 비행기를 순식간에 산산쪼각내지 못한다. 그러면 어째서 긴급발신을 못했는가?



《마유미》의 자필이라는 《맹세문》과 《자술서》도 《안기부》가 꾸며낸 엉터리작문. 어리석게도 무려 160개소나 남조선식표기가 있는판. 특히 《규률》을 《규율》이라 표기하다가 후에 다시 《규률》로 고쳐 신문을 찍은것은 이 작문들의 허위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으로 되였다.



남조선괴뢰당국이 유일한 《물적증거》로 내놓은 3장의 사진은 엉터리. 시간, 장소, 꽃다발을 준 학생의 학교명이 사실과 안맞으며 사진에 찍힌 소녀는 《마유미》가 아니다.



《마유미》는 독약을 안마셨다. 기자회견은 연출. 억양은 평양사람의것이 아니였다. 총지휘를 한것은 바로 미국놈이다.

학생작품현상모집 추적 수상자들은 지금 (하)


한순애학생

삶의 뚜렷한 목표를 안고

조대생

조선대학교는 꿈많은 청년들이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한껏 키우는 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이다.

현재 사범교육학부에서 배우는 한순애학생은 현상모집에 응모할 때마다 우수한 성적을 올려 관계자들의 이목을 끈 학생들중의 한사람이다.

5차때 중급부 운문부문에서 1등, 산문부문에서 3등, 7차때 고급부 운문부문에서 가작, 8차때 고급부 운문부문에서 1등을 탔다. 그의 일련의 작품들의 특성은 할머니, 아버지 등 육친을 다룬 작품이 많은것이다.

그가 자라온 생활경위를 들으니 그런 사정에 납득이 갔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돌잔치의 전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교원생활도중에 갑자기 서거한 아버지의 뜻은 교원근속 10년에 제하여 받은 시계를 통해 딸의 가슴에 언제나 살아있었다. 그 심정을 담은것이 시 《아버지의 시계》였다. 또한 고3때에는 3살때부터 자기를 애지중지 키워준 할머니의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심정을 《할머니의 눈물》이란 시에 담았다.

《조직이란 큰 집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교원이 되고싶다는 희망은 있었는데 민족교육의 혜택을 받고 자라나는 과정에 그 결의가 확고해졌습니다. 또 그 길만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에는 교문을 나서게 되는 그는 모교에서 교편을 잡아 자기가 이제까지 만난 스승들처럼 민족교육의 혜택을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넘겨주고싶다고 말한다.

《입선작품집 〈꽃송이〉에 실리는 학생들을 많이 키우고싶습니다.》

아직은 애티어린 그의 얼굴도 굳은 결의의 빛이 어려 눈부시기만 했다.

문학부 3반에서 배우는 김영희, 류순희학생들은 7차때 산문과 운문 부문에서 각각 1등을 탔다.

김학생은 홋가이도의 왓가나이출신. 어려서부터 기숙사에서 생활했을뿐아니라 홋가이도초중고 고급부의 제1기생으로 하급생들을 돌보고 학교생활을 꾸리는데서 앞장에 섰다. 그런 그는 기숙사생활에서 있은 일을 《회답편지》란 글에 담았다. 그때 1등을 탄것도 기뻤지만 이번 10차때에 남동생이 고급부 산문부문에서 3등에 입선한 기쁨이 각별했다고 한다.

《동생을 보니 피줄이 느껴지고 동포들의 넋이 우리 형제의 가슴에 면면히 이어지고있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애국적인 부모의 슬하에서 7명의 형제중 6명이 기숙사생활을 하고있다는 그의 가정은 좋은 글을 낳는 바탕을 안고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류순희학생은 오래동안 총련일군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뜻을 이을 절절한 심정을 시에 담았다.

《당선을 바라고 쓴 글이 아니라 실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긴 저의 〈기록〉입니다. 그러기에 작품은 다만 시로 그치지 않고 그 결의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교육사업에 헌신하신 아버지의 대를 이을 결의는 날로 굳어져만 간다.

두 학생은 모교에 돌아가 국어교원이 될것을 희망하고있다.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것은 《자기이다》 하는 사명감이 그들에게서 강하게 느껴졌다.


류순희(왼쪽), 김영희학생

이번에 취재한 수상자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련재가 시작되여 며칠이 지난 어느날, 시가조선초중급학교의 리강석교원으로부터 우리에게 한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편지는 학생작품현상모집 수상자들이 총련의 어엿한 일군으로 활동하고있는 모습을 추적한 기사가 《민족교육의 한모퉁이를 담당하는 교육일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고 하면서 바로 시가초중에도 그런 수상자가 있다고 소개해주었다.

수상자는 현재 중급부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리향임교원.

어릴 때부터 글짓기를 즐긴 그는 고급부 3학년때 제2차현상모집에 응모하여 산문부문에서 수필 《참된 삶의 길》이 2등, 운문부문에서 《하나의 가족》이 가작에 입선했다.

교원단기양성반을 거쳐 모교인 시가초중에 돌아온 그는 1980년부터 초급부교원으로, 재작년부터는 중급부 국어교원으로 사업하고있는바 9차때에는 중급부 산문부문 1등, 10차때에는 중급부 운문부문 가작에 학생들을 련속 입선시켰다.

《수상자가 또 수상자를 낳고있는 이 사실을 널리 소개해주기 바란다》고 맺은 편지를 읽으니 우리가 더 많은곳을 찾아가지 못한 송구스러운 생각이 간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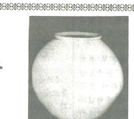
앞으로 현상모집을 통해 자란 귀중한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여 새로운 집필자들을 많이 만들어 《조선신보》지면에 소개해나가는것으로 그를 대행하려고 한다. (강)


리향임교원과 학생들

조선다운 자질과 민족적 색채로 장식된 민족미술

리조도자기전람회를 보고

최 양


백자항아리(전람회와는 관계없음)

지난해 11월경이였다고 생각된다. 오사까에 있는 이름난 동양도자기를 전문으로 소장한 미술관이 리조시대의 도자기를 모아 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전람회는 아주 성대히 진행되였는바 나도 도꾜에서 보러 갔다.

전시된 작품은 134점인데 하나하나가 뛰여나게 우수한 작품들이였다.

사람들은 우선 도자기가 갖는 촉감(살에 닿는 느낌)의 아름다움에 끌린다.

그 촉감은 도자기의 재질에 따라 혹은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 거칠기도 하고 갓난애의 살갗처럼 미끄럽기도 한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회장의 광선을 받아 거기서 뿌려지는 빛은 파도처럼 설레여 미묘하고 힘있는 광채를 뿜는다.

또한 그 아름다움은 색채속에도 있었다. 도대체 이 리조자기에 나타난 색은 어떻게 만들어진것일가. 례컨대 백자(白磁)에서 찾아보는 흰색이다. 흰색은 경험적으로는 무색인데 여기서 찾아보는 흰색에는 색이 있고 그것은 무수한 흰색이다. 말하자면 여기에 전시된 백자의 수만큼 흰색이 있는것이다.

그러기에 그 흰색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조선사람만이 느껴지는 조선적인 흰색일것인가.

조선사람은 원래 결백한 민족이다. 그러기에 흰색을 사랑하고 흰색을 즐기였다. 례컨대 호화현란한 붉은 그림(赤絵)의 기법이 14세기경 중국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삽시에 일본을 비롯한 중국의 이웃나라들에 파급되였다. 그러나 유독 조선만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왜인가. 그 리유는 색에 있었다. 조선사람은 붉은 그림의 경우 그것을 씀으로써 일어나는 색의 어지러움이나 박락(剝落), 그 결과로서의 더러움을 싫어한것이다. 그것은 흰색의 청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경적으로 참을수 없는것이였다.

또한 리조시대의 《도공(陶工)들의 손》은 얼마나 굵고 든든하고 대담했을가. 그 《도공들의 손》의 대담성, 건장함은 그들이 만들어낸 도자기의 형태속에 나타나고있다.

례컨대 구라파적인 아름다움이 완전성과 조화(꼭 그렇지는 않지만)의 추구에 있다면 여기에 전시된 아름다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불협화(不協和)의 아름다움이고 조화적인 법칙을 초월한 이형(異形)의 아름다움이다. 여기에는 형태가 있으면서 없는것이다.

사람은 그 본성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형태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조화를 찾는데 여기에 있는 형태는 전혀 그것과는 판이한것이다. 여기에 있는것은 불안정하고 불협화적이고 구부러진 말하자면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한 아름다움이다.

그것은 찌그러진 원형, 타원형, 단형(短形) 속에, 목이 구부러진 그릇속에, 안전성을 상실한 장식물속에 표현돼있는것이다.

한 이름난 미술가가 매개 민족이 그 미술사에 있어서 다른 시대에 비해 그 민족적특성을 두드러지게 발휘할 때가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있는데 리조시대의 뛰여나고 개성적인 도자기는 우리 나라의 오랜 도자기의 력사속에서도 가장 조선다운 자질과 민족적색채로 장식된, 바로 조선의 전시대를 통한 민족미술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였을가.

여기에 리조자기의 높이가 있고 국제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으로 된 리유가 있다. 그리고 례컨대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이 일부의 일본사람들속에서 《쟈왕(茶碗)전쟁》이라 불리우는 유래가 있었던것이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開拓の実績土台に 一層の進展図る

祖国との合弁推進のための同胞商工人たちの集い

祖国との合弁推進のための同胞商工人たちの集いが去る二月二十七日、熱海・金城館で開かれた。これは合弁事業発展についての金日成主席の指導に基づき、祖国との合弁事業をより進展させようとの目的で行われたもの。集いでは事業報告、経験談、まとめ、そして合弁に関する展示室とビデオ上映、祝賀宴など、多彩な企画で進められ、参加者らの好評を博した。


参加者らは2年間の活動を振り返り、合弁事業をより発展させる決意を新たにした

午後三時の開会を前に会場には、各地の総聯合弁事業推進委員会の理事と、合弁を手がけている同胞商工人、関係者ら百三十人が詰めかけた。

集いには総聯中央・李珍珪第一副議長をはじめ申相大、全演植の各副議長、姜宅中経済局長、商工連・李鍾泰会長、崔一洙理事長、各地の県商工会会長らが参席した。

はじめに、朝鮮国際合弁総社など、祖国の合弁会社から送られて来た祝電が紹介された。

続いて理事報告を行った合弁事業推進委員会の全演植会長は、「金日成主席を接見し合弁事業の指導を受けた二年前のその日が、昨日のようによみがえる」と心境を語りながら、合弁事業の発展経緯とその成果、経験、今後の課題について言及した。

一九八六年六月に発足された合弁事業研究会の活動と、以後の総聯合弁事業推進委員会への発展的改編、朝鮮国際合弁総社の創立と二回にわたる理事会、共和国の経済代表団の訪日と総聯経済代表団の祖国訪問、日本の技術者との技術交流、そして各地でのさまざまな取り組みなど、短期間ではあったが積極的に活動が展開され、契約、合意書交換など数十件の合弁対象が具体化された。

そして報告では、未経験であった合弁事業の新しい道のりを一つずつ開拓して来たその実績を土台に、一層の進展へと全力を尽くすことが強調された。

報告の後、三人の経験談が披露された。

三多摩商工会・金重権会長、有限会社・パコの洪永浩総務部長、モランボン株式会社・海外事業部の権琮基部長らの経験談は、その内容はもちろん、ビデオ、音楽の演出効果も手伝って参加者らに感銘を与えた。

集いのまとめを総聯中央・李珍珪第一副議長が行った。

この日集いに先立ち、ビデオ「合弁事業の二年間の軌跡」が上映され、金剛山歌劇団の公演が披露された二部の祝賀宴でも、初めと終わりに「社会主義祖国との合弁」と題するビデオが上映された。

また、各合弁会社の生産品と、合弁の歩みや会社紹介の写真が展示され、参加者らの大きな関心を呼んだ。

平壌シルク合弁会社の鄭東善理事長は「糸生産に続き、この秋に向けて生地生産に拍車をかける」と語った。昆布を取り扱っている下関商工会・金義明会長も「第三国への加工品販売を計画中」と展望について一言。また、平壌甘栗・永興堂の李永三社長も「祖国での甘栗研究所建設を急ピッチで進めている」と、情況を語っていた。


会場には各種の合弁生産品が展示され、参加者らの関心を引いた

発展のカギは責任感と役割

総聯中央 李珍珪第一副議長のまとめ（要旨）

過ぐる期間、合弁事業では貴重な経験が積み重ねられ、大きな前進がありました。合弁事業推進委員会が発足し、短期間にもかかわらず多くの仕事をこなしてきました。

各地で合弁事業の目的と意義、可能性と展望などについての講演会や懇談会が行われ、多くの同胞商工人が合弁の目的で祖国を訪れたし、また、共和国の代表団と日本の技術者たちも互いに往来して、技術交流を深めました。

その結果、数十件の合弁対象が具体化され、生産、販売を始めた分野も出てきました。

初めての経験という大きなハンディを背負いながらも皆さんは、新しい道を切り開く開拓者としての自負と責任感を持って困難を乗り越えてきました。

そして今日、二世、三世の若い商工人たちも自己の企業発展とともに、代を継いで社会主義建設に寄与する熱い思いを抱いて合弁事業に参加しており、総聯三多摩、山口県本部では、機関的な取り組みでこの事業を進めています。

金日成主席と金正日書記が在日朝鮮商工人たちに祖国との合弁の道を開き、その進展のため諸般の条件を整えるように処置してくれたがゆえに、私たちはたとえ未経験の道ではあるが、このように誇りを持って着実に事業を発展させているのです。

祖国との合弁事業は総聯事業の変化した環境と時代の流れや、在日同胞商工人らの立地条件をより良くする要求性からも必ず成功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愛国活動です。

その政策的要求を深く把握して、私たちは合弁事業を幅広く、堅実に推し進めていかねばなりません。

なによりもまず、朝鮮国際合弁総社第二回理事会の討議決定の遂行に、全力を挙げて取り組まねばなりません。

そのためにも、合弁事業を県本部と県商工会が討議、掌握して、機関化、大衆化することが大事です。

商工連合会と合弁事業推進委員会の機能アップを図るのはもとより、合弁事業に携わる担当者らの責任感と役割を一層高めましょう。

私は、意義深い今年、皆さんが合弁事業を大きく前進させてくれることを確信します。

インタビュー

"実感する年" 2年の実績自信とし

ひたすらに道なき道を開拓す

金日成主席を接見し、合弁事業についての指導（教示）を受けて満二年。短期間ではあるが、祖国との合弁事業は同胞商工人らの意欲的な取り組みにより、着実な進展を見せている。そのけん引車的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総聯合弁事業推進委員会の呂成根、全鎮植両副会長に、現在の心境や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聞いてみた。

◇

―主席の指導を受けて二周年になりますが、改めて指導の意義についてどうお考えですか。

呂 祖国が、国家がウリ在日朝鮮商工人たちに合弁をしようと呼びかけてくれたことは、商工人の経済活動において画期的な意義を持ちます。日本における経済地盤の拡大とともに、国際的な商工人として登場できる道が開けましたからね。

合弁事業は国家の経済政策、その大きな枠組みの中にウリ商工人が位置していると思うと、主席の温かい配慮をひしひしと感じ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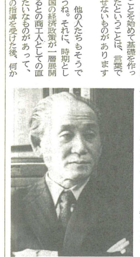
全 誠に適切な時期に、しかも具体的に行動できる内容の指導であったと、今さらながら感じ入ってる次第です。今はただ、ひたすらに誰も踏み入ったことのない道を切り開いていく心境ですね。

呂 短期間に、それも未経験のことを始めて基礎を作ってきたということは、言葉では表せないものがありますよ。

全 他の人たちもそうでしょうね。それに、時期として祖国の経済政策が一層展開されるとの商工人としての直感みたいなものがあって、主席の指導を受けた後、何かこう皆がやらなければと燃えましたからね。合弁のタイミングが本当に適切だったと思います。

―この二年間、合弁事業全般の中でどのような問題に力点を置いてこられたのですか。

呂 まずは受け皿作りに力を入れました。合弁事業研究会を発足して理事会を設け、その代表が祖国に行って、さあ具体的に何から始めるか、という具合でした。


全鎮植副会長


呂成根副会長

全 論議に明け暮れましたよ。祖国も初めて、私たちも初めて。それに環境の違いや思考の違いもある者同士が合弁をしようとするのですから、互いにまずそこを埋めたり、橋をかけたりしました。数字的な問題はその次に自然に成り立っていくだろうし、現にそのように進行しています。

呂 それと最初の一年間は、合弁についての説明ですね。各地で講演会や懇談会を通して理解を深めてもらう、並行して受け皿作りも進め、あっせんもする。次に合弁の対象を定めて合意し契約する。早い分野では昨年に操業、生産を始めましたけど、以後の販売も含めて大まかにはこのようなプロセスを反復していきます。

全 生産、販売を始めたところは今年から経営手腕が問われますね。

呂 それと、本質的な問題であり互いの悩みでもあるんですが、社会主義制度を擁護しながらいかに利潤を追及するかということですね。今、一つひとつの合弁がその過程にあると言えます。

―この間、様々な経験を積んでこられたと思います。苦労話やエピソードについてうかがいたいのですが。

全 合弁は資本や技術、資源、労働力などのかかわりだけでなく、お互いの生活や風習の交わりもあるんですね。

お互いに学び教えるという信頼感が生まれてくる中で体験したことですけど、大同江被服工場で従業員の実習終了式が終わって、打ち上げ式のカクテルパーティーをバイキング形式でちょっと工夫してやったわけです。三百人が一つの輪になりましたよ。

呂 昨年の春に、朝鮮国際合弁総社の展示会がモスクワで開かれた時のことですけど、朝ソの幹部らが一同に参加した姿を見て、国家の力がいかに大きいか、またソ連、中国など市場開拓の可能性について強く感じました。

―合弁事業に対する同胞商工人たちの取り組みはいかがですか。

全 気持ちも意欲もありますよ。ただ、方途がよく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

まだ初段階ですから仕方ないとしても、組織的に早く専門家を養成して、初心者の人でも本格的に取り組み、体験を積み重ねられるような形を整えたいですね。

呂 同感です。私はモランボン合弁会社の運営する工場を見学して、頼もしくもうらやましくも思えたんですけど、やはりいくつかのよいモデルケースがあって皆がそこから吸収し、応用も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よ。

―今後の見通し、展望についてどうお考えですか。

全 両極端を表現すると、一つは"コロンブスの卵"でもう一つは非常に難しい、楽観視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道なき道を開拓していく未経験から来る不安と苦悩がありますからね。ただ、それ以上に二年間の体験を経て、やれば出来る、必ずやり遂げられるとの自信みたいなものは培われたと思います。それと今年は実際に経営を展開する年と位置付けています。

呂 今年は"実感する年"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合弁の生産品が各国で販売される状況を見て、ああこれが合弁事業なのかと、多くの同胞が実感すると思うからです。まだまだ道程は険しいけど、短期関の実績を自信とし、団結、協調の力でベストを尽くす気持ちです。

（二月二十七日 熱海・金城館にて）

火曜訪問

魅力ある支部にしたい

金致洙さん


新たに発足した科協三多摩支部の初代会長に選ばれた

1945年12月18日、東京で生まれる。東京第一初中、東京中高を経て、朝大の理学部に入学。卒業後、68年から同工学部の教師を18年務める。現在、アムテックス研究所でコンピューターの開発と研究をするかたわら、朝大の講師も務める。

在日本朝鮮人科学技術協会（科協）三多摩支部が、新たに発足したのは一ヵ月前。その初代会長に選ばれた。

このほど東京支部から分離し、支部に発展したのは、三多摩地域に多く居住する同胞科学者、技術者の結束を、より一層図るというのが主な理由。

それは、発足会に科学者、技術者だけで四十五人が集まったことからも十分にうかがえる。

「いま会員たち、とくに若い人たちの雰囲気がとてもいいんです。一人でも多くの人を募って頑張っていきたいですね」

学生のころから科学が好きでたまらなかったと言う。将来、科学者になることを夢見た。

「朝高のころ、学校が勉強する雰囲気に満ちていました。だから同級生には、祖国や日本で科学者や医者になった者が多いですね」

そして朝大の理学部に入学以来"科学畑"を歩んできた。

朝大在学時に半導体の理論を学び、同校工学部の教師になってから、本格的に研究に取り組み始めた。

そして半導体の検出器に関する研究で、朝大出身者としては初めて東京大学の博士号に輝く。

それだけに科協とのつきあいも長く、以前は科協中央の電子工学部門の委員長も務めた。

本人は今回の抜てきについて「次の世代の中では一番年上だった」と言うが、人柄とこれまでの経歴から、信頼が厚かったからに他ならない。

ともかく出航したばかりの組織だが、「一年で土台をしっかり築いて、二年目からは成果を生んでいきたいですね」と心強い。

「学習会を開いて互いの情報を交換し合い、専門分野だけでなく幅広い知識も得られる、メリットがあって魅力のある支部にしていきたい」とも語る。

また、グループ研究を進めて祖国に寄与できるような成果を上げたい、若い人を育てるのに力を注ぎたいと、早くも会長の構想は大きくはばたいている。（香）

トンボの街かど

朝日友好を深める集い

総聯愛知・尾北支部

総聯愛知・尾北支部の同胞たちは先月の二十一日、朝・日友好のきずなを深め、親善の輪を広げるために「犬山地区朝・日親善の集い」を、木曽川べりの犬山館で開いた。

集会には同胞らと、地元の政・財界人、市民ら六十余人が参加し、互いの友好を深めた。

集会ではまず、犬山市長・松山邦夫氏から寄せられた祝電と記念品の贈呈が行われた。そして、犬山市議会を代表して、加藤忍市議会議員があいさつ。

加藤市議は「犬山地区において、このような集会が開かれたことは、非常に意義深いものです。両国民の心の触れ合い、友情のきずなを強める中で、友好と親善を発展させましょう。そして、この次の集会には百人ぐらい集まるようにしましょう」と語った。

引き続き宴会に移り、参加者たちは互いに会話を交わしながら、友好と親善を深め合った。また、会場には東海朝鮮歌舞団のメンバーも駆けつけ、記念公演を行った。

尾北支部では、同支部内の江南地区でも今年中に同様の親善の集いを開く予定で、準備を進めている。

団結を図り職務に励む

朝青朝銀東京・冬の集い

「第二回朝青朝銀東京支部冬の集い」が、先月の十九～二十一日（三泊四日）にかけて群馬県・草津スキー場で行われた。

同支部朝青員の交流と団結を図り、職務遂行に一層励んで、当面の三月決算事業の突破口を開こうという趣旨で企画されたこの集い。本店をはじめ、朝銀東京管下の各支店、営業所など二十の朝青班から総勢二百人の若い職員たちが参加した。

ゲレンデで思いっ切り滑った後、夜は宴会。様々なゲームや競技が行われ、会場は終始笑いの渦に包まれた。中でも支店対抗の女子職員らによる腕相撲大会は迫力満点、男子職員たちも負けそうな"ウーマンパワー"で見事優勝したのは、足立支店チームだった。

さる七日には班対抗駅伝大会、続いてこのスキー旅行と、同朝銀管下朝青員らは他支店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も充実。

一月十五日から三月三十一日まで、朝青独自に「預金獲得模範朝青員運動」を展開するなど、その意気込みも上々だ。

「奉仕性を高め、丁寧な接待で、同胞により愛される銀行にしよう」と、この運動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同朝青員たち。四月には運動の総括と表彰、夏には「夏の集い」を催し、職務、朝青活動ともに飛躍の年にしたいと意気盛んだ。



同胞の団結と愛国の象徴

北九州初中創立20周年祝賀の集い



会場には８００余人の父兄や日本の人々が集まった

北九州朝鮮初中級学校創立二十周年を祝賀する集いが二十八日、同校体育館で盛大に行われた。

この日、総聯福岡県本部・金英学委員長をはじめ学父兄、卒業生、そして教職員、学生、日本の人々など八百余人が集いに参加した。

一九六〇年の初頭に、小倉・八幡・若松の三地域に開校された初級学校を統合し、一九六八年一月十八日に初中級学校として、新たに歩みだした同校。

この間に一千人を超える卒業生を送り出し、かつ、一九八五年には「ウリマル模範学校」となり、学生受け入れ事業を活発に行い「模範学校」（今年）の表彰を受けるなど、多くの成果を上げてきた。そして地域同胞らの団結と愛国のシンボルとして愛国事業発展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

祝賀大会では、姉妹校である、祖国の元山海岸女子高等学校から送られてきた祝電の紹介、日本社会党県会議員をはじめ日本の各界人士による祝辞の後、金秉徹校長の祝賀報告などが行われた。

大会終了後、学生たちの祝賀芸術公演および宴会が催された。

施設を整備、器材など寄贈

父兄、卒業生たちの誠意で



愛らしい園児の歌声に場内から大きな拍手が

この日を迎えるにあたり、卒業生、父兄の間では学校を愛する運動が活発に推し進められた。

「母校を愛する卒業生たちの気持ちを表そう」と第一期から十九期までのOBたちが奮い立ち募金事業が進められた。

そして多額の予算で、屋上や図書室などの施設が整備された他、机や椅子、黒板、ウリマルワープロや体育・芸術関係の器材などのプレゼントが贈られた。

また、学校をたたえる歌「その希望も輝く、北九州初中」もOBによって作詞され、この日の芸術公演で披露された。

オモニたちも張り切った。

当日、八幡・戸畑・小倉をはじめ七つの地域の「学校オモニ委員会」合同による飲食物を中心としたバザーが行われ、その収益金で冷水機二台が寄贈されたのだ。

「二十年の間、管下同胞の国と民族を愛する気持ちの象徴として、学校が歩んでこられたのは、同胞らの多大な協力と支持のおかげです。

同胞らの熱い期待に学校が報いるよう、これからも一層励んでいく覚悟です」と、金校長は語っていた。



舞台は祖国台の置き場もないほど（第一、第四、第五合同の合奏）

第4回東京朝鮮学生合同演奏会

15の曲目を披露

年に一度 交流の舞台



赤いネクタイもりりしく（第一初中・初級部器楽部）

600枚のタイルで廊下の"衣替え"

岡山初中の父兄、文相宰さん



新しいタイルが張られ、廊下はピカピカに衣替え

朝鮮のむかし話

貧しさのおかげ

文・徐斗里　さし絵・朴民宜



文部活動も「がんばる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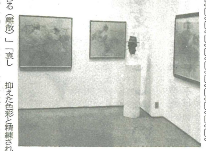
第1回愛知朝鮮同胞マラソン大会



ファイト満々。「他の支部には負けないぞ！」

ぬくもりのある作品群

高一権展　東京（6日まで）



力作、大作がそろった個展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더 크게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3월 3일 (음력 1월 15일) 목요일 【루계 제10148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130503(〒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2월 28일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시였다.

【평양―도꾜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잠비아대통령이 연회 마련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잠비아공화국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사이의 회담이 2월 26일에, 단독회담이 28일에 각각 있었다.

회담은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위하여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께서 2월 28일 금수산의사당에서 연회를 차리시였다.

연회에는 리종옥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관계부문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는 잠비아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 성원들과 그밖의 일행이 참가하였다.

같은 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잠비아공화국의 《자유전우대훈장》제1급을 수여받으시였다.

또한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독립훈장 제1급이 수여되였다.

훈장을 수여하는 의식이 2월 26일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와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께서는 훈장수여식이 끝난 다음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잠비아의 손님들이 평양시, 남포시 여러곳을 참관

2월 24일 평양에 도착한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잠비아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은 그동안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광복거리와 릉라도경기장을 비롯한 수도의 대건설장들, 김일성종합대학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그리고 남포시의 공장, 기업소들과 서해갑문을 참관하였다.

잠비아의 손님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열렬한 환영과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이 평양을 출발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송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2월 28일 우리 나라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돌아가는 잠비아공화국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을 환송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함께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께서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이날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잠비아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하였다.

《민주교육 탄압하는 정권 분쇄하자》

서울대 졸업생 등 600여명이

졸업식 마당에서 반로태우시위

각지에서도 견결히 투쟁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 대학 졸업식마당(2월 25일)에서 미일의 부추김하에서 새로 괴뢰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로태우역도를 규탄하는 가두시위를 벌렸다.

이날 서울대 졸업생 500여명과 재학생 100여명 등 600여명의 학생이 《민주교육 탄압하는 로태우정권 분쇄하자》는 등 반《정부》구호가 새겨진 프랑카드와 작년 1월에 괴뢰도당에 의해 무참히 고문학살당한 이 대학 박종철학생의 사진을 앞세우고 시위를 벌린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졸업식날은 매해 학생들의 반《정부》기세를 시위하는 마당으로 돼왔다.

작년 졸업식때도 졸업식장에 괴뢰문교부장관이란 자가 나와 연단에 서자바람으로 학생들이 반《정부》의사의 표현으로 일제히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대학교에서는 작년에 박종철학생에 대한 고문학살만행을 계기로 일대 반《정부》투쟁을 벌렸다.

올해 졸업식은 전대미문의 강권, 금권, 모략으로 괴뢰대통령당선을 날조한 로태우놈의 소위 《대통령취임식》놀음이 있었던 날이다.

이날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반《정부》시위를 벌린것은 그 어떤 폭압과 기만술책에도 굴하지 않고 반로태우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그들의 억센 투지를 과시한것으로서 주목된다.

한편 3.1인민봉기 69돐이 되는 날인 1일 서울의 파고다공원에서는 청년학생들과 재야인사들 150여명이 로태우일당의 파쑈폭압령인 《비상경계령》을 무시하고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반미, 반일, 반《정부》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자들은 수많은 군중들의 지지성원속에 프랑카드를 흔들면서 로태우역도의 기만적인 《사면》놀음을 폭로규탄하는 연설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로태우〈정부〉를 타도하라》,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는 구호들을 연방 웨쳤다.

시위자들은 또한 《독재를 돕는 일본과 미국을 타도하라》는 반미, 반일 구호들을 웨치면서 로태우군부독재를 부추기는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을 분노에 넘쳐 규탄했다.

파쑈도당은 이날 100여명의 폭동진압경찰과 사복경찰들을 내몰아 시위를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40여명의 재야인사들을 련행해갔다.

련행해간 사람들속에는 문익환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명의 재야인사들과 2월 27일 감옥에서 갓 놓여나온 재야인사들도 들어있다.

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소속된 700여명의 대학생들도 3.1인민봉기 69돐에 즈음하여 1일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 미제의 경제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집회를 가진 다음 거리로 달려나가 시위투쟁을 벌렸다.



지난 2월 25일 졸업식장에서 반《정부》시위를 벌리는 서울대학 학생들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과 남조선에서의 《정권교체》의 기만극을 규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에서 남조선정세를 통보하는 모임

【평양 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에서 남조선정세를 국내외기자들에게 통보하는 모임이 2월 2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모임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서기국장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강행하여나선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과 남조선에서의 《정권교체》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그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둘러싸고 미제가 꾸미고있는 음흉한 술책에 대하여 까밝히였다.

그에 의하면 미제가 이번 전쟁연습기간을 3월말부터 2주일간 즉 실동훈련기간만을 연습기간으로 발표한것은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내외여론을 기만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미군의 방대한 무력이 남조선지역에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놈들이 올림픽경기대회까지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남조선에 눌러앉아 계속 전쟁연습을 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으로 보아 올해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실지에 있어서 1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것이다.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은 우선 이 연습이 임의의 시각에 전면적인 공격에로 넘어갈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핵전쟁연습이다.

이 연습에 정규적무력까지 포함하여 도합 100만이상의 병력이 참가하여 수백척의 함선들과 수만대의 비행기, 땅크, 장갑차, 자동차 등 수많은 군사장비들과 핵무기들이 투입되고있다.

그 위험성은 또한 이 전쟁연습을 통하여 미일남조선 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치고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침투를 강화하고있는것이다.

전금철은 남조선에서의 이번 《정권교체》가 철두철미 선행군사파쑈《정권》의 연장이라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에서 시종일관 파쑈화정책을 실시하여온 미제가 이번에도 파쑈독재《정권》이외에 그 어떤 다른 정권도 허용할수 없고 따라서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 있는 한 남조선에서는 독재《정권》밖에 나올수 없으며 이번 《정권교체》는 결국 광주참변의 주범들사이의 권력인계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새 《내각》에는 군부와 《안전기획부》, 《내무부》 출신의 강경파세력들이 많이 들어가있다고 하면서 현 괴뢰정권은 《련립정권》도 《민간정권》도 아니며 전두환《정권》의 인맥을 그대로 잇고있고 새로운 군부파쑈분자들로 보강된 철저한 군부파쑈《정권》, 《민정당》독재《정권》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인민군군인들이 《팀 스피리트》규탄집회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과 핵전쟁책동을 규탄하는 군인집회가 조선인민군 리태호동무소속부대와 박명선동무소속부대에서 진행되였다.

집회들에는 부대책임일군들이 군인들과 같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에 눈이 어두운 미제는 실지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으며 이번 전쟁연습도 교활한 기만극의 막뒤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의 장본인은 바로 미제침략자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특히 놈들이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과 때를 같이하여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대구경기관총사격을 가하는 등 여러 차례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일으켜 정세를 더욱더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는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고 놈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연습은 평화의 원쑤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망동이라고 단언하고 그들은 놈들이 감히 《제재》니 뭐니 하며 인민군군인들까지 평화적건설에 돌리고있는 우리를 걸고드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비렬한 침략음모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힘주어말하였다.

군사파쑈도당이 남조선고기배에 무차별사격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군사불한당이 2월 28일 충청남도 서산군 소원면 앞바다에서 고기배 《한일》호에 무차별사격을 가하여 선장에게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군사불한당은 이 고기배가 이른바 《어로통제구역》안에 들어가 조업을 했다하여 마구 총탄을 퍼부어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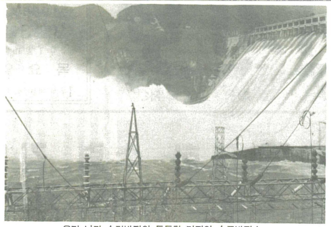
로태우파쑈도당은 륙지에서뿐아니라 바다에서도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에 광분하고있다.

창조와 건설의 40년

1948—1988

전력생산 40년간에 수십배로 장성

끊임없이 발전하여온 전력공업



우리 나라 수력발전의 튼튼한 기지인 수풍발전소

발전상을 보여주는 수자들

지난 40년간 전력공업분야에서는 눈부신 전변이 일어났으며 나라의 동력기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동력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전력생산을 원만히 보장하며 그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 나라 전력공업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전의 한길을 줄달음쳐왔다.

여기에 이런 수자들이 있다.

해방후 일제가 마사간 발전설비들을 복구하여 1949년에 59억 2,400만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

5개년계획시기(1957~1961) 발전능력은 151%로, 발전량은 186%로 장성하여 인구 한사람당 전력생산량이 발전된 공업국가의 수준에 도달.(1960년 발전량 91억 4,000만키로와트시)

7개년계획시기(1961~1967) 동력기지가 더욱 강화되고 전력생산량은 1960년에 비하여 1970년에는 2.2배로 장성.(1970년 발전량 165억키로와트시)

6개년계획기간(1971~1976)에만도 전력생산량이 1.7배로 장성.(1975년 발전량 280억키로와트시)

제2차7개년계획시기(1978~1984) 전력생산량은 178%로 장성.(1984년 발전량 560억키로와트시)

이것은 우리 나라 전력공업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여왔는가를 보여주는 수자들이며 사실이다.

튼튼히 꾸려진 동력기지

우리 나라 전력공업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안받침해주고있다.

지난 40년간 나라의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는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이 수많이 건설되였다.

5개년계획과 7개년계획 시기에 독로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건설이 완공되여 전력생산은 비할바없이 늘어났다.

6개년계획기간에 3월17일발전소 제1호 및 제2호 발전직장이 조업하여 북부지구의 전력문제가 더욱 원만히 풀리게 되였으며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는 대동강발전소, 3월17일발전소 제3호발전직장, 남리발전소, 미림갑문발전소가 건설되여 새로 조업함으로써 동력기지가 더욱 확대되고 공고화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전력공업은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사이의 균형적발전이 보장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평양과 북창, 청천강반을 비롯한 여러곳에 대규모화력발전소들을 일떠세움으로써 나라의 동력기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1970년~1979년사이에만도 화력발전능력은 2배로 늘어나 우리 나라 총발전능력에서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1978년~1984년까지의 사이에는 북창화력발전소 확장공사가 완공되였고 청진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방의 풍부한 수력을 비롯한 여러가지 전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중소규모발전소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수많이 건설하여 지방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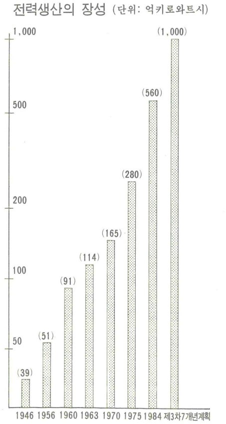
전력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지난 40년동안에 모든 발전소들에 현대적인 자동화수단들과 보호장치들이 도입되였고 발전설비들이 부단히 갱신되고 보충완비되였다.

송배전운영의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40년동안에 거둔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 금강산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수력 및 화력 발전소들과 중소규모발전소들, 새로운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전력생산의 장성 (단위: 억키로와트시)



자주적이며 현대적인 전력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풍부한 수력자원을 리용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연료동력기지를 확대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진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나라의 전기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튼튼한 동력기지를 꾸리며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에 앞세울데 대한 방향과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 건설을 병진시켜 전력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여러곳의 젖줄기마냥 뻗어있는 강하천들마다에 수력발전소들이 건설되고있다.

압록강과 대동강, 독로강과 장진강, 허천강… 그 어디에 가보아도 현대적인 수력발전소들을 볼수 있다.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이 발전소들중의 대부분은 전후에 새로 건설된것이다.

해방전 우리 나라에는 불과 몇개의 수력발전소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조국의 이르는곳마다에 수력발전소들이 수많이 건설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을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풍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를 비롯한 여러개의 발전소들을 찾으시여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새로 건설할 수력발전소들의 터전도 몸소 잡아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40년간 우리 나라에는 새로운 발전소들이 빠른 속도로 건설되였으며 이미 있던 수력발전소들의 능력도 훨씬 늘어났다.(별항)

수력과 화력을 옳게 결합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개년계획기간(1961~1967) 현대적인 전력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면서 대규모의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병행하여 나라의 동력기지를 공고히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지난날 원유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탄을 리용하여 전력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평양화력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웅기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등 현대적인 대규모화력발전소들이 일떠섰으며 이것들은 우리 나라 총발전량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전력공업은 비약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수풍, 서두수 발전소 등을 비롯한 각지의 발전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전력공업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고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에 의거하는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촉진시키며 중소규모수력발전소들과 공장화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라의 동력기지를 공고히 하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수력발전소들의 현대화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발전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화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발전소들의 능력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전력생산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력공업부문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중앙난방화실현에서 은을 내고있는 청진화력발전소

1,000억키로와트시 전력고지 달성의 확고한 전망

당면하여 올해 상반년동안에 120만키로와트를 조성

우리 나라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금 이르는곳마다에서 전례없는 대규모로 진행되고있는 대건설행군을 다그치며 앞으로 완공될 대규모건설대상물들의 조업을 위하여서도 그렇다.

오늘 전력공업부문앞에는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점령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목표는 이미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수력발전소들의 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들과 다른 여러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들의 건설을 배합하여 자체의 튼튼한 동력기지를 마련해나갈것이다.

새 전망계획기간에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 태천발전소건설을 빨리 끝내고 금강산발전소, 희천발전소, 남강발전소, 금야강발전소, 어랑천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발전소들을 건설하며 여러 지점들에 갑문발전소들을, 지방의 이르는곳마다에 중소규모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해나갈것이다.

또한 화력발전소도 더 많이 건설해나갈것이다.

새 전망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국내원료인 저열탄을 리용하는 안주화력발전소, 사리원화력발전소, 해주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들을 건설해나가며 주요 공업지구들과 도시들의 전력과 열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 동평양화력발전소, 12월화력발전소, 김책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해나가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새 전망계획기간에 동력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망성있게 풀기 위하여 대규모원자력발전소들을 건설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지대, 고산지대들에 풍력발전소들을 널리 건설하고있다.

당면하여 올해 우리 나라에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상반년동안에 120만크바(키로와트)이상의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새로운 수력발전형식으로 각지에 건설되고있는 갑문발전소(사진은 동강갑문)



반공화국분만아니라

비단옷

목소리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2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2차전원회의가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교육사업을 애국활동의 중심에 놓고 지부의 면모를 일신

총련 효고현 아마가사끼동지부에서

총련 15전대회까지 학생 및 원아수를 현재의 127%로 늘이자.

교육회진용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젊은 상공인들로 튼튼히 꾸려 학교사업을 발전시키자.

관하동포들속에서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을 힘차게 벌리자.

민족교육사업에 대해 이런 목표를 내걸어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는 총련 효고현 아마가사끼동지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학교문제입니다. 교육사업은 앞으로 재일동포들의 민족의식을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는데서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총련이 민족적단결을 강화하는데서도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총련은 교육문제를 계속 틀어쥐고나가는것이 필요합니다.》

이곳 지부에서는 학생받아들이는 사업목표를 지난해 11월 6일에 달성한데 이어 지금 이를 공고히 하고 래학년도 학생받아들이는 사업목표를 6월까지 해제낄 기세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올해들어 이곳 지부일군들은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하여 조성된 정세속에서 전호방문운동을 적극 벌려 대중정치선전사업을 밀고나가는 한편 학생받아들이는 사업 대상자들과의 사업을 세밀한 계획밑에 계속 꾸준히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2인조, 3인조를 뭇고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선전물과 함께 민족교육사업의 우월성을 해설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낮에 밤을 이어 관하 동포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열성적으로 사업하고있다.

학교건설사업이 하나의 계기로

《우리 지부사업은 학교사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은 지난해사업, 특히는 총련 14전대회이후 그리고 아마가사끼히가시조선초급학교 건설사업과정에서 민족교육사업이 잘되여야 광범한 동포군중을 조직에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군중적지반도 강화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틀어잡았습니다.

또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자면 그 사업 전반을 총련지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을 확고히 세워 강하게 밀고나가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알았습니다.》고 총련지부 현화윤위원장은 말한다.

그의 말 그대로 이곳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학교건설사업은 하나의 큰 계기가 되였다.

모든 동포들이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자!》는 구호를 들고 학교건설사업에 달라붙음으로써 지난해 1월 25일에 한푼의 빚도 없이 새 학교가 훌륭히 일떠섰을뿐만아니라 앞으로 학교운영의 자립화를 위한 경제적토대도 마련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일군들은 피로가 축적되고 일부에서는 권태증도 나와 《올해 학생인입사업목표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가》 하는 분위기가 떠돌게 되였다.

일군들은 다시한번 자기 사업 방법과 태도를 돌이켜보고 첫시기 다진 결의를 가슴에 되새기고 사업에 달라붙었다.

일군들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휴일도 없다고 하면서 매일과 같이 지부사무소에서 침식을 같이하여 지부관하 모든 조직과 동포들을 이 사업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리였다.

새 교사에 더 많은 학생들을

동포들의 애국열성으로 훌륭한 새 교사를 보란듯이 일떠세웠지만 이번에는 그 훌륭한 학교에 어떻게 학생을 꽉 채우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런 속에서 일군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집중행동을 벌리고 7월부터 8월까지의 두달간에는 잠자리를 지부사무소로 옮기고 적극 사업하였다.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계속 전진

지부관하 모든 단체를 망라하여 학생인입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상자 명단작성, 장악, 분공 등 계획수립으로부터 재포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사업을 밀고나갔다.

또한 단체, 사업체 일군들과 함께 학교교원들과의 모임, 교육회모임, 분회위원회, 상공회역원들의 모임들을 적극 조직하고 그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속에서 교원들은 방과후가 되면 매일과 같이 동포들속에 들어가 사업하였고 젊은상공인협의회에서는 대상자들의 야영과 교육강연회를 조직하였으며 녀성동맹에서도 각종 소조를 통해 사업했다.

전기관적, 전동포적으로 운동이 벌어지는 속에서 총련 다찌바나동분회에서 분회적으로 17장의 원서를 받아낸것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나왔다.

그리하여 이곳 지부는 지난해 11월에 학생받아들이는 사업목표를 100% 달성하고 학생, 원아수를 14% 늘였으며 학부형호수도 17호 새로 확대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들은 지난해 교육사업을 지부활동의 중심에 놓고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교육사업뿐만아니라 지부의 면모도 일신했습니다.

첫시기 젊은 일군들만 모였다고 걱정하던 동포들도 오늘 우리 일군들을 보고 〈젊은 풋내기가 일년동안에 바싹 익었다. 참 일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우리 지부가 내건 목표를 해치울 때까지 계속 헌신분투해나가겠습니다.》고 이곳 일군들은 일치하게 말한다.

일군들과 동포들이 굳게 뭉쳐 애국사업을 힘차게 밀고나가는 이곳 지부사업은 계속 강화발전해나갈것이다.



교육사업을 지부활동의 중심에 놓고 애국사업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총련 아마가사끼동지부 일군들



사진교양

우리 삶의 이모저모 ⑧

우리 출판물이 독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출판보급원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있다.

오양수청년(20살, 조청 도꾜도 쥬오고또지부관하)도 출판물배포사업에 열성을 다하는 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1세동포들의 애국열성을 보면서 젊은이들에게는 대를 이어 믿음직하게 사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배포사업을 적극 떠맡았다.

비전임인 그는 1년 4개월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일이 끝난 즉시로 저녁 7시부터 2시간동안 하루빠짐없이 배포사업을 해왔다.

…차 없어지게 된것이 제일 기쁩니다.》고 말하는 그는 출판물배포사업에서 청춘의 보람을 느끼고있는 미더운 청년이다.

새학년도 나머지 29일

우리 말을 서로 배우며 조선사람답게 살아간다

사까이조선초급학교 김유미학생과 그의 어머니

《지금 학교에서 동무들과 함께 우리 말을 배우는것이 제일 재미납니다.

선생님, 동무들은 우리 말을 잘 배워주고 공부도 참 친절히 가르쳐줍니다.

나도 동무들 못지 않게 우리 말을 더 많이 배우고 공부도 잘해서 참된 조선사람, 훌륭한 간호원이 되겠습니다.》

사까이조선초급학교 5학년 김유미학생은 또록또록한 우리 말로 이렇게 말한다.

그는 지난해 9월에 오사까부 히가시미꾸니소학교로부터 이곳 학교에 편입하였다.

《김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 말도 잘 쓰는 모범학생입니다.

그의 우리 말 익히는 능력은 날에 날마다 높아집니다.》고 5학년 박호이담임교원은 말한다.

김학생은 편입이후 무지각, 무결석이며 무용소조에도 들어 조국과 민족을 잘 알려고 힘껏 노력하고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인 김막점녀성(47살)은 《유미가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된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학습태세와 생활전반이 어른스러워졌다고 할가 성격자체가 활기에 넘치게 되였지요.

더 일찍 우리 학교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같이 우리 말 배우기도 하고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최근엔 내가 애한테서 배우고있는 형편입니다.》고 말한다.

김녀성은 자기 딸이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된 이후 이제까지 얼굴도 못 내고있던 총련지부사무소는 물론 총련의 모든 행사에 꼭꼭 참가하고있다.

지금 그는 학교어머니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놀면서 학교사랑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김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된것은 그가 어머니와 함께 지난해 8월에 조국을 방문한것이 큰 계기가 되였다.

남편이 재작년에 병으로 별세한후 김녀성은 제혼자 외동딸인 김학생을 키우기 위해 품팔이로동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왔다.

그런 그도 총련일군들의 권유로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고 18년만에 가족, 친척들과 만나 감동적인 나날을 보내였다.

그러나 그러한 김녀성과는 반대로 김학생은 사촌 친척들과 회화도 나누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온것처럼 어리둥절하는것이였다. 그러한 그의 모습은 김녀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조국방문중 애를 보고 많은것을 돌이켜보게 되였어요.

자라난 장소, 환경은 달라도 같은 친척이 아닌가, 왜 그렇게 될가, 내가 아이를 잘 못키웠다, 이래서는 안된다, 일본에 돌아가면 아이를 꼭 우리 학교에 보내여 조선사람답게 똑똑히 키워야 한다고 깊이 뉘우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와서 곧 우리 학교를 찾아가 편입수속을 했지요.》 하고 김녀성은 말한다.

그런 그이기에 자기 딸을 우리 학교에 보낸 이후 아이만이 아니라 자기도 같이 조선사람답게 살아나가자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우리 말도 배우고 지부나 학교 사업에도 적극 참가한다.

지금 김학생의 가정에서는 언제나 모자간이 우리 말을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이야기소리가 들린다.

《올해 4월에 나는 소년단에 입단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를 더 잘 배워 소년단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고 김학생은 말한다.



서로 경쟁식으로 우리 말을 배워가는 김유미학생과 그의 어머니

파괴행위, 폭행사건에 대한 실효있는 방지조치를

사회문화법률쎈타대표, 경찰청에 요구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시켜 일본의 우익깡패들이 총련 각급 기관과 학교들에 대한 협박, 파괴 행위, 조선학생에 대한 폭행사건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월 22일, 사회문화법률쎈타 기다무라 데쯔오사무국장을 비롯한 대표들이 경찰청에 대하여 사건의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사회당 오자와 가쯔스께중의원의원이 동행하였다.

이날 장관관방심의관을 만난 대표들은 일본정부당국이 사태의 중대성에 상응하게 사건의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옹호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증거물의 설명서 계속 제출

동신탄압사건 공소심 진행

국세당국에 의한 동신(현재 조은도꾜신용조합)탄압사건에 대한 공소심이 2월 29일, 도꾜고등재판소 민사 5부 815법정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조합측에서 국세당국의 제출요구에 따른 증거물들의 설명서가 제출되였다.

1심판결에서는 《메모들이 적혀있을수 있다》고 국세당국의 부당한 주장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었는데 이날 조합측에서는 조합일군들의 학습자료를 비롯한 일련의 《차압물》들에는 그 어떤 메모나 기록들도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다음번 공판은 오는 6월 22일에 진행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책동과 모략소동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에서 한 일본인사들의 련대연설(요지)

긴장완화에 어긋나는 정황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참의원의원 구보다 마나에



세계적으로 긴장완화의 현실적인 기대가 높아가고있는 반면에 동북아세아지역에서 긴장완화에 어긋나는 정황이 생기고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한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과 해양이 군사전략의 초점으로 되고 군비확장이 격화되고있는 속에서 류례없이 장기적이고 대대적으로 실시되고있는 미《한》합동군사연습인 《팀 스피리트 88》은 조선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시키고있다.

일본사회당은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에 대하여 일관하게 반대하여왔다.

또한 남조선비행기사건의 물적증거가 밝혀지지 않고있는 속에서 그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려는 부당한 선전이 일방적으로 감행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위험성을 느끼고있다.

더군다나 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선학교 녀학생들에 대한 저주로운 사건이 련속 일어나고있는데 우리는 일본정부가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마당에서 다시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과 일본인민들이 힘을 합치며 손을 잡고 군축, 평화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을 기대하며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해나갈것을 표명한다.

조선통일을 방해하는 책동을 용서할수 없다

총평 교육, 문화 국장 미시마 시즈오



우리들은 미쏘간의 긴장완화가 급속히 진척되는 속에서 올림픽의 북남공동주최 실현을 마음속으로부터 확신하고 크게 기대하고있었다. 그러나 일미량국의 주모자들은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을 공화국의 범행으로 단정하고 정치, 경제분야에 걸쳐 《제재조치》를 취하여 지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일미《한》의 공동모의로 공화국을 비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또한 미《한》합동군사연습에 발맞춰 일미공동훈련을 각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더 증대시키는것이다.

총평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일련의 책동을 절대로 용인할수 없다. 비행기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내응, 언론, 보도의 관리체제의 강화는 이전의 군사파쑈시대를 상기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과 배타주의를 부채질하며 반총련, 반공화국의 적대시정책을 다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총평은 일본정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총련의 여러분들과 련대하여 남북조선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팀 스피리트》를 반대하며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즉시 해소, 철회하도록 광범한 운동을 전개할것이다.

일본정부의 조치는 적의에 찬 처사

일본부인회의 의장,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부인련락회 사무국장 시미즈 스미꼬



남조선비행기사건은 너무나도 정치모략의 색채가 짙은데 아무리 공화국에 책임을 들씌우려고 이것저것 날조하여도 그 신빙성은 날을 따라 깨여지고있다. 이 사건의 진짜범인은 남조선의 민주화와 민족적화해를 무서워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기도하는자라는것이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치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적의에 찬것으로서 우리는 솟구치는 분격을 안게 된다.

조선학생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은 얼마나 수치스러운짓인가, 이는 일본의 교육내용과 무관계한것이라고 볼수 없다.

테로는 주체사상으로 령도되고 인민대중의 단결로 발전하는 공화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것이다.

우리는 일조 량국인민의 우호를 깊여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며 김일성주석께서 천명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지지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련대성운동을 벌려나갈것이다. 이 길이 바로 일본의 평화를 담보하는 지름길이며 일조 량국인민의 진정한 우호와 련대를 깊이는 길이라는것을 단언하는바이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계속 앙양

11월말부터 1월중순까지 123건

최근 남조선에서 괴뢰악당과 악질기업주들에 의한 로조탄압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속에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이 크게 앙양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각지에서 빈번히 벌어지고있는바 각 기업, 회사 로동자뿐만아니라 남조선《개발연구원》과 각 병원의 로조들이 《임금인상》과 《로조활동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등 새로운 양상을 띠고있다.

남조선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9월에 걸쳐 전개된 남조선로동자들의 거세찬 생존권투쟁으로 하여 괴뢰당국은 이른바 《로동관계법》을 개정(11월 28일)하여 로동자들의 눈을 딴데로 돌리려고 하였으나 그이후 1월중순까지만 하여도 123건의 투쟁이 일어나는 등 로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괴뢰도당은 악질기업주들을 사주하면서 로조를 탄압하고 그들의 투쟁을 억눌러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있으며 그들의 생존권마저 빼앗으려고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로동자투쟁은 괴뢰악당들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여느때없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올해들어 또다시 각지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리고있는바 특히 지난 2월 26일, 로조탄압에 항의하는 울산현대엔징회사 로동자들 700여명이 롱성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로동자들은 괴뢰도당과 회사측이 로조성원들에 대한 복직과 새로 선출된 로조위원장의 자격인정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는데 항거하여 회사강당에서 롱성에 돌입,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또한 남조선《개발연구원》의 로조원 120여명은 2월 17일,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렸다.

이곳 로조원들은 로조활동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여 지난 2월 8일부터 투쟁에 궐기하였는바 《연구원》측이 일단 요구를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려는 기미를 보이자 다시 들고일어나 견결한 롱성투쟁을 벌렸던것이다.

서울의 한양대 부속병원, 부천에 있는 제1병원 등 로조성원들도 부당해고자복직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여 장기간에 걸치는 롱성투쟁을 전개하였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국병원로조협의회는 2월 8일, 부천 원미성당에서 600여명의 병원로조원들의 참가하에 병원로조탄압저지대회를 가지고 각 로조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한편 당국자들에 의한 폭력만행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그외에도 전국택시로조련맹, 인천시내 가구로동자 등 각지 중소기업로동자들이 련일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점차 전역적규모로 파급되여나가고있다.

이와 같이 확산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지난해 11월의 《로동관계법》개악이후 1월중순까지 약 123건에 달하고있다.

특히 로동자들의 투쟁은 올해들어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는바 올해초부터 지난 2월 9일까지의 사이에만도 68건의 각종 형태의 투쟁이 벌어졌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해 볼 때 50여건이나 늘어난것으로 된다. (《동아일보》 2. 12)

이와 같은 로동자들의 거세찬 투쟁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괴뢰악당과 어용회사들에 의한 생존권위협과 로조탄압에 대한 로동자들의 견결한 항의의사의 표시이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그들의 굳은 투쟁의지를 보여주는것이다.

괴뢰악당들과 어용회사측은 어떻게나 로동자들을 억누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로조운동탄압에 미쳐날뛰고있으나 더욱 확대되여가는 남조선로동자들의 거세찬 투쟁기세는 절대로 막지 못한다.



괴뢰경찰대는 로동자들의 응당한 권리를 폭력으로 억누르고있다. 이 사실을 두고 《민주화합》운운은 어림도 없다.



《로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남조선로동자들은 괴뢰악당들의 탄압을 박차고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의 투쟁)

로태우일당, 로동운동탄압에 혈안

《블랙리스트》를 조작하여 로조핵심 축출

지난해 9～11월사이에 400여개의 로조를 파괴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앙양되는 가운데 괴뢰악당과 악질기업주들에 의한 로조탄압, 로동자들에 대한 《생존권박탈》책동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로태우의 《대통령당선》이 조작된 이후 괴뢰악당은 이른바 《민주화》에 대하여 떠벌이는 한편 《로사관계의 정립》이요 뭐요 하고 떠들면서 마치도 로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듯한 인상을 주려 하고있으나 실상은 그와 딴판으로서 로태우일당에 의한 로동운동탄압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괴뢰로동부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9월 20일의 로조수집계로부터 11월말의 집계시까지 즉 2달 남짓한 사이에 약 400여개나 되는 로조가 줄어들고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신동아》(2월호)는 괴뢰악당의 비호를 받는 악질기업주에 의한 로조탄압의 실상을 자세히 밝히고있는바 그에 의하면 ①조합장, 사무장 등 로동조합간부의 해고에 의한 핵심세력의 제거 ②로조원에 대한 개별적인 회유, 설득 ③로조내의 리간책 ④로조간부 랍치, 감금을 통한 신변상의 위협 등 완전히 로동자들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부당한 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페업, 휴업을 통해 로조와해를 기도하며 그들을 더더욱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책동을 다하고있다.

회사당국자들의 이러한 수작과 탄압은 로조와해뿐 아니라 로동자들의 생활권과 생존권마저 뒤흔들고있다.

로사간의 투쟁이 빈발해지면서 괴뢰악당과 악질기업주들은 투쟁참가자나 그에 동조한 로동자들에게 《재취업금지》의 《딱지》를 붙여 직장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일할 권리, 생존의 권리도 박탈해가고있다.

괴뢰악당은 회사측과 결탁하여 몇해전부터 로동자들에 대한 무슨 《블랙리스트》란것을 만들어내여 그들에 대한 통제, 탄압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할수 있도록 획책하고있다.

이 《블랙리스트》란것은 지난해 10월 27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인천지역해고로동자협의회의 성명에 의해 고발되였는바 그 내용은 《학생출신 로동운동가》, 《운동동조자명부》 등 6개 종류에 나뉘여져 그 대부분은 주요로동운동의 핵심인물들이 기입되여있다.

《이 명부는 로동부와 경찰이 직접 제작하여 각 기업주에 배포한것이 분명하다.… 현《정권》이 로동자를 탄압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는가를 증명하는것이다.》(전목협 성명에서, 《신동아》 2월호)

《블랙리스트》는 기업과 괴뢰당국의 긴밀한 《협조》하에 조작된것으로서 투쟁에 참가한 로동자들이 해고당하거나 그속에 한번 이름이 오르면 어떤 형태든지 안정된 취업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황은 로조탄압과 마찬가지로 괴뢰당국자들에 의한 로동자탄압, 즉 그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려는 그자들의 흉악한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생산직 로동자들에게 있어서 《취업권》의 박탈은 바로 생존권의 위협과 직결되여있다.

바로 이와 같이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날마다 우심해지고있는바 이것은 로태우일당이 떠드는 《민주화》타령이 얼마나 허공에 뜬 기만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허울좋은 《민주화》간판을 든 로태우일당의 군사파쑈도당으로서의 정체는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으며 남조선 로동자들과 인민들의 견결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괴뢰도당의 경찰폭압 력량증강책동을 규탄

【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로태우일당이 경찰폭압력량을 련이어 늘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6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440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4일 괴뢰치안본부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의 파출소 경찰수를 3,000여명이나 더 늘이기로 하였다.

괴뢰들은 얼마전에도 올림픽을 코에 걸고 무려 12만의 병력과 최신탄압장비를 갖춘 《올림픽경비단》을 4월 1일부터 내오겠다고 하였으며 《자원기동순찰대》 등 각종 경찰보조기구들을 내오고 여기에만도 무려 80여만명을 끌어들이고있다.

로태우역도가 경찰폭압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는것은 《대통령》감투를 쓰자바람으로 군정연장을 반대하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인민들을 더욱 야수적으로 탄압하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그러나 총칼로는 군정종식과 민정수립을 위해 떨쳐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억누를수 없다.

탄압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항거를 불러오게 될것이며 놈들을 더욱더 파국적인 위기에로 몰아넣을것이다.

남조선단신

파쑈도당

서울《미국문화원》점거롱성투쟁에 참가한 청년들을 처형하려고 책동

로태우파쑈도당은 2월 24일 서울《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롱성투쟁을 전개한 청년학생들과 이에 관련한 청년학생들을 처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이번 《미국문화원》점거롱성투쟁에 관여한 《청년학생구국결사대》 성원이 모두 8명이라고 떠들면서 동국대학교 학생 백인순 등 3명에 대해 추가로 수배하는 폭압소동을 벌리고있다.

파쑈도당은 이미 련행하여간 5명의 학생들을 악명높은 고문장소의 하나인 괴뢰서울시경찰국 대공과에 넘겨 밤낮 가혹한 심문놀음을 벌리고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놈들의 폭압만행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들이 서울《미국문화원》을 점거하게 된것은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을 가중하고있을뿐아니라 로태우역도를 부추기며 내정간섭을 일삼고있기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여 파쑈도당을 더욱 당황망조케 하고있다고 한다.

미제의 경제압력으로 위기를 겪는 중소업체들

딸라에 비한 남조선돈의 평가인상압력으로 남조선 중소수출업체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있다.

딸라당 남조선돈의 환률이 774원으로 된 2월 중순현재 중소수출업체는 《출혈수출》상태에 처하여 있다.

앞으로 남조선돈이 더 평가인상되여 환률이 730원수준으로 되면 그 업체들의 95.5%가 채산을 맞출수 없게 된다고 한다.

미제에 의한 남조선돈의 평가인상압력과 괴뢰도당의 굴종행위로 하여 중소기업체들은 더욱더 파산지경에 빠져들고있다.

로동자들의 의사표시마저 탄압말살하려는 교활한 탄압기도

괴뢰치안본부는 26일에 있은 한 발표에서 앞으로 경찰은 업체내에서 벌어지는 로동쟁의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그것이 사업장밖으로 확대되여 집회와 시위로 이어질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걸어 처벌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한다. 이것이야말로 중세기적폭압에 교활성이 첨부된 로태우식의 탄압수법인것이다.

말하자면 허울좋게 로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불개입》을 선포해놓고 그 막뒤에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로동자들의 의사표시마저도 가혹하게 탄압말살하겠다는 수작인것이다.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의 범죄적기도는 로동자들속에서 보다 큰 반항을 촉발시킬것이다.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4일 (음력 1월 16일) 금요일 【루계 제10149호】

발행소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130503(〒162)
日刊 月額 2,000円

《김정일동지는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지도자이시다》

2월명절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46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채롭게 경축하였다.

다채로운 행사 진행

사회주의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에서 경축집회와 기념강연회, 영화감상회와 사진 및 도서 전시회가 진행되였다. (표 참조)

마다가스까르의 중앙경축집회에서 연설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낮에도 밤에도 휴식을 모르시고 정력적으로 사업하고계신다.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며 현명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들뿐아니라 마다가스까르인민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고계신다.》

한편 쏘련에서는 소연회, 뽈스까에서는 친선모임, 민주독일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좌담회,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또한 파키스탄에서는 그이의 력사적문헌들에 관한 연구토론회, 가이아나에서는 체육경기가 진행되였으며 꽁고에서는 《2월16일상》마라손경기가 진행되였다.

◆경축집회—마다가스까르, 또고, 네팔, 앙골라, 르완다, 스리랑카, 가이아나, 인도, 애급, 방글라데슈
◆기념강연회—민주독일, 로므니아, 인도, 소말리아, 말따, 나이제리아, 니제르, 기네—비싸우, 파키스탄, 뛰니지, 짐바브웨
◆영화감상회—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또고, 이란, 가나, 모잠비끄, 알제리, 수단, 나이제리아, 니제르, 기네—비싸우, 스리랑카, 뛰니지, 짐바브웨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웽그리아, 또고, 이란, 가나, 니까라과, 모잠비끄, 알제리, 수단, 나이제리아, 니제르, 마다가스까르, 뛰니지, 스리랑카

여러 나라에서 축전
신문, 방송도 보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부르끼나파쏘, 마다가스까르, 빠나마, 세네갈, 소말리아, 가이아나, 짐바브웨, 사회주의 에티오피아, 세이쉘, 기네—비싸우, 뽀르뚜갈, 부룬디, 미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 당과 사회단체들에서 축전과 축하편지가 보내여왔다.

축전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가장 뜨거운 인사와 축하를 드렸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사회주의건설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였다.

축전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슈, 인도네시아, 마다가스까르, 꾸바, 네팔, 까메룬, 나이제리아 신문들은 2월명절을 축하하는 글을 발표하였으며 가나, 파키스탄, 애급, 수리아 신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헌들을 널리 보도하였다.

그리고 애급, 꾸바에서는 라지오와 텔레비죤을 통한 축하방송이 있었다.

사설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강력히 벌리자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파렴치한 려객기실종사건을 날조해냈을 때부터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전체 총련일군, 재일동포들은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세상에 그 범죄적인 본질이 날날이 폭로된바와 같이 이번의 모략사건은 로태우괴뢰악당이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반동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정부》투쟁기세를 억누르고 저들의 군정연장과 올림픽단독개최를 획책하며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헐뜯기 위하여 꾸며낸 자작자연극이다.

실로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은 그것이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나 그 수법의 악랄성으로 보나 류례없는 가장 엄중한 국제적정치모략이다.

때문에 우리들은 내외원쑤들이 련일 감행하는 정치적모략극을 철저히 까밝히고 짓부시는것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며 사회주의조국과 총련조직을 지키는데서 당면하여 주력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전조직적인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내외원쑤들의 모략책동은 오늘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제재조치》를 취하고 려객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어가 소란을 피우며 지어 올림픽의 《안전개최》라는 명목밑에 무력을 증강하고 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실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내외반동들은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그 무슨 《한일올림픽안전대책협의회》라는것을 발족시키고 허황한 《은혜랍치사건》까지 꾸며내여 그를 총련과 결부시킴으로써 총련조직의 합법성을 위협하고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새로운 탄압을 꾀하는데로 끌고나가고있다.

오늘의 조성된 정세는 총련 각급 조직들이 모든 일군들과 상공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며 일대 공세를 취하여 내외원쑤들의 책동에 보다 큰 타격을 가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올해 새해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라는 구호밑에 모두가 아래에 내려가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동포들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우리 공화국을 진심으로 받들고 총련의 애국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총련의 모든 조직들과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아로새기고 오늘의 긴박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태세를 튼튼히 세워 적극적이며 진공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전군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공화국창건기념일까지 벌리는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대진군에 발맞추어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위신을 견결히 옹호하며 승리의 신심에 넘쳐 총련조직에 굳게 뭉쳐나아가도록 할것이다.

우선 동포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을 폭넓게 짜고들어야 한다.

총련 각급 기관들과 전체 일군들은 시급히 본부, 지부, 분회는 물론 단체별로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기 위한 강연과 비데오록화편집물상영, 선전물배포 등으로 대중유세사업을 집중적으로 짜고들것이며 모든 단위, 모든 동포들이 원쑤들의 모략책동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과 실천행동에 나서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것이다.

모략책동을 분쇄하는 사업과 함께 이미 미제와 《안기부》의 주구로, 간첩으로 굴러떨어진 신상옥, 최은희를 리용한 반공화국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도 강력히 벌려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조건과 수단을 리용하여 남조선인민들과 민단동포들에게 이번 모략소동의 본질과 진상을 철저히 알려나가야 하며 광범한 일본인민들이 미일반동들과 로태우도당의 범죄적인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반대배격해 나서도록 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총련 각급 기관들은 내외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최우선적으로 벌리면서 이와 밀접히 결부하여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과 학생을 받아들이는 사업 등 올해 제기된 애국과업들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더욱 자랑차게 빛내일것이다.

인도 칸푸르종합대학 강당을

《김정일강당》으로 명명

【평양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인도 칸푸르종합대학 강당을 《김정일강당》으로 명명하는 모임이 2월 16일 이 대학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인도 칸푸르종합대학 자력갱생학술연구학회 위원장 에취. 라따 스와루프를 비롯한 80여명의 박사, 교수, 교원들과 아세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아세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대학강당에 모시게 된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해나가시는 탁월한 지도자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고계신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칸푸르종합대학 사회학부장이며 교수인 아르.엔. 미스라, 교수 리와스리, 박사 쑤드 하판다이, 박사 에취. 라따 스와루프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자기들의 대학강당에 모시게 된 크나큰 기쁨과 영광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온 나라가 200일전투에로 힘차게 궐기—

확고한 신심, 만만한 투지로 들끓는 조국인민들

온 나라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구호를 발표했다.

위대한 이 호소는 당원들은 물론 조국 전체 인민을 200일전투에로 불러일으켜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게 되는 올해의 총진군운동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가져오게 하는 불멸의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이 호소를 높이 받아안은 조국 전체 인민들은 크나큰 감격과 뜨거운 열정에 휩싸여있으며 확고한 신심과 만만한 투지에 가득차있다.

지난 2월말, 평양시를 비롯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개성시, 남포시들에서는 200일전투를 힘차게 벌리기 위한 군중대회가 있었다.

군중대회들에서는 지방의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200일전투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일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설자들은 또한 공화국창건 40돐전으로 비날론 10만톤생산능력을 조성하고 안주지구, 순천지구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태천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 위원발전소 등 중요대상건설을 끝낼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한편 2월 27일 평양시에서는 200일전투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홰불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200일전투기간에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를 기본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청년학생들의 굳은 결의가 표명되였다.

모임이 끝난후 충성의 홰불행진이 진행되였다.

중국공산당 조자양총서기가

조선통일을 지지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신화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조자양동지가 2월 27일 일본 《아사히신붕》 사장과의 회견에서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말하고 중국은 조선의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립장을 줄곧 지지하고있으며 북남대화와 조선의 북과 남, 미국의 3자회담제안을 지지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중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며 그를 위한 제안들과 조치들을 지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베닌, 부르끼나파쏘, 쎄인트 루씨아 수반들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이 우리 나라 대사를 만난 석상에서 조선의 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였다.

베닌대통령 마티어 께레꾸는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언급,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도발을 일으키지 못하게 국제적여론을 적극 불러일으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근에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부르끼나파쏘인민전선 블래즈 꼼빠오레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정당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쎄인트 루씨아 존 죠지 멜빈 콤프론수상은 조선의 통일문제가 외세의 간섭 없이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표시하면서 조선의 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였다.

파쑈도당

려객기실종사건의 모략적내막을 폭로한 벽신문을 제작한

학생들을 체포

보도에 의하면 파쑈도당이 광주의 전남대학교 학생들인 김운중, 윤중서를 체포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파쑈도당은 이들이 로태우일당의 자작자연극인 려객기실종사건의 모략적내막을 폭로한 벽신문을 만들어 대학구내에 붙였다 하여 폭압의 마수를 뻗쳐오다가 지난 2월 24일과 25일 광주 충장로에서 있었던 반《정부》시위현장에서 그들을 각각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파쑈도당이 저들의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폭로된데 대해 몹시 두려워하고있으며 당황해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운중, 윤중서학생들은 지난 1월말 려객기실종사건은 현《정권》의 자작극이며 《수사결과》발표는 《이미 작성된 씨나리오에 따라 꾸며진것》이라고 폭로한 벽신문을 만들어 학생회관 게시판 등 교내 6군데에 내다붙였다 한다.

모든 기회와 마당을 리용하여 대외사업을 진공적으로

총련 미야기현본부가 조일친선모임을 대대적으로 진행

《이럴 때일수록 오늘까지 구축해온 대외사업의 성과를 백방으로 살리자!》

총련 미야기현본부에서는 지금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본질과 진상을 폭로하기 위한 대외정치선전사업을 모든 기회와 마당을 리용하여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적들의 온갖 파괴책동속에서도 총련조직을 유지공고화할수 있습니다. 총련에서는 일본인민들에게 일본은 조선의 린방인것만큼 조선의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을 도와주어 조선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할것이 아니라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것을 해설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총련에서 일본인민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일본인민들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려나가기 위해서는 대외사업을 상임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기관화, 군중화하여야 한다.

본부는 지부로부터 분회, 단체에 이르기까지 사업체계를 똑바로 세워 동포들과 일본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정력적으로 사업하였다.

전기관적, 군중적인 사업으로 전환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일어난 즉시로 본부상임위원회를 가진 이곳 본부는 사건의 진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대외사업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웠으며 지부와 분회, 각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이미 꾸려진 대외사업담당체계를 재정비할것을 합의보았다.

대외사업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몇몇 담당일군들단위에서 벌어지고있었던 이 사업을 기관화, 군중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본부는 현직인 대외사업담당자들의 모임을 2번에 걸쳐 진행하였다.

거기에서 일군들과 동포들이 이 사업을 차요시할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사업으로 여기고 목적의식적으로 짜고들며 매개 기관단위에서 대대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재삼 강조하였다.

또한 대외사업목표와 함께 각계일본인사들의 명단, 관계자료들을 각 기관들과 분회에 내려놓았다.

지난해말에 년말인사를 겸하여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 약 200호를 방문한 각 기관 일군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총련중앙 성명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해나갔으며 올해 대외신년모임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 …

이 사업의 주인으로 내세워 그들의 힘을 적극 동원하였다. 특히 센세끼지부관하 금길성동포는 경험이 없는 속에서도 일본인민들속에 적극 들어가 그들을 수많이 동원하였으며 모임의 사회도 하는 높은 열성을 발휘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대외사업에 대한 관점이 바로서고 대외사업이 기관화, 군중화됨으로써 일본인민들과의 신년모임은 조청본부와 녀성동맹본부, 금강보험 등 매개 기관과 모든 지부, 분회 단위에서 8번에 걸쳐 진행되였다.

철저한 방문담화 사업에 기초하여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외사업은 어려워졌지요.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사업에 큰 …



지난 2월초에 진행된 센다이지부대외신년모임

… 모임을 가지고 학습을 깊이면서 담당자들이 리론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대외신년모임을 내용있게 가지도록 사업을 짜고들었다.

매개 지부들에서는 힘있고 준비된 젊은 동포들을 벌려야 할 대외사업이니 본부는 일본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힘썼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일본인민들속에 들어가 선전하고 신년모임에 동원할뿐아니라 그들의 많 …

이것들은 모두 이곳 본부가 대외사업을 상임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전기관적, 군중적 힘을 모아 일본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는 속에서 거둔 성과이며 결실이라 할수 있다.

… 은 협력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였다.

지난 시기엔 엽서나 자료를 보내면 되는 사업도 이번에는 일군들이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알려나갔으며 신년모임의 목적과 의의를 꾸준히 해설선전하였다.

또한 일본의 로조와 단체들의 모임에는 일군들이 꼭 찾아가 련대연설을 설득력있게 하여 그들의 리해와 협력을 받아나갔다.

결과 많은 일본인민들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알고 이럴 때일수록 일조련대성운동을 더욱 강화 …



조일부인간담회

정의와 평화 위해 우호와 련대 강화할 결의 확인

녀성동맹중앙 주최로 조일부인간담회 진행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의 주최로 조일부인간담회가 2월 26일, 도꾜 이께노하다문화쎈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녀성동맹중앙 …

… 의 강연이 있었다.

그는 특히 일본녀성들에게 일본정부가 남조선당국의 발표를 곧이 듣는 조건에서 이 사건을 남의 나라 문제로 보지 말고 자기의 …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해 일본인민들이 더욱더 지지,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 실종사건을 재정리하고 조일 두 나라 녀성들의 우호와 호상교류를 확인하자는 취지밑에 진행됐는바 참가자의 대다수가 일본녀성이였다는것이 특징이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일본기자 …

고하였다.

그는 도꾜제4초중 학생들에 대한 일본청장년들의 폭언, 폭행 사건은 19건이나 되며 학교에 대한 협박 등을 합치면 무려 49건의 사건들이 일어나고있다고 보고하였다.

… 라고 일본부인회의 시미즈 스미꼬회장은 이야기했다.

참가자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일본 정부와 보도계를 규탄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새학년도 나머지 28일

어릴 때부터 민족교육을

자녀교육을 생각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아이찌

1988학년도를 맞이하여 녀성동맹 아이찌현본부가 2월 26일, 자녀교육을 생각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을 아이찌제1초급 강당에서 가졌다.

… 와 분회 그리고 개별적으로 신입원아들의 어머니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짜고들어왔다.

얼마없어 새학년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총련의 …

… 질문, 의견을 내였다.

《3세, 4세인 우리 어린이들의 민족성을 어떻게 키워줄것인가 고민하고있었는데 오늘 모임을 통해 유치반과 학교 그리고 가정이 하나로 결합되여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 말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그래야 우리 말과 일본말도 다같이 잘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생각하게 되였다.》

어머니들은 입원식날까지 자기자신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준비를 잘하자고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새로 준공된 아이찌제1초급의 유치반 교실,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가슴흐뭇함을 금치 못해하고있었다.

… 는 유아시기부터 민족교육을 시키는 중요성을 깊이 틀어잡고 원아를 받아들이는 사업을 전기관적으로 벌림으로써 지난해 10월에 이미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다.

목표달성에 자만함이 없이 이곳 본부에서는 지부 …

… 육국에서 유치반사업을 맡아보는 리병학부부장이 총련의 유치반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이어 아이찌제1초급 유치반의 리잠태교양원이 원아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많은 어머니들도 활발히 …



모임에는 새학년도에 유치반에 입원하게 될 원아들의 어머니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총련 아이찌현본부에서 대외정치선전사업

총련 아이찌현본부에서는 지금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외정치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그런 속에서 지난 2월 25일, 남조선려객기실종 …

… 일본정부의 부당한 《제재조치》를 취소시키고 재일조선자녀들에 대한 협박,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투쟁해나갈것이 합의되였다.

한편 이날 총련 메이낭 …



총련 아이찌현본부에서는 대대적인 대외정치선전사업을 벌리고있다.

… 중의원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부인, 청년, 학생, 로조 대표들 26명의 참가밑에 진행된 모임에서는 총련본부 리정부부위원장이 강연을 하였다.

활발한 질의응답이 벌어진 모임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선전해나가며 …

… 쎄타 아사이 도꾸지사무국장을 비롯한 4명의 변호사들과 총련본부일군들의 간담회가 진행됐는바 이번 사건의 진상과 지금 우리 동포자녀들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아이찌지국】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간담회

총련 효고현 나다지부

총련 효고현 나다지부가 지난 2월 24일,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간담회를 조직진행하였다.

간담회에는 오오다 다께시현의회의원을 비롯하여 시의회의원과 각계일본인사들, 우리 일군들과 상공인들 50명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총련지부 오승홍위원장이 연설을 한 다음 총련본부 로광래국제부장과 작가인 우마베 기시오씨가 진상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많은 의문점이 지적되여 내외반동들의 정치모략극이 폭로규탄되였으며 일본정부의 《제재조치》와 우리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협박 행위가 규탄되였다.

【나다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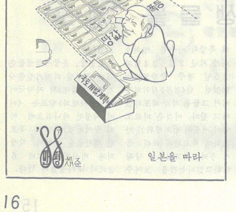
공화국을 방문한 일본인사들의 보고모임

구마모도현

지난해 11월에 공화국을 방문한 제2차일조련대구마모도방조단 성원들의 보고모임이 지난 2월 …

… 체 대표들 5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운 …



일본을 따라

《개정법》

목소리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

20만 무력 동원, 2월~5월

《팀 스피리트 88》전쟁연습이 이미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미제는 연습시작을 앞두고 《중지설》, 《규모축소설》 등 온갖 기만선전을 다했으나 지난 1월 28일에 2월부터 5월에 걸쳐 20여만명의 최대규모로 벌릴것을 공표해놓았다.

미제는 최대규모의 연습소동을 벌리면서도 내외의 규탄을 외면하기 위해 연습이 절정에 달할 야전연습기간(3월말부터 2주일간)만 연습을 벌리는듯이 여론을 오도해왔다.

그러나 미제는 2월초부터 대량적인 살륙무기와 인원을 남조선에 투입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에서는 괴뢰군이 연습태세를 갖추는 등 제1단계 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역행하여 악착스러운 북침소동에 미쳐날뛰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해마다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험은 가셔지지 않고있다.

제1단계 작전전개연습 로골적으로 감행

워싱톤 등 미국본토로부터 군사 장비와 인원 대대적으로 투입

… 요 뭐요 하는 전쟁연습을 감행)이다.

미제는 올해 연습발표시에 이 3단계연습중 2단계의 야외기동훈련기간만 …

내린 미륙군 대공포병부대 선발대 1진 454명이 괴뢰공군 5672부대기지에 쓸어들어 야외기동훈련준비에 들어갔다. 이 병 …

오끼나와에는 미해병대 1만 3천명과 군사장비 집결, 남조선에 이동 개시



오끼나와에 집결된 미군 군용차량은 곧 남조선에 투입되고있다. (《류뀨신보》에서)

… 들을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각종 군함들에 실어 부산과 포항에 들이밀것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2월 24일에는 남조선의 공군기지에 …

… 그 어떤 기만술책으로써도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내모는 전쟁광신자로서의 정체를 감출수 없다.

미제와 괴뢰들은 무모한 전쟁소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제2, 제3단계 전면적인 북침공격연습을 기도

… 그 무슨 《련합화생방작전능력향상책》과 《련합화학전방어시범훈련계획》, 《작전능력신장》 등에 대해 쑥덕공론을 벌렸다고 한다.

핵시험전쟁이며 예비전쟁인 《팀 스피리트 88》 … 께 화학 및 세균전쟁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어두운 그림자는 누가 던지고있는가

《로동신문》이 미군부 우두머리의 망언을 규탄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2일부 《로동신문》은 미군부우두머리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전쟁위험이 증대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애쓰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 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강화하며 무력을 증강하고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미군부우두머리들이 그 누구의 《공격위협》이니, 《어두운 그림자》니 뭐니 하면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전쟁위험 …

… 현실을 외곡하고 흑백을 전도한 허위날조로서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하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다.

미제는 분렬과 전쟁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남조선에서 군부독재를 연장하 … 이다.

미제는 파렴치한 구실을 조작하여 우리를 헐뜯으려고 미쳐날뛰여도 거기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화학 및 세균 전쟁을 도발하려는 모의

남조선에서 《련합화생방회의》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괴뢰공군 5672부대에서는 최근 제14차 남조선 및 미국 《련합화생방회의》라는것이 벌어졌 …

합동군사연습을 위해 미제침략자들이 저들의 병력과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집중시키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 …

평화의 극악한 교살자들은 응당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공화국 각지에서 《팀 스피리트》군사연습 규탄집회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과 핵전쟁책동을 규탄하는 군중집회가 희천공작기계공장, 원산 …

집회들에는 공장, 기업소, 농장 책임일군들과 종업원들, 농장원들과 같이 참가하였다.

집회들에서는 연설들이 …

여 그 무슨 비무장지대에서의 《충격사건》을 날조하고 우리에 대한 엄중한 무장도발을 감행하는 한편 남조선에로의 방대한 무력 …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적이며 반민족적인 죄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서울《미국문화원》 원장이 5개 대학 신문 편집장들앞에서 로태우역도를 적극 두둔

남조선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미국문화원》 원장 존 리드라는자가 2월 25일 성균관대학교와 숙명녀자대학교,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5개 대학 신문 편집장들을 《초청》하여 그 무슨 의견을 나누는 놀음을 벌렸다고 한다.

존 리드란놈의 속심은 대학신문 편집장들을 잘 구슬려 반미반괴뢰감정이 걷잡을수 없이 높아가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무마하자는것이였다.

지난 2월 24일 서울 《미국문화원》점거투쟁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의사와 지향을 그대로 대변한것으로서 천만번 정당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편집장들도 이날 그들 《학생들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자기들의 견해를 명백히 하였다.

그러자 원장이란자는 로골적으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합리화》하는 한편 온갖 부정협잡으로 《당선》을 조작한 로태우역도를 공공연히 비호해나섰다.

미제가 서울《미국문화원》 원장의 명판을 단 현지사환군을 내세워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은 로태우역도를 저들의 번견으로 내세운것만큼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시비하지 말라는것이며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반미반괴뢰투쟁에 계속 나서는 경우 괴뢰역도를 부추겨 총칼로 다스리게 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으며 놈들이 남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부지하기 위해 로태우일당과 같은 민족반역자들을 한사코 부축해주려 하고있음을 폭로해주고있다.

서울《미국문화원》 원장의 망언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으며 그들의 반미감정을 더욱 촉발시킬것이다.

《국회의원선거》에서 깡패들을 밀어주려는 어용《로총》의 기만극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어용《로총》이 2월 27일 이른바 《대의원대회》를 벌려놓고 그 무슨 《결의문》이라는것을 꾸며냈다.

그 내용인즉 로동자들의 《최저생계비확보》를 위해 《투쟁》한다는것이고 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로총》은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로동운동출신인물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며 각 정당들에 대해 그들의 《공천》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권익신장》의 간판을 내걸고 이미 더러워질대로 더러워진 《로총》의 몰골에 분칠하여 어용《로총》의 해체를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항의를 무마하며 나아가서 로동관계의 너울을 뒤집어쓰고있는 일부 《민정당》패거리들의 《국회의석》 확보를 밀어주자는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로총》이란 미제와 그 주구들인 파쑈통치배들과 매판재벌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어용도구이며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와해하는것을 본업으로 삼는 반동단체이다.

력대적으로 남조선괴뢰국회에 로동자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활동해온 로동운동관계자들이 들어가 본적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국회의원선거》놀음에 뛰여들어 《민정당》패거리들의 《득표》를 밀어주려는 어용《로총》의 교활한 술책은 광범한 로동자들속에서 항거를 불러일으킬것이다.

로역태도우가 시위자 탄압 위하여 살인가스 도입

광주대학살의 진범이며 파쑈군사불한당인 로태우역도가 미제상전의 비호밑에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극악무도한 살인광으로서의 본성을 드러내놓았다.

2월 25일 제놈의 《취임》을 반대배격하여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에게 새로 도입한 타르가스를 마구 퍼부어 화상을 입게 하는 치떨리는 범죄적 만행을 저지른것은 그것을 보여준것이다.

몸에 묻으면 화상을 입게 하는 타르가스는 로태우역도가 제놈의 집권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화염방사기처럼 내휘두르려고 끌어들인 살인적인 독가스의 하나이다.

문 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높은 수준에서 형상

《조선단편집》(4)에 대하여

변 재 수



소설에는 장편이 있고 중편이 있고 또 단편도 있다. 장편과 중편에 비하면 단편은 비교적 력사가 짧다. 구미나라들에서는 에도가 알란 포가 단편소설의 쟝르를 개척하고 모파싼이 그것을 발전시켰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리조시대에 들어서서 단편소설이 왕성히 창작되였으며 그 전통은 근대문학에 계승되여 특히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서 적지 않은 명작을 세상에 내보내였다.

해방후 공화국에서 단편소설의 쟝르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의 현실이 제기하는 혁명과업을 받아물고 작품이 짧다는 제한성을 도리여 리용함으로써 예술적밀도가 짙은 작품의 창조에서 성공하여왔다. 일반적으로 단편소설은 장편 및 중편소설과는 달리 등장인물의 성격발전 말하자면 그의 성격이 사건을 통하여 전개발전되는 방법이 아니라 집약적인 구성속에서 인생의 한 단면 혹은 현실의 한 단면을 예술적삽화로 형상화하는 방법을 쓰는것이다.

따라서 단편소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편소설이상으로 작가의 풍부한 구성력의 구사가 요구되며 그만큼 계산을 다한 고도한 리알리티가 요구되는 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현대단편소설은 특히 소재의 선택과 주제의 설정에 있어서 언제나 현실적이며 변혁적인 좋은 작품들이 많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예술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이 분야를 맡으시고 령도하시여 찬란한 발전을 보게 된 사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단편소설분야에서 보더라도 그 령도에 의하여 창작된 성과작은 많으며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영상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력사의 자취》(권정웅), 《맑은 아침》(고병삼), 《철의 력사》(변희근), 《크나큰 사랑》(리영규), 《눈석이》(석윤기) 등은 공화국의 현대단편소설을 대표하는 명작이라 할수 있다.

1987년 3월에 우리 나라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조선단편집》(4)은 이미 발간된 단편집 1～3의 속간인데 여기에는 1976년에 발표된 작품 2편, 79년의 작품 1편, 81년의 작품 2편, 82년의 작품 5편, 83년 5편, 84년 1편, 85년 3편 합계 19편의 작품이 수록되여있다.

발표된 년대를 보면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여기에 실린 19편은 모두가 주체의 유일사상체계, 특히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가는 사상교양사업이 한층 심화발전되여나가는 시기에 씌여진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단편소설집에 수록된 작품들의 특징의 하나는 《천암산》(백보흠)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주제로 한 작품이 오늘날의 요구성에 맞는 수준에 도달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자칫하면 형상화가 류형적으로 흘러서 예술성이 미약해질수 있는데 작가 백보흠은 광산개발에 일생을 바친 주인공 박종환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담담하게 묘사하면서 이러한 주제의 단편소설의 하나의 전형을 창조하였다.

《기억》(현승걸) 역시 이 단편집의 특징의 또하나를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작품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눈에 부상을 입고 실명한 영예군인 리명천과 그의 외딸이며 안과의사인 리호심에게 돌려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이 자연스럽고 고매하며 예술적으로 잘 형상되여있는 사실이다. 영예군인공장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는 실지로 있은 실화라고 짐작이 가는데 그 사실은 소설창작의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소재일것이다. 작자 현승걸은 그 실화를 예술적인 령역에까지 높임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덕성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고있는데 이것은 실화와 픽숀과의 호상관계라는 소설창작방법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정숙녀사의 영상을 주인공의 생활과 체험을 통하여 형상한 《오늘도 살아계신다》(신진순)와 같은 작품도 역시 이 단편집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고있다.

우리 문학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 그리고 혁명적가정을 문학작품으로서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문제는 주체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 확립과 더불어 창작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풍부한 소재가 문학창작가들앞에 마련되고있다. 그리고 작가들이 그 소재로 자유자재로 명작을 창작할 조건도 기회도 적지 않게 주어지고있다. 이번에 발간된 《조선단편집》에는 최근년간에 우리 작가들이 그런 기회와 조건을 잘 리용하여 창작한 명단편들이 수록되여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바란다.

(문예평론가)

확대경

원형을 잘 보존한 귀중한 자료
기록영화 《봉산탈춤》

최근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는 기록영화 《봉산탈춤》을 만들어내놓았다.

《봉산탈춤》은 고려말엽부터 봉산을 중심으로 서북조선지방에서 널리 추어온 민속무용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탈춤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기록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6년 6월에 《봉산탈춤》을 친히 보아주시고 그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과 배려를 베풀어주신데 토대하여 1955년에 기록영화화면으로 수록해놓았던것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로 우리 나라의 현실변화의 요구에 맞게 새로 편집한것이다.

량반들과 승려들을 조소하는 이야기줄거리를 가지고 여러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하나의 가무극형식으로 발전되여온 《봉산탈춤》은 원래 11가지 춤으로 이루어져있다.

기록영화는 본래의 《봉산탈춤》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록하는 원칙에 립각하면서 이중에서 사상좌춤, 팔목춤, 량반춤, 로승춤, 신발장사춤, 술주정군춤, 사자춤을 추려서 수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말엽 어느 산의 절간에 점잖은체 하는 로승이 있었는데 녀무당이 나타나 유혹하자 호색적인 본색을 드러내여 이를 보던 신발장사군의 규탄을 받는다.

여기에 량반이 나타나 녀무당과 어울려 춤을 추는데 그의 하인 《말뚝이》는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는 량반들을 야유한다. 여기에 새로 나타난 포도비장은 녀무당을 탐내여 량반을 내쫓는데 이때 사자가 나타나 이 추악한 모든것을 내쫓고 만다. …

이처럼 반인민적봉건제도의 부패성과 당시 인민들의 강한 반항정신을 보여주는 《봉산탈춤》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있는 이 기록영화는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게 되는 귀중한 자료로서 지금 내외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최근에 황해북도예술단이 상연한 《봉산탈춤》의 한장면

광장

새로 나온 예술영화들

영화 《병사의 고향》, 《우리 영심이》, 《교육자의 모습》이 새로 나왔다.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에서 만든 예술영화 《병사의 고향》은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대해줄뿐아니라 제대되여오는 군인들을 열렬히 환영해주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는 어느 한 군의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위원장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꽃펴나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만든 예술영화 《우리 영심이》는 식료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자진하여 밥공장에 들어간 주인공 영심이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돌려지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주민들에게 더욱 원만히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에서 만든 예술영화 《교육자의 모습》은 당의 요구대로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하는 어느 한 대학의 부학장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우리교실〉문학상》작품현상모집에 4만여편 투고, 4백명 입상

우리 당의 따사로운 사랑속에 각지 고등중학교와 인민학교 학생소년들속에서 문학작품창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해 4월 제1차 《〈우리 교실〉 문학상》 작품현상모집사업이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1년도 못되는 사이에 각지 학생소년들속에서 4만여편의 작품이 투고되였으며 400명의 학생소년들이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여 《〈우리 교실〉 문학상》 메달과 표창장을 받게 되였다.

그중에서도 평안북도 신의주시 관문남자고등중학교 6학년 박길의 단편소설 《오누이》,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기계기술학교 4학년 김철웅의 벽소설 《량심이 준 웃음》,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남자고등중학교 6학년 김상호의 시초 《신천의 웨침》 등 많은 작품들은 참신한 종자를 심고 주제사상을 문제성있게 해명한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청소년시절에 동시 《우리 교실》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시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대를 이어 따라배울 귀중한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학생소년들속에서 《〈우리 교실〉 문학상》 작품창작사업이 적극 벌어짐으로써 우리 당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이 더욱 빛나게 옹호고수되게 되였으며 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창작적기량이 활짝 꽃펴나 학생소년들이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시

세상에 오직 하나

오 영 재

가는 길이 멀어서
홀로는 못가
내 한생 따르며 의지하는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안아주어 살뜰할 때도
꾸중으로 엄할 때도
운명의 피줄처럼 쥐고 따르는
그런 손길입니다

그 손길 잡고가면
천만의 억센 손이 받들어주는듯
진펄길도 힘겨운줄 모르고
깊은 강도 두려운줄 모릅니다

아, 당이여
그대 손길 잡고 가면
크나큰 사랑이 끝없이 흘러들어
전사의 작은 이 가슴에도
영웅의 용맹이 샘솟고

그대의 심원한 진리
내 눈을 밝히여
천하를 굽어보고
만리를 내다보나니

내 만약 그 손을 놓는다면
생명의 피줄은 끊기고
어느 풀덤불속에 쓰러졌을것입니다
머리우에 하늘도 없고
밝은 해도 없을것입니다

한없이 정답고
은혜로운 당이여
이 가슴에 울리는 그대 목소리는
봄우뢰처럼 환희롭고

내 볼에 스치는 그대 숨결은
복받은 새날의 훈향처럼 정답습니다
그 길에서 지켜보는 그대 눈길은
우주의 영원한 빛과도 같습니다

하여 내 눈에 보이고
이 가슴에 가득히 들어찬것은
당이여
그대 모습
그대 생각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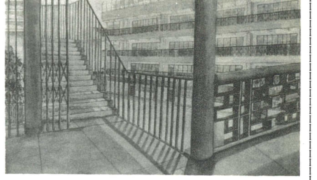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열정이 뿌리를 둔
거대한 생명의 모체
그 손길 잡고 따르면
가슴은 언제나 청춘의 더운 피로 끓어
영생의 삶이 빛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손길에
내 기꺼이 운명을 맡겼습니다
영원히 믿고 살
고마운 품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이기에

한생을 놓을수 없는
그 손을 잡고 혁명의 길을 갑니다
내가 받들고
내가 따르는
우리 당밖에 나는 모르기에
이 세상에 우리 당이 제일이기에

(2월 16일부 《로동신문》에서 전재)

제16차학생미술전람회 1등작품



수채화 《일요일에》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중급부 2학년 리 충 실

생신한 시점과 높은 표현기술

재일조선학생중앙미술전의 응모작품수는 해마다 늘어나고있습니다. 제16차에는 8천여점이나 모였으니 규모는 일본에서도 일등급입니다. 《우리 학교》란 주제가 많다는것도 특징의 하나입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의 얼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마당이란 인식이 잘 감축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풍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나타난 그림들이 비슷비슷하게 되기때문에 제각기 고심하면서 창조적으로 구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생신한 시점으로 자기 학교건물의 특성을 잘 나타낸것이 평가의 첫째 리유입니다. 또한 중급부 2학년인데 수채화의 표현기술이 매우 높다는것입니다. 그로 하여 여느때면 들썩거리는 학교이지만 일요일의 정숙한 하오의 해빛이 유난히도 따뜻이 표현되였습니다. (김)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大会参加者たちは内外反動の戦争挑発と謀略策動を断固粉砕する決意を新たにした

「チーム・スピリット88」と謀略策動を糾弾する

在日本朝鮮人中央大会

米帝国主義と南朝鮮かいらい集団の「チーム・スピリット88」合同軍事演習策動と謀略騒動を糾弾する在日本朝鮮人中央大会が一日、東京朝鮮文化会館で行われた。

大会には、総聯中央・韓徳銖議長と李珍珪第一副議長が、李季白、朴在魯、徐萬述、申相大、裵乗斗の各副議長ら、権淳徽事務総局長と各局長、中央団体、事業体と関東地方総聯本部の幹部らとともに参加した。

大会では、総聯中央・朴在魯副議長が演説をした。

副議長は演説のなかで、「チーム・スピリット」がいかに侵略的で反平和的な戦争演習であるか、また、平和と緊張緩和のために共和国がいかに一貫した努力を重ねてきたかなどについて語った。そして、南朝鮮旅客機失そう事件の欺まん性について言及し、旅客機事件は南朝鮮かいらい集団が仕組んだ自作自演劇であると糾弾した。また、日本当局の共和国、総聯敵視政策が許しがたい段階に至っていると指摘した後、在日同胞たちの闘いについて触れた。

副議長は最後に、内外の反動たちがいかなる策動をめぐらそうとも、一致団結して愛国事業の発展のためにまい進していこう、と呼びかけた。

つづいて来賓の連帯演説があった。日本社会党朝鮮問題対策特別委員会副委員長の久保田眞苗参議院議員、総評・文化教育局長の三嶋静雄氏、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事務局長である日本婦人会議・清水澄子議長らが演壇に立ち、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朝鮮の統一のために共に連帯して闘うことを表明した。

大会では、朝青東京都本部・金鏡浩委員長、女性同盟三多摩本部・康昌姫委員長、商工連合会・金政秀副会長らが反動らの策動を糾弾し、団結を呼びかけた。

平壌国際文化会館が完成



タワー式、10階建て
各国との文化・芸術交流の場に

平壌の中心、栄光通りに平壌国際文化会館が完成した。

建物の延べ建築面積は一万余平方㍍。タワー式に建てられたこの会館は、地下を含めて十階建てになっている。

会館内には各種会議場と面談室、楽器・美術作品・民芸品展示場、舞踊・器楽・声楽演習室、映画・音楽鑑賞室、創作室、宴会場、それに喫茶店、地下食堂などが備えられている。

会館では、世界各国の民族楽器展示場としての利用や、共和国の民族工芸品、民族楽器などの展示と販売も行われるという。

会館は今後、朝鮮と世界各国文化芸術部門の活動家や、第十三回世界青年学生祭に参加する青年代表らが利用することになる。

2.27特赦

「民主化」の虚構性を露呈

南朝鮮当局はさる二月二十七日、政治犯千七百人を含む七千二百人を対象とした「特赦」を行った。しかし金槿泰、張琪杓、金文洙氏ら、主要な人士は対象から外され、民家協などをはじめ在野民主化団体からは、「欺まん的措置」であるとの指弾を受けている。一方、「在日同胞政治犯」の中からは、今回の「特赦」で釈放された者はなく、六人が刑期の軽減を受けたにとどまり、四十五人全員が自由の身となる何らの保証もなく、獄中生活を強いられたままとなっている。

「選別釈放は欺まん」——民家協

この日、「民主化実践家族運動協議会」（民家協）は、声明書「政治犯の全員釈放を促求する」を発表。その中で「このたびの選別釈放は民主化勢力に対する徹底した愚弄（ぐろう）であると同時に、国民に対する欺まん的措置」だと主張した。

また同日、ソウルの「韓国基督教会館」で、今回の「特赦」によって復権した文益煥牧師や、釈放された許仁会前高麗大総学生会長らと、拘束者家族、在野民主人士、学生ら三百余人が、良心囚の全員釈放と手配解除決議促求大会を開き、政治犯と良心囚全員の即時釈放と、手配中の者に対する手配解除を盧「政権」に要求した。

このように、今回の「特赦」は、「国民大和合と画期的な民主発展の契機を開くため」（鄭漢模「政府スポークスマン」一声）のものでは到底なく、むしろ民主化勢力が指摘するように「6・29民主化宣言の虚構性を現したもの」（李富栄民統連事務次長の釈放第一声）に過ぎない。

また、昨年の「6・29宣言」以後も新たに七百七十人の「政治犯」が作りだされた（「拘束者現況」韓国基督教教会協議会八七年十一月発行）ように、今後も新たな「政治犯」が大量に作りだされない保証は何もない。

その一方で現在、獄中にとらわれている「在日同胞政治犯」の数は、「在日韓国人政治犯を救援する家族・僑胞の会」（家族・僑胞の会）の調べでは、四十五人といわれている。



拷問と虚偽の調書によって17年もの間獄中生活を強いられている徐勝、徐俊植兄弟

刑期の満了後 10年も獄中に

京都府出身の徐勝、徐俊植氏兄弟は、一九七一年四月の「学園浸透スパイ団事件」発表以来、すでに十七年の長い年月を獄中で過ごしている。

また、徐俊植氏（刑期七年）と、熊本県出身の姜鐘健氏（同五年）は、すでに「刑期」を満了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非転向」であり、再犯のおそれがあるとして、「社会安全法」による保安監護処分（二年間、何度でも更新可）を受け、すでに刑期を上回る期間、不当にとらわれ続けている。

とりわけ姜氏は、一九八四年十二月にソウル「高等法院」で、保安監護処分の無効判決を勝ち取ったにもかかわらず、翌年二月に処分を不当に更新され、今日に至っている。

このような長期にわたる「予防拘禁措置」に対し、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など、世界の人権擁護団体からも、その不当性が指摘されている。

しかしながら「在日同胞政治犯」のおかれている実状については、南では報道が制限され、一般に知られることはなく、家族の面会以外にその消息を知ることはできないのが現実だ。



記者会見で「特赦」の欺まん性と「在日政治犯」の全員釈放を訴える救援団体代表ら

"失望と憤り" 家族ら訴える

こうした状況下での今回の「特赦」に対し「家族・僑胞の会」など、救援団体の代表と、政治犯家族らは同日、衆議院第二議員会館で記者会見を行い、「欺まん的な『赦免措置』に抗議する」という声明を発表した。

声明は今回の「特赦」が、「深い失望と激しい憤りを感じさせるもの」であり、その理由として「今年七十一歳になる姜宇奎氏が無期懲役から懲役二十年に減刑されたということを、どうして喜びをもって迎え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と主張。口では「民主化」をとなえつつも「盧泰愚政権は政権安保のために政治犯の人権を無視するという体質を全斗煥政権からそのまま引き継いでいる」と糾弾し、その一方で「在日韓国人政治犯の存在などないかのように盧泰愚新政権への無条件の協力と支援を申し出ている」日本政府の姿勢を厳しく非難。「最後まで全政治犯の釈放を勝ち取るべく、今後とも強力に運動を進めていく」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拷問でデッチ上げられた無実の罪によって、現在も獄中で劣悪な環境に苦しめられている数多くの民主人士や、「在日同胞政治犯」らを自由の身にすることなく民主化をうんぬんする盧泰愚新「政権」の欺まん性は、今回の「特赦」によってすでに露呈したといえよう。

朝鮮側首席委員 米兵遺骨問題で米側に書簡

軍事停戦委員会の共和国側李泰昊首席委員は二月二十九日、米側首席委員に対し彼が十六日に行った米兵遺骨の引き渡し要求に返答する書簡を送った。

その中で李首席委員は、もともと遺骨の発掘と返還は、軍事停戦委員会で討議すべき問題ではないことを再度強調した。停戦協定と合意事項は、遺骨が発見される場合は、軍事停戦委員会を通じて手渡されると規定している。しかし米国の要請を受けて正式に遺骨の調査発掘事業を行い、それによって新たに遺骨が調査発掘されたり、かつそれを返還するといった問題は、軍事停戦委員会の機能に属する問題ではない。

つづいて書簡は、「遺骨問題が今日まで解決されないのは、米政府がこの問題を政治化し、当然推進されるべきわれわれとのいかなる協議にも反対したことにある」として、①共和国側が八六年二月に提起した「米兵遺骨発掘・引渡引受委員会」が行われなかった②昨年末に米国の一部議員と在郷軍人団体、個別人士らが共和国から遺骨を引き取っていくことを米政府が許可しなかった③今年の一月に、板門店に来た三人の米議員が遺骨の引き渡しを要請、共和国側も引き渡し準備を進めていたが、KAL機事件、チーム・スピリット演習実施によって実現されなくなった——などと、具体例を挙げて米政府の対応を非難した。

その上で「米側が停戦協定と合意事項を無視し、遺骨問題を解決する何の権限もない停戦委員会にのみ引き続き固執するのは、問題解決に実質的な関心がないことをすすんで示すだけだ」と指摘した。

一口世評

演習実施と情報操作

今年の「チーム・スピリット88」軍事演習ほど米国の欺まん的姿勢を改めて示したものはない。というのは、当初米国は非公式情報を通じて、「演習中止説」や「規模削減説」を盛んに流していたからだ。

"軍事関係筋"や"コリア・ウォッチャー"を自認する専門家諸氏の中には、"中止"と断定するものまで現れた。しかしこれは、米国の軍事戦略の本質を甘く見ていた、あるいは見ようとしない姿勢から、アングラ情報に振り回されたものといえよう。

軍事評論家の藤井治夫氏によれば、「チーム・スピリット88」の予算案が決定されたのは八六年末だったという。八七年初めに予算教書が提出され、米議会の決定が九月末までに行われて、十月一日から会計年度が始まる仕組みとなっている。この予算要求に先立って米陸、海、空、海兵が統合レベルで詳細な業務計画を立案する。それに「チーム・スピリット」も入っている。予算が成立した後でやめたりすると、次の年度からはカットされてしまう。つまり「チーム・スピリット88」は八六年度にその実施予算案が決定され、八七年には議会も承認したことから、最初から中止などあり得なかったのだ。

ではなぜ米国は昨年秋以降盛んに「中止説」を流したのであろうか。それは共和国が新たな軍縮案を提案し、昨年末までには朝鮮人民軍の十万人兵力削減を一方的に行うなどこの問題でイニシアチブを握り、共和国の提案に背を向ける米国のかたくなな姿勢が際立っていたからだと思われる。

米国はさる一月二十八日の演習発表を前にして一時は"中止"を決めたが、KAL機事件で従来通り実施へと傾いたと、一部日本のマスコミを通じて弁明していたが、同演習の予算案成立の経緯からするとナンセンスな口実といえよう。

米国は今回の演習を実際は十万人規模、期間は二月から五月までという西側最大規模で行うにもかかわらず、三段階の演習の二段階にあたる実動演習期間の二週間だけ行うがごとく発表している。米国は自己の侵略・攻撃性を隠すためには平気でウソをつく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仁）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260)5881
内線 453・435
436・428

今週の出来事

ザンビア大統領が訪朝

金日成主席の招きにより、ケネス・デービッド・カウンダ大統領を団長とするザンビア共和国党・国家代表団が二月二十四日、共和国を公式友好訪問した（～二十九日）。

金日成主席とカウンダ大統領は、その間三回にわたって会談（その内一回は単独会談）を行った。同代表団は万景台、大城山革命烈士陵を訪れたのをはじめ、平壌の光復通り建設現場、西海閘門などを視察した。

盧泰愚の「就任式」を糾弾 「労働新聞」が論評

二月二十八日付の「労働新聞」は、盧泰愚の「大統領就任式」を糾弾する「軍政延長を正当化するための茶番劇」と題した論評を掲載した。

論評は、南朝鮮人民が盧の退陣を強く求めたにもかかわらず「就任式」を強行したことは、内外世論に対する挑戦であり、反民族的行為であると指弾した。

また、あたかも新しい「政権」が発足したかのように見せかけ、軍政延長を正当化し、自らの正体を隠そうと「民族自尊の新しい時代」が開かれたとか「権威主義を清算」し「普通の人の時代」を切り開くといった盧の「就任式」での発言は、「偽善的な詭（き）弁」だと非難した。

東独議長の反核アピール支持 「民主朝鮮」紙が論評

二月二十七日付「民主朝鮮」紙は、ドイツ社会主義統一党書記長のエーリッヒ・ホーネッカー国家評議会議長が先月十八日、今年六月に開かれる「非核地帯をめざす国際会議」と関連して発表したアピールを支持する論評を掲載した。

同紙は、同アピールの発表は、平和愛好的立場の明白な表れとして世界人民の大きな共感を呼び起こしており、民主ドイツは反核・化学兵器の平和提案を示し、これの実現のために努力している、と指摘した。

民主、平民両党が統合へ 両金氏、会談で合意

金大中平民党総裁と金泳三民主党前総裁は二月二十三日、ソウル市内で会談を行い、野党統合を進めることで合意した。

両金氏の会談につづいて民主、平民両党は二月二十六日、両党野圏単一化推進委員会合同会議を開き、両党の統合大会開催と小選挙区制実現をめざすなどの三項目で合意。二十七日にはそれぞれに拡大幹部会議を開き、両党が臨時党大会を開いて統合を正式に決議した上で統合大会を開くことを決定した（大会は三月十日ごろに予定）。

これと関連して蔡文植民正党代表は二十六日、「民主・平民両党が統合し、全国小選挙区制を単一案として提示してくれれば、民正党は全国小選挙区制を受け入れる方針」であると述べた。しかし民正党は、選挙区の区割りや都市と農村との配分で野党と意見が対立しており、二日から行われている審議は引き続き難航が予想される。

物語 朝鮮の歴史と文化 ⑦

三国の成立

今回からいよいよ高句麗、百済、新羅という三国並立の時代に入ります。

紀元前後の時期から鉄器の使用が盛んとなり、また社会的分業が進みました。

わが国の古代社会には、しだいに封建的な生産関係が発生してきます。

青銅器時代から東北アジアの大きな国として知られていた古朝鮮は、ついに紀元前一〇八年、漢の侵略を受けて滅亡し、夫余、辰国などの古い国も弱化していきました。しかし、これらの国々の底辺には、新しい社会発展の基盤となる多くの小国が生まれつつあったのです。

封建的な関係の発生発展

これらの古代国家では、人々の創造的な労働によって生産力が発達しました。これを背景に奴隷的な隷属からぬけだすための奴隷たちの闘いが高まってくるにつれ、奴隷主や豪民層は奴隷に若干の譲歩をせざるをえなくなりました。

彼らは、自分たちの土地をこれら奴隷や隷農民に分け与え、独自に耕作をさせて、そこからの収獲は大部分を彼らが取り、若干の部分は耕作者の自由にさせる──という新しい方法を考え出しました。

自主性を守ろうという奴隷たちの闘いは、数世紀にわたる闘いの結果、社会関係の改変にまでたどりついたのです。

こうなると奴隷主はそれまでのように奴隷を人格のない単なる物として勝手に殺せなくなりました。奴隷身分から抜けだした人たちは、若干の自主性をもって、自分の判断で耕作をし、生産性を高めるために努力しました。そして収獲高が上がれば、その分だけ自分の所にもどってくる「働きがい」を見つけ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しかし、彼らは奴隷制に代わる封建的な身分制度にしばられ、自分の土地から夜逃げもできない新たな隷属状態にある農奴的存在であったのです。

封建的な生産関係は、奴隷労働よりははるかに生産者の意欲を高め、生産力を発展させました。これに依拠する封建勢力は古代王国の弱化に乗じて各地で小国を形成し、互いに征服戦争をくり返し、周辺の小国や部落を併合していきました。

三国の成立

紀元前二世紀の終わりから展開された征服戦争の結果成立したのが高句麗、百済、新羅そして加耶などの国です。

これらの国は、隣接した小国を統合して地域的に次第に大きくなりました。その上、古代奴隷国家に比べて新しい生産関係による強力な国家形態を取ることができました。すなわち従来の部族連盟の段階から、もっと発達した中央集権的な王朝国家へと体制を整えていったのです。

高句麗はさきに説明したように、古代朝鮮の英雄、高朱蒙によって建国された国ですが、彼は夫余族の内部の分裂と対立の中から成長してきた集団の指導者でした。高句麗は沸流国、北沃沮を服属させ、のちには蓋馬国、句茶国、楽浪国などをつぎつぎに併合して大国となっていき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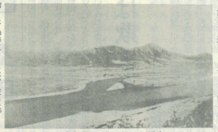
高句麗の生長過程は、これら小国の統合と中国の漢族の対決と戦いの過程でありました。

百済は高朱蒙の二男と三男である沸流（ビリュ）と温祚（オンジョ）が、さらに南下して作った国です。彼らは親しい部下を引きつれ清川江や大同江をわたり、漢江のほとりにたどりつきました。温祚は漢山のほとりに国をつくり十済と名づけました（紀元前一八年）。兄の沸流は海岸に都を定めようと今の仁川付近に行くが早く亡くなり、その部下たちは温祚と力を合わせ建国にはげむことになりました。こうして国名を多くの人びとの力によってなった国を意味する百済と変えたのです。

新羅は、その建国説話によると大きな青色の卵から生まれた男の子がいて、泉でゆあみさせると、その体は光り輝き、天地が振動して太陽や月も光を増したので、人々はこの子を赫居世（赫〈ヒョク〉は明るい光、したがって明るい光で世を治める王の意）と呼んで長老会議にかけ、王にいただいたといわれます。

このようにして三国並立の時期は始まったのです。

（金哲央）



高句麗の都のあった輯安

卒業を記念して 高3の学生が発奮

図書室を整理　神奈川朝高卒業班

全クラスが「模範班」に輝き、中央統一試験でも「学年賞」を受賞したという神奈川朝鮮中高級学校の卒業班。目標を見事達成し、夏には祖国訪問の夢も実現させた。

この学生たちが六日の卒業式を控え、一日から三日間、図書室の整理を行った。

昨年の秋、オモニ会が五百冊もの本を寄贈し、書籍数が約二万冊に増え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ほとんどが整理されていなかったからだ。書籍の一冊いっさつに新しい番号をふり、ジャンル別に再整理するなど、下級生たちが不自由なく活用出来るようにと、学生たちは誠意を込めて作業を行った。それぱかりでなく五年前に建てられた体育館の大掃除も受け持った。

また、三班では独自に記念樹（桜の木）を植えた。

李秀明班長は「民族教育を受けたという勲章に恥じないよう生きていこう。そんなみんなの決意が込められてるんです。花が咲く十年後、この木を囲んでその決意を確認し合おうと植えました」と語る。

今、学生たちは、それぞれの十二年間の学生生活をふりかえりながら、人生の新しい一歩を踏み始めようと胸はずませている。



母校とももうすぐお別れ。一冊いっさつに心を込めて整理する

校舎の壁塗り　山口朝高卒業班

山口朝鮮高級学校の三年生も、卒業式を目前に控え愛校心を発揮。

三日、四日の二日間にわたり、校舎の三階にある自分たちの教室や音楽室、吹奏楽部室、そして玄関や廊下、階段などの壁にペンキを塗った他、体育館設備の一部を修理するためひとふんばりしたのだ。

このような活動は、十数年前から毎年卒業生によって引き継がれ、同校の伝統となっている。

「きれいな校舎を新入生や後輩に残して行こう」との気持ちから自発的に行われてきた。

全員が運動着を着て、ペンキ塗りに〝初挑戦〟した学生たちは、朝の九時から午後の四時ごろまで、はがれかけたペンキをきれいに落とし、白いペンキで壁塗りをした。慣れない仕事だが、学生たちは一生懸命。

「ちょっとしんどかった。しかし皆が一丸となってやり遂げましたから、とても良い気分です」と学生たちは一様に語っていた。

幼児教育をテーマに

子弟教育を考える オモニたちの集い

愛知

新学年度の入園、入学をまぢかに控えて、各地で教育問題に関連した様々な催しが行われている。先月の二十六日、女性同盟愛知県本部の主催による子弟教育を考えるオモニたちの集いが愛知朝鮮第一初級学校講堂で開かれた。集いには、来る四月にウリ幼稚園に入園する園児たちのオモニをはじめ若い同胞女性百五十余人が参加した。

この集いのテーマとなったのは、幼児教育に関する問題。

女性同盟愛知が、このように幼児教育を取り上げた集いを開くのは初めてのことだ。

「これまでは、年に一回オモニ大会を持ち、教育問題についての講演などを行ってきました。しかし、それだけでは足りないんじゃないか、子供たちを立派なチョソンサラムに育てるには、幼児期からの民族教育の必要性をもっと認識するのが重要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てね」

洪栄実子女教養部長は、開催の理由について述べながら、去年の十月に園児受入れ事業目標を、百％以上達成したことが大きな弾みになったと言う。

集いではまず、総聯中央教育局・李炳河副部長が、「幼児教育について」というテーマで講演をした。

講演では、幼稚園と保育所との違い、三歳から五歳に至る幼児期教育の重要性やその時期の子供たちの年齢・心理的な特性、オモニたちが彼らにどのように接するべきか、そしてウリ幼稚班教育におけるウリマル教育の重要性、ウリ幼稚班教育の実態などについて述べられた。

ウリマル覚え民族性培う大切な時期

いろいろ資料を提示しながら、約二時間にわたり熱っぽく語った李副部長は、「幼児期は、知的・情緒的・肉体的に発達がめざましく、また、生活習慣を身に付けるにおいても、最も大切なころなんです。だから幼児教育をおろそかにしてはならないんですよ。まして言葉や生活風習─我々にとってはウリマルや民族性なんですが、それらは幼いころから培われますから、ウリ幼稚班教育の段階が重要なんです」と語っていた。

講演に続いて、二十四年間幼児班教育に携わってきた、愛知第一初級幼稚班の李尚台先生が、園児たちに対する教育を通して得た経験などを語り、参加者に深い感銘を与えた。

その後、質疑応答が行われた。

「これまで、日本にいるのなら、日本の学校や幼稚園にいれるのは普通だと言われると、どのように答えればいいか分からなかった。この集いに参加して、日本に長く住んでいるからこそ民族教育を受ける必要がある、民族と国から離れた〝根無し草〟、民族的個性のない人は中途半端な人間であるということがとても良く分かりました」と、女性同盟名中支部管下の女性（ヨ）は感想を述べていた。

集いの後参加者は、新たに竣工した第一初級の幼稚班の教室、施設などを見学した。



集いには150余人の女性が参加した

校庭で

雪焼けした おてんば寄宿生

放課後、学校近くのミニスキー場に行くのが日課。寒さなんてなんのその、日本海の冷たい風も降り続ける雪も逃げてしまうほど元気なのは、この冬、まっ黒に雪焼けした北陸朝鮮初中級学校初級部一年のおてんば寄宿生たちだ。

昨年四月の入学式の時、泣きじゃくってオモニからなかなか離れなかった張潤瑞（金沢）、呂明姫（富山）トンム。そこへ雪の多い三学期の間だけ、市内に住む金貞淑トンムが加わり寄宿舎生活が一層楽しくなった。でも生活面では潤瑞、明姫トンムの二人がちょっとだけ先輩顔。

だって、どんなこともソンセンニムやオンニたちに頼っていた一学期とはずいぶん違って、今では机やタンスの中もきちっと整理整とん、お風呂だってもう一人で入れちゃうのだから。最近はお風呂の中で小公演。習った歌や踊りを披露し、なかなか出て来ない。出たと思ったらパンツ一枚で踊ってることもある。

それでもこの冬、風邪ひとつひかず、食事もきれいにたいらげてしまうおてんばさんたち。

起床だってへっちゃらだ。誰よりも早く起きてかくれんぼしたり、雪の日は体育館で鬼ごっこをするほど、はしゃぐのが大好き。

潤瑞トンムなんか校内マラソン大会一、二年生女子の部で一等賞。この十年来の最高新記録を出した。

そんな二人にも怖い物が一つずつあるのだ。

潤瑞トンムは寄宿舎で飼っている犬〝チロ〟が大の苦手。朝礼の時、チロが運動場に来ると、全校生が待つ中、ブランコから降りてこないことも。明姫トンムは注射だ。針を見るだけで大泣きし、逃げ回ってしまう。こんな風に無邪気でひょうきんな二人。このごろは「ソンセンニム、寄宿生何人入ってくるの？」が口ぐせ。新入生が来るのが楽しみなようだ。

貞淑トンムがいなくなってしまうのは寂しいけど雪が溶け、下級生の入ってくる暖かな春が待ちどおしくてたまらない。



広島

岡山初級が優勝

中四国地方初級学校サッカー大会

金正日書記の生誕四十六周年を祝賀する中四国地方初級部サッカー大会が先月の二十一日、広島中高グラウンドで行われた。

大会には、岡山、倉敷、四国、下関、広島第一の初級学校チビッコサッカー選手や父兄ら三百余人が参加した。

一九七六年から始まった岡山、倉敷、四国の三校の対抗戦が、同大会のはしり。

出場を希望する学校が増えたため、試合は出場校の数によってリーグ戦またはトーナメントで行われて来た。

今回は、トーナメント方式で順位を競った。

そして去年三位の岡山初級が、倉敷初級を一対〇、優勝候補の筆頭であった広島第一初級を五対一の大差で破り、一位に輝いた。（二位─広島第一初級、三位─下関初級）

金秉吉指導教員は「選手たちが良く頑張りました。四月末に予定されている初級学校サッカー大会県予選に勝ち、全国大会に出場するのが当面の目標です」と語っていた。

大会では、十人の選手に「最優秀賞」が贈られた。



参加チームは熱戦を繰り広げた

訂正　二日付けの六面に掲載された「朝鮮のむかし話」のさし絵は朴民宜さんではなく、洪水佑さんのものです。

ぼくらの先生



権昌秀ソンセンニム
（京都朝鮮中高級学校　高級部2─3担任）

私たちの先生はラグビー部のコーチもしているとても頼もしい先生です。

授業の準備のために、夜もろくろく寝ないでがんばって下さるので、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

絵・文 李栄玉

詩　オモニの手

尼崎朝鮮初中級学校　中3　咸伸子

オモニの手
いつも焼肉つくっている
ニンニクくさい手
オモニの苦労が集められた
ガサガサな手
生傷が絶えないデコボコの手
ねむれない夜
オモニの手がそこにあるだけで
すやすや眠れる
とてもあったかな
オモニの手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더 크게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3월 5일 (음력 1월 17일) 토요일 【루계 제10150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을 확대강화하자》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확대회의 진행 오지리의 윈에서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확대회의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오지리의 윈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장정면에는《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확대회의》라고 쓴 글발과 국제련락위원회 마크가 걸려있었다.

회의장에는《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을 확대강화하자》라고 쓴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회의에는 국제련락위원회 명예위원장들인 스위스 전 제네바시장 로쉐 다플롱, 전 희랍장군 조지 빠따스, 서기장 기 듀프르, 부위원장들인 미국법률가 스탠리 폴크너,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위원장 후안 호쎄 레온, 전 일본총평고문 이찌가와 마끄도 그리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 및 행동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오브리, 영국국회하원의원 로버트 파리, 노르웨이사회주의좌익당 대외관계위원회 비서이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북구라파협조위원회 공동위원장 아스트리드 다홀, 서부독일조선친선협회 상무위원인 월프강 클리에르,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북구라파협조위원회 공동서기장인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 유고슬라비아대표인 오지리주재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참사, 세계평화리사회대표이며 이 리사회 부위원장인 오지리평화리사회 위원장 오토크라리히스 하임, 국제학생동맹 부위원장 하시야나 안드레이와 그리고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고문인 에르빈 샤르프,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위원장 등 오지리의 각계층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위원장인 교수, 박사 헤르베르트 슈타인네르가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확대회의에 보낸 오지리사회당 부위원장이며 오지리국회사회당그루빠 위원장인 하인츠 피쉐르의 축하문을 전달하고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고문인 에르빈 샤르프와 함께 축하연설을 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련락위원회 명예위원장인 스위스 전 제네바시장인 로쉐 다플롱이 첫째의정《최근 남조선정세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가 둘째의정《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해에 진행된 련대성운동의 총화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으며 일련의 문건들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사설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견결히 규탄단죄한다

핵전쟁을 가상한 핵예비전쟁인《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오늘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올해초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지난 2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벌리겠다고 떠벌이였다가 얼마전 이번 전쟁연습기간을 3월말부터 2주일간을 실동훈련기간으로 한다고 수정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의 핵예비전쟁을 규탄하는 내외의 강력한 여론을 기만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1월부터 미제의 방대한 무력이 남조선지역에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제가《서울올림픽안전담보》를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하겠다고 떠벌인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실지에 있어서 지난 1월부터 올림픽이 개최되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게 된다.

미제는 남조선과 미국본토 및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미군 7만여명과 남조선괴뢰군 13만여명 도합 20여만명이 동원된다고 발표하고있으나 이것 역시 정규적무력뿐이고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병력은 100만이상이나 된다.

벌써 수십만의 병력과 수백척의 함선들, 수만대의 비행기, 땅크, 장갑차, 자동차 등 많은 군사장비들이 남조선에 투입되고있다. 또한 핵탄두를 발사할수 있는 각종 미싸일들을 비롯한 핵운반수단들이 남조선으로 이동하고있으며 핵전쟁지휘를 전문으로 하는 공중핵지령기《이4비》까지 동원시키려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엄중한 정세에 대해 지난 2월 24일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성된 사태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위기에 처한 군사독재체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임의의 시각에 트집을 잡아 전쟁의 불을 지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 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인하여 지금 조국땅은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에 처해있다.

미제가 핵전쟁을 도발하면 우리의 삼천리강토는 말 그대로 재더미로 되고말것이다.

우리는 공화국의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범죄적인《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과 허위와 날조로 가득찬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 대답해나선 미제와 로태우도당의 반민족적이며 반평화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우리는 전체 70만 재일동포들의 이름으로 미제와 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치솟는 의분으로 견결히 규탄단죄하며《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과 함께 악의에 찬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제 소굴에서 1만키로메터나 떨어진 남조선에 기여들어 주인노릇을 하면서 핵전쟁도발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미제는 우리 민족이 한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이다.

미제는 모든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물러가야 한다.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치는 한편 남조선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침투를 강화하고있는 일본도 더 이상 로태우도당을 두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 조국을 함부로 건드리고 위협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을 짓부시는 일대 대중정치선전사업기간 지금 엄중한 단계에 이른《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의 그 범죄성과 침략성을 내외에 철저히 폭로해나갈것이다.

미군철수,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주장

남조선종교단체에서

남조선신문이 전한데 의하면 기독교교회협의회가 2월 29일 총회를 가지고《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회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선언에서 남조선에서의 모든 핵무기의 철거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전환, 남북신뢰회복을 전제로 한 남조선강점미군의 철수와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등을 주장하였다.

이 단체는 또한 총회에서《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여 산하교회들이 공동으로 기도주일을 지켜나가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이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지지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지지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오스카르 피쉐르가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에게 련대성편지를 보내여왔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위당국자들을 포함하여 북남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대표들의 참가하에 련석회의를 진행할데 대한 제안을 관심과 동정을 가지고 접수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이 새로운 제안이 신뢰성있고 성과적인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며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또하나의 증명으로 된다고 보고있다.

나고야시의회에서 자민당소속의원이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발언

총련 아이찌현본부 엄중항의

최근 아이찌현에서 발생한 폭주족들에 의한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자민당소속시의회의원이 시의회 심의중에 재일동포들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을 터뜨렸다.

2일에 있은 나고야시의회 건축교통부회 심의중에 자민당소속 스기우라 쥬따로의원은《그 폭주족들이 부정입거한 미나도구내의 시영주택에는 조선사람이 많이 살고있어 그 주변의 환경도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모욕에 찬 망언을 늘어놓았던것이다.

총련 아이찌현본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3일, 나고야시 조역, 시의회의장, 건축국장과 자민당의원단 부단장을 만나 이 망발에 대하여 엄격히 항의하면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편견에 찬 발언을 즉시 취소하며 정식으로 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총련본부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건의 엄중성을 내외여론에 호소하였다.

총련 아이찌현본부에서는 스기우라의원의 정식사죄를 요구하여 계속 항의행동을 벌리고있다.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몇개의 금메달과 바꾸지 않는다》

꾸바 피델 까스뜨로수상이 또다시 언명

【아바나 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2월 27일 미국 엔비씨텔레비죤방송기자와의 회견에서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한 꾸바의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그는 꾸바가《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대하여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서울에서 올림픽경기를 한다는것은 미국이 강점하고있는 관따나모해군기지에서 경기를 한다는것이나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의 표시로 로스앤질러즈에 가지 않았으며 서울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우리들은 리용물로 된 이 올림픽경기대회가 평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며 조선인민의 단결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올림픽공동주최를 지지하였으며 이미 공동주최가 실현되였더라면 우리는 올림픽경기대회에 영예롭게 참가할것이다.

우리는 이 방향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는 꾸바가 올림픽공동주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성공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공동주최도 실현되지 못한 조건에서 올림픽에 참가한다는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독립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독립을 매우 영예롭게 여기는 자주적인 나라인 꾸바가《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것이 영예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몇개의 금메달과 바꾸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적인 독립국가이며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행동할것이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서울로 갈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여 우리도 서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나라의 존엄과 독립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꾸바의 결심을 변경하고《서울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싸마란츠는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족시킬 해결책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지할것이며 참가할것이다.

이제 기적적인 제안이 있겠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끝으로 올림픽공동주최가 실현되면 꾸바는 물론 갈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것은 확정적인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것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는 투쟁하였다.

매국노의 쓸개빠진 넉두리

조국신문들이 3.1절에 즈음한 로태우의 《기념사》를 규탄

【평양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3일부《로동신문》과《민주조선》은 로태우역도가 3.1절에 즈음하여 벌린 행사판에서 한《기념사》라는것은 한마디로 외세의 부추김밑에 저들이 감행한 군정연장책동을 미화분식하기 위한 허황한 공담과 미사려구로 일관되여있다고 평하였다.

《로동신문》론평의 필자는 제국주의식민지주구인 로태우역도가 69년전에 있은 반일민족해방을 위한 선렬들의 투쟁을 기념한다고 행사판을 벌린것자체가 애국선렬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로태우역도가《민족정신》이요《선렬들의 뜻》이요 하고 떠들었지만 과거 조선의 독립을 유린한 일제의 침략책동과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있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규탄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고 단죄하였다.

론평은 역도가《민족》의 허울을 쓰고 그 무슨《정통성》에 대해 지껄인것은 제놈의 비법적인《정권》강탈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로태우역도가 남조선이《민족자존의 시대》에 들어서게 된듯이 설교한 사실에 언급하면서 론평은 미일의 2중의 식민지로 되고있는 남조선에서 과연 민족자존이 있을수 있는가고 반문하였다.

론평은 역도의《민족자존》론이야말로 빈말공부이며 매국노, 식민지괴뢰의 추악한 자기변호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역도가 떠벌인 그 무슨《화합》이란 군정연장에 항거하지 말며 이른바《새 정권》에 복종하라는 수작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로태우역도가 올림픽과 통일 문제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한데 대하여 단죄하였다.

론평은 북남련석회의를 통하여 긴장완화와 올림픽공동주최 등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게 해결해나갈데 대한 우리의 애국애족적제안에 거부적태도를 취하면서 지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미제와 함께《팀 스피리트 88》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고서 아무리《통일》이요 뭐요 하고 떠들어도 그것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주조선》론평의 필자는 로태우역도는 어울리지 않는 노죽을 부리지 말고 인민들의 요구대로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잘있니… 지상동창회

도꾜조고 제25기동창생



최윤일 (32살)

평양중앙동물원 책임기사

평양중앙동물원 책임기사로 사업하는 최윤일동포와 총련 지바현 세이부지부 선전부장인 리영식동포는 지바조선초중급학교 제9기,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제25기의 동창생입니다.



리영식 (32살)

총련 지바현 세이부지부 선전부장

한번 중앙동물원에 찾아와주기 바란다

◉지난날의 추억…

영식동무는 초급부 1학년부터 고급부까지 학창생활을 함께 지낸 송아지동무입니다. 내 기억으로서는 가장 가까이 지냈지요.

그는 착실하고 특히 원 …

희망 꽃피워준 조국의 배려에 보답해주기를

◉지난날의 추억…

윤일동무는 활발하고 열성적인 동무였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생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있었으며 그 열성은 대단했지요.

초중급시기 자주 함께 …

… 00여종으로 늘이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나는 이 수족관의 한일군으로서 수많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준 어머니조국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나가렵니다. 그를 위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 …

… 현 세이부지부에서 선전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였다.

1982년, 1986년에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그는 두차례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만나뵈옵는 최상의 영광과 …



고급부 1학년시기의 기념사진(앞에서 두줄째 오른쪽부터 두번째가 리영식동포, 네번째가 최윤일동포)

력사의 유산

잔줄무늬거울

고조선시기 귀족들이 사용하던 구리거울이다.

잔줄무늬거울은 고조선인민들이 창조한 문화유물로서 고조선문화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이 거울은 간단히 말하면 청동으로 만든 둥근 거울이다. 그 한쪽은 반들거리는 거울면이며 다른 한쪽은 정교한 기하학무늬를 새겼으며 원의 중심에서 벗어난곳에는 끈을 꿰는 고리가 달려있다. 거울면은 평면이 아니라 조금 도드라져있다.

거울의 뒤면에 새겨진 다양한 삼각형에 조화롭게 그은 수많은 방사선들은 어느 하나도 찌그러지거나 맞붙은것이 없어 마치 찬란한 해빛을 련상케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것으로서는 황해북도 봉산군 솔뫼골유적과 함흥시 리화동에서 나온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거울들에는 수집품이 많으나 그 가운데에는 톱날무늬가 배합된것이 있어 비파형단검을 쓰던 시기의 거울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고조선시기의 높은 공예술과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잔줄무늬거울은 이웃나라들에도 널리 보급되였다.

크 기 : 직경 105미리메터

나온곳 : 평안남도대동군대보산리

시 기 : 기원전 3~2세기



조국방문수첩

려관안내

△사리원시 3.8려관

1970년 8월 16일 개관.

사리원시 3.8려관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0년 3월 8일에 이곳에 국제려관을 건설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에 즈음하여 정해졌다.

연건평 4,100평방메터, 지상 4층으로 된 려관은 수용능력이 60명이다.

리용자는 하루평균 40여명, 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손님들이 리용한다.

또한 이 려관은 조국을 찾은 재일동포들이 가족면회를 하는곳으로서도 알려져있다.

사리원시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남쪽 관문도시이며 황해북도의 소재지로서 경공업과 기계공업이 발전하고있는 도시이다.

사리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하신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근방에는 미곡협동농장, 사리원과수농장 등이 있어 경치좋은곳으로도 유명하다.

명승지로서는 평양의 모란봉을 닮은 경악산, 서흥호가 있어 등산과 물놀이도 즐길수 있다.

이곳은 또한 과수원이 많은 고장이므로 포도술, 경암술 등이 별맛이다.

—소개—

주소 ; 황해북도 사리원시 신양동

전화번호 ; (황해북도) 2—2—83

연건평 ; 4,100평방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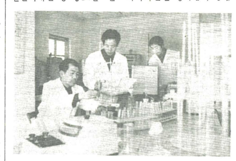
건물 ; 지상 4층

침실 ; 1등 1칸, 2등 3칸, 3등 30칸

수용능력 ; 60명

5만 2,000여건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중요부문에 파견된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들이 지난 10년간 5만 2,00 …



우리 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시회

스리랑카에서 진행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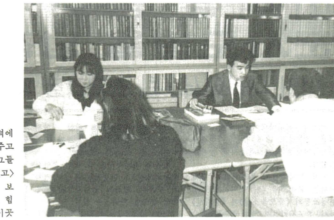
선입관

소사전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세금신고》사업 성과적으로 추진

~각지 상공회들에서~



《세금신고》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련일 분발해나서고있다. (지바)

만단의 준비 갖추어 책임적으로 수행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상공회

2월초순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개시한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상공회에서는 3월 1일현재로 《확정신고》를 위한 문서작성사업을 70% 소화하고 계속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20년전부터 《확정신고》때에 수지명세서작성을 방조해온 이곳 상공회에서는 장부기장의무화에 맞게 최근년간에 동포상공인들의 장부기장에 대한 해설, 방조 사업과 그들이 세금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립장을 세우도록 하는 사업을 년간을 통해 적극 추진하여왔다.

이곳 상공회에서는 최근년간 상업부기교과서를 가지고 세금문제와 관련한 각종 강습회와 강연을 적극 진행하였으며 《장부기장의 상담날》을 정하여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방조사업을 빈틈없이 다그쳐왔다. 지난 2월에도 두번에 걸쳐 세금강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번 《세금신고》의 만단한 태세를 갖추어나갔다.

한편 모든 일군들의 경제실무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벌려 모든 경리일군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습관》을 붙이고 능숙한 실무처리의 요구에 대응할수 있도록 하였다.

면밀한 계획과 만단한 준비에 토대하여 문서작성작업은 빈틈없이 진행되고있다.

수지내역서작성, 콤퓨터수록작업, 문서재확인작업 등을 8명의 이곳 경리일군들이 동포상공인들 한사람한사람을 상대로 봉사성있게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우리 경리일군들모두가 지정된 동포상공인의 〈세금신고〉를 원만히 풀기 위해 사업하니 책임성이 매우 높아지고있지요. 동포들도 그 책임감과 봉사정신, 민속한 실무능력에 접하여 우리를 신뢰해주고있으니 신이 납니다. 그들의 충복으로서 〈세금신고〉를 우리가 책임적으로 보장해야겠다고 생각하니 힘이 솟아납니다.》라고 이곳 상공회 하영복리사장은 말한다.

작년에 비해 건수가 약 7% 증가될 전망을 가지고 이곳 상공회는 세심하고 빈틈없는 문서작성사업을 전개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의 경제실무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는 가와사끼상공회

경영개선의 계기로

지바현 지바상공회

지바현 지바상공회에서도 오는 15일의 《세금신고》마감을 앞두고 올해 《세금신고》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련일 분발하고있다.

지난 2월 16일부터 문서작성작업을 시작한 이곳 상공회에서는 방대하게 제기되는 실무작업을 착실히 처리해나가면서 2일현재로 80%수준에 도달하였다.

이곳 상공회에서는 《세금신고》가 동포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절박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는것만큼 장부기장의무화가 실시되여 4년째를 헤아리는 올해에 동포상공인들이 기장을 더욱 착실하게 할수 있도록 그에 알맞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곳 상공회에서는 해마다 2번에 걸쳐 실무강습회를 가지고 거기에 동포상공인들의 가족들까지 망라하면서 경리시험문제 등으로 기장과 세금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였으며 달에 2번 《장부기장, 세금문제 상담일》을 정하여 동포들의 세금, 경영, 생활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이렇듯 개별적, 집단적인 지도사업, 실무학습을 꾸준히 벌린 토대우에서 이곳 상공회일군들은 하루에도 20여건이상의 《세금신고》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세금신고〉사업을 통하여 관하동포상공인들의 경영 상태, 내용에 대해 깊이 파악하게 되기때문에 앞으로의 경영개선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좋은 기회로 되고있지요.

동포상공인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날따라 높아지고있는 속에서 올해 〈세금신고〉사업을 원만히 보장할 결의로 우리 일군들은 불타오르고있지요.》

숨돌릴 사이도 없이 동포상공인들이 찾아오는 바쁜 속에서도 이곳 상공회 김우현리사장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이곳 상공회에서는 5~7% 건수증가를 예견하면서 모든 일군들이 3월 15일까지 분발할 결의에 충만되고있었다.

기장지도사업을 수시로 벌려 인식을 깊여왔다

오사까부 도낭상공회

오사까부 도낭상공회에서도 년간을 통한 장부기장지도사업에 토대하여 《세금신고》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지난해 4월 관하회원들의 도움으로 사무소가 이전된것을 계기로 이곳 상공회에서는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선전물을 작성하여 미나미지역을 중심으로 5천장을 뿌리는 등 동포상공인들이 상공회에 의거하여 세금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활동을 벌리였다.

그리고 올해사업을 원만히 밀고나가기 위하여 2월 2일에 세금강연회를 가지였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상공인들이 많은 이곳 상공회에서 기장지도사업을 제때에 벌림으로써 80~90%가 어떤 형태로도 기장해온 장부를 가지고 사무소를 찾아오고있다.

그리하여 이곳 상공회에서는 5일까지에 기본적으로 접수사업을 끝내게 될 전망에 있다.

오사까부상공회가 올해로 결성 40돐을 맞는것과 관련하여 도낭상공회에서는 《세금신고》사업이 끝난 후에도 젊은상공인협의회(《도낭앞으로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있다.

총련일군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그만두라

총련 나라현본부대표들과 일본인사들이 공안당국에 강력히 항의

나라현에서 일본공안당국자들이 총련일군의 가정형편, 활동내용을 알아내려고 그 일군의 가족들과 접촉하려는 비렬한 인권침해행위를 감행한것이 최근에 발각되였다.

총련 나라현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나라공안조사사무소 제2과장이며 법무사무관인 이노우에 미노루와 또한명의 공안당국자가 1986년과 87년, 3번에 걸쳐 한 총련일군의 부친과 제수를 찾아 그 일군의 가족구성과 형편 그리고 사업내용들을 알아내려 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총련본부대표들은 2월 29일, 나라공안조사사무소를 찾아가 총련일군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사회당현본부 후지하라 요시오국제부장, 가지까와 겐지권리옹호담당위원, 다가와 가즈유끼변호사들이 동행하였다.

대표들은 공안조사사무소 다께우찌 껭이찌로소장을 만나 《국가공무원의 립장을 리용하여 총련일군의 동정을 가족들을 통하여 알아내려 한 이노우에들의 간첩같은 행위는 범죄이며 재일조선인의 사상, 신조, 량심의 자유를 짓밟는 비렬한 행위이다.》고 규탄했다.

소장은 앞으로 인권침해를 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라지국】

제4차기후현 동포조국방문자모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46돐기념 제4차기후현동포조국방문자모임이 지난 2월 21일 기후캿슬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모임에는 현하 일군들과 동포들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곳 본부에서는 1983년에 현적인 집단단기조국방문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후 해마다 조국방문자모임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와 축전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전동포적으로 힘차게 벌려나가기 위해 모임을 가졌던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본부 김방현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에서 그는 이날 모임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최근정세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시기 기후현에서 벌려온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운동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체협 김인옥회장이 조국의 모란봉피복공장에 대한 기술방조사업의 경험에 대하여 토론을 한 다음 총련과 녀성동맹 각 지부들에서 발언이 있었다.

올해 단기조국방문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은후 축하연회가 진행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로 지난 시기 조국방문과정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풀어주신 배려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은혜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고있었다. 【기후지국】

나라 공화국을 방문한 일본녀성들의 모임

나라현 나라시의 만요소에서 2월 27일 《동창회》라고 불리우는 특색있는 부인들의 모임이 진행되였다.

《동창회》는 1986년에 《조선인민과 련대하는 일본녀성활동가대표단》(일본부인회의 시미즈 스미꼬의장이 단장)으로 공화국을 방문한 녀성들의 모임이다.

모임에는 대표단성원들 6명을 비롯하여 총련본부 국제부장과 녀성동맹본부 조직부장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본부 국제부장이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에 대한 강연을 한 다음 1시간반에 걸쳐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어서 대표단성원인 나가히사 무쯔꼬씨(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오사까련락회 회원)가 공화국방문시에 작성한 비데오편집물 《주체의 나라 조선을 방문하여》가 상영되였다.

모임이 끝난후 간단한 연회가 진행되였는바 참가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나라지국】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규탄

미야기현하 일본 정당, 단체들

미야기현하 각 일본단체들이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 요청서를 계속 발표하고있다.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부인회의

2월 19일,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미야기부인회의(요꼬야 가쯔꼬대표)의 주최로 학습회가 진행되였는바 여기에는 20명의 부인회간부들이 참가했다.

학습회에는 총련본부 홍태우부위원장과 녀성동맹본부 남경자위원장이 참가하여 최근 남조선정세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강연이 끝난후 참가자들사이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였다.

학습회에서는 비행기실종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고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은 일본정부의 대조선정책의 반영이며 동시에 일본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조선인차별, 민족배타주의의 표현이다, 남조선당국의 모략적인 반공화국책동의 범죄적행위를 규탄하며 아울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이 채택되였다.

▲국철로동조합 간부들이 총련일군들과 간담회

2월 24일에는 국철로동조합과 총련사이의 간담회가 진행되였다.

국철로동조합 센다이지방본부 지바 고로실행위원장을 비롯한 국철로동조합 간부들 8명과 총련대표 6명이 참가한 간담회에서는 최근 남조선정세와 려객기사건의 본질에 대한 강의와 의견교환이 있었다.

국철로동조합 간부들은 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인식함으로써 총련조직과 일상적인 교류, 우호친선을 강화하자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재일조선인의 인권, 안전 보장을 현지사와 현경찰에 요청

2월 25일에는 일본사회당 미야기현본부, 미야기현로동조합평의회, 미야기현일조로련 대표들이 조선학생들과 재일조선인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미야기현지사와 미야기현경찰본부 본부장에게 보내였다.

요청문을 받은 미야기현부지사는 이런 사건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미야기지국】

남조선려객기사건의 진상을 생각하는 강연회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이바라기현 가꼬우지구위원회 주최로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을 생각하는 강연회가 2월 25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이바라기현 가꼬우지구위원회의 주최로 가시마정내의 가시마근로회관에서 160여명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주최자측 대표의 연설에 이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본위원회 와까바야시 히로시사무국장이 강연을 하였다.

그는 강연에서 이번 려객기사건과 관련된 일본의 편향적인 언론보도를 지적한 다음 사건이 가져다준것은 ①북남대화의 중단 ②《팀 스피리트》군사연습 ③미일당국의 《제재조치》 ④올림픽단독개최 ⑤일본수상의 남조선행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규명활동을 적극 벌리며 일본정부의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이 채택됐다.

총련교또관하 고문들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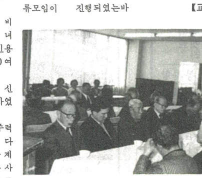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끄심따라 총련조직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청춘정열을 바쳤다가 2세동포들에게 계주봉을 넘겨준 1세동포들의 공로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총련 교또부본부는 2월 24일 관하고문들의 모임을 본부회관에서 가지였다.

모임에는 총련본부를 비롯하여 지부, 상공회, 녀성동맹, 교육회, 조선신용조합 등의 고문들 40여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본부 신중학위원장이 연설을 하였다.

그는 올해 총련이 주력할 사업들을 이야기한 다음 고문들이 애국과업을 계속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사실들에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애국의 꽃을 피워줄것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사업을 비롯한 총련애국사업과 민족교육 발전을 위하여 학교사랑하는 운동에 적극 협력하여줄것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고문들과의 교류모임이 진행되였는바 《몸은 비록 늙었지만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나가자》, 《젊은 일군들과 상의하여 총련애국사업을 돕자》,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총련 지부와 분회에서 많이 조직하자》, 《고문들끼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자》, 《고문들이 수시로 모일수 있는 마당을 꾸리자》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다. 【교또지국】



모임에 참가하는 총련 교또부본부관하 고문들

어서어서 자라라



리 홍 의
(남—1살 1개월)
1987년
1월 19일생
아버지 리세홍(30살), 어머니 문회자(27살)
총련 도꾜도 가쯔시까지부 호리끼리분회관하

늘 누나 뒤를 따라 노는 모습이 예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족하지요.

그림책을 읽어주면 조용히 귀담아듣고 더 읽어달라고 재촉하는 홍의.

어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여라. (고모)

미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도발을 당장 걷어치우라!

여러 나라에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소동 견결히 규탄

미제와 괴뢰악당이 감행하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단죄규탄하는 국제적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이미 본지에서도 폭로한바와 같이 미제는 올해초에 《팀 스피리트》북침전쟁소동의 《규모축소설》과 《중지설》까지 류포시키면서 내외여론을 기만해보려고 책동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매해 감행하고있는 《서방나라에서 최대규모》로 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놀음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를 무마해보려는 졸렬한 수작이다.

미제와 괴뢰악당은 그 어떤 기만적 수작으로써도 전쟁광신자, 긴장격화의 장본인, 평화의 교란자로서의 흉악한 몰골을 가리울수 없다.

지금 여러 나라의 량심적인민들은 미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도발을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

세계사회계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세계의 광범한 사회계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견결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마다가스까르신문 《이뭉구 바우바우》는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념원하는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는 위험한 전쟁소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리적인 평화제안들에 대한 횡포무도한 도전으로 락인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인도의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일환이며 침략적인 대조선 및 아세아 전략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 매우 모험적이며 위험한 전쟁연습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시험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영국공산당은 항의편지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매우 위험하고 침략적인 군사행동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에서 가장 절박한 요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전쟁연습을 당장 그만두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확대회의 참가자들은 이 합동군사연습을 조선과 아세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로,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로 규탄하면서 범죄적인 전쟁연습의 즉시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는 지난 시기 침략전쟁으로 조선인민에게 큰 상처를 입혔었다. 그들은 이러한 상처를 또다시 입히려고 불장난을 하자는것이다.

그러나 불장난을 즐기는 자들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도발을 중지하여야 한다.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벌가리아신문들인 《라보뜨니체쓰꼬 젤로》, 《제메젤쓰꼬즈나메》, 《뜨루드》, 《나로드나 아르미야》, 《웨체르니 노비니》, 《오쩨체쓰뜨벤 프론트》, 웬남신문 《인민》, 꾸바신문 《뜨라바하도레스》와 이 나라의 텔레비죤방송, 몽골신문들인 《우넨》, 《노보스찌 몽골리》, 《울란오드》도 글을 발표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한 《팀 스피리트》북침소동은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국제아랍로조련맹총서기국 총서기가 련대성전문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국제아랍로조련맹 총서기국 총서기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는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련대성전문을 보내여왔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미행정부와 그 주구들인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견결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미행정부와 전두환,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이 ...

빠나마선박 선원들도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빠나마선박 《에스파손》호 선원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을 규탄하여 2월 24일 청진항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연설한 선장과 선원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요즘 남조선괴뢰들은 그 무슨 《수사결과》라는 엉터리없는 날조품을 만들어 발표하고 려객기사건에 대한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씌우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감행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려객기사건을 조작해낸데는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가장 평화애호적인 제안들에 겁을 먹고 세계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는데 그 목 ...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도발책동을 규탄

《로동신문》 론평

...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론평을 실었다.

《인종주의자들은 제 무덤을 파고있다》라는 제목의 론평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지난 2월 20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앙골라의 국경에서 300키로메터나 떨어진 루반고와 남부의 온지바를 야수적으로 폭격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보다 며칠 앞서 그들은 꾸이또 꾸아나 발레지역에 대한 불의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이웃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파괴 행위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주의통치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보사도당은 안으로는 남아프리카인민들의 반인종주의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밖으로는 힘으로 주변나라들로 하여금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화하지 못하게 해보려 하고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이 ... 고한 인민들의 피가 흐르고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저들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오늘 아프리카나라들, 특히 남부아프리카지역 나라 인민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잠비아를 비롯한 전선국가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집단적인 반격을 가하고있으며 싸우는 나라들에 대한 지 ... 국제회의에서 잠비아대통령 카운다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침략자로 락인하면서 남아프리카에 대한 포괄적이며 의무적인 제재를 가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것을 호소하였다.

전선국가들은 인종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행위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고있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싸우는 전선국가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은 세계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인종차별정책과 전선국가들에 대한 침략은 제 무덤을 파는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보사도당은 앙골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나미비아의 독립을 하루속히 보장하고 남아프리카에서 인종격리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만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이 계속 오만무례하게 날뛴다면 커다란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주간일지

2월 24일 (수) ~ 3월 1일 (화)

북반부

24일(수) 위대한 ... 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07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 ...

남조선

... 마당에서 로태우역도를 규탄하는 가두시위 전개.

26일(금) 울산현대엔진회사 로동자 700여명, 회사측의 로조탄압에 항의하여 롱성투쟁 전개.

27일(토) 재야인사들 ...

국제

군축을 위한 스웨리예인민국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안》을 회의문건으로 채택

《평화, 발전 및 인권에 관한 아세아, 태평양 지역법률가회의》가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7일 (음력 1월 19일) 월요일 【루계 제10151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發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쏘련직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쏘련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위원장 스쩨빤 샬라예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직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직총중앙위원회 김봉주위원장과 당중앙위원회 김재봉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쏘련특명전권대사 겐나지 바르또쉐비치가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손님들은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쏘련직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평양~도꾜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쏘련직업동맹 중앙평의회에서 선물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 쏘련직업동맹 중앙평의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쏘련직맹대표단 단장인 쏘련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위원장 스쩨빤 샬라예브가 해당부문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나라 주재 부룬디신임 특명전권대사가 신임장을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우리 나라 주재 부룬디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가메레즈 바질이 2월 25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신임장봉정식에는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임장을 받으신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시였다.

대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이며 구국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삐에르 부야각하의 선물을 전해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단결된 힘으로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대대적인 대중정치선전사업을 전개—

총련 오사까부본부에서

강연회, 좌담회, 비데오편집물 상영 등 여러 형태로 동포들속에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속에서 총련 오사까부본부에서는 악랄한 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정치선전 ... 굳게 뭉쳐 단결된 힘으로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조국과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옹호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 는 등 사건의 실머리인 기체의 행방문제를 비롯한 많은 의문점에로 이목이 집중되는것을 무서워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 ... 사건의 진상은 반드 ...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책동과 모략소동을 규탄하여 3일에 진행된 총련 오사까부본부대회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지지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이 언명

벌가리아 칠꼬브위원장

사하리아랍 대통령

민주예멘

사설

올해 단기조국방문사업을 더욱 폭넓게 벌리자

올해 단기조국방문사업의 준비가 총련조직마다에서 한창이다.

영광스러운 조국 ... 위한 방향을 밝혀주시고 《삼지연》호를 도꾜항에 보내주시는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

향도의 해발 우러러
영광의 자욱을 따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은 지금 철강재증산투쟁으로 들끓고있다.

전기로에서는 쇠물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고 분괴압연기와 압연기들에서는 여러가지 규격의 압연강재들이 쉬임없이 생산되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강선의 로동계급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강철, 압연강재, 쇠바줄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몸소 찾으신 로동자합숙소

우리를 맞이하여준 이곳 기업소의 일군은 기업소가 걸어온 40여년간의 로정을 설명하면서 강선의 로동계급이 언제나 신심과 열정에 넘쳐 계속 억세게 전진하는 자랑을 지닐수 있은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렇게 서두를 뗀 일군은 우리에게 20여년전 영광의 그날에 있었던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66년 6월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이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함께 오시였다.

이 시기로 말하면 미제의 우심해지는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정세가 전례없이 긴장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력강화에 더 큰 힘을 넣지 않으면 안되였던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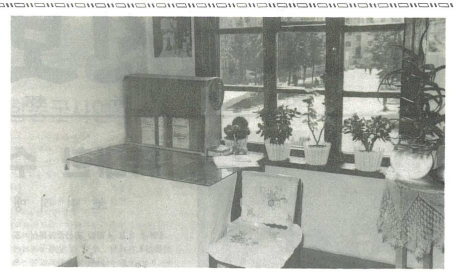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자면 첫째도 둘째도 철강재가 많이 요구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들에게 나라가 처한 엄중한 정세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강철생산을 늘일데 대해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강철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강철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이 잘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로동자합숙소를 돌아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합숙방 하나를 꾸려도 로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깊이 생각하고 꾸려주어야 합니다.



로동자들의 구미에 맞게 깨끗하게 꾸려진 합숙소

강철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시려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자합숙소

우리는 영광의 그날의 로정을 따라 로동자합숙소를 찾았다.

기업소에서 약간 떨어진 천리마구역 중심지에 자리잡은 합숙소(1호동~4호동)는 독신자들을 2,000여명이나 수용할수 있는 훌륭한 건물이다.

합숙소앞마당에서는 로동자들이 버드나무밑에 꾸려진 긴 걸상에 앉아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었다.

우리는 해설원의 안내를 받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다녀가신 4호동 2층 6호실을 찾았다.

녀성로동자를 허물없이 대하시며

여기서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 일한다고 하는 합숙소 과장을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을 방불케 그려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날 합숙소에 들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여기 녀성들의 방에 들어오시였다.

제강소에서 일하는 녀성들이 고생이 많다 하는것을 헤아려보시고 일부러 녀성들의 방을 찾으신것이였다.

이날 호실에서는 최황금녀성(당시 23세)이 하루일을 끝마치고 휴식하고있었다.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뵙게 된 최녀성은 당황하여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리둥절하여 어찌할바를 모르는 그를 허물없이 대하시면서 부모들은 무엇을 하시는가,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가, 일은 힘들지 않는가 등 생활조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보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공부를 잘하여 훌륭한 야금기사가 되여야 한다고 고무하시였다.

오늘 최황금녀성은 기업소의 공장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후 기술과의 기술지도원으로 열심히 일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일군들에게 강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굳게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는 강철전사들인데 합숙소를 잘 꾸리고 생활조건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자합숙소를 이처럼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식당을 찾으시였다.

식당에 들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취사원들에게 식사내용을 료해하시고 국수, 빵, 밥 등 로동자들이 요구하는 음식을 잘 보장할데 대하여서와 식사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천리마구역 고창리에 있는 공장부업농장도 지도하시고 과일과 남새를 많이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47년 10월 5일 이곳 기업소에 첫 자욱을 남기신 때로부터 11차례나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중로동과 고열로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로동조건과 합숙, 식당 등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이 오늘도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전진하던 그 혁명적기세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처럼 이곳 로동계급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기때문이다.

(본사기자)

우리 학습실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사회력사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만 옳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문헌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물질세계의 한부분으로서의 사회를 그것을 이루는 구성요소와 그들사이의 결합방식으로 새롭게 밝혀주었다.

사회를 이루는 세가지 요소가운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주체적견해이다.

사람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도 다 사람이 창조하기때문이다. 사람을 떠나서는 사회적재부의 창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또한 사람이 없이는 사회적관계가 맺어질수 없으며 유지공고화될수도 없다.

문헌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발전에 대한 주체적견해를 밝혀주었다.

그것은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적재부가 창조되고 사회적관계가 개선되여나간다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운동,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이 다그쳐져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이 바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주체적견해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적운동, 사회발전의 요인과 추동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한것으로 된다.

문헌에는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방법론적원칙이 밝혀져있다.

그것은 사업이 잘되고 못되는 원인은 주체에서 찾고 일감은 객관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그것을 반드시 객관적대상과 조건에 맞는 옳바른 전략전술과 결부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중요한 방법론적원칙은 그 어떤 방대한 혁명과업도 능히 수행해나갈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독창적인 사상리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헌에 대한 토론회 진행

◎뽀르뚜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전국토론회가 지난 2월 6일 뽀르뚜갈 리스봉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뽀르뚜갈 전대통령 프란시스꼬 다 꼬스따 고메스, 알끄쎄뜨시장 미겔 보에이루, 김일성주의연구 뽀르뚜갈중앙위원회 위원장 루이스 마누엘 데 아라우죠를 비롯한 정계, 사회계, 학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단체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력사적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론증한것으로 하여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헌에서 혁명의 주체에 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고계신다고 지적하고 그이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뻬　루◎

주체사상에 관한 전국과학토론회가 뻬루 인까 가르씰라쏘 델 라 베가종합대학과 데데리꼬 빌라레알종합대학의 공동주최로 2월 12일 인까 가르씰라쏘 델 라 베가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인까 가르씰라쏘 델 라 베가종합대학 총장 호르헤 리아라스꼬가 개회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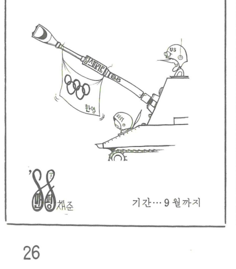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 조선혁명의 전반사업을 령도하고계시며 빛나는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 세계 진보적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이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그이는 사상리론의 영재로 온 세상에 명망이 높으신분이시다.

오늘 그이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자주적으로 살며 투쟁할 방도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고계시며 세계 인민들은 그이를 《친애하는 지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불장난

주체사상연구조직을 결성

뽀르뚜갈

김일성주의연구 뽀르뚜갈 알발라데소조 결성모임이 지난 2월 12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김일성주의연구 뽀르뚜갈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서기장 그리고 새로 조직되는 소조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아르뚜르 페르난데스가 소조책임자로 선출되였다.

소조책임자는 결의토론에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계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현시대뿐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새로 결성된 소조는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마다가스까르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 마다가스까르사회주의혁명헌장. 주체사상연구 안따나나리부시청년조직이 결성되였다.

결성모임이 2월 13일 안따나나리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조직의 지도기관이 선거되였다.

《우리 나라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뻬루에서 진행

우리 나라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2월 11일부터 뻬루의 리마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뻬루대통령 문화고문이며 뻬루전국문화위원회 위원장인 헤르만 뻬랄따, 국가검열총장, 대통령 정치고문, 대학총장들, 외무성과 전국문화위원회 국장들을 비롯하여 정계, 사회계, 출판보도계, 학계, 실업계 인사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단체 일군들, 각계층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는 또한 뻬루주재 우리 나라 무역대표와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있는 우리 나라 수공예품들

넓은 관할지역을 동포들을 위한 보람있는 일터로 삼아

조은오사까호꾸세쯔지점 섭외계일군들
개설당시에 비해 거래자호수는 2배로

광범한 동포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묶어세우는 사업은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본신사업의 기본에 두고 활동해나감으로써 동포들의 실리를 도모하고 신규거래자를 확대해나가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조은오사까 호꾸세쯔지점 섭외계 일군들.

이곳 지점의 거래자호수는 개설당시(1981년)에 비해 약 2배로 불어났다.

약 7년사이에 이처럼 확대된 성과에는 《동포들을 위한 교양자, 방조자로서 그리고 총련일군으로서의 립장에서 사업하자!》는 결의로 불타 분투해나선 이곳 섭외계일군들의 열성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기본에 돌아서자》고 서로 격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이 운영하는 신용조합은 동포상공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재정적대변자로, 그들에 대한 신용활동의 거점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신용조합이 동포상공인들의 리익에 맞게 신용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신용조합의 신용활동에 광범한 동포상공인들이 참가할수 있습니다.》

3년전까지만 하여도 이곳 섭외활동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점의 관할지역은 다까쯔끼, 이바라기, 셋즈의 3개 시 그리고 교또와 린접하는 미시마군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이다.

넓은 일터, 동포들이 흩어져사는 조건에서 동포들을 찾아가고 또한 신규거래자를 늘이자니 많은 시간과 로력이 들었다. 그러면서 신규거래자대상호수도 한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거래자를 확대하는 사업은 섭외활동에서 《반드시 해나가야 할 일》이였다.

이러한 실정에다가 재작년 7월경부터는 금융자유화의 본격화, 《엔다까(円高)》불경기바람에 동포들의 기업활동과 함께 조은 사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되였다.

이로 하여 섭외계일군들은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고민에 사로잡히군 했다.

《과연 어떻게 사업을 할것인가.》

이럴 때 이곳 일군들은 이 문제를 두고 여러번 토론을 거듭했다. 밤을 새울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말들이 오고갈수록 마음들은 뜨거워만 갔다.

《기본에 돌아서자. 섭외일군이란 단지 금융사업에만 종사하는것이 아니라 동포들의 기업과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그들을 묶어세우는 사람들이다. 약속을 꼭 지키고 고민을 풀어주자, 동포들의 실리를 도모하는데 힘을 기울이자.》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보았다.

신규거래자확대 위해 열번이건 스무번이건 찾아가

이를 계기로 섭외계일군들은 사업의 과녁을 신규거래자확대에 두고 동포찾기에 힘썼다. 총련지부와 상공회에서 장악하고있는 명단을 보면서, 거래동포의 소개를 받으면서 그리고 주택지도에 표시를 하면서 단차의 발동을 걸어나갔다.

《조선사람다운》 성명이라면 즉각 찾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과 관계없다.》는 말들은 례사로 들었고 먼 거리를 달려도 만나지 못한 일도 있었다.

그럴수록 그들은 분발하였다. 한대상동포집에 평균 20~30번씩 찾아가기도 하였고 100번을 넘을 때도 있었다.

그러한 속에서 고일웅주임의 열성은 이곳 섭외계일군들의 뜨거운 활동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는 소위 산골짜기지역인 미시마군 미나세지역을 담당하였다. 이 지역으로 말하면 지점에서 단차로 1시간을 달려야 할곳에 있으며 민단산하, 미조직 동포들이 많이 사는곳이다.

사실 지역에 들어가면 그들을 멀리하였다. 그러나 그는 열번 가서 안되면 스무번, 스무번 가서 안되면 서른번이라도 찾아갔으며 대상동포와 만나지 못하면 밤 9시, 10시가 넘도록 기다렸다.

재작년 12월의 어느날이였다. 비가 억수로 퍼붓는 속에서 이 지역을 돌았던 그는 대상동포집에서 《확답》을 얻지 못한채 귀로에 올랐다.

《노력하는대로 노력했는데 이이상 어찌하겠는가.》 실망에 잠긴 그였다.

다음날 아침 개업하자마자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 전화임자는 몇번 찾아가도 만나지 못했던 어느 미조직동포였다.

《비가 내리는 속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안해에게서 들었다. 동무의 성실하고 꾸준한 사업에 감동했다. 그런 동무가 일하는 은행(조은)은 믿을수 있다. 예금을 하니 어서 찾아오시오.》

이 동포는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온 그에게 거액의 적금계약을 해주었으며 6호의 동포집을 소개해주었다 한다.

또한 그의 열성을 본 어느 민단동포는 어떤 모임에서 《우리들은 조선사람이다.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친목을 깊이고 조은에도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다.

고주임은 《어려운 사업을 해냈을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여 이악하게 사업함으로써 섭외사업을 하던 첫시기 70호였던 거래자호수를 198호(지난해말현재)로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던것이다.

동포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묶어세우는 립장에 철저히 서서

이곳 지점은 지난해 6월 22일, 출장소로부터 지점으로 승격하여 새 출발을 하였다.

이날 적금계약고 170구좌, 신규거래 62호, 총예금액 약 64억원의 성과가 이룩되고 지점개설사업은 대성공으로 끝났다.

지난해초부터 개설사업에 떨쳐나선 섭외계일군들을 두고 관하동포들은 적극 호응해주었다.

《필요하다면 함께 대상동포집을 돌자》고 자기 일을 뒤로 미루고 도와나선 동포들.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 집인 조은지점을 사랑하자》는 뜨거운 마음을 엿볼수 있다.

이는 단지 조은에 대한 사랑일뿐아니라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실리를 도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섭외계일군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깃들어있다.

고정박계장을 비롯하여 고일웅, 한룡우, 신룡봉, 채문남, 강일수일군들은 어려울 때면 동포들에게 의거하여 사업해나간다는 마음을 갖고 사업에 착수하고있다.

《상속세》문제로 고민을 하고있었던 어느 동포를 상공회와의 협조밑에 적극 도와나섰으며 그에게 사회주의조국의 현실과 오늘의 정세를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총련애국사업에 나서는 결의를 가다듬게 하였다.

그리고 결혼문제 등 생활상 여러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거래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것과 함께 동포들을 찾아다니는 속에서 일고재학조선인학생여름방학대강습회 대상, 학생을 받아들이는 사업 대상을 료해장악하고 꾸준한 활동을 벌림으로써 그들에게 조선사람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도 적극 기여하였다.

이런 사업의 결과로 신규거래자호수도 비상히 늘어났다.

고정박계장은 《총련일군으로서의, 교양자로서의 립장에 서서 사업을 벌리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포들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조은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안겨주고 활동하는것과 함께 지부와 단체들간의 긴밀한 련계속에서 제반 사업을 짜고들어야만이 진짜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고 말한다.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속담 그대로 동포들속에서 살고 일하며 동포들의 충복으로서 열성껏 사업해나가는 과정에 귀중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이곳 섭외계일군들의 보람과 긍지는 더없이 커가기만 하다. (본사기자 조방호)





일군들의 높은 열성으로 이곳 지점은 큰 성과를 이룩하여 작년 6월말에 신설개점하였다.(사진 우)
동포들속에서 살고 일하는 이곳 섭외계일군들의 보람과 긍지는 더없이 커가기만 하다.(사진 오른쪽)



도서《숭고한 뜻》감상발표모임

도서《숭고한 뜻》에 대한 감상발표모임
다양한 형태로 2월명절을 경축
총련 오이다현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

총련 오이다현본부에서는 경사스러운 2월명절을 맞이하여 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성심과 경모의 정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숭고한 뜻》에 대한 독보를 왕성히 벌렸다.

일군들은 지난 1월 25일부터 매일 아침 집체독보를 하여 모두가 도서를 완독한데 토대하여 2월 22일과 26일, 감상발표모임을 가졌다.

도서중 《무포의 낚시터에서》, 《백두산에 오르시여》, 《백두산의 눈보라를 헤치시고》, 《새벽이슬을 밟으시며》, 《로동자들과 함께 즐기시며》, 《조선녀성들보다 더 복받은 녀성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민족적인것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시며》, 《〈제 정신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의 8개 대목을 놓고 일군들이 제각기 감상을 발표하였다.

총련 오이다지부 량재의위원장은 《무포의 낚시터에서》를 읽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을 열어놓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특히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앞에 초미의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이 중요하다.》

전임일군들뿐아니라 비전임일군들, 분회위원들도 이 기간 《로동자들과 함께 즐기시며》와 《민족적인것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시며》의 두 대목을 읽고 감상문을 썼다.

한편 총련 겐호꾸지부 오하다분회, 벳부지부 노구찌분회, 오이다지부 서분회를 비롯한 각 분회와 녀성동맹에서 다양한 형태로 2월명절경축모임을 가지였다.

총련 노구찌분회 허동민분회장은 《이렇게 분회에서 경축모임을 가져야 동포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욱 실감적으로 높이 모실수 있다.

우리 분회에서는 오늘의 모임을 계기로 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는 사업을 짜고들것이며 이와 함께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정치선전사업을 왕성히 벌려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올해과업을 8월말까지 수행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차게 맞이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오이다지국】

평화를 위협하는 《팀 스피리트 88》
(1)
철두철미 침략적인 핵전쟁연습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이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날조하여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제와 로태우도당은 2월부터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본격적으로 감행하였다.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가상한 극히 위험한 전면전쟁연습이며 핵전쟁연습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연습은 긴장된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이끌어 세계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흉악한 도발책동이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조선에서의 평화와 긴장완화, 통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대결과 전쟁정책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그 범죄적, 침략적 성격과 그 위험성, 부당성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올해벽두에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다국적군축회담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제기하고 그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편지를 남조선측에 보내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제의와 진지한 노력에 대해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일뿐아니라 공화국의 평화제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올해에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리기로 하였으며 〈서울올림픽안전담보〉의 구실밑에 앞으로도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습니다.

조성된 사태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위기에 처한 군사독재체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임의의 시각에 트집을 잡아 전쟁의 불을 지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지난 1월 28일, 2월부터 5월까지 남조선전역에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벌써 1월부터 남조선강점미군과 괴뢰군, 일본을 비롯한 미태평양사령부산하 부대들과 미국본토에 있는 미군 등 20여만명의 방대한 병력을 남조선에 동원시키고있다.

이 전쟁연습은 례년과 같이 미제7함대 항공모함전단과 《에프16》, 《비52》, 《이4비》 등 핵탑재기, 핵전쟁사령기와 《랜스》 등 핵포, 오끼나와, 미국본토의 특수부대까지 참가하는 《공지전》, 《북진, 핵공격, 예비 전쟁》연습이다.

특히 3월말부터의 약 2주일간에는 상륙작전연습, 야전공격연습 등이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미제는 이번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주요작전내용이 ①유사시 즉응태세 강화 ②계속전투능력의 향상 ③핵전쟁실전연습의 고도화라고 떠벌이고있다.

《즉응태세》란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제한된 시간내에 완전한 전투력을 갖추도록 준비해놓는것을 의미하며 《계속전투능력》이란 전쟁시작부터 《실속있는 종결》까지 인적, 물적 전투력을 확보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핵전쟁실전연습의 고도화》란 이 연습이 극히 실전적인 성격을 띤 위험한 핵전쟁소동이란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군은 《팀 스피리트 88》전쟁연습의 일환으로 2월 1일부터 1달간에 걸쳐 해상훈련을 벌리였다.

미제와 로태우도당이 올해에 또다시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을 강행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으로서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로 된다.

특히 이번의 전쟁연습은 례년과 달리 공화국이 북남당국자들을 포함한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하고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전환의 해로 하기 위하여 제기한 평화제안과 또한 작년 12월에 쏘미간에서 《중,단거리핵전력전폐조약》이 체결되는 등 점차 완화의 징조를 보이고있는 국제정세추이에도 배치되는 극히 침략적이며 범죄적인 전쟁소동이라고 특징지을수 있다. 특히 엄중한것은 미제가 《올림픽의 성과적보장》이란것을 구실로 더욱더 군비확장과 핵전쟁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는것이다. 이번《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려객기사건을 구실로 한 반공화국소동이 악랄하게 벌어지는 속에서 감행되고있다.

때문에 미제와 로태우도당이 《올림픽안전》을 구실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전쟁에로 이행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하나도 없다는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전조선을 집어삼키며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할 목적밑에 미제가 1976년부터 벌려온 철두철미 침략적인 전쟁연습이다.

녀성동맹 이바라기현 겐낭지부에서
2월명절 축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46돐을 축하하는 녀성동맹 이바라기현 겐낭지부 동포들의 모임이 2월 25일, 이시오까시내의 하꾸운소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 겐낭지부 리영선위원장이 연설하여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소동이 로골화되여가는 속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욱 높이 모시며 그이의 권위를 옹호할데 대하여 강조했다.

녀성동맹 겐낭지부 조옥선위원장은 축배사에서 내외반동들의 모략소동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기치따라 힘있게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모임에서는 또한 녀성동맹 이바라기현본부 정순선위원장이 올해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어 진행된 연회에서 참가자들은 노래와 춤으로 2월명절을 열렬히 경축하였다. 【겐낭분국】

미야기현일조우호청년부인학습회에서
조선문제학습

미야기현일조우호청년부인학습회가 지난 2월 27일, 센다이자치로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미야기현로동조합평의회와 미야기현로동조합평의회 청년부인협의회의 주최로 진행된 학습회에는 150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학습회는 《왜 재일조선인,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사는가》란 의제로 진행되였다.

먼저 현평의장이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은 남조선괴뢰들의 모략이라고 하면서 이런 정세일수록 일조우호친선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4명의 토론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여 학습회는 파넬디스캇숀의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학습회에서는 남조선려객기사건의 모략에 항의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이에 앞서 2월 25일에는 자치로 미야기현본부 1988년도 제2회단조대표자회의에서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한 일본 정부와 매스콤의 자세변경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였으며 같은 날 이 내용의 성명이 일조우호센다이시민회의에서 발표되였다.

【미야기지국】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경축

《조선청년들의 기상》국가미술전람회와 《조선은 하나다》전국청소년학생미술전람회가 진행된다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1989년 여름에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된다.

이에 즈음하여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는 《조선청년들의 기상》 국가미술전람회와 《조선은 하나다》 전국청소년학생미술전람회를 조직하게 된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는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이 전람회들에 많은 재일동포미술가들과 미술애호가, 청소년학생들이 좋은 작품들을 출품하도록 아래와 같은 조직요강을 발표하였다.

1. 국가미술전람회

1)전람회 목적

(1)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걸어온 조선청년들의 투쟁모습과 조국과 민족을 위한 재일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을 미술작품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있다.

(2)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개화발전하는 우리 미술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데 있다.

2)전람회 명칭 및 주최

(1)명칭; 《조선청년들의 기상》 국가미술전람회

(2)주최;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3)전람회 참가대상

재일본조선인 미술가들과 미술애호가들은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4)전람회 작품종류

조선화, 유화, 출판화, 공예, 조각, 수예, 서예

5)창작주제방향

①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련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에서 재일조선청년들이 발휘한 투쟁모습과 생활을 담은 내용.

②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보여주는 재일조선인들의 모습을 담은 내용.

③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해내외 조선청년들의 투쟁을 담은 내용.

④지난날 조선인민에 대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억압과 착취, 학살만행을 반대하여 싸운 조선청년들의 투쟁을 담은 내용.

⑤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내용.

⑥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동식물을 취급한 내용.

6)작품 보내는곳과 마감날자

(1)보내는곳; 조선대학교내 총련문학예술작품심의위원회 미술분과 앞

주소; 東京都小平市少川町1～700

전화; 0423(41)1331

(2)마감날자; 1989년 3월 10일

7)전람회 총화와 작품처리

—입선된 작품중에서 등수에 든 작품의 창작가들에게는 그 순위에 따라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에서 금, 은, 동메달과 그에 따르는 증서가 수여된다.

—심사결과는 조국의 출판물과 방송으로 발표된다.

—입선되지 않는 작품은 반환된다.

2. 전국청년학생 미술전람회

1)전람회 목적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모습과 생활을 미술작품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있다.

2)전람회 명칭 및 주최

(1)명칭; 《조선은 하나다》 전국청소년학생미술전람회

(2)주최;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3)전람회 참가대상

재일조선청년들과 각급 학교 학생들 그리고 유치반 어린이들도 다 참가할수 있다.

4)전람회 작품종류

조선화, 유화, 출판화, 공예, 수예, 조각, 서예

5)창작주제방향

①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평화제안을 담은 내용.

②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해내외조선동포들의 투쟁을 담은 내용.

③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내외원쑤들의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내용.

④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는 세계 인민들의 투쟁을 담은 내용.

⑤남반부동포들을 따뜻한 혈육의 정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동포애적인 노력을 담은 내용.

⑥재일동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애국적지향과 생활을 담은 내용.

⑦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내용.

⑧통일된 조선의 미래와 자주화된 평화로운 새세계에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념원을 담은 내용.

⑨반전, 반핵, 비핵 및 평화 지대 창설을 위한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담은 내용.

.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진행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관련한 내용.

.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동식물을 취급한 내용.

6)작품 보내는곳과 마감날자

(1)보내는곳; 조선대학교내 총련문학예술작품심의위원회 미술분과 앞

(2)마감날자; 1989년 3월 10일

7)전람회 총화와 작품처리

—입선작품중에서 등수에 든 작품의 창작가들에게는 그 순위에 따라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에서 금, 은, 동메달과 그에 따르는 증서가 수여된다.

—심사결과는 조국의 출판물과 방송으로 발표된다.

—입선되지 않는 작품은 반환된다.

당의 령도아래 이룩된 력사적전변

기록영화 《위대한 전환의 한해 1974년》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는 기록영화 《위대한 전환의 한해 1974년》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이 영화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당과 혁명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이 이룩된 1974년에 있은 격동적인 사변과 력사적사실들을 보여주는 의의깊은 장면들이 수록되여있다.

영화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2월 19일문헌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이 해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한 여러 문헌들이 발표된데 대하여 보여주면서 우리 당의 사상리론활동이 주체철학과 당 및 국가 건설을 비롯한 모든 령역을 다 포괄하고있는 폭넓고 심오한것이였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당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대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친데 대하여 영화는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또한 4.15를 민족최대의 명절로 기념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여준 우리 당의 높은 뜻이 실현되고 해마다 4월이 오면 거리와 마을들에 갖가지 꽃들이 계절을 앞당겨 만발하게 핀 사실과 이해 5월 북행렬차가 회령역을 그냥 통과하게 된 가슴뜨거운 사연에 깃든 숭고한 충성의 이야기들을 감동적으로 전해주고있다.

영화는 우리 당이 70년대의 그해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해나간데 대하여 생동한 화폭들로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그해부터 더 많이 조선으로 찾아오는 외국의 벗들과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공산주의위업을 능히 완수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는데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 속에 인도양을 항행하던 《혁신》호의 두 선원이 생명이 위급한 중병을 가시고 기적적으로 소생하였으며 외진 등대섬마을 사람들이 텔레비죤수상기와 손풍금을 비롯한 귀중한 선물을 받아안았고 순직한 작가, 3대혁명소조원, 재일귀국청년 등이 영원한 생명과 재생의 기쁨을 받아안게 된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독자시교실

마음의 꽃

김 영 숙

이 세상엔
여러가지 꽃이 있고
여러가지 색갈의 꽃이 핀다

꽃은
여느것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라
하지만 나는
새하얀 꽃을
더없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장미꽃같이 붉지도 않고
목단꽃같이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추위도 더위도 이겨내고
아름답게 피여난 새하얀 그 모습

썩고 병든 자본주의나라
어지러운 이 일본땅에
그윽한 향기 마음껏 풍기며 피여난

너는
진주보다 더 신비로운 고상한 꽃

삼복더위 모진 추위 끝끝내 이겨내여
곱게도 피여난 새하얀 꽃이여
너는 조국을 그리며 따르려는
나의 마음인듯

이 세상엔
여러가지 꽃이 있고
여러가지 색갈의 꽃이 핀다

티없이 깨끗한 순결한 마음으로
내 정성들여 가꾸어가리라
추위도 더위도 이겨내고
곱게도 피여난 새하얀 꽃을

(우베조선초중급학교 교원)

인상적으로 안겨오는 주인공의 정신세계

우선 제목이 시적이여서 좋습니다. 사색도 깊고 시적인 발견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썼는지는 모르나 서정적주인공의 정신세계가 안겨오는 시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새하얀 꽃을 그렸다면 시가 되기 어려운데 자본주의오물에도 물들지 않고 삼복더위도 모진 추위도 즉 온갖 시련과 고통도 이겨내고 민족자주정신을 굳건히 지키면서 조국을 따르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새하얀 꽃으로 비유했기때문에 시로 된것입니다.

시는 이처럼 직설적인 것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미꽃같이 붉지도 않고/목단꽃같이 화려하지는 못하지마는》하는 표현은 꾸미지 않는 겸손하고 소박한 정신세계의 비유적표현으로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정화흠)

미술비평

감도는 풍요한 민족적정서

《고삼권개인전》을 보고

홍 영 우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갈, 평면적인 공간처리로 형상한 풍경과 인물은 전시장을 감도는 고요한 정서의 숨결속으로 우리들을 절로 이끌어주는듯하다.

도꾜 긴자 센트랄미술관 회화관에서 열리고있는 고삼권전(2월 29일～3월 6일)의 작품들에 흘러넘치는 독특한 정서는 풍요한 민족적향기를 개성적인 회화공간으로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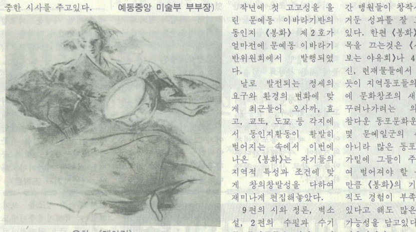
유화라기보다 동양화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연한 단색적인 색조와 대담하게 잡은 산과 숲, 들판과 하늘들의 공간구성이며 약동하고 몸부림치는 인물과 이그러진 얼굴들의 선의 단순화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작가의 민족적자세와 개성적미감을 말없이 전해준다.

작품들이 서정적인 향토의 정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고상한 느낌을 주는것은 그의 세련된 솜씨에도 있거니와 특히는 《통곡(광주)》, 《상봉》, 《삶》들에서 보이는 국토량단의 아픔과 분노,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화폭에 형상한 작가의 자세, 즉 우리의 현실인식속에서 숨쉬려는 지향성에 있다.

변화된 새 환경속에서 미술창작에 있어서 민족적정서를 형상하는 문제가 긴요하게 나서고있는 오늘의 상황하에서 시대와 현실에 립각하여 창작의 붓대를 드는 자세는 자못 귀중한 시사를 주고있다.

다만 이 작가가 다분히 가지고있는 심상적인 조형언어가 때에 따라 화폭에 거친 인상을 주는 문제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될것이다.

금후 미술가 고삼권이 력사와 사회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은 보다 풍요한 민족적정서의 예술적령역의 폭을 넓혀줄것을 기대한다. (문예동중앙 미술부 부부장)



유화 《메아리》

동인지 소개

《봉화》제2호



작년에 첫 고고성을 울린 문예동 이바라기반의 동인지 《봉화》 제2호가 얼마전에 문예동 이바라기반위원회에서 발행되였다.

날로 발전되는 정세의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맞게 최근들어 오사까, 효고, 교또, 도꾜 등 각지에서 동인지활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서 이번에 나온 《봉화》는 자기들의 지역적 특성과 조건에 맞게 창의창발성을 다하여 재미나게 편집해놓았다.

9편의 시와 정론, 벽소설, 2편의 수필과 수기 등 문예물들은 지난 1년간 맹원들이 창작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잘 보여주고있다. 한편 《봉화》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사진으로 보는 야유회》나 4가지 단신, 련재물들에서 볼수 있듯이 지역동포들의 참가밑에 문화창조의 새 마당을 꾸려나가려는 의욕이다. 참다운 동포문화운동이 몇몇 문예일군의 손으로가 아니라 많은 동포들의 참가밑에 그들이 주인이 되여 벌어져야 할 운동인것만큼 《봉화》의 기획은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많은 시사와 가능성을 담고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広がる「北を学べ」の声 「新年の辞」も聴取学習

南朝鮮学生ら

金日成主席のチュチェ思想に関する労作や、共和国の内外政策を学ぼうとする南朝鮮学生らの動きが、昨年秋ごろから顕著に公然化している。こうした中で安全企画部は二月二十九日、短波ラジオによって金日成主席の「新年の辞」を聴取、これを教材に使用していた東国大四年生・梁洪韶君(三)を「国家保安法」違反で逮捕した。共和国とのかかわりで逮捕者が出たのは、今年に入って初めてのことだ。

公然とチュチェ思想学習

「高麗大の法大(学部)二〇四講義室で室内が吹き飛ぶような拍手がわきあがった。高麗大拘束学生同志会を中心として結成された『政治学校』の組織員二十余人が『金日成チュチェ思想』によって行動しようという左傾意識化講義を終えて、その実践を決意したところだった」

「問題の深刻性は、このような現象が決して英雄心理から出たような一時的なものではなく、左傾的史観と現実認識に基づいた、確信的な主張であるという点にある」

「政府」系新聞であるソウル新聞は、昨年十月四日付の紙面で、今日南朝鮮社会に「左傾思想が氾濫(はんらん)している」と、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昨年の六月抗争以後南朝鮮では、共和国の思想や政策を知ろうとする動きが、平壌放送の聴取、学習会、講演会の開設、大学報の掲載、ビラの配布など、多様な形態で波及している。

こうした気運は、KAL機事件や「大統領」選挙以後、今年に入っても衰えるきざしがない。二月にはKAL機事件に関する共和国の主張と見解をともにする大学報が、ソウル大、延世大、成均館大など各地の大学に連続して現れた。

南朝鮮当局は一日、今回の大学報事件と関連して、明知大総学生会幹部など七大学十七人の学生を追跡していると発表、こうした動きに危機感を高めている。

台頭する民衆統一論

急速に高まる共和国を学ぼうとする新たな気運の背景には、「分断社会」に対する正しい歴史認識に基づいて、民族的課題に正面から取り組もうとする、八〇年代の新たな運動がある。

分断体制とそれを支える「安保論理」を打破し、統一を成就するという民族的課題を解決することなくしては民主化の展望もありえぬとする考え方は、すでに民主民衆勢力を中心に南朝鮮社会の基本潮流をなしている。

「われわれは、いまだ新たに表出する国民の要求がなんであるかを正確に予測することは困難だが、これまで主に主張されてきた政治的民主化の範囲にとどまるものでないことは、明確に知ることが出来る。国家権力の民主化と、人権の伸長と併せて、社会経済的な民主化と平等が要求され、すすんではこれを実現するための民族の自主性と統一に対する意志が強く表現されるであろう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李三悦「統一問題を優先課題とせよ」『月刊朝鮮』八八年三月号)

李三悦崇実大教授は、こうした認識に立って、権力サイドによる統一論議の独占を批判し、統一論議を民衆に開放することを強く主張した。同氏はまた、共和国が提案する高麗民主連邦共和国案がなぜ危険だというのか、南北のクロス承認論や国連同時加盟案が分断固定化につながるという批判がなぜ間違っているのか、「十分な解答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も指摘している。

現在南朝鮮では、学生、在野など民主民衆勢力の中で民衆統一論が急激な広がりをみせているが、同様の主張が一般大衆誌の巻頭論文を飾っている事実は、この問題に対する一般市民らの関心の高さをうかがわせる。

チュチェ思想や共和国の統一政策は、こうした八〇年代の反米自主化、統一への新たな潮流の中で、確実に民衆の心をつかみはじめている。



学生らがチュチェ思想や共和国の内外政策を学習していることなどを伝える南朝鮮の新聞

差別発言に厳重抗議

取り消しと謝罪要求

総聯愛知県本部

総聯愛知県本部は三日、名古屋市議会・杉浦重太郎議員(自民)の「在日朝鮮人に対する差別発言」と関連して、謝罪と発言の取り消しを求める要請書を西尾名古屋市長、加藤市議会議長、西村自民党市議団長へ提出した。

これは二日に開かれた名古屋市議会建築交通部会で、大高緑地公園・アベック殺人事件の犯人らが港区の市営住宅南汐止荘に不正入居していたことが論議されたが、この中で杉浦議員(港区選出)が「南汐止荘には韓国、朝鮮人がたくさん住んでいて住宅自体がすさんでいる」との暴言に対して行われたもの。

部会で杉浦議員は、「あの付近は非常に環境が悪い。韓国人、朝鮮人が多く、小学校の比率も日本人四、北朝鮮・韓国人六の割合になっている」(毎日新聞夕刊・三月二日付)と、朝鮮人べっ視の発言をした。

この日、名古屋市役所を訪れた総聯県本部の康潤璟委員長をはじめとする代表らは、「在日朝鮮人と地域の環境悪化、アベックら致殺害事件を結びつけた問題発言」として厳重に抗議した。

また要請書では「日本帝国主義による三十六年間の植民地支配の歴史と、戦前戦後にわたる日本当局の在日朝鮮人に対する処遇及びその誤った政策に対する一片の反省もない」「根強い朝鮮べっ視と在日朝鮮人に対する差別意識から出たもので、発言の取り消しと謝罪を強く要求する」としている。

この差別発言に対し、同地域はもちろん県内の同胞らも強い怒りの声を高めている。

また、日本の新聞でも、「朝鮮人べっ視」「自民党議員が差別発言」「取り消し謝罪を要求」などと報道している。

朝信だより

和歌山朝鮮信用組合 「ポラム運動」展開中

和歌山朝鮮信用組合では、来る九月二十五日の組合創立二十五周年を目指して「ポラム運動」を展開中である。

「ポラム運動」は「主体! 創造! そして飛躍!」をスローガンに掲げて、さる二月一日からスタート。その間の目標として①ナイスプラン25と題した記念預金の募集②組合創立二十五周年祝賀大会など多彩な催しを企画——などを立てている。

記念預金の内容を見ると、一口十万円と定めた定期預金を二千五百口座、そして一口二十五万円(契約高)と定めた定期預金を一千口座獲得する、となっている。

また記念行事として、組合後援会「白頭会」ゴルフコンペ(六月中旬)、組合員旅行(七月中旬)、女性同胞のための講演会(八月初旬)、そして祝賀大会(十月)、「一日理事長」など、多種多様な催しを企画。和歌山朝信本店と田辺支店ともども気勢を上げて頑張っている。

創立25周年 ポラム運動
記念預金募集中 ナイスプラン'25
定期預金 1口 10万円
定期積金(契約高) 1口 25万円
◀記念行事のご案内▶
○祝賀大会(大抽選会) 10月中旬
○25周年記念 白頭会ゴルフコンペ 6月中旬
○組合員記念旅行 7月中旬
○女性を対象にした特別講演会 8月初旬
期間 1988年2月1日～1988年9月30日
主体! 創造! そして飛躍!
和歌山朝鮮信用組合

栃木朝鮮信用組合 名称変更に伴い預金増強運動

栃木朝鮮信用組合は、来る四月一日から同店の名称を「朝銀栃木信用組合」と変更する。

これを記念して同店では、さる二月一日から四月三十日にかけて、「略称朝銀新たな出発」と題した預金増強運動月間を推進している。

同店では運動月間中、記念預金として定期積金・契約高五十万円(三年～五年掛)、定期預金・一口三十万円(一年)を募集している。

この運動は、昨年末に開かれた朝信拡大理事会で討議決定されたもので、同店役職員はもちろん、商工会や女性同盟などの各機関もバックアップし、力強く展開されている。

期間中、記念預金をした人には抽選券が配られ、五月に予定されている第二十五期定期総代会会場での抽選により、当選者にはビデオムービー、カラーテレビなどの豪華景品が贈られるという。

また運動の記念行事の一環として、本店では三月十八日に杉の郷カントリークラブで記念ゴルフコンペを企画、さらに同店「婦人友の会」結成一周年を記念して、組合員旅行を四月二十一～二十三日に予定している。

朝銀東京・上野支店 3月決算に向け合同集会を開く

さる二月二十七日、朝銀東京・上野支店では三月決算を前にして、同支店総代と後援会「朝銀上野会」が合同集会を開いた。

集会では、朝銀東京・梁守政理事があいさつをし、「三月決算を目指して、一丸となって取り組んでいこう」と呼びかけた。

また、「朝銀上野会」の会長である韓在芳氏、同支店・申炳重支店長、朝銀東京常任理事会を代表して朱泳植理事長らが、同支店の役職員たちに激励の意を表した。

同支店では、役職員はもちろん、総代と「朝銀上野会」会員が新規契約増加のために、数人ずつのグループに分かれて預金高達成運動に参加することになり、総代の尹熹洙氏は「グループ別の目標は、総代という立場からもぜひ達成したいですね」と、力強く決意を表明した。

運動期間中、同支店では組合員の日ごろの愛顧に感謝して、来る十六日にゴルフコンペを、二十九日には「朝銀東京預金高二千億円突破組合員感謝デー」を企画している。



集会では預金高達成運動に向けての決意表明がなされた

経済ニュース

共和国 大規模の温水ボイラー稼動

共和国の平壌火力発電所で一基の大型ボイラーが建設され、稼動を始めた。

このボイラーは、燃料供給や燃焼システムをはじめとする、全工程が近代化された大規模な総合温水ボイラーである。

この大型ボイラーは従来の温水ボイラーに比べ、生産能力と燃焼効率が非常に高い。

建設者たちは八百余件の技術改革を導入し、建設に三年を要するといわれたこのボイラーを、わずか六ヵ月で完工した。

特に、ボイラーの製作と組立燃料供給システムでは新しい施工法を積極的に導入し、工事の速度を高めた。

重要部分の組立現場では、三十ﾄﾝ級の万能クレーンを製作して、ボイラー本体の組立を二ヵ月以上早めた。

暖房工事現場では、二十余の単位で作業を行い、五十六ｷﾛの管工事を短期間に終了した。

南朝鮮 ワンルーム借家住まいが3割強

一日付けの「東亜日報」社説に南朝鮮における住宅事情の一端が紹介された。

それによると、「(南朝鮮の)全戸数の四三%が借家住まいであり、三三%がひと部屋借家住まいという実状だ」という。つまり、約半数の家族が借家に住んでおり、三割強がワンルームの借家に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だ。

社説では、住宅難の原因が「政府」当局の誤った政策によるものだと指摘している。

例えば住宅建設。当局は毎年初めに二十万だ、三十万だ、といって「建設計画」を発表するが、近年の実績はその三分の二に過ぎないし、需要に相応しないアパートを建てては全然売れないでいる。

さらに「融資制度」。住宅購入のためにと、「融資」枠が定められているが、その利子が年一二%と高すぎる。

話題

〝荒れる卒業式〟今年も ソウル大生600余人がデモ



民主化を求める学生たちの叫びに、毎年大荒れのソウル大卒業式。

昨年、一昨年は、「文教部長官」の祝辞朗読とともに、卒業生が一斉に退場。

従来、ソウル大の卒業式には「大統領」が招待されていたが、それが「総理」に、「文教部長官」にと代わり、そして二月二十六日に行われた今年度卒業式では、「純粋な学内行事にという学校側の方針」(東亜日報二月二十六日付)からそれすらもとりやめに。

しかし卒業生ら六百余人は、式の始まる前から学内で「朴鍾哲烈士名誉卒業証書授与要求および不正当選盧泰愚就任糾弾大会」を開いた。

学生たちは昨年一月、当局に虐殺された朴鍾哲君の肖像を掲げて卒業式会場に詰めかけ、反政府スローガンを叫びデモを行った。

盧「政権」打倒の声はこだまする。

振り子

最終試案に想定される「柱」

政府税制調査会(税調)は二日、税制改革に伴う試案の作成経過について明らかにし、今月末までに最終的な改革試案(たたき台)を公表する、と発表した。

日本の国会では減税と、その財源、新型間接税の導入問題などを取り巻いて、与野党間の折衝が続いており、審議空転といった事態も発生している。

税制改革の行方について、同胞たちの大きな関心が向けられているのは言うまでもない。

「秋ごろには新型間接税が導入されるのでは」といった声も少なくない。

税調の試案がいかに作成されるのか定かでない現段階において、推測で論ずるのは適切ではあるまい。

従って、ここでは税制改革の柱として、大枠が定まっている点を整理して見たいと思う。

第一は、日本国民の間に漂っている税制の不公平感の是正である。所得税、住民税の見直し等がここに含まれている。

税調では、所得税について中堅所得層を中心に最高税率五〇%に定める、と方向づけている。

第二に、資産課税の是正だ。キャピタルゲイン課税や、土地所有者に対する課税の見直し等が含まれる。資産に対する課税措置が現在アンバランスなので、これを是正しようとする動きである。

第三に、いわゆる「広く浅く」というフレーズの新型間接税の導入である。

税調の試案には、EC型付加価値税、単段階売上税など三案が併記されたが、野党側の反対が続いており、混とんとしている状況だ。

第四に、国際社会並みに法人税、相続税を低く制定する、ということだ。税調案では、実効税率が五割を下回るようにする、などと明らかにされている。

(一)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260)5881
内線 453・435 436・428

東京・足立商工会の「確定申告」を訪ねて

「ぼちぼちですね、チャンサ（商売）も……」「収益が上がってよかったですね」。なにげない言葉がトンポ（同胞）の心をなごます。「それほどでもないですよ」と思わずテレ笑い。東京は足立区にある朝鮮会館の三階。足立地域同胞たちの確定申告受付場は、「税金申告」といった憂うつな作業を進めている風ではなく、まるで健康診断でも行っているような和やかな雰囲気をかもしだしていた。（竜）


「売り上げが伸びましたね」、「お願いしますよ」と和やかな雰囲気で「申告」は進む

心が通う信頼の「窓口」

和やかな「申告」の場

足立地域商工会を訪ねたのは三日の朝であった。

早朝からすでに数人の同胞たちが「申告」に来たとのことで、事務所は早くから活気に満ちていた。

足立朝鮮会館三階に設けられた「申告」会場には五つのコーナーがあって、それぞれ担当者が机に座って受付に当たっていた。

同商工会・宋鉉大副理事長と総聯足立支部・文秀一宣伝部長が各テーブルで同胞に対応。また、東京都商工会の朴洪熙商工部長と金一秀、鄭日求トンムたち、そして商工連合会の姜明順トンムも応援に駆けつけ、「申告」の受付から用紙の整理に至るまでこまめに動き回っていた。

都商工会部長によると「全機関的に確定申告を進めよう」とのスローガンの下に、今週中に都下の非専従役員らすべてが各地域を回りながら激励し、応援するという。

足立地域は東京都下で最も多くの同胞が居住する地域で、やはり「申告」に訪れる同胞数も随一である。確定申告期間中、多い日で五十人余りの同胞たちが来るという。

「足立の同胞たちはヘップやカバン製造業、ビニール加工業など零細業者がほとんどで他の地域に比べたら『申告』額も少ないですよ。でも、帳簿をきちんとつける、ということをおろそかにしていて『申告』に手間取るケースもあります。この点を是正することが大切でしょうね」と宋副理事長。

同商工会・姜一理事長は、「二月十九日から始めて二週間が過ぎましたが、来る十日からがテンテコ舞いですよ。締め切り段階になって慌てだすので本当に大変です」と心中を明かす。

一般的には憂うつな場

一般的に所得税の確定申告は、①税務署からの通知（はがき）②「確定申告書」の書き入れ③税務署に赴く④内容の確認――となる。

「申告書」の内容確認の時に税金収集のプロたちは、納税者たちに矢継ぎ早に問いかける。内容が不正確だと、しかるべき税額に修正される。

そして三月十五日の「申告」締め切り後にもじっくり再調査され、「更正」により「追加徴集」といった措置が下されたりもする。

「申告」に行って、待たされた後にみっちり調べられる。半日か丸一日がつぶれてしまう。憂うつでない、といったらうそになる。

都内のある税務署をのぞいて見たが、特別に設けられたプレハブの「確定申告」受付会場では、申告者たちが用紙とにらめっこしながら憂うつな表情で順番が来るのをじっと待っていた。

「売り上げをごまかしてませんか?」、「これは経費じゃないでしょ」といった税務署員の言葉にびくついている申告者の姿が目に飛びこんで来た。

誠意と気配り安ど感を生む

「ウリ同胞の場合は全然違いますね」としみじみと語るのは姜一理事長だ。

一般的な場合と、ウリ商工会会員や同胞の場合を比べればその言葉の意味が分かる。

まずは確定申告。せいぜい一時間もあれば文書作成は済む。「税金収集に徹して厳格に調べる」という税務署員が相手ではなく、「経費として記載に漏れたものはないか」などと節税に心配りをはらう商工会の役員たちが相談相手になる。

作成された書類は商工会が責任を持って税務署に届けるシステムになっているから、税務署に行く必要もない。

つぎに「申告」後の「追徴」や「更正」。一般の場合は各個人にその旨の要請が来るが、商工会会員らの場合は商工会に一括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団体交渉権」というものであるが、これにより、同胞らに対する「不当課税措置」にも対処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同胞たちは商工会に一度足を運び、正確に「申告」すればそれで終了となるのである。

足立の場合、五年前に同商工会に赴任してくるや三年間、死に物狂いで勉強して税法に精通した宋副理事長や、総聯支部活動のかたわら独学で簿記の資格を取得した文宣伝部長など、同胞の企業権・財産権擁護のために、誠意を尽くす役員たちがいる。

「申告」の合い間にひと休みしてほしいと、一階にはビデオ装置も準備し、接待にあたっているのも心憎いばかりの気配りといえよう。

「同胞の財産は商工会が守ってくれてます」――同地域の民団系同胞がふと漏らした言葉である。「申告」を終えて「コマプスムニダ」と安どする同胞たちの表情とだぶらせて、ウリ組織のありがたみを再びかみしめた。


商工連や都商工会職員たちも応援に。文書作業をテキパキとこなす

青年商工人中央大会 実行委が発足

6月中旬、神戸で開催予定

来る六月中旬に予定されている「在日朝鮮青年商工人中央大会」を企画・推進するための大会実行委員会が、さる二月二十日に発足した。

この日、各地から若い同胞商工人と商工会の担当者ら十七人の代表が、東京・上野の朝鮮商工会館に集まって発足のための会議を行った。

会議では初めに、商工連・金基次総務部長が、実行委員会発足のための予備会議（二月三日）で合意された中央大会の趣旨について説明、「厳しい情勢が続くが愛国事業の一層の発展を目指して、若い商工人らの団結した力と役割をより高める機会にしよう」と語った。

続いて予備会議で討議された内容に言及、①期日は六月中旬②場所は神戸③規模は千三百人――などについて合意をみた。

会議では委員選出を行い、委員長には商工連・張允植副理事長、副委員長には金尚烈氏（東京）、金博司氏（大阪）、徐敏文氏（兵庫）など、七人の委員、そして各地の代表九人が選出され実行委の発足となった。また同実行委の事務局も設置された。

この後、第一回実行委員会が開かれ、大会の形式と内容、運営問題について論議。

「若い世代にマッチするざん新な企画を」（静岡）、「参加者たちの一体感を生み、今日の情勢に対応するパワーアップを」（京都）、「対外的にもウリ主張が注目されるような内容で」（北海道）――など、活発な意見が交わされた。

第二回実行委の予定は三月中旬。


実行委の発足に続き第1回委員会では大会運営の形式、内容などが活発に討議された

第4期定期総会開く

京都・中京協議会「中友会」

京都・中京地域青年商工人協議会「中友会」第四期定期総会が先月の二十六日、中京区のホテル松井で開かれ、約三十人の会員が参加した。

総会でははじめに、同協議会の金星潤会長があいさつに立ち、結成以来四年間、二、三世の若い世代が中京地域の同胞社会発展のために大きく貢献してきたことについて触れ、これからも一層の活躍を期待する、と述べた。

つぎに幹事長の南司郎氏が活動報告を行った。

氏は報告の中で、昨年の京都第二初中チャリティーコンペ、京都府商工会ゴルフコンペ、ファミリーパーティーなどの行事を通じて会員間の相互理解が深まったと語った。また、「五十日間集中行動」を機に、会員の中から総聯分会長や委員が誕生するなど大変意義深い活動を展開できたとし、今後も内容の濃い催しを企画しようと呼びかけた。

つづいて新役員の選出が行われ、新会長に南司郎氏、新幹事長に辺武栄氏が、そして副会長三人、幹事一人が選ばれた。


今後、ますますの活躍が期待される

訂正　2月29日付5面の「メアリ」の記事中、「梁訓正副理事長」を「梁正訓副理事長」に、4日付6面の詩の作者は「中1」に訂正します。

尾北地域でサッカーチーム結成

愛知・尾北同胞協議会の後援で

さる二月十四日、愛知・尾北地域若い同胞協議会が後援する朝青員たちのサッカーチームが結成され、地域で話題になっている。

このサッカーチームは一月二十六日に開かれた同協議会の役員会議の席上で結成された。その趣旨は朝青員らによるサッカーチームを作って地域朝青員たちの団結を図り、またスポーツを通じて朝・日青年の友好と親善を促進しようというもの。

先日、同チームの第一回目の試合が犬山市営サッカー場で行われ、犬山市役所チームと対戦して四対一で下し、次の試合では村田機械チームと対戦、引き分けとなった。

同協議会の会長である金達也氏は「犬山地域で一番強いチームに育て上げる」と張り切っており、選手たちも期待にこたえようと頑張っている。


期待も大きい同サッカーチーム

投稿

教育運動を通して真実を

塩野東吾

昨年十一月末に発生した「KAL旅客機事件」は、オリンピック参加問題を含め国際的にも大きな関心事となっている。ことの真相は、過去の金大中氏ら致事件、ラングーン事件、金浦空港事件等の事例をひき出すまでもなく、南朝鮮当局による自作自演の謀略であることは明確だ。しかし、日本のマスコミは、事件発生以来、南朝鮮側の一方的な情報を流し続けている。

恐ろしいと思うのは、およそ無批判に恣（し）意的情報を受け入れ、そのことに慣らされ、反動的な意図へ流されてしまうことだ。かつて日本軍国主義は、中国を侵略、国土と民族を蹂躙（じゅうりん）したが、日中戦争開戦の端緒となった盧溝橋事件も極めて悪質な謀略事件であり、敗戦後の日本国民には何ら真実が知らされなかった歴史がある。

客観的な視点が失われ、差別的な価値観・社会構造が醸成される中で、朝鮮学校に学ぶ生徒への暴力事件が発生した。私たちは、このことを「一部の心ない日本人の仕業」と一口で片付けられない深刻な民族差別事件と受け止めている。根強い差別意識、そして差別認識が親から子へ継がれる日本の社会構造。そのことをどう克服していくのか、とりわけ子どもを巻き込んだ民族教育への弾圧にどう対峙（じ）するのか、極めて重たい課題だ。

いま日本の教育全体が教育臨調路線に蹂躙されている。その反撃と差別認識克服・民族教育弾圧に抗するたたかいを連帯させつつ、今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①教育職場での真しな論議②地域の父母を巻き込んだ市民運動の中で粘り強く訴えていくこと③教育課題として子どもに真実を伝える、その作業を通して真の日朝友人関係を担うことのできる人間を育てること、などだ。そのことが運動にかかわる者・教育にかかわる者に求められていると思う。

（千葉県高等学校教職員組合中央執行委員）

ウリマル講座

9　文・朴点水

会話



☆ワンポイント☆

初対面の人に向かっては、안녕하십니까（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という一般的なあいさつのほかに丁寧な言い方として、처음 뵙겠습니다（チョウム　ペプケッスムニダ）または처음 뵙습니다（チョウム　ペプスムニダ）と言います。

앞으로（アプロ）は、「今後、これからさき」という意味で、잘 부탁하겠습니다（チャル　プータッカゲッスムニダ）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という意味です。잘 부탁드립니다（チャル　プータットゥリムニダ）は、目上の人に向かって使う言葉です。

発音と文字

子音「ㄲ、ㄸ、ㅃ、ㅆ、ㅉ」の初声

文字	名称	音	発音のこつ
ㄲ	끄 [k'ɯ]	k'	까[k'a]は[ッカ]に似た音。のどを閉じるような感じで緊張させて発音する。
ㄸ	뜨 [t'ɯ]	t'	따[t'a]は[ッタ]に似た音。까と同じ要領で発音すればよい。
ㅃ	쁘 [p'ɯ]	p'	빠[p'a]は[ッパ]に似た音。까と同じ要領で発音すればよい。
ㅆ	쓰 [s'ɯ]	s'(ʃ')	싸[s'a]は[ッサ]に似た音。까と同じ要領で発音すればよい。
ㅉ	쯔 [tʃ'ɯ]	tʃ'	짜[tʃ'a]は[ッチャ]に似た音。까と同じ要領で発音すればよい。

※「ㄲ、ㄸ、ㅃ、ㅆ、ㅉ」を「濃音」と呼びます。語中でも音は変わりません。

単語と文

오빠[op'a オッパ] 兄(妹が言う)
토끼[tʰok'i トッキ] うさぎ
또[t'o ト] また
쓰다[s'ɯda スダ] 書く、使う
짜다[tʃ'ada チャダ] 塩辛い
차가 빠르다 [tʃʰaga p'arɯda チャガ パルダ] 車が速い
우리 말을 쓰자 [urima:rɯl s'ɯdʒa ウリマールル スジャ] 私たちのことば(朝鮮語)を使おう

豆知識

朝鮮のなぞなぞ
궁둥이에 모자쓴것이 무엇이냐?（お尻に帽子をかぶったのはナーニ）
答　도토리（どんぐり）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8일（음력 1월 20일）화요일【루계 제10152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162）
〔日刊〕　月額 2,000円

남북조절위원회때 꽃다발을 준 소녀는 현재 평양에서 교원으로 일하고있다

《날조군들의 새로운 억지공사》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3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남조선괴뢰들이 려객기사건의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새로운 비렬한 모략선전에 매여달리고있다.

5일 괴뢰안전기획부는 1972년 11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때 《아까하다》특파원이 찍은 사진이라는것을 들고나와 그 사진에서 남조선대표에게 꽃다발을 주고있는 녀학생이 《려객기폭파범》인 마유미라고 우겨댔다.

물론 이번에도 그들은 저들의 발표가 마유미자신의 《확인》과 《진술》에 의한것이라고 덧붙이고있다.

괴뢰들의 이 모략선전에 이전 《아까하다》특파원까지 합세하여 마유미는 남조선대표에게 꽃다발을 넘겨준 소녀를 《꼭 닮았다》느니 뭐니 하고 맞장구를 치고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재연놀음

남조선괴뢰들이 려객기사건을 억지로 우리와 결부시키려고 이미 마유미의 이름, 학력, 가족관계를 다 꾸며내여 북출신《공작원》으로 둔갑시키는 통짜배기 날조품을 꾸며낸만큼 새로운 조작행위를 한다고 하여 놀라울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들이 하고있는 억지공사가 너무도 유치하고 허황한데 대해 가소로움을 금할수 없다.

우리는 려객기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립장을 명백히 천명했고 그 사건이 괴뢰들자신의 자작자연극이라는것이 분명해지고있는 조건에서 괴뢰들이 무엇이라고 떠들어도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구태여 그에 대해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남조선괴뢰들이 무슨 유력한 증거물이나 되는듯이 일본공산당출판물에 실린 사진을 들고나와 우리를 한사코 걸고들며 저들의 날조극을 《인정》받으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진상에 대해 말하지 않을수 없다.

괴뢰들이 개성에서 남조선적십자대표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면 소녀가 마유미가 아닌것처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때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던 다른 녀학생도 역시 마유미가 아니다.

그때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던 녀학생은 정회선인데 그는 지금도 엄연히 평양에서 살고있다.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줄 때 평양금성중학교 재학중이였던 정회선은 1960년 5월 7일생으로서 그후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9월부터 평양외국어학원 교원으로 일하고있다.

그의 아버지 정종여는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로 있다가 1984년 12월에 사망했고 어머니 박인숙은 지금도 중구역 경림동 16반에 살면서 가내편의 수예공으로 일하고있다. 그리고 정회선의 남편은 1972년에 일본에서 귀국한 귀국자로서 현재 국제관계대학 연구사로 일하고있다.

정회선의 남동생 2명과 언니 1명도 평양에 있다.

정회선은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때 평양에 온 남조선측 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준 학생들이 평양시 중구역관내의 금성중학교와 창정중학교들에서 선발되였다고 하면서 자기앞에 선 동무가 함께 평양학생소년궁전 무용소조에 망라되여 춤을 추던 동무인데 그가 단장으로 들어왔던 리후락에게 꽃다발을 주었고 자기가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고 증언하고있다.

사실과 진상은 이렇다.

꽃다발을 준 당사자가 여기 공화국북반부에 엄연히 살아있고 그때의 그의 얼굴이 찍혀있는 사진이 여기에 있는데 그가 마유미란 무슨 잠꼬대같은 소리인가.

사진에 난 사람의 얼굴은 감출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낼수도 없다.

괴뢰들이 억지로 마유미를 《꽃다발증정자》로 둔갑시킨 이 서툰 연극은 세상사람들에게 《려객기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려객기사건》에 우리를 결부시킨 터무니없는 조작극도 바로 이런 식으로 꾸며진것이다.

사리를 분별도 못하는 날조군들

괴뢰들이 새삼스럽게 날조품을 들고나와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는것은 그 속심이 다른데 있지 않다.

괴뢰통치배들은 미제상전의 배후조종과 일본반동들과의 공모결탁밑에 려객기사건을 조작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허위선전에 광분하였으나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음모가들의 자작극이라는것이 드러나 세계여론의 규탄과 조소를 받고있다.

괴뢰들은 상전들과 짜고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갔지만 거기에서도 랭대만을 받고 더러운 목적을 달성할수 없었다.

남조선안에서까지 려객기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발표》는 《로태우집단이 이미 작성한 씨나리오에 따라 연출》된 《일각의 신빙성도 없는 날조품, 자작품》이라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진 신세가 된 괴뢰들에게는 파산되여가는 모략극을 되살리기 위한 그 어떤 건덕지가 필요되였던것이다.

로태우일당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제안에 등을 돌려대고 북남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는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불만에 찬 시선을 딴데로 돌린 가운데 집권《안보》를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괴뢰들의 타산은 어리석은것이다.

괴뢰들이 거덜이 난 모략극을 성사시켜보려고 새로운 고안품을 들고나올수록 그 모략극의 밑창은 더욱 드러나게 될것이며 세상사람들의 더 큰 규탄배격에 부닥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일본공산당과 《아까하다》지에도 한마디 하려 한다.

1972년 당시 《아까하다》특파원이 평양에 주재한것은 사실이고 그가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를 취재했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찍은 한장의 사진을 들추어내여 맞지도 않는 허튼소리를 줴치면서 괴뢰들의 모략선전의 물레방아에 물을 대주는 노릇까지 하는것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렸는지 얼마간의 돈에 매수되였는지 리해할수 없다.

일본공산당과 《아까하다》지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롱락되여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괴뢰들과 짝자꿍이를 하는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너절한짓인가 하는것을 깨닫고 자중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날조군들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우둔한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날조군들의 비렬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세계의 공정한 여론이 또한 그것을 용납치 않을것이다.（중간표제는 본사 편집국에서 달았음.）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 조국의 륭성번영과 통일위업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자

각지 우리 고급학교들에서 1987학년도 졸업식 일제히 진행

각지 우리 고급학교들에서 1987학년도 졸업식이 5일과 6일에 일제히 진행되였다.

뜻깊은 학창생활에 대한 귀중한 추억과 새로운 학문탐구나 사회생활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안고 우리 고급학교의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에게 교직원, 재학생들과 동포학부형들은 열렬한 축복을 보내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축하문을 보내여 참된 조선사람으로, 애국운동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성장하여 민족과 애국의 대를 이어갈 자랑스런 역군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된 졸업생들을 축하하였다.

축하문은 특히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이 매우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엄중한 정세를 지적하면서 졸업생들이 애국의 대를 이을 영예로운 위치와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여러 활동분야에서 우리 학교 졸업생의 본때를 보이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사회주의조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자고 강조하였다.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제38회, 상업과 제12회 졸업식이 있었다

5일,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제38회, 상업과 제12회 졸업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총련중앙 배병두 부의장 겸 도꾜도본부위원장, 채홍열교장과 전체 교직원,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동포학부형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으로 시작된 졸업식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와 평양대동강제1고등중학교, 평양와산녀자고등중학교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축하문을 배병두 부의장 겸 총련본부 위원장이 랑독하였다.

이어 졸업식에서는 채홍열교장이 학사보고를 하였는바 졸업생들이 지난 학창생활에서 쌓아올린 성과와 자랑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졸업생들은 8.15해방 4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40돐, 총련결성 3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입학하여 총련 14전대회며 학교창립 40돐을 맞이하는 들끓는 환경속에 학창생활을 보내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5돐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탄생 45돐을 경축하는 해에 고급부 최고학년으로서 모범창조운동과 조청조직생활에서 앞장섰다.

사회주의조국건설을 적극 지원하자고 64종의 남새종자 1,650봉과 광복거리건설장에 각종 공구, 의약품, 모포, 장갑등을 보내였으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기여하자고 사회실천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또한 6개 반이 《모범반》의 영예를 지녔으며 수많은 학생들이 《모범조청원》으로 표창되였다.

졸업생들은 학과학습과 조청생활에서도 많은 모범을 창조하여 30명이 12년간최우등생, 32명이 12년간개근생이 된것을 비롯하여 졸업생의 69%가 갖가지 수상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보고에서는 또한 문학과 예술, 체육 소조활동에서 쌓은 실적들도 자랑차게 소개되였다.

졸업식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호명된후 졸업증이 대표에게 전달되였다.

이어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상과 학교상이 수많은 졸업생들에게 수여되였다.

학교가 졸업생들에게 주는 기념품과 졸업생들이 학교에 남기는 기념품이 각각 전달된 다음 졸업생대표 오영철학생이 결의표명을 하였다.


5일에 진행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상업과 졸업식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미제와 로태우일당의 범죄적인 핵, 화학 전쟁 준비책동을 규탄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세계여론을 무시하고 요즘 우리를 반대하는 범죄적인 핵전쟁, 화학전쟁 준비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4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441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괴뢰공군은 얼마전에 이른바 《련합화생방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화학무기와 세균무기, 방사능무기를 사용하는 《화생방전》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전술을 모의하였다.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여 얼마전에 제네바에서 진행된 군축회의에서까지 2원화학무기인 《비그아이》폭탄생산을 계속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해나선 미제가 이번에 미공군과 남조선괴뢰공군의 《련합화생방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모의하고 그 실동훈련까지 벌려놓은것은 놈들의 핵전쟁, 화학전쟁, 세균전쟁 준비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제는 우리 인민에게 핵전쟁, 화학전쟁을 강요하려는 범죄적책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침략군과 함께 모든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

로태우일당은 미제에 추종하여 동족의 머리우에 핵참화와 독가스참화까지 들씌우려는 민족반역행위를 그만두고 권력의 자리에서 지체없이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가장 야만적인 핵전쟁, 화학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와 로태우일당의 범죄적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나고야시의회에서 한 자민당소속의원의 민족차별발언과 관련하여 총련 메이꼬지부 시오도메분회 동포들이 긴급집회

나고야시의회에서 한 자민당소속 스기우라 쥬따로의원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발언과 관련하여 지금 총련 아이찌현본부에서는 그 발언의 취소와 스기우라의원의 정식사죄를 요구하여 강력한 항의행동을 벌리고있다.

스기우라의원의 발언에서 지적된 현장인 총련 메이꼬지부 시오도메분회에서는 4일, 동포들이 모여 긴급집회가 진행되였다.

편견과 차별에 찬 스기우라의원의 폭언내용과 함께 그 취소와 사죄를 요구하여 총련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등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알게 된 시오도메분회관하 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일이다. 스기우라의원이 사죄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곳 지부와 시오도메분회에서는 스기우라의원의 정식사죄를 요구하여 그의 발언내용과 총련본부의 요청서 그리고 사건을 보도한 수많은 일본신문 등의 자료를 준비하고 민단을 포함한 광범한 동포들과 린근주민들을 호별방문하여 항의대렬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일대 선전활동을 벌리고있다.

조국에서 80년대진군 1988. 2

지난 2월 조국인민들은 드높은 열의와 건설성과로 2월계획을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대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은 각 부문, 각 단위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46돐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조국인민들은《순천비날론속도》, 《평양건설속도》로 이달 자기앞에 제기된 과업을 일별, 주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였으며 주요대상건설을 다그쳐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2월중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조국인민들은 2월명절을 경축한 그 기세로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200일전투에로 한사람같이 궐기해나섰다.

대형온수보이라가 생산을 시작

평양화력발전소에서

평양화력발전소에 또하나의 대형온수보이라가 건설되여 지난 2월중순에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보이라는 연료공급과 연소계통을 비롯하여 모든 공정들이 현대적설비로 훌륭히 꾸려진 우리 식의 대규모의 종합온수보이라로서 수도건설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창조물이다.

이 대형온수보이라는 이전의 온수보이라들에 비하여 생산능력과 연소효률이 매우 높다.

건설자들은 80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3년이 걸려야 한다던 이 보이라건설을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였다.

특히 보이라제작과 조립, 연료공급계통에서는 새로운 시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3배로 높이였다.

중요부분조립장에서는 30톤급 만능기중기를 만들고 여러가지 지구를 받아들여 보이라본체조립을 두달이상 앞당겨끝냈다.

난방공사장에서는 20여개의 단위에서 일판을 벌려 140여리의 관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형온수보이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완공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2월의 명절을 로력적 성과로 빛나게 장식

대고조에로 이끄는 현명한 령도

지난 2월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여느때없이 와글와글 들끓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철저히 관철하여 새 전망목표 실현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음으로써 2월의 명절에 충성의 보고를 올리고저 하는 조국인민들의 로력투쟁이 이달에 힘차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2월중순 3대혁명소조운동발단 15돐에 즈음하여 중앙보고회를 조직케 하시고 지난 15년동안에 이룩된 성과를 자랑차게 총화케 하시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분야들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감사문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힘있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생산적앙양에로 줄달음치는 조국인민들의 기세를 반영하시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고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구호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국 력사에서 뜻깊은 사변으로 되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며 전당, 전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200일전투기간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행해야 할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는 105층호텔 건설

온 나라가 200일전투에로 힘차게 궐기

위대한 호소를 커다란 기쁨과 감격 속에 받아안은 조국의 전체 인민들은 제각기 군중집회를 조직하고 크나큰 긍지와 높은 자각으로 발전소, 탄광, 금속 기지, 대화학공업기지, 경금속생산기지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최대한 앞당겨수행할것과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나갈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궐기해나섰다.

주요대상건설 여러 대상들을 완공

조국 각지에서는 대건설이 힘있게 벌어졌다.

주요대상건설의 여러 대상들에서 건설이 완공되여 조업을 개시하거나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대규모의 종합적화학공업기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2호, 3호 카바이드로가 완공되여 생산을 시작(2월중순)하였다.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화, 자동화된 새로운 카바이드로가 일떠섬으로써 10만톤의 비날론생산능력 조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14개의 대상이 이미 완공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단계확장공사에서 전로계통의 주요대상들이 시운전을 한데 이어 올해 1.4분기안으로 확장공사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졌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대형산소분리기와 련속조괴기를 새로 설치(2월중순)하였다.

이것이 새로 설치됨으로써 이 기업소는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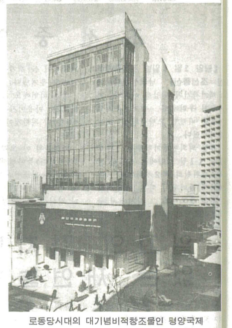
평양화력발전소에서는 또한기의 대형온수보이라가 완공되여 생산을 시작(2월중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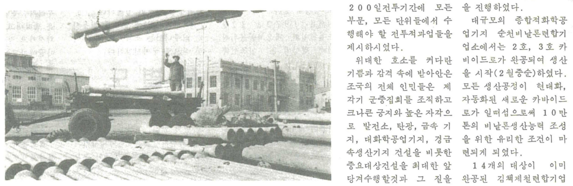
또한 수송부문에서도 로동—함북일신, 김책—성진내화물공장 전용선사이 철도전기화가 완공(2월중순)되였다.

이 철도구간들의 전기화가 실현됨으로써 이 지구에서 수송문제가 보다 원만히 풀리게 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적극 도모할수 있게 되였다.

한편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평양국제문화회관이 완공(2월중순)되였으며 105층호텔건설장에서는 기초굴착공사가 97%, 기초콩크리트치기가 50% 계선을 돌파하였다.

올해를 전례없는 대풍년으로 빛내일 확고한 결의밑에 2월초까지의 사이에 1,660여만톤의 각종 거름을 논밭에 실어낸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그 기세로 분수식발관개실현을 위한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각지 수많은 협동농장들에서는 분수식발관개를 위한 관생산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평양국제문화회관


분수식발관개용 콩크리트관을 많이 생산하고있는 7월9일공장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자랑찬 성과

수많은 단위들이 영예의 기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을 위한 새로운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가 타오른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나갔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첫 봉화가 타오른 때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급속히 파급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기하시고 령도하시는 운동으로서 사상, 기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일대 사회적인 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23만여개의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하였으며 3,350여개의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그 가운데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학교는 190여개, 직장, 학부는 360여개, 작업반, 강좌, 학급은 2,150여개이다.

또한 51개의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은 물론 이 운동기간 조국 각지에서는 인민들의 사상개조, 기술개조, 문화개조가 힘차게 추진되고 모든 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대중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을 보여주고있다.


비날론 10만톤능력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을 끝낼 확고한 결의에 넘쳐나는 3대혁명소조원들

《기계화가정운동》

지난 10년간에 2,300여세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1978년 1월에 있은 전국농업대회에서 9명의 가족이 뜨락또르운전수로 일하는 룡연군협동농장(황해남도) 뜨락또르운전수가정을 기계화가정, 농촌로동계급의 모범가정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모범을 전국에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기계화가정운동》은 농촌테제에서 밝혀진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앞당겨수행해나가는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대중적운동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모든 농촌에서 《기계화가정운동》을 더욱 폭넓게, 대중적으로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운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지난 10년간 기계화가정은 2천3백여세대로 늘어났다.

이 자랑찬 성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끌어주신 《기계화가정운동》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오늘 《기계화가정운동》은 위대한 농촌테제 완성을 위한 우리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장엄한 진군을 더욱 힘있게 추동시키고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의 협조

—조선과 쏘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계공업부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공작기계및공구공업성사이에 공작기계및공구공업분야에서 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합의서가 1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기계공업부 전호홍부부장,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쏘련공작기계및공구공업성 부상 아르까지 와씰리예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공작기계및공구공업성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쏘련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후안무치(厚顔無恥)

목소리

물가의 압박

간사한 언사로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광고하는 로태우《정권》밑에서 물가가 계속 치솟아 생활을 압박받는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있다. 특히 심각한것은 쌀값의 폭등. 지난 1일현재로 서울시내 쌀값(소매기준)은 한가마(80키로그람)당 9만 2천원으로 뛰였다. 한가마라 하면 고작 3명 식구가 한달 먹는 정도. 한달에 10만~20만의 수입이 보통인 실정에서 이 쌀값으로 어떻게 지탱할수가 있겠는지… ▼종래 남조선에서는《구정》(음력설)이전에는 올랐다가 3월을 전후해서는 내림세를 보이는것이 통례였다고 하는데 올해는 음력설(2월 18일)이후에만도 어느 지방 할것없이 1천 5백원~3천원이나 더 올랐다 한다. 이러한 쌀값의 오름세는 전반적인 물가오름세에서 영향을 받고있다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량곡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쌀의 량이 25%나 줄어들었으니 그 값이 껑충 뛰여오를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3·1) ▼전반물가추세를 보면 괴뢰당국발표에 의하더라도 지난 1월 한달간에 파(30·2%), 시금치(23·3%)를 비롯하여 채소류가 5·4%, 닭고기(12·2%), 돼지고기(4·5%) 등 육류가 3·9% 오르는 등 식료품을 중심으로 전반물가가 대폭 상승하였다. ▼물가폭등의 요인으로서는 여러가지를 들수 있으나 가장 눈에 띈것은 괴뢰도당이 로태우《당선》놀음을 꾸미면서 마구 찍어낸 지폐의 대량람발. 지난 한해동안 늘어난 남조선돈은 실로 6조 4천여억원인데 《선거》때인 12월의 총통화증가률은 22·5%에 이르렀다. 게다가 로태우가 《선거》때에 가는곳마다에서 떠들어댔던 지역《개발》, 건설공약의 람발로 인하여 지방 땅투기가 성행, 도시 아빠트값도 20%나 올랐다. ▼괴뢰도당이 자랑삼아 내세웠던 소비자물가의 년률 2~3%선은 이미 무너졌고 앞으로 괴뢰국회와 지방의회《선거》, 올림픽 등으로 통화는 계속 팽창, 물가는 더더욱 치솟을것이다. 《보통사람들의 시대》가 아니라 보통사람이 못사는 시대라 하겠다.

친선의 왕래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던 대외경제사업부 정송남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2월 2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대외경제사업부 전일춘부부장과 우리 나라 주재 에티오피아림시대리대사 사힐루 에트바레크, 쏘련대사관 관원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뽀르뚜갈사회당 제7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손성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월 26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분회를 강화하여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총련분회위원들의 1박2일강습

총련 오사까부본부에서

총련 오사까부본부에서는 지난 2월 27, 28일의 량일간에 걸쳐 총련 깅끼학원에서 제1차로 총련분회위원들의 1박2일 강습회를 진행하였다.

강습회는 년간 8번에 걸쳐 진행되는바 분회위원들속에 주체의 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분회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분회가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 강습회에는 총련본부 리말상위원장이 분회장, 분회위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강습 첫날째에는 비데오 편집물《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 예술영화《진실한 사람》의 감상 그리고 《현정세와 분회위원들이 주체의 정세관과 혁명적신념을 가질데 대하여》란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였다.

이틀째에는 총련 제16차분회위원,선전원대회 토론집에 대한 독보, 《우리 나라 경제전망과 일본경제에 대하여》의 강의가 끝난 다음 총련분회사업에 대한 사업경험과 의견교환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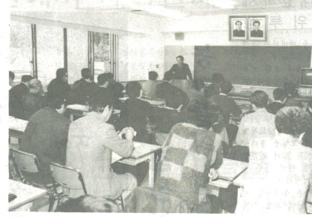
총련 니시나리지부 중앙동분회 리수만분회장은 《어렵고 복잡할 때일수록 학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느꼈다. 사회주의조국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분회적으로 짜고들겠다.》고 말하였다.

총련 나까니시지부 가미3분회 신종하분회장도 《강습회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조직됨으로써 남조선려객기사건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놈들의 모략을 짓부시기 위한 분회단위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겠다.

다음번에는 분회위원 모두를 강습회에 참가시키겠다.》고 하였다.

총련 다이시지부 시죠나와떼분회 김준우분회장과 총련 히가시오사까남지부 아지로분회 진동길부분회장도 분회위원들과 힘을 합쳐 동포들을 묶어세워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결의를 다지였다.

【오사까지국】


모든 분회가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설 결의를 다지였다.

조청 아이찌현 세도지부 니시반에서도 궐기

《최우수혁신반》, 3년련속《우수반》의 영예를 지닌 조청 아이찌현 세도지부 니시반이 지난 2월 25일 현하조청조직들가운데서 선참으로 《애국영예기쟁취운동》궐기모임을 가졌다.

궐기모임은 이곳 반위원들과 맹원들, 총련분회 그리고 현하 여러 반장 등 100여명의 참가밑에 들끓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정강량반장은 니시반이 언제나 조청활동에서 앞장서왔다고 말하면서 이번 운동에서도 맨 선참으로 《애국영예기》를 쟁취할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맹원들도 위원들의 분발에 기대할뿐아니라 자신들도 주인답게 나섬으로써 전례없는 군중적앙양을 가져오자고 서로 다짐하였다.

궐기모임에 이어 도까이조선가무단의 공연이 진행되였다.

【조청세도지부】

《1만2천호방문담화운동》에 합세하여 분회를 강화하자

녀성동맹도꾜 분회장들의 모임

녀성동맹 도꾜도본부관하 분회장들의 모임이 2월 27일 조은도꾜신용조합 본점 강당에서 진행됐다.

모임은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녀성동맹분회를 강화하며 분회의 호주로서 사업해온 오랜 분회장들의 사업경험을 받아들여 그를 일반화하는것과 함께 모든 분회가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궐기해나서도록 하자는 목적밑에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녀성동맹본부 김정화위원장을 비롯하여 본부와 지부의 일군들, 본부관하 분회장들과 부분회장들이 많이 참가했다.

모임에서는 녀성동맹중앙 서자련부위원장이 녀성동맹분회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1세어머니들이 고생끝에 마련한 토대를 2세어머니들이 이어나가는것이라고 하면서 20대, 30대의 젊은 녀성들과 상공인부인들을 교양하고 그들을 주인으로 내세워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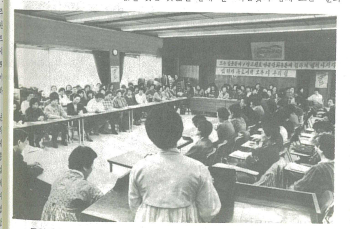
이어 아다찌지부 우메다분회 최분옥분회장이 5명담당선전원사업의 경험에 대하여, 시부세지부 세다다마분회 박종순분회장이 조국통일사업을 위원회적으로 벌린 경험에 대하여, 가쯔시까지부 다데이시분회 정일출분회장이 위원회, 학습반을 중심으로 분회사업을 적극 벌린 경험에 대하여, 아라까와지부 마찌야분회 정영례분회장이 분회장사업에 대하여, 기다지부 아까바네분회 안정혜분회장이 동포녀성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분회를 활성화한 경험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였다.

오후에는 3개 반으로 나뉘여 약 2시간에 걸쳐 분과별교류모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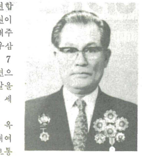
분회장들은 분회사업에서 나서는 문제, 애로점들을 기탄없이 내놓고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는 속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군하였다.

김정화본부위원장이 모임의 맺음을 하였다.

그는 분회를 활성화하는데서 기본은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라고 하면서 분회장들의 역할을 한층 높이고 지금 총련본부적으로 벌리고있는 《1만2천호방문담화운동》을 힘차게 벌려 한사람이라도 많은 동포녀성들을 애국의 길로 이끌어 녀성동맹조직을 한층 강화하자고 이야기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분회장들은 앞으로도 계속 녀성동맹조직을 한층 강화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인 리우삼동지가 세상을 떠났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인 리우삼동지가 7일 오전 7시 20분, 간경변으로 인하여 6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에서 태여난 리우삼동지는 보통학교와 농업실습학교를 나온 뒤 농업에 종사하였다.

고향에서 조국해방의 환희에 접하여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우러러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리우삼동지는 1950년에 일본으로 건너왔다.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총련이 결성되자 리우삼동지는 총련 후꾸오까현본부 상임으로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한길에 나섰으며 1959년부터 총련 사가현본부 위원장, 1962년부터 총련 규슈학원장 및 총련 후꾸오까현본부 부위원장, 1969년부터 총련중앙 재정부장, 1972년부터 총련 나라현본부 위원장, 1977년부터 총련 미에현본부 위원장, 1981년부터 총련 홋가이도본부 위원장, 1985년부터 총련중앙 재정국장을 력임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로 동포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왔다.

리우삼동지는 1986년 10월부터는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으로서 사회주의조국의 특산물의 소개선전과 판매에 헌신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을 위해 리우삼동지가 쌓은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여 지금까지 그에게 국기훈장제1급(4번), 로력훈장, 공화국창건35돐기념훈장, 국기훈장제3급, 조국해방40돐기념메달, 공로메달, 총련결성20돐기념메달을 각각 수여하여주시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고 리우삼동지의 장례식은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사장으로 9일 정오에 국평사에서 거행된다.

국평사(国平寺)—東京都東村山市萩山町1—15—15

전화 0423(42)0801

우리 나라 체육소식

국제청소년바드민톤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활약

우리 나라 바드민톤선수들이 얼마전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제15차《드루쥬바》컵쟁탈 국제청소년바드민톤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녀자단식경기에서 우리 나라 박영실선수는 제1위를, 박순복선수는 제2위를 쟁취하였다.

리영환선수는 남자단식경기에서 제3위를 했다.

한편 우리 나라 선수들은 단체전경기에서 제2위를 쟁취하였다.

새학년도 나머지 24일

언니는 연주가로, 동생은 무용수로

아이찌조선제7초급학교 서유희(초6), 서나강(초4)학생들

얼마없어 도순조선초중급학교 중급부에 입학하게 되는 서유희학생(초6)과 녀동생인 서나강학생(초4).

현재 아이찌조선제7초급학교에 다니는 자매는 지난해 4월에 우리 학교에 들어온 편입생들이다.

유희학생이 소학교 3학년때부터 다니게 된 하기학교가 마음에 들어 자매는 그때부터 《조선학교에 가고싶다.》고 부모에게 거듭거듭 말하였다.

비록 일본학교를 나오기는 하였으나 자기 나라 말을 하는것이 당연한 일로 알던 부모들은 어린 자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등교할 때 그전에 다니던 학교 학생들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엇갈리는것 같은데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들이 정말 납득해서 우리 학교에 가게 되였다는걸 느끼게 되지요.》(배징자어머니)

그런 자매가 아동무용수로 중앙예술경연대회의 무대를 밟게 되였으니 부모들의 기쁨은 자못 컸다.

《난로의 등유를 뗄구어 욕을 들었다고 하는데 일본학교같으면 위험하다는 한마디로 그치지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학교가 생활적이라고 할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본학교의 동무들과는 그때만의 사귐이지만 우리 학교 동무들은 〈일생의 길동무〉로 되는것 같애요.》

어머니는 매일 웃으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교육수준도 높고 학생들을 잘 키우는 우리 학교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였다고 한다.

2분조의 분조장으로서 5명의 동무들을 이끌어주는 유희학생은 초급학교에서 저고리를 입지 못한것이 서운했지만 며칠이면 동경하던 저고리를 입게 되니 벌써 마음이 높뛴다고 한다.

또 친한 동무도 생겨 지금은 조선무용을 배우기가 신이 난다고 하는 동생과 달리 중학생이 되면 그전에 하던 취주악소조에 들어가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언니의 연주에 맞추어 동생이 무대에 설 날이 기다려진다.


서나강(왼쪽)학생들과 배징자어머니 학교생활을 이야기하는 서유희(오른쪽)

평화를 위협하는 《팀 스피리트 88》 (2)

미제의 대아세아전략의 산물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제의 군사전략의 한고리로 출발한 극히 모험적이며 공격적인 핵전쟁연습이다.

오늘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미제는 그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아보려고 모험적인 《힘》의 정책에 매달리고있다.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세계전략이다.

미제는 오래전부터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적인 군사전략에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면서 아세아대륙침공을 위한 전략적인 축을 극동과 동남아세아, 서남아세아 지역에 두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여왔다.

그러나 미제는 동남아세아지역과 서남아세아에서 쫓겨나게 됨으로써 아세아대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식민지이며 군사적지탱점인 남조선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되였다. 미국이 겨냥한 대아세아전략의 지향점은 남조선을 군사적교두보로 하여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조선반도와 아세아대륙을 제압하며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는것이다.

이런 범죄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대아세아전략수행의 초점을 조선반도에 두고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핵전초기지로 장악하고있는것이다.

1983년 11월 남조선에 기여든 레간은 남조선의 《안전》이 《미국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공언하였으며 1984년도 《국방보고》와 《년례군사정세보고》에서는 나토와 함께 남조선이 미제의 《세계전략의 제1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미국의 대아세아군사정책의 골간》으로 삼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미제가 1976년부터 매년 감행하고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미제의 대아세아, 대조선전략의 직접적산물이며 침략부대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군사연습이 아니라 미국본토와 해외기지들에 있는 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신속히 투입하고 현지 식민지고용병인 괴뢰군과 핵무기, 화학무기, 전자전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연과 후방을 동시에 《선제타격》하고 전면공격하기 위한 핵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이다.

미제는 구라파에서의 나토와 같이 아세아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한 군사쁠럭을 만드는것을 중요한 전략상 요구로 제기하고 그 요구에 따라 조선반도와 아세아지역에서 새로운 침략전쟁, 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쁠럭이 형성되여가고있다. 이것이 아세아판 나토로 불리우는 위험한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이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바로 이 3각군사동맹의 마무리작업을 촉진하고 공동작전체제를 완성하며 전략적공동운명체의 결합력을 시험하는 활무대로 되고있다.

미국과 일본을 발진기지, 보급기지로, 남조선을 작전무대로 하고 공화국북반부를 공격목표로 하여 전개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사실상 미일남조선공동작전훈련이며 3각군사연습이다. 바로 여기에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과 엄중성이 있는것이다.

미제의 대아세아전략과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미제의 침략적 본성이 변할수 없고 호전광으로서의 그의 본질이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의 아세아전략과 그의 직접적산물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반도의 군사전략적위치로 보나 남조선에 전개되여있는 무력의 성격으로 보나 그것은 쉽사리 아세아와 세계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다.

일조우호련대사이다마현민회의 히끼세이부지부 결성

일조우호련대사이다마현민회의 히끼세이부지부가 얼마전에 결성되였다.

지부는 지난해 7월 4일에 사이다마현하에서 일조우호련대회의가 결성된것을 계기로 히끼군 세이부지역에서도 지역단위로 활동을 벌리자고 이번에 결성되게 되였다.

결성총회는 총련 서부지부 김재선위원장과 총련 히가시마쯔야마분회 분회장과 동포들, 일본사람들 32명의 참가밑에 히끼군 오가와쬬민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조직의 결성경과보고와 앞으로의 활동방침이 토의된데 이어 역원들이 선출되였다.

총회에서는 기다간또조선가무단의 공연이 있었다.

【서부분국】

시장을 몽땅 미제에 내맡긴다

친미괴뢰의 본성 드러내는 로태우일당

높아가는 반미, 반독재 기운



경상남북도의 2천여명 농민들은 경남도청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려 미제와 괴뢰도당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기만적언사의 막뒤에 들여다보이는 대미굴종자세

총칼에 의한 부정협잡선거로 제놈의 《당선》을 날조해낸 로태우는 괴뢰대통령자리에 들어앉자마자 친미적본성을 드러내놓고있다.

이자는 지난 2월 26일 소위 첫 《국무회의》놀음을 벌려놓은 가운데 미국의 시장개방압력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허수아비장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이른바 《보통사람》에 대하여 떠드는 로태우는 《국민들의 리해》를 운운하는 기만적언사를 늘어놓는 한편에서 《국가의 큰 리익도 희생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미상전의 수입개방요구에 굴복하려는 매국적자세를 드러내였다.

로태우의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괴뢰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괴뢰각료들은 《싼 값으로 소고기를 공급하는것은 의의》가 있다느니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면서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떠벌였다.

괴뢰국무회의에서의 이러한 꼭두각시놀음은 소고기, 담배 등의 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하여 괴뢰악당이 수입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민들을 기만하면서 미상전의 요구에 굴종하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사실 괴뢰악당은 미상전과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걸쳐 진행한 《한미소고기쌍무협상》이란데서 5월이전에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굴욕적자세를 드러내놓았는바 이것은 로태우일당의 친미괴뢰로서의 본성을 보여주는것이다.

괴뢰악당은 농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대, 규탄이 두려워 그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루는 기만극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로태우의 《대통령취임》(2월 25일)을 앞둔 시기에 소고기의 수입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견결한 반미, 반독재투쟁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것이다.

또한 괴뢰악당이 소고기수입의 시작을 5월로 미루도록 미상전에게 애걸한것은 4월에 예정된 괴뢰국회의원선거를 념두에 둔것이다. 괴뢰악당은 그때까지라도 어떻게나 농민들을 기만함으로써 괴뢰국회의원선거를 유리한 상황에서 치루어보려고 획책하고 있는것이다.

농민들, 미군부대앞까지 진출하여 시위투쟁

그러나 이러한 기만소동으로써는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을 속일수 없다.

올해 년초부터 로골화되고있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둘러싼 상전과 괴뢰간의 침략과 매국의 흉정은 반미감정을 크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미국의 대한통산압력이 한국에서 새로운 반미감정의 원인으로 되고있다》는 《워싱톤 포스트》(2. 29) 등 미국신문들의 지적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신문들은 또한 반미감정은 《한국의 새 정부에도 가장 무거운 짐》이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최근 로태우군사정권을 부추기며 수입자유화를 강요하는 미제를 반대하는 반미투쟁이 급속히 앙양되여가고있는데 대한 우려의 표시이다.

사실 최근시기 남조선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 속에서는 반미자주화투쟁이 급속히 앙양되고있으며 특히 농민들은 지난 1월말부터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를 요구하는 미제와 이에 굴종하는 로태우일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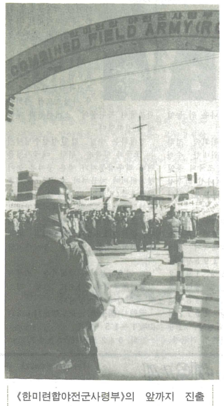
그것은 지난 2월 10일 수천명의 농민들이 의정부에 있는 《한미련합야전군사령부》앞에까지 몰려가 시위투쟁을 벌린 사실 또한 같은 날 경남도청앞에서 소의 모형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벌려 견결한 시위투쟁을 벌린 사실 등을 보면 명백하다.

이와 같은 투쟁에는 이제까지 여당에 표를 던지는 보수층 농민들까지 대거 합세해나서고있다 한다.

소고기수입에 대한 《합의》를 미루는 등 수입자유화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괴뢰악당이 벌리고있는 기만소동은 급속히 높아가는 반미투쟁에 놀란데서 나온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소동으로써는 침략과 매국의 본성을 가리울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로태우일당은 첫출발로부터 견결한 반미, 반독재 투쟁에 부딪쳐 허우적거리고있다.



《한미련합야전군사령부》의 앞까지 진출하여 시위투쟁을 벌리는 농민들

농민들의 절규 하늘을 찌르다

／경상남도에서／



경남도청앞에서 괴뢰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농민들

분노를 안고 거리에 떨쳐나서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축산농민 2천여명은 괴뢰경찰대의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의정부시 법원앞에 모인 경기도 농민들은 《농축산물수입결사반대》를 웨치면서 견결히 투쟁하였다.





경남도내 농민들은 경남도청앞에서 소고기수입반대궐기대회를 가지고 모형수입소 화형식도 벌렸다.

총련의 모든 조직을 참다운 애국조직으로 만들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3월 9일 (음력 1월 21일) 수요일 【루계 제10153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괴뢰도당의 기만적《석방》놀음을 견결히 규탄

남조선에서 재야단체 인사들과 대학생들 3,000여명이 집회와 시위

석방된것은 불과 125명

1천 200여명의 정치범들중

남조선인민들은 기만적인 《정치범석방》놀음 등으로 《민주화가면》을 쓰면서 군정연장을 꾀하는 로태우역도를 규탄하여 가두시위와 집회 등 투쟁을 계속 벌리고있다.

지난 2월 27일에 로태우역도는 소위 7천 200명에 대한 《사면복권》놀음을 감행하였으나 7천명 이상은 일반범죄수이다. 1천 200여명에 달하는 정치범중 《석방》된것은 불과 125명에 지나지 않았다.

더우기 45명의 재일교포정치범의 경우는 단 한명도 석방안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러한 기만조치에 분격하면서 모든 정치범의 즉시석방을 요구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죄없는 내 아들을 내놓으라》

가족들이 《청와대》앞에서 시위

외신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5일 남조선야당과 재야단체,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정치범전원석방, 수배해제쟁취, 반독재투쟁결의대회》가 서울시내의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있었다.



3일, 정치범석방을 요구하여 《청와대》앞에서 시위투쟁을 벌린 가족들을 무참히 체포해가는 사복경찰(오른쪽 사람)

여기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과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등 재야단체 인사 3,000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지난 《석방》놀음은 약 1천 200명의 정치범들중 125명을 석방한데 지나지 않았다고 그 기만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아직도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에 참가하였던 진보적 청년학생들과 재야인사들 1천여명을 감옥에 계속 가두어놓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고 정치범전원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집회에서 파쑈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10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집회가 끝난후 500명의 학생들은 가두시위를 단행하여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탄압에 나선 괴뢰기동경찰과 투석전으로 맞서 견결히 투쟁하였다.

이에 앞서 4일에는 역도놈이 도사리고있는 《청와대》앞에서 구속자 가족 및 친척들의 강력한 반《정부》시위투쟁이 벌어졌다.

외신보도들에 의하면 부당하게 체포구금된 정치범들의 가족 및 친척 30여명은 이날 《청와대》앞에서 《죄없는 내 아들을 내놓으라》, 《왜 내 남편을 감옥에 가두어놓고있는가.》고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벌렸다. 반《정부》구호들이 써여진 머리띠를 두르고 비장한 결의밑에 시위투쟁에 나선 그들은 서로 팔을 굳게 끼고 괴뢰경찰의 발악적인 폭압을 뿌리치면서 《청와대》를 향하여 육박해 들어갔다. 분노한 시위자들은 로태우파쑈일당의 기만적인 《석방》놀음을 폭로규탄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정치범들을 당장 석방할것을 견결히 주장하였다.

반역집단의 소굴인 《청와대》코앞에서까지 강력한 반《정부》시위투쟁이 벌어진데 당황한 군사파쑈도당은 이날 수많은 경찰을 내몰아 시위자전원을 《청와대》에서 약 100메터 떨어진곳에 대기시켜놓았던 경찰뻐스로 강제련행해가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외신들은 《반〈정부〉항의가 〈청와대〉앞에서 벌어진것은 몇년안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 시위가 로태우역도의 이른바 《석방》놀음의 기만성을 폭로규탄하는 운동이 재야각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을 돌렸다.

같은 날 4일에는 목원대 학생들 50여명이 어용교수의 퇴진 등을 요구하여 학내에서 롱성투쟁을 벌렸고 5일에는 경북대 학생들 15명이 학내민주화를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렸다.

반미반파쑈투쟁의 폭풍을 몰아오자

《한민전》중앙위원회가 공개서한에서 호소

《구국의 소리》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한민전》중앙위원회가 남조선에서의 이른바 《정권교체》놀음의 기만성을 폭로규탄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릴것을 남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하여 2월 28일 《전국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서한은 친미사대매국노 로태우역도의 이른바 《제6공화국》은 《국민기만공화국》이라고 락인하고 《6.29공약》과 《2.25공약》의 기만성을 폭로하였다.

서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태우군정을 종식시키자면 광주사태부터 규명하고 광주살인마의 집권을 반대하는 투쟁부터 벌려야 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는 군정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투쟁계기이다.

우리의 모든 애국민주력량은 하나로 단합하여 《선민주개혁, 후 총선》, 《여당당선 반대》 공세로 여당다수파《국회》를 저지시키고 민주다수파《국회》를 쟁취하기 위한 반군정투쟁에 다시금 진출해야 할것이다.

민족의 재결합을 위해서는 우선 반공《국시》가 철폐되고 반북모략소동부터 불식되여야 한다.

민족통일과 민주주의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은 군부독재의 반공《국시》와 단호히 결별하고 련공화합으로 민족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가며 반북모략과 남북긴장격화의 주범인 로태우일당을 민중의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것이다.

민족의 결합을 위해서는 88올림픽의 단독개최가 아니라 남북공동주최에 의한 통일올림픽이 실현되여야 한다.

서한은 반군정투쟁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전개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모든 구국운동단체들과 각계각층 민주애국력량은 미국에 대한 추호의 환상도 가지지 말고 반미자주화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반군정민주화투쟁을 결합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민중의 반미반군정투쟁은 개별적, 분산적, 산발적 투쟁이 아니라 대중적, 집단적, 련대적 공동투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정의와 애국에 불타는 각계각층 민중과 함께 반미반군정구국의 대행진으로 로태우군부독재를 타도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용기백배하여 전진할것이다.

범국민적의거로 반미반파쑈투쟁의 폭풍을 몰아오자!

자주, 민주, 통일의 려명을 향해 매진하자!

3월달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뜻깊은 올해 상반년사업에서 성과를!

－3차례에 걸쳐《6일간집중행동》전개－

총련 효고현본부에서

총련 효고현본부에서는 일, 활동가회의를 가지고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올해 상반년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3월달사업 방향과 방도를 토의결정하여 이 기간 사업에 적극 떨쳐나설 기세를 보이였다.

이날 모임에는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과 총련본부 리복남위원장을 비롯하여 산하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이곳 본부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모략소동이 로골화되고있는 긴장한 정세속에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힘찬 정치선전사업을 벌려왔다.

악랄한 모략소동을 폭로규탄하는 긴급집회, 강연회가 현적으로 28개소에서 열리고 《조선시보》호외, 독자적으로 작성한 삐라 등 각종 선전물을 활용하여 가두선전사업, 방문담화사업을 힘차게 진행함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 일본인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내외여론을 크게 환기시켰다.

이러한 속에서 이곳 본부에서는 2월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사업을 폭넓고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기간 지부, 분회는 물론 각 단체들이 65개소에서 축하행사를 다채롭게 조직하였다. 한편 효고주체사상연구소조원들이 독자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작연구발표모임을 가지고 2월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또한 《4.24교육투쟁》 40돐을 뜻깊게 맞이하자고 이곳 본부는 이 기간에 총련 가잉지부를 비롯한 관하지부들에서 학생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힘차게 벌리게 함으로써 학생을 늘이는데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리복남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는 3월달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모략소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긴장한 정세가 조성된다는것이 강조됐으며 ①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주동적으로 짓부시기 위한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보다 진공적으로 짜고든다, ②새학년도 입학식을 학생을 확대한 성과로 맞이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③단기조국방문단사업을 성과적으로 조직하고 고베항에 처음으로 입항하는 《삼지연》호를 열렬히 환영환송한다, ④《세금신고》사업과 조은의 결산사업, 금강보험상회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간다 등 사업을 적극 짜고들것이 언급되였다.



3월달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진행된 총련 효고현본부 활동가회의

그러면서 이 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해 3차례에 걸치는 《6일간집중행동》(10～16일, 17～23일, 24～31일)을 련속 진행할것이 발표되였으며 이 기간 모든 기관들에서 합숙제를 실시하여 집중행동을 패기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이어 8명의 일군들이 토론을 하였는바 그들은 이번 3월달사업 특히 집중행동에서 혁명적신념을 갖고 합심, 투신하며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함으로써 새 혁신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이 맺음을 하였는바 그는 현정세에서 보나 총련사업의 요구성에서 보나 일군들이 확고한 립장과 자세를 똑똑히 세우며 합심하고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후 《4.24교육투쟁》 40돐을 학생을 늘인 성과로 기어이 빛내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와 기관마다에서 깊이 협의하여 《6일간집중행동》을 패기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총회에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남조선 괴뢰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최근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권위원회 제44차총회에서 여러 국제기구대표들이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파쑈도당의 인권유린행위와 인민탄압만행을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국제동맹 대표는 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체포,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유엔인권위원회가 남조선《정권》이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유엔인권위원회가 남조선《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파쑈악법들을 철폐하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만행을 중지하도록 할것을 요구한다.

국제녀성법률가련맹 대표는 연설에서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한 자료들이 공정한 여론에 의하여 폭로되고있으며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방영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찰의 고문만행으로 박종철학생이 희생된 사실에 언급하고 그를 고문학살한 남조선파쑈도당의 죄행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이밖에도 총회에서 연설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은 한결같이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란폭한 인권유린행위와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에 대한 고문학살만행 그리고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폭압책동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인민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있는 남조선파쑈도당을 규탄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련일 공중정탐행위 감행

동해 고성동쪽 령해상공에서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미제침략자들은 4일 11시 42분부터 49분까지의 사이에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우리 나라 동해 고성동쪽 령해상공깊이 침입시켜 함경북도 선봉군 연해상공까지 비행시킨데 이어 13시 37분부터 41분까지의 사이에는 또다시 함경북도 청진연해 상공깊이 침입시켜 고성동쪽 령해상공까지 비행시키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어제와 오늘 3차에 걸쳐 고속도고공정찰기를 우리 나라 령해상공깊이 침입시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전쟁준비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시대를 밝히시며

사상리론전개에서의 심오성과 다방면성

◉…◉

사상리론의 위력을 담보하는 중요요인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하고 숭고한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것은 사상리론전개에서의 심오성과 다방면성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연구성과들로 풍부히 하여나가야 합니다.》

사상과 리론을 깊이있게 그리고 다방면적으로 전개하는것은 그 과학성과 진리성, 위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사상과 리론을 깊이있게, 다방면적으로 전개해야 력사발전의 심오한 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힌 옳바른 사상과 리론을 내놓을수 있으며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상리론가가 얼마나 깊이있고 폭넓게 사상리론활동을 벌리는가 하는것은 사상리론활동의 목적과 방법, 그가 지닌 자질 그리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수준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빛내이시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숭고한 목적을 지니시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방법론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상리론활동을 벌려나가신다.

◉…◉

사람의 운명 개척의 근본리치에 맞게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의 심오성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있다.

그 심오성은 4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모든 사상과 리론을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의 근본리치에 맞게 풀어나가시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 다시말하여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며 세계를 개척하는 힘도 사람에게 있다는 원리를 바탕에 놓으시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문제,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신다.

따라서 그이께서 내놓으시는 사상과 리론에는 언제나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실현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이 심오히 구현되며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안겨준다.

그이의 사상리론의 심오성은 둘째로, 과학리론적, 사회정치적으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예리하게 제기하시며 셋째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의 본질을 꿰뚫어보시고 뚜렷이 해명하시며 넷째로, 언제나 인민대중의 생활상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는데서 표현된다.

이로부터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은 언제나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도달해야 할 최상의 수준에서 전개되는것이다.



평양외국문인쇄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

사상리론전개에서의 다방면성은 사상리론가들의 활동의 위대성을 특징짓는 중요표징의 하나이며 사회력사발전에서 사상과 리론이 가지는 변혁적 의의와 역할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며 그 모든 문제에 풍부한 내용을 담는 사상과 리론만이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의 다방면성은 무엇보다도 그이께서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해답을 주시는데 있으며 다음으로 한 분야의 사상과 리론, 어느 한 문제에 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여도 거기에 한없이 풍부한 내용을 담아 전개하시는데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은 주체철학과 주체의 정치경제학, 주체의 문학과 력사학, 주체의 당건설리론과 국가건설리론 등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전개되고있을뿐만아니라 고전적로작《영화예술론》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그 내용에 있어서 이를데없이 풍부하다.

이처럼 심오하고 다방면적인것으로 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은 거대한 위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한없이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시는 과정으로 되고있다.

(계속)

우리 학습실

주체사상은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줄뿐아니라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주체사상은 문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특징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세워진데 있다.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고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게 하고 그들의 혁명 열의와 창조력을 남김 이 발양시켜 혁명과 설의 승리를 주동적으 앞당기는 가장 적극적 며 혁명적인 령도 리 과 방법이다.

또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된 정세의 요구와 체적실정에 맞게 해결 나가는 가장 현실적이 창조적 령도리 령도방법 다.

주체사 은 수령 령도를 고히 실 하고 인 대중이 인으로서 책임과 할을 다 도록 하 위하여 도원칙, 도체계, 도예술 인민대중 령도하는 서 나서 모든 문 들에 명확한 해답을 었다.

완성된 혁명리론과 략전술, 령도리론과 도방법을 밝혀준다는 주체사상이 인간해방 길을 가장 과학적으 밝혀주는 가장 완벽 혁명학설로 되는 중요 근거가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 사상은 조선로동당의 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는것이다.

세계의 목소리

고전적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학습하고

《주체의 사관은 인류철학사를 장식하는 위대한 공적》

켐프톤 마카무레



이 문헌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에 언급할 때 우리는 응당 김정일비서께서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보다 발전시켜 풍부화하신데 대하여 론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는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만 옳게 파악할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본질에 관한 과학적인 해명이며 그것은 인류의 철학사를 장식하는 또하나의 위대한 공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의 본질에 대한 유물론적규명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해서도 독창적으로 밝혔다.

기존사상은 사회적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속에서 기본을 객관적조건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적운동을 고찰할 때 사정은 달라진다.

모든 사회적운동은 인간이 일으키고 인간이 떠밀고나가는 인간의 운동이다.

이는 사실이며 엄연한 현실이다.

사회적운동을 일으키는 원인도 인간에게 있고 이 운동을 추동하는 힘도 인간에게 있다.

물론 인간은 객관적조건을 무시하고 력사를 창조할수는 없지만 객관적조건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개조되여나간다.

짐바브웨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도 이 원리의 정당성을 알수 있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는 짐바브웨인민의 일치된 념원이였으나 제국주의자에 의해 오래동안 실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짐바브웨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점차로 각성되여 제국주의가 《독립》을 줄 때까지, 유리한 조건이 차례질 때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객관적조건을 성숙시켜 민족의 독립을 쟁취했던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노는것은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조직화된 인민대중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짐바브웨대학 법학부 교수)

《주체사상탑은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외국의 벗들이 칭송＝

오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는 력사의 흐름속에서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 높이 솟아오른 주체사상탑을 찾아오고있다.

주체사상탑이 건립된후 지난해말까지 5대륙에서 온 1만 600여개 대표단의 7만 8,400여명에 달하는 정계, 사회계 인사들을 비롯한 외국의 벗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그들속에는 50여개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도 들어있다.

오스트랄리아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페레 싸이몬은 만년대계의 창조물인 주체사상탑의 건물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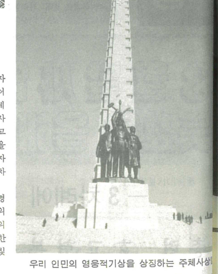
그는 주체사상탑은 철학적깊이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 탑은 조선인민의 불멸의 상징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뿐아니라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찬연한 홰불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농업및축산개발성 국장 에취. 므위니고하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건립된 주체사상탑은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주체사상은 오늘 세계적인 사조로 더욱 널리 전파되고있다. 주체의 밝은 빛발을 받아안은 세계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주체사상탑은 세계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찬연한 홰불로 만대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하는 주체사상탑

전국직맹선전일군회의 진행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전국직맹선전일군회의가 2일과 3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 김봉주위원장이 보고를 한 다음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200일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직맹선전일군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직맹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직업동 사업에서 혁명적전환 져오며 로동계급과 원들을 200일전투 힘있게 불러일으킴으 위대한 수령님과 당 은 정치적신임과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이라고 보고자와 토론 은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결의문을 택하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 앙위원회 허정숙비서 계부문 일군들이 각 맹선전일군들, 직맹 사들과 같이 참가하

목소리

강도밑에 강도

《살인, 강도 련발… 시민은 겁난다》는 큰 제목의 기사가 최근 남조선신문에 실렸다. 새해들어 괴뢰도당이 《특별방범비상령》을 계속 내리고 단속한다 하였지만 남조선 도처에서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각종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로태우의 《대통령취임》이라는 《정권》강도질과 때를 같이하여 더 많아지고 있는게 주목된다.

▼경찰집계에 의하면 지난 1월과 2월 두달동안 서울시내에서만도 197건의 살인, 강도 등 흉악한 범죄들이 발생(하루 평균 3.3건)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나 늘어난셈으로 된다는것. 특히 최근의 강도범들은 2~3명, 많으면 10여명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금품만을 강탈하는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사람들을 살상하고 악독한 강간만행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한다. 그런데도 괴뢰도당의 속수무책으로 날강도, 살인범들이 판을 친다 하니 주민들이 평온한 잠을 잘수도 없다.

▼로태우는 《국민화합》이니 《상식의 시대》니 허황하기 짝이 없는 선전나발을 불어대고 《강력범퇴치》를 운운하고있으나 3월에 들어와서도 강도사건들이 계속 빈발. 지난 3일에는 대낮에 서울 성북구에서 20대 3인조의 강도가 집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 많은 금품을 털어 권총 1정과 실탄들을 탈취하여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2만 괴뢰경찰은 있어도 《강력범》잡이가 아니라 무고한 인민들과 반《정부》세력을 억누르고 마구 잡아가는데 돌려지고있으니 범죄자들이 제 세상을 만난듯이 발호하는 형편이다. 생각컨대 《12·12쿠데타》와 《5·17파쑈폭거》, 광주대학살의 공범자, 12월부정협잡선거의 장본인으로서 희세의 《정권》강도, 살인귀의 죄행이 드러날대로 드러난 로태우역도가 《강도잡이》 운운하는것부터가 가소로운 일이라 하겠다.

▼웃물이 맑지 않은데 아래물을 맑게 할수는 없다. 경찰은 큰 강도놈, 대량살인범을 먼저 잡아야 할 것이다.

친선의 왕래

▲우리 나라에 주재할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 빼떼르 다나일로브가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중국을 방문하는 부 우기남부부장을 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7일 평양을 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



어느것이나 좋아, 자기 사진이라 하라

새학년도 나머지 23일

《민족의 마음을 안겨준 귀중한 동무들과 지내게 되니 기뻐요》

3학기부터 가와사끼초중에 편입한 중급부 2학년 리룡이학생

나는 지금 우리 학교에 동무들과 함께 즐겁게 하고있습니다. …조 대하여 배우면서 조 람으로서 똑똑히 살아 자는 마음에 휩싸이고 습니다.》

는 올해 3학기부터 사끼조선초중급학교에 한 중급부 2학년 리 학생이 쓴 작문의 한 이다.

는 지금 다정한 학급 동무들속에서 우리 말 글, 조국에 대하여 열 배우고있다.

난 시기 일본학교에 다 면서 자기가 조선사람이 자각을 못가지고있었던 가 우리 학교에서 배우 고 결의다지게 된 계기 단 하루의 체험입학이 다.

《우리 학생들은 대해줄것인가?》

그가 하루체험입학을 통 여 이 학교 교실에서 본 은 이국땅에서 사는 갈 조선학생들이 서로 돕 이끌면서 조선사람으로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그들의 뜨거운 우정이 다.

가와사끼시에 있는 사꾸 모도중학교에 다니던 리 생은 성적은 우수했고 구부주장을 맡아하면서 교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었다.

성격도 쾌활한 그였기에 무들과도 잘 지내고있었 .

그런 속에서 그의 집에 련 가와사끼지부 일군들과 가와사끼초중 교원들, 상공회회장이 매일처럼 찾아오게 되였다.

《조선학생이라면 우리 학교에서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하러 오는것이였다.

《아니, 일본에서 태여났으며 앞으로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제와서 조선학교에 보내야 하는가.》고 처음은 거부하던 부모들이였으나 일군들의 거듭되는 설득에 승낙하게 되였다. 그러나 리학생은 《조선학교에는 가고싶지 않다.》고 부모의 말에도 응하지 않았다.

우리 학교에 대하여 《무서운 학교》란 그릇된 인상을 가지고있었으며 우리 학교에 가더라도 이제까지 일본학교에 다니던 자기를 동무들이 좋게 대해주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있었기때문이다.

《그럼 하루만이라도 우리 학교 견학을 해보면 어떻소.》라는 일군들의 말에 그는 할수 없이 하루체험입학을 하게 되였다.

인상을 확 바꾼 하루체험입학

지난해 10월 15일, 비내리는 속을 이곳 학교 중급부 2학년 담임교원과 학생들이 차로 리학생을 마중하러 왔다.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교문에 들어선 그는 《하루만 참자》고 생각하면서 학교안을 돌아본후 교실에 들어섰다.

순간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학생들이 우렁찬 박수와 환호로 그를 따뜻이 마중하여주었으며 교실에는 꽃보라가 흩날리고 흑판에는 《리룡이동무 잘 왔다》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룡이, 내 옆에 앉아라.》, 《룡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걸어주는 동무들이며 《룡이, 우리 학교 학생복으로 갈아입어라.》고 이날을 위해 준비했던 형의 옷을 빌려주는 동무들.

점심시간에는 서로 자기 곽밥을 나누어먹자고 따뜻이 대해주는 동무들의 지성에 리학생은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 않는가》고 느끼면서 기쁨을 금지 못해하고있다.

이날을 즐겁게 지낸 리학생은 《래일도 다시 오라.》, 《오늘 같이 목욕에 가자.》, 《내 집에 놀러 오라.》고 말해준 동무들을 잊지 못해 다음날도 학교를 찾아갔다.

《이날 누가 하라고 해서 학생들이 꽃보라를 만들거나 학생복을 빌려온것은 아니지요. 나도 놀랐지만 그들이 자각적으로 그리했지요.

그리고 단 하루사이에 리학생이 우리 학생들과 어울린것은 학생들이 잘 돌봐준것도 있지만 같은 조선사람이라면 처음 만난 순간에 벌써 어울리는 법이지요.》라고 하는 장일담임교원도 학생들의 소행에 가슴흐뭇함을 금지 못해하고있었다.

그후 동무들과 함께 원족도 가고 남학생들과 목욕탕에도 갔다. 또 집까지 찾아와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는 동무들을 보고 리학생의 가슴속에는 하나의 결의가 굳어져갔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자. 민족의 피줄을 아버지의 대로 끊어서는 안된다. 조선사람답게 살자.》

며칠후 그는 일본학교 학생, 교원들 앞에서 《본명선언》을 당당히 하였다.

예술발표모임 무대우에서 다진 새 결의

지난 2월 12일, 가와사끼로동회관에서 진행된 이 학교 예술발표모임에서는 리학생이 편입할 때까지의 과정이 노래이야기로 소개되였는바 그자신이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다.

《내가 왜 우리 학교에 편입했는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동무들의 뜨거운 방조와 격려를 받으면서 련습한 성과를 남김없이 발휘한 리학생.

공연이 끝난후 작문을 읽는 리학생의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지 못해하는 그의 부모.

《편입후 밤늦도록 록음테프로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모습이며 집에 찾아온 동무들과 의좋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흐뭇해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더라도 일본학교시기와 전혀 다르지요.

례의범절이 바른 우리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룡이가 조국에 대하여, 조선민족의 우수성에 대하여 더 많이 배워주면 좋다고 느껴요. 나도 그렇고 편입을 반대했던 안해도 지금은 우리 학교에 보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있지요.》

리학생의 아버지인 리원중동포는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날 공연을 함께 본 사꾸라모도중학교 학생들도 무대우에 올라 리학생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이제부터 〈마에다 류지〉가 아니라 리룡이라 부르겠다.》고 말하여 조선사람으로서 떳떳이 생활하려는 리학생의 새 출발을 축복하였다.

※ ※

리학생은 작문에서 하루체험입학의 날을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그들(우리 학교 학생)과 만났을 때 한시간이라도 더 함께 있었으면 하고 느꼈지요. 그리고 다만 즐거웠기때문에 우리 학교에 가자고 생각한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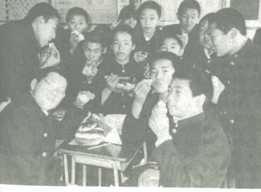
일본에는 조선사람이 많이 살고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동무들도 많지요.

그러니 우리 학교에서 같은 조선민족의 귀중한 동무들과 함께 지내는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한 서로 돕고 이끌면서 배우는 동무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나도 그런 훌륭한 동무들 못지 않게 조선사람으로서 떳떳이 살아나가자고 생각합니다.

조선민족의 마음을 안겨준 선생님 그리고 동무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에 보내준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리영인)



다정한 동무들속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는 리룡이학생(사진 가운데)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궐기

총련 나라현 호꾸와지부관하 모든 분회들이 힘차게 궐기

—총련 남분회가 맨 선참으로—

총련 나라현 호꾸와지부 남분회가 현하에서 선참으로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궐기해나섰다.

2월 20일에 총련본부회관 강당에서 있은 궐기모임에는 총련, 조청(반), 녀성동맹 분회 일군들과 동포들이 다수 참가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목표를 뚜렷이 밝혀 이에 전력을 다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모임에 앞서 오길홍고문(15년간 분회장을 함)이 분회위원들의 힘으로 작성한 환등을 비치면서 분회가 걸어온 로정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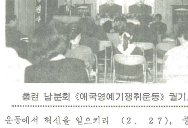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모시고 조국애, 민족애를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 비데오록화편집물상영체계를 꾸리는 사업, 동포생활상담소를 내오는 사업을 비롯하여 9.9절까지 수행할 10가지 목표가 발표되고 채택되였다.

이어 조청반 조무용반장, 녀성동맹분회 최영순분회장, 초급부 6학년 안상수학생이 이 운동에 힘차게 나설 결의를 담은 토론을 하였다.

총련본부 문인주위원장이 맺음을 하였는바 이곳 분회위원들과 동포들이 계속 선봉적역할을 놀아 운동에서 혁신을 일으키리라 믿는다고 그들을 격려하였다.

제2부에서는 2월명절을 경축하는 연회가 진행되여 참가자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남분회에 이어 북분회(2. 27), 중분회(3. 5), 고오리야마분회(3. 6), 덴리분회(3. 7), 서분회(3. 9)가 각각 궐기모임을 가지고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서 새 전진을 이룩할 기세를 올렸다. 【호꾸와분국】



총련 남분회 《애국영예기쟁취운동》 궐기모임

후꾸이조신 일군들도

후꾸이조신 일군들도 2월 20일에 모임을 가지고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이날 모임에서는 리광회리사장이 올해 주력할 사업내용과 당면한 3월결산사업 그리고 공화국창건 40돐까지 점령할 목표에 대하여 발표한후 이에 찬동을 표시하면서 4명이 토론하였다.

신입직원인 쯔루가지점의 림영애청년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주력과업의 수행과 조신발전을 위해 대담하게, 열성껏 사업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어 안기태영업부장이 일군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신념을 더욱 간직하여 방대한 목표를 기어이 달성할데 대한 결의문을 랑독하였다.

이곳 일군들은 모임을 계기로 하여 총련의 경제일군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업무사업을 비롯한 제반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후꾸이지국】



후꾸이조선신용조합 《애국영예기쟁취운동》 궐기모임

총련 교또부 니시지부에서

2월명절 경축

총련 교또부 니시지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이 지난 2월 25일, 도메교에서 2월명절을 성대히 축하하였다.

젊은 동포상공인들의 활동이 활발한 니시상공회의 주최, 교또조신 구조지점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조우호조직인 구민회의 회 후원밑에 진행된 축하모임에는 동포상공인들과 일본사람들 110명이 참가했다.

모임 제1부에서는 교또붓교대학 다까야 사다구니 교수가 《남조선항공기사건의 수수께끼》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바 구체적인 자료들을 안받침하면서 이 사건이 철두철미 허위와 기만에 찬 모략극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제2부에서는 교또조선가무단의 공연이 진행되였는바 참가자들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 것을 결의다지면서 조일우호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축하모임에서는 교또부, 교또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자치회역원들, 대학교수, 고등학교 교원들 27명을 포함한 참가자일동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청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니시분국】



시종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축하연

총련 교또부 미나미야마시로지부 주최로

기념강연과 축하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46돐을 경축하는 기념강연과 축하연이 총련 교또부 미나미야마시로지부의 주최로 2월 28일에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일본의 각계저명인사들과 관하동포들 160여명이 참가하였다.

모임 제1부에서는 일본인작가 고이즈미 유즈루씨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강연하였으며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본질과 그 정치적배경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2부에서는 총련지부 박성금위원장이 주최자측을 대표하여 연설한 다음 래빈으로 초대된 야와다시의 모리 스스무조역, 일본사회당 교또부본부 야마나까 스에히로위원장, 교또부의회 다까하라 시고우의원이 연설하였다.

이어 진행된 축하연에서는 교또조선가무단의 공연이 있었다. 【미나미야마시로분국】

평화를 위협하는 《팀 스피리트 88》

(3)

실천단계에 들어선 3각군사동맹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 이 감행하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미 국, 일본, 남조선 사이의 3각군사동맹체제 완성을 의도하는 전쟁소동이다.

미제는 저들의 대아세아, 대조선 전략을 수행하는데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남조선 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을 오래전부터 감행해왔다.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조선에서 식민지통치자의 옛지위를 다시 회복해보려는 망상밑에 미제를 등에 업고 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재등장하였다.

3각군사동맹의 조작을 위해서 미제는 이미 《미일안보조약》과 미국남조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군사적종속관계를 형성해놓았으며 남조선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련결시키기에 혈안이 되여 날뛰여왔다.

바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3각군사동맹의 마무리작업을 촉진하고 공동작전체계를 완성하며 전략적공동운명체의 결합력을 시험하는 활무대로 되고있는것이다. 합동군사연습에서 일본이 출격기지, 중계기지, 보급기지의 역할을 하며 일본《자위대》장교들이 《참관인》의 자격으로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여 작전계획을 공동으로 모의하고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을 발진기지, 보급기지, 남조선을 작전무대로 하고 공화국북반부를 공격목표로 하여 전개되는 이번의 군사연습은 사실상 미일남조선공동작전훈련이며 3각군사연습인것이다. 바로 여기에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과 엄중성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최근시기 일본주변에서 강행된 미일공동훈련도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일환이다.

지난 2월 15일 규슈전역에서 5일간에 걸쳐 일본전국의 5개 항공《자위대》기지에서 출동한 전투기와 조기경보기들, 주일미군공군기지로부터 출동한 미군전투기와 전자정찰기 등 약 50대의 비행기가 참가한 미일공군공동군사연습이 벌어졌다. 한편 2월 27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오이다현앞바다에서는 미제 7함대와 일본측에서 29척의 함선과 28대의 군용기가 참가하는 미일해군공동군사연습이 전개되였다. 이러한 일련의 미일공동군사연습은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한고리로서 3각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일본의 침략무력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제의 대조선전략의 산물이다.

미제는 일본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로골적으로 참가시킬수 없는 형편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는 일본주둔미군과 일본《자위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일본의 침략무력이 그 어느때든지 조선전쟁에 참가하여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일본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조선반도가 바라보이는 서일본의 규슈 주변 지역에서 해마다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에 참가하는 미해공군과 함께 공동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는것은 그곳이 조선반도와 매우 가깝고 임의의 시각에 공격진출할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엄중한것은 미일간에서 작년 1월 상호운용성강화(相互運用性強化)를 위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된것이다. 이것은 미일공동작전계획실시에 필요한 체제를 꾸려나가자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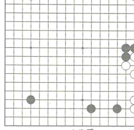
그리하여 지난 1월 20일에는 미일군사회담에서 유사시의 미군래원(来援)을 원활화하기 위한 미일공동연구를 개시할것이 합의되였다. 그 목적은 《전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 지원협정》을 체결하는데 있다.

《유사시의 미군래원연구》는 미일안보를 발동하기 위한 국가적기반을 확립하며 공동개발을 확대하여 장비와 기술 분야에서 미일간의 일체화를 촉진하며 공동작전의 물질적기초를 공고히 하는것을 노린것이다. 이처럼 《유사시래원연구》라는것은 미제의 침략전쟁, 특히는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에 전면협력하며 일본의 전쟁수행태세를 완성하자는것이다.

이러한 미일간의 공동작전체제 강화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미,일,남조선군사일체화가 실천에 옮겨지고 미제를 주축으로 하는 미일남조선의 3각군사동맹관계가 사실상 발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바둑 다음한수

이局面에 이定石



白先手

전번 계속. 右上隅의 白마늘모(尖)붙임에 黒은 1로 뻗어 반박해올수 있습니다.

이때 定石이라고 해서 参考図처럼 白1에 젖히는것은 이 局面에서는 不利합니다. 黒2에 끊었을 때 右辺의 黒勢力이 위력을 발휘할것입니다.

白은 解説図처럼 1～3에 두어 가볍게 대처해야 합니다.



参考図

解説図

다함없는 충성의 정을 소리높이 구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탄생 46돐기념

제7차문예동교또지부연주회 진행

문화

지난 3월 5일 교또 미홍이찌(見本市)회관 파르스프라자에서 제7차 문예동 교또지부 연주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날 연주회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46돐을 경축하여 일본 각지에서 진행된 각종 문화행사의 마무리로 되는 모임으로서 내외의 관심을 끌어 약 400명의 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이 회장에 모여들었다.

문예동 교또지부 음악부(강일순부장)를 중심으로 문학부, 미술부 등 모든 부서들이 한결같이 달라붙어 준비사업을 깐지게 벌려 이날 연주회를 맞이하였다.

교또조선가무단의 중창 《당의 해빛아래 꽃피는 청산리》로 막을 올린 공연 제1부에서는 주로 일본음악대학과 음악전문학교에서 배우는 동포연주가들이 다채로운 연주를 피로했다.

바이올린독주 《사향가》(정성려), 에레크톤독주 《음악의 별》(손용순) 등 새로 자라나는 동포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힘있는 연주들은 교또지방 음악활동의 발전에 새 전망을 보여주었다.

또한 혼성2중창 《만경화》(임정길, 김춘생), 무용 《삼인무》, 녀성독창 《바다의 노래》(박정임) 등 다양한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제2부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 《이 영광속에 나는 살리라》를 교또중고의 신영수교원이 읊어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어서 문예동 교또지부 문학부의 황진성부장의 사회에 따라 일반동포들을 위한 희망자독창이 호평속에서 진행되였다.

류고꾸(龍谷)대학에 다니는 동포학생 김규화청년과 조청 우꾜지부에서 사업하는 강팔일청년들이 무대에 올라 《소방울소리》,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등의 노래들을 멋지게 부르자 관람자들이 손벽장단을 치며 재청을 요구하는 등 장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날 공연을 위해 도꾜에서 찾아온 금강산가극단의 공훈배우 황기렬씨(교또중고 졸업생)가 무대에 올라 《내고향》, 《군밤타령》등의 독창곡을 피로하여 분위기를 한결 돋구어 주었다.

연주회를 빛나게 마무리한것은 최근에 착실한 발전을 보여주고있는 교또조선취주악단의 중주였다.

이날 연주회를 위해 2년동안 준비를 해온 교또조선취주악단은 《도라지》와 창작곡 《창조하는 사람들》을 피로하여 관객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제7차 문예동 교또지부 연주회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정을 소리높이 구가하며 2월명절을 뜻깊게 장식함으로써 교또부하 문예활동에 밝은 전망을 보여준 의의깊은 마당이였다.

문예동 교또지부에서는 이날 연주회의 성과에 기초하여 오는 7월에 일본음악대학, 음악전문학교에 다니는 동포학생들을 위한 피아노, 에레크톤 연주회의 개최와 독자적인 피아노교실의 개강을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녀성4중창 《제일강산》

제16차학생미술전람회 1등작품



유화 《저녁노을》

오사까조선고급학교 1학년 김영숙

흙내나는 분위기와 민족적정서에 넘쳐

학교의 소각장앞에서 아저씨가 삽을 쥔채 한숨 쉬고있습니다.

한여름, 저녁노을이 비끼는 시각에 쓰레기를 묶어 처리하는 관리원아저씨의 모습을 주제삼았습니다.

고급부 1학년이라 유화작품다운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잘 나타났습니다.

굵은 두 다리와 다부진 몸체, 보기만 해도 힘장수같은 로동자의 두 팔과 큰 주먹 등이 눈부십니다. 미더운 분위기가 이 아저씨를 둘러쌌습니다. 그 흙내나는 분위기자 이 작품의 첫 평가점입니다.

얼굴을 보면 어딘지 조선사람같은 정서가 풍깁니다. 눈이 이렇고 코가 이렇다는것이 아니라 얼굴전반에서 풍겨오는 정서입니다. 원래 정서란 특정된 어느 부분을 두고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전반조화속에서 풍기는 법입니다. 민족적정서감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김)

동포문화의 기수들 ㊻

후대들을 위한 《큰 마음》으로

교또조선취주악단 강주순대표

10대, 2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된 교또조선취주악단에서 지휘봉을 흔드는 강주순대표(38살)는 단원들의 엄격하고도 믿음성있는 《맏형》이다.

가나가와중고에서 오래동안 교편을 잡다가 9년전에 모교인 교또중고로 돌아온 그는 취주악소조를 지도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였다. 그 제자들로부터 취주악단사업을 하고싶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의 뇌리에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 이전에도 취주악단은 있었는데 동호회, 즉 취미본위로 모였기에 결국 유야무야하게 되여 버렸지요. 하기에 4년전에 새로 시작할 때 문예동조직의 한소조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매긴것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2년전에 5명의 단원으로 출발한 교또취주악단도 그간의 활동을 통해 일정한 토대를 쌓았다.

그 토대란 《동포문예활동의 기수로서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대를 이어 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적력량》이라고 강대표는 말한다.

초급부 5학년때에 교또제1초급에 편입한후 교또중고, 조대 음악과를 거치면서 시종일관 취주악의 매력에 사로잡혀온 그는 연주와 지휘외에 취주악곡을 작곡하는 창작가의 한사람이다.



제7차 문예동 교또지부 연주회에서 취주악단이 피로한 취주악을 위한 디베르티멘트 《창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의 창작곡이다.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숨결을 곡으로 옮겼는데 련관성있는 하나의 조곡(組曲)으로 완성시킬 마음입니다.》

현재는 중주밖에 못하는 형편이지만 앞으로 교또조선취주악단의 성원들을 늘구어 합주형식을 도입, 재일동포들도 자기들의 음악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호소하고싶다고 그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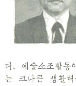
모교의 교단에 서고 취주악단에서 지휘도 하고 밤잠을 줄이며 작곡도 하는 그의 정력적인 활동의 밑바닥에는 《후대들을 위한 큰 마음》이 깔려있다.

친형이 문예동 교또지부 음악부장을 하고있어 방조도 많이 받는다는 강주순대표는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교또문예동의 믿음직한 대들보의 한사람이다. (석)

문예포부 문예포부

부서를 더 잘 꾸려 모든 예술분야에서 혁신을

문예동 가나가와지부 박관범위원장



지난날 우리 가나가와에서는 많은 문예활동이 벌어져왔고 그 가운데서 젊은 인재들도 적지 않게 자라났다.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 이런 인재들이 문예동지부의 주인이 되여 역할을 충분히 놀지 못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 지부에서는 근년에 들어 참신한 사업을 벌려오지 못했다.

올해 우리 지부에서는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유능하고 의욕이 높은 동무들을 중심으로 지부의 매 부서를 새로 잘 꾸려나갈 결심이다.

이를 위하여 3월에 각 부서별로 명단을 정리하고 모임을 각각 가지게 되여있다.

그리하여 문학부에서는 오랜만에 지부의 동인지 《령마루》제11호를 가까운 시일내에 국문판으로 찍어내며 올해부터 년 두번 발간의 체제로 넘어갈것이다.

가나가와에는 《도라지악단》, 《고려회》등으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음악인구가 많다. 우리는 음악부도 이런 음악가, 음악애호가들을 규합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도록 할것이다. 무용부도 마찬가지다.

얼마전에 있은 2월의 봄을 경축하는 가나가와현대회의 2부에서 현내 각 예술소조들의 공연이 있었다. 예술소조활동이 가지는 크나큰 생활력을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올해 음악부, 무용부를 강화하여 각 총련지부마다에 무용소조, 노래소조, 장고소조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힘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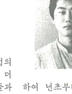
가나가와라 하면 《아스까를 찾는 회》와 《일조우호미술전》이 잘 알려져있다.

《일조우호미술전》은 올해 25회를 맞게 되느니만큼 성대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 준비사업을 통하여 미술부를 보다 더 강화하며 대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벌려 일친선의 큰 꽃이 활짝 피여나도록 할것이다.

잡지편집발행을 축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문예동 이바라기반 소문경부반장



우리를 둘러싼 내외정세가 매우 긴장되면 될수록 문학예술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는바 조성된 정세와 변화된 환경은 우리의 문예활동이 애국사업의 확고한 부분으로서 광범한 동포대중을 묶어세워 대중적 지반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문예동 이바라기반은 현하동포들과 문예동유지들이 보내주는 아낌없는 지원과 방조에 고무되면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이란 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사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작년에 우리는 현하에 거주하는 동포대중들속에서 잠들던 문학예술을 발굴하고 개척해나가자는 목적으로 잡지 《봉화》를 내왔다.

풋내기들이 모여서 펴낸 이 잡지는 그 제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바라는 우리의 념원이기도 하다.

새해에 우리는 잡지 《봉화》의 편집발행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문예사업의 활성화계획을 세웠는바 더 넓은 범위에서 맹원들과 찬조자들을 획득하여 조직을 튼튼히 꾸리기 위해 반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것이다.

또한 이바라기초중고창립 35돐에 즈음하여 이곳 동포들이 민족교육발전에 바친 력사를 더듬어보여주는 서사시형식의 공연과 기념문집을 내울 계획을 세웠는바 이 사업은 이미 학교교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년초부터 그 준비가 다그쳐지고있다.

우리에게는 전임일군도, 《전문가집단》으로서의 면모도 없다. 하지만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날로 더해만 간다.

아직은 미숙한 우리들이지만 지역에 뿌리박은 문예운동을 벌리자고 내온 《봉화》의 불을 지펴올리기 위하여 올해도 분발할것이다.

우리나라 문예소식

장편소설 《아침해》 출판

—4.15문학창작단에서—

【평양 3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4.15문학창작단에서는 장편소설 《아침해》(현승걸 작)를 세상에 내놓았다.

장편소설은 만년대계의 은률장거리벨트콘베아건설을 발기하고 이끌어준 우리 당의 불멸의 사적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조국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데 대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념원하시고 구상하시는 미래를 수령님대에 앞당겨실현하자면 대담하게 작전하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전격전을 벌릴만한 크나큰 심장이 요구된다.

소설은 이러한 기본사상을 바탕에 깔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에 담력과 의지를 키워주어 부닥친 경제적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에 대하여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다양한 형상을 통하여 누구도 건질수 없다고 생각하던 광산의 운명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될수 있은 근본요인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충성의 신념에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대담성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는 담대한 심장을 키워주는 당의 형상을 보여주고있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 (260) 5881 内線 453・435 436・428

花束の少女は平壌に現存

日本共産党の行為も批判 朝鮮中央通信社が論評

朝鮮中央通信は六日、南朝鮮当局が日本共産党の写真雑誌に掲載された「赤旗」元平壌特派員の撮った写真について「金賢姫が自分に間違いないと証言している」と発表したことについて、「花束を渡した少女は別人である」とした論評を発表した。論評の要旨はつぎのとおり。

一、「安全企画部」は五日、一九七二年十一月平壌で行われた南北調節委員会第二回会議の当時、「赤旗」特派員が撮った写真を持ち出して、その写真の中に南朝鮮代表に花束を渡した「旅客機爆破犯・真由美」がいると述べた。もちろん彼らは今回も、自らの発表が「真由美」自身の「確認」と「陳述」によるものだと付け加えている。彼らのこうした謀略宣伝には、「赤旗」元特派員までもが一緒になって、花束の少女が「真由美」によく似ていると口裏を合わせている。

一、当時張基栄に花束を渡した女学生は鄭喜善であり、彼女は今も平壌に住んでいる。当時平壌金星中学校在学中であった彼女は、一九六〇年五月七日生まれで、その後金亨稷師範大学を卒業、八一年九月から平壌外国語学院教員として働いている。彼の父鄭鐘汝は、万寿台創作社の美術家として働いた後、一九八四年十二月に死亡した。また母朴仁淑（音訳）は、今も中区域敬臨洞十六班に住み、手芸工として働いている。鄭喜善の夫は一九七二年に日本から帰国した帰国者で、現在国際関係大学の研究士として働いている。鄭喜善の弟二人と姉一人も平壌にいる。

一、鄭喜善は、七二年十一月、平壌入りした南朝鮮代表に花束を渡した学生らは、平壌市中区域管内の金星中学校と倉田中学校から選抜されたと述べ、写真で自分の前にいる友達は平壌学生少年宮殿舞踊サークルに所属していた友達で、彼女が団長の李厚洛（当時KCIA部長）に花束を渡し、自分が張基栄に花束を渡したと証言した。

一、花束を渡した当時者は、明らかに共和国北半部で生活しており、当時の彼女を撮った写真もここにあるのに、彼女が「真由美」だというのは全くのたわごとである。

一、盧泰愚一派は、このようにしてわれわれの北南連席会議提案に背を向け、北と南の対決を激化させて、情勢を戦争の瀬戸際へとすすめている自らの犯罪行為を正当化し、南朝鮮人民の不満を他にそらそうとしている。

一、われわれは、この機会に日本共産党と「赤旗」紙にも一言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一九七二年当時「赤旗」特派員が平壌を取材したことは事実であり、彼が南北調節委員会第二回共同委員長会議を取材したことも事実である。しかし彼が撮った一枚の写真を捜し出して、独裁集団の謀略宣伝に一役買っているのを見ると、精神錯乱症に陥ったのか、それともいくらかの金で買収されたのか、理解に苦しむ。日本共産党と「赤旗」紙は、帝国主義者に籠（ろう）絡され、物事の分別も出来ずに、独裁集団と手拍子を合わせるのがどれほど恥知らずで醜い行為であるかを悟り、自重すべきである。

衣の下の軍服

盧泰愚「政権」をどう見るか

全斗煥から盧泰愚へ。ソウル・青瓦台の主が入れ代わったのを機に、日本でもソウル現地の宣伝に合わせて「新しい時代」が到来したかのように騒ぐ一部マスコミの報道ぶりが目につく。「普通の人」による「平和的政権交代」だと絶賛し、盧泰愚を「民主化の旗手」のように評し、その「ソフト・スタイル」まで書き立てて、ソウル側にすり寄る動きすら見られる。

ここで痛感されるのは、権力のバトンタッチを受けた盧泰愚についても、KAL機事件と同じく、実体や事実関係よりもイメージ作戦が先行していることである。しかし、盧泰愚の場合、ソフトムードの衣の下は明らかに鎧（よろい）ならぬ血染めの軍服姿。甘い言葉で毒を盛る今様軍事ファシストの化けの皮をはがす必要が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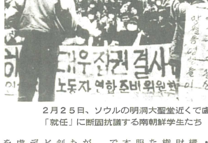
正統性根拠なし

まず、盧泰愚「政権」は、何ら正統性のないものである。現代における政権存立の正統性は、あくまで人民の意思を根拠とする。人民の意思と異なる暴力的手段や不正による政権の成立や維持は、全く正統性の根拠を持たない。軍事クーデターで権力を奪取し、アメリカに支えられた朴正煕、全斗煥の「政権」がまさにそうであった。

盧泰愚の「大統領当選」は、史上例のない大掛かりな不正選挙によるでっち上げだったのだから、「大統領就任」自体が不法なものだ。もともと昨年六月、盧への「大統領候補指名」に反対して南朝鮮全土をゆるがす人民抗争が巻き起こったことからしても、盧泰愚に出馬資格はなかったといえる。

しかし盧は「六・二九宣言」の「民主化」アドバルーンで世論を幻惑し、反対派に対する暴圧と分裂工作、官権、金権あげての不正選挙、不正投・開票、果てはKAL機事件まで利用して遮二無二「当選」をでっち上げたのである。野党や各界から一斉に「選挙無効」の叫びが上がったのは当然であろう。

野党候補の一本化がならなかったのは、確かに遺憾であったが、そうだからといって不正得票の盧泰愚に、人民の意思を体しての「大統領就任」の資格が生ずるわけでは全くない。超警戒体制下の「就任式」を前後して、南朝鮮各地で「盧泰愚不正執権糾弾」集会や街頭デモが相次ぎ、「民主争取」「独裁打倒」、「独裁操縦、内政干渉のアメリカは出て行け」の声が上げられた事実、金泳三、金大中氏ら野党も「国民が選んだ大統領ではない」として「就任式」をボイコットした事実に注目すべきではないのか。正統性のかけらも持ちえない「政権」さん奪者にとってはまさしく明日の我が身をはばかる「不安な就任式」（「朝鮮日報」二月二十八日付）であったのだ。



2月25日、ソウルの明洞大聖堂近くで盧「就任」に断固抗議する南朝鮮学生たち

明白な軍事政権

盧泰愚「政権」は「平和的政権交代」による「文民政府」ではなく、全斗煥独裁政権を引き継いだ、まぎれもない軍事ファッショ政権である。

旧軍事政権のナンバー2・盧泰愚が最上位に居座り、先般の「組閣」では重要ポストに旧「閣僚」が八人も残った。これはどう見ても、軍部ファッショ勢力内における選手の一部入れ替えにすぎず、「政権交代」と呼びうるものではない。

盧泰愚「政権」は、アメリカの南朝鮮支配体制である現軍事ファッショ体制の中で、全斗煥「政権」の延長として生まれ出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その支配基盤—与党・民正党、軍部、警察情報機構、行政官僚システム、特権財界など、何ひとつ前「政権」と変わるところはない。たとえ背広に着替えても、軍服の上に僧衣をまとっても、本体は変わるところがないのである。

肝心なのは、本体の盧泰愚が、陸士同期の全斗煥ともども五十年代から親米反共の銃剣万能の血ぬられた足跡をたどったばかりか、12・12クーデター、5・17暴挙、光州大虐殺に共犯者として「勇名」を馳せ、全「政権」のファッショ弾圧と反共分裂の政策を陣頭に立って進めてきた、という点にある。いわば盧泰愚は全斗煥とは兄たり難く弟たり難い一心同体的な関係にあったといえる。（ちなみに盧泰愚夫人の「最も親しい友人」はあの李順子だという）

乱発するデマ

シャム双生児のように本体を共有する軍事ファシスト全斗煥・盧泰愚の違いは政治ポーズやデマゴギーの熟練度にある。

想像を絶する悪虐な人民弾圧と大量殺りく、ばく大な国庫金まではたいて不正金権腐敗選挙をやってのける人間が「普通の人」を看板に掲げる鉄面皮さ。自主、民主、統一を求める広範な人民の運動や在野勢力の動きを暴力と分裂工作で封じ込めながら、「民主」「人権」「国民和合」や「民族自尊」をうんぬんする破廉恥なデマゴギー。

全斗煥を上まわる盧泰愚の偽まん策は、何らの正当性もなしに権力の座に居座り、人民の排撃、反対にさらされた者の孤立感の裏返しにすぎない。しかし、盧「政権」の軍事ファッショ的体質は、最近の政治犯赦免や「小選挙区制」の単独採決強行に、隠しようもなく露呈している。初春の南朝鮮はまだ厳しい寒風が吹きすさんでいるが、すでに反米反「政府」の熱い抗争が全土に広がりつつある。

人権侵害に厳重抗議

総聯奈良県本部

奈良県の公安調査官が、総聯職員の身辺調査および活動内容を探り出そうと、大阪府内に居住する職員の家族を訪ね、聞き込み捜査を行うという人権侵害行為が発覚した。

これに対し、総聯奈良県本部の代表らは二月二十九日、日本社会党奈良県本部国際部長・藤原好男奈良市会議員、梶川虔二奈良県会議員、田川和幸弁護士らとともに、奈良公安調査事務所に竹内賢一郎所長を訪ね、厳重抗議を申し入れた。

申し入れ書では、奈良公安調査事務所第二課長、法務事務官・井上実ら二人が、八六年から八七年にかけて計三回にわたり、総聯職員の動向を探ろうとしたのはなぜか、さらに職員の家族から何を探る必要があったのかを当局にただし、官権を利用したこのような行為は、基本的人権に対する重大な侵害であり、総聯奈良県本部に対する許すことの出来ない敵対行為であると主張。

さらに、国家公務員の立場を利用して、家族までスパイするような行為は犯罪そのものであり、在日朝鮮人の思想、信条、良心の自由を踏みにじる行為だと指摘し、二度と繰り返さぬことを強く求めた。

これに対し、公安調査事務所側は、これからは人権侵害行為をしないことを約束した。

「差別発言」で緊急集会

総聯名港支部・汐止分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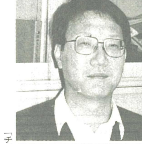
名古屋市議会での杉浦重太郎議員（自民）の在日朝鮮人に対する差別発言（二日）と関連して、総聯愛知県本部が現在、その発言の取り消しと正式謝罪を要求した抗議行動を繰り広げている中、同議員のべっ視発言に指摘された地域の総聯名港支部・汐止分会で四日、同胞らが緊急集会を開いた。

「南汐止荘には韓国、朝鮮の人がたくさん住んでいて住宅自体がすさんでいる」などとの同議員の暴言に同胞らは憤慨、「絶対に許せない。正式な謝罪をするまで断固として闘う」と怒りの声を高めた。

差別発言の翌日には総聯県本部が名古屋市長、市議会議長、自民党市議団長に抗議、要請書を提出しており、同支部と分会でも民団同胞や日本の住民らに呼びかけて抗議行動を行っていくという。

水曜訪問

詩に託した民族愛



25年間詩作活動を続けている

趙顕市さん

1948年11月20日、大阪生まれ。追手門大学在学中に留学同と出会い、民族心に目覚める。卒業後、京都の同胞医療機関である辻の札診療所に就職。現在、同診療所の事務局長と医協京都支部副会長を兼任する。

「詩は私の生きる糧です」——詩を書き始めて、かれこれ二十五年になる。今まで約三、四百編にのぼる詩を創作。そのきっかけは、「民族的なコンプレックス」であった。

「高校までは、自分がチョソンサラムというのが嫌でたまらなかった。学校も日本名で通ったし、友達を作るのが嫌でした。詩を書き出したのは、寂しさを紛らし、みんなに自分を見てもらいたい、ええかっこしたかったからなんです」

処女作は恋愛詩だった。「コンプレックスのはけ口を、異性を思う詩に求めたんですよ」とはにかむ。

恋愛物一辺倒であった作風が徐々に変わり、民族心に目覚め出したのは大学進学後。留学同を知り、そこで許南麒氏の作品に触れた時からだった。

「許南麒先生を知った時、同じチョソンサラムやのに、こんなに素晴らしい作品を書いてるんやなってほんまに感動しました」

大学卒業後は、京都にある同胞医療機関「辻ノ札診療所」に勤め、そこで事務を担当。そのかたわら詩作に一層情熱を注いだ。

そして三年前、自費出版による処女詩集「野ばら—お前達—」を出版した。

「それまでの創作活動に一区切りつける意味も含めて、自分にかけてみたかった。世間の評価を受けたかったんです」

詩集の前半は恋愛を描いた作品が多いが、後半に入ると民族愛、祖国愛を託した作品がぐんと目を引く。

特に、子供たちがしっかりしたチョソンサラムに育つ願いを表した作品は温かく、優しく、それでいて力強いものが感じられる。

「チョソンサラムとして生を受けたからには、祖国に寄与できることをしたいと思って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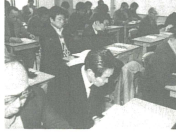
詩の他に作曲も手がけている。将来はレコードを出せれば、という。自分の子供が通うウリハッキョに通学バスを贈るのだそうだ。

「恋愛詩ですか？ もう書きません。これからは同胞と祖国のために書きますよ」と、優しく笑う。（完）

トンボの街かど

栄誉旗獲得に意欲いっぱい

総聯大阪・分会委員講習会



総聯大阪府本部管下各分会委員たちの一泊二日講習会がさる二月二十七、二十八の両日、総聯近畿学院で開かれた。

同本部の李末祥委員長も参加して行われたこの講習会は、同本部で今年八回予定している中で初めてのもの。

講習会の初日には、ビデオ「謀略—南朝鮮旅客機失そう事件」と映画「真実の人」を鑑賞し、また「現情勢と分会委員たちがチュチェの情勢観と革命的信念を持つことについて」と題する講演などが行われた。

二日目には「わが国の経済展望と日本経済について」と題した講演が行われ、終了後は分会活動についての経験交流と、意見交換などがなされた。

講習会に参加した分会委員の中からは、「複雑で厳しい状況の中でこそ、もっと学習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実感した。祖国に貢献できる活動を分会的に行いたい」「講習が絶好のタイミングだったので、KAL機事件の真相を具体的に知ることができた。宣伝活動を積極的に進めたい」などの意見も出された。

参加者たちはみな「愛国栄誉旗獲得運動」に向け、意欲を燃やしていた。

一世顧問らをねぎらう集い

総聯京都



祖国解放直後、そして総聯結成当時から、在日朝鮮人運動の第一線で、祖国の統一と在日同胞の権益擁護のために尽くしてきた一世同胞たちをねぎらうため、総聯京都府本部ではさる二月二十四日、「一世顧問たちの集い」を開いた。

集いには総聯本部をはじめ、府内の支部、商工会、女性同盟、教育会、朝鮮信用組合などから、四十余人の顧問たちが招待された。

集いではまず、総聯京都府本部・辛重学委員長があいさつ。

辛委員長はあいさつの中で、今年の総聯の主要課題について語りながら、その課題遂行のために変わらぬ愛国的熱意で力を尽くしている顧問たちの実例を紹介し、感謝のことばを述べるとともに、これからも祖国の統一促進、総聯活動と民族教育の発展のために、協力を願いたいと語った。

引き続いて顧問たちの交流の集いが行われた。

一世同胞たちは集いで「年はとっても最後まで祖国と総聯のためにやっていこう」「若い活動家たちに協力して、運動を手助けていこう」「顧問たちだけで共和国を訪問しよう」「いつでも顧問たちが集まれるような場を作ろう」などと、互いに意見を交換していた。

卒業と新入学を祝う

卒業、入学のシーズンを迎え、各地のウリハッキョや組織で新入生、卒業生を祝福するさまざまな行事が行われている。そうした中で、東京第六初中・幼稚班オモニ会、女性同盟東京・北支部の主催により、人形劇をはじめ多彩な催しが行われた。

今年も「オリニの集い」開く

女性同盟東京・北支部

さる六日、女性同盟東京・北支部の主催によるウリハッキョの新入生たちを祝う「第五回オリニの集い」が、北区立赤羽会館で行われた。

会場には、この四月からウリハッキョに入学する北区内の子供たち、日本の学校からウリハッキョに編入することになった子供たち、そしてウリハッキョに六年間通いこのたび卒業する子供たちと、それぞれの父兄など、二百余人の同胞が詰めかけた。

まずはじめに、四月から東京朝鮮第一、第三初中級学校に通う新入生十四人を一人ずつ紹介、総聯東京都本部、北支部からそれぞれ肩かけバッグとお弁当箱の記念品が贈られた。そして子供たちの代表がウリマルで、最優等生をめざして頑張って勉強しますと、お礼のあいさつを行った。

また同校の卒業生九人も紹介され、記念品としてアルバムが贈られた。

第二部では、分会対抗のど自慢大会や、この日のためにオモニたちが準備した民族舞踊「チェンガンチュム」、拳道会道場に通うウリハッキョの生徒たちの演武披露などが行われた。

子供たちや父兄たちは、心づくしの料理や飲み物をかこんで、舞台上で披露される公演を楽しんだ。

この日初めて顔を合わせた子供たちであったが、「一緒に学校に通おう」と、もうすっかり仲よしのトンムになっていたようだ。



「がんばって勉強します」——新入生のあいさつに会場も大喜び

ウリマル上手な園児の"大公演"

埼玉朝鮮幼稚園「歌と踊りの発表会」

"手作りバザー"も



フィナーレは全員で「みんな仲よし」を歌った

さる六日、埼玉朝鮮幼稚園で、園児たちによる、「歌と踊りの発表会」が行われた。歌や踊り、演劇など多彩なプログラムを上手にこなす園児たち。とりわけ幼い子供たちがウリマルを話す姿は愛らしく、集まった二百五十人のハラボジ、ハルモニ、アボジ、オモニの顔は最初から最後までほころんでいた。(香)

発表会は総勢五十八人の園児による器楽合奏「遊戯曲」で幕が上がった。

園児たちが準備したプログラムは、漫才、マジック、舞踊など十六。約二時間にわたる"大公演"であった。

とくに人気があったのがマジックと農楽。

タネが見えてしまうマジックに会場からは笑いと歓声があがった。

また長いサンモまで飛び出したチンダルレ班(年長組)の農楽舞はなかなか見ごたえのあるものだった。

この発表会で注目されるのは、二歳児を除いて行われた班別のウリマルでの演劇である。

「おおかみと十ぴきのぶた」(ミンドゥルレ班)、「フンブとノルブ」(チンダルレ班、「大根ぬき」(ポンソナ班)はどれもウリマルでの演技が上手であった。

ウリマルの発音も良く、年長組になると演技力もなかなか。

同幼稚園では日ごろから園児たちがウリマルで生活するように努めてきたという。

保育時間には、歌や遊びを通して、子供たちがウリマルを体で覚えるようにしている。

また「ウリマル模範生」を表彰し、模範を広めている。

そうした一年間の集大成が今回の演劇に表れた。

演劇の練習も子供たちに合わせ、遊びを通してする。

まず先生がお話をして、ストーリーを理解させ、次に"演劇ごっこ"をさせる。子供たちは自由にしゃべって演技する。その過程で子供に合った役がらを決め、セリフを口伝えで覚えさせる。

「みんな楽しみながら練習していました。なかには家でも練習した子がいたほどです。この期間に子供たちのウリマルが上達したのは間違いないでしょう」と教務主任の金京純先生は語る。

現在、園児たちは、先生の言うことはだいたい聞きとれ、年長組の子供は、日常の簡単な会話が出来るそうだ。

そんな園児たちのふだんの姿を見せてくれた公演に祖父母や父母たちはとても満足そうだった。

またこの日、発表会の後にはオモニ会が主催するバザーが行われた。

「若いオモニたちの感覚に合わせて、バザーを開こう、と他の学校のバザーも見に行って研究したんですよ」とオモニ会会長の金海里さん。

販売品は、手作りのものが多いのが目を引いた。

カレーやケーキ、一世オモニの手ほどきをうけたキムチも手作り、バザー会場の一角には手作りコーナーが設けられた。

「手作りのものの方が利用価値があると思います」と趙光枝さんは語る。

その言葉通り、手作り品のなかには座ブトン、乾布摩擦用のタオルなど園児たちが日ごろ使うものが多かった。

一人で八十枚もの縫いものをしたオモニもいたそうだ。

去年の十二月から準備を始め、追い込み期間は毎日のように幼稚園に通ったという。

そんなオモニ会の活躍に励まされたという先生たち。

教育に傾ける情熱にあふれた一日だった。



"絶賛"を浴びた農楽舞



出番を待ちながら

人形劇などの催しに 園児ら大喜び

東京第六幼稚園

東京朝鮮第六初中級学校幼稚班のオモニたちによる人形劇「がまがえる」が五日、同校の講堂で催された。

この集いは、毎年、卒園を控えたこの時期に「子供たちとのふれあいの場を設けよう」という目的で開かれ、今年で三回目。一回めは紙芝居、二回目の昨年は演劇、今年は人形劇とどれもオモニたち自身による企画と出演によるものだ。

今回の人形劇を行うにあたって、オモニたちは二月から育児や仕事の合間をぬって人形づくりや舞台の製作、セリフや歌の練習に励んできたという。

この日「トンムドゥル！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のセリフとともに六匹のカエルが登場すると子供たちは、みんな目を丸くして舞台へと視線を向けた。カエルたちの楽しいやりとりに子どもたちの顔からは終始笑みが絶えなかった。

オモニたちの手によってリズム良く動き、歌をうたうカエル。人形劇はリハーサル通り大成功であった。

人形劇の後にはゲーム遊び。オモニと子どもがペアーになってチンダルレ班、ミンドゥルレ班対抗で競技をするなど園児たちは大喜び。教室に戻って食事会も行われ、親子で楽しいひとときを過ごした。

「この四月、新しく加わるオモニたちと一緒に、これからも頑張りたいです」

ウリ幼稚園発展のための抱負や夢がいっぱいなオモニたちだ。



カエルの楽しいやりとりは、子供たちを夢中にさせた

「大きな励みになりました」

「幼稚班教育の模範学校」を祝う集い

泉州朝鮮初級学校

「第十三回中央教育熱成者大会」(一月三十一日)で「幼稚班教育の模範学校」に輝いた、泉州朝鮮初級学校。それを祝賀する集いが先月の二十七日、同校で行われた。

この集いは、園児たちの保育教育に熱意をもって携わってきた教養員たちを激励しようと同校オモニ会が企画したものだ。

同幼稚班がそのような表彰を受けたのは初めて。①教育方法②父兄との連携③自然保育を通しての情緒教育などが主に評価されたもの。中でも、幼児教育における七つの科目(ウリマル、数え方、理科、社会、体育、図工、遊び)の関連式教育方法(例えば「冬」という単語をあげ、その季節に関連させて七項目を一通り学ぶ)は幼児教育で優れた効果をあげたとさ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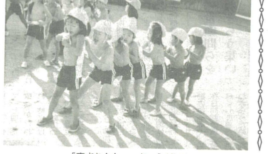
この方法は数年前、大阪府下の教養員たちによって研究され、すでに実践さている。

また、同幼稚班は家庭とのつながりを深めるため、誕生会や作品発表会などを随時企画し、父兄たちが幼稚班に足を運ぶ機会や集まる場を数多く設け、幼児期における民族教育の優越性に対する理解を促すことに力を注いだ。

このような努力により、今回の大きな実りをもたらした教養員たちに感謝し、より頑張ってもらおうと、オモニ会は、管下の商工会や朝信に働きかけ、その協力によって、この集いが開かれたのであった。

「これからも一層頑張っていこうという大きな励みになりました」、とオモニたちへの感謝の意をこめて語るのは李庸蓮教養員。

オモニ会でも今、より模範的な幼稚班にするため教養員とともに頑張っていこうと意気盛んだ。



「寒さなんかへっちゃらだい！」
乾布摩擦をする元気な子供たち

全校生にカレーライス

オモニの愛情がたっぷり

東京第一初中・オモニ会

東京第一朝鮮初中級学校の生徒たちにとって、さる五日の昼食は格別であったようだ。

それもそのはず、この日、幼稚班から中級部三年に至る全校生六百余人に、同校オモニ会がカレーライスをふるまってくれたからだ。

これまで同校では、主に初級部を対象に、五〜六年前からオモニ会によって、学年別の給食や娯楽会、誕生会などが行われてきた。だが全校生を対象とした給食は、今回が初めてのこと。

「施設の不足などの理由で、気持ちはあってもなかなか出来ませんでした。しかし『なんとか学期に一回ぐらいはやってあげたい』という声がオモニたちの間で、最近とみに高まってきたからなんですよ」と責任者は語る。

タマネギやニンジン、じゃがいもなどの野菜とライスは生徒たちがそれぞれ持参し、カレーはオモニたちが仕込むという方法がとられた。

当日、八十人のオモニが集まり朝十時から準備におおわらわ。また、キムチや牛肉などの差し入れも。

「肉もたっぷり、オモニの愛情もたっぷり入っている最高のカレーですよ」とオモニたちは実にごきげんな様子。

言うまでもなく子供たちも大喜び。

オモニ会では、これを機に学期に一回給食を出したいと語っていた。



心を込めてカレーを作るオモニたち

訂正 三月七日付五面の「差別発言に厳重抗議」の記事中、「廉潤璋委員長」を「康潤璋委員長」に訂正します。

民族の「闘争史」の一ページ

長くきびしい道のり 徐兄弟・獄中の生

徐京植著

著者—徐京植氏は「在日同胞政治犯」徐勝、徐俊植氏の弟である。

「北のスパイ」として捕えられ、十七年間獄中で闘い続けている二人の兄。なぜ罪のない彼らが囚われているのか。彼らは何のために闘っているのか。

この問題が「一人の在日韓国人二世」の冷徹な目を通して、考察されている。

本書を通じて著者は、政権維持のため、自分に反対するすべての者を「反共」の論理で弾圧し、日帝の植民地統治の残し他ならない「国家保

んでいる権力を告発する。

また、徐兄弟の闘いが人間の当然の権利—自分の生き方と思想を自由に決定する権利のため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それがただ個人の闘いではなく、南朝鮮の民主化と祖国の統一という民族的課題と結びついた闘いだ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く。

そして、これらの問題が民族の「闘争史」の一ページとして読者に示されるのである。

法」によって拘禁され続けている徐俊植氏は昨年三月、ソウル高等法院に「私の主張」と題する陳述書を送り、五十一日間のハンストを行った。

「私の主張」の中で徐氏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こういう私は、それと同時に、民族に対する骨に徹する愛着をしっかりと保つ一方、すべての人間たちが非人間の軛(くびき)をのがれ、たったひとつの民主主義がある虚一派なのだ。

「言うまでもないことですが、この世に幾種類もの『民主主義』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人間の尊厳』を最高のものとして重んずる、

「特赦」を行ったが、四十五人といわれる「在日同胞政治犯」は一人として釈放されなか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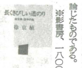
むひとりの人間だ」

人間を愛し、民族を愛し、その愛のために命を捧げて闘う人々。

彼らを弾圧する張本人こそ「民主化」を声高らかに唱え続く。

「長くきびしい道のり」は本書には九編の講演などとともに、徐俊植氏が執筆した「陳述書」(八三年)が収められている。これは、「社会安全法」の不当性を体系的に論じたものである。

※影書房、一八〇〇円 (享)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10일 (음력 1월 22일) 목요일 【루계 제10154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남조선의 당국을 포함한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참된 애국의 길인 북남련석회의마당에 나서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예비회의를 3월 28일 판문점에서 가질것을 다시금 제의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남측에 편지를 보내였다

【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인 허담동지가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8일 남조선측에 넘겨주었다. 편지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 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 위임에 의하여 북남련석회의소집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1월 13일부 편지를 귀하에게 보낸바 있습니다.

편지에서 우리는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소집을 위하여 2월 19일에 판문점에서 예비회의를 가질것을 정중히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비회의에 내보낼 대표단을 구성한것을 비롯하여 회의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편지전달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도 취하면서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이 오기를 인내성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지를 보낸 때로부터 5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로부터 아무런 회답편지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사심없는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담은 편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식대답을 보내오지 않으면서 련석회의소집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편지를 받아가자마자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려객기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고있으며 우리가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중지문제에 대한 토의를 제기한 때에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립장과는 너무도 상반되며 북남련석회의소집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반대화, 반평화적인 그릇된 태도로 말미암아 북남련석회의 예비회의가 예정된 날자에 열리지 못하고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실망을 가져다준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민족의 념원으로 보나 북남련석회의는 지체없이 소집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북과 남사이에는 오해와 불신, 대결과 전쟁위험이 날을 따라 커가고있습니다.

민족분렬의 년륜이 더해갈수록 격화되여가고있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는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겨레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수 없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당장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동족으로서 화해하고 단합하는 방도를 찾아야 하며 통일된 조국에서 부강번영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평화롭게 살아나갈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이 극도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쌍방의 책임있는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온 겨레의 의사를 한데 모을수 있는 협상마당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라고 간주합니다.

북남련석회의는 바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당, 각파의 총의를 집대성할수 있는 가장 적중한 협상방도로 될것입니다.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제안에는 북남대화에 직접 참여할것을 주장하여온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의사도 반영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남조선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 어느곳에서나 열려있다》고 하면서 군사분계선에서도 《화해의 봄》을 가져오자고 하는 말이 울려나왔는데 이것이 진심이라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북남련석회의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협상해나간다면 민족앞에 가로놓인 당면한 난국을 타개할수 있을것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할수 있을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걱정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제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거족적인 대화의 광장에 나서는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동족사이에 화해하고 단합하려 하지 않고 반목하고 대결하는 길로 나가는것은 민족을 희생시키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반민족적행위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당국을 포함한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어느 길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길이고 어느 길이 민족대결과 전쟁의 길인가를 옳바로 식별하고 참된 애국의 길인 북남련석회의마당에 나서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를 오는 3월 28일 판문점에서 가질것을 다시금 정중히 제의합니다.

우리의 이 제의는 어떻게 하나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계 인사들과 힘을 합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립장의 표시입니다.

나는 귀하가 우리의 이 제의에 심사숙고하고 력사적인 북남련석회의를 하루빨리 소집하기 위하여 응분의 노력을 기울이며 긍정적인 대답을 보내오리라는 희망을 표명합니다.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허　담

1988년 3월 8일　평　양

동포들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모략책동 짓부시자

수많은 단위에서 강연회 조직　비데오상영도 동시에

각지 총련일군들

대중유세사업 정력적으로 추진

지금 전체 총련일군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이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정치모략책동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리용하여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대중유세사업을 집중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총련 도꾜도본부 일군들은 본부적인 《1만2천호 방문담화운동》과 결부시켜 3월에 들어선후 대중정치선전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본부에서는 유세사업을 분회단위로 수행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단체별, 계층별로도 강연회를 조직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상영사업도 함께 추진해나가고있다.

본부에서는 모든 동포들이 볼수 있도록 900개의 비데오를 준비하여 모든 지부와 분회들에 가닿도록 하였다.

본부관하 전임일군들은 분회의 5호담당선전원을 적극 발동하여 비데오를 분회관하 동포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볼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일군들은 《1만2천호방문담화운동》을 통하여 미조직, 민단 동포들속에도 적극 들어가고있다.

이와 함께 총련지부들에서는 일본의 각 단체, 지방자치체, 공화국을 방문한 인사들과의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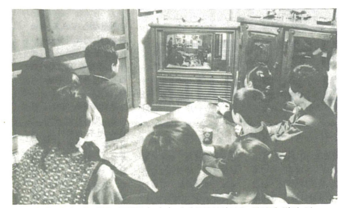
이곳 본부에서는 오는 18일 아침에 도내의 주요역두에서 가두선전을 벌릴것을 예정하고있으며 19일에는 녀성동맹본부에서 독자적으로 가두선전을 벌리게 된다.

《40일간운동》을 벌리고있는 총련 오까야마현본부와 《50일간집중행동》을 벌리고있는 총련 혹가이도본부에서도 정치선전사업을 위한 각종 강연회와 모임을 지부와 분회 단위로 조직해나가고있다.

총련 오까야마현본부에서는 3월 7일부터 4월명절까지 벌리게 되는 《40일간운동》기간에 1,500호의 동포집을 방문하여 비데오를 돌리는것을 목표로 사업함으로써 동포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총련 혹가이도본부에서도 《50일간집중행동》기간에 정치선전사업과 함께 동포들의 제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힘쓰고있으며 특히 학생받아들이는 사업을 빈틈없이 계속 다지고 새 학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각지 총련일군들은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단결된 힘으로 짓부셔 사회주의조국의 위신을 옹호하며 승리의 신심도 드높이 동포들을 총련조직에 묶어세우는데 주력하고있다.



총련 각지 일군들은 동포들속에서 비데오상영사업을 힘있게 벌려 괴뢰도당의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사진은 지바현 세이부지부)

군정의 본색 드러낸 《국회의원선거법》 강행통과놀음

《민주화합》의 기만간판아래 감행되는 정치깡패행위

보도에 의하면 로태우역도는 괴뢰여당 《민정당》깡패들을 시켜 8일 야당《의원》들을 제쳐놓고 저들 단독으로 《국회본회의》에서 그 무슨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이란것을 단 1분동안에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민정당》족속들이 저들의 《개정안》에 대한 단독통과를 강행한것은 로태우일당이 저들의 군정을 무난하게 연장하기 위해 얼마나 발악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민정당》의 계획적이고도 로골적인 정치깡패행위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제놈들이 우위를 차지하여 새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감행한 또하나의 정치쿠데타이며 제2의 《정권》강탈행위이다.

《민정당》의 《국회》독판치기는 형식상의 《의회정치》의 흔적마저 사라진 민주폐허지대로서의 남조선의 암흑상을 그대로 펼쳐보이고있다.

이번에 《민정당》패거리들이 강행통과시킨 《선거법개정안》이란 종래의 1구 2명의 국회의원선출을 내용으로 한 중선거구제를 1구 1명의 소선거구제로 바꾸어놓은것인바 그 선거구의 구분자체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괴뢰여당에 유리하게 짜여졌다. 하기에 야당의원들은 선거의 공정성이 없는 괴뢰여당의 《선거법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탄하여 반대해왔던것이다.

이처럼 《국회》를 《민정당》의 독판치기무대로 계속 틀어쥐려는 흉산을 품고있는자들이 남조선안팎에 대고 《민주발전》이요, 《화합》이요 뭐요 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인민들의 민주화념원에 대한 도전이며 우롱이 아닐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로태우역도는 겉으로는 《민주화합》이요 뭐요 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군정연장을 위해 발악적소동을 벌리고있다.

이자는 독재《정권》을 《법》적으로《담보》해온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언론출판관계법》, 《로동관계법》 등 일련의 파쑈악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2월 27일의 소위 《사면복권》놀음에서도 7천 200명을 석방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범죄인 7천명을 제외하고 실지로 《석방》된 정치범은 불과 125명에 지나지 않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현재도 감옥에 갇히고있는 정치범은 1천명에 달하고있다.

더우기 1980년 5월의 광주학살만행에 대해서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라는 기만기구를 내왔을뿐 결국은 진상규명과 사죄요구를 억누르고 유야무야하게 처리하였다.

전두환과 함께 광주만행의 공범자인 로태우는 광주사건을 《해결》할수 없으며 진짜 해결은 로태우를 비롯한 군부깡패들이 사죄하고 물러서는것뿐이다.

자민당 나고야시의회의원단이 정식사죄

민족차별발언과 관련하여

나고야시의회 건축교통부회 심의중에 있은 자민당소속 시의회의원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차별발언과 관련하여 그 발언에 대한 취소와 사죄를 요구하는 총련 아이찌현본부와 메이꼬지부 시오도메분회 동포들의 강력한 항의행동에 의하여 자민당 나고야시의회의원단과 스기우라 슈따로의원이 그 발언의 엄중성을 인정하고 의원단 단장의 이름으로 사죄내용으로 된 문서(해답문)를 총련 아이찌현본부앞으로 보내여왔다.

스기우라의원의 발언에서 지적된 해당지역인 총련 메이꼬지부 시오도메분회에서는 4일에 조직된 긴급집회에 이어 7일에도 40여명의 동포들이 모여 이 지역의 자민당관계자들과 만나 발언내용에 대한 엄중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면서 민단을 포함한 광범한 동포들과 일본인민들에게 적극 호소하여 여론을 부단히 확대하였다.

총련본부대표들은 8일 자민당의원단 단장을 만나 발언의 엄중성을 계속 강경히 추구하였으며 자민당의원단 단장은 드디여 총련조직앞으로 정식으로 사죄하였다.

총련본부대표들은 같은날 일본사회당, 민사당, 공명당을 방문하여 항의행동을 지원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야당의원들은 《자민당의 이름으로 사죄내용의 문서를 보내여온것은 총련의 정당한 투쟁의 결과》라고 하면서 총련조직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외교총화

1988·1·2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과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렸다.

하지만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로골화되는 반공화국책동으로 말미암아 공화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여느때없이 긴장되였다.

새해벽두부터 수많은 나라 대표단을 접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방침따라 반제자주의 기치 드높이 나아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해벽두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신것을 비롯하여 스리랑카, 수리아, 이란, 잠비아 등 여러 나라 대표단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 손님들과 만나신 석상에서 현시기 제기되고있는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시였으며 거기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시였다.

석상에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좋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이 확인되였다.

특히 지난 2월말 조선을 방문한 잠비아공화국대통령은 조선이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다고 말하면서 진보와 정의의 편에 확고히 서있는 조선의 립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잠비아에 사회주의적인도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선이 이룩한 특출한 성과를 계속 따라배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북과 남사이의 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3일, 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 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중지, 다국적군축회담의 실현, 호상 비방중상의 중지 그리고 제정된 올림픽신청마감에 관계없이 올림픽을 공동주최할 문제 등 련석회의에서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밝혀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 담겨진 구국제안을 구현하여 련합회의가 취한 조치는 매우 시기적절한것으로서 하루빨리 정세를 전환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의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노력의 뚜렷한 표시로 되였다.

공화국을 건드리려는 책동에 단호한 조치로

그런데 이에 당황한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자작자연하여 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켜 이른바 《수사결과》를 날조하여 공화국의 애국애족적인 조치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다.

이번 사건으로 말하면 남조선의 군사정권을 연장시키고 올림픽단독개최를 단행함으로써 나라의 영구분렬을 한사코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날조극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이 사건을 백방으로 악용하여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끌고갔으며 전세계 수많은 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세계 수많은 인민대중은 이른바 《수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했고 공화국의 당당한 태도와 립장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쏘련, 꾸바, 마다가스까르, 에티오피아, 잠비아 등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수많은 나라들이 공화국을 적극 지지해나섰으며 놈들의 날조극은 날로 그 허위성과 기만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월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잠비아공화국대통령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고 위협하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만일 그들이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 인민들은 결연히 일떠서 싸울것입니다.》

력사적교훈과 오늘의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나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은 항상 이에 정면으로 도전해왔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그것이 명백히 확증됐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며 온갖 반공화국책동에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해나갈것이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북남련석회의제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잠비아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접견하신 외국대표들

날 자	대 표 명
1월 6일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9일	스리랑카자유당대표단
13일	우리 나라 주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24일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2월 9일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대표단
12일	국제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기구대표단
20일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
24일	잠비아대통령
25일	우리 나라 주재 부룬디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친선관계의 강화발전과 조선의 새 조국통일방안을 지지

—각국 당 및 국가 수반들이 강조—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이 우리 나라 각종 대표단과 대사들을 만났다.

우리 나라 대표들은 각국 수반들을 만난 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으며 각국 수반들은 이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그러면서 각국 수반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축원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해당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다.

또한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해에 내놓으신 조선통일을 위한 새로운 구국제안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들을 만난 각국 수반들

당 및 국가 수반	우리 나라 대표	날 자
모잠비끄대통령	대 사	1월 7일
파키스탄대통령	림 시 대 사	1월 9일
세네갈대통령	대 사	1월 11일
기네대통령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원연구소운영대표단	1월 16일
로므니아대통령	당 및 정부 대표단	1월 19일
에스빠냐사회로동당 총비서	조선로동당대표단	1월 22일
모잠비끄수상	대 사	1월 27일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근로자사대표단	2월 3일
시에라레온대통령	평양시친선대표단	2월 8일
부르끼나파쏘인민전선 위원장	대 사	2월 8일
모리셔스총독	대 사	2월 15일
인도대통령	정 무 원 총 리	2월 18일
뽀르뚜갈공산당 총비서	조선로동당대표단	2월 18일
뽀르뚜갈사회당 총비서	조선로동당대표단	2월 19일
스위스련방대통령	특 명 전 권 대 사	2월 19일
민주예멘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대 사	2월 23일

특히 지난 1월 19일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을 만난 로므니아대통령 니꼴라에 챠우셰스꾸동지는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선통일을 위한 발기들과 제안들을 지지하여왔으며 앞으로도 확고히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쏘련직업동맹대표단) 공화국을 방문

지난 2월 29일부터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쏘련직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근로자들의 집회가 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김봉주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쏘련공산당과 쏘련정부가 핵시험을 금지하고 핵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제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평화발기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나라는 그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집회에서는 계속하여 쏘련직맹대표단 단장인 쏘련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스쩨빤 샬라예브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미하일 고르바쵸브동지사이의 회담에 기초하여 쏘조관계는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세아의 평화수호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북남련석회의 소집방안을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말하였다.

집회에서는 축기가 교환되였다.

쏘련직맹대표단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회견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김일성동지는 매우 소탈하고 인자하신 인민적인 수령이시다》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강조—

노르웨이신문 《프리헤텐》 1월 14일부가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코레 안드레닐센의 공화국방문과 관련한 글을 실었다.

그는 방문기간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것을 잘알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조선사람들은 조선의 북과 남이 서로 무력을 강화할것이 아니라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주장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조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러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북측은 지난해에 10만명의 군대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였다. 이것은 15만여명의 군대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돌린 이외의 수자이다.

북에서는 미국이 1,000여개의 핵무기를 남조선에 전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력축소를 진행하였다.

현재 북에서는 평화적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위원장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매우 소탈하고 인자하신 인민적인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전후 재더미로 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바치신 로고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고계시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계신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응당한것이다.》



옥상가옥

《탄자니아 조선 친선의 뚜렷한 표시》

탄자니아 모로고로주 무게타지구개발착공식 진행

탄자니아 모로고로주 무게타지구개발착공식이 2월 1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착공식에는 탄자니아대통령 알리 하싼 므위니, 체신 및 건설상 므스타파 냥가니, 사회개발, 문화, 청년 및 체육상 파트마 싸이드 알리, 모로고로주 장관을 비롯하여 1,000여명 군중들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또한 탄자니아주재 우리 나라 대사와 대사관성원들,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착공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탄자니아대통령에 대한 노래합창으로 시작되였다.

착공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은데 대하여 회고하면서 그이께서 탄자니아가 식량을 자급자족하도록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목소리

《사면복권》놀음

부정과 강권으로 《대통령》자리를 강탈한 로태우는 그 무슨 《정치범석방》놀음을 벌렸다. 7천 200여명에 대한 소위 《사면복권》이 행해지자 서울의 어용 신문, 텔레비죤, 방송들, 지어 일본의 신문들마저 로태우가 그 무슨 《민주화의 투사》인양 극구 찬양하고있다. ▼그러나 7천 200여명 《사면복권자》중 일반범죄자가 7천여명, 정치범은 불과 125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터무니없는 《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45명의 재일교포정치범은 단 한명도 석방되지 않았다. 군정지속을 반대했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지금 갖은 고문을 강요당하고있는 정치범이 1천 100여명이나 지금도 그냥 그대로 옥고를 치르고있는셈으로 된다. ▼이것이 남조선과 일본을 들썩하게 만든 로태우도당의 이른바 《정치범석방》놀음인것이다. 즉 이 광대놀음은 현 남조선 지배자인 미제를 반대하고 현 군부독재의 죄행을 폭로하거나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는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놓은것이라 하겠다. ▼로태우가 진짜로 《선거공약》을 실현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모든 정치범을 무조건 즉시 석방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언행이 영 딴판이니 누가 이자의 잠꼬대소리를 듣겠는가 말이다. 이번 《석방》놀음은 로태우가 《민주화가면》을 쓰고 군정연장책에 환장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이런 기만조치에 분격하여 지금 반로태우투쟁을 련일 세차게 벌리고있다. ▼지난 3월 5일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생들과 재야인사들 3천여명이 반독재투쟁결의대회를 가지고 로태우도당의 허위기만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였으며 가두시위까지 단행하였다. 4일과 3일에도 서울과 광주 등 남조선전역에서 구속자 가족들과 친척친우들, 광범한 학생들이 정치범 전원석방과 로태우퇴진을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 롱성 투쟁을 벌렸다. ▼그 어떤 폭압과 회유, 기만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야만 민주화도, 통일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피의 교훈이다. 로태우도당도 기필코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미반《정부》투쟁에 의해 타도되고야말것이다.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과 총련조직을 굳건히 옹호하자

대내외정치선전사업 힘차게 전개

총련 아이찌현 나까가와지부에서

남조선괴뢰도당이 려객기실종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그를 리용하여 공화국과 총련을 헐뜯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여 날뛰고있다.

일본보도계는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이른바 《수사결과》를 대서특필하여 일본정부의 악의에 찬 대조선정책을 선동하고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일수록 우리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함께 사회주의조국과 조직을 지켜나가자고 강력히 호소하고있다.

총련 아이찌현 나까가와지부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대중정치선전사업을 아주 참신하게, 진공적으로 벌려 동포들과 광범한 일본인민들에게 사건의 진상과 배경을 잘 알려나가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2월의 어느날 이곳 지부를 찾았다.

동포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기 위해

이곳 지부는 나고야시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미에현 구와나시와 린접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다.

게다가 전임일군이 그리 많지 못하다.

그러한 조건을 제힘으로 극복하면서 이곳 일군들은 하루 두시간 선전차를 몰고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적극 알려나가고있었다.

기자는 이날 선전차를 함께 탔다.

선전차는 웃부분에 스피카를, 옆부분에 횡단막을 단 소형승용차이다. (그후에 어느 동포의 성의로 봉고차로 바꾸었다.)

《조선은 하나다》의 선률을 타고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은 군정을 유지하려는 전두환, 로태우도당이 일으킨 모략이며 공화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가무단원의 목소리가 스피카를 통해 울려온다.

제이 아르 가니에역주변에는 《일본 당국과 매스콤은 남조선의 전두환, 로태우일당의 모략에 가담하지 말라!》, 《칼기사건은 전, 로일당의 모략이다!》고 쓴 전단이 도처에 나붙어 있었다.

《총련은 지난 2월 4일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에서 유일한 증거물로 발표된 〈꽃다발증정사진〉의 기만성을 폭로하였다》

방송은 계속 《일본의 량심적인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흘러간다.

선전차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일손을 멈추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저 서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일본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것도 있지만 우선은 우리 동포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기 위해섭니다.

우리 동포들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적들의 모략이라고 분격하였지요.

동요한 사람이란 없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가 도와줄수 있는것은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가슴깊이 안겨주는것이지요.》

조청지부 리석철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운전대를 틀어쥔 손에 더욱 힘을 넣었다.

매일 2시간 선전차를 몰고

동포들에게 신념, 확신을 안겨주어야 한다.

알고보니 지부에서는 1월 16일에 긴급상임위원회를 열고 총련중앙의 성명을 독보하여 사건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하여 토론을 깊이였다.

일본언론계의 속도에 대응하기에는 바쁠것이지만 아무리 텔레비죤, 라지오를 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백방으로 리용하여 그것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동포들에게 신념을 안겨주기 위하여 힘자라는껏 해보자.

이것이 지부의 결심이였다.

상임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사항은 삽시에 행동으로 옮겨졌다.

지부 독자적으로 선전물을 만들어 지부사무소주변에 뿌렸으며 1월 17일에는 동포들의 긴급모임을 소집하였다.

긴급모임에서는 지부가 편집한 비데오를 상영하여 동포들에게 남조선괴뢰도당의 기만성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지부의 호소에 각 분회 분회장들과 분회위원들, 지어 일반동포들까지 선전물을 나누었다.

상공회역원들을 비롯하여 직업상 일본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동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선전물을 갖다주면서 사건의 본질을 해설하였다.

이 기간에 나까가와지부에서는 2번에 걸쳐 주요역두에 나가 삐라살포를 하였고 지부사무소주변에 사는 일본사람들에게는 3번에 걸쳐 삐라를 뿌렸다.

비전임일군들도 거주하는 지역정내회 회장들과의 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선전물들은 일군들이 자료를 수집한것으로서 모두 독자적인것이며 스피카를 통해 흐르는 테프도 지부에서 고안해낸것이라고 한다.

매일매일 시간을 짜내면서 2시간 선전차를 몰기에는 힘이 든다.

지부일군들은 좀 힘이 들어도 동포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일군들의 자세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선전차를 리용한 정치선전사업이 시작하자 총련이 일을 잘했다고 동포들한테서 격려의 전화가 걸려오고있다.

이곳 지부는 약 2주일동안 선전차를 모는것과 동시에 선전물배포도 적극 추신하였으며 그후에는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제때에 대응해나갈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동포들을 끝까지 책임지자는 확고한 립장에 설 때 수단과 방법은 나오는 법이다.

총련 나까가와지부 사업은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호강)

사진교람 우리 삶의 이모저모

⑨

지난해에 있은 녀성동맹소프트뽈대회에서 우승한 교또 사꾜지부팀.

5년전에 무어졌으나 처음 2~3년은 경기에 나가면 패하기마련이였었다.

《약한 팀》이라는 인상이 《정착》되는상싶었던것이 재작년의 3위에 이어 우승의 쾌거를 이룩하였으니 둘레는 모두 놀라는것이였다.

주인공들은 이 실력배양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고있다.

그것은 련습에 련습을 거듭한, 남의 2배, 3배 노력한 끝에 이루어진것이기에.

지난 2년간 주 2회, 2시간씩의 련습을 한번의 중단도 없이 보장하는 과정에 기술기량의 제고는 물론 소조원들의 단결을 키워왔다.

소조출발시로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놀아온 김녀성은 말한다.

《우승한 뒤에도 련습을 꾹꾹 하고있습니다.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련습과 함께 자녀교양 등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많이 하니 정말 친숙합니다. 이게 진짜 승리의 요인인지 몰라요.》

11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은 26명의 《대가정》으로 자라난 소조의 면모가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시국강연회 진행

총련 도꾜도 에도가와지부 후나보리분회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기화로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유세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서 총련 도꾜도 에도가와지부 후나보리분회에서는 6일, 총련 후나보리분회 시국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조은도꾜 에도가와지점에서 진행된 강연회에는 후나보리분회관하 5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강연에 앞서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되였다.

조선신보사 편집국 문광우사회부장은 강연에서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안기부》의 이른바 《수사결과》의 허황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안받침하면서 폭로하였으며 미국의 조종밑에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결탁하여 저지른 국제모략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의 정치적배경과 본질을 해설한 다음 공화국과 총련조직에 집결된 동포들의 단결된 힘으로 내외반동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셔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림국홍분회장은 《강연을 통하여 이번 사건이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한짝이 되여 일으킨 모략사건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공화국의 권위를 헐뜯는것도 바로 공화국의 위력과 총련의 위신을 가장 두려워하는자들이 하는짓이라고 생각하니 납득이 된다. 그럴수록 우리가 단결하여 신심을 가지면서 반동들의 책동에 대처해나가야 한다.

전호방문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동포들이 하나로 뭉친 힘으로 이 모략을 짓부셔버릴것이다.》고 말하였다.



강연회참가자들은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제11차지바현 청년단결집회

조청 지바현본부 대표가 호소

제11차지바현청년단결집회가 얼마전 지바시민회관에서 있었다.

여기에는 사청동을 비롯한 일본의 청년단체 대표들 1,3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래빈으로 초대된 조청 지바현본부 황금석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로태우군사독재정권과의 유착밑에 조선의 분단고정화와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획책하는 일본당국의 대조선정책을 시급히 시정하며 이른바 《제재조치》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여 함께 싸워나갈것과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과 총련의 민족권리 옹호사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내줄것을 호소하였다.

【조청지바】

조선문제강연회

홋가이도에서

전홋가이도로동조합협의회와 일조련대도민회의의 주최로 조선문제강연회가 있었다.

3일에는 삿보로시민회관에서 그리고 4일에는 하꼬다데의 호텔 아까시야에서 진행된 강연회에는 350여명의 일본각계인사들과 우리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강연회에서는 일본 언론인이 강연을 하였는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본질과 그 정치적배경을 자세히 해설한 다음 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소위 《제재조치》는 즉시 철회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하꼬다데지평정가위원회에서는 얼마전 일조련대를 한층 강화하며 《제재조치》의 즉시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홋가이도지국】

평화를 위협하는 《팀 스피리트 88》

(4)

미제와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이 감행하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국면에로 끌어가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한 핵전쟁소동이다.

이 연습은 핵무기가 이미 1,000여개나 배치되고 미제의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 모든 핵운반수단들이 동원되여 감행되고있는데 더욱 큰 위험성이 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팀 스피리트 88》전쟁연습에 이어 《올림픽안전》을 구실로 남조선에 방대한 해, 공군무력을 더 끌어들이려하고있으며 올림픽경기기간(9월말까지)에도 대규모해상훈련을 벌리려 하고있다.

특히 이 군사연습의 위험성은 첫째로, 이 연습이 임의의 시각에 전면적인 공격에로 넘어갈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핵전쟁연습이라는것이며 둘째로, 이 연습을 통하여 미일남조선 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을 촉진하고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반도와 아세아, 나아가서 세계적인 핵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에 역행하는 침략적이며 범죄적인 도전으로 된다.

특히 조선인민은 조국강토가 미제의 핵전쟁마당이 되고 조선민족이 그 희↙

공화국의 평화제안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행위

↘생물로 되는것을 결코 허용할수 없다.

북과 남의 조선인민은 한피줄을 이은 겨레로서 통일된 한강토에서 화목하게 살것을 바라고있으며 서로 총포를 맞대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기를 념원하고있다.

조선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북과 남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도 다 피해를 입게 되며 덕을 보는것은 미제뿐이다.

평화와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와 같은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는 최근년간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다국적군축회담을 마련하는 문제 등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전환의 해로 할것을 제기하시였다. 이 조국통일 방침과 방안들에는 어떻게 하나 첨예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결심과 애국애족적립장이 담겨져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도 지금 반미자주화투쟁을 억세게 벌리면서 반전, 반핵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열핵전쟁의 가능성은 막연한 래일의 가정이 아니라 분명한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심화되면서 반핵기운이 높아지고있다. 또한 그들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 핵공격연습》이며 《세계인류를 전쟁공포에 떨게 하는 만행》이며 《남북간의 긴장을 격화시켜 대화분위기를 망쳐놓는 폭거》라고 규탄하고 《〈팀 스피리트〉를 반대한다, 미국은 핵무기를 철수하라》, 《남북대화 가로막는 〈팀 스피리트〉 결사반대,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양키 고 홈!》이라고 웨치면서 반미자주화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이 핵전쟁연습은 조선과 아세아,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범죄적인 전쟁소동이다.

미제와 로태우도당,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념원에 배치되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미제는 모든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물러가야 한다.

(끝) (최종헌)

어서어서 자라라



리 가 야
(녀—1살 4개월)
1986년
10월 25일생
아버지 리영민(31살), 어머니 고정자(29살)
총련 오사까부 나까니시지부관하

경쾌한 음악이 들려오면 박수를 치면서 흥겹게 춤추는 귀여운 가야.

온 식구들의 사랑을 담뿍 받아안고 장차 무엇이 되려무나. 부모님의 뒤를 따라 인민교원으로 될가?

어서 커서 네 희망을 이야기하라!

(삼촌)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

미제의 《기간단축설》의 기만성 여실히 드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의 예정으로 20만명규모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이미 그자들은 3단계로 되고있는 작전연습중 제1단계—작전전개(해외주둔미군의 남조선전개)연습을 벌려 일본 오끼나와를 거쳐 군사인원과 군수물자를 대량적으로 남조선에 투입하고있다.

특히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제와 괴뢰들이 벌써 제1단계연습기간에 합동으로 《련합산악훈련》(3월 4일)을 벌렸고 괴뢰륙군도 단독으로 《전투모델시범》(3월 2일)이라는 전쟁연습을 강행한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종래와 같이 제1단계기간에도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벌리고있음을 증시해주고있다.

이번 연습과 관련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제2단계연습기간인 3월말부터 2주일간만 연습을 하는듯이 거짓발표를 해놓았다.

그 이전에도 《중지설》이요 《규모축감설》이요 하는 온갖 기만선전을 늘어놓았으나 놈들이 벌리고있는 연습내용은 저들의 기만성을 여실히 폭로해주고있다.



미제는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에 군수물자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부산항에서)

제1단계 훈련에서 벌써 《련합산악훈련》등 실동훈련 감행

보도에 의하면 핵시험전쟁이며 북침예비전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위한 전쟁장비들이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집결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제와 파쑈도당이 지난 4일 모험적인 《련합산악훈련》을 감행하였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산악적응능력의 배양》이라는 호전적간판밑에 괴뢰공군의 한 부대를 동원하여 감행한 이날 훈련에서 고공락하훈련을 비롯한 《특수강하훈련》을 미친듯이 벌려놓고 북침전쟁열을 또 한바탕 고취하였다.

이것은 북침을 노린 미제와 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음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또한 지난 2일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이 괴뢰륙군의 한 부대를 끌어내여 단독으로 도발적인 《전투모델시범》이라는 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파쑈도당은 이날 그 누구의 《도발》이니 《침투》이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화국을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능력배양》을 위한 각종 훈련을 벌려놓았다.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설을 내돌리며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괴뢰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미제와 괴뢰들은 20여만의 대규모병력과 각종 전쟁장비들을 동원한 가운데 지난 2월초부터 감행되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도 성차지 않아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전투모델시범》훈련까지 벌려놓은것이다.

모든 사실은 전쟁의 검은 구름은 북에서가 아니라 바로 남에서 밀려오고있으며 《남침》이 아니라 북침위협이 날로 커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연습소동은 각지에서 벌어지고있는바 끔찍한 사건까지 일어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전쟁연습에 돌아치던 괴뢰군땅크가 뻐스를 들이받아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침을 노린 핵시험전쟁이며 예비전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 내몰려 돌아치던 이 땅크는 지난 3일 밤 경기도 파주군의 한 도로상에서 달리던 뻐스를 그대로 들이받았던것이다.

그리하여 뻐스에 탔던 7명의 주민들이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들은 현재 중태에 빠져있다 한다.

로태우역도 대학생들을 미제의 용병으로 내몰기 위한 집체적인 군사훈련 벌려

3월7일~11월중순까지 《병영집체훈련》 감행

보도에 의하면 미제가 핵시험전쟁이며 예비전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 투입할 침략무력과 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전개하고있는 때에 로태우일당이 수많은 대학생들을 병영에 끌어다가 집체적인 군사훈련에 내몰려고 책동하고있다.

군사파쑈도당은 대학생들의 병영집체훈련을 3월 7일부터 11월중순까지에 걸쳐 《문무대》와 《지역학생병영훈련소》에서 벌릴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남조선전역의 대학 1학년학생 16만여명을 끌어넣을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이 범죄적계획에 따라 서울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6개 대학 학생 7,500여명이 1차로 7일부터 6일동안의 병영집체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것은 로태우일당이 대학생들에게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과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 군사훈련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자주의식과 통일열망을 말살하고 그들을 미제의 전쟁대포밥으로 써먹기 위해 벌리는 반민족적책동의 하나이다.

또한 이것은 지금 남조선도처에서 전개되고있는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통일을 위한 각계층인민들의 투쟁대렬에서 학생들을 떼여내려는 교활한 책동이다.

로태우일당은 괴뢰정권을 탈취하기 바쁘게 더욱 더 많은 대학생들을 군사훈련에 내몰려 함으로써 반민족적분렬주의자이며 군사파쑈분자로서의 제놈들의 추악한 정체를 드러내보이고있다.

로동자, 청년학생 등 각계층 인민들이

여러곳에서 련일 투쟁에 궐기

로동자

울산에 있는 현대엔징회사 로동자들과 가족들 2,000여명이 4일 오후 현대그룹아빠트주변공지에서 로조탄압중지와 해고로동자들의 복직 등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현대그룹 14개 계렬회사의 로조성원들과 문익환목사 등 재야인사들도 참가하였다.

그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현대엔징로조조합장 등 로조성원 20여명의 조속한 복직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울산현대중전기회사 로동자 50여명이 자주적로조탄압에 항의하여 3일 롱성투쟁을 벌렸다.

이들은 매판자본인 현대그룹측에 민주로조탄압중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데 대한 공식사과 그리고 울산현대엔징회사 로동자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들과 로조원 등 30여명은 3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로동부서울동부지역사무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연구소측의 부당로동행위를 단죄규탄하였다. 그들은 해고된 로조원들을 복직시키고 부당로동행위를 일삼은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한 남조선의 17개 전문연구기관 로조가 파쑈도당의 폭압책동에 항의하여 싸우는 현대사회연구소 로조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현대사회연구소 로조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워나갈 뜻을 밝혔다.

교원, 청년학생

남조선의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는 2월 29일 해직교원들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교단을 떠난 모든 교원들이 새학기에는 복직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기도 수원대학 학생 50여명은 해직교수들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여 학장실을 점거하고 3일 이틀째 롱성투쟁을 벌렸다.

한편 이 대학 교수 50여명은 2일 교수협의회를 열고 교수해직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시 룡산군 리태원동에 있는 유성전자공업학교 교원들이 해임된 동료교원들의 복직을 요구하여 4일동안 련속 롱성투쟁을 벌렸다.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학생 30여명은 4일 낮 대학본관앞에 모여 학교측이 로태우역도의 이른바 《대통령취임경축광고》를 서울의 어느 일간신문에 낸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에 이어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은 학교측의 아부행위에 대해 총장이 공식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종교인

천주교전주교구 평신도협의회와 사제단은 괴뢰역도의 《취임》을 반대하는 전주집회장소에서 있은 성직자들에 대한 경찰들의 폭행사건에 항의하여 3일 로태우역도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다.



진정한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앙양될것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명동성당에서, 로이터 산 제공)

창원의 한 야산에서

로조활동의 자유를 주장하여 투쟁하였던 로동자의 시체 발견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 야산에서 대우중공업 창원2공장 로동자인 올해 28살난 정경식청년의 시체가 발견되였다.

정경식은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로동자들의 투쟁에 참가하였다가 행방불명된 후 거의 9달만에 산중에서 시체로 발견되였다.

파쑈도당은 정경식이 어용로조를 반대배격하고 자주적로조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며 투쟁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자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폭압의 마수를 뻗쳐오던 끝에 지난해 6월초 깡패들을 시켜 그를 살해하고는 시체를 산속에 내다버렸던것이다.

이러한 놈들의 범죄만행을 간파한 고인의 가족들은 정경식의 행방을 괴뢰당국에 추궁해왔으며 재야단체들은 그의 행방불명사건은 《대우중공업로조문제를 둘러싼 타살》로 단정하였다.

인적없는 으슥한곳들에서 원인모르게 죽은 로동자들의 시체가 련이어 발견되고있으나 파쑈도당이 그 원인규명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파묻어버리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은 그들의 죽음이 다름아닌 군사불한당의 폭압만행에 의한 타살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남조선단신

《부산이 에이즈공포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신문이 비명

부산에서 《죽음의 병》 에이즈로 하여 큰 혼란이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에서 올해들어 발견된 에이즈환자 5명중 4명이 부산에서 발생되였다.

특히 지난 2월하순 안해와 함께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오 아무개 주민은 처음 몸무게가 줄어들고 식도에 곰팡이가 피는 증상을 보이다가 요즘에는 다리에만 있던 반점이 피부전체에로 번지는 등 2단계 증세를 나타내고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검역인원이 부족한데다가 시약마저 모자라 《예방대책이 허술한》 상태에 있는것이다.

괴뢰당국은 더 큰 소동이 벌어지는것을 막아보려고 현재 그를 딴곳에 옮겨놓고 그 장소를 일체 비밀에 붙이고있다.

남조선신문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부산이 에이즈공포에 시달리고있다》고 썼다.

파쑈도당 의식화학습 해온 대학생들을 구속

로태우군사깡패도당이 4일 지하리념써클을 뭇고 의식화학습을 하여온 서울대학교 박성군학생을 파쑈악법에 걸어 구속하였다.

파쑈도당은 이 학생이 1986년에 동료들과 함께 《우리 력사연구회》라는 조직을 뭇고 진보적서적들을 탐독하면서 남조선에서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지배계급을 타파해야 한다는 등의 의식화학습을 하여왔다고 하여 이런 횡포를 감행한것이다.

남조선변호인들이 변호활동의 자유 요구

남조선의 변호인단 60여명이 로태우파쑈도당의 탄압행위에 항의하여 지난 4일 괴뢰법무부에 성명서를 들이댔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괴뢰도당이 박 아무개 변호사에게 변호활동을 할수 없게 파쑈적 《변호사업무정지처분》을 가한 사실을 규탄하고 그것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하였다.

파쑈도당은 1985년 9월 고려대학교에서 있은 시국토론회에 참가하여 박 아무개 변호사가 반미구호를 웨쳤다는 리유로 이러한 횡포를 감행하였던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11일 (음력 1월 23일) 금요일 【루계 제10155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發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주체사상과 조국통일방침으로 무장하기 위한 의식화활동을 전개

남조선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청취

파쑈의 총칼이 숲을 이루고 삼엄한 감시와 탄압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정신무장하고 그것을 보급전파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의식화활동이 강화되고있다.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동국대학교 량홍관학생이 지난 1월초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청취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미반파쑈투쟁방도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에 대해 동료들과 후배 학생들에게 널리 해설선전하여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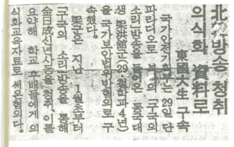
그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방송을 통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학습하여왔으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 동료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켜왔다고 한다.

이에 극도로 당황한 군사불한당은 2월 29일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량홍관학생을 체포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한편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여러 대학 학생들도 파쑈도당의 삼엄한 감시와 폭압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의식화활동을 벌려온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각계층 남조선인민들을 격동케 하고있다.

지난해 11월 반미청년회를 결성한 서울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청취하고 조직성원들을 신년사에서 밝혀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 방안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의식화활동을 벌려왔다.

그들의 의식화활동에 질겁한 로태우파쑈도당은 반미청년회를 지난 2월 24일에 있은 서울《미국문화원》점거투쟁의 《배후조직》으로 몰면서 이 조직의장인 고려대학교 학생 조 아무개와 연세대학교 학생 김 아무개를 긴급수배하고 서울지역지도위원인 고려대학교 휴학생 장원섭 등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구속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北傀방송 청취
의식화 資料로
東國大生 구속

국가안전기획부는 29일 단파라디오로 북괴의 「구국의 소리」방송을 들어온 동국대생 梁洪館군(29·철학과 4년)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梁군은 지난 1월초부터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金日成신년사등을 청취, 이를 요약해 학교 후배들에게 의식화교육자료로 써온혐의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청취한 사실을 보도한 남조선신문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려고 혈안

미제 해군함정들을 배치하려고 책동

보도에 의하면 미국무차관보 더윈스키란자가 7일 워싱톤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서울올림픽》기간에 《몇척의 해군함선들을 추가로 조선반도 린근해역에 파견할것》이라고 떠벌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계에서 올림픽과 때를 같이하는 시기에 조선반도지역에서 있게 될 미해군의 《기동훈련작전》이 그 누구를 《제지》하기 위한 《힘의 과시》로 될것이라고 떠들어댄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화약내 풍기는 폭언들과 전쟁계획들이 미국호전광들속에서 쏟아져나오는것은 올림픽을 구실로 인기없는 로태우군부독재의 《안보》를 보장하며 나아가서 전쟁도발준비를 다그치고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범죄적기도가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올림픽은 전쟁을 위한 경기도 아니며 침략무력을 시위하기 위한 전시장도 아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한적도 없으며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반도해역에 더 많은 침략무력을 배치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파쑈도당 《위장전술시범》 전쟁연습 감행

보도에 의하면 군사파쑈도당은 7일 괴뢰륙군의 한부대를 끌어내여 《위장전술시범》이라는 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괴뢰들은 이날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전술보완》을 떠들면서 미친듯이 북침전쟁열을 고취하였다.

공화국북반부침공을 가상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되는 침략무력과 군사장비들이 대대적으로 쏟아드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전쟁연습소동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군사파쑈도당은 지난 2일과 2월 24일에도 《전투시범》이요 뭐요 하는 군사소동들을 련속 벌려놓고 소란을 피운바 있다.

조국의 로동자, 농업근로자들 《팀 스피리트 88》연습 규탄

【평양 3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로동자들과 형제산구역 형산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폭로규탄하였다.

그들은 이미 1,000여개의 핵무기들을 끌어들여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화약고로 전변시킨 미제가 웅근 하나의 침략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과 군사장비들을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에서 끌어들이면서 괴뢰들과 함께 모험적인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평화와 평화통일의 극악한 원쑤이며 전쟁광신자인 미제를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그들은 미제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 설

재정사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올해에 전반적인 애국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재정사업은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은 재정사업을 애국활동을 한층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확고히 틀어쥐고 이를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정책적요구성에 맞게 적극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련의 재정토대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날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총련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으며 재정활동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총련사업도 혁명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올해의 애국과업 수행에서 더욱 풍만한 결실을 가져오는가 어떤가는 올해 재정사업에 크게 달려있다.

왜냐 하면 재정사업이야말로 총련애국운동을 물질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절대로 놓칠수 없는 근본문제이기때문이다.

사람이 생기발랄하게 살아가자면 맑은 피가 온몸에 흘러야 하는것처럼 우리 운동은 재정적 안받침이 없이는 활발하게 전개될수 없다. 이로부터 애국사업을 줄곧 확대발전시켜나가려면 마땅히 그를 물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재정문제가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더 잘 풀려나가야 하는것이다.

재정사업을 잘하는것은 일군들속에서 사기를 높이고 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며 나아가서 제기된 제반 애국과업의 수행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요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재정사업은 《잘되여도 그만》, 《잘 안되여도 그만》 하는 식으로 대할수 없는 사업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충성의 한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사업을 원만히 풀어나가겠다는 혁명적기백을 가져야 하며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아글타글 애를 써야 할것이다.

원래 사업에 대한 대담한 구상과 계획은 그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하는 문제와 떼여놓고 절대로 론할수 없다. 때문에 총련일군이라면 누구나 재정사업을 할수 있는 안목과 수완을 가져야 하는것이다.

재정사업은 중요한 정치조직사업이기도 하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총련의 사상건설, 조직건설과 밀접히 결부된 사업이다.

이로부터 찬조자대렬과 회비납입자대렬을 늘이는것은 곧 총련의 대중적지반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된다.

총련조직들은 관하동포들의 실태를 충분히 료해장악한데 토대하여 찬조자대렬을 공고확대하며 회비납입자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1세들의 애국의 뜻을 이어 광범한 새세대의 동포들과 상공인들도 더 많이 이에 망라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재정사업을 깜빠니야식으로 대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일군들 한사람한사람이 재정활동에서 사상도, 발상도, 사업도 크게 전환하는것이다.

특히 각급 기관들은 재정사업을 총련 14전대회 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튼튼한 태세를 확립하는 필수적인 고리로 틀어쥐고 뚜렷한 전망계획밑에 자립적이며 통일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그를 위하여 총련조직들은 기관의 집체적인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함으로써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남조선종교단체들의 조국통일과 반전, 반핵, 평화 주장을 열렬히 지지한다

조선기독교도련맹 위원장이 담화 발표

【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 김성률위원장은 최근 남조선종교단체들속에서 조국통일과 반전, 반핵, 평화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7일 이를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요지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29일 남조선의 기독교련합단체인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37차총회를 열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기본립장을 밝히면서 조선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미군을 철거시키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민족의 리익에 배치되는 모든 외교적 협상과 조약들을 수정폐기할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핵전쟁위험과 영구분렬위험이 짙게 드리우고있는 엄혹한 현정세하에서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진실로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주장해나서야 할 정당한 호소이다.

미제는 이미 오래전에 조선반도를 《세계전략의 제1선》으로 선포하고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켜놓았을뿐아니라 최근에는 《제2의 조선전쟁은 핵전쟁으로 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핵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다.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출로를 열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북남련석회의가 하루빨리 소집되여야 한다.

나는 이 기회에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반전, 반핵, 평화 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당면하여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나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기독교단체들이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 지지성원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인간백정을 《평화의 사도》로 내세우려는 책동은 저지돼야 한다

전두환역도를 노벨평화상《후보》로 추천한것과 관련하여 《한민전》중앙위원회 대변인이 담화 발표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한민전》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영국과 서독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두환역도를 1988년도 노벨평화상《후보》로 추천한것과 관련하여 3월 5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전두환역도를 《후보》로 내세운것은 만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희세의 정치만화라고 지적하고 이것이야말로 사회정의와 평화,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는 전두환이 《평화적으로 해결》했다는 5년전의 《칼기사건》으로 말하면 미국상전의 지령에 따라 정탐을 목적으로 려객기를 쏘련령공에 불법침범시킨 범죄사건이였고 《랑군폭발사건》과 《11.29칼기사건》 역시 식민지군부독재체제의 유지연장을 겨냥하여 조작해낸 비렬한 자작자연극이였다고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동족을 제물로 미국상전의 리익과 일신의 지배욕을 실현하려고 한 이 기상천외의 범행만으로도 전두환은 잔악무도한 흉악범으로 이미 오래전에 력사의 심판속에 처형되였어야 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전두환이 《평화적으로 해결》했다고 운운하는것은 흑백을 전도한 언어도단의 억지론리이다.

그는 전두환으로 말하면 인간백정이며 란폭한 평화교란자, 전쟁광신자로서 애당초 지구촌에 존재할 자격조차 없는 범죄자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총칼을 휘둘러 《대통령》권좌를 찬탈한 전두환은 그 첫날부터 《청와대》에서 쫓겨날 때까지 가장 횡포한 파쑈폭압으로 초보적인 민주민권마저 원천적으로 유린말살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해나선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고 고문학살했다.

특히 수천의 동족을 한꺼번에 도륙한 광주대학살만행은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만고유한으로 남아있을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머리속에 류혈참극의 악몽으로 못박혀있다.

미국의 사주하에 전두환역적은 일찌기 웰남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량민들을 학살하였을뿐아니라 권력찬탈후에는 이 땅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북침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여 광분했다.

이남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조리 징발하여 미국의 전쟁정책 수행에 탕진해온 전두환은 이 땅을 1,000여개의 핵무기로 뒤덮인 가장 위험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무모한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로 긴장격화의 발열상태를 조성하여 이 땅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였다.

이같은 죄행으로 하여 전두환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의 수억만 량심들로부터도 영원히 가실수 없는 원한과 증오의 표적으로 지탄되여왔다.

그런데도 이런 1급범죄자에게 감히 노벨평화상을 주려고 하는것은 세계의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는 천만부당한 처사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적판도에서 벌리는 국제적인 정치모략의 일환이다.

바로 미국은 희세의 파쑈폭군이고 전쟁광신자인 전두환역적을 《평화의 사도》로 내세움으로써 이남에서 감행하고있는 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합리화하며 우리 민중의 항거에 부딪쳐 전전긍긍하는 식민지하수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민의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평화유린과 매국배족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전두환역적에게 노벨평화상을 준다는것은 2차세계대전을 도발하여 인류에게 막심한 재난을 안긴 히틀러나 도죠에게 포상을 하는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배신행위인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 제정했다고 하는 노벨평화상이 평화의 유린자, 파쑈교형리들에게 수치스럽게 악용되거나 람용되고있는 사태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이를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전두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려고 하는 너절한 책동은 즉각 저지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이른바 《노벨평화상후보추천》은 무조건 철회되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겨레와 인류 앞에 저지른 전두환역적의 만고대죄를 기어이 결산할것이며 이 추악한 인간추물에게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말것이다.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소식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였던 림왕호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체육단과 박기범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중앙학원 조청반조국방문단이 9일 《만경봉》호 배편으로 원산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온성지구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 뜻깊은 55돐을 맞이한다.

조국땅에 지펴올리신 주체의 기치

—력사적인 왕재산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55돐—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1930년대전반기의 국내진출과 왕재산회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몸소 온성일대에 나가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거점으로 꾸리실 웅대한 구상밑에 1930년대초에 몸소 온성, 종성 지구에 여러차례 나가시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리고 무장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을 끊임없이 국내에 파견하시여 무장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도록 하시였다.

이런 속에서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대에 유격구가 건설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가 마련되여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무장투쟁의 불길이 날로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던 1933년초에 이르러 반일인민유격대앞에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시킬 과업이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의 불길을 국내에 타번지게 하시려고 1933년 3월 11일, 반일인민유격대 주력부대의 한대오를 이끄시고 몸소 사선을 헤치시여 또다시 온성지구에 진출하시였다.

온성을 비롯한 북부국경일대는 조선혁명의 기지로 꾸릴수 있는 유리한 지대였다.

온성, 회령, 종성 등 북부조선의 여러 지역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두만강연안 유격구와 잇닿아있으며 왕재산으로부터 함경산줄기를 타고 국내깊이에로 무장투쟁을 확대할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무장투쟁의 불길을 국내에로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에서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원쑤들의 책동이 악랄하고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일무장투쟁을 반드시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무장투쟁을 국내에 파급시키는것은 일찌기 14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투쟁을 구상하신 첫시기부터 간직하고계시던 전략적방침이며 드팀없는 의지였다.

여기에는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넘쳐흐르고있는것이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도들을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와 잇닿아있는 온성일대를 비롯하여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형식상으로는 적의 통치밑에 있으나 실제는 유격대와 혁명조직들의 지도밑에 있는 지역)를 창설할데 대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무장투쟁과 대중운동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하여 그리고 당창건준비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조선혁명이자 가장숭고한임무

위대한 수령님의 온성지구진출과 왕재산회의는 주체의 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그 당시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었다.

일제는 이 시기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놈들은 두만강연안유격구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유격구에 대한 군사적공세와 함께 경제적봉쇄, 사상적공세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런 속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투쟁방도를 찾아내고 반일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었다.

또한 조선혁명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이 시기에 와서 다른 나라 혁명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면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의 실현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한편 편협한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수행하는것을 반대해나섰다.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참으로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를 좌우하는 매우 날카로운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조국땅에 진출하시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가장 숭고한 임무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수행해나가는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권리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왕재산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적방침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이 방침에 따라 무장투쟁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북부조선일대에서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국내진출과 왕재산회의는 실로 조선혁명을 주체의 기치밑에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놓았다.

그때로부터 력사는 멀리 전진하여 혁명의 세대는 바뀌였어도 55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재산에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는 오늘도 온 조국땅우에 영원한 기발로 높이 휘날리고있다.

한 로인과 잃어버린 도끼

조국진출의 길에 있은 이야기

1933년 3월초 국내진출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두만강가인 량수천자 솔골의 한 농가에 며칠간 머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온성지구에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시는 한편 일부러 시간을 내시여 마을사람들의 일손을 성의껏 도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주인집로인들보다 먼저 일어나시여 나무도 패시고 마당청소도 하시였으며 두만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독에 가득 채워놓으시군 하시였다.

두만강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는 도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때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아침이였다.

그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가에 나가시여 얼음을 까기 시작하시였다. 얼음을 거의다 까내려가시는데 그만 도끼자루가 뭉텅 부러지면서 도끼가 얼음구멍으로 빠지고말았다.

그이께서는 장대끝에 갈구리를 매여가지고 강밑을 샅샅이 더듬으시였으나 물이 깊어서 찾아낼수 없었다. 대원들이 달려나와 함께 찾았으나 도끼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대원들은 일이 하도 딱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주인집 일을 도와주다가 그렇게 된 일인데 도끼값을 치르면 되지 않겠는가고 조심히 말씀드렸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값을 많이 주어도 손때묻은 물건을 잃은 주인의 아쉬운 마음이야 어떻게 덜어줄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계속 도끼를 찾으시였다.

강밑에 묻힌 도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수 없이 주인집로인에게 새 도끼를 구할 돈을 주시면서 거듭 사과하시였다. 로인은 유격대를 돕지 못하는것만 해도 가슴아픈데 그 하찮은 도끼가 무엇이기에 그 값까지 받겠는가고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사코 사양하는 로인의 손에 끝내 돈을 쥐여주시였다.

그때로부터 근 30년이란 세월이 흐른 1959년 여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 전적지를 찾아가는 한 항일투사를 만나신 자리에서 그때 도끼를 찾느라고 애쓰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끝내 찾아드리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가면 그 로인을 꼭 찾아서 다시한번 사과해주오.》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것이였다.

세월이 흘러가면 많은 일들이 희미한 추억으로 남고 또 사라져가기마련인데 한 로인의 도끼를 찾아내지 못하신 일이 30년가까이나 마음에 걸리시여 미안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1930년대초, 력사적인 국내진출의 로정에는 도끼이야기만이 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풍모를 전하여주는 가슴흐뭇한 이야기들이 새겨져있다.

1930년대전반기

당시자료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왕재산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온성, 회령, 경원(오늘의 새별), 경흥(오늘의 은덕), 웅기(오늘의 선봉), 무산을 비롯한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가 창설되였으며 무장투쟁의 불길은 북부조선일대에서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여러 자료들은 1930년대전반기에 수많은 정치공작원의 국내침투와 무장부대의 국내진출이 강화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함북 온성군 미포면 월파동에서는 1932년 9월 28일… 조선의 독립과 그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로농동맹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였는데(1933년 8월 3일 농민상조회라 명칭을 변경) 이 결사원들은… 인민혁명군의 선내 파견원…과 련계를 맺고 인민혁명군이 발행한 불온격문을 받아 이를 살포하는 한편 같은 해(1934년) 12월부터 1935년 2월하순경까지의 기간에 걸쳐 비단천에…수놓은 붉은 기발 십여개를 만들어 3월 2일…인민혁명군에 증정하는 등 그 련계를 긴밀히 하였다.》(《사상휘보》 제6

국경을 넘어 전개된 눈부신 무장활동

호,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6. 3)

《조선안 북부국경지방에 대한 무장공작준비를 위해 4월하순이래 각 쏘베트 유격대 및 적위대원 가운데서 유능한 성원을 선발하여 선내 무장대를 편성하여 량수천자 무산대안 간도방면으로부터 북선국경에 파견중이라고 한다.》(《공산당 최근 자료순보》 제10호, 만주국협화회 중앙사무국, 1933. 7)

무장부대는 5~6명의 소조로 혹은 40~50명의 비교적 큰 부대로 두만강을 건너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회령 대안의 공산당원 자위단과 충돌 교전, 26명이 무장하고 출현, 령경(령사관 경찰)도 출동 추격중》(《동아일보》 1933. 9)

《함북대안 각처에 무장공당원 출현, 자위단 살해코…랍거(拉去), 무기, 실탄…다수 탈취 도주, 국경…자못 흉흉》(《조선중앙일보》 193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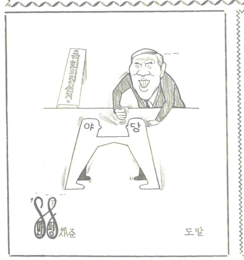
《국경의 적화운동은 직접행동으로 전환, 교통의 발전과 간도공산당의 영향으로 함북경찰 방지에 부심》(《동아일보》 1933. 12)

《온성에 침입했던 공군 경비대와 교화, 40여명의 대부대가 출현, 국경각 경찰 대긴장》(《조선일보》 1935. 1)

《국경선 돌파 40회, 무장집단 50여, …국경경비진 더욱 긴장》(《동아일보》 1935. 2)



북부조선일대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무장부대와 정치공작원의 활동에 관한 신문자료들



목소리

권리의식

사람에겐 그 누굴 불문하고 태여나면서부터 응당한 권리가 부여된다. 재일동포도 그렇다. 비록 일본땅에 사는 우리이지만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조선민족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고 하여 그 누가 선사해주는것은 아니다. ▼권리를 확보하는데서 어떤 립장에 서는가, 이미 쟁취한 기득권은 편가, 앞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이런것을 똑똑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의 신장은 고사하고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마저 잃어버릴수 있다. 그보다도 자기의 응당한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수도 없다고 본다. 사회적인간의 절대적인 요구인 자주성을 지키자면 역시 정신이 또렷하고 밝아야 하는것 같다. ▼우리는 지난날의 나라잃은 백성이 아니요, 더구나 일본의 소수민족도 아니다. 우리에겐 민족성을 상실하고서는 인간의 참다운 자유도 행복도 보람도 있을수 없다는 일제시기의 피의 교훈이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주독립국가공민의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는 립장, 우리 권리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해 공인된것이라는 립장, 일본당국은 그것을 마땅히 보장해야 할 도의적책임이 있다는 립장을 견지한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권리의식이다. ▼여기에 우리의 권리옹호운동의 출발점이 있고 전제가 있다. 그것은 이국땅에서 조선민족을 지켜내느냐 어떤가 하는 가장 심각한 투쟁에서 집약되였다. 일본당국의 일관한 재일조선인정책은 탄압과 동화에 있었다. 탄압이건 동화이건 어느것이나 이 땅에서 우리 동포들이 조선민족으로서 떳떳한 삶을 향유하는것을 부인하려는 점에선 본질상 똑같다. ▼여기에 남조선괴뢰들은 력사적으로 기민정책으로 맞장구쳐왔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자주성을 유린하고 그들을 정치적롱락물로 만들려는데서 동일선상에 있다고 단언한다. 오직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교포보호정책과 총련의 권리옹호투쟁 속에서만 우리의 권리의식은 꽃으로 피여날것이다. 동포들의 기본적인권도, 상공인들의 경제활동도 그 길에서만 참답게 고수발전될수 있다 하겠다.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 협조 조약 체결 2돐에 즈음하여 외교부에서 연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꾸바공화국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2돐에 즈음하여 외교부에서는 7일 저녁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서는 김형률부부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두 나라사이에 맺어진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에서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대사 리까르도 단싸 씨가스가 연설했다.

그는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기간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해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

밑창이 다 드러난 파렴치한 모략극

앞뒤를 맞추어보려고 거짓을 거듭

나치스 히틀러의 수법을 본딴 황당한 소리

로태우일당에 의한 파렴치한 날조조작극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날조해낸 괴뢰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5일, 그 무슨 발표놀음을 벌려놓고 1972년 11월 평양에서 있은 북남조절위원회때 《아까하다》 특파원이 찍은 사진을 들고나와 거기에 찍힌 소녀가 《김현희》의 어릴 때 모습이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려놓았다.

《안기부》는 그 사진을 《김현희》에게 보이니 《얼굴을 붉히면서 인정》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거짓설명까지 늘어놓았는데 이것이 황당한 조작극이라는것은 6일에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을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 론평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72년 11월의 조절위원회때 남측대표였던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녀학생은 현재 평양에 있으며 그의 이름은 정희선이다.

일본공산당 출판물이 내놓은 사진에 찍혀있는 소녀가 분명히 평양에서 살고있는데 그가 어떻게 《김현희》로 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한 괴뢰악당의 반공화국소동이 온통 거짓으로 꾸며진 날조극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물에 빠진자의 또하나의 날조소동

《거짓말도 백번 말하면 사실로 된다》는 말은 나치스의 선전상 겟벨스가 한 망언이다.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을 《북에 의한 폭파테로》라고 우겨대는 괴뢰악당의 악착한 소동은 나치스의 이 수법을 본딴 거짓투성이의 날조극이다.

괴뢰들은 비행기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수사결과》의 허황성이 드러나자 앞뒤를 맞추어보려고 새로운 거짓말을 꾸며내는것을 서슴지 않고있다.

이번에 《안기부》가 《아까하다》 특파원이 찍었다는 사진이 공표되자 즉시로 《공식발표》놀음을 벌려놓고 그것이 《김현희》에 틀림없다고 우겨댄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괴뢰들은 《김현희》를 어떻게나 《북의 공작원》으로 날조해보려고 북남조절위원회때의 꽃다발증정을 운운하면서 《김현희》의 소녀시절의 사진이란것을 내놓았다.

그러나 《안기부》가 괴뢰어용언론을 통하여 퍼뜨려놓은 사진이 72년 11월의 조절위원회때의 사진이 아니라 72년 8월의 적십자본회담때의 사진임이 총련중앙의 기자회견(2월 4일)에서 낱낱이 드러났으며 《안기부》가 내놓은 꽃다발을 주는 순간을 찍었다는 사진도 아무런 근거없는 모략이라는것이 밝혀진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김현희》를 《북의 공작원》으로 날조하기 위한 유일한 《물적증거》로 내놓은 사진의 허황성이 폭로되자 당황한 《안기부》깡패들은 《아까하다》 특파원이 찍은 사진에 매여달리게 된것이다.

당초에 내놓은 사진의 허황성이 폭로되자 《아까하다》 특파원이 찍은 사진에 매여달리는 《안기부》깡패들의 졸렬한 소행은 저들이 꾸며놓은 모략소동이 붕괴되여가는것을 막아보려는 발악적소동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안기부》는 물에 빠진자가 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아까하다》 특파원이 찍은 사진을 두고 조절위원회때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가 《김현희》라는것이 《확인》되였다고 우겨대였으나 이 날조극의 밑창은 이미 다 드러났다.



《꽃다발증정》사진의 허황성을 폭로한 총련중앙 기자회견(2월 4일)

꽃다발을 준 소녀는 정희선

—현재 평양외국어학원 교원—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72년 11월의 북남조절위원회때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것은 현재 평양외국어학원 교원으로 있는 정희선이다.

1960년 5월 7일생인 정희선은 평양금성중학교 재학중인 72년 11월에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것이며 그후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였다.

론평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정종여는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로 있다가 1984년 12월에 사망했고 어머니 박인숙은 지금도 중구역 경림동 16반에서 살면서 가내편의 수예공으로 일하고있다. 또한 정희선의 남편은 1972년에 일본에서 귀국한 귀국자이며 현재 국제관계대학 연구사로 일하고있다.

이와 같이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녀학생이 분명히 평양에 살고있는데 《아까하다》 특파원이 내놓은 사진에 찍힌 소녀가 어떻게 《김현희》로 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괴뢰악당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악질적인 날조군들이라는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일부 사람들은 아무리 괴뢰들이라고 하여도 금방 밝혀질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겠는가고 갸우뚱하는데 괴뢰들은 지금까지도 새빨간 거짓사실을 조작하는 모략소동을 수없이 감행하여왔다.

최근년간만 보아도 86년에 있은 《김포비행장폭파사건》이 그랬고 《공화국이상사태설》 또한 그러했다.

《공화국이상사태설》만 보아도 괴뢰들이 괴뢰국방부를 정면에 내세우고 온갖 반공화국선전을 늘어놓은것은 기억에 생생하다.

불과 며칠만 있으면 진상이 밝혀지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면한 《정권》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해 날조해낸것이 바로 《공화국이상사태설》이였던것이다.

이번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한 모략소동도 군정의 연장과 로태우군사독재《정권》의 《안정》을 노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불과하다.

그것은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녀학생인 정희선이 평양에 현존하고있다는 하나의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괴뢰악당은 이미 밑창이 다 드러난 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괴뢰들의 거짓정보에 춤추지 말아야 한다. 괴뢰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것은 저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놓을 결과밖에 초래할것은 없다.



장기영이 참가조차 하지 않았던 72년 8월의 북남적십자회담때의 《꽃다발증정》사진

어리석은 《반론》놀음

제도끼로 제발을 찍는 격의

《슈깡다이슈》 3월 21일부에 일본의 《당국자》, 《조선문제전문가》들의 소위 《반론》이란것이 실렸다.

본명과 익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 이 《반론》이란것이 《슈깡다이슈》 3월 7일부 및 14일부에 게재된 본사기자의 수기에 대한 《반론》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남측의 《공적기관》(아마도 괴뢰대사관일것이다)도 《재일기관》도 《론쟁할것을 피하고싶다.》고 하는데 웬 말인가. 저들이 꾸며놓은 모략의 허황성이 드러나고보니 할 말이 없는가부다.

그래서 손때묻은 일본의 《조선문제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이 등장하는데 본사기자가 당당히 본명으로 내놓은 수기에 대해 익명이라니 또 무슨짓인가.

더구나 소위 《반론》이란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구로 일관되고있으니 놀라운 노릇이다.

본사기자의 수기가 지적한 본질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소위 《김현희》의 《경력》이 날조되였다는 사실이다.

《안기부》발표에 의하면 《김현희》는 6살(1968년)때 인민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데 그당시 우리 나라의 학교제도로 보면 인민학교 입학년령은 7살로서 6살입학은 있을수 없다는것이다. 즉 《김현희》가 62년태생이라면 69년에 인민학교(4년제)에 입학하고 중학교에는 1973년에 들어갔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현희》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해인 72년에 남측대표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는 《안기부》발표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학교제도에 따르면 《김현희》가 중학교에 입학한 해는 73년으로서 72년당시는 아직도 인민학교 학생이기때문이다.

그러니 《김현희》가 7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고 꽃다발을 주었다느니 뭐니 하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것이다. 이는 《김현희》의 《경력》이란게 온통 날조되였다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소위 《반론》이란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말하니 정확》하다는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얼버무려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였다.

또 바꿈돈이 소위 《은혜》가 《김현희》를 《교육》하던 기간에는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금성정치군사대학》이란 《공작원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온갖 궤변으로 《반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에 찬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고있으니 어안이 벙벙해진다.

그외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사기자의 수기에 대하여 근거를 가지고 《반론》한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안기부》의 반공화국소동이 황당한 모략이라는것을 증명하여줄따름이다.

그러니 소위 《반론》이란게 제 도끼로 제발을 찍는 격의 말놀음으로밖에 될수 없었던것도 리해할만하다.

(본사기자 김)

《미국의 〈제재조치〉는 려객기사건의 배후공범자라는것을 드러내놓았다》

공정한 세계여론에 대한 우롱

여러 나라 보도물들이 규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려객기사건과 관련한 미제와 일본,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을 폭로규탄하는 글들을 발표하였다.

불스까신문 《뜨리부나 류두》, 웽그리아신문 《네프싸바드샤그》, 로므니아신문들인 《쓰끈떼아》, 《로므니아 리베러》, 《쓰끈떼아 떠네레뚤루이》는 남조선려객기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날조사건이라고 폭로하였다.

꾸바신문 《그란마》와 이 나라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인도네시아신문 《메르데까》와 이 나라의 안따라통신, 뻬루신문 《라 레뿌블리까》, 룩셈부르그신문 《짜이퉁 품 레쩨부르게르 폴레크》, 마다가스까르 라지오방송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밑에 려객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끌고간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을 폭로하는 글들을 발표하였다.

글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에서 안보의 사명과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남조선려객기사건이 론의된데 대하여 비난하고 이것은 유엔헌장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대한 우롱으로,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단마르크신문 《란드 오그 폴크》는 미국의 이른바 《제재조치》라는것은 세상사람들의 의혹속에 싸여있는 남조선괴뢰들의 《수사결과》라는것을 합리화하고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부추겨주며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비렬한 행위이며 미국이 남조선려객기사건의 배후공범자라는것을 드러내놓은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은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각종 모략사건들을 꾸며내여 북조선을 반대하는 소동을 일으켜왔다고 썼다.

뉴니지신문 《악숑》, 우간다신문 《응가보》, 파키스탄신문 《잉글라브》들도 최근 려객기사건과 관련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각국 사회단체들이 성명

려객기사건과 관련한 미제와 일본,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규탄하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져메이커독립로조행동위원회와 그 산하조직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는 려객기사건과 관련한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은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미제와 일본, 남조선당국자들이 려객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부당하게 끌고간 목적이 사건을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는 려객기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무런 련관도 없으며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자작자연극이라고 선언하였다.

져메이커독립로조행동위원회와 산하조직들의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은 조선의 북과 남의 통일을 방해하고 민족적대단결을 막아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외세와 결탁하여 잔인하고 간악한 려객기사건을 조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그 책임을 넘겨씌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을 가장 강력히 그리고 견결히 규탄한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니까라과가 미국의 《제재조치》를 규탄

니까라과공화국 외무성이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하여 공화국에 대한 이른바 《제재조치》를 취한 미제의 파렴치한 책동을 규탄하여 2월 2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지난 1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미국이 발표한 이른바 《제재조치》가 통일되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하나의 조국을 가질데 대한 조선인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저들의 침략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이라고 보면서 이를 가장 준렬히 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이와 같은 책동은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 아세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세계적으로 벌리고있는 미국의 국가테로정책의 한구성부분이다.

니까라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려객기를 폭파시킨 진범인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내놓도록 요구할것과 이러한 적대적깜빠니야가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구실로 되는것을 허용하지 말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한다.

주구를 구슬려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공약》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25일에 있은 이른바 《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해 남조선행각에 나섰던 미재무장관 베이커란자가 서울에 머무르는 기간 로태우일당과 모의하면서 남조선이 양담배와 소고기 문제 그리고 지적소유권 등 《3대경제현안》을 해결할것과 빠른 속도로 《원》의 시세를 올릴것을 촉구한데 대해 괴뢰들로부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대신 로태우역도에게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안보공약》이 확고하다는 《담보》를 주었다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정권》강도로 반대배격을 받고있는 로태우역도에게 입김을 불어넣고 그놈을 구슬려 남조선시장을 전면개방하고 식민지적략탈을 보다 강화할수 있는 넓은 길을 터놓았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해준것이다.

원래 미제가 떠벌이는 《안보》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뿐아니라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교두보로 틀어쥐려는 기만적인 구호이다.

그런데 이날 베이커가 괴뢰들에게 담보한 《안보공약》은 로태우독재《정권》에 대한 《안보공약》으로서 저들의 식민지번견으로서의 충성을 다할 때만이 무력으로 끝까지 밀어줄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공약》이 그대로 지켜질수 없다는것을 은근히 암시한것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신문이 미국신문들의 보도내용을 소개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일부는 최근 미국의 주요신문들이 남조선에서 반미감정이 더욱 높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전한 글을 실었다.

《위싱톤 포스트》지는 청년학생들의 서울《미국문화원》점거투쟁은 《새로운 형태의 반미주의가 남조선에 뿌리를 내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은 미국이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남조선에 대한 통상압력을 더욱 가중하고있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또한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반감을 상세히 소개한 다음 《경제적론쟁보다 더 중요한것은 남조선의 거센 민족주의》라고 하면서 그것이 농민들과 학생, 기업인들을 모두 련결시키고있다고 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기념
《재일본조선인예술경연대회》가 진행된다

1) 중앙예술경연대회

(1)시일 및 장소

(4)경연종목

독창, 2중창(3중창 포함), 중창(남, 녀, 혼성), 합창, 가야금병창, 기악독주, 기악중주(양악기, 민족악기), 기악합주, 독무, 쌍무(3인무 포함), 중무, 군무, 시랑송, 재담

※경연종목은 모두 자유선택

(5)작품규정

· 조국과 총련에서 창작된 작품

· 총련애국사업,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

(6)경연단위

경연은 일반부문과 청년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된다.

※일반부문에는 총련, 녀성동맹 혼합으로 출연할수 있다.

(7)류의점

· 지휘는 합창, 합주에 한한다.

· 반주자와 반주음악은 출연자가 준비한다.

· 성악부문경연에서 가사는 끝절까지 부른다.

· 경연은 1개 작품을 가지고 참가한다.

· 창작품이 많이 나오도록 하며 창작품은 그 자료를 총련중앙 선전국 4부에 제출할것이다.

2) 지방예술경연대회

(1)시일과 장소(도표 참조)

· 지방경연에 앞서 본부경연을 실시할것이다.

· 호꾸싱지방은 간또와 도까이, 긴끼의 가까운 지방에 참가할것이다.

(2)시상

각 종목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을 정하며 이외에 창작상, 노력상의 상장이 수여된다.

지 방	시 일	개최지본부
간 또	7월 3일(일)	도 꾜
도 호 꾸	7월 5일(화)	미 야 기
혹가이도	7월 7일(목)	혹 가 이 도
도 까 이	7월 9일(토)	아 이 찌
깅 끼	7월 10일(일)	오 사 까
쥬시고꾸	7월 11일(월)	히 로 시 마
규 슈	7월 12일(화)	후 꾸 오 까



지난해에 진행된 지방예술경연대회

[시] 소리

정 화 흠

여기에선
버들개지 피는 소리
저기에선
진달래 꽃망울이 벙그는 소리

여기에선
파—란 시내물이 조잘대는 소리
저기에선
노—란 바람이 다정히 속삭이는 소리

소리, 소리
봄 오는 소리
그 소리속에
들려오는 청맑은 노래소리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일제히 울려퍼지는
저 노래소리

마음은 날개돋아
희망은 공처럼 부풀었느냐
터질듯이 부르고 또 부르는
졸업하는 학생들의 저 우람찬 노래소리

아, 그래서 봄은 오는것이여라
그래서 꽃은 계속 피는것이여라

(문예동맹원)



우리 나라 문예소식

새로운 문예도서들을 출판
시집, 소설집, 혁명가요집, 화첩 등 다양하게

보도에 의하면 최근 조국의 문예출판사와 금성청년출판사에서는 시집, 동요동시집, 장, 중편소설들 그리고 혁명가요집, 화첩 등 새로운 문예도서들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시집《백두의 노을》에는 《백두산의 생가》, 《삶의 높은 언덕우에서》, 《소중한 하루》, 《당원》을 비롯한 70편의 시가 묶어져있으며 동요동시집《온 나라 꽃봉오리 영광드려요》(9)에는 수십편의 동요동시들이 수록되여있어 언제나 마음의 고향으로 그리는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심정과 우리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높은 시적형상으로 일반화되여있다.

화첩《주체건축의 새시대》에는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중심으로 하여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서는 광복거리 형성안과 주요건축물들을 생동한 화폭으로 소개하고있다.

새로 출판된 소설들은 장편소설《두만강의 봄》과 《전선》 제1부 《불타는 길》 그리고 중편소설들인 《고향길》, 《례사로운 계절》, 《푸른 꿈은 어디에》이다.

장편소설《두만강의 봄》은 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떨쳐나선 두만강의 역섬지구 청년들의 생활을 그리고있으며 장편소설《전선》제1부 《불타는 길》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과 방침을 받들고 1차남진의 길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한 어느 한 인민군부대 전사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중편소설《푸른 꿈은 어디에》는 일본땅에서 민족의 넋을 지켜 조선사람찾기운동에 떨쳐나선 한 재일조선학생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또한 새로 출판한《혁명가요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친히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들을 비롯하여 수십편의 혁명가요들이 해설과 함께 편집되여있다.

이밖에도 청소년학생들에게 세계의 문학작품들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줄 세계아동문학선집의 속편들도 여러권 번역출판됐다.

문학비평
현실접근노력 평가된다
주장이 더욱 뚜렷했으면
최근시기 지역지들에 소개된 소설작품을 놓고

리 상 민

총련의 새로운 사업환경의 요구에 맞게 오늘 전반적문예운동은 더욱 활성화되고있으며 각 지방 문예동지부에서도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있다.

그 사실은 최근시기 발표된 기관지들의 소설작품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확증된다.

《비행장》(김영곤 작, 《문예효고》 6호)은 녀성동맹전임으로 사업하는 주인공이 1987년 6월항쟁에 무한히 고무되여 조국통일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는 이야기를 펼쳐보였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어렵다고 뒤로 미루는 일군들의 틀린 관점을 지적하고 신념을 가지고 뚫고나가면 전진이 있다는 주장을 천명하고있다.

《두꾸레미》(박순영 작, 《산울림》 28호) 역시 2세어머니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깨지 못하는 3세의 어린 딸에게 어떻게 진실을 안겨줄것인가고 고심하는 심정을 그렸다. 1세인 고모가 《고향방문》한 사실을 조국에 갔다왔다고 리해하고있는 딸을 대하는 주인공의 내적갈등의 설정은 예리하며 분렬의 아픔이 실로 자그마한 가정의 세부에까지 미치고있을뿐더러 철없는 새세대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비쳐주고있다는 현실분석은 날카롭다.

《하늬바람》(전공호 작, 《봉화》 2호)은 자본주의 사회의 오물탕을 헤치며 남의 반감을 사서까지 돈을 버는 지역상공인이 학교사업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형상을 통해서 애국적상공인의 생활적단면을 탐구하였다.

상술한 3작품에 공통되는것은 창작적자세에서 보다 현실에 접근하려는 의욕이 대단한것이며 그것은 곧 지난 시기의 도식화된 틀을 마스자는 창조적시도의 발현이다.

다른 한편 오늘의 과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동성과 호소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벽소설이 각 지방에서 다양하게 창작보급되고 대중교양에 이바지하고있다는 점도 놓칠수 없다.

그러나 짧은 형식의 소설일수록 단 하나의 문제설정이 날카로와야 하고 정책적주장이 뚜렷해야 하며 또한 그만큼 세련된 언어 구사와 구성의 함축성이 요구되는것이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는 애국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이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이때 그들의 투쟁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고무추동하는 소설작품이 수많이 창작보급되여야 할것이다. (조대 문학부 교원)

제16차학생미술전람회 1등작품



유화 《조국》

오사까조선고급학교 2학년 리천혜

우리 학생들의 불타는 조국애의 한토막

남조선의 민주화를 위한 6월항쟁을 종자로 삼아 구성한 그림입니다.

투쟁은 날마다 치렬하게 전개되여 군사독재자들은 표면상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 력사발전의 주인으로 등장한 청년학생들의 희생적인 투쟁모습은 우리 고급부학생들의 조국애에 불타는 심금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이 그림은 이역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민주화를 부르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가두선전사업에 떨쳐나선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낸것입니다. 재일조선청년들의 조국애의 한토막이며 미더운 후비들의 모습입니다. 그림이 그저 곱고 아름다운것이 아니라 호소의 무기의 역할을 논다는 인식이 이 그림의 밑바닥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배경의 도식화된 모습도 이 주인공의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것으로서 간략하게 표현되였습니다. 대담한 구상이 청년답습니다. (김)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ています
「日本語版」への感想、ご意見をはじめ、皆様の住む地域で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16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 朝鮮新報社「日本語版」編集部
TEL 03 (260) 5881 内線 453・435 436・428

KAL機事件など
各地で遊説始動
ビデオ上映、対外活動を
諸般の課題遂行にも意欲

総聯中央は内外反動らの反共和国、反総聯謀略策動に対処して、より果敢な闘争を展開すべく大衆的な遊説をこの二月末から三月にかけて集中的に行うことを決定した。KAL機事件と関連した反動らの謀略策動を粉砕し、社会主義祖国の擁護と総聯組織を守り、在日同胞の諸般の権利と祖国統一のための愛国運動を一層進展させようとの目的に沿って展開されているもので、①広範な同胞たちの間で遊説を行う②南朝鮮人民の闘いを支援し、謀略騒動の本質と真相を民団同胞たちに知らせる③対外活動を機関的な取り組みで強化する——などを活動内容の柱としている。

周知のように、南朝鮮軍事集団は米・日当局と結託してKAL機事件を「北の犯行」にでっちあげ、すさまじい反共和国、反総聯キャンペーンを行ったが、総聯はこの期間、全組織をあげて謀略の真相を暴露し、その策動を粉砕する闘争を各地で繰り広げた。

総聯中央はその闘争を通して得た教訓として、活動家らが謀略策動の本質を見抜き、揺ぎない確固とした立場と姿勢を堅持して闘争に立ちあがるならば、広範な同胞たちの力を結集でき、また、対外活動の積極化による日本国民の支持も得ることが出来ると指摘、今回の遊説においてもその経験と教訓を十分に生かすことが強調されている。

運動期間、全ての機関で地域別、階層別に広範な同胞たちを網羅して遊説が行われるが、その内容は「内外反動の謀略策動を粉砕して社会主義祖国の尊厳とわれらの権利を擁護しよう」と題する講演とビデオ上映、各種宣伝物配布、街頭宣伝、抗議行動 [illegible]

[illegible] 民団同胞たちに知らせる活動も活発に行っていく。

さらに対外活動を組織をあげての取り組みで強化する必要性と、その方途について指摘され、日本の各界各層の人士や市民、マスコミなどへの対応と、各種宣伝物の配布、ビデオ「南側の自作自演劇」（総聯映画製作所）の上映などを通して一層の支持世論を高めるべきだとされた。

現在、各地の機関では総聯中央の取り決めと方向に沿って遊説を力強く展開、これと並行して諸般の運動課題の遂行にも意欲的に取り組んでいる。

名古屋市議会での差別発言
自民党市会議員団が正式謝罪

さる二日の名古屋市政調査会建築交通部会における自民党所属・杉浦重太郎市会議員の、在日朝鮮人べっ視発言の取り消しと正式謝罪を求めていた総聯愛知県本部に対し、自民党名古屋市会議員団は四日、回答文を通じて謝罪の意を伝えてきた。そして、八日には同議員団・西村次男団長が総聯本部代表らと会った席上で、杉浦議員の発言に対して正式に謝罪した。

回答文によると、「関係方面に迷惑をかけて遺憾である」とし、「不適切な発言はまったくの錯覚によるもので、本人に反省を促した」となっている。これを受けて総聯本部は抗議行動のひと区切りをつけるとともに、引き続き、差別発言には断固対処していく決意を新たにしている。

総聯本部と当該地域である名港支部・汐止分会の同胞たちは「発言」が発覚した当初から激しい抗議行動を展開してきた。既報の通り、各方面に対する総聯代表らの抗議・要請文の提出に始まり、四日には汐止分会での抗議集会と続いた。

さる七日にも四十人が参加して、汐止分会で抗議集会が開かれたが、自民党の関係者が同席する中、差別発言の取り消しと謝罪を強く求めたという。

総聯代表らは抗議行動を区切るにあたり、八日、日本社会党、民社党、公明党の事務所を訪ね、各党の支援に対して謝意を表明した。各党の市会議員たちは「自民党が謝罪内容の文書を送ってきたのは総聯の正しい闘争の結果である」と述べ、激励の意を表したという。

盧一派

わずか1分で小選挙区制強行可決



怒号とビラが乱舞する中、強行採決された選挙法案

安定多数保障の自動装置

ソウルからの報道によると盧泰愚民正党は八日午前二時過ぎ、臨時「国会」本会議を抜き打ちし、小選挙区制を骨子とする「国会」議員選挙法を、わずか一分足らずで強行可決した。それは徹底して民正党に有利になっており、盧一派が「国会」で安定多数を確保し、軍政継続の土壌を築こうとしていることをはっきりと示した。

与党"勝利"を約束

当初民正党は、一区一～三人の複合選挙区制を主張していた。農村は一区一人、都市では一区二～三人選出とすることで、野党にも一定議席を与える一方、民正党の安定多数を確保しようということであった。

とくに一区二人の中選挙区制を主張していた民主党を、選挙法の改正交渉を通じて権力圏内に引き込み、民主党の野党第一党の地位を保障して、「保守大連合」を実現しようという狙いがあった。

だが民主党は在野民主勢力の強い圧力と、「大統領」選挙結果の責任という問題もあって、党論を平民、在野の主張する小選挙区制に修正。「保守大連合」の目論見が消えた民正党は、小選挙区制を取る以外になかった。

民正党が強行可決した改正案は、南朝鮮全土を二百二十四選挙区に分けた一区一人選出の完全小選挙区制。

ただし「与村野都」、つまり与党は都市で弱いといわれた歴代選挙の結果を考慮して、選挙区を都市部四、農村部六の割り合いで振り分けたゲリマンダーに徹している。

たとえばソウル、釜山、大邱、仁川、光州の五大都市の選挙区は、野党案より二十九も少ない七十八。これを六大都市（大田を含む）でみると、全人口の四十五%を占め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選挙区数は総数の三十五%。全州、蔚山、馬山、清州など中都市まで含むと全人口の半分、選挙区は四〇%でしかない。

そのうえ地方区の三分の一（七十五議席）の全国区（比例配分）があるが、これは地方区で五議席以上獲得した各党に、獲得議席の比率で配分する。

ただし地方区第一党の議席が過半数に満たない場合は、その第一党に全国区議席の半分を配分するという二段構えで、民正党の安定多数議席獲得を徹底して保障している。

在野新党の進出も

盧一派にとって総選挙での"勝利"は、民主勢力が徹底して否定した新「政権」の正統性を形だけでも整えるためにも至上命令となっている。

そのため改正選挙法には不正選挙防止条項が無いばかりか、「大統領」選挙でも不正の温床となった不在者投票はそのまま維持されている。

だが他方、民主勢力にとっても盧「政権」の不当性を立証し、在野民主勢力の公開的な政治の場に橋頭堡を築くためにもきわめて重要な闘争だ。

とくに在野新党の「国会」進出は、これまで違法とされてきた民主化運動を公開的な政党活動として展開できる、幅広い活動の場を確保することを意味する。拡大平民党や在野新党が完全小選挙区制を主張したのもそのためだ。

たとえば、小選挙区制では一選挙区の人口が九万人弱から三十五万人規模で、各選挙区での争点が地域住民の利害関係と密着しやすい。

都市部では労働者の賃上げや民主労組結成自由の問題が、また農村では現在農民にとって死活問題となっている米国産農産物の輸入自由化問題などが、そのまま政治問題化する可能性が大きい。

また小選挙区制では金力と組織力に勝る民正党の"裏路地選挙"の不正がきわめて効果を上げやすくなるが、逆に言えば小さく区切られた地域での不正は目につきやすく、その分民主勢力の不正糾弾闘争も組織しやすい。

つまり総選挙が南朝鮮民衆の民主化闘争として展開される可能性があるのだ。そのうえ野党の統合が実現した場合、たとえ総議席で民正党が勝ったとしても、都市部での統合野党の圧勝は十分に考えられ、「国会」を民正党の独壇場にしようとする軍事政権の目論見は厚い壁にぶつかることになろう。

今後約四十日にわたって選挙熱風が再び南朝鮮を覆うことになる。この時期は学生運動や春闘とも重なっている。民主化闘争の再高揚もありうるといえそうだ。

民主化闘争の高揚も



「ありがとう」と卒業生たちが先生を胴上げ（写真は東京朝高）

各地の朝高で87年度卒業式

卒業生は同胞の誇り
——総聯中央、祝賀文——

各地朝高の一九八七年度卒業式が、五日（東京、北海道）、六日（東北、神奈川、茨城、愛知、京都、大阪、神戸、広島、山口、九州）の両日にかけて行われた。

総聯中央常任委員会は、各校に祝賀文を送り、民族の一員として、愛国運動の担い手として成長し、人生の新たな出発をめざす卒業生たちを祝福した。

祝賀文は、祖国を遠く離れた異国の地で、民族の代、愛国の代を継ぐ新しい世代である卒業生たちは、総聯およびすべての同胞の誇りであり喜びであると述べた。その上で、一世同胞や父母たちが血と汗で守り発展させてきたわが組織や学校をはじめ、すべての総聯の機関や事業体を卒業生たちが今後も引き継いで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祝賀文はまた、とりわけ内外での反共和国、反総聯の謀略策動が強まる中で、卒業生たちは互いに協調し、信念をもってさまざまな分野にチャレンジ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た。そして共和国の社会主義建設や祖国統一偉業に寄与することによって、共和国創建四十周年を輝かしく迎えようと強調した。

一方、各地に先がけて行われた東京朝高の高級部普通科第三十八期、商業科第十二期の卒業式は、学生、教職員、父兄ら千八百余人が参加して東京朝鮮文化会館で行われた。

卒業式では総聯中央副議長である総聯東京都本部・裵秉斗委員長が、総聯中央が送る祝賀文を伝えた後、蔡鴻悦校長が学事報告を行った。

一世評
「韓日新時代」の状況

「日韓賢人会議」が発足するという。

双方の識者らによって、二十一世紀に向けた関係のあり方をさぐっていくのが目的と報道されている。

とりわけ文化問題など、これまで南朝鮮側の「日本の思想攻勢」を危惧する反発によって、手が触れられなかった分野での交流に重きが置かれている。

周知のように、政治の分野においては一九八二年の中曽根首相のソウル訪問—四十億㌦の軍事援助提供によって「韓日新時代」というものが構築された。

ホットラインの開設や親書を持った密使の往来が頻繁となり、双方の意思疎通は、日本の与野党間のそれよりも緊密の度合いを深めたといわれている。[illegible]（彦）

民族教育の関心高まる
兵庫・北播で講演会

総聯兵庫・北播支部第三回教育講演会が六日、西脇カルチャーセンター研修館で行われ、西脇朝鮮初級学校の父兄をはじめとする北播地域の同胞約七十人が参加した。

この日、講演会では「民族教育について」というテーマで、朝鮮大学校教員の卞宰洙氏が講演を行った。

氏は講演の中で、学歴偏重の日本の社会で、民族教育を守っていくことが、いかに大切かをわかりやすく説明。

ある参加者は「民族教育の素晴らしさがよく分かった。これからは総聯支部、分会のみんなが力を合わせてウリハッキョの発展のために頑張っていきたい」と語った。

またこの日、参加者の中から幼稚班入園の願書を提出した同胞も現われ、地域同胞の民族教育に対する関心をより高める重要な契機となった。

講演会に先立ち、会場では映画「オモニの願い」が上映された。



講演に聞き入る参加者

今週の出来事

故周恩来氏誕生90周年に際し「労働新聞」「民主朝鮮」紙が記念論説

五日付の「労働新聞」と「民主朝鮮」紙は、中国の故周恩来元首相の誕生九十周年に際し、記念の論説を掲載した。

「労働新聞」は論説の中で、故周恩来氏は「金日成主席と久しく厚い友人関係を結び朝中関係を強化発展するうえで特出な寄与をした」と指摘、「いかなる困難や試練や荒波のなかでも朝中友好を固守し、両党、両国、両人民間の兄弟的友好と団結を強化するためすべての心血を注いだ」「さらに、朝鮮人民の祖国統一偉業を積極的に支持し、自身が直接国際舞台で朝鮮統一問題の正当な解決をめざし多くの努力を傾けた」と称え、朝中友好は日ごとに強化発展していると主張した。

一方、「民主朝鮮」紙は、「朝鮮人民は朝中友好の強化発展に捧げた周恩来同志の不滅の功績を一時も忘れないであろう」と強調した。

「民青学連」事件裁判の弁護士 13年8カ月ぶりに「無罪」判決

さる七四年の南朝鮮「民青学連」事件裁判に関連して懲役刑、資格停止を受けていた姜信玉弁護士が、ソウル「高等法院」刑事第一部でこの四日、十三年八ヵ月ぶりに「無罪」判決を受けた。

姜弁護士は、「民青学連」事件の裁判が行われた軍事法廷での「法が政治権力の侍女」「司法による殺人」といった弁論の内容が「大統領緊急措置」三、四号違反および法廷侮辱罪容疑に問われ、一審、二審にあたる「非常普通軍法会議」「非常高等軍法会議」で、懲役十年、資格停止十年を宣告されていたもの。

この判決に対し、「検察」当局は「問題がある」として、不当にも再度上告するかまえを見せている。

3千余人の市民ら「特赦」糾弾 「政治犯」家族も、連日闘争

盧「政権」の欺まん的な「特赦」を糾弾し、南朝鮮の民主化勢力が、連日デモ、集会などの抗議行動を繰り広げている。

ソウル市内の延世大学で五日、民主争取国民運動本部などの主催による「政治犯全員釈放、手配解除争取、反独裁闘争決議大会」が、三千余人の市民、学生らが参加して行われた。大会参加者らは、盧一派の「特赦」が千二百余人の「政治犯」の内百二十五人を釈放したに過ぎない欺まん的なものだと糾弾し、「政治犯」全員の即時釈放を要求。また、「国家保安法」の撤廃など十項目の要求からなる宣言文を採択した。参加者の内、学生ら五百余人は集会後、学外でデモを行った。

またこれに先立つ四日には、「政治犯」家族ら三十余人が「青瓦台」前で、「無実の息子を返せ」「なぜ夫を監獄にとじこめるのか」などと、「全政治犯の即時釈放」を叫んでデモ。反「政府」デモが「青瓦台」前で行われるのは、ここ数年無かったことである。

手記

体験入学きっかけに ウリハッキョへ

川崎朝鮮初中級学校 中2 李竜二

この手記の筆者は今年の一月から、川崎朝鮮初中級学校中級部二年に編入した李竜二君。それまで通っていた桜本中学校では成績優秀で、バレーボール部のキャプテンを務めながら、楽しい学校生活を送っていた。李君に「絶対イヤー」と思っていた朝鮮学校への編入を決心させたのは、たった一日の体験入学から生まれた、ウリハッキョ学生との触れ合いだった。さる二月十二日、同校で開かれた芸術発表会に李君は、自ら主人公として出演。編入に至る過程を歌と話で紹介し、観衆たちに深い感銘を与えた。

ぼくは今、ウリハッキョでトンムたちと楽しく勉強し、いろいろと学んでいます。今まで（二学期）は、日本学校に通っていたけれど、今はウリハッキョで祖国のことを知り、朝鮮人としてガンバッていこうという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そして今、自分でもウリハッキョに来てヨカッタ、今までの自分とは変わったなあと思っています。

最初、「ウリハッキョに来てみたら」とさそわれたとき、すごくいやでたまりませんでした。それまで「チョーセン学校はこわい学校」との印象を持っていたからです。けれどもアボジ、オモニや周りの人のすすめに逆らいきれず、しょうがなく「体験入学」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それは昨年の十月十五日。朝から雨が降る中、ソンセンニムとトンムたちが車で、家まで迎えに来てくれて、おどろきました。ソンセンニムと一緒に教室に入ったとたん「ワーッ」とトンムたちが歓迎してくれたときは、本当にびっくり。「考えていたことと違うじゃないか」と思い始めました。

それからトンムたちがいろいろと話しかけてくれました。「今日、一緒におフロ行こう」とか、「オレんち遊びに来いよ」とか…。

同じ民族のトンムと学び遊ぶ幸福

授業の時はウリマルを訳してくれたり、弁当の時間など、おかずを分けてくれたりした。

それでぼくは、とてもいやだと思っていた考えなどふっとんでしまい、トンムたちと楽しく一日を過ごしました。

別れぎわには、「明日も来いよ」「明日もおいで」と、みんな言ってくれました。

それでぼくはウリハッキョが好きになり、次の日も来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日は、学生服まで貸してもらいました。帰りのホームルームの時間に「今度遊びに行ったり、電話したりするからな」と、トンムたちが言ってくれたとき、ぼくは「みんなどうしてこんなに話しかけたりしてくれるんだ」と思ってうれしくなりました。それで職員室に行き、ソンセンニムに感想を話して家に帰りました。

家に帰ってからは、アボジやオモニにウリハッキョで感じたことなどを話しました。

それからもときどき、トンムたちが朝鮮語の本とかを届けてくれたり、おフロにさそってくれたりしました。そのたび、うれしくてたまりませんでした。少し日がたったある夜、ソンセンニムとトンムたちがぼくの家に来て、「明日サイクリングだから、リョンイも一緒に行こう」と、さそってくれました。もちろん、ぼくはついて行きました。ソフトボールをしたり、イスとりゲームなどをして、すごく楽しくてあっという間に時が過ぎました。帰るときになり「あー、もう少しみんなと一緒にいたいなあ」と思いました。そして帰りにミョンドトンムの家に行き、みんなで近くのおフロに行ったことなどは、印象に深く残っています。

このときからぼくはウリハッキョに行き、朝鮮人としてガンバッていこうと考え始めたのです。

それからアボジに「ウリハッキョに行きたい」と話したところ、アボジは自分の好きなようにしていいよと言いました。

ぼくは、ただ楽しかったから、ウリハッキョに来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日本には朝鮮の人たちがたくさん住んでいます。けれども、その中で日本学校に通っているトンムたちもいます。

ウリハッキョに来て、同じ朝鮮民族の大切なトンムたちに会えたことが、どんなにすばらしいことか。

また、おたがいに協力しあってガンバッているトンムたちの美しい姿に感動して、これからはぼくもトンムたちに負けないように、朝鮮人として強く、しっかりと生きていこうと思います。

ぼくに朝鮮民族の心をあたえてくれた、ソンセンニム、そしてトンムたち、本当にありがとう。

そしてウリハッキョに送ってくれたアボジ、オモ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最高！」「やったネ」――公演が終わって級友たちの祝福の輪に包まれる李君

「朝鮮学校に通わせていることを誇りに思っています」

アボジ 李源中さん

編入後、夜遅くまでテープでウリマルや字を一生懸命に学び、また、家に訪ねてくるクラスメートと仲よく過ごしている姿に接するたびに、心がなごみました。

言葉づかいや行動の一つひとつが、日本学校に通っている時とは全然違います。クラスメートと息子には、より深く交わり、祖国に対して、朝鮮民族の素晴らしさについて、もっと多く学んで欲しいと思います。

私もそうだし、編入に反対していた妻も、いまでは朝鮮学校に通わせていることを誇りに思っています。

東京朝鮮学校 第3回 低学年サッカー大会

東京第四が優勝

「東京朝鮮学校第三回低学年サッカー大会」の最終試合と表彰式が六日、行われた。

会場となった東京朝鮮第四初中級学校の運動場には、この日、競技に参加する東京第一、第四、第六、第九のチビッコ選手らをはじめ、これまで試合を行ってきたチームの選手とその父兄ら約百八十人が集ま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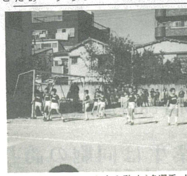
二学期から休日を利用して、都内九つの学校がリーグ戦を展開し、一チームが八チームとの試合をこなす総当たりの方法で進められてきたこの大会。十五分ハーフで行われた試合では低学年とは思えないゲームを見せるチームもあれば、イレブン全員がボールを追いかけゴール前で集まってしまうチームも。

成績は、勝敗の数で決められた。

結果、最終試合で東京第六を九対〇で下し、八戦八勝した第四が優勝。ついで二位には第九、三位には第六が入賞した。

今年で三回目を迎えたこの大会は、三年前同胞サッカー愛好家たちが一部地域の子どもたちを集め、交流試合をさせたのが始まり。昨年から参加を希望する学校が増えたため、今年からは年間を通した大会として各チームがユニフォームもそろえ、正式に行っていくことになったという。

この大会の関係者である東京第四の金泰甲教務主任は「在日朝鮮サッカーの黄金時代を取り戻したいんです。そのためには幼児期から訓練させ、体系的に育てていくことが大切です」と抱負を語っていた。



「ぼくがシュートするぞ」と"名選手"たち
(写真は第一対第八の試合)

サークル紹介

将来の夢は「天気博士」

北陸朝鮮初中級学校 気象観測クラブ

私たちの気象観測クラブは中級部一年生全員で構成され、毎日三班に分かれ、一日二回の気象観測を欠かさず行っています。

その内容は、一日二回、午前十時と午後二時に百葉箱で気温、最高・最低気温、風向、風速、気圧などを調査して記録し、学校周辺の気象を分かりやすくまとめることです。

これを去年十月から始めて今まで、一生懸命やってきました。

晴れの日も、雨の日も、風の日も、雪の日も、私たちは一日たりとも休まず観測を行って来ました。

特に寒い日、運動場の雪をかきわけ百葉箱まで行くのは大変つらいです。

しかし、凍えるような寒さにぶるぶるふるえながらも観測を終えた時、とても楽しい気分になれます。

私たちは、これからも活発な活動をつづけ全員が豊富な知識を持つ「天気博士」になれるよう努力します。

私たちといっしょに、あなたも気象観測をやってみませんか。

中級部一年 文貴純



第7回 文芸同京都支部演奏会

400余人が鑑賞

金正日書記生誕四十六周年記念第七回文芸同京都支部演奏会が五日午後、京都府総合見本市会館・パルスプラザで行われた。

この日、府下の同胞音楽愛好家をはじめウリハッキョや日本の学校に通う学生、日本の人など約四百人が会場に詰めかけた。

演奏会には、京都朝鮮歌舞団や吹奏楽団、教員、留学同の学生など、京都文芸同に所属する同胞青年たち四十人が出演。声楽、器楽、舞踊、詩朗読など、十三の多様な演目を披露し、観客を魅了した。

なかでも祖国の有名なヴァイオリン独奏曲「思郷歌」を演奏した鄭成麗さん、エレクトーン独奏で、自分で作曲した作品を発表した孫睿順さん、そしてピアノ独奏の具和美さんなど日本の大学で音楽を専攻するウリ学生たちの感性豊かでしっかりした演奏はどれも素晴らしいものだった。

また、二部では出演者と観客が一緒に楽しむ"希望者独唱コーナー"が設けられ、好評を博した。

「この演奏会をステップに、管下同胞たちの芸術性を高めるため、多彩な活動をどんどん行っていきたい」と同支部では語っている。

来る七月には、今回の出演者である留学同の学生たちの演奏会も催す予定。また、九月ごろからはこの三月に卒業する具和美さんを講師として朝鮮の子どもたちを対象に「ピアノ教室」を開講する計画もあるという。



観客の喝采を浴びた京都朝鮮吹奏楽団のアンサンブル

ぼくらの先生



玄完植ソンセンニム
(京都朝鮮中高級学校 高2－2担任)

少し暗い感じがしますが、本当はとても面白い先生です。いつも楽しい話をたくさんして私たちを楽しませてくれる、知識の豊富な先生です。

絵・李栄玉、文・金舞民

物語 朝鮮の歴史と文化

広開土王の活躍

三国の発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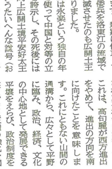
高句麗、百済、新羅のうち、もっとも早く活発な活動を始めたのは高句麗です。いちはやく部族連合国家の段階を抜けだし、中央集権的な体制を強化して、騎馬兵団による軍事力に依拠しながら、遼河および大同江の流域に進出をはかりました。

百済も第十三代の近肖古王（三四六～三七五年在位）のころになると、強力な中央集権的国家となります。そして、南では馬韓を滅ぼし、北では三七一年、高句麗の平壌城を陥落させ、十六代の王である故国原王を戦死させています。

近肖古王はまた国際的な地位の確立のために西へは東晋、南へは倭に使者を送っています。しかし、その後しだいに高句麗におされ、漢城の都の熊津（ウンジン＝今の公州）から泗沘（今の扶余）へと移っていきます。

三国の中でもっとも遅く発展したのは新羅ですが、高句麗に対抗して百済と同盟関係を保ちながら国力を養っていきます。そして第二十二代の智證王（五〇〇～五一四）は農業に牛耕を導入して生産力を発展させ、政治制度を改革して国号も正式に斯盧から新羅へと変えました。次の王である法興王（五一四～五四〇）の時、律令を発布し、官制を定め、建元という独自の年号を使って、中国に対しても対等の国であることを示すようになりました。

これらの三国が、統一国家の形成をめざして、たがいに激しく争うことになります。



広開土王の活動

高句麗は、故国原王（三三一～三七一）の時、北からは前燕、そして南からは百済の侵入を受け、王さえ戦死するという大きな打撃を受けました。この打撃を克服するため次の小獣林王は国立の学校である太学を設立し、官僚体系を整備し、仏教を受け入れて国内の精神的統一を図りました。

これらの努力を受け継いで高句麗の国力を飛躍的に拡大したのは、広開土王（三九一～四一二）です。

広開土王の業績は、いまも中国の吉林省、鴨緑江の中流北岸の集安市の東部にそびえ立つ巨大な広開土王陵碑（四一四年建立）に明らかに示されています。

高さ六・三四ｍの巨石に刻まれた千八百二字（現在千五百三十四字が解読できる）は、主として王の輝かしい武功をたたえ、当時の東北アジアにおける高句麗の特別の地位についても述べています。高句麗の強大さ、人民の勇敢さをよく伝える貴重な文化遺産です。

この碑文には、十八才で即位した王が一代の中に攻め破った城は六十四、村は千四百。東西南北に彼の馬が行かない所はなく、とくに中国諸国と長く争ってきた遼東を占領し、北は黒竜江から内蒙古にかかり、東は沿海州、南には百済を破って臨津江と漢江の流域にいたる大帝国を建設したとあります。新羅に侵攻してきた倭兵を洛東江の流域でせん滅させたのも広開土王でありました。

王は永楽という独自の年号を使って中国と対等の立場を誇示し、その死後には国岡上広開土境平安好太王というたいへんな諡号（おくり名）を贈られたのは、当時としては当然のことだったでしょう。

王は三十九才で死去しますが、在位二十二年間に、高句麗を東北アジア最大の強国に発展させました。

広開土王の業績を受け継ぎ即位したのは長寿王（在位四一三～四九一）です。彼は当時の東北アジアの情勢に深い識見をもって、中国の晋や宋、魏などと国交を結び、国の保全をはかりました。

長寿王の業績の中で注目されるのは四二七年に断行された平壌への遷都です。これは、高句麗が西方進出をやめて、進出の方向を南に向けたことを意味します。これにともない山間の通溝から、広々として平野に臨み、政治、経済、文化の中心地として発展できる平壌をえらび、政治制度を整え、また王権の強化を図ったのです。彼の在位七十九年。こうして「国は富裕にして、人民は生活を楽しむ」高句麗の全盛期が実現することになります。

（金哲央）

모두다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12일 (음력 1월 24일) 토요일 【루계 제10156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동포사는 모든 단위들에서 조선문화강좌를 활발히 벌려 조국애, 민족애 교양을 강화하자

이역땅에서 사는 재일동포들, 특히는 새세대 젊은 동포들에게 참다운 조국애, 민족애를 심어주기 위한 조선문화강좌(제1기)가 지난해 성과에 토대하여 지금 각지에서 련이어 개강되고있다.

과연 우리는 이국땅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 동포들에게 절박하게 제기되는 이 문제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있는 금번 조선문화강좌는 참가자들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마당으로 될것이다.

9일과 10일, 각지에 앞서 녀성동맹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지부와 슈요지부에서 조선문화강좌가 열렸다.

새세대동포들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각지에 앞서 녀성동맹 야마구찌현본부관하에서 개강

시모노세끼지부

녀성동맹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지부 조선문화강좌가 9일 오후, 이곳 총련본부회관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악의에 찬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이 감행되고있는 정세하에서도 학생받아들이는 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올해 여름에 예정되고있는 집단적단기조국방문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이곳 지부에서는 동포녀성들속에 옳바른 조국관, 민족관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워주는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힘을 돌렸다.

지부는 지난 1월 30일에 제1차조선문화강좌를 가진후 거기에 참가못한 동포들과 앞으로 강사로 출연할 동포녀성들을 철저히 대상화하여 이날 모임의 준비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제2차로 진행된 이날 조선문화강좌에는 20대, 30대 젊은 동포녀성들 60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시작에 앞서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이 상영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우리들과 후대들이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어제날 동포2세라 불리워오던 새세대 젊은 동포들이 가정의 호주, 주부가 된 오늘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며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재일동포란 어떤 사람들이며 일본에서 살아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동포들이 직면하고있는 심각한 문제를 취급하고 그에 일정한 해답을 주는 강연은 동포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다운 길을 걸어나가자는 새 결의로 차넘치게 하였다.

《오늘까지 나는 일본에서 살아나가자면 일본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기술이나 배우는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연을 듣고 민족의 넋을 지키고 이어나가는것이 세대가 바뀌여질수록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참으로 얻은것이 많았습니다.》

이날 모임이 끝난후 한 동포녀성은 이렇게 감상을 말하였다.



녀성동맹 시모노세끼지부에서 진행된 조선문화강좌

슈요지부

녀성동맹 슈요지부 조선문화강좌가 10일 오후, 이곳 지부사무소에서 20여명 동포녀성들의 참가밑에 열렸다.

자기들이 어떻게 살며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의제로 삼은 강연을 참가자들은 큰 관심을 갖고 귀담아들었다.

자녀를 일본학교에 보내고있는 어느 동포녀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애들이 일본학교에서 기를 펴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 오늘 강연을 실감있게 들을수가 있었지요.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당을 많이 마련해줄것을 바랍니다.》

※ ※

녀성동맹 시모노세끼지부와 슈요지부에서 열린 조선문화강좌를 계기로 하여 총련 야마구찌현본부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부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대대적으로 벌릴 계획밑에 그 준비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사 설

모든 동포들에게 애국애족의 마음을!

재일동포들은 어떻게 살것인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명백하나 동포구성의 복잡성과 착잡하게 뒤엉킨 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이는 언제나 론의되는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무엇보다도 귀중합니다. 조국을 떠나서는 기쁨도 행복도 미래도 있을수 없습니다.》

이국에서 사는 교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더없이 귀중하며 어머니조국이 부강해야 재일동포들도 참다운 행복을 누릴수 있고 래일의 희망을 가질수 있다.

그런데 남조선괴뢰도당의 기민정책과 일본당국의 동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동포들이 《귀화》하고 적지 않은 청년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가슴아픈 현상들이 련일 일어나고있다. 그런가 하면 《재일론》을 부르며 조국을 멀리하거나 매국의 길을 걸어가는 동포도 더러 있다.

동포 한사람한사람을 놓고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는 이때 총련앞에는 새세대들을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을 옳은 애국의 길로 이끌어나가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여기서 지난 9일 녀성동맹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지부에서 있은 조선문화강좌를 첫시작으로 각지에서 일제히 벌어지는 《제1기조선문화강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작년에 있은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2차회의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국애, 민족애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의 하나로 새로운 형식의 조선문화강좌를 본부와 지부, 단체들에서 벌려나가도록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지난해의 조선문화강좌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 우리는 조선문화강좌를 1기(3～5월), 2기(6～8월), 3기(9～11월)로 설정하여 1,000회이상 조직해나가게 된다.

강좌의 내용은 ①옳바른 조국관, ②민족적자존심, ③총련의 로정과 제반 권리의 3가지이며 당면하여 제1기에서는 《재일동포들, 후대들이 나아갈 길》을 기본교재로 하여 《초기조일관계》, 《재일동포와 권리》등을 취급하게 된다.

광범한 동포들을 사회주의조국과 총련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서 강력한 무기로 되는 조선문화강좌가 그 은을 내는가 어떤가는 첫째도 둘째도 조직사업에 달려있다.

취급내용이 좋고 준비된 강사가 있고 또한 동포들이 강연을 듣고싶어도 강좌가 조직되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는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사업의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조선문화강좌의 중요성과 의의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업에 실질적인 힘을 돌리지 않는 현상들도 발로되였다.

그러므로 총련 각급 기관과 일군들은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강좌를 크게 조직운영하여 완전히 궤도우에 올려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문화강좌를 대대적으로 실속있게 추진해나간다면 내외반동들이 감행하는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과 민족동화책동을 짓부시고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공고확대하는데서 큰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총련본부는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내오고 이 사업에 기관적인 힘을 돌리며 총련지부에서 조직진행할뿐아니라 《학부형조선문화강좌》, 《조선청년문화강좌》, 《조선류학생문화강좌》, 《조선녀성문화강좌》, 《조신거래자문화강좌》 등 계층별 강좌들을 다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본 방방곡곡에서 강좌가 수시로 열리고 수만명의 동포들의 가슴가슴에 애국애족정신이 맥박치게 할것이다.

엄중한 단계에 이른 《팀 스피리트 88》전쟁연습

전면핵전쟁지령기 《이4비》 일본 요꼬다를 거쳐 남조선에

유사시에 미대통령이 탑승하여 전면핵전쟁 지휘

작년에 이어 2번째로 투입

《아사히신붕》(3월 10일부)에 의하면 미국의 《핵전쟁지령기》인 《이4비》가 미본토로부터 일본의 요꼬다기지에 날아와있었는바 10일 아침 이 기지를 떠났다고 한다. 이 신문은 2월하순부터 시작된 미남조선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 88》연습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고 지적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4비》는 지난해의 《팀 스피리트 87》연습때부터 투입된 《핵지령기》이다.

《아사히신붕》에 의하면 이 비행기는 전면핵전쟁에서 지상지령부가 기능을 파괴당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하늘로부터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싸일 등에 지령을 내린다. 대통령 등 미국의 우두머리들이 타면서 지휘를 내리는 《국가긴급시공중지휘소》의 역할을 이 비행기는 논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오퍼트기지에 4기가 배비되고있다고 한다.

《팀 스피리트》연습에 《이4비》가 투입되고있다는것은 전면핵전쟁을 상정한 연습이 더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음을 말하여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팀 스피리트 88》연습의 침략공격적성격을 가리우고 공화국이 내놓은 일련의 평화제안을 외면할 구실로 작년 가을경부터 연습의 《중지설》, 《규모축감설》 등 기만선전을 벌려왔었다.

뿐만아니라 지난 1월 28일에 연습발표를 했을때도 실지로는 2월부터 5월까지 20만명규모로 감행되는데 3단계에 걸친 연습내용중 2단계인 실동훈련기간(3월말부터 2주일간)만 연습이 벌어지는것처럼 거짓《기간단축설》을 내걸어 여론을 오도하려고 꾀하였다.

《이4비》가 일본 요꼬다기지에 날아온것은 지난 3월 8일이라고 전해지고있으나 이미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를 비롯하여 해외로부터 미군병력과 군수물자의 남조선투입이 완료되여가고있을뿐아니라 본격적인 합동훈련이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다.

제반 사실은 이 연습이 《방어》가 아니라 전면핵전쟁을 상정한 엄중한 침략도발연습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요꼬다에 머무르던 전면핵전쟁지령기 《이4비》(《아사히신붕》에서)

필리핀의 미해군기지에서 군함도 투입

외신보도에 의하면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되는 미국군함 《펠렐리우》호가 9일 홍콩을 떠나 남조선해역으로 기여들고있다.

필리핀의 수비크미해군기지를 출발하여 지난 4일 홍콩에 정박했던 이 군함에는 2,200명의 미해병대원들이 타고있으며 땅크와 찌프차들 그리고 약 30대의 직승기가 실려있다고 한다.

또한 이 군함에는 400명씩의 해병들을 태울수 있는 상륙정 2척이 있는데 약 3분동안이면 이 배들이 군함밖을 떠나 전투에 진입할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핵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이 북침을 노린 공격연습이며 그것을 위해 미제가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미제는 지난 2월 27일 쾌속화물선 《테클라스》호에 1,000여대의 군용차량과 직승기 등 전쟁장비를 실어 부산항에 들이밀었으며 3월중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부산과 포항 등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실어들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씨—141》기 등을 타고 남조선에 날아든 미륙군대공포병부대선발대 1진이 지금 야외기동훈련에 피눈이 되여 돌아치고있다.

지금 놈들은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서 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위해 상륙작전훈련과 항공락하훈련에 주목을 돌리고있다.

미제가 이번에 군함 《펠렐리우》호를 남조선에 끌어들인것이나 괴뢰공군부대의 항공기들을 내몰아 련일 락하훈련을 벌리고있는것은 그 증거이다.

여론은 미제의 이러한 무모한 불장난소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

이제 핵호전광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놈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사람을 키워주는 요람은 민족교육의 품밖에 없다

아이를 편입시켜 1년째에

총련 오이다현 벳부지부관하 김원의, 정상자동포내외간

거주지에 우리 학교가 없어 슬하에서 한창 재롱을 부려야 할 어린것들을 멀리 떨어진곳에 보내여 기숙사생활을 시킨다는것은 부모치고 매우 힘겨운 결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여진 오늘도 자제들을 어엿한 조국의 미래로 키우자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민족교육을 시키기 위해 기숙사에 보내고있는 동포학부형은 수없이 많다.

그중에는 학생받아들이는 사업의 결실로서 일본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편입시킨 학부형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사람은 조선말을 하고 조선글과 조선력사를 배워야 합니다.

조선말을 배우지 않으면 일본사람이 되고맙니다.…

자기 나라 말과 자기 나라 력사를 모르면 일본사람과 같습니다. 일본에 있지만 조선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총련 오이다현 벳부지부관하에 거주하는 김원의(44살), 정상자(39살) 내외간도 지난해 4월 6일에 맏아들을 규슈조선고급학교(1학년)에, 6월에는 딸을 후꾸오까조선초중급학교(6학년)에 편입시킨 동포이다.

아이들이 민족교육의 품에 안겨 기숙사생활을 시작한지 1년, 부모심정에서 《걱정》이란 두 문자는 사라지고 지금은 안도와 기쁨만이 있다.



지난날 추억을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행복,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가슴뜨겁게 느끼는 김원의동포내외간

기숙사생활이 걱정되여

김동포부부로 말하면 교육은 일본학교에서 받았다. 학창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면 민족차별을 당한 일들이 떠오른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보게 된 세월의 흐름은 그때 맛본 비굴감을 흐리게 하였다.

《우리 학교가 멀고 또 경제사정까지 겹쳐 일본학교에 보냈지요. 지금이야 시대가 다르니 차별도 없을것이고 또 가정내에서 민족심을 안겨주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고 김동포는 말한다.

본부나 지부에서 우리 학교에 보내라고 여러번 찾아오기도 했으나 《아이가 좀더 커서…》라는 리유로 승낙하지 않았다는 그들이다. 그 생각은 틀렸다. 고기처리나 소매업경영이 바쁜 나날에 아이들에게 민족적영향을 주는 시간이 따로 없었다.

아이가 일본학교에서 《일본사람으로 성장》하기는 참으로 빨랐다.

《아이를 보고 너희들은 조선사람이라고 일러주어도 접하는 생활이 〈일본〉인지라 그것은 막무가내였습니다.》(정녀성)

그러던 어느날, 동네동포의 결혼식에 참가하려고 집안에 치마저고리를 걸어놓았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성이가 하는 말이 《친구들이 놀러 오기에 그 저고리를 숨겨달라.》였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예상과는 달리 아이까지 어느새 자기들의 체험을 맛보고있는것이다.

재작년 여름에는 또 다른 일이 생겼다.

조청본부에서 일고재학조선인학생지방별강습회에 함께 가자고 중3인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조청원의 모습은 내외간의 마음을 되게 잡아흔들었다.

《아주 똑똑하고 말도 잘해요. 무언지 그 모습이 눈부시게 안겨왔습니다.》

거의 강압적으로 아들을 강습회에 보냈는데 3박4일을 넘기고 돌아온 성이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돌아와서 한 첫인사가 《아버지, 어머니…》였다. 성미가 완고한 그가 어떻게 며칠사이에 변하였는가.

더욱 놀라게 한것은 《고교부터는 조선학교에 꼭 가겠다.》는 말이였다.

딸 양자경우는 학교에 다니기전에는 1세인 외할머니품에서 컸다. 그 영향때문인지 집에서 늘 하는 말이 《조선학교에 가고싶다.》는것이였고 고종사촌간인 지명순(지수복동포의 딸)과 함께 기숙사에 들것을 약속하고있었다.

아들딸 둘을 다 기숙사에 보내겠는가. 어린 딸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컸다.

그래 아들은 규슈조고에 편입하였는데 딸의 편입문제는 부모치고 고려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된후도 딸은 끝내 조선학교에 가겠다고 졸라댔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배워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말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지난해 6월, 내외간은 결심하고 후꾸오까조선초중급학교에 딸을 편입시키자고 그곳을 찾아갔다.

기숙사도 돌아보았는데 그속에서 생활한다는 한 학생에게 물어보니 초급부 2학년생인 그 녀애는 구마모도에서 왔다는것이다.

(아, 우리 동포들은 조선사람으로 키우자고 이런 어린것까지 기숙사에 넣는구나, 내가 더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딸을 민족교육의 품에 맡기고 돌아올 때 정녀성은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눈물을 머금었다.

학부형된 기쁨이 더욱 커서

집안에 아이가 없는것이야 쓸쓸하기도 하지만 방학이나 휴일의 날에 돌아올 때는 그 기쁨이 더욱 크다.

양자는 더욱 명랑해졌고 집에 있을 때는 조선노래를 부르군 한다.

《그 모습이 우리 걱정을 가셔줍니다.

지난날 가정에서도 민족적교양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김동포)

성이는 돌아온 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감기로 열이 올랐는데 동무들이 끝까지 돌봐주었고 교원은 빨리 나으라고 국수까지 만들어주었다는것이다.

《일본학교에 다닐적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성이는 말했다.

아들딸의 모습이며 하는 말을 통해 어머니는 《우리 학교에 보낸것이 참으로 옳았다.》고 하면서 가슴흐뭇해졌다.

그 느낌은 성이가 지난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여 들려준 이야기로 하여 더욱 뜨거워졌다.

후꾸오까조선초중급학교 운동회의 견학은 또 얼마나 감격적이였는가. 외할머니며 친척들을 다 데리고 찾아간 우리 학교.

갈 때의 3시간 30분은 참으로 길었는데 돌아올 때는 큰 경사를 치른것처럼 몹시 흥겨웠고 운동회에 대한 이야기꽃으로 시간가는것도 다 잊었다.

처음 본 인민보건체조, 달리기와 무용, 체조며 집단경기들에 흘러넘친 애국애족의 정신.

또 동포끼리 모이고 허물없이 지낸 하루가 언제 한번 있었는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치도록 배워주는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가.》

외할머니는 특히 많이 울었다.

부모들도 딸의 활발한 모습이며 밝게 빛나는 눈을 보고 뜨거운것이 몇번이고 솟구쳐올랐다.

함께 간 친척들도 《과연 조선학교가 다르다. 우리 아이들도 당장 편입시켜야겠다.》고들 하면서 올해 4월부터 기숙사에 보낼것을 결심하였다.

양자는 이렇게 말한다.

《다 친형제와 같아요.

선생님도 매우 다정하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걱정해줍니다. 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있지요.》

오늘 양자는 국어공부를 열심히 하며 무용소조에 속하여 조선예술을 체득하고있다.

김원의, 정상자내외간의 생활은 지금 《걱정》이 아니라 어엿한 조선사람으로 어서 커라는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수놓아지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고종사촌인 지명순학생과 함께 국어공부에 열중하는 양자학생(사진 오른쪽)

3년째인 올해 학교사랑하는 운동을 더 활발히 벌리기로

2년간의 마무리로 강연회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어머니회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을 맡아나서고있다는 립장으로부터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기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는데 분발하고있다.

이곳 학교는 학구가 넓어 학부형들간의 련계를 일상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어려우며 또한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것과 관련하여 어머니회조직을 강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그러한 속에서 3일 이바라기초중고 어머니회 주최로 강연회가 미도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되였는바 80여명의 어머니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일본에서의 자녀교육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조선대학교 민족교육연구소 장병국교원이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는 자녀교육에서 민족교육의 중요성과 어머니들의 역할, 견지해야 할 점들이 강조되여 가정교육을 주되게 맡아하는 어머니들에게 좋은 문제제기로 되였다.

가정과 학교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자녀교양을 더 잘하자고 무어진 이곳 어머니회는 발족되여 올해로 3년째가 된다.

그동안 바자 등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적환경을 꾸리는 사업을 적극 벌려왔으며 작년 7월에는 학생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자고 《민족의 날》행사를 조직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려왔다.

이러한 활동실적에 의거하여 어머니들의 의식성, 지성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하여 금번 처음으로 어머니들을 위한 강연회를 조직하였다.

이를 위해 2월초순부터 운영위원들의 모임을 여러번 가지고 모임의 목적을 뚜렷이 하여 지역책임자들과 학년책임자들을 중심으로 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고 회원모두가 이 기간에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안내장, 입장권을 만드는 사업, 담당련락체계를 꾸리는 등 모두가 분공을 맡아 움직이게 하였다.

누가 해줄것이라고 할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된 립장에 서서 준비사업을 짜고든 결과 당일에는 목표한 수보다 더 많은 어머니들이 참가하였다.

참가한 어머니들도 이구동성으로 《오늘 강연이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2차, 3차로 계속될것을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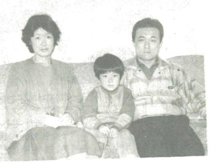
어머니회 회장인 정춘자어머니는 《어머니회가 발족되여 올해로 3년째가 되는데 2년간의 마무리로서 하나 큰 사업을 짜고들자고 강연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준비기간에 어머니들이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회원들의 의식을 더욱 높여나가자고 생각합니다.》고 이야기한다.

1년째에는 운영위원들을 튼튼히 다지고 2년째에는 학년책임자들을 확대위원으로 하여 어머니회를 강화하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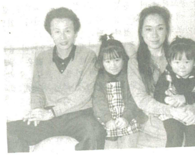
3년째인 올해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의 강화와 《음악회》등 어머니들에게 민족성을 안겨주는 다양한 기회를 생각하고있다고 한다.



자녀교육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어머니회 성원들



김재영동포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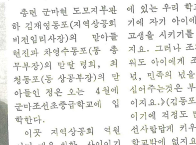
차영수동포가정

새학년도 나머지 20일

통학거리 먼것도 마다하지 않고

새학년도부터 맏이를 군마초중에 보내는

총련 군마현 도모지부관하 3동포가정



최청동포가정

총련 군마현 도모지부관하 김재영동포(지역상공회 비전임리사장)의 맏아들 현진과 차영수동포(동 총무부장)의 맏딸 령희, 최청동포(동 상공부장)의 맏아들인 정은 오는 4월에 군마조선초중급학교에 입학한다.

이곳 지역상공회 역원이며 매우 친한 사이이기도 하는 3동포가정인지라 서로 기쁨에 넘쳐 맏이들의 입학날을 손꼽아기다리고있다.

그런데 3동포가정에는 공통된 《걱정거리》가 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학교까지 통학하는데 1~2시간 걸리고 2~4번 전차와 뻐스를 갈아타야 한다는것이다. 아직 나어린 애들에겐 큰 부담으로 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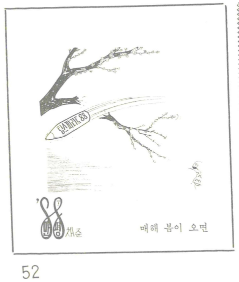
그러나 통학거리가 먼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아이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워내자는 3학부형들.

민족교육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그만큼 크다.

《나도 어릴 때부터 먼곳에 있는 우리 학교에 다[illegible]기에 자기 아이에겐 같은 고생을 시키기를 두려워했지요. 그러나 조건은 어려워도 아이에게 조선사람의 넋, 민족의 넋을 똑똑히 심어주는것은 부모의 책임이지요.》(김동포), 《너[illegible] 이기에 걱정도 많지만 조선사람답게 키우자면 우리 학교밖에 없지요. 말과 글은 우리가 배워줄수 있지만 민족의 넋은 조선학교에서 배워야지요.》(차동포),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우리 학교에 보내야겠지요. 일본학교에 다[illegible]고 조선사람의 피줄을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조선사람된 긍지와 보람을 배워야겠지요.》(최동포)

우리 글로 자기 이름을 쓰는것을 련습하고있는 현진, 부모에게서 우리 말을 하나하나 배우는 령희, [illegible] 집중 가장 먼곳에서 다니게 되는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학을 손꼽아기다리는 정.

입학식날도 멀지 않다.



매해 봄이 오면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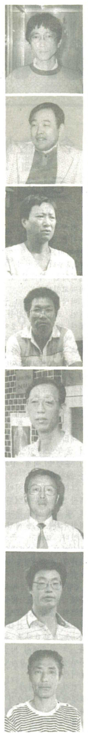
련락선

아오모리와 하꼬다데사이를 80년간 오가던 《세이깡련락선(青函連絡線)》이 오늘로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일본의 언론들에서는 석별의 정으로 련락선의 력사와 거기에 깃든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보도하였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 ▼일제식민지하에서 150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이 강제련행으로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 일본에 끌려왔었다. 그중에서도 많은 동포들이 혹가이도에서의 노예로동을 강요당했다. 바로 그 동포들이 망국노의 설음안고 세이깡련락선에 몸을 실어 쯔가루해협을 건넜던것이다. ▼당시 혹가이도에 끌려간 조선사람의 수는 아직도 정확하게는 잡지 못한다. 1973년에 총련과 일본의 변호사, 학자들이 합동으로 진행한 혹가이도강제련행조사사업에 의하면 해방직전에 탄광에만도 약 4만명의 로동자가 있었다고 한다. 9개의 군사비행장공사와 여러곳의 맴공사, 《침목 하나에 한사람의 조선사람이 죽었다》는 마쯔마에(松前)선철도부설공사 등에 강제징집된 동포수를 고려한다면 그 수는 수십만명에 달할것이다. ▼혹한속에서의 하루 15~17시간의 중로동과 감옥과 같은 《다꼬베야》생활로 얼어죽고 굶어죽은 우리 동포는 부지기수라 하겠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수 없다고 도망을 쳤으나 곧 왜놈한테 붙잡혀 모진 고문끝에 숨져간 동포는 또 얼마인가.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하꼬다데까지 도망쳐온 극일부의 동포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끝내 련락선을 타지 못하고 잠복하고있던 일본경관에게 잡히군 했다. ▼정든 고향산천을 사무치게 그리며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을 목놓아 부르면서 고동소리를 울리며 떠나는 련락선을 바라보는 동포들의 두볼에는 피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이깡련락선은 겨레의 피눈물만을 련상케 한다. ▼해방후 43년의 세월이 흐르는 속에서 쓰라린 과거를 체험하지 못한 새세대가 주류를 이루게 되였다.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이 속담은 1세들의 그 지긋지긋한 지난날의 식민지노예생활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새세대들은 1세들의 이 생활체험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애국운동의 새 경지 개척할 의욕에 넘친 젊은 분회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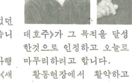






《새세대호주》를 끝내면서

1세들의 업적 꿋꿋이 이어 《애국영예기쟁취운동》 기수로!



본지 3면에서 지난 1986년 11월 6일부터 련재를 시작한 《새세대호주》를 이번 33번째로 끝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오늘 총련의 변화된 새로운 사업환경은 기층조직인 분회를 더 잘 꾸리고 분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애국운동의 믿음직한 세대교체자로서 총련의 기층조직이며 애국사업의 집행단위인 분회의 호주로 나선 젊은 동포, 상공인들의 정열과 지향을 반영하자고 출발한 이 기획에서는 그사이 북은 혹가이도로부터 남은 사가, 오이다에 이르는 각지 분회 분회장들의 보람찬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 취재한 모든 분회장들은 상기업에 종사하는 바쁜 몸이면서도 귀중한 시간을 짜내여 성실히 응대해주었으며 변화된 새로운 사업환경속에서 벌리는 분회사업의 비결과 형태를 대주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1세가 쌓아올린 애국사업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경지를 개척할 의욕에 차넘치고있었던것이 매우 인상적이였습니다.

련재를 시작하면서 다행히도 각지 분회장들이 《새세대호주》를 읽고 자기 분회사업의 참고로 활용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새세대분회장들의 정열이 한껏 비껴있습니다.

총련 제16차분회위원, 선전원대회를 계기로 하여 오늘 각지에서는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이 대중적으로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기층조직들에서의 세대교체는 이미 끝났을뿐아니라 매 분회들에서는 일정한 새 경험이 창조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세대호주》가 그 목적을 달성한것으로 인정하고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활동현장에서 활약하고있는 모든 분회장들에게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얼마없어 본지에서는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리고있는 각지의 분회들에 들어가 그 현실과 창조되고있는 경험을 소개선전하는 새로운 기획물을 내올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분회사업을 벌리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좋은 참고로 될것입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지향하여 나날이 분발하고있는 각지 분회들의 현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편집국 조직생활부)





새세대호주 ㉝

언제나 잊지 않고 사업과 생활의 원점을

곽공팔 (총련 도요히라분회 분회장, 혹가이도 삿보로지부, 46살)

총련 도요히라분회에는 혹가이도 전체 동포수의 약 10%가 살고있다.

《그만큼 책임이 크지요. 우리 분회사업이 지부, 나아가서는 도적인 애국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있습니다.》

본부관하 분회로서는 제일 큰 세대의 호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있기는 하나 그만큼 보람찬 일을 맡아하고있다고 곽공팔분회장(46살)은 자부심에 넘쳐 말한다.

사람대합이 겸손할뿐더러 동포들과 이야기할 때는 꼭꼭 우리 말을 쓴다.

《1세적인 감각이 남보다 짙다고 할가요.》라고 말하는 그는 7남매(남 3, 녀 4)의 3남으로서 하꼬다데에서 나서자랐다.

일본중학교를 졸업한후 조청사업을 보는 과정에 우리 말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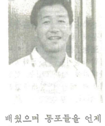
결혼(28살때)을 계기로 총련분회위원으로 되였다.

《저를 빼놓고는 위원들모두가 1세의 어르신이였으며 사업대상도 주로 나이많은 사람들이였습니다.》

일제식민지시기 강제로 끌려와 망국노의 설음과 온갖 차별, 멸시를 받은 동포들이라 생활체험을 통하여 조국과 조직의 고마움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이전 분회장이 사회주의조국에 귀국한후 30대의 젊은 나이로 분회장이 된 그를 동포들은 이모저모로 내세워주고 도와주었다.

동포들의 사랑속에서 귀중한 조국과 조직을 위해 모든것을 바칠줄 아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배웠으며 동포들을 언제나 례절바르게 대하며 우리 말을 사용하는것을 습성화하였다.



《나의 사업과 생활의 원점은 하꼬다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8년전에 형이 하던 불고기점방을 잇기 위해 이곳 도요히라에 이사온후도 그때의 심정대로 직심스레 사업하였다.

3년간 부분회장을 하다가 총련 제13차전체대회를 계기로 분회장이 되였다.

《이곳에서도 이전 분회장이 자전거를 몰고 동포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고민과 생활상문제를 성심성의로 풀어주는 모습에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관하동포들의 모든 생활을 돌봐주는 어머니품답게 분회를 더 잘 꾸릴 목표를 내세웠다.

자기가 맡은 12호의 동포집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사업하는 등 언제나 이신작칙하면서 젊은 세대들로 완전히 교체된 분회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한편 젊은 상공인들을 묶어세우기 위해 골프, 소프트뽈 모임도 가지고있다.

그런 결실이 해마다 모든 애국사업목표를 수행하는데 반영되였으며 지난해에는 《승리의 기발》을 수여받았다.

지금은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업대상이 젊어졌을뿐아니라 모두가 지식있는 사람들이라 열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높은 실력을 소유해야지요.》

그를 위해 학습을 꾸준히 하며 특히 《조선신보》는 꼭꼭 읽는다.

이 《새세대호주》란도 즐겨 읽는다고 한다.

《각지 젊은 분회장들의 사업에서 많은 힘을 얻군 합니다. 그들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됩니다.》 (끝)

일본정부는 부당한 《제재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오이다현의 7개소에서 강연회 조직, 결의문 채택

오이다현에서 일본인민들에게 남조선괴뢰들의 모략의 진상을 폭로하고 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대대적인 강연회가 련속 진행되고있다.

2월 24일 규다이지역에서 일본사람 250명, 26일 벳부의 기쯔기지역에서 100명, 27일에는 규다이지역 일본녀성들 60명 그리고 일본사회당 청년대표들 60명, 29일 오이다지역에서 150명, 3월 1일에는 벳부지역에서 230명, 2일에는 겡호꾸지역에서 200명, 도합 7개소에서 1천 50명의 각계층 일본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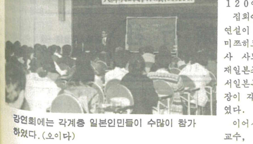
총련본부 최영식, 구자웅부위원장들과 조선대학교 변재수교원이 강사로 출연하였다.

강사들은 강연에서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남조선괴뢰들의 모략극이라는것을 폭로하였다.

이번 강연회들은 현로명, 각 지역 지구로, 일본사회당, 일조련대위원회 등에서 주최하였는바 일본사회당의 현, 지부 간부들, 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지구로간부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1주일동안에 집중적으로 강연회가 조직진행됨으로써 광범한 일본사람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이 일조친선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해나서도록 하는데서 큰 전진을 보게 되였다.

7개소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각 강연회의 명의로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오이다지국】



강연회에는 각계층 일본인민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오이다)

효 고

남조선려객기사건을 생각하는 효고현민집회가 효고현조선문제련락회의의 주최로 1일, 고베시근로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일본과 아세아의 평화 그리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생각하는데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진상을 규명하는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각계층 일본사람들 120여명이 모여들었다.

집회에서는 주최자측의 연설이 있은 다음 아사다미쯔히로변호사, 고베신문사 사또 기미히꼬기자,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서일본본부 송재수총무부장이 각각 파넬토론을 하였다.

이어서 학자, 문화인, 교수, 주부 등 각계층 사람들에 의한 의견교환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남조선려객기사건을 생각하는 효고현민집회

집회에서는 집회의 이름으로 된 《남조선려객기행방불명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항의한다》는 호소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효고지국】

하 꼬 다 데

일조련대도민회의 하꼬다데지부의 주최로 《최근 조선반도정세와 국제관계》에 대한 시국강연회가 4일, 아까시야호텔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강연회에는 140여명의 각계각층 일본인민들이 참가하였다.

강연회에서는 일본신문기자가 강연을 하였다.

한편 지난 4일에 진행된 제43차혹가이도하꼬다데지평경기위원회에서 이번 남조선려객기사건에 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의문은 남조선당국이 도발적인 반공모략책동을 즉시 중지할것과 일본정부에 대하여 남조선지배층의 모략책동에 가담할것이 아니라 진정한 일조우호친선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해나설것을 요구하면서 일조련대성운동을 한층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하꼬다데분국】

아 이 찌

남조선려객기사건을 계기로 련일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반공화국, 반총련모략소동을 반대규탄하여 7일, 일조우호아이찌현민회의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사건의 진상규명도 하지 않은채 일본정부가 취한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총련조직과 재일조선학생들에게 가해지고있는 위협행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아이찌지국】

돗 도 리

돗도리현평동부지구평의회 제41차림시대회(5일)에서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제재조치》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결의문은 일본정부가 아무런 물적증거 없는 이번 사건을 《공화국의 범행》으로 단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비난하면서 일본정부는 부당한 《제재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돗도리지국】

우리 나라 체육소식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진행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지난 2월 10일에 개막되였던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3월 4일에 페막되였다.

중앙과 지방의 체육선수단 남녀선수들의 참가밑에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륙상, 예술체조, 롱구, 배구, 씨름, 사격 등 많은 종목의 경기들이 있었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4.25국방체육선수단 백정숙선수는 규격권총(녀자)사격에서 공화국의 종전기록을 깨뜨렸다.

륙상경기에서는 압록강체육선수단(남자)과 4.25체육선수단(녀자) 선수들이 단체성적에서 가장 높은 수자를 기록하였으며 롱구경기에서는 압록강체육선수단(남자)과 평양시체육선수단(녀자), 배구경기에서는 평양시체육선수단(남자)과 4.25체육선수단(녀자), 송구경기에서는 4.25체육선수단(남자, 녀자), 탁구경기 단체전에서는 4.25체육선수단(남자)과 압록강체육선수단(녀자) 선수들이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레스링경기에서는 자유형에서 압록강체육선수단, 고전형에서 4.25체육선수단 선수들이 단체성적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씨름경기에서는 평안북도체육선수단 선수들이 단체성적에서 가장 앞섰다.

우리 나라 선수들 우수한 성적

사회주의나라청소년친선국제속도빙상경기대회에서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우리 나라 선수들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청소년친선국제속도빙상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했다.

우리 나라 하영일선수는 남자 500메터경기에서 제1위를, 남자 1,500메터경기에서 제2위를 하였다.

녀자 500메터경기에서 우리 나라 정창숙선수는 제2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쏘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 몽골의 우수한 빙상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스뜨란쟈따》컵쟁탈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도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벌가리아의 쏘피아에서 진행된 《스뜨란쟈따》컵쟁탈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의 리광식선수는 48키로그람급경기에서, 장근일선수는 71키로그람급경기에서 각각 2등을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쏘련, 꾸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벌가리아, 로므니아,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뽈스까, 몽골, 탄자니아, 수리아 등 12개 나라의 180여명의 우수한 권투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어서어서 자라라



황순복 (녀—9개월)
1987년 6월 2일생
아버지 황진익(32살), 어머니 김화자(26살)
총련 교또부 니시지부관하

아버지, 어머니가 국어교원인탓인지 순복이의 첫소리는 《아야어여…》. 천재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지나치게 편을 들고있는지 부모들은 《발음이 또렷또렷하다.》고 대단한 자랑입니다.

(친구)

《공화국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품》

남조선강점미군부대 군속 수송관이였던 손학수가

평양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

【평양 3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남조선강점미군부대 군속 수송관이였던 손학수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하였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 출판보도기관 기자들과 외국기자들, 우리 나라 주재 각국 대사관 출판관계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재생의 길을 찾아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손학수가 자기의 의거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출생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현이다.

1948년 봄에 부모를 따라 귀국한 나는 평안남도 평원군 평원중학교에 다니다가 1950년초에 평양에 이주하여 평양제3중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7월 인민군대에 탄원입대하였다.

나는 부대와 함께 전라남도 려수까지 갔다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적들에게 체포되여 거제도포로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였다.

나는 포로교환문제가 제기될무렵에 심한 중병에 걸려 운신조차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놈들은 나를 《귀환거부자명단》에 적어넣었다.

나는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되여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였다.

휴전후 포로수용소에서 나온 나는 7년동안이나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1970년경에야 미군부대에 림시군속으로 취직하게 되였으며 1년후부터는 정식군속이 되면서 수송관으로 진급하여 수송업무를 맡아보았다.

그러나 나이 40이 넘으면서 가슴사무치게 더욱 그리운것은 고향이였다. 그럴수록 나는 나라가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기원하였다.

그런데 이남통치배들이 하는 꼴을 보면 통일이 될 상싶지도 않았다. 이놈들은 통일을 한사코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머리속에는 통일될 날을 앉아서 기다리다가는 이남땅에서 늙어죽을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군하였다.

그래서 나는 더 나이먹기전에 공화국으로 의거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였다. 떳떳치 못한 경력이 나를 몹시 괴롭혔지만 나는 그 품을 찾아가는 길만이 재생의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나는 공화국으로 의거할 기회를 노리다가 지난해 10월 해외에 나간 기회에 10여개 나라들을 거쳐 얼마전에 공화국으로 의거하는데 성공하였다.

불미스러운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지지만 공화국에서는 오히려 나를 살뜰히 대해주고 따뜻이 보살펴주고있으니 환갑이 되여오는 오늘에야 나는 비로소 공화국의 품이 진정한 어머니품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팀》훈련은 북침을 위한 핵공격훈련

손학수는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로동신문사 기자: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리고있는 전쟁책동에 대하여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답: 나는 다년간 미군부대에 군속으로 있으면서 수송업무를 맡아본 관계로 미국놈들이 이북을 침공할 속심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직책상 나는 미군장교들과도 자주 접촉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북을 먹자고 한다는것을 로골적으로 말했다.

미국놈들이 이북침공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은 엄청난 량의 무기를 이남에 반입하고있는것만 봐도 알수 있다. 미군제2사단본부 군속 수송관을 하면서 내가 취급한 물동량만 해도 기차로 5만차량, 자동차로는 20만차량이 넘는다. 그 태반이 각종 무기와 탄약, 땅크, 군용차 등이였다.

동두천역에서 미군제2사단본부까지 미군전용철도가 부설되여있고 4개의 상하차장에 대형기중기가 10대가량 있는데 이것들은 매일 만가동하고있다.

핵무기와 기타 특수무기들이 들어있는 철상자들이 이곳에 자주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무기의 명칭은 명기되여있지 않고 그저 《폭발물》이라고만 씌여있다.

미군제2사단본부에만 해도 300미리핵포, 핵장갑차, 핵땅크, 《핵배낭》 등 100개가 훨씬 넘는 핵무기가 있는것으로 나는 알고있다.

300미리핵포는 핵탄이 이남에서 쏘련까지 날아갈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것이고 핵장갑차는 수륙량용으로서 최신형이다. 핵땅크는 이미 있던 땅크를 핵탄을 쏠수 있게 여러번 개조한것이며 지금의 《핵배낭》은 종전의것을 더 자유자재로 쏠수 있게 다시금 개조하였다.

하루는 내가 미군대위에게 핵탄 세발이면 조선반도가 다 녹아난다는데 왜 이렇게 계속 끌어들이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미군의 무기는 북조선만 치자는것이 아니라 중공전체와 쏘련의 우랄지대까지 념두에 둔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미국은 남의 땅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도 미군《유지비》명목으로 이남《정부》로부터 해마다 11억딸라라는 막대한 돈을 받아먹고있다.

미국놈의 개이고 군사깡패인 로태우는 집권후 이보다 더 많은 12억딸라를 매해 바치기로 미국놈들과 밀약하였다 한다.

쏘련 이즈베스찌야신문사 기자: 당신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직접 참가하였는가. 그리고 이 군사연습에 대하여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대답: 나는 미군부대에서 군속으로 있었기때문에 이 훈련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송관이라는 직책상 임무로부터 《팀》훈련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인계인수하는데는 매번 참가하였다. 그리고 군수물자를 싣고 관하부대에까지 나가서 훈련광경을 여러번 보았다.

《팀》훈련때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비롯하여 땅크와 장갑차, 포탄과 탄약, 폭탄 등이 기차로 무려 2,000차량 들어온다. 그 가운데서 미군제2사단에만 250차량정도 들어온다.

먼저 선발대가 오는데 그것만도 약 50차량 된다. 그것은 대부분 핵무기이다. 이것들은 미군제2사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남강원도 원주와 춘천지방에 전개된다.

《팀》훈련이 끝나면 미군은 많은 무기를 괴뢰군에 넘겨주군 한다.

《팀》훈련의 규모가 20여만이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훨씬 더 많다.

《팀 스피리트》훈련을 《방어훈련》으로 보면 큰일난다.

놈들은 《상륙작전》과 《도하》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바로 공격훈련인것이다.

한번은 내가 미군장교에게 《도하기재가 이렇게 많은것을 보니 〈유사시〉 한강을 도하하여 한강 남쪽계선에서 〈방어〉하기 위한것인가》 하고 찔러봤더니 그는 벌컥 성을 내면서 《우리 미군에게 무슨 〈방어훈련〉이냐, 미국군대는 오직 공격훈련이 있을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게 바로 《팀》훈련의 진짜 내막이다.

《팀》훈련의 위험성은 더우기 그것이 핵공격연습이라는데 있다.

미군제2사단만 보더라도 《팀》훈련이 시작되면 핵타격수단들인 사단직속 《에프16》비행대대와 300미리핵포대대, 원자포를 설치한 핵장갑차대대와 《핵배낭》대대를 출동시키고있다.

내 생각에는 북의 위력이 막강하니 망정이지 아마 그렇지 않으면 미국놈들이 벌써 열두번이나 실전으로 넘어가 북침전쟁을 일으켰을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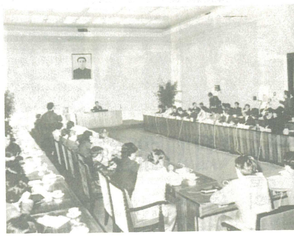
쏘련 국가텔레비죤 및 라지오 방송위원회 기자: 현재 남조선괴뢰군의 동향과 미군과 남조선괴뢰군과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답: 남조선《국군》의 동향을 종합해보면 《국군》내에서 반미의식이 높아가고 반공의식이 점차 무너져가고있다는것을 느낄수 있다. 이런데로부터 《국군》사병들은 이북과 싸우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고있는것이다.

미군과 《국군》의 관계를 본다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주국군대와 식민지군대와의 관계라고 볼수 있다.

이남에서의 군사적권한은 전적으로 미군이 가지고있다.

《국군》은 그야말로 허수아비군대이다.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손학수【평양~도꾜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품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북으로 쏠리는 민심에 대하여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대답: 이남의 민심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점점 더 북으로 쏠리고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의 정치를 받을 날이 오래지 않을것이라고 믿고있다.

미군제2사단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나의 친구인 한 로인은 단둘이 만난 기회에 《우리가 비록 미군부대에서 일하지만 민족의 량심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량심이란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선생님만을 믿고 따르는것이라고 절절하게 말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군제2사단의 군속으로 취직한 한 청년은 동료들앞에서 이북에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이으신 또한분의 위대한 령도자가 출현하시였는데 그분은 바로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이시라고 하면서 지도자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담보하는 《위대한 영웅》이시라고 힘주어말했다.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을 끝없이 경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오늘 이남에서 민심의 기본을 이룬다고 나는 생각한다.

조선사회민주당출판사 기자: 38년만에 평양에 와서 받은 인상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대답: 38년만에 오매에도 그립던 평양을 다시 보는 나의 마음은 정말 감개무량하기 그지없다.

이렇게까지 훌륭한 대도시로 건설됐을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사실 떳떳치 못한 과거를 가진 나같은 사람이 안기기에는 너무나도 그 품이 위대하고 장엄하다.

솔직한 말로 처음에는 여기가 과연 평양이 맞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모란봉과 릉라도, 대동강의 흐름을 내놓고서는 38년전 거리의 모습은 아무데서도 찾을수가 없다. 《대동교》라고 씌여진 다리의 란간을 보고서야 옛 기억이 되살아나고 여기가 진정 평양이구나 하고 현실을 확인할수 있을 정도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평양을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로 건설한데 대해 생각하면 나는 그저 머리가 수그러질따름이다.

주체사상탑을 보고 나는 이북의 막강한 위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근본을 잘 알수 있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나는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자기의 희망을 꽃피우며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이렇게 행복한 인민의 락원이 바로 이북에 있다는것을 몰랐던 내가 정말 민망스러웠다.

나는 이북의 현실을 보면서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의 위대한 령도력에 대해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참말로 나는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의 탁월한 령도가 아니였던들 오늘의 이런 찬란한 현실을 가져올수 있었겠는가고 생각하며 두분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깊이 탄복하며 그분들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릴뿐이다.

주간일지

3월 2일(수)~3월 8일(화)

북반부

2일(수) 전국직맹선전일군회의 진행.(~3일)

4일(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직맹대표단을 접견하심.

6일(일)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가 론평 발표, 남북조절위원회때 꽃다발을 준 소녀는 현재 평양에 있다고 지적.

7일(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3호카바이드로가 조업되여 생산 시작.

8일(화)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측에 편지를 보내여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를 3월 28일에 가질것을 제의.

재일동포

3일(목) 총련 오사까부본부에서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책동과 모략소동을 규탄하는 대회 진행. ◆총련 아이찌현본부 대표들, 자민당소속 나고야시의회 의원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발언에 항의하여 기자회견. 자민당을 비롯한 관계부문에 사죄 요구.

4일(금) 3월달사업을 잘하기 위한 총련 효고현본부 활동가회의 진행.

5일(토) 각지 우리 고급학교들에서 1987학년도 졸업식.(~6일)

남조선

3일(목) 천주교전주교구 평신도협의회, 사제단이 성직자들에 대한 경찰들의 폭행사건에 항의하여 로태우도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 ◆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들과 로조원 등 30여명, 부당로동행위를 규탄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에 제출.

4일(금) 정치범 가족 및 친척들 30여명이 《청와대》앞에서 정치범석방을 요구하여 강력한 반《정부》시위 전개.

5일(토) 서울 연세대강당에서 야당과 재야단체,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정치범전원석방, 수배해제쟁취, 반독재결의대회》, 3천명의 학생, 민주인사들의 참가하에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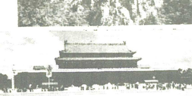
8일(화) 로태우역도, 《민정당》깡패들을 시켜 단독으로 《국회본회의》에서 무슨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횡포를 감행.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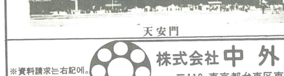
2일(수) 미국통상대표야이터, 뉴욕에 있는 남조선미국협회에서 또다시 강한 시장개방을 요구.

3일(목)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담화 발표.





金剛山



天安門



에펠탑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14일 (음력 1월 26일) 월요일 【루계 제10157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3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가 오늘 발표되였다.

보도에 의하면 전원회의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1. 과학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2.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3. 조직문제》의 의정들을 토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의정 첫째문제와 둘째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한 과학부문을 발전시켜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선진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심적인 과업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예방치료사업의 질을 훨씬 높이고 보건시설과 설비를 더욱더 현대화하며 보건경영활동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계응태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선거하였다.

(전원회의 상보는 다음호)

사 설

기어코 핵전쟁을 일으킬 심산인가

어제 본지에서 폭로한 바 그대로 미제는 끝내 지난 10일 《핵전쟁지령기》인 《이 4비》를 일본 요꼬다기지에서 남조선상공으로 출동시켰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 4비》란 비행기는 전면핵전쟁으로 지상의 지령부기능이 파괴되였을 때 하늘에서 전략폭격기 및 대륙간탄도미싸일 등 핵폭탄발사를 지령하는 핵전쟁전용의 사령비행기이다.

핵전쟁도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제의 이 비행기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남조선에 기여들었다는 이 사실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팀 스피리트》가 바로 핵전쟁을 가상한 핵시범전쟁이며 북침을 노린 핵예비전쟁임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갈수록 더욱 긴장하고 첨예한 국면에로 접근하고있으며 이것은 세상사람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습니다.》

핵침략전쟁인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 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엄중한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인하여 오늘 조국땅은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에 처해있다.

지난 1월부터 방대한 무력을 남조선에 이동시킨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미제와 로태우도당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지금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3월 10일의 《핵전쟁지령기》남조선배비 이전인 2월 24일에 미륙군대공포병부대선발대 1진이 《씨―141》기 등으로 미국 워싱톤에서 남조선에 날아들자마자 야외기동훈련에 돌아치고있으며 27일에는 쾌속화물선 《테클라스》호가 1,000여대의 군용차량과 직승기 등 전쟁장비들을 싣고 부산항에 기여들었다. 또한 미제군함 《펠렐리우》호가 2,200여명의 미해병대원들을 태우고 9일 홍콩을 떠나 남조선해역으로 기여들고있다.

특히 미제는 이번 전쟁연습에 투입될 100만명을 넘는 방대한 침략무력들을 3월중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부산과 포항 등지에 실어들이려고 작전장비운반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한편 로태우도당을 시켜 각종 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지난 2월 24일 괴뢰륙군 《백마독수리부대》가 그 무슨 《시범》훈련이란것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2월 한달간 남조선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매일 감행해나섰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이어 올림픽기간에도 6~10척의 호위함이 따르는 1~2척의 항공모함을 조선반도해역에 상주시키는것과 함께 오끼나와주둔 미공군기들과 해병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해상에서 군사연습을 벌리기로 결정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전쟁소동으로 인하여 지금 조국땅은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매우 긴장한 정세에 처해있다.

애당초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란것자체가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조선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대아세아전략의 산물이라는것을 오늘의 사태발전은 그대로 립증해주고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망상을 버리고 핵예비전쟁인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공화국을 함부로 건드리고 위협하는것을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면 3각군사동맹관계에 있으며 미제의 병참기지로 화한 일본도 반드시 핵전쟁의 불길속에 휘말려들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지금 엄중한 단계에 이른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의 범죄성과 침략성을 내외원쑤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내외에 낱낱이 폭로선전해나갈것이다.

남조선 대학생들 반미, 반《정부》투쟁 계속 전개

《양키의 용병교육병영입소 반대》

서울대생들이 고용병훈련을 배격

남조선신문 《조선일보》에 의하면 지난 3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신입생 환영모임에서 《양키의 용병교육병영입소 반대》 등의 반미구호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을 미제의 수치스러운 총알받이로 길들이기 위한 《군사교육》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괴뢰도당이 학생들속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과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기 위하여 강요하는 《문무대입소》와 괴뢰군전방입소 훈련을 지난해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3월 7일부터 강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면서 이것은 학생들의 《단체행동을 위한 시간적여유를 빼앗기 위한것》이라고 폭로하는 벽신문을 붙이고 그를 당장 취소할것을 요구하였다.

신문은 파쑈도당이 개학첫날부터 학생들속에서 높아가는 반미반괴뢰기세에 당황망조하여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고 전했다.



괴뢰전경대와 맞서 싸우는 남조선대학생들(지난 5일 연세대앞에서, 로이터 산 제공)

고려대와 지방대학들에서도

대학원총학생회 인정과 조교원들에 대한 처지개선 등 7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8일부터 철야롱성에 들어간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200여명이 9일 총장부속실을 점거하고 총장과의 담판을 요구하면서 롱성을 계속하고있다.

대학원생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각 학과 사무실과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인 조교원 300여명도 이날 오전부터 수당지급 등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일을 거부하고있다.

또한 목포대학 학생 100여명은 9일 오전 교내에서 모임을 가지고 교직원, 학생들이 지지하는 교수를 학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저들의 앞잡이인 이전 학장을 그대로 류임시키려는 괴뢰문교부의 처사에 항의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이 대학 교수평의회는 《문교부》에 의한 학장추천을 거부하는 140여명이 서명한 결의안을 괴뢰당국에 들이대였다 한다.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학생 20여명도 9일 총장실을 점거하고 롱성투쟁을 벌렸다.

학생들은 로태우역도의 《취임식》을 지지하는 광고를 학교측이 신문에 낸것을 비난하고 공식사과의 광고를 당장 신문에 발표할것을 요구하였다.

경북대학교 학생들도 지난 4일과 5일 괴뢰역도에게 아부한 학교측에 항의하여 롱성과 시위 투쟁을 벌렸었다.

또한 광주의 조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8일 직원들과 조교원들에 대한 학교측의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를 배제할것 등 3개 항의 결의를 교내공고문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이날 이 대학교 학생들 200여명은 교내에 모여 총장추대를 위한 납부금거부결의대회를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학생들은 교수협의회와 대학생들이 추천한 총장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1학기등록을 거부한다는것과 학생들의 의사를 묵살한 리사진과 괴뢰문교부측은 즉각 사과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 죽음으로 괴뢰도당과 악질기업주에게 항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이 최근 괴뢰도당과 악질기업주들에게 죽음으로 항거해나섰다.

보도에 의하면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여 지난 1일 몸에 불을 달았던 인천의 경기교통회사로조책임자 김장수가 9일에 사망하였다.

또한 서울의 대원전기로동자들이 지난 7일부터 임금인상과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롱성에 들어갔는바 투쟁을 계속 벌리는 가운데 오범근로동자는 회사측의 횡포에 항거하며 사회여론에 고발하기 위해 10일 독약을 마셔 목숨을 끊었다.

악질회사측에 의해 빚어진 이러한 참사사건들의 발생은 남조선로동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을뿐아니라 부당한 축재에만 혈안이 되고있는 매판족속들과 그와 한짝인 파쑈도당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게 하고있다.

대원전기회사측은 9일 로동자들이 3일째 철야롱성에 들어가자 어용로조의 깡패들 30여명을 내몰아 롱성투쟁중이던 10여명의 로동자들을 때려 부상을 입히고 리 아무개 등 5명의 로동자들의 옷을 벗겨 그들을 사무실에 감금하는 횡포를 감행했다.

또한 이 어용로조깡패들은 회사마당에서 싸우고있던 10여명의 로동자들에게도 각목과 쇠관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였다.

회사측은 이러한 횡포로도 성차지 않아 10일 롱성을 벌리던 13명의 로동자들을 괴뢰경찰에 고발하는 폭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경기교통회사의 70여명 택시운전수들은 생사람을 죽게 한 회사측의 비인간적처사에 항의하여 일체 운행을 거부한채 파업롱성에 들어갔다.

미제의 반꾸바책동을 규탄

평양에서 련대성집회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미제의 반꾸바책동을 규탄하는 련대성집회가 10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부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리철신부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최근에 미제가 반혁명분자들을 사촉하여 꾸바혁명을 비방중상하기 위한 비법적인 회합을 조작하였다가 그것이 실패되자 꾸바가 그 무슨 《인권을 유린》하고있는듯이 떠들면서 이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까지 끌고가서 반꾸바소동을 벌리며 《마약밀매》라는 허황한 모략까지 꾸며 꾸바를 헐뜯고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였다.

그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날로 높아가는 꾸바공화국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그의 영향력을 막아보려는데서 출발한 비렬한 행위이며 체계적으로 감행하여온 반꾸바책동의 계단식확대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연설하였다.

한편 조선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해지역 친선협회는 10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반꾸바음모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군사독재 강화 노린 또하나의 정치쿠데타

《소선거구제개정안》의 강행통과놀음을 두고

지난 8일에 있은 괴뢰국회에서 괴뢰여당 《민정당》 깡패들이 《소선거구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이란것을 야당《의원》들을 제쳐놓은채 단 1분동안에 강행통과시키는 만행을 감행한것은 괴뢰국회에서 여당이 안정다수를 확보함으로써 군사독재를 보다 용이하게 실시할것을 노린 파쑈적폭거이다.

로태우일당이 전두환과 이전 독재자들이 쓰던 상투적수법을 그대로 본따 야당《의원》들의 《국회》진출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소선거구제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것자체가 이자들이 떠드는 《민주화합》이 얼마나 기만에 찬 허구이며 로태우괴뢰정권이 전두환군사파쑈독재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이것은 로태우일당이 강행통과시킨 《소선거구제개정안》의 내용을 보아도 명백하다.

이 《개정안》은 남조선전역을 224선거구로 나눈 1구 1명의 《소선거구제》인바 이 선거구의 구분자체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괴뢰여당에 유리하게 짜여졌다. 그것은 선거구를 나눔에 있어서 괴뢰들이 도시부와 농촌을 4대 6의 비률로 정해놓은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례컨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의 5개 도시에 사는 인구는 총인구의 45%나 되는데도 선거구수는 35%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괴뢰들은 야당지지도가 높다고 하는 도시부의 선거구를 적게 배당하는 한편 저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농촌의 선거구를 많게 설정함으로써 여당패거리들의 《국회》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만행을 감행한것이다.

뿐만아니라 괴뢰들은 지방구의 3분의 1, 즉 75개의 의석을 전국구로 설정해놓았는바 그 절반을 득표률에는 관계없이 지방구 제1당에 배당하도록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지방구에서 괴뢰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괴뢰국회에서 안정다수를 확보할수 있게 한 파쑈적조치이다.

바로 이와 같이 괴뢰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소선거구제개정안》은 로태우일당이 새 《국회》를 장악하기 위하여 감행한 또하나의 정치쿠데타놀음이다.

이것은 로태우괴뢰정권이 우두머리가 바뀌여졌을뿐 전두환군사독재와 하등의 다름도 없는 파쑈정권임을 낱낱이 드러내놓은것이다.

향도의 해발 우러러

영광의 자욱을 따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야외촬영거리)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영화도시

평양의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솟은 봉화산을 에돌아 형제산구역쪽으로 나가면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영화도시가 보인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1947. 2 창립)이다.

해방후 첫 예술영화(《내 고향》 1949년)를 제작한 이 촬영소는 《이름없는 영웅들》, 《백두산》, 《조선의 별》을 비롯한 수많은 명작들을 세상에 내놓은것으로 잘 알려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영화예술부문에서 변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촬영소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신 영화혁명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일찌기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와 극진한 배려를 받으며 발전하여왔다.

촬영소의 일군은 《1960년대초부터 오늘까지 촬영소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는 실로 320여차례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영화촬영소의 발전력사는 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력사라고 할수 있습니다.》고 감명깊게 말하는것이였다.

대창작기지로 꾸려진 이 촬영소는 큰 규모의 현대적인 실내영화촬영장들과 훌륭한 야외촬영거리를 가지고있다.

1980년대초에 새로 꾸려진 야외촬영거리를 돌아보는 우리들에게 촬영소일군은 이곳에 깃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찌기 촬영소가까이에 옛날 거리와 마을 같은것을 만들어 지난날 생활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실감있게 찍도록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드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촬영에 다방면적으로 리용될 야외촬영거리를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그리고 1980년 9월에는 이곳 예술영화촬영소에 일떠서게 될 야외촬영거리의 규모와 건설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거리에 건설하는 집들은 영구건물로 지어놓고 작품별로 미완성건물을 배합하여 촬영에 다양하게 리용할데 대하여 지도하시였으며 그후에는 수많은 자금과 자재를 베풀어주시여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사가 끝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촬영에서 사소한 제약도 받지 않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3만여평방메터의 넓은 부지에 새로 꾸려진 야외촬영거리는 력사물과 현대물을 거의다 찍을수 있게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있는 여러 갈래의 웅근도시구획들을 이루고있다.

리조봉건사회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우리 나라 과거사회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건물들을 갖춘 조선거리를 비롯하여 중국거리, 일본거리들도 옛모습 그대로 형상되여있으며 서양거리, 남조선거리도 생동하게 꾸려져있다.

마치도 당시 거리를 거닐고있는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될만큼 잘 꾸려진 거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동한것은 건물자체보다도 그 모든것 하나하나에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체적이며 적절한 지도가 깃들어있다는 사실이였다.

봉건시대 관청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있는 조선거리의 옛날 관청도 처음에는 요란한 규모로 지어놓았지만 웬지 건물이 허전하고 불안정하며 관청맛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단번에 그 원인이 단청(옛날식건물 등에 그림이나 무늬를 그린 채색, 단벽)에 있다는것에 착안하시고 규모를 크게 잡고 지은 옛날 건물에는 단청을 꼭 해야 한다고 지도(1981. 12. 21)하시였다. 그리하여 지금과 같은 나무랄데없는 관청건물이 완성되였던것이다.

협소하고 소극적으로 꾸려져있던 옛날의 초가마을을 몇배로 확장하여 전경화면까지 다 촬영할수 있도록 하시였는가 하면 중국의 옛날 거리에 붙어있는 당시 특색을 나타낸 뚜렷한 광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그이의 지도가 미치지 않은것이란 없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대담하고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처럼 완전한 대영화촌이 꾸려지게 되였던것이다.

종합적인 대영화촌을 꾸리시여

그리하여 시기별, 계절별, 부문별에 관계없이 십여개의 창작단이 한곳에서 동시에 촬영할수 있게 되였으며 영화인들은 먼 지방에 나가지 않아도 모든 촬영을 거의 촬영소안에서 해결할수 있게 됐다.

오늘 우리 나라 영화창작에서 창조되고있는 속도전의 비결의 하나를 이곳 야외촬영거리에서 찾은것 같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촬영소를 다 가보았다는 외국의 한 배우는 이곳을 돌아보면서 《이처럼 넓은 부지에 현대적으로 완전하게 꾸려진 종합적인 야외촬영거리는 보지 못했다.》고 감탄하면서 말하였다고 한다.

1970년대 주체적문학예술의 전성기를 마련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선의 영화예술은 앞으로 더 얼마나 발전해나갈것인가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영화촌을 떠났다.

(본사기자)



종합적인 대영화촌으로 꾸려진 야외촬영거리의 일부

우리 학습실

주체사상에 의한 맑스—레닌주의의 계승발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내가 이미 여러번 강조한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혁명적원칙을 다 계승하고있습니다.》

문헌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 대치되는 사상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다 계승하고있다.

그러면 왜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계승하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맑스—레닌주의가 근로인민대중이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재부이기때문이다.

둘째로, 원래 혁명사상의 발전이 계승과 혁신의 두면을 가지게 되며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가 다같은 과학적공산주의사상으로서 공통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계승한 내용은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전반을 일관하고있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맑스—레닌주의의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인 원리와 과학적인 리론이다.

문헌은 주체사상에 의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발전에 대하여 밝히였다.

혁명사상은 력사적환경이 변화되는데 맞게 발전된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훨씬 높아지고 사회발전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달라진 력사적조건에서 창시되였다.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공산주의건설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쏘베트정권에 전기화를 더한것이라고 한 레닌의 명제를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명제로 발전시킨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물질적요새와 함께 반드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는 리론을 밝힌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인민정권을 강화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한것이다.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린다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혁신으로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

조선의 근로자들
첫 10일간에 큰 성과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조선의 근로자들은 지난 10일동안에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은 공화국창건일(9.9)까지 비날론 10만톤생산능력의 공장 건설을 완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첫 10일동안에 매일 지난 1월하순에 비하여 건설조립액은 1.8배, 강철구조물조립은 1.7배, 설비조립은 1.8배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이 기간에 또하나의 카바이드로건설을 완공하여 불을 지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200일전투의 첫시작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고있다.

나라의 굴지의 석탄생산기지들인 안주지구, 순천지구, 북부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구의 탄광 탄부들은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첫 10일동안에 그전보다 매일 2만톤이상의 석탄을 더 생산하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적극 벌려 첫 10일동안에 철도부적으로 매일 그전보다 5만여톤의 짐을 더 실어날랐다. 그리고 각지 기관차대들에서는 이 기간에 견인정량보다 수십만톤의 짐을 더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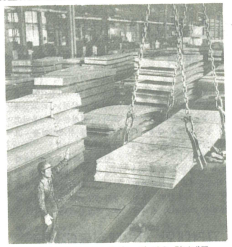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건설을 담당한 건설자들은 건설장마다에서 《평양건설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200일전투에 들어와 첫 10일동안에 그전 10일간에 비하여 현물지표계획수행은 2배이상, 살림집조립속도는 2.6배로 끌어올리는 혁신을 일으켰다.

200일전투에 들어와 채취, 금속, 전력 등 기간공업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200일전투의 불길 세차게 타오르는 조국의 건설장(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비날론구역 건설장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채취설비생산자들
생산에서 혁신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채취설비생산자들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채취기계공업총국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요즘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채취설비생산을 1.3배로 높이고있다.

특히 새로운 탄광, 광산들이 적극 개발됨에 따라 착암기와 탄차 생산이 더욱 늘어났다.

채취설비생산기지의 하나인 5월10일공장에서는 새형의 채탄기를 만들었다.

이 채탄기는 서부지구의 탄상조건에 맞고 갱내기동성이 매우 좋다.

공장에서는 최근에 대형권양기생산에서 새 기술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권양능력을 1.2배로 높였다.

전천착암기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더욱 현대화함으로써 올해에 들어와 두달동안에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고성능착암기생산을 1.4배로 늘이였다.

평양탄광기계공장에서는 요즘 유압식종합기계동발과 사슬콘베아, 탄차 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8배로 높이고있다.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는 최근에 종전의것보다 3배의 능률을 내는 부선기를 만들어냈다.

순천탄광기계공장, 사리원광산기계공장, 8월28일공장 등에서도 성능높은 채취설비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농사차비,마감고비에서 적극 추진

조선의 각지 농촌들에서 요즘 농사차비가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농업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7일현재 전국적으로 농사차비가 자급비료생산은 103.5%, 부식토생산은 110.7%로 수행되였다.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는 이미 생산된 거름의 90%이상을 포전들에 실어냈다.

특히 200일전투가 시작된후 최근 10여일동안에만도 247만 6,000톤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냈다.

한편 협동농장들에서는 1만 2,000여정보의 랭습지를 개량하고 3만 6,000여정보의 밭에 흙깔이를 하였으며 수백정보의 새땅을 찾아냈다.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들에 대한 수리정비가 끝났으며 농사일에 필요한 소농기구들도 충분히 마련되였다.

한편 각 도, 시들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농촌을 적극 돕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2월말현재로 도시들에서 생산된 근 1,000만톤의 거름과 수백만점의 소농기구들이 농촌에 들어갔다.

지금 각지 농업근로자들은 농사차비의 마감을 결속하면서 씨뿌리기준비를 다그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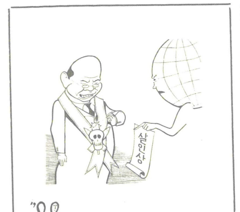


온천군 성현협동농장 농장원들은 강냉이영양단지를 실속있게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배은망덕

목소리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남에게서 받은 신의를 례사로 저버리며 평생을 두고도 갚을수 없는 크나큰 은덕을 망탕 잊어버리고 은인에게 도리여 막심한 해를 입히는 추물들이 있었다. 그러기에 제가 기른 개에게 발꿈치를 물린다는 속담도 나왔는가 보다. ▼최근에 남조선과 일본의 황색 신문들과 방송들을 통하여 신상옥, 최은희의 해괴망측한 《수기》라는것이 보도되기도 하고 사실무근한 얄궂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들의 뚱딴지같은 넉두리를 일일이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않지만 이자들의 언행이 너무도 도리에 어긋나고 푸념과 지청구같은 잡소리가 너무도 허위기만에 차고있기에 한마디 한다. ▼미중앙정보국의 꼭두각시가 되여 상전의 조종하에 광대놀음을 벌리고있는 신상옥, 최은희는 기급하여 까무라쳤는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머리가 돌아가서 그런지 딱히 모르나 그 무슨 《수기》라는데서 《랍치》요 《감금》이요 《탈출》이요 하는 망발을 뻔뻔스럽게 늘어놓았다. 묻노니 그들이 언제 공화국에 《랍치》되였고 《감금》되였는가. 입은 비뚤어도 주라는 바로 불라 하겠다. 《랍치》되고 《감금》된 인간들이 어찌하여 구라파나라들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며 영화를 만들었는가 말이다. ▼그들자신이 일본기자들과 만나 《자유의사로 북조선을 방문하였다》, 《북이 마련하여준 칸바스에 우리들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자유로운 작가임에는 다름이 없다》, 《…한국을 탈출한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독재정권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출해낼수 없는 부패〉에 절망했기 때문이였다》고 공언하였다. 이것은 죄다 입에 발린 소리이고 새빨간 거짓말이였던가. ▼두 광대는 이래놓고 오늘에 와서 이와는 영 다른 망발을 고아대고있다. 배은망덕한짓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너절하고 추잡한 배신행위를 하는 망나니들이 어데 있겠는가. 짐승만도 못한 인종지말이다. 효조(孝鳥)라고 하는 까마귀도 은혜를 갚기 위해 반포(反哺)한다. 신상옥, 최은희는 반포조가 되지 못할망정 은인을 해치는 화적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노벨상이 아니라

리사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학교운영을 정상화

《영예의 모범교육회》 칭호를 수여받은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 교육회

리사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학교운영사업을 정상화하여온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 교육회는 제13차교육열성자대회에서 《영예의 모범교육회》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교육사업은 전체 재일동포들의 적극적인 성원속에서만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있습니다.》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운동의 중심에 놓고 활발히 벌리는 총련본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과 단체들.

귀여운 자녀들을 위해 학교사랑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리는 학교리사들과 동포들.

이곳 교육회가 수여받은 자랑스런 칭호의 근저에는 리사들과 동포들의 뜨거운 애교심이 깔려있고 학교운영사업을 철저히 전동포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온 교육회운영사업의 귀중한 경험이 놓여있다.

동포들의 뜨거운 애교심

《본토와 멀어진 이곳 혹가이도에도 자녀들이 배울수 있는 민족학교를 내오자!》

동포들의 이 한가지 뜨거운 소원이 실현된것은 해방후 16년이 지난 1961년이였다.

학교가 없어서 오후야간학교나 《자주학교》에서 배우고있었던 자녀들, 학교가 없어서 멀리 떨어진 도꾜에까지 가서 우리 학교에 다니고있었던 학생들.

그들에게 배움의 마당을 마련해주자는것은 지난 시기 강제징용으로 여기에 끌려와 탄광에서 고생속에 지내던 이곳 동포들의 오랜 소원이였다.

고생속에 일떠세운 학교,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 자기들의 힘으로 오랜 투쟁을 거쳐 세운 학교를 동포들은 매 시기마다 닥쳐온 난관을 이겨내면서 굳건히 지켜왔고 1971년에는 새 교사를 일떠세우고 82년에는 고급부를 병설하였다.

대는 바뀌여 지난날 배우던 학생들이 오늘은 학부형이 되여 지난 시기 1세동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학교를 위해 모든 열성을 다하고있다.

《지난 시기 1세동포들은 자기들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를 목숨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뜻을 이어 계속 학교를 우리 동포들의 힘으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지요.》(최회순리사)

오늘 이곳의 학교사랑하는 운동은 동포적인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다.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보수한 젊은 동포상공인들, 대형통학뻐스를 혼자서 기증한 어느 애국적할머니, 학생들이 학교식당에서 먹는 쌀을 1년동안 보내준 어떤 동포.

뿐만아니라 녀성동맹 삿보로지부 남분회에서는 모든 동포집에 저금통을 갖추고 꾸준히 모은 돈으로 모든 교실에 립체적흑판을 마련해주었고 북서분회에서도 학교도서실을 새로 꾸려주었다.

그외에도 최신식인쇄기, 텔레비존, 콤퓨터, 방송기, 세탁기 등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동포들이 마련해준것이고 학부형들은 학교에 찾아올 때면 과실, 남새, 과자 등 어린이들을 위하여 하나라도 물품을 가져오는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여있다 한다.

《일본 각지엔 우리 동포들과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우리 혹가이도동포들의 애교심은 그 어디에도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 애교심을 어떻게 학교운영사업에로 돌리는가 하는것이였지요.》(리진택회장)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회는 학교사업을 전기관적이며 전동포적인 힘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돌렸다.

전기관, 모든 동포들이 큰 관심을

모든 기관과 동포학부형들을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것은 4개월동안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난해 11월에 혹가이도적으로 처음으로 진행한 민족교육심포쥼이였다.

교육회리사, 열성학부형 그리고 각 기관일군들을 수많이 망라하여 진행된 이 모임에서는 민족교육의 중요성과 총련의 교육방침을 해설침투하고 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앞으로의 전망, 제기되는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각 기관일군들과 동포들의 관심을 학교사업에로 돌리기 위하여 교육회에서는 또한 교육회 전임일군들과 리사들이 함께 총련지부는 물론 교육회 지역별협의회와 총련분회위원회 그리고 매개 단체들에 적극 들어가 호소하였다.

총련 본부와 지부를 비롯한 각 기관책임일군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회상임리사회와 리사회에 반드시 참가하게 되는 등 학교운영사업에 모든 기관과 동포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였다.

또한 지역마다에서 교육강연회를 가지며 방학에는 학생들이 꼬마선전대를 무어 동포들속에 들어가는가 하면 《학교신문》, 《기숙사소식》을 만들어 달마다 정기적으로 동포들에게 보낸 일들은 모두 동포들의 학교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두터이 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였다.

그러는 과정에 모든 기관들에서는 학교운영사업을 자기들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큰 힘을 돌리게 되였다.

또한 녀성동맹 매개 분회마다에 자녀교양담당분회위원이 나와 분회들에서도 학교사랑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나갔다.

각 기관에서 학교사업을 중심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니 동포들도 학교사랑하는 사업에 더욱 열성을 다해나갔다.

모든 리사들이 구체적인 분공을 맡아

각 기관들과 동포들의 관심을 학교사업에로 돌리는것과 함께 교육회는 리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 큰 힘을 돌렸다.

교육회는 우선 리사회를 질적으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총련본부의 지도밑에 동포들속에서 신망이 높고 실지로 움직일수 있는 젊은 학부형들을 찾아내여 그들과의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짜고들어 리사회를 학교졸업생들을 위주로 하여 젊은 동포들로 꾸렸다.

또한 그들속에서 교육회란 어떤 조직이며 어떤 임무와 역할을 놀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양선전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리사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나갔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리사들에게 자기가 학교운영사업의 중요한 모퉁어를 맡고있다는 자각을 확고히 안겨주는것이다.

그를 위해서 이곳 교육회에서는 모든 리사들이 한가지이상의 분공을 맡도록 하였다.

교육회에서 내온 기업체책임자, 지역담당자, 또한 리사들이 매개 분회의 자녀교양부장을 맡고있으니 그들에겐 분회를 맡도록 하였다.

리사들은 모두 자기가 해야 할 사업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나갔다.

먼 지역에서 사는 리사들도 자각적으로 자기 지역을 돌아 그곳 지역사업을 자기들이 해결하고 교육회사업을 적극 안받침해주고있다.

지난 시기 교육회 몇몇 전임일군들이 넓은 도내를 다니면서 사업하는 낡은 틀을 마스고 전기관적이며 전동포적인 힘으로 학교운영사업을 벌리게 되였다.

오늘 이곳 교육회 운영사업은 모든 기관의 협조밑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독자적으로 내온 기업체를 리달수부회장이 책임적으로 맡아함으로써 운영사업은 원만히 해결되고있다.

《올해 학생수를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게 된것도 결국은 학교운영사업이 전기관적, 전동포적인 사업으로 전환된 성과이며 열매입니다.》

이곳 교육회 김전치부회장은 교육회가 거둔 성과의 생활력에 대하여 이렇게 맺었다.

(본사기자 진상부)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는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 학생들



우리 학교 신입생들을 축하하는 제5차어린이모임

새학년도 나머지 18일

《뜻밖의 성과》
어머니들의 단결을 이룩한
녀성동맹 기다지부관하 어머니들

《초급부생이 되며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멋있게 왕관을 쓰고 선물을 받아안은 14명의 신입생들이 인사하자 장내에 우렁찬 박수가 터졌다.

녀성동맹 기다지부가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축하하는 제5차 어린이모임을 6일 기다구 아까바네회관에서 진행하였다.

5년간 계속하여 온 어린이모임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이 모임은 회수를 거듭하는 과정에 그 내용이 깊어지고 규모도 커지고있다.

올해도 분회별노래자랑, 어머니들이 출연하는 무용 《쟁강춤》, 권도회 소년부동무들의 권도연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짜여졌다.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발동된 어머니들의 수는 50여명이나 된다.

《모두가 조금씩 분공을 맡아나섰기에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고 이야기하는 어머니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 무열 해주고싶다는 생각으로 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고 입을 연 가미야분회 부분회장인 리가영어머니.

기다지부관하의 아이들은 도꾜제1초중과 도꾜제3초급으로 간다. 때문에 같은 지부에 거주하면서도 서로 전혀 얼굴을 모르고 지낸다.

어머니들은 녀성동맹모임시에 가끔 얼굴을 보지만 역시 아이들이 같은 학교가 아니라는데서 친숙정도의 깊이가 얕았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서로 다정하게 지내며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아이들이 다같은 기다구거주 조선아이로서 잘 알게 하자는것이 모임을 조직한 동기였다고 한다.

《신입생들을 축하하는 모임이면 매해 가질수 있고 또 이 모임이 젊은 어머니들을 우리 녀성동맹조직에 망라할 좋은 기회로 되고있습니다.》고 이야기하는 지부 자녀교양부장인 김성희어머니의 말대로 이 모임을 조직한후부터 녀성동맹조직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고 한다.

젊은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여

《첫시기 녀성동맹조직을 꺼린 사람들도 자기 어린이가 모임에서 성대히 축하해받았기때문에 다음번에는 자기가 해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어머니들끼리의 련계가 깊어지고있습니다.》고 김성희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올해도 음식만들기, 무대장치, 접수 등 모든 작업을 각 분회마다에 분공하고 20대, 30대 젊은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여 짜고들었다. 《지금은 아이들은 물론 우리 어머니들이 이 모임을 기다리며 기뻐하고있습니다.》라는 말대로 어머니들은 모두가 주인된 립장으로 준비사업에 참가하고있다.

무용에 출연한 어머니들은 집일이 바쁜 속에서 3개월간 매일 련습을 하였으며 무대장치를 한 어머니들은 밤늦게까지 종이꽃 만들기에 분투하였다.

당일에는 아버지들도 짐운반을 맡아나섰다.

그리하여 모임에는 신입생을 비롯하여 올해부터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되는 편입생들, 올해 중급부로 진학하는 초급부 6학년 학생들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265명이 참가하였다.

《학교전의 어린이들이 언제 되면 자기도 그렇게 축하받을수 있는가고 물으며 모임중에 래년에는 이런 일을 하자는 어머니들의 의견을 듣게 되니 이 모임을 조직해서 정말 좋았다고 느낍니다.》고 리경숙지부위원장은 이야기한다.

실로 이 모임을 통하여 이곳 어머니들은 하나의 목적밑에 모든 어머니들이 합심하여 사업을 하며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였다.

와까야마현에서 동포녀성들 가두선전

녀성동맹 와까야마현본부에서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을 폭넓게 알리기 위한 가두선전사업을 얼마전 두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내외반동들의 모략에 분격한 와까야마현본부관하 동포녀성들 27명이 제이아르 와까야마역, 낭까이와까야마시역, 브라그리쬬 등에 나와 길가는 사람들에게 삐라를 넘겨주었다.

일조련대녀성의 회에서 결의문

2월 28일 와까야마일조련대녀성의 회 제5차총회에서 일본정부의 부당한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와까야마일조련대녀성의 회 마스다 에미꼬회장은 《일부의 보도에 맞장구를 치는것이 아니라 본질을 똑바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올림픽을 앞두고 책동이 로골화될수 있는데 우리는 조선녀성들과 굳게 손잡고 싸워나가겠다.》고 말하였다.

【녀성동맹와까야마】

도꾸시마청년부인단결집회에서
《팀 스피리트 88》과 일본정부의 《제재조치》를 규탄

제9회도꾸시마청년부인단결집회(6일, 도꾸시마로동복지회관, 600명 참가)에서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제재조치》에 항의하고 옥중에 있는 재일조선인의 즉시석방과 《팀 스피리트 88》을 반대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는 일본정부가 책임성있는 의교정책과 인명존중 그리고 평화공존의 사회를 건설할 책무를 가지고있으면서도 그와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로태우《정권》의 기만에 찬 《정치범석방》놀음,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소동에 대하여 견결히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은 반평화적, 반동적 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일본정부도 평화외교와 선린우호적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총련본부 김태규위원장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본질과 배경을 폭로규탄하고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해줄것을 호소하였다.

【도꾸시마지국】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리기 위한 총련 도꾜도본부 궐기모임

시일;1988년 3월 17일 오후 1시

장소;조선출판회관

※18일;총련 가나가와현본부

19일;총련 아이찌현본부,총련 후꾸오까현본부

23일;총련 오사까부본부,총련 교또부본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라라



김순희(녀—5살 2개월)
1982년 12월 15일생
김순화(녀—1살 6개월)
1986년 9월 12일생
아버지 김정욱(31살), 어머니 황민혜(29살)
총련 오사까부 도아지부관하

이모가 입혀준 치마저고리에 기뻐하는 자매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라, 큰 희망 키워라.

좌담회

△참가자
사다마쯔 도오루(貞松融) 효고일조예술교류회 대표위원, 사다마쯔·하마다바레단 대표
기요다 유지(清田雄司) 일조미술간담회 사무국장, 판화가
후지와라 야스히꼬(藤原靖彦) 일조음악예술교류회 리사, 교또시교향악단 연주가
사회 본사기자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한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속에서도 참된 평화와 친선을 위한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교류는 힘차게 벌어져왔으며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나가고있다.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친선교류는 최근시기 활기를 띠고 벌어져 귀중한 열매를 맺어가고있는바 일조음악예술교류회, 효고일조예술교류회, 일조미술가간담회 등 일본 각지에 무어진 단체들의 활약도 주목되고있다.

본지에서는 이제까지 일조문화교류사업에 앞장서온 저명한 일본문화인들의 좌담을 통해 그 《흐름》의 일단을 엿보기로 한다.


올해 오사까에서 진행된 일조우호《2월의 음악제》

막을수 없는 일조친선의 흐름
엄혹한 정치적상황 깨뜨리는 힘있는 문화교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된다

—참된 조일친선을 깊여나가는데서 지금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들이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사다마쯔: 이제까지 4번에 걸치는 공화국방문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작년에 효고일조예술교류회가 발족되여 동회를 대표하여 나까무라 시게다까씨가 공화국을 방문함으로써 일조교류는 큰 발전을 보았는데 그럴 때에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 《랑군사건》, 《김포공항폭발사건》 등과 관련시켜서 볼 때 남조선의 정치상황이 복잡할 때 의례히 일어난다는것, 북남의 대화분위기가 고조될 때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느모로 보나 모략으로밖에 생각할수가 없다. 아직은 《실종》일뿐이지 《사건》으로서의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매스콤이 《안기부》발표만을 일방적으로 흘리고있어 매우 우려된다. 우리도 효고의 문화인들로 성명을 발표하고 호소도 하고 서명운동도 벌리고있다. 량식있는 일본인민들이 이 모략의 진상을 밝혀나갈것이라고 확신한다.


후지와라씨
인민과 예술에는 날조된 상황 없어

후지와라: 나는 1984년에 공화국을 방문한데 이어 작년에는 104명규모의 교또시교향악단 성원으로서 두번째로 방문하여 교또시의 문화사절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다마쯔선생과 동감인바 그런 큰 비행기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폭파된다는건 있을수 없다. 유감스럽지만 일본공안당국과 남조선당국이 한짝이 되여 꾸민 모략이라고밖에 생각못한다. 참된 일조친선을 희망해온 한 음악가로서 분격을 금치 못하며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있다. 간단치는 않지만 우리는 일조친선을 더 전진시킴으로써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요다: 나도 2번의 공화국방문경험을 가지고있다. 1975년에 간사이지방 각계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두번째로는 1981년에 평양에서 열린 제1차일조우호친선전람회때에 갔다왔다. 그 전람회는 우리 일조미술가간담회뿐아니라 일본미술회, 도꾜의 평화회의, 가나가와의 일조우호전 등 4단체가 힘을 모아 실현시켜 200명 작가의 작품 200여점을 전시하였는바 2만 수천명의 공화국인민들이 찾아와서 대성황을 이루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 목격한 조선의 모습, 온 나라가 떨쳐나서 사회주의건설에 매진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그걸 생각할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되고있는것들이 매우 불투명한것들이다. 이럴 때일수록 인민들 호상간의 교류, 나는 미술을 통한 교류로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다마쯔: 남조선에 큰물피해가 났을 때 평양에서 구원물자를 보낸 일이 있었지요. 그와 같은 공화국의 일관한 성의를 짓밟는 남측의 태도가 매우 우려된다. 내가 첫번째로 공화국에 간것은 1964년 도꾜올림픽의 해였다.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공연을 할수 있어 잊을수가 없는데 그때 남조선에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군대가 있다는것이 이상하다는것을 실감하였다. 북에는 외국군대가 없는데 남에는 미국군대가 들어앉아 주권을 침해하고있다는 실감이 조선문제를 보는 나의 눈으로 되였다. 그후 효고조선가무단과의 교류가 시작되여 조선무용도 배웠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공화국을 방문하여 내가 춤을 춘 무대에서 내가 키운 단원들이 공연을 한다는 감회깊은 이야기도 있다. 그러는 사이에 조선의 벗들도 많아지고 자리를 같이할 때면 평화통일된후에 금강산에서 신년회나 가지자는 꿈을 자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일조친선운동과 더불어 그런 꿈도 함께 키워왔다.


사다마쯔씨
량식있는 일본인민도 《칼기》모략 밝힌다

기요다: 조선은 일본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우지만 실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이다. 이건 국교가 회복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일본에서는 조선의 참모습이 소개되기보다 왜곡된 모습들이 날조되고있다. 실지 가보면 사회건설에 모두가 떨쳐나서 날마다 발전하고있는 나라라는것을 실감할수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의 학생들이 위협을 받고있는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조선의 참모습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는상 싶다. 서로의 민족, 인간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것이 문학예술사업의 근저에 깔려있는데 그런 립장에서 볼 때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문화교류의 풍요한 열매

—그런 상황을 문학예술이 어떤 힘으로 어떻게 깨뜨려나가야 하는가를 여러분의 경험과 더불어 이야기해주십시오.

후지와라: 엄혹한 상황이란것은 인민들이나 예술속에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정치적으로 꾸며진것이다. 특히 일미《한》의 유착과 작년 12월의 남조선《대통령선거》 그리고 올림픽문제 등의 정치적움직임속에서 의도적으로 꾸며졌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학술, 문화, 예술을 통한 일조교류가 이런 꾸며진 상황을 깨뜨릴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작년에 방문했을 때 우리 악단속에도 여러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갔다오면 잘 알수가 있다. 이런 민간외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조선의 북과 남, 미국의 당사자들이 공화국의 대화를 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지원해나가야 할것이다. 그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화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차례져야 한다.

기요다: 미술의 경우 일본미술의 원점은 바로 조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1년에 갔을 때 공화국의 배려로 덕흥리고분벽화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까마쯔즈까의 원형이 그대로 있었다. 미술교류의 력사는 매우 오래며 조선에 일본의 미술이 자라온 원점이 있다. 특히 조선에서는 해방후에 자라난 화가들이 《조선화》라는 새 쟝르를 창조하였는바 조선의 민족화로서 힘을 가지기 시작하고있어 매우 주목을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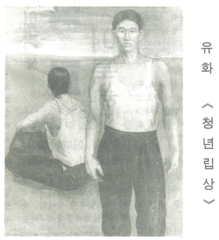
사다마쯔: 무용경우 내가 처음으로 간 1964년당시와 그후에 큰 발전이 있었음을 엿볼수가 있었다. 무용의 민족화가 촉진되여 민족무용이 활짝 꽃폈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녀성들의 무용은 세계에서 제일 매력적이지 않는가싶다. 바레도 최근에는 련습에 많이 도입하고있다고 한다. 재작년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했는데 외국의 바레작품들도 크게 소개되고있었다. 나는 일본의 바레를 창조하자는 취지밑에 바레단을 결성했기에 공화국에 갈 때도 《담보》(논), 《마쯔리》(축제) 등 일본적인 소재를 담은 창작무용을 가져갔다. 그러니 공화국에서는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고 평가를 해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공화국에 대하여 느끼는것과 같은 감상이였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평가되지 않는데(웃음) 조선에서 평가되니 보람과 기쁨이 되살아났다.


기요다씨
문화예술로 조선의 참모습 알려나가야

기요다: 일조우호전때 실험적으로 《추상화》를 가지고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흥미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추상화》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걱정도 했는데 실지 전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시해주었다. 그런걸 자유로이 전시해준 공화국의 호의에 많은 친근감을 느꼈다. 조선의 미술중에서도 특히 조각예술은 매우 훌륭하다. 집단창작의 대규모군상이 지방마다에 있는데 일본에서는 잘못하는 예술가들의 힘의 발휘라 할가, 사회건설의 립장에서 훌륭한 집단창작을 하는데 놀랐다. 재일조선미술가의 작품도 자주 보는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깊이에 언제나 감명을 받는다.

후지와라: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일조문화교류에 대한 기대와 포부도 겸해서 이야기를 계속해봅시다. (계속)

제16차학생미술전람회 1등작품


유화 《청년립상》 고베조선고급학교 3학년 한진원

주관적인 감정이입, 인물묘사도 뛰여나

두 청년을 상징적으로 그렸습니다.

배경도 하늘, 땅 그리고 길을 상징화하였습니다.

지나온 과거와 앞날을 향하는 마음으로 해석할수도 있고 진로를 숙고하는것으로도 해석할수 있습니다.

이무렵의 청년들에게 흔히 볼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입(感情移入)의 한 형상입니다.

그런데 큰 작품속에 인물묘사를 진지하게 잘 그렸습니다. 고급부 3학년의 유화작품으로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소묘력의 기초가 되였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색감도 안착하고 질감도 효과적으로 표현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술실기수준은 해마다 높아지고있습니다. 뛰여난 재능을 가진 동무들도 해마다 많아지고있습니다.

이들이 일본사회에서 민족자주의식과 주체를 세워 미술활동을 마음껏 전개할수 있도록 좋은 편달이 필요할것입니다. 이 보물같은 후비들이 일본의 복잡하고 착잡한 문화예술의 수림을 정처없이 헤매는 나그네가 되지 않도록…

(이상 평자는 김한문씨, 학생미술전람회 심사위원장)

투고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것

리 명 숙

어느 동무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것
그건 내리감기는 눈까풀이라더니
참으로 그렇구나
오늘도 그 무거운 눈까풀
깜박깜박 하염없이 떨어지누나

세수해도 깜박깜박
커피 마셔도 깜박깜박
머리속엔 뭇별들이 깜박깜박
눈앞엔 침대가 아물아물

그런데 문득
나는 생각했어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것
그것은 마음의 량심,
무쇠같은 다짐이라야지!

나는 조선대학생—
팔팔 끓는 청춘의 이 피와 함께
콸콸 흐르는 우리의 사명감
이 심장에 높뛸 때
어찌 눈까풀이야 무거워질수 있으랴!

나는 책장을 넘긴다
오늘도 펜을 달린다
뭇별들은 깜박깜박
달님은 벙글벙글

(조선대학교 문학부)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 (260) 5881
内線 453・435
436・428

全斗煥に強大な権限
元老諮問会議
全・盧体制の構築が狙いか
「政権交代」は名ばかり

南朝鮮当局は七日、全斗煥が議長に就任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国家元老諮問会議」施行令案を明らかにした。同施行令は以前の「国政諮問会議」に比べて機構が大きく膨張している上に、権限の上でも「諮問機関」の役割を超えていることから、野党やマスコミからは全斗煥が院政を狙った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念と批判の声も上がっている。批判の厳しさにあわてた「政府」当局は八日、機構の一部手直しを表明したものの、その具体的内容は明らかにせず、全斗煥が「元老」の名のもとに今後も全＝盧ラインに沿い、「政権」内に強い影響力をもつことは確実になってきた。

「国家元老諮問会議」の役割は、新「憲法」の第九十条によると「国政の重要な事項について大統領の諮問に応じる」となっている。

しかし、二月二十四日に公布された同「会議法」や今月七日にまとめた同施行令によると、今度の場合前身の「国政諮問会議」よりも、はるかに肥大化した機構と大きな権限をもっており、すでに「諮問」という範囲を超えている。

前身の4倍にも肥大化

同施行令案によれば、会議事務局には閣僚級の事務総長一人、次官級の事務次長、議長秘書各一人など、常勤職員四十八人を置くとしている。

前身の「国政諮問会議」が、事務総長を「大統領」政務秘書官に兼任させるなど、事務員などを「大統領」秘書室所属の職員らによって構成(常勤職員は四人)していたことから比べれば、その差は歴然としている。その人数も「政府」部署である政務第一長官室(三十二人)、政務第二長官室(二十人)の定員を凌駕(りょうが)している。

盧「政権」は当初、同施行令以外にも別途に定員八十人の「国家元老諮問会議事務局職制度案」を作成していたが、さすがにこの案件は世論の反発を恐れて廃棄したいきさつもある。

それによると、事務局の下に政策研究室まで置いて議長が指定する重要政策事項を分析、評価させ、必要であれば他の「国家」機関の長に所属公務員の派遣も要請出来るとなっていた。

また元老諮問会議は権限面でも①「大統領」や「政府」に対する建議や意見に対して「政府」が検討結果を報告することを義務付ける②請願を処理する権限を持つ──など、たんなる諮問機関の役割を超えている。とりわけ「元老議員の意見に対する大統領の検討結果の通告」をも義務付けていることは、「元老」が「大統領」にも権限を行使できるものとして、注目に値しよう。

待遇面も手厚く規定

また待遇の面でも、これまでの「国政諮問会議法」が、たんに「議長および委員に手当を支給し、公務で旅行する時は旅費を支給する」となっていたのと異なり、①公務で旅行する場合は、議長は「国会」議長、委員は閣僚に準ずる旅費を支給される②国公立病院は無料で診療を受けられる──など、手厚く規定されている。

「政権」を移譲したはずの軍事独裁者・全斗煥らに、引き続き大幅な実権を付与しようとする企図は、ほかでもなく彼らのいう「平和的政権交代」が名目上のものに過ぎず、実は全斗煥「政権」の延長という色彩の強いものであ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

これについて、南朝鮮各紙も一斉に社説を掲げ、「元老諮問会議が、そのようにすべてのことを多く受け持つならば国会はなにをし、大統領や行政府はなにをするのか。古今東西に、そのような肥大した元老諮問会議があって政事がうまくいき、国が栄えたためしがない」(八日付朝鮮日報)、「あたかもある特定な人物の位置とポストの保存のために機構を拡大編成したような元老諮問会議は、国民の否定的反応や反発を受けるに十分」(八日付韓国日報)など、非難の声を強めている。


「政権交代」とは名ばかりの盧「政権」―「大統領」就任式に向かう全斗煥と盧泰愚


「なんとか汚名を晴らしたい」─募る怒りを胸に団結と連帯を強めて差別発言に立ち向かう決意を新たにする名港地域の同胞たち

込み上げる怒り、同胞の心一つに
差別発言
愛知・名港地域同胞たちの声を現地から

自民党所属・名古屋市議議員の「差別発言」事件は、同党市議団団長による回答文の送付と面談における謝罪の表明により、ひと通りの結着を見るに至った。

市議会の議事録に記載されない審議上での発言について、「自民党が遺憾の意を公式文章で表したのは極めて異例なこと」(日本の野党市会議員)という。が、しかし不当にも「環境が乱れる原因」との汚名を着せられた港区─名港地域の同胞たちは、込み上げる怒りを今もなお抑え切れないでいる。

同市緑区の大高緑地公園で起きたアベック殺人事件の犯人たちが港区の南汐止荘に住んでいたということで同区を引き合いに出して、同地域の環境は在日朝鮮人・「韓国」人たちが乱している、といったとんでもない「暴言」を、元市議会議長が口にしたということ。事の重大性を考えた場合、「名誉の回復」を訴える同胞たちの心中は察するに余りある。

「組織の周りに固く団結して、私たちの正当な生きざまを地道に知らしめていくしかない」──ふりしぼるように意を決する名港地域同胞たちの生の声を現地から紹介する。

新聞見て激怒 議員に電話を

十日の午後、総聯支部非専従副委員長の池誠浼さんが、女性同盟・東海分会の分会長を務める夫人の崔得南さんとともに総聯支部事務所に来てくれた。

「差別発言」の事実を新聞で知り、「抗議行動を」と最初に呼びかけたのが池さんだった。

池さんは二日、支部での映画上映会に出て十時ごろに帰宅。寝床について、「毎日新聞」夕刊に目を通したところ、「自民議員が"差別"発言」との見出しが目についた。

「もう腹が立って腹が立って……。杉浦議員に直接電話をかけましたよ」

十時半から延々一時間。「アベック殺人事件と在日朝鮮人を絡ませた真意は何か」「環境うんぬんは行政機関、すなわち市当局に責任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なぜ朝鮮人になすりつけようとするのか」「学校がすさんでいるとか治外法権といって、朝鮮人を引き合いに出すとは何事か」などと厳しく問い正したという。

池さんは語る。

「夜も眠れませんでした。私たちが一体何をしたというんでしょう。次の日、会社を休みにして、支部に足を運びました」

いても立ってもいられず、夜明けとともに総聯支部に出向いた池さんは、「徹底的に釈明を要求すべきだ」と文泰植委員長に訴えたのである。

「いくら弁明したとしても、日々心の中にあるものが発言になったのは事実です。何の根拠もないのに朝鮮人を侮辱するとは絶対許せません。最近の情勢を考えて見ても、実に恐ろしい事態だと思います」と、池さんは声を震わせた。

団結し真しな姿知らせよう

四日、七日と緊急集会を開いた総聯名港支部・汐止分会の同胞たちは、自民党市会議員団の回答を受けて、十日にも集まりを持った。平日の午後、忙しい合い間をぬって十三人の同胞たちが参加、経緯を振り返りながら今後の対策などを率直に話し合った。

汐止分会の同胞たちは、杉浦議員の差別発言が、ひたむきに、実直に生きてきた同地域同胞たちの心を踏みにじるものとして、連日、抗議行動を繰り広げてきた。

七日に同議員の選挙参謀である自民党関係者を分会事務所に呼んで「発言」に対する謝罪を要求したことも、徹底追求の意思表示であった。事務所に入り切れないので、入口の戸を開け放ち門外にも人だかりができたという。

同日、緊急集会に参加した同胞の半数は、今まで分会の集まりにあまり出てこなかった若い同胞たちだったというが、まさに抗議行動が同胞たちの心を一つにしたと言えるのではないか。

十日、意見交換に集まった同胞たちの表情からは、闘いの真っただ中にいるような緊張感がうかがえた。

「今回の発言に対する日本の新聞・報道を見ると、本質をぼかし、私らが悪いというふうに決めつけられているようだ。謝罪広告を出すように求めたい、というのが素直な心境だ」と金琮寿分会長が切り出した。

「このままでは汐止に対する偏見が定着し、結局、朝鮮人のせいだ、とみんなの心に刻まれてしまう。なんとか汚名を晴らしたい」──金恵子さんはやるせない悔しさをぶつけ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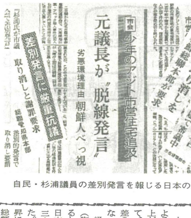
さまざまな意見が出され、「差別発言」による弊害が予想される、との危ぐの声も上がった。

同胞たちは、今回の問題を総聯本部との連携のもとに、今後も団結と連帯を強めて「差別発言」に立ち向かうべく決意を新たにした。

「私たち朝鮮人にとって団結なくしてできるものは何もない」と女性同盟顧問の朴月出、李一南さんらが言えば、「今回の問題で団結の新たな芽が生まれたと思う」と一同は口をそろえる。

「投書でもいいし何でもいいから、何か自分たちのひたむきで、生真面目な生きざまを各方面に知らせて、日本の人たちの支持・声援を受けるようにしたい」と河成福さんは語る。

「差別発言」によって「汚名」を着せられた同胞たち。募る怒りを胸に、「これからも団結していこう」と、気持ちを一つにしていた。(一)



自民・杉浦議員の差別発言を報じる日本の新聞など

経済ニュース

共和国 200日戦闘で大きな成果

各地の勤労者が二百日戦闘(共和国創建四十周年を今年度目標達成で迎える運動)で多大な成果を収めている。

順川ビナロン連合企業所の労働者は、建設組み立て量を先月の一日平均実績比一・七倍も上回らせた。そのうち土量工事二倍、部材組み立て一・八倍、コンクリート打ち込み一・九倍、築造一・六倍、鋼鉄構造物組み立て一・五倍に上げた。

同企業所では、二百日戦闘に入る前の一日平均実績に比べ、カーバイト五十㌧、ビナロン九十㌧、塩化ビニール十五㌧、モビロン四㌧、炭酸ソーダ三十五㌧を増産している。

沙里院カリ肥料連合企業所の労働者は数日で回転炉場と石炭焙焼炉、冷却場、原料場の敷地整理だけで三十七万立方㍍の土量処理を終了させた。

また石炭貯蔵場、冷却器など、主な建築物と設備の基礎工事を終えた。

特に、清渓鉱山と青丹鉱山開発に力を集中して、破砕仕分け場、圧縮器場、採掘場道路建設を従来の一・五倍の速度で工事を進めた。

南朝鮮 地価高騰で住宅難あおる

九日付けの「東亜日報」によると、昨年一年間、南朝鮮の地価が平均一四・六七㌫値上がりし、八四年以来の年間上昇率では過去最高を記録した、としている。

南朝鮮「建設部」が昨年末、全国一万三千七百十九カ所標準地域を対象に調査した八七年地価動向によると、中小都市地域の平均上昇率は一五・七九㌫で、大都市の一三・九一㌫と郡地域の一二・〇一㌫をはるかに上回る高騰ぶりを見せた。

地域別では鳴旨・菉山産業基地開発計画に影響を受け、慶南金海郡が平均八一・〇八㌫でもっとも値上がりが激しく、ついで城西公団が参入する大邱市西区が八〇・九七㌫、また釜山市北区が七一・六五㌫の上昇率を示した。

現在、南朝鮮では全戸数の四三㌫が借家住まいで、三三㌫がひと部屋の借家住まい、つまり約半数の家族が借家、三割がワンルームの借家に住んでいる、という統計が出ている。

住宅購入のための「融資制度」にも問題があるとされているが、地価高騰も住宅難をあおる「一翼」を担っている。

칼바람
狂気の時代

現職警官がブローカーと組んでニセの運転免許証を大量に発給する、強盗に襲われた婦人が派出所に通報しても「管轄が違う」とタライ回しにされる、はたまた犯罪取り締まりの総元締めであるはずの治安本部長までが、拷問死事件の隠ぺい工作がバレて手錠をはめられる。最近の南朝鮮紙では、こうした警察官の犯罪事件が、連日紙面をにぎわせている。

一方ソウルでは今年に入って、殺人、強盗、婦女暴行などの凶悪犯罪が急増。警察当局の集計だけでも一、二月の件数は百九十七件(昨年の同時期比五・三％増)にのぼった。

「とくに最近の強盗犯らは少なくとも二、三人、多い時は十人ずつ徒党を組んで、金品だけを奪うのではなく、見境もなく凶器を振るい人命を殺傷したり、父母が見る前で娘を暴行する」(四日付東亜日報)というのだから、市民は恐ろしくて夜もおちおち眠れない。その一方で全斗煥やその兄弟(基煥、敬煥)の家は今もVIP待遇で機動隊に固く守られている。大悪人だけが、枕高く眠っている。

振り子
格差の広がりで増す疎外感

土地と株式の値上がりによるキャピタルゲイン(値上がり益)の急増に伴って、日本では所得格差の広がりが顕著となっている。

経済企画庁の発表(昨年十二月)によると、一九八六年の日本のGNPは三百三十四兆円であった。一方、地価の上昇による国土の時価総額は、一年間(八六年)に二百四十八兆円増えている。また、株価上昇による上場株式の時価総額は百三十一兆円増加した。言い換えれば、土地と株式を合わせたキャピタルゲインは三百七十九兆円にも達し、GNPを上回る額である。

また、日本の一世帯当たりの平均貯蓄率は八百二十万円といわれ、これに土地その他の資産を加えると、一人当たりの資産額はアメリカの三〜四倍にもなるという。土地と株価を合わせたものの上昇額がGNPをはるかに上回るという現象は、どう見ても異常だ。

問題は、株フィーバーと地価高騰の中で、その恩恵にあずかる人と資産運用とは全く無縁の人との所得格差、資産格差がきわめて大きくなったことだ。

マイホームをあきらめたサラリーマンの中には、蓄えを自動車や旅行、レジャーにふり向け、捨てばちに暮らす傾向さえ起きている。

地上げが問題となり、銀行の土地融資の自粛とか、土地監視区域の指定といった統制強化の動きが出たため、都内の一部では地価が若干下落し高値安定となったとされる。だが、資産価格の上昇傾向に歯止めをかける効きめのある対策はとられておらず、カネ余り現象による投機的動きは依然続く勢いだ。

貧富の格差と庶民の疎外感は今後さらに増幅されよう。統制強化の動きも続き、企業や個人の財テク環境も波乱含みの厳しいものとなろう。(泰)

マル優

税制「改革」とマル優廃止

趙孟福

今年の四月一日から税制改革の一環として利子課税制度が変更されます。

今回の変更はマル優廃止ということで在日同胞の生活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ますが、二回に分けてその変更に至る経緯と主な変更点についてまとめてみたいと思います。

◇

まず、なぜマル優が廃止されたかを、現在も論議されている税制「改革」の経緯をトレースしながら見ていきます。

日本の現在の税制は一九四九年のシャウプ勧告をその基としていますが、現在に至るまで所得の向上、消費の多様化、人口の高齢化、国際化など、経済構造自体が大きく変化してきました。

このため税制全般に渡って様々な歪みが生じ、「酷税」とまで言われる重税感、「十・五・三・一」(トウゴサンピン)に表わされる不公平感が広がりました。

この制度上の歪み、「不公平税制」の改善を主とするならば、財政上「安定的」な歳入構造の確立を従として税制「改革」論議が始まりました。

しかし、現実には売上税、マル優廃止などの歳入の「安定化」のみが論議され、売上税は廃案となったものの一兆五千四百億円の所得税減税とひきかえに、マル優制度の廃止が決定されました。

さらには、売上税が新型間接税と名を変え今国会最大の争点となっており、結果的に不公平税制はそのまま「安定的」な歳入構造を確立するための税制改革となりそうです。

蛇足ながら、景気回復に伴う税収の自然増が見込まれる中、日本政府がことさら新型間接税導入を急ぐのは、突出した軍事費を担保するためだと指摘する声もあります。

さて、問題をマル優制度の廃止に絞ってみましょう。

一般に非課税貯蓄制度が廃止された理由として

①所得税減税のための財源

②不正利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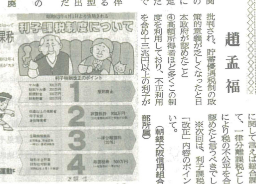
③外国、特にアメリカより批判され、貯蓄優遇税制の政策的意義が乏しくなったと日本政府が認めたこと

④高額所得者ほど多くこの制度を利用しており、不正利用を含め十三兆円以上の利子が非課税所得とされ、給与所得などとの間に不公平が生じていること

——があげられますが、④に関して言えば総合課税を捨て、一律分離課税としたことにより税の不公平を合法的に認めたと言うべきでしょう。

※次回は、利子課税制度の「改正」内容のポイントについて。

(朝銀大阪信用組合・業務部所属)



利子課税制度の改正ポイントについてのパンフとチラシ (朝信作成)


ゆったりしたスペース、明るい店内

ブック&ビデオ ファミリーブック

会社スポット

注目される「郊外書店」

最近、増えてきたという「郊外書店」。読んで字のごとく、郊外にある本屋のことであるが、町中の書店やデパートの書店とは違い、ゆったりスペースをとった店内と広い駐車場を備えている。埼玉県比企郡小川町でブック&ビデオ「ファミリーブック」を経営する李勝浩さん(三三)にその「郊外書店」の特徴とメリットについて聞いてみた。(完)

「郊外」のメリット追求

李勝浩さんが「ファミリーブック」を始めたのは、昨年の七月のことである。

国道二五四号線沿いにある同店は、二百坪の敷地に六十九坪の店舗と十二台駐車可能の駐車場を備えている。

店内は陽の光が明るく射し込み、二万冊の本が広いスペースに、きれいに整理されている。その一角には貸ビデオコーナーも設けられている。

李さんは現在、書店に加えて親子二代で二十数年来やってきた焼肉屋、喫茶店などを経営している。

この本屋は、五年前に焼肉屋の近くに五坪ほどのスペースで貸ビデオ屋を開いたが、何か他の商売と併合したほうが、客の入りもよくなるのではと思いついて始めたと言う。

また焼肉屋のような飲食店とは違い、仕入れ、調理付けなどといった「わずらわしさ」が本屋にはほとんどない、というのも書店を始めた理由の一つであるという。

「飲食店はうまい、まずい、客からの声が多くそれだけでけっこう大変なんです。それに比べて本屋は、買う、といった具合で客が好きなものを自分で選ぶ、わずらわしさというものが少ないんです。それと売り上げが一定してますからね」と、李さんは語る。

また、書店を郊外で構えた理由として①他の書店と違って営業時間が長い②客が本を買うという前提で来る③駐車場があるため来客数が多い、などの点をあげた。

「最近ではどんな業種も車の数で売り上げいくら、という考えで計算するんです。ここは国道沿いでもあるため、駐車場は常にフル回転しています」

そして「郊外書店」としてのメリットについて李さんは、「デパート内にある本屋は、そのデパートの営業時間に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でもうちは、夜十二時まで営業しています。夜型の人が増えたので、けっこう重宝されてますよ。それと従来の本屋は棚が高くて、手が届かないことが多かったと思います。でも郊外の広い本屋は、棚が人の目の高さくらいだから、客がこまらないんです」とも話す。

その反面、書店経営の難しいところは①在庫整理が大変②盗難が多い③売り上げが低いとランクがさがる、などである。

本屋は出版会社から品物を購入するが、売り上げ成績が良いと出版会社が独自のランク付けをして、その店舗に人気のある本、話題の本などを他店舗よりも多く納める。当然、売り上げは前にも増して上がることになる。

しかし売り上げの悪い店舗は、前述のような品物を要求しても「あの店に置いてもたぶん売れないだろう」という判断が下され、他店より少ない部数が卸される。したがって売り上げが下がることになる。

こうして出版会社はランクを付けるので、着実に成績を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やればできる」をモットーに

李さんは大学を出て、地方で教員をしていたが、家の事情で商売の道に入った。

「最初の二年くらいは嫌でしょうがなかったんですよ」

それでも、いつまでも嫌とはいってられないので、自分の好きなことを商売に、と貸ビデオ屋を始めた。

「私は教員だったから、商売のことは何も知りませんでした。でも、やってやれないことはない。これが私のモットーですから。今は書店を見てますけど、これからは貸コンパクトディスクやスーパーマーケットなどもやってみたいですね」と語る。

最後に李さんは、「商売は時期、資本、それと運というか、チャンスが大事ですね。後は自分しだいですよ」と、くったくなく笑っていた。



駐車場完備の「郊外書店」

小冊子紹介

第三次七ヵ年計画と経済管理問題

朝鮮大学校政経学部が資料集

朝鮮大学校政治経済学部が朝鮮に関する研究資料第二十二集として「第三次七ヵ年計画と経済管理問題」を発行した。

同資料集は、同学部政治経済学講座に所属する教員らの編集により、さる二月十六日に発行されたもので、百五十余ページにわたり共和国の経済法規を紹介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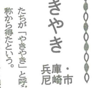
資料集には、共和国最高人民会議法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人民経済発展第三次七ヵ年計画について」を全文掲載しているのをはじめ、共和国の経営形態の主たる特徴である「独立採算制」やその他法規について、詳細にわたり掲載されている。また、同胞の高い関心を集めている「共和国合弁法」とその施行細則なども条文掲載と解説を折りまぜている。

掲載順に見ると、①第三次七ヵ年計画②独立採算制について③法規解説(合弁法施行細則、地方予算規定、工場企業所における生活必需品職場・作業班の運営)④法規解説(合弁法、合弁法施行細則、合弁会社所得税法細則、外国人所得税法細則)——となっている。

独立採算制については、一九八四年の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第六期第十回会議で採択された新規定を中心に七十三ページにわたって紹介している。

また、合弁法については、合弁の基本から理事会と経営活動、決算と分配などを、合弁法施行細則については、一般規定に始まり、会社組織、出資、理事会と管理成員、物資購入と製品販売、労働及び外貨管理、そして決算と会社解散に至るまで、その条文を掲載している。

※同資料集に対する問い合わせは、朝鮮大学校政治経済学部政経講座(尹碗錫講座長)まで


資料集は百五十余ページにわたり共和国の経済法規を紹介している

味じまん

ソースが決め手

お好み焼 やきやき 兵庫・尼崎市


金光順さん

「オソオセヨ(いらっしゃい)」と迎えてくれた金光順さん(三七)は、この店を始めて七年になる。

はじめは、家の物置きと炊事場に手を加えただけの、小さなたこ焼屋からはじめた。屋号は、この店の近所の子供たちが「やきやき」と呼ぶ愛称から得たという。

さて、肝心のお好み焼であるが、まずは「イカ・スジ・カス焼」を紹介する。

スジはコンニャクと一緒に甘辛く煮たものをあらかじめ用意しておく。

きざんだキャベツと下味をつけたメリケン粉のベースを鉄板にのばし、そこに塩とコショウでかるくいためたイカとさきほどのスジ、それから、それだけでおいしい良質の天カスをのせる。

両面をこんがりキツネ色になるまで焼いたものに「マル秘ソース」をのばす。そこに極めつけの「ヤンニョムジャン」をたらすと出来上がり。

「お好み焼はソースが決め手」という金さん。そのソースは金さんが三年がかりで完成させたオリジナル。メリケン粉も家庭では出せない味の秘けつがあるのだが、残念ながらおしえてもらえなかった。ヤンニョムジャンは家庭でおなじみのものを使っている。

味の方は言うまでもなく、本当にうまい。アツアツをふうふう言いながら食べる。コゲると香ばしさが一層増すソースと、具のうまみを十分に味わう。

ほかに「学生焼」(五百円)というのがある。名の通り学生向けのサービス品で、イカ、ブタ、スジ、カスなどが入って、なんと直径二十五センチもある。育ち盛りにピッタリのメニューである。

金さんは女性同盟尼崎西支部の非専従宣伝部長を務めている。

近所のアジュモニたちが「やきやき」に集まって「井戸端会議」をやるが、金さんはもてなしながらも、アジュモニたちに子供の教育の話や組織の話を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図っている。

「店をやりながら女性同盟の仕事もやってます。どっちか一つに、と思うんですがどっちもやめられません、好きですから」と話してくれた。

※兵庫県尼崎市稲葉元町三丁目二—二 ☎〇六(四一六)三九二六



おいしいお好み焼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味わえる「やきやき」

ウリマル講座

10 文・朴点水

会話



☆ワンポイント☆

人を紹介するときは、ふつう○○○を소개하겠읍니다(○○○ルル ソゲハゲッスムニダ)または소개합니다(ソゲハムニダ)と言います。目上の人に紹介するときは、소개해드리겠읍니다(ソゲヘドゥリゲッスムニダ ご紹介申し上げます)とていねいな言い方をします。

紹介された人は、初対面の気持ちをことばで素直に表現するわけですが、その場合반갑읍니다(パンガプスムニダ)と言うだけでもかまいません。訪問客であれば、その後に어서 올라오세요(オソ オルラオセヨ どうぞお上がりなさい)、어서 들어오세요(オソ トゥロオセヨ どうぞお入りください)と言えばいいでしょう。

発音と文字

子音「ㄲ、ㅆ」の終声(パッチム音)

パッチム 文字	名称	音	発音のこつ	用例
ㄲ	된기윽 (テンギウク) [tøngiɯk]	-k	「ㄱ」と同じ	밖[pak] 外 밖에[pak'e] 外に
ㅆ	된시옷 (テンシウク) [tønʃiɯk]	-t	「ㄷ」と同じ	있다[itt'a] ある、いる 있었다[is'ɔtt'a] あった、いた

※「ㄸ、ㅃ、ㅉ」は、パッチム文字として使用されない。

깎다[k'akt'a カクタ] 刈る
낚다[nakt'a ナクタ] 釣る
낚시[nakʃ'i ナクシ] 釣り
—았(었、였) 過去の時間を表す [at、ɔt、jɔt アッ、オッ、ヨッ]
—겠 未来の時間、意志、推量などを表す [ket ケッ]

☆았(었、였)、겠の用例

時間		用法	条件
過去	-았 (アッ)	動詞・形容詞 > 語幹 + {았/었/였/겠} + 다	語幹の母音の中に「ㅏ、ㅑ、ㅗ」があるとき
	-었 (オッ)		語幹の母音の中に「ㅓ、ㅕ、ㅜ、ㅣ、ㅡ」と「ㅡ」だけがあるとき
	-였 (ヨッ)		その他の母音と하다(ハダ)のとき
未来	-겠 (ケッ)		無

豆知識

朝鮮のことわざ

눈보다 동자가 크다 (ヌンボダ トンジャガ クダ)
(目より瞳が大きい)

배보다 배꼽이 크다 (ペボダ ペッコビ クダ)
(腹よりへそが大きい)

=「本末転倒」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3월 15일 (음력 1월 27일) 화요일 【루계 제10158호】

発行所 朝鮮新報社

(日刊) 月額 2,000円

과학과 교육, 보건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평양 3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가 12일 발표되였다.

전원회의 상보는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가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중앙과 지방의 당 및 행정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과학, 교육, 보건 부문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과학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2.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3. 조직문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전원회의에서는 의정 첫째문제에 대한 보고를 당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가 하였으며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정 첫째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첫째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기간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과학기술과 교육 사업에서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어 나라의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능력있는 공산주의혁명인재로 더 잘 키움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전원회의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해방후 빈터우에서 출발한 우리의 과학기술은 오늘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와 수백개의 연구기관들,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들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이 애써 키운 위력한 과학기술력량이 있음으로 하여 강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고 방대한 대자연개조사업과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전원회의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간절한 요구로부터 당 제6차대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다.

우리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한 과학부문을 발전시켜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선진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전원회의는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한 과학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발전시켜야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열동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더욱 빨리 앞당길수 있다.

전원회의는 인민경제의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자공학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전자공학부문에서 이미 달성한 커다란 성과에 기초하여 전자재료와 전자요소, 전자계산기, 수치조종공작기계, 자동화장치, 로보트들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연구개발하여 인민경제의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의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전자공업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이 부문의 과학연구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인민경제를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재료들과 전자요소, 각종 대규모집적회로들을 성과적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빛섬유통신에 필요한 빛요소와 전자장치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생물공학을 발전시켜 현대생물학의 성과들을 농업과 축산업에 적극 받아들이고 바다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생물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고 미생물공학을 적극 발전시켜 단백질먹이문제를 해결하며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열동력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인 열공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저열탄을 많이 리용하고 지방도시와 농촌의 난방화, 가스화를 실현하며 태양열, 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화학공업기지들의 건설과 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주체적인 제철제강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경금속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채취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하여 수학,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실로 우리앞에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이 수행되면 몇해사이에 주체적인 극소형 전자기술과 전자계산기, 빛통신기술이 더욱 발전되고 생산의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될것이며 현대생물학에 기초하여 농업과 축산업, 바다가양식이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라서고 순천과 사리원의 대화학공업기지에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이 생산되여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전원회의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더 잘 마련해줄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과학연구기관들에 우수한 대학졸업생들을 많이 배치하여 과학자후비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과학자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고 과학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부문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있는 오늘 과학연구부문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전원회의는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행정지도사업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행정경제기관들에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세부적으로 맞물려주고 필요한 행정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과학지도일군들은 과학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바로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의 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한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더 빨리 키워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주체의 교육 사상과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불멸의 교육총서이며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심화되는데 맞게 교육사업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전원회의는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교육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였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교육테제가 발표된 이후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보다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되였으며 고등교육체계가 더욱 확대강화되고 대학이 156개로부터 244개로 늘어나 기술자,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2 면 에 이 음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우리의 권리를 굳건히 옹호해나가자!

총련 산따마 중부지부 시국강연회 진행



12일에 진행된 총련 산따마 중부지부 시국강연회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강연회가 각지 총련의 강연구들에서 일제히 진행되고있는 속에서 12일, 총련 산따마 중부지부 시국강연회가 산따마조선제1초중급학교 강당에서 있었다.

여기에는 총련 산따마본부 리종활위원장과 중부지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총련중앙 박재로부의장이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우리의 권리를 굳건히 옹호해나가자!》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강연에서 먼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은 남조선괴뢰들자신의 자작자연극이였다는것이 온 세상에 널리 폭로되였다고 하면서 그를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그는 남조선괴뢰들이 려객기가 실종하자마자 그 행방도 모르고있는 시점에서 《북에 의한 폭파설》을 대대적으로 퍼뜨린것을 비롯하여 사건의 제반 정황들을 볼 때 오직 미일반동들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괴뢰들만이 이번 사건을 일으킬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이른바 《마유미》의 《자백》과 《기자회견》내용에 언급하면서 《꽃다발증정》이요 뭐요 하면서 이 사건을 공화국과 결부시키려고 하였으나 사진과 《자술서》들은 오히려 저들이 꾸민 자작자연극이라는것을 자체폭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마유미》를 교육했다는 《랍치녀성》《리은혜》문제도 《마유미자백》의 허위성을 더욱 부각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강연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충격적인 모략사건을 일으킨 목적에 언급하면서 그것은 바로 지난해 12월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겨 군정을 연장하기 위한것이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말살하고 공화국의 평화협상제의를 거부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것이였다고 힘주어말하였다.

또한 그는 미제와 일본반동들도 저들의 절실한 리해관계로부터 남조선괴뢰들의 모략책동을 적극 뒤받침하고 공모결탁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일본반동들이 남조선괴뢰들과 한짝이 되여 공화국을 헐뜯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지탄하였다.

그는 강연에서 다음으로 모든 동포들이 총련에 굳게 뭉쳐 단결된 힘으로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조국과 제반 권리들을 굳건히 옹호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각지 일군들과 동포들이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억세게 벌리고있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총련 산따마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이 반동들의 폭력, 파괴 행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완강히 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간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이 얼마나 애국적이며 애족적인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의 신심을 안고 단결된 힘으로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셔나가며 총련 전반사업을 발전시켜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날 강연회참가자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총련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자랑찬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떨쳐나설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1면에서 이음

지금 우리가 양성해낸 인테리는 무려 130여만명이나 되며 그들에 의하여 국가경제문화기관들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교육테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섰으며 새세대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는 현실은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더욱 높 …

고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육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의 과학리론적자질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교육조건을 더욱 원만히 갖추어줄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교육부문의 물질적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교육 설비와 수단에 대한 요구수준이 더욱 높아지고있는 현실에 맞게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 …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학교건설을 다그치며 여러가지 교구비품과 학용품을 더욱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학교후원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행정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조직들이 교육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교원, 학생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의 교육정책이 철저히 관철되 …

제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료혜택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온 나라가 조밀한 의료망으로 뒤덮여있고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전체 인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상방조를 받고있는 오늘 의료봉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주되는 과업은 그 질을 높이는것이다.

전원회의는 의학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현실에 맞게 진단과 치료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였 …

합리화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의학과학기술교류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의학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의학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치료예방기관이 늘어나고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맞게 보건기술일군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현직보건일군 …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보건 시설과 설비를 더욱 현대화할데 대하여

…

모든 일군들은 분회와 동포들 속으로!

한달간집중유세사업에로

호별방문형태로 비데오상영을

~총련 산따마 동부지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라는 구호밑에 모두 …

… 포들을 분공맡아 사업하고있다.

일군 한사람이 2, 3호씩 맡아

10개 시와 주변의 현, …

로만 강조하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동포를 몇명 맡아 사업분공을 주어야만 일군들은 자기 할 일을 똑똑히 알고 바쁜 속에서도 시간을 내여 일하게 된다 …

모임에서는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분회활성화와 군중쟁취 사업을 벌려나갈데 대한 총련 중앙과 본부, 지부의 결심이 피로되고 앞으로의 대책과 과업이 …

분회활성화와 군중쟁취를 위해

…



지난 10일에 진행된 총련 동부지부관하 전임일군들의 모임

… 드를 주었으며 분기에 한번 모여 총화하며 당면하여 5월말에 경험교환모임(총화모임)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있다.

《모든 일군들이 분회와 동포들 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자!》

총련 동부지부는 이 구호를 실천에 옮기고있다.

조청효고 반을 더욱 튼튼히 꾸려 조청활동을 패기있게 벌린다

《계승, 창조, 전진 8개월운동》에 궐기

각지 조청조직들에서 《계승, 창조, 전진 8개월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속에서 조청 효고현본부는 이 운동을 반을 중심으로 적극 밀고나가는데 주력하고있다.

…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8개월운동을 반단위에서 벌려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곳 본부에서는 7일, 궐기모임을 가지고 기세를 올렸다.



조청 효고현본부에서는 8개월운동을 반단위에서 벌려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세좋게 궐기모임을 가졌다.

운동에 패기있게 떨쳐나서자는 이곳 열성조청원들의 마음의 반영인듯 회장내에는 각 지부들이 만든 벽보들이 전시되여있었는바 거기에는 관하반들의 …

한다고 하면서 《아마가사끼히가시조선초급학교 건설사업, 지부 문화제사업 등에서 발휘된 열성을 다시금 이 운동에 구현하여 조선청년의 본때를 과시해 … 로 벌리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가잉지부 리영미청년, 조은지부 히로하다반조진웅청년들도 녀조청원들의 사업, 거주지부사업에서 열성을 다할것을 다 …

본부에서는 당면하여 내외원쑤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가두선전, 비데오편집물상영을 비롯한 대중정치선전사업을 적극 짜고드는 한편 …

아마가사끼동지부 리상철위원장은 내외반동들의 모략소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속에서 조청사업을 보다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 상적으로 가지고 제기된 사업 특히는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 관하맹원들속에서 정치선전사업을 대대적으 … 엮어진 촌극 《긴급반모임》(효고조선가무단)이 피로되여 분위기를 돋구어주었다.

궐기모임을 계기로 이곳 … 실속있게 벌려 4월명절을 관하조청원들의 뜨거운 충성의 한마음으로 빛나게 맞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있다.

《려객기사건은 미국의 조종밑에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조작한 모략극》

일조우호련대사이다마현민회의의 주최로 심포쥼 진행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총련의 주동적인 정치선전활동에 의 …

심포쥼에 앞서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되였다.

주최자측을 대표하여 이 …



심포쥼 《일본과 조선의 지금—남조선려객기사건은 무엇을 초래했는가》는 열기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

취재길에서

드놀지 않는 1세의 뜨거운 마음

총련 아이찌현 메이또지부 김또연고문을 만나서

총련 메이또지부 김또연고문은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불고기장사를 하고있다. 손님들은 동포들보다 일본사람들이 많다.

그런 점방의 분위기가 지난해말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일손을 다그치는 고문이 총련동포라는것을 알면서인지 일본손님들은 남조선려객기사건을 두고 제나름으로 《해설》을 하고있다.

고문의 마음은 분하고 딱하였다.

75살이 되는 그는 일 …

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것인데 이 늙은것이 무엇을 할수 있을가…)

생각끝에 고문은 지부에서 받은 선전물을 점방에 두고 손님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손님, 이거 좀 읽어주시오.》

빼라며 《통일평론》붓크렛트를 읽어달라고 한사람씩 권하였다.

마음 한구석에는 손님 … 들이 이제 안올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갖 로파심에 불과했다.

그 자료들을 읽은 사람들은 점방을 멀리하기는커녕 고문에게 더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는것이였다. 1주일후에 꼭 찾아오기에 더 상세히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실에 힘을 얻은 고문은 선전물이 더 없는가고 지부에 몇번 재촉을 하였다.

이렇게 고문이 혼자서 넘겨준 선전물은 《통일평론》붓크렛트가 15부, 《조선시보》호외와 삐라는 300장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 고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녀성동맹일군의 말이 떠올랐다.

《나도 처음엔 홍수처럼 밀려오는 허위보도에 어리둥절한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나이많은분들은 처음부터 티끌만치도 달리 생각하지 않고있어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확신에 넘치고있었어요.

그분들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란 절대적인것이지요. 나도 많이 돌이켜보았어요.》

김또연고문도 바로 1세이다.

비록 늙었어도 고문의 가슴깊이 간직된 충성심이 조국을 옹호하는 길을, 방법을 시사해주고있지 않는가.

김고문의 모습을 보면서 혼히 하는 1세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가야 한다는 말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박호강)

려객기사건은 남조선괴뢰들의 자작자연극이다

일본지방신문이 소개

녀성동맹 오이다현 규다이지부가 투고

녀성동맹 오이다현 규다이지부에서는 지방신문 《덴료히다》에 이번 남조선려객기사건의 진상을 폭로규탄하는 투고기사를 보내였는바 이것이 2월 28일호 3면에 크게 소개되였다.

《사진은 〈마유미〉가 아니다—〈대한항공기폭파사건〉은 남조선의 자작자연극》이란 표제로 소개된 글에서는 소위 《소녀시기 마유미》라고 남조선괴뢰들이 강변한 사진은 《마유미》가 아니라 완전한 허위날조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글에서는 남조선괴뢰들의 《발표》가 완전히 모순과 허위에 찬 날조이며 이러한 모략책동은 괴뢰들의 상투적수법이라는데 대해 낱낱이 까밝혔다.

【오이다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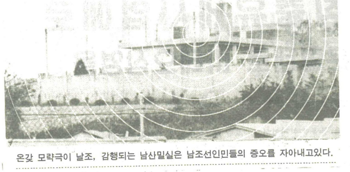


写真は「真由美」ではない
大韓航空機爆破事件は南朝鮮の自作自演劇

신문에 크게 소개된 사건의 진상을 폭로규탄하는 투고기사

괴뢰국가안전기획부는 랍치, 테로, 모략의 총본산

이전 괴뢰중앙정보부



온갖 모략극이 날조, 감행되는 남산밀실은 남조선인민들의 증오를 자아내고있다.

이른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은 괴뢰국가안전기획부가 조작날조한 흉악한 모략극임이 날날이 폭로되고있다.

이를 계기로 또다시 모략단체로서의 《안기부》의 악행이 우심해지고있는바 그 《정체》는 철두철미 미국과 괴뢰악당의 손아귀에서 철저한 반공체제확립, 독재《정권》유지를 노리는 첩보모략정치의 총본산이다.

반공군사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행사

《안기부》가 이전에 세계적으로 그 악명을 떨친 괴뢰중앙정보부(KCIA)였음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안기부》는 원래부터 괴뢰도당과 미국의 비호하에 군사파쑈독재유지를 위한 일대 첩보모략단체로 꾸며졌으며 그 활동은 당초로부터 철저한 반공과 군부독재《정권》유지강화, 그를 위한 인민탄압으로 일관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어느때나 능히 행사할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군사독재체제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다.

《안기부》는 주로 반공독재체제유지강화를 노려 한편에서는 대공화국정보수집첩보모략책동을 일삼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남조선내의 자주, 민주, 통일 기운을 압살하기 위한 고문, 학살, 테로 등 각종 파괴모략활동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실지 《안기부》는 아무러한 《법》적구속도 받지 않는 특수한 존재로 되고있으며 괴뢰 경찰, 검찰, 법원 등 모든 파쑈폭압기구들과 정보수사기구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정보모략과 감시, 수사, 체포 만행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또한 전두환도당이 개악한 이른바 《안전기획부법》은 《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있다.

이것은 《안기부》가 정보수집과 비밀보장의 미명하에 어떠한 대상이나 관계없이 누구든 《범죄수사》의 구실로 체포할수 있으며 온갖 국가권력을 《정권》유지를 위해 행사할수 있음을 말하여준다.

《안기부》는 그 권한으로 이제까지 수많은 인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을뿐만아니라 《정권》위기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음흉한 반공모략소동과 인민탄압에 광분하면서 계속 독재《정권》을 유지해온것이다.

그 권한도 바로 남조선괴뢰우두머리들의 악질적인 기도하에 부여된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두환도당은 박정희가 사살된 이후 그 무슨 《면모를 일신》한다고 《중앙정보부》를 《안전기획부》로 바꾸어놓았지만 사실은 그 요직을 자기 심복들로 꾸리고 정보정치를 더욱 강화해나갈 흉계에 지나지 않았으며 《안기부》의 기능은 계속 유지강화되고있다.

김대중랍치사건, 김형욱랍치사건 등은 모두 《안기부》의 악행

주지하는바와 같이 모략의 총본산으로서의 《안기부》의 악랄한 소행은 과거 수많이 드러났는바 그때마다 그것은 그자들의 완전한 범죄행위임이 뚜렷이 발로되였다.

지난 1973년 8월, 일본에서 감행된 《김대중랍치사건》은 그자들의 흉악한 모략정체를 크게 부각시켰다.

이 사건이 당시 괴뢰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감행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괴뢰국가안전기획부의 랍치소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1979년 이전 괴뢰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프랑스에서 서울로 랍치하여 학살한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재작년 그자들이 날조한 이른바 《공화국이상사태설》, 《김포비행장폭발사건》, 재일동포들에 대한 간첩날조사건, 또한 공화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에 대한 《고향방문》책동 등은 모두 《안기부》패거리들이 조작날조한 일대 모략소동이였다.

그자들은 궁지에 빠질 때마다 온갖 모략소동을 꾸며내여 미쳐날뛸뿐아니라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모두 반공체제의 강화와 군사독재《정권》의 영구화를 노린 일대 모략소동에 불과하다.

일련의 사실들은 《안기부》가 철저하게 《정권》안정을 위해 무제한한 첩보활동과 모략소동을 일삼아온 잔인무도한 반공모략기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미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한 자작자연극도 《안기부》의 소행임이 여실히 드러나고있는바 이 첩보모략기구는 일관하게 파괴모략을 일삼아온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소식

로조탄압과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을 견결히 규탄

로동자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의료보험로조 성원 17명이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어용로조인 련합회사무실에서 로조탄압에 항의하여 3일에도 20일째 롱성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괴뢰당국에 들이댄 고발장에서 자주로조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면서 련합회측이 자기들의 요구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롱성을 계속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대우중공업로동자실종사건대책위원회가 5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사무실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창원의 한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 회사 창원2공장 로동자 정경식의 사망원인을 해명할것을 파쑈도당에게 요구하였다.

한편 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재야단체들은 정경식의 행방불명사건은 《대우중공업로조문제를 둘러싼 타살》이라고 단정하고 《회사와 경찰은 그를 살해한후 증거를 없애버리려 했다》고 규탄하였다.

농민

3일 괴뢰농림수산부에서 있은 《간담회》에 참가한 양축농가 대표 등 각계층 25명이 미제의 수입개방압력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죄행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한영직교수와 서울우유조합장 강성원 등은 《미국통상법 301조의 보복을 받더라도 당국은 농민의 립장에 서서 소고기를 절대로 수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철거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철거주민 150여명이 6일 살아나갈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여 시위와 롱성 투쟁을 벌렸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괴뢰도당의 폭압만행을 규탄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로태우역도가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자마자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0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444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로태우역도의 이른바 《대통령취임식》이 벌어진후 지난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 해도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체포구금하고 평화적시위를 무참히 탄압하는 소동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파쑈도당은 《청와대》에 《제6공화국》의 간판을 내건 다음날인 2월 26일 12개 중대 1,800여명의 경찰병력을 내몰아 서울 명동성당과 그 주변에서 검문검색소동을 벌렸다.

3.1인민봉기 69돐을 계기로 남조선전역에 또다시 《비상경계령》을 내린 파쑈도당은 1일 서울의 파고다공원에서만도 투쟁에 궐기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총칼폭압을 가하여 피투성이로 만들고 40여명을 강제로 련행해가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파쑈도당은 또한 이날 각 경찰들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대리 황진성,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대행 리봉원을 비롯하여 학생조직 성원 17명을 체포할데 대한 폭압지령을 내렸다.

괴뢰들은 3월 4일에는 지하리념써클을 뭇고 의식화학습을 하여온 서울대학교 박성군학생을 파쑈악법에 걸어 구속하였다.

로태우파쑈도당은 이날 《청와대》앞에서 벌어진 구속자 가족 및 친척들의 반《정부》시위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지난 2월 24일 서울 《미국문화원》점거롱성투쟁을 벌린 애국학생 5명을 악명높은 고문장소의 하나인 괴뢰서울시경찰국 대공과에 넘겨 가혹한 고문과 박해를 가하고있던 파쑈교형리들은 3월 5일에는 그 《배후세력》이라고 하면서 또 3명의 애국학생들을 체포하였다.

남조선전역에서 련일 벌어지고있는 광란적인 파쑈폭압소동은 인민을 등지고 칼부림만을 일삼는 로태우역도의 살인깡패의 기질과 로태우《정권》의 군사파쑈적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군정이 없는 자주화되고 민주화된 새세상을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미제와 로태우역도의 식민지군사파쑈독재통치는 반드시 무너지고야말것이다.

학생들을 고용병으로 길들이려고

《로동신문》 론평

【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8일부 《로동신문》은 《학생들을 고용병으로 길들이려고》라는 제목의 개인론평을 실었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사깡패 로태우일당이 이달부터 11월중순까지 남조선전역의 대학에서 16만여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괴뢰군의 군사련병장에서 집체훈련을 시킬것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7일부터 1차로 7,500여명의 대학생들을 병영집체훈련에 끌어내였다.

괴뢰들은 저들이 취한 이러한 조치가 대학생들의 《군사지식습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떠들고있다. 로태우일당이 말하는 《군사지식습득》이란 대학생들을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을 기도하는 미제침략군의 총알받이로 길들이겠다는것외 다른것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팀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다.

미제와 로태우일당이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년중 위험한 불장난을 감행하려 하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군사지식습득》문제를 들고나온것은 매우 심상치 않다.

《선거》전에서부터 《안보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들어온 로태우역도가 권력을 취자바람으로 대학생들을 군사련병장에 내모는것은 이자가 상전의 북침전쟁정책에 추종하여 동족상쟁의 불집을 일으키는것도 서슴지 않으려 한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로태우일당이 대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강요하는데는 딴 속심도 있다.

남조선대학생들은 반미반독재투쟁에서 언제나 기수로 활약해왔다.

괴뢰들은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로동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과 결합되여 대중적으로 폭발하는것을 몹시 두려워하고있다.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자마자 인민대중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친 로태우일당은 투쟁의 핵심세력인 애국학생들을 병영에 몰아넣어 그들의 손발을 묶는 방법으로 투쟁세력을 약화시키고 위기를 모면해보려하고있는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강제병영훈련은 그들속에서 새로운 반미, 반전, 반핵, 반독재 투쟁을 격발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남조선단신

로동자들을 봉쇄하려는 폭압기도

로태우파쑈도당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진출을 봉쇄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괴뢰로동부가 지난 3일 《시, 도 사회과장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올해에 어용로조를 배격하고 자주적로조결성을 위한 로동자투쟁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명을 울리면서 자주적로조결성과 임금인상을 위한 그들의 집단행동을 《사전에 파악》하며 이를 《불법》으로 몰아 처리하라고 떠벌인것이나 새로 자주적로조단체들이 수많이 결성될것에 대비하여 그 무슨 《설립신고서심사》를 엄격히 하라고 고아댄것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로태우역도의 군정연장책동을 반대배격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과 함께 삶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이 련일 힘차게 전개되고있으며 특히 내외여론은 3, 4월 봄의 계절을 맞으며 남조선에서 로동쟁의가 더욱 확대발전될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이에 질겁한 파쑈도당은 어떻게 하나 로동자들의 투쟁진출을 억눌러 제놈들의 《정권안정》을 유지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파쑈도당 17명 대학생들을 체포하려고 책동

남조선신문 《중앙일보》에 의하면 파쑈도당이 1일 각 경찰들에 17명의 남녀대학생들을 체포할데 대한 폭압지령을 내렸다.

이들가운데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대리 황진성,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대행 리봉원, 명지대학교 총학생회 체육부장 한종연,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기획부장 김병창,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교육부차장 윤경숙 등 학생조직성원들이 포함되여있다.

파쑈도당은 최근 남조선대학가들에 제놈들이 조작한 려객기실종사건의 모략적내막을 폭로하는 내용의 대형 벽신문과 인쇄물들이 나돌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들을 그 무슨 《혐의자》로 몰아 체포할데 대한 폭압지령을 내린것이다.

대미량곡수입책동

괴뢰도당이 《곡물구매사절단》이라는것을 미국에 보내여 강냉이와 콩 등 량곡을 사들이기로 하였다.

괴뢰도당은 이 《사절단》패거리들로 하여금 미국현지에서 량곡을 사들이는것을 통하여 농축산물시장을 개방하라는 상전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릴 계획》을 하고있다 한다.

그런데 교활하기 그지없는 로태우일당은 이 《사절단》이 미국으로 건너가면 상전들에게 농축산물수입개방압력을 완화시켜달라고 요구하게 될것이라고 불어대고있다.

公告

千葉朝鮮信用組合総代任期가 満了되므로 本組合規定에 따라 第十次総代選挙를 左記와 같이 実施할것을 公告합니다.

—記—

一、立候補마감 一九八八年 三月 十八日 (金)
一、選挙日 一九八八年 三月 二十二日 (火)
一、投票場所
・本店管下(東部 北部 포함) 本店 五階講堂
・船橋支店管下 総聯西部支部 二階会議室
・柏支店管下 柏支店 二階会議室
・木更津支店管下 木更津支店 二階会議室
・茂原支店管下 茂原支店 二階会議室

千葉朝鮮信用組合
総代選挙管理人代表 李 永 俊
千葉市栄町四ー十四
☎〇四七二(27)八六二一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더 크게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16일 (음력 1월 28일) 수요일 [루계 제10159호]

昭和27年4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날조극은 박산났다, 《꽃다발 준것은 저입니다》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에 대한 괴뢰도당의 모략을 폭로규탄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기자회견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괴뢰국가안전기획부가 더욱 목청을 돋구어 문제의 《마유미(김현희)》를 《북의 공작원》으로 날조선전하고있는 악랄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괴뢰도당이 일본공산당 사진잡지 《그라프 곤니찌와》(3월 6일호)에 게재된 꽃다발증정자들의 사진을 가지고 《김현희가 직접 본인이라고 확인했다》느니 뭐니 하고있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폭로하고 꽃다발을 준 실재인물은 현재 공화국에 살고있는 정희선(鄭姫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리진규제1부의장은 꽃다발증정사진을 비롯한 일련의 사진, 필림 등 움직일수 없는 구체적물증을 제시하고 모략사건이 괴뢰도당의 자작자연극임을 의문의 여지없이 론증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전두환, 로태우일당은 《안기부》앞잡이인 《김현희》를 어떻게 하나 《북의 공작원》으로 날조하기 위해 그녀가 어릴 때인 지난 1972년 11월 2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조선측 부위원장인 장기영(사망)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는 뻔뻔스러운 허위사실을 날조류포함으로써 세론을 기만오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공화국에서 이미 날조사실을 폭로하였고 총련중앙도 지난 2월 4일의 기자회견에서 괴뢰들이 들고나온 《꽃다발증정》사진과 필림이란것은 장기영이 참가조차 하지 않았던 1972년 8월의 제1차남북적십자회담시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시 판문점에서의 꽃다발증정장면을 찍은 필림 등을 교묘하게 악용한것이라는것을 폭로하였다.

그런데 《안기부》는 자작자연극의 실상이 널리 폭로되자 《그라프 곤니찌와》에 《김현희》로 보여지는 사진이라고 해서 이전 《아까하다》평양특파원이 투고한 사진을 들고나와 《김현희 본인이 확인》했다느니 뭐니 하는 또하나의 날조극을 꾸며내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론평(3월 6일발)은 1972년 11월 평양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는 당시 평양의 금성중학교에 다니던 정희선이라는것을 밝히면서 《안기부》의 날조사실을 폭로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하여 취해온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과 견해의 정당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마유미(김현희)》가 《북의 공작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은 박산이 났다고 지적하고 남조선괴뢰도당과 국제반동들은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에 우리를 관련시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는 무모한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의 발언에 이어 총련중앙 백한기국제국장이 남조선괴뢰도당의 허위날조극의 진상을 폭로규탄하는 많은 사진들과 비데오 및 록음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1972년 11월 2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오는 남조선측대표단 성원들에게 꽃다발을 주기 위하여 렬지어 서있는 학생들(우측렬 두번째가 당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정희선녀성임)

▶《아까하다》에 게재된 사진

《내가 당사자인데 〈마유미〉랍니까》

정희선이 평양에서 본사기자에게 생생하게 증언

남조선의 괴뢰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3월 5일 일본 공산당의 반월간잡지 《그라프 곤니찌와》 3월 6일호에 실린 문제의 화살표소녀가 《마유미(김현희)가 틀림없다》느니 《마유미》자신도 《인정》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허위사실을 날조류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3월 6일의 론평에서 1972년 11월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때 남조선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는 이름이 정희선이며 현재 평양에서 교원으로 일하고있다는것을 밝히였다.

본사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평양에서 정희선과 만나 그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소녀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정희선은 본사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사진의 화살표가 붙은 소녀를 보고 《이건 나다. 당시 내가 평양의 비행장에서 장기영에게 올때나 갈 때나 꽃다발을 준 당사자인데 〈마유미〉랍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평양에서 살고있는데 〈마유미〉라고 하니 산 사람을 잡아도 분수가 있다.》고 분격을 억누르지 못해하고있었다. 그러면서 정희선은 본사기자에게 1972년 11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는 남조선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을 때의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하여주었다.



《이건 나다》—본사기자에게 《아까하다》사진을 들고 그것이 《김현희》가 아니라 자신임을 확인하는 정희선녀성



평양외국어학원 교원으로 취임했을 때의 정희선녀성

장기영 《왜 붉은 넥타이를 매여주는가》

정희선 《우리와 같이 지내달라는 심정에서 매여줍니다》

정희선은 본사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때 《저는 금성중학교에서 배우고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시 장기영에게 평양에서 꽃다발을 주었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정희선은 11월 2일 오전 수업중에 소년단지도원선생이 부르기에 소년단원실에 갔다는것, 그 방에는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네 학교에서 배우던 5명의 학생들이 모였다는것, 거기서 처음으로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주는 행사에 참가하게 되였다는것을 듣고 색동저고리로 갈아입었다는것, 학교로부터 직승비행장까지 승용차로 직행했다는것,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줄 때 자기가 주고싶은 사람에게 준것이 아니라 영접선생의 지시에 따라 주었다는것, 자기는 그 선생의 지시에 따라 두번째로 걸어내려온 사람, 장기영에게 주었다는것 등의 사실들을 분명히 말하였다.

정희선은 남조선측대표에게 꽃다발을 주기 위하여 직승비행장에 모인 학생들은 평양시 중구역내에 있는 금성중학교, 창전중학교, 종로녀자중학교, 련광중학교 등의 학교들에서 선발된 녀학생들 25명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본사기자가 당시의 자료들을 후에 확인한데 의하더라도 남북조절위원회때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측성원이 대표 5명, 수원 10명, 기자 10명이였다는 사실과도 맞는것이다. 이것은 곧 괴뢰안기부가 《김현희》의 말이라고 해서 그때 비행장에서 꽃다발을 주게 된 학생수가 10여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사실을 외곡한 거짓말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말하여준다.

정희선은 본사기자에게 남조선측대표인 장기영이 평양에 도착한 그날 그에게 소년단경례를 하고 꽃다발을 준 뒤에 넥타이를 매여주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왜 붉은 넥타이를 목에 매여주는가.》하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이곳에 와있는 동안 우리와 같이 지내달라는 그런 심정에서 매여준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평양을 떠날 때 장기영이 꽃다발을 받으면서 《공부 잘하라.》고 한 말에 대해서 《통일을 위해 일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들도 생동하게 들려주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희선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소녀에 대하여 《이건 나다.》라고 하면서 사진에 나온 소녀들의 얼굴을 가리키며 《이 동무는 같은 학급에서 배운 남금숙동무 그리고 김성희, 김정애동무 그리고 내앞에 서있는 이 동무는 창전중학교의 박옥심동무, 그 뒤에 서있는 이 화살표의 소녀가 바로 나이다.》고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모를 녀학생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찍었다. 이것은 《김현희》라는 녀자가 자기 동창생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고있다고 하던 말과는 너무나도 판이하다. 이것은 곧 《김현희》라는 녀자가 화살표의 소녀가 아니며 또 그 자리에 실제로 없었다는것을 똑똑히 말하여주는것이다.

본사기자는 정희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남북조절위원회때에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는 다름아닌 지금 평양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정희선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곧 괴뢰안전기획부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소녀가 《김현희》라고 《확인》했다고 한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그것은 곧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진범인이 다름아닌 그들자신이라는것을 백일하에 낱낱이 발가놓는것이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조선측대표단 성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붉은 넥타이를 매여주는 학생들(장기영에게 넥타이를 매여주는 학생이 정희선녀성—두번째 녀학생)

주체의 진리 움터난 력사의 천리길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때로부터 65돐—

아버님의 높은 뜻 새기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12살 어리신 나이에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때로부터 65년의 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열두살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나라의 글을 더 잘 배우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애국의 뜻을 키우기 위하여 혼자서 조국땅을 향하여 팔도구를 떠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8도구소학교를 졸업하실무렵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아드님을 조국에 보내여 공부시킬것을 생각하시였다.

그 결심속에는 아드님을 조국의 참담한 현실속에서 조선의 참다운 애국자로, 혁명가로 키우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높으신 뜻이 깃들어있었다.

《사람은 우선 제 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 남의것을 배우는것도 제것을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란다. 우리 나라를 잘 알자면 우리 인민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처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떠나신것은 1923년 3월 16일이였다.

8도구에서 만경대까지의 천여리길은 압록강을 건너 포평, 후창, 강계, 희천, 구장, 개천을 통하는 멀고도 험한 길이였다.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참담한 조국의 현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은 불속에서 강철이 되고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뚫고나가는 길에서 더욱 굳세여진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천고의 수림을 헤쳐야 하고 찬바람, 눈보라 휘몰아치는 계곡을 누벼가야 하는 간고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어리신 가슴을 몹시 괴롭힌것은 짓밟히고 뜯기운 조국의 참상이였다.

깊은 산속에 다 쓰러져가는 화전민의 움막집들과 거기에서 주고받는 기막힌 이야기들, 살길 찾아 북으로 북으로 정처없이 흘러가는 홑옷 입은 류랑민들. 만경대에서도 칠골에서도 보통강의 《토성랑》에서도 보이는것은 수난속에 허덕이는 겨레의 모습이였고 들리는것은 인민들의 원한과 한숨 소리뿐이였다.

빼앗긴 조국의 뼈아픈 참상을 목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은 터질듯 아프시였고 그이의 왜놈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는 원쑤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으실 단호한 결심과 의지로 굳세여지시였다.

팔도구를 떠나신지 13일만에 고향 만경대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칠골외가에 가시여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창덕학교에 다니시면서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명철한 분석력과 사물현상에 대한 혁명적인 고찰로 시야를 넓혀가시였다.

가슴속에 뿌리내린 주체의 넋

자기 인민, 자기 나라의 력사를 체득하시려는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열두살 어리신 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천리길, 그것은 단순히 학문탐구의 길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 주체의 넋이 깊이 뿌리내려진 력사의 길이였으며 혁명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해나가신 영광의 길이였다.

8도구에서 만경대에 이르는 천리로정과 창덕학교를 다니시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의식은 《광복의 천리길》에로 이어져 더욱 굳게 다져졌으며 나라를 기어이 찾고야말 숭고한 맹세로 타올랐다.

아버님의 높으신 뜻을 받드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ㅌ.ㄷ》의 홰불 솟아오른 화전의 언덕에로, 주체사상의 창시를 선포한 력사적인 카륜에로, 항일대전의 첫 포성 높이 울려퍼진 안도에로 이어져갔으며 마침내 항일무장투쟁과 조선혁명의 길우에 불멸의 자욱으로 새겨졌다.

조선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받아새기신 이 뜻은 위대한 주체의 진리로 밝혀지게 되였으니 진정 그이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움터난 빛나는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에 찬 혁명활동로정우에 장엄하게 메아리치고있는 드팀없는 신념, 주체의 뜻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 억센 혁명의 기치로 조국땅우에 나래치고있다.

《국어독본》 이야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창덕학교에 편입하신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께서 5학년용 새 교과서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며 교과서를 펼쳐보시였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을 달리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는것이였다.

《할아버지, 이 책을 가지고 글을 배워야 합니까? 일본말책을 어떻게 국어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강돈욱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본말을 배워주지 않으면 안되는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주시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조선사람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 그뿐이지 제 근본을 잊지 말고 조선의것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 힘쓰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분을 참지 못해하시며 책표지에 찍힌 《국어독본》이란 네글자를 들여다보시더니 주머니에서 손칼을 꺼내시였다. 그러시고는 《국어독본》이란 글자가운데서 《국》자를 긁어버리시고 《일》자를 써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국어독본》을 《일어독본》으로 고쳐놓으시였다.

그러시고도 민족적모욕감을 참지 못하시여 그 책을 책상밑에 되는대로 쑥 밀어넣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비록 나이는 어리시였으나 왜놈들을 몹시 미워하시였으며 일본 말과 글을 배우는것을 못마땅히 여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때 벌써 일본말책을 《국어》라고 강요하는 식민지교육의 반동성을 느끼시였던것이다.

《국어독본》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리실 때부터 지니고계시는 남다른 관찰력과 조국에 대한 사랑, 원쑤에 대한 증오심의 일단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창덕학교시절을 회상하여

그이의 학습장에 씌여진 글

강 윤 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에 편입하시여 공부하시던 그해 초겨울 어느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손을 잡으시며 함께 어데 좀 다녀오자고 하시는것이였다.

나는 인차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나섰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안색이 그리 좋지 못하시였다. 그렇게 잘하시던 이야기도 하시지 않고 그저 묵묵히 걸으시기만 하였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위대한 수령님께 어데로 가시자는가고 물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시였다.

《아침에 학교에 나가니 이웃반에서 공부하는 한 동무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다른 동무들에게 알아보았더니 그 동무가 빚값에 집을 빼앗기고 어디론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동무의 집에 가보자고 한다.》

나는 그제야 위대한 수령님의 안색이 좋지 못하신 리유를 알게 되였다.

우리들이 그 집 뜨락에 들어서니 마침 그 동무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깍듯이 인사를 하시고 그 집 어머니에게 이사를 간다는것이 사실인가고 물으시였다.

그 집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하여 가난한 사람이야 죽으라는 세상인걸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면서 집쪽을 가리키는것이였다.

그 집 어머니가 가리키는것을 보니 자그마한 초가집의 기둥과 방안의 농짝들에 딱지가 붙어있었다.

그것은 지주놈의 빚을 물지 못하였기때문에 집과 가장집물에 붙여놓은 차압딱지였다.

어머니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짓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그 집에서는 몇해전에 지주놈의 집에서 조 한섬을 장리로 꾸어다먹었는데 그것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몇해사이에 거기에 리자가 붙고 리자에 또 리자가 붙어서 이제는 조가 닷섬으로 되였었다.

악독한 지주놈은 그 많은 빚을 받아낼수 없다고 타산하고 일제놈들의 재판소에 고소하여 초가집과 보잘것없는 세간살이를 몽땅 빼앗아버렸던것이다.

이리하여 이 집에서는 하는수 없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때에 정처없이 류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난 뒤 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학습장에서 이날 있었던 일들을 써넣으신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수 있었다.

《이 세상에 남의 등을 갉아먹는 지주, 자본가가 없어야 한다. 왜놈과 지주, 자본가는 한배속이다.

왜놈과 지주, 자본가가 없을 때라야만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잘살수 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학습장에서 오래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신 이 글을 보고 또 보면서 가난과 천대 속에 신음하는 인민들을 그토록 위하시는 수령님의 고결하신 인민적풍모와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에 대한 증오심의 높이를 읽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우신 창덕학교

《배 움 의 천 리 길》 65돐기념

고등중학교 최우등생답사 행군대원들의 결의모임

【평양 3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65돐(1923. 3) 기념 고등중학교 최우등생 답사행군대원들의 결의모임이 13일 영광의 땅 포평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량강도사로청위원회 박윤철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금으로부터 65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에게 짓밟힌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실 큰뜻을 키우시며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은 우리 인민의 앞길에 새 력사의 려명을 밝혀준 영광의 길이였다고 하면서 《배움의 천리길》에 이어 《광복의 천리길》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의 새봄을 맞이할수 있었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억센 뿌리를 가진 우리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가는 자랑찬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번에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통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깊이 체득하고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며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하고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 높은 조직성과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모임이 끝나자 답사행군대는 후창군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환송을 받으며 행군길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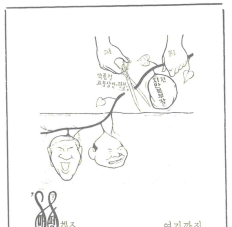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발표 20돐기념 연구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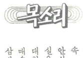
【평양 3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발표(1968. 3. 14) 20돐기념 교육부문 연구토론회가 11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학교교육사업에서 전환의 길을 열어준 력사적문헌》, 《학교교육에서 계급적선을 똑똑히 세우는것은 학생들을 참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근본요구》, 《학교교육기관은 사상혁명수행의 중요한 수단》,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방침》, 《교원들을 혁명화하는것은 교육사업을 개선하고 후대들을 참된 혁명가로 교육교양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학생들을 산 정치활동가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제목의 연구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명을 준 고전적문헌이며 해방후 우리 나라 교육사업 진행정형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로동계급이 정권을 쥔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사회주의교육앞에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 수행방도를 뚜렷이 밝힌 력사적문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략소굴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일본언론기관이나 각계의 그릇된 론의를 보고 느껴지는것은 흥미본위, 당리당략, 흑백전도 등 여러가지이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결여되고 있는것은 모략정보를 류포시켜 정보조작을 일삼는 《안기부》의 정체에 대한 인식부족이라 하겠다.

▼《안기부》의 정식이름은 《국가안전기획부》.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마찬가지로 정보수집, 정탐뿐만아니라 초법률적인 강권으로 테로, 랍치, 고문, 모략, 파괴 공작까지 못하는게 없고 특히 반공화국모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악마의 소굴. 괴뢰안기부는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되여있는 특권직속기관으로서 그 조직, 인원, 예산에는 괴뢰국회나 각료들도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국가안전기획부법》이란것을 보면 그 직무로서 《국내의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를 비롯하여 무슨 《보안업무》니 《범죄수사》니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을 들고있는데 《국가안전》의 이름아래 《정권안전》을 위해 온갖 악행, 죄행, 만행을 다하고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조선의 한 변호사가 말한것처럼 《안기부》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더 신경을 쓰고있는것은 위기가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월간조선》 3월호). ▼로태우는 《민주화》공약을 늘어놓으면서도 괴뢰국회의사당 6층에 계속 괴뢰 안기부, 보안사, 경찰의 사무실을 두고 반대파에 대한 감시, 강박과 매수분렬공작을 일삼게 하고있다. 지어 각 행정부처들에까지 정보원을 파견하여 《행정조정》의 명목으로 행정업무를 좌락펴락하고있으니 《안기부》는 그야말로 《초헌법적존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안기부》는 집권욕과 반공광신증에 사로잡힌 《대통령》의 손발역할을 하며 거짓과 모략을 존재방식으로 삼아온데 대하여 일본에서는 더 눈초리가 돌아가야 할것이다. 그놈들에 의한 김대중 살해미수, 랍치사건을 상기하면서말이다.

친선의 왕래

▲로므니아에 가는 한국경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위원회대표단, 쏘련을 방문하는 보통교육부 홍일천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보통교육부대표단, 수리아와 민주예멘을 방문하는 리수근부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고급당학교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진행되는 세계평화리사회 상무위원회회의에 참가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부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리성호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 가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우종학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농근맹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진행되는 국제기자동맹 상무위원회 뷰로회의에 참가할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최관홍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기자동맹대표단, 쏘련에 가는 조선영화인동맹대표단이 10일 평양을 출발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각지 상공단체들 올해 《확정신고》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무리

각지 상공단체들에서는 올해 《확정신고》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세금신고》사업은 동포들의 기업권을 옹호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올해는 수지내역서의 첨부와 기장의무화 등 《세법개정》이후 4년째를 맞이하는것과 관련하여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세금탄압이 더욱 로골화되는것이 예견되였다.

또한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기화로 한 내외반동들의 공화국과 총련조직에 대한 모략책동속에서 동포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는데서도 《세금신고》사업은 매우 중요하게 나섰다.

각지 상공단체 일군들은 지난해의 《확정신고》가 끝난 직후로부터 예견되는 경제동향에 상응하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왔다.

수지내역서정리와 장부기장 등 상공회회원들이 까다롭게 여기는 문제들을 세금강연회와 《경영상담의 날》을 통하여 풀어주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을 년간사업으로 전환하여 강연회와 호별방문식으로 동포상공인들을 찾아가 장부기장을 계통적으로 지도장악한 상공단체도 있었다.

총련 각급 기관 일군들도 상공회일군들과 합세하여 실무학습을 거듭함으로써 많은 일군들이 문서작성사업을 도와나서게 되였다.

기후현상공회와 미야기현상공회에서는 2월내에 주된 지역의 문서작성작업을 기본적으로 끝낸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회원들을 찾아가 《세금신고》 사업을 벌렸다.

군마현상공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세금강연회를 거듭 가지고 회원들에게 기장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장부기장정황이 크게 개선되였으며 2월내에 문서작성사업을 끝내게 되였다.

도꾜 시부세상공회와 또 니시징상공회에서도 경제동향으로부터 예견되는 정황을 미리 포착하여 이번 《확정신고》기를 맞이하였다.

교또 니시징지역에서는 직물상에 종사하던 동포업자가 공황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고 그 관계로 부동산의 양도가 활발해져 그에 관한 세금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였다.

이곳 상공회에서는 그를 풀어주기 위해 방조사업, 부기학습, 업종별로 세금강연회를 가지는 등 세심한데까지 주의를 돌려 동포상공인들을 도와주었다.

도꾜 시부세상공회는 지가의 상승에 동반되는 양도문제와 상속대책을 위한 증여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을 능숙하게 처리하였다.

2월말까지 회원을 1.5배로 증가한 효고 히가시고베상공회를 비롯한 여러 상공단체들에서도 《세금신고》사업뿐만아니라 긴장된 정세에 맞게 상공인들에게 선전물을 직접 갖다주면서 이번 려객기사건의 진상을 알려주었다.

뿐만아니라 자녀교양문제, 생활상 고민 등도 풀어나가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총련조직의 고마움을 알려주었다.



모임장은 일본 각 대학을 졸업하는 재일조선류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찼다.

《세금신고》사업을 통하여 젊은 상공인들을 묶어세워

도꾜 도시마상공회에서

도꾜 도시마상공회에서는 《세금문제와 경영상담은 조선인상공회에서》란 구호도 드높이 지난 1일부터 문서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 올해 《확정신고》를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이곳 상공회에서는 동포상공인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날따라 높아지고있는 속에서 세금문제에 대한 해설, 방조 사업을 적극 벌려 그들이 옳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지도록 힘써왔다.

우선 지역상공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일군들과 비전임들이 학습을 꾸준히 하여 실무능력을 제고해나갔으며 달에 2번씩 상임리사회를 열어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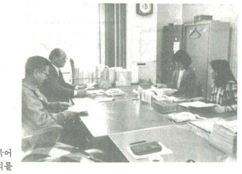
또한 작년말과 올해초에 세금강연회를 가지고 《세법》내용과 그에 따른 대책문제를 해설함으로써 동포상공인들이 《세금신고》 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도와나섰다.

특히 장부기장의무화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동포상공인들속에 들어가 방조사업을 벌려온 결과 장부기장정형이 좋아지게 되였다.

《상공회는 사람과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시간을 내여 동포상공인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고 이야기하는 강정원일군.

2, 3세 상공인들속에 일상적으로 들어가 세금문제해설과 경영상담을 한 결과 올해는 약 90%가 정리된 장부를 준비하였으며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됐다고 한다.

강일군은 《이번 신고사업을 통하여 젊은 상공인들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젊은상공인협의회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이야기하였다.



올해 《세금신고》사업을 원만히 수행한 이바라기현상공회



동포상공인들이 세금문제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지도록 힘써온 도시마상공회 일군들

지역상공회의 역할 더욱 강화

이바라기현하 상공회들에서

이바라기현하 상공회들에서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상공회일군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림으로써 《세금신고》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이곳 상공회에서는 장부기장이 의무화되여 4년째를 맞게 된것과 관련하여 신고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년말년초를 통하여 대상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지도방조사업을 강화하였다.

특히 올해는 내외정세가 복잡하고 긴장되고있는 속에서 일상적인 장부기장, 서류작성 등 지도방조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그를 위해 달마다 본부적으로 강습을 가지고 상공회일군들의 실무능력을 제고해나갔으며 동포상공인들이 장부를 일상적으로 적도록 지도사업을 벌렸다.

특히 이곳 상공회에서는 젊은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상공회를 튼튼히 꾸려 그 역할을 높여나가는 속에서 관하동포상공인들을 묶어세우고있다.

《우리 상공회에서는 실무사업은 물론 기타 동포상공인들의 생활적인 문제에도 세심한 눈초리를 돌리고있습니다.》고 이야기하는 함박리사장.

이 기간 상공회는 물론 총련본부, 녀성동맹본부에서도 상공인들의 문제에 큰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겐세이상공회에서는 2월 23일에, 겐호꾸상공회에서는 3월 2일에, 겐낭상공회에서는 3일에, 쥬오상공회에서는 9일에 각각 문서작성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이번 《세금신고》사업을 통하여 관하동포상공인들의 세금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였으며 우리 상공인들을 상공회조직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다.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기여하자

1987~1988학년도 일본 각 대학을 졸업하는 재일조선류학생들을 축하하는 모임

1987~1988학년도 일본 각 대학을 졸업하는 재일조선류학생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12일 조선회관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과 류학동중앙 배직수위원장 그리고 류학동 각 지방본부 일군들과 각 대학을 졸업하는 류학동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먼저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 대학을 졸업하게 된 전체 졸업생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후 오늘 모임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 축전교시를 높이 받들고 올해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벅찬 시기에 진행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지금 전체 조선인민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해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세, 특히는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진상과 배경을 말하면서 바로 이러한 시기에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올해가 총련사업과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오늘 모임에 참가한 졸업생들이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이라는 자각과 인식을 가지고 사업하며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졸업생들이 류학동생활과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주의 조국건설에 적극적으로 바치고 조국통일사업과 제반 애국과업 수행에 크게 기여할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연설에 이어 서만술부의장은 모범졸업생들에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표창장을 그리고 전체 졸업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모임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리박사(고베대학)졸업생이 결의를 하였다.

그는 류학동조직생활을 통하여 배운 귀중한 지식, 특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새겨 조국통일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살아나가겠다고 결의다졌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총련 효고현본부에서 현지사와 현경본부장에게 요구

우리 기관과 학생들에 대한 파괴, 협박 사건이 련이어 일어난것과 관련하여 3일, 총련 효고현본부에서는 현지사와 현경본부장에게 조선학생, 아동들의 통학안전과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총련본부 박기언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들은 현청과 현경찰본부를 찾아가 관계부문일군을 만나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협박사건이 련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지난해 12월, 고베시 나가다구에서 하교중에 있던 고베조고 녀학생에 대하여 2명의 중년남자가 《조선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폭력을 가한것을 비롯하여 올해 1월에는 아마가사끼히가시초급 녀학생이 뻐스간에서 피한에게 협박받고 도중에서 내리지 않을수 없게 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협박사건이 련이어 일어났다.

또한 본부와 지부를 비롯한 우리 기관에 대하여 우익깡패들이 선전차를 몰고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괴전화와 건물파손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현청과 경찰당국이 그를 철저히 단속할데 대한 대표들의 요구에 대하여 현경에서는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현지사와 현경본부장에게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총련 효고현본부 일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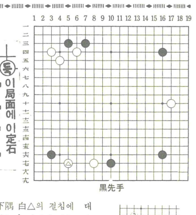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리기 위한 총련 도꾜도본부 궐기모임

시일;1988년 3월 17일 오후 1시
장소;조선출판회관

※18일;총련 가나가와현본부
19일;총련 아이찌현본부,총련 후꾸오까현본부,총련 야마구찌현본부
23일;총련 오사까부본부,총련 교또부본부

바둑 다음한수

이局面에 이定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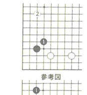


黑先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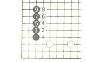
左下隅 白△의 걸침에 대응하겠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입니다.

응한다면 **參考図** 黑1의 마늘모(尖)가 일반적이겠지만 白은 左辺에 2로 전개합니다. 이 局面에서는 左上隅의 白勢力을 념두에 두어야 합니다.

解説図처럼 먼저 黑1로 左辺에 전개하여 이하 黑9까지를 甘受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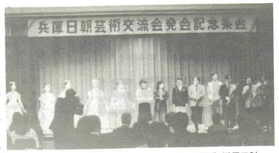
參考図



解説図

좌담회 —하—

△참가자
사다마쯔 도오루(貞松融—효고일조예술교류회 대표위원, 사다마쯔,하마다바레단 대표)
기요다 유지(淸田雄司—일조미술가간담회 사무국장, 판화가)
후지와라 야스히꼬(藤原靖彦—일조음악예술교류회 리사, 교또시교향악단 연주가)



지난해 2월에 진행된 《효고일조예술교류회》 발족모임

막을수 없는 일조친선의 흐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를

사다마쯔씨 문화교류단체를 도도부현에 하나씩

기요다씨 제2차일조우호전을 평양에서 성대히

후지와라씨 《교꾜(京響)》와 재일조선어머니들의 음악회

조선에서 배운다

—공화국과 재일동포들과의 문화교류의 현황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후지와라: 우리 악단의 4명의 지휘자중 한사람이 재일조선인음악가인 김홍재씨이다. 작년에 김씨의 지휘로 《아리랑》,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사향가》 그리고 브람스의 《싱포니》, 일본 도야마 유조의 《랍소데》 등을 연주하였다. 연주자의 립장으로서 조선곡은 매우 알기 쉽다. 국립교향악단의 연주가와 공연(共演)했는데 특히 《청산벌에…》는 평판이 좋았다. 84년에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락원의 노래》를, 또 작년에는 종합공연을 보았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금강산가극단이나 가무단의 공연들도 일본에서 자주 보는데 음악분야에서는 조선이 세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말할수 있다. 얼마전에 《2월의 음악제》가 있었는데 일본가수들이 조선의 가사를 잘 표현하고있었다. 모두들 그 노래를 가지고 공화국을 방문하고싶다는 의욕들이 대단하다.

기요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바가 있는데 학생들의 석고소묘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우리의 감각으로서는 부루타스나 미로의 비나스를 시범으로 하여 그리는것이 응당한데 그들은 자기 나라 조각가가 만든것을 사용하고있었다. 일본에도 훌륭한 조각품들이 있는데 서양의것을 저항없이 받아들이고있는것은 어째서인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서 예술을 찾아나가자는 립장에 크게 감동하여 그후 예술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웃음) 민족성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침투되고있는걸 보고 일본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사다마쯔: 좋은 말씀이다. 일본의 《국제화》가 어딘가 이상하다는것도 그런것이다. 미국지향이나 구라파지향이나 거기서만 《국제화》를 부르짖고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에 대해서는 《국제화》를 받아들이지 않고있고 리해조차 안하고있다. 작년에 공화국을 방문한 나까무라씨로부터 공화국에서 무용표기법이 창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우 획기적인 일이기에 이번에 꼭 배우고싶다고 생각하고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있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이제까지 문화예술을 통한 조일교류가 흔들리지 않는 흐름으로 되여왔는바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에서의 포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십시오.

기요다: 올해에 일조미술가간담회도 20년째를 맞게 되는데 계속 우호전을 오사까에서 열어나가겠다. 회장을 확보하는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올해는 아트프라자에서 하기로 되여있다. 오사까에는 재일조선인이 많이 살고있기에 한군데에서의 전시로 그치는것은 아깝다는 의견이 많아 작년에는 공화병원에서 일조우호이동전시회를 하니까 반향이 좋았다. 이것도 계속 열어나가겠다. 그리고 우리의 큰 목표는 제2차일조우호친선전람회를 평양에서 다시 개최하는것이다. 이것도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이다. 평양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맞추어 개최할 예정이다. 그것이 실현되면 조선의 저명한 화가들을 초빙하여 일본에서 제3차일조우호전을 가지자는것이 또하나의 꿈이다.

사다마쯔: 오가사와라 미쯔꼬씨를 회장으로 하는 일조음악예술교류회와 함께 공화국을 방문한후 효고지방의 예술인들속에 씨앗이 뿌려지고 효고일조예술교류회로 이어졌고 그것이 또 교또시교향악단의 방문으로 계속 발전하여왔다. 어떨 때는 랑군사건직후에 단원들을 데려간 일도 있었다. 상황은 지금과 매우 비슷했기에 걱정도 했지만 마치고나니 화를 복으로 만들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일조문화교류가 이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였기때문이다. 후지와라선생도 위기감은 필요없다고 든든한 말씀을 하셨는데 신심을 가지고 해나갈 마음이다. 또 효고일조예술교류회를 만들 때도 그나름의 의도가 있었는바 그것은 각 도도부현에 하나씩 그런 단체가 무어져 밑둥이 넓어지면 바람직하다는것이였다. 작년에 일조문화교류를 위해 힘써오신 취주악련맹의 다께모도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의 뜻을 이어 더 활발한 활동을 벌려나가겠다.

후지와라: 포부는 많이 있어 걷잡을수가 없지만 꿈과 현실을 섞어서 말한다면 우선 올해 7월에 우리 교향악단과 재일조선어머니들의 코라스의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 회장을 빌리기가 힘들다. 지금 《조선》이란 이름을 내면 우익들이 방해하러 오기에 곤난하다는 회장들이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지지 않고 실현시키겠다. 그리고 나의 희망이라 할가 꿈은 공화국의 국립교향악단의 일본공연을 실현시키는것이다. 그것이 실현될 때 그 공연을 발판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것 같다. 오케스트라에는 그만한 힘이 있고 분위기도 달라질것이다. 앞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일조교류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일본에서 조선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조의 여러 단체들이 더 많이 뭉쳐 노력해나가야 할것이다.

미국과 모략의 구도
《평화》와 랭전사고가 동처

김 대 하

최근 《1961년 5월》이라는 책을 읽었다.

쏘련의 후르시쵸브수상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아이젠하워의 쏘련방문, 빠리에서의 동서국수뇌회의가 예정되고 쏘미간의 데탄트(긴장완화)기운이 싹트는 시기에 일어난 유(U)2간첩정찰기추락사건에 소재를 둔것이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헌병》을 표방하는 미국이 실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압살자였다는것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져 흥미깊었다.

①유2 격추의 진상

《1961년 5월》이란 유2간첩정찰기가 격추된 날이다.

정확히 말하면 전세계로동자의 제전인 5월 1일의 메데의 날, 토이기의 비밀기지를 발진한 미중앙정보부소속의 유2가 쏘련상공에서 격추되였다.

이 정보를 선참으로 들은 아이젠하워는 유2가 미정보부소속, 즉 그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하여 쏘련의 군사기지를 정찰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유2가 나사(NASA)의 기상관측기였다는 허위선전을 퍼뜨렸다.

그러나 이 허위선전은 쏘련측이 유2의 파워즈비행사를 포로로 했다는 사실에 의해 뒤바뀌여졌다.

파워즈는 유2가 미정보부의 간첩정찰기이며 군사기지의 사진촬영의 임무를 맡고있었다는것을 자백한것이다.

유2간첩정찰기사건으로 쏘미간의 데탄트, 동서간의 긴장완화 기운은 사라져버렸다.

②규칙 무시는 체질

한편에서 데탄트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에서 상대방보다도 우위에 서기 위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는 사고는 보통사람들에게는 리해하기 어렵다.

그것이 외교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략을 꾸미지 않으면서 성의로 대한다는것도 또한 외교이다.

그러한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있기에 나라의 리익, 리해, 사상, 체제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공존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유2기사건뿐아니라 오늘까지의 력사, 더군다나 1945년의 제2차세계대전후의 세계사를 보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진영의 이러한 규칙을 무시한 행실이 눈에 띈다.

1960, 70년대에 일어난 꽁고의 루뭄바수상암살, 비동맹의 지도자라 지목된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대통령의 추방, 칠레의 알옌데정권의 압살, 캄보쟈의 시하누크친왕의 추방 등 큰 사건을 올려도 배후에는 미국=미정보부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런 인물들은 누구나 다 반미를 들고 자주로선을 취하여 아프리카, 아세아, 남미의 각 지역에서 갓 태여난 발전도상국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미정보부의 손은 그들이 《비우호국》이라고 규정하는 이런 나라들뿐아니라 《우호국》이라 부르는 지역에도 뻗치였다.

전형적인것은 남부웰남의 느고 딘 디엠(대통령), 남조선의 박정희 암살, 필리핀의 마르코스추방이다.

전자 둘은 미국의 충고를 듣지 않음으로 하여 말살되고 마르코스는 압력앞에 하와이에 도피했다.

③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에도 그림자

이 마당을 빌어 모략사를 펼쳐보려는것은 아니다.

다만 갖가지 모략사에는 반드시 미국의 그림자가 비껴있다는것을 말하고싶은것이다.

지난해말에 일어난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 재작년의 《공화국이상사태설》은 미국이 각본을 쓴것이 아닌가고 느껴진다.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윈에서의 《마유미》, 《싱이찌》의 행동을 재빨리 알아내고있었다는것이며 재작년의 허위선전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남조선주둔미군이였다.

공화국은 1984년의 3자회담제안을 계기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실권자회담, 대규모군사연습의 중지, 비핵평화지대화안 등 구체적인 제안을 내는 한편 합계 25만명의 군인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은 실질적인 조치는 물론 제안에 응하는 자세도 안보이고있다.

앞서 언급한 아이젠하워의 행실이 아니지만 《평화》와 랭전지향이 한쌍을 이룬 미국의 머리에는 스스로의 리익을 추구하는것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평화》를 웨치고 군사적인 긴장도 부르짖어 그를 위해서는 자기들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게 모략을 꾸며내는것—그것이 미국인것이다.

(언론출판일군)

연극비평

변화되는 동포사회에 —새로운 문제제기—
조대의 연극 《흐름》과 《첫 기슭》

리 지 산

지난 2월에 조선대학교에서는 두편의 창작극이 상연되였다. 하나는 연극부의 공연 《흐름》(작, 연출 리상건), 다른 하나는 정경학부 2반의 공연 《첫 기슭》(작 최용해, 연출 김성훈)이다.

《흐름》은 일본사회에 저항없이 순응하는 어느 동포가정의 거짓의 《행복》의 붕괴를 희극적으로 형상한 작품이고 《첫 기슭》은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대학생이 애국적상공인인 아버지의 모습과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두 작품은 학생들의 힘으로 창작된 연극으로서 재일동포사회의 변화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시도하고있어 눈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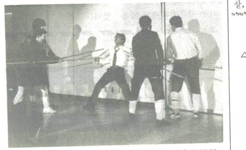
《흐름》의 주인공 김영철은 어느 일본회사에서 일하는 과장이며 2세이다. 총련조직에 대하여 거절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것도 아니며 아들딸을 민족적으로 교양하는것도 아니고 완전히 일본사람으로 키우는것도 아닌 그저 모든것을 무난하게 넘겨버리는 인간이다. 그와 같은 영철의 삶의 태도는 결국 가정의 붕괴를 가져온다. 표면상으로는 평온했고 《행복》했던 가족이 갈가리 찢겨졌을 때 영철은 말할수 없는 허무감에 빠지게 되며 자기의 민족적량심의 화신인 사나이(분신)의 이끌림으로 력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찾아간곳은 바로 간또대진재당시의 도꾜, 《자경단》의 위협과 시인 리상화와의 만남을 통해 영철은 재일동포의 생활과 운명의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에로 끊임없이 이어지고있음을 깨닫는다.

《숙명》적이라고 볼수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일정하게 깨뜨린 이 작품은 희극적인 양상속에 비극적인 문제의식을 깔아놓은데 성공을 보여주었으며 재일동포에게 있어서 력사의식의 회복이 매우 긴요하다는것을 호소하고있다.

한편 《첫 기슭》은 상공인이 총련의 기본군중으로 된 새로운 상황속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부여된 시대적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모색한 작품이다. 특히 돈만 내는것이 상공인이 아니라 분회사업에도 나서고 시위행진에도 나서는것이 기본군중으로서의 상공인의 참모습이라고 하면서 조국과의 합영사업에 나서는 아버지의 형상은 주목을 끈다.

앞으로 조대에서의 연극창조사업이 계속 활발히 벌어져 변화되는 동포사회에 새롭고 예리한 문제를 던져줄것이 기대된다.


간또대진재당시로 되돌아간 주인공은 《자경단》의 위협을 받는다. (연극 《흐름》에서)

행사안내

△제11회 교또학생회 《모두를 위한 콘사트》

때; 1988년 3월 21일(월) 오후 6시 개장, 6시반 개연
곳; 本願寺会館(堀川七条上)
입장료; 500엔
주최; 일고재학교포조선학생회 ☎075(313)6231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 (260) 5881
内線 453・435
436・428

科学と教育、保健事業の新たな段階への進展を
朝鮮労働党中央委第6期13回総会開く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第六期第十三回総会が七日から十一日までの五日間に渡り開かれた。金日成主席の司会のもと、総会には党政治局の常務委員と委員、委員候補、党中央委員会の委員、委員候補、党中央検査委員会委員が出席。また、中央と地方の党、行政機関、勤労団体の活動家、科学、教育、保健部門の活動家が傍聴人として参席した。総会では①科学教育事業で新たな革命的転換をもたらすことについて②人民保健事業を改善強化することについて③組織問題——の三つの議案について討議、①、②の議案について金日成主席が重要な結論を述べた。

科学技術発展3カ年計画の遂行へ

総会では第一の議案についての報告を崔泰福書記が行った後、多くの参加者が討論し、科学研究と教育の事業で遂げた輝かしい成果を総括した。そして今後、科学研究に大きな力を注いで国の科学技術を一層発展させ、「社会主義教育に関するテーゼ」を引き続き貫徹し、革命と建設を力強く進めていく決意を表明した。

総会では次のように指摘された。（要旨）

一、科学技術の発展は、労働者階級の党が社会主義建設で一貫して貫徹する戦略的な課題の一つであり、こんにちの科学技術発展で新たな転換をもたらすことは、雄大な第三次七ヵ年計画の成功裏の遂行と、社会主義完全勝利の促進にかかわる切迫した問題として提起されている。

一、党の指導のもとに科学技術発展で多大な成果を遂げ、新たな画期的発展のための土台を築いた。

一、第六回党大会で全社会のチュチェ思想化の要求に合うよう人民経済を主体化、近代化、科学化して社会主義建設の目標達成で提起される科学技術的問題を解決する課題を示し、最近では全党員に送る党中央委員会書簡で国の科学技術を世界的水準に引き上げることを改めて強調した。

一、科学技術発展三ヵ年計画を輝かしく遂行し、科学技術の新たな発展をもたらさねばな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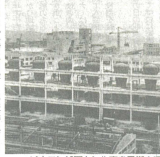
一、同計画の中心課題である電子工学、生物学、熱工学をはじめ重要な科学部門を発展させ、一日も早く先進水準に高める。

一、同計画が遂行されれば、数年後に主体的な超小型電子技術や電子計算機、光通信技術がさらに発展し、生産のオートメ化、ロボット化、電子計算機化を本格的に遂行する新しい段階に達するであろうし、近代生物学に基づき農業や畜産業、養殖が高い科学的土台の上に立ち、順川と沙里院の大化学工業基地で各種化学製品が生産され、人民の食衣住で画期的な転換が起きるであろう。

また、人民経済の各部門や熱を利用するすべての単位で熱エネルギー問題が円満に解決され、金属工業や化学工業をはじめとするわが経済は、より近代的な科学技術的土台の上に立ち、その主体性が一層強化されるであろう。

一、同計画を成功裏に遂行するため、科学者の隊列を整えてその水準を一層高める。さらに、科学研究機関に優秀な大学卒業生を多く配置して科学者の後備を体系的に育成する。また、科学研究活動の条件を円満に保障するとともに、同研究活動に対する党の指導と行政指導を強化する。

一、「社会主義教育に関するテーゼ」をより徹底的に貫徹して、教育事業で新たな転換をもたらす。教育を高い段階へ発展させ、革命的世界観を持つ近代科学技術に精通した科学技術人材をさらに多く、より早く育てていく。


ビナロン10万トン生産を目指す順川ビナロン連企合業所・ビナロン区域建設現場

予防医学の方針執行と保健施設、設備の現代化

総会では第二の議案についての報告を李鍾律保健部長が行った後、多くの参加者が討論、人民保健事業の成果を総括し、一層の改善強化のための課題が討議された。

総会では次のように指摘された。（要旨）

一、党の主体的な保健思想が輝かしく具現され、保健事業が大きく前進した。

人民保健法が採択され、新しい保健法規が制定されることにより、わが社会主義保健制度は法的に一層充実され、さらなる改善強化への土台が築かれた。

一、社会主義の完全勝利を成し遂げるべく革命発展の現実的要求に合わせて人民保健事業をより改善強化し、保健事業が人民大衆の自主的な生活を一層保障することにより、第三次七ヵ年計画の遂行と社会主義建設の進展に尽くす。

一、保健事業を改善強化することによって人民の健康をより保護し、勤労者に一層の衛生文化的な生活環境と労働条件を保障でき、彼らが自然と社会の主人としての責任と役割を一層果たせるし、人間をもっとも貴重な存在として尊重するわが社会主義制度の優越性をより高められる。

一、保健事業に対する党、国家、社会の関心を一層高めて党の保健政策を貫徹し、同事業の新たな革命的転換をもたらす。

一、同事業の中心的課題は党の予防医学的方針を遂行し、予防治療活動の質をさらに高め、保健施設と設備をより現代化するとともに、保健経営活動を高度な科学技術の土台の上に押し上げねばならない。

そのためにも、同事業に対する党と行政の指導を強化する。

◇

総会では第三議案（組織問題）と関連して桂応泰氏が党中央委員会政治局委員候補から政治局委員に、また、中央委・委員、委員候補、検査委員などの選出、補選が行われた。


社会主義祖国と在日朝鮮人運動発展のため、持てる知識と情熱を——決意も新たな卒業生たち

朝鮮青年としての気概を胸に社会へ
留学同卒業生祝賀会 東京で

一九八七～八八学年度日本の各大学を卒業する在日朝鮮留学生たちの祝賀会が十二日、東京・朝鮮中央会館で行われ、卒業生と在学生、関係者ら約二百人が参加した。

祝賀会には総聯中央・徐萬述副議長が参席し、祝賀のあいさつを述べた。

徐副議長は、祖国と在日朝鮮人運動を取り巻く情勢について述べながら、卒業後も留学同で培った朝鮮青年としての気概を胸に頑張って欲しい、と語った。

また、大学で習得した専門知識をもって、祖国の社会主義建設に寄与してくれることを期待する、と励ましの言葉をかけた。

つぎに、留学同活動で模範となった卒業生六人に、総聯中央常任委員会から表彰状と記念品が贈られた。

つづいて卒業生を代表して、李博史君（神戸大学）が自身の決意を述べながら、社会に出ても祖国の統一と発展のために、習得した先進科学技術を生かしていこう、と全卒業生らに呼びかけた。

祝賀会の後、祝賀宴が催され、卒業生と在学生がそれぞれ歌を披露し、尽きない話に花を咲かせた。

卒業生の一人である呉清江さん（関西学院大学）は、「社会に出るのは少し不安があります。でも四年間の留学同生活の中で得た知識をもって、祖国と組織のために頑張っていきたい」と決意を新たにしていた。

青年商工人フォーラム成功に向け活発な討議
第2回実行委員会開く 神戸

「在日朝鮮青年商工人フォーラム」の第二回実行委員会がさる十二、十三の両日にかけて、兵庫県にある神戸ポートピアホテルで行われ、同委員ら二十三人が参加した。

同実行委は六月のフォーラムを青年商工人自らの力で企画、成功させようとさる二月二十日に発足、同日に第一回実行委を開いてフォーラムの草案と準備日程などを討議した。

今回の第二回実行委員会では、事務局が作成した試案（たたき台）に基づいてフォーラムの進行と準備作業の大枠が定められた。また、フォーラムの会場として設定されている「ポートピアホテル」の各施設などを視察した。

初日の十二日午後、張允植実行委員長の司会により討議が進められた。事務局の試案について商工連合会・金基次総務部長が説明した後、大会の名称と主題（「見る、聞く、知る、そして語る…」）に始まり、式順、内容、そしてその準備作業に至るまで討議を詰めた。夕食をはさんで、さらに詳細にわたる討議が進められ、実行委員たちの総意を集めた。

そして翌十三日には、フォーラムの会場として設定されたメインホールや、各施設などを見て回った。

同実行委での討議内容は、今後、事務局会議と実行委員長・副委員長会議などで煮詰められ、最終決定される。


ざん新な企画で立派なフォーラムにしようと討議を深める委員たち

水曜訪問
南の闘いを知らせたい

来る21日、第11回目の「みんなのコンサート」を催す京都学生会会長
梁 説 さん


京都府生まれ。京都朝鮮第三初級学校を卒業。中学2年生のとき、姉に誘われてサマースクールに初めて参加。この3月に、京都学生会の新会長に選ばれる。現在、京都市立紫野高校2年。学校では朝鮮文化研究会に所属。

練習に忙しい毎日だ。

「今回の劇はみんなでストーリーを考えて、南朝鮮学生の民主化闘争を、自分たちの立場に立って描いたものにしたんです」

創作劇には、主人公の日高在学生に南から手紙を送り、南の闘争について知らせるいとこ役で出演する。

「彼らと一緒になって、実際に闘うことはできないけれど、南の現実を他の日高生たちや、日本の友達に知らせることは私たちにしか出来ないことですから」

むずかしい役どころだけに、本を読んだりして、少しでも南の学生の心情に近付こうと懸命だ。

練習に励むのと同時に、他の日高生たちを勧誘して回る日が続いている。

「同じ学校の子で、誘ったらコンサートに出ると言ってくれたトンムが二、三人いて、すごくうれしかった」と、目を輝かせる。

学生会を知る前から本名で通学し、"自分は朝鮮人だ"という自覚は持っていた。

「でも学生会に入ってから、自分一人だけ自覚を持っていてもだめなんだ。みんなが朝鮮人として、堂々と生きることが大切なことなんだ」ということを学んだという。

「三年のオンニ、オッパたちに会えなかったら、今の私はなかったかも知れません」

高一のときに参加したサマースクールで先輩たちの姿を見て、自分も一緒にやりたいと感じてから、学生会に熱心に出るようになった。

「私が会長だなんて、まだ自信ありませんけれど、コンサートを第一歩にして、一年間がんばっていきたいですね」

卒業後は、大学で文学を勉強するのが夢だ。また、留学生同盟にも加盟して活動を続けたいと言う。

「学生会活動だけじゃなくて、勉強やクラブ活動も両立できるように、みんなで協力し合って、やりがいのある学生会につくり上げたい」と意欲的。

女子会員の多い京都学生会の、頼もしいオンニ役である。（里）

トンポの街かど

はばたく女性テーマに講演
女性同盟和歌山主催の第2回春の教養セミナー

女性同盟和歌山県本部の主催による、第二回春の教養セミナーが九日、和歌山市内の紀伊会館で開かれた。

同胞女性らの意識と役割を向上させる一つのステップ台として、七年前から毎年夏に催されていたこのセミナーが、春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去年から。

「セミナー参加者の中に多いのが若い同胞女性なんですよ。だから学生受け入れ事業の時期に行うことによって、子供の教育問題に対する関心がより高ま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てね」と関係者は述べる。

三十三人の女性らが参加した今回のセミナーでは、まず女性同盟県本部・李華鮮委員長があいさつし、その後、朝鮮商工新聞・崔雪美編集長が「はばたく女性—新しい女性の生き方」というテーマで講演をした。

女性の地位と役割、家庭と職業の両立と社会進出に関する問題、「在日」という条件の中で同胞女性らがどのように生き、子供らになにを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かについて語った講演は、参加者らに深い感銘を与えた。

「若い同胞女性の感覚や現情に合った内容で、とても良かった」「もっと勉強をし、意識を高めていかなければ」などの感想が多く聞かれた。



互いに励まし教育の発展を
北九州初中、筑豊初中オモニたちの交流会

北九州初中と筑豊初中のオモニたちがさる八日、交流会を開いた。

これは、北九州初中のオモニたちの呼びかけに、筑豊のオモニたちが応じて実現したもの。

同じ県内にありながら日ごろ交流会がなかったため、今回の交流会を機に横のつながりを広げ、民族教育の発展に役立てよう、という趣旨で行われたのである。

北九州のオモニたちは、まず筑豊初中を見学して、生徒の作品などを見て回った。

その後、食事をしながら懇談。北九州二十二人、筑豊から二十八人が参加して、民族教育についてざっくばらんに語り合った。

子供たちが朝鮮人として健やかに育つように、父母たちも学校の環境づくりに励んでいこうと意見も一致した。

また、互いの活動に刺激を受け、これからの活動にプラスになったようである。

懇談会の後はゲームをしたりと、終始なごやかに進められた交流会は、全員で手をつなぎ合っての合唱で締めくくられた。

今度はぜひ、北九州で交流会を開こう、と約束。より緊密な連係で、福岡の活動が一層活発になりそうだ。

また、この日を記念して、北九州のオモニから筑豊初中にラジカセが贈られた。

第20回滋賀児童・生徒版画展に多数入選

滋賀朝鮮初中級学校の生徒たち

先ごろ開かれた第二十回滋賀児童・生徒版画展（主催－滋賀県八日市文化芸術会館、滋賀県美術教育研究会）で、滋賀朝鮮初中級学校の生徒たちが多数入選した。

この展覧会は、県下の保育園から中学校までの児童・生徒を対象に、彼らの情緒を版画作品を通して、より高めるという趣旨のもとで二十年前から行われ、今回の応募数は二百八十九校（幼稚園、保育園を含む）、千四百八十四点にのぼった。

同校生徒がこの展覧会に出品したのは去年に続き今回が二回目。

前回は生徒の版画教育の質を高めるために出品したが、審査対象からは除外され、ただ特別にコーナーが設けられ展示するだけだった。それが今回審査対象になったのは、作品の水準が高いとの評価を主催者側から受けたために他ならない。

推奨、特選、入選した生徒は、次の通り。推奨－李聖姫（初五）、特選－権隆（中一）、入選－朴正烈（幼稚班）、李相慶（初四）、李緑（中三）。

また、「大津の子ども総合美術展」（三月十一日～十五日）の外国人学校コーナーに、七人の児童・生徒が朝鮮画、水彩画、版画などを出品。関係者から「朝鮮の子供らはいつも良い作品を描く」「朝鮮画の繊細な描き方に驚いた」との賞賛を受けた。



「大津の子ども総合美術展」に出品された作品。左は権隆、李聖姫トンム

力を合わせて"手作り"バザー

オモニ会にアボジも協力

東大阪第五初級学校



もうすぐ新学期。文房具をもとめる子供たち

東大阪朝鮮第五初級学校のオモニ会バザーが十三日、同校で行われた。校庭せましと張られた八つのテントの下には、各家庭から持ちよった食器、台所用品などをはじめ、傘、洋服、婦人靴、運動靴などが並べられ、またカレーやうどん、お好み焼き、おでんなどの飲食コーナーにも来場者が列を作っていた。

この時期に開かれるバザーは珍しいが、入学シーズンとあって生徒たちの必需品の文具や学用品が安く仕入れられるので、毎年三月に開いているとのこと。

オモニ会の会長を務める梁純子オモニは「地域別に同胞家庭を訪ね食券のつづりを売って回ったり、昨日は夜おそくまで、みんなでハンバーグを作ったんです」と語る。

食券ひとつとっても、「子供のため、ハッキョのためならば」と、多くの同胞らが気前よく求め、準備した千六百枚の食券が一枚も残らず完売される盛況ぶり。中でも幼稚班の若いオモニたちは、昨年からかかりきりで作り上げた、レース飾りのバッグやエプロンを、手作りコーナーに出品した。

「みんなちっちゃい子供を連れて、夜おそくまでミシンを踏んだり、染め物をしたり大変だったんですよ」と語るのは、幼稚班に三人の子供を通わせる文景淑オモニ。

今年で十四回目を迎え、すっかり地域同胞の間に根付いた感のあるバザー。

焼き鳥コーナーはアボジ会、焼き肉、焼きはまぐりコーナーは金剛会（地域の若い商工人協議会）のメンバーが、役目を買って出てくれた。

この日の収益金は教育会を通じて学校に寄附され、学校運営に活用される。

「うちのバザーは大阪でも一番規模が大きいんじゃないですか。毎年オモニたちが、一生懸命準備してくれるおかげです」と、同校の朴日徳校長もオモニ会に感謝を表していた。



飲食コーナーの前は人が絶えなかった

5年目迎えさらに成長

ハッキョを愛して確かな歩み

千葉朝鮮初中級学校オモニ会

千葉朝鮮初中級学校オモニ会の第六回総会が十二日、同校で行われた。この日、六十人のオモニらが参加した総会ではさる一年間の活動を総括するとともに、今年で発足五年目を迎えたオモニ会の経験と成果が詳しく報告された。今年を大きな節目に、会長をはじめ役員も新しく選出、五年間の活動を土台に新たなスタートを切った同オモニ会を紹介する。（恵）



総会では、オモニ会の５年間の活動が詳しく報告された

発足以来、会長を務めてきた李妙順オモニは「オモニ会がここまで来れたのはオモニたち一人ひとりがウリハッキョを愛する運動に励んできたからです」としみじみと述べた。

オモニ会が発足された後、同校には、学習器材が増え、施設もより整った。それは教育環境の現代化を図り、生徒たちの学力向上に一助となった。そしてオモニ会活動を女性同盟の分会活動と密接に結びつけて進めることによって、学校を中心に同胞たちの団結を培ってきたといえる。

このような成果は、オモニ会が年間計画を細かく練るばかりでなく、役員会を随時行い「ウリハッキョに役立つことは何か」を協議し、たくさんのオモニたちを活動に網らした実りであった。

オモニ会はまず、ウリハッキョの財政を助けるため、年間活動の重要な部分であるバザーをはじめ、一円貯金運動、ベルマーク運動、廃品回収など、年間を通じて休むことなく活動を行って来た。

結果、オモニ会が発足した後、理科室には顕微鏡や電気分解装置、薬品など四十種類にも及ぶ器材が増え、全教室にはオーバーヘッド（OHP）が設置、他にも最新式の印刷機などがそろった。そして、オモニたちは「お金だけでは教育は出来ない」と、より社会的で教育的な方向へと会の活動を発展させた。

「民族教育をより理解しよう。ウリハッキョをよく知り、子供と共通の話題をもってふれあおう。学校の発展と、子供の成長とともにオモニ自身も学んでいこう」と会活動を充実させるのに力を注いできた。

そして昨年一年間に運動は大きく発展した。

オモニたちは学ぶことが大切だと六月に「オモニの役割について」という教育講演会を行い、十二月には新谷のり子さんを迎え、"ふれあい"をテーマに「オモニと子供のコンサート」を催した。

それはかりでなく「オモニたちの力で民主主義的民族権利を守ろう」と県内の主要駅（JR）や自治体の庁舎に幾度も足を運び、定期券や助成金など、保障されて当然の児童手当の差別をなくすための社会的活動も活発に行った。

このような活動の中で「若いオモニがたくさん動くようになりました。本当にうれしい」と語るのは李会長。

バザーで売るキムチの漬け具合を見るため、夜中の一時に学校に来たオモニ、大雨の中、二歳にもならない子供を連れて二tトラックを運転しながら廃品を回収した安信子オモニなど、積極的に頑張ってきた若いオモニは数知れないという。

そんなオモニ一人ひとりの地道な努力の積み重ねとそれにこたえようと学校生活に励んだ生徒たちの努力が実り、前年度、同校は「総合模範学校」の栄誉に輝いた。それを記念してオモニ会が植えてくれた桜やモクランの花が満開になる四月も目前。大きな希望を胸に抱いた子供たちがやってくる。

「子供たちの将来のためにこれからも一層がんばっていくつもりです」と新しい役員のオモニたち。オモニたちの間により深く根ざした会として、これからも民族教育発展のため、励んでいこうと意気盛んだ。



若いパワーでより活発な会に

初代会長 李妙順オモニ

五年間を振り返ると、ウリハッキョの発展のため一生懸命がんばっているオモニたち一人ひとりの姿が浮かんできます。

私自身、たくさんのオモニたちに励まされ、ここまでやって来れたことに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

今日、新しい役員をはじめ一層若返ったオモニ会が、よりさん新で、活発な会としてパワフルに活動してほしいですね。そして一人でも多くのオモニの意見を尊重し、今まで以上に多彩で充実した会に発展してほしいです。何よりも子供たちのためにこれからも民族教育に大きく貢献し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ます。



オモニ全員が活動する会に

会長・李潮オモニ

うれしさと不安で、少し複雑な気分です。だけどこの厳しい情勢にも負けずチョゴリを着て、誇らしげに通学する生徒たちの姿を見て、「オモニたちも頑張るぞ！」と力がわいてきます。

五年間、李妙順会長を中心に築かれた経験と成果を土台に、これからはオモニが一層団結し「子供のためのオモニ会」「ソンセンニムたちとの連携を深めるオモニ会」へと発展させたいです。そして何よりもオモニたち全員が活動する会、ゆくゆくは学生受け入れ事業など、社会的な活動でも大きく役に立てる会に育てていきたいです。

生活相談室

在日朝鮮人は歴然たる朝鮮籍の所有者

国籍は、国家と個人の合意に基づき定められる

日本当局は「朝鮮国籍」を認めていないが

質問 外国人登録証の国籍欄に表記されている「朝鮮」国籍は正式に認められていないそうですが、朝鮮籍の在日朝鮮人は国籍を持っていない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か？

答 日本政府当局は、正式には国籍欄の「朝鮮」を国籍とみなしていません。

外国人登録令が施行（一九四七年五月二日）された時はすべて国籍欄は朝鮮でした。

その後、南朝鮮当局の強い圧力、米日当局の思惑により「韓国籍」への変更がすすめられました。

日本当局は一九五二年四月二十八日に外国人登録法を施行しましたがとくに、「韓日基本条約」といわゆる法的地位協定が締結（一九六五年六月）されたのを機会に、朝鮮国籍に対する不当な立場を露わにだしました。そして一九六五年十月二十六日、日本政府は「政府統一見解」なるものを発表して、朝鮮は単なる「符号」にすぎず国籍を発表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朝鮮籍から「韓国籍」への変更は認めてもその逆は認めないということを公言したのです。

本来、国籍はある人間の所属する国を示すものですが、それは国家と個人の合意に基づいて定められます。国家が一方的に国籍をはく奪したり、個人が勝手に国籍を決めることは出来ません。

しかし、在日朝鮮人の国籍について端的にいうならば、日本当局は彼らの意思をまったく考慮せず喪失、符号などとご都合主義的に処遇しているのです。在日朝鮮人の朝鮮籍は、国際法上からも、国内法（共和国の）からも歴然たる国籍であります。

在日朝鮮人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籍法」（一九六三年十月九日公布、施行）によって朝鮮籍を取得する資格を享有し、また本人自らも朝鮮籍を希望していますから、当然、朝鮮籍の所有者であります。

日本政府は共和国を認めていない（未承認国とよんでいる）が、共和国を承認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朝鮮籍を認めないということと同義ではないのです。これは日本国と中国が国交を結ぶまえにも中国籍の在日中国人がいたことからも明らかです。

また、日本国籍の在日朝鮮人が朝鮮国籍を取得するためには、まず日本国籍離脱を求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は日本国籍法によって日本国籍とともに朝鮮籍を持つ二重国籍保有者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して法務省（住所地を管轄する法務局または地方法務局を経由して法務大臣）に国籍離脱届を提出します。それが受理されると官報で告示され日本国籍喪失が認められます。離脱者は日本国籍の喪失によって外国人登録の義務が課せられ、申請後在留資格など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

しかし、日本法務省が在日朝鮮人に対して南朝鮮「国籍法」だけを適用するという差別を行っていますから、日本国籍離脱、朝鮮籍取得は困難な状況に置かれています。だから法律に基づく根気のある闘いが求められています。

保健教育の教授資料に関する第3回審議会開かる

在日朝鮮人医学協会（医協中央）の主管のもと、教員らによって初めて編集された保健授業参考資料をより良いものに完成させるための活動が、医協会員と教員らのタイアップにより昨年から活発に行われている。

その活動のひとつの大きな柱となっている、保健授業参考資料を検討するための審議委員会（去年の九月に発足）の第三回の集いが十三日、東京・上野の朝鮮商工会館講堂で開かれた。

この審議委員会は、初・中・高級部別にそれぞれ設けられた審議小委員会の活動経過報告とこれからの事業方向を討議するために定期的に開かれているもので、この日、総聯中央・教育局、総聯東京都本部、医協中央の関係者や医協会員をはじめ東京、神奈川、愛知、京都、大阪などの各地ウリハッキョの校長や保健担当教員らが参加した。

約三時間半にわたり熱のこもった論議が交わされた集いでは、まず各審議小委員会の報告、研究校（四十二校）の活動総括と、特に学校保健活動が盛んな西日本地方の経験が報告された。

報告ではテキストに基づいて進められた教育現場での実践で得た貴重な成果や教訓などが発表される一方、保健教育に対する関心度が学校、教員によって差があるなどの問題点が指摘された。

続いて討議されたこれからの活動方向では、統一的な視聴覚器材をそろえることや中央および地方別に、学校保健を専門的に扱う組織を早急に設置する必要性などが強く指摘された。



集いでは熱のこもった論議が交わされた

書籍紹介

もうひとつの現代史（序説）

朝鮮人労働者と「大日本帝国」

本書では、在日朝鮮人の日本での生活過程を「もうひとつの日本」としてとらえ、地域民衆との関わりと併せてまとめられている。

第一部では、歴史的に在日朝鮮人問題を検証することによって、現在の状況、さらには未来へ向かってこの問題に取り組む視点を明らかにしている。

第二部では、明治維新から朝鮮侵略まで、日本敗戦による朝鮮解放までの克明な年表が記されている。これは一九八五年夏に在日朝鮮問題に取り組む奈良地域の教師たちと編まれた「奈良・在日朝鮮人史－一九一〇－一九四五」の増補として準備されたもので、奈良での事件記事はくわしい。

全体的には、奈良という一地域だけで、日本人と朝鮮人の問題をとらえるのではなく、より普遍的な在日朝鮮人問題にアプローチする手引きとなっている。

※著者－川瀬俊治、発行－ブレーンセンター、二千八百円、☎〇六－三五六－六三〇三



총련의 모든 조직을 참다운 애국조직으로 만들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17일 (음력 1월 29일) 목요일 【루계 제10160호】

발행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을 당장 그만두라

사설

고식적수법으로 북남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남조선괴뢰도당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에 대한 괴뢰도당의 허위날조극은 드디여 박산이 나고말았다.

괴뢰도당은 저들의 비행기사건과 공화국을 강다짐으로 결부시키려고 이른바 《김현희》라는 유령인물을 끌고나와 그가 아직 어렸을 때 남북조절위원회 남측대표의 한사람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고 우겨왔다. 그들은 비행기사건과 공화국을 결부시키는 유일한 물적증거로서 꽃다발을 넘겨주는 모습을 나타낸 단 한장의 사진을 내놓았을뿐이였다.

그런데 그 유일한 물적증거가 완전히 무너졌다. 남북조절위원회당시 남측대표에게 꽃다발을 준것은 괴뢰도당의 주장처럼 유령인물인 《김현희》가 아니라 오늘도 평양에 살면서 교원으로서 일하고있는 정회선이였다는것이 론증되였다.

이 엄연한 사실은 그 당시의 사진들과 정회선 본인 및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비데오록화를 통해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안받침되였다.

바야흐로 남조선비행기사건과 관련한 괴뢰도당의 음흉한 모략은 그 밑뿌리로부터 뒤엎어지고 만것이다.

도대체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은 공화국이나 총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런데 괴뢰도당은 그 비행기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등의 근거도 없이 또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려고 진지하게 노력도 안한채 공화국을 걸고들어 터무니없는 비방중상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후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괴뢰도당은 《마유미》를 서울에 끌고가 로태우역도의 《대통령당선》을 날조하는데 최대한 리용하였다.

다시 한달이 지나 이번에는 《마유미》가 자기의 본명은 《김현희》이고 거주지는 평양 문수거리라고 《자백》했으며 《자술서》를 썼다면서 기자회견을 꾸몄다. 《김현희》란 괴뢰안기부가 만들어낸 유령인물이며 《자술서》란 남산의 지하밀실에서 고안한 날조품임이 분명하였다.

독자들은 이미 본지의 보도나 일본의 텔레비죤을 통하여 진짜 공화국사람인 정회선녀성의 당당한 모습과 쟁쟁한 음성으로 괴뢰도당을 규탄하는 어엿한 자세를 보았을것이다.

정반대로 괴뢰도당이 마련한 기자회견에 끌려나왔던 《김현희》의 몰골은 어떠했던가. 스스로 인민의 배신자임을 고백하듯이 시종 고개를 숙인채 가냘픈 소리로 소곤거리는 추잡한 작태에서 현명한 독자들은 그가 원쑤들의 앞잡이에 틀림없다는것을 인차 감촉했을것이다.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김현희》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기만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일본공산당이 발행하는 사진잡지에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주기 위해 나란히 서서 대기하고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실리였다. 이 잡지는 그 사진중의 한학생에 화살표식을 하고 그가 《김현희임에 99퍼센트 틀림없다》는 설명을 달았다.

괴뢰안기부는 기다리고있었다는듯이 그 사진을 리용하여 날조선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들은 사진을 보고 《김현희는 자기가 틀림없다》고 말했다느니 뭐니 하고 불어댔다.

이것도 날조였다.

평양의 정회선녀성은 같은 사진을 보고 화살표로 표식된것이 바로 자기자신이며 자기 주변에 서있는 옛날 학우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똑똑히 댔다. 그 모습은 비데오록화에 선명하게 비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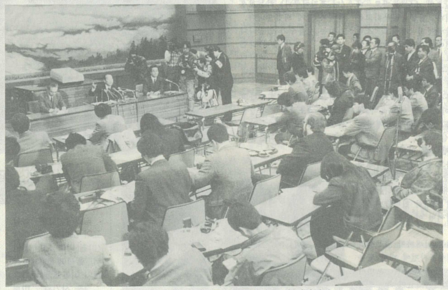
그에 반해 가짜 북의 사람 유령인물인 《김현희》는 본인이 아니라 《안기부》의 말로 학우들의 이름은 다 잊어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른바 《자술서》에서 그는 자기의 거주지를 평양 문수거리라고 했는데 본지 기자가 해당한 거주지를 찾아가니 그 집에는 문수거리가 생겨난 첫날부터 영 딴사람이 살고있었다.

어느쪽 누구의 말을 믿겠는가. 도대체 《안기부》의 발표란 단 한가지도 허위아닌것이 없다. 그들은 괴뢰도당직영의 텔레비죤을 통해 개성에서 있은 모습을 평양에서의것처럼 방영하는가 하면 판문각앞에서 찍은 사진을 평양에서 남측대표에게 꽃다발을 주는 모습이라고 어용신문을 통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어떤 때는 첫번째줄 학생이, 어떤 때는 둘째줄 학생이 《김현희》라고 우겨대고있다.

비행기행방불명사건은 발생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의연히 《행방불명사건》이다. 그것을 괴뢰도당은 《격추사건》이니 《폭파사건》이니 하고 기만선전했다. 그러나 《격추》나 《폭파》를 안받침할만한 물적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비행기사건을 《김현희》니 《현희의 교육계 리은혜》니 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지엽적인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그렇게 하여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한정으로 반공화국, 반총련 선전을 확산시키고있다.

본래 이 비행기사건과 관련한 모략소동은 미제의 대조선정책의 산물이다. 미제는 어떻게나 《두개 조선》전략을 실현시켜 남조선을 핵군사기지로 더욱 강화하고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함께 나아가서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침략준비를 획책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침략정책에 따라 미제와 일본반동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괴뢰도당이 돌격대적출연을 한것이 비행기사건을 둘러싼 모략소동이다.

공화국의 북남련석회의제안에 대결정책으로 맞서고 평화협상제의에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으로 대응하는 무모한 행위를 미제와 괴뢰도당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부질없는 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15일,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가진 기자회견

내외반동들의 모략은 드러나기마련이다

각지 동포들의 담화

총련 도꾜도 붕찌지부 지요다분회 김용부분회장

남조선괴뢰들의 비렬한 모략책동은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완전히 박산나고말았다. 참 속이 시원하다.

이번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은 남조선괴뢰들과 미일반동들이 올림픽을 단독개최하여 조선을 영영 두개로 갈라보려고, 괴뢰정권을 유지하려고 조작한 세계력사에도 류례없는 파렴치한 국제모략책동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놈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이번 사건의 진상은 만천하에 밝혀지며 내외여론을 속이지는 못할것이다.

나는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남조선괴뢰들을 견결히 규탄한다.

당면하여 나는 분회일군으로서의 자각을 안고 관하동포들을 이번 사건을 폭로규탄하는 가두선전을 비롯한 정치선전사업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킬것이다.

조청 도꾜도 오따지부 정대성위원장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진실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것과 내외반동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러운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는것이 온 세상에 널리 폭로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1차남북적십자회담시 판문점에서의 사진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시의 사진등을 교묘하게 악용한 반동들의 책동이 낱낱이 밝혀졌다.

나는 승리의 신심을 확고히 가지고 투쟁해나가며 지부관하 전체 조청원들과 굳게 단결하여 놈들의 모략을 폭로하는 정치선전사업을 크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마유미》가 살았다고 한 집을 찾았다

《김현희》가 댄 주소에는 아파트가 일떠선 때부터 과학자가 거주

우리는 얼마전에 《김현희》란 녀자가 살았다고 한 《문수구역》 문수 1동 65반 7층 1호를 찾았다.

《문수구역》이란 표기는 남조선의 괴뢰국가안전기획부가 《수사결과》란데서 《김현희》의 《진술》이라고 하여 《발표》한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양시의 행정일군들과 만나 확인한데 의하면 평양시에는 《문수구역》이라는 지명은 없으며 문수1동은 오직 대동강구역이란곳에만 있었다.

《김현희》란 녀자가 《진술》한 주소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였지만 우리는 《대동강구역 문수 1동 65반 7층 1호》를 직접 찾아가보았다.

《김현희》란 녀자가 《살았다》고 한 그 주소에는 조충환씨(44살)가 거주하고있었다. 그는 사회과학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있는 학자이며 부인 림금복(41살)과 함께 두명의 어린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있었다.

조충환씨는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 《남조선괴뢰도당의 책동은 철두철미 날조와 모략으로 가득찬것입니다. 난 문수거리가 일떠선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살고있는 거주자입니다. 자,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주택사용허가증》(집들이를 할 때 받은 증명서)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1981년 11월 5일이라고 입사날자가 정확히 밝혀져있었다. 바로 1981년이라는것은 문수거리가 일떠선 해이다.

《우리는 이 아파트가 일떠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김현희〉란 녀자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수작입니까.》고 한 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곳에 그 어떤 사람도 입사하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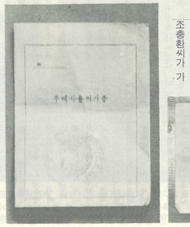
그의 말을 우리는 이곳 인민반의 차영숙반장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었다.

그는 《조충환동지일가는 이 아파트가 일떠선 그때인 1981년부터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놈들이 말하는 〈무역부아파트〉도 아닙니다.》고 하면서 아파트주민들의 직업구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이 아파트에는 36세대가 살고있는데 그들은 문화부문의 일군, 과학자, 로동자 등 각이하였다.

우리가 방문한 문수 1동 65반 7층 1호의 집 취재를 통해서도 남조선괴뢰들이 발표한 《수사결과》란것은 완전한 날조품이라는것이 낱낱이 폭로됐다.



대동강구역 문수 1동 65반 7층 1호에 거주하는 조충환씨일가





조충환씨가 가지고있는 주택사용허가증

《무역부아파트》란 존재하지 않다

백일하에 드러난 괴뢰도당의 자작자연극의 더러운 몰골

낱낱이 발가진 《안기부》발표의 거짓투성이

《〈마유미〉라는 녀자를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결판내고싶습니다》



《김현희》가 아니라 자신임을 확인하는 정희선녀성

본사기자는 최근에 일본공산당의 반월간잡지인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소녀인 정희선녀성과 평양에서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이 취재과정에서 정희선녀성은 우리들에게 1972년 11월에 열린 남북조절위원회때의 상황을 생동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속에서 정희선녀성은 11월 2일의 오전 학교에서 색동저고리로 갈아입고 비행장까지 승용차로 직행했다는것, 비행장에서는 곁에 있던 영접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두번째로 걸어내려오는 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는것,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주는 행사에는 평양시 중구역관내의 4 중학교들에서 25명의 녀학생들이 선발되였다는것, 자기가 장기영에게 평양에서 올 때나 갈 때나 꽃다발을 주었다는것을 말하면서 장기영과의 사이에서 오고간 말들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우리는 정희선녀성과의 인터뷰과정에서 몇가지 사실들을 명백히 할수 있었다.

그것은 ①남조선의 괴뢰안기부는 화살표소녀가 《김현희》라고 《확인》하고 《김현희》라는 녀자도 《인정》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녀자는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사진의 주위에 있는 소녀들이 동창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커녕 그 사실조차 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희선녀성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소녀에 대하여 《이건 나다.》고 단정하였을뿐아니라 그 사진에 나온 소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었으며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할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②《김현희》란 녀자는 《중신중학교》시기에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고 하지만 당시 공화국측의 영접관계자들과 정희선녀성의 말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남북조절위원회때에 꽃다발을 준 녀학생들은 평양시 중구역관내의 학교들에서 선발된 학생들이다.

③1972년 11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때에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들은 25명이였으며 그들은 남측대표들이 평양을 오고간 11월 2일과 4일의 두번에 걸쳐 동원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은 《김현희》라는 녀자가 《11월 2일에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고 하던 소리나 비행장에 나간 소녀들의 수가 《10여명》이라고 하던 소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발가놓고있다.

제반 사실은 1972년 11월에 열린 남북조절위원회때에 남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는 바로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소녀인 현재 평양에서 살고있는 정희선녀성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김현희》라는 녀자가 남조선괴뢰도당이 길들인 앞잡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아래에 본사기자가 정희선녀성과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본사특별취재반 리창구, 문광우, 김광석, 류도웅, 송정웅)

정희선녀성 분격에 찬 목소리로 규탄

남북조절위원회의 남조선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을 때 저는 금성중학교에서 배우고있었습니다.

꽃다발을 준 것은 중구역관내 녀학생들

그날은 11월 2일이였지요. 그날 아침 수업중에 우리 학교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이 부른다기에 소년단원실에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저는 이제 곧 비행장에 나가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주는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5명의 학생들이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학교에서 색동저고리로 갈아입고 승용차로 력포구역에 있는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비행장에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평양시 중구역관내의 학교들인 창전중학교, 련광중학교, 종로녀자중학교 등에서 선발된 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25명이였습니다.

비행장에서 우리는 행사를 지휘하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나란히 서게 되였는데 저는 두번째에 섰습니다.

영접선생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였다

우리가 대기하고있더니 긴 비행기가 아니라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쑥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헬리콥터에서 남측대표들이 내려서 걸어올 때 막 달려가서 자기가 주고싶은 사람에게 꽃다발을 준것은 아닙니다. 우리곁에 있던 영접행사를 직접 맡아하는 선생님이 한명씩 《동무는 저 대표에게 가라》, 이렇게 대주는데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두번째로 걸어내려오는 사람에게 가서 소년단경례를 하고 꽃다발을 주고 넥타이를 매여주었습니다. 제가 꽃다발을 준 두번째의 사람이 장기영이라는것을 신문과 텔레비죤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넥타이를 매여주었을 때 장기영은 《붉은 넥타이를 왜 목에 매여주는가?》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와있는 동안 우리들과 같이 지내달라는 그런 심정에서 매여줍니다.》고 했던것이 아직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그때 장기영은 나한테 꽃다발의 꽃이름같은것을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장기영이 평양을 떠날 때에도 꽃다발을 주었어요. 저는 11월 2일에 비행장에 나가고 남측대표들이 평양을 출발하는 11월 4일에도 다시 비행장에 나갔어요.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 그렇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을 때 그는 저에게 《공부 잘하라》라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통일을 위해 일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꽃다발만 주었지 넥타이는 매여주지 않았어요.

올 때나 갈 때나 꽃다발을 주었다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소녀는 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제 머리우에 화살표가 있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나인데 《마유미》라고 하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장기영에게 평양에서 올 때나 갈 때나 꽃다발을 준것은 저입니다.

보십시오. (《그라프 곤니찌와》의 사진을 보이면서) 이 동무는 같은 학급에서 배운 남금숙동무이고 그리고 이 동무들은 김성희동무, 김정애동무들이고 맨앞에 서있는 이 동무는 창전중학교의 박옥심동무이고 그 뒤에 서있는 이 화살표의 소녀가 바로 나입니다. 남금숙동무하고는 한학급에서 배웠고 소년궁전에서 무용도 함께 했어요. 그 뒤에 있는 김성희동무는 궁전의 기악소조에서 기악을 했어요.

사실이 이렇게도 명백한데 아니 제가 《마유미》랍니까. 지금 이렇게 평양에서 살고있는 제가 《마유미》랍니까. 아니 산 사람을 잡아도 분수가 있지 펀펀히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마유미》라고 몰리는것을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럴수 있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에 대한 글을 신문 등을 통하여 보면서 《남조선괴뢰들이 또 조작극을 만들어냈구만》 하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나한테 들씌워지니까 남조선괴뢰들이 하는짓이 《100% 다 거짓말이구나》, 《다 날조로구나》, 《다 조작이구나》 하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저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 《마유미》라는 녀자를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사진을 놓고 결판내고싶습니다.

저는 남조선괴뢰도당의 허황한 날조극의 진상을 온 세상에 발가놓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아까하다》에 게재된 사진

정희선녀성, 꽃다발소녀들의 이름을 똑똑히 밝혔다

정희선녀성은 화살표의 소녀에 대하여 《이건 나다.》고 하면서 둘레에 선 녀학생들의 이름을 밝혔다.

그는 자기의 바로 앞에 선 소녀는 《창전중학교의 박옥심동무》, 왼쪽줄에 선 소녀들은 《맨앞에 선 동무가 동창생인 남금숙동무이고 그 뒤로 김성희동무, 김정애동무들입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색동저고리로 갈아입고 비행장으로 갔다》

11월 2일 《왜 붉은 넥타이를 매여주는가》는 말에 《우리와 같이 지내달라는 심정에서 매여줍니다》고 대답

11월 4일 《공부 잘하라》는 말에 《통일 위해 일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대답



산산쪼각

박산가루난 모략

목소리

15일 총련중앙 리진규 제1부의장이 수많은 내외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다. 석상에서 리진규제1부의장은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의 남측대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는 괴뢰안기부의 꼭두각시 《마유미》가 아니라 현재 평양에서 살고있는 정희선이였다는것을 수다한 물적증거로 뚜렷이 밝혔다. 이로써 괴뢰도당이 미친듯이 벌려온 모략책동은 박산나고말았다. ▼모략의 능수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사실은 숨길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지휘밑에 일본반동들과 결탁하여 려객기폭파사건이란 모략사건을 날조하고 이를 공화국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온갖 비렬한 수작을 다하였다. 괴뢰들은 저들의 광대놀음을 하는 《마유미》를 한사코 《북의 공작원》으로 내세우려고 그를 꽃다발증정의 소녀로 둔갑시킨 엉터리사진까지 조작해내였다. ▼총련중앙은 2월 4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괴뢰안기부가 발표한 사진은 장기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북남적십자회담때의 사진이라는것을 물적증거를 받쳐 론증함으로써 괴뢰들의 허위선전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였다. ▼이에서 된서리를 맞은 괴뢰도당은 기가 죽어 찍소리도 못하였다. 그러던차에 일본공산당의 사진잡지 《그라프 곤니찌와》가 《북의 범행》을 방증하려는 의도에서인지 《마유미》같다고 하는 사진을 발표하자 괴뢰들은 마치도 천우신조나 받은듯 기뻐하며 이 사진을 《마유미》에게 확인하니 그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허위선전에 더욱 열을 올렸다. 망나니들이 개나발을 요란스럽게 불어대여도 사태는 달라질수 없다. ▼이번의 우리 기자회견으로써 모략사건이 괴뢰들이 조작한 자작자연극이였다는것이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꽃다발증정의 진짜 인물 정희선이 평양에서 당시의 정황을 자초지종 생생히 밝힘으로써 《마유미》는 완전히 가짜이며 《안기부》의 조작품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모략군은 제 피에 제가 넘어가는 법이다. 괴뢰들의 모략에 맞장구치는자들에게는 개코망신과 화박에 없다. 모략패거리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다》고.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요청서 채택

국제부녀절 효고집회

국제부녀절 효고집회에서 조선학생들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보장과 조치를 요구하는 요청서가 채택되였다.

국제부녀절 효고집회 실행위원회의 주최로 해마다 진행되는 집회에는 일본부인회의 효고현본부, 조선문제를 생각하는 효고현부인의 회 등 효고현하의 8개 부인단체들이 망라되고있다.

5일에 진행된 집회에는 300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는 먼저 주최자측을 대표하여 국제부녀절 효고집회 가지 도시꼬대표, 일본사회당 가와가미 다미오중의원의원, 녀성동맹 효고현본부 백순덕국제부장이 연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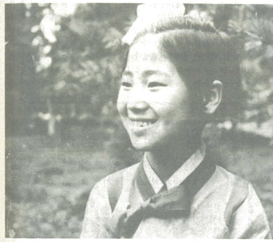
이어서 이전 도요나까시의회의원 이이다 시즈에씨가 《녀성해방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화살표의 소녀는 〈마유미〉가 아니라 공화국에 있는 정희선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당시의 영접관계자들의 증언



본사기자에게 증언하는 현재 정희선



대동문인민학교시절



김형직사범대학시절



1984년당시

본사기자는 얼마전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정재일부장과 정성철부장들을 만났다.

그들은 1972년에 있은 남북조절위원회(11월 2～4일)때에 남조선측대표들을 영접하는 행사를 현장에서 직접 맡아한 관계자들이다. 정재일부장은 남북조절위원회때 판문점과 평양사이를 오고간 직승비행기에 남조선측대표들과 함께 타고 영접한 일군이며 정성철부장은 평양과 판문점에서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주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준 현장의 일군이다.

꽃다발을 준 소녀들은 시사로청에서 선발했다

그들은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평양에는 외신기자들이 있었고 그속에는 《아까하다》특파기자도 있었기때문에 《〈그라프 곤니찌와〉의 사진은 당시의 사진이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단정하였다.

그들은 《문제는 화살표의 소녀가 〈마유미〉가 아니라 공화국에 있는 우리 학생이며 그 이름은 정희선이라고 합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들이 오고간 평양과 판문점에서는 그들을 환영, 환송하는 사업들이 조직되였다. 이 사업은 평양에서와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는바 여기에는 각각 25명의 학생들이 동원되였다. 평양의 비행장에 나간 학생들은 평양시사로청위원회가, 판문점에 동원된 학생들은 개성시사로청위원회가 책임지고 선발하였다.

그들은 선발된 학생들을 11월 2일과 4일의 량일간에 걸쳐 동원하였으며 따라서 그 학생들이 남측대표들에게 두번에 걸쳐 꽃다발을 주었다는 사실도 명백히 하였다. 이것은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는 그들이 오고갈 때마다 동일한 소녀가 맡아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측대표들이 평양에 도착할 때와 떠날 때에 꽃다발을 주는 학생을 동일한 소녀로 선발한데 대하여 정재일부장은 《당시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측대표들의 일정은 2박 3일이였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남측대표들이 올 때에 꽃다발을 주는 소녀와 갈 때 꽃다발을 주는 소녀를 따로 조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측대표들이 올 때 꽃다발을 주었던 학생들이 그대로 남측대표들이 돌아갈 때에도 나서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붐비던 그 복잡한 속에서도 행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습니다.》고 그 내막까지도 상세히 이야기하여주었다.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도록 정희선에게 지시했다

남조선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주는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지시를 주었던 정성철부장도 동일한 학생들을 꽃다발을 주는 행사에 참가케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11월 2일과 4일의 당일 관계자들은 평양시 중구역관내의 학교들에 나가 학교들에서 선발된 학생들, 색동저고리로 갈아입은 학생들을 승용차로 비행장에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한것은 다른 학교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내가 남측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나 판문점을 통과할 때나 학생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11월 2일과 4일의 량일간 학생들과 함께 지낸셈이지요. 아마 그때의 학생들도 나의 얼굴을 기억하고있을것입니다.

바로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그 소녀는 내가 두번째로 걸어내려오는 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도록 지시한 정희선이라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는 당시 만월중학교에 다니던 림윤복이라는 학생입니다.》라고 단정하면서 말하였다.

당시의 영접관계자들이 생생한 사실을 들면서 한 증언은 《그라프 곤니찌와》에 나온 화살표의 소녀는 의심할바없이 현재 평양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정희선녀성이며 이것은 곧 남조선의 괴뢰국가안전기획부가 날조해낸 《김현희》라는 녀자가 다름아닌 괴뢰들이 길들인 앞잡이이라는것을 낱낱이 까밝히고있다.



남북조절위원회당시 남측대표단을 판문점으로부터 평양에 안내한 영접책임자였던 정재일부장(사진 오른쪽)과 당시 평양과 판문점에서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들을 지도한 현장책임일군이였던 정성철부장(사진 왼쪽)

흉악한 날조모략군들의 추잡한 정체

거짓에다 거짓을 거듭하는 파렴치한

정희선이 평양에 현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이 괴뢰악당에 의하여 꾸며진 자작자연극이라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남조선괴뢰악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나 공화국과 련결시켜보려고 저들의 앞잡이인 《김현희》를 데려다놓고 《북의 공작원》이니 뭐니 하는 모략책동을 악랄하게 벌려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있어서 괴뢰들은 《김현희》가 1972년 11월 2일, 남북조절위원회때 평양에 온 남측대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는 사실을 날조해내였으며 몇장의 허위사진을 공개해놓았다.



1972년 11월의 조절위원회때 평양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정희선(가운데)과 개성에서 꽃다발을 준 림윤복(왼쪽), 오른쪽은 1972년 8월의 적십자회담때 남측대표단 단장에게 꽃다발을 준 왕영숙

그러나 이것이 교묘하게 조작된 엉터리사진이였다는것은 지난 2월 4일에 있은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낱낱이 폭로되였다.

원래 괴뢰안기부가 《수사보도자료》로 내놓은 사진은 얼굴이 옆에서 찍히고있을뿐아니라 희미하기 그지없어 아무런 근거로 될수 없는것이였다.

그러기에 《안기부》는 이를 보강해보려고 소년단경례를 하고있는 소녀의 사진을 들고나와 어용언론을 통하여 류포시켜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총련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1972년 11월의 조절위원회때가 아니라 1972년 8월의 적십자회담때의 사진으로서 《김현희》일수 없다는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번에 본사기자는 평양에서 이 소녀가 남측적십자대표단에게 꽃다발을 준 당시 만월중학교에 다니던 왕영숙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저들이 꾸민 조작극의 밑창이 드러나 당황한 괴뢰들은 이번에는 《그라프 곤니찌와》(3월 6일부)에 실린 소녀를 두고 그것이 《김현희가 틀림없다》느니, 《김현희자신이 인정》하였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또다시 꾸며내였다.

괴뢰들은 하나의 거짓말이 드러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날조해내는 파렴치한 조작으로 《김현희》를 어떻게나 《북의 공작원》으로 날조해보려고 혈안이 되였으나 그것은 부질없는 노릇이였다.

이번에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소녀가 《김현희》가 아니라 정희선이였다는 사실은 의심할바 없이 드러났던것이다.

거짓에다 거짓을 거듭하는 괴뢰악당이 감행하여온 소동은 그자들이야말로 류례를 볼수 없는 흉악한 날조모략군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할뿐이다.

지난 86년에 괴뢰들이 《공화국이상사태설》을 퍼뜨렸으나 그 허황성이 며칠없이 폭로된것처럼 괴뢰들은 래일이 되면 알수 있는 사실까지도 파렴치하게 날조해내는 미치광이이다.

이와 같은 작태는 괴뢰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의 산물이다.

저들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온통 거짓으로 된 반공화국모략을 꾸며 내외여론을 기만하는것은 남조선군사파쑈악당이 일관하게 쓰던 수법이다.

이번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온 세상에 낱낱이 폭로된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반공안보독재체제를 구원하며 올림픽의 단독개최 강행을 합리화해볼것을 노린 류례없는 반공화국모략이다.

이번 사건은 또한 미제의 《두개 조선》전략을 배경으로 일어난것으로서 미국의 막뒤조종과 일본반동들의 안받침 하에서 괴뢰들이 춤춘 국제적모략책동이다.

문화

수필

민족교육 지켜가리

허 옥 녀

《…3학년 전체 학생들이 출연한 가무극 〈민족교육 지켜가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줌으로써 일본에 있는 우리 조선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명백히 알려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조선학교에 아이를 보내고있는 우리 학부형들에게 자랑과 긍지를 안겨준 훌륭한 공연이였습니다.…》

3월 6일 저녁, 예술발표모임의 흥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 감상문을 손에 든 저는 저도 모르게 코허리가 찡해지고 무어라 말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가슴속깊이에서 솟구쳐오름을 누를길 없었다.

단 2주일이란 짧은 기간이였으나 가무극을 준비해온 나날은 《민족교육을 우리 힘으로 지켜내자》는 굳은 각오와 결의로 충만된 벅찬 투쟁의 나날이였다.

긴장된 정세속에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연목을 우리 힘으로 꼭 만들어내고 3학년 전체 학생들을 다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에게 떳떳한 조청원으로 나설 결의마당을 차려주자는것이 우리 교원들의 일치된 마음이였고 전체 학부형들의 절절한 소원이기도 하였다.

저고리를 입은 조선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을 계기로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 더욱 억세게 떨쳐나선 동포들과 학생들의 모습을 40년간의 투쟁력사와 결부시켜 형상한 가무극은 주제가 결정된지 1주일사이에 완강한 투지와 속도전으로 끝내 창작해낸 미숙하나마 불같은 마음이 담겨진 작품이였다.

무용이라곤 난생처음 해보는 일어, 사회, 수학, 국어 교원이 무용지도에 달라붙었다. 방창부문은 영어교원이 책임지고 미술교원이 총감독과 무용창작을 도와나섰다. 난생처음 춤을 추게 된 학생들이 대부분이였으니 첫시기 나약성도 없지 않았으나 가무극대본을 놓고 몇번이나 내용을 침투하며 토론을 거듭하는 속에서 학생들은 전체가 주인공된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련습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마음은 있어도 동작이 따라가지 않아 한 동작을 익히는데 15분이나 걸렸다. 교원도 학생도 필사적이였으나 련습시간이 결정적으로 부족했다. 정세와 관련하여 하교시간을 절대로 늦출수는 없어 교원들자신이 큰 벽에 부닥쳤다.

바로 이러한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가무극을 성공시키자는 불타는 마음으로 들끓던 학생들속에서 놀라운 의견이 나왔다.

《하교시간을 늦출수 없다면 아침련습을 조직합시다!》 이 말은 막혔던 강뚝이 한꺼번에 무너진듯 교원들과 학생들의 심장과 심장이 하나로 이어졌다.

1년중에서 가장 추운 2월달, 아침 7시부터 찬바람 부는 교사와 운동장 여기저기에서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교원들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벌리는 맹렬한 아침련습이 계속되였다.

난생처음 춤을 추는 교원의 동작이 우습다고 까불면서 웃던 학생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학생들은 목이 쉬도록 소리내며 진지하게 배워주는 교원들을 존경의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교원들은 교원들대로 학생들의 믿음직한 모습에서 새로운 감동과 힘을 얻었다.

《투쟁춤》, 《춘극부문》 학생들은 동작을 그저 익히는것만 해도 야단인데 생생한 투쟁장면을 진실하게 형상해내자니 고생이 보통이 아니였다.

《김태일소년》이 희생되는 장면에서 왜 통곡소리가 안나오고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오르지 않겠는가, 《할머니》가 왜 그렇게 고운 소리로 가볍게 말을 하는가, 치렬한 비판이 학생들사이에 오고가고 학생이 학생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도와나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보이였다. 뜻대로 형상못하는 자기자신이 답답하여 눈물을 흘린 학생이 어찌 한사람, 두사람뿐이랴.

《김태일소년》의 역을 맡은 학생은 총탄에 쓰러지는 장면을 잘 형상못한다고 무릎에 피멍이 들도록 100번이상이나 쓰러지는 훈련을 하여 끝내 형상해내였다.

교원들도 밤을 새우며 토론을 거듭하였다. 시간이 없었으니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어버이수령님 말씀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예비는 사상에서 찾자!

총련습후 일반적인 강조뿐이 아니라 기록영화보이기, 결의토론모임, 《4.24교육투쟁》 참가자의 체험담을 듣는 모임도 조직했다.

지금까지 무심히 지나던 통학길에 4.24때 희생된 김태일소년의 생가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 학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온몸을 귀로 하여 체험담을 들었다. 더우기 지금까지 자기들을 배워주신 선생님이 4.24때 직접 투쟁에 참가했다는 사실과 생동한 투쟁이야기는 학생들의 심장을 크게 흔들었고 《4.24교육투쟁》자체를 몸가까운 일로 느끼게 하였다.

학생들은 《민족교육을 지킬 한마음으로 가무극을 성공시키자!》는 구호를 소리높이 부르며 마지막련습에 떨쳐나섰다.

드디여 본무대!

두말할 필요가 있으랴.

가무극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여기저기에서 몇번 흐느낌소리가 울려나왔는지…

학생들의 호소에 호응하여 《옳소!》하는 소리가 객석에서 연거퍼 터져나왔고 가무극이 끝났어도 우렁찬 박수소리는 오래오래 그칠줄 몰랐다.

가무극—그것은 한갖 예술작품이 아니라 민족교육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 전체 교원들과 163명 전체 3학년생들이 불타는 한마음으로 창조해낸 심장의 웨침이였다.

…흐뭇한 감회에 휩싸일 틈도 없이 투쟁은 계속되여있으나 시대의 요구를 받아물고 끝내 하나의 일을 해내였다는 긍지로 우리들의 가슴은 마냥 부풀고있다.

예술발표모임준비과정에 한뜻으로 단결되고 믿음직하게 성장한 교원들과 학생들.

진정 3월 6일은 학생들, 동포학부형들, 교직원들 그리고 나의 가슴속에 투쟁의 날로 영원히 기억될것이다.

(히가시오사까조선중급학교 교원)



가무극《민족교육 지켜가리》는 민족교육의 중요성과 우월성을 관중들에게 감명깊이 보여주었다.

졸업식날에



헤여짐의 아픔과

파—란 새날의 꿈

가슴에는 봄바람

이슬 머금은 봄노래 달린다

(렬)

동포문화의 기수들 ⑰

새것을 적극 시도해나가는 들끓는 음악열정

음악연주가 로 유 희 씨



다섯살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로유희청년(27살)은 피아노연주가로 될 희망을 안고 도꾜중고를 졸업한후 구니다찌음악대학에 들었다. 전문교육을 받는 과정에 부딪치게 된것은 피아노와 자신과의 관계 즉 피아노를 통해 어떠한 자기를 표현하며 어떠한 음악세계를 만들어나갈것인가 하는것이였다.

《피아노는 아다싶이 서양악기이고 다루는 악곡들은 서양의것이지요. 음악은 세계공통이라 하지만 뽈스까의 민요에서 취재한 쇼판의 뽈로네즈처럼 서양악곡들에는 그곳 력사, 문화가 그 배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양인의 피아노연주가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넘어설수 있을가? 나의 존재가치는 뭔가? 이런 고민을 안게 된거죠.》

그리하여 그는 피아노와 함께 가야금, 장고도 배워나가게 되였다. 대학 2학년때 도꾜문예동이 주최하는 음악회에 출연하고 졸업후 85년에 조선레코드사가 주최하는 신인연주회에 출연하여 조선의 피아노곡을 연주한것은 그에게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체내에 흐르는 피가 맞는다고 할가 자연스럽게 그 음악세계에 몰두할수 있었습니다. 또 조선의 악곡들은 음악성이 풍부하고 선률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민족리듬, 장단은 세계에 자랑할만한것이라는 확신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86년과 87년에 도꾜와 오사까에서 각각 개인연주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여러 연주마당에서 그는 정력적으로 조선의 피아노곡을 소개해왔다. 거기에는 또한 이런 생각이 깃들어있었다.

《고전이란 특별히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음악성이 뛰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동안 사랑을 받아오면 고전이 되여나가는것이 아닙니까? 〈남산의 푸른 소나무〉, 〈눈이 내린다〉 등 조선의 피아노곡을 들은 일본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해줍니다. 깊은 인간성에 토대한 훌륭한 음악세계라고요.》

그러니 조선의 피아노곡을 더 널리 소개보급해나가야 된다는것이다.

그는 이런 연주활동의 한편에서 문예동 음악부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며 조대 사범교육학부 음악과 강사사업도 맡고있다.

자기가 어떤 인간으로 자라나고 살며 그것이 자기의 음악에 어떻게 표현되는가—이것이 음악의 길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의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또 재일동포들속에서 세계에 통용하는 연주가가 많이 배출되는것이 조국과 민족에 기여하는것으로 된다고 력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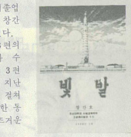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곡을 다루어도 자기의 감각으로 연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으니 피아노와 서양악곡에 대한 《모대김》도 해소되였다고 말한다.

하나의 성장을 보여주는 말이다.

얼마전에 그는 도꾜 구니다찌시의 부인단체가 주최한 챠리티콘사트 《흑인령가와 조선피아노곡의 밤》에 출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조용하게 보이지만 언제나 새로운것을 적극 시도해나가는 들끓는 열정을 안은 그. 올해도 활발한 활동과 새로운 비약이 기대된다.

문집《빛발》창간호

조선대학교 사범교육학부 3년제사범과 1기졸업생들



조선대학교 사범교육학부 3년제사범과 1기졸업생들의 문집 《빛발》 창간호가 얼마전 발간되였다.

문집에 실린 18편의 시, 17편의 수기와 수필, 2편의 벽소설, 3편의 편지글 등은 모두 지난해말부터 올해초에 걸쳐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동학부 졸업생들의 뜨거운 심정을 담은것이다.

문집 권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졸업생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하여 모든 글들에는 최상의 영광을 지닌 학생들의 뜨거워오르는 격정이 생동하게 담겨져있으며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갈 굳은 결의가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3월 18일 금요일 [주체 제10161호]

발행소 朝鮮新報社 (日刊)

주체형의 민족간부로 준비된 긍지 드높이 충성의 한길에서 애국의 꽃을 피워나가자

조선대학교 제30회졸업식이 있었다

3명의 졸업생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

조선대학교 제30회졸업식이 16일, 조대강당에서 있었다.

졸업생들의 희망찬 앞길을 축복하듯 교정에는 만발한 흰 목련꽃의 향기가 그윽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최고학당인 조선대학교에서 마음껏 배워 애국애족의 한길, 성스러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초소에 나서게 되는 기쁨과 포부로 가슴부풀어오름을 금할수 없는 졸업생들, 아들딸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애국애족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은 교원들과 학부형들, 그들의 마음은 한곬으로만 흐르는듯 졸업식을 앞두고 아침 일찍부터 대학구내는 뜨거운 열기로 차넘쳤다.

졸업식에는 조선대학교 명예학장인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서만술, 배병두, 전연식부의장들과 김수진교육국장, 남시우학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과 총련일군들 그리고 일본 각지에서 온 학부형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맞는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인 사범교육학부 3년제 첫 졸업생들을 접견하여주시는것을 비롯하여 그들에게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졸업식에 즈음하여 대학생활에서 모범이 된 3명의 졸업생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하여주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졸업식에서는 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랑독된후 영광의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하영진, 임경하, 서석일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졸업식을 축하하여 공화국교육위원회와 조국의 각 대학들에서 보내여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 전문은 2면)

졸업식에서는 조선대학교 남시우학장이 학사보고를 하였다.

학사보고에서는 공화국의 해외대학으로서 빛나는 발전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대학교가 30번째 졸업생들을 내보내는 올해 졸업식은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의 영예를 지닌 사범교육학부 3년제사범과 제1기생을 내보내게 된 뜻깊은 졸업식이라는것이 강조되였다.

또한 학사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교육방침에 따라 졸업생들이 주체의 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우며 주체형의 민족간부가 지녀야 할 건전한 사상과 풍모, 전공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주체의 세계관이 선 유능한 일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왔다고 보고되였다.

이어 각 학부 학부장들이 졸업생들의 이름을 불러 학부별 졸업생대표들에게 졸업증이 전달되였다.

졸업식에서는 과학연구와 조청생활에서 모범이 된 12명의 졸업생들에게 공화국교육위원회의 표창장이 전달되였으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표창장(16명), 16년간최우등상(5명), 조선대학교 4년(2년)최우등상(8명), 졸업론문상(15명), 조선대학교 표창장(16명)이 각각 졸업생들에게 전달되였다.

새 민족간부로 준비한 자랑과 긍지도 드높이 전체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서석일학생이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애국초소에서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를 지키며 애국사업에서 청춘정열을 다함으로써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결의를 다졌다.

졸업식에 이어 졸업생들의 예술공연이 있었다.



조선대학교 제30회졸업식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받은 졸업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 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폭넓게 벌리자

[illegible]

…포가 줄어드는것과 반비례하여 일본반동들의 교묘한 동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귀화》하는 동포들, 국제결혼하는 청년들이 불어나고있다. 이것은 우리 말 문제가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문제로 제기되고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운동은 우리 말과 글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조선말을 모르면 조선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일본사람이 되여버릴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이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떳떳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말과 글을 알아야 한다.

재일동포사회에서 제기되고있는 현실적요구로부터 총련은 시종일관 벌려온 성인교육사업의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 공화국창건 40돐을 지향하여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폭넓은 사회적운동으로 강력히 벌려나가게 된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이 운동은 전조직이 달라붙어 광범한 동포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

…이 8개월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는 이국땅에서 민족의 넋을 지키며 꽃피우기 위한 애국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로 애국대오의 전초선에 나선 우리 전임일군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우리 일군들은 우리 말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기수들이다.

전체 전임일군은 우리 말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우고 자신이 먼저 사무소와 가정에서 우리 말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전임일군들은 《우리 말 선생》이 …들에서도 소조활동시간에 《15분간 우리 말 공부》 등을 도입하여 2만명의 소조원들이 우리 말을 잘 배울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듯이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3월내에 모든 본부들에서 궐기모임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신용조합, 교직동, 류학동 등을 망라하여 각지에서 가지는 궐기모임을 계기로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 우리 말을 배우는 기풍을 세우고 일군들이 《호조반》을 맡지 않으면 부끄럽다는 사회적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 일군들앞에 제기된 과업은 태산과 같이 많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내외반동들이 재일동포들을 동화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으며 괴뢰도당들이 민족분렬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는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이 바로 반동들의 민족 말살기도와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성을 고수하며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크게 확대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운동에 헌신분투할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대결을 격화시키는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

각지 동포들의 담화

모략은 파산되였다

총련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지부 김태립부위원장

마음에 걸렸던 답답한 심정이 상쾌해졌다. 참 잘됐다.

총련중앙에서의 기자회견 그리고 《조선신보》지면과 일본텔레비존방송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니 신심을 얻게 된것은 결코 나뿐이 아닐것이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움직일수 없는 확고한 물증들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 내외반동들이 꾸며낸 비행기실종사건의 모략은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들어졌다.

허위와 날조로 가득찬 모략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텔레비존, 신문을 본 이웃에 사는 일본사람들도 《이 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있다.

내외반동들이 조작한 이 사건의 진상이 날날이 밝혀진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관하 동포들은 물론 일본사람들 속에 들어가 정치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대내외에철저히 폭로해나가리

총련 군마현 세이모지부관하 조 길 수 동 포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은 이번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남조선괴뢰들과 미일반동들이 조작한 파렴치한 국제모략극이였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남조선괴뢰들이 제24차올림픽을 리용하여 파쑈《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일으킨 류례없는 국제모략책동이 완전히 박산났으니 지금 참 속이 시원하다.

나는 놈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모략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며 관하 젊은 동포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계속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벌려나갈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내외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인민들과 세계여론의 눈은 절대로 속이지 못하며 놈들의 본성은 꼭 드러날것이다.



총련중앙의 기자회견내용에 접한 동포들은 모략의 진상을 계속 철저히 폭로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사회문화법률쎈타 정기총회 진행

총련중앙부의장이 련대연설

사회문화법률쎈타 제13차정기총회가 12일 진행되였는바 총련중앙 신상대부의장이 래빈으로 초대되여 련대연설을 하였다.

일본 각지 변호사들과 국회의원들 50여명이 참가한 총회에서 그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에 언급하면서 사회문화법률쎈타 성원들이 내외반동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에 대처하여 진상규명, 일본당국에 대한 항의요청행동 등을 적극 벌려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선의 통일과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투쟁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줄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적시정을 요구하며 총련의 활동과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 생활권을 옹호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또한 오는 10월말에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3차전국교류집회를 후꾸오까에서 가질것이 결정되였다.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가 공보를 발표

【평양 3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가 2월 25일 남조선에서의 인권탄압에 관한 공보를 발표하였다.

공보는 지난해 12월에 있은 남조선에서의 《대통령선거》는 국제여론으로 하여금 남조선의 폭력, 탄압, 고문, 부패, 인권유린의 진면모를 다시한번 목격하는 기회로 되게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공보는 로태우도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온갖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당선》된후 미국과 일본의 부추김밑에 민주화운동 특히 학생 및 로동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려 국제여론을 오도하고있는데 대하여 까밝혔다.

공보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올림픽경기의 《안전보장》의 구실밑에 인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조선대학교 제30회졸업식에서 한

총련중앙 한 덕 수 의 장 의 연 설

사랑하는 졸업생들!

교직원학생들과 학부형 및 리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하여 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조선대학교 제30회졸업식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조선대학교사업을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의 뜻깊은 졸업식에 즈음하여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이 된 3명의 졸업생들에게 조선청년으로서 최고의 영예로 되는 《김일성청년영예상》과 12명의 졸업생에게 공화국교육위원회의 표창장을 수여하여주시고 조국의 교육위원회와 각 대학들에서 축전을 보내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국에서 나서자란 새세대들에게 대학졸업의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나는 대학 4년제와 3년제 및 2년제 그리고 연구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어엿한 민족간부로 자라난 전체 졸업생들 그리고 교직원들과 학

수많은 졸업생들속에는 부모와 아들딸이 2대에 걸쳐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애국의 대를 이어 나가고있는 실례도 많아졌습니다.

대학졸업생들은 중앙을 비롯한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교육문화기관, 경제사업, 언론출판사업 등 총련의 여러 사업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애국사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속에는 공화국박사, 공훈교원, 공훈기술자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 사회주의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애국적상공인들도 수많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조국에 귀국한 졸업생들은 사회주의조국건설에서 계속 위훈을 떨치고있습니다.

오늘 재일동포들속에서 세대교체가 크게 이루어졌으나 조선대학교 교육을 거쳐 민족간부가 체계적으로 양성되기때문에 재일조선인운동의 대는 꿋꿋이 이어져 나가고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민족교육을 하지 않고 조선대학교와 같은 민족간부양성기관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애국의 대는 벌써 끊어졌을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선대학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졸업생들

기한 총련 제14차전체대회를 성과적으로 가지였습니다.

특히 이번 졸업생들은 조선대학교 창립 3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축하문교시를 받아안은 영예를 지니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까지 충성다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학창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 기간 졸업생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작과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함으로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애국의 한길에서 충성다할 결의를 굳건히 다지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졸업생들이 재학기간에 거둔 가장 귀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졸업생들은 《학습제1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학과학습과 조청조직생활을 강화하였으며 기숙사에서 학우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우정도 깊여왔습니다.

졸업생들이 누려온 이와 같은 대학생활과정은 주체의 세계관과 전공자질을 갖춘 유능한 민족간부로 준비해온 보람찬 배움의 나날이였습니다.

오늘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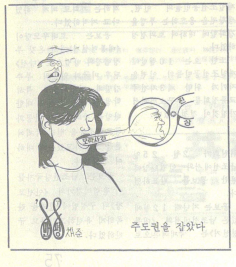
[illegible]



졸업생들이 받아안은 영광, 그것은 곧 학부형들의 기쁨이기도 하다.



애국의 한길에서 충성의 꽃을 피워나갈 결의를 가다듬는 졸업생들



주도권을 잡았다

목소리

《죽여버리겠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0일 아침에 서울 구로구의 대원전기공장에서 한 경비로동자가 원한을 품고 음독자살하였다.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밤새 회사폭력배들이 로동자들에게 가한 집단구타만행에 항의하다 못해 집에 있는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 먼저 가겠다》고 작별사연을 말한후 극약을 먹었다는것이다. ▼남조선신문들에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치가 떨린다. 이 공장 로동자들 300여명은 지난 7일부터 회사측과 결탁한 어용로조의 퇴진과 임금 25%인상 등을 요구하여 파업에 들어가 롱성을 벌려 밤에는 20여명씩으로 철야롱성을 해왔는데 9일밤 회사간부들과 어용로조지부장이란놈 등 40여명이 롱성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그들을 습격,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롱성로동자들을 30여분간 무차별구타하였다. ▼폭력무리들은 로동자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실신자까지 내는 등 피투성이 수라장을 빚어내고도 계속하여 로동자들의 바지를 벗기고 전기줄로 손발을 묶어 무릎을 꿇게 하고는 아침 7시까지 강박, 제놈들에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지어 롱성을 주도한 로동자 6명을 화물차에 실어 구로경찰서로 데려가 괴뢰경찰에 넘겼다 하니 참으로 짐승도 낯을 붉힐 귀축같은 만행이 아닌가. ▼이 회사 폭력배들은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도 같은 날 밤에 롱성로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했는데 이것은 이 회사에 한한것이 아니다. 로태우의 《대통령취임》을 전후하여 남조선의 여러 기업들에서 로동자들에 대한 폭력사태가 빈발하고있는게 실정. 군사파쑈독재의 연장에 힘을 얻은 특권기업주놈들이 어용로조와 폭력배들을 내몰아 로동자들의 로조민주화요구, 임금대폭인상요구를 힘으로 짓밟아보자는것이다. ▼로태우일당은 《근로자의 권익》이니 《로사공존공영》이니 떠들지만 실제는 폭력배와 마찬가지로 제놈들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하는게 본심이다. 폭력만능, 총칼만능이 언제까지 계속되여야 하는가.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네팔에서 진행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2월 29일 네팔의 까트만두시회관에서 개막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네팔공급상은 연설에서 네팔인민과 조선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좋게 발전하고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네팔에서 진행되는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 전람회를 통하여 네팔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잘 알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반공화국모략선전에 미쳐날뛰는 미제

허위모략정보를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 저들의 침략본성을 가리우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그 대표적실례가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한 갖가지 모략정보와 주남조선미군사령관이 소위 《확인》했다는 황당무계한 《북에서의 렬차폭파설》이다. 그런데 이런 모략정보는 발표당시에 어마어마한 《정치효과》를 노린후에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미국스스로에 의해 은밀히 취소되고있다. 아래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나 《진실》인것처럼 정보조작한 몇가지 실례를 들어본다.

이것이 정보조작의 간교한 실상

비공식허위 정보 류포 → 《확인》이요 뭐요 하면서 언론에 보도케 → 날조사실을 기성사실화

모략정보 그① 《렬차폭파설》은 새빨간 거짓말

주남조선미군사령관 《사실확인》의 내막

소위 주남조선미군사령관이 《확인》했다고 하여 요란하게 떠들었던 《렬차폭파설》은 그 《확인》이란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소위 이 허위모략정보는 처음 홍콩의 우파계신문 《성도일보》(2월 2일부)가 작년 12월 조중국경연선인 함경북도 화순과 영반사이에서 무기를 수송중인 렬차가 폭파당하여 120명이 죽고 5천여명이 부상당했다는 날조선전을 한데로부터 시작되였다.

이 모략정보가 전해지자 조선중앙통신은 《식민지괴뢰의 비렬한 모략소동》(2월 4일)이라고 그 허위성을 폭로하였고 중국철도성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있다》(2월 3일)고 부인하였다.

이 신문은 이제까지도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첩보모략기관의 허위정보를 망탕 류포시키는것으로 알려져왔고 모략정보를 게재한 당시 일본신문사에서도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되고있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2월 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한 주남조선미군사령관 메네트리가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날조소동을 벌린것이다.

그러나 메네트리의 이 《확인》망발이 그 기자회견 직후에 주남조선미군대변인에 의하여 부정되고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주간지 《파 이스턴 에코노믹 레뷰》(2월 18일호)가 서울특파원발로 보도하여 판명된것이다.

이 신문은 메네트리가 《사건을 확인》했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밝히는것을 거부한 사실을 전하면서 기자회견후 미군대변인(복수)이 그의 발언을 일보후퇴시켜 《(메네트리는) 그와 같은 보도가 있었다는것을 알고있다는것을 말하고싶었다》고 변명한 사실을 밝혔다. 이는 《확인》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남조선이나 일본에서는 《렬차폭파를 확인》했다는 메네트리발언만이 보도되였으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정한 《미군대변인》의 발언은 거의 소개안되고있다.

상기 신문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것을 거부할뿐만아니라 메네트리의 발언을 철회하려고도 안하는 미국의 태도는 사건에 대해 의문을 남기는 결과로 되였다.》고 지적하여 간접적으로 《사건》자체의 허위성을 부각시켰다.

이 허위정보가 나온 시기는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날조하기 위해 요란하게 떠든 《김현희기자회견》의 허위모략성이 더더욱 드러나고있었던 때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모략사건의 《기성사실화》를 노려 하나의 《배경설명》으로서 또하나의 모략정보를 날조해낸것이다.



미국은 《규모축소》니 뭐니 하는 허위정보를 류포시키고 그 막뒤에서 사상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다.

모략정보 그② 여론오도를 위한 《중지설》, 《규모축감설》

실상은 최대규모인 《팀 스피리트 88》

저들의 침략적본성을 가리우기 위해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해서 내놓은 갖가지 모략정보도 여론오도를 위한 기만이란것이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미국은 작년 가을이후 올해 《팀 스피리트 88》연습과 관련하여 《중지설》, 《동원병력축감설》 등을 류포시켜놓았다.

일본의 소위 《조선문제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인사들속에서는 미군의 정보에 기초하여 《연습중지》를 《단정》하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거짓말이였음은 미군당국자들의 연습발표보도(1월 28일)로 드러났다.

이날 미군은 20만명의 규모로 2월부터 5월까지 연습을 벌릴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괘씸하게도 미군당국자는 연습을 실동훈련단계인 3월말부터 2주일간만 하는듯이 여론을 오도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3단계 즉 ①제1단계—작전전개(해외로부터 투입되는 미군이 남조선에 전개되는 단계) ②제2단계—실동훈련(포항앞바다에서의 상륙작전, 《반격》의 구실밑에 군사분계선가까운 지역에서 벌어지는 《총공격훈련》 등등) ③제3단계—원대복귀(해외로부터 투입되는 미군이 원부대로 복귀)로 구성되고있다. 각종 실동훈련과 함께 연습의 주된 목적의 하나가 해외로부터의 침략무력을 신속히 투입할수 있는가 어떤가를 거듭 반복, 점검하는것이다.

3단계연습내용중 2단계연습기간만 공표했다고 해서 기간이 《단축》된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유치한 발표로 여론을 오도하려고 하고있는것이다. 더군다나 《연습중지》란것은 처음부터 있을수 없었던것이다. 《팀 스피리트 88》연습을 벌리기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는바 그 예산안은 86년말에 책정되여 87년에는 미의회승인까지 받고있었다. 예산이 성립된후에 취소하면 다음해부터는 예산자체가 제외되여 연습을 벌리지 못하게 된다.

더군다나 올해 예정되고있는 대통령선거와도 관련하여 일관하게 《강한 미국의 재생》, 《힘의 우위론》을 내세운 레간정권이 공화당정권지속을 위해서도 《강경자세》를 《과시》하는 연습을 《중지》할것이란 처음부터 생각할수 없었다고 수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고있다.

미국의 일련의 기만선전은 작년말에 조선인민군 병력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있는 공화국의 평화자세앞에 날로 수세에 빠지고있는 저들의 처지를 《역전》시켜 《합리화》해보자는데서 나온것이다.

미국은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날조하려는데 괴뢰들이상으로 열을 올리고있으며 이를 구실삼아 《팀 스피리트 88》연습을 《합리화》해보자고 기도하고있는것도 바로 그 표현이다.

모략정보 그③ 미군정찰기에 의한 비행기 잔해 《발견》의 허위

《마유미》의 서울이송 노려 류포시킨후 슬그머니 취소해

미국이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날조하기 위해 중요한 고비고비에 허위모략정보를 흘려 괴뢰들을 적극 두둔해나선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는 두가지 대표적 모략실례를 들어본다.

그 ①은 소위 《마유미》의 남조선이송이 암초에 부닥쳤을 때 미군용비행기가 실종한 남조선비행기의 잔해로 보여지는 부유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짓정보를 류포시킨것이다.

미국은 《마유미》의 서울강제이송이 암초에 부닥치던 87년 12월 10일에 미군정찰기 《피3씨》가 안다만해역에서 실종비행기의 잔해로 보여지는 부유물 8개를 《발견》했다고 남조선련합통신(12월 11일발)을 통해 발표케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 발표를 87년 12월 14일에 공식으로 부정했다. 이때는 이미 《마유미》의 서울행이 확정된 시점이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괴뢰들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기체도 행방불명 원인도 해명안되는 시점부터 《북에 의한 폭파테로》라고 모략을 날조하였다. 그리하여 저들의 앞잡이인 《마유미》를 서울에 이송하여 모략사건의 완성을 노렸다. 이는 12월 7일 일본정부가 공식으로 《마유미》의 일본에로의 인도를 포기하여 《정치결착》으로 괴뢰들을 두둔해나서 더욱 가능케 되였다.

그러나 12월 9일에 뜻하지 않은 바레인당국의 요구조건제시로 일시 암초에 부닥치게 되였다.

바레인당국은 이날 문서로 정식으로 《마유미》의 서울이송을 제의한 남조선괴뢰들에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때 바레인당국은 ①남조선비행기가 《테로》에 의해 추락되였다 ②《마유미》가 《테로》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몬트리올조약》은 적용할수 없다고 거부리유를 명기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이번 사건에 《북이 관련했다는 상황증거를 갖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엉터리정보를 12월 11일에 류포시키는가 하면 《잔해발견》이란 또 하나의 허위정보를 날조하여 친미국가인 바레인에 압력을 가한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괴뢰들도 후에 《텔레비아사히》의 《뉴스스테숀》 보도 등에 의해 날조품이란것이 여실히 드러난 실종비행기의 《고무뽀트》를 《발견》(소위 12월 13일에 버마화물선에 의해 발견되였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공표된것은 《마유미》의 서울이송후인 12월 17일이였다)했다는 거짓《물증》제시를 바레인당국에 하였다.

미국의 거짓정보날조와 남조선괴뢰들의 거짓《물증》조작으로 바레인당국에 압력을 가해 《마유미》의 서울이송을 끝내 실현시킨것이다.

그 ②는 소위 미국수사관이 서울에서 《김현희》와 면담했을 때 수십장의 《공화국공작원》사진을 제시하자 미국이 그전부터 지목하고있었던 《북의 공작원》 2명에 대해 《김현희》가 특정하여 《북소행》을 《확인》했다고 하는 허위조작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중앙정보국은 세계 각국에 있는 공화국의 공관원에 대해 시종일관 감시활동을 벌리고있으며 체계적으로 사진을 찍는 등 첩보모략활동을 벌리고있다.

그 사진자료들은 미중앙정보국을 통해 정기적으로 남조선첩보모략기관인 괴뢰국가안전기획부에 제공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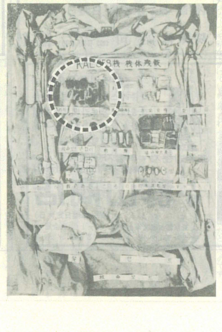
따라서 미수사관원이 《김현희》에게 사진을 제시하기전에 이미 《안기부》가 갖고있는 똑같은 사진을 《김현희》에게 보이고 《특정》하라고 얼마든지 지시할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한 국제모략사건을 막뒤에서 배후조종하고있는 장본인인것이다.

발견안되는 비행기잔해만 보더라도 미국은 스파이위성 등을 쓰고 그 지점을 충분히 특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있다.

미국은 교활하고 간악한 허위모략으로 여론을 언제까지나 오도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괴뢰들이 들고나온 《고무뽀트》는 나중에 뿌려진것임이 확실하다. 회수되였다고 하는 《고무뽀트》는 사진우(일본텔레비죤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였다고 하는데 웬 일인지 손상을 입은것은 그 안에 싸여있는 수동뽐프(사진 오른쪽)뿐, 다른 비품들과 외곽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

전라남도 라주의 농민들이 수탈을 반대하여 가두시위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전라남도 라주지방의 농민 700여명이 14일 괴뢰도당의 수탈책동에 항거하여 견결한 시위투쟁을 벌렸다.

시위투쟁은 농민들이 망라된 라주물세거부대책위원회가 라주천주교회에서 열려던 결의대회를 파쑈경찰이 폭압으로 저지하고 집회장을 봉쇄한데 격분한 농민들에 의해 전개되였다.

괴뢰도당의 수탈행위와 탄압에 격노한 농민들은 집회장앞 광주—목포사이 도로를 점거하고 물세독촉장을 불태우면서 놈들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시위자들은 부당하게 들씌운 1987년분 물세를 페지할것과 농촌수탈기구인 괴뢰농지조합을 해산시킬것을 주장하면서 완강한 기세로 투쟁하였다.

농민들과 대학생들이 미국농축산물수입을 반대하여 시위

충청남도 온양에서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카톨릭농민회충청남도련합회에 망라된 농민들과 대학생 200여명이 14일 미국의 농축산물수입을 저지시키기 위한 련합시위투쟁을 벌렸다.

농민들과 대학생들은 온양역에서 농축산물수입저지 충남농민대회와 미국의 소수입으로 파산몰락되여 2년전에 미제와 괴뢰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자살한 오환섭농민에 대한 2주기추모식을 가질 예정이였으나 파쑈경찰의 폭압으로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시위투쟁에로 넘어갔다.

시위자들은 오후 5시현재 미제의 농축산물시장개방압력과 그에 굴종하는 로태우괴뢰도당의 반민족적범죄행위를 견결히 규탄하면서 폭압에 광분하는 경찰과 대치하여 롱성투쟁을 계속하고있다 한다.

시위자들은 이날의 집회에 참가하려다가 경찰에 련행된 단국대학교 학생 2명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문화

대중가요 민족의 력사와 ①

얼마전에 우리 나라의 무소속대변지인 《통일신보》는 시인 조령출이 쓴 《잊을수 없는 가요들에 대한 범죄적위조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1945년 우리 나라가 일제의 통치에서 해방된 후 미제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험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해나가자 그곳의 많은 문화인들이 광명한 세상을 우러러 공화국에 들어왔다.

1930년대초부터 시창작을 진행해온 조령출씨도 바로 그러한 《월북문화인》의 한사람. 본명과 더불어 조명암, 리가실의 필명으로 지난날 《인도의 달밤》(《신라의 달밤》으로 외곡됨), 《서귀포 칠십리》, 《락화삼천》 등 수많은 대중가요를 작사한것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이러한 경력으로 당시의 가요사정에 밝은 그는 이 글에서 자신과 《월북시인》들의 가사를 외곡하며 작품을 탄압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준렬히 고발하고있다.

오늘부터 6번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잊을수 없는 가요들에 대한 범죄적위조행위

조령출

가요는 시정신(詩精神)의 산물이다.

참다운 시정신, 참다운 시의 넋을 체현한 진보적 가요들이 력사를 전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

정지용과 가요 《그리워》

정지용(鄭芝溶)은 … 식민지통치 … 30년대부 … 을 가지고 … 인이다. …

우리 나라 문예소식

기록영화 《국토건설의 새 력사》가 나왔다

동포문화의 기수들

문화사업의 《새 문》을 열어

나라조선초중급학교 리천학교원



… 초중의 리천학교원도 22살의 젊은 나이로 오사까민족악단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고있는 미더운 청년이다. 현재 일본 각지에서 민족악기를 …

그 첫 싹은 오사까조고 민족악기부를 졸업한 그들의 동창생들로부터 움터났다. 도꾜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민족악기분야를 어떻 …

… 민족악기부 지도원인 고원식교원의 방조를 받으면서 뿔뿔이 흩어진 소조졸업생들을 한사람한사람씩 찾는데로부터 동 …

… 는 방향에서 사업을 밀어왔지요.》

그런 일치한 심정밑에 1년동안 달에 1번 오사까조고에 모여 련습을 …

다. 그런 바쁜 속에서 나라초중의 민족악기부를 정열적으로 지도하기 …

… 과 동포들을 위한 민족악기연주회를 정착케 하는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은 확신에 넘쳐있었다. (지)

알림

제11회 교또학생 (모두를 위한 콘사트)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花束を渡したのは私」

鄭姫善さんが平壌で証言

総聯中央が記者会見

南の謀略、根底から崩れる

総聯中央の李珍珪第一副議長は十五日午後記者会見を行い、KAL機事件と関連して日本共産党発行の写真雑誌『グラフこんにちは』(三月六日号)に掲載された「真由美(金賢姫)」の「少女時代らしい花束の少女」の写真について南朝鮮安全企画部が『金賢姫が『自分に間違いない』と証言した」と発表したことに対し、写真の少女は平壌に現在も住む鄭姫善(二一八)という女性であり、安企部の発表は全くのでたらめであると暴露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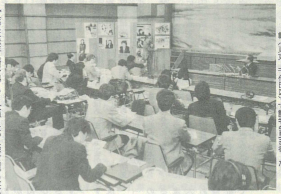

写真1


写真2

▲(写真1) 1972年11月2日、南北調節委員会南側代表らに花束を渡すため、ヘリポートに整列している女学生たち。丸印が鄭姫善さん

◀(写真2) 「赤旗」の元平壌特派員が公表した写真。「金賢姫」は矢印の少女を自分だと言ったが、今回の取材で鄭さん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

解説　ふっ飛んだ唯一の「物証」



「私が『真由美』だとでもいうのですか」

＝鄭さんの証言＝


「これは私です」—「赤旗」の写真の矢印の少女を指さして、自分であることを証言する鄭姫善さん


写真3
花束贈呈を終え、南側代表らにスカーフを結んであげている学生たち。中央の張基栄に結んであげているのが鄭姫善さん

そのとき、ヘリポートで花束贈呈にあたった学生は、クムソン(金星)高等中学校、チャンジョン(倉田)高等中学校、ジョンロ女子中学校などから選ばれたのです。

当時、私はクムソン中学校の学生でした。

ここに私のクラスの子がいます。ナム・クムスク、それに後の子がキム・ソンヒ、キム・ジョンエ、それからジョンロ中学校の子ら、そしてチャンジョン中学校のパク・オクシムです。

ナム・クムスクと私は少年 …

後の子たちは器楽サークルにいました。

これはそのときそこで待っている場面です。

今でもはっきり覚えていますが、普通の飛行機ではなく、ヘリコプターが到着しました。

そのとき私達は二列に並んでいたのですが、代表たちが降りて来るとき、勝手にかけて行って花束を渡すのではないのです。

…先生が一人ずつ、君はあの代表にあげなさい、という具合に指示をしてくれました。私は言われたとおり二番目に降りてきた人(張基栄)のところに行き、少年団のあいさつをして花束を渡し、スカーフを首に結んであげまし …

「金賢姫の家」の住人は私

関係者の証言

チャ・ヨンスク班長

チョウさん一家はこのアパートが出来た一九八一年からこの家に住んでいますよ。それにこのアパートは彼ら(南側)が言う「貿易部アパート」ではありません。


写真5
金亨稷師範大学予科にいたころの鄭さん


写真4
大同門人民学校2年生のときの写真


写真6
外国語学院の教員になり、まだ独身だったころ。学校の録音室で撮ったもの

私と顔形がどこが違いますか。これはみな私です。

私はこの写真(＝写真2)を最初に見たとき、この黒い矢印が頭のところにありますが、これを見て本当に驚きます。

いま直ちに、その「真由美」という女性をここに連れてきて写真と照らしてはっきりと決着をつけたいと思います。



耳の形から「金賢姫」は別人

浅野八郎氏(評論家)は語る

物語 朝鮮の歴史と文化 ⑨

広開土王陵碑

高句麗は十九代の王である広開土王（三七四—四一二、在位三九一—四一二）の時代にアジアでも北魏や南斉と並ぶ一大強国となりました。

その功績を記したのが、有名な広開土王陵碑（四一四年建立）です。この碑は千数百年もの間、人に顧みられることもなく鴨緑江の中流北岸の集安（当時の高句麗の首都）郊外にひっそりと立っていました。

やっと十九世紀の終りころになって中国の知識人や、わが国の歴史家たちに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しかし、この碑石に刻まれた金石文の重要性にいちはやく着目し、これを利用して、自らの朝鮮侵略を正当化しようと考えたのは、日本の支配者でした。

日本の東洋史研究者よりも早く一八八四年この碑の拓本をはじめて日本に持ち帰ったのは、日本の陸軍参謀本部のスパイとして中国に派遣されて、情報の収集に従事していた陸軍大尉の酒匂景信（さかわ・かげのぶ）という男です。

（明治政府は将来の侵略戦争に備えて、数千人のスパイを長期にわたり朝鮮、中国本土、満州、シベリア、蒙古、東南アジア、さらにインド、中近東などに送り、各地の民情、歴史地理、民俗などを探らせました。彼らが秘密に作成した地図だけでも数十万枚に達するといわれます）

酒匂が持ち帰った拓本は、参謀本部に勤務していた。

なぜ、一つの碑石をめぐって日本の歴史学者が、相次いで研究を行ったのでしょうか。


朝鮮大学校にある広開土王陵碑の模型

の碑文のなかの「倭」の活動を誇張して古代日本の朝鮮進出を裏付け、朝鮮がもともと日本の支配下にあったかのように主張しようとしたのです。

かれらがこの碑文の中で最も注目したのは、広開土王の即位の年である辛卯年（三九一年）の記事でありました。

碑石の第一面の第九行に次の文句があります。「倭以辛卯年来渡海破百残□□□羅以為臣民」

これを彼らは次のように読んだのです。

「倭（日本）が辛卯の年に来て海を渡り、百残(済)□□（新）羅を破って臣民とした」そして、百残の下の二字は任那か加羅だと推定するのです。

これにそって「任那日本府」という植民地が南朝鮮にあったという説や神功皇后などという架空の人物の「朝鮮征伐」などを持ち出すのです。

しかし、これは全く歴史的事実に反することでした。

そして、碑文の他の所に書かれている「倭賊退ゾク」とか「倭寇ヲ潰敗サセ、斬殺スルコト無数」など自分たちに都合の悪いことはあいまいにごまかそうとしました。

さらに、彼らはこの碑文を勝手に利用するために、碑石そのものを日本に持ち去ろうとさえしたのです。

このような歴史の歪曲に対して一九六〇年代に実地調査に基づき根本的な批判を加えたのがわが国の学者であります。中でも朴時亨、金錫亨先生の論文や著書が有名です。

その碑文解釈によれば、この碑はあくまで王の輝かしい功績をたたえるためのものであって、主体となる高句麗という主語は省略されていること、そして当時の歴史的情況を考えて「倭が辛卯年に来たので、（高句麗は）海を渡って（倭をひきいれた）百済を破り、さらに□□新羅を臣民と為す」というように、海を渡ったのは高句麗であります。これは日本でも大きな反響を呼びました。

金錫亨先生は、さらに、「この倭は北九州の百済系の倭で、故国のために動員されたものだろう」とされました。いずれにせよ倭＝大和政権とするのは無理があるし、このころ、朝鮮を侵す倭は、つねに高句麗や新羅によって壊滅させられているのです。

（金哲央）

ウリ保健教育の先駆者として

大阪府学校保健委員会


教員たちは毎月集まっては夜おそくまで討論した

一昨年の一月、ウリハッキョでの保健教育と、全般的な保健事業の充実を目指して、大阪府内の各学校の体育科教員、保健指導員を中心に、総聯大阪府本部の指導を得て、「大阪府学校保健委員会」（責任者＝大阪朝高・任元宰教員）が設けられた。

同委員会に参加した教員らは、活発に研究、討論を重ね、保健教育の充実を図ってきた。

まず「学校保健指導要綱」を作成。これは府内のすべての学校に配布され、学校保健事業の指針として活用された。

そして一昨年の八月には、「保健授業過程案審議委員会」を作り、共和病院（大阪市生野区）の同胞医師のアドバイスや、日本の教科書などを参考に、独自のテキストを作成。さらに保健授業研究校を指定して、このテキストをもとに、昨年四月から一年間、保健授業を行った。

また昨年度は保健担当教員の集いも正常化され、夏休み中の八月を除き、月に一度共和病院の医師、総聯府本部教育担当者もまじえ、具体的な項目について学習・研究を重ねた。

この十一日に開かれた三月の定例会では、同委員会の一年間の活動総括が行われた。

集まった教員たちの報告によれば、保健の授業は生徒たちにはおおむね好評で、月に一度の予定を待ちきれず、〝早くやろう〟と催促されるほどだったという。

また、堺初中級学校などでは公開授業として行い、参観した父兄らにも「これからもっと力を入れて下さい」と、好評であった。

その反面、学校間での進度にバラつきがあり、また、一般教員たちへの啓もう不足が指摘されたりもした。

そして教員たちの資質向上のために研修を増やすことや、保健体系の整備などが対策として指摘された。

この一年間の経験によって、テキストの内容も一層充実し、また一月の中央教育研究大会で、体育分科が体育保健分科に改編された。

この四月からは、大阪だけでなく、各地のウリ学校で保健授業が行われるようになるだろう。

ウリハッキョにおける保健教育の先駆者となった、大阪府学校保健委員会の活動に、これからも期待したい。

街をきれいに！

京都中高・中級部少年団員が京都市左京区区長表彰を受ける

来る二十二日、京都朝鮮中高級学校の中級部少年団員たちが京都市左京区区長表彰を受ける。

この生徒たちは三年前から学校の近辺、とくに登下校時に利用するバス停留所の周りを毎日きれいに掃除してきた。

近隣の日本人に実践を通じて民族学校の良さを知ってもらおう、と生徒たち自らが考えて、行動に移したもの。三年の間、ときにはおろそかになったこともあったが、今年からはまた、毎日欠かさず行っている。

そんな姿を見て日本の人たちも「感心だ」「とてもさわやかな光景だ」との感想を寄せている。

それを知った日本のボランティア団体である地域保健協議会が左京区に働きかけ、今回の表彰に至った。

生徒たちは、これからも街と心の〝美化運動〟を心掛けていくつもりだという。

大阪 民族心を培うステップ

「セナル子供会」合同修了式


修了式では他の子供会との交流も深まった

昨年の九月から大阪で催されている「セナル子供会」の合同修了式が、先ごろ大阪城公園で行われた。

この「セナル子供会」は、日本学校へ通う同胞子弟（小学生対象）たちにウリマル、朝鮮の歴史や地理を教え、民族自主意識を育み、朝鮮学校に編入する基礎を築こうと、朝青大阪府本部とウリハッキョの教員が協力して開いたもの。

この間、東大阪第三、西成初中、福島初中など十カ所で開校され、約百人の生徒らが受講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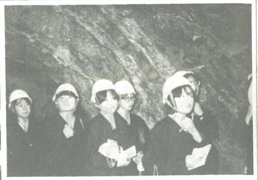
カリキュラムは地域によって多少異なるが、「子供会」で生徒たちは週一回、ウリマル学習を中心に歌や踊りを学び、また運動や朝鮮のコマ、将棋をはじめ多彩な民俗遊びをするなど楽しく過ごした。

特に「子供会」を通し深まったウリハッキョ少年団員や教員との交流は、受講生らの心に民族的な誇りを培うワンステップになったという。

この日、受講生や関係者など六十九人が参加した合同修了式では、受講生を紹介し一人ひとりにプレゼントが贈られた。

式終了後、地域子供会対抗の綱引き、けむし遊びなどのゲーム大会やツインビル内にある子供向けコンピューター施設を見学するなど楽しい一時を過ごした。

主催者側では「もっと内容を豊かなものにし、来る四月から再び開校したい」と語っている。


地下壕の大きさに生徒たちは一様に驚いていた

初めて松代大本営跡を見学

強制労働の実態に大きな怒り

長野初中・中級部3年の生徒たち

日帝が敗戦のまぎわに、強制的に連れて来た一万人以上の朝鮮人を酷使して建設した松代大本営（長野県松代町）。

この大本営を、長野朝鮮初中級学校中級部三年の生徒たちが十一日見学した。

生徒たちは授業やアボジ、オモニの話を通し、強制労働の実態について学び聞いていたが、実際に現場を訪ねたのは今回が初めて。

その一週間前から大本営に関しての勉強をしたという生徒たちであったが、予想していたよりもはるかに大規模な地下壕を見て、同胞に強いられた強制労働の悲惨な実態に大きな衝撃を受けていた。

この日、「松代大本営の保存をすすめる会」の青木孝寿会長（長野短期大学教授）が学生たちに同行した。

まず、象山地下壕の東側の「恵明寺口」付近を歩いて回った生徒たちに、青木会長が大本営を掘った理由や朝鮮人強制労働の実態について説明しながら、「朝鮮人が何人死んだのか、負傷したのかも分からない。こうした戦争の傷跡を、隠さずにそのままの状態で残そうという動きが出ている」と述べた。

また、生徒たちはヘルメットをかぶり、縦横に走る地下壕の一部を歩いた。最も広い所で幅五㍍、高さ四㍍、延長約六㌔にもおよぶ壕が、ダイナマイトを使いながらも人間の手で掘られたということに生徒たちは非常に驚いていた。

続いて気象庁地震観測所内の坑道を歩きながら、坑道についての詳しい説明を受けた。

初めて接した同胞の苦難に満ちた生々しい歴史の痕跡に、生徒たちは胸の痛みをおさえきれない様子だった。

「こんな大きな壕を人間の手で掘っていたとは心が痛む」「一世同胞の怒りと悔しさが肌で感じられた」「想像していた以上に酷い事実でした」と感想を語っていた。

ウリハッキョサッカーの発展に貢献

広島朝高蹴球部後援会（OB会）第1回総会

広島朝鮮中高級学校蹴球部後援会（OB会）の第一回総会が十三日に行われた。

この日、総聯広島県本部講堂で行われた総会には約五十人のOB、関係者が参加。総会では、昨年四月に各期OB有志たちで発足した「広島朝鮮サッカー団、朝高サッカー部OB会」を「広島朝鮮中高級学校蹴球部後援会」に名称を改め、会の目的、会則などが採択された。

また、名誉顧問、顧問、相談役をはじめ、会長、副会長、理事長、事務局長、学校部長と各期代表の理事二十六人が選出された。

会長に選出された金炳華氏はあいさつの中で「後援会発足の目的は、広島朝高をはじめ同校中級部、広島第一、第二初級を含める県下のウリハッキョのサッカーを発展させることです。経済、技術面ともに後援体制を整え、サッカーを通じ、民族教育の素晴らしさを多くの人たちに知らせたいと思います」と語った。

総会二部は「明月館」本店で後援会発足を祝い、祝賀宴。祝杯をあげた後はサッカー談義に花が咲くなど、互いの親ぼくを深めた。

この日、総会に先立ち広島中高のグラウンドでOBと蹴球団、朝高サッカー部間の交流試合が行われた。年齢、体重にかかわらず、一人、五分間以上の出場を義務づけられた交流試合は、和気あいあいとした和やかなゲームとなった。

主な役員は次の通り。

会長—金炳華（四期）
副会長—李在浩（四期）、白漢英（五期）、許信（七期）
理事長—黄博（七期）
事務局長—呂正弘（九期）

ぼくらの先生



金玉明ソンセンニム
（京都朝鮮中高級学校　高2担任）

先生はとてもガッツがあります。怒ると怖いけど、飾りっ気がなくとても気楽に話せる先生です。明るすぎて時々男まさりに見えることもあります。だけど、お姉さんのように信頼できます。

絵・尹由里　文・金貴子

東京朝高蹴球部OB会 第2回総会


朝高サッカーの発展を願う東京朝高後援会の会員たち

東京朝高蹴球部後援会（OB会）第二回総会が十三日、同サッカー部OBと関係者ら六十余人が参加して同校食堂で行われた。

総会では、①活動総括（朴正人会長）②規約の一部変更と役員改選（金希鏞事務局長）③財政報告に続き、激励のあいさつ（金世炯元監督）があり、李済華監督の経験談が披露された。そして今後、同校にサッカー部の学父兄らによる後援組織が新たに発足することにともない、同後援会をサッカー部卒業生らのOB会とすることに決まった。

この日、各期OB、第四初中のアボジチームによる交流試合や焼肉パーティー、また、次の日には交流ゴルフコンペが行われた。

모두다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3월 19일 (음력 2월 2일) 토요일 【루계 제10162호】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모두다 정열의 화신이 되자

정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더우기 이국땅에서 애국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열은 필수불가결의 사상감정이다.

정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숭고한 리상을 내세운 사람들, 바로 우리 총련일군들의 왕성한 투쟁의욕, 불타는 심장이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으로 솟구치는 청춘의 투쟁력이다.

이 정열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간고한 시련만이 겹쌓였던 올해의 1월과 2월에 휘몰아친 그 모진 광풍을 과감히 물리치고 꽃피는 3월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만민이 축복하는 4월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려고 더욱 억센 발걸음을 내디디고있다.

국제반동들의 무분별한 모략책동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주위에서는 필설로는 이루다할수 없는 가증스럽고 분개할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은 저들이 길러낸 꼭두각시 《마유미》를 내세워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을 헐뜯으며 총련조직을 파괴탄압해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이 파렴치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에 일본의 형형색색의 신문, 잡지, 텔레비죤방송들이 맞장구를 치며 허위보도를 확산하는데 열을 올렸다.

국제반동련합세력들의 광란적인 모략소동에 편승한 일본의 우익깡패들의 란동은 또 얼마나 우심했던가.

이 미치광이들은 《히노마루》와 괴뢰도당의 기발을 앞세우고 련일 총련기관과 동포상공인들의 기업체에 몰려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갖은 악담을 퍼부으면서 행패를 다 부렸다. 지어 무지막지한 이자들은 철부지 어린 학생들마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구박하고 부상을 입히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돌이켜보면 이국땅에서 근 40여년을 걸어온 재일조선인운동의 갈피갈피에는 피와 생명을 바쳐야 했던 격렬한 투쟁도 있었고 감옥도 두려움없이 머리띠와 신들메를 조여매고 미제헌병과 일본군경을 상대로 과감히 싸워야만 했던 시련의 고비도 있었다. 오직 조국과 조직을 지키기 위하여 중중첩첩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을 이를 악물고 이겨내며 판가리싸움을 벌린 때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련합하여 우리 조직과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려고 100여일간이나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도 분별없이 미쳐날뛴적은 일찌기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만난을 뚫고나가는 정열의 화신이 되여 내외원쑤들의 무분별한 모략책동을 산산이 짓부시고 공화국과 총련조직을 사수하는가, 아니면 난관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방관자로 정세를 관망하는가.

광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엄혹한 정세에서 우리는 주체의 애국투사답게 단연 전자를 택하였다.

자랑찬 사업성과로 대답하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난관에 부닥쳤을 때일수록 더욱 용기를 내여 그것을 맞받아뚫고나가야 합니다. 난관앞에서 주저하거나 후퇴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사업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애국하는 사람답게 천길 암반을 뚫고 치솟는 용암의 분출과도 같은 뜨거운 정열로 온몸을 불태우며 내외원쑤들의 모략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일본의 방방곡곡에 있는 지부와 분회에서 긴급집회와 규탄모임을 련일 가지고 괴뢰들을 견결히 단죄하였고 무려 315여만장에 달하는 《조선시보》 호외와 삐라, 10만여부의 소책자를 들고 일본인민들속에 들어가 내외반동들의 모략소동의 본질과 허황성을 낱낱이 까밝혔다.

우리 《조선신보》, 《통일평론》기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은 전투적필봉을 높이 들고 남조선괴뢰들이 모략의 물적증거로 꾸며낸 《사진》과 《문건》들의 기만성을 만천하에 적라라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죄행을 전세계에 고발함으로써 내외반동들에게 철추를 내리였다.

아니 내외반동들의 악선전에 주저하는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가가호호를 찾아가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돌리면서 밤을 지새운 우리 일군들은 그 얼마이며 추운 겨울밤 문을 닫아매는 일본사람집의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려객기사건의 진상을 해설한 우리의 분회일군, 애국적동포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하여 지난 3월 15일의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으로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은 그자들이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서 빠져나오려고 미제의 지휘밑에 일본반동들과 한짝이 되여 조작해낸 파렴치한 자작자연극이였다는것을 의문의 여지없이 폭로할수 있었던것이다. 이제 내외반동들의 국제적모략은 세계면전에서 박산나고말았다.

어찌 그뿐인가.

《총련을 약화시키려는자들에게 더욱 자랑찬 사업성과로 대답하자!》는 일념으로 우리는 올해의 년초학습과 신춘강연, 《세금신고》사업에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일군들과 동포상공인들을 망라하여 높은 수준에서 조직진행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 46돐을 경축하는 군중적인 모임은 지난해보다 90개나 더 많은 550여개소에서 각계 일본인민들의 참가밑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무엇이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을 이처럼 오직 조국을 위하고 조직을 위하여 싸우는 정열의 화신들로서 싸우게 하는것인가.

그것은 애국하는 사람들만이 가질수 있는 한없이 뜨거운 충성의 열도, 확고한 신념의 표현인 정열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다해야만 우리의 숭고한 목적과 리상도 실현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높은 신임과 하해같은 배려에 실천의 성과로 보답해야만 참다운 삶과 행복이 담보된다는 자각에서 우러나오는 불타는 정열이며 뜨거운 심장이다. 그 어떤 탄압과 모략으로써도 식힐수 없고 그 어떤 재부와 황금으로써도 뭉갤수 없는것이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고 용광로마냥 이글거리는 뜨거운 정열이다.

총련일군들은 한때 발끈 달아올랐다가 인차 식어지고마는 정열이 아니라 퍼내도 퍼내도 용솟음치는 무진장한 샘물처럼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정열,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에는 피타협적으로 대하며 센 공격으로 그것을 박산내고야마는 주체형의 애국투사만이 가질수 있는 식을줄 모르는 정열의 화신들로 더욱 잘 준비하자.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이 정열, 이 기백으로 승리의 신심 드높이 힘차게 전진하며 총련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자.

우리 말과 글을 배워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자！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리기 위한 총련 도꾜도본부 궐기모임 진행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리기 위한 총련 도꾜도본부 궐기모임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리기 위한 총련 도꾜도본부 궐기모임이 17일, 조선출판회관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배병두 부의장 겸 도꾜도본부위원장, 김수식선전국장 그리고 본부관하 일군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배병두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지난해 3월에 있은 합동회의이후 관하 각급 기관과 단체, 사업체들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며 쓰는 운동을 힘차게 벌리기 위한 조직적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청년학교를 비롯한 성인교육사업을 폭넓게 진행함으로써 이 부문 년간목표를 넘쳐달성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청년학교를 비롯한 각종 성인교육의 강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한층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수많은 젊은 동포, 새세대동포들이 우리 말을 배우게 되고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이 살아나가게 되였다고 힘주어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시기 사업과정을 통하여 이 문제가 열성적이고 꾸준한 활동의 여하에 따라 반드시 해결되며 총련조직과 애국사업발전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6명의 일군들이 토론을 하였는바 그들은 지난 기간 우리 말을 배우며 쓰기 위한 운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에 토대하여 우리 말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파악하고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기관적으로, 전동포적으로 벌려나갈 굳고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모임에서는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맺음을 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도꾜도본부가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쓰는 운동을 일군들의 단결된 힘으로 벌려 수많은 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준데 대하여, 이 운동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를 평가하였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은 광범한 동포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쓰도록 하는 일대 군중적운동이며 재일동포들속에서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는 애국적전진운동이라고 강조한후 리진규제1부의장은 우선 이 운동의 중요성, 요구성을 깊이 틀어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로, 그것은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말을 배우고 쓰는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 이를 앞으로도 군중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갈 계기를 열어놓자는것이다.

총련의 애국운동에서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우리 말 문제는 중요하다.

우리 말을 떠난 조선민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 말과 글을 떠난 민족애국운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말과 글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주체성을 나타내는 기본징표이며 애국운동의 힘있는 무기이다.

그렇기때문에 총련은 결성후 오늘까지 일관하게 우리 말과 글을 기본수단으로 삼고 모든 애국활동을 벌려왔다.

그런데 우리 말 문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있는 오늘에 와서 민족의 존망, 애국운동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달라진것과 관련하여 이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 말 문제는 전환기에 들어선 애국활동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동포들이 우리 말을 잘 알고 쓸수 있어야 진정으로 보람있는 생활을 누릴수 있는것이다.

그러기에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통하여 중대한 이 문제 해결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하는것이다.

둘째로, 이 운동이 우리 말 문제를 푸는 운동이자 곧 우리 일군들이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운동이라는것이다.

이 운동은 모든 일군들이 군중로선을 관철해야 할수 있는 실속있는 사업인것만큼 일군들모두가 선생이 되고 교양자가 되여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할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번 운동은 재일동포들이 민족자주정신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전개되며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말문제를 풀고 동포들을 교양전취하며 일군들의 일본새를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크게 바꾸어놓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수 있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계속하여 이 운동을 군중적으로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이 우리 말과 글을 모르는 동포들을 분공맡아 사업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번 운동에서의 중심고리는 호조반사업이다.

왜냐 하면 우리 말을 가르치는 사업도, 교양사업도 일군들이 동포들을 찾아가 이마를 맞대고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일군들은 자기 대상을 놓고 주에 1～2번씩 찾아가 우리 말을 배워주고 걸린 문제도 풀어주며 그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분회담당소조사업, 5호담당선전원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모든 조직이 이 운동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을 깐지게 짜고들어야 하며 목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책임적으로 사업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리진규제1부의장은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일반동들의 뒤받침밑에 감행되는 남조선괴뢰도당의 모략은 낱낱이 밝혀졌고 박산났다고 말하면서 모든 일군들이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계속 강력히 벌리며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비롯한 제기된 모든 애국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차게 맞이하자고 호소하였다.

날조군들은 이제 얼씬못할것이다

동포녀성들의 담화

동포들에게 계속 힘과 용기를 주자

오사까부 니시나리상공회 조혜자지도원

나는 이번 총련중앙의 기자회견내용에 대해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왜냐 하면 이번 남조선려객기사건이 처음부터 남조선괴뢰들이 꾸며낸 모략책동임을 확신하고있었기때문이다. 다른 일군들도 그러했다고 본다.

어쨌든 미친듯이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벌리는 내외반동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것이다.

어떻게나 공화국을 고립화시키며 통일의 무지개다리로 되여야 할 올림픽을 민족분렬의 수단으로 리용하려는 남조선괴뢰들과 미일반동들의 음흉한 책동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에 궁지에 빠진 괴뢰도당의 발악임은 명백하다.

더욱 우심한 모략책동이 계속될것이 예견되는 속에서 동포들은 우리 일군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으니만큼 우리는 더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힘과 신심을 안겨주면서 이번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나가야 할것이다.

신심을 더욱 굳게 했다

녀성동맹 가나가와현 남부지부 추정순녀성

내외반동들이 자작자연한 모략극의 진상이 폭로되여 안심하였다.

나자신 조국을 굳게 믿고있었기에 처음부터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았으나 일본의 반동세력이 때를 같이하여 총련에 대한 파괴책동을 감행해나선데 대하여 분격을 금치 못했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에는 치가 떨렸다.

나의 딸들도 우리 학교에 다니지만 굴하지 않고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녀 우리 민족의 넋을 지킨다고 제나름으로 싸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총련중앙이 모략을 까밝히는 움직일수 없는 증거를 들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승리의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앞으로도 계속 조국을 믿고 사업하며 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셔나가겠다.

시대를 밝히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정식화

사상과 리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인류사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업적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이 정의는 김일성주의가 내용에서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고 구성에서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를 이루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인류사상발전에 기여하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것은 시대와 혁명 발전의 중대한 요구이며 혁명위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여야 혁명의 지도사상을 뚜렷이 내세우고 사회적 변혁과 진보를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또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그런것만큼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되는 수령의 사상을 옳바로 정식화하여야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발생발전과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주체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선포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와 인류사상사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

혁명사상발전에서 커다란 의의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시여 선포하신것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 우리 시대의 혁명적기치로서의 김일성주의의 거대한 변혁적의의를 더욱 뚜렷이 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선포하신 김일성주의의 정식화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과 인류해방위업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우선 우리 시대 진보적사상발전의 기본내용, 기본추세가 명백히 밝혀졌으며 력사와 인류 앞에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 선포되였다는것을 들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대와 력사의 기본흐름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시고 그 발전을 추동하는 사상만이 우리 시대의 진보적사상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근본요구와 지향, 혁명실천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반영하고 있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의의 면모와 특징, 그 내용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김일성주의야말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밝히시고 그것을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정식화하시였던것이다.

다음으로 인류해방위업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뚜렷이 명시하고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동했으며 온갖 형태의 반혁명적사상조류를 극복하고 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지도적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게 한것을 들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김일성주의를 정식화하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위력한 무기, 주체철학에 기초한 김일성주의의 독창성과 위력, 그 력사적위치가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실로 그이께서 선포하신 김일성주의의 정식화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과 인류해방위업수행에 기여한 불멸의 업적이며 그것은 주체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더욱더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계속)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무장시키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우리 학습실

모든 사상교양을 주체사상교양으로 일관시켜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주체사상교양이라고 하면 주체사상원리교양만을 념두에 두고있는것 같은데 물론 다른 형태의 사상교양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좁은 의미로 쓸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것만큼 주체사상교양이라고 할때에는 거기에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을 다 포괄시켜보아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이며 지도적지침인것만큼 조선로동당안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사업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충실성교양을 비롯한 계급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주체사상의 원리로 교양하는 사업과 결부돼야 한다.

물론 다른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은 주체사상의 원리교양과는 구별되지만 그것들은 다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고리로 된다.

문헌에는 조선로동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을 주체사상교양에 포괄시켜야 할 근거들이 밝혀져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에는 주체의 사상체계밖에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교양이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또한 조선로동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이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 다시말하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기때문이다.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그것이 잘 풀려나가며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맞게 진행될수 있기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로동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은 주체사상교양에 포괄시켜야 하며 그래야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교양으로서의 주체사상교양의 확고한 지위가 더 명확히 된다.

세계의 목소리

고전적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학습하고

《력사의 주체에 관한 독창적인 원리》

제임스 지쟌디 부웨라쥬바

존경하는 김정일비서의 고전적문헌을 학습하여 크게 감동한 것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는 정식화이다.

존경하는 김정일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계신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합니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이는 실로 독창적인 원리이며 주옥과 같은 명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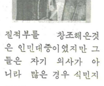
주체사상은 사회,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고 가르치고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짐바브웨의 실례를 두고도 수천수만년에 걸쳐 사회를 전진시키고 물질적부를 창조해온것은 인민대중이였지만 그들은 자기 의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 식민지배주의와 소수특권층의 의사에 따라 력사를 창조하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있었다.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인민대중은 아직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나 오늘 절대다수의 인민이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과 무가베대통령의 지도하에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여 짐바브웨의 새로운 생활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참으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는 명제는 주체사상만이 해명할수 있었던 귀중한 진리이다.



(짐바브웨 구엘무고바교원대학 학장)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적업적은 인류사에 찬란히 빛날것이다》

뻬루 끼하마르까국립종합대학 교수의 글

뻬루 끼하마르까국립종합대학 교수 에밀리오 까쵸 가요쏘가 최근 조선방문인상기를 발표하였다.

그는 방문기에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주체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업적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력사에 찬란히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현실화된 위대성

나는 훌륭한 정치와 위력한 경제, 찬란한 문화를 가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조선의 거대한 현실을 보면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그 생활력, 탁월한 령도력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이번에 조선을 방문하면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며 정력적인 투쟁을 통하여 몸소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고 그것을 일반화해나가시는 위대한 사상리론활동가이시며 주체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일각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알게 된것을 크나큰 행복으로 생각한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활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고상한 리념과 지금까지 인간의 사색이 미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밝히는 그 비범한 예지로 하여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완벽하게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시였다.

주체사상을 심화발전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들도 밝혀주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입니다.》라고 지적하고계신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그리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원칙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들을 리론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현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과정에서 몸소 쌓으신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과 지난 시기의 력사적교훈들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참으로 김정일각하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사상리론업적은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고귀한 재부로서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한 전국토론회

시에라레온에서 성대히 진행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한 시에라레온전국토론회가 시에라레온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얼마전 주체사상연구 시에라레온전국위원회와 시에라레온조선친선협회의 공동주최로 프리타운에 있는 정부청사회의실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시에라레온공화국 제2부대통령인 쌀리아 쥬수 쉐리프와 여러 명의 상들을 비롯하여 정계, 사회계, 학계, 출판보도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 조선인민과의 친선및련대성단체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시에라레온전국위원회 및 시에라레온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인 만쏘 봄파 투레는《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사상리론으로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영명한 지도자이시다》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 조선혁명과 세계의 자주화위업 수행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걸출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령도자》, 《주체의 향도성》으로 높이 칭송받고계시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오늘 조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써 주체의 강국으로 세계에 거연히 서있다.

조선통일지지 시에라레온위원회 부위원장 에드워드 죠세프 아카르, 공공사업 및 로동상인 브이. 제이. 브이. 맘부, 농촌개발, 사회봉사 및 청년상인 알하지 무싸 카비아는 토론에서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그 생활력에 대하여 론증하였다.



하나로 되여야

목소리

희세의 정치만화

세상을 살다보면 해괴망측한 일, 너무도 어처구니없어 벌렸던 입조차 다물지 못할 일이 더러 있다. 지난 3월초 전두환역도가 1988년도 《노벨평화상후보》로 추천되였다는것도 이런 부류의 인간십리를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노벨평화상》은 1901년, 스웨리예의 저명한 화약발명가 노벨이 남긴 막대한 유산으로 제정되였는바 세계와 자국의 평화와 현정을 베푸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세운 사람에게만 수여되는 상이라 한다. 이 상은 노르웨이국회가 선출한 5명의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1년에 1명에게 수여한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상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수중에 장악되는 바람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저주를 면치 못하고있다. 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 왜 하필이면 전두환역도가 이 상의 《후보》로 추천되여야 하는가 말이다. ▼전두환으로 말하면 동족과 웰남인민을 무참히 학살한 인간백정이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도발만을 노리는 란폭한 평화교란자로서 애당초 이 지구상에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군사불한당이다. 광주의 수천명의 동족을 학살한 대가로 《대통령》을 가로챈것도 전두환이며 웰남전쟁에 참전하여 수많은 량민을 쏘아죽인 놈도 바로 전두환이다. 미제의 특등졸개답게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끌어들이고도 부족하여 악마의 핵폭탄 중성자탄까지 배비해달라고 미제에게 애걸해나선자도 다름아닌 전두환이다. 오직 군부독재정권연장만을 획책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체포구금하고 고문으로 절명시킨자도, 칼기사건, 랑군사건을 꾸며내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킨자도 바로 전두환역도이다. 이런자에게 《노벨평화상》을 준다는것은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하여 인류에게 막심한 재난을 들씌운 히틀러나 도죠에게 상을 주는것이나 다름없는 처사이다. ▼서독과 영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미제의 지시와 남조선괴뢰들이 바쳐올리는 금품에 춤출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래 만민의 공분을 자아내게 하는 이 희세의 정치만화를 싹 지워버려야 한다.

3월결산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여 더 강유력한 민족금융기관으로!

2,000억원 달성기념 예금증가와 1만구좌획득 운동 추진

조은도꾜신용조합

《동포조합원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목표를 달성하자!》

《1만호방문운동을 힘있게 벌려 거래자를 더 늘여 경영기반을 확대하자!》

조은도꾜신용조합 전체 역직원들은 높은 예금액 확대목표를 내걸어 3월결산사업을 성과적으로 매듭짓기 위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용조합이 동포상공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재정적대변자로서, 그들에 대한 신용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많은 중소상공인들을 쟁취할수 있을것입니다.》

지난해 조은도꾜신용조합은 창립 35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고 전체 역직원들과 열성조합원들이 굳게 단결하여 정력적인 사업을 벌림으로써 총예금액 2,0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에 토대하여 이곳 조합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조합적인 《조은도꾜 예금고 2,000억원 달성기념 예금운동》과 《1만구좌획득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오기꾸보, 다나시, 에도가와, 아라까와, 아다찌, 다데이시, 고만다, 시부야지점들에서는 년말, 년초에 걸쳐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 자기들이 내건 3월결산목표를 2월말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금 그를 공고확대하기 위해 적극 사업하고있다.

또한 이곳 조합에서는 이번 운동기간 동포군중을 튼튼히 다지고 조합의 군중적지반을 한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12월 23일에 본점 영업부에서 《하루영업부장의 날》을 조직한것을 비롯하여 달마다 각 지점들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여왔다. 특히 3월초부터 4월에 걸쳐 모든 지점들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일제히 진행되고있다.

지난 2일, 에도가와지점에서 후원회결성 1주년기념강연이 있었으며 1일부터 31일까지 메구로지점에서 기념예금획득운동을, 다찌까와지점에서는 15일부터 26일까지 《감사의 날》 그리고 이께부꾸로지점에서는 16일부터 18일까지 건강저축주간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가메이도지점과 가마다지점에서 24일, 쬬후지점에서 22일부터 24일, 시부야지점에서 23, 24일, 오기꾸보지점에서 25일, 아라까와지점과 신쥬꾸지점에서 30일, 고만다지점과 우에노지점에서 29일에 각각 《감사의 날》을 진행하며 아다찌지점에서도 24일에 《하루지점장의 날》을 조직할것을 예정하고있다.

또한 다데이시, 아까바네, 아다찌지점들에서는 4월에 들어서 동포들의 꽃놀이를 진행하게 된다.

날을 따라 더해지는 불경기의 파도속에서도 총련조직의 대중적기반을 강화하며 동포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믿음직한 민족금융기관에서 사업하는 이곳 조합일군들은 당면하여 3월결산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뜻깊은 올해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일념으로 열성적으로 사업하고있다.



3월결산사업을 성과적으로 매듭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밀고나가는 조은도꾜신용조합 역직원들(사진은 지난해말에 조직된 《하루영업부장의 날》)

저녁마다 가가호호를 방문

《건강저축계획〈건강〉》행사 조직

조은도꾜 이께부꾸로지점 직원들

지금 조은도꾜 이께부꾸로지점 전체 일군들은 올해 3월결산을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조은도꾜신용조합적으로 벌려온 《조은도꾜 예금고 2,000억원 달성기념 예금운동》, 《1만구좌획득운동》과 더불어 지점적인 《하루 10구좌획득운동》을 힘차게 밀고나가고있다.

이곳 지점에서는 올해 1월말부터 전체 일군들이 7개의 조로 나뉘여져 매일과 같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관하동포 집집을 방문하여 동포들과의 련계를 깊여왔으며 그 과정에 예금량을 확대돼나가고있다.

《지금 우리가 벌리고있는 운동은 다만 구좌수를 늘여 예금을 확대하자는것뿐아니라 우리자신이 직접 동포들속에서 배워 총련의 민족금융기관에서 사업하는 경제일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또한 동포조합원들과의 련계를 한층 깊여 조합의 튼튼한 군중적지반을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고성웅지점장은 말한다.

이곳 지점으로 말하면 관하에 도시마구, 이다바시구, 네리마구의 3개 구역을 포괄하고있으며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담당하고있으므로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로부터 지점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함으로써 2월 한달동안에 새로 100여구좌를 늘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뿐만아니라 열성조합원들, 특히 이곳 지점 후원회 《조신회》의 회원들도 그러한 일군들을 따라 3월결산을 성과적으로 매듭짓기 위해 적극적인 예금확대사업을 벌리고있다.

특히 총련 도시마지부관하에 거주하는 《조신회》 회원 김수호동포(35살)는 이번 운동이 시작되자 시간을 짜내여 1주일동안에 새로 25구좌를 받아내는 열성을 발휘하였다.

또한 이곳 지점에서는 3월결산을 앞두고 16일부터 18일까지 《건강저축계획〈건강〉》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첫날째 아침부터 수많은 동포들이 지점에 찾아와 건강진단도 하고 예금도 하면서 련일 붐비였다.

《건강저축계획〈건강〉》행사는 종래 결산시마다 진행해온 《하루지점장사업》, 《하루리사장사업》 등의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금 젊은 동포들속에서 관심사의 하나인 건강유지, 건강관리에 눈초리를 돌려 지점 독자적으로 조직진행한것이다.

지금 이곳 지점에서는 올해들어 거둔 사업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3월말까지 총예금액을 113억원, 총구좌수를 1,900대로 확대하여 3월결산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지점일군과 사업협의를 하는 김수호동포(가운데)와 그의 모친(오른쪽)

반공화국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시자

총련 오사까부본부관하 지부들에서 대중유세사업 활발

총련 이꾸노서지부에서 시국강연회

남조선괴뢰들이 꾸며낸 모략극,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있는 속에서 총련 오사까부본부에서는 정치선전사업, 대중유세사업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그러한 속에서 총련 이꾸노서지부에서는 16일, 시국강연회를 지부사무소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이곳 지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강연에 앞서 비데오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지난 15일의 총련중앙 기자회견모습을 방영한 일본뉴스 《뉴스스테숀》(15일 방영)의 록화물이 상영되였다.

이어 오사까조선가무단 성원들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선전선동이 진행됐다.

이번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한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짓부시는 내용으로 총련중앙학원 김화효강좌장이 강연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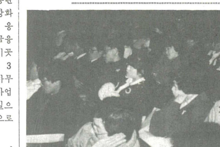
강연에서 그는 이번 사건이 남조선괴뢰들이 꾸민 모략임을 구체적인 론거를 들어 반증한 다음 참가자들에게 추호의 동요없이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셔나가자고 힘주어말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강연을 귀담아들으면서 강사의 구체적인 해설에 깊은 공감과 리해를 표시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한 확고부동한 견해와 굳은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이곳 본부관하에서는 총련 이꾸노서지부에 앞서 히가시나리지부(14일)가 선참으로 강연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니시나리(18일)에서 진행됐으며 니시요도가와(19일), 이꾸노남(23일), 다이꼬(25일), 스미요시(26일) 등 각 지부들에서도 계속 시국강연회를 조직진행하게 된다.



총련 이꾸노서지부 시국강연회



집회에는 도찌기현하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공화국과 총련조직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

도찌기현청년단결집회에서

지난 5일, 도찌기현청년단결집회가 일본의 각계 각층 청년단체 대표들 1,100여명의 참가밑에 도찌기회관에서 진행됐다.

집회에서는 조청 도찌기현본부를 대표하여 최조웅 부위원장이 련대연설을 하였다.

그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에 대하여서와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공화국과 총련조직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성원을 보내줄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본질을 폭로한 내용의 소책자 등 4,000부의 선전물이 배포되였다.

【조청도찌기】

국제부녀절사이다마모임에서 일본정부에 요청문

3.8국제부녀절 사이다마의 모임이 지난 12일, 우라와시민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사이다마현로평, 일본부인회의 사이다마본부, 부락해방동맹부인부, 현로평주부의 회, 일본사회당 부인대책부들로 무어진 동회의 실행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된 모임에는 사이다마현하에 거주하는 일본녀성들 130여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일본사회당 구보다 마나에참의원의원의 강연이 있은후 녀성동맹본부 신옥희위원장이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을 보고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정책을 시정할것,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중지와 북남련석회의실현을 위하여 노력할것, 올림픽경기대회의 북남공동주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것,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것 등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요청문이 채택되였다. 【녀성동맹사이다마】

국제부녀절 미에현집회에서 결의문 채택

제78차 국제부녀절 미에현집회가 8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250명의 일본녀성들이 참가하였다.

녀성동맹본부위원장이 래빈으로 초대되여 연설을 하였다.

그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배경과 진상을 보고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이 옳바른 립장에 서서 사건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행위를 방지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히는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적극 지지하여줄것을 호소하였다.

어느 녀성은 《사건의 진상을 잘 알수가 있었다. 근처에 사는 녀성들에게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정부가 부당한 《제재조치》를 당장 취소할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녀성동맹미에】

효고 《조국땅을 밟을 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단기조국방문사업준비 한창

올해 첫 《삼지연》호가 고베항에 입항(4월 1일)하는것과 관련하여 지금 총련 효고현본부관하 동포들의 단기조국방문사업준비가 한창이다.

이곳 본부에서는 관하 동포들의 이번 방문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문자들의 모임을 9～11일에 걸쳐 가지였다.

지역별로 대상자에 맞게 본부에서 하루 2번씩(낮과 저녁) 진행된 모임에 참가한 동포들은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보면서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의 악랄성을 되새기고 긴장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게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였다.

모임에서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는 조국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이때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이번 방문사업이 큰 관심속에서 진행된다는데 대하여 강조되였으며 긴장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이번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였다.

다까라즈까지역에서 사는 권교도동포는《효고동포들이 집단적으로 간다고 하니 아이들이 갔다오라고 하였지요. 처음으로 방문합니다.》고 첫 말을 떼면서 《방문기간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모습을 상세히 보려고 합니다.

조국해방전쟁이후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우리 인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쌓아올린 건설성과와 그 벅찬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면 더 큰 용기와 신심을 얻게 될것입니다.

지금부터 큰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오르지요.》라고 말했다.

또한 김남도동포는 《긴장된 정세속에서 조국을 방문한다는데 대하여 잘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방문을 통해서 친척들과 회포를 나누게 된다는것을 생각하니 그날이 손꼽아기다려집니다.》고 말하였다.

《재작년 아마가사끼초중에 다니던 아이와 함께 학생체육대표단 성원으로서 조국을 방문했습니다. 다시 갈수 있으면 해서 간절히 바라던 때에 방문할 기회를 얻었으니 참으로 기쁩니다.》고 말하는 홍금련동포(가와니시지역거주).

그는 이어서 《처음 방문했을 때 친절히 돌봐준 그 의사선생님과 만나게 되면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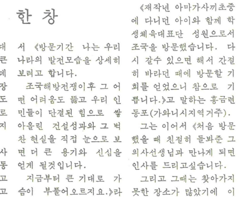
그리고 그때는 찾아가지 못한 장소가 많았기에 이번엔 될수록 여러곳을 찾아 조국의 향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려고 합니다.》고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김립혜동포(이다미지역거주)는 처음으로 방문한다.

김동포는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복잡한 정세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하여 생각을 깊일 필요가 있지요.

갔다오면 조국의 날로 발전하는 벅찬 현실을 동포들은 물론 일본인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가자고 생각해요.》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이곳 방문자들의 마음은 조국방문날이 가까와올수록 높뛰여만 간다.



효고현본부에서는 이번 단기조국방문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문자들의 모임을 가졌다.

어서어서 자라라



윤희나
(녀―1살 10개월)
1986년
5월 10일생
아버지 윤진남(33살), 어머니 박실영(31살)
총련 기후현 도노지부 도기분회관하

꽃봉오리 희나야, 나의 희나야. 어서 커서 큰 오빠, 작은 오빠, 할머니와 함께 장군님 노래하고 조국을 노래하자. (외할머니)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무모한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팀 스피리트》연습은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전면핵전쟁연습

지난 13차례의 전쟁연습에 200여만의 대병력 투입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올해에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리기로 하였으며 〈서울올림픽안전담보〉의 구실밑에 앞으로도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일대와 남조선전역에서 전면적인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다.

올해에 또다시 미제와 그 주구들이 벌려놓은 《팀 스피리트 88》전쟁연습은 공화국을 《선제공격》하며 나아가서 저들의 전면핵전쟁계획을 더욱 완성하려는데 그 범죄적목적이 있다.

미제가 10여년전부터 벌려온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에 미군을 포함하여 200여만의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고 수많은 각종 핵무기들을 투입하고있는 것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핵전쟁전략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특히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에서 미군의 동원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는것이 주목된다. 1976년에는 6,000명의 미군이 참가했다면 1981년부터는 해마다 6만~7만여명이 투입되군 하였다.

그리하여 이 전쟁연습기간에 동원된 미군총수는 65만~66만에 이르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올해 전쟁연습에 20여만의 병력이 참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100만이상의 병력이 동원된다.

이것은 15개 나라가 참가한 《나토》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된 10만내외의 병력에 비해 10배나 넘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세계전략의 제1선》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을 중시하면서 30년전부터 남조선에서의 핵전쟁준비를 다그쳐왔다.

최근년간 그것은 모험적인 군사연습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완성되여가고있다.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에는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무력과 전술핵무기들, 핵항공모함, 각종 살륙수단들이 동원되고있으며 지난해 연습때에는 전면핵전쟁지휘기라고 불리우는 《이4비》까지 출동시킴으로써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더욱 드러내보이였다.

한편 미제는 해마다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의 구실밑에 숱한 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끌어들였다가 돌아갈 때에는 그 많은 부분을 떨구어놓는 교활한 방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을 다그치고있다.

지난해 《팀 스피리트 87》전쟁연습때에만도 미제는 근 100만톤의 장비와 군수품을 끌어들였다가 약 30%만 소모하고 그 나머지는 남조선주둔미군과 괴뢰군에 넘겨주었으며 올해에도 방대한 량의 군사장비를 떨구려고 획책하고있다.

최근년간 미제는 서구라파지역과 북대서양 및 지중해의 넓은 수역에서 나토군사연습을 벌리면서 미국본토로부터 여기에 약 1만 5,000명정도의 미군병력을 투입했다면 면적상 나토에 망라된 서구라파와 그 주변나라들의 3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디좁은 남조선에서 벌린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에는 매번 나토군사연습에 공수된 미군무력수보다 2배이상이나 되는 미군무력을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의 기지들로부터 추가투입하군 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연습기간을 대폭 늘임으로써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갈것을 타산하고있다.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의 위험성은 또한 군사연습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무력을 군사분계선가까이에 집결시켜놓고 연습무대를 군사분계선지역에로 더욱 접근시키고있으며 미제의 핵전쟁계획에 따라 공격작전의 비률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특히 《팀 스피리트 88》전쟁연습에서 보다 위험한것은 공격 대 방어의 비률에서 공격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이번에도 상륙작전에 핵폭탄과 핵폭뢰,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적재한 제7함대 함선들과 미해병대 및 괴뢰군 무력을 동원하여 가상《적》의 해안에 폭탄과 포탄을 퍼붓고 상대측 진지를 기습, 공격하는 훈련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립체적공격작전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현실적인 평화제안에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으로 도전해나섬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파괴자,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서의 극악한 정체를 드러내놓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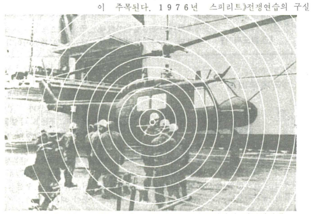
미제와 그 주구들은 올해에도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외면하고 범죄적이고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해나섰다.

최근년간 공화국정부는 북남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제안, 군사당국자회담제안,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단계적무력축감제안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5개 항의 민족단합방안을 비롯하여 많은 제안을 내놓았으며 10만명의 조선인민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설 대신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더 크게 벌리며 남조선에 더 많은 [illegible] 운반수단 [illegible] 전쟁준비 [illegible] 로 대답하 [illegible]

제반 사 [illegible] 조선괴뢰 [illegible] 리 인민의 [illegible] 방해하는 [illegible] 인민과 세 [illegible] 참화를 [illegible] 광신자, [illegible] 는것을 그 [illegible] 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념원을 무시하고 끝끝내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한다면 놈들은 력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제와 남조선파쑈도당은 군사장비를 공공연히 투입하여 전면핵전쟁연습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

세계 사회계가 견결히 규탄

수리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 인민군사령부가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88》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미제는 모든 형태의 군사적위협을 더는 하지 말고 군대와 살인장비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문제해결에 성의있게 나와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다국적군축회담제안, 3자회담제안,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비롯한 평화발기들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한다.

몽골, 마다가스까르

몽골신문 《노보스찌 몽골리》 4일부는 《또다시 불장난》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신문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도발적인 성격을 띠고있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은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전을 해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타 평화애호나라들, 전세계평화에 위협을 주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단호히 규탄한다.

무분별한 불장난을 끝장내야 한다.

마다가스까르신문 《이뭉구 바우바우》 2월 27일부는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해상상륙작전과 지상공격전, 도하전, 《특공대》전, 비행대타격전, 핵 및 화학전, 전자전 등을 하늘과 땅, 바다에서 벌리는 공격적인 성격을 띤 하나의 립체전이며 종합적인 핵전쟁연습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본토와 태평양상의 미군사기지들, 일본본토와 오끼나와기지들에 있는 침략무력을 신속히 조선전쟁에 투입하며 남조선괴뢰군과 추종국가군대 무력을 총동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하며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하여야 한다.

세계직업련맹

세계직업련맹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 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3월 1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의 참가밑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88》연습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번 군사연습에 참가하고있는 함선과 비행기들이 핵무기를 적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한 조선인민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도발적인 전쟁연습의 중지와 남조선으로부터의 핵무기철수를 요구할것을 모든 나라 직맹단체들에 호소하였다.

성명은 끝으로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하며 외부의 온갖 간섭이 없이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통일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간일지

3월 9일(수)~3월 15일(화)

북반부

11일(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사회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 진행.(7일~) ◆왕재산회의 55돐기념 함경북도보고회 진행.

13일(일) 농근맹중앙위원회 제10차전원회의 진행.

14일(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창립 40돐기념 보고회 진행. ◆전국농업근로자궐기대회 진행.

15일(화) 공화국최고인민회의를 소집(4.5)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발표.

재일동포

8일(수) 조선문화강좌(제1기) 각지에서 일제히 개강.(녀성동맹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지부)

12일(토) 각지 총련강연구들에서 대중강연회가 진행되고있는 속에서 총련중앙 박재로부의장이 총련 산따마 중부지부 시국강연회에서 강연. ◆올해 일본 각 대학을 졸업하는 재일조선류학생들을 축하하는 모임 조선회관에서 진행,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이 축하연설. ◆총련중앙 신상대부의장이 사회문화법률쎈타 정기총회에서 련대연설.

15일(화)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구체적물증으로 남조선괴뢰도당의 모략을 폭로규탄. ◆각지 상공단체들에서 《확정신고》사업 성과적으로 마무리.

남조선

8일(수) 고려대 대학원생 200여명, 총장부속실을 점거하고 총장과의 담판을 요구하면서 롱성투쟁 전개. ◆목포대생 100여명, 괴뢰들의 앞잡이인 이전 학장을 그대로 류임시키려는 괴뢰문교부의 처사에 항의하여 시위.

10일(목) 연세대 자주로조, 임금인상과 로조원들의 대우개선 등을 주장하여 투쟁 전개.

12일(토) 남조선전역 22개 대학 직원 500여명, 세종대에서 대학직원 로동조합의 인정 등을 요구하는 모임을 갖고 5개 항목 결의문 채택.

13일(일) 서울시내 67개 자주로조소속 로동자 2,500여명, 연세대 로천극장에서 로동조합전진대회와 문화대동제를 가지고 로태우도당의 탄압만행을 견결히 규탄.

국제

8일(수) 《팀 스피리트 88》연습에 투입되는 미국군함이 홍콩을 떠나 남조선해역으로 기여듦.

10일(목) 《아사히신붕》, 미국의 《핵전쟁지령기》인 《이4비》가 미국본토로부터 일본으로 날아와 남조선을 향했다고 보도.

11일(금) 일본경시청, 그 무슨 《테로》방지 운운하여 《올림픽안전대책위》를 설치하는 책동 다함.

총련의 모든 조직을 참다운 애국조직으로 만들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22일 (음력 2월 5일) 화요일 【루계 제10163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세네갈과 가나 국가수반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으로 아브두 디우프가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9일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전에서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우리들사이의 뜻깊은 평양상봉에서 합의된 정신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각하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가나독립 31돐에 즈음하여 4일 가나공화국 림시국가방위리사회 위원장인 공군대위 쩨리 존 라울링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보급사업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였다.

말리김일성주의연구 제2소조와 말리쎄베니끄로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가이아나 셜리 필드 리들리 스퀘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으며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 주체사상연구학회, 오지리의 윈에 있는 김일성주석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있었다.

한편 소말리아에 있는 김일성도서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대한 해설강의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사설

4월명절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빛내이자

우리는 멀지 않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민족수난의 엄혹한 시기에 민족의 태양으로 거연히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은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기약해주는 조선의 영광이였으며 온 세계의 자주화의 려명을 안아온 력사의 장엄한 해돋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바쳐오시였으며 조국청사와 인류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함께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일찌기 없었던 일대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그 은혜로운 빛발아래 우리 재일동포들은 가장 긍지높고 존엄있는 주체형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고 보람찬 삶의 길을 걸어나가게 되였다.

특히 이국땅에 사는 우리는 오랜 애국활동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 다하여나갈 때에만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이 있으며 재일동포들의 영원한 행복과 재일조선인운동의 휘황찬란한 래일이 있다는것을 불멸의 진리로, 드팀없는 신조로 가슴뜨겁게 체득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잃었던 조국을 되찾고 오늘의 보람찬 삶을 누리는 우리 재일동포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76돐을 열렬히 경축하는것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절절한 요구이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이 되는 력사적인 해에 4월명절을 우리모두의 뜨거운 충성심과 빛나는 사업성과로 경축하는것은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총련 각급 조직들은 내외반동들이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환경속에서도 우리 민족과 인류공동의 대경사날인 2월명절을 종래에 없던 규모로 성대하게 열렬히 맞이하였던것처럼 4월명절을 전군중적으로 빛내이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총련 각급 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릴것이다.

특히 4월명절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수록한 도서 《위대한 사랑의 길》에 대한 아침집체독보와 감상모임을 반드시 조직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총련 각급 조직들은 비전임 및 분회 일군들, 젊은 동포들과 상공인들을 비롯한 보다 광범한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한없이 경모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실속있게 벌릴것이다.

이와 함께 4월명절을 경축하는 대회와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을 높은 정치적수준에서 전군중적으로, 성대히 조직진행할것이다.

당면하여 전체 총련일군들은 비데오록화편집물을 들고 분회와 동포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내외원쑤들의 모략소동을 철저히 폭로하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림으로써 학생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비롯한 애국과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것이다.

모두다 4월명절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전기관적, 전군중적으로 벌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경축하고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나가자.

《남조선괴뢰들의 모략은 완전히 박산났다, 대결정책을 당장 그만두라》

모략임이 명백해졌다

조선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 이와이 아끼라

나는 려객기의 행방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된 《마유미》의 《자백》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어쨌든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앞에서 《마유미》가 《자백》한 내용은 아무런 신빙성도 없다.

이번에 정희선녀성의 증언에 의해서 남조선당국의 발표가 모두 날조된 모략이라는것이 명백해졌다.

또한 《은혜》에 관한 정보도 그 이름과 주소조차 불명하다는것은 이상하다.

이로부터도 남조선당국의 발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용할수 없다는것이 폭로되였다.

정희선증언은 근본적반증

일본대학 교수 이따꾸라 히로시

《마유미》의 《자백》에 관해서는 그것이 어떤 상황하에서 행해졌는가 의문되는 점이 많았다.

일본에서는 《자백》만으로는 공판을 유지하는것자체도 어렵다.

그런 속에서 이번 《꽃다발을 준 소녀는 나》라고 하는 정희선녀성의 증언은 근본적인 반증으로 된다.

《마유미》의 《자백》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할수 있다.

《안기부》의 완전한 창작극

변호사 도꼬이 시게루

《꽃다발을 준 소녀는 나》라고 하는 정희선녀성의 증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문시된 《마유미》란 녀성의 《자백》이 남조선《안기부》의 완전한 창작이며 모략이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마유미》의 《자백》은 객관적증거의 아무런 보증도 없으며 그 내용은 진짜 범인만이 알수 있고 비밀의 폭로라고는 할수 없어 모순에 찬것이다.

중세의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한 시대를 제외하고 근대적형법체계하에서 《마유미》의 《자백》을 채용하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일본언론계의 보도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오사까경제법과대학 교수, 영화감독 오까모도 요시히꼬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비행기의 기체발견이지만 남조선은 그 노력을 하지 않고있다.

이번 사건에서 리득을 얻은것은 남조선과 일본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범인인가 하는 결론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진짜 범인인가 대체로 알고 있었지만 정희선녀성의 증언을 발표한 15일의 총련의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더더욱 명백해졌다.

《안기부》의 《발표》를 지난 시기의 《다이홍에이발표》와 같이 보도하고있는 일본언론계는 보도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동포들 계속 규탄

반동들에게 결정적타격을

녀성동맹 미에현본부 마옥순부위원장

이번의 구체적인 물적증거앞에서는 내외반동들도 꼼짝 못할것이다.

우리 동포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있다.

우리는 조국에서 성명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건 놈들의 완전한 모략이다》는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여왔지만 이것으로 더욱 힘이 난다.

우리는 총련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발가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즉각 관하동포녀성들과 함께 각종 선전물을 가지고 적극 가두선전에 나가 이 사건의 진상과 반동들의 정체를 알려나가겠다.

동포들을 모략을 짓부시는 투쟁에로

총련 효고현 니시고베지부 와까마쯔분회 정의행분회장

남조선려객기사건은 처음부터 의문으로 가득찬 사건으로서 그것을 따져가면 남조선《안기부》의 자작극이라고 밝혀지는것은 시간적인 문제였다.

이번에 내외반동들의 모략을 짓부시는데 새로운 뚜렷한 물적증거를 내놓았으니 얼마나 속시원한지 모른다.

이것을 자기자신이 분회관하 모든 동포들에게 알려나갈것이다. 하루빨리 분회위원들과 상의하여 보다 많은 동포들과 일본인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며 동포들을 내외반동들의 모략을 짓부시는 투쟁에 불러일으켜나갈것이다.

조국인민들이 계속 《팀 스피리트》연습 중지 요구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모임이 평양의 룡성고기가공공장, 순안구역 택암협동농장, 력포구역 소삼정협동농장 그리고 김책공업대학, 경공업대학, 상업대학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 연설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북침을 노린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들은 지금 미제가 남조선에 침략군과 전쟁물자수송을 본격화하는 한편 상륙작전훈련과 항공락하훈련 등을 맹렬히 벌려놓고있는 사실에 언급하면서 이번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북침전쟁준비를 완료한 단계에서 벌리는 불장난인것으로 하여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놈들의 모든 군사적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방심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전체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놈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실것을 호소하였다.

재미교포청년을 집중사격하여 살해

미제살인귀들의 귀축같은 만행

10대의 경찰 순찰차와 직승기까지 동원하여 총을 란사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지난 8일 미국의 한 도시에서 미제살인귀들이 무고한 재미교포청년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살해된 청년은 올해 21살나는 리홍표이다.

그는 이날 새벽 차를 몰고 미국의 로스앤질러즈에서 동남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거리인 이스트 카운톤의 한 도로상을 달리고있었는데 갑자기 순찰차를 탄 미국경찰들이 나타나 당치 않은 구실을 붙이며 통행을 가로막았다.

청년이 그에 항의하면서 계속 차를 몰자 미국경찰놈들은 10대의 순찰차와 직승기까지 동원하여 그의 차를 추격하면서 미친듯이 총을 란사하였다.

리홍표청년이 차를 더는 움직일수 없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야수들은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계속 집중사격을 퍼부어 청년을 끝내 살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살인만행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피를 보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 흡혈귀이며 조선사람을 민족적으로 천대하고 멸시하면서 그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화근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이래 40여년간 수많은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지어 미국에 이민간 조선사람들에 대해서도 온갖 악독한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에만도 모노코라는 미국작가란놈이 잡지 《로닝스톤》에 남조선사람들은 《접시모양의 얼굴을 가진 로보트》갈다느니 《련탄갈이 시커먼 눈》을 가지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모독하는 망동을 부렸으며 미국경관놈은 뉴욕에 사는 교포인 김성렬과 그의 처가 경영하는 식료품상점에 뛰여들어 그들을 때리고 총질까지 감행하고서도 오히려 그들이 행패를 부렸다고 허위고소를 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모독행위와 범죄행위는 재미교포들속에서 응당한 항의와 분노를 일으켰다.

그런데 재미교포들의 이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아직 가라앉기도 전에 리홍표청년에 대한 학살만행이 또다시 자행되였다.

재미교포들은 미국정부측에 항의를 들이대고 리홍표청년의 사망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그러자 바빠맞은 미국경찰측은 파렴치하게도 교통법위반이라느니 방위를 위해 총을 쏘았다느니 뭐니 하고 도리여 고인에게 죄를 넘겨씌우면서 발뺌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안고 일떠선 재미교포들과 남조선인민들은 놈들의 범죄행위를 세상에 고발하는 동시에 놈들을 기어이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향도의 해발 우러러

영광의 자욱을 따라

혁명의 수도 평양은 날마다 그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이르는곳마다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나고 웅장화려하고 현대적인 거리들이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있다.

수도건설에 깃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대하여 평양시 행정및경제지도위원회 강처한부위원장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

인터뷰 평양시 행정및 경제지도위원회 강처한부위원장에게 듣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먼저 락원거리에서

질문; 1970년대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도시건설의 구상을 펼치신 락원거리에 대하여 듣고저 한다.

대답; 《보통강반의 새 기적》이라고 불리운 락원거리는 실제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도시건설구상에 따라 설계되고 건설된것이다.

나는 1975년 3월에 함경도일대를 현지지도하시는 그이를 사흘동안 몸가까이 모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받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수도건설을 심려하고계시는데 평양시건설을 빨리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전망을 펼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주체적건축사상이 활짝 꽃피게 합시다.

우리는 공산주의리상거리를 만들자는것입니다.》

바로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살기 좋은 리상거리를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먼저 락원거리에서 실현하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평양시와 나아가서 온 나라에서 구현하시려는것이였다.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고 어려워도 락원거리에 3천세대의 살림집을 어떻게 하나 건설함으로써 우리가 마음먹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하자는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결심이였다.

사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예견된 자재로써가 아니라 전국이 달라붙어 통이 크게 해보자고 건재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동원하여 증산예비를 찾아내도록 하는 등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그 바쁘신 속에서도 락원거리가 건설되는 전기간 거의 이틀에 한번씩 몸소 현장에 나오시여 형편을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시였다.

완공된 살림집을 돌아보시였을 때는 가정생활의 온갖 편의와 문화성을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인 가정용 설비들과 가구들을 갖추고 주민들이 식기와 이불만 가지고 이사오면 불편없이 살수 있게 하도록 할데 대하여 등 참으로 세심하게 지도하여주시였다. 또한 주민구획에 밥공장, 세탁소, 탁아소 등을 지으며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을 배치할데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락원거리는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웅장하고 화려한 현대적거리로 건설되게 된것이다.

락원거리건설이 끝난후 낡은 거리를 통채로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시여

쓸어버리고 창광거리를 그리고 그것을 본보기로 근 2만세대의 고층살림집들로 숲을 이룬 문수거리를 일떠세우시였다. 오늘은 아시다싶이 광복거리건설을 직접 이끌어주고계신다.

대담하고 통이 크게, 모방과 류사성을 반대

질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수도건설구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답;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도시건설구상에는 두가지 원칙이 결부되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평양을 인민의 수도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는것과 수령님을 모신 혁명의 수도로 꾸리려는 인민의 념원을 실현하는 두가지 원칙을 견지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이와 같은 독창적인 구상을 펼치시여 주체건축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주체사상탑, 개선문 등이 솟아남으로써 그이를 모신 수도로서의 풍격과 면모를 갖추게 되였고 특색있는 기념비적건축물들과 현대적고층살림집들이 잘 배합되여 수도중심부에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게 되였다.

질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중요한 특징과 그 생활력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대답; 언제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담하고 통이 큰 건설작전을 펼쳐나가신다. 모든것이 건설규모에 있어서나 질적수준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것이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설계일군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하도록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

지금 건설하고있는 광복거리도 첫째로는 통이 크게 건설하는것이다. 광복거리는 팔동교로부터 만경대갈림길까지 6키로메터구간에 천수백메터의 폭을 가지고 건설되고있다. 현대적살림집은 25,000세대, 그외에도 학생소년궁전, 교예극장, 청년려관 등이 수많이 건설되고있다. 거리의 중심도로는 100메터의 폭으로 펼쳐지고있다. 이 방대한 건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대담하고 통이 큰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비반복성의 원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건축창조에서 견지하고계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이께서는 반복은 죽음이라고 하시면서 모방과 류사성을 반대하신다.

이것으로 하여 도시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오늘 일떠서고있는 모든 크고작은 건축물들은 다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이 배합된 다양하고 생동하며 독특한 형식으로 건설되고있고 거리마다 각이한 특색을 가지게 형성되고있다.

도시건설이야말로 위대한 사상, 리념

질문; 우리 나라의 수도건설에 대한 세계적인 반향에 대하여 듣고싶다.

대답; 나는 여러 나라 도시들을 돌아보았지만 평양은 온 세상에 자랑할수 있는 도시이다.

일본에서 진행된 건축가들의 모임에 참가해본적이 있다. 그때 외래문화와 건축, 전통에 대하여 이야기되였다. 민족전통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립장에서 외래문화를 섭취하는 문제가 이야기되였는데 평양의 모습을 화면으로 본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 수도건설을 찬양하고있었다. 자본주의나라에서 부닥치고있는 모순을 조선에서는 해결하고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남조선에서 왔다는 사람은 나더러 찾아와 이북에는 아세아건축의 미래가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의 여러곳을 보았는데 기능, 합리성만을 추구하는바람에 무미건조한 도시로 느껴졌다.

인간성이 없는 건축은 민족성을 마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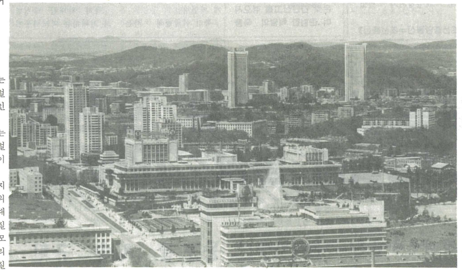
내가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를 개별적으로 400여차례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니 한나라의 령도자가 그처럼 건축에 조예가 깊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화예술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정치, 경제, 철학 그리고 건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탁월한 식견과 깊은 조예를 지니고계신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시여 도시건설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도시건설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있다는 일본의 한 기자는 《도시건설은 한개 기술공학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고있었지만 조선에 와보고 도시건설이야말로 위대한 사상, 위대한 리념이라는것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과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끝)

(본사기자 박정숙)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다양하게 배합한 평양시건축물들

우리 학습실

계급교양은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적인 력량입니다. 로동계급의 령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일심단결할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습니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로서 그것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된다.

그러면 왜 계급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로 되는가.

첫째로, 로동계급이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적인 력량이기때문이다.

둘째로, 로동계급의 령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일심단결할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기때문이다.

문헌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만 근로자들이 적아를 옳게 갈라보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롯한 계급적원쑤들과 직접 맞서 혁명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계급교양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계급적원쑤들이 지금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 조건에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도,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도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 창설 25돐기념보고회

【평양 3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 창설 25돐기념보고회가 17일, 현지에서 있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죤총국 전체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축하문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1963년 3월 3일 당사상전선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을 창설하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북이야말로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이 지배하고있다》

공화국에 의거한 손학수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남조선강점미군 제2사단본부군속 수송관을 하다가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하여온 손학수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가 16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있었다.

집회에서는 손학수에게 국기훈장제3급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그에게 훈장과 거액의 상금이 수여되였으며 기념품들이 전달되였다.

집회에서 환영사를 한 평양시 행정및경제지도위원회 리득렵부위원장은 손학수의 공화국북반부에로의 의거는 민족의 량심과 인간의 도리에 맞는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며 의로운 애국적소행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최근년간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해오는 동포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이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 일하며 참된 삶을 꽃피우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앞으로 손학수도 따사로운 공화국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집회에서는 이어 손학수가 답사를 하였다.

그는 이북에 와서 제일 긍지를 가지고 대하는것은 이북민중이 자기의 사상, 주체사상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단합되여있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특히 나는 평양시내 여러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모든 국민들이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는것을 보고 공화국의 막강한 위력이 과연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 것인가를 잘 알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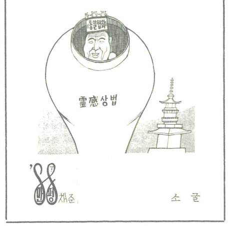
그리고 미국놈들이 왜 이북을 그렇게도 두려워하고있는가 하는것도 똑똑히 알게 되였다.

그는 이북에 와서 크게 감명을 받고있는것은 또한 이곳에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이 지배하고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철저한 자주정치를 하는 공화국과는 상반되게 남조선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실권이 미제에게 쥐여져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이남의 실제적주인은 미국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은 매우 위험한 북침전쟁훈련이며 핵전쟁연습이라고 하면서 미제침략자들이 이남땅을 강점하고있는 한 우리 나라는 잠시도 편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남민중은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선생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의지하면서 그 모진 폭압속에서도 위대하신 장군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우리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경모하고있으며 진정한 민중정치가 베풀어지고있는 이북을 끝없이 동경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소금

목소리

참을수 없는 멸시

나고야시의회에서 자민당소속 스기우라 쥬따로의원이 재일조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늘어놓아 물의를 일으켰다. 그것은 시의회의 건축교통부회에서 있은 일이다. 미나도구의 [illegible]

혹한 식민지통치가 감행됐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을수 없다. ▼《무단정치》에 의한 총칼의 탄압을 감행한것도, 그 무슨 《토지조사사업》이라 하여 조선농민으로부터 땅을 빼앗아낸 [illegible]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 6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평양 3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 6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17일 사로청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최룡해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그는 1982년 3월 18일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식민지적지배에 항거하여 미제의 사상문화적침략도구인 부산《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미국 나가라!》,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규탄한다》라는 삐라를 뿌리면서 과감한 반미투쟁을 벌린 사실에 언급하면서 그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애국투쟁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반미투쟁으로 확고히 돌려세웠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최근년간 도처에서 미국 《성조기》를 불사르고 미국대사관과 《워커힐》, 《미국문화원》 등을 련이어 공격, 방화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6월인민항쟁을 통하여 반미구국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는 반미자주화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고있는 그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그는 남조선인민들이 빼앗긴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고 자주적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반미구국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로태우군사파쑈독재정권을 쓸어버리고 참다운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선 초미의 문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고 전쟁위험이 없는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반전, 반핵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감하게 투쟁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남조선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인민들은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돌파구를 열어놓게 될 북남련석회의를 하루빨리 성사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올 때도 갈 때도 꽃다발을 준것은 저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당시의 상황은 말한다

정희선과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

11월 2일 학교에서 색동저고리로 갈아입고 비행장으로 직행

11월 2일. 이날 오전중 수업을 받고있던 정희선은 소년단지도원선생이 급히 부른다는 련락을 받고 소년단원실을 찾았다.

소년단원실에는 정희선만이 아니라 금성중학교에서 배우는 녀학생들도 함께 와있었다. 정희선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였다. 그들은 무슨 용건으로 불리웠는지 몰랐기때문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 자리에는 소년단지도원선생외에 낯설은 선생(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는 남조선측대표들을 영접하는 현장의 실무일군)이 한사람 앉아있었다.

정희선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오늘 제2차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남조선측대표들을 마중하는 행사에 참가하게 되였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그래서 정희선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마중하기 위하여 다른 녀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색동저고리로 갈아입고 소년단원실에 앉아있었던 선생의 안내로 승용차를 타고 력포구역에 자리잡은 비행장(남북조절위원회를 위하여 급히 만든 직승비행기용의 비행장)으로 직행하였다.

정희선의 말

《그날 아침 수업중에 우리 학교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이 부른다기에 소년단원실에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저는 이제 곧 비행장에 나가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주는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5명의 학생들이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학교에서 색동저고리로 갈아입고 승용차로 력포구역에 있는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영접관계자 정성철씨의 증언

《11월 2일과 4일의 당일 관계자들은 평양시 중구역관내의 학교들에 나가 학교들에서 선발된 학생들, 색동저고리로 갈아입은 학생들을 승용차로 비행장에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한것은 다른 학교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장에 나간 소녀들은 평양시 중구역관내의 학생들

비행장에는 정희선이 다니는 금성중학교의 녀학생 5명을 비롯하여 평양시 중구역관내에 있는 학교들인 창전중학교, 련광중학교, 종로녀자중학교들에서 선발된 녀학생들이 동원되였다. 인원수는 25명이다. 모두다 학교에서 색동저고리로 갈아입고 비행장으로 온 학생들이였다.

정희선의 말

《비행장에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평양시 중구역관내의 학교들인 창전중학교, 련광중학교, 종로녀자중학교 등에서 선발된 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영접관계자 정재일씨의 증언

《당시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는 남조선측대표들을 환영, 환송하는 행사를 평양과 판문점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평양시사로청위원회와 개성시사로청위원회가 선발한 25명의 학생들이 각각 동원되였습니다. 그때 선발된 학생들을 보면 평양에서 중구역관내 학교들인 금성중학교, 창전중학교, 련광중학교, 종로녀자중학교들이였으며 판문점에서는 개성시의 만월녀자중학교, 선죽중학교, 동현녀자중학교들이였습니다.》

비행장에선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두번째에 섰다

비행장에 모인 녀학생들은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는 남조선측의 대표들을 마중하는 공화국측의 영접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나란히 섰다. 정희선은 두번째에 섰다. 이제 도착하게 될 남측대표들을 기다리는 그들의 얼굴은 자못 긴장하고있었다. 정희선의 바로 앞에는 창전중학교의 박옥심이 섰다. 옆줄 맨앞에는 정희선과 한학급에서 배우는 동창생인 남금숙이 섰으며 그 뒤로 김성희, 김정애들이 서게 되였다.

정희선의 말

《비행장에서 우리는 행사를 지휘하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나란히 서게 되였는데 저는 두번째에 서게 되였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동무는 같은 학급에서 배운 남금숙동무(사진①)이고 그리고 이 동무들은 김성희동무(사진②), 김정애동무(사진③)들이고 맨앞에 서있는 이 동무는 창전중학교의 박옥심동무(사진④)이고 그의 바로 뒤에 서있는 녀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영접관계자 정성철씨의 증언

《내가 남측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나 판문점을 통과할 때나 학생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11월 2일과 4일의 량일간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시를 했지요.》



정희선은 자기 둘레에 선 학생들의 이름을 남금숙동무(사진①), 김성희동무(사진②), 김정애동무(사진③), 박옥심동무(사진④)라고 구체적으로 들었다.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두번째로 걸어내려오는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녀학생들이 기다리고있는곳으로부터 얼마 안간 자리에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는 남조선측대표들을 태운 직승비행기자 쏙 내리였다. 대표들이 하나, 둘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정희선은 꽃다발을 다시한번 으스러지게 잡으면서 그 순간을 긴장하게 기다렸다. 그러던참에 현장에서 영접관계를 지휘하는 선생이 우선 박옥심에게 첫번째로 내려오는 대표인 리후락을 가리키며 《동무는 저 대표에게 가라.》고 등을 밀었다. 정희선은 그 영접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두번째로 걸어내려오는 남측대표인 장기영에게 소년단경례를 하고 꽃다발을 주고 넥타이를 매여주었다.

정희선의 말

《…우리는 헬리콥터에서 남측대표들이 내려서 걸어올 때 막 달려가서 자기가 주고싶은 사람에게 꽃다발을 준것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던 영접행사를 직접 맡아하는 선생님이 한명씩 〈동무는 저 대표에게 가라.〉, 이렇게 대주는데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두번째로 걸어내려오는 사람에게 가서 소년단경례를 하고 꽃다발을 주고 넥타이를 매여주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넥타이를 매여주었을 때 장기영은 〈붉은 넥타이를 왜 목에 매여주는가?〉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와있는 동안 우리들과 같이 지내달라는 그런 심정에서 매여줍니다.〉고 했던것이 아직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그때 장기영은 나한테 꽃다발의 꽃이름같은것을 묻지도 않았어요.》

영접관계자 정성철씨의 증언

《당시 내가 학생들의 곁에 있으면서 남조선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주는 행사를 현장에서 지휘했습니다. 사람들로 매우 붐비기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의 곁에 있으면서 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동무는 저 대표에게 가라.〉고 일일이 대주었습니다.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그 소녀는 내가 두번째로 걸어내려오는 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도록 지시한 정희선입니다.》



남측대표들에게 넥타이를 매여주는 학생들 (두번째가 정희선학생)

11월 4일 남측대표가 갈 때도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11월 4일 오후,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이 평양을 출발하였다. 정희선은 11월 2일의 행사에 참가한 금성중학교의 동무들과 함께 학교에서 색동저고리로 갈아입고 또다시 승용차를 타고 비행장으로 나갔다.

비행장에 모인 녀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11월 2일에 동원된 평양시 중구역관내의 학교들인 금성중학교, 창전중학교, 련광중학교, 종로녀자중학교의 학생들이다. 정희선은 이날에도 평양을 떠나가는 남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정희선의 말

《저는 장기영이 평양을 떠날 때에도 꽃다발을 주었어요. 저는 11월 2일에 비행장에 나가고 남측대표들이 출발하는 11월 4일에도 다시 비행장에 나갔어요.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 그렇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을 때 그는 저에게 〈공부 잘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통일을 위해 일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접관계자 정재일씨의 증언

《당시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측대표들의 일정은 2박 3일이였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남측대표들이 올 때에 꽃다발을 주는 소녀와 갈 때 꽃다발을 주는 소녀를 따로 조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측대표들이 올 때 꽃다발을 준 학생들이 그대로 남측대표들이 돌아갈 때에도 나서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붐비던 그 복잡한 속에서도 행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습니다.》

※ ※

제반 사실이 똑똑히 말하여주듯이 1972년 11월에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남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는 다름아닌 현재 평양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정희선녀성이다. 하기에 정희선녀성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소녀에 대하여 《이건 나다.》라고 하면서 《당장 그 〈마유미〉라는 녀자를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사진을 놓고 결판내고싶습니다.》고 분격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것이다. 《마유미》(《김현희》)란 녀자는 남조선의 괴뢰안기부가 남조선비행기사건을 놓고 자작자연극을 꾸며내기 위하여 저들이 길들인 앞잡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괴뢰악당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정희선의 어릴 때 모습을 두고 《김현희에 틀림없다》고 했으나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은 명백하다. 특히 귀모양의 차이는 한눈에 확연하다.

밀창이 다 드러난 괴뢰도당의 모략소동

하나에서 열까지 거짓으로 엮어진 《안기부》의 발표놀음

1972년 11월의 남북조절위원회당시 평양에 온 남측대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가 현재 평양에 있는 정희선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증거가 안받침되면서 밝혀짐으로써 괴뢰악당에 의한 추악한 모략소동의 밀창은 날날이 드러났다.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의 책임을 공화국에 덮어씌우기 위하여 괴뢰들은 저들의 앞잡이인 《마유미=김현희》를 《북의 공작원》으로 날조해내려고 온갖 소동을 벌려왔다.

이에 있어서 괴뢰들은 《김현희》가 중학시절에 평양에 온 남측대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는 사실을 날조해내여 몇장의 사진을 내놓은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진들의 허위성은 지난 2월 4일에 있은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날날이 폭로되였다.

그러자 괴뢰들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사진을 두고 그것이 《김현희가 틀림없다》느니, 《김현희자신이 인정하였다》느니 하는 엉터리조작극을 벌려놓은것이다.

괴뢰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는가 하는것은 지난 5일에 있은 《안기부》의 발표놀음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모략을 업으로 삼는 《안기부》깡패들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사진을 보이니 《김현희》가 《얼굴을 붉히》면서 《얼굴, 눈섭, 귀등의 모양이 꼭 같지요》라고 했다느니 뭐니 떠들었다.

그러나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정희선의 어릴 때 모습과 《김현희》가 닮지 않았다는것은 한눈에 알수 있으며 성장하여서도 너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귀모양이 전혀 다르다는것도 확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았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니 괴뢰들이야말로 파렴치한 모략군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뿐만아니라 《안기부》는 꽃다발을 줄 때 소녀들이 《평양시인민위원회의 행사부에 모였다》느니, 《뻐스》로 직승기비행장에 갔다느니, 꽃다발을 줄 때 장기영이 꽃이름을 물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마치도 《김현희》가 그때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말했듯이 꾸며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본사기자가 정희선과 만나 직접 확인한 결과 그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였다.

정희선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꽃다발을 준 소녀들은 있지도 않는 평양시인민위원회 행사부에 모인바도 없다. 소녀들은 학교에서 옷을 갈아입고 승용차로 비행장에 직행한것이며 또 동원된 소녀들은 중구역내에 있는 4개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로서 괴뢰들이 《김현희》가 다니던 중학교라 날조하던 중신중학교 학생들은 단 한명도 선발되지 않았던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안기부》의 발표놀음은 말 그대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조작이였던것이다.

괴뢰들은 거짓에다 거짓을 거듭하고 하나의 날조가 폭로되면 또하나의 다른 날조사실을 조작해내는 수법으로 모략소동을 끌어온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밀창은 다 드러났다.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것이 정희선이란것이 명백히 밝혀짐으로써 《김현희》가 《안기부》앞잡이임은 온 세상에 드러난것이다.

이것은 소위 《김현희》의 《자백》만에 의거한 《안기부》의 비행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된 《수사보고》가 거짓으로 엮어진 작문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이런 1세일군을 우리는 자랑한다

총련 오사까부 이꾸노남지부 조동춘비전임부위원장

갖은 풍파 이겨내고 오늘까지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켜온 1세동포들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지 오래된다.

조국과 조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1세동포들.

고령과 건강상태로 하여 비록 애국사업의 제1선에서는 물러섰지만 조직을 위해, 애국을 위해 불편한 몸에 채찍질하면서 계속 충성의 붉은 꽃을 피우는 1세일군들의 모습을 우리는 수많이 보게 된다.

총련 오사까부 이꾸노남지부 조동춘비전임부위원장.

바로 그도 고령의 몸으로 병마와 싸우면서 애국사업에 높은 열성을 다 바치고있는 일군들중의 한사람이다.

멈출줄 모르는——
——애국의 발걸음

2년전의 11월, 거의 만성화된 당뇨병이 심해져 병상에 누운(공화병원) 조부위원장의 가슴은 몹시 아프기만 하였다.

(오늘까지 몇십년동안 애국사업을 해왔는데 이젠 그만두어야 한단 말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의 몸이 원망스러웠다.

고민과 한탄으로 번민하던 그의 눈앞에는 지난날들이 선히 떠올랐다.

재봉기 한대를 가지고 6식구가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에서 학교사업을 위해, 분회사업을 위해 모든 열성을 바치던 나날,

조국과 총련조직에 더 크게 이바지하자고 재봉기를 처리하고 전임일군으로 나서던 일, 아들딸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좋은 놀이감도 못사주고 안해에게 고생만을 끼쳐오던 나날,

가정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아들 3형제를 전임일군으로 내보내고 동포들의 신망과 기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자고 안깐힘을 쓰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모든 일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이였다.

그 나날은 부위원장에게 있어서 아주 보람차고 참다운 세월이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병으로 누워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한순간도 투쟁을 멈출수 없습니다. 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야 하며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합니다. 중도반단함이 없이 투쟁을 계속하며 끊임없이 전진하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의 인생행로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 내용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만히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그처럼 갈망하던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애국사업에 끝까지 헌신하여야 한다.

이런 형편속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가?

사색하고 사색하였다.

그당시 공화병원 환자들에게는 《조선신보》가 매일 배포되지 않고있었다.

오래동안 애국사업을 해오던 그들이 병상에 누웠다고 하여 신보를 못본다면 그것은 그대로 애국사업을 멈추는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렇다, 내가 그들에게 신보를 갖다주자.

그는 그날로부터 지부의 신보배포사업을 맡아나섰다.

그의 사업이란 본부에서 가져온 신보(약 30부)를 지부와 상공회, 공화병원, 만수약국 그리고 거주분회 동포들에게 배포하는것이다.

신보배포사업을 지부에서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것도 아니다.

또한 말릴 사람은 있어도 안했다 해서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은 없었다.



조부위원장은 애국애족의 뜨거운 넋을 안고 오늘도 병상에 누운 동포들에게 《마음의 약》을 안겨주고있다.

《좀 나이를 먹었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또 비전임이 되였다고 하여 물러선다면 그런 애국심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아닙니까.》

이러한 신념이 있음으로 하여 그는 67살이란 나이와 건강이 좋지 못한 조건도 무릅쓰고 지부의 신보배포사업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장하고있는것이다.

계속 충성의——
——꽃을 피우자

《환자들에게 있어서 신보는 약보다 중요하지요.

입원하면 자연히 우리 정세에 대하여 어두워지기 마련이지요. 병상에 누워서도 끝까지 애국사업에 헌신하자는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신보를 항상 갖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약 반년동안이나 입원생활을 하고있을 때도, 병원에 계속 있는것보다 집에서 치료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퇴원한후에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신보를 배포하고있다.

병의 영향으로 하여 그의 눈은 멀어져 도가 강한 안경을 써도 신문을 잘 읽지 못한다.

또 그의 가슴엔 아직도 바늘로 약을 보내는 기계가 한시도 놓지 못한채 남아있다.

식사도 조심해야 하고 술도 못마시며 매일처럼 병원을 다녀야 한다.

그러나 그는 아침 6시에는 일어나 간단한 운동과 아침식사를 하고난 즉시로 집을 떠난다.

자전거를 타고 약 2시간 걸리는 신보배포사업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도 불편한 몸으로 매일 보장한다는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와 분회에서 책임적인 임무를 맡고, 또한 전임으로서 오늘까지 20년동안이나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헌신하여왔는데 계속 이 길에서 충성의 꽃을 피워야지요.》

병상에 누운 동포들에게 신보를 갖다주고 그들이 조국과 총련조직의 소식에서 새힘을 얻고 계속 나설 결의를 다지는 모습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그들이 하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가 그 어떤 약보다 좋은 특효약이라고 부위원장은 말한다.

이곳 지역에서 오늘까지 오래동안 살면서 애국사업을 해온 그를 동포들은 친아버지, 친할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르며 생활상 고민까지 털어놓는다.

동포들이 무슨 교통사고를 맞았다고 하면 그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것을 돌봐주며 원만히 해결해주니 부위원장에 대한 동포들의 신망은 참으로 높다.

《나는 오늘까지 자기만이 아니라 아들들도 애국사업에 나서라고 키워왔지요.

예술가, 교원, 언론인으로 떳떳이 자라난 아들들 못지 않게 나자신 자기 몸이 움직이는 한 애국사업을 해나가자고 맘먹고있습니다.》

몸은 불편하고 나이를 먹어도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고 조금이라도 애국사업에 도움을 주자는 그의 순결하고 뜨거운 애국심.

조동춘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1세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바치는 충성심, 애국충정에 의하여 우리 총련조직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것이다. (본사기자 진상부)

취재길에서

잊을수 없는 졸업식날

가나가와조고 졸업생들이 부모와 교원들을 위한 《사은회》

뭇사람들의 추억속에 자리잡은 《잊을수 없는 일(날)》.

그 가운데 졸업식은 각별한 감흥과 함께 기억되여있을것이다.

가나가와조고 올해 졸업생들에게 있어서도 지난 3월 6일의 졸업식은 평생 잊을수 없는 일로 되였다.

뿐더러 그들을 가르친 교원들과 18년간 고이 고이 키워온 부모들에게 있어서도 잊을수 없는 날이 되였다.

지난해 4월 고3에 진급한 학생들은 졸업식까지 자기들의 학력 제고와 함께 졸업행사를 위한 적금을 시작하였다.

졸업기념품, 수학려행 등등…

학생들은 행사가운데 《선생님들과 부모들을 위한 사은회》조직을 비밀리에 붙여 준비하였다.

졸업식당일 학생들모두가 꽃다발을 준비했었다.

학생대표들이 교원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졸업식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이 벌어졌다.

그런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손에 쥐여진 그 꽃은 누구한테 주어지는것인지.

한 어머니는 《애야, 어서 선생님께 드려라.》고 재촉까지 하였다 한다.

그러자 《어머니, 이것은 따로 줄 사람이 있어요.》라고 태연히 대답하는 딸.

졸업식이 끝난 뒤 방송이 들려왔다.

《졸업생들의 부모님들은 문화회관에 모여주십시오.》

무엇때문에 다시 부르는 것일가.

학부모들이 서로 의아해하면서 회장안에 들어서니 식탁이 준비돼있었다.

졸업하는 아들딸과 부모가 마주앉도록 자리가 정해졌었다.

름름하게 자란 자식의 자랑스런 표정에 누구나 가슴흐뭇해졌다.

그러는데 졸업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꽃다발을 부모들에게 안겨주는것이였다.

18년간의 나날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고3이 되여 어른스러워진 아이들.

공부를 잘하여 중앙학과경연대회에서 학년상의 영예를 지녔고 모범창조운동을 잘하여 조국방문의 행복에 휩싸인 그들.

《사은회》장은 부모와 자식들간의 사랑과 함께 민족교육을 받은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넘쳐났었다.

재학생의 한 아버지가 《우리 애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지.》라고 한 말이 인상적이였다.

괴뢰도당들의 모략책동을 날날이 폭로규탄

조청중앙의 주최로 조선반도의 정세강연회 진행



대내외청년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진행된 《최근의 조선반도정세에 관한 강연회》

대내외청년들 320명이 참가

《최근의 조선반도정세에 관한 강연회》가 17일, 도꾜 총평회관에서 조청중앙 주최로 대내외청년들 320명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강연회에서는 먼저 주최자를 대표하여 조청중앙 김학수위원장이 인사를 하였는바 그는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내외반동들의 모략을 규탄한 다음 참가자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를 더 잘 리해함으로써 조일련대를 더욱 확고한것으로 하자고 호소하였다.

강연회에서는 마에다 야스히로씨(져너리스트)가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사건의 큰 의문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남조선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일본정부와 그에 발걸음을 같이하는 일본언론출판계에 대하여 비난을 하였다.

이어서 조선신보사 사회부 부장이 강연을 하여 1972년 11월에 남조선대표에게 직접 꽃다발을 증정한 정회선녀성의 증언을 비롯한 구체적인 물적증거를 제시하면서 남조선괴뢰도당의 모략책동을 폭로규탄하였다.

강연회참가자들은 강연을 통하여 이번 사건이 남조선괴뢰도당이 자작자연한 모략극이란것을 재확인하였으며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에 분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사청동전국협의회 사무국장인 가따오까 마사히데청년은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해서는 나도 불쾌한 느낌을 가지고있었고 반드시 사실을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오늘 평양에서 찍어온 비데오를 통하여 구체적사실들이 나왔으니 마음이 시원해졌다.

나는 이번 사건을 일본정부와 언론출판계들이 너무나 악용하고있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느낀다.

나는 앞으로 일조련대와 남조선의 민주화 지지 그리고 정치범의 석방을 위한 투쟁 등 여러 문제에 더욱 관심을 돌릴것이다.》고 말하였다.

총련 오까야마현 미마사까지부에서 정세강연회 진행

총련 오까야마현 미마사까지부가 쯔야마지역에 있는 고용로동쎈타에서 조선정세강연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86명의 일본인민들을 비롯하여 동포, 상공인들 118명이 참가하였다.

강연회에서는 비행기실종사건의 진상과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총련중앙 국제국일군이 강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본정부에 항의전보를 보냈다.

이곳 지부에서는 강연회와 함께 일본인민들과의 사업을 꾸준히 벌려 많은 사람들에게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보이며 선전자료배포사업도 벌리고있다. 【오까야마지국】

자치로돗도리현본부에서 특별결의문 채택

자치로 돗도리현본부가 15일에 있은 제50회 림시대회에서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는 일본정부는 《제재조치》를 철회하여야 하고 올림픽공동주최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지적되였다.

이 결의문은 일본총리대신과 외무성에 송부되였다. 【돗도리지국】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23일 (음력 2월 6일) 수요일 【루계 제10164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명령을 하달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하여

【평양 3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가 오늘 이곳에서 발표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남조선전역에서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 침략적인 전쟁연습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20여만이 참가하며 각종 신형작전장비들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륙무기들이 동원되고있다.

지금 미국본토와 괌도,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아세아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들에서 투입된 미제침략군의 각 군종, 병종 부대들이 분계선가까운 남쪽지역으로 집결되고있으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또한 미제침략군의 조기경보기 《이—3에이》, 전략폭격기 《비52》, 핵무기를 적재한 전투폭격기 《에프—16》, 《에프—15》를 비롯한 각종 비행기들과 수많은 호위함과 보조함을 동반하는 항공모함전단, 핵무기를 적재한 전함들이 우리 나라 수역으로 몰려들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극도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이 감행하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악랄한 공격작전연습이며 극히 위험한 핵전쟁연습이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도 점차 완화의 징조를 보이고있으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바라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기대와 념원에 부합되게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단계적무력축감제안, 민족단합 5개 방안 등을 련이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특히 우리는 올해를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한 몇가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려객기실종사건을 조작하고 대대적인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며 《서울올림픽안전담보》의 연막밑에 무력증강책동을 로골화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으며 더 나아가서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여나섰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과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미제는 오래전부터 침략적인 대아세아전략에 따라 미국, 일본, 남조선 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쳐왔으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 군사기지들을 늘이고 핵무기와 여러가지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가장 위험한 전쟁화약고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해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으며 이 훈련을 매우 위험하고 모험적인 핵시험전쟁연습으로 전환시켰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올해에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은 긴장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며 아세아와 세계를 열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흉악한 도발책동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새로운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있는 극도로 위험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동원된 15만명의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도 임의의 시각에 긴급출동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며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대결과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우리를 함부로 위협하며 건드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히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인민은 신성한 조국땅과 자기의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서 싸울것이며 원쑤들에게 천백배의 보복을 가할것이다.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과 전체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일거일동을 날카롭게 주시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원쑤들의 그 어떤 전쟁도발책동도 제때에 철저히 짓부셔버릴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며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철벽으로 지킬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연습소동과 반공화국, 반총련모략극을 견결히 규탄한다

—각지에서 강연회와 가두선전—

조은아이찌본점 신축 1주년 기념 조일경제인간친회 조직

4000여명 참가

조은아이찌신용조합은 본점 신축 1주년을 기념하여 18일 조일경제인들의 간친회를 본점강당에서 성대히 가지였다.

여기에는 총련 아이찌현본부 강윤경위원장을 비롯한 현하의 동포상공인들과 조은 리사, 총대들 250여명 그리고 일조의련 구노쮸지회장, 일본사회당현본부 모리시다 아끼시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현의회와 시의회 의원들, 경제계, 금융계, 학자, 문화인 등 일본인사 150여명 합계 400여명이 참가하였다.

간친회참가자들은 본신용조합 박일락리사장의 사회밑에 기록영화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본후 《마이니찌신붕》이전 서울특파원이였던 마에다야스히로씨의 강연을 들었다.

《최근 조선반도의 정세와 일본》이란 제목으로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허위성과 그로 인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강의한 그는 우선 칼기실종사건은 남조선에서 군정을 지속시키려는 미국과 일본, 로태우일파에 의하여 치밀히 계획되였고 반공화국을 목적으로 한 매우 악의에 찬 모략사건임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증명하였다.

특히 그는 강연에서 칼기실종사건이 그 어떤 물적증거의 제시도 없이 어느새 《마유미(김현희)사건》, 《리은혜사건》으로 바뀌여져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으로 확산된것은 미국과 로태우일파의 음흉한 정치적의도를 적극 부추겨주고 또 성사시켜준 일본당국과 일본매스콤의 엄중한 죄과, 책임이라고 경고하였으며 비행기실종사건은 《국가비밀법》, 《유사립법》을 반대하는 일본국민의 문제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일본의 국민들이 이번 비행기실종사건의 허위성과 진상을 철저히 밝혀나가야 한다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다.

기록영화와 강연은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감명과 모략과 허위만을 일삼는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분격을 안겨주었다.

동포상공인들은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비행기실종사건을 꾸며내고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만을 일삼는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해하고있었다.

메이낭상공회의 조경제상공인은 《려객기실종사건을 폭로한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소식에 이어 오늘 영화를 보고 강연을 들으니 정말 속이 시원하다.

앞으로도 미제의 선전과 일본매스콤, 모략을 업으로 삼고있는 남조선〈안기부〉의 그 어떤 발표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것이다. 오직 우리 공화국만을 믿고나갈것이다.》고 말하였다. 젊은상공인협의회인 《비쇼까이》의 리박수상공인은 《미제와 일본, 로태우도당의 무분별한 모략소동으로 우리 조국의 긴장상태는 지금 최고도에 달하였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젊은이들이 총련조직에 굳게 집결하여 놈들의 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나가야 한다.》고 젊은 상공인들에게 말하고있었다.

특히 마에다씨의 강연과 영화는 이날 모인 일본의 정계, 재계, 경제계 인사들에게 커다란 감명과 형언할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이어 진행된 연회에서 간친회참가자들은 도까이조선가무단의 공연을 보았다.

※ ※

내외원쑤들의 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실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간친회는 조은아이찌본점의 대담하고도 치밀한 조직사업에 의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조합에서는 모든 리사, 총대, 후원회역원들이 1명이상의 일본인사를 데리고 간친회에 참가하도록 구체적인 분공을 하고 그에 대한 지도방조를 치밀하게 짜고들었던것이다.

그리고 참가자전원에게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보이고 공화국의 성명, 론평이 실린 선전물, 이번 비행기실종사건을 특집한 《조선자료》 3호와 《슈깡다이슈》를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조은아이찌본점 신축 1주년기념 조일경제인간친회

녀성동맹 도꾜도본부관하 일군, 동포들 가두선전

녀성동맹 도꾜도본부관하 일군들이 19일 오후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남조선괴뢰들과 미일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가두선전을 벌렸다.

제이아르 다까다노바바와 시부야 역두에서 있은 가두선전에서는 60여명의 일군들과 동포녀성들이 2시간에 걸쳐 2만장의 삐라와 선전물을 길가는 일본인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날 가두선전에 참가한 녀성동맹 기다지부관하 리가영녀성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평화제안을 외면하고 해마다 군사연습을 감행할뿐만아니라 있지도 않는 모략사건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영영 두개로 갈라놓으려고 미쳐날뛰는 군사독재정권과 그를 부추기는 미일반동들에 대해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합니다.》고 말하였다.

일군들과 동포녀성들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대중정치선전사업을 힘차게 벌려 더 많은 일본인민들에게 놈들의 파렴치한 모략책동의 본질을 까밝히며 북남련석회의의 실현을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강화할 결의에 충만돼있었다.

또다시 폭로한다, 날조극의 정체를

《김현희》라고 한 록화물의 소녀, 《소년단경례》의 소녀들을 만났다

본사기자

본사기자는 얼마전에 1972년 11월에 진행된 제2차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남측대표인 장기영에게 판문점에서 꽃다발을 준 림윤복(현재 개성시에 거주, 개성신문사에 근무)과 1972년 8월에 진행된 남북적십자회담때에 남측의 수석대표에게 꽃다발을 준 왕영숙(현재 개성시에 거주, 유치원 교양원)을 만나 취재하였다.

아다싶이 남조선의 괴뢰안기부는 《김현희》가 1972년 11월 2일에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장기영에게 평양에서 꽃다발을 준 소녀라는것을 날조하면서 몇장의 허위사진을 《공개》하였다. 괴뢰안기부가 발표한 사진 즉 텔레비죤의 희미한 록화물에 나오는 소녀와 《소년단경례》를 하는 소녀의 사진이다. 이 사진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미 지난 2월 4일에 있은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사진들이 교묘하게 조작되고 날조된 엉터리사진이였다는것이 날날이 폭로되였다.

본사기자는 얼마전에 남조선괴뢰들이 《김현희》라고 《발표》한 희미한 록화물의 소녀와 《소년단경례》를 하는 소녀들과 만났다.

남조선괴뢰들이 《김현희》라고 하면서 《공개》한 록화물에 나오는 소녀는 현재 개성시에서 살고있는 림윤복녀성(1958. 6. 30생)이다.

그는 1972년 11월 2일과 4일에 남북조절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통과한 남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이다. 그는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장기영에게 판문점을 오고갈 때 그곳에서 꽃다발을 준것은 〈마유미〉가 아니라 현재 개성에서 살고있는 저입니다.》고 힘주어말했다.

또한 우리는 남조선괴뢰들이 《김현희》라고 하면서 《공개》한 《소년단경례》를 하는 소녀인 왕영숙녀성(1959. 7. 20생)하고도 만났다.

그는 1972년 8월에 있은 남북적십자회담때에 남측수석대표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이다. 그는 《소년단경례》를 하는 사진은 당시 남조선기자가 소년단경례를 해보라고 해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면서 《저는 조절위원회때에는 나간 일도 없고 또 장기영이란 사람에게 꽃다발을 준 일도 없습니다.》라고 괴뢰들의 모략책동을 폭로규탄하였다.

(관련기사 3면)



1972년당시 꽃다발을 준 소녀들

남북조절위원회때 남측대표인 장기영에게 평양에서 꽃다발을 준 정희선녀성(사진 가운데)과 판문점에서 꽃다발을 준 림윤복녀성(사진 왼쪽) 그리고 72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때 남측수석대표에게 꽃다발을 준 왕영숙녀성(사진 오른쪽)

새학년도 나머지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 조선인학부형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총련의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을 벌리는것은 자기 민족을 고수하며 자기 민족을 되찾는 운동으로서 매우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총련교육일군들은 학부형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모두다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총련의 학교를 적극 사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족교육발전과 자녀교육에 있어서 학부형들의 역할, 특히 어머니들의 힘의 크기는 각지 우리 학교 사업에서 여실히 볼수 있다.

이역에서 어엿한 조선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식들의 모습은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형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껏 끌어준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 교육교재를 마련해주기 위해 힘쓰는 학부형들.

어머니들의 힘과 열성을 하나로 모아

— 교또조선제1초급학교 어머니회 —

◆열성학부형들의 《부담》◆

교또조선제1초급학교 어머니회는 1975년에 조직되였다.

조직은 되였으나 당시 어머니들의 학교와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 못했다.

몇몇 열성학부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부형이 자녀교육은 학교에 내맡겨 수업참관날에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으며 어머니회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운동회에서 차리는 매대와 년에 한두번 가지게 되는 깜빠니야적인 바자에 협력할 정도였었다.

이곳 학교에서는 동포들속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 특히는 학생확대사업에서의 애로를 타개하는데서 학부형들의 《마음의 일치》를 보는것이 특별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교육사업을 교원들에게만 내맡겨두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어 학부형으로서 응당한 《구실을 놓아야 한다》고 의견일치를 본 어머니회에서는 열성학부형들을 위주로 새로 조직체계를 꾸리고 이 사업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교육의 질, 민족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이곳 학교와 어머니회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하는데서 지침으로 되였다.

그러나 이 사업도 일부 역원들의 열성에 의거한 행사에 따르는 실무적인 사업과 학교운영에 약간의 보탬을 주는 재정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어머니회의 이러한 활동은 여기에 참가한 열성학부형들에게 《고생》과 《부담》만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꾸준한 교양으로 활동을 궤도에◆

이런 속에서 3년전, 회장으로 임명된 김영숙녀성(현재 녀성동맹 미나미야마시로지부 위원장)은 종래 있었던 어머니회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역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6년전에 이곳 학부형으로 된 《평범한》 어머니였다.

우리 학교에 입학은 시켰으나 왕복 3시간반의 거리를 여러번 전차를 갈아타면서 통학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그는 동요하였다. 그러나 민족교육을 못받은 자신의 쓰라린 경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은 조선사람은 민족교육을 받는것이 옳은 길이라는것을 느끼게 하였다. 하기에 어머니회의 존재를 알게 된후에 학급어머니위원회를 거쳐 어머니회 부회장으로 그리고 3년전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였던것이다.

어머니회에서 학급별, 지역별 어머니들이 참가하는 교육강연회와 자녀교육에서의 어머니들의 역할, 아동심리학에 대한 학습과 가정교육에 대한 학습 등 영화도 준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학습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학급어머니위원회, 지역별어머니위원회, 벨마크위원회 등 어머니회의 각급 조직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어머니합창소조, 우리 말 교실, 팟치와크교실, 브로치(장식품)교실, 아트후라와교실 등 대상의 취미에 맞게 소조를 무어 그들을 적극 망라하였다.

그리하여 각급 위원회와 어머니회의 역원들은 활동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 나서게 되였다.

이러한 과정에 학부형들에게 어머니회의 활동을 적극 선전하며 학부형모두가 학교사랑하는 운동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기 위한 신문 《어머니》가 발간되였다.

《어머니》 편집위원회에서는 거듭되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내용에 있어서도 자녀교양과 가정교육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와 수기, 학교사랑하는 사업에서의 미담, 학생들의 모범과 학교자랑 등 학부형들의 흥미를 끄는 생활적 기사들을 다양하게 편집하였다.

학부형모두가 읽을수 있도록 우리 말과 일본말로 편집되여있어 학부형들은 물론 지역동포들에게도 애독되고있다.

◆모든 회원들이 망라된 재정활동◆

학교운영의 물질적안받침은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회의 중요한 사업이다.

교육회에서는 어머니회의 사업을 완전히 예산화하여 매달, 매 학기마다 그 정형을 총화하고있다.

3년전부터 시작된 《1천개김판매운동》은 어머니회의 년간 총리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힘있는 판매사업이다.

봄과 겨울에 각각 1천개씩, 년간 2천개이상을 소화하는 이 판매사업은 지금 학구내 4개 지역의 모든 학부형들의 사업으로서 그 분공체계가 완전히 꾸려져있을뿐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경쟁의 방법으로 120%, 130%로 판매하고있다.

10년간 계속되고있는 이 학교의 벨마크모으기 운동은 이곳 어머니들의 의식과 어머니회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준다.

극히 일부에서만 진행되던 이 사업이 오늘은 벨마크위원회의 체계적인 장악과 지도 밑에 모든 가정에 벨마크궤짝이 상비되고있을뿐아니라 민족교육을 리해하는 수많은 린근 주민들까지도 망라하는 그야말로 대중적운동으로 확대되고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도 있듯이 어머니회와 학부형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모은 벨마크로 이 동안 학교에는 13대의 손풍금과 에레크톤, 비데오카메라와 텔레비존이며 수많은 체육기자재들이 마련되였다.

◆전망을 내다보면서◆

매개 지역의 녀성동맹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는 어머니회의 활동은 학생받아들이는 사업에서도 구체적인 결실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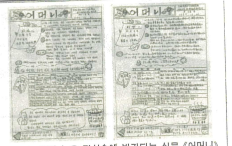
지역별로 조직된 녀성들의 소프트뽈소조에서 핵심적역할을 놀고있는 어머니회 회원들은 기회를 놓침이 없이 아이를 일본학교에 보내고있는 학부형들에게 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우리 학교에 대한 선전을 목적의식적으로 하면서 학생확대사업에도 적극 나서고있다.

대상동포를 찾아갈 때마다 학교자랑과 어머니회 활동내용을 소개한 신문 《어머니》를 갖다주면서 자신의 체험을 놓고 민족교육의 생활력을 실감적으로 알려주면서 이악하게 사업을 한 결과 올해 새학년도에는 학생수와 원아수를 늘이는데 크게 기여한 이곳 어머니회 역원들, 학교사랑하는 운동을 통하여 녀성동맹 분회핵심으로, 지부일군으로 자라난 어머니회 역원들.

《학교를 사랑하는 대중운동에서 어머니회의 활동은 중심이라 할수 있지요. 이 과정에 어머니들의 뉴대도 깊어지고 학교사랑하는 운동도 보다 대중적인 사업으로 되면 좋겠어요.》

김혜자녀성은 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수집된 벨마크의 정리를 다그치던 옥문자녀성은 《자기들을 위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식들도 느끼는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젊은 학부형들과 더 일을 잘하여 대를 이어가면서 이 활동을 계속해야지요. 더 분발할 마음입니다.》고 희망에 넘친 어조로 말한다.



지역동포들의 높은 관심속에 발간되는 신문 《어머니》



팟치와크교실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어머니들

남조선비행기사건은 자작자연극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진행된 강연회는 남조선괴뢰들의 모략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사진은 후꾸오까현에서 진행된 강연회)

총련 후꾸오까현본부

총련 후꾸오까현본부에서는 16일 저녁 조선문제강연회 《남조선항공기실종사건》을 시내 현교육회관에서 가지였다.

여기에는 일본사회당현본부와 각 로조, 단체 인사들, 후꾸오까지역의 일군들과 동포, 상공인들 250명이 참가하였다.

강연회에서는 국제문제평론가 가지다니 요시히사씨가 강사로 출연하여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의 진상과 모략의 본질을 까밝혔다.

그는 먼저 《마유미》의 《꽃다발증정사진》이란것이 철두철미 허위날조라는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은 그 무슨 증거도 없으며 《안기부》가 내놓은 《수사결과》란것도 허구와 모순에 가득찬것이였다는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모략소동이 미제의 대조선정책의 산물일뿐아니라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위해 준비된 허위날조극이란것을 구체적사실을 안받침하면서 언급하였다.

강연에 이어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날 강연회에 참가한 니시니홍단기대학 오꾸와끼 요시노부교수는 《무언지 처음부터 의혹으로 가득찬 사건이였다. 강연을 통해 참고로 되는 사실을 많이 얻었다.

자기도 모략의 진상과 본질을 가지고 선전사업에 힘써나가겠다.》고 감상을 말하였다.

이날 강연회는 참가자들속에서 남조선괴뢰들의 모략책동에 대한 분격과 규탄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총련 세이부지부 주최로 진행된 강연회

지 바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한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대내외정세강연회가 17일 지바현의 후나바시상공회의소에서 있었다.

총련 지바현 세이부지부의 주최로 진행된 강연회에는 관하총련동포들과 후나바시를 비롯한 현하 각계 일본인사들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강연회에서는 사회민주련합 고문인 덴 히데오참의원의원과 평론가 나까가와 노부오씨가 각각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 그들은 이번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은 위기에 빠진 남조선괴뢰들의 자작자연극이라고 강조하면서 파쑈정권유지를 위한 상투적수법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소위 《마유미》의 《자백》이후 남조선괴뢰들의 《수사결과》발표가 우로좌로 변하는것자체가 이번 사건이 남조선괴뢰들과 미일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채 일본정부가 미국의 뒤를 따라 공화국에 대하여 실시한 《제재조치》는 너무나도 부당하며 이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강연회참가자들은 내외반동들이 조작한 이번 사건의 진상과 배후를 하루속히 규명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대중정치선전사업을 벌려나갈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일조우호련대 와까야마현민회의 주최로 심포쥼

일조우호련대 와까야마현민회의의 주최로 17일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진상을 생각하는 심포쥼이 근로복지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현민회의 회원들, 정당, 사회단체, 로조대표들을 비롯한 일본인사들 350여명이 참가했다.

모임에서는 주최자측을 대표하여 현민회의 스미다겐조의장의 연설이 있은 다음 총련본부 신수영위원장이 래빈연설을 하였다.

이어 정치평론가 야마가와 아끼오씨가 이번 사건의 의혹과 사건전후의 조선반도정세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 다음 공개토론이 있었다.

공개토론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환경과 조선반도의 정세에 대하여 언급되였으며 이 사건은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꾸며낸 국제모략이라고 지적되였다.

계속하여 질의응답이 열기띤 분위기속에서 활발히 벌어졌다.【와까야마지국】

총련 히로시마현 겐호꾸지부 위원장인 석명균동지가 세상을 떠났다

총련 히로시마현 겐호꾸지부 위원장인 석명균동지가 병환중 뇌경색으로 인하여 19일 오전 5시에 71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

나라없는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석명균동지는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고 조선민족에게 재생의 새봄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충성다할 한마음을 안고 애국애족의 한길에 몸바쳐나섰다.

총련이 결성된후 1962년 5월부터 총련 히로시마현 겐호꾸지부 부위원장으로 전임활동에 나선후 석명균동지는 겐호꾸지부 위원장, 아끼지부위원장 그리고 히로시마중고 교육회, 히로시마제1초급 교육회 부회장을 각각 력임하였으며 1983년 10월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총련 겐호꾸지부 위원장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과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 열성을 다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애국사업에 헌신한 그를 높이 평가하시여 지금까지 국기훈장제2급(4번)을 수여하여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고 석명균동지의 장의식은 총련 겐호꾸지부장으로 20일에 엄숙히 거행됐다.

민족교육을 생각하는 날의 모임

—군 마 에 서—

군마현교직원조합이 해마다 조직하는 민족교육을 생각하는 날의 모임이 얼마전 제4차로 진행됐다.

일본의 교원들 120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군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 수업참관을 한후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예술공연을 본 참가자들은 계속하여 근처의 청소년회관에서 전체모임을 가졌다.

일본교원들과 우리 학교 교원들 200여명이 모인 전체모임에서 군마초중의 주청삼교장은 남조선려객기사건이후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 각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폭행, 위협을 가하는 등의 민족적박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교원들은 계속하여 초급부 저, 고학년, 중급부의 3분과로 나뉘여 열기띤 토론을 하였다.

참가한 일본교원들은 《교실의 벽에 게시된 그림과 벽보 등을 보고 자기 조국에 대한 학생들의 사랑을 감득할수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명랑하였다.》, 《민족의식을 키워주는데서 모국어교육이 가지는 의미, 중요성을 알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재일동포자녀들이 조선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떳떳이 살아나가게 하는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싶다고 말했다.【군마지국】

학교를 사랑하는 제6차챠리티골프

산따마조선제2초중급학교 학부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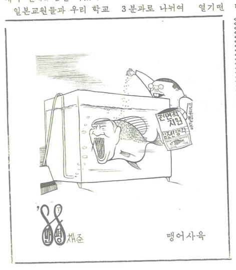
산따마조선제2초중급학교 학구제로 되여있는 총련 산따마 마찌다지부와 가나가와쥬호꾸 및 신꼬지부 미도리지역 학부형들이 중심이 되여 지난 10일 다이사가미 칸트리구락부에서 학교를 사랑하는 제6차챠리티골프를 진행하였다.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챠리티골프 준비를 위하여 준비위원회 방태윤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역원들이 올해초부터 모임을 여러번 가지였으며 지역마다 역원들이 조직사업을 깐지게 벌림으로써 이에 140여명이나 되는 동포학부형들을 망라하였다.

당일에는 수입금을 학교에 희사하였다.

이어서 김영덕교육회장이 학부형들과 동포들의 애국열성으로 모은 귀중한 돈을 학교사업발전을 위하여 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시종일관 박수와 웃음이 터져나와 참가자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마찌다분국】



목소리

드러난 몰골

총련중앙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북조절위원회당시 평양에 온 남조선측대표의 한사람인 장기영에게 직접 꽃다발을 준 실재인물인 정희선(현재 평양외국어학원 교원)의 일련의 사진과 비데오록화물 등 움직일수 없는 구체적물증을 제시하여 괴뢰도당이 날조한 국제모략사건을 낱낱이 폭로규탄하였다. ▼본사취재반이 조국에서 입수해온 자료들, 특히 정희선의 증언을 담은 비데오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그 내용은 이날 밤 일본의 텔레비존에서도 크게 보도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괴뢰들의 날조극은 박산나고 말았다. ▼《이건 나다. 당시 내가 평양의 직승비행장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당사자인데 〈마유미〉랍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평양에서 살고있는데 〈마유미〉라고 하니 산 사람을 잡아도 분수가 있다.》 괴뢰도당이 《마유미》의 소녀시절이라고 하는 사진을 들고 표식의 임자는 바로 자기라고 하면서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희선의 말은 천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만사람을 납득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학우의 이름은 다 잊어먹었다》는 《마유미》와는 정반대로 당당한 모습으로 옛 학우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똑똑히 대는 정희선녀성. 《조선일보》론설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서울표준어》를 썼으며 일본음향연구소 스즈끼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20헬쯔부근의 주파수였다.》고 말한 《마유미》의 무표정, 무감정, 무미건조의 서푼짜리 기자회견과는 대조적으로 비록 시간은 짧았으나 일본텔레비존에서 방영된 정희선의 말은 엄연히 평양문화어였고 쟁쟁히 울리는 마디마디에는 경악과 분격의 감정이 서리고있었다. 이 판이한 두 가지 사실로써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실재인물은 정희선이고 《마유미》는 가짜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충분히 알수 있다. ▼정희선녀성은 《저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 〈마유미〉란 녀자를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사진을 놓고 결판내고싶습니다.》고 했다. ▼이제 결판은 났다. 남조선려객기행방불명사건은 괴뢰도당이 날조한 자작자연극이란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모략군들은 《제도끼에 제 발등 찍힌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판문점의 꽃다발소녀들(제2차조절위원회 남북적십자회담)은 공화국북반부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백일하에 드러난 괴뢰도당의 허위날조

모략을 까밝히는 또하나의 증언

제2차조절위원회때 꽃다발을 준 림윤복녀성

제가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때 남조선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림윤복입니다.

그때 나이는 14살이였습니다.

현재는 30살인데 개성시 역전동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2명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당시 저는 개성시 만월녀자중학교에서 배우고있었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때 우리는 남조선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주기 위하여 판문점에 나갔는데 개성에서 25명의 학생들이 이 사업에 동원되였습니다.

저의 학교인 만월녀자중학교에서 5명을 비롯하여 선죽중학교 등 3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발되여 이 사업에 동원되였습니다.

그때 정렬되여있는 사진에서 좌측 두번째의 사진이 저입니다.

저의 앞에 있는 동무들은 저와 같은 학급에서 공부한 동무들입니다.

현재 개성에서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그때 나는 남조선측대표에게 꽃다발을 주었는데 이 사진은 회의를 끝내고 남조선측대표들이 돌아갈 때 꽃다발을 주는 장면입니다.

《장기영에게 판문점에서 꽃다발을 준것은 〈마유미〉가 아니라 개성에 사는 저입니다》

남조선측대표인 장기영에게 판문점을 오고갈 때 그곳에서 꽃다발을 준것은 지금 남조선괴뢰들이 떠드는 《마유미》가 아니라 현재 개성에 살고있는 저라는것입니다.

그때 저는 키가 크고 몸이 뚱뚱하고 얼굴이 검실검실한 사람에게 꽃다발을 주었는데 그때 어찌나 기자들로 붐비는지 옆에 있던 정성철선생이 저의 등을 밀어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꽃다발을 안겨주니까 장기영대표는 저에게 학교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또 나이는 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와 나이를 말해주었더니 참 똑똑하구만 하고 말하면서 웃었던데 그때 웃던 장기영의 모습이 아직도 저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이야기하고싶은것은 그때 제2차남북조절위원회때



1972년 11월 4일 조절위원회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이 돌아갈 때 판문점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는 림윤복녀성. 그러나 괴뢰들은 이 사진이 담긴 필림을 훔쳐 림윤복녀성을 《김현희》로 날조하였다.



현재의 림윤복녀성



1972년 11월 2일 조절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가하려고 평양에 오는 남측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주기 위해 판문점 우리측지역에 줄지어 서있는 학생들(왼쪽에서 두번째가 개성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만월녀자중학교 림윤복학생)

남북적십자회담때 꽃다발을 준 왕영숙녀성

제 이름은 왕영숙입니다.

나이는 29살이고 어린애 2명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이 소년단인사를 하고있는 사진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남북적십자회담당시 남측대표단 단장에게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절위원회때에는 나간 일도 없고 또 장기영이란 사람에게 꽃다발을 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16년전의 일이지만 이 사진에 대해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남북적십자회담때 남측대표들을 기다리는 시간에 남조선기자가 저에게 와서 소년단인사를 한번 해보아라고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년단인사를 하니까 그 남조선기자는 소년단인사는 왜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머리우에다 하는가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년단조직이 항상 자기개인보다 더 우에 있으며 귀중하다는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소년단인사를 자기 머리우에 높이 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조선기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소년단인사를 하고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있으니까 남조선기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어려서도 찍은 사진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나구나!》하고 즉각 생각되였습니다.

그런데 남조선괴뢰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가지고 조절위원회때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인물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마유미》라고 하는 악랄한 책동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서도 알수 있듯이 1972년 8월 29일 적십자회담때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알수 있듯이 제 얼굴이야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 남조선측단장에게 꽃다발을 주었더니 그 리범석단장이 고맙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원주필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리범석단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울것없이 행복하게 지내고있습니다. 이것은 가져다가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어린이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단장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창피한듯이 옆을 보다가 주머니에 도로 넣고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 일이 얼마나 통쾌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를 가지고 어떻게 생억지를 써가면서 《마유미》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참을래야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일에 대하여 분격을 억누를수 없습니다.

《소년단인사를 하고있는 사진이 바로 저입니다》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한 사진자료



현재의 왕영숙녀성



남북적십자회담시의 왕영숙녀성

《공화국의 새로운 평화협상제안의 영향력을 막으며 군정연장을 노린 독재자들의 기만극》

여러 나라 사회계가 남조선비행기실종과 관련한 모략책동을 규탄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괴뢰도당과 미국, 일본의 반동지배층이 공모결탁하여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책동과 이른바 《제재조치》를 세계 광범한 사회계가 규탄하고있다.

《배후조종한 미국의 행동이야말로 아주 비렬하다》

니까라과싼디노근로자중앙집행서기국은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련대성전문을 보내여왔다.

전문은 니까라과싼디노근로자중앙집행서기국은 니까라과의 로조단체들과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공모결탁하여 그 무슨 《제재조치》라는것을 발표하고 파렴치하고도 뻔뻔스럽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방중상하고있는데 대하여 최대의 격분을 표시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도발책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레간행정부의 이러한 모략적인 책동을 자기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모든 나라들을 반대하여 벌리고있는 수많은 비렬한 깜빠니야들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우리의 굳은 련대성을 재확언한다고 전문은 지적하였다.

영국조선친선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남조선려객기사건을 배후조종하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리고있는 미국의 행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비렬한 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말따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남조선통치배들이 려객기사건을 조작하게 된 목적은 평화협상을 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제안의 영향력을 막고 사람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놓으려는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호닝뿌지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려객기사건의 조작은 《북의 위협》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여 남조선에서 군정을 연장하며 올림픽단독개최를 무난히 해보려는 군사독재자들의 기만극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시기 김포비행장폭발사건과 관련하여 그리고 금강산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황당무계한 주장과 거짓말을 들고나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책동하여왔다고 폭로하고 이번 려객기사건도 그러한 조작극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미제와 일본, 남조선당국자들이 려객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간것은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에 이 사건을 리용하려는데 있었다고 규탄하였다.

《사건의 〈수사결과〉에는 아무런 신빙성도 없다》

려객기사건과 관련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최근 여러 나라 신문들도 폭로규탄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라허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시키고 세계여론을 오도하여 정치적리득을 얻어보려고 꾀하였지만 수많은 로동자들을 죽이는 참상을 빚어냈을뿐이다.

가이아나신문 《뉴 네이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이번 려객기사건은 남조선《안전기획부》의 요원들의 소행임을 말해주고있다.

려객기사건의 책임이 북조선에 있다는 미국과 남조선의 모략선전은 내외여론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신문 《워커스 월드》는 남조선괴뢰들이 조작발표한 《수사결과》의 모략적 내막을 까밝히고 려객기사건을 구실로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동을 로골화하는 미제를 규탄하였다.

가나신문 《가나 타임스》는 남조선려객기사건은 조선의 분렬과 대결을 꾀하는 미국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해 조작된 모략극이라고 폭로하였다.

신문은 려객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끌고간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면서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절대다수의 성원국들과 지어 프랑스, 영국, 이딸리아, 서부독일까지도 려객기사건의 《수사결과》에는 아무런 신빙성도 없다는것을 시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모든 대중보도수단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허위와 날조, 모략과 악선전을 세계면전에 폭로단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간다신문 《더 씨리즌》은 남조선괴뢰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려객기사건을 날조해냈다고 강조하면서 그 범죄적내막을 상세히 폭로하였다.

이 나라 신문 《더 텔레카스트》와 《타이파 엠피아》는 남조선괴뢰도당이 려객기사건을 조작하게 된 범죄적목적은 심각한 정치적위기에서 출로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하였다.

오스트랄리아신문 《싼》은 남조선집권자들은 반공화국모략소동을 통하여 민주세력의 진출을 가로막고 《국회의원선거》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얻어보려 하고있다고 폭로단죄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메르데까》는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자기의 리익을 위해 광주에서 수천명을 죽인것처럼 1988년올림픽을 위하여 려객기사건으로 로동자들을 고의적으로 죽이는것쯤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고 비난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신문 《융게벨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이른바 《제재조치》는 미국의 정책에서 전혀 새로운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략소동의 배후에는 항상 국제헌병으로 책동하고있는 미국이 서있다고 폭로하였다.

시에라레온신문 《내슈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일본의 《제재조치》는 외교계의 웃음거리로 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애급신문 《알마싸》는 려객기사건과 같은 모략극은 결코 파멸의 길을 걷고있는 남조선괴뢰들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출로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 등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제안들은 조선문제해결의 기본열쇠로 된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훌륭한 기초를 마련할수 있다

공화국의 새 제안 각국에서 큰 반향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이 내놓은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갈수록 세계 광범한 사회계의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레바논수상대리

레바논수상대리 셀림 알 호스가 지난 3월 7일 레바논주재 우리 나라 김봉곤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수상대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현명한 발기라고 하면서 이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외무상

아프가니스탄공화국 외무상 아브둘 와길은 공화국의 평화제안을 지지하여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에게 련대성편지를 보내여왔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와 특히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귀국의 통일과 그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기울이고계시는 외교 및 정치적 노력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

아프가니스탄공화국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반동세력들이 벌리고있는 전쟁연습을 비롯한 온갖 책동들을 규탄한다.

나는 이 기회에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평화통일과 조선반도에서의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새로운 제안인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대한 아프가니스탄공화국 정부의 지지를 표시한다.

가나외무담당비서

가나공화국 외무담당비서 오베드 야오 아세모아도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지지하여 김영남외교부장에게 련대성편지를 보내여왔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우리 가나공화국은 주석각하와 견해를 완전히 같이한다는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하고싶다.

우리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바와 같이 조선의 평화적통일이 쌍방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나가 호상 존중과 신뢰에 기초하여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남조선 인민들이 협력하여 직접적 대화도 마련할수 있는 모든 발기들에 대하여서는 언제어디서나 국제적지지를 계속 보낼것이라는것을 확언한다.

니제르 외무 및 협조성

니제르공화국 외무 및 협조성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우리 나라 외교부에 각서를 보내여왔다.

각서는 니제르공화국 외무 및 협조성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에 커다란 주의를 돌린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외무 및 협조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문제 특히 그이께서 올해에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신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였다.

평화애호정책과 분쟁문제의 평화적해결원칙에 충실한 니제르정부는 이러한 련석회의가 전체 조선인민이 념원하고있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훌륭한 북남대화의 기초를 마련할수 있다고 간주한다.

외무 및 협조성은 니제르정부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이 새로운 발기를 지지고무하며 그의 실현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고있다는것을 귀국정부에 전하여줄것을 바란다.

꾸바사회단체들

꾸바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과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 위원장이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선꾸바단결위원회에 련대성편지를 보내여왔다.

편지는 김일성주석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제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과 정부 그리고 인민이 기울이고있는 수많은 노력들을 다시한번 보여주는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편지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평화발기를 리해하고 지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고있다.

각국 신문, 통신

로므니아신문 《쓰끈떼아 떠네레뚤루이》는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김일성주석의 제안들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이 회의가 마련되면 북과 남의 격페상태를 마스고 전체 조선민족이 념원하는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파키스탄의 피피아이통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조선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북과 남사이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이 방안은 제기된 문제의 절박성과 그 해결방도의 합리성으로 하여 그 누구에게도 접수될수 있는 가장 정당한 구국방안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애국적인 발기이다.

《미국과 남조선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평화에 대한 위험한 도전》

여러 나라 사회계가 규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도발적인《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여러 나라의 친선 및 련대성 단체들과 인사들이 성명과 담화를 발표했다.

국제련락위원회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에서 발행한 2월 2호 불레찐은《〈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미국과 일본의 사촉하에 남조선독재《정권》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극히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가운데 감행되는《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세계적인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근원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이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 등을 반대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불레찐은 또한 오지리의원에서 진행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소식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국제학생동맹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은 동맹에 망라된 진보적학생들의 이름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들을 철거시킬것을 요구한다.

3일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이와 같이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리적인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받아들일 대신《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 사실에 언급하면서 이것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은 모든 성원국 학생조직들과 친선적인 학생조직들, 민족적, 지역적, 국제적 비정부조직들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대결과 전쟁 책동을 그만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에 응해나서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할것을 호소한다고 지적하였다.

쏘 련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쏘련선박 《바이마크》호 선원들의 련대성집회가 홍남항에서 있었다.

집회에서 연설한 꼬베냐아나똘리선장과 선원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내놓으신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공명정대한 공화국정부의 통일방안들을 외면하고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미국, 민주예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미국, 민주예멘의 사회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에 있는 조선통일지지가디언위원회는 2월 29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병력이 동원되여 벌리고있는《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며 평화를 념원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에도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하며 로태우《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끝장낼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예멘제인민간의 평화친선및련대성리사회는 2월 24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비행기실종사건을 꾸며내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는것과 함께 2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는《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는 사실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주예멘인민은 세계평화애호력량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도발적인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침략전쟁연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비롯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정당한 제안들이 조선문제해결의 기본열쇠라고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민주예멘의 련대성을 확언한다.

인 도

전인도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세계평화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응해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방글라데슈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성되고있는 긴장하고 날카로운 조선반도정세는 세계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갈수 있다고 하면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걷어치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다가스까르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수상실기술고문인 라베잔드리나 라벨루아리메피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이 전쟁연습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조선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념원에 배치되는 범죄행위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해마다 감행되는《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날이 갈수록 긴장해지고있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鄭さんの証言で謀略明白に〟

各地で遊説展開

講演会、シンポ、懇談会も

KAL機事件など

十五日、総聯中央の記者会見で「花束の少女」ー鄭姫善さんの証言、写真、ビデオなどが公表され、各地で講演会、シンポジウム、ビデオ上映、戸別訪問、街頭宣伝など、KAL機事件と関連した遊説が一層力強く展開されている。二十二日には総聯兵庫県本部主催の「朝鮮問題時局講演会」（講師ー田英夫氏、関寛治氏 ポートピアホテル）、十八日には大阪・西成支部主催の時局講演会（朝銀西成支店）、十七日には千葉・西部支部のシンポジウム、京都・右京支部の「朝日親善の夕べ」（高屋定国氏、京都ファミリー）、朝青中央の講演会、そして十六日には千葉朝信の「情勢セミナー」が行われた。



「鄭さんの証言によって、安企部の発表はすべて根底からくつがえった」との講師の言葉に聴衆は大きくうなずく（17日、総評会館）

十七日、総聯千葉・西部支部主催の「KAL機事件のナゾと疑問に迫るー大韓航空機事件を考えるシンポジウム」が開かれた船橋商工会議所ホールには、二百余人の同胞、日本の市民らが詰めかけた。

シンポではまず、朴正植支部委員長が、十五日の総聯中央記者会見について言及した後、「KAL機事件は、私たちの日常生活にも大きな影を落としている。シンポジウムを通じて、私たちが何をなすべきなのかを考えていきたい」と、あいさつした。

引き続いて、パネラーの田英夫（参議院議員）、中川信夫（評論家）の両氏が講演を行った。

田氏は、KAL機事件の背景を説明しながら、「昨年の八月にソウルで、ある『与党』側の人物から『本当は北にはオリンピックに来てほしくない』と本音を聞いた。今回の事件で緊張が激化したと、ほくそえんでいるに違いない。南の女性記者に事件について聞いてみても『KCIA（現安企部）がやったに決まっている。金大中事件の時も内部告発などで徐々に明らかになったではないか』と言っている。ソウルではああやって利用するのが当たり前のことだという。自分も国会議員として許しがたいことだが、日本政府がいわゆる制裁措置を取った。事件の真相が解明されたとき、一体どう責任を取るのか」

また「ばかばかしいことに、『恩恵』とは私の娘のことではないかと、マスコミから問い合わせが来た。意識的にKCIAが流した情報が、日本大使館からリークされたそうだ。『花束贈呈』の写真にしても、いかにも作り上げられたというのがあからさまである。朝鮮半島の緊張を緩和して、一日も早く統一できるためにも、この事件の真相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からも微力ながら努力を続けたい」と語った。

続いて中川氏は「安企部が発表した写真と、日本共産党が発表した写真、両方とも本物なら少女時代の『真由美』が二人い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真由美』の証言はそれぐらいあやしいということだ。『恩恵』についてもそうだ。他の証言も全部再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そして「肝心の機体の行方が分からない。『北の犯行』説だけが一人歩きしてしまっている。『真由美』の自白だけで機体捜索は打ち切っている。これだけではまずいと考えたのか、救命ボートを発見したと発表した。しかし一番中心にあるポンプだけ焦げていて、他の部分は焦げていなかったり、海流とは矛盾する地点で発見されたりしている。テレビ朝日が疑問の解明のため、KAL本社にインタビューを申し込んでも断られている」

また「これ以外にもたくさんの疑問点が残っている。その解明なしになぜ『北の犯行』だと言えるのか。事件は安企部がやったと考えるのが、一番つじつまが合う。その背景として昨年六月以降、民主・統一を目指す民衆の力が大きな潮流となった。これに危機感を受けた安企部が中心となって起こした事件だ。謀略に適切に対応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

十七日に行われた朝青中央の主催による「最近の朝鮮半島情勢に関する講演会」（総評会館）には、朝青と日本の各青年労働団体から約三百二十人が参加した。

朝青中央・金学守委員長が、「様々な謀略宣伝が行われているが、情勢を正しく把握し、朝・日の青年が友好を深められることを期待する」とあいさつを述べた後、国際問題ジャーナリストである前田康博氏（毎日新聞社・編集局情報調査部副部長）が講演した。

前田氏は「大統領選挙」の不当性について言及した後、「大韓航空機事件」は「当局」の発表による「爆破」ではなく、「失そう」であると指摘しながら、「日本のマスコミは事態をよく把握しないまま南の発表を報道している。実態のない情報を『雪ダルマ式』でふくらませ、『ピンポン球』のように弾む現象を生んでいる」と指摘。

また、「唯一の物証である『真由美』は南の手によって『金賢姫』になり、日本の政府が『李恩恵』事件に仕立て上げた。南の発表に対する北の反論について、日本のマスコミはほとんど扱わない。『金大中事件』『朴正煕暗殺事件』『ラングーン事件』の時もそうだが、南の発表よりも北の発表の方がはるかに信ぴょう性もあり具体性を伴っている。それは鄭姫善さんの証言一つを見てもわかる。日本のマスコミは常軌を逸している。自分の視野で客観的に物事を見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た。

つづいて、朝鮮新報社社会部部長・文光佑氏が講演した。

文氏は、十五日に行われた総聯中央の記者会見の場で放映された鄭姫善さんのビデオを同会場で上映、「今回の総聯取材班がインタビューした鄭姫善さんの証言によって、『安企部』の発表した写真や『自白』、『捜査結果』から『金賢姫』の存在自体が、すべて根底からくつがえされた」と述べた。

◇

十六日に開かれた千葉朝鮮信用組合主催の懇談会（情勢セミナー）には、地域同胞と日本人、合わせて約百五十人が参加した。

はじめに総聯千葉支部・盧在玉委員長と同朝信・李永俊理事長があいさつ。

つづいて、「最近の朝鮮半島と日本」ー大韓航空機事件の虚実をさぐるーと題して、毎日新聞社・前田康博氏が講演を行った。

講演の後は食事会がもたれ、同胞たちは講演に対する感想や朝信事業の展望について語り合った。



雨天にもかかわらず多くの人が詰めかけ、事件に対する関心の高さをうかがわせた（17日、千葉）

愛国事業の担い手として

朝鮮大学校第30回卒業式



祝福の花束を抱き、明日への希望に胸をふくらませる卒業生たち

朝鮮大学校の第三十回卒業式が十六日、同校の講堂で行われた。

卒業式には総聯中央・韓徳銖議長をはじめ、徐萬述、裵秉斗、全演植の各副議長、金守鎮教育局長、南時雨学長、中央団体・事業体の幹部、そして同校教職員、学生、父兄らが参加した。

卒業式では、祖国から河英鎮、任京河、徐錫日の三人の卒業生に授与された「金日成青年栄誉賞」を韓徳銖議長が伝達した。

また、共和国教育委員会と祖国の各大学から寄せられた祝電が紹介された。

卒業式では韓徳銖議長が祝賀演説を行った。

韓議長は演説の中で、三十回目の卒業式を迎えた朝大の誇らしい歩みとその位置について述べながら、堂々たる民族幹部に育った卒業生の門出を熱烈に祝った。

そしてすべての卒業生が共和国の社会主義建設と祖国統一偉業に大きく寄与し、総聯の愛国事業で朝大卒業生としての役割を十分に果たしてほしいと述べた。

つづいて朝鮮大学校の南時雨学長が学事報告をし、今年の卒業式は師範教育学部三年制師範科第一期生を送る意義深いものだと強調した。

また、在学期間、科学研究と朝青活動で模範となった十二人の卒業生たちに共和国教育委員会の表彰状が、また総聯中央常任委員会賞、十六年間最優等賞などの各賞が六十二人の卒業生たちに授与された。

卒業生を代表して徐錫日君が決意表明を行った。

ビデオ公開で真相が明らかに

各地の講演会参加者らの声

信じてはだめ 一方的な報道

池沢敏夫（船橋市議）

私は最初から安企部の仕業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した。日本人の特徴なのか、マスコミの一方的な報道をすぐに信じ込んでしまう状況がある。今の状況を克服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きれば『考える会』などを小規模でも開いて、真相を知らせたい。朝鮮総聯とも協力して、宣伝していきたい。日本人は報道に負けてしまっているけど、南の人たちはどういう問題意識を持って、事件を見ているのか、知りたいですね。

無責任な報道 大きな責任が

梅津利雄（東京都市交通青年婦人協議会東京支部）

日本の多くの国民は北側がやったと思っている。これは日本のマスコミが疑問点を取り上げず、無責任な報道を流したことに大きな責任がある。

今日の講演を聞いて、とくに、鄭姫善さんのインタビューや証言をビデオで見て、この事件は日米「韓」の謀略で、ウソで固められたことがはっきりした。

このような講演会は、これからも続けてもらいたい。

冷静に見ると 真相がわかる

湯田和典（国鉄労働組合中央本部青年部長）

今日の講演、それも鄭さんの証言で、何が真相で、今事件の犯人が誰なのかより明白になった。

日本のマスコミのために、一般の人びとは感覚が麻痺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ウソも百回繰り返せば、それを信じるようになる。

今回の事件を通じて誰が一番得をしたか、それを冷静に考えれば真相は見えてくるのでは。

スクラム組み 立ち向かおう

呉希昌（朝青三多摩・東部支部）

多くの日本の仲間たちが集まってくれたので力強く思う。また自分にとっても非常にためになった。

今回の事件もそうだが、祖国の威信を傷つけ、在日同胞子女に対する迫害には憤りを押さえ切れない。

私たち朝青員は、スクラムを組んで闘うとともに、朝・日友好のために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う。

子どものための栄養学セミナー

女性同盟兵庫・尼崎西支部とオモニ学級委員会主催

女性同盟・尼崎西支部とオモニ学級委員会（オモニ会）が主催する「子供のための栄養学セミナー」がさる十七日、朝銀尼崎西支店で開かれ、約三十人のオモニたちが参加した。

同地域では今、尼崎初中のバザーの準備に追われているが、財政面だけでなくオモニたち自らも教養を高めよう、と催されたもの。

そのキャッチフレーズも「オモニは家庭の栄養士ー子供の食生活を見直してみませんか」。

講師として大阪・共和病院の栄養士である康和代さんが出演した。

康さんは、子供たちの健康づくりのための食事の目安をスライドで見せながら話を進めた。

日本学校の給食と比べてみてもオモニたちのお弁当は、栄養のバランスが取れているということ、ピビンパは朝から食べても差し支えがないなど、日常の生活に密着した講演内容だっただけに、オモニたちから好評を受けた。

こうした教育講演会を学期に一度開いていこう、という意見も持ち上がり、今度は心理学の講演を行う予定。

この日の講演はビデオに撮って、参加できなかったオモニたちに見せて回る。

また、講演に先立ってオモニたちの人形劇が上演され、オモニに連れられた子供たちを喜ばせた。

トンポの街かど

家族ほのぼのボウリング大会

川崎地域若い同胞会

神奈川・川崎地域若い同胞会の第二回分会対抗ボウリング大会が二十日、川崎スターレーンで催された。

この日、大会には二十代後半から四十歳までの若い同胞や家族づれなど、約五十人の同胞たちが参加した。

同大会では二ゲームトータルで三百三十七の高得点を出した小田分会の洪貞守さんが見事優勝。二位は渡田分会の権渶基さん、三位には浜町分会の崔吉洙さんが入賞した。

また、女性部門優勝は富士見分会の金和恵さんが二百七十五点で獲得し、二位には池藤分会の梁秀子さん、三位には中央分会の郭有美さんが入賞した。大会では、他にもブービー賞をはじめとするユニークな賞が同胞たちに手渡された。



昨年の二月に発足した同若い同胞会では、今年二年目に入って、一層の親ぼくと交流を深めるため多様な集いを活発に行っていこうと意気盛ん。来る四月には同胞文化講座、ウリハッキョのためのチャリティーゴルフコンペ、分会対抗のソフトボール大会など、多彩な催しを予定している。

水曜訪問

子どもの笑顔がうれしくて

今年、5回目を迎えた東京・北区「オリニの集い」の責任者

金 聖 姫さん



1946年1月3日、愛知県瀬戸市に生まれる。愛知朝高卒業後、愛知第七初級学校の教員を2年間務め、朝大師範学部に進む。卒業後は東京で専従活動。現在、北支部の非専従子女教養部長、一男二女のオモニ。

「今年もそうなんですけど、終わった途端に子どもたちから『来年は何をやるの？』と声をかけられるんですよ。その時が一番うれしいですね。すごくやりがいを感じます」

心豊かな子どもになってほしい、民族心をしっかりもったチョソンサラムに育ってほしいという気持ちから始まった東京・北区の「新入生と卒業生を祝うオリニの集い」を責任持って、さる六日ではや五年を迎えた。

歌や踊り、演劇、人形劇、マジックショーなど、毎回楽しい催し物を披露してくれるこの集い。色とりどりの装飾品が飾られ、心のこもった手作りの料理が並ぶ会場は「子どもの国」そのもの。今では地域でもすっかり子どものお祭りとして定着し、回を重ねるごとに内容も充実、一回目に比べ参加者も二倍の二百五十人に膨れ上がった。

「世間がクリスマスでわいていたころ、三人のオモニらが雑談を交わしながら、ウリ子供たちの喜ぶことを何かやってあげようと思いついたのがこの集いでした」

思いついたらいざ行動。冬空の寒い季節、積極的なオモニたち五人が自転車に乗り、区内のトンポの家を駆けずり回った。

「みんな大賛成でした。子どものためならと、これまであまり接触のなかったオモニたちもすごく喜んでくれて……」

年間行事となった今では、この季節が近くなると自発的に集まり、子どもたちの喜ぶものをみんなで考える。そしてオモニたちであれやこれやと知恵を絞り、それぞれが自分の得意とする分野を受け持つ。

そんな「一人ひとりの情熱が実を実らせたんですよ」と強調する金さん。準備が思うようにはかどらなくて時にはくじけそうになることもあったが、みんなの励ましに勇気づけられ、ここまで頑張ってこられたという。

「夢中で精一杯。今、第二の青春の真最中です」と金さんは明るく語ってくれた。（恵）

「人間愛あふれる教育に感動」

京都中高の芸術サークル員たち

入院児童に大きな励み

芸術公演や手紙、電話で３年越しの交流

京都朝鮮中高級学校芸術サークル員たちは、学期末試験や卒業式を目前にひかえたさる三月初旬、近くにある北白川小学校で芸術公演を行った。同小学校側からのたっての要望により初めて実現したこの公演。同校療育学級「こばと学級」のちびっ子たちとウリハッキョ芸術サークル員たちとの、三年越しの心温まる交流が、その源となっている。

「こばと学級」は、腎炎やネフローゼなどで長期入院し学校に通えない子供たちのため、病院内（日本バプテスト病院＝左京区北白川）に設けられた同校の療育学級である。

昨年末まで四年の女の子二人と二年の男女各一人の四人の生徒がいたが、二年生の二人が退院したため、現在は四年生が担任の松井恵子先生と一緒に、病気と闘いながら勉強に励んでいる。

この学級の子供たちとの交流が始まったのは、芸術サークル員たちが、子供たちのことを知った三年前。

「先生から、ハッキョの近くに病気に負けず勉強している『こばと学級』の子供たちがいるという話を聞き心を打たれたんです。長期入院は大人でも大変なのに、親や級友たちと離れ生活しなければならない子供たちにとっては、寂しさはひとしお大きいと思うんですよ。なんとか自分たちの出来ることで彼らを励ましてあげたいと、みんなで考えたんです」とサークル員たちは語る。

そして中央芸術競演大会で入賞、入選した演目をもって同学級を訪ね、公演を行ったのであった。それがきっかけとなり、交流は今日まで毎年続いている。

「こばと学級」でも、病院内の教会で七夕会や学芸会を開いているが、子供たちは、毎年競演大会に参加した後年末にやってくる芸術サークルのお姉さんたちとの交流会を「一番楽しみにしている」と松井先生は述べる。

交流会では民族楽器の演奏や両国の歌を澄んだ歌声でサークル員たちが披露し、子供たちも、お礼に日本の童謡や朝鮮の歌を歌うなど、雰囲気は毎回実に和やかだとか。

その後もサークル員たちは手紙や電話などで「病気に負けずがんばって」、「元気になったら私たちの学芸会を見にきて」と子供たちを励まし、入院児童たちも大喜びしていると言う。

今年の初め、朝高へ寄せられた感謝の手紙で松井先生は、「たいへん感激しております。子供たちは、自分たちの想像以上の素晴らしさにたいへん驚いております。

歌の素晴らしさだけでなくクラブのお姉さんが優しかったとか、握手をしてもらってうれしかったとか、先生に誉めていただいたとか…。何もかもが子供たちの心に深く刻みつけられたようです。

ビデオに撮らせていただいたのですが、子供たちは何度も何度も見たがったり、歌に合わせて一緒に口ずさんでおります。（交流会を）見られなかった保護者の方も面会日にビデオを見られ、喜んでおられました。

今後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と語っている。

サークル員たちも一様に「病気と闘いながら学んでいる子供たちとのふれ合いを通し、多くのものを学んだ」と語りながら、「もっと良い公演をするためにもサークル活動をいっそう頑張りたい」と意欲を燃やしている。

今回初めて行われた小学校での芸術公演も、そのような交流過程を通し、「本当に朝鮮学校では人間愛あふれる立派な教育を行っている」と、校長をはじめ同校関係者らが深い感銘を受けたからに他ならない。

このように友情と親善は、ますます深まっている。



公演後、花束を受けるサークル員たち



公演を見た日本の子供たちは大喜び

見過ごせぬ人権侵害

精神鑑定医の指定認定実現に27年もの年月要する

在日朝鮮人の精神科医が精神鑑定医の資格を日本厚生省から認められるようになるまでには二十七年という長い年月を要した。

東京・足立区に住む在日同胞の精神科医、李海徹さんが最初に精神衛生鑑定医の指定申請を行ったのは、一九六〇年十一月のこと。だが、厚生省は李さんの鑑定医指定申請を「日本国籍を有しない」ことを口実に却下した。「外国人は公権力の行使または国家意思の形成への参画にたずさわる公務員となることは出来ないものと解されている」「精神鑑定医は、公務員ではないが、都道府県知事が精神障害者の入院措置処分を行うことの適否の判定を成すことを主たる任務とするものであって、その職務は公権力の行使そのものではないとしても実質的にそれをき束するものであるので、外国人は精神衛生鑑定医として不適当である」（厚生省精神衛生課長通知、一九六一年三月六日）というのが、その理由であった。

日本の精神衛生法にも外国人の精神衛生鑑定医を排除する明文規定はなく、外国人であるがゆえの除外は、世界人権宣言や法の下の平等を定めた日本国憲法の精神に照らしても、また一般外国人と異なる在日朝鮮人の歴史的特殊事情に照らしても不当だといえる。

「私は精神科医として多数の患者の診療に当たっているので、最初の申請時も拒否される根拠はないと思った」と李さん。

にもかかわらず、日本当局の差別的措置により在日同胞精神科医は、精神的苦痛を強いられるとともに、実際の診療活動面で、たとえば厚生年金（障害年金）の診断書が書けず、また精神障害者の入院の鑑定ができない、臨床活動が行えない、などの著しい制約を余儀なくされた。

「私の診察する患者の九九％は日本人で、在日同胞は一％ぐらいです。私たちは日本の医師免許を取得し、日本の地域医療に少なからず寄与していると自負しています。精神鑑定医の資格がないと、精神病患者が年金を申請する際に添付する診断書を書けないという問題などが起こる。産婦人科医が分娩証明書を書けないようなもので、精神的苦痛であるだけでなく、患者にも迷惑をかけることになる」

李さんの鑑定医指定申請後も、かなりの在日同胞精神医が厚生省に同様の申請を行ったが、いずれも外国人であることを口実に却下された。

このような状態が長期間続いた。医療人の使命に照らし精神障害者等の医療を行い、その社会復帰を促し、発生の予防に積極的にかかわりたいという在日同胞精神科医の希望はさらに強いものとなった。

その間、日本は内外人平等の原則を定めた国際人権規約に加入し、世界のすう勢は人権の尊重と拡大、学問研究の国際化へと発展した。

このような情勢の発展ともあいまって、李さんは一九八七年二月、重ねて精神衛生鑑定医の指定を厚生省に申請したが、同年五月、却下された。

李さんをふくむ在日同胞医療人らで結成されている在日本朝鮮人医学協会は在日本朝鮮人総聯合会と連名で、同年五月、同胞精神科医を鑑定医の指定から不当に除外している態度を改めるよう、厚生大臣に申し入れる一方、内外に実状を広く知らせ、支援を呼び掛けた。

在日朝鮮人精神科医が精神衛生鑑定医の指定から除外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た日本人精神科医をはじめ、多くの人が支援をよせ、また日本国会でも社会党議員らが政府の不当な態度を追及した。マスコミも問題をとりあげ、政府に態度の是正を迫った。

これらの努力が実り、厚生省は八七年十二月二十四日、かたくなに堅持してきた態度を改め、「日本国籍を有しない医師についても指定要件を満たす者については厚生大臣の指定を行うものとすることにした」のである。（同省精神保健課長通知）

李さんらは精神鑑定医として指定された。だが、そこにいたるまでに二十七年もの年月を要し、朝鮮総聯に結集しての運動が不可決だった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精神鑑定医の資格を認めるよう要請する総聯中央と医協の代表（87年5月13日　厚生省）

民主への願い歌に

李政美コンサート

さる二十一日、東京・東中野にあるポレポレ坐で「李政美ちいさなコンサート―韓国民衆歌キム・ミンギを歌う」が行われた。

コンサートは昼と夜に二回催され、李さんの他に、新谷のり子さんと小室等さんがそれぞれゲストとして招かれた。

コンサートの第一部では、「この世のどこかに」や「アチムイスル（朝露）」を中心とする、キム・ミンギの作詩作曲による作品を歌い、「川辺で」という曲では李さん自らがチャンゴ（長鼓）を手にしての熱唱を披露した。

二部では抵抗詩人・高銀の作による「故郷」、キム・ヒョンジュン詩、洪蘭坡曲の「ポンソナ（鳳仙花）」、ピオレッタ・パラ作詩作曲の「ありがとういのち」など、多彩なレパートリーで聴衆から喝さいをあびていた。

ここでは特に、李さんが民族衣装をまとって登場、その美しさに会場からは盛んな拍手が沸き起こった。

李さんは音楽大学で声楽を専攻した後、数年来、在日「韓国人」政治犯救援運動に携わってきただけあって、その伸びのある歌声と南朝鮮民衆の心を歌いあげた表現力は、他をよせつけない迫力を感じさせ、聴衆は李さんの歌に魅了された。



チャンゴを手に熱唱を披露した李政美さん

朝鮮の四季 折々の暮らし

山菜・野草採り

野の花で髪飾り

金剛山を初めて訪れたのは、十年前の三月も終わりのころでした。春とは名ばかりのころ、宿舎の周囲を散策しながら見るともなく目をやったそこに、何と蕗（ふき）の薹（とう）が頭をもたげているではありませんか。淡黄緑の色も清々しく〝もう春ですよ〟とささやく様な風情です。思わずかがみこんで見とれてしまいました。

幼いころ、故郷の山でもこんな風に見とれていたのを思い出しました。

あのころは、暖かい春風が吹くと、母やおばたちに引率されて子供たちは、山菜や野草採りに行ったものでした。一面に敷きつめられたように自生している山菜や野草類を、大人たちは手際よく摘みとります。お手伝いでついて来たはずの女の子たちは、可憐な野の花を摘んで髪飾りにしたり首飾りを作ったり、器量の足りないところをカバーするのに躍起です。〝日が暮れるわよ〟とたしなめられながらも好きにさせてくれた大人たちのおおらかさは、朝鮮のオモニの心の豊かさであったのでしょう。

私たちの祖先は、山菜や野草を、春先の野菜不足を補う意味も含めて食してきたといわれています。わらび、ぜんまい、トラジ（ききょうの根）、ずいき、たらの芽、たんぽぽ、水せりに蓬（よもぎ）など、いろいろな素材の特徴を生かし、料理方法を工夫して食卓をにぎわしてきました。

トラジのシャキシャキとした歯ざわり、たらの芽のナムルのほろ苦さ、よもぎ餅の美味など、懐かしく思い出された方もおられるのではありませんか。

都市に住んでいますと、山菜や野草とは縁がないように思えます。でも公園にも、たんぽぽはあります。ある日、子供たちを公園で遊ばせながら、せっせとたんぽぽを摘みました。見たらノビルもあります。ついでに採りました。今夜は野草料理で家族を喜ばせてやろうと、私は得意げでした。

たんぽぽは半量はキムチに、残りの半量はゆがいてナムルに。ノビルはゆがいてくるりと指で巻いて大皿に並べました。真赤なチョジャンも食欲をそそるようです。食卓は材料費タダのお惣菜でにぎわっていました。喜色満面の夫は、ビールを一口グイッと飲みほすと、ノビルをチョジャンにつけて口に入れました。賞賛を期待して見つめる私。

「なんだこれは！ こんなえぐいもの食べられるか」

都会のノビルは、都会人なみにアクが強すぎたようです。

（金玲希）



絵とカット・李耕雨

ふれあい

温かい愛情に包まれて

福島県会津若松市　彭洋姫

私は、今までの人生の三分の二にあたる十二年という長い年月を、朝鮮学校の寮で過ごした。朝高を卒業した今、たくさんの思い出がよみがえって来る。

私が寮に入るようになったのは他でもなく、朝鮮人としてりっぱに育って欲しいという両親の強い願いがあったからである。そんな両親でも、初級部一年というまだ幼くて何一つ満足にできない私を寮に入れるときは、とても迷ったそうだ。私が入学した後もよく心配していたが、しだいに寮生活に慣れていく私の姿に安心したという。たまに家に帰ると夕食後、家族に朝鮮の歌を披露したり、寮での色々な出来事を一生懸命話したりすると、両親は本当に寮に入れてよかったと喜んでいた。

もちろん寮には、父も母もいない。だけど私はいつも明るかったし、笑っていた。それは、私を心の底から愛してくれる朝鮮のトンムたちがいたからだ。寮生活の中では、もちろんケンカも沢山した。家に帰りたいと一緒に泣いた時もあった。その中で、楽しいことも苦しいことも一緒に乗り越えていくトンムの大切さを身にしみて感じた。そしてしだいに、民族心も芽ばえ、朝鮮人としての自負心も強くなった。

今私は、私を寮に入れてくれた両親への感謝の気持ちで一杯だ。もし私が寮生活をしていなかったら、自分自身を今のように鍛えられなかったことだろう。もし私が寮生でなければ、こんなにまで人を愛し愛されることを知らなかっただろう。寮生活は私にとって、青春のすばらしい思い出の一ページとなった。

寮生活などを通して、まるで本当の父母のように温かかった先生たちの姿に魅力を感じた私の夢は、教員になることだ。朝鮮大学校に入ったら一生懸命に勉強してたくさんの知識を蓄えて、素晴らしいソンセンニムになりたい。そして精一杯生き、その中で真の生きがいを感じたい。



在日朝鮮人選手が跆拳道世界大会に出場!!

第6回　跆拳道世界大会

■場所――ハンガリー・ブタペスト
■日時――1988．4／8・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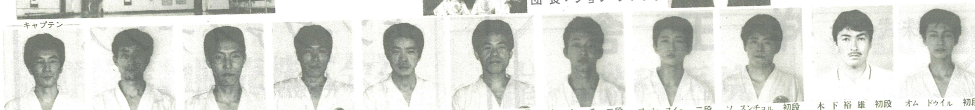




団長：ジョン ジンシク



コーチ：ファン ジン



キャプテン
柳逸男 三段　ソ マンチョル 三段　ハ ミョンセン 三段　西直記 二段　増田勝美 二段　野道秀明 二段　速水勇 二段　ファン スイル 二段　ソ スンチョル 初段　木下裕雄 初段　オム ドゥイル 初段

参加国：アルゼンチン、カナダ、ドミニカ、英国、フィンランド、ドイツ、ギリシャ、ジャマイカ、グリーンランド、オランダ、ハンガリー、インド、アイルランド、イタリア、日本、スペイン、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ノルウェー、ポーランド、プエルトリコ、スウェーデン、米国、ユーゴスラヴィア、ニュージーランド、ベネズエラ、等　30ヵ国

（경기종목）
● 틀（型）――団体．個人．（男・女）　● スペシャル　テクニック
● 맞서기（組手）――団体．個人．（男・女）　● フリースペシャル　テクニック
● 위력（パワーテスト）――個人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더 크게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24일 (음력 2월 7일) 목요일 【루계 제10165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가 2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전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려놓은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고있다.

도발적인 이 전쟁연습에는 6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하여 무려 20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무력과 조기경보기 《이―3에이》, 《비52》 전략폭격기, 핵무기를 적재한 전투폭격기 《에프―16》, 《에프―15》를 비롯한 수많은 비행기와 땅크, 미싸일과 항공모함전단 등 각종 신형작전장비들과 대량살륙무기들이 미국본토와 괌도, 하와이, 일본, 필리핀에 있는 미군사기지들로부터 투입되고있다.

수개월에 걸쳐 감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 《도하작전》, 《공중기동작전》, 《화력전》, 미싸일발사훈련 등과 《특수작전》까지 종합적으로 벌릴것이라고 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이 무분별한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구국방안을 내놓고있는 때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은 그들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우리 인민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흉악한 범죄행위로,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그에 동원된 병력의 규모와 장비수준으로 보나 훈련기간과 성격으로 보나 그 시기로 보나 철두철미 침략적인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여있으며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저장고로 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리는 무모한 불장난이 전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지지 않으리라고 과연 누가 인정할수 있겠는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본질을 가리울수 없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이미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도 점차 완화의 징조를 보이고있으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바라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기대와 념원에 부합되게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이하로 줄일데 대한 제안,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제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긴장완화제안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축소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으며 일방적으로 10만명의 병력을 축소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목적밑에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하며 다국적군축회담을 마련하는 문제 등을 시급히 협의해결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기하였다.

우리의 이와 같은 제안들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사회계의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모두 외면하고 새해벽두부터 계획적으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한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것으로 대답해 나섰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올림픽안전담보》의 구실밑에 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집중시키는 한편 이번 군사연습에 끌어들인 탄약과 군수물자들을 낡은 군사장비와 바꾸거나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줄것이라고 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떠드는 《남침위협》이니 《올림픽안전담보》니 하는것은 결국 저들의 무력증강과 핵전쟁 책동을 합리화하고 남조선에서 앙양되는 인민들의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이목을 딴데로 돌리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의 계기를 마련하려는것에 불과하다.

지금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주주의와 민족적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반미, 반《정부》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는 식민지군사파쑈통치체제의 심각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긴장격화와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에서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받아안은 우리의 전체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천백배로 보복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평화를 구걸하지는 않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정의의 위업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당치않은 구실밑에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가야 한다.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동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민족반역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의 이 진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그들자신이 딴 속심을 가지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있다는것을 자체폭로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이 신성한 올림픽경기를 《두개 조선》 조작과 전쟁정책에 악용하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한 책동과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대하며 그를 규탄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높여주리라고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조선반도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할것이다.

공화국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가 소집된다

4월 5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결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는 1988년 4월 5일 평양에서 소집된다.

한편 공화국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를 발표하여 대의원등록은 1988년 4월 3일과 4일에 만수대의사당에서 한다고 알리였다.

《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을 중지하라 반공화국, 반총련모략책동을 규탄한다

총련 도꾜도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

주요역두에서 힘찬 가두선전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남조선괴뢰들과 미일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폭로규탄하기 위하여 총련 도꾜도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은 18일과 23일, 19개 주요역두에서 가두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23일 아침 7시 30분, 제이아르 나까노역에는 총련 나까스기지부 일군들과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조신(오기꾸보지점) 일군들이 나와 삐라를 살포하였다.

그들은 출근길에 오르는 수많은 일본인민들에게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반동성과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을 까밝히는 삐라를 넘겨주면서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였다.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모략소동을 철저히 짓부시는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과업입니다.

한사람이라도 많은 일본인민들에게 모략책동의 진상을 까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대중정치선전사업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입니다.》(조청일군)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며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나갈 결의에 충만된 일군들은 인내성있게 일본인민들에게 삐라를 넘겨줌으로써 이날 약 1시간동안에 4천장에 달하는 삐라를 살포하였다.

제이아르 신쥬꾸, 오차노미즈, 유라꾸쬬를 비롯한 주요역두에서 량일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벌어진 가두선전에서 무려 10만장에 달하는 삐라가 살포되여 대의여론을 환기시켰다.



총련 도꾜도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은 미제와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힘찬 가두선전을 전개하였다.(사진은 23일 제이아르 오차노미즈역두)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열리게 된다

【평양 3월 20일발=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4.15를 앞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열리게 된다.

친선예술축전에는 세계 5대륙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름있는 국제음악경연수상자들을 비롯한 우수한 배우들로 구성된 60여개의 예술단체들이 참가하게 된다.

축전무대에는 음악, 무용, 기악, 교예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르게 된다.

이번 축전은 자주, 친선, 평화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 문학예술인들사이의 친선단결과 문화적 교류와 련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각지 초, 중급 학교들에서 졸업식 일제히 진행

각지 우리 학교(초중)들에서 졸업식이 일제히 진행되였다.(19, 20일)

상급학교에로의 진학의 기쁨과 기대, 모교를 떠나는 서운함이 졸업생들의 가슴에 오고간다.

내외원쑤놈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 우리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파괴, 폭행 행위에도 굴하지 않고 학과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며 조선학생답게 배워온 그들을 부모들과 총련일군들은 미더운 눈길로 지켜보고있었다.

한편 제3학기 종업식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사진은 지바조선초중급학교)



서울의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파쑈도당의 로조탄압을 규탄하여 집회와 시위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연세대학교 학생 200여명이 로태우파쑈도당의 로조탄압을 규탄하여 16일 집회와 시위투쟁을 단행하였다.

학생들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이 대학 도서관앞광장에서 민중생존권탄압분쇄를 위한 집회를 가지였다.

학생들은 집회에서 로태우파쑈도당과 그와 한짝인 매판재벌 현대그룹이 로조활동을 가로막으면서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데 대하여 신랄히 규탄하고 로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할것과 부당하게 해고당한 로동자전원을 즉시 복직시킬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또한 민주세력이 단결하여 파쑈도당의 탄압행위에 맞서싸울것을 견결히 주장하였다.

집회를 마친후 학생들은 로태우일당에 대한 분노를 안고 시위투쟁을 벌렸다.

공화국 국기와 국장에 깃든 이야기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우리는 공화국을 창건하시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칠 국기와 국장을 제정하는 사업에 바치신 심혈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부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1948. 9. 10)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1948년 1월중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다시 국기, 국장 도안을 맡아보는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미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 국기도안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그 형태에서나 거기에 담는 내용에서나 어느 나라것과도 다른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게 할데 대한 국기도안작성의 근본방향을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국기에는 붉은색, 흰색, 푸른색을 넣어서 만드는것이 좋겠습니다.

국기에 붉은색을 넣자는 것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들이 흘린 피와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적으로 반영하자는것입니다.

그리고 국기의 흰색은 조선은 찬란하고 유구한 민족문화를 가지고있는 하나의 민족국가라는것을 나타내게 될것이며 푸른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씩씩한 기백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상징하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국기를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게 할데 대한 국기도안작성의 근본방향과 국기에 넣어야 할 붉은색, 흰색, 푸른색에 깃든 상징적내용에 대한 교시에는 공화국의 자주적인 성격과 계급적사명을 뚜렷이 하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시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놓고 좀 의견을 나누어보자고 하시면서 앞상우에 서너장의 국기그림을 펼쳐놓으시였다. 16절지크기만한 흰 종이에 연필로 그리고 색연필로 색갈표식까지 한 국기그림이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일군들은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종이에 여러가지 비례로 국기의 색을 칠해보시면서 한장 또 한장 그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가 헤아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중 한장을 앞에 당겨놓으시며 이만한 비례로 하는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보기에도 좋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언제나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붉은색 오각별을 동그라미안에 그려넣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의 눈앞에는 완성된 국기도안이 선히 떠올랐다. 그것은 오각별과 붉은색바탕 그리고 대칭의 푸른색, 흰색 띠들이 선명한 대조를 이룬 숭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공화국국기였다.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상징◇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국장도안을 완성하는 나날에도 뜨겁게 미치였다.

국장도안을 완성하는 사업은 매우 복잡한 속에서 진행되였다. 그것은 당시 책임적인 자리에 들어앉아있던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이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방향대로 국장도안을 만들고있는 창작가들을 불러다가 별의별 궤변을 다 늘어놓으면서 국장가운데에 경복궁을 그려넣을것을 강요하였다. 이자들은 그래야 조선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국장도안에 경복궁을 그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상징하는 신성한 국장에 리조봉건국가의 왕궁을 그려넣으라는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소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서 나라를 독립시킨후 자본주의사회나 봉건사회가 아니라 착취와 압박이 없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주인이 되고 그들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인민들을 교양하여오시였던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창작가들이 반당종파분자들의 압력과 책동을 물리치고 완성한 국장도안을 봐주시면서도 국장에 경복궁을 넣으라는 것은 국기에 오각별대신 보습을 그려넣으라고 한것과 꼭같은 망발이라고 또다시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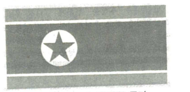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용광로대신 전기화를 상징하는 발전소를 중심부에 그려넣을데 대한 문제, 백두산을 원경으로 처리하고 오각별은 별빛이 빛나게 그림으로써 공화국정권이 계승하고있는 항일의 혁명전통과 우리 인민의 휘황찬란한 전망을 상징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둘레에 벼이삭도 더 탐스럽게 그려넣고 국장의 아래부분에 나라의 국호를 써넣을데 대한 문제 등 국장도안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신대로 우리 나라 국장에는 우리 공화국의 계급적성격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 나라의 휘황한 발전전망이 잘 표현될수 있었다.

조국의 존엄있는 국기와 국장은 이처럼 이 땅우에 자주의 기상 넘치는 새 조선을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착상되고 완성되였으며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우리 학습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우리 당이 중요시하고있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닐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면 혁명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녀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이기때문이다.

둘째로, 세계혁명앞에 지닌 민족적임무인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기때문이다.

문헌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거나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을 내세우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는것,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애국주의정신과 민족적자주성을 끝까지 지키고 실현해나가려는 민족자주의식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은 무엇보다도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자부심과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지는것이다.

현시기 주체사상교양,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만 조선혁명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조선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는것이다.

나의 좌우명

아는것이 힘이요,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지는 법이요

오 희 창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는것이 힘이요.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지는 법이요. 우리는 배워야 하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으나 아는것이 힘이라고,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나의 귀중한 좌우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를 내가 자기 생활의 지침으로 삼게 된것은 고급부시기였습니다.

고3때 《모범반》의 한성원으로서 조국을 방문한 나는 더 많은것을 알아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게 되였습니다.

원한의 땅 신천을 찾아가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중급부시기에 조국의 과거를 모르는 나를 보고 안타까와하던 아버지의 심정을 처음으로 리해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제대군인인 친척이 총대신에 펜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한 말이 자연스럽게 안겨오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아는것도 힘이 됩니다. 과거를 알아야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고 미래를 생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놈들과 판가리싸움을 하시는 간고한 나날에도 언제나 대원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강행군을 하는 대원들의 배낭속에는 늘 글공부를 하기 위한 모래가 들어있었고 그들은 숙영지의 우등불을 벗삼아 학습을 하여 조선의 력사와 지리를 배워나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총을 잡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돌아온 류학생들에게 승리한 조국을 위해 공부하라고 또다시 그들을 내보내시였습니다.

알아야 힘이 되고 힘이 있어야 희망도 꽃피울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나는 조선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였고 일군으로 나서게 된 오늘 더더욱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있습니다. 나는 조청일군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도 뚫고나갈수 있고 사업에서 은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학습과 실천활동을 통해 많은것을 배우며 조국을 위해 더 큰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조청 산따마 동부지부 부위원장)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무어주신 농민동맹 결성 60돐기념 중앙보고회

—평양에서 진행—

【평양 3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무어주신 농민동맹 결성(1928. 3. 10) 6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4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결성된 농민동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인 첫 농민조직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농민동맹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전체 농업근로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였다.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부주석인 박성철동지가 보고회에서 전달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60년동안 우리의 혁명적농민조직들과 농민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농민조직들은 농민대중을 자기 대오에 묶어세우고 광활한 농촌지역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혁명의 주체를 마련하며 무장투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간고하고 장구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고 혁명적농민조직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가 마련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농민조직건설의 전통은 우리 혁명의 발전과 농촌문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

축하문은 해방후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창립된 농민동맹과 거기에 굳게 결속된 농민대중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고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력사적위업 수행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왔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새로운 조건에 맞게 강화발전된 농업근로자동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이 밝혀준 길을 따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 모든것을 바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농업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수동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8년 3월 10일에 결성하신 첫 농민동맹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조국의 광복과 농민들의 사회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적농민조직이였으며 일제와 친일지주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광범한 농민대중을 망라한 대중적농민조직이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혁명적농민조직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1946년 1월 31일에 북조선농민동맹을 창립하신데 대하여서와 그이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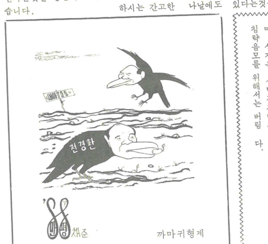
그이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농민조직건설에 관한 사상과 농촌문제해결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농업근로자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는 우리 시대 혁명적농민운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며 농업근로자동맹사업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강령이라고 보고자는 강조하였다.

목소리

괴이한 행각

《대통령》권좌에서 물려나 신문 1면보도에서는 자취를 감춘것으로 알려졌던 전두환역도가 옛꼬리지 그대로 23일 워싱톤에 나타났다. 백악관의 《초청》으로 미국행각에 나섰다는것인데 3주일동안이나 그곳을 싸다닐 예정. ▼미국상전이 식민지괴뢰의 《평화적정권교체》직후에 손때묻은 졸개두목을 백악관으로 끌어들이는것부터가 기묘한것이라 하겠지만 아직 발족조차 하지 않고있는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자격으로 전두환놈이 미국방성과 중앙정보국까지 찾아다닌다 하니 참으로 괴이한 행각이 아닐수 없다. 4월의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남조선정국이 미묘한 국면에 놓여있는데다가 인민들의 반미, 반파쑈투쟁기운이 날로 고조되고 한편에서는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이 절정에 달하고있는 이 시기에 악명높은 상전과 주구는 무슨 흉계를 꾸미려하고있는가. ▼주구는 《권세》를 어떻게나 유지해보려고 상전에게 굽실거리며 상전은 식민지지배와 침략음모를 위해서는 버림받은 상가집 개까지 써먹는다. 《국가원로자문회의》란것을 새로 조작한것도 전두환의 《지위》를 보장하고 그 주구행세경험을 로태우에게 물려주도록 하자는것. 이 《자문회의》는 그 기구가 《새로운 정부부처》와 같이 방대할뿐아니라 괴뢰대통령에 대한 《정책건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청원서처리》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내의 상원(上院)적성격》을 가진다. (《조선일보》 3·6) ▼지난해 봄에 폭로된 《청와대》의 극비문서 《88년 평화적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에는 《88년이후에도 전대통령각하가 계속 지도력을 행사할수 있는 정치적기반을 구축》할것과 그놈의 《지도》밑에 《민정당》이 《최소한 2천년까지 집권을 계속》할것 등이 꾸며져있었다. 전두환놈의 《자문회의 의장》자격으로 감행되는 미국매국행각은 그러한 권세욕의 발현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그놈을 부추기는 미제의 위험한 권모술수에 더욱 경각성있게 대처하여야 하겠다.



까마귀형제

제15차중앙학과경연대회에서 《학교상》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원들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서

오사까조선고급학교는 지난 학년도에 학력제고에서 큰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제15차중앙학과경연대회에서는 《학교상》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 성과창조의 과정은 곧 이제까지 배여있던 낡은 사업방법의 타개과정이였고 모든 교원들의 노력과 열성이 쉼없이 발휘된 나날이기도 하였다.

매 시기 전망, 당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점령을 위해 혁신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총화와 재포치를 중단함이 없이 반복하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운동을 심화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는 혁명화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야말 교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집대성돼있다.



제반 조청활동이 학습제1주의에 기본을 두고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의욕은 비상히 높아졌다. (사진은 반장모임에서의 협의)

부족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교육사업의 성과와 조국의 미래인 새세대들의 질적상태가 규정됩니다.》

이곳 학교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제고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었다.

학과성적은 의연히 제고되지 않았으며 제자리걸음이 최근년간 계속되였다. 이에 대한 학부형들의 걱정도 많았다.

《과연 무엇이 이런 부족점을 낳게 하는가.》

이런 형편에서 교원들은 자신을 곰곰히 돌이켜보면서도 집단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소홀히 한데서 원인을 찾아 이 문제에서 개선을 이룩하는데 힘을 기울여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교육부문에 주신 지시를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과 토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학교사업의 실태분석, 총화를 집중적으로 벌림으로써 《혁명화의 수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 학생들에게서 원인을 찾는것이 아니라 기본혁명과업인 교수교양사업에 대한 무책임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틀어잡았다.

이때부터 3년간(85학년도부터) 혁명화를 다그치는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며 《공부를 잘하는 모범학교》수준에로 끌어올릴 대담한 목표를 내걸어 이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강사의 질을 높이고 사전준비를 구체적으로 한 토대우에서 문답식학습토론 등의 방법으로 정규학습을 내용있게 가져가며 하루생활 및 주생활 총화를 자기 비판과 호상 비판의 방법으로 전개하는 과정에 이제까지 농후하게 박혔던 학습에서의 형식주의 경향이 가셔지고 교원들의 조직생활은 날따라 강화되여나갔다.

이러한 사업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교원들이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학교사업전반의 발전을 위한 기본고리를 풀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자각해나갔기때문이다.

이런 속에서 교원들의 학습에 대한 관점은 부단히 개선되고 각 학습마당에서와 《1만페지책읽기운동》에서 배운 내용들이 《교수교양의 무기》로 되여 45분간의 수업에도 차차로 반영되여나갔다.

학습과 조직생활 강화를 위한 사업은 《모범교원집단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벌어짐으로써 더욱 촉진되여나갔던것이다.



교원들의 교수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보다 높아져 45분수업은 실속있게 진행된다.

교수의 질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

교수사업의 질적인 수준제고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졌다.

이 사업의 실속있는 수행을 위해 학년단위의 교과체계, 교수교양사업을 책임지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그리고 서로 교수사업을 의논하고 통일적으로 보장하는 마당으로 소분과체계를 새로 내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첫단계에서는 교수준비를 구체적으로 짜고들기 위해 교수안작성부터 면밀히 하는 사업을, 둘째단계에서는 교수과정의 제고를 위해 《복식수업참관》(교무, 학년 책임교원, 과목담당교원들 여러명이 참가)사업을 정상화해나갔다.

이 수업참관을 포함한 교수진단사업은 지난 1년간에 1,200번이상 진행되였으며 3년동안을 통하여 각 교원들이 자체 교수를 보다 랭정히 돌이켜보는데서 효력을 보았다.

셋째단계에서는 검열과정을 강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수업에 《5분간소시험》을 도입하면서 《500개문제풀이》(85학년도), 《통일숙제》(86학년도) 그리고 5차례에 걸치는 교내시험을 수시로 조직해나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내용습득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며 지도하는 기풍을 세워나갔다.

이 사업과정에서도 교원들의 열성은 대단히 높았다.

교수사업에 대한 토론, 론쟁은 교수연구강습(주에 1번), 합숙제(달에 1번)들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특히 합숙제마당은 매 교원들이 실지교수사업의 제고를 위해 과연 무엇이 요구되는가, 무엇이 걸리고있는가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마당으로, 교수사업에서의 대책을 강구해나가는 의의있는 시간으로 되였다.

교수사업을 위한 각종 마당들이 실속있게 진행되여나간것은 이 2년동안에 사회주의교육학, 심리학, 교육과학과 선진경험 등 80제목을 넘는 내용의 학습 연구와 토론, 방식상학들이 열기띤 분위기속에서 벌어진데서 알수가 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교원들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책임지는 관점에 토대하여 성적, 학력 제고에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면서 교수사업에 착수해나갔다.

※ ※

이곳 학교 학생들은 조청활동의 기본을 학습제1주의에 두고 학업에 열성을 다해나가고있다.

특히 집단을 위하는 마음이 학생들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통일숙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자신이 채점하고 검열하는것을 일관하게 제도화하고 《학급적으로 학력을 제고하자》는 마음으로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분위기가 떠돌고있다.

《학습소조》(리과, 영어, 수학, 사회)도 활발하다.

이곳 송창도교장은 《토대가 축성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기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에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자는 교원들의 립장과 자세가 깔려있으며 그들의 헌신성이 깃들어있는것입니다.》고 말한다.

이 자랑찬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공부를 잘하는 모범학교》의 영예를 지닐 굳은 결심밑에 계속 전망성있게 사업해나가고있는 이곳 학교 교원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만 간다.

(본사기자 조방호)

사진교랑 우리 삶의 이모저모 ⑩

립춘, 경칩도 지나 봄기운이 완연하다.

봄의 도래를 남먼저 감촉한 어린것들은 뽈차기, 돌차기, 줄넘기 등 즐거운 놀이를 찾아 밖으로 뛰여나가기가 바쁘다.

도꾜조선제9초급학교 운동장은 쉬는 시간이 되면 옥외놀이를 하는 학생들로 붐빈다.

그 가운데 녀학생들이 가장 즐기는 일륜차타기.

어머니회가 바자의 리득금으로 새로 20대나 선물해준 일륜차.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나라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알아선지 《누가 먼저 잘 타는지 보자꾸나.》, 《3인1조로 손잡아 달려보자요.》라고 하면서 함박꽃같은 웃음을 한껏 짓는다.

얼마없어 새학년도, 몸도 마음도 한층 커진 우리 학생들이다.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학습회

부락해방가와니시시민공투회의 주최

부락해방효고현가와니시시민공투회의 학습회 《남조선려객기사건의 진상을 생각한다》가 14일 저녁, 27명의 참가밑에 가와니시시종합쎈타에서 진행되였다.

학습회에서는 총련 효고현본부 로광래국제부장의 강연이 있은후 질의응답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인 자료밑에 폭로한 강연은 참가자들속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가와니시시직원조합 집행위원회 야마까와 시게오위원장은 《이제까지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조작되였는가에 대하여 옳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있었으나 오늘 강연을 통하여 그 진상을 똑똑히 알수가 있어 남조선당국이 꾸며낸 모략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이러한 모략을 꾸며낸 남조선당국에 대하여 치솟는 분격을 억누를수가 없으며 일본정부당국의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사회당소속 가와니시시의회 가께하시 이사오의원은 《진상은 명백하며 그것은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며 일조친선의 뉴대를 더욱 깊여나갈것이다.》고 말하였다.

이날 학습회에서는 비데오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되였다.

【가와니시분국】

범죄적인 핵전쟁소동과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규탄한다

—각지 동포들의 목소리—

진실은 가리울수 없다

총련 교또부 니시교고꾸분회 조수광분회장

진실은 그 누구도 가리울수가 없다. 총련동포들은 물론 민단, 미조직 동포들에게 주는 새로운 사실자료로 되는 이번 총련의 기자회견은 또하나의 강력한 반론자료이다.

나는 분회장으로서 항상 동포들과 접하는것만큼 새로운 이 사실을 총련동포는 물론 민단, 미조직 동포들과 일본사람들에게도 적극 선전하여 공화국과 총련의 지지대렬을 부단히 확대해나갈것이다.

내외에 적극 해설침투하리

시가금강보험상회 김종두영업부장

움직일수 없는 물적증거는 공화국의 권위와 총련조직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의 사업과 활동에서 더없는 《무기》로 될것이다.

지금까지 신심을 가지면서도 일본의 그릇된 보도에 대하여 론박할수 있는 구체적인 《물적증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었다.

그런 속에서 이렇게 《마유미》는 남조선괴뢰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유령인물이라는 증거를 내놓았으니 그야말로 가슴이 후련해졌다.

나는 보험일군으로서 일상적으로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 많은 일본사람들과 접하게 되는것만큼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내외반동들의 음흉한 모략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정치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동포들을 적극 불러일으켜나갈것이다.

모략의 진상은 밝혀지기마련이다

공화병원 사무국 의사과 김동필부주임

동포환자들속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의 일부 편견보도에 동요하거나 《이건 어떻게 되고있는것인가.》라고 불안해하던 환자들도 있었으니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그런 의미에서 좋았다고 생각한다.

기자회견이후 동포환자들은 그를 보도한 신문들을 코피해달라고 말해오는데 신심을 얻었다고 본다.

모략의 진상은 감출수는 없으며 드러나기마련이다.

동포환자에 대한 간호사업과 함께 내외반동들의 선전공세에 못지 않게 선전사업을 벌려나가겠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행위를 규탄하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투쟁은 각지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사진은 녀성동맹 도꾜도본부)

동포들에게 고무를 주었다

조은오사까 센슈지점 섭외계 김구일일군

나는 처음부터 이번 남조선려객기사건이 남조선괴뢰들이 꾸며낸 자작자연극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조선《안기부》의 《발표》나 《정보》만을 대량적으로 보도하는 일본매스콤의 영향으로 동요하는 동포들도 적지 않았다. 그건 각계층 동포손님들이 자꾸 우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물어오는것으로 잘 알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내용에서 많은 동포들이 크게 고무되였다는것을 그이후의 섭외활동에서 알수 있었다.

나는 섭외활동을 잘하여 동포들에게 힘과 신심을 안겨주도록 제때에 선전사업을 벌려 모략을 짓부셔나갈 각오이다.

어서어서 자라라



황 성 실

(녀—1살 6개월)

1986년 9월 24일생

아버지 황영철(32살), 어머니 정순복(29살)

총련 후꾸시마현 아이즈와까마쯔지부관하

한살 되나마나 할 때부터 펜을 잘 가지고 쓰는 성실이.

크며는 학자가 될란지, 작가가 될란지.

온 가족의 사랑을 담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성실이야, 어서 커서 조국의 훌륭한 역군이 되여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환영합니다

학령전아동의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보내는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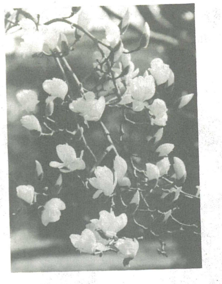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5

조선신보사 편집국

《어서어서 자라라》 앞

문화

목련꽃



수필

존엄있는 장래에 대한 생각

량 이 진

며칠전《조선신보》의 지면을 들여다보니 하나의 보도기사에 눈이 끌리였다. 나고야시의회에서 자민당소속 의원이 재일조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늘어놓아 큰 물의를 일으키고있다는것을 알리는 기사였다.

이 인물의 발언이란것은 이곳 미나도구의 시영(市営)주택에 살인범그루빠가 살고있었던 문제에 언급했을 때 궤쳐댄것이라고 한다.

《그 부근은 아주 환경이 나쁘다. 한국인, 조선인이 많아 그곳 소학교의 비률도 일본인 4, 한국인 6의 비중으로 돼있다. 사나운 마을로 돼있다. 환경정비를 하는수밖에 없지 않은가.》

악의에 찬 이런 소리를 그저 참고 넘길수 있는 신경이란 우리에겐 없다.

이 살인범그루빠란 얼마전에 잔인한 《아벡크살인사건》으로서 일본보도기관을 통해 널리 알려진 그 만행을 저지른 일당인것이다. 그런데 그 사건과 결부시켜 마치도《조선인이 그 지역의 환경을 악화시키고있다》고나 말하고싶은 넉두리에 이가 갈리기만 한다.

이번의 차별발언이란것은 일본의 지방의회에서 표면화된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밑바닥에 깔린 일본지배층의 일관한 재일조선인정책이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똑똑히 드러내보였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이렇게 번져가더니 오래간만에 일본인친구며 동포상공인들과 자리를 같이했을 때 벌어진 열기띤 론의의 마디마디가 떠올랐다.

일본인친구는 공화국과 관련된 모략사건이 조작될 때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 그것도 나어린 학생들과 녀학생들에 대한 도발, 박해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두고 《정말, 일본의 수치이다. 용서할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자 우리 동포상공인이 남조선비행기사건은 어느 모로 봐도 공화국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것을 그토록 엄중하고 모략적인 허위선전에 리용하고 무고한 재일청소년들에 대한 박해로 번져가게 한 구조에서 이 사건을 통해 그 어떤 목적을 추구해보려는 배후의 검은 세력을 그려보게 된다고 실토했다.

이야기는 더더욱 열기를 띠게 됐다.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이야기며 미국에서의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등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화교상법(商法)》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있는 중국의 화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종횡무진으로 번져갔다.

《그런데 친구,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통털어서 결국 우리가 똑똑히 명심해둬야 할 문제가 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네.》

《민족차별이란게 시대착오란 말이지.》

《오늘이야말로 타민족을 지배하려는 민족은 그자체도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때라는것일세.》

숱한 이야기들이 그칠새없이 오고갔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이 현상자체에 필자는 《피로감》보다 재일조선인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결국 이 세상엔 별의별 론리가 있지만 상식에 이길수 있는것이란 존재할수 없다는것이 아니요?》

《그러니 뭐니뭐니해도 사람으로서의 자주성, 민족의 존엄이란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도 해칠수 없으며 그것은 확고히 보장된 기본적권리라는것이 오늘의 시대의 상식이라는것일세.》

여기까지 론의의 내용이 떠오르자 나고야시의회에서 있은 그 차별발언이야말로 몰상식한 일제망령의 잠꼬대, 시대의 쓰레기통에 집어던져야 할 망언이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났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낡아빠진 론리가 엄연히 이 땅에 뿌리깊이 남아있고 숨쉬고있다는 현실이다.

《한일조약》체결후 총련사업과 민족교육을 규제하려고 《출입국법》이며 《외국인학교법》의 조작에 열을 올리다가 내외여론의 호된 규탄을 당하면 일본지배층안에서 재일조선인문제는 《100년전쟁 다루듯이》 근기있게 대해야 할 문제라는 소리가 나왔던것이 어제일처럼 생생하다.

재일조선인을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어떻게 할것인가》는것으로가 아니라 《치안문제》로 다루어 그들의 사회활동을 탄압하는 한편에서 《시민적권리》를 운운하며 교묘하게 동화를 촉진하려는 저의가 오늘도 뚜렷이 엿보인다. 게다가 력대 남조선위정자들은 그런 일본당국의 정책에 적극 맞장구쳐왔다.

탄압과 동화를 기본으로 한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거기에 호응해나선 남조선괴뢰들의 《기민정책》, 이것들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자주성을 유린하며 그들을 괴롭혀왔다.

재일동포들의 자주적권리는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교포보호정책과 총련의 끈질긴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러고보면 우리 겨레의 존엄있는 장래는 진정한 조국의 품과 그를 참답게 대신해주는 총련에 뭉쳐 투쟁하는 길에만 존재하는것이지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조국과 떨어진 그 어떤 《제3의 길》에는 있을수 없다.

차별도 박해도 당함이 없이 본때있게 상기업을 해보려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것은 절대로 놓칠수 없는 시각(視角)이라는 신념이 솟구쳐올랐다.

(언론출판일군)

대중가요 민족의 력사와 ②

《목포의 눈물》의 작사자는 누구인가

잊을수 없는 가요들에 대한 범죄적위조행위

조 령 출

작품주인의 이름이 달라진 사실을 우리는 가요 《목포의 눈물》을 놓고도 말할수 있다.

이 노래는 1930년대초부터 《오케》레코드의 전속가수였던 리란영(李蘭影)이가 부른 인기가요로서 대중속에 널리 알려졌다.

사공의 배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아씨 아롱젖은 옷자락
리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설음

일제의 야만적인 악정학정밑에서 더는 살래야 살수 없어 남부녀대(男負女戴)하고 조상의 유골이 묻힌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 쪽배에 몸을 싣고 정처없이 목포항을 떠나는 우리 동포들,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수 없는 그들을 바래우며 부두가에 눈물짓고 서있는 가족친척들… 작사자는 《목포의 눈물》을 통하여 식민지노예살이를 하는 민족의 슬픔을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일제통치시기 나라잃은 망국의 설음을 선률에 태워 오열하던 리란영은 8.15후에도 미제침략군이 강점한 남조선에서 여전히 《목포의 눈물》과 같이 비탄에 젖은 노래만을 부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이후 사람들은 목포에 이 노래의 비(碑)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목포의 눈물》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가 새겨져있고 그 옆에 세운 다른 비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살아있는 보석은 눈물입니다. 남쪽하늘아래 꿈과 사랑의 열매를 여기 심습니다. 리란영의 노래가, 문일석의 가사가 여기 청호의 넋처럼 빛나고있습니다.》

보는것처럼 여기에 세워진 비에는 작사자가 분명히 《문일석》으로 되여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출판된 《한국가요반세기》에는 《김릉인 작사》라고 되여있다. 어느것이 진실이며 어느것이 위조인가? 1960년대초에 세운 비석에 새겨진 이름이 진실이 아니겠는가.

도저히 리해가 되지 않아서 나는 얼마전에 1930년대 《오케》레코드에서 제작한 《목포의 눈물》레코드판을 다시 확인해보았다. 거기에는 《문일석 작사》라고 쓴 글자가 아직도 명백히 남아있었다. 이 레코드판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아직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작사자를 바꾸어버릴수 있단 말인가.

내가 문일석(文一石)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시기 김릉인(金陵人)의 필명이려니 하고 속을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들을 다 잘 알고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언급할것은 처음의 비문(碑文)에는 작곡가의 이름이 밝혀있지 않았다는것이다. 나는 당시 남조선사진화첩에 실린 이 비문을 보면서 작곡가가 북으로 들어왔기때문에 그런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정경문화》 1986년 10월호에 실린 사진에는 이 비문을 다시 고쳐서 《손목인 작곡》이라고 첨부하였던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손목인이 당시 《타향살이》, 《짝사랑》, 《바다의 교향시》, 《사막의 한》 등 많은 노래들을 작곡한것은 사실이지만 《오케》레코드에 《타향살이》와 《목포의 눈물》, 《울어라 문풍지》, 《역마차》 등을 편곡(編曲)하여 손풍금독주로 취입하였을뿐 《목포의 눈물》의 원작곡가는 아니라는것이다. 만약 손목인이가 원작곡가라면 처음 비를 세울때 작사자와 가수의 이름을 밝히면서 남조선에 살아있는 손목인이 작곡가라는것을 왜 빼놓았겠는가. 손목인은 어디까지나 《목포의 눈물》의 편곡자였지 원작곡가는 아니였다.

1960년대초에 출판된 한 남조선출판물에 의하면 《목포의 눈물》과 함께 리란영의 인기가요의 하나였던 《울어라 문풍지》도 작곡가가 북으로 들어왔다 하여 손목인 작곡으로 만들어놓았고 《련락선은 떠난다》, 《잘 있거라 단발령》의 가수로 인기를 모았던 장세정(張世貞)의 취입곡인 《역마차》는 리봉룡 곡으로 되였으며 백년설이가 부른 남해림(南海林) 작사인 《대지의 항구》는 추미림 작사로 바꾸어놓았다.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반공대결과 민족영구분렬을 위해서라면 세상이 다 알고있고 물적증거가 명백한 사실을 위조하는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철면피한 들이다.

남조선에서 작품의 주인이 무시되고있는 실례로는 민요 《노들강변》도 들수 있다. 이 민요는 《봄아가씨》를 비롯하여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작한 작곡가 문호월(文湖月)의 대표작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이 민요가 지금 무대에서도 많이 불리워지고있고 무용곡으로 편곡되여 무용《노들강변》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들을 때나 이 무용을 볼 때면 작곡가 문호월을 생각한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문호월이 8.15전에 고인이 되였다고 해서 그런지 그의 명곡 《노들강변》을 작곡가의 이름도 없이 편곡자의 이름만 밝혀 《민요곡집》에 내고있다. 누구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냈다면 몰라도 편곡자의 이름은 밝히면서 작곡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계속)



중년기의 필자



조령출 작사 《역마차》와 문일석 작사 《목포의 눈물》, 남해림 작사 《대지의 항구》 등이 취입되여있는 레코드판들

우리 나라 문예소식

문예도서들을 많이 출판

장편소설 《아침해》, 중편소설 《고향길》, 시집 《백두의 노을》 등

【평양 3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에서는 최근 장편소설들인 《아침해》, 《두만강의 봄》, 《전선》, 중편소설들인 《고향길》, 《폐사로운 계절》, 시집 《백두의 노을》 등 많은 문예작품들을 새로 출판하였다.

장편소설《아침해》는 서해지구의 철광기지인 은률광산의 박토처리를 위한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건설을 발기하고 이끌어준 우리 당의 령도사적에 기초하여 씌여진것이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원대한 조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정하고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잘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두만강의 봄》은 193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조국광복의 성전에 일떠선 청년들의 투쟁을 그리고있으며 장편소설《전선》은 조국해방전쟁시기(1950. 6—1953. 7)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조선에서는 장중편소설을 비롯하여 수백종의 다양한 주제의 문예작품들을 출판하게 된다.

이 문예작품들은 김일성주석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그리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조국을 받들어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풍모,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문제 등이 기본주제로 되고있다.

장편소설들인 《후대의 길》, 《눈서리》, 《철산봉》, 《열흘낮 열흘밤》 등이 대표작이다.

장편소설들인 《향토》, 《은하섬》 등 당의 령도아래 힘있게 진행되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투쟁과 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근로자들의 위훈을 형상한 작품들도 출판하게 된다.

공화국창건 40돐(1988. 9. 9)을 맞이하여 기념작품집 《보금자리》를 비롯하여 종합작품집들, 시집《나의 조국》등과 서사시, 문학문고, 문예리론집들 그리고 음악, 영화, 미술 년감들도 나오게 된다.

청소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의 문화정서적교양에 필요한 도서출판에도 많은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친구의 속심》, 《무쇠심장》, 《다시 찾은 꽃향기》 등 동화집들과 민화집, 우화집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금성청년출판사에서만도 올해에 200여종의 각종 아동도서들을 출판하게 된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25일 (음력 2월 8일) 금요일 【루계 제10166호】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88》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24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벌려놓은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본격적인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이 침략적인 전쟁연습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20여만명이 참가하고있으며 각종 신형작전장비들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륙무기들이 동원되고있다.

수개월에 걸쳐 감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 《도하작전》, 《공중이동작전》, 《화력전》, 미싸일발사훈련 등과 《특수작전》까지 종합적으로 벌릴것이라고 하고있으며 지금 각 군종들과 병종 부대들이 분계선지역에 집결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이 무분별한 대대적인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나라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이 엄중한 정세하에서 지난 3월 21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 하달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가 있었으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성명이 발표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와 공화국외교부성명은 원쑤들의 전쟁책동에 높은 혁명적경각성과 전투동원태세로 대처하여 조국땅과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고수하며 덤벼드는 원쑤들의 책동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짓부시고야말겠다는 우리 조선인민의 견결한 립장의 표시로 된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사랑하는 조국땅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흉악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차넘치고 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와 공화국외교부성명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며 범죄적인《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견결히 단죄규탄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하는《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악랄한 공격작전연습이며 극히 위험한 핵전쟁연습이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점차 핵군축방향에로 나가고있으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바라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속에서 무분별한 대군사연습이 감행된다는것은 력사와 시대에 역행하는것이며 인류와 평화에 대한 용서못할 도전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기대와 념원에 부합되게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단계적무력축감제안 등을 련이어 내놓았으며 일방적으로 10만명의 병력을 축소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특히 올해를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한 몇가지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려객기실종사건을 조작하고 반공화국, 반총련모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며 미, 일, 남조선의 삼각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서울올림픽안전담보》의 구실밑에 무력증강책동을 로골화하면서 범죄적인《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다. 이와 같은 범죄적행위는 우리 공화국과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책동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는 침략적인《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미군이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신성한 올림픽경기를《두개조선》조작과 전쟁정책에 악용하며《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 긴장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며 아세아와 세계를 열핵전쟁에 몰아넣으려는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흉악한 책동에 경각성있게 대하며 그를 규탄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높여주리라고 확신한다.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공화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호조반》 1만조를 꾸리고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리자!

각지에서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 궐기모임

모든 일군들이 우리 말 선생, 강사가 되자

총련 가나가와현본부

《모든 일군들이 그리고 우리 말을 잘 아는 비전임일군, 열성동포, 조대, 조고 졸업생들이 우리 말을 모르는 분회위원, 동포들을 분공맡아 우리 말 선생으로, 강사로 활동하자.》

총련 가나가와현본부는 18일,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군중적으로 벌리기 위한 궐기모임을 가졌다.

여기에는 총련중앙 박재로부의장이 이곳 본부관하 일군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날 궐기모임에서는 총련본부 정문책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조청 남부지부 김국한위원장, 원경순전임강사, 녀성동맹 가와사끼지부 김혜경선전부장, 조은 김사식부리사장, 총련 쇼낭지부 신준위원장들이 토론을 하였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하여 총련중앙이 제기한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은 동포들속에서 대를 이어 민족성을 고수하며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강화하는 애국적전진운동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이 운동을 힘차게 벌리기 위한 목표와 그 대책, 결의들이 언급되였다.

이곳 본부에서는 이번 운동의 성과적수행의 고리는 일군들에 의한《호조반》사업에 있다고 하면서 450조이상의 《호조반》을 꾸릴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계층별대상의 특성에 맞게 《상공인경제문화교실》, 《녀성문화교실》, 《학부형교실》, 《통신국어교실》과 청년학교, 일교재학조선청소년대상의 《국어교실》 등을 조직할것과 각 지점마다에 《조은거래자문화교실》, 문예체육소조들에서의 《속성 우리 말 학습》등을 실정에 맞게 조직할것을 제기하였다.

총련 가나가와현본부는 뜻깊은 국경절을 사회주의조국에서 맞이하자고 단기조국방문단사업을 조직하고있다.

이를 중요한 계기로 하여 동포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자》고 호소하였으며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자고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궐기모임의 맺음을 박재로부의장이 하였는바 총련본부와 일군들이 결의, 목표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총련 가나가와현본부 궐기모임

다양한 형태의 교실 내와

총련 아이찌현본부

총련 아이찌현본부에서는《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리자고 이 운동에 적극 궐기해나섰다.

19일에 조은아이찌본점에서 진행된 궐기모임에는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과 앞으로 현하에서 이 운동을 밀고나갈 기수들 300명이 참가하였다.

총련 아이찌현본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1985년이후 매해 우리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한 궐기모임, 합동모임을 가졌으며 지난해 제3차합동모임을 계기로 이 운동을 전기관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렸다.

각 단체, 사업체들에서는 맹원, 대상자들의 특색에 맞게 운동을 밀고나감으로써 지난해 청년학교, 각종 문화교실과 《호조반》에 수많은 각계층 동포들을 망라, 수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청에서는 《청년학교 1천개설치운동》을 통하여 청년학교《호조반》, 일고재학조선학생 국어교실, 통신국어교실, 하기학교 등을 다양하게 벌렸으며 녀성동맹에서는 문화교실과 《호조반》, 분회모임에서의 우리 말 학습운동, 《500개 단어외우기》, 《속성 우리 말 배우기》를 왕성히 벌려 귀중한 경험들을 이룩하였다.

또한 조은에서는 상공인들과 조은리사들 속에서 우리 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점에《우리 말 교실》을 개설하여 수강자들을 마지막까지 수료시키였다.

이러한 갖가지 성과와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이번에 벌리게 되는《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 나선 이곳 본부일군들의 결의는 대단하다.

궐기모임에서는 총련, 조청, 녀성동맹, 교직동, 조은, 일고재학조선학생 대표들이 각각 토론을 하였는바 그들은 일치하게 우리 말 배우기운동의 중요성, 지금까지의 경험과 부족점들을 이야기한후 이 운동을 전기관적, 동포적으로 벌림으로써 기어코 이 운동의 앞장에 서나가겠다고 결의다지였다.

특히 청년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게 됨으로써 그전까지 조선사람임을 감추어오던 자기가 조선사람으로서 살아갈 길을 찾게 되였다, 자기와 같이 민족을 모르고 일본사람행세를 하는 수많은 동포들에게도 우리 말과 글을 가르쳐달라고 호소한 조청 세이상지부 박행자청년의 토론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총련 아이찌현본부에서는 《우리 말과 글을 배워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자!》는 구호밑에 이를 《애국영예기쟁취운동》과 결부하여 벌려나간다.

그러기 위하여 일군들은 늘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한사람씩 분공을 맡도록하며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교직동, 조은, 류학동, 각종 문예체육소조들에서는 대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실을 내놓는다.

본부는 동포사는 도처에서 성인문화교실, 청년학교, 《호조반》을 조직진행하여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기관적으로, 동포적으로 벌림으로써 여기에 망라된 동포들을 각종 교양망에, 미조직동포들은 총련회원으로 만들어나가며 200호이상의 《우리 말 모범가정》을 꾸릴 결의를 다지고있다.

300개소에 《호조반》을

대상의 특성에 맞는 문화교실망도

총련 후꾸오까현본부

《모든 일군들이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자!》는 구호를 들고 총련 후꾸오까현본부에서도 지난 19일,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 궐기하였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성인교육사업에서 새 전환을 일으켜 새세대동포들을 애국운동에 더 힘있게 내세우자는 결의를 안고 본부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궐기모임에는 본부, 지부를 비롯하여 각 단체와 사업체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총련중앙 신상대부의장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본부 김영학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단체, 사업체, 학교의 대표들 6명이 토론을 하였는바 그들은《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동포적으로 힘차게 벌릴 대책과 결의를 밝혔다.

이곳 본부에서는 운동의 요구대로 모든 일군들이 분회담당소조사업과의 결부속에서 동포들을 분공맡아 우리 말 선생으로, 강사로 활동하며 공화국창건 40돐까지 현하 300개소에 《호조반》을 내올것을 다짐하고있다.

《호조반》의 교재로서 비데오, 카셋트, 《속성 우리 말 학습》 자료 등을 각각 1천개씩 동포들속에 보급할 계획이다.

운동에서는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등 단체, 사업체 조직들이 담당동포들의 특성에 맞게 각종 성인문화교실과 청년학교를 운영할 전망이라고 한다.

내용별로 보면 상공회는 《경제문화교실》, 조청은 《청년학교》와 《국어교실》, 녀성동맹은 《녀성문화교실》, 교직동은 《학부형교실》, 조은은 《조은거래자문화교실》, 류학동은 《국어교실》과 《집중강좌》, 《통신교육》 등의 개강운영사업을 추진하며 현하의 모든 예술체육소조들에서도 《15분간 우리 말 공부》 등을 조직하기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 본부는 이번 운동의 중요성과 높은 요구성을 현하 전체 일군들에게 인식케 하면서 지부와 단체, 사업체들이 구체적 계획과 력량편성, 목표설정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본부는 7월까지를 전기, 11월까지를 후기로 정하여 전기에 수강생망라목표의 60%이상을 수행하며 후기에 모든 목표를 해냄으로써 《우리 노래 발표모임》과 《우리 말 습득발표모임》, 웅변대회와 구연모임을 통해 그 성과를 과시할것을 내다보고있다.

이 운동에서 반드시 새 전진을 가져오고야말 이곳 일군들의 결심은 참으로 드높기만 하다.

궐기모임에서는 총련중앙 신상대부의장이 맺음을 하였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할 결의를 가다듬는 궐기모임참가자들(후꾸오까〔왼쪽〕, 아이찌)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실속있게

여러가지 교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조선말을 모르면 조선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일본사람이 되여버릴수 있습니다.》

총련은 올해 공화국창건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4월~11월)을 폭넓은 사회적운동으로 강력히 벌려나가게 된다.

이 운동은 전조직이 달라붙어 광범한 동포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며 쓰도록 하는 일대 군중적운동이며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성을 굳건히 고수해나가는 애국적전진운동이다.

따라서 종래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수많은 동포들을 망라하여 짧은 기간에 배우도록 하는 동포적운동으로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제반 조직사업을 깐지게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며 또한 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요구된다.

이제까지 성인교육사업을 위해 수많은 교재들이 작성되였으며 널리 리용되여왔다.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교재를 찾을수가 있다.

전차간에서, 일터에서 틈시간에 학습할수 있는 교재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교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최대한 활용할 때 《호조반》을 비롯하여 이번 운동을 더욱 실속있게 밀고나갈수 있을것이다.

아래에 이제까지 나온 교재들, 정기간행물에 실리여있는 교재들의 일부를 소개한다.

우리 말 교재들을 적극 활용하자!

(총련의 정기간행물들에 련재되고있는 교재들)

◇《조선신보》일본어판—《우리 말 강좌》

올해 1월 11일호부터 매주 월요일 6면에 게재되고있다.

여기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을 주로 한 회화, 발음과 글자, 단어와 문장의 3부류로 나누어 소개하고있다.

도표형식으로 받침에 관한 발음법이 설명되여있고 《완포인트》란을 설정하여 회화를 구체적으로 배워준다.

또한 《토막지식》에는 조선의 속담, 수수께끼 등이 소개되여있다.

◇《조선화보》—《알기 쉬운 조선어회화》

1987년 1월호부터 매호마다 실리여있다.

지난해에는 설날, 입학식, 졸업식 등 계절과 시기에 따른 인사말 그리고 조국방문시에 있어서의 회화가 그림과 배합되여 친절히 소개되였다.

올해호들에는 시간, 년월일과 관련된 회화를 비롯하여 다각도로 회화가 실리여있다.

◇잡지 《새세대》—《우리 말 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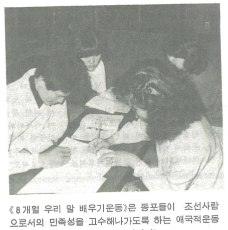
좌우 2페지 한판으로 1987년 1월호부터 매호마다 게재되여있다.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계절에 따르면서도 《스키장》, 《꽃놀이》, 《결혼식》 등의 내용으로 거기서 오고가는 생활적인 회화를 그림과 맞물리게 소개하고있다. 그리고 발음을 표기하고 그 뜻도 따로 설명하고있다.

◇잡지 《조국》—《우리 말 교실》

1986년 1월호부터 매 호 게재하고있다.

이 란에서는 례컨대 《젊다》와 《늙다》의 쓰임, 《머리》와 관련하여 쓰이는 몇가지 말이라는 제목아래 단어 결합, 쓰임에서의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은 동포들이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도록 하는 애국적운동이다.(총련 히로시마현본부관하에서)

(현재 준비중의 교재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의 실속있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교재들이 지금 작성되여나가고있다.

《우리 말 습득》이라는 소책자와 이에 의거한 비데오, 카셋트 교재가 비전임, 분회 일군 대상용으로 만들어지고있다.

또한 문예동에서는 《우리 노래 배우기》(15곡)라는 카셋트와 가사집을 준비하고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음악반주가 흐르며 가사가 화면에 옮겨지는 비데오를 작성중에 있다.

또한 체육용어를 중심으로 군중문예체육소조들에서 리용될 소책자 《우리 말 교재》와 함께 《조선의 우스운 이야기》라는 표제의 묶음단행본이 발행될 예정이다.

※ ※

이러한 교재들 이외에 각지에서 특색있게 교재를 작성하여 적극 활용하고있는 내용들을 알려주십시오.

알리는곳; 총련성인교육추진위원회

☎03(262)7111(대표)



총련중앙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에서 내놓은 우리 말 학습 교재

(이미 편찬보급되고있는 교재들)

《새 조선어회화》

(학우서방, 1987년 발행)

인사말을 중심으로 관혼상제, 체육경기의 관람, 상거래, 조국방문 등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말을 대화형식으로 묶은 교재.

례문마다에는 일본말의 번역과 해설이 씌여져있고 이 교재로 배우게 되는 1천개의 문장모두에는 발음표식(일본말 《가다가나》와 국제발음기호)이 달려있어 매우 알기 쉽게 편집되였다.

《조선어의 기초》

(총련중앙, 1978년 발행)

카셋트와 배합된 이 교재는 우리 말을 처음으로 배우는 동포들에게 맞게 문법, 전문용어를 쓰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련습해나가도록 만든 시청각교재이다.

문자와 발음을 기본으로 한 학습이 중심으로 되여있어 기초실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녀성들을 위한 《우리 말 교재》

(녀성동맹중앙, 1985년 발행)

일반적인 인사말과 함께 동포녀성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회화(식사, 심부름, 가족들간에서의 말 등)를 배움으로써 그들이 실생활속에서 우리 말을 습득하도록 만든 교재이다.

교재에는 김치 담그는 법, 노래 등이 수록되여있으며 기타 음식, 일용품들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 부록교재 《500개 단어외우기》가 있다.

《우리 말 회화집》(1, 2)

(학우서방, 1984년 발행)

우리 말의 기초실력을 가지며 일정한 어휘량을 소유하게 된 동포들(중급수준)에게 알맞는 교재다.

생활에서 쓰는 말을 각종 대화를 통하여 학습한다.

이제까지 배운 단어를 자기의것으로 하면서도 일상적인 회화에서 살려나가는데 좋은 교재로 된다.

《우리 말 비유》(1~3)

(학우서방, 1987년 발행)

우리 말을 일정한 수준에서 습득한 동포들을 위한 교재(상급반용).

이 교재를 통하여서는 풍부한 표현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할수 있는 실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조선어강좌》

(조선청년사, 작성중)

우리 말을 단기간에 습득하는것을 목적으로 4권의 교재를 리용하여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는 종합적인 교재이다.

첫째강좌에서는 인사말과 읽기, 쓰기, 발음법 등 기초지식을 배워주고 둘째강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회화를, 셋째강좌에서는 30종류의 문형을 배운다.

넷째강좌는 이제까지 배워온 단어들을 리용하여 장면마다에 따른 회화와 일기쓰기를 할수 있도록,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있다.

남조선 고향에 보내는 편지

《김현희는 〈안기부〉가 길러낸 공작원》

개나리꽃, 살구꽃 활짝 피는 화창한 봄날 선생님께선 무고하십니까.

아지랑이 피는 고향의 산과 들에서 20여만 군대를 동원한 《팀 스피리트》연습이 본격화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붓을 들었습니다.

이곳의 신문, 텔레비죤들은 핵전면전쟁시에만 출동하기로 되여있는 미국의 《핵전쟁지령기—이4비》가 일본 요꼬다미군기지를 거쳐 고향땅에 가닿았고 핵을 적재한 군함들이 동서해안으로 집중하고있다고 보도하면서 전쟁접경에로만 치닫는 오늘의 첨예한 정세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재일교포들은 칼기실종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이 행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흑을 백으로 바꾸어놓은 론리입니다.

사실이지 칼기실종사건에서 판명된것이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건발생후 3개월이 지난 오늘에도 려객기의 기체조차 찾아내지 못하고있고 유일한 물적증거로 《안전기획부》가 내놓은 《김현희의 꽃다발증정사진》, 《비행기의 고무뽀트》마저도 일본의 신문, 텔레비죤의 조사, 조총련의 구체적인 물적반증에 의해 모두 허위였다는것이 드러나고말았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리라 보지만 《안기부》는 《마유미—김현희》를 서울로 끌고가 선거를 현군정에 유리하게 만든 다음 《이북의 공작원》이란 물적증거로서 《김현희》가 남북조절위원회때 이북에 간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는 귀만이 보이는 사진 한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일본공산당의 이전 평양특파원이 찍은 정면사진을 보고 《김현희》는 《자기가 틀림없다.》고 확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김현희》가 아니라 지금도 평양에 살면서 교원을 하는 정희선이였다는것이 지난 3월 15일, 사진과 비데오필림으로 명명백백히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문제의 비행기의 《고무뽀트》도 《마유미》를 서울로 이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뽀트였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지금 일본의 신문, 잡지, 텔레비죤들이 앞을 다투어 《문제의 꽃다발증정의 소녀는 평양에 살고있다. 그럼 김현희는 누구냐》고 일제히 의문을 던지면서 《김현희는 수년간 밀봉교육을 받은 이북의 공작원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어리석은, 서울표준말을 잘하는 서울태생의 풋내기공작원》, 《군정지속을 목적으로 〈안기부〉가 길러낸 미인공작원》이라고 와작거리고있습니다.

칼기실종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이 사건을 구실로 동족인 이북을 그렇게도 헐뜯으면서 엄청난 병력과 핵무기를 동원한 《팀 스피리트》연습이 지금 강행되고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옳습니까.

미국과 현《정권》의 《팀 스피리트》연습에 대처하여 이북은 지난 3월 21일,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칼기실종사건이 바로 오늘 고향땅을 핵전쟁마당으로 끌어가는 기폭제와도 같았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선생님의 건투를 바랍니다.

1988년 3월 23일

일본에서

공화국의 레스링 김영식선수

국제경기대회에서 제1위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제27차 《단 꼴로프》국제자유형 레스링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57키로그람급경기에 출전한 김영식선수는 맞다든 선수들을 모두 물리침으로써 영예의 제1위를 차지하여 금메달과 특별상을 받았다.

한편 리학선선수는 48키로그람급경기에서 제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쏘련, 꾸바, 뽈스까, 로므니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꼬, 벌가리아, 몽골, 유고슬라비아, 이란, 뚜니지, 알제리, 희랍,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158명의 우수한 레스링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일조교류간담회의 밤 진행

일조교류오까야마현민회의의 주최로

일조교류오까야마현민회의의 주최로 16일, 일조교류간담회의 밤이 오까야마조신본점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모임에는 일본사회당, 총평, 로동조합역원들을 비롯한 정계인, 문화인, 경제인, 언론인, 청년대표들 70여명과 총련대표 60여명이 참가했다.

먼저 주최자를 대표하여 현총평의장 마쯔모도 야스마사씨가 연설을 한후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강연을 《조선시보》편집장이 하였다.

【오까야마지국】

취재보고

모략의 허구성은 이렇게 발가졌다

《김현희》의 모략기자회견(1월 15일)이 있은 당일날에 조선중앙통신사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경력을 가진 녀자는 평양에 없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하였다. 특히 성명은 《16년전의 꽃다발증정》이라는것까지 고안해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모략임을 뚜렷이 밝혀놓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북과 관련》시키기 위해 괴뢰들이 들고나온 《유일한 증거물》인 《꽃다발증정사진》의 모략성을 까밝히는데 주력하였다.



《안기부》가 내놓은 사진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정희선녀성



김형직사범대학시절의 정희선녀성

간교한 수법을 파헤치며

주지하는바와 같이 《꽃다발증정》문제란 평양의 중신중학교에 다니였다는 《김현희》가 중학교 1학년때인 72년 11월 2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단 부위원장 장기영(사망)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한것이다.

괴뢰국가안전기획부는 이 날조사실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당시 장기영에게 얼굴 옆모습밖에 안 보이는 한 소녀가 꽃다발을 주고있는 희미한 사진 1장을 《수사결과》발표때에 내놓았다. 그러나 이 한장의 사진만이면 얼굴도 희미하게 보이여 합성사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을것을 처음부터 두려워했는지 괴뢰들은 《케이.비.에쓰》 등 어용언론계를 시켜 몇장의 정면사진과 꽃다발증정장면을 수록한 필림을 내놓았다.

이 《꽃다발증정》문제는 《김현희》가 《스스로 증언》함으로써 밝혀진것처럼 간교한 수법을 쓰면서 소위 《임의성》이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려 한것이다.

우리는 이 몇장의 사진을 추구하는 과정에 어용언론을 통해 흘린 정면사진의 소녀가 여름옷을 입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평양의 11월이라면 추울텐데 어째서 여름옷을 입고있는가》, 이 의문점을 추구하는 과정에 당시 여름에도 남북대화를 하고있었던 사실이 상기되여 당시 공화국측 자료와 남조선측 관계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해나갔다.

그 과정에 《케이.비.에쓰》가 《꽃다발증정장면》이라고 하여 흘린 필림배경에 판문점에 있는 공화국측건물인 판문각이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현희》의 정면사진이라고 해서 공표된것도 실은 72년 8월에 있은 남북적십자회담시에 판문점에서 있은 꽃다발증정장면을 찍은 사진을 교활하게 도용한것이라는것을 밝혀냈다.

이는 당시 《동아일보》(72년 8월 29일부) 등 남조선신문에 똑같은 장면사진이 게재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였다.

이때처럼 우리 취재반은 이런 조잡하고 유치한 수법으로 여론을 오도하려는 괴뢰도당에 대한 치밀어오르는 분격심을 느껴본바는 없었다.

이는 2월 4일 총련중앙 기자회견을 통해 온 세상에 폭로되였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괴뢰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 1월 15일에 한 《기자회견》시 질의응답에서 《김현희가 자동차에서 두번째로 내린 사람에게 꽃다발을 주었다.》고 설명한것을 놓고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평양에는 개성으로부터 직승비행기로 온 사실을 밝히면서 《김현희증언》의 허구성을 폭로하였었다. 이 기자회견이 있은후 괴뢰국가안전기획부는 일본잡지 《붕게이슌쥬》(3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에게 주었다》고 《공식발표》시 답변내용을 슬그머니 수정해놓았다가 3월 5일에는 《직승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에게 주었다》고 다시 수정발표하는 추태를 부렸다.

허위사실이 지적되자 렴치도 없이 《공식발표》를 슬그머니 바꾸어놓는 괴뢰들의 작태는 그자들의 발표놀음자체가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허구와 기만에 찬것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총련중앙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에 괴뢰들은 《친한파 언론인, 평론가》들을 시켜 어용언론이 흘린 사진은 엉터리임을 시인하면서도 이것으로써는 《수사결과》발표시의 한장의 사진에 대한 론박으로는 안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생떼를 썼다. 그런데 이것으로써는 엄격한 보도관제하에 있는 남조선의 실정을 아는 사람을 속일수 없다.

남조선에서 특히 남북문제보도는 최고의 통제하에 있으며 대화시 평양 등 공화국에서 찍은 사진필림 등은 사용후 무조건 《안기부》가 몰수하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유명한 이야기로서 72년의 대화시 년말에 판문점에서 남북기자들이 선물교환을 하였는바 그때 남측기자들이 공화국기자들로부터 받은 인삼술, 달력을 돌아가는 뻐스간에서 《안기부》(당시는 괴뢰중앙정보부)가 모조리 빼앗아내고 저들이 나누어먹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케이.비.에쓰》 등이 흘린 《김현희》의 얼굴정면사진도 그 출처는 《안기부》임에 틀림없다.

괴뢰들은 만약에 모략이 드러나도 얼마든지 도망칠수 있도록 처음부터 2중, 3중의 《방벽》을 쌓아놓고 간교하게 모략극을 추진한것이다.

무너진 《자백》, 드러난 허위조작

사건은 국제반동들과 괴뢰들의 자작자연극

괴뢰들에게 내려진 철추

남조선괴뢰들의 추잡한 허위날조를 사실자료를 가지고 폭로해온 우리는 제2차남북조절위원회(1972.11.2~4)때 남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가 평양에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2월중순에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다.

우리는 조국인민들과 만나는것으로부터 취재를 시작했다. 그들은 일치하게 남조선괴뢰도당의 비렬한 모략책동을 견결히 규탄단죄하면서 남조선괴뢰들이란 한시간후이면 인차 그 진상이 드러날 일이라도 뻔뻔스럽게 날조사실을 꾸미는 후안무치한놈들이다, 그놈들의 만행이 백일하에 폭로될 날도 멀지 않다고 말하고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가 평양에서 행복하게 살고있으리라는 확신을 더욱 두터이 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취재를 제기했다.

그러던 참에 우리는 본사로부터 3월 6일에 긴급련락을 받게 되였다. 그 내용인즉 《안기부》가 3월 5일에 일본공산당의 반월간잡지인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소녀를 《김현희》라고 《확인》했으며 《김현희》란 녀자도 얼굴을 붉히면서 그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는것이였다.

조국에서는 조선중앙통신 3월 6일부의 론평을 통하여 《안기부》의 《발표》가 곧 허황한 날조임을 까밝히면서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소녀는 현재 평양에 있으며 그의 이름은 정희선이라고 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우리들을 위한 기자회견의 자리를 마련하여주었다. 여기에는 1972년 11월에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때 평양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인 정희선녀성을 비롯하여 판문점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인 림윤복녀성과 남북적십자회담(1972.8)때 남측수석대표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남조선괴뢰들이 《김현희》라고 날조한 《소년단경례의 소녀》)인 왕영숙녀성 그리고 당시 공화국측의 영접관계자들이였던 정재일동지(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와 정성철동지(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들이 참가하였다.

취재는 아침 9시부터 시작되였는데 그들과 헤여질 때에는 벌써 오후 3시가 넘고있었다. 그어간 우리는 그들과 공동회견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취재했다. 우리는 몹시 긴장하고 흥분했다.

기자회견자리는 그대로 남조선괴뢰들의 모략을 까밝히는 마당으로 되였다. 특히 정희선녀성이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자기의 얼굴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건 나다. 내가 장기영이 올 때나 갈 때나 꽃다발을 준 당사자인데 〈마유미〉랍니까. 당장 그 〈마유미〉란 녀자를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사진을 놓고 결판내고싶습니다.》고 한 말은 곧 파렴치한 남조선괴뢰들의 모략을 까부시는 철추로 되였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3월 8일에 평양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일본에서 공개하자마자 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것은 곧 남조선괴뢰들의 악랄한 모략책동의 진상을 까밝히는것으로 되였다.



1972년 8월, 적십자회담때(이때 장기영은 참가하지 않았음) 판문점에서 남측대표에게 꽃다발을 준 왕영숙녀성(당시 개성시 만월녀자중학교 학생, 현재 개성시 유치원 근무)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때 판문점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림윤복녀성(당시 만월녀자중학교 학생, 현재 개성신문사 근무)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남조선괴뢰들

이러한 취재과정을 통하여 국제반동들과 남조선괴뢰악당에 의해 벌어진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책임을 공화국에 덮어씌우려는 소동이 거짓과 거짓으로 이어진 황당한 모략극이라는 사실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게 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번 사건을 조작함에 있어서 괴뢰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비렬하며 교묘한 수법으로 내외여론을 기만하는데 혈안이 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강조해두고저 한다.

지난해 11월 29일 남조선비행기가 행방불명이 된 때로부터 근 4개월이 된다. 그러나 아직껏 그 비행기가 폭파되였는지 추락되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걸 확인하는 자료와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비행기의 파편 하나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북에 의한 폭파》사건으로 둔갑하게 되였다. 그것은 괴뢰들이 저들의 앞잡이인 《마유미(김현희)》란 녀자를 《북의 공작원》으로 날조해낸데 있다는것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다.

괴뢰안기부는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하여 《마유미》란 녀자를 등장시켰으며 그 녀자를 《북의 공작원》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소녀시절 남북조절위원회때 평양에 온 남조선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는 사실까지 꾸며냈다. 그러면서 희미한 한장의 사진을 유일한 《증거물》로 내놓았다. 그런데 이 희미한 사진은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직접적인 당사자인 정희선녀성이 《내가 아니다.》라고 언명한바와 같이 위조사진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괴뢰들은 이 위조사진으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따돌리기 위하여 소녀시절에 찍은 왕영숙의 《소년단경례의 사진》을 《마유미(김현희)》라고 강변하였다. 일본언론들도 괴뢰들의 교묘한 수법에 말려들어갔다.

우리는 2중, 3중으로 교묘하게 날조한 괴뢰들의 모략을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파헤쳐왔다. 그 결과 2월 4일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놈들의 모략은 내외에 낱낱이 폭로되였다.

괴뢰들은 궁지에 몰리였다. 물에 빠진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괴뢰들은 《아까하다》의 이전 특파원이 남북조절위원회당시에 찍은 사진,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사진에 매여달렸다. 그것은 괴뢰들이 《김현희》가 소녀시절에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고 사실을 날조한 이상 이전 《아까하다》특파원이 찍은 사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괴뢰들에게 있어서 치명상이 아닐수 없었다. 우리는 얼굴모습뿐아니라 주위의 소녀들까지 선명한 이 사진을 가지고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가 현재 평양에 있는 정희선이라는것을 뚜렷이 하였다.

원래 모략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물을 가지고 그를 밑뿌리채 분쇄해놓아야 한다. 그래야 모략을 꾸민자도 꼼짝 못하게 된다. 놈들이 애당초 희미한 사진을 유일한 《증거물》로 한것은 우리가 그를 반박해나서면 시간을 끌면서 이 피탈 저 피탈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공화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기의 립장과 견해를 성명과 론평을 통하여 거듭 천명하였을뿐아니라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물을 가지고 론박한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괴뢰들이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화살표의 소녀를 《김현희》라고 한것은 제놈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자신이 빠져들어간셈이라 할수 있다.

우리는 이번 취재과정을 통하여 괴뢰들의 파렴치한 모략이 곧 미일반동들의 안받침하에 조작된 국제적인 모략임을 실감할수 있었다.

미일당국자들은 괴뢰들이 《수사결과》란것을 발표하자 곧 이른바 《제재조치》란것을 발표하여 괴뢰들의 책동을 적극 뒤받침하였다. 뿐만아니라 유엔안보리사회에서도 괴뢰들의 책동에 발맞추기도 하였다. 그것은 곧 《안기부》의 《발표》에 《신빙성》을 부여하는것으로 되였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이다. 정희선녀성이 평양에서 우리와 기자회견을 한 그 사실자체가 곧 모략을 꾸미는데 이골이 난 괴뢰들에게 내려지는 철추로 되였다.

이 엄연한 사실앞에서는 그 어떤 지엽적인 론의도 무력하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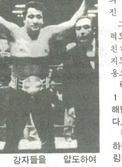
(본사특별취재반)

하해같은 은정속에서

—력도산의 친딸이 수기를 발표—

세계프로레스링왕자였던 재일동포 김신락(력도산). 파란많은 생애중에서 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흠모하고 사회주의조국을 동경하고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것은 불과 4년전의 일이다. 그 소식과 더불어 력도산(力道山)의 유가족이 공화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는 소식이 재일동포들속에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의 무소속대변지 《통일신보》는 바로 력도산의 친딸인 김영숙씨의 수기 《사랑의 추억》을 실었는바 거기에는 력도산에게 돌려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가슴뜨겁게 서술되여있다.



세계의 강자들을 압도하여 조선민족의 힘을 떨친 력도산

한 동포의 경기에서 민족의 힘을

수기에 따르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력도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것은 1963년의 일이다. 당시 평양체육대학의 학생이였던 김영숙씨에게 전해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해 7월, 조선영화보급사에서 력도산에 관한 기록영화 감상회를 친히 조직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였다.

력도산은 원래 함경도사람인데 18살때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력도산은 레스링, 유술, 격술을 하다가 지금은 세계적인 프로레스링선수로 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강자들을 물리치는 력도산의 경기를 보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영숙씨는 수기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순간의 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저의 아버지의 경기를 통하여 단순히 한 동포선수의 승리만이 아닌, 온 누리에 자랑할 우리 민족의 힘과 투지를 보시고 비길데없는 긍지를 느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깊고 뜨거운 마음을 저의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큰 힘을 얻을것인가 고 생각하니 밤에도 잠들수 없었습니다.》

애국충정을 길이 빛내여주시며

그당시는 력도산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전환을 이룩해나가던 시기였다. 세계적인 실력과 명성을 지니면서도 전후 추락된 일본의 국민의식을 고취하는 선전수단으로 리용되여오던 력도산은 1959년의 귀국실현을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동경 그리고 두고온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였다. 1962년 4월 15일 력도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 만세!》라고 쓴 자필휘호와 고급승용차를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였다.

1963년 8월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영화보급사에 찾아오시여 력도산이 보내온 귀중한 선물들을 친히 보여주시고 력도산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이 승용차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고있는 딸 김영숙씨(왼쪽)와 그의 자녀들

이 승용차는 력도산이 수령님께 선물로 드린것입니다. 그는 수령님께 충성의 맹세문과 함께 이 승용차를 보내여왔습니다.

력도산은 맹세문에 자기의 손바닥도장을 찍었는데 손이 어찌나 큰지 보통사람의 두배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도산이 1964년의 도꾜올림픽에서는 공화국선수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큰 려관을 건설하겠다고 제의해나선것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와 같은 깊은 은정에 접한 김영숙씨는 당시 아버지에게 편지를 띄웠다. 그리고 1963년 10월 력도산은 딸에게 보낸 회답편지를 통하여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시하였으며 《조선사람, 아버지에게는 지금 이보다 더 높은 칭호가 없다. 아버지는 이제 내가 조선사람의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썼다.

력도산이 반동들의 칼을 맞아 비통하게 생을 마친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돌려주신 깊은 신임과 사랑에 대하여 김영숙씨는 이렇게 쓰고있다.

《그이께서는 오래동안 해외에 살면서도 조선사람의 넋과 량심을 잃지 않고 조국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힘을 떨치던 동포가 희생된것을 못내 비통해하시면서 우리 유가족들을 따뜻이 보살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1971년 3월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의로 된 렬사증을 저에게 수여해주시는 하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일본반동들의 작간에 의하여 외곡되여있던 력도산의 생애의 진실이 밝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사회주의조국을 따라 이역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재일동포들의 력사에 또하나의 빛을 줄것이다.

민족의 력사와 대중가요 ③

잊을수 없는 가요들에 대한 범죄적위조행위

조령출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그 슬픈 시절에 나도 많은 가사들을 썼다. 그 시기 내가 가사를 쓰게 된데에는 비통한 사연이 얽혀져있다.

나는 1913년에 충청남도 아산군 령인산밑의 한 시골에서 출생하였다. 그래서 내 이름을 《령출》이라 지었다 한다. 내가 네살나던 해에 서울로 올라간 부모님들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나에게 한문공부도 시키고 나를 보통학교에도 넣어 공부시켰다. 아홉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는 홀어머니를 따라 전전하며 눈물겨운 생활을 하던 나는 안변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때 나는 문학에 뜻을 두고 아동문학작가가 남응손과도 휩쓸리며 많은 습작을 하였다.

민족의 넋을 지켜보려고

1930년대초부터 나는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해마다 진행하던 《동아일보문예작품현상모집》에 나는 가사 한편을 투고하였다. 이미 출판물들에 시를 발표하고있었던 나는 본명대신에 조명암(趙鳴岩)이란 필명으로 투고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나의 가사《서울노래》가 입선되였던것이다.

그때는 내가 고학으로 서울보성고등보통학교에 다니고있을 때였다. 식민지노예살이의 울분을 안고 경복궁대궐뒤 소나무숲속을 헤매며 시정신을 불러 가슴을 치기도 하고 시를 쓴다기보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불타오르던 울분을 뱉아 원고지우에 휘갈기던 정열의 시기였다. 그러한 시의 밤에 얻어진 한수의 시가(詩歌) 《서울노래》가 입선되고 그것이 《콜럼비아》레코드에 취입되여 그 음판이 이듬해 봄에 나왔다.

나는 그 음판을 한장 구하려고 이미 약속해놓았던 안국동 네거리 축음기상점으로 갔다.

거기서 나는 놀라운 사실에 접하였다. 내 일생에 처음 쓴 가사이고 처음으로 가곡으로 된 《서울노래》가 레코드상점에 나오자마자 일제경찰들이 달려들어 압수해가지고는 그자리에서 판들을 깨여버렸다는것이였다.

내가 그 노래의 작사자임을 알고있던 젊은 점원은 몰래 감추어놓았던 음판 하나를 축음기에 걸고 조용히 들려주었다. 작곡은 당시 류행되였던 가요 《처녀총각》을 작곡한 김준영(金駿泳)이 하였고 노래는 채규엽(蔡奎燁)이 불렀는데 애절한 그 선률은 축음기에서 흘러 나의 비분한 심금을 울려주었다.

한양성 옛터전 옛날이
그리워라
무궁화가지마다 꽃잎이
집니다
한강물 푸른 줄기 5백
년 꿈이 자고
앞남산 봉화불 꺼진지
오랩니다.

……

종소리 스러진 밤 나그
네가 웁니다
꽃피는 3천리 잎트는
3천리

아세아의 바람아 서울의
꿈을 깨라

여기에서 《아세아의 바람아 서울의 꿈을 깨라》는 선동적인 시구가 일제의 비위에 거슬렸던것이다. 당시 아세아대륙에서 파동쳐오던 혁명의 풍운, 백두산에서 전하여 들려오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이 노래에 《아세아의 바람》이란 은유적표현으로 담을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일제놈들은 이것에 놀라 판까지 깨버렸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말레코드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때 나에게는 마음속으로 생각되는바가 있었다. (이 대중적가요형식에다 짓밟혀 스러져가는 민족의 넋, 민족의 정서를 담아 살려보자!) 그후부터 일제패망에 이르는 10여년동안 나는 스러져가던 민족정서를 가사에 담아 《조선의 밤》, 《고구려애상곡》, 《락화삼천》, 《락화류수》, 《서귀포 칠십리》, 《조선의 달》, 《인도의 달밤》등 많은 가사들을 썼다.

그중에서 진짜 가사라고 할만한것은 얼마나 되겠는지… 또 많은것은 노래가 되기도 전에 일제의 검열시 시꺼먼 먹줄이 그어져 말살되여버렸으며 《락화삼천》등 노래들은 일제통치말기에 금곡으로 되기도 하였다. 어쨌든 적지 않은 노래들이 인민들에게 공감을 주고 겨레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며 사랑을 받은것만은 사실이다.

오늘은 그 노래들이 슬픈 시절에 남긴 잊을수 없는 추억의 노래들로 되였다.

8.15후 남조선에 있을 때 나는 희곡 몇편을 썼고 그것이 무대에서 공연되였다. 이때에도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한 탄압의 쓴맛을 겪어야만 했다.

어린시절부터 험난한 길, 식민지노예살이의 피눈물을 헤치며 살아온 나로서는 시가(詩歌)를 써도 민족비운의 슬픔을 많이 노래하였던것만큼 8.15후에는 새세상에 대한 꿈도 컸고 지향도 컸다.

그리하여 나역시 민족의 태양을 모시고 외세가 없는 새세상에서 새로운 삶과 시정신을 꽃피울 불타는 포부를 안고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왔다.

북으로 들어온후 나는 지난날 내가 쓴 노래들이 남조선에서 탄압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은 내가 민족비운의 시기에 쓴 그 추억의 노래들에 대해서도 내가 북으로 들어왔다는 한가지 리유로 일제통치시기보다 더한 탄압을 가하며 금곡령(禁曲令)을 내리고 일부 노래들은 가사를 뜯어고치거나 작사자의 이름을 바꾸어버렸다. (계속)

동포문화의 기수들 59

잡초의 생명력을 화폭에

미술가 최상철씨

풍경화를 중심으로 자기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보여주는 그는 최근 내외에서 큰 주목을 끌고있는 화가들중의 한사람이다.

무성한 숲속에 자라나는 푸나무를 화폭에 가득 그려낸 그의 그림은 삶의 환희와 약동력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명깊이 느끼게 한다.

《잡초를 그리고싶습니다. 다만 아름다울뿐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억세게 돋아나는 생명력을 그려내고싶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 동포들이 놓인 상황이 비치고있는상싶다. 아마도 12년간 민족교육을 받는 과정에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작품에 그런 영향이 미친것이 아닌가 고 그는 말한다.

그는 고베조고에 입학해서부터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3학년때에는 주장이 되였고 학생미술전람회에 응모하여 3등에 입선했다.

졸업후 건축관계에 종사하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무언가 해야 한다. 그저 범범하게 지내면 인생이 아깝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림을 그렸다. 미술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려는 생각이였다.

힘든 일을 마치고 그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화가(画架)앞에 앉았다. 다른 일이 생겨도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그림앞에 앉기로 했다.



그런 생활을 13년동안이나 계속해왔다. 중단을 모르는 그 끈질김이 그의 그림에 생명력을 안겨주는지 모른다.

《그림을 그리는것은 힘듭니다. 싫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그림을 버리면 자기의 삶이 거짓으로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설날이나 여름휴가를 리용해서 사생려행하러 일본 각지로 떠난다. 그러니 쉬는 날에는 거의 집에 없다.

그런 일상적인 수련과 노력이 열매를 맺어 재작년 재일조선인중앙미술전에서는 유화부문에서 2등을, 일본의 《정예선발전》에서는 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그림에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여하튼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것이 자기의 그림이라고 발표할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싶습니다.》고 한다.

별로 제한할 생각은 없지만 당분간은 풍경화를 계속 그리고 싶다고 하면서 그는 《역시 자기 조국의 풍경을 제 눈으로 보고 화폭에 옮기고싶습니다.》고 자기 꿈을 이야기한다. 현재는 사업을 조절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국의 풍경화를 그릴 날은 그리 멀지 않을것이다. (강)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 (260) 5881
内線 453・435
436・428

「板門店の花束少女」が証言

南の写真トリックと謀略総崩れ

南朝鮮安企部はさる一月、「国営」テレビKBSを通じて、一九七二年十一月二日南北調節委員会共同委員長会議に参加するために平壌を訪れた張基栄に花束を渡した少女が「金賢姫」だとでっち上げ、いわゆる「証拠写真」なるものを公開した。即ちビデオに出て来る少女（＝写真1）と「少年団あいさつ」の少女（＝写真3）の写真である。この二つの写真はすでに二月四日の総聯中央の記者会見によって、巧妙にねつ造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暴露されている。本社取材班は最近現地で、この二つの写真に出て来る少女たちと会った。ビデオの少女は現在開城市に住んでいる林潤福さん(三〇)で、「少年団あいさつ」の少女は王永淑さん(二九)である。彼女たちは、写真に写っている少女はまさに私だと証言しながら、南朝鮮当局の悪らつな謀略を非難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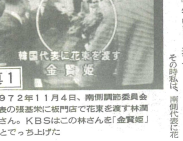


写真1
1972年11月4日、南側調節委員会代表の張基栄に板門店で花束を渡す林潤福さん。KBSはこの林さんを「金賢姫」だとでっち上げた

張基栄に花束を渡した 林潤福さん

私が南北調節委員会第二回共同委員長会議の南側代表・張基栄に花束を渡した林潤福です。当時十四歳でした。

現在は結婚し、開城市のヨクチョン洞で二人の子供を育てながら幸福に暮らしております。

当時私は、開城市マンウォル女子中学校で学んでいました。

南北調節委員会の時、私たちは南側代表らに花束を渡すために板門店に行ったんですが、開城からは二十五人の学生が動員されました。

その時整列している写真（＝写真2）で左側前から二番目が私です。私の前にいる子らは、私と同じクラスの友達です。

その時私は、南側代表に花束を渡しましたが、この写真（＝写真1）は会議が終わって南側代表らが帰る時、花束を渡した場面です。

その時、とても記者たちで混んでいたんですが、横にいたチョン・ソンチョル先生が私の背を軽く押して、背が高く体ががっしりした張基栄代表に花束を渡すようにしたんです。

花束を渡した時張代表は私に、学校はどこか、年はいくつかと尋ねました。

それで私が学校名と年を答えると、本当にしっかりしていると言いながら笑ったんですが、その笑った張代表の姿が記憶に残っています。

この場でもう一度言いたいのは、第二回南北調節委員会の時、南側代表の張基栄に板門店で花束を渡したのは南朝鮮当局が騒いでいる「真由美」ではなく、現在開城に住んでいるこの私だということです。



写真2
第2回調節委員会当時の林潤福さん（○印）



現在の林潤福さん

「少年団あいさつ」写真の 王永淑さん

私の名前は王永淑といいます。年は二十九歳で子供が二人います。

この少年団のあいさつをしている写真（＝写真3）がまさに私です。私は南北赤十字会談当時、南側代表団団長に花束を渡しました。

私は調節委員会の時には行ったこともないし、また、張基栄という人物に花束を渡したこともありません。

もう十六年前のことですが、この写真ははっきりと覚えています。

この写真は南北赤十字会談当時、南側代表を待っている時に、南朝鮮の記者が私のところへ来て、少年団のあいさつをしてごらんといって写したものです。

私が少年団のあいさつをするとその記者は、なぜそんなに手を高く頭の上まで上げるのかとききました。

それで私は、少年団組織はいつも自分個人よりも上にあり、貴重だということを表すためにこうして手を高く上げるんですと答えました。

するとその南朝鮮の記者はよく分かったと言いながら、少年団のあいさつをする私を写真に撮りました。

幼いころでしたが、その時のことを覚えていましたからこの写真を見た瞬間、「私だ！」とすぐに分かりました。

それなのに南当局は白を黒と言いくるめ、調節委員会当時張基栄に花束を渡した人物だとしながら、果ては私が「真由美」であるなどとウソをついています。

この写真でも分かるように、私は一九七二年八月二十九日、赤十字会談の時に花束を渡しました。

その私をどうやって無理やりに「真由美」だというんですか。

私は絶対に我慢ができません。共和国の威信を傷付け、侮辱する行為に怒りを抑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



写真3
1972年8月29日、南北赤十字会談南側代表団を板門店で迎える王永淑さん。KBSはこれを「少年団あいさつをする金賢姫」だと発表した



南北赤十字会談当時の王永淑さん



現在の王永淑さん

一口時評

"言論の自由"の危機

朝日新聞静岡支局にピース缶爆弾が仕掛けられる事件が十二日にあった。「赤報隊」を名乗る犯行声明が共同・時事の両通信社に届いた。「一人一殺 一殺多生はもう古い。これだけ反日分子が多ければ 一人多殺 多殺多生しかない」「朝日 毎日 東京の反日マスコミ」を「罰」するという内容だ。

彼らは、昨年五月三日に朝日新聞阪神支局で記者二人を散弾で殺傷、同年九月二十四日には同社名古屋本社寮に発砲した。

阪神支局事件で死んだ小尻記者は「外国人登録」の指紋押なつ制度に反対する運動を積極的に取材するなど、「人権」に鋭い筆を示した誠実な人柄だったという。

また、国家秘密法反対の論陣とキャンペーンも、朝日は他紙とは違ってかなり積極的に張っていたが、それが攻撃の的になったとみられていた。

死傷者が出たという衝撃もあってか、識者、一般市民、労組、大衆団体などが一斉に「言論の自由に対する許し難い挑戦」と非難の声を上げ、糾弾の集会も随所で開かれた。

とりわけ、日本の戦前を経験した年配の人びとは「太平洋戦争突入は…五・一五、二・二六事件など軍部テロがきっかけ、『問答無用』のやり方は今度の襲撃事件と全く同じ」「戦前に戻れということにつながる」「新しい危険が芽出してきた」と憂えた。

昨年九月の"犯行声明"では「反日朝日は五十年前にかえれ」とした。だが今回は対象を広げた。全言論が危険にさらされている。

「戦前の右翼テロは、軍部がウラで糸を引き、それを利用して一気に軍国主義を進めていったが、権力の欲することを右翼が代行する点は、昔も今も同じ」と法政大学の小田切教授はある新聞で指摘している。

KAL機事件を利用した反共和国・反朝鮮総聯騒動も同じ根から出たもの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かろう。朝鮮敵視感情を広め、朝鮮侵略の下地を作ろうとするものでもあるのだ。

日本の戦前回帰・軍国主義侵略の矛先は昔と同様に朝鮮に向けられている。それをしっかり見極め、日本の民衆と共に対処してゆかなければならない。（梧）

セマウル不正疑惑

全敬煥に捜査着手

内務部長官当時 盧泰愚も不正に関与

全斗煥の実弟、全敬煥(四五)が会長を務めたセマウル運動中央本部内部の大規模な不正事実が連日明らかになっている。こうした中、南朝鮮大検察庁（最高検察庁）中央捜査部は二十一日、ようやく重い腰を上げ本格的捜査を開始した。すでに野党各党は「全敬煥氏ら当時の不正・腐敗の責任者を即刻逮捕すべきだ」と非難声明を発表するなど反発を強め、四月二十六日に予定されている総選挙の一大争点にする構えをみせている。「不正腐敗の一掃」などを公約に「大統領」になった盧泰愚にとっては、これをほっておくこともできず、また真相究明に深入りすると全斗煥人脈の反発が懸念され、内務部長官だった自らの責任を問われかねず、大きなジレンマに陥っている。

連日のような疑惑発覚に世論が沸騰。世論の激しい追及に、一時日本に逃亡していた全敬煥も南朝鮮に戻り、捜査当局も同氏を含め、セマウル中央本部幹部らの事情聴取に乗り出した。

全敬煥らに対する疑惑の内容は、①全が株式の五十一％を保有するセマウル新聞社発行の「セマウル新聞」を内務部が六年間で八十八億ウォン（約十五億円）を使って無料配布していた②仁川沖の永宗島で百万平方メートルを超える私有地を不法に買い上げて埋め立て工事を勝手に進めた③同本部が国庫から出された「大韓体育会」の社会体育振興費約十六億三千万ウォンを自分たちの行事に流用した④中古貨物船を青少年海上訓練宿舎用に改造する計画で、工事を中断したまま企業からの寄付金約七億五千万ウォンを無駄遣いしていた―などだ。

南朝鮮の各マスコミはこうした「いくつかの事例は氷山の一角にすぎず、その裏には途方もない事実がいくらでもあるはず」（『中央日報』十五日付社説）と、一致して指摘している。

セマウル運動は、朴「政権」当時の七〇年代初め、「農村振興」の美名のもとに体制に忠実な運動員を育成し、農村に強力な監視網を築くことを目的として始められた。低利の融資を優先的に受け、バスの料金を割引されるなど、さまざまな「特恵」をエサに育成された「セマウル指導者」らは、反共教育や人民弾圧の手足として使われてきた。

ばく大な国庫金が投入されるため、利権とからむ不正も早くからうわさされていた。全敬煥とからんだ不正については、八五年六月、十月にそれぞれ野党議員から追及されたことがある。当時、その国庫金がセマウル運動中央本部を通じて八五年二月の総選挙に流用されたといわれた。日海財団を通じて全斗煥の懐に入ったという指摘もある。

解説 全斗煥に最も忠実だった男

「セマウル王国」「第二の青瓦台」の実権者として、全斗煥体制下で「官職のない第二人者」に君臨、権勢をほこってきた全敬煥についに追求の手が延びた。

一介の民間人にすぎなかった全敬煥がにわかに注目を集めたのが八〇年十二月、民間主導に転換されたセマウル運動中央本部の事務総長に就任した時。セマウル運動に関し全くの門外漢である同氏の突然の就任だった。

その後八七年に会長を辞任するまでの七年間はもちろんのこと、名誉会長に退いた後も全敬煥は、同本部内に隠然たる影響力を保持してきた。

全敬煥は六四年に陸軍副官学校卒業後、陸軍に入隊。六八年に予備役になった後、七二年まで三星グループ秘書室で李秉喆（故人）の長男のボディーガードとして勤務。その後米国に留学。七三年からは、約七年間「大統領」警護室補佐官として、当時同警護室次長補をしていた全斗煥のもとで、その忠実な部下として働いた。

全斗煥が、十人兄弟の中でもっともかわいがった弟の敬煥に、セマウル運動本部の重責を与えたのも、同機構を政治的に利用しようとする彼の思惑があった。

全敬煥は米在住時から暴力団とも深くかかわっており、八〇年以降も暴力団との黒い関係で度々物議をかもした。



セマウル運動中央本部前で「疑獄事件の解明」を求めてデモを行っている同本部一般職員

今週の出来事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が全軍に戦闘動員態勢命令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は二十一日、アメリカと南朝鮮当局の無謀な軍事的挑発によって、わが国に新たな緊張と核戦争が起こりうる危険な情勢に対処して、全軍に命令を通達した。

報道は、「チームスピリット88」軍事演習によって朝鮮半島の緊張が激化していると指摘し、これに伴い、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は朝鮮人民軍、朝鮮人民警備隊のすべての部隊、ならびに労農赤衛隊、青年近衛隊の全隊員に戦闘動員態勢を整えるよう命令を下した。

南朝鮮労働者3千人が集会 賃上げ、労働三権などを要求

十三日、ソウル市内七十三の労組に所属する約三千人が、延世大学野外劇場で「ソウル地域労働組合推進大会および文化大同祭」を行った。

大会では盧泰愚軍事「政権」の自主労組弾圧に対する抗議の決議文を採択し、「使用主の労組弾圧に強く立ち向かい、生存権と労働三権を勝ち取る」「今年の賃金闘争期間を迎え、われわれの基本的要求を貫徹させる」ことなどを主張した。

大会後、各労組は自らの団結と力を示したマダン劇を演じ気勢を上げた。

米警官が同胞青年を射殺 交通違反口実に

八日、米ロサンゼルスで米人警察官が集団で在米同胞の李フンピョ君(二)を射殺する事件が発生した。

この日の早朝、ロサンゼルスから東南に約十五キロ離れた街・イーストカウントンを自動車で走行中の李君に対し、交通違反をしたとして警官が阻止したが、それに応ぜず走行を続けたところ十台のパトカーにヘリコプターまで動員して追跡、容赦なく集中射撃を加えて殺害したという。

在米同胞団体では米当局に抗議を申し入れ、事件の真相究明を強く求めているが、これに対して警察側は交通違反とか、防御のための発砲とか言い逃れをして、故人に責任を転嫁しようとしている。

KAL機事件に7つの疑問 「社会新報」が特集を組む

十五日付の日本社会党の機関紙「社会新報」は、KAL機事件と関連して「『犯行』の核心はいまだ謎 大韓機事件七つの疑問」と題し、一ページの特集を組んだ。

特集は「時間がたつにつれてますます事件の謎が深まり拡散している」としながら、①「大韓機は本当に『爆破』されたのか」②「同機が『墜落』した場所はどこか」③「犯人はどうやって爆弾を持ち込んだのか」――などの七つの疑問点を指摘しながら、社会党が事件を共和国の犯行と断定しないのは当然であると主張した。

神戸朝日病院 4月1日オープン
若い同胞医師らの悲願実る

「同胞医療、地域医療、第一級の技術水準」という三つの目標を掲げ、七年前、多くの同胞が居住する神戸市長田区に、若い同胞医師らによって開設された朝日診療所。彼らによってこの間、「同胞医療の向上を目指し」着々と進められて来た病院化への事業が実を結び、来る四月一日に新たな病院（神戸朝日病院―概要は別掲）が開院することになった。

この朝日診療所は一九八一年四月に、所長の金守良さん、副所長の姜京富さん、徐昌教さん、高光重さんら四人の若い同胞医師を中心に同胞医療従事者らが、「資金を出し合い設立し、共同運営、共同管理」（金所長）で始められた。

その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七六年から七九年にかけて、神戸・長田区、大阪・生野区で行われた同胞に対する健康実態調査であった。

日本人の二倍近くある有病率や劣悪な労働条件、そして保険制度など診療上の差別、言葉の障害や深刻さを増す同胞老人問題などを知り、「同胞のための医療施設の必要性を痛切に感じた」からだった。

それぞれ資金を出すなどして、二年後に診療所を開設。「朝日」と名付けたのは、医療を通じて朝・日友好を深めることを願う気持ちからだった。

開設以来、同診療所は同胞医療の実践、日本の地域医療に貢献、学問・技術の持続的向上を目指し、今日まで日常医療活動を積み重ねてきた。

とくに肝硬変など、民族的な特徴のある疾患について意識的に取り組む一方、民族学校における学校保健事業についても大きな関心を払ってき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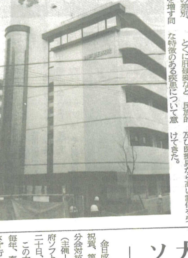
また、B型肝炎の疫学調査研究、及びゴム産業労働者の神経障害に関する研究の学会発表や「朝日学術誌」の発刊などの学術活動、脳死・臓器移植など生命倫理にかかわる問題について市民らとともに考えようと、「神戸生命倫理研究会」の設立を発起、死と脳死を考えるシンポジウムの開催や本の出版など社会的活動にも励み、地域・同胞社会及び医療界から高い評価を受けてきた。

しかしこのような中で「診療所の限界がはっきり見えた」と関係者らはきっぱりと語る。病床を持てないうえ、内科、胃腸科、小児科の三つの診療科目しかないため、患者の医療要求に全面的にこたえることが出来ないからだった。

「病状が重いと他の病院を紹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患者さんの負担が大きい。しかしなによりも、患者を最後まで見てやれないのが医者としてつらかった」と所長は述べる。

そして二年前の診療所開設五周年を機に、病院建設が本格的に進められ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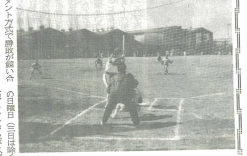
医師らはむろんのこと、同…


新病院には最新の医療設備と優秀なスタッフが整っている

大阪で分会対抗ソフト大会開幕
―46チームが参加―

金日成主席生誕七十六周年祝賀、第二十三回総聯大阪府分会対抗ソフトボール大会（主催＝体協大阪支部、大阪府ソフトボール協会）がさる二十日、開幕した。

この大会は、十二年前から毎年、春と秋の年二回、欠かさず行われ、同胞同士の親ぼくと交流を深め、総聯分会を活性化させるうえで一翼を担ってきた。


初戦から白熱した試合が繰り広げられた

物語 朝鮮の歴史と文化 ⑩
高句麗の文化

古代アジアにあって一大強国を築き上げた高句麗は、その強大さによってばかりでなく、その文化の高さによっても、周囲の国々から一目も二目も置かれました。

百済と新羅は、三国分立の初期から高句麗を自らのルーツの国、あるいは大先輩の国として朝貢を欠かす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また、古代に興亡を繰り返した漢族の諸国家も、そして鮮卑、匈奴のような北方の諸民族も、高句麗には大きな敬意を払ったのです。

壁画古墳に見る文化

高句麗の文化水準を生き生きとした具体的な形で示してくれるのが壁画古墳であります。

高句麗の壁画古墳は、これまで八十余基が知られています。これらは、およそ三世紀中葉から七世紀にいたる、約四百五十年間にわたって築かれたものです。

墓の内部を壁画で美しく飾るという風習は、当時の高句麗の人びとが霊魂の不滅を信じ、死後にも、この世に生きていた時と同じような生活をするという信仰を持っていたことからきています。

ただ、数百年の間には、死後の世界に対する考え方にも次第に変化が生じ、それが壁画に表われてくることになります。

高句麗古墳の壁画は、おおよそ三つの類型に区分されています。

まず第一の初期のものは、高句麗の人びとが、もっとも素朴に「あの世」を信じていたころのものです。それは墓の主人公が「あの世」で「この世」と同様に権力を持ち、大勢の従臣にかしずかれている「人物風俗図」を描いたものです。墓室内の壁には、主人公の室内生活をはじめとして、高句麗貴族の威容を示す堂々たる行列図、緊張した猛獣とのたたかいを示す騎馬による狩猟図、舞楽、すもう、戦闘図、あるいは料理を作る台所、井戸、車庫、さらに馬小屋なども描かれています。

このような豊富な内容をもつ人物風俗図は、高句麗貴族の生活を豊かに描き出し、当時の高い文化の水準をまざまざと示してくれます。それは彼らが死後の生活も生前の生活の延長であろうと固く信じていた素朴な信仰心の反映でもありました。

次の時期には、この人物風俗図とともに「四神図」が登場する壁画です。（五世紀以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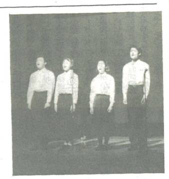
四神図とは四つの方位をつかさどる神で、東は青竜、南は朱雀、西は白虎、北は玄武です。

（ついでに言えば、東西…


四神図の玄武

「皆が朝鮮人の誇りを」
岐阜、京都の学生会が公演

はばたけ学生会！…岐阜
祖国を、民族を！…京都


これからの活躍が楽しみな岐阜の学生会


コンサートを通じて「朝鮮人として生きていこう」という気持ちが強まった（京都）

対外試合成績 ② 2月

明日ゴング
朝高選抜 対 近畿選抜


東京朝高選抜を圧倒した東京朝高選手（昨年11月の朝・日高校ボクシング）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3월 26일 (음력 2월 9일) 토요일
【루계 제10167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새마을운동본부》 부정협잡사건
진범인은 전, 로일당
《국고보조》 2천 375억원 략취는 빙산의 일각

이미 본지에서 여러번 폭로한바 있는 《새마을의혹사건》이 남조선에서 커다란 정치문제로 번지고있다.

이 사건은 선행괴뢰대통령 전두환이 제놈의 친동생 전경환을 시켜 인민들로부터 빨아올린 막대한 세금을 《국고보조》라는 미명밑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무제한하게 투입하고 그 자금을 밑천으로 하여 농촌을 중심으로 독재기반강화에 혈안이 된 사건이다.

특히 이 단체에 투입된 엄청난 액수의 《국고보조》는 괴뢰당국의 《감사》도 받지 않았다. 전경환은 이 단체의 사무총장,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이 엄청난 금액의 자금을 써서 각종 반공행사 등을 벌려 농촌에서의 독재기반강화에 혈안이 되였으며 특히는 1985년 2월의 총선거와 작년 가을의 괴뢰대통령선거시에는 막대한 자금을 뿌려 농민들을 매수하는데 날뛰였다.

전경환《체포》설은 진상은페를 위한 기만극

이제까지 밝혀진것은 ① 전경환이 주식의 51%를 보유하는 새마을신문사 발행의 《새마을신문》을 6년간에 88억원을 써서 무료배포하고있었다 ②인천앞바다의 영종도에서 100만평방메터를 넘는 사유지를 불법적으로 사들이고 매립공사를 멋대로 벌렸다 ③《국고(国庫)》로부터 《보조》받은 《대한체육회》의 사회진흥비 약 16억 3천만원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행사에 류용했다 ④중고화물선을 청소년해상훈련기숙사용으로 개조하는 계획밑에 기업으로부터 7억 5천만원을 기부받았으나 그 돈을 랑비했다 ⑤이 단체가 지난 1981년부터 7년간 조성한 《새마을국민기금》 403억원의 리자순리익 11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전용했다 등등이다.

이미 남조선에서는 전경환의 갖가지 비리가 폭로되여 그자의 체포설까지 나돌고있으나 이제까지 밝혀진 부정축재 등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뿐만아니라 이 사건의 진범인은 전두환과 로태우다.

전경환이 저지른 각종 비리는 전두환이라는 독재자와 독재기구의 안받침이 있음으로 하여 가능했던것이다.

이제까지 《새마을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남조선 《국회》에서도 여러번 추궁되였고 괴뢰감사원 등도 압력에 못이겨 형식상 이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두환은 압력을 가해 진상을 유야무야하게 처리케 해온것이다.

특히 로태우가 괴뢰대통령에 들어앉기 직전이였던 지난 2월 23일에 괴뢰내무부는 《새마을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체의 규모축소 등으로 전경환을 문책대상에서 제외하여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는 전두환과 로태우사이의 밀약에 따른것이라는것이 지적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로태우도 《삼보증권부정사건》 등 갖가지 부정축재에 이골이 나고있다. 권력형부정축재에 있어서는 전두환이나 로태우나 매한가지인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여론에 못이겨 전경환을 체포했다할지라도 과거의 장령자어음사기사건때의 리규광(전두환의 처숙부)처럼 1년후에는 《병보석》으로 석방시키는 등 진상은폐를 꾀하고있지 않느냐 하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해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진범인 전두환, 로태우의 죄행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새마을운동본부》 부정협잡사건에 대하여 보도한 신문들

해설 전두환, 권력강탈이후 독재기반 확립의 도구로
작년 괴뢰대통령선거에서 막대한 자금이 로태우에게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흑사건》에 대해서는 본지(85년 7월 3일부, 85년 10월 30일부, 86년 4월 2일부)에서 여러번 폭로한바 있다.

현재 문제로 되고있는 부정축재 등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핵심은 1985년 6월 21일과 10월 16일의 남조선《국회》에서 추궁한 내용들이다.

지난 1985년 6월 21일 남조선《국회》에서 드러난데 의하면 ①81년부터 4년간 2천 375억원이란 금액을 괴뢰정부로부터 《국고지원》받으면서도 단 한번의 재정감사(이 시점에서, 그후 형식적감사를 한번 받음)도 받지 않았다 ②85년 2월의 총선거과정을 통해 여당《의원》을 지원한것은 정치활동 ③《새마을운동중앙본부》 직원들이 《민정당》에 입당하고 정치활동을 벌렸다, 그로 인해 선거를 앞둔 84년에 이 단체 사업비가 795억원으로 급증되였다 ④서울시당국이 여의도 《만남의 광장》(소위 리산가족을 찾는다는)을 이 단체에 무상인도해주었다 등이다.

전두환은 권력을 강탈한 직후 이 운동을 자기의 독재기반 확립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1980년 12월에 제놈의 친동생 전경환을 사무총장직에 앉히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조작하였다.

이당시 설립기금 90억원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였다. 남조선야당《의원》들은 이 자금도 1980년의 《5.17파쑈폭거》시에 전두환이 횡취한 김종필, 리후락, 박종규 등 구여당인물들의 부정축재자금으로 마련된것이라고 보고있다.

이 막대한 자금을 밑천으로 전경환은 이 조직을 확대하여 전두환의 사조직으로 꾸려나갔던것이다.

이 단체는 작년 가을의 괴뢰대통령선거과정에서도 로태우《당선》날조를 위해 막대한 부정자금을 뿌렸는바 이로 인해 로태우는 전두환과 야합하여 이 사건의 진상은페에 날뛰고있는것이다.

(류)

사설
조국과의 합영사업에서 더 큰 전진을！

사회주의조국과의 합영사업은 귀중한 경험들이 축적되는 속에서 착실한 전진을 가져오고있다.

2년전에 합영사업연구회가 발족되고 그후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로 발전하고 개편되여 일을 내미는 과정에서 계약, 합의서교환 등 수십건의 합영대상이 구체화되였다.

그동안에 각지에서 합영사업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해설하기 위한 강연회, 간담회 등 정치선전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특히 조선국제합영총회사가 창립된후 두차례에 걸친 리사회, 공화국의 경제대표단의 일본방문과 총련경제대표단의 조국방문 등이 진행되였다.

실로 이러한 사업들과 성과들은 그것이 처음으로 겪어보는 생소한 일들을 왕성한 패기와 정열로 하나하나 개척해내여 이루어진것으로서 더욱 귀중하다.

그것은 또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 조국과의 합영사업을 본때있게 전개해보려는 우리의 애국적상공인들의 드높은 기개와 자부심이 낳은 열매이기도 하다.

오늘 광범한 동포상공인들은 자기 기업의 발전을 이룩해내려는 지향을 대를 이어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기여하려는 뜨거운 마음과 결부시키면서 합영사업에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재일조선상공인들이 조국과 합영하면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바칠수 있어서 좋고 자본이 늘어나니 자신의 립지조건을 튼튼히 하는데서도 좋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광범한 동포상공인들이 조국과의 합영사업에 나선다면 그것은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 이바지하는데 보람있게 한몫 감당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올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대고조를 일으켜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80년대속도》로 내달리고있는 조국인민들의 그 기세에 발맞추어 합영사업에서도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보다 대담하고 정력적으로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오늘의 요구성에 맞게 합영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면 결코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이 사업을 기관화, 대중화하여 많은 상공인들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함으로써만 이룩될수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일군들은 합영사업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더 많은 조직들과 상공인들이 구체적인 합영안건을 가지고 이 사업에 나설수 있도록 정치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기간 합영사업에서 거둔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조국과의 합영사업은 총련사업의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추세로 보나 재일동포상공인들의 립지조건을 튼튼히 할 요구성으로 보나 반드시 성사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애국사업이다.

바로 이 사업을 더 크게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동포상공인들이 애국애족의 경영리념을 참답게 꽃피워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본때있게 경제활동을 벌려나가는것과 하나로 이어지고있다.

그러므로 총련의 본부들과 현상공회들은 합영사업을 직접 토의, 장악하여 적극 내밀어야 하며 담당 부문과 일군들은 자기의 책임성과 역할을 현저히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조국과의 합영사업에서 새롭고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신임과 배려에 보답해나가자.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가장 정당한 제안이다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이 언명

파키스탄수상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수상 모함마드 한 쥬네조가 3월 16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박명구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수상은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지지를 표시하고 파키스탄인민은 조선의 통일이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하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탄자니아 국회의장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탄자니아련합공화국 국회의장 아담 싸피 음콰와가 3월 15일 다르 에스 살람주재 조선중앙통신사 특파기자와의 회견에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제안이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립장과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실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조선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전적으로 이바지하는 제안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3자회담과 북남련석회의의 마당에 지체없이 나와야 한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하고있는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제안과 노력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미제의 반니까라과무력간섭책동을 견결히 규탄
우리 나라에서 니까라과대통령에게 련대성전문

【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니까라과련대성위원회에서는 최근 미제의 반니까라과무력간섭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3일 니까라과공화국 대통령 다니엘 오르떼가 싸베드라에게 련대성전문을 보내였다.

전문은 미제가 지난 3월 16일 온두라스령토에 대규모의 침략무력을 투입한것은 니까라과의 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침해이며 중미주지역의 평화과정을 파탄시키고 분쟁을 연장격화시키기 위한 악랄한 범죄적책동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니까라과군대가 온두라스를 침범하였다는 있지도 않은 구실을 날조해가지고 니까라과에 대한 강도적무력간섭책동을 감행하여나선 미제국주의자들을 강력히 단죄하며 규탄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니까라과혁명을 교살하려는 모든 침략과 간섭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온두라스에 투입된 저들의 침략무력을 지체없이 철수하여야 하며 꼰뜨라스악당들에 대한 일체 지원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반대하여 싸우는 영웅적인 니까라과인민과 언제나 함께 싸워나갈것이다.

(관련기사 4면)

미국측은 정전협정을 우롱하는 비렬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에서 공화국측이 요구

【개성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군사정전위원회 제490차 비서장회의가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23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이 비렬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사건을 날조하는 한편 우리측 《위반사건자료》라는 엉터리없는 문건을 넘겨오고있는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적측에 책임을 추궁하였다.

우리측 비서장 김련기대좌의 말에 의하면 최근 미국측은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 내용이 정확히 지적되여있지 않는 《사건자료》를 계속 우리측에 보내오고있다.

미국측은 또한 《위반사건》이라는것을 신속히 통보하지 않고있다.

사건발생시간도 없고 사건발생장소도 똑똑치 않은 《자료》를 그것도 몇달씩 지난 다음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사할수 있겠는가.

우리측 비서장은 미국측이 이런 불비한 《자료》를 보내오게 된것은 그 어느 개별적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측에 사건을 날조하여 상대방을 터무니없이 걸고드는 비렬한 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정전협정을 엄격히 리행할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선전》이니 뭐니 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우리측 비서장은 우리의 이 요구는 정전협정의 정신으로 보나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아주 정당한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측의 부당한 립장과 태도는 정전협정과 쌍방간의 합의를 휴지장처럼 여기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우리측 비서장은 미국측이 비렬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있지도 않은 《위반사건》을 날조하여 만들어내며 사건발생 날자와 지점 그리고 사건내용도 기입되지 않은 자료를 넘겨보내온 조건에서 12월중 우리측 《위반사건자료》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측에 그것을 반환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중 불비한 《사건자료》 3만 9,287건은 위반사건으로 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우리측 비서장은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국측이 정전협정을 철저히 리행해야 하며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무조건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만약 미국측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국과 나

▷◁
조국에 대한 생각
▷◁

저는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조국의 따뜻한 배려로 지금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하여 조국의 벅찬 현실을 들을 때마다 조국을 방문하고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였습니다.

마흔고개를 훨씬 넘고 조국땅에 첫발을 내디딘 저는 얼마나 감격하였는지. 마치도 어린 자식이 어머니품에 와락 안기는 심정과 같았습니다.

저는 조국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주체의 조국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나라라는것을 강하게 느끼였습니다.

조선은 36년동안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3년간 미제의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모든것이 다 파괴되고 페허로 되였습니다.

놈들은 백년 걸려도 조선은 일떠서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30여년동안에 오늘처럼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조국의 진모습에 접하니 주체조선의 위력을 온몸으로 느꼈고 무엇보다도 조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수 있었습니다.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여기에 휘황한 앞날의 담보가 있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조국은 그 어떤 모진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으↙

조국위해 저도 한몫 끼렵니다

황 정 희



그리운 조국을 방문한 필자(오른쪽으로부터 2번째)

↘며 후대들이 사는 조국은 더욱 행복한 락원으로 될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조국을 빼앗겼을 때 재일동포들은 망국노의 설음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이 부강해짐으로써 재일동포들의 처지는 개선되고 오늘은 그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민족적존엄을 굳건히 지니고 살게 되였습니다. 때문에 재일동포들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잇닿아있는것입니다.

저는 조국땅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였습니다.

▷◁
남편의 뜻을 이어
▷◁

조국에 대한 사랑이 이처럼 깊어질수록 5년전에 돌아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남편은 사회주의조국과 총련조직을 위해 온갖 열성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남편은 우리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민족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결혼한후에는 불고기집을 경영하면서 지역상공회 리사장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간 남편은 수차례나 조국을 방문하여 사회주의조국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나라위해 바치는 그 뜨거운 열성을 잘 리해못하고있었습니다. 이번에 조국을 방문하여 그걸 깊이 돌이켜보게 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조직에서 사업하는것은 남편이 하는 일이지 자기는 가정일과 장사를 보는 평범한 주부라는 마음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간후도 집장사를 보고 자식들만 키우면 좋다는 생각이였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밝은 앞날을 위하여 나아가는 조국의 모습과 남편의 한생을 놓고 생각을 깊여보니 남편의 뜨거운 마음이 이제야 다 리해된것 같았습니다.

조국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것입니다. 조국이 부강해질수록 후대들에게는 더 큰 행복이 마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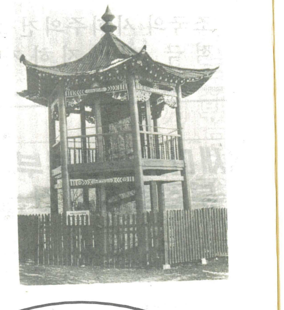
앞날의 보다 행복한 조국을 위해 한몫 끼는것, 이것이 남편의 뜻을 이어 살아갈 저의 사명이라고 자각하게 되였습니다.

어머니조국땅에서 크나큰 감격에 휩싸이고 남편과 계속 함께 나아갈 단단한 결의를 다진 저는 지금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새 힘이 솟아나군 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녀성동맹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 젊어진듯 기백에 넘치고 마음의 기둥이 확고히 선것 같습니다.

(녀성동맹 교또부 미나미야마시로지부 맹원)

력사의 유산



크기: 높이 6.34메터
나온곳: 중국 길림성 집안현
시기: 고구려(414년)

광개토왕릉비

이 비는 고구려 19대왕인 광개토왕(広開土王)의 《공적》을 찬양하여 그가 죽은지 2년후에 세운것이다.

비의 받침돌은 깨돌이고 비몸은 재바위돌로 만들었는데 당시의 비돌가운데서는 보기 드물게 큰것이다.

비몸 네면에는 글자를 새겼는데 그것은 모두 44줄에 1,802자이다.

비문내용은 크게 3단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제1단에서는 고구려건국전설로부터 시작하여 광개토왕의 《공적》을 찬양하고 비를 세우게 된 취지를 밝혔으며 제2단에서는 광개토왕이 령토를 넓힌데 대하여, 제3단에서는 묘지기의 수와 그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밝혔다.

이 비는 당시 고구려의 사회경제형편과 계급관계 그리고 신라, 백제, 왜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른 문헌기록에 없는 귀중한 자료들을 전하여주고있다.

실로 이 비는 웅대한 규모와 힘있는 필치 그리고 풍부한 내용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귀중한 비돌이다.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혁신으로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

200일전투에서 커다란 혁신

일별계획을 날마다 갱신
황철과 단천에서

200일전투에 펼쳐나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3월의 최근 20여일동안에 그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강철과 선철은 1.5배이상, 압연강재는 1.3배이상으로 생산을 늘이였다.

이 기업소에서는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려 평로의 천정주명을 늘이고 제강시간을 훨씬 단축하였다.

또한 용광로의 열풍온도를 높이고 출선회수를 늘였을뿐아니라 로들에서 연료소비기준을 낮추었다.

그리고 압연기들에서 내부예비를 찾아 생산을 1.3배, 1.5배로 끌어올렸다.

한편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광산, 기업소들에서는 최근 10일동안에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매일 평균 중요유색금속광물생산을 118%이상 높이였다.

검덕광업종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올해에 지난해 실적의 근 2배의 유색금속광물을 생산할 목표밑에 다량락광, 다량처리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고있다.

벼랭상모판 씨뿌리기 시작
—서해안지대 농촌들에서—

조선의 서해안지대 농촌들에서 3월중순에 들어서 벼랭상모판 씨뿌리기가 시작되였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올해에 또다시 만풍년을 이룩할 목표밑에 년초부터 벼랭상모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왔다.

특히 황해남도 신천군, 재령군, 황해북도 봉산군, 은파군내 협동농장들에서는 비료치는 기계, 락종기 등 능률높은 기계수단들을 리용하여 첫날씨뿌리기계획을 넘쳐수행하였다.

평안남도, 평안북도내 농촌들에서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올리고있다.

전국적으로 벼랭상모판 씨뿌리기는 10여일동안 진행되게 된다.



련속식《봉화호》굴착기로 쇠돌생산을 다그치고 있는 재령광산 로동자들

품위높은 큰 광체들을 새로 탐사
—북부고산지대 10여개 지구에서—

조선의 북부고산지대의 10여개 지구에서 5가지의 품위높고 맥폭이 큰 광체들을 새로 찾아냈다.

그리고 2개의 지구에서는 우리 나라에 없다고 하던 광상들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문락평, 룡암, 신파, 후창, 풍산 등 여러 지구에서 유색금속광물매장량이 확증되였다.

또한 문락평, 풍산 지구에서는 품위높은 흑색금속광체도 찾아냈다.

특히 풍산지질탐사대에서는 유망한 흑연광체를 찾아내여 큰 규모의 광산을 개발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례년보다 10여일 앞당겨
(첫 소금생산)
—각지 제염소들에서—

조선에서 례년보다 10여일 앞당겨 지난 3월중순에 첫 소금생산에 들어갔다.

각지 제염소들에서 요즘 매일 평균 종전실적의 1.5배되는 소금을 생산하고있다.

연백제염소에서는 며칠사이에 500여톤의 소금을 생산하였다.

귀성제염소에서는 요즘 하루생산실적을 종전의 2배로 올리고있다.

목소리
참된 삶

지난 3월 22일호 본지에 소개된 총련 오사까부 이꾸노남지부 조동춘비전임부위원장(67살)의 미거를 읽고 감동과 감사의 정을 억누를길 없었다. 고령의 나이, 불편한 몸으로 애국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있다는 사실에서만이 아니다. 조부위원장이 필자에게 있어선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추억깊은 일군이였기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의 일이다. 당시 기자로서 첫걸음마를 떼였던 필자는 분회장과 분회위원전원이 장사일을 뒤로 미루고 1주일간 깅끼학원에서 배워온 뒤 혁신을 일으키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사까의 한 분회를 찾아갔었다. 첫 취재대상이 현재 부위원장인 조동춘분회장이였다. 풋내기기자란것을 안 분회장은 《전임일군인 동무가 부럽다.》고 친자식처럼 대해주면서 푸짐한 식사까지 대접해주었다. ▼그후 분회장이 장사를 정리하고 전임일군으로 나선후 총련부위원장을 하며 아들 3명도 모두 총련조직에 내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만났을 때 《전임일군이 부럽다》고 한 말의 참뜻을 직감하고 흐뭇한 심정에 사로잡혔었다. ▼그런데 중앙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부위원장이 당뇨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고 비전임으로 되였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섭섭해하던차에 신보지상에서 부위원장이 퇴원을 한 이후 매일 30여부의 《조선신보》를 배포하고있다는 애국지성에 접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때 기자로서 첫 일을 했을 때의 잊을수 없는 혁명선배의 얼굴과 지나온 일들을 새삼스레 회상하면서 그분들처럼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리라 굳게 맘다짐하게 된다. ▼《좀 나이를 먹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또 비전임이 되였다고 애국초소에서 물러선다면 그런 애국심은 가짜가 아닙니까.》 뿌옇게만 보이는 눈을 비비면서 오늘도 애국초소에 당당히 선 부위원장의 이 말이야말로 참말의 애국자란 어떻게 일생을 빛내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명언이라 해야 옳을것이다. 이런 1세일군들이 있어 우리 2, 3세 일군들이 있는것이며 우리 애국사업의 보다 양양한 래일이 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도하신 류다섬회의 55돐기념 새별군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직지도하신 류다섬회의 55돐기념 함경북도 새별군 보고회가 3월 19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서는 새별군 당위원회 책임비서 겸 새별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석길호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류다섬회의는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국내혁명가들과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며 북부국경일대에 반유격구를 확대하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회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사적지들과 혁명전적지들을 적극 발굴하고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해주시였으며 빈궁만이 지배하던 조국의 북변 새별땅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날 새별군내 근로자들은 류다섬에서 기념식수를 하였다.

해 설

이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의 반일무장투쟁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던 당시 조성된 정세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시고 왕재산회의방침관철을 위하여 1933년 3월에 반일인민유격대의 한대오를 이끄시고 경원군 류다섬(오늘의 새별군 류다섬)에 진출하시여 소집(3월 21일)하신 이 일대의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의 회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국내의 혁명조직과 혁명가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왕재산회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대중을 혁명화, 조직화하여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으며 그에 기초하여 반유격구를 창설공고화하고 국내혁명가들과 정치공작원들이 능숙한 지하공작 완수와 방법을 소유할데 대하여 등 일련의 중요한 대책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과학원건설건재분원 창립 30돐기념 보고회 진행

우리 나라 과학원건설건재분원 창립 30돐기념 보고회가 22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서는 과학원건설건재분원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축하문은 건설건재분원은 창립후 지난 30년동안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건설건재분원의 전체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나라의 건설건재과학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크게 공헌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과학원건설건재분원 변응회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창립 40돐기념 보고회도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창립 40돐기념 보고회가 14일 평양에서 있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료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축하문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이 지난 40년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보건사업발전에 훌륭히 이바지하여왔으며 의료일군들이 병원을 주체화, 현대화된 대규모의 종합적인 치료예방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전문과적의료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한편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고 여러 부문의 림상의학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리주선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책《꾸바—조선, 력사적상봉》을 발행
꾸바공산당 정치출판사에서

꾸바공산당 정치출판사에서 책《꾸바—조선, 력사적상봉》을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 2돐에 즈음하여 발행하였다.

책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찍으신 기념사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비행장과 연도에서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사진들이 모셔져있다.

책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평양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사진들이 모셔져있다.

책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와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들이 편집되여있다.

책에는 또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꾸바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와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들이 편집되여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1만조 호조반을 꾸려 동포사는 곳곳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쓰는 운동을 줄기차게 벌리자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궐기모임

각지 총련본부들에서 계속

애국사업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총련 오사까부본부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리기 위한 총련 오사까부본부 궐기모임이 지난 23일 본부회관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이곳 본부 김병숙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 그는 이번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지난해 관하 모든 조직들에서 적극 벌려온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쓰는 운동에서 거둔 성과와 교훈, 극복해야 할 부족점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운동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바 관하 모든 전임일군들이 우리 말과 글을 모르는 동포를 분공맡아 배워주는 호조반체계를 4월 5일까지 튼튼히 꾸리고 관하 단체, 사업체들에서도 동포들의 특성에 맞게 대대적으로 이 운동을 벌리며 각종 성인문화교육, 청년학교를 4월중순까지 개강하고 4월안으로 올해 망라교양목표의 70%이상을 달성할것을 호소하였다.

보고에 이어 총련 히가시나리지부 김현이선전부장, 녀성동맹본부 김애민선전부장, 조청 조은지부 정국남위원장, 류학동 오사까부본부 김정의선전부장, 조청 히가시오사까북지부 김영숙선전부장, 총련 이즈미오쯔지부 리우진조직부장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쓰는 운동에서의 경험과 교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총련 히가시나리지부 김선전부장은 토론에서 《지난 시기 우리 말과 글을 모르고 우리와 그다지 접촉이 없는 대상을 중심적으로 망라하여 우리 나라 력사와 민요 등을 배합하면서 성인교육사업을 진행하니 그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다. 참으로 이 사업은 애국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고 말하였으며 류학동본부 김선전부장도 《젊은 세대들의 민족자주의식이 희박해지고 민족성이 약화되고있는 환경에서 이 운동을 계기로 민족의 넋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힘차게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중앙 리말상 부의장 겸 총련본부 위원장이 맺음을 하였다.

맺음에서 그는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의 중요성과 요구성에 대해 말한후 이 운동이 민족애국운동의 중심이며 올해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운동인것만큼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운동과 더불어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셔나가는 사업을 힘차게 벌려 벅찬 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감으로써 올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자고 호소하였다.

500조의 호조반을 꾸려
총련 교또부본부

총련 교또부본부관하 일군들이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 한결같이 궐기하였다.

23일 본부회관에서 진행된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리기 위한 총련 교또부본부 궐기모임에는 교또부관하 총련,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조신, 금강보험, 교육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본부 신중학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먼저 공화국창건 40돐을 앞두고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 적극 떨쳐나선 관하일군들을 고무격려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의 사업요구에 비추어볼 때 일군들이 우리 말을 배우고 쓰는것은 물론 모든 동포들속에 이 운동을 심화시키는것은 현실적으로 절박한 과업으로 나선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일군들이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배격하며 자세와 립장을 확고히 세우고 이신작칙하여 사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 운동을 깜빠니야적인 사업이 아니라 동포대중에 튼튼히 의거한 일대 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①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세우고 확고한 자세와 립장을 세우며 ②관하 500조의 호조반사업에 한사람같이 나서며 ③모든 기관, 모든 단체와 사업체 일군들이 참가하는 일대 대중적운동으로 심화시키며 ④성인교육강사대렬을 더욱 확대하고 그 역할을 부단히 제고시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기관과 단위마다에서 운동에 대한 정책토의를 깊이는것과 함께 호조반, 수강생의 파악과 강사배치를 밀도있게 짜고들뿐아니라 모든 선전수단을 백방으로 리용하여 운동을 그야말로 대중들속에 뿌리박은 생활력있는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4월명절까지 호조반체계를 완성정비하여 20일에 성인교육 및 청년학교를 개강할뿐아니라 4월안으로 올해 이 부문 목표를 60%수준에까지 끌어올릴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어 총련 우꾜지부 정박윤위원장, 총련 미나미야마시로지부 강경희전임강사, 조청본부 정인효위원장, 녀성동맹본부 손영희위원장, 교또제3초급 황진성교장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호조반사업을 비롯한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제반 사업에서 앞장서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궐기모임의 맺음을 총련중앙 김수식선전국장이 하였다.

궐기모임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은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특히는 호조반사업체계를 튼튼히 꾸려 이 사업을 전기관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뜻깊게 맞이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리기 위한 총련 오사까부본부 궐기모임





지금 각지 총련일군들은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 힘차게 궐기해나서고있다. (교또[사진 왼쪽]와 야마구찌)

집단조국방문사업과 결부시켜
총련 야마구찌현본부

총련 야마구찌현본부관하 일군들이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 힘차게 궐기하였다.

19일 이곳 본부회관에서는 우리 말을 더 잘 배우며 쓰는 운동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할 굳은 마음을 다진 관하 지부일군들과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조신, 금강보험, 교육 일군들의 참가밑에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리기 위한 총련 야마구찌현본부 궐기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 야마구찌현본부 엄장범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은 광범한 동포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쓰도록 하는 일대 대중적운동이며 동포들속에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는 애국적전진운동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말을 배우며 쓰는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이 운동을 군중적으로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운동이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중심고리인 현하 200조의 호조반사업을 깐지게 짜고드는것과 함께 분회담당소조사업, 5호담당선전원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또한 여러 형태의 성인교육망과 청년학교를 보다 밀도있게 꾸리며 온갖 선전선동수단을 백방으로 리용하여 동포들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한 운동을 그야말로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강화시켜 공화국창건 4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것과 함께 7월에 예견되는 현하동포들의 집단조국방문사업을 성과적으로 준비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총련 시모노세끼지부 박진택위원장, 조청본부 리한수위원장, 야마구찌조고 장석기교직동분회장, 조청 우베지부 최경옥전임강사, 녀성동맹 시모노세끼지부 강정순전임강사, 조은본점 박승삼총무부장이 토론을 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의 목적과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특히는 운동의 중심고리인 호조반사업에서 새로운 긍정을 창조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야마구찌조선가무단의 예술선동에 이어 총련중앙 리성우부사무총국장이 모임의 맺음을 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은 우리 말과 글을 더 잘 배워나갈뿐아니라 방대한 호조반사업을 성과적으로 짜고들어 공화국창건 40돐을 커다란 사업성과로 맞이할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평화통일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

평화의 돌파구 여는 현실적발기

〈1〉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의 허담위원장은 지난 3월 8일,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들에게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를 오는 3월 28일 판문점에서 가질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남조선측에 넘겨주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3일, 허담위원장은 북남련석회의소집을 위하여 2월 19일에 판문점에서 예비회의를 가질것을 제의한 편지를 보낸바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북측의 편지를 받아가자마자 공화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려객기실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켰으며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켰다.

우리는 남조선의 당국을 포함한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어느 길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길이고 어느 길이 민족대결과 전쟁의 길인가를 옳바로 식별하고 참된 애국의 길인 북남련석회의마당에 나서는 용단을 내리고 3월 28일의 예비회의에 응해나설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공화국정부가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군사파쑈독재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이룩한 성과와 교훈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시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것이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밝히시면서 이러한 원칙적립장에만 선다면 공화국측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단체 및 재야의 각계인사들은 물론 집권자들과도 인민들의 의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아무때나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집체적으로도 만나 대화를 할것이라는 신축성있는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년사에서 특히 쌍방의 당국자를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①《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②다국적군축회담을 마련하는 문제 ③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문제 ④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시급히 협의해결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와 전체 조선인민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당면한 난국을 해결할 방도를 명백히 밝혀준 매우 중대한 발기이며 현실적이고도 정당한 제안이다.

현시기 북과 남사이에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있는 북과 남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이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오늘 민족내부의 불화를 조성하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는 위험한 요인이다. 지난 시기 여러 차례 모처럼 마련됐던 북남대화가 파탄된것도 대규모군사연습때문이였다.

이 제안은 다국적군축회담을 마련하여 우리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핵참화의 위협도 받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수 있는 유일한 출로로 된다.

또한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고있는 첨예한 문제의 하나는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한 문제이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당국이 끝내 올림픽경기대회를 단독으로 강행한다면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은 더욱 첨예화될것이며 통일도상에 큰 지장을 조성할것이다.

북과 남사이에서 호상 비방중상이 중지안된다면 호상 불신과 반목이 격화되여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킬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목과 대결이 지속되고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켜나간다면 구경은 조선민족은 전쟁, 그것도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재난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계속)

제4차조일친선고급학교
학생권투경기깅끼대회
(조고선발 대 일본고교깅끼지방선발)
시일—3월 26일(토) 오후 1시
장소—오사까조선문화회관 중체육실

팀스피리트 88 제2단계에

포항앞바다에서의 대규모상륙작전, 《총공격》작전 등 엄중한 도발소동 감행키로

세계의 광범한 사회계가 강력히 규탄



《팀 스피리트 88》연습소동에 대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사진은 지난해 포항에서의 연습)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여러 나라 사회계가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있다. 연습은 제1단계인 작전전개(해외로부터의 미군투입단계)를 3월말에 끝내고 제2단계인 야외기동훈련단계에 들어서려 하고있다. 미제는 연습의 침략공격적인 성격을 무마하기 위해 연습내용에 대해서는 공표안하고있다. 그러나 종래의 관례로 보아 포항앞바다에서의 대규모상륙작전, 《반격》의 구실밑에 군사분계선가까운 최전선에서 《총공격작전》이 벌어지는 등 엄중한 도발소동이 감행될것은 확실하다.

이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미제와 괴뢰들의 이러한 침략도발연습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하달(3월 21일)하였다.

미제와 괴뢰들의 범죄적인 연습소동으로 인해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있다.

◇

미국, 또고의 사회단체와 국제기구들이 성명

미국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와 또고조선친선협회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는 11일부 성명에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라고 락인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계속 지지할것이다.

또고조선친선협회는 7일부 성명에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평화를 바라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예비전쟁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전쟁도발책동을 중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제안에 응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정부와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적극 지지할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는 8일에 발표한 공보에서 모든 법률가들이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과 로태우《정권》의 탄압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호를 규탄하여 미국정부와 각국 주재 미국대사관들에 항의를 표시할것을 호소하였다.

공보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목표로 하는 핵전쟁연습이라고 폭로하면서 미국이 《북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이를 정당화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공보는 미국이 남조선《정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인권유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규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지지하며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할것을 호소하여 부룬디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 부룬디위원회가 3월 14일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으시고 각지에서 시급히 협의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에 도전하였으며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부룬디인민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지지하며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할것을 호소하였다.

미제는 니까라과혁명을 교살하려는 침략과 간섭 책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

【평양 3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부 성명에서 니까라과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간섭책동을 규탄하고 니까라과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였다.

성명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도발로 말미암아 지금 니까라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극도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중미주나라들의 평화노력을 공공연히 유린하면서 니까라과를 반대하는 군사적간섭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여나선것은 니까라과의 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침해이며 중미주지역의 평화과정을 파탄시키고 분쟁을 연장격화시키기 위한 악랄한 범죄적책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니까라과군대가 온두라스를 침범하였다는 있지도 않는 구실을 날조해가지고 니까라과에 대한 강도적무력간섭책동을 감행하여나선 미제국주의자들을 강력히 단죄하며 규탄한다.

라틴아메리카대륙을 저들의 세습령지로 간주해오던 미제는 꾸바혁명이 승리하였을 때에도 그를 말살하기 위하여 무장간섭을 감행하였으며 오늘도 꾸바를 반대하는 모략책동을 계속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미제가 얻은것은 수치스러운 참패뿐이였다.

미제는 그 무엇으로써도 꾸바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미제는 반꾸바책동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반니까라과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니까라과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그를 요람기에 말살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다.

이번에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직접적인 전면무장간섭책동에로 넘어갔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제자주의 기운을 억누르고 이 대륙을 저들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영원히 틀어쥐려는 강도적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을 자체폭로하여주고있다.

오늘 니까라과인민은 피로써 쟁취한 싼디노혁명을 수호하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분쇄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니까라과에서는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되였으며 전국이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이것은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니까라과인민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니까라과혁명을 교살하려는 모든 침략과 간섭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니까라과반혁명악당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그만두어야 하며 온두라스에 투입한 저들의 침략무력을 지체없이 철수하여야 한다.

니까라과를 포함한 중미주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이 지역 나라 인민들자신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반대하여 싸우는 니까라과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자주위업에 일떠선 니까라과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다.

쏘련의 따쓰통신 등 세계언론계도

세계 언론계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발가놓으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쏘련의 따쓰통신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륙해공군의 공동행동을 북쪽방향으로 돌리면서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하는 전투작전을 벌리고있는것으로 보아 북침을 노린 핵시험전쟁연습이라는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뽈스까신문 《뜨리부나 류두》는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은 20여만명의 미군과 남조선괴뢰군, 항공모함전단, 《비-52》전략폭격기, 핵무기로 장비된 《푸른 베레모》부대가 참가하는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띤 핵시험전쟁이라고 폭로하였다.

마다가스까르신문 《이뭉구 바우바우》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해상상륙작전과 지상공격전, 도하전, 《특공대》전, 비행대타격전, 핵및화학전, 전자전 등을 하늘과 땅, 바다에서 벌리는 공격적인 성격을 띤 하나의 립체전이며 종합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폭로단죄하였다.

꾸바의 멜테 레벨데 텔레비죤방송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는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급신문 《아랍청년》 책임주필 아흐마드 하싸닌은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명정대한 평화제안을 외면하고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림으로써 북남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인도신문 《내슈널 헤랄드》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리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북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몽골신문 《허덜머르》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세계 사회계의 한결같은 요구와 항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쟁연습을 계속 벌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지지하여 련대성편지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지지하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내각부수상 겸 외무상 푼시파세우트는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에게, 독일자유민주당 위원장인 박사, 교수 만프테드 게를타흐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당 위원장 보후슬라브 꾸체라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에 련대성편지를 보내왔다.

련대성편지들은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다고 지적하고있다.

편지들은 북남련석회의의 소집제안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그리고 아세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기여로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고 지적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미제침략군 유지비를 더 많이 전가시키려는 책동

워싱톤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강점 저들의 침략군 유지비의 대부분을 남조선인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검은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 헤이즈란자가 21일 미상원세출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우리는 미군유지비분담액을 늘이도록 남조선에 계속 요구하고있다》고 떠벌인것은 그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제가 최근년간 직면하고있는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식민지들에 대한 보다 가혹한 략탈과 군사적모험에서 찾으려 한다는것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이다.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고 그것을 조선경외에로 넓혀나가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침략야망이며 놈들은 그를 위해 저들 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무한정 유지하려 하고있다. 그러면서 미제는 남조선강점미군유지비의 부담을 전적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전가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주간일지

3월 16일 (수)~3월 22일 (화)

북반부

17일(목)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 6돐기념 평양시 보고회 진행.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창설 25돐기념 보고회 진행.

20일(일) 공화국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여 니까라과에 대한 미제의 무력간섭책동을 규탄. ◆조선중앙통신이 제6차《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열리게 된다는데 대하여 보도.

21일(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 하달에 관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보도를 발표.

재일동포

16일(수) 조선대학교 제30회졸업식 진행.

17일(목)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리기 위한 총련 도꾜도본부 궐기모임 진행.(가나가와〔18일〕, 아이찌, 후꾸오까, 야마구찌〔19일〕를 비롯한 각 본부들에서도 궐기) ◆조청중앙의 주최로 《최근의 조선반도정세에 관한 강연회》 진행.

18일(금)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남조선괴뢰들과 미일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폭로규탄하기 위하여 총련 도꾜도본부에서 가두선전 벌림.(23일에도) ◆조은아이찌본점 신축 1주년기념 조일경제인간친회 진행.

19일(토) 각지 우리 학교(초중)들에서 졸업식과 종업식 일제히 진행.(~21일)

남조선

16일(수) 서울 연세대생 200여명, 로태우역도의 로조탄압을 규탄하여 집회와 시위 단행.

18일(금) 서울 중구에 있는 백병원로조원 200여명,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단식롱성을 벌리고있는 조합장 등 동료들을 지원하여 동조롱성에 들어감.

21일(월) 서울대 100여명 학생, 괴뢰군전방부대입소훈련의 철폐를 주장하여 철야롱성투쟁 전개.

22일(화) 충청남도 방직녀성로동자 500여명, 작업환경개선 등을 요구하여 완강한 롱성투쟁 벌림.

국제

16일(수)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수상,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지지. ◆꾸바 까스뜨로수상, 올림픽공동주최가 실현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는 꾸바의 립장을 재천명.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28일 (음력 2월 11일) 월요일 【루계 제10168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發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모략책동을 준렬히 규탄단죄한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와 시위 진행

【평양 3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김일성광장에서는 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와 시위가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와 시위【평양~도꾜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대회장은 미제와 그 주구 로태우일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복수심을 안고 모여온 시내 10만여명의 각계각층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부주석인 박성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 부총리인 김영남동지, 정당, 사회단체,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 영웅들, 로력혁신자들, 인민군군인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의 여러 대표단과 방문단 성원들이 초대석에 나와있었다.

초대석에는 또한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이 나와있었다.

군중대회에서 먼저 연설한 강희원동지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과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하여 하달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아세아와 세계의 안전을 튼튼히 지키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조치이라고 하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본군중대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올해에 또다시 벌리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무모한 전쟁책동의 직접적인 연장이며 나라의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거듭되는 평화애호적노력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이 단순한 훈련인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극히 위험한 전쟁도발소동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특히 남조선괴뢰들이 려객기사건을 꾸며내고 전례없는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일으키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는 속에서 벌린다는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그들이 떠드는 《대화》와 《완화》와 《평화》라는것이 모두 거짓말이며 놈들이 추구하는것은 오직 대결과 전쟁뿐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더우기 놈들이 올림픽을 걸고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을 벌리는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부정협잡과 모략으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로태우일당이 《평화》를 떠들며 전쟁연습을 하는것은 그들이 선입자들보다도 더 음흉한 미제의 전쟁하수인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을뿐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히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신성한 조국강토와 자기의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보복을 가할것이며 원쑤들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의지를 바로 보고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전쟁수단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제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로태우괴뢰도당은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추종하여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모략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인민군장병들을 대표하여 군관 서원춘, 로농적위대 대원들을 대표하여 한진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맹옥회가 연설하였다.

연설들이 진행되는 동안 대회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는 구호들이 힘있게 울려나왔다.

대회가 끝난 다음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10만여명의 군중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규탄하는 구호들을 부르면서 시중심거리를 행진하였다.

사 설

《새마을운동본부》부정협잡사건의 왕초는 바로 전, 로일당이다

본지에서 폭로된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에서는 전두환역도의 동생 전경환의 대규모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사회적분노가 절정에 이르렀다.

선행군사악당들에 의하여 조작된 《새마을운동》이란 기구가 남조선 전역에 조직망을 뻗치고 전두환역도가 《대통령》감투를 강탈한 이후부터 《제2의 청와대》로까지 불리우면서 치외법권적기구로 된것은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가 독재자를 등에 업고 전횡을 부렸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부정부패행위는 매우 심합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착취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 술한 돈을 부정축재하였으며 그것으로 회사와 호텔 같은것을 경영하면서 일신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습니다.》

전경환은 《새마을운동본부》 회장자리를 차지하자 괴뢰정부로 하여금 《국고》에서 한해에 2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이 기구에 들이밀게 하고 각 기업체로부터는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50억원을 강탈해내였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자는 부정부패의 왕초답게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새마을운동자금》으로서 400억원을 긁어모아 거기에서 생긴 리자수익 110억원을 제멋대로 탕진하였다.

더우기 이자는 《새마을연수원》이라는것을 만들고 주민들의 토지를 터무니없이 눅은 값으로 빼앗아 그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죄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전경환이가 제형인 전두환과 로태우를 등에 업고 언제나 30명을 훨씬 넘는 수행원이란 깡패무리의 호위밑에 호기등등하여 남조선 각지를 싸다닌 사실은 이자의 행패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준다.

전경환의 죄행에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제상전을 상대로 한 부정부패이다. 이자는 1981년 벼농사의 흉작으로 쌀기근이 심화된것을 악용하여 미태평양국제정미회사와 70만톤의 쌀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그중 10만톤을 국제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 이와 함께 이자는 미국으로부터 소를 한마리당 50만원으로 수입하고 농민들에게 90만원으로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10억딸라의 폭리를 얻어냈다. 이자의 롱간에 의한 미국의 소고기수입으로 지금 농축산민들은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다. 또한 전경환이가 미국의 담배독점체들에 전두환의 담배시장개방시기를 사전에 알려주어 거액의 사례금을 받아먹는 반민족적행위를 감행한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밖에도 11억 6,000만원을 집어삼킨 《사회체육진흥회》부정사건, 바나나부정도입사건, 밀부정도입사건 등 전두환, 로태우를 등에 업고 전경환이가 감행한 부정협잡사건은 부지기수이다.

이처럼 이자는 부정협잡사건을 련속 저지름으로써 긁어모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과 일본, 구라파 등지의 은행들에 분산시켜 예금하였으며 전두환, 로태우의 군정연장을 돈으로 뒤받침해왔다.

권력형부정부패를 일삼은 전경환의 죄행이 폭로되기 시작하자 전두환, 로태우도당은 지금 당황하여 안절부절하고있다.

특히 지난 18일 전경환이가 일본으로 도망쳤다가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추궁에 못이겨 21일 서울로 들어가자 전두환역도는 그 이튿날인 22일 미국으로 뺑소니치고말았다.

겉으로는 《철저히 수사》니 뭐니 하고 떠드는 로태우도당도 지금 이 사건을 유야무야하게 처리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이것은 로태우《정권》이자 곧 전두환《정권》이며 전두환의 부정축적이자 곧 로태우의 부정부패이라는것을 뚜렷이 증시해주고있다.

우리는 로태우《정권》의 《핵심부》가 전두환, 전경환형제의 부정부패와 깊숙이 관련되여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반《정부》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열렬히 지지성원하며 전두환과 함께 력사상 류례없는 부정부패행위와 인민탄압에만 광분해온 로태우도당이 인민의 요구대로 당장 물러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권력형부정부패의 원흉 전두환, 전경환의 죄행을 바로 로태우도당의 부정협잡행위로 보고 이를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결부하여 내외에 낱낱이 폭로해나갈것이다.

조일학자들의 간친회가 있었다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하여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이 집요하게 감행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5일 저녁 조일학자들의 간친회가 도꾜 지요다구에 있는 죠스이회관에서 있었다.



기탄없는 의견이 교환된 조일학자들의 간친회

여기에는 주최단체들인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조선문제연구소의 책임일군들과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메이세이대학 교수 스즈끼 지로, 호세이대학 교수 니시다 마사루, 쥬오대학 교수 이또 나리히꼬, 센슈대학 교수 후꾸시마 싱고, 소까대학 교수 미즈이 다메도모, 도까이대학 교수 시마즈 다께시씨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대학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참가하였다.

간친회에서는 사협부회장인 조선문제연구소 신희구소장이 주최자측을 대표하여 연설을 한 다음 평론가 나까가와 노부오씨가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을 옳게 볼데 대한 보고를 하였다.

그는 남조선《안기부》가 《북의 소행》설의 유일한 《근거》로 선전하고있는 《마유미자백》의 허위성은 오늘에 와서 완전히 드러났다고 하면서 16년전 평양에서 남조선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직접 준 정회선녀성의 증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남조선측이 떠들고있는 《비행기폭파설》도 이미 일본텔레비죤의 추적조사를 통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것이 널리 폭로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비행기실종사건은 지난해 남조선인민투쟁의 앙양으로 궁지에 몰렸던 남조선군부와 체제내강경파들의 소행으로밖에 생각할수 없으며 특히 범행동기와 실행《능력》으로 미루어볼 때 군사독재《정권》의 중추부에 있으면서 초법규적이며 막강한 존재인 남조선《안기부》자신의 범행으로 보아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와 배후문제, 진상을 폭로하고 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긴요한 문제들, 그릇된 반공화국선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실정과 일방적인 모략선전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책무들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간친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정회선녀성의 증언을 수록한 비데오록화편집물을 보았다.

《살인마 전두환》, 《광주를 기억하라》

미국 백악관앞에서 항의자들이 시위투쟁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제상전의 호출을 받은 전두환괴뢰역도가 미국행각의 첫순간부터 강력한 항의시위에 부딪치고있다.

23일 레간과 괴뢰역도가 백악관에서 모의를 벌리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백악관앞에서 20여명의 항의자들이 《살인마 전두환》, 《광주를 기억하라》 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렸다.

시위자들은 군정종식과 민주화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을 무참히 짓밟고 로태우군부독재《정권》을 조작한데 이어 선행주구를 불러들여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모의를 벌리고있는 미제의 책동에 격분을 표시하는 한편 광주대학살만행을 감행한 로태우, 전두환 파쑈살인악당의 반민족적 죄행을 단죄규탄하였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괴뢰로동부사무소를 공격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23일 저녁 서울의 대학생들이 생존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의 표시로 구로구에 있는 괴뢰로동부 관악사무소를 공격하였다.

이날 한집단의 대학생들은 《악덕기업주 비호하는 현〈정권〉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웨치고 인쇄물을 뿌리며 사무소를 들이치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 공격으로 사무실유리창들이 깨여져 만신창이 되였다고 방송은 전하였다.

시대를 밝히시며

주체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심화발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적업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신데 있다.

그이께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신 내용들에는 주체사상의 근본특징, 주체철학의 근본문제,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완벽한 해명과 주체사상의 구성내용들의 전면적발전풍부화 그리고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에 이바지하는 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신 사상리론적업적들이 포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의 구성으로부터 그 사상리론적내용 전반을 폭넓고 깊이있게 발전풍부화하신것은 인류사상발전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

◉…◉

주체사상의 근본특징에 대한 해명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근본특징을 옳바르게 밝혀주신것은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는 그이의 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란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철학적문제들을 고찰하고 풀어나가는 사상이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근본특징은 바로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철학적문제들을 고찰하고 풀어나간다.

인류의 철학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의 철학사상들은 물질 또는 정신을 중심에 놓고 철학적문제들을 전개하여왔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명에 기초하여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을 위주로 하여 모든 철학적문제들을 제기하고 풀어나간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사람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준다.

지난 시기의 철학들은 주로 세계의 시원을 밝히는것을 사명으로 내세웠던것만큼 사람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지 못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운명문제를 세계관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대한 옳바른 해명을 주는것을 철학의 근본사명으로 내세움으로써 사람의 운명 개척의 합법칙성과 그 방도를 밝혀준다.

이렇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근본특징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그 본질적내용과 지위를 옳바로 인식할수 있는 고귀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

구성내용에 대한 새로운 전개와 체계화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신 수많은 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에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완벽하게 해명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의 모든 구성내용들을 새롭게 발전풍부화하시는것이 있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관한 탐구는 오랜 력사를 가진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출현이전의 대부분의 견해들은 사람을 사회관계밖에서 보면서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생물학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석하고있었다.

맑스주의는 이러한 견해들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질이 사회적관계의 총체라는것을 밝혔다. 이것은 사람이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존재라는것을 처음으로 해명한것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사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사회력사적성격과 본질, 그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해명을 주심으로써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전일적인 과학적리해를 확립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원칙들을 새롭게 전개하시고 체계화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처럼 주체사상의 모든 리론적내용들을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전개하시고 체계화하심으로써 사람중심의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면모가 더욱 뚜렷이 되였고 주체사상의 내적정연성과 론리성, 과학성이 최상의 높이에 올라서게 되였다. (계속)



탁월한 사상리론과 방침을 구상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우리 학습실

혁명전통교양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주체는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강화발전됩니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재부입니다.》

문헌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혁명전통교양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혁명전통이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혁명적재부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할수 있기때문이다.

혁명전통은 혁명투쟁의 참다운 길이 열리던 시기에 마련되며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수령이 개척하고 령도하는 혁명투쟁과정에서 형성된 혁명전통을 계승하여야만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완성할수 있다. 때문에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서는 조선혁명의 재부인 빛나는 전통을 고수하여야 하는것이다. 조선혁명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킴으로써 그것을 발전풍부화한다는것이다.

문헌에는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 밝혀져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이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목숨바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세계의 목소리

고전적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학습하고

《이미 혁명실천에서 검증된 생활의 진리》

프리오 세자르 도라냐 가세레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이것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룬다는 명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또한 인류가 먼 미래에 실현할 목표도 아니다.

이는 이미 혁명실천에서 검증된 생활의 진리이며 현실적요구이다.

따라서 이 명제는 단지 학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아다싶이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철석같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주체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은 페허속에서도 오늘과 같은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조선에서의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은 참으로 리상적이며 새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각국의 당과 인민대중이 따라야 할 산모범이다.

니까라과 인민과 혁명가들은 생활을 통하여 이 진리의 정당성을 체득하였다.

니까라과인민이 오래동안 식민주의자와 가혹한 독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것도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으로 단결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니까라과인민은 탁월한 민족지도부의 지도하에 싼디노민족해방전선두리에 굳게 단결함으로써 강력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었으며 완강한 투쟁으로 독재를 타도하고 인민이 주인으로 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었다.

이렇듯 인민대중이 탁월한 지도자를 모시고 정확한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통일단결하지 않고서는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없다는 진리, 혁명과 건설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는 진리는 불멸이다.

(니까라과 마나과국립자치대학 부학장)



한장의 사진에서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의 어느날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만나시여 평양시에서의 남새공급사업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담당일군이 행정경제기관을 통하여 장악한 자료에 의하면 남새공급은 계획대로 되고있었다.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시내 상점들에 나가보았습니까라고 물으시자 일군은 중심구역상점들밖에 나가보지 못했다고 대답올리였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밑에서 올려보내는 수자나 종합하고 기껏해서 가까운 상점에나 나가보는것으로는 현실을 옳게 알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남새공급실태 하나를 놓고서도 우리 일군들이 인민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후 담당일군들은 곧 시내 여러 지구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대상주민구성과 실지 남새소요량을 타산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사업함으로써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포착하게 됐다. 사무실에 앉아서는 알수 없는 문제들이였다.

실태를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혁명을 합니까. 인민들을 더 잘먹이고 더 잘입히고 더 잘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있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이 서지 못한것이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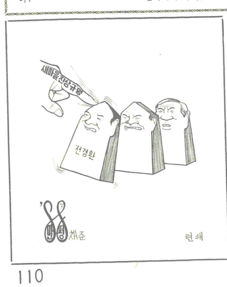
아무리 당정책이 정당하고 옳은 시책을 실시하여도 일군들의 관점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인민생활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다는것을 안 이상 지체없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빨리 더 합리적인 남새공급대책을 세워 집행하도록 지도하시였다.

20여년전의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도 언제나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을 느끼게 된다.



흥성거리는 과일남새상점



목소리

생명의 안전

사람의 목숨은 천금보다도 무겁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생명의 안전은 기본적인권속에서도 중심적내용을 이룬다. 헌데 그런 초보적인 요건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짓밟히는 현상이 지속됐으니 이것은 보통사태가 아니다. ▼남조선비행기사건을 기화로 한 모략책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무고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각지에서 련달아 난데없는 폭행을 당하였다. 치마저고리의 교복을 입은 녀학생들이며 초급부의 나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폭행이 가해진 사실에 격분을 누를길 없다. 더우기 도꾜 히노시에서 폭한이 우리 녀학생을 배후에서 바줄로 목을 죄여 죽이려고 했다가 전치 2주일의 상처를 입힌 사건(작년 12월 11일)에 이르러선 사태의 양상이 광란적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천진란만한 학생들이 배우는 우리 학교 교사와 총련사무소에 돌을 던지며 협박의 전화, 괴문서를 들이대는 그 소행을 어찌 상식의 차원에서 론할수 있겠는가 말이다. 어느날 분회의 모임에서 한 어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늘같은 형편을 보면 내 어릴 때 겪은 간또대진재시의 동포학살사건이 떠오른단 말이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끔찍한 모략사건을 조작하여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박해로 번져가게 하는 내외반동들의 검은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5년전에 있은 랑군사건때 그자들의 흑심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흉한이 총련중앙회관에 대해 백주에 권총을 란사하는 사건까지 일으키기도 했다.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소행은 《조선인은 복종하든지 이 칼을 받으라》고 고함치던 일제망령의 소행의 재판이다. ▼일본당국자는 이런 사건들을 두고 《인권문제다》(일본 다께시다수상), 《단호히 단속하겠다》(오부찌관방장관)고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것 같지 않다. 문제는 일본지배층이 한사코 공화국적대시정책과 재일조선인을 그 무슨 《적성(敵性)외국인》으로서 탄압하는 정책에 매여달리고 있는데 근원이 있다 하겠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초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금강국수나무분포지 새로 발견

최근 우리 나라 강원도 창도군에서 금강국수나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여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조밥나무과에 속하는 잎이 지는 떨기나무인 금강국수나무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1종 1속의 식물로서 1917년에 금강산일대에서 발견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는 우리 나라 특산식물이다.

현지확인에 의하면 새로 발견된 금강국수나무는 추전천기슭 산절벽 700여평방메터와 그 아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5,000평방메터의 면적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포되여있다.

이 지역의 지질구성은 주로 점판암으로 되여있다.

금강국수나무의 새로운 분포지의 발견은 우리 나라 식물의 풍부성을 말해주며 교육과 학술상으로 의의가 크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투고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올해에 더 많은 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자

정 재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국은 무엇보다도 귀중합니다. 조국을 떠나서는 기쁨도 행복도 미래도 있을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자기의 조국을 잃었기때문에 설음많은 생활을 겪어왔으며 또 자기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를 가슴에 아로새길 때마다 저는 진정한 자기 조국이 있어 세상에 다시 태여나 새 생명을 받아안고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애국의 길에서 참다운 삶을 빛내일수 있으며 조국이 없이는 삶도 행복도 미래도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워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존엄과 긍지를 안고 떳떳이 살아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조국을 잃으면 우리 행복, 기쁨도 잃는다

우리는 사회주의조국이 우리 인민의 진정한 조국이며 사회주의조국을 떠나서는 우리 민족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국을 잃으면 하늘도 땅도 산천도 재산도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78년전인 1910년.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조국을 되찾고 지키기 위하여 싸운 수많은 애국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력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까지 60여성상 인간이 겪어온 모든 고생과 슬픔, 피로움을 다 체험하시고 위험한 사선을 수없이 넘어오시면서 오로지 조국을 되찾고 조국땅우에 부강발전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항일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직 조국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자기 집과 부모처자를 떠나 혹한과 눈보라를 헤치고 비바람에 행건을 적시며 남들이 가정단란을 즐길 때도 풍찬로숙하면서 15성상 산에서 피흘려 싸웠습니다.

뿐만아니라 미제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촌토를 지켜 목숨걸고 싸운 수많은 영웅전사들의 뜨거운 애국열정과 위훈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수 없습니다.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고 원쑤들이 《조선은 백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할것이다.》라고 떠벌였을 때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불사조마냥 분연히 일어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싸웠습니다.

저는 일제시기 일본에 건너온 사람인데 조국이 엄혹한 전쟁의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 피 한방울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할 때 자기 할 일도 못한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국에서 고생하는 저의 혈육과 친척들을 포함한 재일동포들을 10만명이나 사회주의조국에 귀국하도록 해주셨을뿐아니라 모든 재일조선동포들이 자유로이 조국을 방문할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였습니다.

혁명렬사릉 앞에서 다진 결의

이와 같은 은혜로운 보살피심속에서 저는 1979년 8월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보내주신 《만경봉》호를 타고 오매에도 그리던 사회주의조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른아침에 안개를 가르며 바다물을 헤치고 《만경봉》호가 원산앞바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간판에 올라 조국산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감개무량하여 닦아도 닦아도 눈물이 줄곧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양에 올라가서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치되여있는 항일투사들의 흉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면서 속다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땅에서 자기 목숨을 이어가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앞으론 선생님들이 피로써 찾아주신 조국을 위하여, 선생님들이 그렇게도 념원하던 조국의 자주통일과 이 땅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꾸리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총련사업을 더 잘함으로써 선생님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고생을 래일 행복으로 여기고

사실 35년만에 보는 조국강산이였습니다. 이국땅에서의 망국노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향땅에서 소작할 땅이 없어 고향을 등지고 일본으로 건너왔으며 뒤이어 어머니와 삼형제가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부모들은 잘 살아보자고 마소처럼 일을 했으나 우리 생활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고 이국생활을 원망하면서 어린 6남매를 남기고 별세하였습니다.

맏아들인 저는 생활을 위하여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다 했습니다.

야하다제철소에서 철광석운반, 지꾸호탄광의 석탄운반, 지하막장에서 토목공사, 두메산골에서 제방공사, 깊은 산속에서 고압선철탑공사, 무역선 짐운반, 철길배설공사, 수도배관공사, 철공, 대목일 등 육체적로동이란 일은 모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생활은 점점 곤난해졌고 나중에는 일가자살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우리 형제들이 총련조직을 알고 조국을 알게 됨으로써 오늘의 고생을 래일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수 있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우리들은 먼 앞날은 고사하고 하루하루의 목숨조차도 부지하기 어려운 암담한 처지에서 헤매였습니다.

생활의 기쁨이 무엇이고 락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며 영명한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이시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된 그날부터 비로소 밝은 래일을 내다보고 생활을 꽃피워나가게 되였습니다.

해외공민의 응당한 도리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것이 사람의 도리인것처럼 해외에서 사는 공민이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이바지하는것은 응당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올해에 더 많은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삼지연》호를 고베와 오사까, 시모노세끼, 고꾸라, 요꼬하마항에 각각 보내주고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재일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행복도 미래도 조국과 직결시켜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각을 더욱 가슴뜨겁게 안고나갈것을 바랍니다.

저는 올해가 총련사업에서 중요한 해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사업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는 구호밑에 애국사업을 어느때보다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반드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도꾜도 하찌오지시 거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필자임

새학년도 나머지 4일

모략소동에 대한 분격이 결심을 다지게 하였다

이럴 때일수록 조선사람답게

맏아들을 우리 학교에 편입시키는 오소록동포(총련 이바라기현본부관하)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때를 같이한 반동세력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은 우리 조선학생들에 대한 악질적인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엄중한 사태를 빚어내였다.

각지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협박행위는 재일동포들 특히는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분노의 마음을 치솟게 하였다.

이렇게 내외반동들이 이번 사건을 최대한 리용하여 민족교육을 없애려고 갖은 만행을 감행하고있는 속에서 이바라기현 미도시에 사는 오소록동포의 가족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재일동포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조선사람답게 살아나가야 한다고 일본학교에 다니던 자기 맏아들을 우리 학교에 편입시킬 굳은 결의를 다졌다.

오는 4월부터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중급부 1학년에 편입하게 되는 오소록동포의 아들 오혜주학생은 《안녕하십니까》하고 똑똑한 우리 말로 기자를 맞아주었다.

그는 우리 학교에 편입하기에 앞서 우리 말을 배우자고 주에 2번 근처에 사는 우리 학교 학생한테서 우리 말을 배우고있다고 한다.

동양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오소록동포는 아이들도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장차 사회주의조국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일념으로 일본학교에 보내였다고 한다.

《우리 집에서는 일상시 될수록 우리 말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민족의식이라는것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키울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지요.》라고 말하는 오소록동포.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말문제는 물론 조국을 알고 조선사람으로서의 긍지를 키워주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되였다.

그러할 때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이 일어나 그를 악용한 일본보도기관들의 편향보도에 접하여 온 가족은 분노에 차넘치였다.

더군다나 거주지인 이바라기현에서 치마저고리를 입은 녀학생에 대한 협박행위 등이 감행된 사실은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였다.

오소록동포는 본부적으로 진행된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규탄모임에서 좀 당돌한 감은 없지않았으나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으며 일본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우리 학교에 보낼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는 《우리 조선학생들에 대한 여러 폭행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속에서 우리 혜주는 관계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싸워야 진짜 조선애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포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놈들이 꺼려하는 일, 즉 우리 총련조직의 강화,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하지요.》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아버지옆에서 이야기를 귀담아듣고있던 혜주학생은 《우리 학교에 가면 우리 말과 글을 배울수 있고 우리 동무들과 만날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고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되는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번 기회에 다른 공부가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 말과 조국에 대하여 더 잘 배워 민족의 넋을 키워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혜주학생은 머리를 끄덕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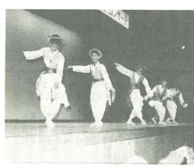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잘하라고 편입기념품으로 일조사전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였다.

혜주학생의 우리 학교 편입은 민족교육을 지키며 아들딸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우자는 우리 동포들의 뜨거운 마음, 결심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금혜실)



새학년도부터 아들을 우리 학교에 편입시키게 된 오소록동포(가운데)와 그의 아들



《제11회 교또학생회 모두를 위한 콘사트》의 한장면

모두를 위한 콘사트

교또학생회에서

교또의 일고재학조선학생들로 조직되여있는 교또학생회에서는 회원들이 출연하는 《제11회 교또학생회 모두를 위한 콘사트》를 21일, 교또시내의 혼간지회관에서 진행하였다.

《조국을, 민족을!》이란 제마로 진행된 공연은 일본학교에 다니면서도 조국을 그리워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조선사람된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이 생활해나가겠다는 학생회회원들의 소박한 심정으로 일관되여있어 관람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공연 1부에서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바쳐 과감히 투쟁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모습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뉘우치고 본명선언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창작극 《〈쥰꼬〉 그리고 순자에게》가 상연되였으며 2부에서는 합창, 혼성2중창, 무용, 남성중창, 가야금병창, 학생회활동을 엮은 수기의 랑독, 농악무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피로되였다.

교또학생회 량설회장은 련습과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채 학생회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포부를 힘있게 말하였다.

《11번째로 된 오늘의 이 공연을 계기로 학생회를 모두의 마음이 통하는 다정한 조직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조선학생들에게 민족의식, 조선사람된 긍지를 심어주겠습니다.》

평화통일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

〈2〉

전민족이 참여하는 적중한 협상방식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는 첨예하게 제기되고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도가 명시되여있다.

원래 조국통일문제는 온 겨레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전민족의 참여하에서만 이룩될수 있는 거족적인 위업이다.

민족분렬로 인하여 직접 고통받고있는것도 북과 남의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에 대하여 제일 안타깝게 고대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인민들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북과 남의 각 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수 있는 폭넓은 협상마당이 마련되여야 한다.

현시기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면한 문제들로 말하면 그 어느것이나 다 민족의 리익과 관련되고 전민족의 의사에 맞게 해결하여야 할 민족의 중대사이다.

이와 같이 첨예하고 중대한 문제들이 좁은 울타리안에서 몇몇 사람들만으로써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은 지난 시기의 대화가 남긴 력사적총화이며 귀중한 교훈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교훈일뿐아니라 오늘 절대다수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요구이기도 하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여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히 울려나오고있으며 통일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력대당국자는 통일문제를 독점물로 삼아 광범한 인민들의 통일론의 참여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대하여 《좌경, 용공 분자》로 락인찍어 무참히 탄압하였다. 또한 력대 당국자는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맹종하여 남북대결과 민족분렬 책동에 광분해왔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광범한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참가하는 거족적인 협상방식으로 진행되여야 하는것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쌍방의 당국자를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하여 천명하신것은 통일문제의 원래의 성격에 맞게 온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당면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조국통일의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협상방식을 명시한 애국적발기이다.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새로운 전환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시기적절한 구국대책이다.

올해 1988년으로 말하면 남조선내부형편으로 보나 전반적인 조선반도정세로 보나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복잡한 해로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광범한 민주세력과 군부독재를 연장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로태우파쑈체제사이에 심각한 대결이 벌어지고있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 첨예화되여가고있다.

이 대결의 결과로 남조선내부에 심각한 정치적위기가 조성될 때 남조선의 호전광들은 리성을 잃고 그 어떤 모험적인 방법에서 출로를 찾으려 할수 있다. 더우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여있는 조선반도에서 이른바 《올림픽의 안전한 보장》을 구실로 미국이 오는 9월말까지 남조선의 해역과 하늘에 방대한 무력을 추가적으로 들이밀겠다고 하면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을 하는 조건에서 그것이 군사적충돌을 빚어내지 않으리라고 담보할수 없는 상황에 있다.

참으로 올해는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북과 남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가, 아니면 계속 민족적 반목과 대결을 촉구하면서 전쟁의 길을 걷는가 하는것을 판가름하는 분수령과 같은 해라고 말할수 있다.

북남련석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된다면 첨예한 대결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정세는 새로운 해방기를 맞이하게 될것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평화통일의 앞길에는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계속)

어서어서 자라라



오 충 효
(남—2살 3개월)
1985년
12월 26일생
아버지 오인식(31살), 어머니 강영숙(27살)
총련 후꾸오까현 야하다지부 오리오분회관하

아버지를 닮아서 활발하고 령리하게 생겼고 어머니를 닮아서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래년부터는 우리 유치원에 보내여 똑똑한 애로 키울 결심이랍니다.

(외할머니)

동포자랑 예술소조

10년세월에 쌓여진 긍지와 포부

녀성동맹 효고현 아마가사끼서지부 노래소조

지역에서 이름난 명창소조

녀성동맹 아마가사끼서지부 노래소조는 깅끼에서 이름난 명창소조이다. 지난해 9월 오사까조선회관에서 진행된 공화국창건 39돐기념 깅끼지방예술경연대회의 중창부문에서 금상을 탔기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5중창으로 《인민의 락원에 우리 기쁨 넘치네》를 불렀다. 일반예술소조는 기껏해야 2부로 나누어 노래를 부르는데 소조원들은 5부로 나누어 노래를 불렀다. 높은 기량이 요구된 곡목이였으나 훌륭히 불러내여 명창소조의 이름을 떨쳤다.

《어려운 노래였지만 앞으로 소조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를 닦자는 심정으로 열심히 달라붙었습니다.》

소조의 강사를 맡는 김혜순녀성의 말이다.

현재 소조원들은 12명. 이전 가무단원, 이전 음악교원 등 소조의 질적수준을 보장하는 조건도 비교적 보장되여있는셈이다.

서숙미책임자는 《명창의 비결이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노래를 사랑하고 강사의 지적을 잘 들으면서 발성련습에 많은 시간을 돌린데 있는것이 아닐가요.》고 말한다. 무턱대고 노래를 부르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는가를 늘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것이다.

노래도 마음도 하나와 같이

소조의 력사는 꽤 오래다. 10여년전에는 소조가 운영되여있었다고 한다. 물론 소조원들의 얼굴은 달라졌지만 책임자를 비롯해서 3명이 10년, 1명이 8년동안 소조를 계속해왔다.

부책임자인 최문자녀성역시 10년동안 소조를 계속해왔는바 《우리 소조가 물론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에 있지만 10년 이상의 경험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소조원들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것은 아마가사끼란 지역의 특성이다. 오래전부터 동포들이 많이 살았고 《4.24한신교육투쟁》을 비롯하여 언제나 애국운동의 앞장에서 싸워온 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이 소조운영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고있다는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시집을 와도 그런 동포들의 끈질기고 팔팔한 성격에 이내 감화된다고 그들은 일치하게 말한다.



노래를 생활의 일부로 간주하는 그들은 지역에서 이름난 명창소조로 동포들의 사랑을 받는다

또한 소조원들은 모두 우리 학교 학부형, 따라서 련습이 끝나면 자녀교양문제나 녀성동맹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런 과정에 소조원들의 정이 오가고 정이 오가는 속에서 노래소리도 하나로 뭉쳐진다.

그러나 12명의 소조원이 모이면 12세대의 가정사정이 소조사업에 투영되기마련이다.

신춘희녀성은 경연대회를 앞두고 갓난애가 큰 수술을 하게 되였다. 모든 소조원들이 수술의 성공을 바라며 종이학(千羽鶴)을 만들어 병원을 찾아갔다. 다행히도 수술의 경과가 좋아 신녀성은 경연대회에 달려왔다고 한다. 친혈육과 같은 소조원들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자는 일념에서였다.

지부의 작은 가무단으로

현재 소조는 질량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허황한 전망이나 목표가 아니라 10여년동안의 실적에 토대한 구체적인 포부이다.

《전문가를 지향한 소조로》, 《대상을 더욱 넓혀 각계층 동포들을 망라하자》, 《50대가 되여도 계속할수 있는 소조로》등등 그들의 가슴속에는 나날이 소조운영의 갖가지 꿈이 펼쳐진다.

신춘희부책임자의 의견도 소조의 전망을 시사하는 의견인바 그 자리에서 소조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지부의 작은 가무단으로서의 역할을 놀았으면 해요. 분회들에서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때면 부름을 받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 그 자리를 더욱 빛내였으면 해요. 그게 선전원의 역할을 노는것으로 되고 제일 리상적인것이 아닐가요.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마당을 통해 각성되여나가는것이 아닐가요.》

오는 10월 도꾜에서 진행되는 중앙예술경연대회에 이야기가 미치자 오래만에 진행되는 중앙대회를 지향하여 련습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의욕도 대단하다.

《4.24교육투쟁》 40돐을 기념하여 학교에서 진행되는 바자의 준비도 있어 당분간은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들이지만 깅끼의 범위를 벗어나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기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싶어하는 표정들이였다.

나이도 거의 비슷하여 같은 시기에 아이도 배고 지부란 큰 가정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온 그들이라 중앙예술경연대회의 높은 무대에서는 고운 노래소리와 더불어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감명깊이 보여줄것이다.

투고시

추억의 사진첩

문 영 애

기쁠 때면 그러안아 웃음 나누고
힘들 때면 말없이 어깨 떠밀어준
배움의 요람에서 맺어진 우정
내 마음 조금이나마 나약해질 때
그 사랑 그리워 번져가는 사진첩
한페지 한페지

주마등처럼 갈마드는 기억
하나하나 더듬어
마음속에 그려보는 추억의 나날

진달래꽃 만발한 잔디밭에서
진달래보다 고운 꽃이라 자칭하며 뛰놀던 모습
사진첩에 불현듯 나타난
애티어린 얼굴이 수줍어
저도 모르게 은근히 웃음 짓습니다

총총한 별들 친구삼아 배우고 배우던 나날
어둠속을 자맥질하여 헤매이던 때도 있었건만
따뜻하면서도 엄하게 타일러주던 동무의 말에
마음은 절로 흐뭇해졌던 그때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 뜨거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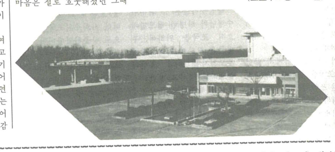
영광으로 가득찬
조국해방 40돐경축대회야회에서
100만의 홰불 한데 모아
받아안은 사랑에 기어이 보답하리라—
뜨겁게 불탄 충성의 그 마음과 마음

《목련꽃 필 때》 눈물속에 부르며
서로 어깨 껴안아
어디서나 참되게 살리라
굳게굳게 결의다진 졸업의 그날

고락을 함께 나눈 우리이기에
참된 기쁨, 참된 인생 함께 찾은 우리이기에
지금도 그리움 더해만 가고
온갖 시련 닥쳐올 때면
《서로 잘하자》 속삭여주는 그 얼굴들

천가지 만가지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동무들과 다지고다진 뜨거운 그 결의
그날의 그 맹세 되새기며
마지막페지 번집니다

(도호꾸초중고 교원)



민족의 력사와 대중가요 ④

《인도의 달밤》이 《신라의 달밤》으로

잊을수 없는 가요들에 대한 범죄적위조행위

조 령 출

1950년 6월에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고 서울이 해방되자 나는 곧 그곳에 나갔다. 준엄한 전쟁시기였으나 헤여졌던 친척과 친지들을 다시 만난다는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망국비운의 시기에 가요창작의 길에서 고락을 같이하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 회포를 나눌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잊지 못할 상봉의 하나는 작곡가 박시춘(朴是春)과의 상봉이였다. 우리는 서로 손을 마주잡고 감개무량하여 눈시울을 적시면서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는 내가 북으로 들어온 이후 일제통치시기 내가 쓴 가사의 노래들은 금지되여 부르지 못했다고 하였다.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일제통치시기 그래도 우리 민족의 스러져가는 정서를 살려 담은 노래들이였고 8.15후 별로 문제됨이 없이 부르던 노래들이였는데 내가 북으로 들어온 이후 그런 환난을 입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박시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는 가요 《신라의 달밤》에 대한것도 나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내가 썼던 《인도의 달밤》이 《신라의 달밤》으로 되여버렸다는것이였다.

나는 다시 놀랐다. 《인도의 달밤》은 일제통치말엽, 식민지통치자들이 우리 겨레가 면면히 지녀온 민족의 넋, 민족의 정서마저도 말살하려고 조선말연극, 조선말노래마저 만들지 못하도록 악독한 폭압만행을 벌리던 시기에 쓴것이였다. 식민지노예처지의 슬픈 심정, 나라도 고향도 빼앗기고 정처없이 헤매는 방랑자의 서글픈 심정을, 당시 영국의 식민지노예로 신음하던 인도인민의 심정을 노래하는 방법으로 표현한것이 가요 《인도의 달밤》이였다.

아 인도의 달이여
마드라스교회의 종소리 울리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걸음을 멈추어라
달빛어린 수평선 흘러가는 파도에
마음을 실어보자 방랑의 이 설음

당시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도인민의 비통한 생활감정은 우리 민족과 공통한것이였다. 그들의 비가(悲歌)는 곧 우리의 비가였다.

나라없는 식민지방랑자의 설음! 이것이 이 노래의 주제인것이다.

망국의 방랑자는 잃어버린 나라와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어 달을 보는것이요 마드라스항구교회의 종소리를 듣는것이다. 시에서 그 종소리는 단순한 교회의 종소리가 아니라 그리운것의 총체인 그 무엇이 방랑자의 가슴에 음향으로 울려오는것이였다. 달빛어린 수평선과 흘러가는 파도는 일제통치시기 망국의 설음을 안고 부산항을 떠나 이국으로 방랑하던 그때 현해탄에서 보던 그 달빛, 그 수평선, 그 파도와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주제정서의 노래가 어떻게 《신라의 달밤》으로 될수 있겠는가.

아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리여 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걸음을 멈추어라
고요한 달빛 어린 금속 산기슭에서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노래를

고쳐진 이 가사를 보면 그 형식에서는 인도가 《신라》로 되고 교회의 종소리가 《불국사의 종소리》로 되고 달빛어린 수평선이 《달빛어린 금속산기슭》으로 바뀌여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조선괴뢰들은 망국인 방랑자의 설음을 통탄한 이 노래를 신라회고(新羅懷古)의 밤노래로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버린것이다.

신라도 물론 세나라시기 우리 겨레가 살던 나라의 하나였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나 국력이 제일 강하고 애국심도 가장 높았던 고구려에 대해 말하는것은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의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신라만을 그처럼 내세우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있다. 그들은 이때부터 벌써 하나의 가요까지도 저들의 외세의존정책과 사대매국행위, 북침전쟁소동과 영구분렬책동을 합리화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북과의 동족의식과 통일열망을 말살하는데 악용하고있었던것이다.

원작에 대한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태도를 무엇이라 해야 할것인가. 량심을 가진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분개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량심의 문화도 무참히 짓밟히는 외세지배하의 남조선풍토와 북으로 들어간 작가의것이라 하여 금곡령을 내리고 위조행위를 일삼는 장본인들에 대하여…

그때 나는 다시는 《인도의 달밤》같은 망국인의 노래는 쓰지 않으리라는 의지의 불길을 안고 락동강 화선천리에까지 나갔던것이다.

(계속)

광장

우리 나라에서 제작된 가장 오랜 칠기로 추정되는 유물 출토

남조선신문들이 전하는데 의하면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에서 백제초기의것으로 보이는 칠기(漆器)들이 출토되였다 한다.

석촌동 5호분의 부장묘로 추정되는 대형광묘의 복판에서 출토된 칠기는 쟁반, 사발, 귀달린 잔 등 5점. 부식이 심해 원형복원은 어려우나 향나무를 재료로 주색칠을 올렸고 톱이문양 등 조선적인 무늬가 돋보여 조선반도제작 유물임을 알수 있다 한다.

발굴사업을 주로 맡은 서울대학박물관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유물들은 백제초기의것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제작된 칠기중 가장 오랜것임이 판명되였다 한다.

행사안내

홍성익전 《기원》

때; 4월 11일(월)~16일(토)
오전 11시~오후 7시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곳; 오사까 그랜드갤라리
(大阪駅前 第3빌 2층)
☎06(346)0332

※홍성익은 조선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한후 우리학교 미술강사를 하면서 창작활동을 왕성히 벌려왔다. 작년에 제82회태평양미술전에서 태평양미술회상을 수여받았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強まる管理の実態暴露

「外登法の抜本的改正に向けて」

東京でシンポ

指紋押なつ制度、登録証の常時携帯義務、過重な刑事罰則規定を温存したまま、さらに管理強化を図る規定を盛り込んだ「改正」外国人登録法が、来る六月一日から施行される。こうした中で、かねてより外登法の抜本的改正を求める運動を繰り広げて来た、日朝友好連帯国民会議は二十四日、東京でシンポジウム「外国人登録法の抜本的改正に向けて—新法下での新たな闘いを!」を開いた。同シンポには同胞や多くの日本の市民、学生、労組員らが参加。新外登法のかかえる問題点、抜本的改正を求めるための取り組みについて、活発に意見を交換した。

同シンポには、日本社会党の小川国彦国民運動委員会委員長、公明党の中村巌法務部会長の両衆議院議員も招かれ、それぞれ昨年の第一〇九日本国会で成立した「改正」外登法について強く批判した。一方、同時に採択された抜本的改正のための付帯決議について一応の評価を下しながら、付帯決議の精神を尊重し、これからも国会内で外登法の抜本的改正のために努力していく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そして、パネラーとして弁護士の新美隆氏が「政省令の問題点と最近の裁判の動き」について、自治労中央・政治局次長の青笹英雄氏が「管理強化される外登法事務」について、朝鮮時報・副編集長の殷宗基氏が「強まる在日外国人管理」について報告。

まず新美氏は、外登法違反に関する訴訟に携わる立場から、司法の行政追従・反動化傾向と、新法施行に向けて整備される政省令の問題点について語った。

次に青笹氏は、実際に外国人登録事務に携わる自治体労働者の立場から、地方入管局への登録事務の移管問題などと、法務省の自治体業務への介入強化について語った。

そして新外登法によって強化される在日外国人管理について述べた殷氏は、中曽根前首相が訪「韓」時にKAL機事件に関連し、総聯の存在を結びつけ、「指紋の採取は必要」と発言したことについて言及、これは日本政府が主張してきたように、外登法が外国人の居住関係、身分関係を明らかにするのに主たる目的があるのではなく、治安目的に利用するための法であるということを露呈したものだと指摘した。

報告の後には、質疑応答、意見交換や団体、地域からの報告などが行われた。

今回のシンポでは、六月の新法施行を前に、さまざまな問題点が浮き彫りにされた。

政令および省令や政府の自治体への指導によって、本来地方自治体に任せられるべき事務さえも、地方入管局に強制的に移管されようとしていることが、自治体労働者によって指摘された。

具体的には外登証のラミネートカード化が、本来自治体が行ってきた外登証の発行を入管局=法務省の手にゆだねられようとしている。

さらに、外国人登録情報が一括してコンピューター管理されることによって、従来もたびたび発生した、公安・警察当局による犯罪捜査目的の不当な情報入手が、より簡単に、より多量に行われる危険性が生じた。

昨秋の新法成立によって、あたかも外登法の改正問題が解決されたかのような雰囲気が作られている。

しかし、その実態は実質的に改悪された新法の規定以上に、外国人管理強化の動きが見られる。これは付帯決議の精神を全く無視したものである。

こうした実態を踏まえて、国民会議事務局長の加藤儀夫氏は、シンポの結びとして「国会での付帯決議を足掛かりに、運動を活性化していきたい」と語った。

そしてラミネートカード調整機の自治体設置、自治体に外登法違反者告発の留保などを呼びかけるとともに、引き続き外登法の抜本的改正を求め、政党、労組、宗教団体、市民団体、そして総聯などとともに闘っていくことを提起した。



シンポでは6月の新法施行をひかえ、より広範囲な運動の展開が提起された

シンポ報告要旨

政省令の問題点と裁判の動き

新美 隆(弁護士)

最近の裁判闘争を振り返ってみると、その内容に問題点はかなりあります。とくにさる十六日、名古屋高裁で行われた韓基徳さん([illegible])に対する裁判で、押なつ制度そのものの違憲論を展開し、「無実」を期待したのですが、この日の判決は憲法違反とする主張をことごとく否定しました。

それればかりではなく指紋は国際人権規約に抵触せず、二回目以降についても「必要な手段」と言い切るなど、従来よりむしろ積極的に押なつを評価し、その本質は依然変わりがないことを明白にしました。

管理強化される外登法事務

青笹英雄(自治労中央本部・政治局次長)

今回の外登法の「改正」は法務省・入管局による自治体、在日外国人への支配、介入の強化であります。登録証のラミネートカード調整機の入管局の配置は在日外国人の管理強化を図るものであり、また指紋「再押なつ」などに関連する法務省の地方自治体への関与、横やり、いやがらせは日増しに強化されていきます。これから自治体はより在日外国人のプライバシー保護の観点に立ち、自治体の自主性を高めて闘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強まる在日外国人管理

殷宗基(朝鮮時報・副編集長)

当局は同法改正に伴い、外国人登録がより簡易化されたと言っています。だがその内容は一つも変わりがないばかりか、管理・統制は一層強化されています。それは、外国人登録証事務の一部を「当分の間」法務省入管局が直接行うことや、登録証のラミネート化により常時携帯義務が強化されることに現れています。また指紋押なつ制度はそのまま残り、過酷な刑事罰も温存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も明らかだと思います。

(文責・本紙編集部)

朝信だより

全店で「一日支店長」

朝銀大阪信用組合

朝銀大阪信用組合では二十五~二十九日にかけて、本店と支店を合わせた全店舗で「一日支店長」事業を実施している。

この企画は、同朝銀事業を組合員自身が中心となって推し進め、大衆的な運動に発展させ、組合員間のきずなを一層強いものにするために催された。

また同朝銀の目標預金額二千二百六十億円達成に向けて、全店挙げて取り組んでいる。

今事業の特徴は、本店と全支店(十五店舗)が同時に推進するところにあり、「一日支店長」となる人たちも、各地商工会役員、各支店理事・総代、後援会代表、青年商工人協議会役員、学校教育会会長など、全機関的運動として展開されている。

さる二十五日に本店と北摂支店ですでに実施され、二十八日は鶴橋、東大阪、東成、生野東、寝屋川、泉州、堺、城北の各支店、二十九日には西成、新大阪、八尾、東住吉、西淀川の各支店で実施される。

同朝銀では、来る九月に新しく生野南支店を設ける予定で、三月決算を成果裏に終え、新たなステップを踏み出そうとしている。

健康貯蓄プラン「コンガン」実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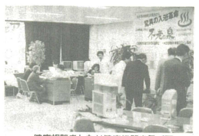
朝銀東京・池袋支店

朝銀東京・池袋支店では三月決算を目前に控えて、さる十六~十八日まで「健康貯蓄プラン"コンガン(健康)"」を同支店で実施した。後援は(財)体力つくり指導協会・三恵クリニック、同支店後援会「池袋朝信会」。

このプランは昨今の健康ブームに合わせて、「コンガン」預金者に体力診断、成人病相談、健康機器無料体験などのコーナーを設けて、健康づくり推進のサービスを提供するものである。

また「コンガン」会員には、人間ドック検診、成人病検診を割引料金で受けられるという特典がある。(検診は「三恵クリニック」で受診)

期間中、会場には若者からお年寄りまで、多くの同胞たちが診断を受け、普段から気をつけている健康づくりに高い関心を示していた。



健康相談をしたり健康機器を見て回る来訪者(池袋支店4階ホール)

開設5周年記念感謝デーを開催

朝銀兵庫・宝塚支店

朝銀兵庫・宝塚支店は昨年十二月に開設五周年を迎えた。

これを記念して同支店では、二月一日から三月三十一日まで「五周年記念運動」で新規契約口座増加運動を展開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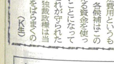
今月二十四日には「同胞とともに五年、もっとお役に立ちたい—開設五周年記念朝銀感謝デー」を催した。

これは、日ごろ同支店を利用している同胞組合員の愛顧にこたえるためと、来年、総預金高百億円達成を目指す基盤を整えるため、また同支店後援会「モクラン会」結成十周年を祝うとともに、朝銀事業を同胞たちの間に浸透させるために行われた。

当日は、店内に軽食コーナー、地酒コーナー、オリジナルパッジ制作コーナーなどが設けられ、また宝塚朝鮮初級学校の児童による「学生児童書画展」と文芸同提供による美術展が開かれ、同支店を訪れた同胞たちは、この日一日楽しく過ごした。

同支店では来年の総預金高達成に向けて、一口でも多くの顧客を得るべく、朝銀事業に拍車をかけている。

現在、同支店では今年の事業成果に基づき、三月末まで総預金額を百十三億円、総口座数を千九百口に拡大し、三月決算を大きな実りをもって迎えるべく、全職員が一丸となって事業に取り組んでいる。



経済ニュース

共和国 二百日戦闘で各企業所奮起

共和国では、二百日戦闘に力を入れている各地の工場、企業所が生産能力の拡張工事を進めている。

金策製鉄連合企業所第二段階拡張工事は、二十余の建設対象に対する設備組み立てが最終段階に入っている。ここでは転炉および熱間圧延職場、加熱炉場、酸素分離機一基の組み立てを終えた。

現在、企業所の石灰焼成炉と連続式造塊機の設備組み立ては、従来に比べ二倍の速度で行われている。

茂山鉱山連合企業所では、当面は一千万トン能力の鉄鋼生産基地づくりに主力を置くという。また、今月中に三鉱区地下採掘場、一段階三鉱区破砕場建設を完工に向けて急ピッチで進めている。

勝利自動車総合工場では、機関総合職場とパイプ組み立て総合職場、鋳物職場など、十カ所建設対象の工事を終了、数百トンにのぼる設備を建設した。

熙川工作機械工場では、第一段階のフライス盤加工総合職場建設が最終段階にさしかかり、すでに一千余トンの鋳物構造物を製作、三百余トンの構造物を組み立てた。

これらの建設は昨年十二月の一日平均実績に比べ、三・五倍の速度で推し進められている。

南朝鮮 米独占企業が暴利むさぼる

南朝鮮では、米国の独占企業がワシントンに影響力をもつ人物を使って「ロビー活動」を行い、南朝鮮独裁集団にわずかなドルを提供する見返りに、南朝鮮市場の利権を手に入れ、膨大な暴利をむさぼっている。

現在、南朝鮮市場を狙い「ロビー活動」を行っている企業は、米議会に正式登録したものだけでも二社あり、元国務長官や国務次官補などの大物が関与している。

その代表的なのが米大統領の元副補佐官で、この人物は南朝鮮たばこ市場の独占を図るフィリップ・モーリス社のために、レーガンから全斗煥宛書簡を持って密談工作をした。

他にも、米独占企業を代表するロビイストたちが独裁集団と謀議を重ね、わずかばかりのドルを提供する代わりに、大きな利権を得ている。

盧泰愚が「大統領」になれたのも、南朝鮮で植民地的高率利潤を狙うこれら米独占企業の裏面工作の結果といえる。

こうした米国巨大資本の上陸により、南朝鮮たばこ栽培農民や畜産農家が窮地に追い込まれ、経済の各部門で破局を迎えようとしている。



話題

ウリマルは民族の心

各地で青年学校開校

黒板を見つめ、講師の話に耳を傾け、口を大きく開いて発音をまねるトンムたち—今月に入って各地の朝青本部・支部で青年学校が開校された。

日本学校に通う朝鮮青年たちや社会に出て働くトンムたちが、夜には朝青支部に集まって、ウリマルや朝鮮の地理・歴史・文化を、この青年学校で学ぶ。

その中でも、昼間は働き夜は学習、忙しさのために時間がままならないトンムは少なくない。でも、サマースクールや朝青員との交流の中で培った民族心が、彼らを誘うのであろう。

講師を務めるトンムたちも、彼らに負けじと頑張っている。一人でも多くのトンムたちを青年学校に迎えるため、日夜同胞の家を訪ね歩いている。

今夜も聞こえてくるア、ヤ、オ、ヨ……。

(写真は朝青東京・葛飾支部)

振り子

「十当九落」でインフレ促進

いま南朝鮮でインフレが急速に進み、盧新「政権」の主要な不安材料となっている。昨年も年間抑制ライン一八%を守れなかった。

ところで、インフレ進行の主要因がおよそ経済とはかけ離れたところにあるというのも、南朝鮮らしい現象だ。

つまり、いまのインフレは主に、金権不正の「大統領」選挙がもたらした結果だというのだ。

それは昨年十二月中、二週間の通貨発行高が前年同期の二倍以上の四千五百億ウォン。貯蓄性預金を除いた通貨(現金プラス要求払い預金)も十二月中に二九・五%急増し、現金が大量に出回ったことからもわかる。

ところで選挙で流れた資金のほとんどは消費性資金なので、物価を強く刺激する。今年一月の消費者物価の上昇率をみても前年同期の〇・一%に比べ、〇・六%と上昇をみせている。

南朝鮮当局は今年に入って、三月十五日までに七千億ウォンの通貨調整用債券を発行し、通貨の回収に努めたが、旧正月もあって通貨の回収はもくろみ通りにはいかず、総通貨増加率は一九%台を上下し年間抑制ラインの一八%をすでに上回っている。

こうしたなかで、六四月二十日には第三代「十国会」議員選挙が予定されている。すでに「十当九落」、つまり十億ウォン使えば当選し、九億ウォンでは落選するという言葉まで出回っている。八一年には「五当三落」といわれ、八五年には「六当五落」といわれた。この七年間で二倍以上も相場が上がったわけだ。

むろん法定費用というものがあって、各候補はこの限度額を超える資金を使ってはなら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だがこれが守られたことはない。独裁政権は当然のように金をばらまくのである。

(K生)

明日を目指す合弁会社

清川江合弁会社

共和国の名産のひとつにミョンジュシル（絹糸）がある。鮮かな光沢をもつ絹糸は国内で広く生産され、衣服や各種織物として人民に愛されている。ヌエ（蚕）を育て、ヌエコチ（繭－まゆ）を作り、それを原料にして絹糸を生産する。その繭の原産地として最も有名な地域が慈江道である。慈江道の豊富な繭原料を生かして、高度な製糸技術と最新設備を導入することにより共和国ミョンジュのシェアを拡大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昨年八月に創設されたのが「清川江合弁会社」である。現在、契約に基づいて大規模の製糸工場を建設中で、年内に試作品が作られる予定だという。天然素材が見直されシルクに対する需要も伸びているという市場面での魅力はもとより、共和国の技術向上に寄与しうるプロジェクトであるという信念を持って準備作業に取り組んでいる「清川江合弁会社」社長・文弘宣氏に話を聞いた。（一）


製糸工場の蚕の飼料となる桑の畑（慈江道）

慈江道シルクの魅力を手繰って

無尽蔵なヌエコチ（繭）の原産地
製糸技術と設備導入でシェア拡大を

天然素材に可能性求め

「一九八六年七月に祖国を訪問した際に話があったんですよ。ヌエコチを使った合弁をしてみないか、とね。帰ってからいろいろ研究してみたんですが、なかなか面白い事業だな、と思いました」

兵庫県で貿易事業を手がけてきた文弘宣氏（三栄産業株式会社専務取締役）にとって「シルク」というのは全くの未経験分野であった。

一昨年に「打診」があってから氏は、シルクの市場関係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共和国の繭原料の量と質はどうか、今後の市場情勢はどうか、といった問題に取り組んだ。共和国から繭を持ってきて、実際にどれだけの絹糸が取れるのかを実験し、共和国での一匹（蚕）当たりの平均値をデータ収集して日本のそれと比較もした。その結果として氏は、シルクの魅力と可能性を見いだしたのであった。

「ヘルシー指向」に伴う天然素材の見直しにより、化学繊維に比べ、天然繊維であるシルクの需要が伸びている点、共和国・慈江道の繭が質量とも優れている点などから、研究を重ねて地道にやれば必ず成功する、との結論に達したのである。なかでも、慈江道の繭原料が無尽蔵にある、という条件は永続的に事業展開する上で、何よりの魅力であった。

「繭の質をもっと高め良質の絹糸を作った場合、市場の需要があるから必ず売れると確信しました。つまり、海外市場において共和国－DPRKの名前が売れる、ということじゃないですか」

八六年七月に「打診」があったのに続いて、翌八七年二月に慈江道から正式に提案がなされた。

そして双方の間で合弁案の煮詰め作業が数ヵ月にわたって進められた。

資金問題から機械設備の問題、技術提案の問題まで様々な提案が行き交い、八月に契約調印に至ったのである。

会社名称を「チョンチョンガン（清川江）合弁会社」とし、社長に文弘宣氏が就任、慈江道側から理事長を選出した。契約の内容は、製糸に関する技術・販売の合弁を進めようというもの（慈江道側が資金を提供して、日本ではプラントや技術提供を担当するというもの）だった。

"実行するのみです"

文氏は、製糸関係の技術者を含めたプロジェクトチームを組み、最新機械やプラントの納入準備を進めた。一方、慈江道では製糸工場の建設に伴って図面の作成と、工事着工へと足並をそろえた。

そして昨年十二月には慈江道から代表らが来日し、建設工事の進行状況などを報告。工事の完成図案や現状などの説明を行ったのである。

「今年の中旬ごろには機械の納入を済ませて秋ごろから試験操業に入る予定です。計画はすでに年末まで確定しています。現地に派遣する技術者たちも決定済みで、後は実行するのみです」と、文氏。

計画どおりに進めば、年内に試作品が作られ、今後、年産五十トンの絹糸が生産・販売される。現在は、ヨーロッパや東南アジアなどを販路に想定しているが、進行に伴って日本市場に製品を出すことも検討中だという。

また、絹糸を主にしながら、その他副産物も生産する計画になっている。

「技術向上により、繭の生産量が平均二五％ぐらい増加する、と見込んでます。そのためにも、慈江道の工場でいかに繭を均一化するかというのが課題点だと考えています。あせらず、時間をかけてじっくりやっていくつもりです。『石の上にも三年』ということわざもありますしね。質向上にともなって、いろんな展開が可能に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文社長は最後に、トータルで見た合弁事業の展望について語ってくれた。

「原材料を生産する合弁会社と、資材をもって製品を作る合弁会社が、いかに提携してやっていくかが重要なポイントになると思うんです。例えばウチで作った絹糸を使ってモランボン被服工場が衣服を生産するといった具合に…。それぞれの得意分野を持っている合弁会社同士が提携することにより、生産コストや販路の問題もずいぶん幅が持て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メリットも大きいし、合弁事業の発展に拍車をかけ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



「清川江合弁会社」製糸工場の完成予想図。現在建設中で、年内に試作品が作られる予定

民族教育の発展と朝・日親善のために

兵庫・西播チャリティーゴルフ

さる十八日、兵庫・相生カントリークラブで「朝・日親善西播チャリティーゴルフ大会」（主催は同実行委員会）が行われ、西播地域同胞と日本の人々（百二人）合わせて二百二人が参加した。

今大会は、朝・日親善をより深いものにし、民族教育への関心を高めるために催されたもの。

同地域同胞たちの愛校運動は、十年前から行われている西播朝鮮初中級学校チャリティーゴルフやバザーなどを通して、広く地域に密着している。

当日の競技はダブルペリア方式で行われ、終始なごやかな雰囲気の中で進められた。

大会終了後、表彰式を兼ねた食事会がもたれた。

まず同実行委の委員長である姜昌熙氏があいさつに立ち、今ゴルフ大会の意義を述べながら、民族教育への深い理解を参加者に求め、今後もこのチャリティーゴルフを発展させようと呼びかけた。

つぎに同校教育会・朴大英会長があいさつし、同校学父兄の愛校運動に対する情熱と日本人参加者の理解に対して感謝の意を表した。

この日のチャリティー基金は実行委員長から同校教育会会長に手渡された。

マル優

利子課税制度の主な変更点

趙孟福（朝銀大阪信用組合・業務部所属）

前回はマル優制度廃止の理由について触れましたが、今回は、その主な変更点を整理してみましょう。

今回の変更点は次のように整理できます。

①非課税貯蓄制度は原則的に廃止され、六十五歳以上の人、寡婦、母子家庭、身障者等社会的に弱者と言われる人に限り存続します。

②財形住宅貯蓄が新設され財形年金貯蓄との合計額五百万円まで非課税となります。ただし、一般財形は二〇％の分離課税が適用されます。

③課税対象となる利子等は二〇％の源泉分離課税となります。（法人預金を除く）

④定期積金等のいわゆる金融類似商品（旧マル優の対象外であったもの）の利子相当分も二〇％の分離課税となり「新マル優」の適用を受けられません。

⑤朝信の出資配当金を含め、株式の配当金は従来通りの課税方法です。（分離三五％、総合二〇％）

⑥割引金融債、割引国債の償還差益に対しては一八％の分離課税が適用されます。（従来は一六％）

注目すべきは源泉分離課税の税率が三五％から二〇％に引き下げられたことです。

諸々の理由により分離課税制度を利用していた階層（高額所得者に多いと思われます）には福音となります。

新マル優の適格者の中では非課税枠（マル優三百万円、マル特三百万円、郵便貯金三百万円の計九百万円）を使い切った後、高利回り商品を利用し二〇％の源泉分離課税で課税関係を完結させるというパターンが増えるでしょう。

しかし、高利回りを歌い文句にしている金融商品の中にも、投資性の強いものから貯蓄性の強いものまで様々ですので注意すべきです。

一般にハイリスク・ハイリターン、ローリスク・ミドルリターン（決してローリターンではないと思います）が基本ですので、解約時の条件、元本割れの可能性、運用実績にバラつきがあるかどうか等、各商品の特性を十分理解することが肝要です。

朝信のMMCは銀行預金ですので元本割れの心配はなく、預入時に利率も市中金利を基礎にして確定されており（三月十四日現在、一年未満が三・七一％、一年超は三・九六％－於朝銀大阪）、一ヵ月から二年まで自由な日数で預入できます。一千万円（来年五百万円程度に引き下げられる見通し）より利用できますので、従来、非課税枠を十分利用していた人であれば、手の届く商品ではないでしょうか。また、融資を含めて総合的な金融サービスが受けられることを考え合わせますと、単純な利回り数字以上の商品価値はあると思います。

税制改革後の金融商品一覧

	現行	マル優廃止後
課税対象の預貯金利子	原則総合課税、特例として源泉分離課税	一律分離課税（税率20%）
少額貯蓄非課税制度（マル優）	個人が対象で300万円まで非課税	原則として廃止、一律分離課税となる。ただし、65歳以上の老人対象に元本300万円まで存続
申告不要制度	廃止	
法人貯金	総合課税の対象	総合課税（利子払いの際に20%の源泉徴収）
マル優専用商品（期日指定定期預金）	個人対象で、300万円まで非課税	一律分離課税。限度額なし対象は個人
郵便貯金	300万円まで非課税	一律分離課税。ただし、65歳以上の老人等を対象に300万円まで非課税。預入限度額500万円に引上
財形貯蓄 一般財形 年金貯蓄 住宅貯蓄	合計500万円まで非課税	一律分離課税については合計500万円まで非課税
少額公債非課税制度～特別マル優	個人対象、300万円まで非課税	原則廃止、ただし、65歳以上の老人等対象に300万まで非課税（新マル優別枠）
定期積金 相互掛金 外貨定期預金 抵当証券	雑所得扱い	一律分離課税。なお、老人等に対する非課税制度なし
一時払養老保険 一時払損害保険	一時所得扱い	一律分離課税。ただし、保険期間5年以下、また、保険期間5年以上もので5年以内解約の場合
金貯蓄口座 金投資口座	譲渡所得扱い	一律分離課税
割引金融債	16%税率の源泉分離課税	18%の税率による源泉分離課税
株式の配当	総合課税、特例として源泉選択分離課税。少額配当に申告不要制度あり	従来通り
株式のキャピタルゲイン	原則として非課税	従来通り

「一朝会」杯争奪低学年サッカー大会

接戦、熱戦を展開

東大阪第三初級が優勝

さる二十日、大阪・西成商工会と西成若い青年商工人協議会「一朝会」の共催で、一朝会杯争奪低学年（初一～三年）サッカー大会が開かれた。

西成朝鮮初中級学校で行われたこの大会には、東大阪第一、三、四初級、城北初級、西成初級の五チームが参加。百余人の同胞父兄が応援に駆けつけた。

大阪府下で、商工会と協議会の共催によってちびっ子サッカー大会が開かれたのは、初めてのこと。

「子供らに日ごろの練習成果を発揮できる場を与えてあげれば、サッカー技術の向上にもつながる。それにハッキョに対する、学父兄らの関心を高める良い機会になる」というのが開催の趣旨。

試合は十五分ハーフで勝敗を競い合った。この日、決勝一試合を除き、一点を争う接戦、熱戦が展開され、学父兄の応援、声援は高まるばかりだった。ボールに向かって選手が集まったりボールに振り回されることもなく、技術水準はなかなかのもの。決勝戦は東大阪第三と第一の間で行われ、後半終了一分前に、第三初級がゴールを決め優勝に輝いた。

主催した商工会の金相圭会長は「ちびっ子らのハッスルプレーを見て、つくづくやって良かったと思いました。来年は府下の学校を全部招待するつもりです。そして権威ある大会にしていきたい」と語っていた。入賞校にはカップとメダルが贈られた。

もよおし

シンポ

▼愛知朝鮮女性たちのシンポジウム「現代朝鮮女性の生き方」
13日（水）、午前11時、朝銀愛知信用組合本店
主催＝同実行委員会
☎〇五二（五七一）〇七七九（女性同盟愛知県本部）

スポーツ芸術

▼東京シティ・フィル第51回定期演奏会
指揮＝金洪才、独奏＝上杉春雄、曲目＝管弦楽「アリラン」他
13日（水）、午後7時、東京文化会館、入場料＝S三千五百円、A三千円、B二千五百円、C二千円、学生千五百円
☎〇三（四六四）二〇七三（東京シティ・フィル事務局）

ウリマル講座 11

文・朴点水

会話



☆ワンポイント☆
お礼の言い方は、～（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ヘ）ジュショソ カムサハムニダ（コマッスムニダ）～して下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す。～のところに適当なことばを入れて下さい。
お礼の言葉に対する答礼には、上の例文の他にもいろいろありますが、実際には네（ネー）と簡単に答えたり、笑顔で答えたりする場合が少なくありません。

発音と文字

母音「ㅐ、ㅒ、ㅔ、ㅖ、ㅚ、ㅟ」の発音

文字	発音	発音のこつ
ㅐ（애）	エ〔ɛ〕	おや指がゆうゆう入る位に口を広くあけて「エ」を発音すればよい。
ㅒ（얘）	イェ〔jɛ〕	「イ」の形からすぐさま「애」を発音すればよい。
ㅔ（에）	エ〔e〕	日本語の「エ」より口の開きを狭くして発音すればよい。
ㅖ（예）	イェ〔je〕	「イ」の形からすぐさま「에」を発音すればよい。
ㅚ（외）	ウェ〔ø〕	唇をまるめて「エ」を発音すればよい。唇の形は変わらない。
ㅟ（위）	ウィ〔y〕	唇を「우」〔u〕の形に丸めて「イ」を発音すればよい。唇の形は変わらない。

単語と文

개〔kɛ: ケー〕犬
게〔ke: ケー〕かに
얘기〔jɛ:gi イェーギ〕話
교예〔kjoje キョイェ〕
외투〔ø:tʰu ウェートゥ〕オーバー
귀〔ky キ〕耳
여보세요, 백선생님이 계십니까?
〔jɔbosejo pɛksɔnsɛŋnimi ke:ʃimnik'a〕
もしもし、白（ペッ）先生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

豆知識

共和国で朝鮮文字はいつから横書きになったでしょうか？
答 一九五六年からです。《로동신문》（ロドンシンムン 労働新聞）が横書きになったのは、一九五六年四月十六日からです。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3월 29일 (음력 2월 12일) 화요일 【루계 제10169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이딸리아의 까자죠베시에서

명예증서와 선물, 기념메달을 드리였다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이딸리아 까제르따현 까자죠베시리사회가 명예증서와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명예증서와 선물 전달식이 18일 까자죠베시청 회의실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명예증서와 선물 전달식에는 까제르따현의회 의장과 까자죠베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시리사회 성원들, 시내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내 각계층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대외경제사업부 김정우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경제대표단 성원들과 유엔 수량 및 농업기구주재 우리 나라 대표와 대표부 성원들이 또한 여기에 초대되였다.

명예증서와 선물 전달식에서는 까자죠베시장의 연설이 있었다.

시장은 연설에서 까자죠베시형성 4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시리사회와 시민들은 조선인민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성대히 경축하게 된다는 기쁜 소식에 접하고 인민들과 도시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념원으로부터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 명예증서와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시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명예증서와 선물을 우리 나라 경제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고 이 명예증서와 선물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　　※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 이딸리아 까제르따현 까자죠베시의 기념메달이 수여되였다.

17일 까자죠베시 리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념메달을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기념메달을 전달하는 행사가 3월 18일 까자죠베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시장은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까자죠베시형성 40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까자죠베시리사회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 기념메달을 드리기로 결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기념메달을 까자죠베시 시장이 이 나라를 방문한 우리 나라 경제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총련의 과학자, 의료일군들에게

공화국의 박사학위를 수여하여주시였다

전달모임 조선회관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총련 과학자, 의료일군들 7명에게 공화국박사학위를 수여하여주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여하여주신 공화국박사학위를 전달하는 모임이 26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오성사기획국장, 과협중앙 리시구회장을 비롯한 각지 과학자, 기술자들, 의료일군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이번에 7명의 총련 과학자, 의료일군들에게 공화국 화학박사, 공학박사, 의학박사 학위가 수여된데 대하여 소개한 다음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박사학위를 각각 전달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우선 우리 과학자로서는 최고의 영예로 되는 공화국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된 과학자, 의료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 다음 이는 재일동포과학기술자들과 의료일군들을 애국자로, 영웅으로 이끌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신임의 표시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시켜 악랄하고도 음흉한 모략책동을 벌렸으나 공화국과 총련의 반격에 부딪쳐 날이 감에 따라 궁지에 빠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리진규제1부의장은 우리는 이번 투쟁과정에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신념, 애국사업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조국에서 지난 3월초순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여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서와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과학기술사업과 보건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데서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은 오늘 박사학위를 받게 된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과협과 의협에 뭉친 과학기술자, 의료인들이다.

오늘 영예로운 공화국박사학위를 받은 여러분들은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심려하시는 어버이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자신의 연구사업을 보다 심화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력과 열성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

모임에서는 수여받은 일군들을 대표하여 과협중앙 김승진일군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과학자, 의료일군들

화학박사
신현섭(조대 리학부 교원)
김승진(과협중앙 연구부장)
김해진(과협 도꾜지부 부회장)
현승휴(과협 교또지부 부회장)

공학박사
조력채(과협 가나가와지부 회장)

의학박사
김우(의협 서일본본부 부회장)
곽룡찬(의협 서일본본부 리사)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공화국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총련의 과학자, 의료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열린다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서

【평양 3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지난해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회 제3차집행위원회확대회의 결정에 따라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서 곧 열리게 된다.

이번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 국제기구들과 사회단체대표들, 저명한 사회활동가들과 과학, 교육, 문화, 언론계 인사들이 많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서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인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게 된다.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우리 나라에서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리몽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게 된다.

미제는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하여야 한다

박성철부주석이 담화를 발표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지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부주석인 박성철동지는 2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모험적인 군사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며 침략자들의 무모한 불장난을 제때에 저지시키고 놈들에게 응당한 반격을 가하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단호한 의지와 혁명적립장을 반영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분별없는 전쟁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진 엄중한 사태하에서 전쟁재발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아세아와 세계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혁명적대책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이 올해에 또다시 대규모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려는 우리의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전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3자회담제안과 군사당국자회담제안,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과 단계적무력축감제안을 비롯한 일련의 합리적인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는 심지어 일방적으로 조선인민군 병력을 15만명이나 평화적건설에 돌리고 10만명을 제대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우리의 성실한 립장을 실지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는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려는 일념으로부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들을 토의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내놓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평화노력을 외면하였을뿐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대규모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대화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오직 대화부정, 평화부정, 통일부정의 그릇된 립장만을 취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된다.

그는 미제가 강행하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전례없이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을 띠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더우기 올해의 이 합동군사연습이 남조선괴뢰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의하여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전례없이 첨예화된 때에 강행되고있는것으로 해서 전쟁도발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말할수 있다.

나는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의 혁명무력과 인민들이 취해야 할 원칙적립장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다시금 지지를 표시하면서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한다.

지금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접하여 고도의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하고 원쑤들의 일거일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있으며 놈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낼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미제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해야 하며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제집으로 당장 돌아가야 한다.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미제의 전쟁하수인이 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미쳐날뛰지 말아야 하며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끝끝내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수치스러운 파멸만이 차례지게 될것이다.

나는 이 기회에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견결히 반대하며 반미반파쑈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리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

아울러 나는 세계 모든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이 핵전쟁위험이 커가고있는 조선반도정세에 깊은 주목을 돌리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 높이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본지의 조사에서 판명

이것이 《서울항공》선정의 내막이다

로태우역적도 친동생과 짜서 부정축재에 혈안

금호그루빠에 리권 넘겨주어 로재우가 고문직에 있는

남조선 각계가 《제2의 새마을의혹사건》이라고 지탄

로태우역적이 제2민간항공기선정과정에서 제놈의 친동생이 고문직에 있는 재벌그루빠에 리권을 넘겨줌으로써 새로운 권력형부정축재의 자금원으로 삼으려고 하고있는 사실이 본지의 조사에 의하여 드러났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난 2월 12일에 괴뢰교통부는 제2민간항공기업에 중견매판기업체인 금호그루빠(회장 박성용, 본사 서울)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 그루빠는 항공기회사명칭을 《서울항공》이라고 명명하여 올해 12월부터 서울—부산, 서울—광주의 2개 로선을 취항시키기로 하고있으며 국제항공로선도 시급히 취항시키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있다.

본지의 조사에 의하면 금호그루빠선정에 있어서는 로태우역적이 독재정권의 자금원으로 삼기 위해 미리 《정치력을 행사》해서 비밀리에 《내정》하였으며 이 그루빠의 고문직을 맡고있는 그자의 친동생 로재우(51살)가 그 막뒤에서 암약하였다.

금호그루빠선정에서의 표면상의 리유에 대하여 괴뢰교통부는 ①초대형재벌그루빠는 처음부터 배제했다 ②제2민항설립방침 결정후 면허인가신청을 한것은 금호그루빠뿐이였다고 설명하고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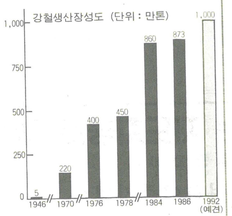
작년 9월에 괴뢰정부는 제2민항설립방침을 결정하고 허가신청을 허용했다고 하고있으나 이 방침자체가 다른 매판재벌에는 알리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되고있었으며 유독 금호그루빠에게만 그 사실이 알려진것이다. 따라서 금호그루빠만이 허가신청을 할수가 있었는바 이는 로태우일당이 처음부터 이 기업을 선정할것을 결정해놓고있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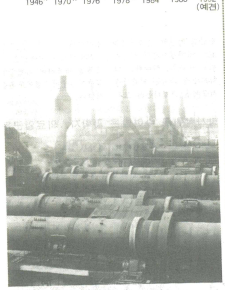
최근년간 《대한항공》의 독점하에 있었던 민간항공기분야는 수많은 리윤을 짜낼수 있는 《매력있는 분야》로 알려져 2～3년전부터 삼성, 현대 그루빠 등이 이 분야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괴뢰정부에 대한 치렬한 막후공작을 벌려왔었다. 그러나 이번 금호그루빠선정에 대해서는 이 매판기업들마저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변이였던것이다. 왜냐하면 금호그루빠는 재벌그루빠라고 하지만 그 순위는 20위에 지나지 않으며 운수업이라 하더라도 뻐스운행 등 륙상운수의 경험밖에 없는 기업이며 복잡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항공기분야에 참여하는것 자체가 격에 맞지 않는것이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도 돌연한 금호선정에 대해서는 《제2민항이라는 산업자체적인 측면보다 정치적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련합통신》 2월 13일발), 《공식발표하기전에 비공식적인 당정협의를 거쳐 전두환대통령과 로태우 차기대통령의 내인가를 받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주간조선》 2월 28일호), 《업체선정 등 설득력 없어》(《대구매일신문》 2월 13일부)라고 지적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새마을의혹사건》이 커다란 정치적문제로 부각되고있는바 로태우와 그의 친동생 로재우에 의한 새로운 의혹사건은 《제2의 새마을의혹사건》이라 할수 있는 권력형부정축재사건이다.

(관련기사 4면)





금속공업발전의 위용을 떨치는 청진제강소

수자로 보는 강철생산의 장성량

지난 40년동안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말 그대로 지난 시기 있어보지 못한 혁신이 창조되였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1986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673만톤의 강철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이는 해방당시의 일제가 마사간 우리 나라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 생산한 량의 무려 1346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방직후 우리 나라 강철생산량은 불과 5천톤에 불과하였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 40년동안에 뒤떨어진 흑색금속공업부문을 추켜세워주시고 오늘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강력한 부문으로 발전시켜주시였다.

그 과정을 력사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평화적건설시기인 1949년에 벌써 해방전(1944년도 생산량은 7만여톤)의 수준을 릉가했으며 전후 3개년계획(1954~56)이 끝난 이듬해 1957년에는 전쟁전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그후 1962년에는 100만톤의 수준을 릉가했으며 1970년에는 220만톤의 강철을 생산하게 되여 인구 일인당 생산량은 150키로그람에 이르게 되였다.

그리하여 6개년계획(1971~76)시기에는 대규모의 야금기지가 더욱 튼튼히 꾸려져 강철생산능력도 400만톤수준에 도달하여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훌륭하게 점령하였다.

또한 제2차7개년계획(1978~84)시기에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흑색금속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1985년에 660만톤을, 1986년에는 673만톤을 생산하게 되였다.



창조와 건설의 40년
1948—1988

주체적이며 안정한 흑색금속공업의 발전에로 현명하게 령도

해방전인 1944년의 우리 나라 강철생산량은 불과 7만여톤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마저 70%는 일본이 략탈해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로 지난 40년동안에 우리 나라 흑색금속공업은 주체적이며 강력한 공업부문으로 발전하였다.

◇◇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휘황한 앞길을 밝히시며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경제형편, 흑색금속공업발전의 력사적특성과 그 발전의 자연경제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에 맞게 이 부문을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인 방침들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하루빨리 가시고 흑색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 방침에는 흑색금속공업의 생산능력을 부단히 늘이는 동시에 이 부문의 생산구조를 개선완비할데 대하여서와 특히 자체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흑색금속공업의 주체성을 보장할데 대한 기본방향이 명확히 밝혀져있었다.

이 방침에 따라 평화적건설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흑색금속공장들을 복구정비하는것과 함께 부분적으로 확장하게 되였고 전후시기와 인민경제 5개년계획시기에는 전쟁시기에 혹심하게 파괴된 제철소, 제강소, 제련소들이 복구, 개건, 확장됨으로써 흑색금속공업의 자립적인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여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후 인민경제발전 7개년 및 6개년 계획시기에 국내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현대적인 제철기지, 압연기지, 2차금속가공제품생산기지들을 새로 많이 꾸려놓으심으로써 흑색금속공업은 부문구조가 더욱 개선완비되여나갔다.

뿐만아니라 1970년대에 들어선후 우리 나라 흑색금속공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흑색금속공업부문들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자동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 황철, 강철 등 중요생산기지들의 면모가 일신되고 생산능력도 부쩍 늘어났다.

◇◇
과학적인 통찰력과 선견지명으로 자립적토대를 마련
◇◇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일찌기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오신것이다.

오늘 야금공업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콕스생산이 줄어들고있어 새로운 야금법을 개발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에서는 콕스를 쓰지 않고 철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의 흑색금속공업 발전의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과학적인 통찰력과 선견지명으로 1960년대부터 벌써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야금법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조직전개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철공업에서 될수록 콕스를 적게 쓰면서 더 많은 선철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나라 연료에 기초한 제철공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더우기 이 시기 풍부한 무연탄과 갈탄 자원을 가지고있는 반면에 콕스탄이 아직 발견되지 못하던 조건에서 국내 연료자원에 의거하여 제철, 제강 공업을 발전시켜나가는것은 흑색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금속공업을 주동적으로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강력한 연구집단인 《2.17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친히 무어주시고 야금법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배려로 하여 우리 나라 야금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실현의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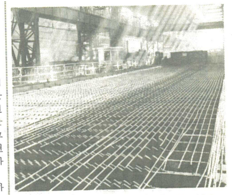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6개년계획(1971~76), 제2차7개년계획(1978~84)의 강철생산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게 되였다.

현재 우리 나라는 년간 673만톤(1986년 현재)을 생산하는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아래 해방전 불과 7만여톤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 강철은 오늘 인구 일인당 생산량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나라 굴지의 흑색금속공업기지의 하나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강철생산에서 런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성진제강소

1,000만톤 강철고지 점령의 확고한 전망

풍부한 지하자원이 확고한 담보로

우리 나라에는 다른 광물자원과 함께 철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이제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더라도 그 매장량은 수십억톤에 달하며 확정된 매장량은 무산광산에서만도 십억톤이상이라고 한다.

철광석의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풍부한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는 우리 나라에는 이와 함께 용제로 쓰이는 질좋은 석회석, 내화물 생산을 위한 각종 원료자원도 풍부하다.

특히 야금공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염기성내화물재료인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에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한다.

이렇듯 풍부한 자원은 곧 우리 나라 흑색금속공업 발전을 안받침하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인구 일인당 생산량 세계 으뜸으로

나라에 마련된 밑천을 백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조국에서는 수많은 생산기지들에서 생산능력 확장공사가 대대적으로 전개되고있다.

특히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오늘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500만톤 생산능력을 가진 기업소로 확장하는 제2계단확장공사가 진공적으로 조직전개되고있으며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성진과 그밖의 제철소, 제강소들에서도 개건확장공사가 추진되고있다.

이와 함께 새 야금법의 발전완성, 정광수송체계의 현대화, 야금로들의 대형화, 원료기지들의 확보를 위한 제반 사업이 동시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새 전망계획에 예견된 강철고지 1,000만톤이 점령될 때 인구 일인당 강철생산량은 약 500키로그람으로 되며 명실공히 세계 으뜸가는 수준에 올라서게 된다.



능력확장공사를 적극 추진하고있는 무산광산

능력확장공사 적극 추진

~우리 나라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능력확장공사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단계확장공사에서는 20여개 건설대상들에 대한 설비조립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전투기간에 들어와 전로 및 열간압연 직장, 가열로장, 산소분리기 한기의 설비조립을 끝냈다.

지금 이 기업소의 석회배소로와 련속조괴기 설비조립속도는 종전에 비하여 2배로 높아지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는 당면하게 1,000만톤능력의 철정광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기업소에서는 4, 5호 박토콘베아부문의 3호락광정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그리고 이달안으로 3광구지하채굴장, 1단계 3광구파쇄장 건설을 끝낼 목표밑에 공사속도를 종전에 비하여 2배로 높이고있다.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는 기관종합직장과 제관총조립직장, 주물직장 등 근 10개의 건설대상에 의한 건축공사를 끝내고 수백톤에 달하는 설비를 조립했다.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는 1단계로 진행되는 후라이스반가공종합직장건설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있다.

건설자들은 이미 1,000여톤의 강철구조물을 제작하고 300여톤의 구조물을 조립하였다.

그들은 요즘 강철구조물조립에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실적에 비하여 3.5배이상의 속도를 창조하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 6월4일차량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능력확장공사를 적극 벌리고있다.



목소리

《먼 새벽》

지난 2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잠비아의 카운다 대통령은 아프리카통일기구 의장으로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저주로운 인종차별정책과 인종격리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투사이다.

▼남아프리카백인정권의 악랄성은 가끔 론의되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고있는것이 실정이라 하겠다. 이런 정황에서 잠비아공화국의 협력밑에 제작되고 지금 일본에서 상영중인 충격적인 영화 《먼 새벽》은 인면수심의 인간백정들이 저지르고있는 만행의 일단을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영화이다.

▼전기, 수도, 변소도 없는 판자집들이 밀집된 흑인거류지를 습격한 남아프리카백인정권의 경찰군은 살림집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불사르며 남녀로소할것없이 닥치는대로 무참히 학살해나간다. 그 잔악무도한 장면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아비규환을 련상시킨다.

▼필자는 그것을 보고 일제토벌대가 악에 받쳐 조선인마을을 마구 습격하는 영화《피바다》의 처참한 장면을 생각하여 불타는 증오로 몸을 떨었다. 1920년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그 용서못할 만행을 반세기가 지난 오늘 남아프리카백인정권이 흑인들에게 가하고있으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세계적으로 남아프리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속에서 일본은 남아프리카와의 무역액이 세계 1위. 이에 못지 않게 백인정권을 두둔하고있는것이 남조선괴뢰도당이다. 괴뢰들은 겉으로는 사탕발린 소리로 아프리카인민들을 지지하고 동정하고있는척 하면서 실지로는 그들을 멸시하고 모욕하며 지어는 그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등치고 배만지는 격이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2,300만명의 진짜 주민중 1천만명은 황폐화된 땅, 《홈랜드》에 갇혀있다. 굶주림만이 뒤따르는 그곳에서 어린이는 5살이전에 절반이 죽는다고 한다.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힌 남아프리카의 인민들은 지금 인간답게 살고저 목숨걸고 싸우고있다. 우리는 자유를 웨치는 남아프리카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조치의 강화를 주장한다.

친선의 왕래

▲알제리와 뛰니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박성범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당일군대표단, 쏘련과 벌가리아에 가는 무역부 송회철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 무역대표단, 뽈스까에 가는 사로청중앙위원회 김진범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되는 세계직련뷰로 제39차회의에 참가할 직총중앙위원회 심홍규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쏘련을 방문하는 외교단사업총국 한봉구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외교단사업총국대표단,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사리원시인민위원회 리재윤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리원시대표단이 24일 평양을 출발했다.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직속 칼 맑스명칭고급당학교 부교장 만프레드 헤롤드를 단장으로 하는 이 학교 대표단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국제반동들과 결탁한 남조선괴뢰도당의 비렬한 모략과 대결책동을 준렬히 단죄

각지에서 정치선전사업 진행

총련 오사까부 이꾸노남지부에서 대중유세사업

총련 오사까부 이꾸노남지부에서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유세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이곳 지부에서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모략을 폭로하는 대중정치선전사업에 관하 분회,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조신과 히가시오사까제5초급 교원 등 모든 일군들이 호응하여 적극 나서고있으며 3월에 들어서서는 새로 500호의 동포명단을 작성하여 전호방문의 형식으로 동포들의 집집마다에 각종 선전물과 비데오록화편집물을 보급하고있다.

특히 11일~23일까지의 동안에는 선전차를 발동하여 관하거리들에서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국제모략의 반동성과 엄중성을 소리높이 폭로하였다.

23일에는 국제모략극을 폭로하는 이꾸노남지부 시국강연회를 조은오사까 이꾸노히가시지점에서 진행하였는바 여기에는 관하 150여명의 동포들이 모여들었다.

강연회에서는 먼저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된후 오사까조선가무단의 예술선동이 있었으며 이어 총련중앙학원 김화효강사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에서 그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은 미국의 조종아래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공모결탁하여 조작한 국제모략극이라는것을 강조한 다음 총련조직에 굳게 뭉쳐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짓부셔나갈데 대하여 호소했다.

강연회에서는 또한 총련지부 김례행위원장이 내외반동들과의 날카로운 투쟁에서 승리하여 4월명절을 자랑차게 맞이할데 대해 호소하였다.

미야기조신 부인의 회가 강연회

미야기조신을 후원하는 부인의 회가 얼마전 《21세기의 전망》이란 쩨마로 강연회를 가졌다.

센다이시 야요이회관에서 약 50명의 동포녀성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서는 조선대학교 교원이 강사로 출연하여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을 까밝히는 강연을 하였다.

강연자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일남조선이 결탁하여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위하여 조작한 모략극이란것을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에 기초하여 까밝혔다.

《사실 지금까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졌다.》

《확신을 가질수가 있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감상들을 말하고있었다.

부인의 회 금인숙회장을 비롯한 역원들은 오늘 우리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되면 될수록 동포녀성들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일치밑에 녀성동맹본부의 협력을 받으면서 이날 강연회를 조직하였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과 높은 열성에 의해 이날 강연회는 많은 동포녀성의 참가밑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녀성동맹미야기】

일본 각계에서도 집회, 결의 채택

야마나시현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는 집회가 일조우호야마나시현민회의의 주최로 25일, 고후시의 로농복지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각계층 일본인민들 200명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현민회의 즈까하라 가도 의장과 총련본부 박기수 위원장이 연설한데 이어 저너리스트인 마에다 야스히로씨가 《최근의 조선반도정세와 일본—남조선비행기사건의 허실을 규명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야마나시지국】

일조우호 이가시민의 회

일조우호미에현이가시민의 회의 주최로 남조선비행기사건의 진상을 아는 모임이 24일, 우에노시의 로동회관에서 이 지역 선출 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들을 비롯한 시민들 100명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본부 리갑수국제부장이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 앞서 이 회의 오꾸세 헤이시찌로회장이 연설했는바 그는 이번 사건은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의 모략이라고 단언하였다.

참가자들은 일치하게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허위보도에 말려들것이 아니라 진상을 똑똑히 보고 일조련대운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하고있었다.

【미에지국】

자치로 시마네현본부

자치로 시마네현본부 제47차중앙위원회(23일, 이즈모시 후생년금회관)에서 공화국에 대한 일본당국의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는 비행기사건은 남조선당국의 자작극이라고 찍으면서 일본정부가 남조선의 모략극에 가담하여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마네지국】

《등록법》의 발본적개정을 요구하는 신포쥼 진행 도꾜에서

관리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

새 《등록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의 발본적개정을 지향한 투쟁을 계속 벌리기 위한 심포쥼이 24일 저녁, 도꾜 와이.엠.씨.에이에서 일조우호련대국민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심포쥼에서는 먼저 일본사회당소속 오가와 구니히꼬중의원의원과 공명당 나까무라 이와오중의원의원들이 각각 래빈연설을 하여 법무당국의 정령, 성령 등의 제정에 중대한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지향하여 더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심포쥼에서는 자치로 정치국의 아오자사 히데오차장, 니이미 다까시변호사, 《조선시보》 은종기부편집장들이 각각 《관리강화되는 등록법사무》, 《정, 성령의 문제점과 재판움직임》, 《강화되는 재일외국인관리》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들에서는 새 《등록법》이 재일조선인을 범죄인취급하는 치안립법적성격에서 변화가 없으며 상시휴대의무, 지문압날제도, 형벌제도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데 대하여 지탄하였다.

특히 강연자들은 입관당국의 직접적개입이 로골화되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일본당국이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심포쥼에서는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이 벌어졌다.

이날 심포쥼참가자들은 새 《등록법》에 의한 관리강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등록증》작성을 위한 기계를 자치체들에 설치하도록 하는 운동, 자치체의 고발을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운동 등을 적극 벌릴 문제를 토의하였다.

또한 《등록법》의 발본적개정을 지향하여 지난번 일본국회에서의 부대결의 취지에 맞게 의회내에 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며 조기개정을 위하여 지방의회들의 태도표명을 요구하는 문제, 일본당국의 배타적정책과 차별정책을 전환시킬 문제들이 지적되였다.



《등록법》발본적개정요구심포쥼

새학년도 나머지 3일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줄 날이 기다려진다

맏아들이 지꾸호조선초중급학교에 입학한다

총련 후꾸오까현 죠꾸앙지부관하 박춘식, 김란희동포내외

며칠전에 새 교복을 받아안게 되였다.

《우리 학교 초급부 1학년생이 된다니 흐뭇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실감이 안나지요.》

이렇게 말하는것은 박춘식(34살), 김란희(30살)동포내외이다.

총련 후꾸오까현 죠꾸앙지부관하에 거주하는 그들이 입학원서를 쓴것은 벌써 지난해 5월이였다고 한다.

그때는 그저 지부나 학교에서 청하는대로 쓰기는 했으나 그후 입학식이 바야흐로 가까와오면서 가정내는 옥신각신하였다고 한다.

노오가다시에 동포가 얼마 없고 홍순이와 함께 다닐 자녀들이 일본학교에 들어갈수도 있어서 내외간의 생각도 자꾸 그에 쏠려갔다.

그것을 안 본부와 지부, 학교에서 련일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때로는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야밤 2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박동포의 흔들리는 마음에 그의 어머니는 되게 노하였다고 한다.

아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도 아버지는 펼쳐보았다고 한다.

《납득이 되였지요. 교육수준과 내용도 많이 개선된것 같습니다.

나자신의 오늘을 보더라도 생활함에 있어서 서로 오가고 허물없이 사귀는것은 역시 조선사람끼리이지요.

결국은 어디에, 누구에게 의지해서 사는가 하는것이니 우리 학교에 보내는게 옳다고 인정했습니다.》(내외)

내외는 다 우리 민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사회생활, 결혼생활을 누리면서도 사귀은 총련조직과 동포들이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나요.》

《민족교육의 내용이야 잘 알지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지 고민도 없지 않았지요.》

재정문제며 아들 홍순이의 동무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가장 기뻐한것은 박동포의 어머니였다.

2세인 박동포가 3세를 우리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이 될 날도 이제 며칠후이다.

입학한후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라 우리 말로 부르는 날이 몹시 기다려진다고 한다.

일본에서 조선사람으로서 살려면 여러 차별로 취직의 문이 좁은것도 사실이지만 일본학교에 보냈다고 그것이 호전되는것은 아니다.

《조선사람으로 사는것이지요.

그런 면을 생각하면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고 박동포는 뜨겁게 말하였다.

입학식의 날이 몹시 기다려지는것 같다.



아들의 입학식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박춘식동포일가

모략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다

록화편집물 《꽃다발을 준 소녀는 저입니다—정희선 평양에서 증언—》



1972년 11월 평양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가 당시 금성중학교 학생이였던 정희선이며 그가 지금도 평양에 살고있다는것이 사진과 비데오 등으로 명확히 됨으로써 이번 남조선비행기사건이 괴뢰도당의 자작자연극이라는것이 철저히 폭로됐다.

이런 속에서 비데오록화편집물 《꽃다발을 준 소녀는 저입니다—정희선 평양에서 증언—》(15분, 총련영화제작소)이 새로 나왔다.

이 비데오는 총련특별취재단이 평양에서 1972년 11월 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공동위원장회의때 남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인 정희선과 회견한 모습을 찍은것이다.

또한 비데오는 지난 3월 15일에 있은 총련중앙의 기자회견모습과 이를 널리 방영한 일본텔레비죤의 뉴스도 수록하고있다.

총련의 모든 조직과 일군들은 이미 나온 비데오록화편집물과 각종 선전물 그리고 이 비데오를 널리 보급활용함으로써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에 미쳐날뛰는 내외반동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것이다.

문의—총련영화제작소 ☎03(262)7111

평화통일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

〈3〉

빛나는 본보기, 4월남북련석회의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특히 남조선에서 《단독선거, 단독정부》음모가 로골화됨으로써 국토와 민족이 영구분렬의 위기에 처하였던 1948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과 남의 제 정당, 사회단체 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고 구국통일의 방도를 명시하시였던 4월련석회의 40돐이 되는 올해의 첫아침에 제기된것으로 하여 모든 조선사람들의 애국충정과 통일의지를 더욱 뜨겁게 하여주는 제안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48년 3월 9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우리 당은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남조선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에게 금년 4월 14일 평양시에서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석회의를 개최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북련석회의소집방안에 접한 남조선인민들은 큰 감격을 안고 그를 열렬히 지지했다. 그러나 회의를 성과적으로 마련하는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날 반공으로 민족앞에 죄를 저질렀거나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이 동요하였고 또한 미제와 리승만도당이 남북협상에 참가하려는 인사들에게 위협과 탄압을 가해나선 사실과 관련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분렬을 막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반미구국의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①당파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 기업가, 상인, 종교인 등 모든 애국력량을 결집시키며 ②반미구국의 길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백지화하고 함께 손잡고나가며 ③자기의 사상과 주의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면서 모든것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④공산주의자들과 민주인사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사이에 합작과 단결을 실현하는것 등을 밝히시자 남조선정계 인사들속에서는 련석회의에 참가하자는 기운이 높아졌다.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위협공갈을 물리치고 우익정계인 김구는 4월 15일의 기자회견에서 《유엔이 아무리 단선단정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자손만대에 남겨줄수 있는 정부가 될수 없는것이다. 나는 외국인의 유혹과 국내 일부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흔연 남북회담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명하였다.

드디여 온 민족의 관심속에서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에 걸쳐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의 참가밑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련석회의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련석회의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도구라는것을 폭로하고 남조선《단선단정》을 반대배격할것을 결정하였으며 단독선거에 의하여 조작되는 괴뢰정부를 조선인민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4월련석회의는 조선인민의 구국투쟁력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회의였다. 그것은 ①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정견과 계급적립장이 서로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도 공통적인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능히 단결할수 있으며 민족의 대단합으로 거족적인 구국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했다는것 ②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이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본보기를 보여준 력사적회의로서 우리 민족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는것 ③민족분렬의 엄중한 위기가 닥쳐온 력사적시각에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총동원하며 미제의 《단선단정》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수 있게 한 중요한 력사적계기를 열어놓았던것이다.

(계속)

평양방송 재일동포시간

아침6.30~7.00 저녁7.30~8.00

29일(화)	저녁	—《속도전의 기상 나래치는 조국의 대건설장들》 —요청음악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 《행복한 내 나라》, 《혁명가》 —《도발적인 북침전쟁소동》
30일(수)	아침	
30일(수)	저녁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있는 경흥관 종업원들이 도꾜도 다이또지역 젊은상공인협의회 일군들과 동포상공인들에게 보내는 방송 —총련 아이찌현 나까무라지부 리롱균부장의 인상담 《위대한 령도아래 솟아난 찬란한 현실》
31일(목)	아침	
31일(목)	저녁	—《현지지도의 길도 미루시고》 —해외동포들의 반향 《우리 인민은 위대한 민족》 —우리 말 강좌
1일(금)	아침	

평양방송—중파 621,657,684,729,801,855
단파 3320,6250,6400
조선중앙방송—중파 819,1080 단파 6600,9665,11680

《일해》재단

전두환의 부정자금흡수기구

《새마을의혹사건》

이것이 전두환, 로태우가 감행한 정치의혹사건의 진상이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



(새마을의혹사건)을 비롯한 정치의혹들에 대하여 보도한 남조선신문들

대미쌀거래부정사건

(82년 3월)

전경환이 흑막

대일《안보경협》 40억딸라

독재권력강화자금으로

원자력발전소건설의혹

(84년)

미행정부고관이 관여

명성부정사건

(83년)

전두환의 처애비가 관여

《에프16》도입의혹

(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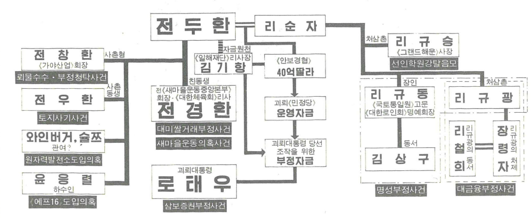
전두환, 리순자 직접 관여

대금융부정사건

(82년)

독재《경권》뒤흔든 일대정치의혹

전두환, 로태우부정사건도



健仁外科

우리 말과 글을 배워 공화국 창건 40돐을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3월 30일 (음력 2월 13일) 수요일 [루계 제10170호]

發行所 朝鮮新報社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타이왕국 국회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평양~도쿄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타이왕국 국회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8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타이국회하원 보건 및 환경위원회 위원장 파이툰 목카마쿨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왕국 국회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의장과 김봉주사무장, 외교부 김용섭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손님들은 선물을 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타이왕국 국회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타이왕국 국회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타이국회하원 보건 및 환경위원회 위원장 파이툰 목카마쿨단장이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줄기차게 벌려 기어이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상공련, 조청, 녀성동맹, 조신협, 류학동 합동회의가 있었다

사설

기업권옹호사업을 더욱 활발히

남조선려객기모략소동의 공범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보인 일본당국

일본경찰청의 국회답변을 두고

서울의 대학생, 로동자들이 로조탄압규탄대회

모든 애국사업을 분회단위의 대중적운동으로!

《한가정처럼 단란한 분회를 목표로》

처음으로 신입생 축하모임을 가진 녀성동맹 사이다마현 북부지부 구마가야분회

《신입생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녀성동맹 사이다마현 북부지부 구마가야분회가 올해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처음으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3명의 신입생들과 재학생, 학부형들 28명이 참가하였다.

올해 초급부 1학년이 되는것은 김리향, 림순희, 문량기어린이들.

그들은 어머니들이 차려준 소박하고도 마음이 깃든 모임의 주인공으로서 기념품도 받아 좀 수줍어하였다.

이곳 분회에서는 흩어져사는 동포들의 련계를 깊이는데 무슨 좋은 안이 없는가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런 속에서 신입생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조직하면 아이들도 기뻐하고 학부형들의 련계도 깊일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이곳에서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까지는 빠르로 2시간이상 걸리며 가까운 학생이라도 1시간동안 전차를 타야 한다.

더군다나 올해 신입생 3명모두가 맏아들, 맏딸인것으로 하여 학부형들의 걱정은 컸었다.

그러한 속에서 이 모임은 그들의 걱정을 풀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였다.

《학교에 다니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들이 자기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경험많은 어머니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속에서 풀어나가며 어머니들끼리의 련계를 깊여나갈수 있으면 해서 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고 이야기하는 박청자분회장.

올해 처음으로 딸을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는 문혜자어머니는 《나자신이 여러 사정으로 일본학교에 다녀 우리 말을 배우지 못했기에 아이들은 반드시 우리 학교에 보내자고 생각했지요. 통학길도 멀고 걱정도 많았지만 오늘 모임에 참가하여 힘이 나왔어요.》라고 모임의 감상을 이야기하였다.

아이들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였지만 사이좋게 노래부르며 뛰노는 사이에 친숙해져 통학반을 무어 학교에 다닐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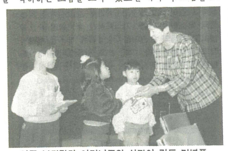
또한 《학교도 멀고 서로의 집도 먼 속에서 우리 녀성들이 단결하자면 여러 모임을 자주 조직하여야 합니다.》라는 분회장의 제의에 어머니들은 생일축하모임, 꽃놀이, 결혼기념일축하모임, 부부보링대회 등 다양한 모임을 진행하자고 호응해나섰다.

《이제까지는 료리소조, 에아로빅스소조 등 녀성들만 모였지만 앞으로는 남편도, 아이들도 다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싶습니다.》는 박청자분회장의 말에 모든 어머니들은 찬성하였다.

이곳 동포들이 굳게 단결하여 한가정과 같은 단란한 분회로 꾸려질 날은 멀지 않을것이다.



녀성동맹 사이다마현 북부지부 구마가야분회에서 처음으로 조직한 신입생 축하모임



이곳 분회관하 어머니들의 사랑이 깃든 기념품을 받아안은 세명의 신입생들

분회를 강화하여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적극 떨쳐나서자

녀성동맹 후꾸오까현본부관하 분회장, 부분회장들의 모임

녀성동맹 후꾸오까현본부관하 분회장, 부분회장들의 모임이 얼마전 기다규슈조선초중급학교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총련 후꾸오까현본부 김영학위원장, 녀성동맹본부 김경애위원장을 비롯한 관하 일군들과 녀성동맹 분회장, 부분회장들이 참가하였다.

녀성동맹분회조직의 강화와 격동되는 정세에 대처하여 관하 모든 동포녀성들이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본부 김영학위원장이 조국통일을 둘러싼 현정세와 현시기 분회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이어서 12명의 녀성동맹 분회장, 부분회장들이 지난 시기 분회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특히 녀성동맹 야하다지부 아노분회 김금자분회장은 위원회, 학습반을 정상화하여 얻은 경험과 성과에 대하여, 녀성동맹 도바다지부 히가시도바다분회 조화순분회장은 젊은 분회장으로서 1세들의 대를 이어 맡은바 분회를 강한 조직으로 만들고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적극 떨쳐나설 결의를 피력하여 참가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또한 모임에서는 녀성동맹본부위원장이 연설을 하였는바 1세녀성들의 대를 이어 분회사업을 더한층 강화발전시켜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관하 전체 동포녀성들이 힘차게 떨쳐나서자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지금 내외반동들이 련일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모략책동을 짓부시는 정치선전사업을 전체 참가자들이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녀성동맹후꾸오까】



녀성동맹 후꾸오까현본부관하 분회장, 부분회장들의 모임

졸업생, 신입생 축하모임 및 《애국영예기쟁취운동》궐기모임

총련 오사까부 사까이지부 서분회

총련 오사까부 사까이지부 서분회는 지난 25일 분회사무소에서 이번에 사까이조선초급학교와 오사까조선고급학교를 졸업, 신입하는 관하동포자녀들을 축하하는 모임과 함께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궐기하는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날 분회사무소는 졸업생, 신입생 14명을 비롯하여 분회관하 동포들로 시종 들끓었다.

신입생, 졸업생들이 한사람씩 호명된데 이어 《고급부에 진학하는 동무도 중급부, 초급부 또한 유치반에 새로 들어가는 동무도 조선사람으로서 당당히 배워나가자.》고 이곳 분회 성정호분회장이 그들을 따뜻이 격려하였다.

분회의 기념품이 전달되고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등 모임은 시종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으며 웃음소리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어 진행된 궐기모임에서는 먼저 총련 사까이지부 리문정부위원장이 연설을 하였으며 성정호분회장이 결의보고를 하였다.

결의보고에서 그는 지난 시기 이곳 분회 1세동포들이 《모범분회창조운동》을 적극 벌려 《2중모범분회》칭호를 수여받은 전통과 애국열성에 못지 않게 젊은 동포들이 이번 운동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한후 달 1번 관하동포들의 모임을 가진다, 비데오상영체계정상화, 각종 문화교실, 4월명절야유회, 유세사업, 조국통일사업, 학생을 받아들이는 사업, 《애국영예가정》쟁취운동 등 8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운동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분회일군들의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화국창건 40돐을 큰 성과로 빛내이자고 힘주어말하였다.

이날 이곳 분회관하 동포들은 1세들의 대를 이어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적극 벌려 분회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었다.



총련 오사까부 사까이지부 서분회에서 진행된 궐기모임

새학년도 나머지 2일

조선사람으로 키우자면 어릴적부터 민족교육을!

맏아들을 도호꾸초중고에 보내는 김량수, 고성연동포내외

총련 미야기현 센다이지부 남분회관하

총련 미야기현 센다이지부 남분회관하 김량수, 고성연동포내외의 맏아들 정호는 지금 도호꾸조선초중고급학교 초급부에 입학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우리 학교에 보내는데서의 불안감이란 특별히 없어요.

다만 처음으로 애를 학교에 보내니 공부를 잘할수 있을가는 걱정이 있을뿐입니다.》(고녀성)

조선사람으로 태여난 이상 응당 어릴적부터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고 조선민족의 넋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김동포부부는 정세가 긴장되여도, 통학거리문제, 재정문제가 걱정되여도 맏아들을 우리 학교에 보낼 결심엔 흔들림이 없다고 확신에 넘쳐 말한다.

정호를 우리 학교에 보내게 된 계기는 유치원을 어디로 정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것에 있었다.

통원거리도 멀고 여러 조건상 근심되는 점이 있는 우리 유치원에 보내는것이 고려되였고 유치원쯤이야 일본유치원에 보내여도 일없다는 생각도 있었다.

(무턱대고 결정하지 말고 한번 찾아가보자.)

고녀성은 우리 학교 유치반을 찾아갔으며 일본유치원도 여러군데 견학해보았다.

사실 일본유치원은 통원거리도 가깝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적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유치반을 찾아간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 나어린 애들이 또렷또렷 우리 말을 쓰고 우리 노래를 부르며 조선옷을 입고 춤을 추고있는것이다.

애들의 모습이 더없이 미덥게 보였다.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키우자면 어릴적부터 이런 환경속에서 키워야 한다.》

확고한 용단밑에 그들은 맏아들을 우리 학교 유치반에 입원시켰다.

《물론 우리가 일본사회에서 살아나가자면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학교에 보낸다면 이 애가 커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사회에서 살아나가는것만큼 애들에게 민족의 넋을 더 깊이 심어주어야 하며 조선사람답게 살아나가도록 교양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치반에 다니게 되면서 정호는 우리 말도 알게 되고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며 날을 따라 조선사람으로 성장하였다.

어느덧 조선민족의 넋이 남몰래 스며들었는지 《집뒤에 일본학교가 있으니 다녀보지 않는가.》 하는 의식적인 질문에 그는 단번에 《싫다.》고 대답하였다 한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더 깊이 인식한 김동포부부는 주저없이 정호를 우리 학교에 보낼 수속을 하였으며 동생들(3남매)도 초급부, 유치반에 보낼 결심을 굳건히 하였다.

《학부형이 되는 이상은 자녀교양사업을 교원들에게만 맡기는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힘을 합쳐 학교사업을 적극 도와나서야 한다고 맘먹고있습니다.》(고녀성)

정호가 민족교육의 대화원속으로 들어서는 입학식날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아들의 입학식을 눈앞에 둔 고동포녀성의 가슴은 흐뭇하기 그지없다.

목소리

그 형에 그 동생

요새 남조선에서는 전두환역적의 일가족속이 마구 저지른 엄청난 부정부패행위가 여기저기서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여기서 련상되는것이 호가호위(狐假虎威)이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여우가 범의 위세를 빌어 다른 짐승을 놀라게 한다는 뜻인데 《남의 권세에 의지하여 위세를 부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참으로 사기협잡군 전경환은 파쑈폭군인 자기 형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에 골몰하였다. ▼남조선에서 폭로된것만 하여도 전경환이가 호가호위하여 안하무인격으로 감행한 부정부패행위는 부지기수이다. 《새마을성금》256억원, 《새마을기금》리자수익 110억원, 사회체육진흥비 16억 3천만원, 888만평에 달하는 공유수면의 불법매립 등등 이자의 부정행위를 들려면 매거의 겨를이 없다. 표면화된것은 빙산의 일각, 추측컨대 착복액은 아마 수천억원에 달할것이다. ▼그런데 전경환이가 혼자서 이런 엄청난짓을 할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권력형부정부패이다. 이번의 부정부패는 그 왕초 전두환, 로태우도당의 지휘하에 공공연히 행해진 회세의 사기협잡행위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명백백하다. 형의 입김이 없이, 로태우의 도움이 없이 송사리 전경환이가 어찌 하루아침에 《새마을운동》의 우두머리가 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수 있었겠는가. ▼전경환의 횡령행위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것이 아니다. 남조선의 력대괴뢰역적치고 부정축재하지 않는자가 하나도 없다. 리승만이가 그러했고 박정희가 그러했으며 전두환 역시 그러했다. 특히 민족백정 전두환은 권력을 강탈하자마자 마치도 《청백리(清白吏)》나 된듯이 《부정부패의 일소》를 고아대였는데 목에 피대를 세워 줘처댄 그 입의 침도 마르기전에 부정부패에 환장하였다. ▼이자가 저지른 장령자어음사기사건, 《일해재단》부정사건, 범양상선의 비밀정치자금사건 등은 아직도 세인의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니 동생의 부정에 형이 무관하겠는가. 제밑이 구리니 전두환은 안절부절못하고있다. 부정부패의 왕초를 잡아가두어야 한다.

공화국 외교부성명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공식문건으로 배포되였다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전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발표한 3월 23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이 23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공식문건 에쓰―19675호로 배포되였다.



서로서로

보라! 정희선의 얼굴형태야 어디 가겠는가

한눈에 확연하다





사람의 얼굴은 성장과정에서 달라져가는 부분과 달라지지 않는곳이 있다. 가장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귀부분이다.

사진①과 사진②는 남북조절위원회때(1972.11)에 남측대표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정희선의 그 당시와 현재의 사진이다. 이 두 사진의 귀부분을 보십시오. 사진①과 사진②의 귀방울은 지난 시기나 현재나 다름이 없이 복스럽고 크다는것을 보여준다. 사진①과 사진②의 인물이 동인물(同人物)이라는것을 똑똑히 말하여주고있다.

그런데 사진③에 있는 《김현희》라는 녀자의 귀를 보십시오. 사진③의 귀는 여우의 귀모양으로 귀방울이 없고 납작하다. 이것은 귀방울이 복스러운 사진①의 귀와는 너무나도 판이하다. 때문에 골상학전문가(骨相学専門家)로 이름난 아사노 하찌로(浅野八郎)씨도 사진①의 소녀의 귀와 사진③의 귀는 다르다고 하면서 사진①의 소녀는 《김현희》가 아니라고 한것이다.

사진②는 사진①과는 동인물이고 사진③과는 별인물(別人物)이라는것이 분명하다.

비록 《경찰청》이라는 환상적권위나 《과학적감정》을 내세워 사람을 속이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일본경찰당국이 남조선비행기모략사건의 공범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놓을뿐이다.









이 사진들이 다 정희선이다

사진④부터 사진⑦까지를 보십시오. 이 사진들은 모두다 정희선스스로가 평양에서 본사기자와 만났을 때 제공해준 사진들이다.

사진④는 금성중학교 5학년때의 사진이며 사진⑤부터 사진⑦까지는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한후인 1981년 9월이후 평양의 국어학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찍은 사진들이다. 이 사진④부터 사진⑦까지의 사진들과 사진①의 사진을 대비해보십시오. 얼굴의 형태나 골격은 물론이고 더우기 턱이며 복스러운 뺨은 사진①이나 사진④~⑦은 꼭 닮았다.

때문에 정희선은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진들과 사진①을 함께 보이면서 《보십시오. 제 얼굴의 골격이란 형태야 어디 가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마유미》란 녀자를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사진을 놓고 결판을 내자고 단호하게 말했던것이다.

일본경찰청의 《감정》자료는 고의적으로 《선택》된것이고 남조선괴뢰도당이 말하는 《김현희가 확인했다》는것은 《김현희》본인이 공개적으로 증언한것이 아니라 괴뢰안기부가 꾸며낸 날조말투다.



평화통일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

〈4〉

남조선측은 대화마당에 시급히 나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방안을 지지환영하는 여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이 방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쏘련, 중국, 몽골, 웰남, 벌가리아, 로므니아 등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마다가스까르,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가나, 니제르, 민주예멘 등의 쁠럭불가담나라들, 일본, 프랑스 등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높아지고있다.

쏘련의 따쓰통신은 1월 5일, 《민족적화해를 도모하기 위하여》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쏘련의 외교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제안들에 전적인 리해와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평양의 새로운 평화애호적 발기는 조선반도에서 대결을 끝장내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노력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들은 조선반도의 현정세와 북남관계의 현상태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평가에 기초하고있다. 그 제안들은 획기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있다.》

또한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는 1월 19일, 공화국의 당및정부대표단과의 회견석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얼마전에 내놓으신 제안이 실현되여 조선의 통일을 위한 북남대화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적극 지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호응해나서는 기미를 보이고있다.

지난 2월 29일, 남조선의 기독교련합단체인 《기독교교회협의회(KNCO)》는 서울시내의 교회에서 제37차총회를 열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서 조국통일에 대한 기본립장을 밝히고 남북간의 교회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촉구했다.

특히 선언에서는 ①조선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고 ②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③미군을 철거시키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④민족의 리익에 배치되는 모든 외교적 협상과 조약들을 수정폐기할것을 주장하였다. 이 선언은 조국통일과 반전, 반핵, 평화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념원과 반미자주의 지향이 반영된것이다.

이와 같이 북남련석회의의 소집방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크게 앙양되자 미제와 로태우괴뢰도당은 련석회의소집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해나섰다.

미제와 로태우도당은 북남련석회의소집을 방해하기 위하여 ①공화국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려객기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고 저들이 길러낸 《마유미》를 등장시켜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벌려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켰으며 ②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북과 남사이에서는 오해와 불신, 대결과 전쟁 위험이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그러므로 공화국측은 계속 남조선측에 북남련석회의소집을 촉구하고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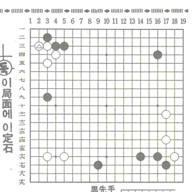
동족사이에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 하지 않고 반목, 대결의 길로 나가는것은 민족을 희생시키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반민족적행위이다.

우리는 남조선의 당국을 포함한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참된 애국애족의 길인 북남련석회의마당에 참가할 용단을 내리고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에 시급히 응해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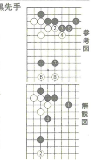
(최종헌)

바둑 다음한수

이局面에 이定石



黒先手



参考図

解説図

左上隅 白이 △으로 뻗어 安定을 기한 局面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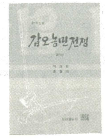
黒은 定石이라고 参考図처럼 두칸 벌리는것은 白은 8까지로 두어 左辺의 黒을 표적으로 삼을것입니다.

이 경우는 解説図처럼 날일자로 뛰여 白2의 협공에 黒3으로 대답하는것이 적절한 応手라고 봅니다.

문화

위대한 사랑에 보답하려는 로작가부부의 충성의 결실

《갑오농민전쟁》 3부 박태원, 권영희 저



인민사적의의 격조높이 확인

다부작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박태원 작)의 마감권인 제3부가 얼마전에 조국에서 일본으로 보내여왔다.

전라도 고부지방 농민들의 봉기를 도화선으로 폭발한 갑오농민전쟁은 1894년, 갑오년당시 극도로 첨예화된 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의 필연적산물로서 우리 나라 근대사에 인민대중의 애국적기개와 피의 교훈을 함께 기록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갑오농민전쟁은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비록 실패하였지만 일제침략자들과 봉건적통치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조선인민의 열렬한 애국정신과 강의한 투쟁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한것으로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바로 이 장편력사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갑오농민전쟁의 인민사적의의를 평가하시면서 소설을 쓸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받들고 창작한 작품이다.

마감권인 제3부는 박태원선생과 그 안해인 권영희녀사의 공저로 되여있다. 소설은 전국 각지에로 급속히 파급되는 농민전쟁에 질겁한 봉건국왕 리형이 외국에 청병(請兵)흉모를 벌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소설은 일본침략자들의 조선출병과 전주화의(和議), 집강소 설치와 《폐정개혁》, 위기에 처한 주권을 바로잡기 위한 농민군의 재기, 공주대격전, 그 실패와 농민군지도자 전봉준의 체포 등 실재한 사건들을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주인공 오상민과 전봉준을 비롯한 각이한 계급과 계층, 인물들의 운명선을 통해 참다운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애국자들이라는 진리를 밝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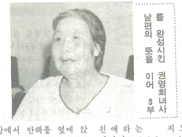
동시에 소설은 어떻게 되여 그처럼 거족적으로 떨쳐나섰던 농민전쟁이 실패하였는가 하는 력사의 교훈을 예술적형상으로 확인하고있다.

공저에 깃든 뜨거운 사연

작자인 박태원선생은 1909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30년대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광명을 찾아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1965)와 같은 력사소설창작에 전념하였으며 상술한바와 같은 경위로 《갑오농민전쟁》의 집필에 달라붙어 1977년에 그 1부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박태원선생은 1부집필시에 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였으며 거기에다 뇌출혈로 전신불수로 되여 제2부는 병상에서 안해를 옆에 앉히고 구술로 창작해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10여년이상 계속된 병마는 제3부의 창작을 앞둔 작가에게서 마지막무기인 말할수 있는 기능까지 앗아갔다.



남편의 뜻을 이어 3부를 완성시킨 권영희녀사

그리하여 제3부는 영영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운명에 처하였다.

이런 속에서 작자의 안해인 권영희녀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편의 몸건강과 집필활동, 생활을 위해 돌려주신 극진한 사랑과 배려,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일념으로 남편의 도움밑에 자신이 소설의 제3부를 쓸것을 결심하게 되였다.

당시 권영희녀사에게는 남편의 창작사업을 방조하는 과정에 알게 된 《갑오농민전쟁》 3부의 구성안과 불충분하게 고증된 자료집, 몇권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는 소설적인 묘사능력을 습득하는 한편 인민대학습당과 사회과학원 등 력사전문 기관과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근 백년전 전라도 농민들의 생활과 풍속 그리고 전쟁상황들을 취재하였으며 피타는 노력으로 여섯번이나 원고를 고쳐서 기어이 제3부를 완성해내였다.

박태원선생은 1986년 7월 10일, 제3부의 간행을 보지 못하고 7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제1부 발표시부터 사상예술성이 높으며 품격있는 대하력사소설로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갑오농민전쟁》은 이처럼 한편의 소설작품을 위해서도 큰 관심과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사랑에 보답하고저 인생의 말년을 아낌없이 바친 한 로작가부부의 성실한 노력의 귀중한 결실인것이다. 이런 깊은 사연을 안고 세상에 나온 본서를 꼭 구독해보기를 권하는바이다.

(낸곳: 문예출판사, 320페지, 값: 710원)

저류

조선로동당의 연극방침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 소개

《근로자》

1987년《근로자》제11호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 발표 열다섯돐과 관련하여 《우리 당의 연극혁명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리령)이라는 글을 실었다.

글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로작에서 주체시대의 연극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종래 연극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우리 식의 새로운 연극을 창작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인류연극사에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며 연극혁명위업을 완성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최근 몇해사이에 우리 연극예술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혁명연극들인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을 《성황당》식으로 형상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인민들로부터 열화같은 환호와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있으며 전례없는 연극의 대륭성기를 맞이하고있다.

또한 글은 우리 당의 연극혁명방침은 최근년간에 나온 다양한 현실주제의 연극들에 의해서도 그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감명깊게 구가한《조국의 품을 찾아서》, 조선로동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생동하게 보여준 《초석》,《맑은 하늘아래 비친 아침노을》, 군민일치사상을 흥미있게 형상한《어머니와 아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감동적으로 밝혀준《이 길을 간다》등을 대표적인 성과작으로 올리고있다.

자주성 실현하기 위한 자랑찬 투쟁 보여주어

《조선통사》 상,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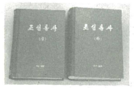
조선인민의 발전력사는 오랜 기간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압박으로부터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술편집된《조선통사》의 상권에서는 원시사회로부터 19세기중엽까지의 조선인민의 창조와 투쟁의 력사를 개괄하였다.

여기에서는 슬기로운 조선인민은 인류력사의 려명기로부터 이 땅에서 하나의 피줄,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매우 이른 시기에 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것, 또한 우리 인민은 외적들의 큰 규모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그를 용감히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왔다는것을 알려준다.

하권은 19세기 60년대로부터 20세기 80년대중엽에 이르는 조선인민의 근대, 현대 력사를 담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력사이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과 창조의 과정인 이 력사적로정에는 반침략 봉건투쟁,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 항일혁명투쟁, 새 조선 건설,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 사회주의전면적건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남조선혁명운동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대외활동 등이 포괄되여있다.



《조선통사》는 근대, 현대 력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되여있다.

민족의 력사와 대중가요 ⑤

금지된 가요들

잊을수 없는 가요들에 대한 범죄적위조행위

조령출

나는 최근시기 남조선에서 출판된《한국가요반세기》라는 책을 보게 되였다.

이 책이 진정 반세기의 가요사를 서술한것이라면 공정하게 민족문화사적량심에서 그 시기시기의 전형적인 노래들, 인민대중속에 깊이 침투되여 생명력이 있었던 가요들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할것이다. 더우기 일제통치시기의 애국적인 노래와 민족적정서를 담은 노래들을 옳게 평가했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서귀포 칠십리》,《울며 헤진 부산항》,《락화삼천》,《집없는 천사》,《락화류수》등 수많은 노래들이 제외되였다.

이 노래들은 일제가 조선민족에 대한 억압착취를 강화하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영원히 말살해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던 1930년대후반기로부터 1940년대초기까지의 사이에 나온 노래들이다.

이 노래들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민족정신의 한줄기 숨결이나마 담아보려고 발버둥친 시혼(詩魂)들이다.

북으로 들어온 사람이 가사를 쓴것이라 하여 이 노래들을 모두 말살한다면 그들을 보고 어찌 조선민족의 넋을 지녔다고 할수 있겠는가. 을사오적만 어찌 매국노라 하랴. 이러한 조치를 취한자는 간악한 외세 미제이며 그 추악한 주구 오적의 후예들이다.

우선《서귀포 칠십리》를 놓고 보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 나는 이 노래에《그리움》에 대한 애절한 망국인의 심정을 담아 가사를 썼던것이다.

망국인이 그리워하는것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선조의 분묘가 있고 자기의 동심시절의 발자취가 력력한 고향과 조국이였다. 서귀포 칠십리의 그 모든것에 의탁하여 나는 그리운 그것을 노래하였었다.

바다물이 철썩철썩 모래 짖는 서귀포
진주 캐던 아가씨는 어데로 갔나
자개알도 그리워라 쌍돛대도 그리워
서귀포 칠십리에 물새만 운다

자개알이 철썩철썩 물에 젖는 서귀포
조개 줏던 아가씨는 어데로 갔나
저녁달도 그리워라 저녁별도 그리워
서귀포 칠십리에 황혼이 진다

여기에 노래한 그리운 그것 진주 캐고 조개 줏던 아가씨, 자개알, 쌍돛대, 저녁달, 저녁별 그 모든것은 그립고 그리운 고향과 조국의 분신(分身)들이였다. 하기에 나자신도 당시 거리에서 들려오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어찌 이러한 노래가 금지되고 《한국가요반세기》에서는 이름도 찾아볼수 없어야 한단 말인가.

《락화삼천》도 그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던 노래이다.

이 노래에서는 6백여년의 력사를 가진 백제가 외래침략세력에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비운을 노래하는 방법으로 리조 5백년의 조선이 왜적에게 하루아침에 망국이 된 비운을 통탄하였다.

반월성너머 사자수 보니
흐르는 붉은 돛대 락화암을 감도네
옛꿈은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고란사 저문 날에 물새만 운다
물어보자 락화삼천 간곳 어데냐
물어보자 락화삼천 간곳이 어데냐

백화정 아래 두견새 울어
백마강 굽이굽이 천년꿈이 새롭네
림해루 옛터전의 저녁연기는
무심한 강바람에 날아오른다
물어보자 락화삼천 간곳 어데냐
물어보자 락화삼천 간곳이 어데냐

여기서 말하는 락화삼천, 간곳이 어데냐고 울부짖는 그것은 바로 조선의 넋이였다.

그러기에 일제놈들은 이 노래에 금곡령을 내리고 나에게 대중가요를 많이 썼다는 《죄》를 들씌우며 위협해나서기까지 하였었다.

그 사상주제적내용에 겁을 먹고 일제가 부르지 못하게 하던 노래를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도 계속 부르지 못하게 하는자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 침략자들이고 쓸개빠진 매국역적들이 아닐수 없다.

일제통치시기에는 민족의 비운으로 슬픈 노래들이 많았으나 이럭저럭 살아보자는것이 아니라 그래도 밝은 지향의 노래, 희망의 노래도 있었다.

그러한 노래의 하나가 《락화류수》일것이다.

이 강산 락화류수 흐르는 봄에
새파란 잔디 엮어 지은 맹세야
세월의 꿈을 실어 마음을 실어
꽃다운 인생살이 고개를 넘자

이 강산 흘러가는 흰구름속에
종달새 울어울어 춘삼월이냐
홍도화물에 어린 봄물결우에
이 강산 봄소식을 편지로 쓰자

오늘 다시 회상하여보아도 밝은 지향을 주는 노래이다.

나는 나의 시고(詩稿)들을 남조선에 두고왔기때문에 이 노래 가사 원본을 가지고있지 못했다. 내가 가지고있던 음판들도 지난 전쟁시기 모두 마사졌다.

몇해전에 나는 이 노래가 수록된 음판을 구하여 들어보았다. 이 노래의 3절에는《행복의 물새 우는 포구로 가자》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는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이 구절을 들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행복의 물새 우는 포구!

그것은 나뿐이 아니라 우리 겨레모두의 희망이였고 리상이였고 꿈이였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나는 그처럼 념원하던《행복의 포구》를 찾았고 인생말년에 이르기까지 복락을 누릴수 있게 되였으니 어찌 눈시울 뜨겁지 않았겠는가.

《락화류수》는 리봉룡이 작곡도 잘하였고 남인수가 부르기도 잘한 노래였다. 지금도 밝은 서정의 선률, 가창자의 청아한 소리는 나의 귀전에 사무쳐 회고의 정을 자아낸다.

《한국가요반세기》에 묻노니 이러한 밝은 지향의 노래는 문밖으로 내쫓기고 그럭저럭 살아보자고 하는 《산팔자 물팔자》와 극도의 동물적선정(煽情)을 추구하는 《기타부기》와 같은 노래들은 꽃방석에 올라야 하겠는가? (계속)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 (260) 5881 内線 453・435 436・428

「8ヵ月ウリマル習得運動」始まる

4月～11月

「互助班」1万組を目標 各地で集い、決意示す

四月一日から「八ヵ月ウリマル習得運動」が各地で繰り広げられる。「ウリマルを学んで共和国創建四十周年を迎えよう！」とのスローガンを掲げて行われる今回の運動は、広範な同胞らが日常的にウリマルを学び使う大衆的な運動であり、在日同胞の中で民族性を守り総聯の地盤を拡大する愛国運動である。現在、各地でその準備活動が入念に行われている中、さる十七日の総聯東京都本部を皮切りに神奈川（十八日）、愛知、福岡、山口（十九日）、大阪、京都（二十三日）の各総聯本部主催の集いがもたれ、運動への取り組みに拍車がかかった。各集いでは、総聯中央・李珍珪第一副議長をはじめ各副議長、宣伝局長らが参席して集いの結語を行った。



民族性守るウリマル問題の解決に活動家らも決意を新たにした（総聯大阪の集い）

「八ヵ月ウリマル習得運動」を大衆的に展開するために催された総聯東京都本部の集いでは、李珍珪第一副議長がまとめの中で、同運動の意義や重要性について強調した。

第一副議長はまず、ウリマル問題が転換期での愛国運動において必ず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あると指摘した。

そして「ウリマルを離れた朝鮮民族を考えられないように、ウリマルを離れた民族愛国運動について考えられない。ウリマルは総聯と在日同胞の民族的主体性を表す基本標徴である。

ゆえに総聯は、結成から今日に至るまで一貫してウリマルを基本手段として、すべての愛国活動を推し進めて来た。

だが、ウリマル問題は世代交代がなされている今日に来て、民族の存亡、愛国運動の前途と関連した重大かつ切迫した問題として提起されている」と述べた。

また、「在日同胞を取り巻く環境の変化とも関連して、この問題に適切に対処すべく、今回、共和国の創建四十周年に当たる意義深い年にウリマルを学ぶ運動においても新しい転換をもたらし、今後より発展させる契機にしようと『習得運動』を進めることになった」と語った。

続いて第一副議長は、今回の運動がウリマル問題の解決と同時に、活動家らの大衆路線を徹底する運動でもあると強調した。

また、運動の重要ポイントが互助班にあると指摘、活動家が同胞らと個別的に行うこの互助班を通してウリマルを教え、学び、また、互い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広げていこうと述べた。

各地に先がけての総聯東京の集いは、「習得運動」への本格的な展開に弾みをつけた。

また各地の集いでも、具体的な目標と方法、決意などが披露された。

とくに互助班を設けるとともに各対象の特性に合わせて、「商工人経済文化教室」「女性文化教室」「学父兄教室」「通信国語教室」、青年学校、日校生の「国語教室」、各支店の「朝銀取引者文化教室」、文化・スポーツサークルでの「ウリマル学習」などが数多く設置されるという。

総聯神奈川では互助班の目標四百五十組、総聯福岡では三百組、また、総聯愛知では二百戸以上の「ウリマル模範家庭」を作るという。

のみならず、四月中に今年度の網羅数七〇％以上を達成すると意気上がる総聯大阪や、五百組の互助班設置を目指す総聯京都、そして祖国訪問事業と関連して運動を展開するという総聯山口など、今運動への取り組みには並々ならぬものがある。

在日朝鮮人に対する最近の人権侵害諸事件に思う

専修大学教授 矢沢康祐

昨年十一月二十九日に行方不明が伝えられた「大韓航空機の消息不明事件」は、「韓国」・アメリカ・日本によっ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テロ行為による爆破事件とされ、アメリカ・日本は共和国に対し、誤った「制裁措置」をとった。

そうした中で、昨年十二月以降、在日朝鮮人に対する暴行・脅迫・嫌がらせなどが続発している。これは黙って見過ごすことのできない由々しい問題である。

チマ・チョゴリを着た通学途上の朝鮮人女子高校生が首を背後から絞められたり、電車を待っていた朝鮮人女子高校生が首を絞められた上、突きとばされホーム下に落とされそうになった事件が起きている。幼い小学校女生徒が電車に乗ろうとした時、四、五十歳ぐらいの男から「朝鮮人は電車に乗るな」と突きとばされたこともあった。登下校中の生徒が大人にツバを吐きかけられたり、けとばされたりもしている。「朝鮮人死ね、朝鮮に帰れ」「朝鮮人は皆殺しだ」「日本から出て行け」「建物を爆破する」という脅迫電話も続出しているといわれる。

朝鮮総聯の建物への投石や、右翼団体の宣伝カーによる「朝鮮人帰れ、日本から出て行け」の暴言も各地で行われている。

こうした忌まわしい事件は、組織的・計画的に行われているとみられるが、他方では、朝鮮人女子中学生を日本人高校生十数人が囲んで「日本に何しに来たんだ。自分の国に帰れ」とこづいたり、朝鮮人小学生を日本人中学生が「みな殺しにしてやる」とこづいたりする事件も起きている。

在日朝鮮人に対する、こうした人権侵害諸事件は、朝鮮に対する植民地支配の歴史への無知と日本における排外的ナショナリズムの存在を露呈している。同時にこれは異なったものを排除しがちな日本社会のゆがみを反映しており、いま日本社会が求められている国際化に反する行為である。日本は、自分の枠組みでしか物事を考えることのできない閉鎖性を打破し、多元的に文化を理解し、多様な文化を大切にし、異質なものを受け入れる社会に転換していくことが迫られているのに、それとは全く逆行する行為である。

その意味で、在日朝鮮人に対する今回の人権侵害諸事件は日本社会の恥部を露呈させたと同時に、その恥部を克服していくために、日本人はどうしていくべきかを一人一人に問いかけてきているといえよう。幸い、在日朝鮮人は「私たちからチョゴリを奪わないで」と訴えるとともに、卑劣な人権侵害に屈せず、民族の誇りをもってそれに立ち向かおうとしている。日本人はそれに甘えず、そうした在日朝鮮人から学びつつ、自らの民族性を変革していく必要があるのだと思う。

それにつけても、日本における「大韓航空機消息不明事件」のとらえ方の異常さは、目を覆いたくなる状況にある。爆破されたという物証は何ひとつないし、墜落したとされるビルマ沖の海域からいまだに機体の残骸・遺留品・遺体が発見されていないのに、共和国のテロ行為による爆破事件とされている。その唯一の根拠とされているのは「真由美（金賢姫）」の「自白」であるが、結局これはその「自白」を信用す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帰着せざるを得ない。そして、その「自白」の信用性は、現在のところ、つまるところは「心証」のレベルでしかない。かかる「心証」によって断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当然のことであり、冷静かつ客観的な見方こそが求められるべきであろう。

関東大震災に際し、六千名以上の朝鮮人が虐殺されたが、その虐殺には「朝鮮人が放火した」「朝鮮人が井戸に毒を入れた」「朝鮮人が襲ってくる」といったデマが大きく影響した。そのデマに踊らされて、日本の民衆の一部が朝鮮人虐殺の加害者となった。これにはデマをデマと判断できず、「本当ではないか」と考える心理的要素があった。そして、その心理的要素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抵抗、独立運動を「不逞（てい）鮮人の暴動」としか教えられず、従って独立運動を理解できず、ただ「朝鮮人は怖い、何をやるかわからない」とのみ信じ込まれていたことと無縁ではない。

在日朝鮮人に対する今回の人権侵害諸事件においても、似た状況がみられ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を敵対視し、共和国をむやみに「恐ろしい国」とイメージさせることは誤っているし、すべきではない。それは民族的排外主義を助長する結果を生む。その点で日本政府およびマスコミ等の責任は重大である。



暴力や敵視に屈せず、「チョゴリは私たちが守ります」と胸を張るウリ女学生（写真は神奈川朝高の学生ら）

KAL機事件で 朝・日学者たちの懇親会

KAL機失そう事件発生以来、内外反動による反共和国・反総聯謀略策動が横行していることと関連して、さる二十五日、朝・日学者たちの懇親会が東京・千代田区の如水会館で開かれた。

懇親会には主催団体である在日本朝鮮人科学技術協会、朝鮮問題研究所の職員と社会科学者、明星大学・鈴木二郎、法政大学・西田勝、中央大学・伊藤成彦、専修大学・福島新吾、創価大学・三井為友、東海大学・島津猛の各授をはじめとする日本の各教大学教授と研究者ら多数が参加した。

懇親会の前に、鄭妮善さんの証言を収録したビデオが上映された。

はじめに主催者側を代表して、社協副会長である朝鮮問題研究所・申熙九所長があいさつした後、評論家の中川信夫氏がKAL機失そう事件と関連して報告を行った。

氏は、南朝鮮「安企部」が示した唯一の「根拠」とされる「真由美自白」の虚偽性は完全に露呈したとし、十六年前、平壌で南側代表に花束を直接渡した鄭妮善さんの証言について具体的に言及したうえで、南の言う「爆破説」は、すでに日本のテレビの追跡調査を通して、それが何の根拠もないということが暴露された、と強調した。

また、事件の動機と実行能力を見ると、軍事独裁「政権」の中枢部であるとともに、超法規的で強大な力を持つ南朝鮮「安企部」自身の犯行として見る必要があるとした。

報告終了後は参加者たちが、盛んに意見を交換し合った。

水曜訪問

世界を目指す

第24回中部日本フィギュアスケート選手権大会で優勝した 金鉄勝くん



1972年8月24日、名古屋で生まれる。愛知第三初級の4年生からスケートを始める。愛知中高の中級部を卒業。来月から同校の高級部1年生。4人兄弟の末っ子。167ｾﾝ、50.5ｷﾛ。

「コンディションも良かったし、大会の四日ぐらい前から優勝できると思っていました」

第二十四回中部日本フィギュアスケート選手県大会（二十一、二十二日・長野）での優勝の感想を聞くと、強気な答えが返ってきた。

これまで毎日、四～五時間の練習をこなしてきた。その自信の現れだろう。

十五歳。きゃしゃな体つきと端正な顔立ちは、スケーターのイメージにぴったりである。

初級部四年生のとき、好きで度々寄っていたスケートリンクで、インストラクターにフィギュアをやってみないか、と誘われた。

始めて間もなく頭角を現し出し、その年のシーズンに愛知県のジュニア大会で優勝している。以後、愛知県大会、中部大会などで優勝。

昨年初出場した東日本大会では五位、全日本では八位に入賞した。

「優勝したり、ジャンプがうまく飛べると、とてもうれしいから」スケートを続けているという。

現在、五種類ある三回転ジャンプのうち、四種をクリアした。一六七ｾﾝの背を生かし、ダイナミックで華麗なスケーティングを見せる。

「体力がなくて、後半にスピードが落ちることと、ジャンプに波があること」が弱点だと自己分析する。

その克服に、ウェートトレーニングやクラシックバレエのレッスンにも励んでいる。

去年は三ヵ月間、祖国で練習をしてきた。「友達がたくさんできたのが、いちばんうれしかった」という。

「日本でもハッキョの友達や同胞が応援してくれます。プレッシャーも感じるけどがんばります」

その気合で、来月（三～五日）のジュニア全日本選手権に挑む。

オモニがデザインしたコスチュームを着て、三位入賞を狙う。

しかし、一番の目標は次のオリンピックに出場すること。早くも世界を相手にしている。（香）

トンポの街かど

分会からのプレゼン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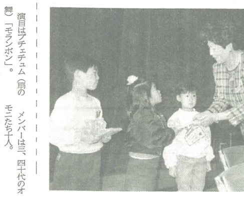
女性同盟埼玉・熊谷分会「新入生を祝う集い」

女性同盟埼玉・北部支部熊谷分会の「新入生を祝う集い」が二十四日に催された。

集いには、来る四月一日に埼玉朝鮮初中級学校に入学する子供たちをはじめ、オモニたちや在学生など二十八人が参加した。

会場となった支部の講堂には、この日集まった子供たちのかいた絵やはり絵などの作品が展示され、また、オモニたちの手による飾りつけで、講堂内は華やかな雰囲気に包まれた。

この日、祝ってもらった新入生は三人。ウリ幼稚園が遠いため、日本の幼稚園に通った子供たちだが、女性同盟分会長から手渡されたプレゼントを手にすると「コマプスムニダ」とウリマルでしっかりあいさつ。（写真）



新入生の文亮基ちゃんは、在学生からの歌のプレゼントに「僕も早くウリマルの歌がうたいたいなぁ」と手拍子、林順姫ちゃんは「ハラボジにランドセルを買ってもらったの」と大きな目をパチクリさせる。

「早くトンムがたくさん出来たらいいね？」の質問に笑顔でうなずく金梨香ちゃんも、ハッキョに行く日が楽しみのようだ。

そしてオモニたちは「今日の祝賀会を機にこれからも誕生会など、子供のための集まりを随時催していこう」との意見一致を見た。

「ハッキョが遠くて心配だけど、チョソンサラムとして育てることが大切です」と盧松枝オモニの力強い言葉も印象的だ。

学校までは通学バスで約二時間。それでも新入生たちは入学式が待ち遠しい。

民族舞踊の練習に励む

女性同盟新潟支部

女性同盟新潟・新潟支部のオモニたちは現在、民族舞踊の練習に励んでいる。

今月の二十二から二十四日にかけての三日間、同支部内の有志が新潟朝鮮初中級学校の体育館に集まって、歌舞団のメンバーの指導の下に“特訓”を行った。

演目はプチェチュム（扇の舞）「モランボン」。メンバーは三、四十代のオモニたち十人。

これは来る四月十五日に行われる、金日成主席誕生七十六周年記念の祝賀公演に出演するためのもの。

初心者ばかりとあって、初めのうちは「急に教わってもうまくいくかしら」と尻込みしていたオモニたちだったが、歌舞団のトンムの本格的なコーチが受けられるということで、「こんな機会はめったにない」とばかりに熱心に練習を続けた。

家事を大急ぎで片付けて学校に集まり、慣れない手つきで扇を操る。

公演には、新潟初中に通う子供たちも出演するだけに、「子供たちには負けられない」と、練習にもますます熱がこもる。

二日目は、午前・午後の二回、朝から晩まで練習を続けたほどの熱の入れよう。

公演当日の“熱演”が期待される。

朝信伏見10周年記念 大フェスティバル

多彩な企画で大盛況

千六百余人が参加



多くの同胞が家族連れで参加し、会場は大いににぎわった

「伏見にこんなに同胞がいたなんて」、「本当に来て良かった」――そんな声がいたる所で聞こえた。京都朝信伏見支店（金昌出支店長）が開店十周年を記念して、二十七日に行った大フェスティバル。この日会場となった京都伏見のパルスプラザは、千七百余人の伏見同胞らでわき返った。（丘）

会場に入ってまず目に付いたのが、「フォトコンテスト――わが家の人気者」のコーナー。

展示された百三十枚のパネルは、いずれも伏見支店渉外係員たちが、取り引き先などを一軒一軒回って集めた同胞家庭自慢の写真をパネル化したもの。即売コーナーには、女性同盟伏見支部のオモニたちが、週三回伏見支店に集まって作ったというオリジナル・アートフラワーやエプロン、セーター、絵画、五円玉で作った五重之塔などが、所せましと展示された。

女性同盟では、この日の即売コーナーや飲食コーナーの収益金で一輪車五十台を京都第一初級学校に贈るなど、収益は学校に寄贈するという。

その他学校生活紹介コーナーには、京都第一の学校生活を具体的に紹介する写真や作文などが展示された。

フェスティバルでは、なによりも子供たちが楽しめるように、人形劇、「らくがきの園」、「金魚すくい」などをプレイランドとして特設。はしゃぎ回る子供たちの元気な姿が目に付いた。

つづいて行われた記念公演では、一部として京都朝鮮歌舞団の歌と踊り、安聖友氏のマジックショーなどが行われ、二部では伏見バレエサークルオモニのモダンバレエや、チョゴリファッションショー、チャンゴ、そして京都第一の生徒による農楽、カヤグム演奏などが披露された。

◇　◇

「なにしろ京都朝信の支店としては、初めての試み。とても支店だけの力では出来なかった。総聯支部や女性同盟、そして朝青など伏見のあらゆる組織が協力してくれたことが、成功の第一要因」と語るのは、今回のイベント運営を担当した金世旭副支店長。

昨年の六月に企画し、八月から具体的な準備に入った。今回のイベントでは、とりわけオモニたちのパワーが大いに発揮された。

伏見支店の後援会である「婦人友の会」を中心に、今回オモニたちはアートフラワー展示、バザー、飲食店のすべてを担当した。また、二部の公演を準備するために百四十余人を動員。女性同盟の指導のもとに、チャンゴや舞踊、チョゴリファッションショーの練習を毎日のように行った。アートフラワーを作るときには、KAL機事件に関するビデオを流すなど学習も行った。「南朝鮮や日本当局の策動が激しい時ほど団結して、謀略などぶっ飛ばそう」とオモニたちの気勢は、日増しに盛り上がった。こうした同胞の愛国心、愛校心が、この大フェスティバルを成功させた力の源泉ともいえよう。

「いつもはあまり顔を出さないが、今回は子供にせがまれて来てみた。伏見にこんなにトンポがいるのかと本当にびっくりした。来て良かった」（一家そろって参加した朴守明氏）という声が多く聞かれた。



子供たちが楽しめるようにプレイランドが設けられた

第2回国際少年柔道大会（7～8歳の部）

金三宏君が優勝

全泰勲君はベスト8



優勝した金三宏君（左）と全泰勲君

東京朝鮮第九初級学校に通う金三宏、全泰勲君（初二）が、日仏武道倶楽部（フランス大使館）主催の第二回国際少年柔道大会に出場し、好成績を収めた。

今年で二回目を迎えたこの大会には、日本にある各国大使館の子どもたち四百五十余人が参加した。

二人は七～八歳の部（六十人参加）に出場。三宏君は七人の選手を見事勝ち抜き、優勝。また、準々決勝まで勝ち上がった全泰勲君もベスト8に入った。

優勝した三宏君は柔道を始めてわずか七ヵ月、泰勲君は五ヵ月。だが、道場（東海大学内望星学塾、松前柔道塾）では、一番経験の浅い二人がトップを争っているという。

これまでにも三宏君は、小金井大会（十一月）、埼玉県大会（十二月）、武蔵野大会（一月）の各大会で常に優勝し無敵と言われてきた選手を下し、新人でありながら、優勝メダルをすべて獲得してしまった。そして一月の三多摩大会（団体戦）も二人の活躍によって同道場が優勝するなど、今、日本の関係者もこの二人に注目しているという。

一週間の内、三～四日は道場通い、残りは学校のチビッコサッカーの練習に余念のない二人。

「将来、柔道の選手になりたい」（三宏）、「柔道も好きだけどサッカー選手になりたい」（泰勲）と二人の夢はそれぞれ違うが、「心身ともに強い子になってほしい」という父母たちの願い通り、たくましく育っている。

少しやんちゃな二人だが、これからが楽しみなチビッコ選手たちだ。

高校ボクシング

朝高選抜が圧勝

強豪日本近畿選抜に10対2

第四回朝高選抜対日本近畿高校選抜ボクシング大会が二十六日、大阪文化会館で行われた。

同試合は、毎年春に定期戦形式で開かれているもので、過去の戦績は一勝一敗一分の五分。今回朝高側は、昨年度中央体育大会で優勝、準優勝校の大阪、東京の選手が中心。一方の日本側は、一昨年度インターハイ三位の南京都を中心に、京都、大阪、兵庫、和歌山各県のインターハイ代表選手らが参加した。

試合は初戦から車泰平（東京）が昨年度モスキート級近畿チャンピオンの伊藤（南京都）を相手に激戦を展開。接戦だったが、わずかに手数にまさる車が判定勝。続くライトフライ級の趙悠徹（大阪）は、昨年度中央体育大会同級優勝者の貫禄を見せ西岡（南京都）を終始圧倒、一回一分十八秒、日本側からタオルが入った。

勢いに乗った朝高選抜は、フライ級の牟潤邦（大阪）が近畿チャンピオン橋本（南京都）を、フェザー級では中央大会同級優勝選手、朴大助（東京）が強豪山下（浪速）を判定で破るなど日本近畿選抜に圧勝した。最優秀選手には朴大助、優秀選手には西嶋（南京都）の各選手が選ばれた。

試合結果はつぎのとおり。



初戦から激戦となった試合。朝高選抜が圧勝した

モスキート級
〇車泰平（東京）
P 伊藤善郎（南京都）

ライトフライ級
〇趙悠徹（大阪）
棄権 西岡義晃（南京都）
〇李貞治（大阪）
RSC 岩城光（和歌山）

フライ級
〇牟潤邦（大阪）
P 橋本尚樹（南京都）
〇黄參宇（神戸）
P 木田広明（信楽）

バンタム級
〇朴大助（東京）
P 山下伸也（浪速）
〇玄成沢（大阪）
P 橋本和昌（南京都）

フェザー級
〇朴裕司（東京）
KO 増本豊（南京都）
〇呉浩鎮（大阪）
P 清本康宜（和歌山北）

ライト級
〇朴守用（大阪）
RSC 高山康男（南京都）
×李俊和（東京）
P 大橋俊夫（浪速）

ライトウェルター
×丁勳（東京）
RSC 西嶋努（南京都）

（朝高選抜の十勝二敗）
※P＝判定、RSC＝レフェリーストップコンテスト

ふれあい

息子の一年

東京都　崔淳美（主婦）

昨年入学した長男が、この四月には二年になる。ちょっと大きめだった紺の制服もぴったり体に合い、幼かった顔つきも引き締まってきた。何よりも、恥ずかしげながらもウリマルをよく話すようになった。気分の良い時には、声をはりあげてウリノレをよく歌っていたりする。

こんな息子だが、入学当初はかなり親を手こずらせた。

とびっきりの人みしりで入学式場には入らず仕舞い。始業後もしばらくは毎日、校内で一時間ほどぐずる。ある日などは学校に行かず、卒園したばかりの幼稚園へ行ってしまったこともあった。

それでも往復一時間の徒歩通学になれてほっとしたころ、第二の難関到来。実はこれが大きなネックだった。本格的に授業が始められた五月の中ごろ、帰宅するやランドセルを放り出し、勉強しないと荒れ始めたのである。

普通でない息子の姿に、カッとなる気持ちを抑えて理由を聞いてみたら、ウリマルが難しくてわからないという。

一年生の国語の授業は毎日二時間。年間を通して大変ハードなカリキュラムが組まれていると担任の教師は語っていたが。

それにしても核家族で、ウリ学校は出たものの、家庭でウリマルを使うことなく子供を育ててきたことが今さらながら悔やまれた。

息子と話し合って、翌日から毎日三十分間、宿題のプリントを中心に親子でウリマル学習に励んだ。習った単語は日常会話に取り入れた。発音は念を入れて繰り返し行った。見つめる息子の目は真剣そのもの。学校でも一生懸命らしく、ある日は、新たに習った母音の形そのままの口をして帰宅したほどだった。

こうしたことが功を奏したのか、息子は日増しに、はつらつとしていった。顔に自信がにじみでるようになったころ、一学期が終わった。ウリマル学習を通じて息子は、朝鮮人としての自覚を体得していったかも知れない。

一学年修了の日、最優等と皆勤の二つの賞状を手に、息せき切って帰ってきた息子の姿がとてもまぶしかった。



聴衆を魅了したアンサンブル

中大阪初中吹奏楽部第8回定期演奏会

中大阪朝鮮初中級学校吹奏楽部第八回定期演奏会が二十四日、森ノ宮ピロティホールで開かれた。

この日、約五百人の観客が詰めかけた演奏会。一部では昨年の中央芸術大会で金賞を受けた課題曲と自由曲「血の海 第一楽章」をはじめ「朝鮮民謡お国めぐり」と題した民謡メドレーを演奏し、舞踊部が「かかしと乙女」を披露した。

また、三十人のOBが賛助出演した二部では、交響曲「花を売る乙女」第一、四楽章の他、海外の名曲を演奏。金管、木管の調和のとれたアンサンブルで聴衆を魅了した。

OB会が主催し、今年で八回目の同演奏会。収益はすべて同校の楽器を購入するのに使われている。

今回も企画、実行ばかりでなく、出演の他に演奏会の進行や舞台裏の仕事まですべてOBたちが行った。

父兄たちも「演奏会の規模ばかりか、技術も中学生とは思えないくらい素晴らしかった」と感想を述べていた。



中央芸術大会でも常に入賞している中大阪初中吹奏楽部。OBたちの協力のもと、伝統が受け継がれていく

月間論調

日本の雑誌―4月号の論調

KAL機事件

求む事実への冷静な目

機体捜索に努力なし

三月十五日、総聯が派遣した取材班が平壌で鄭姫善さんに直接インタビューしたビデオや写真を公表した朝鮮総聯中央記者会見（三月十五日）以後、連日、日本のマスコミをにぎわせていた「真由美」、「恩恵」報道がピタリと止んでしまった。

「世界」は、「大韓航空機事件の死角」と題し、高柳芳夫氏（作家）、中薗英助氏（同）、前田康博氏（ジャーナリスト）による座談会を行った。

この中で中薗氏は「事実を冷静に受け止めて分析し、疑問を投げかけ、批判する立場が、非常に圧迫されてきている」と述べながら興味深い発言をしている。

少し長いがそのまま引用する。

「ずいぶん前ですが、秋田の能代海岸に暗号書や無線機やソ連製拳銃を身に着けて死体で流れついた北朝鮮スパイ事件があってマスコミが騒ぎたてたのを調べたことがありまして、あまりにもおどろおどろしいのでおかしいという推理をしたのですが、それから十数年たって、キャノン機関にいた旧軍特務機関員の中島という人が、あれは自分たちがやったんだという告白を書いた。

当時は北との友好運動が盛んで、それをこわすために、北朝鮮スパイがどんどん北からきているんだという恐慌説を煽るために、北朝鮮の潜入スパイに仮装した死体を流した、そういう事件だったことがわかりました」

この発言で興味深い点のひとつは、南北の緊張緩和時に事件が起きるという点、もうひとつは、謀略事件は、数十年がたって真犯人が出てくるものだという点だ。

また、高柳氏は情報操作について「…なんらかの意図が、韓国、日本、あるいは米国の当局のあいだに働いているのではないのだろうか…」と指摘。

その他、「新地平」では、増山太助氏（同誌主幹）が、「…もっと大きくいえば、人民共和国が西側諸国に門戸を開こうとする動きを封じ込め、冷戦の火種をたやさない狙い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との視点を投げかけている。

「現代の理論」にも「『真由美事件』新聞報道の罪過」（中村以久子氏）がある。

米・日・南朝鮮はKAL機事件の発端である機体、遺体の捜索になんらの努力もしていない。しかも、なぜ機体、遺体を捜索しないのかとの疑問を呈する新聞も皆無だ。

「新地平」には「大韓航空機をめぐるマスコミ報道の狙いと韓国政治情勢」（現代朝鮮史研究者仁科健一氏）もある。

この中で仁科氏は、盧泰愚の六・二九宣言の八項目を列挙し、実現された項目は「大統領」直接選挙制の実施だけであったとしながら、「彼を民主化を実現できる人物といえるのだろうか」と指摘している。

米・日・南朝鮮による反共和国謀略策動は、「申相玉・崔銀姫事件」へとエスカレートしている。

「DAYS」でジャーナリストの青木直人氏は、申・崔両夫妻の"ら致"説について疑問点を列挙している。

その他、「潮」に鎌田慧氏の現地ルポ「"韓国のデトロイト" 蔚山の熱気」がある。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3월 31일 (음력 2월 14일) 목요일 【루계 제10171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군부독재 타도하자》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련일 반《정부》투쟁 전개

군사훈련반대, 《새마을의혹》규명 등 구호를 들고

로동자들과 공동시위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련일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남조선로동자들과 함께 괴뢰도당의 로조탄압행위를 규탄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린것을 비롯하여 괴뢰서울지방로동청에 대한 항의,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전두환, 로태우일당의 부정부패 규탄, 괴뢰도당의 학생들에 대한 군사연습강요 반대투쟁 등 다양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서울에서 청년학생들이 괴뢰지방로동청을 공격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한 집단의 청년학생들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로동자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의 폭압책동에 항거하여 26일 괴뢰서울지방로동청에 대한 공격투쟁을 단행하였다.

10여명의 청년학생들은 이날 아침 《로동운동을 탄압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종로구에 도사리고있는 괴뢰서울지방로동청사무실을 공격하였다.

이에 앞서 25일 새벽에도 광주의 대학생들이 그곳 《민정당지구당》사를 공격하여 파쑈도당을 불안에 싸이게 하였다.

서울, 연세, 서강 대학 학생들이 련합집회와 시위

다른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300여명의 학생들이 25일 로태우군사불한당의 《전방입소》놀음을 배격하여 련합집회와 시위투쟁을 단행하였다.

각 대학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앞에 집결하여 가진 집회에서 군사불한당이 《학생군사교육을 분단을 고착시키고 현〈정권〉을 유지하는데 리용하고있다》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방입소를 철폐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학생들은 시위에로 넘어가 가두에로 진출하려다가 경찰의 저지를 받게되자 최루탄을 쏘아대는 놈들에게 돌벼락을 들씌우면서 1시간동안 투쟁을 계속하였다.

전남대, 조선대에서도

전두환족속들의 부정행위 단죄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학생 1,000여명이 25일 반《정부》시위를 벌렸다.

전남대학교 500여명의 학생들은 전경환이 감행한 《새마을운동본부》부정사건을 철저히 규명할것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렸다.

그들이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들고 시위투쟁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경환족속들의 부정협잡행위를 시종 감싸고있는 로태우군사불한당은 전투경찰대를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쏘아대게 하면서 폭압에 미쳐날뛰였다.

격노한 시위자들은 이에 투석전으로 강력히 대항하면서 부정협잡행위에서 전두환, 전경환일당과의 공모자인 로태우역도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표시하였다.

조선대학교 500여명의 학생들도 교내 광장에서 2시간동안 반《정부》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단행하였다.

《민정당》 지구당사에 된매

25일 광주의 청년학생 200여명이 광주학살원흉 로태우군사깡패도당에 대한 울분을 안고 광주에 있는 《민정당》 전남지부당사와 광주 북구지구당사를 공격하였다.

오전 8시 20분쯤 청년학생들은 8년전 광주에서 수많은 애국시민을 학살한 원쑤들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켜 《민정당》 전남도지부당사를 들이쳤다.

경찰놈들이 최루탄을 쏘아대며 탄압을 가하자 분노한 청년학생들은 맞은켠에 있는 《민정당》 광주북구지구당사를 공격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연세, 고려 대학 학생들이

괴뢰군전방부대입소 훈련반대시위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연세대학교 학생 100여명이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이 강요하는 괴뢰군전방부대입소훈련을 반대하여 28일 격렬한 시위투쟁을 벌렸다.

파쑈도당이 이날 학생들을 군용자동차에 싣고 괴뢰군병영이 있는 군사연습장으로 내몰려 하자 격노한 학생들은 《전방부대입소의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웨치며 기세를 올렸다.

이 대학의 교문밖에서 시위를 단행한 학생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며 달려들자 돌벼락을 안기면서 견결히 싸웠다.

시위가 끝난후 40여명의 학생들은 대오를 헤치지 않고 학생회관에서 롱성투쟁을 계속 벌렸다고 한다.

한편 고려대학교 학생 2,900여명도 이날 파쑈도당의 괴뢰군전방부대입소훈련을 배격하여 3시간동안 격렬한 시위투쟁을 단행하였다고 방송은 전하였다.



로조탄압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견결한 시위를 벌리고있는 울산의 현대중공업 로동자들

사설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적극 벌리자

3월 28일 일본경찰청은 국회에서 그 무슨 사진의 《감정》결과란것을 들고나와 꽃다발소녀는 현재 평양에 거주하고있는 정희선녀성이 아니라 《마유미(김현희)》란 생억지주장을 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해낸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는 《김현희》가 아니라 평양에 현존하는 정희선녀성임을 비데오와 사진, 증언으로 명명백백히 립증한 3월 15일의 총련중앙의 기자회견은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여론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로써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자체가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에 의한 후안무치한 자작자연극이였다는것이 여지없이 폭로되여 악의에 찬 《김현희사건》, 《리은혜사건》 소동은 박산나고말았던것이다.

이에 당황한 일본당국은 경찰청을 시켜 저들의 직무와는 하등의 관계도, 인연도 없는 일본 《아까하다》특파원이 찍었다는 정희선녀성의 사진, 《김현희》의 사진을 《감정》하도록 한후 그 무슨 과학의 냄새까지 풍기면서 《꽃다발소녀는 김현희》였다고 강변해나선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본당국이 남조선괴뢰들의 려객기모략소동을 안받침하기 위해 얼마나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보인 작태라 아니할수 없다.

일본경찰청당국의 이른바 《과학적인 감정》이란것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이다.

우선 일본경찰청은 얼굴모습이 어떻고 턱모양이 어떻다고 떠벌이였는바 일본의 일부 신문들에 나온 《감정》의 정희선녀성의 사진은 희미하고 해산직후 얼마안된 여윈 얼굴사진들이다. 또한 《감정》결과에 비슷하게 인위적으로 수정까지 해놓은 사진이다.

본지가 발표한 어린시절부터 성장과정에 이르는 정희선녀성의 사진을 보면 그 어떤 《과학적인 감정》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는 정희선녀성이 틀림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경찰청》이니 그 무슨 《과학적감정》이니 하는 《권위》까지 발동시키면서 이렇게 사실을 외곡하는가. 이것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공범자가 바로 일본당국이며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의 장본인이 미제,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당국임을 스스로 폭로한것외의 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이름으로 일본당국의 부질없는 모략소동을 치솟는 민족적의분으로 견결히 규탄단죄한다.

또한 우리는 남조선괴뢰들이 일본의 일부 보도기관들에 남조선 《안기부》의 일방적인 발표내용을 그대로 대서특필하도록 애걸하는 한편 저들의 그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남조선주재지국도 페쇄하고 올림픽취재도 《제재》하겠다고 위협하고있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보도기관들이 《진실보도》를 대명사로 내걸고있는 이상 남조선괴뢰들의 장단에 맞춰 춤출것이 아니라 편견보도자세를 시급히 시정해야 할것이다.

오늘의 조성된 정세는 총련 각급 기관과 전체 총련일군들이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비롯한 내외원쑤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과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하고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국과 총련중앙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신심을 가지고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긴장한 정세하에서 총련대오의 조직사상적단결을 보다 강화하며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대적정치투쟁을 보다 고차원적인 요구성과 총련이 놓여있는 복잡한 환경의 요구성에 맞게 대책을 제때에 주동적으로 강구하고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분회와 동포군중 속에 더 깊이, 더 많이 들어가 사업함으로써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모략소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기 위한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리용하여 전군중적으로 짜고들것이다.

그리하여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더욱 확대공고화하고 일본의 정당, 사회단체를 비롯한 광범한 일본인민들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것이다.

모두다 충성심과 창의창발성을 다 발휘하여 우리 조국을 원쑤들의 공격으로부터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

평화를 파괴하는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을 견결히 규탄

전쟁도발책동을 엄중히 경고

쏘련 따쓰통신이 지적

26일 따쓰통신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폭로규탄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통신은 군축과 긴장완화에 관한 북남련석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의 날자로 북측이 제의한 3월 28일이 다 되여올 때까지도 남측은 공화국의 건설적인 발기들을 외면하면서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고 남조선당국은 지연전술을 쓰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립장에 그늘을 던지려고 책동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통신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남침위협증대》등의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우리를 헐뜯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남조선당국과 그의 대양건너 비호자들은 이러한 구실들을 리용하여 저들의 군사력 증강과 《팀 스피리트 88》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통신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들이 실현되면 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대결로부터 건설적인 대화에로 이행하며 조선인민의 주되는 문제인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현실적인 진보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깨달을 때가 되였다고 지적하고 북측발기의 우점은 그것이 남조선당국뿐아니라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다 회담에 참가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통신은 끝으로 일본당국이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장본인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정상화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로 되고있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공공연히 지지해나서고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

중국의 신화통신도 글을 발표

23일 신화통신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제목밑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통신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 막대한 군사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으로서 조선인민의 의사에 대치되는것이며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통신은 올해초에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이 제시된데 언급하면서 그러나 남측은 온갖 구실밑에 북의 평화제안을 거부하고 긴장한 정세를 조성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실현되는것을 방해하려고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계속 감행하고있다고 단죄했다.

통신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조선인민의 숙망이며 조선의 분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통신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이 남조선으로부터 저들의 군대를 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우리 나라 각지에서 계속

군중 대회와 집회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전국 각지의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지지하는 군중대회와 군중집회가 26일 원산시, 남포시, 평양화력발전소, 은파군양동협동농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와 집회에서 한 연설자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리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침략성과 엄중성에 언급하고 미제는 이 모험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핵무력을 비롯한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만일 미제가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듣지 않고 끝내 핵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보복을 가할것이라고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한편 청진시, 해주시, 황해북도 서흥군,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에서도 군중대회와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는바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전쟁연습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사랑를 밝히시며

주체의 혁명리론의 전면적인 심화발전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을 벌려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근본 원리와 특징에 대한 해명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개척

우리 학습실

당 정책교양을 일관으로 잘해야 한다

세계의 목소리

고전적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학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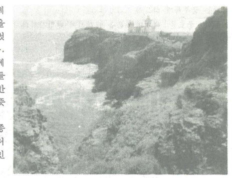
《새로 밝혀진 주체의 인생관》

항프리이 오스가아 파아크



(수리남주체사상 연구회 위원장)

한장의 사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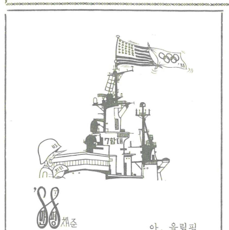
사람의 손길은 외진 섬마을에도 뜨겁게 미치고있다.

등대섬마을의 분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업적에 대한 토론회 진행

애 급 에 서

[조선중앙통신=조선신보]



아, 올림픽

목소리

개마을 추상

3월결산사업 성과적으로 마무리

각지 신용조합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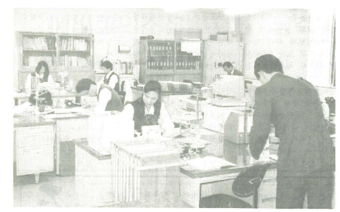
예금확대목표를 달성

조합창립 35돐을 지향한 《555운동》 심화

조은후꾸오까신용조합

《모두가 주인, 넓히자 조신의 뉴대 30》운동 한창

조은사이다마신용조합



《555운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조은후꾸오까신용조합 일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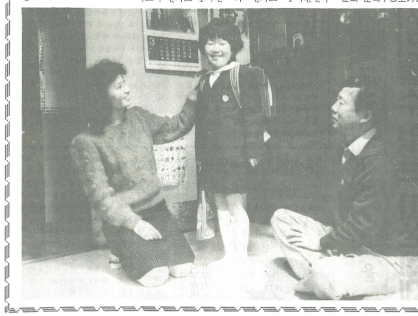
예금액 100억원대로, 년간장성률 32%, 거래자 105호 확대

지점개점 20돐 기념행사를 전기관적, 군중적으로 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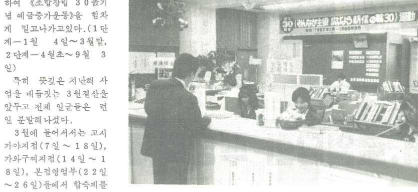
조은도꾜 아다찌지점

사진교정 우리 삶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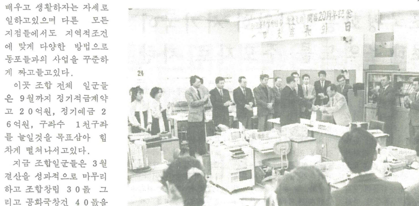
⑪



(사진은 총련 도찌기현 중부지부 우쯔노미야분회 문복수동포가정)



조은사이다마신용조합 일군들은 동포조합원들과의 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지난 24일, 조은도꾜 아다찌점은 《하루지점장의 날》로 흥성거렸다.

제4회조일친선권투대회 진행

조고선발-긴끼지방 고등학교선발

10대 2로 조고가 압승



오사까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조일친선권투대회

총련 피또부 미나미지부에서 교육강연회

[미나미분국]

괴뢰국회의원선거 앞두고 군사독재강화에 혈안이 되는 로태우일당

가리울수 없는 파쑈체제의 실상

수많은 군사깡패들을 《공천》

4월말에 예정된 괴뢰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로태우일당은 파쑈군사독재체제의 기반을 구축해보려고 혈안이 되고있다.

지난 18일 로태우일당은 《총선거》에 출마할 괴뢰여당 《민정당》의 《공천자명단》이란것을 발표하였는바 《공천자》들은 주로 괴뢰군출신자들을 비롯한 파쑈독재의 하수인들로 꾸려져있다. 이것은 괴뢰국회를 거머쥠으로써 독재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보려는 기도의 표현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로태우는 입만 열면 무슨 《보통사람의 시대》요, 《문민정치》요 하는가 하면 지어는 《민주화》에 대하여 떠들고있다.

그러나 《대통령》자리에 앉은 로태우의 모든 거동은 이러한 구호가 아무런 내용이 없는 허구에 찬 기만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로태우일당은 그 어떤 수작으로써도 군사파쑈독재자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무색해지는 《문민정치》의 기만적구호

로태우일당이 내놓은 지역구 《공천자》(총 224 … 발표)명단을 보면 《보통사람의 시대》, 《문민정치》를 …



…환군사독재체제를 조작하는 쿠테타놀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한자들이며 파쑈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여온 군사깡패들이다.

정권 후반기의 12대괴뢰국회의원선거때의 군출신 《공천자》수(13명)에 비해 2배나 되는것으로서 로태우일당이 떠드는 《문민정치》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남조선신문은 《군출신인사의 대량확보는 권력핵심의 군출신인사들이 공천심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때문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동아일보》 3. 18)고 지적했다.

군사깡패의 대량《공천》은 우연한것이 아니라 그것은 로태우괴뢰정권이 그 …

괴뢰군을 핵심적 기반으로



남조선의 민주단체가 낸 선전물에서

전,로일당의 부정축재를 규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로태우역도를 주모자로 지탄

남조선의 야당들이 진상규명을 요구

《새마을운동본부》의 부정행위를 감싸려는 수작

카톨릭농민회도

녀성단체련합이 성고문사건관련자의 처벌을 요구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1일 (음력 2월 15일) 금요일 【루계 제10172호】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숭고한 사랑의 자욱 뜨겁게 아로새겨 4월명절을 충성의 열정으로 맞이하리라》

도서 《위대한 사랑의 길》 학습 진행

총련 지바현본부 일군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각지 총련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는 학습을 진행하고있는 속에서 총련 지바현본부 일군들은 덕성실기 《위대한 사랑의 길》에 대한 학습을 벌리고있다.

이곳 본부일군들은 지난 기간 《인민들속에서》, 《은혜로운 품》등 덕성실기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영광과 행복을 간직하며 충성심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또한 이곳 일군들은 올해 2월명절을 앞두고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배우는 학습을 강화하여 내외원쑤들의 국제적모략을 단호히 짓부셔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애국사업을 밀고왔다.

이곳 본부일군들은 지난 기간의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4월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이 학습에 앞장설 결의를 다지고있다.

일군들은 얼마전에 도서중 《만경대는 기다리건만》을 독보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서자란 고향이며 조부모님께서 계시는 만경대가 간절히 그리울수록 먼저 찾아봐야 할 공장과 농촌들을 생각하시여 고향땅에 먼저 들리실것이 아니라 강선제강소를 찾으신 이야기며 조국해방전쟁이 위대한 승리로 끝난 직후 강반석어머님의 서거 스물한돐이 되는 날을 앞두고 어머님의 산소에 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후복구건설을 위하여 황해제철소로 떠나신 이야기들을 일군들은 커다란 감동속에서 읽었다.

오직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해야 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가슴깊이 새긴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총련애국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결의를 다지였다.

조청본부 오학성부위원장은 《오늘 조성된 정세하에서 그리고 총련 제14차전체대회 결정 집행을 위해서도,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해서도 우리 일군들이 동포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의 응당한 임무입니다.

오늘 도서를 학습하면서 그것을 다시한번 배우게 되였습니다.

나는 사상교양사업을 맡고있는 일군으로서 조청일군들은 물론 비전임, 열성자, 맹원들 속에서 이 도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워 군중로선 …



도서 《위대한 사랑의 길》을 학습하는 총련 지바현본부 일군들

…부위원장은 《학습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우게 되였습니다.

우리 사업은 동포들속에 들어가야 그에 대한 옳은 수행방도와 방법론을 …

조국에서 4월명절 맞이하는 기쁨으로 가슴부풀어

효고관하 단기조국방문자들

사랑의 배 《삼지연》호 오늘 고베항에 입항

사랑의 배 《삼지연》호가 오늘(1일) 고베항에 처음으로 입항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조국을 못내 그리워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처음으로 고베항에 닻을 내리는 《삼지연》호를 타고 올해 첫 단기방문단으로 제115차단기조국방문단인 총련 효고현본부관하 290여명의 동포들이 4일부터 집단적으로 어머니조국을 다녀오게 된다.

이곳 본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수많은 동포들을 이번 단기조국방문단에 망라하기 위해 각종 모임, 강연회 등을 통하여 선전사업을 꾸준히 벌려왔다.

이 사업은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속에서 이를 견결히 폭로규탄하는 대중정치선전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되였다.

특히 이번 방문단이 사회주의조국땅에서 4월의 민족적대명절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축하게 되는 영광에 대하여 거듭 해설침투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단기조국방문단에 관하 수많은 동포들을 망라케 하였다.

또한 본부에서는 고베항에 처음으로 입항하는 《삼지연》호의 환영환송사업준비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이곳 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은 지금 사랑의 배 《삼지연》호를 처음으로 고베항에서 맞이하는 기쁨에 휩싸이고있다.



4월명절을 조국땅에서 맞게 되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하는 효고현 단기조국방문단 동포들

북남련석회의 예비회의제의를 외면한 남조선당국에 우려 표시

예비회의소집날자를 남측에 일임

공화국측 준비위원회 사무장이 담화를 발표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사무장은 우리가 3월 28일에 판문점에서 가질것을 두번째로 제의하였던 북남련석회의 예비회의가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태도와 립장으로 말미암아 열릴수 없게 된것과 관련하여 2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 않음으로써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는 이번에도 끝내 열릴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올해의 조선반도정세를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면서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라고있는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는 심각한 사…

…할 반민족적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제의를 외면함으로써 대화와 통일에 대한 근본립장에서 이전 독재자들의 대화부정적이고 평화부정적이며 통일부정적인 체질과 악습을 그대로 상속받은 군부파쑈집단에 불과하다는것을 스스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북남련석회의에 대한 태도는 북남사이의 화해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만일 남조선에서 통일문제해결에 민의를 광범히 《수렴》하겠다고 하고 긴장완화를 위한것이라면 《북의 어떤 대화제의에도 응할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

…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련석회의소집제안에 응해나오지 못할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있을수 없다고 본다.

나는 올해를 어떻게 하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이번에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가 우리의 두번째 예비회의 날자제의마저 실현할수 없게 된 형편에서 북남련석회의 예비회의 소집날자를 정하는 문제를 남조선측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을 내외에 알리면서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이 우리의 이 조치에 시급히 적극적인 호응을 보일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과 함께 남조선측의 앞으로의 태도를 주시할것이다.

미제는 《팀 스피리트》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공화국의 정당, 사회단체 책임일군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지지

《새마을의혹사건》

전경환개인의 《비리사건》 처리로써는 진상을 가리울수 없다

작년 가을의 괴뢰대통령조작을 위한 매수공작금의 진상 밝혀져야

한층 튼튼한 민족보험기관으로 면모를 일신

각지 금강보험상회가

하나의 체제로 꾸려졌다

—34개의 지사와 23개의 영업소—

각지 금강보험상회가 오늘부터 통합되여 하나의 조직체계, 재정체계를 갖춘 주식회사로 면모를 일신하고 새 출발을 한다.

이로써 금강보험주식회사는 60여억원의 수보량과 4,000억원의 생명보험계약고 그리고 일본각지에 34개의 지사와 23개의 영업소를 가진 재일동포들의 믿음직한 보험조직으로 한층 강화발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동포들의 참다운 충복으로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요구와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며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사, 지사 체제로 새 출발을 하는데서 지난해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큰 토대로 되고있다.

지난해 창립 10돐을 맞이한 금강보험조직은 동포들의 보험적리익을 옹호하는 사업과 자체의 군중적지반, 경제적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 각지 금강보험조직들은 년초부터 《창립 10돐을 자랑찬 혁신과 성과로 빛내여 위대한 수령님 탄생 75돐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탄생 45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자!》는 구호밑에 4대과업(손해보험 100억원, 생명보험계약고 5천억원, 계약자호수 5만 5천호, 손해률개선)을 제기하고 그 달성을 위한 통일행동을 집중적으로 벌렸다.

그리하여 니이가다상회가 손해보험목표를 400%로 넘쳐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야마구찌, 사이다마 등 21개의 상회들이 초과달성하였으며 아끼다, 이바라기 등지에서도 생명보험목표를 넘쳐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금강보험에서는 자체 조직을 확대강화발전시키며 그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이자는 취지밑에 《금강보험계약자1만호확대집중행동》을 조직하고 계속 힘찬 활동을 벌려 많은 전진을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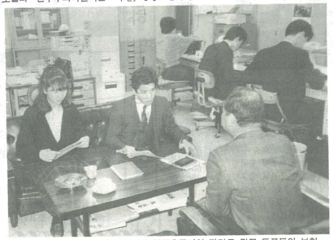
금강보험에서는 지난해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올해 사업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지금 2개월집중행동(2월 16일~4월 15일)을 힘차게 짜고들고있다.

각지 상회들에서는 2개월집중행동기간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라는 구호밑에 하루 10호방문운동을 힘있게 벌려 3월결산을 큰 성과로 마무리하고 회사통합사업과 그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시즈오까, 니이가다, 도야마, 오이다, 나가사끼상회들에서는 2개월집중행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기된 3월결산목표를 넘쳐달성하여 집중행동에서 더 큰 목표를 제기하고 사업하였으며 아이찌, 산따마, 오사까상회들에서도 2월말에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상회들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운동을 적극 짜고들어 제기된 목표 달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로 하여금 민족보험기관 일군으로서의 역할을 더한층 높여나가게 하였다.

지금 각지 금강보험 일군들은 새로 꾸려진 체제의 생활력을 크게 발양시킬 결의도 드높이 동포들의 보험적 리익과 권리를 더 굳건히 지켜나가며 조직의 군중적지반, 경제력량 확대를 위해 분발해나서고있다.



금강보험일군들은 민족보험기관 일군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동포들의 보험적 리익과 권리를 위해 적극 사업하고있다. (사진은 도꾜금강보험)

애국운동의 귀중한 무기로 되는 명곡들

한덕수작사 가요선곡집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의 책과 록음카셋트가 나왔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은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의 작사가요중 85편을 묶어 이번에 가요선곡집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를 편집발행하였으며 조선음악사에서는 그의 카셋트테프를 내놓았다.

한덕수의장은 오늘까지 총련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면서 애국운동의 귀중한 무기로 되는 시와 가사 창작에 많은 힘을 돌려왔다. 특히 가사에 대하여 깊은 의의를 부여하고 오늘까지 140여편의 가사를 창작발표하였다.

이 가사들은 총련애국사업의 력사적인 기록으로 되고있을뿐만아니라 100여편이 작곡되여 널리 애창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을 애국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생활과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가사의 주제령역을 보면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노래를 비롯하여 조선인민의 혁명전통을 옮은 노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 날로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찬양한 노래, 총련의 애국투쟁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사업, 생활을 형상한 노래,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지원하는 노래 등으로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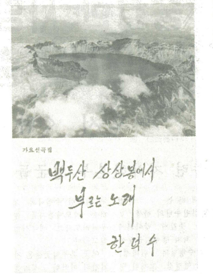
가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제국주의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는 높은 정신세계로 일관되여있으며 읊는 사람들의 마음을 숭엄하고 아름다운 세계에로 이끌어준다.

가사들은 재일동포들의 불타는 애국정신, 기백, 열정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가사들은 또한 높은 사상성과 함께 높은 예술성 특히는 언어구사에서 많은것을 배우게 한다.

이번에 나온 노래집과 카셋트에 수록된 가곡들은 집체작곡을 비롯하여 조국의 대표적인 26명의 작곡가와 10명의 재일조선작곡가들이 작곡하였다. 모든 곡들은 가사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적내용이 유순하고 아름다운 조선적인 선률에 옮겨져 사상예술성이 높은 노래로 되여있다.

이 노래들은 독창, 2중창, 녀성중창, 남성중창, 가야금병창, 혼성중창, 합창, 가극 등 모든 형식의 노래로 되고있으며 연주령역도 넓고 다양하다.



명가사에 의해서만 명곡이 나올수 있고 명곡은 또한 명연주에 의해서만 은을 낼수 있다.

카셋트테프들에는 일본에서도 대절찬을 받은 평양예술단 성원들을 비롯하여 피바다가극단,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독창가수들의 노래가 수록되여있다.

그외에 합창에는 피바다가극단합창단, 영화및방송음악단합창단이, 중창에는 조선인민군협주단 남성중창조가 출연하고있으며 가야금병창에는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가야금병창조, 반주에는 국립교향악단, 피바다가극단관현악단, 인민군협주단관현악단, 모란봉예술단관현악단, 영화및방송음악단관현악단이 각각 출연하고있다.

주옥같은 노래들이 실린 이 가요선곡집과 카셋트테프들은 기필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활용될것이며 총련의 애국사업과 동포들의 생활에 크게 기여할것이다.

※문예동에서는 요구되는분들에게 노래집과 카셋트테프(80개)를 실비로 판매한다. 문의는 문예동중앙과 각 문예동지부들에. (문예동중앙 ☎03〔817〕0431)

조은아이찌 오까자끼 지점 신축개점

조은아이찌 오까자끼지점이 지난 3월 28일 관하 조합원들과 동포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신축개점하였다.

1955년, 조은아이찌신용조합의 첫 지점으로 영업을 시작한 오까자끼지점은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최신식설비를 갖춘 현대적건물로 아담하게 일떠섰다.

신축개점한 오까자끼지점은 연건평 282평, 5층짜리의 건물이며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 대소회의실, 조합사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현대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지고있다.

신축개점모임은 총련 아이찌현본부 강윤경위원장, 아이찌현상공회 전해룰회장, 조은아이찌신용조합 박일락리사장, 오까자끼지점 신축개점추진위원회 박덕출위원장들을 비롯한 지점 직원들과 조합원들의 참가밑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또한 스기우라 세이껜중의원의원, 나까네 시즈오 오까자끼시장, 아이찌신용조합협회 세끼 마사오회장과 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등 많은 일본인사들이 신축개점을 축하하였다.

신축개점을 지향하여 예금운동을 벌려온 이곳 지점에서는 예금액을 71억 2천 5백만원으로 늘구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점일군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사업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라는 구호밑에 《봉사하고 발전시키자 35주년운동》을 힘차게 벌려 조합원들의 기대와 요구에 보답해나갈 결의를 다지고있다.



신축개점한 조은아이찌 오까자끼지점

동포들이 조은을 몸가까이 느끼도록 하자

《리프렛슈 65》운동을 적극 벌려 목표를 초과달성

조은아이찌 오까자끼지점 역직원들



자랑찬 동포성과를 가지고 신축개점한 조은아이찌 오까자끼지점 역직원들

조은아이찌 오까자끼지점 직원들은 지점의 신축개점을 위하여 지난해말부터 《리프렛슈 65》라는 예금운동을 벌려 자랑찬 성과로 신축개점을 장식하였다.

《리프렛슈 65》는 한달동안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난해 11월초부터 신축개점날까지를 운동기간으로 하였는바 6단계(월별로 단계 설정, 단 3월은 2단계로 나눔)로 구분하여 진행되였다.

《리프렛슈 65》운동에서는 예금액을 65억원으로, 적금계약고를 28억 4천만원으로, 계약호수를 60%수준에로 올리는 등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여기에는 공화국창건 40돐과 조은아이찌신용조합 창립 35돐을 빛내이는 일련의 행사들에서 오까자끼지점이 돌파구를 열어 뜻깊은 올해를 자랑차게 장식하자는 이 지점 역직원들의 결의가 반영되여있었다.

또한 지점의 대중적기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지역동포들과의 련계를 한층 깊이자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기초하여 조직된 《리프렛슈 65》운동의 성과여부는 이 운동에 대한 자기들의 관점과 립장이며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운동의 주인으로 내세우는데 있다고 결심한 이곳 지점직원들은 《모든 동포들이 조은을 몸가까이 느끼도록 하자》는 구호밑에 운동기간 조기출근을 제도화하는 등 열성적으로 달라붙었다.

운동은 직원들이 3개의 반으로 나뉘여져 경쟁식으로 진행되였다.

예약카드 600장을 소화하는것을 목표로 삼아 섭외계일군들은 160장, 그외 직원들은 10장씩 맡아 동포들을 찾아갔다.

조은지점의 후원회에서도 직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운동에 나섰다.

리사, 총대 그리고 남성들의 후원회 《금강회》, 부인들의 후원회인 《진달래회》 등에 망라된 조합원들과 총련,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일군들 84명으로 추진위원회를 무어 섭외계일군들에게 대상자를 소개하는가 하면 그들도 예약카드를 10장씩 맡아 직접 이 운동에 나섰다.

한편 지점에서는 조합원들의 골프콤패, 보링모임 등을 수시로 조직하여 조합원들과의 련계를 깊이였다.

그리하여 《리프렛슈 65》운동기간에 모든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축개점당일날에는 녀성동맹지부와 《진달래회》의 협력으로 바자를 진행하여 그 리득금을 아이찌조선제7초급학교와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에 회사하였다.

여기에는 지역동포들과 련계를 깊이자, 동포들을 위한 일을 하자고 결의다지고있는 오까자끼지점 직원들의 마음이 담겨져있다.

조선의 통일과 아세아의 평화를

교또 우꾜에서 조일친선모임

교또 우꾜지역 동포들과 구민들의 조일친선모임이 3월 17일 오후, 교또시 우꾜구에 있는 만다링파레스에서 있었다.

총련 우꾜지부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관하 일군들과 동포들 그리고 우꾜구역소 역직원들을 비롯한 우꾜구민들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영화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된후 교또 붓교대학 다까야 사다꾸니교수가 《남조선비행기사건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 그는 이번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은 남조선괴뢰들과 미일반동들이 한짝이 되여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해 꾸며낸 국제모략극이라고 강조한 다음 일본인민들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일본 신문, 텔레비존을 비롯한 매스콤보도에 옳바른 관점으로 대하여야 하며 그속에 숨은 본질을 똑똑히 인식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모임에서는 총련 우꾜지부 정박윤위원장이 연설을 하였다.

이어 모임 제2부에서는 연회가 진행되였다.



교또 우꾜에서 있은 조일친선모임

도호꾸조선초중고급학교 어머니회

제2차총회 진행

도호꾸조선초중고급학교 어머니회 제2차총회가 얼마전 이곳 학교에서 역원, 학부형들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총회에 앞서 조선대학교 량옥출교원이 《민족교육의 전망과 그에 따르는 어머니들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총회에서는 먼저 정옥순회장이 보고를 했는바 이곳 학교 어머니회는 지난 학년도 학년별로 어머니, 교원, 학생들이 함께 참가할수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조직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의 련계를 깊이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수많은 어머니들이 식사모임, 식당돕기, 청소 등에 발벗고나선것을 비롯하여 벨마크모으기, 잔돈모으기, 바자, 김치판매 사업 등 학교사랑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려 학교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보고에 이어 총회에서는 학년책임자로 사업한 김려순녀성과 오영자녀성이 경험토론을 하였다.

이날 총회를 통하여 어머니들은 지난 기간 해온 사업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적극 힘써나갈 결의를 다지고있었다.

【녀성동맹미야기】

《로동운동 탄압하는 군부독재 타도!》

주목되는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의 결성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아래

로동자의 진정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전국적로동조합련합조직 건설에로!

본지는 남조선의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의 기관지 《통일단결》 창간호(2월 14일호)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주로조단체인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이 87년 11월 1일에 서울에서 결성되였다.

이 단체의 기관지 《통일단결》에는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의 창립선언, 강령, 창간사, 신년사를 비롯하여 《87년하반기 로동운동의 평가와 88년상반기 로동운동의 방향》 등의 여러 자료들이 수록되여있다.

창립선언에서 이 단체는 《이제 우리 로동자들은 기업주들과 독재정권의 결탁된 막강한 힘에 대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기업단위 로조건설운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업별로조의 한계를 뛰여넘어 목적의식적인 지도에 의하여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로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도 벌려야 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전국적인 로동조합련합체를 결성해야 할 요청에 직면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우리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은 바로 우와 같은 립장에 서서 로동조합운동을 전개하고자 결성되였음을 삼가 알리면서 대중적인 단위사업장로동조합 건설과 그것을 기초로 한 산업별 로동조합, 전국적로동조합련합체의 건설, 로동조합기간활동가들의 교육, 로동대중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선전, 선동, 로동자들의 대중적파업지도 그리고 각 계급, 각계층의 진보적인 대중조직과 진보적인 정치세력과의 련대를 자기의 임무로 하면서 자기 강령의 지침에 따라 우리 나라 로동조합운동이 민주적방향, 진보적인 길로 걸어나가도록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할것을 엄숙히 선언하는바이다.》고 지적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괴뢰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용공좌경》의 구실로 무참히 탄압해왔다. 이는 특히 파쑈악법인 《로동관계법》과 로동운동을 억압말살하기 위한 어용기구 《대한로총》을 통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작년 여름에 남조선로동자들은 폭발적투쟁을 통하여 1천 200여개의 기업단위별 로조를 새로 결성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괴뢰도당은 갖은 회유기만과 탄압으로 400여개에 달하는 로동조합을 파괴(《신동아》 88년 2월호)하는 폭거를 감행해나선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이번에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이 결성되고 로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군부독재타도를 선언해나선것은 그 어떤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굳센 투지를 보여주는것으로서 매우 주목된다.

본지에서는 이 단체의 창립선언, 주요강령, 행동강령(각각 전문)과 《87년하반기 로동운동의 평가와 88년상반기 로동운동의 방향》(요지를 상, 하로 나누어 소개한다. 하는 4월 5일호 4면에 게재함)을 소개한다.

(표제와 일부 괄호는 본사 편집국에서 달았음. 철자는 우리 식으로 고쳤음.)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결성보고대회(1987년 11월 1일)

주요강령

1. 우리는 진보적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위해 앞장선다.

2. 우리는 민족자립경제의 확립발전과 평등사회실현을 위하여 앞장선다.

3. 우리는 로동자의 복리와 사회적지위 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4. 우리는 로동대중의 민주적제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5. 우리는 민족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6. 우리는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로 자주적민주로조를 구축하고 그 지역적, 전국적 련합조직을 건설하는데 총매진한다.

행동강령

우리는 현정세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일반적행동강령을 결정한다.

1. 로동자의 평균적생활을 보장할 최저임금제를 확립하라!

1. 로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

1. 8시간로동제를 확고히 실시하라!

1. 성, 년령, 학력의 차이를 불문하고 동일로동에 동일임금을 지불하라!

1. 16세이하 년소로동을 절대 금지하라!

1. 15일간의 련차유급휴가제를 실시하라!

1. 녀성로동자의 산전산후 각 2개월간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라!

1. 유해위험작업은 6시간제를 철저히 실시하라!

1. 로동자를 위한 주택, 탁아소, 오락실, 도서관, 의료기관을 설치하라!

1. 부인로동자를 위한 공장설비(탁아소, 수유소, 탈의실 등)를 사용주부담으로 즉시 설치하라!

1.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실시하라!

1. 민주적교육제도를 수립하고 로동자들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1. 공장폐쇄, 해고, 실업은 절대 반대한다.

1. 실업, 직업병, 산업재해 로동자의 생활과 사망한 로동자의 유족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라!

1. 착취를 본질로 하는 일체의 도급제, 청부제, 덕대제를 반대한다.

1. 로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라!

1. 《블랙리스트》와 《취업카드제》를 완전 철폐하라!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 시위의 절대 자유를 보장하라!

1. 18세이상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

1. 로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1. 악덕독점재벌을 해체하라!

1. 독재정권을 반대한다.

1.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수입개방압력을 절대 반대한다.

1.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한다.

1.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생존권투쟁과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그와의 련대를 강화한다.

1. 진보적세계로동단체와 뉴대를 강화한다.

1. 진보적민주주의 만세!

1. 민족통일 만세!

1. 로동계급 단결 만만세!

《창립선언》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일대 앙양에로

로동자동지 여러분!

우리 민중이 6월항쟁으로 획득한 소위 《6.29선언》은 그것이 비록 개량을 획책하는 기만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로동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우리 로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대중적투쟁이 전국적범위에서 전산업, 전업종에 걸쳐서 들불처럼 번졌다.

우리 로동자들은 이러한 대중적투쟁을 통하여 반민족 비민주, 반통일 세력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고 로동자들의 위력이 어떠한것인가를, 로동자들이 사회발전의 주역임을 다시한번 인식하여주었으며 로동자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던것이다. 그러나 6월항쟁과 《6.29선언》 이후의 생존권투쟁을 통하여 우리 로동자들의 투쟁에는 아직 많은 약점과 문제점이 있음이 또한 드러났다. 우리 로동자들의 투쟁은 그것이 비록 비합법적으로까지 발전하고 대중화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투쟁내용에서 경제투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투쟁범위나 규모에서 사업장단위를 크게 뛰여넘지 못했으며 따라서 투쟁의 성과가 로동운동발전의 확고한 토대로 되지 못했던것이다.

로동자의 힘은 단결에서 나오고 단결은 조직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는것은 하나의 명백한 진리이다. 로동자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자기의 기본적인 임무로 하고있는 조직, 그것은 바로 로동조합이다. 로동조합은 가장 선진적인 로동자로부터 초보적인 로동자까지를 망라할수 있는 그리고 망라해야 하는 로동자의 기본적인 대중투쟁조직이다.

《6.29선언》이후 로동자들은 생존권확보투쟁과정에서 수많은 로동조합을 새로 결성하고 적지 않은 수의 로동조합을 민주화하였다.

그러나 우리 로동자들은 강제된 기업단위 로동조합이 기업주와 군부독재가 결탁하여 자행하고있는 간교한 술책과 잔인한 탄압아래서 얼마나 무력한가도 보았다.

이제 우리 로동자들은 기업주들과 독재정권의 결탁된 막강한 힘에 대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기업단위 로조건설운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업별로조의 한계를 뛰여넘어 목적의식적인 지도에 의하여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로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도 벌려야 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전국적인 로동조합련합체를 결성해야 할 요청에 직면해있다.

새로운 전국적인 로동조합련합체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로동자들은 기업단위 로조를 먼저 건설하고 기업단위 로조가 산업별 로조로 재편되고 각 산별 로조가 련합하여 새로운 전국적인 로동조합련합체를 건설하여나아가는것을 가장 기본적인 건설방침으로 하면서 또한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로 단일로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적, 전국적 련합체를 결성하여 그 민주주의적중앙집권의 힘으로 다시 단위사업장조직을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건설방침도 아울러 배합해나감으로써 참으로 대중우에 토대를 두면서도 로동자대중의 진정한 해방을 담보할수 있는 굳센 전국적로동조합련합체를 건설할수 있을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로동조합운동이 각 사업장내의 로동자의 당면한 경제적리익을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그 투쟁과정을 통하여 로동자들의 투쟁을 더 높은 정치투쟁으로까지 앙양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만일 로동조합운동을 로동자의 당면한 경제적리익을 위한 투쟁만으로써 한정시켜 정치투쟁을 무시하거나 방기한다면 이는 바로 조합주의의 오류를 범하는것이며 이와 반대로 로동자의 일상적리익을 위한 투쟁을 무시하고 정치투쟁으로만 일관한다면 그것은 대중과 유리돼 소수 활동가들만의 메아리없는 웨침으로 끝날것이다.

로동조합운동은 로동자라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참가할수 있는 광범한 의미에 있어서의 대중적인 로동조합운동으로 되여야 함을 다시 확인함과 아울러 로동자의 당면한 일상리익을 위한 투쟁을 조직, 지도하되 이 투쟁을 자주, 민주, 통일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전개하여야 함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로동자동지 여러분!

우리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은 바로 우와 같은 립장에 서서 로동조합운동을 전개하고자 결성되였음을 삼가 알리면서 대중적인 단위사업장로동조합 건설과 그것을 기초로 한 산업별 로동조합, 전국적로동조합련합체의 건설, 로동조합기간활동가들의 교육, 로동대중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선전, 선동, 로동자들의 대중적파업지도 그리고 각 계급, 각계층의 진보적인 대중조직과 진보적인 정치세력과의 련대를 자기의 임무로 하면서 자기 강령의 지침에 따라 우리 나라 로동조합운동이 민주적방향, 진보적인 길로 걸어나가도록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할것을 엄숙히 선언하는바이다.

1987. 11. 1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결성보고대회



남조선의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의 기관지 《통일단결》

자료 88년상반기 로동운동의 방향 (상)

《민중의 반제자주화요구는 높아질것이며 반미투쟁이 확대할수밖에 없을것》

우리 로동운동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미일의 비호하에 관권과 금권을 동원하여 매수와 폭력,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로 권력을 장악한 로태우일당은 한편으로 사면, 석방을 시킨다느니 광주사태를 해결한다느니 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로 민중을 눈속임하면서 또 한편으로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대한 분렬공작과 탄압책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자본가들은 로태우일당의 권력장악에 희희락락하면서 독재정권의 지원아래 위장폐업 등을 통하여 민주로조를 파괴하기 위한 온갖 술책을 부리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로태우일당의 반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커녕 분렬의 깊은 수렁에서 헤여나질 못하고있으며 이러한 조건속에서 많은 민주로조들이 독재권력과 자본가들의 공격 앞에서 깨져나갈 위기에 직면하여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랭철하게 우리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투쟁의 전렬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선 87년하반기 로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하고 그러한 기초우에서 88년상반기 로동운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87년하반기 로동운동의 평가

1) 7, 8, 9월 로동자대투쟁이후의 로동조합운동에 대하여(이하 삭제)

2)대통령선거시의 투쟁에 대하여(삭제)

2. 88년상반기 로동운동의 방향

1) 주, 객관적 정세에 대한 전망

《대통령》선거는 원칙적이며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통해 로태우군부독재세력의 승리로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나 6월민중항쟁이후 민중의 정치적각성과 정치적력량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민중은 생존권의 보장, 민주주의적권리의 증진, 정치적자유의 확대를 요구해나서고있으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열망하고있습니다. 민중은 이전과 같은 폭력적억압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미국의 신식민지재편전략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일단 《성공》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른바 《6.29선언》이후 《개량에의 환상》과 《안정에 대한 요구》가 짝을 이루어 중간층의 동요를 일정하게 완화시켰고 민중의 변혁적인 요구와 열망은 적들의 집요한 공세로 일단 저지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독재세력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기때문에 민선민간정부로 위장할수도 있게 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권력을 재편하고 조정하는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보다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남한》에서의 미국의 정치, 문화, 경제, 군사적 리익은 보다 확고히 보장된것입니다. 최근에 가중되고있는 《한국》에 대한 원화절상, 수입개방압력은 그 현실적표현인것입니다. 《남한》의 미국에의 예속은 보다 심화될것이며 이에 따라서 민중의 반제자주화의 요구는 높아질것이며 반미투쟁이 확대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계속)

한나산에 오른 반외세투쟁의 거세찬 기치

제주도 4.3인민항쟁 40돐에 제하여 (상)

조국이 해방되여 4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짙은 암흑에 가리워진채 망각을 강요당하는 사실들이 적지 않다. 해방후 미군정통치가 감행됨으로써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굴러떨어진 남조선에서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불러 떨쳐나선 인민들의 거족적인 투쟁은 미제와 력대괴뢰정권에 의해 묵살되고 외곡되여왔다.

올해 우리는 제주도4.3인민항쟁 40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망국적5.10단선반대투쟁을 계기로 제주도에서 일어난 애국적무장투쟁은 한나산에서 지리산으로, 지리산에서 태백산으로, 태백산에서 오대산으로 계속 뻗쳐나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은 5.10단선을 반대한 첫 무장투쟁이였으며 그들은 손에 손에 무장을 들고 경찰서와 《선거장》들을 습격파괴하여 《선거》를 완전히 무효로 만들었다. 그러나 만 9년간에 걸쳐 전도를 휩쓸어 벌어진 제주도인민항쟁은 전도민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나 되는 6만(7,8만이란 추정도 있다)의 인민들이 참혹하게 희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위정자들에 의해 은폐되고 외곡되여왔다.

제주도인민항쟁이 은폐되고 외곡되여온 까닭은 무엇이며 최근 남조선에서 그를 재조명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또 그 배경에 깔린것이 무엇이며 오늘날에 던져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서서히 시작된 잃어진 력사의 복원작업

제주도인민항쟁은 남조선에서 오래동안 자기의 정확한 자리매김도 받지 못한채 망각을 강요당해왔다.

당시 국내 여러 신문은 물론 외부의 특파원들도 현지에 가는것을 금지당하여 일체 보도가 차단된 상황에서 제주도인민들의 애국적무장투쟁은 《제주도폭동사건》, 《4.3폭동》이라는 극히 외곡된 이름만으로 불리워왔다. 구체적으로 《4.3폭동》이란 자리매김에는 《적색무장폭도》가 《단순하고 배타적인 도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한나산을 근거로 관공서습격, 살인, 방화, 강탈 등 갖은 란행을 다하였다.》(《새국사사전》 1224페지)고 실제와는 어긋난 뜻이 새겨져있다.

《한국민중사》필화사건은 아직 우리의 기억에 새롭지만 필자들이 제주도투쟁을 《4.3제주도인민항쟁》이라 썼다고 하여 괴뢰당국은 터무니없는 루명을 들씌워 그들을 공소, 살인재판에 회부하였다.

섬전체를 애국적인민들의 고귀한 피로 흥건히 적신 제주도인민항쟁은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부당한 자리매김만을 강요당해야 하는것인가!?

그러나 최근들어 남조선에서 주목할만한 몇가지 움직임이 보인다.

하나는 《고대신문》(1987.10.19)에 실린 《다시 보는 현대사―〈제주도4.3인민항쟁〉을 조명한다》란 기사에서 보이는 《은폐된 진실의 현대적복원(復元)》을 위한 작업이다.

글은 《제주도의 〈4.3봉기〉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은폐되고 외곡되여 최소한의 사실조차도 전혀 알려져있지 않은 력사적사건》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너무도 엄청난 피해를 낳은, 해방후 최대의 민중항쟁이요 봉기였다.》고 지적하고있다.

장문에 이르는 글은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분석》에서 사건의 성격이 《결코 폭동이나 반란이 아니라 민중들에게 가해진 한계적질곡을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극복하려는 저항, 항쟁의 한 표현형태로서 〈민중봉기〉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있으며 《예비적론의》에서는 해방직후 조성된 내외정세에 대하여 언급, 남조선에서의 기본적대립축은 좌우대결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미국 및 미군정과 남조선 민중들사이의 그것이였다고 찍고있다.

또한 글은 현지취재를 통해 생동한 증언들을 수집하면서 《4.3봉기》가 왜 일어나게 되였으며 어떻게 전개되고 귀결되였는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것은 장편련작시 제1부 《한나산》(이산하, 《록두서평》, 1986)에 보는 문학적 접근이다.

서시와 제1장 《정복자》, 제2장 《폭풍전야》, 제3장 《포문을 열다》, 제4장 《불타는 섬》으로 구성된 장편시는 투쟁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풍부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어찌하여 제주도인민들이 죽음도 무릅쓰고 과감히 항쟁에로 떨쳐나섰는가를 뜨거운 서정과 생동한 감동으로, 서사시적인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작품은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서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 사건이 벌어진것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에 산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을 통해 인민항쟁의 필연성과 불가피성, 정당성을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하여 시인은 대량학살만행의 진범인이며 배후조종자인 미제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단죄한다.

한반도 인민들의 피가
　붉은것도 바로 너희들
　때문임을
그리고 침묵하라, 피로
　맺어진 《혈맹우방》이
　여
그대들이 두눈 뜨고 살
　아있는 한
우리는 잠들수가 없다
너희들의 칼날우에서 우
　리는
잠들수가 없다 (계속)



제주도인민들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나 되는 6~8만이 무참히 학살된 4.3인민항쟁. 40년동안 망각을 강요당한 사건은 민중들의 손에 의해 점차 복원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토벌대는 무차별적인 학살만행으로 《4.3》의 뜻을 꺾으려 하였으나 외세를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그들의 숭고한 뜻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맥맥히 살아있다.

4.3인민항쟁의 경과

해방후 제주도인민들은 다른 지방에 비해 인민위원회에 더욱 굳게 결속되였다. 그것은 해방후 제주도에 조성된 사회, 경제적 조건이 그들을 《앉아서 빼앗기느냐, 싸워서 이기느냐》는 렬악한 상황에 놓이게 했기때문이다.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1947년 3.1절기념시위사건이였다. 이때 경찰들은 평화적시위를 벌리는 도민들에게 발포하여 6명이 사망, 8명이 부상당하게 했다. 이에 격분한 도민들은 미군정과 경찰에 사과와 처벌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하자 총파업을 단행했다. 그러자 미군정은 륙지로부터 대병력을 끌어들여 전률할 《빨갱이색출》을 감행했다.

이런 속에서 드디여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나산을 비롯한 주요 봉우리에 봉화가 올라 무장소조원들이 행동을 개시한다. 그들은 망국적 5.10단선 반대를 기치로 반미, 반경찰, 반서청(서북청년단―악질적인 테로집단)을 표명하여 15개 경찰관서중 14개를 습격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쟁을 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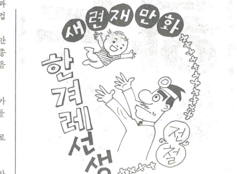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다가 4월 17일에는 무장소조와 경찰토벌대의 첫 격전이 벌어진다. 진압병력은 날로 동원되여 제주도는 공포의 도가니로 화한다.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도 무장소조원들을 비롯한 도민들은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여 5월에는 남조선에서는 유일하게 《선거》를 완전히 파탄시켰다.

그러나 그간 토벌대의 살륙만행은 극도에 달한다. 당시 경무부장이던 조병옥은 《전섬에 가솔린을 붓고 도민을 모두 죽여도 좋다》는 폭언을 퍼부었고 그해 가을과 겨울 그리고 이듬해 봄에 걸쳐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한 하루평균 1백여명이 넘는 도민들이 소위 〈빨갱이소탕작전〉의 와중에 무고하게 희생》(《고대신문》)되였다. 청장년들은 물론 로인들과 부녀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쏘아죽이고 찔러죽이고 불태워죽이고 수장해서 죽이는 등 광란적인 대량학살만행이 감행되는 속에서 한마을 사람들이 전원 몰살당하기도 하고 한가족이 모두 희생되기도 했다.

이는 비전투원에 대한 살륙을 금지한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여 미군정이 백주에 공공연히 감행한 량민학살사건이였다.

무장투쟁은 조국해방전쟁을 거쳐 1957년까지 만 9년간 벌어졌다.



오래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쁜이》는 끝을 맺고 오늘부터 새 련재만화 《한겨레선생》이 등장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동포들의 건강을 위하여 힘쓰는 《한겨레선생》을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쁜이》와 같이 애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력사와 대중가요 ⑥

잊을수 없는 가요들에 대한 범죄적위조행위

조 령 출

량심과 가요

남조선에서 출판된 가요집들을 보면 《꼴망태목동》, 《화류춘몽》, 《진주라 천리길》, 《코스모스탄식》 등 일제통치시기 내가 가사를 썼던 노래들에서만도 작사자와 가사를 뜯어고치는 위조행위를 감행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꼴망태목동》은 해방전 민요가수 리화자(李花子)가 인기를 독차지하고있을 때 《어머님전상서》 등과 함께 가장 많이 부른 노래이다.

꼴망태 둘러메고 소를
　모는 저 목동
고삐를 툭툭 채며 코노
　래를 부르다가
이랴 이소 어서 가자 정
　든님 기다릴라 응

석양산 바라보며 소를
　모는 저 목동
곰방대를 툭툭 털어 잎
　담배를 피워물며
이랴 이소 어서 가자 정
　든님 기다릴라 응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농촌정서가 담겨있고 생활적인 시어의 운률이 곡의 특성을 이루고있다.

1938년경에 나는 작곡가 김룡환과 민요가수 리화자와 함께 강원도의 산간마을에 잠시 머무른적이 있었다. 김룡환은 원산사람으로서 나는 이미 그와 그의 누이, 동생들과도 친교가 있었다. 그는 흥취있는 민요를 많이 작곡하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산촌농가 목동의 생활을 담아 이 민요를 지었고 계속하여 《어머님전상서》 등 여러편의 민요를 창작하였다. 그후 이 민요들은 유명한 민요로 되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남조선에서 출판된 《흘러간 옛노래》에는 이 노래의 작사자가 추미림으로 바뀌여진것이다. 그러면 1930년대 후반기에 나온 리화자의 그 유명하던 민요 《꼴망태목동》이외에 다른 《꼴망태목동》이 또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괴뢰들은 내가 쓴 《화류춘몽》도 추미림 작사로 위조하였다.

《한국연예대감》이란 책에서는 내가 쓴 《진주라 천리길》의 작사자도 바꾸어버렸다.

《진주라 천리길》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의기 론개가 왜장을 안고 강물에 떨어져 장렬히 죽은 그 애국의 사연이 깃든곳, 진주 촉석루와 남강을 노래한것이다. 나라의 넋을 찾아 진주라 천리를 갔건만 론개의 넋은 어디 가고 촉석루에는 달빛만 나무기둥을 안고 흐느껴울뿐 타향살이 심사를 위로할줄 모르는것이다. 여기서 타향살이설음이란 제 나라땅에 살아도 주인노릇을 못하고 이리저리 쫓기우며 천대만 받는 설음이였다.

나는 당시 이 가사에 조령출이나 조명암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리가실(李佳實)로 이름을 밝혔었다.

당시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며 널리 불리워져 남녀로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늘도 50대이상 사람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며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대한다.

일제통치시기 이미 대중의 소유로 되였던 《진주라 천리길》은 리가실 가사의 그것 하나뿐이였는데 오늘 남조선에서 출판된 《한국연예대감》이란 책에는 이 노래가 리부풍(李扶風) 작사로 바뀌여졌다.

황금심의 인기가요였던 《알뜰한 당신》 역시 리가실 작사, 즉 나의 가사였는데 《한국가요반세기》에서는 리부풍 작사로 위조되였다.

나는 리부풍을 8.15전부터 잘 알뿐아니라 허물없이 지낸 사이였다. 나는 그가 스스로 이런 비량심적인 행위를 하였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남조선파쑈분자들이 저지르고있는 범죄행위의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가요 《코스모스탄식》의 실례를 하나 더 들려 한다.

코스모스 피여날 때 맺
　은 인연도
코스모스 시들으니 그만
　이드라
국경없는 사랑이란 말뿐
　이더냐
울면서 헤여지는 두만강
　다리

코스모스 피여날 때 다
　정든 님도
코스모스 시들으니 그만
　이드라
구름같은 인정이라 날려
　가더냐
봄없는 내 청춘이 한이
　로구나

이 가요는 불행한 세상에서 빚어진 리별의 슬픔을 노래한것이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넘나드는 사람들속에 얽혀진 인연과 리별, 어쩔수 없는 리별에 대하여 미처 리해못하는 순정의 녀인의 슬픔을 노래하였다.

1939년에 나온 이 노래는 그 시기 널리 알려졌던 추억의 노래의 하나이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얼마전에 출판된 《대중가요곡집》에는 그때의 노래라고 하면서도 백남포 작사로 이름을 바꾸어놓았고 가사도 뜯어고쳤다.

당시 《오케》레코드에는 백남포란 작사자가 없었다. 력사가 이를 어찌 허용하랴.

고쳐진 가사를 보자.

코스모스 피여날 때 맺
　은 첫사랑
코스모스 시들으니 그만
　이드라
산을 두고 지은 맹세 말
　뿐이더냐
철없이 매달리는 한강의
　다리

보는것처럼 별로 달라진것이 없고 다만 《두만강다리》를 《한강다리》로 바꾸어놓았지만 이것은 당시 혁명의 풍운이 설레이던 두만강의 사회적환경대신에 인정비극으로 투신자살이나 하는 한강으로 장소를 바꿈으로써 원작의 시의를 모독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내가 북으로 들어왔다는 한가지 리유로 가요계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내가 쓴 가사들의 시의도 저들의 범죄행위에 맞게 뜯어고치고있다. 다시말하여 이 보잘것없는 시인까지도 반공대결의식고취와 민족영구분렬책동의 희생물로 삼고있는것이다. (계속)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 (260) 5881
内線 453・435
436・428

"共犯者"を自らが露呈

日本警察庁の国会答弁

KAL機事件

人為的操作加えた「鑑定」の写真選択
素人の目にもわかる写真（耳、顔形）の区別

日本警察庁はさる三月二十八日の日本国会の場で、「花束の少女は金賢姫」であるとの強弁を吐いた。

これは周知のように、先の総聯中央の記者会見（三月十五日）で張基栄に花束を渡したのが平壌に在住する鄭姫善さんであることがビデオ、写真、証言などにより明白にされ、KAL機事件の謀略劇が根本から崩れたことに当惑した日本当局が、"花束の少女―鄭姫善さん"の存在を否定しようとやっきになっている表れである。

南朝鮮の軍事集団は「金賢姫」を「北の工作員」に仕立てあげるため、一九七二年十一月の「花束贈呈」を持ち出した。が、共和国と総聯中央の度重なる立証の前に、その謀略の真相は明らかになった。

にもかかわらず先の総聯中央の記者会見以後、記者会見で公開された鄭さんの写真が「似ていない」うんぬんと最初に妄言を吐いたのが南朝鮮の御用新聞であった。

続いて日本の「赤旗」紙にも偶然であるのか、その御用新聞と同じ主張が載った。

時同じく、日本国会において日本共産党所属議員の質問に答える日本政府高官の「恩恵ら致事件――北の犯行」発言がなされた。

そして今回、警察庁による「写真鑑定」の発表と「花束の少女は鄭姫善でなく金賢姫」との発言となったわけだ。

日本当局はまさしく自らが謀略騒動の共犯者であることを露呈したのみならず、KAL機失そう事件の本質的解明は完全に放棄し、部分的問題をうんぬんしながら反共和国、反総聯キャンペーンを行っていくとのもくろみをさらけだしたといえる。

今回の警察庁当局による「科学的な鑑定」に使用された何枚かの写真選択において、人為的な操作が加えられたこと自体が、そのことを如実に語っている。

「写真鑑定」を報道した一部の日本のマスコミは、ビデオからとった鄭さんのぼやけかかった、それも産後のやせた姿の顔写真だけを、そして「鑑定」結果に合うように修正までした写真を流したのだ。

だが事実は明白である。人間の顔は成長過程で変わる部分と変わらない部分があるが、最も変わらないのが耳の形である。

警察庁は、写真①と写真③が同一人物の「金賢姫」であり、写真②は別人であると「鑑定」した。

だが、素人の目にも写真①と写真③の人物の耳や顔形は別人であることが区別できるし、写真①と写真②の人物が同一人物の鄭姫善さんであることがわかる。

評論家で骨相学専門家の浅野八郎氏も「鄭さん（写真①②）の耳の形は、角張った、いわゆる四角形のがしっとした耳なのに比べ、『金賢姫』（写真③）の耳は明らかに違う形だ。あれは薄形の、すうっと通った耳である」と語っている。

※写真④、⑤、⑥は、鄭さんが本社記者に提供してくれた写真で、すべて写真①と同一人物であることがわかる。


①


②


③


④


⑤


⑥

各地の金剛保険が統合

本日から新たなスタート



統合によって新たなスタートを切り、職員の気勢も上がる金剛保険株式会社（写真は東京支社）

在日同胞の生命と財産を守るため奮闘してきた金剛保険が、今日から新たなスタートを切った。

日本の各地四十四地域に設けられている金剛保険商会（営業所を含む）が、金剛保険株式会社（東京・代々木）として組織・業務上一つに統合され、業務を開始することになったのだ。日本全国で損害保険業務を営む代理店は三十三万三千三百十一社あるが、金剛保険のように代理店が一つに統合されるのは業界史上初めてのことである。

統合されることによって、金剛保険株式会社は六十余億円の収保量と四千億円の生命保険契約高、日本の各地に営業単位を持つ、大型保険代理企業となった。

今回の統合は、創立後、今日に至る十一年間の間に、日本の保険業界内でも見られないほどの飛躍的な発展を遂げた金剛保険の業績をより大きく伸ばすためで、昨年四月に迎えた金剛保険創立十周年を機に、統合のための組織的、業務的、法的な準備が活発に進められてきた。

関係者らによると、統合のメリットとして、何よりも契約者に対するきめ細かいサービスと事故処理を迅速に行え、また、業務事業基準、就業規定、給与規定、定年制、退職金制なども統一的に定められるとともに業務拡大のための力、信用の面で以前とは著しい違いがあると言う。

金剛保険株式会社では、今後、同胞社会の実情と保険情勢の推移に沿って業務を進めるために、各地に営業所を数多く設け、契約募集とその管理、事故処理をより速く進める一方、機械化、コンピュータ化を図るなどの事業を推し進めていくという。

統合にあたって、日本の保険会社から祝いと激励のメッセージが多数寄せられた。

「新たに出発されることは誠に喜ばしいことです。貴社と業務提携して以来、十年を経過しましたが、新組織発足を契機に一層の連携強化を図り、業務向上に協力していく所存です」（大同生命保険相互会社・事業部）

また、日動火災海上保険取締役兼首都営業部第一本部長・佐藤浩二氏も次のような内容で激励の意を表している。

「金剛保険代理店の全国組織統一は、貴社にとって有益なことととして、われわれ損害保険会社としても実現を待ち望んでいました。このたびの全国統一は、大型代理店として発展するための第一歩であるとともに、在日同胞に対する財産の保全、生命の補償、いわゆる生活補償の道を一段と開くことであり、誠に意義深いことと考えます」

このように今回の統合は、関係する取引業者らの歓迎を受けており、日動や日産、大同など提携会社はもとより、損害保険業界の中で大きな注目を集めている。

学生会、春の講習会開く

講演、討論、そして文化公演も

新たな学年度を迎えて役員の役割を高め、学生会組織を一層活性化させようと、「一九八八年度日本高校在学朝鮮人学生・春の講習会」がさる三月二十七日〜三十日、兵庫県新宮町の「志んぐ荘」で行われた。同講習会には、日本各地で活動する日高学生会の役員と会員ら百四十余人が参加した。

講習会では、朝青中央・金尚一副委員長が「最近の朝鮮半島情勢」について講演。今回のKAL機事件が南側の謀略であることを強調しながら、祖国統一を目指す南朝鮮青年学生の闘争について実例を挙げながら解説した。

つづいて朝青中央・李泰栄日高対策部長が「日高在学朝鮮人学生会の位置と役割」について講演し、学生会発展の歴史、今後の課題などを強調した。

講演の後、各班に分かれて自由討論が行われた。

討論の中では、「今回の事件でチョゴリの女学生や、小学生までが『朝鮮人は朝鮮に帰れ』などの暴言を吐かれている。同じ人間なのに、なぜそんなことが出来るのか、悔しくて悲しくてならない」（群馬・宣友恵）、「日本人に、私たち朝鮮人がなぜここに住むようになったのか、なぜ朝鮮が分断されたのか訴えることが必要だし、それが祖国統一にもつながると思う」（岐阜・文泰華）などといった意見が出された。

また、学習や討論の合間に文化公演も行われ、十六の本部から二十五の歌や踊り、詩の朗読などが披露された。

中でも、夫永一君と呉慶子さん（大阪）のウリマルによる詩の朗読が、ひときわ喝采を浴びた。詩は昨年、共和国を訪問した大阪の学生会会員が、母なる祖国に抱かれた喜びをつづったもの。

「最初は祖国に行った先輩らの気持ちは（自分に）理解出来ないと思った。でも何回も練習しているうちに、祖国がだんだんと近づいて来て、詩の内容が分かってきた」（夫君）、「私は、植民地になっても屈することなく民族の文化や伝統を守りきった祖国が大好き。詩をうたいながら、祖国の人びとが私たちを歓迎してくれる姿を思い、涙が出そうになった」（呉さん）と、二人は感想を述べていた。

「日高在学のトン・ムたちは、日本の根深い民族差別の風潮の中で生活している。彼らにいかに祖国の存在を知らせ、祖国と自らが運命を共にしていることをいかに実感させるのか。それが最大の課題だと思う」と、指導員の宋学君は語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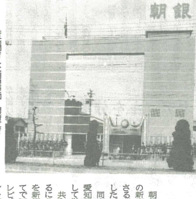
学生会は現在、日本の各地に三十三の本部と九十七の支部に、数多くの会員を持つ組織に成長している。朝青の大衆的基盤をより拡大し、かつ組織の担い手を育成する上でも、学生会の持つ役割は大きい。



真剣なまなざしで講議を聴く日高学生会の役員・会員たち

新築店舗がオープン

朝銀愛知・岡崎支店



新築開店した朝銀愛知・岡崎支店

朝銀愛知信用組合岡崎支店の新店舗がこのたび完成し、さる三月二十八日にオープンした。

同支店は一九五五年に朝銀愛知信用組合の第一号支店として営業を開始。

共和国創建四十周年を迎えるにあたって、このたび建物を新築。新しい店舗は五階建てで延面積二百八十二坪、テレビ、ビデオ、大型スクリーンを備えた会議室や、安全を図るための現金専用エレベーターなど、近代的設備が完備されている。

同日に催された新築開店の集いには、総聯愛知県本部・康潤琪委員長、愛知県商工会・金海律会長、朝銀愛知・朴日楽理事長、岡崎支店新築開店推進委員会・朴徳出委員長、それに同支店職員と組合員ら多数が参加した。

また集いには、杉浦正建衆議院議員、中根鎮夫岡崎市長、内田康宏県議会議員、柴田紘一県議会議員、社会党市議会議員団代表・加藤元氏、公明党市議会議員団代表・河井信輝氏、市議会民主クラブ代表・小林邦夫氏をはじめ多くの日本人士らも、お祝いに駆けつけた。

そして同支店の新築を記念して、この日一日だけで現金八億三千五百万円をはじめ、十一億円余りの記念預金が集まった。

また同支店の三月決算期の目標預金額六十五億円を上回る、七十一億二千五百万円の預金がこの日までに達成された。

今週の出来事

国連安保理が共和国外交部声明を公式文書に

さる三月二十三日、国連安全保障理事会は、アメリカと南朝鮮当局が展開している「チームスピリット88」合同軍事演習を糾弾して発表した共和国外交部声明（二十三日付）を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公式文書（S−1967号）として配布した。また、国連安保理は二十一日にも、共和国の人民軍最高司令部報道を公式文書として配布した。

入営訓練に反対してデモ
延世大、高麗大の学生ら

ソウルの延世大学生百余人がさる三月二十八日、盧泰愚一派が強いる前線部隊入営訓練に反対して激しいデモを繰り広げた。「鎮圧」に駆けつけた警察隊が催涙弾を乱射するや、学生らは石つぶてで対抗した。そして軍用車で軍兵営のある演習場に連行される時には「前線部隊入営場の撤回」を要求するスローガンを叫んで気勢を上げた。

また、高麗大学の学生二千九百余人も前線部隊入営訓練に反対して、三時間に渡りデモを行った。

新たな資金流用明らかに
「セマウル疑惑」の全敬煥

前「大統領」・全斗煥の実弟全敬煥を主役とした「セマウル疑惑」で、新たな資金流用の事実が明るみに出て、南朝鮮人民の新たな怒りを呼んでいる。

全がセマウル運動中央本部事務総長、会長在任時に、会長、理事長職を兼任していたセマウル奨学会指導者育成財団、社会体育振興会、海外開発研究院、指導者育成奨学財団などの私設団体に、セマウル運動本部の財産を贈与していたことがこのたび明らかになった。

これらの団体を利用して、セマウル運動本部の財産を全が着服した可能性が強い。

一方、セマウル運動中央本部理事会は三月二十四日、同本部で記者会見を開き、金東夏会長、鄭憲国事務総長から提出されていた辞表を受理したことを発表した。

日本外相、南朝鮮占領米軍撤収に反対の暴言

日本の宇野外相は三月二十五日、国会で南朝鮮占領米軍の撤収に反対するという暴言を吐いた。

宇野外相は、祖国分断がもたらしている朝鮮人民の不幸や苦痛も知らぬ気に、南朝鮮占領米軍の撤収問題と関連した野党の質疑に、アメリカ政府関係者が南朝鮮から米軍を撤収できないとの見解を示したとし、「われわれとしても南朝鮮駐留米軍が撤収されない方が最良であると思う」と答えた。

これに対して、三月二十九日付「労働新聞」は「再侵略野望を抱いた者のごう慢な挑戦」と題して論評を記載した。

新入学生のアボジ、オモニへ

今日、各地の初中級学校で入学式が行われた。真新しいかばんを抱えて、校門をくぐった生徒たちはもちろん、新入学生を持つアボジ、オモニのうれしさもひとしおであろう。その反面、子供のこれからの学校生活や勉強に関して、心ならずとも心配している父母も多いのでは。そこで編集部では、初級部の先生を長く務めている愛知朝鮮第三初級学校の曺南淑教務主任と玄知子先生に〝新米〟父兄の心構えについて聞いた。一助になれば幸いである。



曺南淑先生(右)と玄知子先生

あせらず、構えず 一年を考えて

まず学校になれること

規律のある生活や授業などになれない子供たちには、精神的な不安が多いでしょう。

それにウリハッキョは大体、通学に時間がかかるので初級部一年生には肉体的にもかなりハードです。

学校や友達の話を聞いてあげ、子供のストレスを解いてあげましょう。

学校を信頼し 問題は学校と相談

また、学校へ行きたくない、とだだをこねたり、通学バスに乗らない、などの現象も一学期には良く見られます。

こうした場合、体に変調がないかぎり、学校へ行かせて学校になれさせるのが先決です。

子供は親の顔色をうかがうので、オモニまでうろたえてしまっては、困ります。

学校へきちんと行くためにも規則正しい生活を送りましょう。

早寝、早起きを心がけ、着替えや食事も自分でするようにします。初めての子供には甘くなりやすく、着替えなどオモニがやっ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が、それでは子供の自立心の妨げにもなりかねません。オモニは横で手伝う程度にしておきましょう。

また、持病がある子供は、担任の教員に知らせること。目が悪い、トイレが近い、など担任が知っていれば席順を決めたり、授業中の対応策も講じられます。

長期治療が必要なものは、休みの間になおしておきましょう。

実生活を通じ無理なく学習

次に学習の問題ですが、低学年であれば、宿題だけでも十分です。

子供は横にだれかいたほうがやる気がでるので、隣に座って宿題を見てあげます。

また、会話を通して学校で習ったことを復習するのも一つの方法です。

「今日は何を習ったの?」と、子供が習ったことをおさらいするのもいいでしょう。

苦手な科目は、出来ない、という意識を取り除くことが大切。もし算数が苦手なら買物に一緒に行って数のけいこをするなど、実生活を通して子供が無理なく習い、自信を持てるようにします。

それに低学年生は、授業中話を聞いていれば理解できるはずなので、人の話をよく聞くようにします。

最近では、核家族化が進み、子供たちがしゃべる機会が減ったので単語でしか話さない子供が増えました。親子ならばこれだけでも通じあえますが、子供の言語能力や語感を育てるためにも家庭で語尾まではっきり話す習慣をつけましょう。

そうすれば、授業もよりよく理解できると思います。

あまりしかりつけても逆効果。小言になれてしまって考えない子供になってしまいますよ。

しかし構える必要はありません。

一番大切なのは、学校に対する信頼感。何か問題があれば、学校と相談して解決して下さい。

あせりは禁物。一年間、ゆとりを持って子供を育てましょう。

物語 朝鮮の歴史と文化 ⑪

扶余と百済

二つの扶余

現在、われわれは扶余という街が千㌔以上離れて二つ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その理由を明かして見ます。

「解慕漱と東明王」(第四回)のところで書きましたが、高句麗の第一代の王となった東明王(高朱蒙)は、扶余族から分かれて南下し、鴨緑江中流の地方に高句麗の都を定めたのでした。

ところで、この高朱蒙の二男と三男である沸流(ピリュ)と温祚(オンジョ)が馬に乗り、部下を引きつれて、さらに南下して作った国が百済だといわれています。早く亡くなった兄に代わり、百済建国の中心となった温祚は、人びとと力を合わせ、漢江のほとり現在のソウル付近に慰礼城(または漢城)を定め、自らは扶余族の出身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姓を扶余氏と名のったのでした。(注)

百済の建国者たちは、高句麗の高い文化と団結力、とくに騎馬集団による強力な戦闘力を受け継ぎ周囲の部族国家を統合し、温祚王の時、すでに北は礼成江、東は江原道の春川、南は益山(全羅北道)、西は西海に至る地域を確保しました。

この地域は朝鮮半島の中部地方西部にあたり、広くかつ肥沃(よく)な平野に恵まれ、西方の海に進出できる河川と海岸があって、地政学的にも重要な地帯です。さらに山間地帯は昔から鉄の産地として経済的にも、軍事的にも重要な意義を持っていました。

百済は、このように有利な自然の条件に恵まれていたため、隣接する楽浪、高句麗、新羅などとの絶え間ない対立にまきこまれることになります。



定林寺五層石塔 (百済—忠清南道、扶余)

一つの小国として出発し、征服戦争によって隣接する小国を統合していった百済は、強国に生長する過程で国家体制の整備を進めます。すなわち王を中心として中央集権的な体制を強化し、佐平制などによって地方の有力な勢力を中央(体制)に編入して、しだいに従来の部族連合的な性格を克服していきます。

また同時に、農業が発達し、国家の経済も農業を中心とした性格に変化します。豊かな穀物に裏うちされて人口が増加し、いっそう国力が充実していきます。こうして中国や倭に使節を送り国際舞台にも進出していくのです。

近肖古王(四世紀後半)の時、北は高句麗に打撃を与えたばかりでなく洛東江流域の南加羅、安羅、多羅などを征服し、領土を全羅南道や南海へと拡張しました。

こうして百済は、今の京畿、忠清、全羅の三道と洛東江の流域、江原道と黄海道の一部をも占める堂々たる国家に生長しました。

ところが、百済の地域的な拡大はこれまで、四世紀末に広開土王が立って活躍しだすと、百済はしだいに守勢にまわり、王の弟が高句麗の人質に取られるような窮地に陥ることになります。百済は高句麗に対抗するため新羅と結び、倭とも修交して自己の立場を有利にしようと努めます。

四七五年、ついに百済は高句麗の圧力をさけるために首都を熊津(現在の公州)に移しますが約六十年後の五三八年、さらに錦江を南下して都を泗沘(扶余)に移し、国号を「南扶余」と変えたのでした。

百済は都を山地から海岸に近い平野地帯に移し、国内の統治と対外活動の便利をはかったのです。

以上のような歴史的な背景のもとに、現在われわれは二つの扶余を持つことになったのです。

一つは扶余の故地に近く、松花江の中流、現在の中国東北(旧満洲)の中心にある小さな町ですし、一つは忠清南道、錦江(一名を白馬江)の下流の由緒ある都市です。

百済はこの扶余時代に、国家の制度をいっそう整備し、仏教文化を導入して、繊細で華麗な百済特有の文化を花咲かせ、その文化は新羅や日本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のです。(金哲央)

(注) 戦後、江上波夫氏は、扶余系騎馬民族の一つが朝鮮を経由して日本を征服し、倭国の王朝を作ったという学説を発表しました。つまり、大和朝廷を創始したのが倭国王の天皇家ならば、それは扶余氏であろうというのです。

88全国大学対抗サッカーフェスティバル

朝鮮大学校が好成績を収める

朝鮮大学校サッカー部が、三月十五日から二十五日まで筑波大学のグラウンドで催された「88全国大学対抗サッカーフェスティバル」(筑波大蹴球部主催)に出場し、好成績を収めた。

この大会は、サッカーを通じ相互の交流を深めようという趣旨で開かれ、今年で二回目。大会には朝大(A、B)、筑波、東京学芸大をはじめとする二十六の大学、社会人チームが参加した。

昨年の大会に続き、今年も朝大は一年間の練習成果を発揮。三勝一敗一分(A、B)の成績を収め、試合を通じ日本の各大学との親善、交流を深めた。

成績は次のとおり。

朝大A
○ 一—〇 対慶応義塾大
○ 二—〇 対福島大
朝大B
△ 〇—〇 対仙台大A
○ 四—二 対慶応義塾大
B
● 二—五 対福島大B



バスケット(男子)で優勝を果たした川崎初中の選手たち

(春休み)

各地で新人戦盛ん

関東地方初中級学校学生新人戦

「関東地方初中級学校学生体育大会新人戦」が三月二十三日から二十五日の三日間にかけて、東京朝高の体育館およびグラウンドで催された。

大会には、東京をはじめ、埼玉、千葉、神奈川、栃木、群馬の初級部十六、中級部十五のウリハッキョから千百二十人の選手が参加した。

四種目七競技が行われた中級部では、学生中央体育大会で常時入賞している東京第六の卓球部が男子、女子ともに完勝。変わらぬ強さで他校に圧勝した。

また、二種目三競技が行われた初級部では、今年、中央チビッコサッカー大会(六月)四連覇を目指す埼玉初級サッカー部が無失点で決勝に進出。決勝戦で惜しくも、最近、着実に実力を付けている東京第四に一点を取られたが、覇者の強さを見せ、見事優勝を手にした。

大会成績はつぎのとおり。

△中級部
サッカー
一位—東京第一、二位—千葉、三位—東京第四、三多摩第一
バレー(男子)
一位—東京第一、二位—千葉、三位—神奈川朝中
バレー(女子)
一位—東京朝中、二位—埼玉、三位—群馬、
バスケット(男子)
一位—川崎、二位—東京第一、三位—東京第七、東京第五
バスケット(女子)
一位—東京第一、二位—東京第四、三位—東京第二、東京第六
卓球(男子)
一位—東京第六、二位—神奈川朝中、三位—千葉
卓球(女子)
一位—東京第六、二位—三多摩第二、三位—東京第二

△初級部
サッカー
一位—埼玉、二位—東京第四、三位—東京第六、東京第一
ミニバスケット(男子)
一位—東京第一、二位—東京第四、三位—東京第五、
ミニバスケット(女子)
一位—東京第二、二位—東京第八、三位—東京第七、埼玉

東海地方初級部サッカー新人戦

「東海地方初級部サッカー新人戦」が三月二十四、二十五日の両日にかけて、愛知朝高のグラウンドで行われた。

大会には愛知第二、第三、第七、第十、四日市、岐阜、東濃、静岡初中の八チーム、百五十人のチビッコ選手たちが参加。日ごろの練習成果を発揮し、好プレーを展開した。

試合では、東海地方で常にトップを争っている愛知第二、第三が決勝に進出。その結果六対〇で愛知第三が第二を下し、優勝に輝いた。

大会成績はつぎのとおり。

一位—愛知第三
二位—愛知第二
三位—四日市

(作文)

ぼくの弟

南武朝鮮初級学校 3年 裵将義

ぼくの弟は、今年六歳になります。

とてもわんぱくぼうずで、ぼくはいつも心配しています。

ぼくがいつもいろいろと教えても、わんぱくはつづきます。

ぼくが「ほねなし」と言うと、「おにいちゃんのほうが『ほねろっく』だろう」と、つばをとばしてどなります。

この前は、ぼくのえんぴつをかくして知らんぷりをしていました。

オモニに似て、とじをする時もあります。スケボーでころんであごをうったので、すっとんで行ってみると、あごの所がピンクになっていました。手あてをして、やっとかさぶたが出来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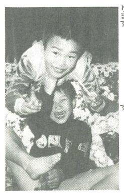
わんぱくな弟は、ぼくがやさしくしてやるのに、きのうはユン・サンジョくんのおねえさんが、修学旅行のおみやげに買ってくれた肩たたきで、ぼくを力いっぱいたたきました。

ぼくはそういう時、弟がにくたらしくなります。

でも、一日のわんぱくをわすれ、すやすやとねている顔を見ると、ついゆるしたくなります。

弟はもう六歳になるのだから、少しずつぼくがわんぱくをなおしてやりたいと思います。

(ぼくはあまいな…)



ぼくらの先生



金民香ソンセンニム
(東京朝鮮第四初中級学校)

ミンヒャンソンセンニムはやさしいけど、ちょっとおこりんぼう。
でもわからないところがあると、ひとつひとつわかりやすく教えてくれる、とても良いソンセンニムです。

絵・文 李相輝(初3)

サークル紹介

ビデオデッキを分解

東京朝鮮第七初中級学校電気サークル



私たち電気サークルは、ふだん何げなく使っているラジオやテレビ、ビデオなどの内部構造について研究する、とても楽しいサークルです。

サークル結成当初少なかった部員は活動二年目になった昨年からぐんと増え、活動内容もより本格的になってきました。

例えば、最近一年間の活動内容について述べますと、ビデオデッキの分解、トランジスターラジオやインターホンの製作、トランスやコンデンサー等各部品の性能と役割についての学習等があげられます。

特にビデオデッキの分解では、私たちが日ごろ使っているビデオデッキが、どれほど高度な科学技術を駆使して作ら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が、とてもよく分かりました。

また、ラジオの制作では、何日もかかって一生懸命作った自分のラジオが初めて音を出した時の感動や失敗した時のくやしさなどが、とても印象的でした。

部員は明るく楽しいトンムばかりです。祖国の技術発展のために一つでも多く学ぼうと、みなとても真剣です。

二年間、電気サークルの部長を務めてきた趙鵬来トンムは、このたび卒業しました。

これからもわが電気サークルが多様な活動を続け、将来祖国を代表する科学者が、この電気サークルから必ず出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禹哲漢)

총련의 모든 조직을 참다운 애국조직으로 만들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2일 (음력 2월 16일) 토요일 【루계 제10173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졸렬한 궤변으로써는 모략의 진상을 가리울수 없다

날날이 드러난 일본경찰청 《사진감정》의 허황성

총련중앙 박재로부의장이

내외기자들과 회견

림윤복, 왕영숙녀성의 비데오를 공표

총련중앙 박재로부의장은 1일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의 책임을 공화국에 덮어씌우려고 계속 악랄하게 날뛰고있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견결히 폭로규탄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내외기자들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박재로부의장은 먼저 일본경찰청이 공표한 이른바 《사진감정》결과의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일본의 경찰청은 총련중앙이 지난 3월 15일에 공표한 정희선녀성의 사진을 《감정》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1972년 11월 평양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는 《김현희=마유미》라고 우겨대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로부의장은 일본의 경찰청이 그 무슨 《사진감정》에 나선것자체가 음흉한 정치적기도를 가진 지극히 부당한 소행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일본경찰청에 의한 《사진감정》은 그 자체가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에 대한 수사활동의 성격을 가진다.

일본당국이 일본의 《위조려권》을 가졌다는 《마유미》에 대한 제1차적수사권을 포기하여 《마유미》를 남조선괴뢰도당에게 넘겨준 사실에서 명백하듯 일본당국은 지금까지 비행기사건에 대한 수사활동을 벌리지 않았으며 수사반이란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것이 정희선녀성이라는것이 뚜렷이 밝혀져 모략책동이 밑뿌리로부터 붕괴되자 경찰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수사활동의 성격을 갖는 《사진감정》을 운운해나선것은 이미 거덜이 난 모략을 발라맞추어 계속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벌릴것을 노린 지극히 부당한 소행이다.

박재로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정희선녀성의 새로운 사진을 공표하고 경찰청의 《사진감정》결과의 허구성을 낱낱이 까밝혔다.

특히 박재로부의장은 얼굴모습이 어떻고 귀모습이 어떻고 하는 경찰청의 발표가 완전한 사실외곡이며 꽃다발을 준 소녀가 정희선녀성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사진을 두고 구체적으로 론증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게시된 정희선녀성의 수많은 사진은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것이 정희선녀성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었다.

특히 정희선녀성의 소녀시절 및 현재의 귀모습과 《김현희》란 녀자의 귀모습을 대비한 사진을 보면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것이 정희선녀성이라는것은 한눈에 확연하다. 또한 얼굴모습 등 그 이외의 특징들도 모두 꽃다발을 준 소녀가 정희선녀성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어 일본경찰청의 발표는 아무런 과학적근거도 없는 허구라는것이 낱낱이 폭로되였다.

박재로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평양에서 꽃다발을 준것이 정희선녀성이라는 것을 뚜렷이 확인하면서 당시 판문점에서 꽃다발을 준 림윤복녀성과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의 3개월전에 있었던 적십자회담시에 판문점에서 남측 단장에게 꽃다발을 준 왕영숙녀성의 증언을 담은 비데오와 사진을 공표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모략기관인 괴뢰안전기획부가 어용언론을 통하여 판문점에서 꽃다발을 준 림윤복녀성과 적십자회담시의 왕영숙녀성의 필림 및 사진을 류포시켜 그것이 모두 《김현희》라고 날조소동을 벌려 내외여론을 오도해나선것과 관련되고있다.

박재로부의장은 림윤복녀성과 왕영숙녀성의 증언을 통하여 괴뢰악당의 소동이 새빨간 거짓말이였다는것이 다시한번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모략소동에 이골이 난 괴뢰도당을 신랄하게 규탄하였다.

박재로부의장은 끝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이 《북의 소행》이 아니라 국제반동들과 괴뢰도당이 한짝이 되여 꾸민 자작자연극이라는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의장은 특히 일본경찰청은 의도적인 사실외곡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더이상 모략소동에 피눈이 되는 남조선괴뢰도당을 두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귀를 보라!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부분이 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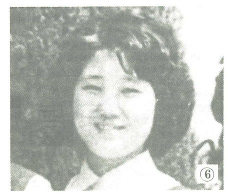
정희선녀성의 소녀시절인 사진①, ②, ③과 현재사진④의 귀모습은 그것이 모두 동일인물임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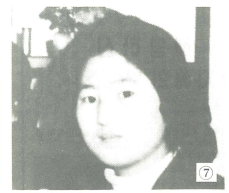
일본경찰청은 사진①, ②를 동일인물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김현희》⑤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현희》의 귀모습은 여우의 귀처럼 귀방울이 없고 납작하다.

사진 ①, ②, ③, ④의 정희선의 귀모습과 《김현희》의 귀모습의 차이는 확연하다. " 경찰청의 발표는 허황하다.











정희선의 얼굴형태야 어데 가겠는가

사진⑥(김형직사범대학 시절)과 사진⑦(평양외국어학원에서의 교원시절)은 정희선이 우리한테 제공한것이며 사진⑧은 현재의 정희선이다.

사진①～③과 사진⑥～⑧을 대비해보자. 그것들이 동일인물의 사진이라는것은 그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하다.



비데오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왕영숙(왼쪽)과 림윤복(오른쪽)

총련중앙이 일본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총련중앙은 3월 31일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이 남조선괴뢰들의 자작자연극이라는 진상과 그 배경에 대하여 새로 폭로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도쿄 간다의 가꾸시회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일본의 학계, 법조계, 로동단체, 경제계, 문화인, 여러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언론계인사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총련중앙 박재로부의장은 당시의 사진과 오늘의 사진들을 비교해보면 누가 보더라도 꽃다발증정소녀는 《김현희》가 아니라 정희선녀성이라는것을 알수 있다고 했으며 귀모습 등 구체적분석에 기초하여 일본경찰청의 주장은 흑백을 전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움직일수 없는 물증을 가지고 반박하였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평양에서 정희선녀성과의 인터뷰내용을 수록한 비데오록화편집물이 상영됐다.

시대를 밝히시며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독창적인 구성부분으로 체계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령도방법의 근본특징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시고 그 사상리론적내용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 혁명투쟁의 가장 정확한 지도방법으로서의 주체의 령도방법의 위대성을 뚜렷이 밝히시고 그 위력과 생활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빛나는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게 하는 근본특징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의 령도방법의 독자적인 지위와 본질적특징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입니다.》

령도방법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새 사회를 운영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지난 시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령도방법문제를 독자적인 리론으로 체계화하여 내놓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특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천명하고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체계화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하여오신 독창적인 령도방법으로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방법이며 여기에 주체의 령도방법의 근본특징이 있고 그 위대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주체의 령도방법이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사상리론적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체의 령도방법은 바로 이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였기때문에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령도방법으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적방법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완벽하게 론증하시였다.

◉…◉

탁월한 사상리론과 명제들에 대한 해명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명제들을 제시하시여 주체의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계승발전시키시였다.

그 내용들에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한 대중령도리론의 전일적인 체계화, 혁명적령도체계와 혁명적령도예술에 관한 리론에 대한 심화발전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새롭게 심화발전시키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기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 특히는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이 대중령도의 최고원칙이라는것을 심오히 밝히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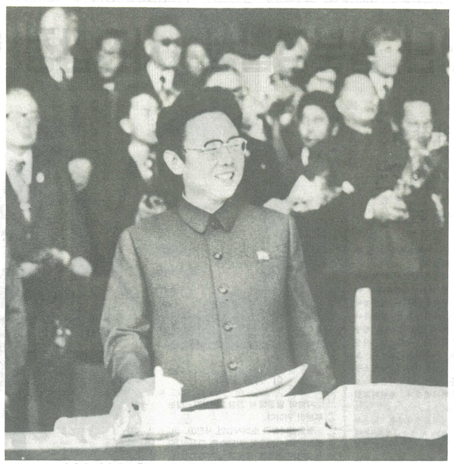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한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인민대중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벌려나갈수 있으며 그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바로 여기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이 혁명적령도의 최고원칙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대중령도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시고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울데 대한 문제, 수령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따라배우고 구현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고 심오히 밝히심으로써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계속)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우리 학습실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의 둘째체계에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수령관을 확립하도록 하는것을 주체사상교양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시고 여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합니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즉 인민대중이 처음부터 어느때나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는것은 아니다. 착취계급사회에서의 인민대중의 처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였다고는 말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나설수 있게 된것은 선진적로동계급이 출현한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은것은 첫째로,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지게 되였고 둘째로, 그 혁명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였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한 근본조건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는것이다.

이로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라고 규정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의 두리에 결속된 인민대중을 말한다.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당과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실현된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세계의 목소리

고전적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학습하고

《김정일비서께서 해명하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

디. 에쓰. 부와랴

김정일비서께서는 문헌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해명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의 원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시였다.

자유와 평등은 력사적으로 고찰할 때 봉건제를 반대하는 부르죠아혁명기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고 특히 계급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자유와 평등의 구호에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념원이 반영되여있다. 그것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념원이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사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구호는 본질상 부르죠아적이며 인민대중의 참다운 요구, 념원을 반영하지 못한 공상적구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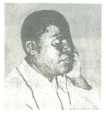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리상사회를 그렸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상의 령역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민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방도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공상적구호는 과학적구호로 발전하였다.

주체사상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과학적사회주의의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이제까지 제기되지 못했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새롭게 천명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차원의 원리를 밝혔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에 기초하여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집단주의를 전면적으로 발휘할수 있게 하는 높은 차원의 원리이다.

(잠비아통일민족독립당학교 학부장)



한장의 사진에서

로동자들의 건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4년 4월, 조업식을 준비하고있던 어느 발전소를 찾으시였다.

변압기실로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출입문가에 걸려있는 온습도계를 바라보시며 《습도가 좀 높구만.》 하고 누구에게라 없이 말씀하시였다.

발전소일군들은 습도가 높은것은 발전소를 새로 지었기때문이며 배풍장치를 잘해놓았으니 앞으로 습도가 자연히 낮아질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변압기실을 돌아보시고 나오실 때였다.

《보시오. 저기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천정의 한쪽 구석에서는 자그마한 물방울이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렇게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니 습도가 높을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작업장에 습기가 차면 로동자들이 병에 걸릴수 있다고 걱정하시였다.

한 일군이 앞으로 꼭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근엄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고쳐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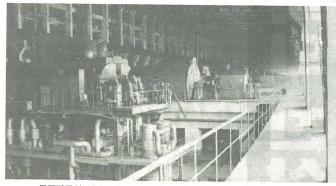
나라의 전력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로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고서는 발전기를 돌릴수 없습니다.

조업식을 미루더라도 로동자들의 건강을 철저히 담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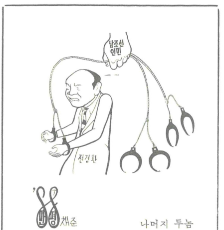
로동자들의 건강과 인민의 리익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키시는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견지하고계시는 확고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온 나라에 자동화의 봉화를 지펴올리신것도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시려는 그이의 높은 뜻에서였으며 경제적인 리익보다 주변인민을 생각하시여 공장부지를 옮기도록 하신것도 그이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뜨거운 인간애가 깔려있다.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나라 여러 공장들에서는 안전설비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나머지 두놈

목소리

민족의 넋

50억의 인구가 사는 지구상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언어가 존재하는가. 질문은 단순하나 해답이 명백치 않은것이 세계의 언어수이다. ▼우리 학교의 교과서에는 2,500여개라고 밝혀져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도 이 수자로 공통되여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년간 남미주나 파푸아 뉴기니아, 아프리카 등에서의 언어조사사업이 진척됨으로써 그 수는 날로 불어나고있다. ▼지난 3월에 일본의 산세이도(三省堂)에서 출판된 《언어학대사전1(세계언어편)》에 의하면 현재 확인된 언어수는 3천 5백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강대국의 침략과 식민지지배의 력사 속에서도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언어를 필사적으로 지켜왔다는것을 증명해주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만큼 언어는 민족의 넋으로서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있다. ▼조선민족이 쓰는 우리 말 역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속에서 외래침략자들의 민족어말살책동을 그때마다 짓부시고 인민들의 슬기와 정기가 깃든 말로 발전해왔다. ▼우리 말은 3천 5백개 언어중에서 11번째로 사용인구가 많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이다. 우리 말은 류창하고 억양이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다울뿐만아니라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어 세계지식인들속에서 부러움을 받고있다. 그런데 이 훌륭하고 자랑찬 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재일동포들속에는 모국어를 모르는 새세대가 적지 않다. 말은 민족의 얼이요 정신적재부의 하나이다. ▼4월 초하루부터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이 시작되였다. 결성이래 우리 말을 꽃피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려온 총련에서는 공화국창건 40돐을 지향하여 호조반을 1만조 설치하고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운동을 군중적으로 벌려나간다. 우리 말을 아는 사람은 《호조반선생》이 되고 우리 글을 모르는 동포는 《학생》이 되여 조선민족의 징표인 우리 말을 꼭 배워주기를 바란다.

불레찐《자주의 기치》제34호 발행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에서

【평양 3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에서 불레찐 《자주의 기치》 제34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특집발행되였다.

친선의 왕래

▲중국을 방문하는 출판총국 김송준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출판대표단이 3월 3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이에 앞서 중국공산당 강소성위원회 서기 한벼신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강소성위원회대표단이 3월 2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계속 힘차게 벌려 반공화국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시자

5천호방문담화사업을 심화

총련 야마구찌현본부

세상에 드러난 남조선괴뢰들의 허위날조극을 규탄하는 내외여론이 크게 환기되고있는 속에서 총련 야마구찌현본부는 유세사업과 정치선전행동으로서 5천호방문담화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하고있다.

《마유미》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즉시로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진상과 본질을 폭로하자고 지부와 분회, 사업체들에서 여러번에 걸쳐 진행한 각종 군중모임에는 2월말까지 3천명이 망라되여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에 대한 분격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그들을 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3월에 들어선후 박산이 난 허위모략책동을 두고 이곳 본부는 더 대대적인 정치선전활동에 떨쳐나섰다.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3천개 준비(현재 1천 500개)하고 나날이 밝혀지는 《꽃다발증정소녀》와 관련한 새 사실을 록화편집물에 주입하였다.

비데오속에서 총련의 발표와 괴뢰들의 발표를 대비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본텔레비죤에 방영된 정회선녀성의 기자회견모습을 주입함으로써 진실호소의 효과성을 높였다.

각 지부는 5호담당선전원의 발동으로 분회와 동포 가가호호에서 비데오록화편집물을 상영하고있으며 민단동포와 정내회역원들 속에 적극 들어가 사건의 본질을 알리고있다.

현상공회와 지역상공회에서는 《세금신고》사업의 마당에서 동포업자들에게 모략사건의 진상을 알려나갔으며 회원들에 대한 해설선전을 심화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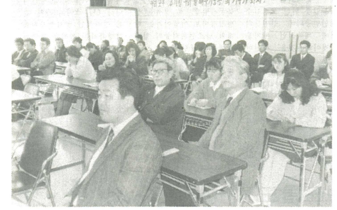
조은야마구찌신용조합에는 1월 22일이후 우익깡패들의 선전차가 150번에 걸쳐 몰려왔다. 이런 속에서도 조선신보사 사회부장의 수기가 게재된 잡지 《슈깡다이슈》를 4천부 사들여 리사, 조합원들에게 가져다주면서 해설사업을 벌렸으며 비데오록화편집물을 가지고 일본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상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3월결산사업으로 매우 바쁜 속에서도 조은일군들은 1천 500호에 직접 들어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녀성동맹은 동포녀성들과 일본녀성단체를 대상으로, 교직동과 교원들은 일본 교원들과 현, 시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금강보험은 일본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비데오상영을 배합한 정치선전을 심화하고있다. 발동되고있는 수는 1천명을 넘게 되였다.

정치선전에 접한 한 민단역원은 《처음부터 모순이 많은 사건이였다. 생각컨대 광주에서 수천명을 무참히 살해한 현〈정권〉이 모략을 위해 로동자 110여명을 죽이기는 쉬울것이다.》고 하고있으며 비데오를 본 일본인민들도 《마유미자체가 허위날조품이였다는걸 잘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사업에 동조해나서고있다.

총련 야마구찌현본부는 일본 국회, 현의회, 시의회 의원들, 로조, 단체 역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문과 우송의 방법으로 비데오록화편집물을 계속 침투하며 현하 150만 일본인민들속에서 남조선괴뢰와 배후조종자인 미국과 일본반동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퍼지도록 제반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각지 총련일군들은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계속 힘차게 벌리고있다.
(사진은 총련 야마구찌현본부 일군들)

각종 대외모임과 선전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

총련 히로시마현본부

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보게 된 히로시마현하의 에기 나오미교원은 이렇게 말했다.

《정치와 매스콤의 대대적인 선전은 모르는 새에 내 시점을 흐리게 하였고 저도 모르게 거기에 휘말려들었다는것을 통감하였다.

이야기를 듣고 비데오를 보면서 칼기사건에는 여러가지 모순과 문제가 가득 차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보도선전에 춤출것이 아니라 확고한 시점으로 사건과 오늘의 사회풍조, 국가의 동향을 주시해야 할것이다.》

그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의 각계층 광범한 일본사람들은 남조선괴뢰들이 저지른 허위날조극을 간파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총련 히로시마현본부의 대중유세사업과 정치선전행동은 오늘도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1월, 2월만 하여도 이곳 본부는 1천 500명 동포들을 대상으로 모략책동의 진상과 본질을 해설하였으며 3번에 걸친 가두삐라살포(한번에 8개소)를 진행하여 3만 1천 200장의 삐라와 해설자료를 뿌렸다.

특히 대외정치선전에 각별한 힘을 돌린 본부는 현하 로조, 단체들과 사업하고 그들의 주최에 의한 강연회마당에 강사로 출연하여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의 내막을 까밝혔다. 지난 2월 8일에는 후꾸야마시(270명)에서, 9일에는 히로시마시(360명)에서 대외강연회를 가졌으며 그후 미요시지역, 간나베지역에서 조직된 일본사람들의 강연회장에서 발언(10번)하는 등 모두 1,331명에게 괴뢰안기부 《수사결과》의 허구성을 알려주었다.

또한 학습회, 좌담회, 기자설명회, 영화회 등의 대외모임을 수시로 짜고들어 328명의 각계 일본인사들에게 모략의 진상을 해설하였다.

본부는 유세사업과 결부한 조은의 3월결산, 《애국영예기쟁취운동》궐기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호별방문을 통한 해설을 적극 심화하고있다.

총련 니시히로시마지부에서는 5호담당선전원들이 비데오록화편집물을 가지고 호별방문담화에 나서고있으며 히가시히로시마지부 아이오이분회 또한 위원들이 5호담당선전원체계에 따라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고있다.

강연과 비데오상영을 합한 대중유세사업은 3월이후 더욱 활발해지고있으며 중소규모의 모임을 수많이 조직진행하여 모략사건과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계속 환기시키고있다. 이 사업은 새로 대외적으로 500명, 대내 300명에 대하여 계속 벌어지게 된다.

남조선비행기사건은 국제적모략이다

조선문제시국강연회

총련 효고현본부 주최로 —500여명이 참가—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이 계속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문제시국강연회가 3월 22일, 총련 효고현본부의 주최로 고베시 뽀토피아호텔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일본사회당소속 참의원의원인 효고현평화운동쎈타 고따니 마모루회장, 고베상공회의소 후지이 시게다상근참여(常勤参与), 전 효고현총평 오꾸 모끼찌의장, 고베신문사 나까히라 구니히꼬론설위원, 일본사회당 효고현의회의원단 마도노 도미오간사장을 비롯한 일본의 각계 저명인사들과 동포들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강연회에서는 덴 히데오참의원의원과 리쯔메이깡대학 세끼 간지교수가 강연하였다.

그들은 강연에서 이번 사건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기운을 가로막으려는자들의 국제적모략이란데 대하여 까밝혔으며 그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적대적조치와 일본언론계의 일방적인 보도선전을 비난하였다.

이날 강연을 듣고 공명당소속 가다오까 유사꾸고베시의회의원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고있었는데 오늘 강연이 명백한 해답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평론가 간바라 스에가즈씨는 《자기도 강연을 하는 기회가 많은데 그때마다 오늘 들은 강연의 내용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는 《반평화세력의 국제적모략을 우리들은 용서치 않는다》는 효고현 학자문화인유지의 명의로 된 성명이 발표되였다.

【효고지국】



총련 효고현본부 주최로 진행된 조선문제시국강연회

일본정부는 《제재조치》를 철회하라

일본사회당 나가노현본부가 결의 채택

일본사회당 나가노현본부가 제52차정기대회(3월 26일)에서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공화국에 대하여 취한 《제재조치》를 속히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이번 비행기사건은 남조선당국의 자작극이라고 지적하고있다.

대회에는 총련 나가노현본부 황의순위원장이 래빈으로 초대되여 련대연설을 하였다.

【나가노지국】

학습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기층조직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자

《새로운 전환기의 총련사업》(상)이 나왔다

비전임, 분회 일군, 상공회 역원 학습반 기본교재

비전임일군, 분회일군, 상공회역원 학습반용 학습교재인 《새로운 전환기의 총련사업》(상)이 얼마전에 총련중앙에서 발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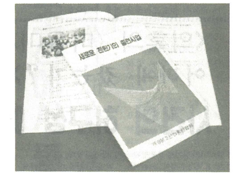
총련분회를 비롯한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기층조직 학습반의 올해 상반년 기본교재로 되는 이 학습교재는 ①전환기에 있는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중요한것이 무엇인가 ②총련조직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튼튼히 꾸리고 활성화해나가자 ③총련의 사상문화사업을 더한층 개화발전시켜나가자 ④총련의 권리옹호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자 ⑤총련의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자 등의 체계로 되여있다.

교재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총련 제14차전체대회 결정 집행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요구성에 맞게 총련과 단체의 기층조직일군들이 총련사업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데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안겨준다.

또한 기층조직 일군들이 학습과정안을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풍부한 자료와 도표, 사진을 배합하고있으며 메모란과 함께 학습토론방향까지 제시해주는 등 이 교재는 보다 통속적으로 실효성있게 만들어지고있다.

강사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매 학습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힘써야 할것이다. 또한 모든 전임일군들이 학습반에 참가못하는 기층조직 일군들과 선전원들에게 이 교재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해설침투할 때 그들의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것이다.

《새로운 전환기의 총련사업》(하)은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우리나라 체육소식

우리 나라 선수들 《모스크우 뉴스》신문상쟁탈 국제체조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보도에 의하면 27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모스크우 뉴스》신문상쟁탈 국제체조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의 신명수선수는 도수운동에서 제2위를, 륜운동에서 제3위를 쟁취하였다.

강성일선수는 조마운동에서, 김철남선수는 철봉운동에서 각각 제2위를 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쏘련, 중국, 꾸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웽그리아, 로므니아,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한 체조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조선과 중국 녀자롱구선수단 친선경기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우리 나라 녀자종합롱구선수단과 중국 료녕성녀자롱구선수단사이의 친선경기가 27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84:74로 이겼다.

한편 이에 앞서 있은 경기들에서 중국 료녕성선수들은 우리 나라 4.25선수들과는 85:83으로, 평양시선수들과는 82:81로 패하였으며 기관차선수들을 112:72로, 압록강선수들을 81:80으로 이겼다.

조선, 몽골 배구선수들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남자배구선수단들과 몽골남자배구선수단사이의 친선경기들이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압록강, 기관차, 평양시 남자배구선수단들은 몽골남자배구선수단을 각각 3:0으로 이겼으며 청천강남자배구선수단은 2:3으로 졌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88 피스홀 인 교또》에 조선코너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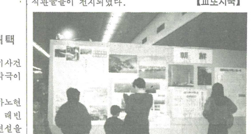
교또부하의 로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공최로 3월 20일에 열린 《88 피스홀 인 교또》(올해 주제는 《평화, 인권, 련대》)의 국제련대성코너에 조선코너가 설치되여 참가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여기에는 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건설성과와 전망, 조선통일방안,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등 사진과 직관물들이 전시되였다.

특히 회장내 대화면의 텔레비죤수상기에서는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되여 이날 회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의 본질을 알려주었다.

한편 공화국의 특산물들도 전시판매되여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교또지국】



《88 피스홀 인 교또》의 조선코너

평양방송 재일동포시간

아침6.30~7.00 저녁7.30~8.00

날자	시간	프로그람
2일(토)	저녁	《재일조선학생들을 위한 방송》 —《참관일정까지 념려해주시며》 —평안남도 안주시 덕성남자고등중학교를 찾았던 최정순기자의 방문기
3일(일)	아침	《앞날의 과학자로 자라요》 —함경북도 청진시 철도기술학교 전성학생의 수필《삶에 대한 생각》
	저녁	—《나라의 통일과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것은 총련의 중요한 과업》 —조선중앙사진전람사 김중현부장의 체험담《자기 일에 대한 높은 긍지를 안고 산다》
4일(월)	아침	—《핵전쟁의 구름을 몰아오는 군사연습》
	저녁	—《사랑의 화폭》 —총련 히가시오사까남지부 김영충부장과 기자가 나눈 문답《〈애국영예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들고》
5일(화)	아침	—《방송우편함》—평안북도 동림군에서 사는 곽태섭로인이 아이오이시의 딸 곽삼소녀성에게 보내는 편지

평양방송—중파 621.657.684.729.801.855 단파 3320.6250.6400
조선중앙방송—중파 819.1080 단파 6600.9665.11680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여러 나라 사회계가 계속 규탄

《팀 스피리트 88》연습을

쏘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등이 성명

따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쏘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3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새로운 합동군사연습인 《팀 스피리트 88》은 조선뿐아니라 전체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에서 쏘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지역정세를 심히 복잡하게 만드는 미국과 남조선군사통치배들의 또 한차례의 무력시위를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은 북과 남사이의 건설적인 대화를 마련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우에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가나아프리카청년지휘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벌리고있는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과 모략적인 남조선려객기사건을 규탄하여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 련대성편지를 보내여왔다.

편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20여만의 군대와 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린데 대해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의 조종을 받아 려객기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조작한 사실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수사결과》는 남조선당국자들자신이 조작해낸 완전한 허위이다.

우리 가나아프리카청년지휘부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투쟁에 계속적인 지지를 보낼것이라는것을 확언한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규탄한다.

전쟁두목 미국은 자기 군대와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각국 출판보도물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몽골신문 《울란 오드》 3월 16일부는 《불장난으로》라는 제목의 론평에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과 위험성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론평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라는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그것이 《방어훈련》이라는 구실을 붙이고있는데 이것은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베닌신문 《에휘쥐》 3월 16일부는 《조선반도에서의 정세악화》라는 제목밑에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였다.

신문은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은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멘아랍공화국 잡지 《알 호쌈》 3월호는 《평양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에 경고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폭로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쏘련의 아빼엔통신은 3월 23일 《정기적인 칼부림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과 남의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수많은 평화적제안들을 내놓은데 대하여 상기시키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리고있는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선전공세는 공화국이 내놓은 건설적인 발기들에 응하지 않으려는 제놈들의 의도를 가리우기 위한 엄페물로 리용되고있을뿐아니라 《팀 스피리트》와 같은 정기적인 군사적시위를 감행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라오스신문 《빠싸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의 범죄적목적을 까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이 해마다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단순한 군사연습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을 완성하기 위한것이다.

마다가스까르통신사 사장 뾜 라사휘마하루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하며 이 지역을 영원한 군사기지로, 핵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모험적이며 범죄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견결히 규탄한다.

마다가스까르신문 《이뭉구 바우바우》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이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일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라고 폭로규탄하였다.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 김일성주의연구소조의 주최로 진행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소조 서기장 할리드 미까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선과 아세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팀 스피리트 88》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철거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주간일지

3월 23일 (수)~3월 29일 (화)

북반부

23일(수) 공화국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할것이라고 지적. ◆군사정전위원회 제490차비서장회의 진행.

24일(목)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와 시위 진행.

26일(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이딸리아의 까자쬬베시에서 명예증서와 선물, 기념메달을 드린 소식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28일(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이왕국 국회대표단을 접견하심.

재일동포

25일(금)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조일학자들의 간친회 도꾜 죠스이회관에서 진행.

26일(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총련의 과학자, 의료일군들에게 수여하여주신 공화국박사학위를 전달하는 모임 조선회관에서 진행.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힘차게 벌리기 위한 상공련, 조청, 녀성동맹, 조신협, 류학동 합동회의가 조선회관에서 진행.

남조선

25일(금) 서울, 연세, 서강 대학 학생들 300여명이 군사훈련강요를 규탄하여 시위. ◆전남대, 조선대 학생 1,000여명이 전두환족속들의 부정행위를 단죄하여 시위. ◆괴뢰검찰, 커다란 정치의혹사건으로 번진 《새마을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하수인 전경환의 《체포》를 검토하기 시작. 련일 남조선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추궁.

26일(토)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군사훈련강요를 배격하여 시위 전개.

국제

23일(수) 중국의 신화통신,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

26일(토) 쏘련의 따쓰통신,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

28일(월)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과 관련하여 《마유미》서울이송을 묵인하는 등 제1수사권을 포기한 일본경찰청,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 무슨 사진의 《감정》결과란것을 들고나와 꽃다발소녀는 현재 평양에 거주하고있는 정희선녀성이 아니라 《마유미(김현희)》란 생억지주장을 함.



《의혹의 〈마유미사건〉—그 대한기는 어디에 갔는가?》 나까가와 노부오 저 출판

사건의 허구성 예리하게 도려내여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의 모략적본질이 드러나고있는 가운데 단행본 《의혹의 〈마유미사건〉—그 대한기는 어디에 갔는가?》가 쯔게쇼보(柘植書房)에서 발간되였다.

저자는 평론가 나까가와 노부오(中川信夫)씨.

대다수의 일본언론이 국제반동들과 괴뢰악당의 조작발표에 춤추며 근거없는 《북의 소행》설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고있는 속에서 랭철하고도 객관적인 추적과 분석을 통하여 사건의 본질과 의문점을 날카롭게 도려낸 단행본의 출판은 처음 되는 일로서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는데서 의의가 크다.

저자가 앞말에서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이 책은 이번 사건이 남조선체제내의 강경파의 소행이라고 본다면 제일 앞뒤가 맞는다는 저자자신의 판단과 문제의식을 기초로 엮어지고있다. 또한 저자는 남조선정보기관의 《수사결과》발표를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단시(異端視)되는 기묘한 정보통제분위기가 강화되는 속에서 《이상한것은 〈이상하다〉고 말하고 의문이 되는 점이 있으면 그 해명을 요구하는 태도를 고수하여야 한다》는 결연한 립장에 서서 이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총론 《칼기실종, 〈마유미〉, 〈은혜〉》, 제1부 《〈마유미사건〉의혹의 구조》, 제2부 《중대한 5개의 의문점》, 제3부 《자료》로 구성되고있다.

저자는 총론 등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이 《마유미》의 《자백》이나 《은혜》문제 등에 있는것이 아니라 남조선비행기가 행방불명이 되였다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있다.

《줄기가 있어 처음으로 지엽이 생기고 1층부분이 있어 처음으로 2층이상의 부분의 존재가 가능한것처럼 이 사건에는 근간 1층에 상당하는 중요부분이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사건의 근간이 바로 기체의 행방에 있으며 《마유미사건》, 《은혜》찾기 등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사건의 구도를 선명히 부각시키고있다.

또한 저자는 그와 같은 《중요부분》과 관련한 커다란 의문점을 ①《마유미》의 《자백》이외 물증이 전혀 없는 점 ②《마유미자백》의 불자연스러움 ③폭파실행단계에서의 의문점 ④도주단계에서의 기묘한 행동 ⑤《북조선의 범행동기》의 무근거함 등 5가지로 정리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는 1부와 2부에서 상세히 전개하고있다.

특히 저자는 사건의 핵심중의 핵심이 《마유미》가 아니라 행방불명이 된 기체가 발견되지 않고있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괴뢰악당이 기체수색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저자의 사건을 보는 이와 같은 시각은 지극히 리성적이고 타당하다.

미일《한》반동들이 악랄한 정보조작책동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딴데에 끌고 가려고 책동하고있는 속에서 이와 같은 시각에서 사건을 랭철하게 관찰하게 된다면 괴뢰악당에 의한 조작발표놀음의 허구성은 자연히 부각되게 된다.

한편 저자는 《이번의 칼기=〈마유미사건〉은 도꾜를 쎈타로 하는 일대국제정보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미일《한》반동들의 정보조작놀음을 고발, 그 배경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있다.

특히 저자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리익을 얻은것은 다름아닌 남조선괴뢰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이 ①《대통령선거》에서의 로태우에 대한 강력한 부추김 ②《6.29》이후의 민주화를 향한 커다란 흐름에 대한 견제 ③올림픽공동주최의 가능성차단 등에 극히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고 강조하고있다.

일본의 수많은 언론들이 미일《한》반동들의 교묘한 정보조작에 춤추며 무책임한 보도를 마구 흘리고있는것과는 달리 사건의 본질을 랭철하게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저자의 진지한 자세는 수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것이다.



《안기부》가 내놓은 사진이 허위날조임을 준렬히 고발하는 정희선녀성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4일 (음력 2월 18일) 월요일 【루계 제10174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일본당국은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철회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꾜도조선인대회 진행

공화국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 철회와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도꾜도조선인대회가 1일, 신쥬꾸의 아사히세이메이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총련중앙 신상대부의장과 배병두 부의장겸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을 비롯하여 도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70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래빈으로 참가한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회 간사장 도꼬이 시게루변호사, 조선통일지지도꾜부인련락회 야마구찌 미야꼬사무국장, 배우 다다라 쥰씨들이 각각 련대연설을 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음흉한 정치적기도밑에 날조된 모략사건에 대하여서와 일본정부당국의 이른바 《제재조치》에 대하여 지탄하면서 신념과 신심을 굳게 가지고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분발해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배병두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먼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미제의 작전밑에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공모결탁하여 자작자연한 일대 모략극이라고 지적한 다음 소위 《마유미자백》, 일본경찰당국의 《사진감정》 등의 허황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특히 그는 첫시기 국제관례마저 무시하여 위조일본려권소유자였던 《마유미》의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해놓은 일본당국이 이번에 그 무슨 《감정》이라고 하면서 사실까지 심히 외곡하여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적극 가담해나선데 대해 언급하고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이번 모략사건의 비호자, 대변자이며 공범자라고 강조하였다.

일본당국이 이른바 《제재조치》를 선포하였을뿐아니라 뻔뻔스럽게 《올림픽이 끝난 다음 철회하겠다》고 말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미제의 지휘밑에 남조선에서 파쑈적군정을 연장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올림픽》의 서울단독개최를 성사시키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계속 감행하려는 모략적기도를 스스로 폭로한것이라고 힘주어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제재조치》를 우리 조선인민과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행위로, 평화와 조선의 통일을 요구하는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에 어긋나는 침략적이고 범죄적인 책동으로 락인찍고 견결히 단죄규탄하였다.

또한 일본당국자들이 지난날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부당한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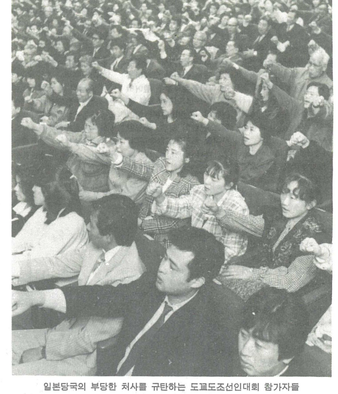
한편 그는 남조선려객기사건을 계기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과녁으로 하는 엄중한 사건들이 조직적으로, 집중적으로 련이어 발생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하였으며 일본정부가 총련의 합법적활동과 동포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끝으로 그는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이 발악해나설수록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고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나까스기상공회 홍순일리사장, 조청본부 조선오선전부장, 녀성동맹본부 채정강조직부장, 도꾜제4초중의 학부형인 현경자녀성들이 각각 성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일본정부당국에 보내는 요청서가 채택되고 요청단이 구성되였다.

이날 대회에 앞서 기록영화 《꽃다발의 소녀는 나입니다》가 상영되였다.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도꾜도조선인대회 참가자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재일조선공민출신 대의원들의 재입국허가를 거부한 처사와 관련하여

총련중앙 김기철사회국장이 담화를 발표

공화국최고인민회의의 참가를 위한 재일조선공민출신 대의원들의 재입국허가를 거부한 일본당국의 처사와 관련하여 총련중앙 김기철사회국장은 1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본법무성당국은 3월 31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5명의 재일조선인출신 대의원이 오는 4월 5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고 일본에 재입국할수 있도록 신청한데 대하여 아무런 정당한 리유도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당국의 이와 같은 처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모독하고 재일조선공민들의 응당한 권리행사를 침해유린한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견결히 항의규탄한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고 그를 위해 조국을 방문하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것 《모든 사람들은 직접 또는 자국에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한 그 어느 나라라도 떠나고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서 명확히 담보된 만민의 권리인것이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금번의 재일조선인출신 대의원들의 재입국문제에 대하여 전진시킬 대신에 지난 시기보다 후퇴시키는 립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일본당국은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꾸민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제재조치》란것을 발표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동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일본당국은 일본에 들어오려는 공화국의 상사일군들과 각종 실무일군들의 입국마저 거부하는 한편 일본 각지에 들어오는 우리 나라 선박과 선원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규제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지어 《만경봉》호와 《삼지연》호의 선장들이 입항지의 환영동포들이 주는 꽃다발을 받기 위해 부두에 내리는것마저 금지하고있다.

일본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우익깡패들의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파괴와 인권침해 책동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일본당국의 금번 처사는 바로 이와 같은 적대행위의 일환으로서 미제의 《두개 조선》전략 실현을 위하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결탁밑에 그들의 범죄만행을 적극 비호, 조장하려는 기도에서 나온것이다.

이러한 일본당국의 태도는 조일 량국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 배반되는것이며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다.

일본당국은 내외여론과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일본당국은 공화국에 대한 소위 《제재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재일조선공민출신 대의원이 조국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할수 있도록 그들의 일본재입국을 인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광범한 일본인민들과 세계 선량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조국왕래의 전면적실현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다.

미제가 올림픽전기간에 걸쳐 남조선연해에서 군사연습을 획책

워싱톤에서 한 외신이 전한데 의하면 미태평양함대사령관이란자가 3월 28일 《서울올림픽》 전기간 남조선연해에서 군사연습을 벌릴것이라고 떠벌여댔다.

이 호전광들은 지금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고있는 대형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기타 여러 척의 함선들이 남조선해역에 《계속 남아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떠벌였다.

이것은 평화와 올림픽리념에 대한 란폭한 유린일뿐아니라 공화국의 평화노력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제24차올림픽경기를 저들의 침략과 전쟁 목적에 악용하려는 미제의 책동이 날이 갈수록 무모하고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폭로해주고있다.

올림픽을 방편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증강하여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으며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놈들의 범죄적책동을 지켜보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미제는 올림픽을 구실로 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준비를 강화하려는 범죄행위를 걷어치워야 하며 무모한 도발소동이 가져다주게 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할것이다.

사설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자

제주도인민봉기 40돐에 즈음하여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적무장투쟁이였다.

30만도민중 무려 24만여명의 참가밑에 일대 반미구국투쟁으로 타번진 제주도인민봉기는 미제침략군의 살인마적인 탄압광풍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뿐아니라 7만여명의 희생자들을 내고말았다.

더우기 분격을 금치 못하는것은 4.3인민봉기의 력사적사실이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살인만행을 은폐하기 위한 미제와 괴뢰도당에 의해 오랜 세월 완전히 은폐되고 외곡되여온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인민들의 영웅적무장투쟁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앙양, 파급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과 더불어 그 사실과 면모가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방들에서는 〈선거〉를 반대하는 인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군정을 실시하던 미제는 신식민지통치를 실시하려고 단독선거놀음을 꾀하였다. 그러자 통일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은 단독선거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에로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조국통일을 요구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을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해나섰다.

특히 미제는 2월중순 제주도 안덕면에서 열린 통일정부수립을 요구하는 군중집회에 무장경찰과 테로단을 시켜 참가자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이에 분격한 제주도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폭력에 자위적폭력으로 맞서나갔던것이다.

그리하여 이 무장투쟁은 끝내 4월 3일, 제주도 전인민적인 무장봉기에로 번져나갔다.

《…매국단선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독립과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와 주구들의 학살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라는 호소문을 내걸고 2년간 청장년 남자들뿐만아니라 중년 아낙네, 소년과 로인에 이르기까지 떨쳐나서 제주도전지역을 뒤흔든것이 4.3인민봉기였다.

이에 대하여 미제는 침략군외에 1,500여명의 무장경찰, 3,000여명의 《국방경비대》, 수천명의 무장테로단을 동원하여 《토벌》작전을 시작하고 제주도전역을 초토화하는 한편 도처에 학살장을 설치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였다.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주도인민들은 목숨을 걸고 미제와 괴뢰도당의 5.10단선을 끝끝내 반대하였다.

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4.3인민봉기의 기본정신은 반미구국이였다.

우리는 4.3인민봉기 40돐을 맞으면서 비록 죽을지언정 미제의 식민지예속을 허용할수 없으며 통일만이 조선인민이 살아갈 길이라는 정신을 배워야 한다.

이와 함께 미제는 조선인민을 예나 지금이나 닥치는대로 학살해온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오늘도 남조선을 군사식민지로 만들고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는 침략자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특히 재일동포 새세대들은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오늘의 현시점에서도 엘쌀바도르의 수만명 인민들을 대량학살하고 신생그레네이더를 무력으로 압살하였으며 니까라과를 침략하려는 미제의 본질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오늘 조국땅우에서 20여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백인외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마구 학살하고있는 미제야말로 전세계인민들이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침략과 학살의 원흉이다.

해방후 미제의 군정하에 있었던 남조선인민들이 생활의 체험으로서 반미구국투쟁을 벌린것처럼, 오늘 미제의 식민지하에서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이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들고 목숨바쳐 싸우고있는것처럼 조선인민의 진정한 행복, 자유와 민주주의, 조선에서의 평화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반미투쟁을 힘차게 벌리는 남조선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해나가야 하며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한다.

(각지 우리 학교들에서 입학식)



총련 각급 학교 1988학년도 입학식이 1일 각지 초중고급학교에서 일제히 진행되였다.(일부는 5일)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 각지 신입생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총련애국위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커다란 희망과 포부, 기쁨을 안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화원에 안겼다.

(사진은 도꾜조선제8초급학교에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생명선이라 하시며

—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에 깃든 위대한 령도 —

지금 우리 나라 순천땅에 방대한 규모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웅장한 자태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건설대상의 하나입니다.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 자원이 많고 기술적으로도 파악이 있는 카바이드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미 가렬한 전쟁의 그날에

1983년 4월하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협의회에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한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를 토의하시면서 섬유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 나라 실정에 제일 맞는것이 비날론이라고 하시며 짧은 기간에 순천지구에 10만톤능력의 대비날론공장을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믿음이 어린 눈길로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인민들의 입는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천 15억메터만 해놓읍시다, 그러면 우리 인민이 더 잘살수 있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협의회가 있은 다음날인 4월 27일 중요대상건설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순천땅을 찾아주시였다.

그날 공장의 터전을 확정하시려고 사위를 둘러보시더니 깊은 추억에 잠기신듯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동강이 가깝고 석회석과 무연탄이 무진장한 이 지대는 자신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화학공장을 건설하려고 점찍어두신곳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에 일군들은 잊을수 없는 전화의 나날에 있은 일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미제침략자들이 류례없는 무차별폭격을 감행하던 1952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참가한 일군들에게 전후경제건설의 구상에 대하여 말씀해주신데 이어 순천지구를 가리키시면서 자신께서는 물이 많고 무연탄과 석회석이 무진장한 이 지구에 앞으로 대산업기지를 일떠세울 생각을 해오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선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승리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주체적인 화학공업의 확고한 전망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일떠세우실 대산업기지의 터전까지 마련해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신심이 넘쳐났었다.…

15억메터의 천고지 점령위해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면과 현지지형을 하나하나 대조해보시면서 비날론생산공정은 어디에 전개하고 연료기지는 어떻게 꾸리며 비날론생산에 자체로 전기를 공급할 화력발전소는 어디에 건설할것인가 하는 대상건물들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찍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들에서 나오는 버림물처리대책을 잘 세워 유해물질이 강물에 흘러들어가 인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게 설계를 잘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속도전을 벌려 설계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를 비롯한 주요회의들에서 다시금 중요건설대상들이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서 노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을 다그쳐 화학고지와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현명한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1986년 4월에 기업소건설을 맡은 일군들을 만나시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생명선이기때문에 자신께서는 여기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당, 전국, 전민, 전군이 달라붙어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내에 공사를 끝낼데 대하여 힘주어말씀하시였다.

또다시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던 1986년 10월 15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에 동원된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은 또다시 감격에 넘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였다.

그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료 및 연료 가공구역과 카바이드구역, 비날론구역을 비롯하여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이 파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실속에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중요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건설투자액과 공사량을 줄이는데 기여한 사실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건설에 동원된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기다리고있는 기념촬영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에 참가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자면 식의주문제를 풀어야 합니다.…식의주문제를 푸는데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가까운 앞날에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마련된데 대하여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천이 15억메터이면 해마다 인구 한사람당 83메터씩 차례지게 되는데 이것은 대단합니다.…인구 한사람당 천이 83메터씩 차례지면 입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이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업이기때문에 당중앙위원회는 동무들을 믿고 이 어렵고 거창한 과업을 맡기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현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 관계부문 일군협의회가 열렸다.

마침내 카바이드생산을 시작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순천땅에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을 맡아나선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의 불꽃튀는 투쟁에 의해 류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곳 건설장의 비날론구역과 카바이드구역, 화력발전소구역, 원료 및 연료가공구역 등의 넓은 부지면적에 260여개의 건축물들이 완전한 자태를 드러냈고 일부 공정의 대상설비들이 시운전단계에 들어섰으며 150여리의 버림물길공사가 끝나 공장에서 나오는 버림물이 정화되여 서해바다까지 흘러가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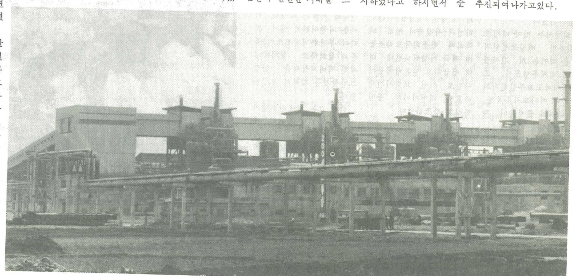
방대한 건설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마침내 첫 카바이드로에 불을 지필수 있게 되였고 새해에 들어서는 첫걸음으로 카바이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최근에도 당과 국가의 주요회의들에서 우리 당에서는 제3차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전망목표를 제시하면서 전망계획기간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확장하여 건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확장하고 카바이드공업을 발전시켜 거기서 나오는 비날론과 화학비료를 비롯한 각종 생산물들을 가지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고사는 문제를 더욱 원만하게 해결하게 될 휘황한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자를 들어 일군들을 고무하시였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이 완공되여 비날론뿐이 아니라 질소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이 쏟아져나올 때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더 유족하고 문명해질것인가.

오로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오늘 전당, 전국, 전민, 전군이 사회주의대건설행군을 다그쳐나아가는 벅찬 투쟁속에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은 더욱 힘차게 추진되여나가고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활발히 벌어지는 로인학 및 로인병학 연구활동

세계보건기구가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을 협동연구쎈타로 지정



로인들에 대한 의료시설들이 성과적으로 보장되고있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로인학과 로인병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그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로인학과 로인병학의 발전실태를 료해한데 토대하여 세계보건기구 로인학 및 로인병학 협동연구쎈타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을 지정(87년 10월 6일)한데서도 잘 알수 있다.

우리 나라의 현대 로인학과 로인병학은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후반기로부터 조선에 전통적인 동의학을 배합하여 로인생물학, 로인의학, 로인인구학, 로인위생학(로인사회학 포함), 로인심리학(로인행동과학 포함) 등 다학문에 걸쳐 독창적으로 발전하여왔다.

동맥경화증, 허혈성심장병, 뇌졸증, 파킹손병 등 로인병의 예방치료에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치료예방법들을 개발하였다.

로화와 자연환경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연구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전개되여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일련의 도움을 주고있다.

또한 전국공로자협회, 경로동직장, 가내부업반을 통한 로인들에 대한 방조도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으며 중앙병원들에 로인과가 나오고 양로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로인시설들이 정연하게 조직됨으로써 로인들에 대한 의료 및 시설들이 성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렇듯 우리 나라 로인학과 로인병학 발전실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을 세계보건기구 로인학 및 로인병학 협동연구쎈타로 지정한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세계보건기구의 연구강령을 집행할 잠재력을 가지고있다는것과 그의 과학적 및 기술적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평양에서 본사기자】

세계보건기구 연구쎈타의 기본임무

연구쎈타의 기본임무는 ①세계적범위에서 로인학통보의 수집, 조사 및 보급 사업을 수행할것 ②로인학의 명문 정기간행물을 출판할것 ③일련의 기술공정의 표준화사업에 적극 참가할것 ④로인학령역에서 특수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활동을 벌릴것 ⑤로인건강관리 령역에서 여러가지 봉사를 제공할것 ⑥세계보건기구의 조정에 의하여 개발되는 협동연구에 적극 참가할것 ⑦조선에서 로인건강령역의 연구사업숙련을 위한 양성사업을 단기강습, 실습 형식으로 조직할것 ⑧로인건강령역에 필요한 연구활동에 대한 조절적기능을 적극 벌릴것 등이다.

《대건설행군으로 들끓고있는 조선》

세계사회계의 반향

세계의 광범한 사회계는 우리 나라를 가리켜 《대건설행군으로 들끓고있는 조선》, 《대건설전투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나라》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마다가스까르의 안따통신은 《조선의 전력공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력공업발전에서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에서는 큰 수력발전소들과 함께 평양과 북창을 비롯한 여러곳에 석탄을 리용하는 대규모, 중소규모의 화력발전소들이 건설되여 전력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신문 《루데 쁘라보》는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안주지구, 순천지구, 강동지구, 북부지구의 탄광들을 개건확장하며 모든 탄광들에서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애급잡지 《로즈 엘 유세프》는 조선에서는 최근년간 탄광, 광산들을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건설되고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운 기술로 장비됨으로써 나라의 경제력이 비할바없이 커졌다고 지적하였다.

탄자니아신문 《싼데이뉴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유력한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종합기업소에서는 한해에 1,000만톤의 광석을 처리할수 있는 대규모의 제3선광장을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하였다.

이처럼 큰 규모의 선광장을 1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건설할수 있은것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와 조선인민의 불타는 열망, 영웅적투쟁이 있었기때문이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3차7개년계획기간 방직공업분야에서는 설비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현대적인 공장들이 증설되여 1993년에 가서 천생산량이 15억메터에 이르게 될것이다.

쏘련신문 《쁘라우다》는 《북부철길을 따라》라는 제목의 방문기에서 북부철길건설자들은 돌격전으로 일하여 제정된 공사기한을 단축하고있다고 하면서 북부간선의 강철레루는 절벽에 뚫은 굴을 지나기도 하고 강과 골짜기를 련결한 다리들을 지나기도 하면서 계속 뻗어나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인도델리종합대학 교수 오피 굽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건설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점점 가까와진다

목소리

권력형부정들

권력형부정이란 말이 지금 남조선에서 류행되고있다. 전두환, 로태우역도를 등에 업고 수천억원의 돈을 긁어모은 이전 독재자의 동생 전경환의 전횡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독재자의 지시밑에 국권을 휘두르면서 나라의 돈은 물론 국민의 금전까지 닥치는대로 부정축재하는것을 권력형부정이라 일컫는다. ▼전경환은 제 형인 전두환도당이 《대통령》감투를 가로챈 이후 《새마을운동본부》회장으로 들어앉았다. 그때 이 기구를 《제2의 청와대》로, 치외법권적 기구로 만들어놓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 왜 치외법권적인가. 전경환의 뒤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놈의 부정을 거부, 추궁했다간 국가권력의 보복을 면치 못하기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시밑에 《대통령》을 방패로 내걸었기에 오직 아는것은 유도뿐인 깡패와 같은 전경환이가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정축재할수 있었지 않았던가. 약삭바른 전경환, 이놈이 수백억원이 넘는 돈을 미국과 일본, 구라파의 은행에 예금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엄청난 돈이 전두환, 로태우도당에게 흘러간것은 지금도 검은 안개속에 잠겨있다. ▼식민지파쑈정권의 생존방식은 인민탄압과 부정부패란 말 그대로 이전 독재자의 부정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로태우도당이 벌써 권력형부정을 감행해나섰으니 이것 역시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지난 2월 12일 수많은 리윤을 짜낼수 있다는 명목으로 《대한항공》회사외에 또하나의 《서울항공》이 나왔는데 여기에 로태우도당이 관여하고있다는것이 폭로되였다. 이 새로운 항공회사 경영자는 남조선독점재벌중 20위의 순위인 중견매판업체 《금호그루빠》인데 여기의 고문직을 말고있는 로태우의 형 로재우에 의한 《정치력행사》로 《서울항공》이 《금호》에 락착된것이다. ▼전두환역도보다 더욱 강한 정치욕과 금욕의 소유자인 로태우도당이 이제 또 얼마나 엄청난 권력형부정축재를 감행하는가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로태우도당을 권력자리에서 내쫓고 민주민선정부를 세우는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청산이다.

조선문화강좌사업을 적극 벌려 조국애, 민족애를 안겨주자

민족자주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우리들과 후대들이 나아갈 길》

녀성동맹 간또지방 일군들의 녀성문화강좌시범강사강습회 진행

젊은 동포상공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조국애, 민족애를 심어주기 위한 종합적인 동포교양마당인 조선문화강좌가 올해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녀성동맹 간또지방에서는 3월 28일, 총련 다이또지부 사무소에서 녀성문화강좌 시범강사강습회를 조직진행하였다.

녀성동맹에서는 이 문화강좌사업을 통하여 젊은 동포녀성상공인들에게 민족자주의식을 심어주며 녀성동맹조직의 군중적지반을 확대하는것을 목표로 준비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특히 동포녀성들의 창발성에 맞게 여러 형식으로 문화강좌를 진행하여 한명이라도 더 많은 동포녀성들을 강좌에 망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이날 강사강습회에는 간또지방을 위주로 한 9개 본부관하 일군들과 비전임강사들 그리고 학교어머니 교원들 50여명이 참가하였다.

강습회에서는 시범강사로 조선대학교 오규상교원이 출연하여 제강 《우리들과 후대들이 나아갈 길》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강습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앞으로 자기 지역에서 어떻게 강좌를 조직해 나갈것인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였다.

녀성동맹 지바지부 류일선위원장은 《강사강습회에 2번 참가했는데 하는 방법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 대상에 알맞게 잘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녀성들이니 도표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상자들이 보아서 한눈에 안겨오도록 할 구상입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녀성동맹 나가노현본부 리필선위원장은 《중점을 둔 강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현하의 실정에 맞게 준비사업을 벌려나가겠습니다.》고 포부를 말하였다.

녀성동맹에서는 이번 문화강좌사업을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것으로 보아 이 사업과 더불어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남조선괴뢰들의 모략에 대한 선전사업과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올해 7월에 있는 중앙어머니대회까지 한명의 강사가 비학부형어머니 5명을 망라할 목표를 세웠다.

녀성동맹중앙 김영애부위원장은 《중소규모로 무수히 강좌를 벌려 한명이라도 더 많은 녀성들을 우리 조직에 망라합시다. 목표를 대담하게 세우고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려나갑시다.》고 호소하여 녀성동맹의 의욕을 보여주었다.



녀성동맹 간또지방 일군들의 녀성문화강좌시범강사강습회

총련조직에 굳게 뭉쳐 애국의 대를 꿋꿋이 잇자

녀성동맹 깅끼지방에서도

녀성동맹 깅끼지방 녀성문화강좌시범강사강습회가 3월 28일, 녀성동맹 시가현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각지 녀성동맹조직에서 진행되는 녀성문화강좌에서 강사로 사업하게 될 깅끼지방과 일부 도까이지방의 녀성동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강습회에서는 먼저 조선대학교 변재수교원이 조선문화강좌제강 《우리들과 후대들이 나아갈 길》에 대한 시범강연을 하였다.

그는 시범강연에서 1세로부터 대를 이어받은 2세, 3세들이 민족성을 고수하는것과 함께 민족의 대를 후대들에게 옳게 물려주는 립장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생활적인 사실자료를 안받침하면서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재일동포들이 해외에 살면서도 조선민족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며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총련조직에 굳게 뭉쳐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 재일동포들의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신성한 민족적의무이며 바로 자기자신을 위한 길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강습회에 참가한 각지 녀성동맹일군들은 연구와 학습을 부단히 깊여 앞으로 진행될 녀성문화강좌에서 더 많은 동포들에게 애국애족의 넋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을 준비해나갈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녀성동맹 깅끼지방 녀성문화강좌시범강사강습회

총련 미에현 마쯔자까지부에서

제1기문화강좌 개강

총련 미에현 마쯔자까지부에서 3월 20일 저녁, 동포문화강좌를 조직진행하였다.

회장인 미에조신 마쯔자까지점에는 이곳 지부관하 동포들 약 30명이 모였다.

강연에 앞서 비데오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되였다.

문화강좌에서는 조선대학교 교원이 교육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강사는 차별과 직업의 선택만을 위한 일본교육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안받침하면서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 산다고 하여 일본의 추세에 흔들릴것이 아니라 이역에서 살수록 주체를 똑똑히 세우고 아이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워나가야 하며 그것은 민족교육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문화강좌는 참가자들에게 후대들을 떳떳하게 키우는 민족교육의 중요성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힘을 기울여나가야 할것을 재인식시켰다.

총련 마쯔자까지부에서는 오는 5월에 제2차 문화강좌를 예정하고있다.



총련 미에현 마쯔자까지부 제1기문화강좌

총련 시가현 오쯔지부에서도

총련 시가현 오쯔지부 제1기조선문화강좌가 3월 27일, 조신본점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오쯔지부관하 8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강좌에는 조선대학교 교원이 강사로 출연하였다.

강연에서 그는 국제모략극인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 사건은 미국의 조종하에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공모결탁하여 꾸며낸 모략이라는것을 수많은 사실자료를 안받침하면서 이야기한후 사건을 기화로 악랄하게 벌어진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총련조직에 굳게 집결된 힘으로 짓부셔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하며 총련조직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옹호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교또조신 후시미지점개점 10주년기념 대훼스티발 진행

1,700여명의 조합원들과 동포들이 참가

개점 10주년을 맞이한 교또조선신용조합 후시미지점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3월 27일, 후시미파르스프라자에서 《조신후시미 10주년기념대훼스티발》을 진행하였다.

1,700여명의 조합원들과 동포들이 모여든 이날 회장에는 지점섭외계원들이 거래동포가정을 한집한집 찾아가 모은 130장의 사진파넬과 아트후라와, 앞치마, 세타, 그림 등 관하동포녀성들이 주에 3번씩 지점에 모여 만든 창작품들 그리고 교또조선제1초급학교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사진과 글들이 수많이 전시되였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각종 오락시설을 설치한 놀이터도 꾸려졌다.

이날 기념공연에는 교또조선가무단과 요술가 안성우, 후시미바레소조 동포녀성들이 출연하였으며 저고리횟손쇼, 교또제1초급 학생들의 농악무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피로되였다.

녀성동맹에서는 이날 다양한 매대를 차려 얻은 수익금으로 교또제1초급에 일륜차 50대를 회사하였다.

지난해 6월에 기획한후 8월부터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번 훼스티발에서는 특히 동포녀성들의 힘이 크게 발휘되였다고 한다.

지점후원회인 《부인의 회》를 중심으로 그들은 아트후라와와 바자, 각종 음식점을 담당하였으며 기념공연준비에 있어서도 140여명을 발동하여 장고와 무용, 저고리횟손쇼의 련습을 매일처럼 보장하였다. 그들의 기세는 정세가 복잡하고 긴장될수록 높아만 갔다. 동포녀성들의 이러한 열성으로 훼스티발성공은 보다 담보되였다고 한다.

《이제까지 이러한 마당엔 그리 안나왔는데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와보니 이렇게 많은 동포들이 모인것에 대해 놀랐다. 오늘은 여기에 와서 정말 좋았다.》고 박수명동포는 이야기하였다.

후시미지점 김세욱부지점장은 《교또조신 지점으로서는 처음 되는 큰 행사였지만 총련지부와 조청, 녀성동맹 등 후시미의 모든 기관의 협력으로 하여 대성공하였습니다.》고 말하였다.



교또조신 후시미지점개점 10주년기념 대훼스티발

우베초중에 새 통학뻐스를

챠리티골프대회

야마구찌현 남부, 중부 상공회가 공최

야마구찌현 남부, 중부 상공회의 공최로 챠리티골프대회가 지난 3월 24일, 현하 유다칸트리구락부에서 진행되였다.

골프대회는 학교사랑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우베조선초중급학교 교육회의 주도로 진행되고있는 새 통학뻐스 구입에 보탬을 주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현하의 동포, 상공인 골프애호가들뿐아니라 민족교육에 리해와 지지를 표시하는 일본사람들도 참가했는바 그 수는 모두 133명이 되였다.

봄기운이 완연히 들기 시작한 록색의 마당에서 참가자들은 동포자녀들을 위한 마음 담아 골프뽈을 쳤다.

경기가 끝난후 연회가 있었다.

주최자연설에서는 일본행정기관의 우리 학교에 대한 방조가 거의 없는 속에서 동포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 학교 운영자립화에 힘쓰고있다는것이 강조되였다.

이날 골프대회를 통해 얻은 리득금은 그대로 우베초중에 회사됐다.



야마구찌현 남부, 중부 상공회 공최의 챠리티골프대회

일조우호친선사업의 활동가인 오오다 슈상씨의 죠도슈종무총장 취임을 축하

총련 교또부본부에서

총련 교또부본부 주최로 지난 3월 30일, 일조우호친선사업의 활동가인 오오다 슈상씨의 일본죠도슈(浄土宗)종무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다.

총련 교또부본부 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총련본부 신중학위원장을 비롯한 관하일군들과 교또부하 종교인들 30여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본부 신중학위원장이 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오오다 슈상씨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 실현, 조선인학교의 인가 실현 사업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특히 최근 격동되는 정세속에서 조국통일과 재일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해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또한 모임에서는 오오다 슈상씨가 연설을 하였는바 그는 앞으로도 일조친선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조선통일위업실현과 재일조선공민들의 제반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 철회와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대회

홋카이도～4월 5일 오후1시, 학교
아이찌～4월 4일 오후6시, 중소기업쎈타
오사까～4월 6일 오후6시반, 히가시오사까시민회관
히로시마～4월 5일 오후7시, 히로시마로동회관



박 미 향
(녀—2살 11개월)
1985년
4월 13일생
아버지 박수호(41살), 어머니 윤영옥(33살)
총련 미에현 구와나지부 닛싱분회관하

언제나 건강하고 활발한 미향.
얼마나 익살스러운지 둘레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미향.
어서 지덕체를 갖춘 사람으로, 아름다운 녀성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단다.

(이모)

문학의 대중적확산을 위하여

문화

《산울림》 30호기념 간또지역문학심포쥼 진행

《산울림》 30호기념 간또지역문학심포쥼이 3월 30일 오후 5시, 조은도꾜본점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문예동 도꾜지부, 조대지부, 가나가와지부, 이바라기반 문학부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40여명의 문예동 맹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심포쥼은 지난해 2월, 문예동중앙의 주최로 진행된 문학심포쥼 《문예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된것으로서 변화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현실운동에 대한 인식을 깊이고 우리 문예운동을 한단계 높이 끌어올릴 목적밑에 진행되였다.

특히 이날 심포쥼은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올해, 문예활동의 군중적앙양을 일으키며 앞으로 문예운동을 질적으로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문학의 대중적확산을 위하여》란 토론제마로 진행된 이날 심포쥼에서는 《총련의 새로운 사업환경은 문학앞에 무엇을 요구하는가》(리상민), 《80년대 남조선의 민중문학운동과 재일동포문학》(강상근), 《〈산울림〉의 경험과 앞으로의 과제》(강태성), 《〈봉화〉의 발간과 지역문화》(소문경) 등의 제목으로 4명이 먼저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세대교체와 더불어 동포들속에서 일어나고있는 의식의 변화와 우리를 둘러싼 내외정세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본래 문학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총련의 문예일군들앞에 제기되는 과업이 무엇인가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산울림》이나 《봉화》 등 지역문예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쌓은 경험들에 대하여 분석을 가하면서 앞으로 문학애호가들만이 아니라 광범한 동포들에게 철저히 의거한, 그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잡지를 만들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심포쥼에서는 이어 5명의 참가자들이 자유토론을 하였다.

그들은 토론에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문학심포쥼의 의의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총련의 애국운동을 추진해나가는데서 문학예술이 놀아야 할 역할이 나날이 커가고있는 속에서 총련의 문예일군으로서의 긍지를 간직하여 현실운동을 밀고나가는 새로운 문예운동의 태동이 긴요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심포쥼에서는 문예동중앙 정화수부위원장이 맺음을 하였다.

그는 현실속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현실의 본질적인 흐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예일군들이 《전문화》경향을 막고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문예운동을 군중적인 운동으로 전환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심포쥼을 계기로 교류를 깊이면서 하나의 지향, 공통점을 갖고 각지의 문예운동을 일원화해나가며 총련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자성과 개성을 살려 총련의 전반운동속에서 문학예술의 위치와 사명을 확고히 인식, 보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쥼참가자들은 문학의 대중화와 현실운동에로의 확산을 위하여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탄없는 토론을 벌림으로써 앞으로는 이제까지의 한정된 테두리를 벗어나 동포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총련애국사업을 적극 추동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을 전개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광장

리순신휘하의 수군 승병들의 존재 밝혀져

임진조국전쟁당시 애국명장 리순신장군의 휘하에 륙지의 승려 의병과는 다른 수군(水軍) 승병(僧兵)이 있었으며 이 승병조직이 전쟁이 끝난후도 2백여년이나 존속되였음이 밝혀졌다.

남조선신문인 《조선일보》 3월 20일부에 의하면 최근 전라남도 려수의 홍국사에서 해체복원공사가 진행되였는바 그 과정에 대들보에서 《순천부 영취산 홍국사 선당수습 상량기》와 《순천부 영취산 심검당 중건 상량문》이 나와 3백명의 수군 승려의 명단과 편제를 알게 되였다는것이다.

당시 서산대사, 유정 등 륙지 승병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있지만 수군 승병의 존재와 명단, 편제까지 확인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곳 학자들은 당시 승려들의 의병활동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서 주목하고있다 한다.

한나산에 오른 반외세투쟁의 거세찬 기치

제주도4.3인민항쟁 40돐에 제하여 (하)

광주를 거쳐 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속에서



력사는 오랜 시일을 요해도 끝내는 인민의 손에 돌아온다. 괴뢰들을 시켜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학살한 미국의 죄행은 준엄한 력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상기한 론의들이 던져주는 초점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그런 론의들이 벌어지는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민중사》의 서설 《바람직한 우리 력사 리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력사는 지배층의 력사였다. 그러나 이제 력사는 자기를 만든 진정한 주인을 찾아 민중의 손으로 돌아올 시점에 놓여있다.

민중에게서 소외된 력사는 력사자체에서 소외될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참으로 40년을 넘도록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력사가 심히 외곡되고 은폐되여왔으며 굴종만을 강요당해왔다.

1945년 9월 28일, 제주도에 기여든 미군은 친일파들을 비롯한 자기의 졸개들에게 미국제무기를 나누어주고는 무자비한 대량학살에로 내몰았다. 미군은 괴뢰들을 내세워 동족끼리 싸우게 하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방식 그대로 제주도를 아세아에서 《반게릴라작전》의 첫 실험장으로 삼았다.

따라서 제주도인민항쟁은 폭도와 토벌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미제의 세계전략에 따른 신식민지화방침을 철저히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반미구국항쟁이였다는데 사건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이런 시점의 확립이야말로 최근시기 론의의 바탕에 깔린 중요한 문제점이다.

이런 론의의 배경에는 남조선인민들이 직접 체험한 광주인민항쟁의 피어린 교훈이 깔려있음은 두말할것 없다. 그들은 고귀한 피의 대가를 치르어 미국이 《해방군》도 아니며 《우방》도 아닌 분렬의 장본인이며 온갖 불행의 원흉이란것을 깨치였다.

또한 《한국민중사》필화사건으로 상징되듯이 이제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손에 자기들의 력사를 회복하려는 확고한 의사를 각종 매체를 통해 분출시키고있는것이다.

그러나 《한나산》의 작가 이산하는 체포되여 제2부가 세상에 나오게 될는지 어떤지는 막연하였으며 작품을 실은 《록두서평》도 폐간조치를 당하였다. 《민주화선언》의 나발은 불었지만 그 깨진 소리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로태우일당은 미국의 사촉밑에 또다시 탄압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진정한 력사의 복원작업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것이다. 그러나 력사를 창조하는 인민대중이 주체가 된 력사의 복원작업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는 없을것이다.

※　※

오늘 수많은 제주도출신 동포들중에서 사건과 무관한 동포는 그리 없을뿐더러 자신이 직접 죽음과 맞다든 동포도 적지 않다. 한마을이 몰살당하는 참혹한 살륙만행이 감행된 결과 오사까에는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14세대나 있다고 한다. 사건발생후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한은 시퍼렇게 멍울지고있다.

오늘도 우리는 40년전 제주도인민들이 추켜든 반외세반파쑈투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한대오에 서있다. 그들의 투쟁을 잇고 그들의 념원인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 때 그들의 맺힌 한이 풀리고 진정한 인민항쟁으로서의 력사가 정립되여나갈것이다.

빨찌산의 노래

한나산 깊은 골 우리의 진지
깎아세운 바위절벽은 우리의 요새
우리의 자유를 지킨다
아아 제주도빨찌산

봉쇄선 뚫고서 해녀가 온다
탄환을 나르다 피에 젖는다
조국의 자유를 지킨다
아아 제주도빨찌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해도
육신이 찢어진 운명이라 해도
인민의 자유를 지킨다
아아 제주도빨찌산

소식을 전해주다 쓰러진 목동
씨도 성도 모르게 죽어가는구나
바다를 넘어 파도친다
아아 제주도빨찌산

(장편련작시 《한나산》에서)

대중가요 민족의 력사와 ⑦

글을 마감하면서

잊을수 없는 가요들에 대한 범죄적위조행위

조 령 출

1948년 북으로 들어온 당시 내 나이는 30대 중엽이였고 그때는 아직 젊은 시절이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내 나이도 어느덧 70고령을 훨씬 넘어섰다.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 이후 나의 생활과 창작에서는 실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지난 40년간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 속에서 씨나리오창작사(현재 영화문학창작사) 초대주필,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문예부문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였다.

또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창작사업에도 전념하여 《조국보위의 노래》, 《압록강 2천리》, 《모란봉》 등 여러 건의 가사를 썼으며 시와 희곡들도 여러편 내놓았다.

그 기간 과분하게도 국가에서는 별로 한 일도 없는 나에게 《김일성상》계관인의 영예도 안겨주고 국기훈장제1급을 비롯한 높은 국가표창도 여러번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계심으로 하여 80나이를 눈앞에 바라보게 된 오늘도 나는 혈기왕성하여 시와 장편소설을 쓰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생활하는 기간 참된 생활의 행복, 창작의 자유란 어떤것인가를 체험하였고 우리 나라 반만년력사에서 가장 위대한 조국에 살고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사는 그 높은 존엄과 영예가 어떤것임을 체험하였다.

나에게 한이 있다면 두가지뿐이다. 하나는 받아안은 행복과 사랑, 은정에 보답하지 못하고 인생말년을 맞이하게 된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직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여 분렬된 민족의 슬픔을 가시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우리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어느덧 40여년이 되였다. 나라의 분렬은 우리 동포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있다. 이 분렬로 하여 북으로 들어온 작가의 작품에 대한 탄압과 모독도 파생된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북과 남에 갈라져있어도 한겨레요 다시 만날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우리 겨레는 하루빨리 통일되기만을 바라는것이다.

우리 북남의 겨레가 손을 잡고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통일의 길을 열수 있고 상봉의 마당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신념으로 통일의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침이 우리의 신성한 의무로, 량심으로 된다.

민족공동의 재부인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보존하며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북으로 들어온 사람의 작품이라 하여 금령을 내리고 창작가와 작품내용을 위조하는 전고미문의 불미한 행위를 하는 남조선위정자들을 두고 무엇이라 해야 할것인가. 참으로 통분할 일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북남의 겨레가 서로 반목질시하고 적대적관계를 유지할것만을 바라고있으며 우리 겨레를 새 전쟁, 핵전쟁의 희생물로 삼으려 하고있다. 그들은 북남의 겨레가 힘을 합치는것을 가로막고 우리 나라에 《두개 국가》, 《두개 민족》을 존속시키려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서 민족의 넋, 애국심을 깡그리 말살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그 어떤 술책으로써도 민족의 력사를 변경시킬수 없으며 그들의 범죄행위는 후세에까지 알려져 천추만대를 두고 규탄을 받을것이다. 력사기록을 바꾸어버리려는 그들의 책동은 민족의 량심, 인류의 량심이 결코 용허치 않을것이다.

해내외의 전체 우리 겨레는 사상문화분야에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산물로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동족일체감을 말살하고 민족이질감을 고취하며 나아가서는 《이국》적이고 배타적인 감정으로 공화국북반부 겨레들을 대하게 하여 민족분렬영구화의 밑바탕을 마련하려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잊을수 없는 가요들에 가하는 반역적범죄행위를 지체없이 분쇄해야 한다.

우리 문화인들은 민족의 재부인 귀중한 문화유산을 애호보존하며 연구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남조선에서 외세와 매국세력을 청산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끝)







군산빌딩(6階建)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日本警察庁の「写真鑑定」は虚構

耳の形違う「金賢姫」

総聯中央が記者会見

KAL機事件

総聯中央・朴在魯副議長は一日、日本警察庁が日本共産党発行の写真雑誌「グラフ・こんにちは」にの「真由美（金賢姫）」として掲載した写真について「写真の少女は金賢姫に間違いない」との鑑定結[illegible]（三月二十八日の参院地方行政委員会）したことについてこれに反論する記者会見を行った。記者会見[illegible]た、一九七二年十一月二日の南北調節委員会当時、張基栄に板門店で花束を渡した林潤福さん(二九)、一[illegible]八月二十九日の南北赤十字会談当時に南側代表団団長に花束を渡した「少年団あいさつの少女」王永淑[illegible]を現地で取材したビデオテープも公開された。



娘時代の鄭姫善さん（右から二番目）とその一家

朴在魯副議長はこの日の記者会見で、まず日本警察庁が「金賢姫」と関連した写真鑑定を行った事実に対して、これは明白な捜査活動であると指摘。日本政府当局が、すでに日本の偽造旅券をもっていた「金賢姫」に対する第一次的捜査を放棄し、KAL機事件そのものに対する捜査を全く行ってい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自らの都合に合わせた捜査だけを行うのは不当であると非難した。

その上で日本警察庁が行った「写真鑑定」の結果なるものは、事実と全く異なる虚構に過ぎないと断言した。

記者会見では、特に「花束の少女」の耳の形を強調。その耳を比較すれば、少女は「金賢姫」ではなく、平壌に現存する鄭姫善さんであることが一目瞭然であると指摘した。「花束の少女」の耳はいわゆる福耳（写真1）。それに対し「金賢姫」の耳（写真4）はキツネ耳で明らかに異なる。まだ本社取材団が現地で会見した鄭さん（写真3）および彼女が自ら持参した少女時代の写真（写真2）の耳はいずれも福耳で、「花束の少女」と同一人物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

また警察庁が「花束の少女」は「顔の輪郭が円形に近い」ので、卵円形の鄭さんと異なるとしている点についても、娘時代よりもや[illegible]輪郭が変わっただけ[illegible]した。

つづいて記者会見[illegible]月十五日当時に南朝鮮「国営」テレビKBSが、「金賢姫」であると公表した写真およびフィルムテープについても言及。「少年団あいさつ」の写真の少女が、七二年八月二十九日に南側代表団団長に花束を渡した王永淑さんであること。またフィルムテープの少女が七二年十一月二日に板門[illegible]で張基栄に花束を渡した林潤福さん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本[illegible]今回共和国で二人と会見したビデオテー[illegible]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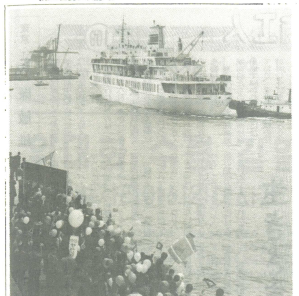
[illegible]、七二年南北会談当時共和国で撮った南側の写真およびフィルムテープは、すべてKCIA（現安全企画部）が没収している事実を強調。一月十五日当時にKBSが流した写真やテープは、すべて安全企画部がKBSを通して流したものであると断定した。

この問題と関連して「赤旗」紙は、朝鮮総聯二月四日声明が、あたかも南朝鮮捜査当局およびKBSが「花束の少女」として公表した三枚の写真をすべて「七二年八月の板門店でのもの」と発表したかのように誤報（同紙三月十二日付、三月二十日付）した。しかし総聯の声明（二月四日）は、その問題の事実関係をすでに明らかにしている。



「三池淵」号神戸に初入港

短期訪問団のせ今日出航



さる一日朝、総聯中央・徐萬述副議長、総聯兵庫県本部・李福南委員長らと、日本社会党兵庫県本部・青木昌夫副委員長らをはじめ、千八百余人の同胞、日本の市民らが迎える中、神戸港第四突堤に、共和国の客船「三池淵」号が入港した。

「三池淵」号の同港への入港は、今回が初めてのことで、兵庫組織を挙げての歓迎となった。

日本当局の不当な「制裁措置」により、チョン・ギウル船長をはじめ代表らは下船できなかったが、ふ頭では歓迎の集いが盛大に行われた。

また今回、「三池淵」号で祖国に出発する、今年初の短期祖国訪問団（第一一五次）が、兵庫県下の同胞二百九十余人で構成され、祖国で四・一五名節を迎えるとあって、同胞たちの喜びもひとしお。

「三池淵」号は、今日（四日）神戸港を出発する。

簿記教室を開講

愛知県商工会

愛知県商工会の主催による「第二回愛知簿記教室」がさる三月二十二日に開講した。

同簿記教室は、昨年の第一回簿記教室（五月～十一月末）が好評だったことから、「今年もぜひ開いてほしい」との要望に基づいて開講に至ったもの。第一回目は半年に渡って行われ、二十人が簿記資格を取得、試験合格率は九五%に達したという。

今回は期間を短縮し、六月[illegible]の三ヵ月間、火曜と[illegible]週二回、昼の部と夜の[illegible]けて集中的に講習を行[illegible]になった。[illegible]は三十人が受講した[illegible]が受講している。[illegible]は県商工会の趙永一指[illegible]経理室の金竜泰指導員[illegible]商工会と朝銀の職員三[illegible]同は同胞商工人とその[illegible]受講生たちは「勉[illegible]月十二日の検定試験を[illegible]励んでいる。



検定試験に向けて熱気に包まれる愛知簿記教室

ソフトボールで親ぼくを深める

兵庫・伊丹協議会

伊丹青年商工人協議会（郭亀燮代表幹事）主催のソフトボール大会が三月二十七日、兵庫県伊丹市河川敷（伊丹朝鮮初級学校前）で行われた。

これは、地域同胞と若い世代の親ぼくを深めるという趣旨で開かれたもので、同協議会の主催としては今回が初めて。大会には伊丹の青年商工人やその家族、同地域朝青員ら四十五人が参加した。

試合は男子三チーム（協議会一、朝青二）、男女混合二チーム（協議会夫婦、朝青の男女混合）の計五チームがそれぞれ勝敗を競い合った。

試合後、表彰式とともに参加者全員にコーヒーセットが贈られてみんな大喜び。楽しいひとときを送った。



試合は真剣そのもの

役員ら若返る

堺・「マウン会」総会

大阪・堺若い同胞の会「マウン会」の第四期定期総会が三月二十七日、総聯堺支部講堂で会員ら四十余人が参加して行われた。

二年ぶりに開かれた同総会では、役員人事の改選、活動報告、財政報告などが行われ、新しい会長に朴成次氏(三五)が満場一致で選出された。

また新会長とともにマウン会の第四期役員会として、副会長三人、幹事五人が選出された。

洪性元前会長は「会長が五つも若返り、役員も若返った。これをきっかけに、新しい会の歴史を作っていってほしい」とあいさつした。

また来賓として招待された朝銀大阪・堺支店長も「朝銀や総聯支部、商工会、ハッキョ、オモニ会などと協力して、みんなで盛り上げていってほしい」と語った。

総会終了後には、第二部として宴会が開かれ、大阪朝鮮歌舞団の記念公演も行われた。

宴会の最後には、全員で「朝鮮はひとつだ」を合唱。これからもマウン会の活動を通じて交流を深めていくことを互いに約束して、すべての予定を終えた。

チャリティーゴルフ

豪華な賞品で参加者に好評

東大阪第四

東大阪朝鮮第四初級学校チャリティーゴルフ大会が三月二十四日、同実行委員会（委員長＝生野西地域商工会・高吉弘副理事長）の主催により、京都・美加ノ原カントリークラブで行われた。

同チャリティーゴルフは、一昨年九月に第一回目を開いて以来の開催で、今回が二回目となった。

同日、第四初級学校の父兄、生野地域のゴルフ愛好家ら百人が参加。晴天の下、早朝からプレーを楽しみ、四人一組でコースを回ってスコアを競い合った。

プレーを終えた後、クラブハウスで表彰式を兼ねた食事会が持たれた。

ビデオカメラ・デッキセット（一位）など豪華賞品が贈られ、参加者たちの好評を博したが、「これからは年に一度、このようなゴルフ大会を催してほしい」とみな口をそろえていた。

ち密な準備で150人が参加

山口南部・中部

山口県南部・中部商工会チャリティーゴルフ大会が三月二十四日、県内にある湯田カントリークラブで行われた。

両商工会の主催、同地域青年商工人協議会、「朝銀友の会」の後援による同ゴルフコンペは、徳山朝鮮初中級学校の学生たちに通学バスを贈ろうとの趣旨から催された。この日のために中部商工会・金圭相理事長ら準備委員は、四回に渡って会議を持ち、対策等を煮詰めてきた。

準備作業がち密に行われた結果、同日のコンペには百五十人（日本人士は六十人）が参加した。

プレー終了後には豪華賞品（約五十個）が各参加者に手渡された。「若い商工人たちの意気込み、とくに学校を愛する熱い心に深い感動を覚えた」と日本の友人らは一様に感想をもらした。

ライプチヒ国際市場で在日同胞商工人が金賞を受賞



李炳潤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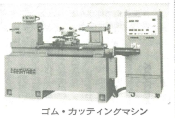
[illegible]の十三日から十九日[illegible]てドイツ民主共和国[illegible]れた「ライプチヒ春季国際市場」（参加国六十、参加企業九千社）で愛[illegible]三商工会の李炳潤会長が開発した「ゴム・カッティングマシン」が金賞の栄誉に輝いた。

同国際市場において在日同胞の受賞は初めてのことである。

この機械は弱電関係の製品（ラジカセ、ステレオなど）に使われるゴム製の駆動ベルトを切断するもので、日本の全国シェアの五〇%を占めている。

李会長の機械は同国際市場において、その経済的効果性と優れた性能が認められ、この度の受賞の運びとなった。

李会長は「向こうの駐在大使の方が本当に喜んでくれました。もちろん私にとっても、この上ない喜びです。これからも祖国の社会主義建設の発展に寄与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と、受賞に対する感想を述べていた。



ゴム・カッティングマシン

振り子

問われる書き手の人間性

この欄の前身は三年前の「日曜版」に掲載された「羅針盤」（朝鮮語）。

その一回目の「食料品販売にも人間性が」では、「今年の東京都消費生活モニターの調査によると…」から始まり、人気食品のデータを挙げながら食料品販売の動向を分析、つきるところは消費者に人間的な感動を与えるか否かが商売の原点であるとして、「同胞業者の人間性、それが商品に反映されて客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生まれる」と結んでいる。

経済の流れをいかに読み適格に判断するか、その一助になればと「羅針盤」の趣旨を踏まえて以後、本紙発刊とともに同欄の回数を重ねて来た。

共和国のホットニュースや日本経済の動向、各業界の話題、そして経済変化のとらえ方、また、南朝鮮経済におけるさまざまな問題点など、〝振り幅〟を持たせた内容を提供して来たつもりである。

それも文切り型の難しいタッチではなく、わかりやすくいっき読みができ、かつ読むに値する情報として「路地裏の経済」を論じて見ようと心がけて来た。

だが読者の目は厳しかった。「企画の趣旨と内容がちぐはぐだ」「なるほどと思う記事がある反面、苦しまぎれの記事もある」——読み手側の〝感動〟が薄いのである。

原因は明白だ。書き手側の技量不足。それもスタッフ全員ではなく、直接の担当者らの取り組みが甘かった。

こう言う筆者もその一人。「初心に帰れ」ではないけれど、商品販売に人間性が表れるように、週一回の「振り子」にも記者の人間性が反映されて来たのだなぁと、改めて痛感する思いである。

※今回をもって終わります。（伊）

経済ニュース

共和国 医療基地の整備が進む

最近創立四十周年を迎えた朝鮮赤十字総合病院は、二十余りの専門病棟と治療科を持ち、超音波診断器、放射線同位元素診断設備をはじめ、数千の最新医療設備が整えられており、ベッド数は一千七百床を数える。

このように近代的な治療設備を備えた医療基地が、共和国の各地にある。

第二次七ヵ年計画（一九七八～八四年）期間には、平壌産院、咸鏡南道口腔病予防院、江界医大病院など、二百九十余りの医療機関が新設された。

現在、共和国では解放前と比較して、医療機関数は四百七倍、医師数は百八倍、ベッド数は百十九倍に増えた。

南朝鮮 目立つ税金の超過徴収

昨年度に徴収された租税の総額が、当初の目標額を一兆億ウォン以上も超過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一九八五年度に五百六十四億ウォンだった超過額が、八六年には四千八十八億ウォン、昨年度は一兆二千二百三十九億ウォンにも達し、急激な増加を見せている。

こうした原因について「政府当局者が予算編成時に、非科学的に税収を推計」するなどの「どんぶり勘定式の財政運営」（『東亜日報』三月二十八日付）に問題があると指摘されている。

専門家たちは、税収推計の科学化、税率引き下げなどの減税政策を、「政府」に対し要求している。



「一日営業部長」でにぎわう

千葉朝鮮信用組合

千葉朝鮮信用組合では、三月二十八日から三十日にかけて本店と船橋、柏の三カ所で「一日営業部長」、「一日支店長」を実施した。

「一日営業部長」の行われた本店には、朝から多くの組合員が訪れた。

この日、「一日営業部長」として一役買ったのは同朝信理事、地域商工会役員たち十四人である。慣れない「部長職」だが、みな一生懸命に取り組んだ。

中には、今回の催しの趣旨と朝信事業に対する理解を得るため、朝から同胞宅を訪ねていく「営業部長」もい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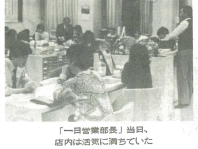
同朝信の理事であり、この日「一日営業部長」を務めた白光鉉氏は「日本の信用組合より、もっと良い条件で同胞たちに奉仕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は同胞たちの中に入っていくことが大切ですからね」と語る。

同朝信の総預金高の目標は四百四十億円、その内の二百億円を本店がまかなうという。

「目標はぜひ達成したいですね。組合員の深い理解を期待しています」と語る、同朝信本店・尹鉉徳営業部長。

また預金のため訪れた鄭良一さんは「ここに来るとチョソンサラム同士、商工人同士の付き合いが出来るんです。朝信の発展を私も大いに期待しています」と語る。

仕事上の関係だけでなく、同胞たちの「ふれあいの場」でもある朝信、四月からの新しい事業展開に職員らの意気も高い。



「一日営業部長」当日、店内は活気に満ちていた

投稿

「一日理事長」の盛況に思う

朝銀山口信用組合理事長　李光男

ウリ朝銀山口信用組合では先月の二十五日、本店と支店で一斉に「一日理事長」を催した。県商工会・呂成根会長をはじめ、共和国創建四十周年ということで、四十人が「一日理事長」として参加、その熱気に感動を覚えた。

思えば、本組合に対する南のかいらい一味と情報要員、右翼らの策動はいつになく悪らつなものであった。一月十九日から二月末まで、延べ数にして百五十台の右翼宣伝カーが押しかけ、許しがたい破壊行為を敢行した。

し烈な闘いであった。

私たちは「週刊大衆」四千部とビデオテープ二千本を購入し、取引者全員に配ったのをはじめ、二十万枚に達するビラを周辺の市民たちに配布するなど、全組合あげて、かいらい一味の謀略粉砕に立ちあがった。祖国の栄誉を守りぬく決死の決意で、理事、総代、若い商工人たちが一丸となったのだ。

今回の「一日理事長」は、単なるキャンペーンではなく、内外反動らに対処する闘いの一環として企画したものであった。

その日、六百人の来客があり、一日の記念預金総額は五十七億と過去最高を記録、三月決算目標四百四十億のところ、それを十億も超過する四百五十億に達し、大きな成果を上げた。

組織・ウリ機関、組合を守るためには一心団結あるのみだ。かいらいたちの謀略策動がさらに激化するだろうが、これからが正念場と肝に銘じて対処していくつもりだ。



「一日理事長」はビデオ、飲食コーナーなども設けられ好評を博した（本店）

今日の若い商工人 ⑲

東京・江東　廉敏雄氏（38歳）

校庭の桜　今年は"満開宣言"

生きざまににじむ誠実な人柄

東京江東区にある東京朝鮮第二初中級学校の校庭には十数本の桜の木が植えられている。

植樹が行われたのは一九八五年の六月。今から三年前のことで、まだ日が浅く気候の関係もあって満開になったことがないという。それが今年は芽もたくさん出て、"開花宣言"も近いのではないか、と同胞たちを喜ばせている。

来る十日に中央・江東地域同胞たちの花見が同校運動場で開かれる予定になっており、その時には桜の花が美しく咲き誇るだろう。

その桜の"満開宣言"をだれよりも待ち望んでいるのが、江東区枝川で事務機器販売業を営んでいる廉敏雄氏(38)だ。第二初中の運動場に桜を植えようと提案したのは、他ならぬ廉氏なのである。

氏は、中央・江東地域青年商工人協議会「青商会」のメンバーと相談し、八五年六月にチャリティーゴルフを開催。その利得金で桜の木を購入してハッキョの運動場に植えたのだ。

「桜の木が増え、花が咲くにつれて同胞たちがみんな集まってくる。ウリハッキョに来たことがない同胞たちも花見なら遠慮なく来れる。このようにして、同胞の輪をどんどん広げていきたいんです。それが私の願いなんです」

幼少期の痛手

兵庫県伊丹市で生まれ、幼少時代を過ごした廉氏にとって、最も悲しい出来事はオモニの逝去であった。

四・二四教育闘争のとき先頭に立って闘い、女性同盟伊丹支部の専従活動家として心血を注いだオモニが三十代の若さで病死したことは、当時、初級部四年だった廉氏に大きなショックを与えた。

それに加え、伊丹分局長を務めていたアボジと離れて、親戚の家を転々としながら学校に通う生活は廉氏にとってとてもつらいことであった。

中級部（尼崎）の三年間は、伊丹支部で寝泊りしながら自炊して学校に通ったという。中学一年のときには、唯一の兄である廉時雄氏が祖国に帰国した。

後で知ったことではあるが、二番目の兄と、妹が生まれて間もなく死亡するという悲しい出来事もあった。

オモニの死と生活苦、兄妹の死と兄の帰国。めまぐるしい流れの中で、廉氏は幾度も心の痛手を負った。

誇りと生き方

数々の悲しみを乗り越えて、"愛国・愛族の道"を歩むようになったのは温かい人との出会いがあったからだ、と氏は強調する。

支部を"家"にして中級部を卒業した廉氏は、当時寄宿舎があった大阪朝鮮高級学校に入学することになる。

「学校生活は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よ。それに、チョソンサラムとしての誇りをしっかり持つことができました」と述懐する。高二のときに「大音楽舞踊叙事詩」に参加したことや、高三のときには寮長として様々な行事を催したこと、そして進路講習の思い出など、すべてがチョソンサラムとしての誇りと生き方を示してくれた日々だった、と氏はしみじみと語る。

廉氏は、分局長を務めていたアボジの進言と希望にそって大阪朝高卒業後、朝鮮新報社に入社。工務局で「人民朝鮮」の植字工として約三年間働いた。当時はキャスターの機械が初めて導入され、氏はその第一期として「プエブロ号事件」の記事などを扱い、夜遅くまで作業したという。

学校に尽くす

新報社を退社後、大阪、千葉等を経て、現在の枝川に移ったのは一九七五年。親戚が経営する運送会社に勤めながら、事務機器の販売に携わることになった。

トラック一台を持ち込んで業務を開始。ロッカー、事務用机、書庫などを注文に応じて仕入れ、届けるというパターンで約十年間、その道一筋で頑張ってきた。そして八六年に独立、自宅に事務所を備え、受注から発送まで一貫して請け負っているのである。

廉氏が東京に来て十二年が過ぎた。そして現在、「青商会」会長、東京第二初中教育会副会長、総聯枝川分会副分会長など地域同胞の中心として奮闘している。

「回りに素晴らしい人々がいたこと、友人に恵まれたことが原因だと思うんです。でないと、他の地方から来て、とてもこれだけの仕事はこなせませんよ」

一世が培った枝川の愛国的な土壌が自分たち二世を育ててくれたと熱く語る。

廉氏が同胞の中心になった契機は、ウリハッキョの父兄として学校によく訪ねるようになってからだ。

事務機器の販売に携わる関係上、注文を受けて学校に行く機会が多かった。そこで氏は、学校の中を見て、机が古いと新しいのを運んだり、また、ロッカーなどの事務用品を一つ二つと学校に持っていくようになった。学校のためには協力を惜しまない氏の姿勢と誠実な人柄が、同胞たちに大きな感銘を与え、教育会理事になったのをきっかけに「青商会」結成と同時に副会長に、そして三年前には、現在の役柄をすべて引き受け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　◇

昨年の四月、初の祖国訪問で氏は二十五年ぶりに兄に会った。

「祖国訪問を通しての感激は決して言葉では表現できません。これからも祖国と学校のために尽くしたいです」

廉敏雄氏は笑いながらこう語った。「私は商売には向かないんですよ。夢は、ウリハッキョを新しく建て直したい、ということです。そのためにも力をつけないとね」

（一）



花見の成功に向けて「青商会」役員会を進める廉敏雄氏

MM企画（机、物置き、一般オフィス家具販売）
東京都江東区枝川1－13－11　☎03(649)3602

1949年8月兵庫県伊丹市生まれ。伊丹初級、尼崎中級を経て大阪朝高に進み68年に卒業。その後70年まで朝鮮新報社の工務局で働く。75年から東京・江東区で事務器の販売業に携わり、86年に独立。
81年、中央・江東青年商工人協議会「青商会」発足と同時に副会長に。85年から同会長を務める。同年に東京第二初中教育会副会長、総聯中央江東支部枝川分会副分会長。昨年発足した朝銀東京亀戸支店後援会副会長の役職を持つ。

素晴らしい同胞ら　枝川の地で生きる



元山港で25年ぶりに兄と再会した廉敏雄氏（右端は姪）

味じまん

肉本来の味を生かし

KOREAN BARBECUE　東福苑　東京・国立市

「学生の街」国立（JR中央線）南口を降りて徒歩十分ほどの所に焼肉・東福苑はある。外見はモダンなレストランを思わせる今風の造り。店内は隅々まで気が配られていて、ひとまわり大きなテーブルに座りやすい椅子。それに焼肉の匂いが付かないよう工夫されている。また、ウリマルの読みかたで作ったメニューもきれいな写真入りで食欲をそそる。

味とサービス、そしてオモニの人柄で人気を集めている。

店主の金奉柱さん(ﾖﾁ)がここに店を出したのは、今からちょうど十年前。

最初は子供たち（兄妹五人）を養うためスナックでもやろうと場所を探したが、長年やっていたホルモン焼きの技術と長男（姜健一さん・三二）の手助けもあって焼肉を始めたという。

いまでは、その長男の健一さんがお店を切り盛りしている。

「良い素材を仕入れ、その味をいかに生かすかが勝負です」と健一さん。

何年も下積みをしてきたというだけに味の方は一級品。ほどよく脂ののったやわらかいロース（八百円）、トロの刺身のように薄いピンク色をしたカルビ（八百円）、ひと目でその鮮度がわかる。それを炭火で焼く。

味は、甘すぎもせず辛すぎもしなく、まさに肉本来の味を生かしている。

また自家製のキムチ、チャンジャも美味である。

仕入れに一番気を配り、仕込みにたっぷり時間を掛ける。そのせいかここに来る人はグルメか、常連客がほとんど。遠くから車で訪れる客も多いそうだ。

それでいつもお店はテンヤワンヤ。とくに土、日は猫の手も借りたいぐらいお忙しだ。「必ず満足させます」と自信たっぷりに言う健一さんは二日に結婚したばかりの新婚ほやほや。

オモニもこれで安心、お店も安泰。「これからも家族みんなでがんばってお客さんに慕われる店にしていきたい」と語るオモニの顔には笑みが絶えなかった。

※東京都国立市西二―十一―十三　☎〇四二五（七六）九九二



オモニ金奉柱さんと長男の姜健一さん



学生街の雰囲気にマッチした店がまえ

ウリマル講座

12　　文・朴点水

会話



☆ワンポイント☆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ペルル キチョソチェーソンハムニダ)は、迷惑をかけたことに対するお詫びの決まり文句です。

죄송합니다を미안합니다（ミアナムニダ）と言ってもかまいません。

謝罪に対する答え方としては、괜찮습니다(クェーンチャンスムニダ)「かまいません」という意味ですが、許しを請われたときや何かのことで気遣いを示された場合の答としても用いられ「心配ありません」の意味でも使われる言葉です。

単語と文

의사〔ɯisa ウィサ〕医者
과자〔kwadʒa クァヂャ〕菓子
원수님〔wənsunim ウォンスニム〕元帥
돼지〔twɛ：dʒi トェージ〕豚
궤도〔kwe：do クェード〕軌道
왜 월요일과 화요일에 쉽니까?
〔wɛ wərjoilgwa hwajoire ʃymnik'a ウェ ウォリョイルグァ ファヨイレ シムニカ〕
なぜ月曜日と火曜日に休むんですか。

発音と文字

母音「ㅢ、ㅘ、ㅝ、ㅙ、ㅞ」の発音

文字	発音	発音のこつ
ㅢ（의）	ɯi	「으」〔ɯ〕を発音したあと間をあけずすばやく「이」〔i〕を発音すればよい。
ㅘ（와）	wa	日本語の「ワ」に似ているが、唇をまるくした「우」〔u〕の形から「ワ」を発音する。
ㅝ（워）	wɔ	唇をまるめた「우」〔u〕の形からすぐさま「어」〔ɔ〕を発音すれば〔wɔ ウォ〕になる。
ㅙ（왜）	wɛ	唇をまるめた「우」〔u〕の形からすぐさま「애」〔ɛ〕を発音すれば〔wɛ ウェ〕になる。
ㅞ（웨）	we	唇をまるめた「우」〔u〕の形からすぐさま「에」〔e〕を発音すれば〔we ウェ〕になる。

豆知識

향가（ヒャンガ　郷歌）

朝鮮現存の最古の歌。主に신라（シンラ　新羅）時代の8世紀中期に最も多く創作され888年には향가の集大成である신라の「삼대목（三代目）」が編纂されました。しかし今に伝わっている歌詞は、「삼국유사（サムグクユサ　三国遺事）」（1281）の14首と「균여전（キュニョジョン　均如伝）」（1075）にある11首の合わせて25首だけです。僧侶によって作られたものが多く、内容は仏教や儒教の色彩を帯びたものですが、自然と人生に対する素朴な感情を歌ったものもあります。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5일 (음력 2월 19일) 화요일 【루계 제10175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벌가리아신임대사가 신임장을 봉정

【평양 3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우리 나라 주재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뻬뗴르 다넬로브가 3월 31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신임장봉정식에는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우리 나라 주재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대사관관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임장을 받으신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네갈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대통령 아브두 디우프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네갈대통령에게 보내신 선물전달식이 3월 17일 다까르 국제시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선물전달식에는 세네갈 도시설계 및 주택상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도시설계 및 주택상은 연설에서 세네갈과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세네갈대통령의 조선방문을 계기로 보다 강화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가 세네갈에 주고있는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물질기술적원조에 언급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은 세네갈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보내주신 이번의 선물은 세네갈과 조선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님께

파키스탄 라호르시가 명예시민증 증정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파키스탄 라호르시 명예시민증과 라호르시열쇠를 드리는 집회가 3월 29일 라호르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라호르시장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라호르시 명예시민증과 라호르시열쇠를 파키스탄을 방문하고있는 사리원시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완공된 평양국제문화회관을 돌아보시였다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3월 31일 완공된 평양국제문화회관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 책임비서 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강희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문화예술부장인 장철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연건평 근 1만평방메터에 달하는 평양국제문화회관에는 민예전람실, 미술작품전시장,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족악기전시장, 음악감상실, 무용전습실, 창작실, 회담실과 면담실, 영화감상실, 연회장과 민족료리식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평양국제문화회관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을 더 잘 보장하며 국제적인 문화예술교류를 더욱 활발히 벌릴수 있는 또하나의 튼튼한 기지가 마련되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회관을 돌아보시고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문화교류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문화활동을 벌릴수 있도록 회관을 쓸모있고 보기좋게 잘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회관건설에 기여한 재일동포애국상공인들의 지성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국제문화회관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문화예술교류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회관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완공된 평양국제문화회관

올해 첫 단기조국방문단을 태우고

《삼지연》호가 고베항을 출항

고베항에로의 첫 입항을 효고현하 동포들이 열렬히 환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첫 단기조국방문단을 태울 《삼지연》호가 지난 1일 고베항에 처음으로 입항하여 총련효고현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향기를 한껏 안겨주고 이곳 일본인민들과 친선의 뉴대를 깊였으며 4일, 효고현의 동포들 290명으로 무어진 제115차단기조국방문단을 태우고 출항하였다.

고베항에 처음으로 입항한 사랑의 배 《삼지연》호를 이곳 일군들과 동포들은 커다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열렬히 환영, 환송하였다.

1일, 《삼지연》호가 와닿을 고베항 뽀트타미날 제4돌제(突堤)에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과 김기철사회국장 그리고 총련본부 리복남위원장을 비롯하여 일군들과 동포들, 학생들 1천 800여명이 이른아침부터 손에 손에 공화국기발과 오색고무풍선을 들고나와 《삼지연》호를 마중하였다.

또한 일본사회당 효고현본부를 비롯한 현하 일본단체, 로조 대표들이 자기 단체의 기발을 들고나왔다.

오전 9시 40분, 《삼지연》호의 육중한 흰 선체가 환영군중의 시야에 들어오자 이날을 위해 이곳 본부관하 문학예술인들이 집체적힘을 모아 만든 《《삼지연》호 환영환송의 노래》의 취주악과 노래 소리가 울려퍼졌으며 그에 맞춰 학생들이 춤판을 벌리였다.

《삼지연》호가 점점 다가올수록 환영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여 《김일성장군의 노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래》의 취주악, 《만세!》 소리가 보다 힘있게 메아리치고 공화국기발이 아름답게 물결쳤다. 오색령롱한 고무풍선이 하늘높이 올랐다.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에 의하여 전기을선장을 비롯한 대표들이 상륙하지 못한 속에서도 부두에서는 《삼지연》호를 환영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효고현조선문제련락회의 우마베 기시오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에서는 일본사회당 효고현본부 부위원장인 일조우호촉진고베시의회의원련맹 아오끼 마사오회장, 총평 효고현지방평의회 이와끼 쯔또무부의장, 일조우호촉진효고현의회의원련맹 스기다 데쯔 사무국장들이 배우에 선 전기을선장과 선원들을 쳐다보면서 환영연설을 했다.

고베항에 처음으로 입항하게 된 《삼지연》호를 마음속으로부터 열렬히 환영한 그들은 일치하게 일본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말미암아 선장이 상륙하지 못하는 변칙적인 환영모임을 하게 된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려운 조건을 박차고 일조 두 나라 인민들의 우호친선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총련본부 리복남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조성된 정세가 여느때없이 긴장하고 복잡하지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배를 꽃바다 펼쳐, 꽃물결 펼쳐 열렬히 환영하며 《삼지연》호가 고베항에 머무르는 기간 제기되는 제반 사업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보장할것이라고 힘주어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소리가 연거퍼 울려퍼지는 속에서 고베시를 비롯한 10개의 일본단체 그리고 총련본부와 단체, 사업체 대표들이 《삼지연》호에 올라타서 전기을선장에게 꽃다발을 안기였다.

《삼지연》호가 머무른 4일동안에 수많은 일군들과 동포들, 학생들 그리고 각계각층 일본인민들이 선내를 돌아보았다.

《삼지연》호는 4일 오후,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조국으로 향하였다.



동포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고베항에 처음으로 입항한 《삼지연》호

량심수의 전원석방 요구

서울에서 대학생들과 재야인사 등이 투쟁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대학생들과 재야인사 등 300여명이 로태우파쑈도당의 탄압행위를 규탄하여 3월 28일 반《정부》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명동성당에서 《서울지역출옥동지회 창립대회》를 가지였다.

그들은 창립선언문에서 로태우파쑈도당이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박해하고 마구 체포하고있는데 대하여 신랄히 단죄규탄하고 그들에 대한 《수배조치의 전면해제》와 《량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로태우일당이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고 《해고로동자의 복권, 복직》 등을 견결히 주장하였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군사연습 절정에…

대규모상륙작전 감행

《미드웨이》호 주축으로

미제와 군사파쑈도당은 북침을 노린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남조선동해안에서 공화국북반부해안상륙을 가상한 대규모의 상륙작전연습을 감행하였다.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의 기지들에서 수많은 침략군무력과 각종 전투장비들을 투입하여 벌린 이 범죄적인 상륙작전연습이 3월 29일 새벽 절정을 이루었다 한다.

이 상륙작전연습에는 군용기들과 각종 미싸일들로 장비된 대형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주축으로 하는 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하여 미제 7함대소속 수상전투함, 수송함, 상륙함 등 각종 함정들, 핵무기로 장비된 여러가지 항공기들과 땅크, 포를 비롯한 각종 전투장비들이 투입되였으며 미제침략군해병과 괴뢰군해병, 괴뢰군예비역해병들이 동원되였다.

미제와 군사파쑈도당은 이 전쟁연습에서 광란적인 함포사격과 공중폭격으로 주변일대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온통 불도가니로 만들어놓은데 이어 기습적으로 상륙하여 공화국북반부지역을 가상한 목표지점을 점령하는 광대놀음을 벌려놓았다.

대양건너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 오끼나와 등 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들에서 남조선과 그 주변으로 이동전개된 미제침략군 륙해공군무력이 괴뢰륙해공군무력과 함께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상륙을 가상하여 벌린 이 범죄적인 상륙작전연습은 그자체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스스로 폭로해주었다.

그것은 또한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이 언제든지 공화국북반부침공을 위한 실전으로 이행될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이 도발적인 상륙작전연습과 관련하여 《막강한 전투력의 과시》니 뭐니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는 때에 미제와 로태우괴뢰도당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평화발기들을 외면하고 북침을 노린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면서 공화국북반부지역상륙을 가상한 대규모상륙작전을 벌림으로써 제놈들의 반평화적이며 침략적인 정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것이다.

한편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이에 앞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괴뢰해군해병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감행하였다 한다.

지금 내외여론은 미제와 로태우군사불한당의 로골화되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지켜보고있다.



동해안에서 침략적인 상륙작전연습을 감행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

《로동신문》이 상륙작전 규탄

【평양 3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31일부 《로동신문》은 29일 《팀 스피리트 88》전쟁연습의 일환으로 동해안의 포항일대에서 감행된 대규모련합상륙작전은 극히 모험적인 북침전쟁광란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상륙작전에 방대한 병력과 수많은 함선들, 작전장비들이 투입되여 실전을 방불케 전쟁소동을 벌린 사실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포항이 상륙장소로 설정된것은 그곳이 북반부의 해안도시들과 지형상 류사성이 많고 더우기 미제가 전진기지, 돌격기지로 리용하고있는 일본가까이에 위치하고있기때문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제와 괴뢰들이 실동연습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상륙작전연습에 전례없이 예비군병력을 끌어내고 전쟁열을 북돋고있는 사실이다. 이 모든것은 미제와 괴뢰들이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정규무력은 물론 준군사무력까지 끌어내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감행하려 하고있다는 움직일수 없는 증거이다.

만약 미제와 괴뢰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천백배의 보복타격으로 원쑤들을 격멸하고야말것이다.

중국 《인민일보》도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중국의 《인민일보》 29일부가 《민심에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였다.

신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민심에 배치되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행동을 더는 계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온 나라에 푸른 숲 설레이도록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기념하고있는 식수절(4월 6일)에는 대를 이어 전할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대홍단군산림조성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 나무심기의 첫삽 …○

지금으로부터 41년전인 1947년 4월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방된 새 조국 건설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조국의 산과 들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였다.

당시 문수봉에는 나무 한대 제대로 서있는것이 없었으며 눈에 뜨이는것은 일제침략군놈들이 쓰던 병영과 마구 파놓은 방공호들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놈들에 의하여 벌거숭이로 된 문수봉을 둘러보시면서 참으로 가슴아파하시였다.

원래 문수봉은 비단에 수놓은것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불러온 이름이였다. 그러나 일본놈들은 나무를 마구 찍어내고 산을 허물어 볼품없는 벌거숭이로 만들어놓았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수에 참가한 일군들에게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고 하시면서 조림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일일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의 앞날과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어야 하며 온 나라의 산들을 수림이 무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1946년 5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이듬해 봄 또다시 나무심기의 첫삽을 뜨심으로써 황폐하던 이 땅우에 무성하는 푸른 숲의 새 력사를 마련해주시게 되였던것이다.

○… 풍만한 산림자원 위해 …○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총검의 숲을 헤치시고 조국으로 진군하시는 길에서도 나라의 산림자원이 일제에게 략탈당하는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손수 나무씨를 따서 빈땅에 뿌리시였고 조국광복후 문수봉에 오르시여서는 조국의 산과 들에 나무를 심어 잘 가꾸는것이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후대들에게 풍만한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넘겨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하시며 일군들이 권하는 휴식마저 미루시고 한그루, 두그루 나무를 정히 심으셨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여 보여주신 조국의 일목일초를 가꾸시는 숭고한 모범은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가슴가슴에 풍만한 산림자원을 꾸려나가려는 애국의 불씨를 안겨주었다.

더 많은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중단없이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북부고원지대의 산림자원조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시, 군들에는 산림경영소를 내오고 그 아래에 산림보호원을 두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산을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경제림조성방침을 제시하시여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알맞는 주체적인 산림업 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높으신 뜻은 도시건설에도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 침범해서는 안될 록지면적 …○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1967년 9월 어느날이였다.

평양의 어느 거리의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문득 이 지대의 주택배치안을 보자고 하시였다.

《여기는 공원으로 예견된곳이 아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집을 짓자고 하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견된 세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원부지안에 살림집을 지으려고 한 일군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평양주택지구는 주민수에 비하여 록지가 더 필요하오. 도시형성에서 록지면적을 충분히 고려하는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위해서 절실한 문제요. 그러니 집을 딴데 짓더라도 록지면적을 침범해서는 안되겠소.》

도시록화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요구는 이처럼 높으신것이였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여 몸소 나무를 심으신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매해 4월 6일을 식수절로 뜻깊게 기념하면서 나라의 산과 들에 많은 나무를 심는 운동을 벌리고있다.

민족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의 빛나는 자욱우에 오늘은 이르는곳마다에 무성하는 울창한 숲이 설레이며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실로 지난날 벌거숭이였던 산들이 오늘은 청춘기를 맞아 《기름산》, 《비단산》, 과일동산으로 불리우고 도시와 마을은 《공원속의 도시》로, 화원속의 마을로 되였다.

1,700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주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숭고한 사랑을 담아 보내주신 귀중한 나무들을 최근에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인민군군인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주변에 심었다.

주작봉마루에 자리잡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의 두리와 렬사릉으로 올라가는 길옆에 새로 심은 사랑의 나무들은 1,700여그루에 달한다.

이 귀중한 나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수산의사당 정원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곳에서 가꾸신 20년생이상 되는 잣나무, 전나무, 종비나무들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조국과 혁명에 충실하였던 혁명렬사들을 위해 대성산혁명렬사릉을 훌륭히 마련해주시였을뿐아니라 오늘은 또다시 숭고한 사랑을 담아 귀중한 나무들을 보내시여 그 주변에 심도록 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10월 1일에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평양시당의 한 책임일군에게 혁명렬사릉으로 올라가는 길옆에 좋은 나무들을 심을 안을 타산하라고 하시면서 렬사릉쪽부터 나무들을 심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렬사릉주변에 바늘잎나무만 심지 말고 넓은 잎나무도 배합하여 혼성림을 조성하도록 설계를 잘하는 문제, 렬사릉으로 올라가는 길옆에 있는 방울나무는 찍지 말고 뽀뿌라나무만 찍되 솎음식으로 찍을데 대한 문제, 원림사업에 중앙식물원을 인입시킬데 대한 문제 등 원림조성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원림설계일군들이 만든 대성산혁명렬사릉의 원림설계를 보아주시면서 원림조성을 잘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서 자라나 오늘은 대성산혁명렬사릉주변에 다시금 뿌리를 내리게 된 귀중한 나무들은 수령님의 숭고한 그 사랑을 길이 전하며 영원히 설레일것이다.



혁명렬사를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으로 여기 대성산에는 새로운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였다.

주체사상과 농촌테제에 대한 강연회 진행

마 다 가 스 까 르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 마다가스까르사회주의혁명헌장, 주체사상연구 안따나나리부시 청년조직에서 얼마전 주체사상과 농촌테제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 마다가스까르사회주의혁명헌장,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제2부위원장 라벨라자우 마리아가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마다가스까르혁명전위 마다가스까르사회주의혁명헌장, 주체사상연구 안따나나리부주 안따나나리부시 제4구역위원회 책임자 라나리미하리쑤아 안드리아따피까 작크가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강령적문헌》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지적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밝힌 강령적문헌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인도와 가나에서는 토론회

인도와 가나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인도 아그라종합대학 주체철학연구학회에서는 얼마전 《주체사상과 사회력사발전에서 진보적사상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진보적인 사상인 주체사상은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새 사회를 수립함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인민대중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록 그들의 의식성과 조직성은 더욱 강화되며 사회발전은 촉진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주체사상가나전국연구소 문학예술인지부에서는 최근 《주체조선의 성과와 경험》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가지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언급하고 조선인민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과 쏘련사이에서

문화 및 과학 협조계획서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정부사이의 1988—1990년도 문화 및 과학 협조계획서가 3월 29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계획서에는 우리측에서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오문한부위원장과 상대측에서 우리 나라 주재 쏘련대사 겐나지 바르또쉐비치가 수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건설된

야외극장준공식 부르끼나파쏘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배려에 의하여 건설된 야외극장 준공식이 3월 19일 부르끼나파쏘의 불끼엠데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준공식에는 경제발전상 앙리 구고와 인민조직전국조정관, 인민전선조정부성원들, 여러 상들과 총서기들, 이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이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니제르, 말리, 꼬뜨디봐르, 또고의 예술단성원들,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리태균대사가 초대되였다.

준공식에서는 불끼엠데도장관과 우리 나라 대사의 연설이 있었다.

도장관은 연설에서 부르끼나파쏘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배려로 건설된 극장은 조선과 부르끼나파쏘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담당 국무비서가 부르끼나파쏘인민전선 위원장,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극장이름을 《꾸두구인민극장》으로 선포하였다.

준공식을 기념하여 경제발전상과 인민조직전국조정관, 문화담당 국무비서, 불끼엠데도장관 그리고 우리 나라 대사가 식수를 하였다.

(잔지바르수상이 펨바)
(경기장건설장을 참관)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잔지바르수상 오마르 알리 쥬마가 3월 9일 펨바경기장건설장을 참관하였다.

그는 경기장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보내주신 조선기술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기장건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나쁜놈들아 다 내놓아라

모략과 치안

목소리

일본 나까소네전수상은 얼마전에 남조선을 방문했을 때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에 대해 언급, 이를 총련과 결부시켜 《지문의 채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다. 남조선괴뢰들을 그토록 두둔해온 일본당국의 속심을 드러낸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안기부의 발표를 어제날의 〈다이홍에이(大本営)발표〉처럼 류포하고있는 일본의 매스콤의 실태는 똑똑히 검토돼야 한다.》(영화감독 오까모도씨)는 목소리가 자자했는데 말이다. 진상이 구명되기전부터, 아니 사건발생직후부터 일본당국은 시종 남조선당국의 허위발표에 맞장구를 쳐왔다. 심지어 《꽃다발의 소녀》는 《마유미》가 아니라는것이 백일하에 폭로됐는데도 한사코 남조선당국과 일본공산당의 발표를 적극 두둔해나섰다. ▼이리 되면 일본당국자체도 이번 모략사건을 통해 그 어떤 목적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이고있는것이나 다름없다. 공화국적대시정책과 조선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그 연장선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박해정책을 강화하는 근거를 만들어놓자는 꿍꿍이인것 같다. 입만 벌리면 《재일조선인문제는 현재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치안상의 중요안건》(방위연수소 《폭동진압의 연구》)이라고 말해온 일본당국이다. ▼그래서 있지도 않는 《폭력주의적파괴활동》을 구실로 총련을 《파방법적용의단체》로 지정, 미행과 감시, 간첩강요 등을 공공연히 감행했다. 특히 《등록법》의 지문날인제도를 강요하여 우리 동포들을 《범죄인》처럼 취급하며 그들을 완전히 장악관리하려고 해왔다. 내외의 그토록 강력한 반대여론도 무시하고 지문제도를 고집하는것도 《치안관계에서 필요》(1958년 2월 법무상)하다는 생각에서이다. ▼공화국과 총련의 평화애호적인 정책을 외면해온것이 과연 누구였겠는가는 뻔하다. 그래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당국의 박해정책은 《유사시의 적성(敵性)외국인관리》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그것이 남조선당국과의 공동작전으로 벌어지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두 치안당국간의 비밀협정이 밝혀진지도 오래다.

귀여운 후대들을 참다운 조선사람으로 키우자

민족교육발전을 위한 뜨거운 애국충정의 결실

올해 유치반, 보육반 무료화 실시

아마가사끼히가시조선초급학교

아마가사끼히가시조선초급학교에서는 새학년도부터 유치반, 보육반의 무료화가 실시되였다.

뿐만아니라 이곳 학교에서는 앞으로 유치반, 보육반 원아들과 올해부터 이곳 학교에 다니게 되는 신입, 편입생들의 교복을 무료로 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해지는 대상학부형들의 업종에 맞게 보육교육을 오후 5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등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곳 학교에서는 동포들의 열성과 지성으로 하여 올해부터 유치반, 보육반의 무료화가 실시되였다.

《내가 교양원으로 나선 후부터 학생받아들이는 사업을 벌리는 과정에서 늘 느낀것은 유치반원아들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이였지요.

학부형들의 업종이 다양해지는 속에서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수 있는것부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먼저 이번 유치반, 보육반의 무료화를 비롯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지요.》(리옥례교장)

이곳 학교에서는 지난해 새 교사를 아담하게 일떠세운후부터 관하동포학부형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자녀양육과 일을 량립하는 어머니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 제도 실시 준비사업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함께 밀고왔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새로 꾸려진 교육회리사회(22명, 최종락회장)는 발족과 동시에 학교전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면서 이번 새 제도를 정착시킬수 있도록 협의를 꾸준히 해왔다.

젊은 동포학부형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리사회성원들은 무료화가 학교를 발전시키며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보다 과시하게 될것이라는 기대와 신심에 넘쳐 사업에 달라붙었다.

《학부형들이 걱정없이 애들을 보내도록 하고 가까운 앞날에 학생들로 학교를 꽉 메우자.》, 《사실 이번 제도 실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기금이 아니라 자립적인 운영대책으로 꼭 실현해내야 한다.》 등 여러 의견들이 주 1번의 교육회리사회, 동포학부형들의 모임마당에서 나왔다.

한편 총련 효고현 아마가사끼동지부에서는 교육사업에 전기관적, 전동포적인 힘을 돌려 교육강연회를 수차례에 걸쳐 조직진행하는 등 동포들이 학생을 받아들이는 사업과 함께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을 왕성히 벌려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였다.

관하동포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과 전기관적인 지원 밑에 학교를 돕는 사업은 활성화되였다. 그런 속에서 지난해에 학생받아들이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올해 많은 원아들을 받아들이게 되였다.

관하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의 열성과 지성에 의하여 마련된 새로운 교복을 보란듯이 차려입은 새 원아들의 기쁨은 한량없이 크다.

도꾜조선제8초급학교 입학식장을 찾아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며 새 희망을 안겨주는 4월.

그런 4월 1일에 일본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학교들에서 입학식이 일제히 진행되였다.

새 동무들과 선생님을 만나 웃음꽃과 이야기꽃이 활짝 핀다.

특히 학교교육의 시작으로 되는 초급부 입학식은 신입생들은 물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이 기쁨에 넘친다.

그러한 속에서 기자는 명절날처럼 흥성거리는 도꾜조선제8초급학교 입학식에 참가해보았다.

사랑에 넘친 학교

《신입생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고 씌여진 벽보와 함께 따뜻이 맞이해준 재학생들.

그들은 신입생들에게 이름이 적힌 수건을 달아주고 신통도 가르쳐주며 그들을 교실까지 데려가주는 꼬마안내원으로 등장하여 똑똑한 언니, 오빠의 역할을 놀군 하였다.

그 반면에 신입생들은 서로 처음으로 맞대는 얼굴들과 귀에 설은 우리 말에 좀 긴장한 표정이였다.

올해 신입생수는 11명.

비록 학생수는 많지 못하지만 이곳 학교는 활기에 넘친 학교이다.

그것은 학교와 학부형 그리고 총련과 상공회, 녀성동맹지부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학교사업에 큰 힘을 돌리고있기때문이다.

이날도 신입생수의 2배이상이 되는 학부형들이 입학식에 참가하였는바 손자들의 모습을 꼭 보아야겠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도 눈에 띄였다.

《학교까지의 거리가 좀 멀지만 자기 모교인 제8초급에 자기 아이를 꼭 보내고싶다는 소원이 풀려서 기쁩니다.》고 이야기하는 신입생어머니들도 많아 동포학부형들이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고있는가를 알수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어머니회》사업도 활발하여 주에 3번 당번제로 급식을 하고있으며 바자 등 여러 모임을 조직하여 그 리득금을 학교에 바치고있다.

이날도 《어머니회》로부터 도공용 도구함이 선물로 전달되였다.

아버지들도 어머니들에게 못지 않게 학교공사사업이 제기되면 스스로 학교에 찾아와 도와나서는 열성을 보이고있다고 한다.

이렇게 모든 학부형들과 동포들이 학교를 위한 사업에 힘을 돌려온 결과 지난 3월 29일에는 시부야구에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초중학생들에게 매달 보조금을 내게 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입학식참가자들은 무척 기뻐하였다.

21세기에 꽃펴나라



초롱같은 눈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신입생들

어엿한 후비대로

올해 1학년담임을 하게 된 김추련교원은 20여년동안이나 교원사업을 해온 경험많은 교원이다.

그는 《요즘 학부형들은 거의 2세, 3세들로 나이가 젊어지고있는 속에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의견도 많습니다. 또 학생들속에는 4세까지 있어 세대교체를 통감합니다.》고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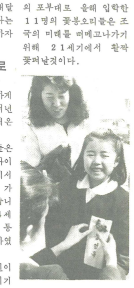
올해 신입생들이 성인이 될 때에는 이제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 우리 총련조직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후비대들인것이다.

《몸건강히 학교에 다녀 우리 말과 글을 빨리 배워주면…》 하는 아버지의 심정에 보답하듯 《우리 말과 글을 잘 배워 똑똑한 조선사람이 되겠습니다.》고 서투른 우리 말로 결의다지는 성려나학생.

입학식에서 처음으로 우리 말로 이름을 불리워 《예!》 하고 힘차게 대답하며 선생님의 말을 초롱같은 눈으로 귀담아듣는 그들이 어엿한 조선사람으로 자라는것이 학교의 기쁨이며 우리 재일동포들의 기쁨인것이다.

《21세기에 사는 그들이 어디에 가서도 똑똑한 조선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가도록 키워가고싶습니다.》라는 김추련교원의 포부대로 올해 입학한 11명의 꽃봉오리들은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가기 위해 21세기에서 활짝 꽃펴날것이다.



오늘부터 1학년생, 어린 가슴에 넘쳐나는 행복의 기쁨은 곧 어머니의 기쁨이다.

새 교복, 새 동무— 희망에 넘친 신입생

—사이다마초중에 입학한 김리향학생—

오늘은야 손꼽아 기다리던 입학식날, 새 교복을 곱게 차려입으니 나도 떳떳한 우리 학교 1학년생—

총련 사이다마현 북부지부관하에서 사는 김리향학생은 올해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초급부에 입학하게 되였다.

이날 어머니와 손잡아온 2시간의 통학길도 앞으로는 동포, 학부형들이 마련해준 사랑의 새 뻐스를 타고 동무들과 다니게 된다.

학교에 가니 낯설은 동무들,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말에 어리둥절하여 시종 긴장된 표정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되여 동무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러한 속에서 자기와 같은 이름인 또한명의 《김리향》동무와 만나 서로 친하게 되는 등 입학 첫날부터 많은 경험을 하였다.

《나는 가정사정으로 일본학교에 다녔지만 언제나 저고리를 입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니 리향이는 당당하게 저고리를 입고 민족의 넋을 지켜주면 좋다는 마음입니다.》고 맏딸의 입학의 감상을 이야기해준 문혜자어머니.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아 고이고이 자란 김리향학생은 앞으로 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을 잘 배워 어엿한 조선사람으로 자라날것이다.



↑꽃같이 피여난 밝은 웃음에 찬란한 조국의 미래가 비친다.



입학식전날, 리향학생과 더불어 부모들의 기쁨도 한결 부풀어오르기만 한다.



←입학생들의 긴장과 희망이 담겨진 기념사진. 조선학생으로서의 새 출발을 고하는 긴장된 순간이다.



↑제 이름 석자를 우리 글로 처음으로 쓰게 된 기쁨. 이역땅에서 살아도 민족의 넋이 가슴속에 뿌리내린다.



→우연하게도 한학급에서 만난 두명의 《김리향》학생. 처음으로 만났으나 소꿉시절동무처럼 친숙해졌다.

자료　88년상반기 로동운동의 방향 (하)

자주, 민주, 통일을 공동강령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련합 결성이 시급한 과제

군부독재세력은 《보수대타협》의 구도를 실현시켜 장기집권의 기초를 닦으려고 온갖 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하고있습니다. 보수야당에 대한 분렬공작을 강화하여 보수야당의 통합가능성을 없애려 하고있으며 민중의 변혁열기를 제도권내로 수렴하여 그것을 개량화하기 위하여 혁신정당을 인정은 하되 그 발전을 가로막고있습니다.

군부독재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이러한 《거대여당 대 군소야당》의 구도와 《보수타협》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것입니다.

군부독재정권은 민족민주운동을 고립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리용하여 《사상공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민족민주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는 한편 부분적인 민주화를 통하여 대중에게 개량적인 환상을 널리 류포시키고 중간층을 포섭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이러한 《유화국면》은 당분간 지속될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활용할 합법공간도 매우(?) 넓으리라 예상됩니다.

우리 민중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자유주의비지(귀족을 뜻함)들이 민주화의 진정한 담당자가 될수 없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국민적 지도자로서 행세하여온 자유주의비지는 《대통령》선거과정은 물론 그이후에 있어서도 그 기회주의적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적지도자, 민중의 정당을 요구하게 하고있습니다.

로동운동은 작년 한해동안 량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7, 8, 9월 로동자들의 투쟁의 경험은 금년 상반기의 로동운동의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로동운동은 아직도 그 대중적토대가 취약하고 통일성도 약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로동계급의 정치조직이 확고히 서지 못하고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은 작년 한해동안 특히 6월민중항쟁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후보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분렬이 《대통령》선거의 패배로 확산되고 심화되여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통일되고 단결될 때만 《보수타협》을 분쇄하고 군부독재정권을 끝장낼수 있습니다. 민족민주진영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로동자의 정치조직을 확고히 꾸리고 각계각층의 합법적, 반합법적 대중단체를 광범위하게 구축하여 이를 하나의 단일한 전선으로 묶어내야 할것입니다.

2)민주로조탄압저지투쟁과 로동악법철폐투쟁

작년 7, 8, 9월 로동자대투쟁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건설된 민주로조를 적의 탄압으로부터 사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로조가 파괴된다는것은 로동운동의 대중기지, 대중적토대가 파괴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적들은 이미 민주로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쓰고있습니다. 적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위장폐업을 주요한 전술로 쓰고있습니다. 민주로조는 앞으로 맞이할 임금인상투쟁의 중요한 공간으로 될것입니다. 민주로조의 존재는 임금인상투쟁의 유리한 조건으로 될것입니다. 적들은 바로 그렇게 될것을 두려워하여 임투(임금인상투쟁)가 본격화되기전에 민주로조를 말살해버리려 하고있는것입니다. 임투를 광범위하고도 대중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해서도 민주로조를 사수해내야 하며 민주로조사수투쟁을 임금인상투쟁으로 련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민주로조탄압저지투쟁과 로동악법철폐투쟁은 동전의 량면과 같습니다. 민주로조탄압저지투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힘으로 로동악법철폐투쟁을 효과적으로 해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동악법철폐투쟁을 잘해내야 민주로조가 강화발전될수 있습니다. 개정로동법은 6월민중항쟁과 7, 8, 9월 로동자대투쟁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로동조합설립의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한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용로총이나 산별련맹을 강화할수 있는 함정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투쟁의 무기인 단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장애물로 되고있습니다.

민주로조탄압저지투쟁과 로동법개정투쟁은 《유화국면》속에서 로태우일당이 말하는 민주화의 기만성과 로태우《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로조탄압저지투쟁과 로동악법철폐투쟁의 주체는 민주로조가 돼야 할것이지만 전투적인 로동운동조직들이 이를 지도, 지원, 지지함으로써 전투적인 로동운동조직들과 민주로조들은 혈연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것입니다.

민주로조탄압저지투쟁도 총선을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특히 로동법개정투쟁은 총선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총선과정에서 《국회의원》후보들로 하여금 로동법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놓게 하고 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다음 《국회》에서 로동법을 개정하도록 밀어붙여야 합니다.

3)임금인상투쟁과 민주로조건설투쟁

다가오는 임금인상투쟁은 광범위한 민주로조와 진보적로동조합운동조직의 존재, 작년 7, 8, 9월 투쟁의 경험 그리고 총선과의 맞물림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상승과 더불어 인플레로 인한 생계비상승은 로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한층 확대시킬것입니다. 게다가 어용로총까지도 이미 4월 1일쟁의 신고, 4월 10일쟁의 돌입, 련대투쟁 감행이라는 계획을 발표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인상투쟁은 생존권투쟁으로서 당연히 최저생계비확보를 위한 투쟁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인상투쟁은 로동자의 계급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임금인상투쟁과정을 통하여 로동자들이 지역적, 전국적 단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초보적인 정치의식이라도 싹트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인상투쟁은 로동자의 단결의 계기로 되여야 합니다. 개별사업장내의 투쟁은 물론이거니와 개별사업장을 넘어서 련대투쟁, 공동투쟁을 수행함으로써 단결을 강화할수 있고 그러한 단결된 투쟁으로써만 임금인상투쟁자체도 성공적으로 수행될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투쟁은 민주로조를 건설하고 어용로조를 민주화하는 계기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임금인상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이 민주로조를 건설하고 어용로조를 민주화하는 과정으로 될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만이 임금인상투쟁의 효과는 배가될수 있는것입니다.

임금인상투쟁은 어용로총의 투쟁계획과 총선을 잘 활용해야 할것입니다. 어용로총의 투쟁계획을 잘 활용할 때 총파업투쟁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용로총의 기만성을 폭로해내는 계기도 될수 있을것입니다. 총선은 임투의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국회의원》후보가 가는곳마다 임투를 지원하고 지지하게 함으로써 임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시킬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후보를 로동자들로 하여금 지지하게 함으로써 로동자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킬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것입니다.

진보적인 로동조합운동조직들은 로동자대중의 임금인상투쟁에 깊이 파고들어 그 투쟁을 지도, 지원, 지지함으로써 로동자대중과 혈연적관계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진보적로동조합운동조직들은 자기의 조직원을 많이 확보해낼수 있습니다.

전투적로동운동조직(진보적로동조합운동조직)들은 민주로조건설과 어용로조 민주화투쟁을 지도, 지원하고 민주로조의 지역협의회, 더 나아가 민주로조의 전국협의회가 구성될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로협의회는 어용로총이나 어용산별련맹을 깨부수는 계기로 될것입니다.

전투적로동운동조직은 또한 자신들의 전국적협의회 내지 련합을 결성함으로써 로동운동의 통일에 기여해야 할것입니다.

4)총선에의 참여전술

부정선거규탄투쟁과 로태우《집권》 내지 저지투쟁은 그것이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할수 없는 조건에서는 로태우《정권》의 정통성을 깨부수기 위한 선전전의 의미가 크다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총선에의 참여전술을 구사하는데 있어서 다소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줄것입니다.

로동운동진영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국회의원》총선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전술을 구사해야 합니다. 대중의 반독재투쟁의 열기가 식고 《개량화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민족민주운동진영이 합법적투쟁전술, 즉 총선에의 적극적인 참여전술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술일수밖에 없습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총선에의 적극적인 참여전술을 구사한다는 것은 자기의 독자후보를 내세워 유세장을 비롯한 합법적공간을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의 장으로 삼고 그들을 가능하다면 《국회》로까지 진출시킨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민족민주운동진영과 민중은 이제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보수정당에 맡길수 없습니다. 또 그럴만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량김씨와 량당의 대중에 대한 정치적지도자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선거의 패배이후 급격히 떨어지고있으며 옛날의 지위를 회복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중은 자기의 정치적지도자, 자기를 진정으로 대변해주고 자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주는 자기의 정당을 갈망하고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민중의 정당을 결성해야 할 리유입니다.

로동운동진영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민중의 정당 결성을 지도, 지원, 지지해야 하며 민중의 정당을 앞세워 총선에의 참여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합니다. 민중의 정당후보를 앞세워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을 지원, 지지케 하고 로동운동탄압을 규탄케 하고 로동법개정을 주장케 하고 민주적제권리와 정치적자유의 확대를 웨치게 하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능한 한 《국회》로 보내 《국회》의 연단을 활용하여 투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동운동조직과 현장활동가들은 로동자대중속에서 민중의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림으로써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할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중의 정당이 독자적으로 선다 하더라도 그 력량은 그리 크지 않을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는 매우 어려울것입니다. 따라서 총선에 있어서도 민주대련합의 대원칙이 견지되여야 하며 련합공천으로 반독재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5)로동운동의 통일, 로농련대, 민족민주운동련합의 결성

로동운동의 통일은 로농련대에 있어서나 민족민주운동련합의 결성에 있어서나 중요한 관건입니다. 로동운동의 통일만이 로농련대를 확고히 하고 민족민주운동을 흔들림없이 지도할수 있습니다.

로동운동조직들은 실천투쟁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로동운동의 적극적인 통일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지역에서, 전국적수준에서 통일이 모색되여야 하며 대중단체는 대중단체수준에서, 정치단체는 정치단체수준에서, 지원체는 지원체수준에서 통일과 단결이 모색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민주로조협의회의 구성이나 로동운동협의회의 구성은 로동운동의 통일과 단결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의 수준이나 단결의 정도는 매우 낮습니다. 통일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천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지도력을 보다 확고히 할수 있습니다.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련대하는것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나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로동자들은 농민들의 수세반대투쟁, 농축산물수입반대투쟁, 농협민주화투쟁 등등을 지원지지하여 나서야 하며 농민들은 로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 및 로동법개정투쟁, 민주로조탄압저지투쟁 등등에 련대를 표시해야 하며 총선에의 참여전술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로동자들과 농민들은 군부독재종식과 그를 위한 후보단일화투쟁을 《대통령》선거시기에 공동으로 조직한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련합(민중운동련합)이 시급히 재건되여야 합니다.

새롭게 재건되는 민족민주운동련합은 과거의 민통련이나 국민운동본부의 경험을 교훈삼아 운동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직되여야 합니다. 민족민주운동련합은 로동자계급과 근로민중의 모든 정치조직 그리고 각계각층의 대중조직, 진보적인 인사들이 망라되는 조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자기의 공동강령으로 하는 조직이여야 합니다. 민족민주운동련합은 전민중의 정치적지도기관으로서 지역적조직구조와 계급, 계층적 조직구조가 현실에 맞게 잘 배합되여 조직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상층부만의 통일로써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층통일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민주적으로 결성되고 민주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민주운동련합은 로농이 중심이 되여서 구축될 때만이 통일과 단결을 보다 확고히 할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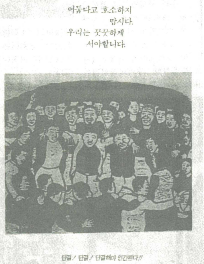
이러한 민족민주운동련합이 합법적인 민중의 정당을 지도할 때만이 민중의 정당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수 있을것입니다.

로동자 만세!!! 서울로련 만세!!! 통일, 단결운동 만만세!!!

2월 10일

(《 》와 괄호는 본사 편집국에서 달았음, 철자는 우리 식으로 고쳤음.)

《서울로동조합운동련합》기관지 《통일단결》(창간호)에서



남조선 투쟁소식

서울시립대학 학생 200여명이 기성회비를 횡령하고있는 학교측의 부정행위에 항의하여 3월 30일 총장실을 점거하고 롱성투쟁을 벌렸다.

※ ※

괴뢰군전방부대입소를 반대하여 병영을 탈출한 부산대학교 학생 70여명이 3월 30일과 31일 이 대학 총장실을 점거하고 롱성투쟁을 벌렸다.

이 학생들은 지난 3월 28일 괴뢰군부대에 도착하자 범죄적인 군사교육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병영을 탈출하였으며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 철야롱성을 단행하였다.

※ ※

출판문화운동협의회가 3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파쑈도당에게 출판탄압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부당하게 련행된 3명의 책방주인들을 즉시 석방할것과 압수해간 책들을 반환하며 전두환파쑈《정권》때부터 강행되고있는 서적에 대한 부당한 《판매금지조치》를 해제할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출판문화운동협의회 회원 50여명은 3월 31일 이 협의회 사무실에서 책방에 대한 수색과 서적압수, 출판탄압의 중지 등을 요구하면서 5시간동안 롱성투쟁을 벌렸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6일 (음력 2월 20일) 수요일 【루계 제10176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민족의 통일념원에 맞게 화해와 단합의 새장을 펼치자

바야흐로 40년전 민족적단합의 그 리념으로 북과 남에서 련석회의소집의 기운은 고조되고있다

조선사회민주당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3월 31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남조선의 사회민주당 위원장이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제의에 동의를 표시하여 나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 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구국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응해나오지 못할 리유와 조건이란 없다고 인정한다.

이번에 남조선의 사회민주당 위원장이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제의에 동의해나온것은 이에 대한 좋은 실례로 된다고 보게 된다.

남조선의 사회민주당 위원장을 포함하여 광범한 인사들과 청년학생들까지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동족끼리 만나 손을 잡자고 하는 때에 로태우일당이 동족의 애국적인 제의에 등을 돌려대는것은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반민족행위로 될뿐이다.

오늘 북남관계가 전례없이 악화되고 완화와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적열망이 급속히 높아가고있는 현실은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전민족적인 대화의 광장에 나설것을 절실히 요청하고있다.

나는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이 사회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는 용단을 내리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남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이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제의에 동의

《미국의 소리방송》이 3월 28일에 전한데 의하면 남조선의 사회민주당 위원장 권두영은 성명을 발표하고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소집에 대한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의 제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소집에 대한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의 제의를 받아들일것을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촉구하였다고 방송은 전하였다.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가로막기 위해 각방으로 방해책동을 벌리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야당이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소집제의에 공개적으로 동의를 표시해나선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열망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사실의 일단을 보여준것으로서 세계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북과 남의 모든 대학, 모든 학우들의 대표들이 판문점에로의 대행진의 길, 함께 마주앉는 대회합의 마당에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방송으로 보내였다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위원장은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여 우리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남조선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4일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와 받아갈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이 우리의 편지를 받아가는것을 거부하고 대학생들에게도 전달할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나온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보내는 편지와 김일성종합대학 박관오총장이 서울대학교 조완규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방송을 통하여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편지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보내는 편지

서울대학교의 학우들!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지난 3월 30일 귀 대학교 총학생회가 분단조국의 현실과 겨레의 비극적인 수난을 가시려는 념원으로부터 그대들이 달려오고 우리가 달려갈 뜻깊은 만남의 무대를 마련할데 대한 중대한 발기를 하였다는 기쁜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대들의 훌륭한 발기에서 뜨거운 혈육의 체온과 높뛰는 애국의 숨결을 절감하면서 멀어져 살수 없는 우리의 동포애의 정과 구국의 의지를 담아 그대들, 서울대학교의 전체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형제적인사를 보냅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번에 민족분단이래 처음으로 우리 김일성종합대학과 귀 대학교 학생들의 회담을 제기하고 국토종단대행진과 체육대회를 거행할데 대하여 제창한것은 북남의 모든 대학생들의 찬의를 받고 온 민족의 박수갈채를 받아야 할 장한 일입니다.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귀 대학교 총학생회의 제의가 민족적화해를 위하여 유익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절실한 애국적인 발기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대들의 제의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시하는바입니다.

수수천년을 함께 살아오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원쑤처럼 살아야 하는 오늘의 통탄할 현실보다 더 가슴아픈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단의 비운과 넘고넘어온 시련에 찬 통일구국의 력사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준것은 분렬된 조국에 태여나 통일된 조국을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민족화해의 기수가 되고 통일운동의 주역이 되여야 한다는 고귀한 명제입니다.

애국에 투철하고 통일에 열렬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앉아서 부모들이 민족적화해를 이루어주기만을 바랄수 없으며 지성의 세대들이 나라의 통일을 가져다주기만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의 우리 젊은 지성들은 민족이 지워주고 력사가 맡겨준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뜻과 힘을 합치고 열과 성을 다 바쳐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구국의 전아가 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이러한 숭고한 립장과 애국의 의지로부터 귀 대학교 총학생회의 제의에 대한 우리의 호응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우리는 오는 6월 10일에 우리 김일성종합대학과 귀 서울대학교 학생대표들의 실무회담을 가지자는 제의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실무회담에서는 그대들이 제의한대로 민족화해를 위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북에서는 백두산으로부터 판문점까지, 남에서는 한나산으로부터 판문점까지 국토종단대행진을 진행하며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두 대학중 어느 한곳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하자는데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합니다.

실무회담에서는 이밖에도 필요하다면 그대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하는 다른 문제들을 함께 협의하여도 좋을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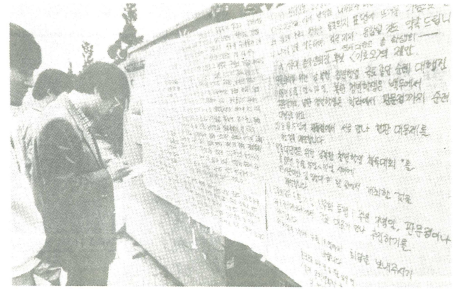
회담대표단은 우리의 만남이 민족이 기대해마지 않고 전체 북남학우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력사적인 회합이라는 견지로 보나 회담이 안고있는 중대한 사명으로 보아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10명내외의 남녀학생들로 구성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귀 대학의 대표단은 편리한대로 구성하여도 무방할것입니다.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얼싸안으려는 뜨거운 마음은 우리들만의 심정일수 없습니다.

그대들의 애국충정이 이번에 대자보에 새겨져 감격스럽던 그 시각에 서울의 10여개 대학 교정들

2면에 이음


연세대학교에 나붙은 서울대생들의 제의를 지지하는 대자보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 제기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방송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때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북과 남의 청년학생대표들의 회담을 제기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총학생회장후보와 부회장후보의 이름으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대자보에 옮겨 대학게시판에 내붙였다. 3월 29일자로 발표된 이 대자보에 회담을 제의하는 공개서한내용이 상세히 담겨져있다.

그들은 공개서한에서 북과 남에서 각각 《민족화해를 위한 국토종단순례대행진》을 벌리자고 하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남조선대학생들은 제주도 한나산에서 판문점까지, 북반부의 대학생들은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행진할것을 제기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과 서울대학교중 한곳에서 남북조선청년학생체육대회를 가질것을 제기하고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우선 량측대표들이 오는 6월 10일 판문점이나 제네바와 같은 제3국에서 실무회담을 열것을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회답을 보내줄것을 요청하였다.

서울대학교에 게시된 대자보는 나붙자마자 남조선의 각 대학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서울시내에서만도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각각 게시하고 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북과 남의 청년학생대표들의 회담과 대행진, 체육대회 등을 제의해나선 사실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과 조국통일에 대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념원이 얼마나 절절하고 뜨거운것인가를 보여주는것으로서 내외의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그런데 파쑈도당은 북과 남의 청년학생대표들의 회담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주장하여나선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이 《법에 위배》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수사놀음을 벌리며 이에 가혹한 탄압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시대를 밝히시며

탁월한 천품과 자질을 지니신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

시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은 인민의 탁월한 수령들에 의해서만 창시된다.

19세기 40년대 맑스주의는 로동계급의 첫 수령인 맑스에 의하여 창시되였고 로씨야로동계급에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준것은 당대 로동계급의 수령이였던 레닌이였다.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오직 그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존함과만 결부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천품과 자질을 지니신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다.

◉…◉

확고한 신념, 뛰여난 사상정신적풍모

◉…◉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천품을 말해주는 수많은 이야기중에서 그이께서 무송현립제1량급학교(무송은 지금의 중국동북지방 무송현의 현소재지)에 다니시던 때 있은 이야기다.

어느날 학교 들놀이에 가신 수령님께서는 숲속을 거니시면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한그루의 큰 나무에 손칼로 《일본제국주의 타도, 조선독립》이라는 글발을 새기시였다.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교장이 이것을 보고 그이께 어린 학생이 어떻게 강대한 일본을 타도할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왜놈을 미워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힘을 한데 모으면 능히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할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으로만 여겨오던 그이로부터 너무도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된 교장과 교직원들은 그이의 높은 애국정신과 확고한 신념, 뛰여난 사상정신적풍모에 한결같이 탄복해마지않았다.

당시 무송현립제1량급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한 교원은 그 시절의 그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있다.

《…날이 감에 따라 우리들은 김성주소년이 나이는 어리지만 보통사람이 아니라는것을 느꼈다.…

당시의 김성주소년은 총명하고 강직한 학생으로만 그친것이 아니라 큰 포부와 넓고 깊은 일가견을 가지고있는 정치활동가였다. 사실 그이는 벌써 사물에 대한 인식과 분석에서 우리 선생들을 릉가하고있었다.》

이러한 천품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선행한 혁명 사상과 리론에 정통하시였으며 그것을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였다. 뿐만아니라 혁명실천이 요구하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경험에도 구애되지 않으시고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시였다.

◉…◉

앞날을 내다보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복잡한 현상이 뒤엉킨 속에서도 먼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는 비범한 통찰력과 예지를 지니고계신다.

열다섯살의 소년시절에 새형의 참다운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고 조선혁명의 독창적인 대강을 내놓으시였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이께서 지니신 천품이 얼마나 탁월한것인가를 알수 있다.

하기에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 20대에도 이르지 못하시였지만 인민들은 그이를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으며 혁명의 참된 길을 찾아 헤매이던 뜻있는 사람들이 국내외의 각지에서 그이의 품을 찾아 구름처럼 모여들었던것이다.

《김일성》이라는 그이의 존함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투사들이 그이께 지어드린것이다.

이 존함에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천품을 지니신 그이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통찰력은 1920년대를 돌이켜보면 더욱 명백히 알수 있다.

당시 장성하는 혁명의 소용돌이속에서 력사의 새시대가 다가오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그것이 자기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지 못하고있던 조건에서 그 누구도 시대의 요구를 리해하지 못하였고 지어 새시대가 다가왔다는것조차 감촉하지 못하였다.

아직은 력사의 새시대가 낡은 시대의 태내에서 태동하고있던 이 시기에 그 절박한 요구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시대가 제기한 력사적과제를 해결할수 있으신분은 오직 탁월한 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뿐이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탁월한 천품으로 하여 새시대를 밝히시고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현명하게 개척해나가시였던것이다.

(계속)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우리 학습실

수령, 당, 대중은 생명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를 받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칠 때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된다.

주체사상이 밝혀주고 있는바와 같이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고 하여 응당히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는것은 아니다.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적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으며 오직 이러한 집단의 성원으로 됨으로써만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고있지만 그 중심은 수령이며 중추를 이루는것은 당이다.

수령이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뇌수라고 하는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종합분석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이기때문이며 수령이 그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지휘하는 중심이기때문이다. 사회적집단이 사람들에게 주는 정치적생명은 바로 혁명의 수령이 주는것이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사람들은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의 한성원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만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는것이다.

당은 바로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그 집단을 일색화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해나간다.

한장의 사진에서

아이들에게 진 빚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애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곳에 학생소년궁전을 세워주시였다.

1961년 4월 자정이 가까운 어느날 밤이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의 건설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해 건설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내가 오늘 어린이들의 방송을 들으니 아이들이 〈높고 아름다운 아동궁전 수상님이 지어주신다네〉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방송을 듣고는 그대로 있을수가 없어서 밤은 늦었지만 동무들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후대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가, 그러니 이 집을 멋들어지게 잘 지어주자고 하시면서 아동궁전건설을 시작하던 때의 일을 회고하시는것이였다.

1947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적인 희사금을 많이 낸 평양시안의 기업가, 상인 대표들을 만나시여 이 돈을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 의논하시였다.

공회당을 짓는것이 소망이라는 한 로인의 의견에 모두 찬성하였다.

한동안 생각을 더듬어보시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민들이 모일 공회당도 지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아동궁전을 먼저 짓는것이 어떤가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옛날에는 왕이 궁전을 차지했지만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는 귀여운 후대들이 궁전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기업가, 상인 대표들은 과시 만백성을 위한 정사라고 하면서 거듭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리하여 아동궁전건설이 시작되였는데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귀중한 건물은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감회깊은 회상은 일군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날 일군들을 바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 오늘 어린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생각하니 우리가 큰 빚을 진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학생소년궁전을 지어줍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힘을 합쳐 아이들에게 진 빚을 하루빨리 갚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아직은 나라건설에 절실히 요구되는것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아동궁전을 세워주지 못하고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참으로 제일 좋은것을 선참으로 후대들에게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깊이는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수 없다.

그리하여 1963년 9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드디여 궁전창립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1면에서 이음

에 일제히 환영의 대자보들이 나붙은 사실은 그들의 가슴에도 북남학생회담에 대한 지울수 없는 열망이 부풀어있음을 뜻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들모두의 소망도 헤아려야 하며 우리만이 아닌 북과 남의 모든 대학, 모든 학우들의 대표들도 판문점으로 달려오는 대행진의 길, 함께 마주앉는 대회합의 마당을 마련하면 더 좋을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우리들의 회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만남은 누구도 막지 못할것입니다.

비록 그대들에 대한 관권의 박해는 시작되고 총칼의 위협은 밀려와도 불사신의 용맹으로 시련을 이겨낼 그대들이며 과감한 투쟁으로 난국을 헤쳐갈 그대들이 아닙니까.

뜻이 크면 길은 열리는 법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면 서로 쌓아두고도 할수 없었던 이야기도 다정하게 나누고 분렬의 고통속에 겪어온 아픈 마음도 풀어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으로 좋은 일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들의 발기와 우리의 호응이 민족화해의 첫걸음으로 이어지고 통일의 디딤돌로 높이 쌓아져 통일구국의 력사에 기어이 새 길을 열어놓게 되리라고 믿어마지않습니다.

백두산과 한나산이 하나의 행진로로 이어질 그날을 그려보면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

1988년 4월 4일 평양

서울대학교 총장 조완규귀하

나는 귀 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번에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민족화해를 위하여 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한데 대하여 귀하도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귀 대학교 총학생회의 이 발기는 북과 남의 우리 교육자들은 물론 모든 청년학생들과 동포형제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아야 할 애국적인 소행으로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귀 대학교 총학생회의 제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는 답신을 보내였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제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도 하지 못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함께 자부를 가지고 기뻐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길을 열고저 하는 젊은 새대들의 애국충정은 두 대학의 중임을 맡고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며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열혈학생들이 자기들의 훌륭한 뜻을 직접 편지로 전하지 못하고 대자보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그 심정을 깊이 헤아려 그들의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젊은 제자들이 서로 부르고 화답하며 의로운 일을 하려는 귀중한 싹을 함께 아껴주고 키워주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할것입니다.

나는 애국하는 학생들의 자률적인 활동이 관권의 수사대상으로 되고 범죄시되는 사태하에서 귀하가 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박해를 반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그들과 함께 구국의 길을 걸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박관오

1988년 4월 4일 평양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160여개 나라에서 온 수십만명의 외국손님들이 김일성동지로작전람관을 참관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개별인사들이 인민문화궁전에 꾸려진 김일성동지로작전람관을 계속 참관하고있다.

전람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집필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가운데서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출판된 로작 1,000여종에 1만여부가 시기별로 전시되여있다.

전람관에는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현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발표하신 수많은 문헌들가운데서 그 일부가 전시되여있다.

최근년간에만도 160여개의 나라에서 온 2,500여개의 대표단에 수십만명의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전람관을 참관하였다.

기네주체사상연구대표단 단장인 우마르 뚜레는 전람관을 참관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가 우러르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라고 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세계관을 밝혀주고있으며 새 사회를 건설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가이아나종합대학의 한 일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정계의 일군인 케이. 스리프는 전람관을 참관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은 인류사상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이의 로작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훌륭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들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에 널리 파급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중국을 방문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일행 출발

중국을 방문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현준극국제부장일행이 2일 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권민준부부장과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온업담이 부장일행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이 시기 전호방문이 아주 중요하다

한호씩 분공맡아 전호방문

학생을 다지는 사업과 정치선전사업을 밀접히 결부시켜

총련 미에현본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라는 구호밑에 모두가 아래에 내려가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동포들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우리 공화국을 진심으로 받들고 총련의 애국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 미에현본부 일군들은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대 대중유세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이곳 본부에서는 유세사업을 학생받아들이는 사업을 위한 집중행동과 결부시켜 본부관하 모든 일군들이 비데오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하나씩 가지고 분공맡은 학생받아들이는 사업 대상가정과 분회동포들속에 들어가고있다.

특히 전임일군들이 민단, 미조직 동포들을 대상화하여 분공에 따라 선전물을 갖다주는 등 단계를 거치면서 그들과의 사업도 함께 밀고나가고있다.

총련 마쯔사까지부

총련 마쯔사까지부 일군들은 준비된 비데오와 지부에서 일본텔레비죤을 록화한 비데오를 가지고 동포집을 찾아가고있다.

이곳 지부는 제1차문화강좌를 조직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유세사업을 벌림으로써 동포들을 한집 빠짐없이 찾아갔다.

총련지부 윤진우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전임지부일군들은 비데오와 《조선신보》, 《조선시보》 호외 등의 자료를 가지고 동포집을 찾아가 동포들에게 남조선괴뢰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공화국과 총련조직을 헐뜯으려고 날뛰고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굳게 결속하여 총련조직을 지켜나가자고 힘차게 호소하였다.

우리 동포와 함께 비데오를 본 어느 일본사람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기체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폭파니 뭐니 하는것도 이상하고 또 그에 추종하는 일본정부의 대응도 완전히 남조선측발표에 맞장구를 치고있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나도 조선사람들과 련계가 깊지만 공화국에서 이런 사건을 조작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있었다.

각종 선전물과 비데오를 본 총련 마쯔사까지부관하 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의 모략을 까밝히고 공화국과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켜나갈 결의를 다지고있다.

총련 스즈까지부

대외사업을 잘하는 지부로 알려진 총련 스즈까지부에서도 동포들은 물론 일본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선전사업을 벌리고있다.

이곳 지부에서는 올해들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동포정세강연회를 5번에 걸쳐 낮과 밤에 각각 조직하여 지부관하 모든 동포들이 여기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민단, 미조직 동포들에 대해서는 각 분회 분회장들과 분회위원들이 분공을 맡아 호별방문을 실시하고있다.

총련 스즈까지부 일군들은 지난 1월말에 자민당 미에현련 간사장이 반공화국망발을 내용으로 한 요청문을 자민당본부에 보낸 사건에 대처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총련지부 김윤홍위원장은 선전물과 자료를 가지고 스즈까출신의 자민당소속 현의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그와 같은 사건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밀고나갔다. 그와 동시에 일본사회당, 공명당, 무소속 현의회의원들, 스즈까시장을 거듭 찾아가 비데오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갖다주면서 공화국과 총련의 견해를 명백히 밝혔다. 뿐만아니라 총련 스즈까지부가 포괄하는 가미야마시의 32명의 시의회의원들전원을 만나 《조선시보》 호외, 《조선신보 일본어판》을 나누어주었으며 세끼쬬의 정의회의원들에게도 공화국의 성명과 총련중앙의 담화가 실린 자료를 뿌렸다.

총련지부위원장은 얼마전에도 지구로와 스즈까시직원조합, 교직원조합, 엔티티로동조합 등을 찾아다니면서 비데오와 《조선시보》를 배포하고 그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강화하여 공화국과 총련을 지지해나서도록 사업하고있다.

지금 총련지부에서는 스즈까지역에 있는 지구로, 혼다기껭 등 27단체들과 42개의 로동조합들을 매일처럼 찾아다니면서 최근정세와 관련한 간담회의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총련 미에현본부관하 일군들은 선전물과 비데오를 널리 리용하여 대중유세사업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사진은 총련 마쯔사까지부)

《하루지점장》사업 성과적으로 진행

3월 25~29일에 걸쳐 관하 15개 점포에서

조은오사까신용조합

3월결산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며 특히는 조성된 정세하에서 신용조합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은오사까신용조합의 각 지점들(15점포)에서 《하루지점장》사업이 3월 25~29일에 걸쳐 일제히 진행(25일—본점, 호꾸세쯔, 28일—쯔루하시, 히가시오사까, 히가시나리, 이꾸노히가시, 네야가와, 센슈, 사까이, 쬬호꾸, 29일—니시나리, 싱오사까, 야오, 히가시스미요시, 니시요도가와)되였다.

28일, 쯔루하시지점에서는 신축이전 10돐기념행사와 결부하여 올해 사업목표인 200억원의 예금액을 달성할 목표를 내걸고 《하루지점장》사업을 진행하였다.

도낭상공회 박학주부회장, 이꾸노미나미지점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꾸노남상공회 조고치리사장, 이꾸노서상공회 조태훈리사장, 《조우회》 고길홍간사, 《메아리》비지네스클 리영일씨, 부인회 부경자회장이 이날 쯔루하시지점의 《하루지점장》으로서 사업하였다.

이곳 직원들은 이날 히가시오사까제4초급 학생들의 미술작품 전시, 음식코너 등 다양한 형식으로 봉사준비를 하여 1천명을 넘는 손님들을 접대하였다.

《하루지점장》사업을 진행한 이날 쯔루하시지점에서는 올해 예금액목표 200억원을 초과달성한것을 비롯하여 신규거래자, 적금거래자의 확대 등 모든 목표를 넘쳐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지점에서는 신축이전 10돐기념과 예금액 200억원 돌파 축하연회가 있었다.



조은오사까신용조합 쯔루하시지점에서는 《하루지점장》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1천명을 넘는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하루지점장》대성황—3월결산목표 달성

조은야마구찌신용조합

조은야마구찌신용조합은 3월결산을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 본점, 각 지점별로 일제히 《하루리사장》사업을 진행하였다.

공화국창건 40돐을 기념하는 올해에 조합사업에서 큰 성장을 가져오자는 이곳 역직원들과 동포조합원들의 결심 그대로 이날 사업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우익깡패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이 연 150번에 걸쳐 감행되는 속에서 이곳 조합은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자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치선전사업을 벌렸다.

조합에서는 조선신보사 사회부장의 글이 실린 《슈깡다이슈》 4천부와 비데오록화편집물 2천개, 선전삐라 20만장을 리사, 총대, 젊은 상공인들의 단결된 힘으로 주변일본인민들과 동포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규탄여론을 크게 환기시켰다.

이런 긴장되고 바쁜 정치선전을 전개하는 속에서도 역직원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여 내외반동들의 책동에도 끄떡없는 동포들의 힘을 과시할 일념으로 《하루리사장》사업준비에 달라붙었다.

《하루리사장》으로 현상공회 려성근회장을 비롯하여 본,지점(4개)에 모두 40명이 나섰는바 하루사이에 600명 동포들이 오가고 각종 예금에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하루기념예금총액은 57억원에 이르러 3월결산목표(440억원)를 넘는 450억원으로 예금고를 높이였다.

《하루지점장》의 점포마다에서는 비데오상영과 음식코너도 마련되여있어 동포들의 호평을 받았다.



조은야마구찌신용조합에서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하루리사장》사업준비를 적극 짜고들었다.

3월본결산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마무리

조은효고 가끄가와지점

총련의 어엿한 경제일군된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합원들과 동포상공인들의 재정적대변자로 보람있게 일하는 우리 신용조합 일군들.

조은효고신용조합 가끄가와지점에서도 모든 일군들이 조합원들과 지역동포들의 기업활동과 생활에서의 실리를 도모하는 민족금융기관으로서 그 신용활동에서 착실한 전진을 가져왔다.

선참으로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궐기

이곳 지점에서는 지난 2월, 공화국창건 40돐을 일대 앙양과 혁신적성과로 빛나게 맞이하기 위하여 조은효고관하 11개 지점에서 선참으로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궐기하였다.

궐기모임에서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 특히는 3월본결산기에 예금고를 5억원 늘여 지점예금고를 108억원으로 확대하며 9월가결산기에는 그를 120억원대로 크게 확대할것을 예견하였다.

그를 위하여 당면하게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우러러 총련 조직과 기관을 끝까지 옹호하며 조합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지점의 대중적지반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갈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였다.

그후 이곳 지점일군들은 당면하여 3월본결산을 커다란 사업성과로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곳 지점은 가잉, 호꾸방 지역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조건에서 태점손님보다 섭외계를 비롯한 지점 일군들이 한집한집 찾아가야 만날수 있는 동포가 훨씬 많다.

4명의 섭외계원들을 비롯한 지점일군들은 1주일씩 관하분회를 거점으로 하여 전호방문의 형식으로 동포들의 집집을 찾아가 그들에게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의 본질에 대하여 차근차근 해설해주는 한편 지점이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그리하여 3월 1~24일까지사이에 정기적금 100건과 정기예금 26건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호꾸방지역집중전》에서는 41건을 새로 확대하는 등 이곳 지점에서는 3월본결산기에 내세운 적금거래자와 정기적금계약고, 정기성예금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높은 열성을 발휘한 녀직원들

지점일군들의 높은 기세는 녀직원들에게도 큰 자극을 주었다. 조은효고관하 각 지점 녀직원들속에서 벌리고있는 구좌확대경쟁은 그들로 하여금 지점의 이름을 떨치며 그와 동시에 모든 녀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여 일하게 하는 기풍을 마련하였다.

7명의 녀직원들은 이 기간에 본신사업에서 조은효고 11개 지점 녀직원들속에서도 으뜸가는 일군들로 자라났다.

3월 20, 21일의 휴일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각적으로 지점에 나와 섭외활동을 벌렸다.

일상시는 점포내사업으로 동포들의 집집을 방문하면서 일하는 기회가 많지 못하던 그들은 이날 섭외활동의 어려움과 함께 동포들과 무릎을 맞대고 일하는 보람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한다.

그들은 이날 일상시 섭외계원들도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동포집을 대담하게 찾아가 구좌를 확대한것을 비롯하여 50여건의 적금 및 예금 구좌를 확대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녀직원들로 하여금 주인된 립장에서 책임성을 높여 일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계속 이 기세로 일하고 끊임없이 건수를 늘여 조합의 대중적지반을 확대하는데 단단히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점을 효고에서 으뜸가는 지점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금미향직원은 자기들이 거둔 성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조합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분투하고 전진하여 뜻깊은 올해를 빛내여나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지금 이곳 조은효고 가끄가와지점 일군들은 3월본결산기에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지향하여 기세를 늦춤이 없이 한층 분발하고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는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날마다 분투하고있는 조은효고 가끄가와지점 일군들

총련 도꾸시마현본부에서 기자회견

일본경찰청의 《사진감정》과 우익들의 소동을 규탄

총련 도꾸시마현본부에서는 일본경찰당국이 《사진감정》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기고있는것과 우익깡패들이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계속 일으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지난 3월 30일, 도꾸시마현청 기자구락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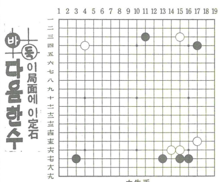
우익깡패들은 지난 3월 25일에 총련본부회관에 선전차 5대를 몰고와 공화국과 총련조직에 대한 용서치 못한 폭언을 터뜨리였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총련본부 김태규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우익들의 악의에 찬 폭언들을 록음한것을 발표한 다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곳 본부에서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심도 드높이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도꾸시마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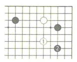
바둑 이局面에 이定石 다음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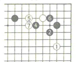
白先手

右上隅의 黒협공에 대한 白의 応手로서 参考図의 白1은 일반적인 수입니다. 黒2에 받게 되여 定石형이기는 하지만 右下隅의 白勢力이 있는 局面에서는 좀 의문이 납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右下隅의 세력을 활용하는 의미에서도 解説図처럼 응하는것이 局面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右上隅의 白은 가볍게 처신하면 됩니다.



参考図



解説図

장편련작시 제1부

한 나 산

이 산 하

혀바닥을 깨물 통곡없이는 갈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없이는 오를수 없는 산
제주도에서, 지리산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산하 구석구석에서
민족해방을 위하여 장렬히 산화해가신 전사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서 시

1

지금으로부터 어언 120여년전
동아세아의 해군기지로서 조선이 결정된지
80년의 모진 세월이 흐른 1945년 불볕 여름,
한손엔 《빵》과 또 다른 한손엔 《해방군》의 탈을 쓰고
발톱까지 무장한채 당당하게 상륙한 그들은 마침내
순결한 조선의 하늘과 푸른 산하를 두토막으로 분질러놓았다
그리고 다시 40여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건만
총독부가 대사관으로 바뀌였을뿐,
《창살없는 감옥》 식민지산하는 조금도 변한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침략사 120여년,
다시 씌여져야 할 피어린 민족해방투쟁의 한국현대사
압제의 사슬을 이발로 뚝, 뚝, 끊으며 붉은 피로 얼룩진
그 장엄한 력사의 수레바퀴를 우리 어찌 잊을것인가!
바람부는대로 쓰러지는 풀잎이 아니라면
결코 그들의 노예가 아니라면
우리 어찌 보고만 있을것인가!!

2

이 땅은 아메리카의 한 주(州)
그들의 병영에서 짐승처럼 사육되여왔던 수많은 날들
그 수많은 신음의 밤들을
누가 잊을것인가
누가 잊으라고 하는가
1948년 4월 3일
《제2의 모스크바》
밤마다 먼저 간 동지들의 피를 묻고 살을 묻고 뼈를 묻는
혹한의 한나산
그 눈덮인 산하, 붉은 피를 흘리며 끝내 숨져간
이름없는 해방전사들의 끊어질듯 끊어질듯
끝내 이어지는 저 붉은 피자국을
누가 잊는가
누가 잊을것을 강요하는가
동상으로 썩어문드러진 발가락을 자르며
뼈를 깎는 모진 고문에 녀성전사들의 생리마저 얼어붙는 밤
그들은 기어이 갔다
총알 박힌 다리를 절룩거리며 동지의 어깨에 매달려
진지로 돌아가다
진지로 돌아가다
끝내 쓰러져버린 그들은 갔다
기어이 갈곳으로 가고야마는것인가
분노없이는 갈수 없는 땅
통곡없이는 오를수 없는 산
제주도의 혁명전사들은 그렇게 갔다
尾帝의 각을 뜨다
적의 가슴팍에 불을 지르다
끝내 다 뜨지 못한채
끝내 다 지르지 못한채
한줌 피묻은 뼈가루로 날아갔다

적과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기발을 덮어다오 인공의 기발을
그 밑에 죽기를 맹세한 기발
………

3

30여년만에 걸어보는 이 학살의 숲은
조금도 변한것이 없다
산등성이마다 뼈가루로 쌓여있는 흰 눈이며
나무가지마다 암호를 주고받는 새들의 울음소리며
멀리 사람 실은 배 한척, 돌 실은 배 한척, 떠나는 바다며
굶주린 배를 움켜쥔채 허겁지겁 땅을 파헤쳐 씹고 또 씹었던 이 풀뿌리와 나무껍질이며
마지막 남은 잎파리마저 가솔린냄새를 풍기며 불탔던
이 학살의 숲은
아직도 총소리로 가득하다

움직이는것은 모두 우리의 적이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쏘았지만
그들은 보지 않고 쏘았다
학살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날
하늘에서는 정찰기가 살인예고장을 살포하고
바다에서는 함대가 경적을 울리고
륙지에서는 기마대가 총칼을 휘두르며
모든 처형장을 진두지휘하고있었던 그날
빨갱이마을이라 하여 80여 남녀중학생들을
금악벌판으로 몰고가 집단몰살하고 수장한데 이어
정방폭포에서는 발가벗긴 빨찌산의 젊은 안해와 딸들을 나무기둥에 묶어두고 표창연습으로 삼다가
마침내 젖가슴을 도려내 폭포속으로 던져버린 그날
한 무리의 정치깡패단이 열일곱도 안된
한 녀고생을 륜간한 뒤 생매장해버린 그 가을 숲
서귀포림시감옥속에서는 게릴라들의 손톱과 발톱 밑에 못을 박고
몽키 스패너로 혀바닥까지 뽑아버리던 그날, 바로 그날
관덕정 인민광장앞에는 사지가 갈갈이 찢어져
목이 잘린 얼굴은 얼굴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전보대에 전시되여있었다
《이것이 바로 빨갱이다!》
《빨갱이의 종말은 이렇다!》
광장을 가득 메운 도민들에게 허수아비의 졸개들이
이미 죽은 시체들을 대검으로 쿡쿡 쑤시며 소리쳤다
처참하게 찢어져 형체도 알아볼수 없었지만 도민들은
저건 리덕구, 저건 김운민, 저건 김병남, 남진, 박남해……
속으로 속으로만 어림잡았다
통곡도 오열도 없었다
도대체 사람이여야 통곡이라도 하지
그것은 사람이 아니였다
결코 죽은 사람도 아니였다
그것은 푸주간에 걸린 짐승일뿐이였다
한개의 총알이 심장을 뚫고간것은
차라리 행복한 죽음이였다
해안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한나산을 미친듯이 뒤흔들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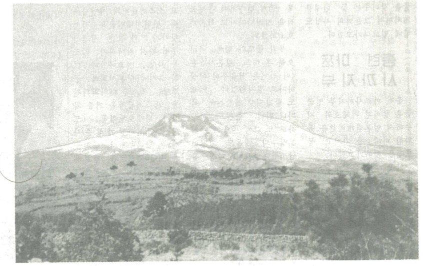
미군은 즉각 철수하라!
리승만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제주빨찌산 만세!

붉은 저녁노을이 멀리 관덕정 인민광장우로 지고있었다
산은 다시 한번 알몸이 되고
그 빈 숲에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살아 흘러가고 죽어 흘러가고
마침내 살아있는 모든것이 흘러갔다
몸 가릴곳 하나 없는 이 참혹한 겨울숲
마지막 몇사람이 기적처럼 살아 걷는 이 학살의 숲
누가 그날을 기억하지 않는가

4

돌려주자
오늘도 노란 유채꽃이 칼날을 물고 잠들어있는
아! 피의 섬 제주도
그 4.3이여,
우리의 심장에서 흐드러지게 피여나는 이 진달래꽃을
그 누가 꺾을수 있으랴
돌려주자
기름진 지주와 자본가의 살을 죽창에 꽂아
그들에게 돌려주자
공장의 프레스에 싹둑싹둑 잘려나간 로동자들의 손가락을
포크레인에 찍힌 철거민의 팔과 다리를
얼어붙은 배추포기같은 삶을 살다 농약속으로 사라져간
농민들의 그 골수에 사무친 원한을
그리고
푸르른 5월의 금남로를 승냥이처럼 할퀴고간
저 피묻은 손을
찢어,
갈갈이, 찢어서,
《조국 아메리카》의 후예들에게 돌려주자
그리하여
똑똑히 들어라
우체통이 빨간것은 빨갱이사상에 물든탓이 아님을
바로 너희들때문임을
한반도 인민들의 피가 붉은것도 바로 너희들때문임을
그리고 침묵하라, 피로 맺어진 《혈맹 우방》이여
그대들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잠들수가 없다
너희들의 칼날우에서 우리는
잠들수가 없다
그 누구도 잠들수 없는 이 해방의 산하에
싹둑 잘려나간 손가락이 아직도 팔팔 살아뛰는 붉은 피가 있어
농약 먹은 가슴으로 타오르는 시붉은 피가 있어
탄환의 불꽃으로
탄환의 불꽃으로
저 헐벗고 굶주린 로동자, 농민들의 여윈 손들이 숲을 이룰 때까지
마침내 해방의 숲을 이룰 때까지
적들의 심장에 불벼락을 안겨주자!!
적들의 시체를 넘고넘어 동지의 시체를 되돌려받자, 받자!!!

(철자법은 우리 식에 따름.)



망국적인 5·10단선을 반대하여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인민봉기를 미제는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7만여명의 애국자들과 도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사진은 참살된 애국자의 시체와 그 육친을 감시하는 미국병사의 모습)



해 설

우에 게재한 시는 1948년에 망국적5.10단선반대투쟁을 계기로 제주도에서 일어난 애국적무장투쟁인 4.3인민봉기를 다룬 장편련작시 《한나산》의 일부이다.

《한나산》은 남조선의 무크지 《록두서평》에 4백자원고용지 백장정도 되는 제1부만이 실렸다.

그런데 남조선괴뢰당국은 이 시가 《4.3사건을 미군정 및 그 휘하의 매국폭력도당에 항거하는 제주도민의 반제구국항쟁》으로 썼으며 《폭동을 진압한 정부의 조치를 무차별한 주민학살극으로 묘사하는 한편 인공기(人共旗—건국준비위원회가 개편된 〈조선인민공화국〉의 기발)를 찬양》했다는것 등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작자인 이산하씨(28세)와 록두출판사 대표를 체포구금하였다.

미제와 남조선력대괴뢰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은폐되여온 4.3인민봉기를 면바로 적라라하게 형상한 이 시의 작자 이산하씨는 본명을 리상백이라 한다. (이산하는 《이 강토》라는 뜻을 담아 지은 필명이라 한다.)

고교재학중부터 뛰여난 시재를 발휘하여 경희대 국문과에 특별문예장학생으로 입학한 그는 재학중 학생운동에 참가하는 한편 리륭이라는 필명으로 시창작을 진행, 시운동동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는 경희대학원자률화추진위원회 언론분과위원장직을 맡아서 활동하다가 학내출판물인 《자유언론》의 제작, 배포와 관련하여 제적되고 괴뢰당국에 의해 수배되여 3년을 넘는 도피생활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있다.

이산하씨는 올해 2월 8일에 있은 재판에서 검사의 심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4.3은 결코 잊혀질수 없다. 나는 미제의 억압과 수탈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시를 썼다.》고 그 집필의도를 밝히고 《이 시는 용공도 반공도 아닌 민족해방, 통일 지향의 서사시일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재판이 끝나자 《반외세자주화투쟁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고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한다.

바로 이 시는 남조선 문학인들과 인민들의 예리한 반미자주화 의식과 투쟁기세를 보여주는것으로서 매우 주목된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地下軍事工場の調査など市民運動として展開

「市史の空白を埋めよう」

戦争の記録を残す市民集会

兵庫・西宮

西宮の戦争の記録を残す市民集会が二日、西宮市総合福祉センターで行われた。この集会は昨年十一月、「兵庫朝鮮問題研究会」（兵朝研、代表・徐根植氏）のメンバーらによって、西宮市甲陽園地域で発見された軍事地下工場に高い関心を寄せた、市内に在住する作家の小田実さんをはじめ、学者、文化人、市民団体員ら二十人で構成された「西宮市の戦争の記録を残す会」準備委員会（二月九日発足）が主催したもの。「兵朝研」の調査で地下軍事工場トンネル内に書かれた「朝鮮国独立」「緑」「春」などの文字から、第二次世界大戦末期、数多くの朝鮮人が強制連行されて掘られたという事実を知った同準備委員らは、「市の歴史を自分たちの力で調査、記録、保存していこう」とこの集会を開き、会の発足を呼びかけた。



集会では「兵朝研」が作製したビデオが初公開され、また二人の老人による証言も語られた

戦争の生々しい傷跡を残したこの地下軍事工場の発掘は、市民らの大きな反響を呼んだ。

トロッコの跡、赤くさびたトンネル（三十本）。このような大規模地下工場用トンネルが、戦後間もなく建てられた高級住宅地の下にあったことは、これまで明らかにされなかったからだ。

この地下工場は戦争当時、日本海軍が接収していた同市鳴尾地区の軍需工場「川西航空株式会社」（現・新明和航空）の社史により、強制労働によって五百～二千人の朝鮮人労働者が従事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百㌻にのぼる「西宮市史」の中では、こうした事実について全く触れられていなかった。

そのような問題を重視した準備委員らは「これは朝鮮人だけの問題ではない。われわれ市民一人ひとりの問題だ」と受け止め、「西宮市史の空白の一ページを埋めよう」と活動へと乗り出した。

同準備委は発足後、地下工場が発見された甲陽園地区を調査し、資料集めを精力的に行った。

特に彼らは「市民全体の問題、市挙げての運動として繰り広げよう」「安全面からも調査が必要」と市への要請を幾度も行い、労働部、総務部、消防部、土木部などの協力を得るように務めた。

そしてこの日、初めての市民集会を開催。市民、報道関係者など約百五十人が参加した集会では、「兵朝研」が作製したビデオを初公開し、また、二人の老人による証言が語られ、新たな事実を知ることができた。

同準備委代表の小田実さんは、この問題を「西宮市史の重要な部分として受け止め、市民らの力で解明するべきだ。これはわれわれの懸念、義務、課題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

同委では、この集会をきっかけに「西宮市の戦争の記録を残す会」を正式に発足させ、「朝鮮の人たちとの協同作業で一つの歴史をしっかり刻んでいこう」と本格的に取り組んでいくという。

また、西宮市ばかりでなく、高槻、倉敷、長野の松代大本営など、最近日本の各地で発見されている、戦争の痕跡を調査している人たちとのつながりを深め、明かされた事実を日本の歴史として正しく記録、保存していく活動を行っていくという。

同委では「軍事関係の事実が極秘にされている中、この問題を解明していくのは実際に難しい。一人でも多くの証言者を捜し出し、経験や記憶する事実を総合分析することに力を入れていく」と意欲的だ。

同会では当面、来る四月二十三日に、初めての"見学ツアー"を予定。「自分の目で市の歴史を確かめよう」と、市民に呼びかけている。



地下軍事工場内のコンクリート壁に書かれた「朝鮮国独立」の文字

浦項で上陸作戦

共和国への海岸浸透を想定

チーム・スピリット88

在沖米海兵隊が主力に

アメリカと南朝鮮当局は、二月末からチーム・スピリット88合同軍事演習を強行してきたが、そのクライマックスともいえる上陸作戦を三月二十九日、南朝鮮東海岸の浦項一帯で繰り広げた。

上陸作戦には、沖縄駐留の米海兵隊が第三海兵師団、第一海兵航空団、第三海兵役務支援群の三部隊によって第三海兵遠征軍（約一万五千人）を編成して主力となり、艦艇としては空母一個戦団と世界最大の揚陸艦ペリリュー（三万九千三百㌧）、ドック型揚陸艦ジュノー（一万六千五百㌧）など、米第七艦隊の強襲揚陸部隊が参加した。

上陸作戦は今回のみならず、これまでのチーム・スピリット演習で"Dデー"＝侵攻の合図＝と位置づけされ、最大の兵力が投入されてきた。

例えば、チーム・スピリットに初めて本格的にエア・ランド・バトルが適用された八四年をみてみると、作戦開始のH時を期して、米・南朝鮮合同の奇襲特攻隊が"敵"港湾（共和国の元山など主要港湾都市を意味する）に対する奇襲攻撃を開始して障害物を撤去、これと同時に空軍基地を発進したF4ファントムなど数十機の攻撃機が激しい波状攻撃を"敵"港湾の陣地に加えた。

引きつづいて上陸用舟艇に分乗した主力部隊が上陸を敢行し、それとともに空母キティ・ホークから出撃した「ヘリコプター突撃部隊が敵前・後方深く海兵隊を投入し、仮想敵を完全にせん滅した」（中央日報八四年三月二十日付）というシナリオであった。

近年二～三年、上陸作戦については詳細な報道がないが、しかしシナリオは変わらないものとみられる。

こうした八四年の例をとってみただけでも、作戦内容は具体的なものとなっており、北侵をめざした戦争予備演習であることを物語っていよう。

ソ・中まで射程に含む

上陸作戦に先がけて、陸軍部隊による「打撃部隊の機動訓練」（朝鮮通信三月二十八日）が「捜索」「待ち伏せ」「せん滅」の三段階に分けて三日間、昼夜分かたず行われた。

また三月三十日と今月四日には、ソウル－釜山間の高速道路を使っての航空機非常滑走路離着陸訓練、三月二十六日には空中機動示範作戦、二十五日にも、米本土の西部の基地から派遣された米軍特殊部隊による落下傘降下訓練などが行われた。

核侵攻と関連したNBC（核・生物・化学）兵器使用を想定した訓練や準備作業もひんぱんだ。

三月十日には、米大統領ら軍首脳が核戦争時に空中から指揮するE4Bが沖縄の嘉手納基地に飛来し、発進態勢をととのえている。

E4Bの飛来は昨年につづき二度目だが、この飛行機の持つ性格からして、チーム・スピリット88もまた、共和国への核侵攻をめざした内容となっていることが推し図れよう。

この核侵攻作戦について、先日、共和国に入北した元南朝鮮駐留米軍軍属輸送官であった孫鶴秀氏は、チーム・スピリットの時期になると、ソ連まで射程に入れた三〇〇ミリ核砲、水陸両用の核装甲車、核戦車、改良型核リュックなどが弾薬、砲弾を含め二千両の貨車で運び込まれ、そのうち二百五十両が軍事境界線近くの春川地域に展開されていくと指摘している。

そして、米第二師団からもF16飛行大隊と三〇〇ミリ核砲大隊、ならびに原子砲を装備した核装甲大隊と核リュック大隊が投入されていると暴露した。

演習の性格についても、共和国だけでなく中国全土とソ連のウラル地方までも念頭に入れていると語り、チーム・スピリットが世界的範囲の核戦争を企図したものであることを証言している。

また、チーム・スピリットと軌を一にした米日空軍合同演習（三月十八日）も繰り広げられるなど、米・日・南朝鮮三角軍事演習としても機能していることを垣間見せている。



渡河訓練を行う米第2師団と南朝鮮軍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 (260) 5881
内線 453・435
436・428

水曜訪問

念願実らせ、さらに…

今月1日にオープンした「神戸朝日病院」の院長

金守良さん



1949年5月28日、東大阪市に生まれる。高校進学後、医師を目指す。国立鹿児島大学卒業。7年前、「朝日診療所」開設に中心メンバーとして参加。新病院開院まで同診療所の所長を務める。

念願の新病院が、ついにオープンした。五日前の一日から。

「掛け値なしにやっと医師の責任を最後まで果た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本当にうれしい」

たどりつくまで七年の歳月を費やした。そのきっかけとなったのが、七年前、「同胞医療に貢献しよう」と、金院長をはじめ若い同胞医療従事者らによって開設された「朝日診療所」（神戸市長田区）における医療活動に他ならない。

「病院建設なんて当初は全然考えてもいなかった。診療所をいかに守っていくか、そんな考えだけで精一杯で病院なんてとても…」

病院の経営不振がささやかれる昨今であるが、今日に至る一日の平均来院患者数は、百三十～百五十人。その六割が同胞で、所内はいつもにぎやかだ。同胞や地域医療に真剣に取り組んできた姿勢の反映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そんな中で、「ベッドがない、アピールが弱いなどの診療所の限界がはっきり見えた」と語る。

そして病院建設の具体案が打ち出されたのは二年前。それまでの経営管理、経験蓄積と診療姿勢が大きな礎となり、周囲の人びとが驚くぐらいのスピードで計画を実らせたのであった。

「医療関係だけを見ても、大学の教官になかなかなれないとか、治療を受けるにおいても日本人に比べハンディが大きい。われわれの力でそれを何とかはね返してやろうという気持ちがあったから、ここまでやれたんだと思っています」

スポーツ選手から一転して、将来の職業を医師に定めたのは高校進学後。「理屈で動かない人間の複雑な構造を知りたくなったんですよ」とはにかむ。

同胞が多数居住する地域で生まれ育ち、留学同でウリマルを学ぶなどの生活環境が、「同胞医療に目を向かわせた」。

病院をステップに、これから自らの力で同胞医療技術者などを育てていきたいと抱負を語る、今年三十九歳の青年院長である。（金）

トンポの街かど

新・編入生のオモニを歓迎

和歌山初中・「オモニ会」

和歌山朝鮮初中級学校のオモニ会が、今春同校に入学した新入生と編入生のオモニたちを歓迎する会を、一日に行われた入学式の後に開いた。

この集いは、ウリハッキョに初めて子供を入れるオモニたち、特に編入生のオモニたちの不安を取り除き、環境の変化に早くなじめるようにという考慮と、オモニ会のメンバーとして愛校運動に積極的に参加してもらおう、との趣旨から催されたもの。

まず、同校オモニ会会長の申良子さんが集いの趣旨を説明した後、新しく入会するオモニたちから順に全員が自己紹介。そしてオモニ会の活動内容が話され、意見が交わされた。

同校オモニ会は、学生受け入れ運動やチャリティーバザーなどを中心に活動しており、この過程でオモニたちは愛校精神を培っている。

集いは終始なごやかな雰囲気の中で進められ、新しく入会したオモニたちは緊張もほぐれた様子で、これからの活動に意欲的に参加する姿勢を見せていた。

オモニ会では、この日の入学式に先立って先月行われた卒業式でも、式に参加した父兄の昼食をすべて手作りの食事でもてなした。



新入生と卒業生を祝福

総聯大阪 堺・西分会



総聯大阪・堺支部西分会ではさる三月二十五日、同分会内に住んでいる堺朝鮮初級学校の新入生と、大阪朝鮮高級学校の卒業生たちを祝福する集いを開いた。

この日、西分会には、合わせて十四人の新入生、卒業生たちを祝福して、父兄をはじめ同胞たち、ウリハッキョの生徒たちが集まった。

まず新入生、卒業生が一人ずつ紹介され、分会長が「これから朝鮮人として学んでいこう」とあいさつ。

また、分会から記念品が贈られ、学生たちは父母に花束を贈った。

集いは終始なごやかな雰囲気の中で行われ、同胞たちの笑い声も絶えなかった。

またこの日、「愛国栄誉の旗獲得運動」に決起する集いも行われた。

集いでは、分会長が「一世たちが築き上げた『二重模範分会』の伝統と、熱意に負けないように、若い同胞たちの力で『愛国栄誉の旗』を獲得しよう」と分会員たちに呼びかけた。

また月一回同胞たちが集まり、ビデオ上映活動、各種の文化教室運営、野遊会の企画、学生のウリハッキョへの受け入れなど、八つの目標を推進していくことを提起した。

会員たちはみな「一世の後を継いで、分会をより活性化させていこう」と語り合っていた。

園児も増え 学校への関心も高まる

東大阪第二初級幼稚班

「完全無料保育」実施 5年目を迎えた

「完全無料保育」を実施(一九八四年四月)して、今年で五年目を迎えた東大阪第二初級学校幼稚班。これは「一人でも多くの子供たちに民族教育を受けさせたい」という、東大阪東、東大阪北、東大阪南、中東の四地域の愛国的同胞商工人の発案によって、実施されたもの。完全無料保育は全国で初めて同幼稚班が行った。これを機に園児数が増えただけでなく、父兄をはじめ、地域の同胞たちの同幼稚班への関心はより高まっている。(恵)



「無料制」実施前にくらべ園児が増えている

「同胞の中にはそれまで、子供たちに民族教育を受けさせたくても、経済的な問題でやむをえず日本の幼稚園に送っていた同胞もいました」

成一東校長は当時をふりかえりながら、無料保育の実りについて語った。

実施前にくらべ約二倍もの園児たちが毎年入園し、またこれまでは負担が大きいため、二年保育からが多かったのに対し、三年保育からの入園が増えたという。

そして保育費の負担がなくなった父兄たちは「父兄の力で何かやろう」とバザーなど、多様な活動を行い、そこで得た収益金を贈るなど、少しでも幼稚班の発展のため役に立とうと、一生懸命努めているという。

一昨年末には、無料保育実施の年に入園し、初めて三年間の無料保育を受け卒園することになった児童のオモニたちが自主的に集まって、「感謝の気持ちをこめて、幼稚班に何か贈ろう」とたくさんのお金を集めた。その寄金で小学生用のトイレを園児用に改修したという。

二人の子供を幼稚班に通わせるあるオモニは「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オモニたちに出来ることを探し、幼稚班のために精一杯がんばっていきたいですね」と語ってくれた。

入園児の数が増え、父兄たちの活動が盛んになったばかりではない。多くの地域商工人らが「一部の商工人たちの働きかけで無料保育が実施されたが、自分たちも何かハッキョのために」とハッキョを愛する運動を積極的に繰り広げたのだ。

四地域の同胞商工人たちは、体育器材やビデオなどを贈ったり、生徒たちが思いっきり運動できるよう、運動場の回りに網を張ったり、昨年の四月には花壇につつじの花をたくさん植えた。

同胞たちは常に学校へと足を運び、必要なものを探すなど、学校を愛する運動に、以前にも増して惜しみない協力をするようになった。

こうして学校に関心を寄せる同胞が増え、分会や支部など、同胞たちの話題の中心が学校のことになってきた。

その結果、四地域の総聯活動が、ハッキョを中心に展開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

このように無料保育の実施は、民族教育を発展させる事業が、地域全般的な運動として繰り広げられる、大きなきっかけとなった。

こうした同胞たちの協力と期待に、権民子幼稚班主任は「無料保育ばかりでなく、教育の質をより向上させるよう努力していきたいですね」と語る。

◇ ◇

四月一日、同幼稚班に入園した児童たちは、父兄や在学生たちが見守る中、民族教育の花園に足を踏み入れた。

「チョソンのトムたちとたくさん学んで、遊んで、体を鍛えましょう」という、先生のことばに「イェー!」と元気にこたえる子供たちは大きな期待を受けて、チョソンサラムとして育つ道を歩みはじめた。



子供たちはチョソンサラムとして育っていく

健康と食事

死因トップのがん 60~70%予防可能

欧米型、都市型、夜型 食生活の是正を

飽食時代の到来といわれる中で、栄養過剰や栄養の偏りによる、成人病が増えています。

マスメディアを通じ、色々な栄養食品、ダイエット食品等、健康と栄養に関する情報と商品が氾(はん)濫していますが、それで本当に健康を維持できるのでしょうか。

日本では戦後、急速に欧米型の食生活に近付きつつあり、疾病の構造も変化しています。

御存知のように、現在死因のトップはがんです。がんは、日常生活の改善により、その六〇~七〇%は予防が可能だといわれています。

循環器疾患、高血圧症、高脂血症、糖尿病等の原因は、遺伝の素因も一つの因子といわれていますが、それよりも日々の生活環境が、一番の危険因子なのです。規則正しい日常生活を日々重ねることが、病気を防ぐ「近道」だとい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近ごろ日本では、毎年行われる栄養調査の結果に基づき、欧米型の食生活に歯止めをかけるために「郷土料理の良さを見直そう!」と改善策を打ち出しました。食生活の不規則、外食の増加、インスタント食品、レトルト食品等の加工食品の増加、食品添加物の問題、動物性脂肪のとりすぎ、砂糖、菓子類、し好飲料のとりすぎ等が指摘されています。

四十年以上にわたり異国で、生活基盤を築きあげてきた在日同胞も、日本人と同じく、生活様式、食生活が変化してきています。

在日同胞が多数居住する大阪では、全死亡率が日本人に比べ高く、特に四十歳以降の働き盛りの男性で、その傾向はより顕著であるといわれています。男性の場合、特に肝臓がん、肝硬変等の病気が多いのが特徴的です。大阪の同胞の"健康と生活環境調査"を一九八四年に行ったところ、喫煙・飲酒の量が日本人に比べ多いという結果が出ました。さらに、食生活調査の結果をみますと穀類の摂取食品は、米とパン、めん類の食べる量が同じで、米食はほとんどの人が雑穀(麦、玄米etc)を使用せず、精白米で食べています。

動物性食品では、肉類を食べる量が魚介類よりも多く、特に、乳製品の摂取が多いのが特徴的でした。油脂類では、日本人に比べ五倍以上、砂糖二倍以上、コーヒー、アルコール飲料等のし好飲料も二~三倍多く摂取しています。野菜類、海草類、いも類、果実類の植物性食品は、摂取が少なく、特に、緑黄色野菜が少ない傾向を示しました。

このように、動物性脂肪のとりすぎ、砂糖、し好飲料のとりすぎが懸念されます。

同胞の食生活は、朝鮮古来からの食風習がうすれてゆき、多くの文明病を抱える欧米の食事形態に近付いています。また、日本人とは少し異なった食形態を示していると思われます。

今日では、病気にかかる前に、病気にかからない健康づくりがさかんに提唱されています。日ごろ食事や運動に気を使わずとも"今、元気だから大丈夫"と思っていても、病気が潜んでいたり、半健康人の状態が続い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老齢化社会を迎え、在日同胞の疾病構造、日常生活、食生活の動向をふまえても、自分自身の健康に関心をもち、責任をもたなくてはなりません。定期検査を受け、自分の体を考えて暴飲暴食は慎しみ、酒もほどほどに飲み、休肝日を月四~五回以上は設けましょう。またタバコも、節煙に努めながら禁煙するように少しでも努力してみては!

食事もバランスよく食べ、欧米型、都市型、夜型食生活はなるべく是正するように努力しましょう。(共和病院栄養士・康和代)



近畿地方朝鮮学生 学生体育大会開かる

129チーム、3000余人が参加

金日成主席生誕七十六周年慶祝八八年度近畿地方朝鮮学生体育大会が三月二十五日から四日にかけて催された。

大阪朝鮮文化会館をはじめ府下五つの競技場でサッカー、体操、卓球、柔道、バスケットボール、ボクシング、バレーボール、ラグビーなど八種目の競技が行われた大会には、初級部から高級部に至る各ウリハッキョから百二十九チーム、三千余人の選手が参加した。

特に今大会には、北九州初中、愛知中高など近畿地方以外のハッキョから多くのチームが参加、なかでもラグビー部門には高級部のチームがすべて参加するなど、その規模において過去最大の大会となった。

新チームの実力を計る貴重な場となるこの大会、どの競技でも日ごろの練習成果が十分に発揮され、熱い戦いが繰り広げられた。

競技成績は、次のとおり。

初級部
○サッカー
①東大阪第三②滋賀初級③城北初級
○バレーボール
女子=①滋賀初級②東大阪第五③東大阪第三

中級部
○サッカー
①北九州中級②京都第二③愛知中高
○バレーボール
女子=①京都中高②北大阪初中③東大阪中級
○卓球
男子=①京都第二②東大阪中級③京都中高
女子=①東大阪中級②京都中高③北大阪初中
○柔道
①東大阪中級②京都中高③北大阪初中
○バスケットボール
男子=①西播初中②東大阪中級③西神戸初中
女子=①北九州初中②東神戸初中③西播初中

高級部
○ラグビー
①大阪②愛知③九州
○バレーボール
女子=①大阪②神戸③京都
○卓球
男子=①大阪②京都
女子=①大阪②京都
○柔道
①大阪②京都③愛知
○バスケットボール
男子=①東京②愛知③神戸
女子=①東京②神戸③京都



どの競技でも白熱した試合が展開された

訂正 一日付六面「大学サッカー」の記事中、福島大は福岡大に、「新人戦」中級部サッカー三位の三多摩第一を三多摩第二に訂正します。また、四日付五面の「山口チャリティー」の中で徳山初中とあるのは宇部初中の間違いでした。

朝高サッカー部

日本の各サッカー大会に出場

東京、大阪、京都、愛知、広島、九州の各朝高サッカー部が春休み間に、静岡、京都などで開催された日本の各サッカー大会に参加した。

競技成績は次のとおり。

・第15回全国高校サッカーフェスティバル(清水市=三月二十七~三十一日)
東京朝高=三勝一敗三分
・第7回高校サッカーフレンドマッチ静岡シリーズ(静岡市=三月二十七~三十日)
愛知朝高=五勝一敗二分
・第12回静岡県西部サッカーフェスティバル(浜松市=三月二十九~四月三日)
京都朝高=一勝二敗三分
愛知朝高=二勝三敗一分
・第8回京都・宇治サッカー対抗戦(宇治市=三月二十九~三十一日)
京都朝高=一敗
大阪朝高=一敗
広島朝高=二勝二敗二分
九州朝高=二勝二敗二分

文庫通信 「금수(クムス)」

同胞、日本の人々とのパイプ役を

錦繍文庫

祖国を知らない世代に、わが祖国と民族について少しでも多く知ってもらおうと、昨年の十一月一日、兵庫県尼崎市にオープンした朝鮮関係の私設図書室「錦繍文庫」(代表=尹勇吉氏)からこのほど「금수(クムス)」と題した文庫通信が発行された。

創刊号にはまず、文庫開設式で述べられた、祖国統一と民族文化の創造に寄与したいという尹代表のあいさつが掲載されている。

その他、文庫とともにがんばる面々の紹介や北京大学朝鮮文化研究所所長・崔応九氏との歓談内容、書評、貴重図書や新刊の紹介など多彩な内容が含まれている。

この文庫通信「クムス」は、今後季刊誌として発行される。

関係者らは、「『クムス』を文庫と同胞や日本の人々とのパイプ役にして、思想や立場、民族の差を超越した友好連帯の輪を広げるため役に立ちたい」と語っている。

※「錦繍文庫」=尼崎市名神町一丁目十二番地(尼産ビル五階)、開館時間=午前十時~午後五時、休館日=毎週水・木曜日



朝鮮コーナーが好評を博す

88ピースフルイン京都

京都府下の労働組合と市民団体の共催で先ごろ開かれた「八八ピースフルイン京都」(今年のテーマは『平和、人権、連帯』)の国際連帯コーナーに、朝鮮コーナーが設置され好評を博した。

コーナーでは、共和国の社会主義経済建設成果とその展望、朝鮮統一法案、南朝鮮人民らの闘争などが、写真とパネルで紹介された。

特に会場内に設けられた大型テレビでは「謀略=南朝鮮旅客機失そう事件」が上映され、反共和国、反総聯謀略騒動の本質を暴いた。

また、共和国の特産品が展示販売された。

生活相談室

どのような権利を要求しているのか

外国人としての正当な処遇を

選挙権は求めていない

質問 在日朝鮮人は日本で選挙権を求めているのですか。共和国の海外公民としての権利をどのように要求しているのですか。

答 在日朝鮮人と彼らの権利擁護団体である朝鮮総聯は日本での選挙権を求めてこれといった主張や運動を行っていませんし、それを求めようともしていません。

本来、選挙権と被選挙権を持つということは公民としての権利を持つことといえます。

歴史的にみても、絶対君主制を反対し近代民主政治が議会制度を中心にして運用されながら選挙権が重用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日本国憲法も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前文)、公務員を選定、罷免することは国民固有の権利(第一五条)としています。

選挙権はこのように公民の基本的権利ですが、外国人である在日朝鮮人は日本のそれを求めていません。

ひとまず日本以外の外国で比較的長く在留している外国人に対して選挙権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を事実としてみてみます。

スウェーデン、スイス、スペインなどでは外国人に対し市町村などの地方選挙権に限って(もちろん条件もあるが)それを認めています。

フランコ体制とけつ別したスペインでは一九七七年から十四カ月にわたって討議し成立させたといわれる「スペイン憲法」でつぎのように規定しています。

「エスパーニア人のみを第二三条(選挙権の規定)の認める権利の資格者とする。ただし、相互主義の規準にのっとり、条約もしくは法律により市町村の選挙における、能動的選挙権を設定できることはこの限りではない」(第一三条第二項)

資料によれば、スウェーデンでも一九七六年九月の地方選挙に、三年以上在住で十八歳以上の外国人に限って選挙権を与えたといいます。

在日朝鮮人の場合をみると一部では日本の選挙権(国政あるいは地方議会の)を求める声があります。が私たちはそれを求めません。それは朝鮮人ということで不当な差別を受けており、これを取り除くことが先決問題であるからです。

日本当局は在日朝鮮人に対して外国人としての正当な処遇をしていません。在日朝鮮人が求めている権利は、世界人権宣言や国際人権規約をはじめ国際法や国際慣例に基づいた権利であり、また在日朝鮮人形成の歴史的・道義的責任に沿った権利です。

在日朝鮮人とその団体の闘い、理解ある日本国民の支持などで日本当局の差別政策とその運用における差別をある程度抑止させているものの基本的には変化が少なく、きびしい状況であります。

ゆえに差別状況をいかに克服するのかということが在日朝鮮人にとって、より大事で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国政選挙権云々は内政干渉につながる恐れがあり、地方選挙権の行使も差別政策、誤った朝鮮観、朝鮮人観と民族排外主義的傾向などに変化がない限り妥当な要求といえません。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7일 (음력 2월 21일) 목요일 【루계 제10177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모두다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 실현에로!

사 설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마련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올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하며 1월 13일부 편지에서는 2월 29일에, 3월 8일부 편지에서는 3월 28일에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를 판문점에서 가질것을 제의했다.

공화국의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은 회담에서 토의해결하려는 문제의 절박성으로 보나 회담방식의 합리성과 협상제의의 시기성으로 보나 지극히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구국제안이며 애국애족의 정신과 평화애호적립장에서 출발한 사심없는 구국대책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해내외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이 공화국의 애국적제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조속한 실현을 열망하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최근에 남조선의 사회민주당위원장이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을 북남련석회의의 소집제의에 동의를 표시해나섰다.

한편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3월 29일에 대자보에 발표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북과 남의 청년학생대표들의 회담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공개서한에서 북과 남에서 각각 《민족화해를 위한 국토종단순례대행진》을 벌리자고 하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남조선 대학생들은 제주도 한나산에서 판문점까지, 북반부의 대학생들은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행진할것을 제기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과 서울대학교중 한곳에서 남북조선청년학생체육대회를 가질것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선 량측대표들이 오는 6월 10일 판문점이나 제네바와 같은 제3국에서 실무회담을 열것을 제의하고 이에 대한 회답을 보내줄것을 요청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대자보는 남조선의 각 대학 학생들의 커다란 지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서울시내에서만도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각각 게시하고 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민족의 통일념원에 맞게 화해와 단합의 새 장을 펼쳐 격폐된 북남관계를 부실것을 지향한 의로운 제기이며 매우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지난 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제의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시하였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제의가 민족적 화해를 위하여 유익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절실한 애국적발기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한다.

그런데 로태우파쑈도당은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경찰을 동원하여 수사놀음을 벌리며 가혹한 탄압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이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과 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의 영향력을 막고 련석회의 소집에 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벌려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여 긴장상태를 첨예화시키는데 광분하고 있다.

괴뢰도당의 대화부정적이며 평화부정적이며 통일부정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과 남 사이의 반목과 대결은 극도에 이르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바로 이때야말로 쌍방의 책임있는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겨레의 의사를 한데 모을수 있는 협상마당, 민족대단합의 광장을 마련하기 위한 성스러운 구국운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외세의 침략적요구에 추종하여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반민족적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에 기꺼이 응해나서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사회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는 용단을 내리고 전민족적인 대화의 광장에 나설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남조선학생들의 발기와 북반부학생들의 호응이 민족화해의 첫걸음으로 이어지고 통일의 디딤돌로 높이 쌓아져 통일구국의 력사에 기어이 새 길을 열어놓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실현시키는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자.

우리 나라를 둘러싼 최근정세에 언급

비행기사건은 남조선괴뢰들의 자작자연이라고 규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서기국장이 본사기자와 회견

【평양에서 본사기자 김광석, 송정웅】 얼마전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서기국장은 평양에서 본사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석상에서 전금철서기국장은 최근에 남조선괴뢰도당은 《마유미》요 《김현희》요 하는 녀자를 《북의 공작원》으로 날조하고 사건을 공화국과 련결시켜 보려고 광분하고있지만 이 사건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들자신의 자작자연극이라고 규탄하였다.

전금철서기국장은 우리 나라를 둘러싼 최근정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북남련석회의의 시급한 실현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남련석회의제안이 종전의 통일제안과 구별되는 세가지 특징에 대하여 ①이 제안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근본문제를 제기한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현안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고 ②회담의 형식에서 당국자들만이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 등이 참가할수 있는 련석회의형식을 택했다는 점이고 ③해결하려는 문제의 시기성에서 금년을 시점에 놓고있다는 점이라고 밝히였다.

(기자회견 내용은 2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올림픽의 공동주최를 주장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3월 29일과 31일 서울대학교에서 있은 총학생회장선거와 관련한 모임에서 전상순, 김중기, 유재석학생들이 올림픽의 남북공동주최를 주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76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국을 향하여 떠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76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5일 사회주의조국을 향하여 일본을 떠났다.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서만술, 허종만부의장과 권순휘사무총국장, 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및 간또지방 총련일군들과 함께 박재로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신도꾜국제공항에서 환송하였다.

또한 축하단성원들의 가족, 친척들과 수많은 동포들이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출발에 앞서 비행장내 대기실에서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을 환송하는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축하단 단장과 성원들에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꽃다발이 증정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연설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 76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송한다고 하면서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총련애국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할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결의와 만수축원의 인사를 전하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연설한 축하단 단장인 박재로부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의하여 민족최대의 경사인 4월명절을 조국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최상의 영광을 지닌데 대해 지적하면서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사회주의조국을 우러러 살며 일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보고를 전하겠다고 말하였다.

환송모임이 끝난후 재일조선인축하단은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비행기편으로 조국을 향하여 떠났다.

한편 이날 같은 비행기편으로 녀성동맹중앙 박정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녀성대표단과 박정규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강산가극단후원회대표단이 사회주의조국을 향하여 떠났다.

재일조선인축하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박재로(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단원 조용복(총련중앙 총무국장)
단원 김문곡(총련 홋가이도본부 위원장)
단원 리형구(조선통신사 사장)
단원 남호황(지바현상공회 회장)
단원 김정화(녀성동맹 도꾜도본부 위원장)
단원 량수남(총련 히로시마현 니시히로시마지부 위원장)

《제18후지산마루》 문제해결의 길은 일본정부가 스스로 막았다

공화국외교부 보도국장이 언명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보도국장은 4월 3일 일본선박 《제18후지산마루》 선원문제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일본선박 《제18후지산마루》 선원문제는 일본정부당국이 취한 부당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해결의 길이 가로막혀있다.

일본정부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과 한짝이 되여 남조선괴뢰들의 자작극인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요 뭐요 하고 떠들면서 조일 두 나라 외교관들의 접촉을 끊어놓음으로써 스스로 선원문제해결의 길을 가로막았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일본당국자들은 요즘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간교한 속심에서 우리 나라와 친선적인 관계를 가지고있는 제3국들을 내세워 우리와 일본선원문제에 대한 교섭을 하게 하려는 시도들을 여러모로 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이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내세워 우리와의 교섭을 시도하고 있는것은 마치 저들은 제3자를 내세워서나마 일본선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애쓰고있는데 우리가 인도주의적고려를 돌리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듯이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여보려는 매우 파렴치하고 간교한 술책이다.

일본정부는 조일 외교관들사이의 접촉의 길을 제손으로 끊어놓았을뿐아니라 지금도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재일총련을 탄압하기 위한 책동을 날로 더욱 강화하고있다.

이 근본문제를 풀기전에는 제3자가 나서도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

일본정부당국자들은 저들의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워보려고 상술적인 비렬한 잔꾀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남조선괴뢰들과 한짝이 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무모한 적대시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반미, 반《정부》투쟁 전개

경상대생 2,500여명이

미국농축산물수입 배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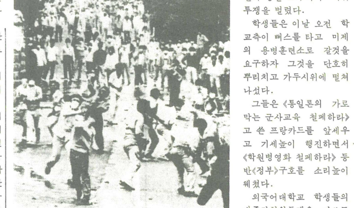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학생 2,500여명이 4일 오후 교내에서 농축산물수입반대 및 폭력경찰규탄 대회를 가진 다음 치렬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에 떨쳐나선 학생들은 학교옆 철길을 점거하고 부산에서 순천으로 달리던 기관차를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학생들은 지난 2일 미제의 농축산물시장개방압력과 괴뢰도당의 추종정책을 반대배격하여 교내시위를 전개할 때 파쑈도당이 경찰들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케 함으로써 수많은 동료학생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놈들의 폭압만행에 치를 떨며 이날 또다시 반미, 반《정부》 집회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철길을 점거하고 때마침 전주역쪽으로 들어서던 렬차를 요정내고 말았으며 달려드는 경찰놈들을 단호히 징벌하였다.

시위투쟁을 일단 끝내고 대학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하고 계속 완강히 싸웠다.



반미, 반《정부》투쟁을 벌리는 남조선대학생들

외국어대생들도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외국어대학교 1학년 학생 1,500여명이 4일 군사교육의 철폐 등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학교측이 뻐스를 타고 미제의 용병훈련소로 갈것을 요구하자 그것을 단호히 뿌리치고 가두시위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통일론의 가로막는 군사교육 철폐하라》고 쓴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기세높이 행진하면서 《학원병영화 철폐하라》 등 반《정부》구호를 소리높이 웨쳤다.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대중적항의투쟁은 파쑈도당을 당황망조케 하였다.

현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북남련석회의의 시급한 실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서기국장이 《조선신보》기자와 회견

비행기사건은 남조선괴뢰 도당의 자작자연극이라고 강조

평화로선과 전쟁로선의 첨예한 대결

긴장완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을 련석회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없는 로태우

남조선민주화투쟁은 보다 앙양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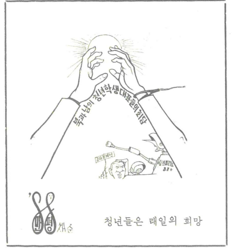
본지기자와 회견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서기국장

평양시인민반모범일군회의 25돐기념보고회 진행

광복거리건설장에서 기념식수모임 진행

무역의정서 조인

조선과 쏘련사이에서



청년들은 래일의 희망

목소리

애국충정

천선의 왕래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던 4일간

처음으로 고베항에 입항한 《삼지연》호를 열렬히 환영환송

총련 효고현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

기쁨, 감사의 정 노래에 담아

—《삼지연》호 환영환송의 노래》—

단결된 힘 내외에 크게 과시

—환영, 환송, 선내견학에 7,500여명—

사회주의조국의 향기에 도취

—배 방문자모두에게 기념품—



고베항에 모여온 수많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사랑의 배 《삼지연》호가 사회주의 조국을 향하여 떠났다.

잊을수 없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왔다는 녀성동맹 스마다루미지부 니시다루미분회관하 옥칭자녀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삼지연》호를 처음으로 고베항에서 맞이한 동포들의 기쁨과 감격은 한량없다.

역시 감동에 휩싸이고있었다.

스에이시 교꼬녀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을 위해 이 배를 보내주시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령도자이십니다.

지금까지 3개 나라를 다녀본바 있습니다만 이 배를 타서 당장 조선에 가고싶게 되였습니다.》

국수를 주고늦이나 먹거나 서로 앞을 다투어 그림엽서에다 방문기념도장을 찍자고 하는 학생들의 호뭇한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볼수 있었다.



《삼지연》호의 고베항 첫 입항을 열렬히 축하하여 부두에서 농악무를 피로한 이곳 일고재학조선인학생회 회원들.
《언제나 사회주의조국을 우러르며 조선사람답게 참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심정을 조국의 선생님들에게 전하려는 한마음으로 열심히 련습했습니다.》(박승학생, 이다미니시고교 3학년)

《삼지연》호 선장이 초대연

현하 일본인사들 170여명이 참가



《삼지연》호 선장이 초대연을 차렸다.

효고현지사와 고베시장을 의례방문

《삼지연》호 선장의 위임에 의하여 총련본부위원장이

한덕수작사가요선곡집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 출판기념모임

시일—1988년 4월 8일(금) 오후 6시
장소—조선회관 강당

일본당국은 《제재조치》 철회하라

《삼지연》호 선장을 상륙못하게 한것과 관련하여

일본 각계인사들이 입관당국에 항의요청

미제와 괴뢰도당의 핵전쟁연습을 준렬히 규탄한다!

절정에 이른 《팀 스피리트 88》전쟁연습

핵지령기 《이 4 비》의 지휘하에 《총공격》훈련 감행

지난 3월 29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포항앞바다에서 벌린 대규모상륙작전으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은 절정에 달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제와 괴뢰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의 예정으로 20만명 규모로 연습을 벌리고있는바 현재 연습은 3단계로 구성되는 연습의 제2단계(실동훈련단계)이다.

실동훈련이란 미국 등 해외에서 투입된 미군무력과 남조선에 주둔하는 미군병력과 괴뢰군이 합동으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핵침공, 예비훈련을 벌리는것이다.

이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면적핵전쟁을 상정한 연습의 주축을 이루는 핵지령기 《이 4 비》가 남조선에 투입되고있다. 이 비행기는 유사시에 미국대통령이 직접 탑승하고 전면적핵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이다.

이미 남조선에서는 포항앞바다에서 미국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비롯한 각종 함정들, 항공기, 상륙양륙함 등이 참가한 대규모상륙작전과 때를 같이하여 전역에서 도하작전,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비상활주로리착륙훈련, 타격부대의 기동훈련, 공중기동작전, 화학, 생물무기훈련 등 연습소동이 감행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본토로부터 투입된 특수부대도 게릴라, 《테로》훈련을 벌리고있다.

연습에서 더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반격》의 구실밑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총공격훈련》이 감행되는것이다. 이는 하늘과 땅으로부터의 립체적인 침공연습이다.

이 훈련이야말로 미륙군의 기본전법인 《에어 랜드 바틀 독트린》(공지전)을 구현한 엄중한 침공연습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범죄적인 침공훈련을 즉시 그만두라.

포항앞바다에서 대규모상륙작전

《미드웨이》호 등 각종 전투장비 끌어들여

3일간에 걸쳐 벌린 이 전쟁연습에서 괴뢰도당은 《수색》이요, 《매복》이요, 《섬멸》이요 하면서 밤낮없이 소란을 피웠다.

파쑈도당은 특히 이 군사소동에 괴뢰군은 물론 해당지역의 주민들까지 동원하여 들볶아대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였다.

한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이 본격적인 작전단계에로 들어감에 따라 3월 24일 괴뢰군 주력부대의 전제대가 공격작전지역에로의 출동을 개시하였다. 놈들은 26일까지 부대이동을 끝내고 28일까지에는 본격적인 공격작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한다.

북침을 가상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도발적인 군사소동은 날이 갈수록 광기를 띠며 감행되고있다.



경기도 려주에 기여든 미군병력 (로이터 산 제공)

미국본토로부터 투입된 특수부대가

게 릴 라, 《테 로》훈 련

3월 25일 미제침략군 특수부대 제1진이 경기도 려주부근에 도착하여 이 전쟁연습에 합류하였다.

미국본토의 서부기지에서 공수되여온 침략군놈들은 훈련지점에 공중락하한 다음 곧바로 전쟁연습에 들어갔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이제까지도 《공화국요인》랍치, 테로훈련 등 특수부대훈련이 감행되여왔다. 북침을 노린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의 기지들로부터 미제침략군부대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으로 쓸어들고있으며 남조선전역에서는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괴뢰도당은 《타격부대의 기동훈련》 감행

3월 24일 보도에 의하면 군사파쑈도당은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괴뢰륙군의 한 부대에서 이른바 《타격부대의 기동훈련》을 감행하였다.

서울, 부산에서

비상활주로리착륙훈련

보도에 의하면 군사파쑈도당이 《팀 스피리트 88》연습의 일환으로 항공기비상활주로리착륙훈련을 감행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괴뢰도당은 3월 30일과 4월 4일에 서울과 부산사이의 고속도로로 일부 구간들에서 항공기비상활주로리착륙훈련을 벌렸다.

북침을 노린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이 본격적인 공격작전단계에 들어서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제와 로태우군사불한당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여러가지 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함으로써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견결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중기동작전

《시범》훈련도

3월 26일 로태우군사불한당이 괴뢰군의 한 부대를 끌어내여 공중기동작전《시범》이라는 군사소동을 벌렸다.

호전광들은 이에서 공화국북반부 내륙깊이에 침략무력을 투하하는 그 무슨 《시범》이라는것을 벌리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였다.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분별없는 군사소동에 환장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죄행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흉악한 원쑤로서의 놈들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준동을 지켜보고있으며 놈들이 무모하게 덤벼들 때에 백배, 천배의 보복적타격을 가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시 그만두라

손 지 원

도적이 매를 든다더니
모략을 꾸미던 날강도무리
이젠 품은 칼을 빼고 덤벼드는가

그만두라
거덜이 난 연극
그만두라
《팀 스피리트 88》

예로부터 말하더라
모략은 남몰래 꾸미는 법이라고
불장난을 즐기는자
불에 타 죽는다고

하여 네놈은 스스로
온 천하에 드러내지 않았더냐
모략선전 꾸며낸 장본인이 누군가를
핵전쟁을 일삼는자 그 누군가를

오, 그러나
지금 이 시각
호시탐탐 내 조국을 노리는 무리가 있어
조선의 하늘에 핵전쟁의 불구름 짙어만 가거니

분노의 칼을 갈아
신념의 기둥을 벼려온 이 시인도
오늘은 소리높이 고발하리

철천지원쑤—미제
네놈은 쿼쿼한 모략을 꾸미는 전쟁미치광이
인류가 허락치 않는 《악마의 무기》로 제 무덤을 파는놈
마지막 숨통을 끊어야 할 현대의 불가사리

내 복수의 탄창에 채운 어휘를 다 모아
동서고금에 존재한 《죄명》다 퍼부어도
성차지 않을 불구대천의 원쑤

내 몸의 억천만개 털구멍에서
솟구쳐오르는 증오의 불길을 쏟아 불태워도
원한만이 남아있을—나의 원쑤

아, 나도 시인
올해는
더 아름다운 노래 지어
뜻깊은 새해를 구가하려 했건만

모략을 짓부셔
조국을 지키는 길에
검이 되고 방패된 전사의 마음으로
또다시 소리높이 웨치노니

그만두라
모략선전
그만두라
악명높은 《팀 스피리트 88》

당장 돌아가라
핵무기 걷어치우고
태평양너머 승냥이 후예들이 사는 소굴로
조선인민의 천백배 복수의 징벌을 받기 전에

(문예동 조대지부 맹원)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더 크게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8일 (음력 2월 22일) 금요일 【루계 제10178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공화국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 주석단【평양~도꾜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따뜻이 영접하시였다.【평양~도꾜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 개막

【평양 4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가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부문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주석단에는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인민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정무원 부총리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이 나왔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의장석에 자리를 잡았다.

양형섭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이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재정부장 윤기정대의원이 회의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 위원 박승일대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회의에서는 의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세웅대의원, 한창공대의원, 리준대의원, 리정순대의원, 김동명대의원이 토론하였다.

회의는 계속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영접하시였다

【평양 4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5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민주주의캄보쟈 주석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를 영접하시였다.

국기게양대들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민주주의캄보쟈 기발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고 포옹하시였다.

민주주의캄보쟈 주석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를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민주주의캄보쟈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께서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환영의식에는 친왕전하의 일행과 우리 나라 주재 민주주의캄보쟈 특명전권대사 손청이 참가하였다.

박성철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외교부 김형률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한편 민주주의캄보쟈 주석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께서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의례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일행은 이날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평양시내 중요건설대상들을 돌아보시였다

【평양 4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 4일 평양시내 중요건설대상들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 책임비서 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강희원동지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복거리건설장, 릉라도경기장건설장, 릉라다리건설장, 양각도축구경기장건설장, 국제영화관건설장을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요건설대상들을 완공하면 수도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며 평양시를 더욱더 높아지는 인민들의 창조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나라 손님들을 접견하시였다

중국공산당 강소성 위원회대표단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강소성위원회 서기 한배신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강소성위원회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림형구책임비서와 당중앙위원회 권민준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온업담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표단단장은 선물을 드리였다.

부룬디정부공보대표단

【평양 4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부룬디공화국 공보상 프레데리크 은겐제부호로를 단장으로 하는 부룬디정부공보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위원회 김중린위원장, 외교부 김룡영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대표단단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부룬디공화국 삐에르 부요야대통령의 친서를 전해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손님들은 선물을 드리였다.

수리아대사가 신임장 봉정

【평양 4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우리 나라 주재 수리아아랍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 야씨르 파르라가 6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사와 담화를 하시였다.

사 설

조국통일사업대중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의의깊은 해이다.

조국통일사업을 대중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총련의 기본사명과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과업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여주신 강령적지침이며 민족적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을 대중화할데 대한 교시 관철정형을 정확히 총화하고 그를 우리 운동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총련은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반미자주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대내외에 광범히 해설선전함으로써 조국통일지지세력을 확대하였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최근년간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조국통일사업의 대중화방침과 반미자주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조국통일사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역할을 한층 높였으며 승리의 신심을 안고 이 사업에 대중적으로 나서게 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난해에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웨치면서 파쑈적인 《4.13조치》반대 투쟁과 6월인민항쟁, 7~9월의 로동자투쟁과 군정종식을 위한 12월투쟁 등 각종 형태의 의로운 투쟁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미제와 군부독재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여기에는 반미자주화방침을 해설선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남조선래왕동포들을 뜨겁게 맞이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해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대중화방침과 반미자주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면하여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회담에서 토의해결하려는 문제의 절박성으로 보나 회담방식의 합리성과 협상제의의 시기성으로 보나 지극히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구국제안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애국적제안은 내외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의 사회민주당 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의소집에 대한 북남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의 제의에 동의를 표시했으며 3월 29일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을 제기하는 공개서한을 대자보에 발표하였다. 이것은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 조건하에서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제의에 대한 지지환영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북남련석회의가 마련되면 북과 남의 격폐상태를 마스고 온 민족이 열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련석회의소집을 방해하는 책동을 걷어치우고 북남련석회의를 위한 예비회담에 기꺼이 응해나와야 한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대중화방침과 반미자주화방침을 진공적으로 관철하며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더욱 왕성히 벌림으로써 조국통일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조국에서 80년대진군 1988.3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2월 20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마련하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공화국창건 40돐까지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호소하시였다.

전군중적인 200일전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올해에 제3차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자랑찬 대건설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200일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시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계신다.

200일전투가 시작되여 한달이 지난 3월에 중요대상건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평양에서 본사기자】

중요대상건설공사 힘있게 추진

조국의 건설자와 군인들

200일전투 첫 한달동안에 자랑찬 성과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05% 장성—

정연한 조직지휘체계를 세워주시며

사회주의건설의 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것은 200일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군중적인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호소하시면서 지난 2월 27일 자신께서 몸소 200일전투의 총사령관으로 되시여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계획위원회가 사회주의건설에서 필요한 일련의 조치와 방법을 세우는 작전국으로서의 역할을 맡아하도록 하시였으며 각 도들에서는 도당책임비서가 사령관이 되여 대중을 총진군운동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200일전투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정연한 조직지휘체계를 세워주시였을뿐만아니라 200일전투의 중요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시였다.

최근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0일전투는 제3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여는 전투라고 하시면서 그 주공전선을 기본건설이라고 교시하시였다.

200일전투는 매우 방대하고 통이 큰 전투이다. 이 전투는 제3차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방대한 기본건설을 주공전선으로 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나라의 모든 생활령역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오는것을 그 내용으로, 목표로 하고있다.

200일전투기간에 집중하게 될 기본건설은 발전소, 탄광, 금속공업기지, 대화학공업기지, 경금속생산기지,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다.

200일전투를 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전력, 석탄, 강재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비날론 10만톤 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하며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1단계건설공사,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 건설기일을 앞당김으로써 인민경제의 생산기술적토대를 확대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새 전망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휘부성원들에게 통신수단, 승용차를 보내주시는 등 200일전투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고계신다.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의 발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200일전투가 시작되여 지난 한달동안에 자랑찬 건설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주공전선을 담당한 각지 건설자들과 군인들은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중요대상건설공사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을 맡은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이 기간에 또 한기의 카바이드로(제3호) 건설을 끝내고 생산을 보장하였으며 석회로들과 메타놀 대형합성탑을 비롯한 여러 대상의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2단계확장공사를 담당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이 기간에 18개 대상을 동시에 펼쳤는데 3호전로와 5호련속조피기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이 기간에 태천발전소건설자들은 1호발전소의 3호기, 2호발전소의 2호기 발전기동체를, 위원발전소 건설자들은 4호발전기동체를, 순천화력발전소 건설자들은 3, 4호기 발전기동체 조립을 거의 끝냈으며 4.15를 앞두고 조업을 개시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밖에도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만톤프레스직장, 광복거리 등 많은 대상물들의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이 기간 기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는데 공업총생산액적으로 지난 한달에 비하여 105%나 장성하였다.

금속공업부문만 놓고 보아도 지난 한달보다 강철은 135%, 압연강재는 134% 늘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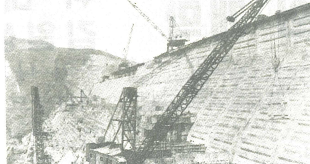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굴진과 박토를 확고히 앞세우고 새 기술과 앞선 채탄법을 널리 받아들인 결과 지난 한달에 비하여 108%나 장성하였다.

그외 전력공업, 철도운수, 화학 및 경공업 부문에서도 새로운 생산적앙양이 이룩되였다.

지난 한달동안에 중요대상건설과 기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며 조선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과 불굴의 기개의 발현이다.



200일전투의 불길 세차게 날마다 면모를 일신하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장



기세드높이 공사가 다그쳐지는 태천발전소건설장

강냉이밭들에 분수식콩크리트관들이 뻗어나간다

—조국의 각지 농촌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받들고 우리 나라 각지 근로자들이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분수식발관개건설을 적극 내밀고있다.

씨붙임전에 더 많은 강냉이밭에 분수식발관개공사를 진행할 목표를 내세운 각지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땅이 녹기 시작하자 세멘트콩크리트관을 늘일 자리파기와 관놓이기, 조립 등을 다그치고있다.

농업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요즘 하루 관생산과 발관개건설 실적은 200일전투이전에 비하여 1.8~2배에 달하고있다 한다.

그리하여 각지 강냉이밭들에는 수십만메터의 분수식콩크리트관들이 뻗어나가고있다.

평안남도내 평원, 개천군들에서는 관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올해 계획한 분수식발관개공사를 빨리 끝내고있다.

평안북도내 시, 군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관생산을 앞세우면서 발관개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 속도를 높이고있다.

구장군에서는 발관개건설을 맡은 기관, 기업소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강화하여 이미 263정보 강냉이밭의 분수식발관개공사를 완공하였으며 220여정보에 해당하는 관을 마련해놓았다.

함경남도 부전, 장진, 락원군들에서는 속도전의 불길을 세차게 불러일으켜 분수식발관개건설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있다.

황해북도내 농촌들의 강냉이밭들에도 분수식콩크리트관들이 뻗어나가고있다.

※분수식발관개란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중간, 산간 지대의 경사지밭들에서 정보당 강냉이수확고를 높이자면 분수식발관개를 건설해야 한다.

분수식발관개를 건설하면 정보당 강냉이수확고가 2톤이상 더 늘어난다.



새별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매일 많은 분수식발관개용 콩크리트관을 생산하고있다.



이대로 망명할가…

105층호텔건설사업

기초굴착공사 기본적으로 완료, 기초콩크리트치기와 쟈끼조립공사 본격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현대적인 광복거리와 함께 105층호텔(보통강구역 서장지구)이 거창하게 일떠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05층호텔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건설도면과 건설모형사판까지 보아주시면서 105층호텔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손색이 없게 건설하도록 건설 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무한히 고무된 이곳 건설자들은 105층호텔건설에서 방대한 량의 기초굴착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기초콩크리트치기와 미끄럼식골조를 위한 쟈끼조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건물의 2개의 날개부분 지하층과 중심탑부분 1단계콩크리트치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날개부분은 지상층축조에 들어섰다.

착공후(1987. 8) 불과 몇달어간에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십만립방메터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기초굴착공사를 기본적으로 해제끼고 기초콩크리트타입과 쟈끼조립공사를 본격화하는 자랑찬 성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며 이곳 건설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의 발현이다.

지금 105층호텔건설을 담당한 전체 건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기간에 호텔의 골조작업을 끝내며 1989년 6월말까지 105층호텔건설을 완공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건설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105층호텔

삼각추모양으로 건설되는 호텔은 높이가 무려 300여메터이며 3,000여개의 손님방과 큰 규모의 국제회의를 할수 있는 2천석회의실을 비롯하여 2천여명이 참가할수 있는 연회장, 회의실, 면담실, 식당들, 청량음료점들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방공장 등이 들어앉게 된다.

또한 호텔에는 물놀이장, 한증탕, 치료체육실, 전자기구오락실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게 되며 호텔의 맨 웃부분에는 전망대가 있고 그 아래에 층층으로 3개의 회전식당이 꾸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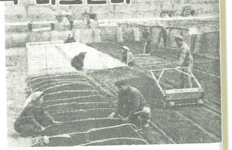
우리 나라 각지 협동벌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적극 다그친다

사회주의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끝없이 번영하는 우리 나라 각지 협동벌은 벼랭상모판씨뿌리기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로 들끓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를 제철에 붓고 튼튼히 키워 일찌기 낼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춘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만풍년으로 빛내일 혁명적열의와 농촌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벼랭상모판씨뿌리기에서 속도전을 벌리고있다.



영광군 후주협동농장에서는 그날계획을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오고 청산리에 풍년이 들어야 온 나라에 만풍년을 안아올수 있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이곳 농장원들은 올해 벼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벼랭상모판씨뿌리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지난 3월중순부터 벼씨뿌리기에 들어섰다.

평안남도 문덕, 숙천, 대동, 온천, 증산군들에서는 모내기날자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벼랭상모판씨뿌리기 날자와 단계를 바로 정하고 씨뿌릴 날자에 맞게 종자싹틔우기와 모판만들기를 앞세워나가고있다.

문덕군 룡림협동농장에서는 벼랭상모판씨뿌리기는 시기를 다투는 중요한 공정이며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껴야 할 힘든 일이라는것을 미리 타산하고 요즘 모든 력량을 모판씨뿌리기에 집중하고있다.

황해남도 은천군내 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하나의 모판을 만들고 한줌의 비료와 씨앗을 뿌려도 과학기술적리치를 따져가면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하고있다.

함경남도, 강원도 등 동해안의 벌방지대협동농장들에서 많은 면적의 벼랭상모판에 씨를 뿌리였다.

정평, 금야군내 협동농장들에서는 올해에 벼모를 일찍 부은 실정에서 찬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바람막이바다도 든든히 치고 비닐박막과 나래도 잘 덮어주는 등 모판의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왕래의 길

목소리

《재일조선공민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고 그를 위해 조국을 방문하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최고인민회의참가를 위한 재일조선공민출신 대의원들의 재입국허가를 거부한 일본당국의 처사에 대한 총련중앙 사회국장담화는 이렇게 지적했다.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왕래는 1965년에 2명이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한 그때로부터 시작됐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해도 동포들은 이 땅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었다. 겨레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가고노또리(새장안에 든 새)》라느니 《60만의 도수(島囚)》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하지만 총련과 재일동포는 그런 신세를 앉아서 감수하지 않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뙤약볕 내리쬐는 날이나 설한풍 휘몰아치는 추운 날이나 가림없이 대중적인 요청운동을 줄기차게 벌렸다. 일본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일으켜 싸우기도 했다.(1968년) 광범한 일본인민들은 총련의 서명운동에 호응해나서거나 지방의회결의를 채택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왕래의 길이 넓혀지게 되였다. ▼1972년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60돐 재일조선인축하단과 이듬해인 73년의 공화국창건 25돐축하단에 이어 75년에 한덕수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대표단의 조국방문이 실현된것은 획기적의의를 가졌다. 이것은 재입국문제와 관련한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관리》요 《정치적의도》요 하는 《론리가 붕괴됐음을 의미》(사이또변호사)했다. ▼그것도 그럴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들춰보니 21조 1항에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씌여져있다. 또 13조 2항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포함한 그 어느 나라라도 떠나고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있다. 일본당국은 부당한 《제재조치》를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

로잔느회담중단의 원인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공동주최의 해결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북남련석회의가 마련되여

조선체육지도위원회 김유순위원장이 본사기자와 회견

【평양에서 본사기자 김광석, 송정웅】 본지기자는 지난 3월 20일 조선체육지도위원회 김유순위원장과 인민문화궁전에서 회견하여 제24차올림픽의 북남공동주최를 위한 로잔느공동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 《서울단독개최》를 강행하려는 남조선괴뢰들의 로골적인 책동의 실상 그리고 올림픽문제의 금후전망 등에 대하여 들었다.

석상에서 김유순위원장은 최근에 진행된 국제올림픽위원회 제93차총회와 4번에 걸친 로잔느공동회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것은 전적으로 《두개 조선》을 노려 《서울단독개최》에 고집하는 남조선측의 책동에 의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열고 올림픽의 공동주최문제 등을 협의해결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으신것을 상기시키면서 올림픽의 공동주최에 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려면 북남련석회의가 시급히 열려져야 하며 공화국은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유순위원장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93차총회에서도 진전 없어 물의 일으킨 남측기자회견

—국제올림픽위원회 제93차총회에서의 토의내용에 대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제93차총회는 지난 2월 8일부터 10일사이에 카나다의 캘가리시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24차올림픽의 북남공동개최를 위한 로잔느공동회의와 관련한 의제는 직접 토의되지 않았으나 총회 마지막날에 1월 17일까지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 참가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나는 이 회의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한사코 반대하고있기때문에 공동주최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는것과 그로 하여 우리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참가신청을 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북남련석회의가 마련되여 거기서 공동개최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공화국은 공동주최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임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와 반대로 남조선측은 회의끝에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박세직이 많은 기자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회견을 하였는데 아무런 사전통고도 없이 여기에 카나다주재 남조선대사란자를 불러들여 그를 시켜 《북이 무력증강을 하고있다》느니 《올림픽을 방해하려 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공화국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공화국에 대한 대결자세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그의 발언은 올림픽운동에 정치를 개입시키는 일로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싸마란츠위원장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그 대사가 왜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는지 모르겠다. 기자회견은 그가 참가할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과 남의 대결을 격화시키려는 남조선측의 불순한 행동에 격분을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북과 남의 대결을 격화시켜 올림픽의 공동주최를 방해하는 그들의 책동은 절정에 달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공동주최문제는 아무런 전진이 없었다.

판이한 북과 남의 립장 《두개 조선》노리는 괴뢰도당

—공동주최실현을 위한 로잔느공동회의가 4차회의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하여

이미 세상에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자들은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며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군사적강점과 핵군사기지화정책을 합리화하려는 목적밑에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를 서울로 끌어갔다.

우리는 올림픽경기를 《두개 조선》 조작에 리용하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조성된 정세를 깊이 연구분석하여 그리고 올림픽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세상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1985년 7월 30일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를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문제를 세상에 정식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로잔느공동회의가 열리게 되였는데 우리측은 1985년 10월에 열린 제1차공동회의때부터 경기종목을 북과 남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유일팀문제, 경기대회명칭문제, 조직위원회구성문제, 개폐막식문제, 북남자유래왕문제 등 10개 항목으로 된 구체적인 북남공동주최안을 제기하였다.

우리 올림픽위원회는 어떻게 하나 제24차올림픽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그이후 진행된 제2차, 제3차 로잔느공동회의에서도 상대측의 립장을 참작하여 여러가지 신축성있는 제안들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는 지난해 7월중순에 진행된 제4차회의에서도 북과 남의 인구비례로 보아 우리측에서 경기종목의 3분의 1인 8개 종목을 주최할데 대한 문제 등 합리적인 제안들을 또다시 내놓았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을 그 어느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조선측의 완고한 립장으로 하여 로잔느회담을 중재하여온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개의 완전경기와 3개의 불완전경기만을 우리에게 할당한다는 《조절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올림픽경기 총종목 23개와 세부종목 237개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도 적은 종목수이다.

이와 같이 경기종목문제에서 큰 전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우리 올림픽위원회는 이 교착상태를 타개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회담 각측이 다시한번 아량과 신축성을 발휘하는것이라고 인정하고 지난해 8월 11일 또다시 신축성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미 제기한 탁구와 활쏘기, 녀자배구 종목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축구는 예선경기 1개 조가 아니라 완전경기로 하자는것이며 자전거도로경기를 다른 완전경기로 바꾸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리고 다만 1개 종목만을 더 할당하여줄것을 요구하였다.

우리가 축구완전종목을 요구한것은 륙상, 수영, 권투, 롱구, 축구, 배구 등 모든 인기종목들이 지금 불공평하게도 한쪽에만 치우치고있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맞추려는 공정한 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회담상대측의 립장을 충분히 고려한것으로서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것이다.

때문에 세계 인민들과 체육인들은 남측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그들이 하루빨리 제5차회의에 응해나오기를 희망하였다.

이렇게 되자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번에는 종목수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동주최안자체를 거부해나섰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근 2년간 4차에 걸쳐 북남공동주최문제를 토의해온 로잔느공동회의자체를 거부한것이다.

이렇게 되여 로잔느공동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였는데 그 원인은 전적으로 남조선측에 있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파탄 목적으로 회담에 참가 미리 《결렬성명》 준비

—《서울올림픽》단독개최를 고집하는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책동에 대하여

공동주최를 지지하는 국제여론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로잔느회담에 끌려나온 남조선괴뢰들은 제1차회담때부터 3차회담에 이르기까지 바덴바덴총회결정만을 들고나오면서 《서울올림픽》의 단독개최만을 고집하였고 공동주최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제안도 내놓지 않았으며 우리가 내놓은 제안을 무턱대고 반대하여나섰다.

그후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4차회담이 열렸는데 남조선측은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이 로잔느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광분하였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제4차회담에 참가하기이전에 회담이 파탄될 때 발표할 《결렬성명문》까지 준비하여왔던 사실 하나만을 놓고도 충분히 증명할수 있다.

그 성명문은 외국기자들에 의하여 발각되였는데 그들은 이미 서울에서 이 성명을 준비해왔던것이다.

그들은 회담파탄을 목적으로 거기에 참가한것이였다.

뿐만아니라 로태우는 1987년 8월 12일 《민정당국책연구소》에서 가진 일본기자단과의 회견에서 《북이 계속 제안하고있는 경기종목의 제의는 종목수에 있지 않고 남북공동개최에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동주최를 반대하는 저들의 속심을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또한 남조선괴뢰들은 지금에 와서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올림픽《안전》의 《군사적담보》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을 다그치고있으며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소동을 벌려놓고있다.

서울에서 단독강행되면 분단고정화 위한 정치올림픽

—올림픽문제의 금후전망에 대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조선의 북과 남 올림픽위원회 대표들사이에 4차에 걸쳐 진행된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 공동주최문제에 대한 로잔느회담에서는 《서울올림픽》을 단독으로 강행하려는 남측의 완고한 반대로 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북과 남사이에서 문제가 풀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수차례에 걸쳐 북남쌍무회담을 제기했으나 남측은 그 회담마저 거부했다.

그리하여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 북남공동주최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룩되지 못하고있으며 올림픽경기대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려는 남조선군부통치자들의 책동은 더욱더 우심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이 참가하는 련석회의를 열고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 북남공동주최문제를 포함한 당면한 몇가지 문제들을 시급히 협의해결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우리 올림픽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참가신청마감날자인 1월 17일이 다가오는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립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우리는 남조선이 단독으로 강행하려는 올림픽경기에는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현조건에서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참가신청을 낼 가능성이 없게 되였다는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북남련석회의가 열려 올림픽공동주최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에 올림픽경기와 우리의 립장을 다시 검토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이미 북남련석회의소집을 의한 예비접촉을 2월 19일과 3월 28일의 두번에 걸쳐 판문점에서 가지자고 제기하였으나 그들은 이에 응할 대신에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시키고있다.

문제는 남측이 올림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립장을 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올림픽의 공동주최에 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려면 북남련석회의가 시급히 성사되여야 할것이다.

이 문제가 앞으로의 전망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제24차올림픽이 남조선괴뢰들의 분렬주의적책동으로 하여 끝내 서울에서 단독개최된다면 그것은 조선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인정시키고 조장시키는 분렬올림픽으로 된다.

또한 그것은 평화와 친선단결의 제전인 올림픽이 남조선괴뢰도당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당하는 정치올림픽, 롱락올림픽으로 된다.

이렇게 올림픽이 롱락당할 때 조국의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는 그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간에 우리의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할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은 분렬을 추구하는 《서울단독올림픽》에 그 어떤 형식으로나 참가하지 않을것이다.

해설　올림픽단독개최를 노린 악랄한 책동

올림픽운동이 일대 위기에 처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오는 9월의 제24차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는 그 숭고한 헌장정신과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민족공동의 축제로 하기 위해 공동주최안을 내놓고 일관하게 노력해왔다.

특히 공화국측은 올해에 들어서면서 북남련석회의의 소집제안을 내놓고 다국적군축회담 등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일련의 구체적문제와 함께 올림픽공동주최문제 등 시급한 현안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남조선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측은 공화국측의 진지한 제안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소위 《서울올림픽》참가신청마감날인 1월 17일을 이틀 앞둔 1월 15일에 《김현희》의 모략기자회견을 가지고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미친듯이 벌렸다.

지어 최근에는 미일남조선이 한짝이 되여 《올림픽단독개최》를 기성사실화하면서 자작자연극인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을 구실삼아 《올림픽기간에 항공모함전단을 파견한다》느니 《테로방지위원회 결성》이니 뭐니 하면서 대결자세를 강화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2월부터 5월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20만명 규모로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이 연습은 3월 29일 포항앞바다에서의 대규모상륙작전을 계기로 절정에 이르고있으며 조선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두개 조선》 조작이라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올림픽을 서울로 끌어온것이다.

따라서 세계인민들은 《평화와 우호의 제전》인 올림픽이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한쪽에 《유치》된것자체가 올림픽헌장에 합치되는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공동주최안을 지지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도 《남북공동올림픽을 개최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100만 대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성된 전역적인 학생련합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리인영의 발언,《경향신문》 87년 9월 18일부)고 지적하고있다.

이처럼 《서울올림픽》은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유치》된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일본의 뒤받침과 괴뢰들의 파렴치한 매수공작에 기초한 《표결》에 의해 《기성사실화》된것이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은 숭고한 헌장정신 유린과 《표결에 의한 기성사실화》라는 상반되는 모순을 내포하고있는것이다.

미일과 남조선괴뢰들은 이 모순을 힘으로 억누르고 《두개 조선》 조작을 노려 《팀 스피리트 88》연습 등 군사적위협과 자작자연극인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 등 갖은 모략으로 대결소동을 강화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올림픽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고있는 장본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숭고한 올림픽을 나라의 영구분렬과 대결을 위한 도구로 악용할것이 아니라 북남련석회의제안 등 공화국측의 성의있는 제안에 응해나서야 한다.

세이쉘대통령이

《서울올림픽경기》에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

세이쉘공화국 대통령 플란스 알버트 레네가 3월 15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정남호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대통령은 《서울올림픽경기》에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세이쉘의 결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세이쉘은 조선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일본당국은 부당한 《제재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변인이

일본당국의 처사를 규탄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일본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에 참가하게 될 재일조선인출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조국방문과 일본재입국 신청을 아무런 정당한 리유없이 거부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한것과 관련하여 3일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본당국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5명의 재일조선인출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평양에서 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고 일본에 재입국할것을 신청한데 대하여 지난 4월 1일 아무런 정당한 리유도 없이 거부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재일조선인출신 대의원들은 4월 5일부터 열리는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인 총련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재일조선인출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일본재입국 신청을 거부한 일본반동당국의 처사를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란폭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악랄한 국제반동행위로,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을 모독하고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인정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하여 미제에게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제재조치》라는것을 취한 이후 공화국의 경제대표단은 물론 개별적상사일군들의 일본입국조차 거부할뿐아니라 일본항구에 입항하는 우리 나라 선박과 선원들에 대해서도 부당한 규제를 가하며 지어 그들을 환영하는 재일동포들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등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행동을 분별없이 감행하고있다.

일본당국은 당면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박해와 온갖 모략책동을 무조건 그만두어야 한다.

《제재조치》철회와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대회 각지에서 진행

공화국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 철회와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회가 각 지방 본부들에서 일제히 진행되였다.

1일에 진행된 도꾜도대회에 이어 2일 후꾸오까현대회가 하까다부인회관에서, 4일 아이찌현대회가 나고야시중소기업쎈타에서, 5일 혹가이도대회가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히로시마현대회가 히로시마로동회관에서, 6일에는 오사까부대회가 히가시오사까시민회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각지 대회장에는 일본정부가 공화국과 총련조직을 헐뜯으려고 꾸민 남조선괴뢰들의 국제적모략에 맞장구를 치고 미제의 조종밑에 발표한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와 그와 때를 같이하여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분격을 금치 못해하는 동포들이 수많이 모였다.

대회들에서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제재조치》에 관한 보고와 각 단체들의 성토가 있었으며 각 지방본부들에서 련계를 갖고있는 저명한 일본인사들도 찾아와 우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아이찌현대회에 참가한 총련 미즈호지부 아라다마분회 박영문분회장은 《일본당국이 〈감정〉결과란것을 억지로 내놓아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려는데 대해 도저히 참을수 없어 가족을 모두 데리고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였다.》고 말하였다.

총련 나까무라지부 이와즈까분회 김복만분회장은 《〈제재조치〉이후 현하에서 치마저고리를 입은 녀학생들에 대한 살인미수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는데 나는 이에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한다.

오늘 아이찌제2초급 교장이 치마저고리는 민족의 상징이라고 토론했는데 학교에 다니는 우리 딸도 그렇고 동포들도 힘을 합쳐 민족의 상징을 지켜나가야 한다.

민족의 상징과 동포들의 자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운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힘주어말하였다.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회참가자들
(사진은 아이찌현대회)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여야 한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법무성당국은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5명의 재일동포출신 대의원이 공화국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을 방문하고 일본에 재입국할수 있도록 신청한데 대해 아무런 정당한 리유도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에 대한 모독으로서, 재일조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로서 도저히 용인할수 없는 처사이다.

금번 조치가 일본당국이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한 이른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기화로 한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공화국에 대하여 감행하고있는 그 무슨 《제재조치》란것과 결부된것임은 뻔하다.

일본당국은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공화국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 선박과 선원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규제책을 실시하고있다. 심지어 《만경봉》호와 《삼지연》호의 선장들이 입항지에서 환영나온 동포들이 주는 꽃다발을 받기 위해 부두에 내리는것마저 금지해나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익깡패들에 의한 총련조직에 대한 파괴책동과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재일조선인들의 대표들인 대의원들이 자기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며 그를 위해 조국을 방문하는것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서 명확히 담보된 만민의 신성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이번에 재일조선인출신 대의원의 재입국문제에 대하여 지난시기 취해온 태도를 후퇴시킨것은 지극히 유감천만한 일이다.

일본당국의 금번 처사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당국이 미제의 《두개 조선》 전략에 맞장구를 치고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긴장격화와 영구분렬에로 줄달음치는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결탁을 강화하여온것과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고있으며 량국사이의 진정한 우호관계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당국의 금번 처사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대결을 고취하고 조장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되며 조일량국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도 배반되는 조치로 된다.

이것은 광범한 일본인민들을 포함한 내외여론의 우려를 자아내고있으며 시대의 추세에 배치되는 이러한 처사가 하루빨리 시정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있다.

일본당국은 내외여론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이른바 《제재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재일조선인출신의 대의원들이 조국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할수 있도록 그들의 일본재입국을 인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일본에 들어오려는 공화국의 여러 대표단의 입국과 일본 각지의 항구에 들어오는 우리 나라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규제책을 그만둘것을 요구한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응당 향유해야 할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의 제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광범한 일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조국왕래의 전면적실현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모략책동의 본질과 악랄성을 낱낱이 폭로

남조선비행기사건의 본질을 고발하는 일조청년련대왓가나이지구집회

일본의 최북단 왓가나이에서 남조선비행기사건의 본질을 고발하는 일조청년련대왓가나이지구집회가 지난 3월 28일 이 지역 일조청년련대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였다.

이곳 일본청년들과 조청원들 약 80명의 참가밑에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미일남조선괴뢰도당들이 한짝이 되여 감행한 이번 모략사건의 본질과 악랄성이 낱낱이 폭로되였다.

집회에서는 주최자의 연설과 사무국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바 이번 사건의 문제점들이 명확히 제기되였다.

또한 비데오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꽃다발을 준 소녀는 저입니다》가 상영되였으며 조청 혹가이도본부 김청준부위원장이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는 일관하게 이번 사건이 철두철미 미일남조선이 한짝이 되여 날조한 모략사건이였다는것이 강조되였으며 특히 정희선의 출현과 그의 증언으로 괴뢰도당의 날조극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일조청년련대왓가나이지구집회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南北学生会談提案を歓迎

金日成総合大学学生委員会が書簡



延世大図書館前の掲示板にはり出された「南北学生国土縦断大行進」を支持する大字報（1日）

金日成総合大学学生委員会は四日、南朝鮮のソウル大学総学生会が二月二十九日に南北学生代表会談などを提案したことに対し、平壌放送を通じてこれを「積極的に支持、歓迎する」と同意を表明する書簡を発表した。同委員会は、この書簡を南北の赤十字社を通じて南側に送ろうとしたが、南朝鮮赤十字社がこれを拒否。四日の放送による伝達となった。一方南朝鮮警察当局は一日、南北学生会談の開催を支持する大字報が、ソウル大、延世大、高麗大などソウル市内の各大学に掲示されたことと関連して捜査に着手。この提案を行ったソウル大総学生会長候補・金重基君(三)と副会長候補・兪在錫君(三)の二人を指名手配した。金日成総合大学が送った書簡の主な内容は、つぎのとおり。

一、ソウル大総学生会が今回、民族分断以来初めてわれわれ金日成総合大学と貴大学学生の会談を提起し、国土縦断大行進とスポーツ大会を行うことについて提唱したのは、北と南のすべての大学生の賛意を受け、全民族の拍手、喝采を受けるべき立派なことだ。われわれ金日成総合大学学生委員会は、貴大学総学生会の提案が民族的和解のために有益であり、国の統一のために切実な発議であると高く評価するとともに、諸君の提案に積極的な支持と歓迎を表明する。

一、われわれは、六月十日に金日成総合大学と貴ソウル大学学生代表の実務会議を開こうとの提案を全的に支持賛同すると共に、会談場所は板門店にするのが良いと思う。

一、実務会談では、諸君の提案どおり民族和解のために八月一日から十四日まで北では白頭山から板門店まで、南では漢拏山から板門店まで国土縦断大行進を行い、九月十五日から十七日まで両大学のうちどちらかでスポーツ大会を開催する問題を協議することについてもわれわれは同意する。実務会談ではこの他にも諸君が考え、われわれが関心を抱いている他の問題をともに協議しても良い。

一、会談代表団は、われわれの出会いが民族が期待してやまず、すべての北と南の学友の関心が集まる歴史的な会合であるとの見地から、また会談が抱えている重大な使命からも当大学では大学学生委員会委員長を団長とし、十人ほどの男女学生で構成することを予定している。

同大総長も支持の書簡

金日成総合大学の朴官五総長は四日、平壌放送を通じてソウル大学の趙完圭総長に書簡を伝えた。朴総長は書簡の中で、「国と民族のために教育者もなしえない立派な行為を、われわれの教え子が行っていることに対し、ともに自負をもって喜ぶべきだ」とし、ソウル大学総学生会が提案した北と南の学生会談に教育者として「支持と協力を惜しんではならない」と提議した。

注―平壌放送が二日に報じたソウル大総学生会の南北学生会談などの提案は、同大総学生会の選挙期間中の三月二十九日、会長に立候補した同大哲学科四年の金重基君(三)が「金日成総合大学の青年学生にささげる公開書簡」として発表した。その中で金君は、①民族和解のために南北青年学生が八月一日から十五日まで、それぞれ白頭山と漢拏山から「国土縦断巡礼大行進」を行い板門店で会う②九月十五日から十七日まで、金日成総合大とソウル大で南北青年学生体育大会を開く③このため双方は六月十日に板門店か、ジュネーブなど第三の場所で実務会談を開く――などと提案した。

高麗大総学生会は三月三十日、同大学内に大字報を掲示し、ソウル大の金君の提案を支持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た。また三十一日には、延世大、建国大、漢陽大、誠信女子大などが、同様の大字報を掲示した。

南北連席会議招集で全民族的な対話を

南朝鮮社会民主党委員長の同意を受けて 朝鮮社会民主党代弁人が談話発表

米国のラジオ放送がさる三月二十八日に伝えたところによると、南朝鮮の野党である社会民主党の委員長・権斗栄が声明を発表し、南北連席会議を開くための予備会議招集に関する北側準備委員会の提議に同意する、と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米国放送によると、同委員長は北側準備委員会の提案に同意するとともに、南朝鮮当局者に対して、同提議を受け入れるよう促したという。

さる三月八日に北側準備委員会・許錟委員長は南朝鮮当局者と諸団体、大衆団体、各界人士に送った書簡を通じて同月二十八日に予備会議を開くよう提案したが、南の社会民主党委員長はこの提議に同意したもの。

これを受けて、共和国の朝鮮社会民主党代弁人は三月三十一日、次のような内容の談話を発表した。

朝鮮社会民主党は、南朝鮮社会民主党委員長が南北連席会議招集に関するわれわれの提議に同意したことに対して、心から歓迎し、これを高く評価する。

南朝鮮当局と政党、社会団体、各界人士たちが国と民族の運命に対して少しでも心配するというならば、救国の一念から提議された南北連席会議招集提案に応じられない理由はないはずだ。

今回、南の社会民主党委員長が同提議に同意したことは、その実例であろう。

社会民主党委員長を含めた広範な人士と青年学生たちが、民族の和解と団合のために互いに会って手をつなごうといっている現状で、盧泰愚一派が同提議に背を向けていることは民族の糾弾を受けてしかるべき反民族行為に他な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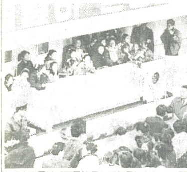
今日、南北関係がいつになく悪化し、緊張緩和と平和、統一に対する熱望が高まっているという現実は、南朝鮮の各党、各派、各階層民衆たちが勇気をもって全民族的な対話の広場に出てくることを切に要求している。

私は、南朝鮮政党、社会団体、各界人士たちが南北連席会議招集提案に肯定的に呼応する勇断を下すであろうとの期待を表明する。

日本当局、総聯代議員の再入国拒否

「主権への露骨な侵害」

祖国戦線スポークスマンが談話



日本当局は「万景峰号」乗組員に対し上陸不許可の不当な措置をとった（2月1日、横浜港）

日本法務省当局はさる三月三十一日、在日朝鮮人出身最高人民会議代議員が、最高人民会議第八期第三回会議に参加するための祖国訪問、日本再入国の申請を、何らの正当な理由もなしに拒否する措置をとった。

これに関連し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中央委員会スポークスマンは三日、「これは共和国の主権に対する露骨な侵害であり、在日朝鮮公民の民主的民族権利に対する乱暴なじゅうりん行為である」などと、日本政府の態度を強く非難する談話を発表した。また、一日には総聯中央・余基喆社会局長が談話を発表し、日本当局の今回の処置に対し強く抗議した。

最高人民会議は日本の国会に相当するもので、一年に一～二回のペースで開かれている。朝鮮総聯・韓徳銖議長をはじめとする五人の在日朝鮮人出身の代議員らは、五日から平壌で開催されるこの会議に参加するため、先月の十八日に再入国許可申請を行った。

しかし日本法務省は、「政治活動を目的とする渡航の再入国は認められない」として、申請を拒否した。

海外公民が自国の政治に参与するために祖国を訪問するのは、世界人権宣言（第十三条、第二十一条）等によって万人に認められた神聖な権利である。日本当局もこれまで在日朝鮮人出身代議員が最高人民会議に参加するために提起した日本再入国申請を認め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当局が今回の申請を拒否したことは、共和国に対するいわゆる「制裁措置」と結びついたものであることは明らかだ。

祖国戦線スポークスマンは談話の中で、「『制裁措置』を直ちに撤回し、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迫害とあらゆる謀略を無条件打ち切るべきである」と述べながら、「朝鮮総聯に手出しするのは共和国に手出しすることであり、在日朝鮮公民を迫害するのは自主独立国家である共和国の公民を冒とくすることである」と強く糾弾した。

第18富士山丸乗組員問題

解決は日本当局の態度に

共和国・外交部報道局長が語る

共和国外交部報道局長は四日、日本船舶「第18富士山丸」乗組員問題と関連した朝鮮中央通信社記者の質問に答えて、次のように語った。（要旨）

◇

現在、日本船舶「第18富士山丸」乗組員問題は、日本政府当局がとった不当な行動によって解決の道が閉ざされた。

日本政府は米国や南朝鮮独裁集団と結託して、南の自作自演劇である南朝鮮旅客機行方不明事件を口実にしてわが共和国に対する「制裁」を発表し、朝日両国外交官の接触を断つことによって自ら乗組員問題の解決の道を阻んだ。

その責任から逃れようと日本当局は最近、わが国と友好的な関係を維持している第三国を通じてわれわれと「第18富士山丸」問題に対する交渉をしようと試みている。

それはあたかも自分たちは第三者を通じてでも問題解決に努力しているが、共和国側が人道主義的配慮をしないために問題が解決されていないとする世論操作以外の何ものでもない。

日本政府は朝日外交官の接触の道を自らの手で断っただけでなく、現在もわが共和国を敵視し、在日朝鮮総聯への弾圧を一層強化している。

この根本問題を解決しない限り、第三者が登場しても問題は解決できない。

同問題がいかに解決されるかは、全的に日本政府の態度いかんにかかっている。

済州島四・三人民蜂起40周年

平壌市報告会、ソウルでも

済州島人民の四・三蜂起四十周年を記念してさる二日、共和国で平壌市報告会が行われた。

許貞淑党書記らが参加する中、祖国平和統一委員会・全今哲書記局長が記念報告を行い、アメリカとその手先による五・一〇単選を反対して立ち上がった済州道人民の四・三蜂起は、南朝鮮に対するアメリカの植民地従属化政策と民族分裂策動の粉砕、自主的平和統一を遂げるための愛国的武装闘争であったと指摘。

そして、同島人民の念願を一日も早く実現するために反米自主化の旗を高く掲げ、朝鮮半島を非核・平和地帯に変えるための闘争をさらに力強く繰り広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また、南朝鮮でも三日午後、ソウル市汝矣島の女性百人会館で「済州道、現代史の再照明、四・三の背景と経過」という学術論文発表会が開かれ、若い学生ら約百五十人が参加した。

周知のように四・三人民蜂起は済州島の人民らが一九四八年の四月、亡国的五・一〇単選反対を掲げ、反米、反警察、反西青（西北青年団―テロ集団）を表明、武装闘争を展開したことに始まった。

そして「選挙」を完全に破たんさせた。が、約九年間に及ぶ全島的な人民抗争は、全島民の三分の一、あるいは四分の一に当たる六万人（七―八万人との説もある）が犠牲と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事実、真相は南朝鮮為政者らにより隠ぺいされ、またわい曲されて来た。

今年の四十周年を機に、その解明、復元のための動きが南朝鮮で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いる。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260）5881
内線 453・435
436・428

一口世評

沈黙の現代史はいま

さる四月三日は済州島四・三蜂起の四十周年記念であった。一九四八年のこの日、南朝鮮単独選挙の強行に反対して島民が武装蜂起し、その結果パルチザン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島民が、李承晩「政権」とアメリカ軍によって虐殺されたが、その犠牲者の数はいまだに正確には分からず、全島民約三十万人のうちの三分の一とも四分の一ともいわれる。済州島四・三蜂起は、何よりもその犠牲者の数において、朝鮮近現代史上の一大悲劇であると言えよう。

だが南朝鮮ではいままで、「反米暴動」と見なされたこの蜂起について語ることさえはばかれる状況であった。慰霊を行うことなどはなおさらである。単に人道的に見ても許されることではない。

ところがさる三日、在野人士によってソウルで四十年ぶりに初めて慰霊集会が行われ、東京でも同時開催されたという。昨年の六月抗争の勝利が、慰霊の気運を醸成した結果であろう。

集会では慰霊の他に真相解明の努力をしていくことも確認されたようだが、それは是非とも必要な作業である。南朝鮮単独選挙に反対した済州島民の闘争は、とりもなおさず分断反対の闘争であり、その意味で分断時代である解放後史の原点となる人民闘争であった。

済州島四・三蜂起はこの点で単に一大悲劇というだけでなく、解放後史の一大画期をなす重大事件であった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の真相が解明されていなかった事実こそは、南朝鮮の民主主義抑圧の実態を表象してあまりある。

三日にはソウルで慰霊集会の他に、「済州島・現代史の再照明、四・三の背景と経過」と銘うった学術論文発表会も催されたというが、今後の真相解明の進展に注目したい。

四・三蜂起の「復権」は、南朝鮮民主化の基礎ともなるべき意味合いをもつからである。四・三蜂起の真相が究明され、その意義が正しく現代史に位置づけられるとき、正義のために英雄的に闘い死した犠牲者の霊は、初めて慰められるはずである。（義）

今週の出来事

世界の平和と自主化に関するチュチェ思想国際討論会 開く

世界の平和と自主化に関するチュチェ思想国際討論会がさる三月三十日、ギリシャの首都アテネで開かれた。

今討論会には、六十五カ国と八国際機構から八十二の代表、世界各国の著名な政治家と科学、教育、文化、言論界の人士、朝鮮総聯社会科学者代表団（団長＝朴庸坤・朝鮮大学校副学長）ら海外同胞学者代表らが参加した。またアテネと各地の政界、学界、言論界の人士とチュチェ思想信奉者ら五十余人が傍聴した。

光州事件の被害者らが「政府」の「対策」を非難

南朝鮮当局は一日、光州事件発生後八年ぶりに「対策」を発表したが、南朝鮮人民はこれに大きく反発している。

この日、光州事件の被害者たちはこの「対策」に対し、「事件の真相究明のない対策を受け入れることは出来ない」「政府の対策は、光州虐殺という前代未聞の罪悪を物質的な補償で解決しようという発想だ」と非難している。また野党も一日発表した声明の中で、「事件の真相をごまかそうとする欺まん策」と強く批判した。

セマウル疑獄の全敬煥を逮捕

三月三十一日未明、全斗煥の実弟で「セマウル運動」中央本部前会長の全敬煥が逮捕された。盧一派はこれでセマウル疑惑にピリオドを打ち、不正追及が現「政権」にまで及ばないようにするとともに、盧「政権」と全「政権」との「断絶」を強調し、現「政権」のイメージアップを図ろうとしている。

これに対し野党や民主勢力は、セマウル疑惑を単に全斗煥「政権」時代の事件に限定せず、全「政権」の延長線上にある盧泰愚「政権」に対しても責任追及をしていくことを決定した。

また、全敬煥とともに逮捕されたのは、前「セマウル本部」経理部長の鄭宗熙、前同弘報部長の文清、前「韓国」社会体育振興会経理課長の宣柱潤ら三人と、三月二十九日に逮捕された幹部五人を含め全部で九人となった。

全一家、海外に財産隠匿

金大中氏が暴露

南朝鮮野党第二党の平和民主党の金大中前総裁は六日、ソウルの同党総選挙立候補予定者の応援演説の中で、全斗煥一家がオーストラリア、米国に膨大な財産を隠匿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当局の捜査を求めた。

金氏によると、全斗煥一家はオーストラリアだけでも①同国有名ビール会社の株式の過半数②同国のモーテルチェーンのスウォン・レークの株式を大量に所有③様々な不動産を所有している。

「ウリマル習得8カ月運動」に拍車を!!

◎ウリマル教材をおおいに活用しよう。

●現在出版利用されている教材

◆朝鮮新報「日本語版」
―ウリマル講座―
日常的に使われる、あいさつを中心に紹介。（月曜日記載）

☆

◆朝鮮画報
―やさしい朝鮮語会話―
昨年一月号から毎月掲載。会話をかわいいマンガでわかりやすく説明。

☆

◆雑誌「新しい世代」
―ウリマル・ショット―
若者たちの好みに合せ絵で説明。

☆

◆雑誌「祖国」
―ウリマル教室―
ひとつの単語の活用方法とその変化を具体的に紹介。

☆

現在作成中の教材

「ウリマル 習得」
本とビデオ、カセットからなる教材。

「ウリ ノレ ペウギ」（文芸同）
十五曲からなるカセットと歌詞集、それに伴うカラオケビデ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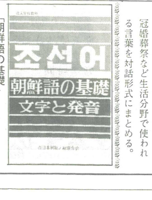
「ウリマル 教材」
体育用語を中心とした本。

「朝鮮の笑い話」
たのしい話が盛り込まれた単行本。

「ウリマル講座」（朝鮮青年社）
全四冊の教材を利用し、段階的に朝鮮語を習得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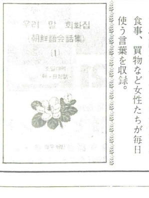
「新しい朝鮮語会話」（学友書房、一九八七年発行）
冠婚葬祭など生活分野で使われる言葉を対話形式にまとめ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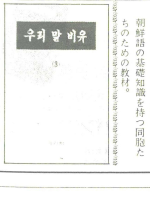
「朝鮮語の基礎」（総聯中央、一九七八年発行）
カセットと本がセットになった視聴覚教材。



「女性たちのための日常会話」（女性同盟中央、一九八五年発行）
食事、買物など女性たちが毎日使う言葉を収録。



「朝鮮語会話集」（一、二）（学友書房、一九八四年発行）
朝鮮語の基礎知識を持つ同胞たちのための教材。



「ウリマル ピュ」（一～三）（学友書房、一九八七年発行）
豊富な表現で意思表示ができる実力を養うための教材。（上級者向）

西成朝鮮初中級学校に新しい通学バス

愛情を乗せて「サラン号」出発



26人乗り、冷暖房完備の「サラン号」

6年分のお年玉を卒業時学校に寄附

京都・金麗華トン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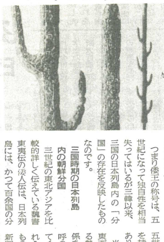


4月から京都中高に進んだ金麗華トンム

「後輩に役立てて」

物語 朝鮮の歴史と文化 ⑫

三韓、三国の日本列島内分国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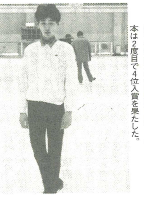
百済王が四〇八年、倭王に与えた七枝刀（大和 石上神宮蔵）

三国時期の日本列島内の朝鮮分国

校庭で

全日本フィギュアジュニア 4位入賞果た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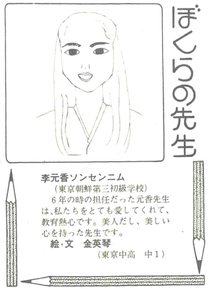
金鉄勝さん（愛知中高・高1）



今年こそ優勝を



ぼくらの先生



李元香ソンセンニム
（東京朝鮮第三初級学校）
6年の時の担任だった元香先生は、私たちをとても愛してくれて、教育熱心です。美人だし、美しい心を持った先生です。
絵・文 金英琴
（東京中高 中1）

우리 말과 글을 배워 공화국
창건 40돐을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4월 9일
(음력 2월 23일)
토요일
【루계 제10179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체신 및 방송 부문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5일 체신 및 방송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체신부장인 김영채동지와 관계부문 책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방송부문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200일전투의 승리를 위한 장엄한 로력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방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송사업실태를 료해하시고 여러가지 방송설비들을 돌아보시면서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는 방송부문 일군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방송선전사업을 가일층 개선강화하며 방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송부문에서 200일전투기간에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제시하시고 방송 및 체신 부문 일군들이 이번 전투에서 창조적적극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중국공산당 강소성위원회 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강소성위원회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대표단 단장인 중국공산당 강소성위원회 한배신서기가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전달하였다.

제6차《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평양에서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가 더욱 두터워졌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전례없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있은《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출연한 금강산가극단

4월 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6차《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개막되였다.(～18일)

이 친선예술축전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경축한 1982년부터 해마다 4월 평양에서 진행되여온 세계대예술축전이다.

자주, 친선, 평화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하여 문화예술인들사이의 친선단결, 문화적 교류와 련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이 친선예술축전에는 세계의 유명한 성악, 무용, 기악, 교예배우들과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수많이 참가하고있다.

올해 여섯번째로 막을 올리게 된《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세계 5대륙의 수십개 나라에서 온 수많은 예술단체들이 참가하고있다.

그 가운데는 큰 규모의 합창단으로 구성되는 쏘련예술단도 있고 여러 민족예술로 꾸려진 중국예술단, 여러명의 인민배우, 공훈배우들을 포함한 수십명으로 구성되는 몽골예술단, 이름있는 무용수들로 무어진 유고슬라비아무용단도 있다.

또한 축전무대들에서 이미 친숙해진 마다가스까르 중창단과 꽁고음악단, 파키스탄의 인기있는 가수도 참가하게 된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준비위원회에서는 예술축전개막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외국의 예술사절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치밀히 짜고들어 만단의 준비를 갖췄다.

이번 친선예술축전은 단독공연과 여러 나라 예술인들로 무어진 합동공연, 련환공연으로 진행되는데 예술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축전개막전에 도착하는 나라들은 먼저 공연하기로 하였다.

축전기간 음악, 무용부문 공연은 평양대극장, 평양극장, 봉화예술극장, 중앙로동자회관, 2.8문화회관, 모란봉극장, 철도부회관에서 하게 되며 교예부문 공연은 평양교예극장과 인민문화궁전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함흥, 원산, 사리원, 남포, 안주의 각 지방 극장들에서도 공연하게 된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참가자들은 이번 축전무대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색채가 짙은 음악, 무용작품들과 교예작품들을 공연하게 될것이다.

특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반영한 노래와 춤들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게 될것이다.

평양에서는 꾸바, 민주독일, 로므니아, 벌가리아, 희랍, 볼리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 예술단들이 흠모의 마음을 안고 자신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와 기악곡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노래와 춤들을 피로하게 된다.

꽃피는 4월의 봄명절을 맞는 평양은《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으로 여느때없이 들끓고있다.

【평양에서 본사기자】

4.15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평양에 도착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정준기부총리와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 친척들이 축하단을 맞이하였다.

소년단원이 축하단단장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한편 제6차《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총련 금강산가극단후원회 박정규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후원회 대표단,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박정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녀성대표단도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축하단이 만경대 방문

【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7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축하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비행기사건은 국제적인 모략》

효고의 학자, 문화인 46명이 련명으로 성명

고낭대학 모리 쯔네오학장, 작가들인 오다 마꼬도, 우마베 기시오, 모리야마 유씨, 영화감독 오까모도 요시히꼬씨, 강담사(講談師) 교꾸도 고난료씨를 비롯한 효고현하 일본의 학자, 문화인 유지 46명이 련명으로 4일,《반평화세력의 국제적모략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또다시 조선반도에 있어서 평화를 조성하려는 세계적인 의사의 큰 흐름을 막으려 할뿐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의도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하여 력사가 날조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 여러가지 음흉한 모략이 조선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념원을 억눌러온것을 상기하고는 금번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 역시 제반 경위를 볼 때 거기에는 여전히《국제적모략》의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묵과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대우조선소에서 1만여명 로동자들이 총파업

《로동운동 탄압하는 〈정권〉 타도》

남조선에서 로동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로태우일당을 규탄하는 투쟁이 거세차게 일어나고있다.

경상남도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소 로동자들 1만여명이 1일 생존권과 민주, 민권을 요구하여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한 로동자가《민주로조 만세》를 웨치면서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그들의 투쟁은 극한 양상을 띠고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3일에는 서울지역의 15개 대학 학생들과 13개 로동단체소속 로동자들 5,000여명이 로조탄압중지와 구속자석방 등을 요구하여 반《정부》집회와 시위를 단행했다.

학생들과 로동자들의 공동투쟁, 학생시위 등은 련일 남조선 각지에서 벌어지고있는바 로태우일당은 투쟁에 궐기한 학생에게 최루탄을 쏘아대면서 중태에 빠지게 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번 악행은 로태우역도가 전두환과 하등의 다름도 없는 군사파쑈살인광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끝까지 관철할 불굴의 기세를 보여주었다.

한편 경상남도 거제 대우조선소 로동자 1만여명은 1일 전면적인 총파업에 들어갔다.

로동자들은 총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임금인상촉구대회를 열고 전면적인 작업거부와 시위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임금인상촉구대회가 열리고있을 때 대회장 단상에서는 박종일로동자가《민주로조 만세》를 웨치면서 분신자살을 기도하여 대회참가자들로 하여금 로동자들이야 죽건말건 억압과 착취만을 일삼는 로태우일당과 악질기업주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함께 생존권과 민주, 민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불굴의 투지로 더욱 끓어번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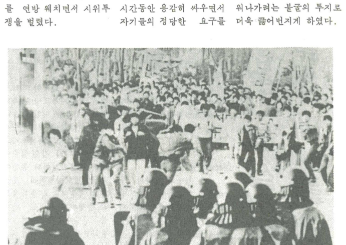
서울에서도 15개 대학과 13개 로동단체소속 로동자들 5천여명이 반《정부》집회와 시위

서울에서 전하는 외신과 방송보도들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15개 대학 학생들과 13개 로동단체소속 로동자들 5,000여명이 로조탄압중지와 구속자석방 등을 요구하여 3일 반《정부》집회와 시위를 단행하였다.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 로천극장에 모여든 로동자들과 학생들은 남조선로동자결의대회를 가지고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로동자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을 단죄규탄하면서 로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며 구속자전원을 석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약 4시간동안에 걸쳐 진행된 대회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거리에 떨쳐나가 민주주의와 로조 인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연방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벌렸다.

시위자들은 폭압에 미쳐 날뛰는 폭동진압경찰에 격렬한 투석전으로 맞서 1시간동안 용감히 싸우면서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투경찰대와 맞서투쟁하는 대학생들(2일 연세대에서, 로이터 산 제공)



총파업을 단행한 대우조선소 로동자들
(로이터 산 제공)

보라! 로태우역도의 야수적본성을!

최루탄을 명중시켜 대학생을 중태에…

군사파쑈살인광 로태우역도는 괴뢰경찰을 시켜 반《정부》투쟁에 궐기한 한 학생에게 최루탄을 명중케 함으로써 중태에 빠뜨리게 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이 만행은 7일 오후 충청남도 대전시의 한남대학교 4학년 오재록학생에게 가해진것이다.

이날 이 대학 학생들은《로동운동탄압 저지》등 힘찬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벌리였다.

로태우역도는 괴뢰경찰을 탄압에 동원시켰는바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이 이 학생의 머리에 맞은것이다.

오재록학생은 최루탄을 맞은후 부근병원에 이송되여 두뇌의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에 빠지고있다고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군부독재자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의로운 투쟁에 궐기한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인민들에게 야수적탄압을 가해왔다. 그 야수적수법의 하나가 고문살인만행이고 또 다른 하나가 시위궐기자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행위이다.

특히 작년 6월 9일에는 연세대학교 리한렬학생이 시위도중에 최루탄을 머리에 맞아 사경을 헤매이던 끝에 7월 5일 끝내 희생당하는 참사가 일어난것은 기억에 생생하다.

이는 6월인민항쟁의 또 하나의 기폭제로 되였는바 로태우역도의 이번 만행은 군사파쑈분자들의 야수적 본성은《민주화》의 허울좋은 간판으로써는 숨길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북남 련석회의와 학생회담을 실현시켜 민족화해의 돌파구를!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구국의 견아가 되자

(두 대학 학생들의 발기)

학생대표회담 (6월 10일, 판문점에서)

- 국토종단대행진 (8월 1일~8월 14일) 북 백두산→판문점←한나산 남
- 남북조선청년학생체육대회 (9월 15일~9월 17일)
- 이 밖의 관심문제들을 협의



구국의 일념에 불타는 우리 젊은이들의 발기는 실현되여야 한다

김책공업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담화를 발표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김책공업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과 평양의 두 대학교 학생들이 서로 발기하고 호응하면서 민족화해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뜻을 표명한것과 관련하여 6일 이를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나는 서울과 평양의 두 대학교 학생들이 서로 발기하고 호응하면서 민족화해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뜻을 표명한데 대하여 우리 대학 전체 학생들의 이름으로 쌍수를 들어 지지환영하면서 민족의 찬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일을 하고있는 그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서울대학교 학우들이 북과 남의 대학생들에게 민족화해를 위한 사업의 앞장에 나설것을 제기하고 그에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적극 호응한것은 나라와 민족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우리 젊은 세대들의 사명과 임무로 보나 특성과 기질로 보아 매우 정당한 애국적발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군사파쑈도당은 북남학생회담을 제의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해 수사를 벌리고 탄압하려 하고 있을뿐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북남학생회담제의에 호응하여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해주는것마저 거절하면서 《비생산적인 일》이니 뭐니 하면서 악의에 찬 비방을 늘어놓는 심히 그릇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로태우괴뢰도당이 청년학생들의 애국충정을 모독하고 민족화해를 반대하는 2중3중의 죄악을 저지르고있다는 증거로 된다.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이 민족화해를 위하여 행진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자는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죄로 될수 없다.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만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협상을 하자고 하는것도 거부하고 대학생들이 회담을 하자고 하는것도 반대하는것으로 보아 로태우괴뢰도당에게는 애당초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실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남조선통치배들이 진심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이제라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애국적발기를 범죄시하지 말고 그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며 북남학생회담과 북남련석회의가 실현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김책공업대학 학생위원회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모든 대학생들이 북남학생회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억세게 싸워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겨레의 숙망을 담은 획기적인 애국발기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

공화국의 북남련석회의 소집제안에 남조선의 사회민주당 당수가 공개적으로 동의를 표시해나서는 등 지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열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남조선의 사회민주당이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동의를 표시해나선것과 때를 같이하여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후보가 북과 남에서 각각 《민족화해를 위한 국토종단순례대행진》을 벌릴데 대한 문제를 호소한것은 그와 같은 열망이 날마다 앙양되여가고있음을 증시해주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비행기↙ ↘실종사건과 관련한 악랄한 모략책동 등 긴장격화와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괴뢰악당의 책동이 더더욱 우심해지고있으나 이것으로써는 결코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할수 없으며 민족통일에로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도 ……○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과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통일문제해결의 직접적당사자인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남조선정세,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밝혀주신 방안들은 현시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도로 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북남사이에서 몇가지 당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1988년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신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당면하여 《팀 스피리트》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 중지문제와 다국적군축회담개최, 제24차올림픽공동주최와 비방중상 중지문제 등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쌍방 당↗ ↘국이나 특정정당의 리해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과 정치세력을 포함한 온 민족의 공동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북과 남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의 의사를 집대성하여야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거듭하였다.

지난 1월 13일에는 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 정당, 사회단체련합회의를 열어 북남련석회의의 예비회의를 2월 19일에 가질것을 제기하였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허담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측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괴뢰도당이 이를 외면하자 3월 8일에도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예비회의를 3월 28일에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 박해를 박차고 화해와 통일의 길로 ……○

그러나 괴뢰악당은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이른바 《국론》을 분렬시키고 《정치사회적혼란》을 획책하는 《위장평화공세》라고 악랄하게 헐뜯는가 하면 90년대초에 가서 남북대화가 재개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특히 괴뢰들은 우리 나라가 북남련석회의 예비회의를 가질것을 제안(1월 13일)한 이틀후인 15일에 남조선비행기사건과 관련한 그 무슨 《수사결과》란것을 조작, 발표하는 모략소동을 일삼았다.

괴뢰들은 이를 구실로 공화국북반부를 악랄하게 공격하는 한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여나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격화에로 끌고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동으로써는 결코 내외여론을 기만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요구를 가로막을수는 없다.

지난 3월 26일 남조선사회민주당의 권두영위원장이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북남련석회의개최제안을 원칙적으로 수락한다고 밝히면서 《본인은 북남련석회의개최실현이 남북한 민족에게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였다.

괴뢰악당이 통일이라는 말만 하여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처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마당에 남조선의 야당 당수가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북남련석회의제안에 동의를 표시해나선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념원하는 인민들의 뜨거운 열망의 반영으로서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괴뢰악당은 악랄한 모략과 전쟁 소동으로 대화를 방해할것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공화국의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당장 응해나서야 한다.

목소리

화해와 단합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가 시작되여 수수 40여년. 이 어간에 우리 민족은 얼마나 쓰라린 고통과 불행을 겪어왔던가. 우리 겨레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춘풍추우 기나긴 세월 통일된 삼천리금수강산에서 부모형제 한데 모여 희희락락 살아가기를 일일천추로 고대해왔다.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뜨거운 열망을 반영하여 분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을 수많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공화국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고 이 구국방안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려왔다. ▼이 새로운 구국제안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 시기적절성으로 하여 해내외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지지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파쑈광풍이 휘몰아치는 남녘땅에서도 얼마전에 사회민주당 위원장이 북남련석회의소집제의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통일열망이 뜨겁게 굽이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북과 남의 청년학생대표들의 회담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민족화해를 위한 국토종단순례대행진》을 벌리며 남북조선청년학생체육대회를 가질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과 조국통일에 대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념원이 얼마나 절절하고 뜨거운것인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우리는 이 제의를 민족적 화해와 단결에 유익한 애국적발기로 인정하고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한다. ▼그러나 로태우파쑈도당은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을 《법의 위반》운운하면서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반민족적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파쑈탄압도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열망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기어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의 문을 열어놓고야말것이다.

일조문제쎄미날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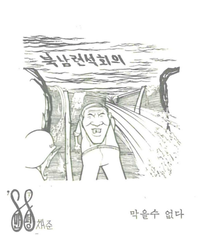
《최근의 일조문제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도찌기

지난 3월 28일 우쯔노미야의 도찌기현청년회관에서는 도찌기현하 각계 일본인사들 140여명의 참가밑에 일조문제쎄미날 《최근의 일조문제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에 대하여》가 진행되였다.

먼저 연설한 총련 도찌기현본부 조길수위원장은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미일남조선의 정치적결탁을 짓부시고 조일친선의 뉴대와 련대를 더욱 강화할것을 강조하였으며 도찌기현로조회의 세끼모도 고이찌재정국장은 국제적인 모략극을 분쇄할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이날 강연을 평론가 가지다니 요시히사씨가 했다.

강연에 이어 기록영화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되였다.



막을수 없다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을 실현시켜 통일구국력사의 새 장을 열어나가자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편지를 보낸것과 관련하여

재일본조선학생위원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이 공동성명 발표



지난 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편지를 보낸것과 관련하여 재일본조선학생위원회와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은 6일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지난 3월 30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국토량단의 비극을 가시려는 념원으로부터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을 열데 대하여서와 청년학생들의 국토종단대행진과 체육대회를 가질것을 제기한데 대하여 4월 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이에 적극 호응하는 편지를 방송을 통하여 보내였다.

북과 남 학생들사이에 오가는 애국충정 넘치는 이 발기와 동의에 접한 전체 재일조선학생들은 커다란 기쁨과 흥분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발기하고 서울의 10여개 대학 학생들의 한결같은 지지호응을 받고있는 이번 제기는 민족적화해와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절실한 념원을 담은 것으로서 그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천만번 정당한 제의이다.

전체 재일조선학생들은 이번 제의를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애국애족의 열정이 넘치는 발현으로 인정하면서 쌍수를 들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한다.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이 개최되고 판문점에로의 대행진과 체육대회가 실현되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는것으로서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밝은 희망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민족이 분렬된지 40여년, 현해탄에 피눈물을 뿌리며 일본으로 끌려온 우리 부모들이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한채 이국땅의 이슬로 사라진것만 하여도 억울하기 그지없는데 오늘은 우리 젊은 세대들까지 국토분단으로 하여 청춘의 희망도 포부도 마음껏 꽃피우지 못하고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남녘학우들의 애국의 지성이 깃든 이 용감하고 지당한 새로운 발기에 대하여 로태우괴뢰도당은 가증스럽게도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탄압해나서고있으니 우리 어찌 격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는 입으로는 《민주화》요 《민주화합》이요 하는 비단같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민주화도 통일도 안중에 없고 오직 분렬과 대립만을 추구하면서 이번 청년학생들의 애국충정이 넘치는 발기마저 짓밟는 로태우도당의 반민족적이며 반민주적인 정체를 뚜렷이 드러내놓은것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로태우도당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매국과 분렬을 일삼는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실현을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재일조선학생들은 북과 남의 학생들과 어깨겯고 통일구국의 력사에 새 장을 열어놓게 될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사상과 단체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단산하 청년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젊은이답게 통일구국의 한대오에 서서 북과 남의 학생들의 애국애족발기를 실현하는데 적극 합류해나설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우리들은 북남학생들이 마주앉는 대화합의 마당을 마련하며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며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청년학생들속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여론을 크게 높여나갈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은 성숙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북남 련석회의와 학생회담 실현을 위하여 나설 때이다.

범죄자들을 리용하여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월경도주한 범죄자들을 반공화국선전에 리용하려는 괴뢰들의 책동을 놓고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남조선괴뢰들이 세계의 면전에서 또하나의 비렬한 행위를 저지르고있다.

괴뢰들은 지난해 10월에 범죄를 저지르고 공화국북반부로부터 월경도주하여 밀선을 타고 필리핀에 가있던자들 2명을 최근 남조선에 끌어다놓고 《망명》이요 뭐요 하면서 반공화국선전에 써먹고있다.

놈들은 지금 괴뢰안전기획부를 비롯한 정보모략기관에 소속된자들로 무슨 《특별조사반》이라는것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놀음을 벌리며 새로운 음모를 꾸미려고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반공모략과 대결에 환장하여 리성을 잃은 괴뢰불한당이 아니고서는 감히 할수 없는 철면피하고 너절한 행동이다.

괴뢰들이 쓸개빠진 범죄자들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진실을 밝히지 않을수 없다.

먼저 명백히 할것은 괴뢰들이 끌어간 김창화, 어성일이라는 두명의 범죄자들은 인간사회에서 용납될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자들이라는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자들이다. 생활에서 걱정을 몰랐고 마음껏 배우고 일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자들은 일신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갖은 추잡한 비행을 례상사로 저질렀으며 그것으로 하여 자기들이 속해있는 학교와 공장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되였다. 직업이 다르고 경력도 같지 않은 이들이 한짝이 된것은 둘이 다 꼭같은 인간쓰레기였기때문이다.

처자까지 있는 이자들은 지난해 10월초에 함께 작당하여 깊은 밤중에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외따른 고개길에서 지나가던 한 처녀를 막무가내로 겁탈하려 들었으며 대상이 소리치며 반항한다고 하여 가슴을 흉기로 마구 찌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강간살인미수범으로 법기관의 추적을 당하게 된 이 범죄자들은 드디여 국경을 넘어 도주하게 된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자들은 인간의 면모를 이미 상실한 패덕한들이고 마땅히 우리 공화국의 법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할 범죄자들이다.

이런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다놓고 반공모략선전의 미끼로 써먹는 괴뢰들이야말로 범죄자이상의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이 아닐수 없다.

미국침략자들과 같은 승냥이무리들이 도사리고있는곳에 인간이 되기를 그만둔자들을 끌어다 안식처로 제공하는것은 남조선괴뢰들만이 할수 있는 놀음이다.

괴뢰들이 인간쓰레기들이나 끌어다놓고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원래 해방직후부터 뜻있고 의롭게 살려는 남조선 사람들이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고 공화국의 품을 찾아왔다면 반대로 남조선에는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고 외래침략자들에게 빌붙어 매국행위를 한자들과 부정부패를 일삼은자들이 모여들어 서식하여왔다.

괴뢰들은 비렬하고 유치한 행위에 매여달릴수록 남조선이야말로 범죄자들의 은신처이고 저들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이게 될것이다.

학생수 80년대 최고실적

새학년도를 맞은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학생, 교원, 학부형들의 얼굴마다에 넘쳐나는 기쁨과 포부는 하나로 이어져



조국과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희망동들은 학부형들과 교원들의 커다란 기대와 사랑 속에서 뜻깊은 입학식에 참가하였다.

《입학식이라니 애들보다 우리 부모들이 더 긴장하고있지요.》

리규자어머니의 말을 되받아 조명화어머니도 《우리가 배우고 자란 마당에서 오늘은 자기 애가 배우게 되였으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애들이 학교에서 더 잘 배우도록 돌봐주어야 하며 학교건설사업이 제기되면 적극 협력해나가렵니다.》(손영희어머니)

올해 첫애를 우리 학교에 입학시킨 어머니들의 말마디엔 형언못할 기쁨과 희망이 넘쳐난다.

4월 5일, 아침결에 내리던 봄철의 비도 멎고 훈훈한 바람이 부는 입학식날,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는 례년보다 훨씬 많은 신입생, 편입생들을 맞은 기쁨을 안고 달려온 수많은 동포학부형들로 흥성거렸다.

입학식을 앞두고

입학식을 하루 앞둔 날 이곳 학교 기숙사는 벌써 돌아온 재학생들로 여느때 없이 소란스러웠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감교원한테 새학년도 첫인사를 하는 학생들.

《아직 최고학년이 되였다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래일이면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놀아야 할 역할도 높아집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의 심정을 돌이켜보고 후배들을 잘 돌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생들을 맞는 준비사업을 위해 저녁 9시에 기숙사지부위원회를 가지고 여러 문제들을 자세히 토의하던 박구대(고3), 박애선(고3)학생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재미있으면서도 원칙↙ ↘을 세워 규칙적인 기숙사생활을 누려나가도록 하자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기숙사지부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석성철학생(고3)도 자기의 결의를 들려주었다.

입학식이란 신입생, 편입생들에게만 새로운 출발이 되는것이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학창생활에서 큰 계기가 되는것 같다.

또한 그것은 학생만이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해에 새로 들어오게 되였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학생수가 불어나 고1학급이 하나 많아졌으니 내가 담임을 하게 되였지요.》

올해 조선대학교 외국어학부를 졸업하여 이곳 학교에서 고급부 영어와 중급부 일어 수업을 맡게 된 조창렬교원은 래일부터의 새학년도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교수안을 작성하고있었다.

입학식전야는 이렇게 교원들과 재학생들의 새로운 기대와 포부를 안고 점차 깊어져갔다.

입학식장에서

군마, 도찌기, 니이가다, 야마가다, 즈찌우라…

교문에 들어서는 자동차들의 번호들은 여러 지역에서 모여오는 이곳 학교의 특징을 보여주는듯하였다.

《신입생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1988학년도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입학식장》

입구 량옆에 씌여진 구호를 보면서 식장에 들어섰다.

입장시간을 기다리고 입구앞에 줄지어선 신입생, 편입생들.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동포학부형들이 속속 모여들어 식장은 꽉 메워졌다.

《신입생 입장!》

구령에 따라 신입생들이 입장하였다.

고급부, 중급부, 초급부.

그들의 가슴가슴에는 꽃들이 그리고 손엔 이곳 학교《어머니회》에서 마련한 한송이 꽃이 쥐여지고있다.

긴장된 안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가슴펴고 입장하는 신입생들의 모습에 장내가 터질듯한 박수소리가 울려퍼지고 《야, 귀엽다》, 《똑똑하다》는 동포들의 환호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신입생, 편입생들이 한명한명 호명되였다.

자기의 이름이 불리우면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하고는 그자리에 서는 학생들.

《올해는 많구나―》

뒤켠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다.

100명을 넘는 학생들이 호명되였으니 그럴듯도 하다.

호명된 학생속엔 얼마나 긴장했던지 한 동무의 호명에 두 학생이 일어서는 장면도 있어 동포, 학부형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교과서 전달, 축전과 축하문 소개, 김광성교장의 연설 등.

입학식은 순차에 따라 때로는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어느때는 웃음이 터지는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예정대로 진행돼나갔다.

입학식이 끝난후 매개 단위를 책임지게 된 교원들과 각 담임교원들이 소개되였다.

《고급부 ○학년 ○반 ○○선생님》

《와―》, 《야―》

학생들은 제각기 자기 예상과 비추어보면서 환호성을 올린다.

독특한 입학식풍경이 가슴을 흐뭇하게 해준다.

새학년도가 드디여 시작했다는 실감이 난다.

《이역에서도 애들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키우자고 초급부 1학년으로부터 기숙사에 넣고 민족교육을 시킨 내 아들이 이제 고급부생이 되였다니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 기쁩니다. 이제까지 아들들을 돌봐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가슴이 넘쳐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하겠다고 당부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고3, 고2로 되고 올해 조카가 고급부에 입학하게 되였다는 니이가다에서 찾아온 안영애어머니의 감명깊은 말이다.

《역시 애들은 조선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올해부터 우리 학교에 편입시켰습니다.

학교가 창립된후 35년이 지나 교사도 솔직히 말해서 좀 낡아졌다는 감이 들지요. 앞으로는 학부형으로서 학교건설사업에도 될수록 협력해나가자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올해에 새로 아이들 2명을 초급부 4학년과 중급부 1학년에 편입시킨 장해선어머니의 말이다.

이날 입학식장에서는 동포들의 이러한 뜨거운 감상들을 여기저기서 들을수가 있었다.

《물론 우리 학교가 최근년간 해마다 〈공부를 잘하는 모범학교〉의 영예를 지닌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동포들속에서 민족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온것이 하나의 결실로 맺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들어온 사실은 그만큼 동포들속에서 학교사업에 대한 리해가 깊어졌다는것을 말해주고있지요.》

이곳 학교 김광성교장은 학생수가 80년대의 최고실적으로 된 요인을 이렇게 말하였다.

81년도에 기록한 최고학생수를 올해 이 학교는 20명 가까운 신입생, 편입생들을 받아들여 10명이나 갱신하였다.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고, 학생수가 불어난 더없는 기쁨을 안고 새학년도가 시작되였다.

(본사기자 진상부)

《하루영업부장의 날》 실시

예금증가운동 목표 달성

조은아이찌신용조합

본점신축이전 1돐을 기념하여 예금증가운동(2월 1일~3월 31일)을 힘차게 전개한 조은아이찌신용조합 본점에서는 3월 26일, 《하루영업부장의 날》을 실시하였다.

예금증가운동기간 자기앞에 내세운 예금, 적금 증가목표를 달성하는데서 획기적전진을 가져오자는 취지로 실시된 《하루영업부장의 날》.

빈틈없는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기념영화상영, 예술공연, 안성우동포의 요술 등 각종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이날 사업을 통해 이곳 조합은 자기앞에 내세운 목표를 원만히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47명이 하루영업부장이 되여 450명을 동원한 결과 각종 예금구좌가 많이 늘어나 7억 6천 4백만원의 예금액을 확보하였으며 이곳 조은은 예금증가운동기간 9억 5천 8백만원을 더 증가하였다. 【조은아이찌】



《하루영업부장의 날》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기념사진을 찍는 일군들



한거레선생

전철

남조선비행기사건과 관련한 모략책동을 규탄

◦후꾸이현에서 시민의 모임◦

후꾸이현에서 남조선비행기사건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이 지난 3월 29일, 현교육쎈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84명이 참가하였다.

강연에서는 야마까와 아끼오씨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면서 남조선괴뢰도당들이 왜 그런 모략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일본시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총련의 투쟁에 어떻게 련대하겠는가 등을 이야기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이 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말하면서 모략을 짓부셔나가자고 서로 다짐하고있었다.

이날 남조선비행기사건에 대한 항의성명이 채택되였다.

【후꾸이지국】

주간일지

3월 30일 (수)~4월 5일 (화)

북반부

31일(목)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우리 나라 주재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가 신임장을 봉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완공된 평양국제문화회관을 돌아보심. ◆조선사회민주당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여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이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는 용단을 내리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지적.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창덕학교에 입학하신 65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2일(토). 제주도인민들의 4.3봉기 40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3일(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룬디정부 공보대표단을 접견하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여 재일조선인출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일본재입국신청을 거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

4일(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시내 중요대상건설장을 돌아보심.

5일(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 진행. ◆위대한 수령님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를 영접하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체신 및 방송 부문 사업을 지도하심.

재일동포

1일(금) 올해 첫 단기조국방문단을 태울 《삼지연》호가 고베항에 처음으로 입항.(4일에 출항) ◆총련중앙 김기철사회국장이 재일조선공민출신 대의원들의 재입국허가를 거부한 일본당국의 처사에 항의하는 담화를 발표. ◆총련 각급 학교들에서 1988학년도 입학식 진행. ◆공화국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 철회와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회가 도꾜를 비롯한 각지에서 진행.(~6일)

5일(화) 위대한 수령님 탄생 76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국을 향하여 떠남.

남조선

30일(수) 괴뢰도당,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항공기비상활주로리착륙훈련 감행.

31일(목)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학생 200여명, 괴뢰도당과 대학당국의 교육방해행위를 반대하여 시위 전개.

2일(토) 광주의 대학생 50여명, 반《정부》시위에 떨쳐나서 괴뢰경찰파출소들을 공격.

4일(월) 전주에 있는 경상대학 학생 2,500여명, 교내에서 농축산물수입반대및폭력경찰규탄대회를 가진 다음 치렬한 시위투쟁 전개. ◆서울의 외국어대학 학생 1,500여명, 군사교육의 철폐 등을 요구하여 시위투쟁 벌림.

국제

30일(수)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서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진행.

31일(목)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지, 전경환의 부정협잡사건과 관련한 로태우도당의 립장을 폭로.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4월 11일 (음력 2월 25일) 월요일 【루계 제10180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각국 대사들이 신임장을 봉정

인도네시아대사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사나지가 7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신임장봉정식에는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 관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임장을 받으신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시였다.

짐바브웨대사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우리 나라 주재 짐바브웨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니콜라스 타수능구르와 고체가 7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신임장봉정식에는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짐바브웨공화국 대사관 관원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임장을 받으신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 폐막

1988년 국가예산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가 상정된 의안을 성과적으로 토의하고 7일에 폐막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양형섭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이에 앞서 6일에 제2일회의가 진행되였다.

제2일회의에서는 의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였다.

강희원대의원, 김병길대의원, 황인섭대의원, 신창열대의원, 김월선대의원, 리창길대의원, 김경봉대의원, 최한춘대의원, 박근수대의원, 최정림대의원, 최현기대의원, 정두찬대의원, 지정애대의원, 홍원표대의원, 정철수대의원, 로정희대의원이 회의에서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근로자들이 제3차7개년계획의 첫해과업 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지난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1988년 국가예산이 올해 대건설행군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정확히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관련기사 4면)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진행

아테네에서

65개국, 8개 국제기구 대표 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서 3월 30일에 개막되였던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4월 1일 폐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일을 인류공동의 경사로 경축하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열렸던 이번 주체사상국제토론회는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이하고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력사적위업 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국제회합이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65개 나라와 8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82개의 대표단과 대표들, 세계의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들과 과학, 교육, 문화, 언론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대학교 박용곤부학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사회과학자대표단, 미국캘리포니아종합대학 교수이며 조국통일북미주협회 회장인 박사 양은식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동포학자대표단 그리고 희랍의 각 지역에서 온 50여명의 각계인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토론회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독창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지금 세계가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두렷이 보여주었다.

4면에 이음

서울대학교 수원분교에 대자보로 나붙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보낸 편지가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북과 남의 청년학생대표들의 회담을 가질데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제의를 지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지난 4일 방송을 통하여 보낸 편지가 서울대학교 본교에 이어 수원분교에도 대자보로 나붙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명의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답전형식의 편지를 게재한 대자보가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생회관 게시판에 나붙었다고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 박관오의 명의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보내는 편지》와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된 이 대자보는 활자로 인쇄되여있으며 발신날자와 발신지는 《1988년 4월 4일 평양》으로 되여있다고 한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6일에는 같은 내용의 편지가 서울대학교에 나붙어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 속에서 자주, 민주, 통일 기운이 높아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북과 남의 청년학생대표들의 회담을 열데 대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발기를 지지하여 보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의 편지가 련속 게시되여 학생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한덕수작사가요선곡집

《백두산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 출판기념모임이 있었다

한덕수작사가요선곡집 《백두산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 출판기념모임이 문예동중앙의 주최로 8일 저녁 조선회관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출판기념모임에는 총련중앙 한덕수의장과 리진규제1부의장 리계백, 서만술, 신상대, 허종만, 리말상, 배병두, 전연식부의장들과 권순휘사무총국장, 각 국장들, 간또지방 총련본부위원장들, 단일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문예일군들, 상공인유지들, 간또지방 고급학교 교장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한덕수의장은 총련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매우 바쁜 속에서 애국운동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 시와 가사창작에 많은 힘을 돌려왔으며 특히 가사창작에 깊은 의의를 부여하여 오늘까지 140여편의 가사를 창작발표하였다.

총련애국사업의 훌륭한 예술적기록으로 되는 이 가사들은 조국과 총련의 작곡가들에 의하여 100여편이 작곡되여 재일동포들은 물론 조국인민들 속에서도 널리 애창되고있다.

문예동중앙이 엮어낸 이번 선곡집에는 이 노래들중의 85편이 들어있으며 조선음악사에서는 이를 카세트록음테프로 내놓았다.



한덕수작사가요선곡집《백두산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출판기념모임

모임에서는 먼저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문예동중앙상임위원회의 꽃다발이 작사자인 한덕수의장과 부인에게 증정되였다.

모임에서는 문예동중앙 최동옥상임고문이 본가요선곡집을 엮어낸 취지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한덕수의장이 지은 가사들의 사상예술적특징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한후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귀중한 문화적재산이며 애국운동의 힘있는 무기로 될 본서 간행의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한덕수의장이 연설하였다.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극진한 배려와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이번에 이 노래집과 카셋트를 내놓을수 있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열렬한 감사를 드리였다.

이어 한덕수의장은 이번 가요선곡집을 발행하는데 힘써준 여러 동지들에게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였다.

한덕수의장은 청소년기에 성악가가 될 희망을 안고있었다고 회고한 다음 자기가 지은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따라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을 개척해나가는 총련애국사업의 벅찬 현실이 있었기때문에 나올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정치활동과 시, 가사의 창작활동은 언제나 하나로 잇닿아있었다고 하면서 가사들에 깃든 뜻깊은 사연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리진규제1부의장이 축사를 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먼저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가요선곡집의 간행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한덕수의장이 총련 전반사업을 보는 그 바쁜 나날에 정력적으로 지어낸 가사들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한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랑,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넘쳐흐르고있다고 리진규제1부의장은 말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재일동포들은 물론 조국인민들속에서도 널리 사랑받고있는 한덕수의장의 가사들은 노래로 엮어진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록이고 충성의 력사이며 재일동포들의 불같은 애국애족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면서 이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랑스럽고 귀중한 정신적재부이며 력사와 더불어 길이 남아 재일동포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고무자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대학교 남시우학장과 상공련합회 려성근부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그들은 한덕수의장이 지은 노래는 총련애국사업의 커다란 무기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내내 건강한 몸으로 더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려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의 각급기관과 문예동지부들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모임에서는 금강산가극단 성악부와 기악부 성원들이 출연하여 한덕수의장이 지은 노래를 상연하였다.

전남지역의 대학생들이 평화통일대행진 전개

16개 대학 2,000여명 학생들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등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의 16개 대학 학생 2,000여명이 7일 새로 구성된 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범식을 가지고 시위를 단행하였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조선대학교 종합운동장에 모여 출범식을 가진후 평화통일을 위한 대행진을 벌리기 위하여 대오를 짓고 정문밖으로 진출하였다.

파쑈도당이 수많은 경찰을 이 대학 주변에 배치하고 최루탄을 미친듯이 쏘며 폭압에 광분하자 분노한 학생들은 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였다.

학생들은 교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면서 2시간동안 시위를 단행하였다.

일본당국에 《제재조치》철회를 요구

각지 총련대표들

일본당국이 남조선비행기사건과 관련시켜 공화국에 대한 이른바 《제재조치》를 선포한후 일련의 규제조치를 계속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각지 총련대표들이 일본당국에 대한 항의요청행동을 일제히 벌리고있다.

8일, 총련 도꾜도본부 하기옥부위원장을 비롯한 총련대표들은 일본외무성을 찾아가 일본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철회하며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규제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대표들은 일본당국이 공화국의 여러 대표단과 선원들의 상륙을 규제하였을뿐아니라 재일동포들에 대하여까지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종전의 관례마저 무시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항의하였다.

한편 대표들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파괴, 폭력 행위가 계속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외무성당국에 《제재조치》철회를 요구하는 총련 도꾜도본부관하 대표들

자주화실현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평화와 자주의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학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한스 클레카츠키리사장의 보고

3월 30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한스 클레카츠키가 《주체사상은 평화와 자주의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학설》이라는 제목의 보고를 하였다.

그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서 이 기간 주체사상이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 자주와 평화 위업수행에 이바지하여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평화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에로 가는 길

그는 오늘 인류가 세계를 열핵전쟁의 도탄속에 몰아넣겠는가 아니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함으로써 이 세기말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전인류가 다같이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게 되겠는가 하는 력사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평화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에로 가는 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앞에 나선 가장 긴절하고도 중요한 과업은 침략과 전쟁을 막고 평화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화된 세계는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침략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평화옹호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민들에게 새 세계전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방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것이 기본이다.

오늘 미국은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군비를 늘이고있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 군사기지들을 그물처럼 늘여놓고있다.

그러므로 평화를 귀중히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제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힘에 의거한 침략과 전쟁도발 정책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인민대중에게 전쟁위험의 근원을 옳게 인식시키는 한편 제국주의자들이 준비하고있는 핵전쟁이 얼마나 무모하고 범죄적인가 하는것을 까밝힘으로써 그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나라나 당파들사이에 존재하는 사상적차이를 전면에 내세울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사상적단결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행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 매개 인민들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는것이다.

매개 나라, 매개 지역 인민들은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배치를 허용하지 말며 지금 있는 여러가지 핵무기들을 축감하고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며 특히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과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서는 신식민주의에 기초한 불공평한 현존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발전된 나라들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3세계나라들은 먼저 남남협조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친선과 우의에 기초한 국제적 협조와 단결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남남협조를 하여야 혹심한 빈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벌릴수 있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정치와 사상문화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또한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감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의 불균형을 없애야 한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사회생활이 정상화되고 사회가 빨리 발전하자면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여 물질적재부가 늘어나야 하며 인간개조사업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상과 문화를 지닌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자라나야 하며 사회개조사업이 발전하여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더 잘 실현될수 있도록 사회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큰 힘을 넣어야 할 부문은 어디까지나 인간개조사업이다.

인간개조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관과 사회력사관, 인생관은 인간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과학적인 학설이라고 볼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불균형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정치생활을 바로잡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를 바로잡아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생명과 집단의 생명을 다같이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정치가 자기의 근본사명을 다하자면 마땅히 평등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집단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나가야 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바로 정치에서 평등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와 단결의 원리를 결합시켜 개인의 자주성과 집단의 자주성을 다같이 실현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평등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와 단결의 원리의 호상관계를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이러한 원리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치생활의 참다운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각하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실뿐아니라 그것을 구현하여 조선인민을 참다운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조선에서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개조하는 3대개조사업이 다같이 균형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이 통일적으로 발전해나가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조선은 주체사상을 낳은 발원지로뿐아니라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복무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주체의 나라로 불리우는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을 널리 보급하는것은 선차적인 임무

그는 자주적인 사상을 널리 보급하는것은 세계평화와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임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의 근본열쇠는 자주적인 사상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바로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류공동의 재부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의 본질적특징과 우월성은 그것이 인간을 세계의 주인, 새 세계의 창조자의 자리에 놓고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밝혀줌으로써 인간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발전과 번영의 길을 명시하여주는데 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이란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인민대중이며 인류이다. 인류만이 세계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인류공동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옹호하는것을 최고목적으로 내세우고있는 전인류의 공동의 리익과 념원에 부합되는 보편적인 사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불평등,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사람의 자주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국제적협조를 옹호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간의 친선과 협조,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은 가장 철저한 국제주의적인 사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할 때에 자기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전환이 일어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앞으로도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주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과업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광범한 대중속에 심어주어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지려면 이 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의 로작들을 연구학습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주석의 로작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일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혁명투쟁에서 쟁취한 경험과 교훈이 총화되여있다.

오늘 주체사상은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정력적인 혁명적실천과 사상리론적탐구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수많은 로작들을 내놓으시였으며 1986년에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심으로써 주체사상발전에 공헌을 하시였다.

보고자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깊이 체득한 사람들의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매개 나라에서 주체는 그 나라 인민대중인것만큼 주체사상선전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의 특성과 리익에 맞게 그리고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모든 진보적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주체사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절실한 의무라고 지적하고 자기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을 지지하며 주체사상이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추동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선언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서 1일 선언이 채택되였다.

선언은 이번 토론회가 새 세계전쟁을 막고 인류를 위기에서 구원하며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한다고 지적하였다.

선언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침략과 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구우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인류를 열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반동세력의 책동을 물리치고 평화를 지키는것이 세계인민들의 가장 긴절한 과업이라고 인정한다.

모든 평화애호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인민들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화를 실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과 반전, 반핵, 평화옹호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제, 사상,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남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자기 운명을 자체로 개척해나가야 할것이다.

선언은 력사의 주인인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류가 창조한 모든 재부들이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고 강조하였다.

선언은 주체사상은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모든 가치있는 사상을 포섭하고 발전시킨 자주적인 사상의 집대성이며 총화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간을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의 지위에 놓는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인류의 운명 개척의 길을 가르쳐주는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은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요구하며 인류공동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옹호하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는 가장 고상한 인도주의사상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협조를 강화할것을 지향하는 참다운 국제주의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바로 이러한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진보적인민들속에서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되고있다.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로작들에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조선인민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모든 귀중한 경험들이 총화되여있다. 우리는 김일성각하의 로작들과 김정일각하의 로작들을 연구하고 보급하는것이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의 기본으로 된다고 인정한다.

자주와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모든 진보적운동을 지지성원하는것은 주체사상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우리는 이 토론회의 이름으로 제국주의, 인종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조국인 조선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과업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며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내놓은 북남련석회의 소집방안을 비롯한 모든 평화제안들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진행되는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인류의 리상은 기어이 이룩되고야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가 있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회 제8차회의가 3월 28일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1987년도 사업총화와 1988년도 사업계획이 토의되였다.

한편 이날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회 제8차회의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또한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참가자들을 위한 주체사상강습이 3월 28일과 29일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 있는 빤떼오스정치학종합대학에서 진행됐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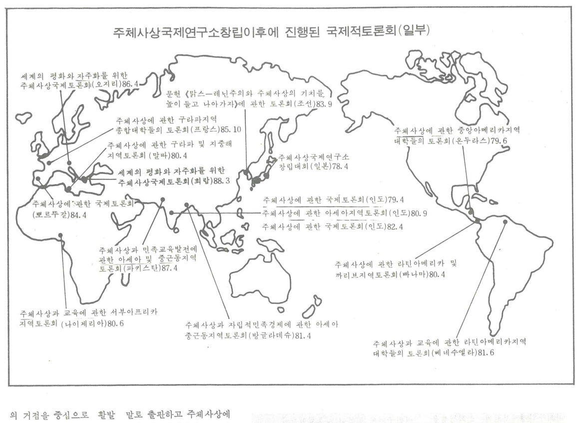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1978년 4월 9일 일본 도꾜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가 성대히 진행됐다.

연구소의 창립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에서 력사적선언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더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지난 10년동안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원하는 세계 수억만 인민대중속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널리 연구보급함으로써 그들에게 현시대의 가장 정확한 지도지침을 안겨주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10년의 로정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

1969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기념일을 계기로 세계도처에서 무어지기 시작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막을수 없는 기세로 중근동, 아프리카,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에 조직되여나갔으며 그 수는 1971년에 벌써 세계 50여개 나라에 120여개를 헤아리게 되였다.

이와 아울러 1960년대말 주로 개별적인 나라들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활동도 1970년대에 들어선후 세계적인 규모로 활발히 조직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12월 레바논에서 진행된 중근동지역 김일성동지의 창조적 주체사상연구토론회를 첫 시작으로 72년 12월 시에라레온, 73년 11월 소말리아, 74년 10월 또고, 75년 10월 페루 등에서 지역적 또는 대륙적인 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세계 수많은 인민들속에서는 하나의 통일적인 연구기구를 내올데 대한 강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76년 9월 마다가스까르에서는 세계 각 대륙의 50여개 나라들에서 온 대표단과 대표들의 참가밑에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과학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그이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를것을 응당한것으로 인정하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김일성주의로 부를것이 대회선언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그러면서 세계적범위에서 활발해지고있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구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기구(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내올것과 1977년에 주체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국제적인 토론회를 가질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 9월 평양에서는 세계 73개 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들에서 온 89개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가 개최되였으며 1978년 4월 세계적인 규모에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해나갈 중앙적거점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일본 도꾜에 창립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은 현시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따라배우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한 일대 선포로 되였다.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사업에 크게 이바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에서 하나의 리정표로 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은 주체사상이 세계 진보적인민대중의 꺾을수 없는 의지로, 그들의 손에 장악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됨으로써 매개 나라별, 지역별로 분산적으로 전개되던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이 통일적으로 하나의 거점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됨으로써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헌과 지시들이 더욱 널리 보급되게 되고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 강연회, 학습회 등이 체계적으로, 계통적으로 조직되게 되였다. (지도 참조)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주체사상연구사업을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방조하며 거기서 이룩된 경험, 교훈, 성과를 널리 교환하는 등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국제적범위에서 조직화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는 창립이래 《백봉문고》(일어판)와 기관잡지 《주체사상연구》를 5개 나라말로 출판하고 주체사상에 관한 리론적파악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활동으로 하여 1970년대에 이어 80년대에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 과학성이 널리 보급되여나갔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이 국한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른바 《선진》자본주의나라들의 학자들속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에 아세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라틴아메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소,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구라파지역주체사상연구학회 등이 결성되였으며 그에 따라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이 세계적규모에서 하나의 체계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직지도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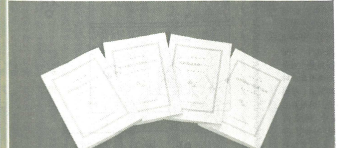
그리하여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지역적 및 나라별 연구조직들의 유기적인 련계속에서 심화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로 올라서게 되였다.

지난 3월 28일에 진행된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회 제8차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총화되였으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연구보급사업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토의결정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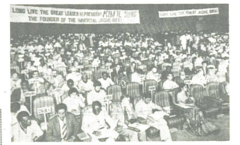
세계 수억만 인민대중에게 현시대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널리 연구보급해나가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크게 이바지해나갈것이다.



1978년 4월 9일에 진행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



53호를 헤아리게 된 《백봉문고》



1979년 인도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



1984년 리스봉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



1987년 일본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강연회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보급선전에 크게 기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백봉문고》가 53호에 이르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는 창립이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고전적로작들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문헌들에 대한 출판보급사업을 꾸준히 벌려왔다.

《백봉문고》(일어판)로 출판되고있는 이 소책자가 창립 10돐을 맞는 이 시기에 53호를 헤아리게 되였다.

《백봉문고》에는 영생불멸의 김일성주의의 심오한 사상, 리론, 방법과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에 제시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강령적교시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헌들이 수록되고있다.

이와 함께 문고에는 두분의 저작들을 해설한 일본의 전문 연구자, 학자들의 글이 게재되고있다.

또한 문고에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조선의 자랑찬 성과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편집되고있다.

《백봉문고》가 50호를 넘어 53호를 헤아리게 된것은 일본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력사적론문들을 따라배우며 자주의 길따라 나아가려는 일본의 광범한 진보적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것으로 된다.

《백봉문고》는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을 늘이며 조선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깊여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한편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기관리론잡지 《주체사상연구》도 40호를 헤아리게 되였다.

여러 지역에 꾸려진 연구소조

아세아

아세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는 1980년 9월 6, 7일의 량일간에 걸쳐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아세아지역연구토론회에서 결성되였다.

결성대회(7일)에는 아세아지역 18개 나라에서 온 68명의 대표들과 함께 인도공화국의 당과 정부의 책임일군들 그리고 각계각층 인사들 1,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연구소는 결성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와 아세아지역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확대하고 지역별, 나라별, 소조별 주체사상연구토론회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연구소에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심오한 원리를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는 여러 선전출판물 발간사업을 전개해왔으며 체계화된 수많은 리론적서적들을 출판하여왔다.

서적들은 네팔, 요르단, 방글라데슈, 레바논 등 아세아지역의 많은 나라들에 널리 보급되고있다.

라틴아메리카

이 연구소는 1978년 2월 17, 18일에 걸쳐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라틴아메리카대륙회의에서 창립되였다.

회의에는 이 지역의 13개국의 정당, 대중단체들의 활동가, 혁명조직 대표, 대학교수, 청년학생 등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연구소는 그 규약에서도 언급된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과정을 인식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며 이를 깊이 연구하는것은 라틴아메리카대륙나라 인민들의 절실한 과제》로 인정하고 《라틴아메리카의 광범한 인민들속에 주체사상을 널리 해설보급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인 학술연구조직》으로서 창립되였다.

그 활동의 중요한 사업으로서는 기관지 《자주의 기치》의 발행과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의 밀접한 련계하에 진행되는 기관리론잡지 《주체사상연구》의 에스빠냐어판의 발행 등이 있다.

아프리카

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1985년 4월 15일 시에라레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진행된 창설회의에서 창설되였다.

창설회의에는 아프리카지역의 15개 나라들에서 온 수많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원회는 현시기 위대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체득하려는 이 지역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 창설되였다.

위원회는 이 지역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과 그 구현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는 지역적거점으로 되고있다.

구라파

학회는 1985년 10월 20일 프랑스 빠리에서 진행된 구라파지역주체사상연구학회 창설회의에서 조직되였다.

회의에는 프랑스, 오지리, 이딸리아, 희랍, 뽀르뚜갈, 말따, 화란, 벨지끄, 룩셈부르그, 단마르크, 핀란드, 스위스, 영국, 서부독일에서 온 40여명의 저명한 학자,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구라파지역주체사상연구학회의 창설은 인간해방의 위대한 학설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심오히 연구학습하고 구라파 여러 나라 인사들의 학술적련계를 강화하고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광범히 교환함으로써 구라파지역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윤기정재정부장의 보고

【평양 4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막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에서는 재정부장 윤기정대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8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와 나라의 자주적재정토대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지난해 국가예산도 성과적으로 집행되였다.

국가예산수입총액은 303억 3,720만원으로서 계획이 100.1%로 넘쳐수행되였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직장들이 새로 수많이 일떠서 조업하고 모든 부문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늘이며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6.3%로 빨리 늘어났다.

국가예산지출총액은 300억 8,510만원으로서 계획에 비하여 99.3%로 집행되였으며 1986년에 비하여 105.9%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지난해 국가예산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제반 시책들의 실현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고도 2억 5,210만원에 달하는 지출에 비한 수입초과를 가지고 성과적으로 결산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은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과업에 따라 1986년에 비하여 인민경제에 대한 자금지출을 107.3%로, 그 가운데서 생산적기본건설투자를 108.7%로 현저히 늘이였다.

공업건설투자가 그 전해에 비하여 109.1%로 늘어나 기간공업부문의 중요대상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규모의 공업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지난해에 태천발전소의 100리물길굴을 뚫는 어려운 공사와 방대한 규모의 송원언제 1단계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태천2호발전소 12만 5,000크바의 첫 발전기조립을 끝내여 전기를 생산하였으며 위원발전소건설, 순천화력발전소건설, 3월17일발전소 3단계공사를 힘있게 추진하였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서호탄광과 서사탄광이 새로 조업하고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대규모 탄광, 광산들의 개건확장공사가 진행되였다.

현대적인 제강소가 새로 일떠섰으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단계확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우리 식의 새로운 제강법에 의한 불수강생산기지와 불수강관생산기지가 꾸려졌다.

국가에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과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난해 화학공업과 경금속공업부문에 그 전해의 1.5배에 달하는 거액의 국가투자를 돌렸다.

단천마그네샤공장확장공사, 운송파쇄사별장건설이 완공됨으로써 마그네샤크링카생산능력은 200만톤수준에 이르렀으며 유색금속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토대를 쌓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단천제련소 1단계건설이 빛나게 완공되였다.

지난해 세멘트공장들의 생산능력확장공사와 새로운 세멘트공장건설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또한 지난해에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희천공작기계공장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안주아닐론방직공장과 만경대애국늄창공장이 건설되였다.

철도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나라의 동서부를 련결하는 혜산—후주, 운봉—자성 사이 250여리구간의 철길이 개통되였으며 여러 구간의 철도전기화공사가 완공되였다. 농촌경리부문에 1986년의 108.9%에 달하는 거액의 국가자금이 돌려져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가 다그쳐지고 방대한 규모의 농업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지난해에 광복거리건설을 비롯한 평양시의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진행되여 수도건설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지난해에 그 전해에 비하여 과학기술발전비지출은 132%로, 교육사업비는 105.8%로, 문화사업비는 101%로, 보건사업비는 104.3%로 늘어났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축감제안을 내놓으면서 1987년말까지 조선인민군장병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축소할데 대한 립장을 천명한후 4개월 남짓한 기간에 그것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국가예산에서 원래 예견하였던 국방건설을 위한 지출도 훨씬 줄여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3.2%를 국방비로 돌렸다.

지난해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3.5%로 넘쳐수행되였다.

보고자는 지난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가예산집행에서 이룩된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198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1988년 국가예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올해 사회주의건설의 중심과업에 따라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대건설행군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나라의 재정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정확히 편성되였다.

올해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총액은 각각 318억 5,21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수입총액은 105%로, 지출총액은 105.9%로 장성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여 지난 40년동안 우리 나라 국가예산수입이 해마다 늘어나 올해 국가예산규모가 1948년에 비하여 200배이상으로 장성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보고에 의하면 1988년 국가예산은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면적앙양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의 107%로 늘이고 올해에도 가장 큰 몫을 기본건설에 돌릴것을 예견하고있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공업건설투자는 111%로, 그 가운데서 동력기지건설투자는 119, 2%로, 금속공업기지건설투자는 115.2%로, 화학 및 경금속 기지건설투자는 122.4%로 늘이게 된다.

전력공업부문에 큰 힘을 넣어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건설, 3월17일발전소 3단계공사를 상반년안으로 끝내며 금강산발전소, 녕원발전소, 희천발전소, 남강발전소, 금야강발전소 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도처에 중소규모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게 된다.

그리하여 올해 상반년안으로 120만크바이상의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고 동력기지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것이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안주, 순천, 북창 지구와 북부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구의 대규모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당면해서는 1,000만톤, 전망적으로는 1,500만톤능력의 현대적인 대규모철광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건설을 밀고나가며 여러 지구 광산들의 확장공사를 다그치게 된다.

국가에서는 올해에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에 계속 화력을 집중하여 비날론 10만톤능력조성공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능력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올해에 신의주화학섬유련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련합기업소 확장공사를 다그치고 안주, 금야, 고참 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구들에 흙보산비료공장을 건설하며 함흥살초제공장, 청년수지마대공장, 금야소금공장을 새로 일떠세우게 된다.

올해에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주체적인 대규모경금속생산기지를 창설하는데서 큰 전진을 가져오게 된다.

올해에 승리자동차종합공장, 희천공작기계공장 확장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여러 기계공장들에 새로운 직장을 더 건설하며 건재공업기지건설도 널리 진행하게 된다.

올해에 우리는 기간공업부문의 중요대상건설을 비롯한 공업건설을 전례없이 큰 규모에서 진행하게 된다.

국가예산은 광복거리와 평양시의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방대한 기본건설자금을 돌릴것을 예견하고있다.

교통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7.4%로 늘이고 철도건설을 더욱 힘있게 벌리게 된다.

올해에 북부철길 제1계단건설을 마저 끝내고 제2계단건설을 진행하며 여러 구간의 새 철길 건설을 다그치고 550여리의 철길을 새로 더 전기화하게 된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의 108%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이 부문에서는 50만정보의 분수식발관개건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계속 힘있게 벌리며 140개소의 저수지와 1,600여개소의 양수장을 새로 더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뜨락또르공급량을 지난해의 1.3배로 늘이며 전력을 더 많이 보내주고 화학비료, 농약 공급량을 훨씬 늘여 전기화의 성과를 확대하고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나가게 된다.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의 107.5%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는데 특히 커다란 발전전망을 가지고있는 바다가양식사업에 큰 힘을 넣게 된다.

올해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더욱 커다란 힘을 넣게 된다.

과학연구사업비와 기술발전비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4배로 훨씬 늘어나게 된다.

공화국정부에서는 특히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 재정적 지출을 늘임으로써 인민경제의 자동화, 전자계산기화, 로보트화를 다그치며 현대 생물학의 성과를 농업과 축산업에 적극 받아들이고 열동력문제를 더욱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게 된다.

올해 국가예산은 문화혁명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사회문화시책비지출을 106.2%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특히 올해에 국가에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4월15일을 맞이하면서 인구의 절반을 넘는 전체 어린이들과 모든 학생들에게 질좋은 옷과 세타, 모자와 내의, 식료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주게 된다.

지난해에 비하여 올해 지방예산수입은 103.1%로, 지방예산지출은 110.9%로 늘어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195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106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385억 5,595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된다.

올해에 공화국정부에서는 미제가 남조선을 계속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는 조건에서도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도 훨씬 적은 자금인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2.2%를 국방비로 돌리게 된다.

보고자는 1988년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언급하였다.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1면에서 이음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이 진지하게 교환되고 앞으로 주체사상 연구보급과 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해나갈 확고한 결의들이 표명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온 대표단과 대표들 65명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4월 15일 탄생일을 맞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그들은 토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공헌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진리성,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그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그것을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리신 빛나는 공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희랍공화국 수상 안드레아스 빠빤드레우각하에게 보내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한스 클레카츠키가 폐회사를 하였다.

토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알림 독자들에게

4월 16일 《조선신보》는 휴간입니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朝鮮文化講座(第1期)各地で開講

「在日同胞二世と子供らの前途」テーマに

今年も各地で朝鮮文化講座が開講されている。

若い同胞商工人をはじめ各界各層の同胞らの中で祖国愛、民族愛をはぐくむ総合的な同胞教養の場として同講座がスタートしたのが昨年。

以前までのさまざまな教養形態と、ここ数年、同胞らの間で好評であったシンポ、セミナー、講演会などの企画をすべて取り入れた総合的な文化講座として同胞らの歓迎を受け、各機関、地域単位で積極的に開設された。

今年度の予定は、第一期(三～五月)、第二期(六～八月)、第三期(九～十一月)の三段階に分けて行われるが、第一期の講演テーマは「在日同胞二世と子供らの前途」。

その内容ははじめに、世代の交代期、時代と同胞社会の転換期に二世同胞らの歩む道、選択する道が何であるのか、一世の意志をいかに継ぎ、三～四世らにいかなる道を切り開いておくのか、といった問題を提起しながら、①日本で住んでいるが、祖国と民族とともに歩む②日本に住み帰化、同化する③帰化はしないが日本に「定住」するため、祖国と民族とは距離を置いた「第三の道」を捜す——など、大別して三つの道があるが、自分の境遇、忘れてはならない朝鮮人としての最も大事な根本を深く考え、自己の歩む道を選択すべき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

そして、在日同胞の境遇、民族と自分、同質性問題などの内容を具体的かつ生活的な実例を挙げながら展開している。

さる三月二十八日に関東地方(総聯東京・台東支部)と近畿地方(女性同盟滋賀県本部)で行われた、文化講座の水準をさらに高めるための、女性同盟活動家らによる女性文化講座の示範講師講習会では、今回の講演内容がとても良かったと好評を受けた。

女性同盟千葉・長夷支部の劉日善委員長は「講師講習会に二回参加したけど、大変ためになりました。私の地域で行う時も、若い人たちに合わせてグラフや絵を作るなど、入念な準備をしなくては、と考えています」と語った。

また、女性同盟長野県本部・李弼仙委員長は「何に重点を置いて話すかをよく考え、実状に合った生活的なにおいのする講習をし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と述べ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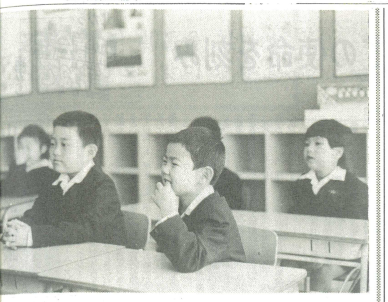
同講習会に参加した活動家や非専従の講師らは現在、地域で行っていく文化講座に一人でも多くの同胞女性らを網羅し、互いに手を取り、祖国と民族と共に歩んでいけるようにしたいと意欲的な取り組みを見せている。

これに先立ち、三月二十日には総聯三重県松阪支部で、同二十七日には、総聯滋賀県大津支部、愛知県東春支部で文化講座が開講された。(講演内容はKAL機事件)

また、八日には女性同盟神奈川県本部・鶴見支部の若い女性ら三十人が、同講座で朝鮮の歴史を学んだ。



「同胞らに分かりやすく講演するためにも…」—女性講師らの取り組みは真剣だ(3月27日、近畿・示範講師講習会)



話題　未来をみつめる瞳

新入生たちの授業開始

今月のはじめに各地のウリハッキョで、入学・始業式を終えた新入生たちが、生まれて初めての授業を受けている。

東京朝鮮第九初級学校(東京・杉並区)では、昨年七月の新校舎の竣工から初めて迎えた新入生二十九人が、元気いっぱいに学校生活を送っている。

制服、机、イス、教室—すべてが真新しく、何を見ているのか、子供たちの瞳はキラキラと輝き、ソンセンニムの話を興味深げに聞いている。

この子供たちは、これから多くの友達と巡り合い、みんなと一緒にウリマルや朝鮮の歴史、文化を身につけ、その過程で民族心をしっかりと培っていく。

自然が芽吹く、人生の新しいスタートの季節、春。ウリハッセンの一員に仲間入りした子供たちも、将来を夢見ながら、少しずつ芽吹いていくことだろう。



講座では、日本経済の流れと展望についての講演があった

日本経済の現状を見る視点

商工連第12回経済経営講座

商工連・第十二回経済経営講座がさる八日、東京・上野の朝鮮商工会館で行われ、関東地方の商工会役員と同胞商工人ら多数が参加した。

今回は、専修大学教授の三輪芳郎氏(経済評論家)が「日本経済の現状をどう見るか」というテーマで講演。

経済企画庁在職中に「経済白書」の執筆にも携わった氏は、①短期的な景気動向の見方②長期的に見た日本経済・産業の国際的到達点③耐久財のフローとストックの関係を視点とした成長屈折要因の分析④日本産業の"空洞化"——の順で講演を進めた。

氏は講演の中でとくに、国民総生産(GNP)の概念、日本におけるGNPの内訳と経済成長率の推移について詳しく解説し、「GNPとは豊かさを計る基準ではなく、その国で生きていくためにどれだけの費用が必要なのかを表す基準だ」と強調した。

そして氏は、日本は一九六〇年代に一〇%以上の高成長を遂げたが、七〇年代には三～五%の低成長であったと指摘しながら、「今後も、かつてのような高成長を遂げることはありえない」と語った。

経済が高成長するかどうかは、「国民の生活パターン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に大きくかかわってくる、と氏は自らの考えを述べた。

つまり、国民に普及されていない商品生産部門は高成長し(フロー)、十分に普及された商品部門は停滞(ストック)せざるをえない、というもの。乗用車、テレビなどを例にとって、氏は欧米諸国でもそれは普遍的な真理である、と実証した。

氏は、日本経済が今、ストックの状態にあるので、海外へと進出し"空洞化"するのだ、と結んだ。

講演の後、質疑応答が行われた。

「花よりもオッケチュム」

1,000人同胞の触れ合い

大阪・生野地域合同花見会

リズムの良いチャンゴやケンガリの音、そして一世同胞の歌声に「チョッタ! チョッチ!」の歯切れの良いかけ声。広場一帯に広がる焼肉のおいしそうな匂い。

さる三日、大阪・生野地域三支部(生野西・南、中西)同胞たちの合同花見会が、大阪城公園で催された。

この日、金日成主席の生誕七十六周年を祝って行われた初めての合同花見会は、同地域約一千人の老若男女でにぎわった。

桜がまだ咲いていなかったのが残念だったが、汗ばむようなポカポカ陽気の中、同胞たちは「花よりもチャンダン、オッケチュム、焼肉、そして酒」と、青空の下でチャンチ気分だ。

大阪朝鮮歌舞団のマイクやチャンゴを取り上げてしまう一世のハラボジ、ハルモニ。キムチの味くらべをしているのはオモニたち。

また分会長たちは分会の自慢話に花を咲かせる。そして子供たちはバドミントンやキャッチボール、相撲をしたりと、子供も大人も楽しい一日を過ごした。

この日、上は七十歳から下は生後十日の乳児まで、二十一人の大所帯を引き連れて来た生野西支部鶴桃南一分会の金泰益さん(七〇)は、「家族が多いことが何よりもの財産だね。孫たちに囲まれて飲む酒は格別だよ」と顔をほころばせる。

そしてこの三月に夜間中学を卒業したというアジュモニの高致順さん(六七)も、「孫たちのために」と七輪の前で忙しそう。五人のミョヌリ(嫁)たちとの息もピッタリだ。

また、朝青生野西支部の朴勝さん(三三)は「一世たちが築き上げた素晴らしい業績を受け継ぎ、異国でも祖国と民族をしっかりと守っていきたい。そのためにも一世たちとの触れ合いを大切にしたい」と会場内を駆け回っていた。

このように、今回の花見会で三地域の同胞たちは、互いの親ぼくをより深め、これからも力を合わせて愛国事業に励んでいこうと意気盛んだった。



チャンゴとウリ民謡に合わせてオッケチュムの輪が広がる



青空の下、お弁当をいっぱいに広げて談笑に心も弾む

経済ニュース　共和国

アンコルで立体橋完工

アンコル・スポーツ村の南側関門である立体橋がこのたび完工した。

平壌—南浦間の道路に建設された立体橋は長さ千二百七十余㍍、高さ六～十五㍍で七十を数える基柱が橋を支え、高い部分の基柱は大同江の水中に立っており、平壌—アンコル間、アンコル—南浦間の各上下四車線で出来ている。

一方、光復通りの中心交差をなす七谷橋からアンコル・スポーツ村を通過してアンコル立体橋に至るアンコル道路工事も、すでに終了した。

この建設で約百万立方㍍の土砂と岩盤が処理され、数千㍍の路盤工事と各種の地下施設工事が短期間に進められた。また五万平方㍍に達する道路舗装工事は、六日間で完成された。

WHOの研究センター創設

共和国の平壌に世界保健機関(WHO)の老人学・老人病学協同研究センターが創設され、その創設集会が先月三十一日、朝鮮赤十字総合病院で行われた。

ここには金永益保険副部長、金宗基朝鮮医科学院院長、李杜宣朝鮮赤十字総合病院長ら関係者と科学者、技術者が参加した。また、イバン・メルダ駐朝国連開発臨時代理代表や各国大使館の出版関係者、特派員が招待された。

集会では同研究センターの責任者である崔春鉉氏が記念報告を行った。

また、祝賀演説の後にWHO東南アジア地域局長から寄せられた祝電が紹介された。

第9回アジア卓球選手権大会に 共和国選手団がエントリー

来月の十五日から二十二日まで新潟市で開催される「第九回アジア卓球選手権大会」に、共和国選手団のエントリーが六日、アジア卓球連合(ATTU)になされた。

今年の一月、共和国に対する日本政府の不当な「制裁措置」が発動された以後、日本で開催される国際試合に共和国が参加手続きをするのは初めて。今後、日本政府当局が共和国選手団の入国について、どのような対処をするかが注目される。

六日夕の締切現在、申請をしたのは共和国、中国、南朝鮮、日本などの有力チームをはじめ計二十七チーム。

共和国からは男子世界ランキング二十位の金盛熙選手、女子同八位の李粉姫選手ら九人の選手(男子五人、女子四人)が出場する予定だ。

親ぼく深めるボウリング

神奈川・鶴見「交友会」

さる一日、鶴見リバーボウルで鶴見協議会「交友会」ボウリング大会が行われ、同会会員ら十五人が参加した。

同協議会が月一回開く会も、今回で七回目。

これまでも学習会、税金講習会、朝鮮歴史を学ぶ会、釣りなど、多様な活動を行ってきた。

この日の大会では、和気あいあいとした雰囲気の中にも試合になると真剣そのもの。力み過ぎでボールを落としたり、ストライクの次は必ずガーターしか出せず点数が伸びなかったり、転んだりでてんやわんや。結果は、以前ならしたという呉龍徳副会長が終始ペースを乱すことなく高成績を収め、見事優勝。

試合後、会員たちは鶴見支部講堂でこれまでの活動の総括と食事会を行い、協議会の活性化、子供の教育問題、経営にかかわる悩みや問題などを意見交換し、親ぼくと団結をより強めた。

バス転落惨事の真相

ソウル千戸大橋のバス転落事故は、人災といった甘いものでなく、まさに犯罪であった。

大惨事は一日の午後、橋を渡っていた「首都交通」のバスが、前の車を追い越そうとしたところ前輪がパンク、中央線を越えて橋の欄干にぶつかり、そのまま約二十㍍下の川に落ちて起こった。なぜ無理な追い越しをしたのか、なぜパンクし、欄干が崩れたのか、問題は多い。

南朝鮮バス会社は市内バスの運行時間を定め、それを超過した場合運転手から [illegible] 年に始点—終点の運行時間を一時間四十五分とし、交通量が急激に増える中で運転手の過速無謀運転をあおってきた。

また同社バスは「再生タイヤ」を使用していた。これは新品の半額以下と安い代わりに、石や釘などの衝撃に極度にもろい。また橋の欄干は七六年の完成以来一度も補修されたことがなく、人間が体当たりしても崩れるほど腐っていた。

当局とバス会社は、こうした事態にもかかわらず、遺族への補償はもちろん、原因究明すらまともに行っていない。

月曜セミナー

本欄は、複雑に入り組んだ経済問題を様々な角度から、とらえ論じることにより、経済情勢に対する理解を深める一助になれば、との趣旨から始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まず第一回目として、日本経済の動向とからめて五回にわたって紹介します。

日本経済の混迷①

パックス・アメリカーナ崩壊の深刻性

今日、私たちを取り巻いている経済環境は急激に変化しつつあります。

国際通貨の動揺—円高、ドル安への急変、貿易摩擦と対立の激化、発展途上国における累積債務とその深刻化、資本主義世界経済における同時不況とその深まり、株式等の投機現象の盛況とその乱高下、独占企業の多国籍企業化と増大する海外進出、また、それによる産業空洞化と失業の増大、アメリカ経済の純債務化と財政破たんなど、様々な症状として現れています。

まさに、資本主義経済は今、歴史的転換期、再編期といえるでしょう。

しかし、今なぜ円高なのか、ドル相場と株式相場はいかなる関係にあるのか。日本は今「金持ち大国」といわれているが、身のまわりの景気は一向によくならないのはなぜなのか、これから景気は本当に好転するのだろうか、等々関心はあるがなかなかよくつかめないというのが実感ではないでしょうか。

現在の経済状況をいかに捕え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

周知のように一九八七年十月十九日にニューヨークで起こった株価暴落をきっかけに、世界経済の不安定性が一挙に表面化しました。それはまさに資本主義世界が直面している矛盾の深刻さを痛烈に立証するものです。

その後、大不況の襲来の危機は、一時まぬがれたように見えますが、根底に潜んでいる不安感はぬぐいきれないでいるのが現状です。

あのニクソン・ショック以後、すなわちブレトン・ウッズ体制崩壊後、資本主義世界を取りまとめるものはいわゆるサミットと称されるたよりない主要国首脳会談だけであります。それが、いかにはかないものであるかを今回の株価の大暴落がはっきり示してくれたものです。

このような資本主義世界経済の動揺を読みとるうえで重要なことは、アメリカの経済力の決定的な低下、即ち、いわゆるパックス・アメリカーナの崩壊が、その背後に置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資本主義世界経済の「繁栄」はそれに対するアメリカ経済の「機関車的役割」をぬきにして考えられない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でしょう。

日本経済とてその例外ではありません。否、日本経済にその典型を読みとれるといえます。戦後、アメリカ依存の経済として「高度成長」し、最近、とりわけ一九八〇年代における日本経済において、世界同時不況からの脱出と経済成長、「経済大国」への躍進は明らかに、世界の増大する輸出を吸収して、世界経済が破たんするのを防いできたアメリカ経済の機関車の役割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しかし、その機関車経済国が純債務国に転落しばく大な双子の赤字をかかえた今日、もはやその機能は完全に麻痺(ひ)したのです。長年の間、アメリカ主導の経済構造に編成されてきた資本主義経済において、アメリカ経済が世界経済の機関車の役割を停止したとき、他の諸国はアメリカ経済以上の打撃を受ける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は想像にかたくないでしょう。ドル相場を前に、資本主義「先進首脳国」が「必死」の「経済協調」を唱え、行ってきたのもその不吉な予感によるものです。

しかし、今度の株価の暴落は、その「協調」の限界をも世にさらしたのであります。

資本主義の先進首脳国間におけるこのような混迷は「発展途上国」の累積債務問題もからまり、深刻な経済構造の転換をせまられているのが現状といえ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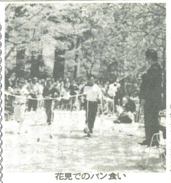
アメリカ経済圏に、より一層深く組み込まれつつある日本経済にとって、このことはより深刻に受けとめるべき問題であります。(つづく)

池永一・朝鮮大学校政治経済学部教員
※一九五二年生まれ。朝大研究院を経て、七九年から同大学政治経済学部教員に。専攻は経済学史。

北から＊協議会を訪ねて＊南から

2世としての使命を刻み

山口・東部協議会「高麗会」



花見でのパン食い競争(87年4月)



力強い合唱で1世同胞たちを慰労する「高麗会」会員たち(敬老会 85年9月)

山口県岩国市は米軍基地村である。「チーム・スピリット」軍事演習のときには、いわゆる「ジャンボジェット機」の二倍はあるかと思われる大型輸送機がごう音をあげて飛びたっていく。また、日米合同演習のときなど、戦車を何台も積み込んだトレーラーが一般道路を通過するという。地場産業の発展がほとんど抑制された基地の街—岩国にも、愛国と愛族に燃える同胞たちの軌跡が刻まれている。解放後、この地に定着した一世同胞は、古物商などの商売をしたり、日雇いをしたりして生計を立てるかたわら、ウリハッキョを建てて民族教育を行った。組織を守り、信用組合を守り、そして同胞の輪を築いてきたその一世同胞の意気込みは今も脈々と息づいている。愛国運動を盛りたて、親ぼくを図る上で何より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が、同市を中心に柳井市、玖珂郡を含めた東部地域の青年商工人協議会「高麗会」だ。一九八〇年に発足した「二世の会」の流れをくんで、八四年の結成以来、確固たる年輪を刻んできた「高麗会」の足どりをたどってみた。(一)

「二世の会」を土台に飛躍

「高麗会」の会則では、会の目的について次のように定めている。

「愛国的商工人、祖国の海外公民としての自覚と認識を高め、代を継いで、祖国の統一と同胞社会の発展のために活動する」

そして、その活動内容は①祖国統一のための活動②民族自主意識の向上と総聯事業に寄与する活動③会員間の文化・芸術サークル活動の活性化④会員たちの経済地位の向上と企業発展のための活動⑤朝・日親善交流を深めるための活動—となっている。

「高麗会」が一九八〇年に同地域青年商工人たちの総意により発足した「二世の会」と違う点は、商工会の指導のもとで、その目的を明確に定めたことであった。

山口県下で他地域に先立って発足した「二世の会」は、朴泰水氏(現東部地域商工会会長)の発起により結成され、花見や送年会など同胞行事を多彩に催してきた。

それまでは同胞たちの集まりも少なく、若い同胞たちはそれぞれ仕事に追われて日々を過ごすのが常であったが、同会の発足をきっかけにして同胞たちが集い、親ぼくが深まっていったのは何よりの財産である。ざん新な企画を盛り込むことにより、同胞の間に「行事」が定着し、シーズンが来ればおのずと人が集ま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二世の会」の功績であった。

「高麗会」の会員は、そのほとんどが「二世の会」のメンバーたち。顔ぶれは変わらないにもかかわらず、名称が「高麗会」に定められたのは、会の新たな出発を期してのことであった。

商工会の指導を受け、密接な連携を持つことを大きな〝柱〟とし、会運営を万全に整えたことが「高麗会」の特徴である。

定例行事として挙げられるのは、新年の学習会に始まり、毎月第一土曜日の「高麗会」、二ヵ月に一度のゴルフコンペ、四月の花見、八月の「八・一五」行事(海の集いなど)、九月の敬老会それに十二月の送年会、税務講演や料理教室(会員の夫人対象)、情勢学習と実に幅広い。中でも、花見、敬老会、送年会の三つは年間行事のメーンであり、百人前後の同胞が常時参加するという。

会員たちの意見に基づいて会長、副会長ら役員が協議した内容や伝達事項は、朝銀岩国支店に設けられた事務局が各会員に伝えるシステムになっている。事務局は、会員たちの意見を集めるセンターとしての役割も果たしているのだ。

学習第一をモットーに

「一世同胞の志を継いで二世たちが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のか。愛国の代を立派に継ぐことを『高麗会』では常に問題提起してきたんです」

三代目会長である、許成祚氏は語る。

毎年春になると山口の名所—錦帯橋では「高麗会」主催の花見が開かれる。バーベキューや飲みものの屋台が出て同胞たちを楽しませ、パン食い競争、風船わりなど各種競技を盛り込んだ〝運動会〟も行われる。オケチュムを踊る一世同胞たちの喜びにあふれた姿、はしゃぎまわる子供たちの笑顔…。この催しひとつ取っても、一世の生きざまを三世、四世に伝えるまたとない機会といえよう。

「高麗会」が年ごとに敬老会を企画する過程で、八六年九月には、一世同胞たちの集まりである「老友会」が発足した。お互いの親ぼくを深めるばかりでなく、二世、三世らに何か大切なものを残したい、との切々な思いが込められた同会の結成であった。

愛国の代を継ごうと、会員たちの学習を地道に行ってきたのも「高麗会」の特徴である。毎月第一土曜日に開かれる「高麗会」では、まずはじめに情勢の学習を行う。

年始には金日成主席の新年の辞を、朝鮮労働党や最高人民会議の重要会議があるとその報告などを随時学習し、総聯の全体大会などが行われた時は報告会を持ったりする。

「何より学習、第一に学習」

「高麗会」はそれをモットーに活動を展開してきた。

八四年の結成以来、朴泰水氏、鄭義沢氏、許成祚氏と三代にわたって会長が引き継がれてきたが、その間、学習を基本に多彩な行事を定着させることにより、確かな伝統を築いてきたのである。

◇　◇

「高麗会」はさる二日に第三期総会を開いた。朝銀岩国支店で行われた総会には、会員ら二十二人が参加し、二期総会(八六年六月)以後の活動を総括した。

そして同総会では重要な〝宣言〟がなされた。

「今総会をもって今までの会員たちは、全員が『高麗会』から脱退し、朝銀の後援会である『岩国朝銀会』に編入する。『高麗会』は今日を機に、若いトンムらで新たな出発を期することになった」

三十代前半から四十代前半までを会員と定めてきた同会は、今後二十代後半から三十代前半までを対象にして活動していくことになった。前役員の数名は顧問として残り、五月に再び総会を開いて、新役員を選出する運び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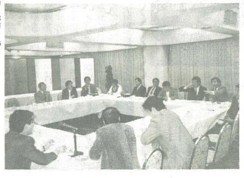
「伝統を生かして、頑張ってくれるでしょう。私たちは温かく見守ってあげればいいと思います」—バトンを渡しながら前会員たちは一様に確信を表明しているという。



送年会で1年間の活動をしめくくる(86年12月)

業績向上へ意見交換

東京「東遊会」



積極的に交わされる質疑応答

技業者協議会)第三十一回懇談会が七日、池之端文化センターで行われ、同会会員ら二十余人が参加した。

同会はこれまでも同胞業者の団結と親ぼくを深めるため、数々の活動を繰り広げてきた。

とくに今回三十一回目になる懇談会は、その時々の業界わし合う場として重要視されている。

この日の懇談会では、まず会長の朴淳氏が「業界の発展と向上のため、みんなが力を合わせてがんばっていこう」と挨拶した。

第一部はパチスロの新機種に関する説明と、それにかかこの業界で新機種は経営の死活問題とあって、関係当局の規制問題から機械の構造と性能に至るまで熱のこもった質問と意見が交わされた。

第二部は食事会。会員たちは、同業界の企業化や社会的地位の向上、これからの活動について語りあった。

初のチャリティー大盛況

兵庫・尼崎東協議会

尼崎東朝鮮初級学校創立一周年記念チャリティーゴルフコンペが五日、兵庫県神有ゴルフ場で盛大に行われた。

天候に恵まれ絶好のゴルフ日和となったこの日、会場には集合時間前から早くも、地域同胞たちと日本人を含む二百余人が駆けつけごったがえした。

大会は多くの人が参加し、楽しい雰囲気の中でプレーが進行された。

競技の結果、始めから自分のペースを崩すことなくプレーを進めた李相守氏(伊丹)がみごと優勝し、賞品の自家用車を手中に納めた。

同校教育会、商工会、朝銀、そして青年商工人協議会の共催で行われた同チャリティーゴルフは今回が初めて。

すべてが初めてのことで、その準備から進行まで気の安まることのなかったと語る崔種楽教育会会長は、大会が大成功とあって終始、ほほえみを絶やさなかった。

もよおし

シンポ

▼愛知県朝鮮女性たちのシンポジウム「現代朝鮮女性の生き方」
13日(水)、午前11時、朝銀愛知信用組合本店
主催＝同実行委員会
☎〇五二(五七一)〇七七九(女性同盟愛知県本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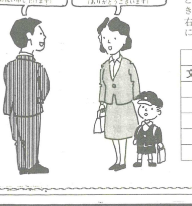
スポーツ・芸術

▼東京シティ・フィル第51回定期演奏会
指揮＝金洪才、独奏＝上杉春雄、曲目＝管弦楽「アリラン」他
13日(水)、午後7時、東京文化会館
☎〇三(四六四)二〇七三(東京シティ・フィル事務局)

ウリマル講座 13

文・朴点水

会話　お祝いのことば



☆ワンポイント☆

기쁘겠습니다を直訳すると「うれしいことでしょう」になります。目上の人には기쁘시겠습니다または반갑겠습니다と言えばいいでしょう。기쁘다(うれしい)は、あることに対するうれしい感情を表すことばで、반갑다(うれしい)は、待望していた人に出会ったときのうれしい感情を表すことばです。

発音と文字

複合パッチム「ㄳ〔k〕、ㄵ〔n〕、ㄽ〔l〕、ㄾ〔l〕、ㅄ〔p〕」の発音

このパッチムは全部左側をパッチム音として発音します。あとに母音が続くときは、左の子音をパッチム音に発音し、右の子音を連音させて母音の初声のように発音します。

パッチム		例
文字	音	
ㄳ	ㄱ〔k〕	몫〔목mok〕分け前、割当て
ㄵ	ㄴ〔n〕	앉다〔안따 ant'a〕座る
ㄽ	ㄹ〔l〕	돐〔돌 tol〕周年
ㄾ	ㄹ〔l〕	핥다〔할따 halt a〕なめる
ㅄ	ㅂ〔p〕	없다〔업따 ɔ:pt'a〕ない、いない

単語と文

넋〔nɔk ノㇰ〕魂
삯〔sak サㇰ〕労賃、賃金
얹다〔ɔnt a オンタ〕載せる
훑다〔hult a フルタ〕扱(しご)く
값〔kap カㇷ゚〕値、価値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andʒainnɯn sa: ramɯn ɔ: ps ɯmnida アンジャインヌン サーラムン オーㇷ゚スムニダ〕
座っている人はいません

공화국창건　마흔돐이　되는　올해에
〔koŋhwaguktʃʰa: ŋgɔn mahɯndolʃ'i tφnɯn olhɛe コンファグㇰチャンゴン マフンドㇽシ
두몫　세몫　일을　합시다 テヌン オㇽヘエ
tu: mok se: mok i: rɯl hapʃ ida
トゥモㇰ セーモㇰ イールㇽ ハㇷ゚シダ
共和国創建40周年になる今年、2人分、3人分の仕事をしましょう。

豆知識

訓民正音は、いつ、誰によって作られたのでしょう?

1444年1月、28文字からなる훈민정음(フンミンジョンウム)が、李氏朝鮮第4代大王세종(世宗)と、집현전(集賢殿—現在のアカデミーにあたる)の정린지(鄭麟趾)、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강희안(姜希顔)、리개(李塏)、리선로(李善老)の8人の青年学者によって作られました。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4월 12일 (음력 2월 26일) 화요일 【루계 제10181호】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선물을 드리시였다.
【평양~도쿄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시였다

【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민주주의캄보쟈 주석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를 환영하여 8일 금수산의사당에서 연회를 베푸시였다.

연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연설하시였다.(연설은 2면)

이어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께서 연설하시였다.(연설은 2면)

박성철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정준기부총리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의 일행과 우리 나라 주재 민주주의캄보쟈 특명전권대사 손첨이 초대되였다.

연회는 친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평양 4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등소평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축전은 다음과 같다.

베이징

등　소　평　동　지

나는 당신이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 장병들의 높은 존경과 신임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나라의 안정단결을 이룩하고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나는 중국의 륭성번영과 전국적통일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의 건강과 장수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통하여 혈연적으로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군대들 사이의 형제적친선과 전투적단결이 날로 더욱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　일　성

1988년 4월 8일　평　양

【평양 4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양상곤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만리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축전은 다음과 같다.

베이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양　상　곤　동　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만　리　동　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양상곤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만리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당신들을 나라의 높은 책임적인 직책에 선거한것은 당신들에 대한 중국인민의 두터운 신임과 존경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중국의 특색을 가진 현대화된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며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당신들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굳게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형제적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88년 4월 8일　평　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선물을 드리시였다

【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민주주의캄보쟈 주석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께서 8일 선물을 드리시였다.

여기에는 친왕전하의 일행과 우리 나라 주재 민주주의캄보쟈 특명전권대사 손첨이 참가하였다.

박성철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정준기부총리와 외교부 김형률 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께서는 선물내용을 설명해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물을 보시고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　※

【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민주주의캄보쟈 주석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께서 선물을 드리시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께서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시였다.

구체적인 통일방안 공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보낸 편지의 접수를 거부한 남조선적십자사측을 비난하여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성명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북과 남의 청년학생 대표들의 회담을 가질데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제의를 지지하여 보낸 편지의 접수를 거부한 남조선적십자사측의 처사를 비난하여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 학생단체는 남조선적십자사측이 공화국측이 보낸 회답편지의 접수를 거부한것은 《민족통일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이 학생단체는 또한 이날 남조선적십자사측과 괴뢰정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하여 공화국측으로부터의 《답신을 받을것인지의 여부를 밝힐것》과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앞에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

평양시내의 대학 학생위원회가

북남학생회담의 발기를 지지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서울과 평양의 두 대학교 학생들이 서로 발기하고 호응하면서 민족화해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뜻을 표명한것과 관련하여 김종태사범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8일에, 평양의학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과 건설건재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7일에 각각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서로 회담을 가질 뜻을 밝힌데 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하고싶어하는 북과 남의 모든 청년학생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는 훌륭한 소행으로 평가하면서 자기 대학 전체 학생들의 이름으로 이를 적극 지지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들은 2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반《민정당》투쟁 크게 앙양

카톨릭농민회 등 재야단체 반《민정당》총선투쟁민주련합을 결성

파쑈악법의 철폐 등의 공동강령 채택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카톨릭농민회와 재야 16개 단체가 9일 반《정부》 및 민중생존권보장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였다.

이 단체들은 이날 서울에서 반《민정당》총선투쟁민주련합발대식을 가지고 로태우일당이 벌려놓으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반군부민주화투쟁으로 《민정당》을 패배시키고 민중의 요구와 대의에 립각한 후보를 《국회》에 진출시킬것을 결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단체들은 민중생존권보장과 파쑈악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철폐 등 7개 항의 공동강령을 채택하는 한편 전두환역도의 부정협잡과 모략기구인 《일해재단》의 부정을 포함한 각종 부정을 규명하는 투쟁을 련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민정당 지구당사》에 된매를 안기였다

남조선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서울의 대학생 10여명이 7일 저녁 《민정당 서대문지구당사》를 공격하였다.

학생들은 로태우파쑈도당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면서 《지구당》 사무실에 드세찬 공격을 가하여 창문들을 박살내였다.

또한 학생들은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후보》들을 모두 락선시킬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뿌렸다 한다.

이에 당황한 파쑈도당은 괴뢰경찰들을 내몰아 연세대학교 학생 김 아무개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다른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 폭압소동을 피우고있다.

경상대생 1,500여명이

반《정부》시위 단행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학생 1,500여명이 8일 파쑈도당의 폭압을 반대하여 또다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대학 학생들은 지난 4일 밤에도 반파쑈 투쟁에 궐기하여 기관차를 빼앗아 불태워버리는 등의 투쟁을 벌렸었다.

캄보쟈문제를 공정하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애국적활동과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연 회 에 서 하 신

김일성원수님의 연설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

캄보쟈의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해마다 4월의 봄이 오면 우리는 친근한 벗이며 형제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의 즐거운 상봉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나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 나라를 다시 찾아준 친왕과 이처럼 다정하게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고 해마다 찾아와 나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당신의 각별한 우정과 성의에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으며 친왕과 같은 진실한 벗을 가지고있는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친왕의 뜨거운 형제적우정을 몸가까이 느끼면서 당신의 축하와 축원에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와 친왕사이의 진실한 형제적친분관계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흐름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왔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과 숭고한 의리로 순결하게 이어지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아름다운 자욱을 남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캄보쟈인민의 참다운 애국자로, 탁월한 지도자로 존경하여왔습니다.

당신은 오랜 기간 정치적수난의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도 굴함없이 자주의 기치, 항전의 기발을 높이 들고 캄보쟈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오늘 캄보쟈문제는 국제정치무대에서 의연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로 남아있으며 세계인민들은 캄보쟈문제가 캄보쟈인민의 리익에 맞게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조정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친왕은 지난해말에 우리 나라를 떠난 다음에도 캄보쟈문제를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쉼없이 정력적인 활동을 벌렸습니다.

여러가지 난관이 가로놓여있는 캄보쟈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친왕의 폭넓고 신축성있는 활동은 세계여론의 광범한 지지와 동정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오늘 친왕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대내외적으로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캄보쟈문제와 관련하여 언제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견지하고있는 자주적립장을 존중하고 지지하여왔으며 앞으로도 캄보쟈문제를 공정하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애국적활동과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리는 캄보쟈가 통일독립되고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나라로 건설되고 친왕이 조국에 개선하여 사랑하는 캄보쟈인민들과 뜨겁게 포옹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친왕전하!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들사이의 형제적친분관계와 신뢰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며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단결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친왕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계속 많은 활동을 벌린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친왕이 이번에도 우리 평양에서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랜 벗을 다시 만나 화기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캄보쟈 주석이신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건강과 친왕가족들의 행복을 위하여,

캄보쟈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불멸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각하의 저명한 존함은 조선력사뿐아니라 인류력사에 금문자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연 회 에 서 하 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연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먼저 자기를 매우 친절하고 성대히 환영해주는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원수각하께 캄보쟈인민과 민주주의캄보쟈 련합정부와 자신의 이름으로 가장 높은 흠모의 정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삼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까지 해마다 그러하였던것처럼 래일도 나아가서 나의 조국 캄보쟈가 완전히 해방된 다음에도 조선인민과 조선민족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의 가장 영광스러운 탄생일에 즈음하여 크메르 인민과 정부와 국가수반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그처럼 아름답고 발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존엄있는 수도 평양에 언제나 오게 되는것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유쾌한 의무로 간주한것입니다.

나의 한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께서 오래전부터 내가 진행하는 모든 애국적인 활동과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해주시면서 나를 자신의 친근한 벗으로, 친형제로 그리고 자신의 가까운 반제전우로 친절히 대해주시는것입니다.

나는 일생동안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께서 나자신과 나의 부인, 나의 가족 그리고 캄보쟈인민의 여러 차례에 걸치는 민족해방투쟁에 베풀어주시는 그 누구도 비길데 없는 크나큰 은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나는 조선의 국가수반이시며 조선민족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각하께 언제나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품어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품고있을 것입니다.

불멸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각하의 그처럼 저명한 존함은 수천년의 조선력사뿐아니라 인류력사에 금문자로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김일성원수각하께서는 어리신 시절부터 천재적인 예지와 숭고한 영웅주의를 지니시고 조선인민을 봉건적지배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예속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시여 두차례의 전설적인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적이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국을 조선 인민과 청년들이 끝없는 행복으로 충만된 존엄있는 생활과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번영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필승불패의 위대한 군사강국으로, 주체적인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다른 발전된 강국들에 부럽지 않은 첨단기술을 갖춘 매우 발전된 현대적인 나라로 되였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인민들, 특히 캄보쟈인민을 비롯한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인류에게 주체사상과 자주성을 가르쳐주시는 찬란한 태양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각하에 대하여 변함없이 높은 흠모의 정을 품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각하께서 지니시고계시는 권위와 인망은 이 세상에서 전례없이 높고 위대합니다.

캄보쟈인민과 민주주의캄보쟈 련합정부와 나자신은 형제적인 용감한 조선인민과 그리고 김일성원수각하를 그토록 열렬히 흠모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더불어 조선인민과 조선민족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의 탄생 76돐이 되는 가장 경사스러운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하면서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께 가장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되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캄보쟈인민과 민주주의캄보쟈 련합정부와 나자신은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주체적인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위업을 실현하신데 대하여서와 그리고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의 가장 영광스러운 탄생 76돐을 계기로 가장 현대적인 웅장한 공장 건설을 비롯한 새로운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끝으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께서 제시하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그처럼 현명하고 가장 애국적인 방침에 대한 우리의 전적이고도 확고한 지지를 다시금 엄숙히 확언한다고 언명하였다.

학생회담발기는 북과 남의 모든 청년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한 훌륭한 소행

김종태사범대학

지난 4월 6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보내는 편지를 방송으로 받아서 대자보에 게시하였을뿐아니라 총학생회 발대식을 가지고 앞으로 학생운동이 통일을 위한 운동으로 되게 할 확고한 결의를 다지였다고 한다.

이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대학 전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학우들의 과감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총칼탄압을 맞받아 나가고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형제적인사를 보내며 멀리에서나마 전투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두고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이 소행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유독 로태우일당만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수배소동을 벌리고 학우들이 보내는 편지마저 받아가지 못하게 하였을뿐아니라 이번에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집회에 최루탄을 쏘아대며 탄압해나섰다.

권력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해치려는것도 아니며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어 민족의 장래를 책임진 열혈청년으로서 서로 만나 행진을 하고 체육대회를 할 문제를 의론하자는 그 소박하고 순진한 학생들의 념원마저 가로막아나서는 로태우일당의 책동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

불의에 항거하고 난관을 맞받아나가는것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특징이다.

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모든 대학생들이 이미 추켜든 민족화해의 기발을 더욱 높이 들고 북남학생들의 력사적인 회합이 실현될 그날까지 굴함없이 싸워나가리라고 믿어마지 않는다.

평양의학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남조선 군사파쑈도당이 남북학생회담을 주장한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소동을 벌려놓고 있을뿐아니라 적십자련락대표들을 통하여 보내려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의 회답편지를 받아가는것마저 거부해나선데 대하여 절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태우일당이 북남학생회담을 가로막아나서려 하고있는 지금 북남학생회담을 성사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학생들의 투쟁여하에 달려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이미 추켜든 기발을 절대로 내리우지 말아야 하며 파쑈도당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의 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건설건재대학

건설건재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로태우일당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평양학생들의 회답편지를 받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아나선것은 놈들이 겉으로는 《대화》니 《화해》니 하고 사탕발림의 말을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분렬을 위한 대화밖에 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자체 폭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을 가로막을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제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북남학생들의 마음과 마음은 서로 통하고 합쳐졌다고 볼수 있다.

민족화해를 위한 북남학생들의 회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대학생들이 로태우일당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북남학생회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북남 련석회의와 학생회담의 소집제안을 지지해나서자

조선기독교도련맹이 호소문

【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일부 기독교인들속에서 남조선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37차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을 모독하는 행위가 발생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7일 남조선기독교인들에게 호소문을 보내였다.

호소문은 요지 다음과 같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남조선의 각계동포들은 바야흐로 애국애족의 뜨거운 충정을 바쳐 의로운 실천행동, 반미, 반핵, 반독재 투쟁의 길에 나서고있다.

이 도도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남조선의 유력한 교단들을 망라하고있는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월 29일 제37차총회를 열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선언》을 채택공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땅을 굽이치는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의 거세찬 조류를 반영한 애국의 선언이며 구국의 선언이다.

호소문은 민심은 자주, 평화, 통일에로 확연히 기울어지고 불의와 죄악의 장본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종교에 대한 당국의 간섭과 탄압을 단호히 배격하며 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이번 선언을 모독하는 모든 행위에 드센 반격을 가하자!

현시점에서 평화와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하는데 있다.

다같이 북남련석회의의 소집을 고창하며 그 실현을 위해 힘차게 떨쳐나서자!

북남학생회담을 가지자는 청년학생들의 주장에 지지를 표시하고 그들의 의로운 행동을 적극 도와주자!

우리모두 성도적사명감과 불퇴진의 용기로 뜻깊은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애국의 대행진, 구국통일의 대행진을 다그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때; 1988년 4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곳; 도꾜조선문화회관

※제2부에 경축예술공연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기계를 실컷 써보았다는 말을 들었으면 소원이 풀리겠습니다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지금 우리 나라의 각지 농촌들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한창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산작업의 기계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협동농장마다에 수십대의 뜨락또르와 자동차, 수백대의 농기계들이 갖추어져있어 농산작업을 기계로 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농산작업의 기계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끝없는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5월에 평원군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멀지 않아 기계로 농사짓게 되는 좋은 시대가 온다고 기계농사의 밝은 전망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나라의 정세가 긴장하고 푼전이 그토록 귀하던 1940년대에는 막대한 자금으로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마련하도록 하시고 1950년에는 재령, 안주, 정주 등 도처에 국영농기계임경소를 꾸려주시였다.



새로 만든 농기계들을 보아주시며 농촌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전쟁의 상처가 채 가셔지지도 않은 1954년 9월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당시 평양농기구제작소)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대규모공장으로 발전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리하여 이 공장에서는 1958년에 첫 《천리마》호 뜨락또르를 생산하게 되였으며 1970년대초에는 그 생산능력이 수만대에 이르게 되였다.

국가가 좀 밀지는 한이 있어도

1965년 11월에 있은 일이다.

강서군의 한 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장의 기계화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신적이 있었다.

뜨락또르의 리용권이 국가기업소인 농기계작업소에 속해있었으므로 협동농장에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있던 당시의 실정을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보자고 하시였다. 일부 간부들속에는 리용권을 협동농장에 넘겨주면 가동률이 떨어질수 있고 기계가 혹사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의견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이 만난을 무릅쓰고 로동계급을 뜨락또르생산에로 불러일으킨 목적이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자고 한것인데 뜨락또르가 좀 마사질가봐 그 걱정부터 앞세워서야 되겠는가,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뜨락또르가 좀 마사지고 국가가 좀 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기계를 실컷 써보았다는 말을 들었으면 소원이 풀리겠습니다.》

농민들의 힘든 로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는 이렇듯 깊은것이였다.

현대적인 농기계를 더 많이

모내는기계도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그이께서는 농민들이 허리를 굽히고 벼모를 내는 것이 못내 가슴아프시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모내는기계를 빨리 만들어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연구사업을 여러차례 지도해주시였다.

1973년 5월 어느날 몸소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협동농장에서 모내는기계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이제는 모내기의 기계화를 성공했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벼수확기도 완성되였고 강냉이탈곡기, 모뜨는기계, 영양단지심는 기계도 나오게 되였다.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지난해에만도 그이께서는 년초부터 중요한 회의들에서 현대적인 농기계를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9월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이곳 로동자들을 뜨겁게 고무하시였고 10월에는 룡성구역 화성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과 농업기계화연구소 연구집단이 만든 농기계들을 보아주시였다. 11월에는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새로 만든 농기계들의 작업모습도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훌륭한 농기계를 만들어낸데 대하여 치하해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부침땅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평지대에는 7대, 중간 및 산간 지대에는 6대, 논 100정보당 모내는기계는 5.5대 차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경리의 화학화도 적극 추진되여 이미 논밭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은 2톤이상에 이르고 화학적방법으로 김을 잡는 면적은 전체 논면적의 97프로에 달한다. 현 7개년계획기간(1987~1993)에는 모든 농사일을 완전히 기계화, 화학화할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세계사회계의 반향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오지리 인스브루크종합대학 교수, 박사 크리스토프판은 주체사상은 현시대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있는 참으로 위대한 사상이라고 말하였다.

뻬루 인까 가르실라쏘 델라 베가종합대학 총장 호르헤 라쏘 아라스끄는 인민대중의 혁명운동 발전의 각이한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령도리론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애급신문 《아랍청년》 책임주필 아흐마드 하싸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의 징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주체사상은 바로 조선혁명실천을 통하여 현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완성되였다.

또한 애급에 있는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대표 캡튼레롤은 자주성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혁명운동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주체사상은 반제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며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이라고 말하였다.

꼬스따리까 조직된 인민력량당 총비서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라는 주체사상은 참다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사상으로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민들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보편적인 사상으로 되며 온갖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인류해방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혁명학설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인도 인터라즈상사 사장인 비슈와나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방글라데슈 국회의원 쌔프 하피즈 울라흐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세계는 김일성주석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이 도도한 력사의 흐름을 멈춰세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인류사적인 업적은 태양이 영원하듯이 인류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 진행

여 러 나 라 에 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였다.

말따레이버당 네토리오자지부 주체사상연구소조와 말따레이버당 칼카라지부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주의연구 뽀르뚜갈 에쓰또릴소조에서는 3월 18일에, 김일성주의연구 뽀르뚜갈 젤루스소조와 김일성주의연구 뽀르뚜갈 알깐따라소조, 김일성주의연구 뽀르뚜갈 리스봉시 깜뽈리데구역소조에서는 3월 19일에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의 랑자에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는 3월 22일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공산주의건설의 지름길을 밝혀주신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걸출한 수령이시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로작에서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 것이라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로작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귀중한 교과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부하고있는 제3세계나라 대학생들의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는 3월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있었다.

소조책임자는 토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모든 나라 인민들이 따라 배워야 할 선진사상이라고 지적하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한장의 사진에서

인민들이 있는곳이라면

우리 나라 최북단에 위치하는 선봉군의 우암리에서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을 찾아볼수 있다.

해방전 이곳 사람들은 번화한 세상과 동떨어져 외롭게 살아왔다. 이런 외진 선봉땅(당시는 웅기)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설계도를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신것은 1959년 3월 16일이였다.

서포항을 먼저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멀고 험한 진펄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암리로 향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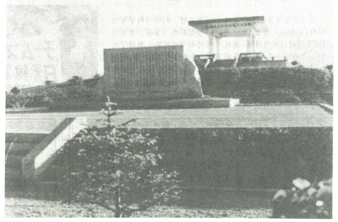
우암리에 오신 그이께서는 외진 포구사람들의 생활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리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또다시 길을 떠나시였다.

그런데 이때 일군들이 언 땅이 녹는데다가 진눈까비까지 와서 몹시 길이 나쁘기때문에 차가 빠져 두만강연선으로 갈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지도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손수 지도에 표시된 두만강연선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지도에 국경연선으로 돌아 홍의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왜 갈수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농촌에 나와서 좋은 길로만 다니겠습니까?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빠지면 걸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가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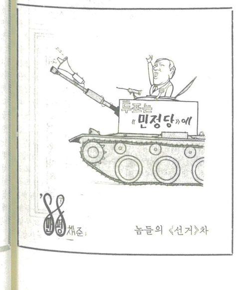
이날 그이께서는 봄볕에 녹은 진창길로 가시다가 승용차가 끝내 빠져 멎어지자 몸소 어깨로 차를 미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였다.

몰라보게 전변된 은성군 우암리의 오늘을 생각할때면 30년전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험한 길이며 그 뜨거운 말씀이 되새겨오군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을 길이 전하는 선봉군 우암리전망대

그날만이 아니라 그이께서는 비오는 날에도 눈내리는 날에도 수십년 세월을 오직 인민들을 찾으시여 머나먼 현지지도의 로정을 이어오시였다.



놈들의 《선거》차

의정서들을 조인

—조선과 로므니아사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사이의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12차회의 의정서가 3월 29일 부꾸레슈띠에서 조인되였다.

대외경제사업부 김정우 부부장과 로므니아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디아만따 라우도니우가 의정서에 수표하였다.

이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13차회의 의정서가 5일 부꾸레슈띠에서 조인되였다.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인 정무원 홍성남부총리와 로므니아정부 제1부수상 이온 딘꺼가 의정서에 수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국제상공인

목소리

15세기부터 시작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상업도시 라이프찌히의 견본시장(見本市場)은 오늘 세계 3대국제시장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올해 라이프찌히국제시장은 3월 13일부터 19일에 걸쳐 65개 나라에서 9천개에 달하는 기업이 참가, 50만명의 관람밑에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여기에 아이찌현 세이상상공회 리병윤회장(59살)이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기계를 출품하였다. 《고무캇팅마신》이라고 하는 1미리메터의 백분의 일단위의 초정밀도(超精密度)가 요구되는 고무절단기계인바 1만점이 전시된 국제시장에서 각광을 입어 놀랍게도 《금상》의 영예를 지녔다. ▼파철업, 부분품제작업을 하던 그가 기계생산업으로 전환한것은 1973년. 《일본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하청업은 이제 싫다》는 굳은 결의와 분발심에서였다. 기발하고 참신한 착상의 능수인 리회장의 왕성한 개발정신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 이 세상에 태여난 《고무캇팅마신》, 이는 일본에도 이 부문 기계로서는 명실공히 최고의 기계로 되여 이름을 날렸다. ▼《이번에 〈금상〉을 탔다는것은 내가 개발한 기계가 세계 1위로 인정된것이지요. 내 기술이자 조국의 기술이니 우리 나라 기계가 세계 으뜸으로 평가된셈입니다. 수상식에서는 참으로 감개무량하여 목이 메였습니다.》 《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자기가 있다》는 신념을 가진 리회장. 그는 언제나 《기술로 우리 나라에 이바지하자》는 결의를 가슴에 아로새기고 분투해왔다. 그 뜨거운 일념이 아름답게 꽃펴 국제시장에서 열매맺은것이다. ▼그곳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신이 대단히 높은데 새삼스레 경탄한 리회장은 일본이란 좁은 테두리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범위에서 활동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동포상공인들은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더 많이 국제무대에 진출해야 한다고 리병윤회장은 주장한다. ▼최근년간 적지 않은 동포상공인들이 해외에서 조선식당을 경영하거나 무역을 하면서 활약무대를 넓혀나가고있다. 재일동포상공인들이 국제상공인으로서 우리 나라에 더 이바지해나갈 새로운 시대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친선의 왕래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진행되는 평화와 사회주의 제문제잡지사 사업토의에 관한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정기회의에 참가할 근로자사 김용학책임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쏘련을 방문하는 조선로동당 남포시위원회 책임비서 겸 남포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박승일을 단장으로 하는 조쏘친선협회 남포시위원회대표단, 유고슬라비아에서 진행되는 무역특혜의 세계적체계수립에 관한 상급회의에 참가할 무역부 최정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리복남을 단장으로 하는 제115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이 《삼지연》호 배편으로 7일 원산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신보》를 비롯한 출판물을 동포들의 친근한 벗으로

《그날 배포, 그달 수금》의 구호아래 꾸준한 활동

총련 오사까부본부 출판물보급사업에서

《조선신보》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이 동포들의 손에 일상적으로 가닿게 하여 사회주의조국의 소식이며 각지 총련조직들에서의 활동소식을 매일 알아보도록 하는것은 그들이 우리 출판물을 친근한 벗으로 삼고 사랑하게 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오늘 총련 오사까부본부에서는 출판물보급사업에서 개진을 이룩하여 《조선신보》의 그날 배포, 그달 수금, 상납하는 체계를 세운데 토대하여 이 부문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본부와 지부가 더욱 접근하는데서 문제해결의 고리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조직들과 출판물보급일군들은 출판물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조선신보〉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이 독자들의 손에 신속정확히 들어가도록 하며 독자대렬을 늘이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곳 본부의 출판물보급사업에서의 개진은 어떻게 이룩되였는가.

총련 14전대회이후 담당부서가 새로 나오게 된것과 관련하여 그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제고해나가야 할 요구성에 맞게 이곳 본부에서는 주력할 사업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그것은 출판물사업을 상임위원회적으로 틀어쥐고 기관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가는것, 담당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여 그날 배포, 그달 수금, 상납하는 체계를 확립하는것 그리고 본부가 지부에 더 접근하여 출판물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것이였다.

그 가운데서도 본부와 지부가 합심하여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사업은 개진과 성과를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선 여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돌려나갔던것이다.

사실 각 지부단위의 이 부문 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닥치고있었다.

독자들의 증감, 이러저러한 의견제기가 있는 속에서 확대사업은 물론 배포사업을 꼭꼭 보장해야 한다는데 있어서 담당일군들의 고민은 적지 않았다.



《그날 배포, 그날 수금, 상납》의 구호를 언제나 가다듬고 사업하는 이곳 본부관하 일군들의 열성과 책임성은 높아만 간다.(사진은 총련 히가시요도가와지부)

《일군수가 적다》는데만 한한것이 아니라 담당부서만이 하는 사업이다, 제반 일들로 바쁜 나머지 이를 《차요시》하게 된다 등의 분위기가 떠돌고있었다.

이러한 실정은 우선 담당일군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서로 협조하고 문제를 풀어나갈것이 요구됐다.

이 활동을 밀고나가는것은 곧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과 동시에 이 부문 사업을 상임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매우 절실하였다.

본부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 출판물보급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 부문 사업에 주신 가르치심을 학습하는 기풍을 세워 그에 기초하여 담당일군들의 모임, 4뿔럭으로 나누어 지역적인 모임을 수시로 가지고 경험을 교환해나갔다.

그러면서 실정료해, 사업추진정형료해를 위해 모든 지부들에 3번이상 들어가 사업하였다.

실지로 동포들속에 함께 들어가 확대, 수금 사업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사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실정을 깊이 알수 있었고 그에 따라 서로 협조하면서 사업을 궤도우에 올려세우자는 마음들이 돋아났다.

19개 지부에 연 26번에 걸쳐 들어간 지난해 활동을 통하여, 때로는 한달 20일을 넘는 지부에서의 사업을 통하여 이 사업에 대한 본부일군들의 의욕이 각 단위 일군들에게 감득되여나갔던것이다.

이처럼 본부가 지부에 접근해나가는것이 곧 걸렸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였고 타개과정이였다.

《하부에 접근하자》는것은 이곳 본부의 사업원칙으로 철저히 확립되고 오늘의 사업에로 계속 이어지고있다.

전기관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때 책임성을 크게 발휘

본부에서 제시한 주력할 방향에 따라 제반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벌어짐으로써 이 사업이 점차 전기관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여나갔다.

그것은 각 단위 책임일군들과 담당일군들이 보다 높은 책임성을 갖게 된데서 오는 변화였고 《그날 배포, 그달 수금, 상납》의 구호를 언제나 마음속에 가다듬고 사업한 결과에서 얻은 성과라고 할수 있다.

책임일군의 책임밑에 제때에 출판물사업을 의제로 토의하면서 모든 일군이 분회별, 단체별 배포, 수금의 분공을 맡고 사업하고있는 단위(히가시나리)를 비롯하여 출판물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료해하기 위해 앙케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목표와 계획을 세워나가고있는 단위(히가시오사까남)들에서의 사업은 이 부문 사업에서 보다 높아진 책임성의 일단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아침 7시경에는 독자들에게 《조선신보》를 배포함으로써 신뢰를 받고있는 단위(히가시요도가와)들의 열성은 비상히 높다.

이와 함께 매 일군들이 배포, 수금 사업을 담당하면서도 출장이나 사정으로 없는 경우를 타산하여 누가 누구를 담당하고있는가를 한눈으로 알수 있도록 도표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일군들의 몫도 책임적으로 담당하는것을 제도화해나가고있는 단위(히가시오사까북) 등 이룩된 전진은 수없이 많다.

이처럼 사업이 개진되여 나가는데 따라 출판물을 통한 동포교양에 있어서도 《조선신보》 독자들의 모임을 가지는 단위(도아)들이 나오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풍이 생겨났다.

《조선신보》의 배포, 수금 사업이 제때에 책임적으로 벌어짐으로써 각종 출판물 보급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보게 된 이곳 본부.

현재 이꾸노남, 이꾸노동, 히가시오사까남, 히가시오사까북, 도아, 히가시나리, 가호꾸동, 아사히미야꼬, 이즈미오쯔, 히가시요도가와, 호꾸세쯔를 비롯한 많은 지부들에서 기관적인 사업으로, 분공에 따른 배포, 수금 사업으로 출판물보급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곳 본부에서는 이러한 꾸준한 사업의 결과와 함께 일군들의 열성으로 하여 지난해 1,015부의 《조선신보》를 새로운 독자들의 손에 가닿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수금쟁이》라는 말이 점차 사라지고 총련 14전대회이후 개편된 출판보급부의 활동이 동포들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되여나가는 과정.

이곳 본부에서의 지난 활동은 이 과정을 놓고 해설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출판보급일군들이 우리 출판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똑똑히 세워 보다 높은 책임성으로 깐지게 사업을 벌리자는 마음, 동포들에게 힘있는 지침을 안겨주자는 결심으로 가슴불태운 과정이기도 하였다.

새 통학빼스를 기증

총련 사이다마현 북부지부관하 동포들

총련 사이다마현 북부지부관하 동포들이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에 통학빼스를 기증하였다.

이곳 학교에서 이제까지 써오던 통학빼스가 낡아진 사정을 알게 된 북부지부에서는 올해에 들어 분회위원들과 젊은 상공인들로 통학빼스구입위원회를 조직하였는바 6명의 위원들은 관하동포들의 높은 애국지성과 애교정신을 불러일으켜 재정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사업하였다.

3일 증정축하모임이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구입위원회를 대표하여 후까야분회 하병언분회장이 사업보고를 하였으며 구마가야분회 리삼현분회장이 이 학교 주순길교장에게 빼스열쇠를 전하였다.

2부에서는 학생들의 예술공연이 있었으며 축하연을 위해 녀성동맹에서 많은 음식들을 마련했다.

이날 초급부 신입생들에게 총련지부에서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북부분국】



사랑어린 새 통학빼스앞에서

신입생, 진학생,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모임

녀성동맹 군마현 도모지부와 오오따분회에서

녀성동맹 군마현 도모지부와 오오따분회에서는 3월 29일, 새학년도 신입생 및 진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여기에는 관하 2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형들, 동포들 45명이 참가했다.

모임에서는 총련지부와 상공회, 녀성동맹 대표들의 축하연설이 있은데 이어 기념품이 전달되였으며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결의가 표명되였다.

학부형들은 학교가 1시간 또는 2시간 걸리는 먼곳에 있어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기에는 걱정이 있으나 그들을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우리 학교에 보낸다는 결의,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 학부형들이 힘을 합쳐 학교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결의들을 피력했다.

재학생들과 어머니들의 축하의 노래 등이 피로되여 모임은 시종 들끓고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녀성동맹 도모지부】



《팀 스피리트》중지와 《제재조치》철회를 요구

각지 일본인민들이 집회와 강연회 진행

사이다마

사이다마관하 공화국방문 일본인사들의 모임이 3월 26일, 우라와에 있는 사이다마떼이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주최자를 대표하여 사이다마주체사상연구회 요시다 아끼지씨가 연설하였으며 또한 총련본부 김갑진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련대연설을 하였다.

이어서 《최근의 조선정세》란 제목으로 국제문제평론가인 가지다니 요시히사씨가 기념강연을 했다.

모임에서는 또한 공화국에 대한 일본당국의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일조련대운동을 더 적극 추동해나갈 문제가 토의되였다. 【사이다마지국】

와까야마

《팀 스피리트 88》을 반대하는 일조련대와까야마 청년, 부인 집회가 지난 3월 27일에 열렸다.

집회에서는 총련본부일군과 일조련대와까야마현민회의를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연설이 있었다.

집회참가자들은 이날 와까야마시내를 시위행진하면서 《팀 스피리트 88》 군사연습과 일미《한》군사일체화의 반대기운을 높이였다. 【조청와까야마】

사 가

사가현청년로동자총결기집회(3월 28일)에서 《남조선려객기사건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문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취한 《제재조치》는 너무나도 과잉적인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철회하고 사건의 전모와 그 진상을 규명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사가지국】

효 고

효고현 아까시지구청년단결집회가 3월 29일 아까시시민회관 회의실에서 아까시지구의 각 청년단체 대표들 100여명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조청 아까시지부를 대표하여 지룡학일군이 련대연설을 하였다.

또한 비데오록화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되였으며 자료들 600부가 배포되였다. 【조청효고】

니이가다

《최근 조선반도정세와 일본—남조선비행기사건의 허실을 추구하다》란 제목으로 일조우호련대니이가다현민회의 주최로 3월 29일 시국강연회가 니이가다시 제1종합세이꼬회관에서 현하 각 단체 대표들과 시의회의원들 100여명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니이가다지국】

오사까

《팀 스피리트 88》 반대, 재일《한국인》정치범석방요구의 구호를 들고 남조선비행기사건의 본질을 생각하는 오사까집회가 지난 4월 1일 저녁, 오사까변호사회관 대홀에서 150명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예술영화 《어머니의 소원》이 상영된 후 리쯔메이깡대학 세끼히로하루교수의 《미소랭전구조의 붕괴와 조선반도—3개의 남조선비행기사건과 관련하여》란 제목의 강연, 《재일〈한국인〉정치범즉시석방을 위하여》, 《남조선비행기사건을 리용한 국가비밀법제정의 움직임》이란 제목의 보고가 있었다. 【오사까지국】



와까야마의 일본 청년들과 부인들



일조우호련대니이가다현민회의 주최 시국강연회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더 크게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13일 (음력 2월 27일) 수요일 【루계 제10182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부강한 통일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며 유능한 민족간부로 준비해나가자

1988학년도 조선대학교 입학식 진행

1988학년도 조선대학교 입학식이 10일, 창공이 펼쳐지고 정원에 피여난 갖가지 꽃들도 다정하게 맞아주는듯한 이 대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새 희망과 포부로 하여 화창한 봄날씨처럼 가슴부풀어오른 432명의 남녀학생들이 민족교육의 최고학부인 이 대학교에서 보람찬 학창생활을 시작하게 되였다.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서만술부의장과 김수진교육국장, 남시우학장을 비롯한 조대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각지 동포학부형들과 함께 입학생들을 열렬히 축복하였다.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으로 시작된 입학식에서는 먼저 공화국교육위원회와 우리 나라의 각 대학들에서 보내여온 축전들이 소개되였다.

이어 조대 명예학장인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연설 전문은 2면)

또한 남시우학장이 입학생전형보고를 하면서 보람찬 조대학창생활을 마음껏 누려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갖춘 어엿한 민족간부로, 조국통일의 역군으로 준비할것을 호소했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들을 대표하여 정치경제학부 지룡학학생이 결의토론을 하였는바 과학기술의 시대,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재로 준비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겠다고 기운차게 말하였다.

입학식에서는 또한 대학간부일군들과 각 학부와 리사회 교직원들이 소개되였다.

입학식에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최신과학기술을 더 잘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에 제3연구당을 건설하게 되였으며 체육관도 새로 건설하고 강당도 보수하며 기숙사도 수리하여 보다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게 된데 대하여 밝혀졌다.

명년 6월에 완공을 전망한 건설사업이 이룩되면 조대는 시대의 요구에 대응할수 있는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으로 더 잘 꾸려질것이다.

이날 동포학부형들은 신입생들과 함께 시설들을 돌아보고 열심히 배워 어엿한 민족간부로 자라나도록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1988학년도 조선대학교 입학식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하게

시내 근로자들이 궐기모임

【평양 4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 지시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수도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기 위한 평양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 책임비서 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강희원동지가 보고를 하였으며 평양시건설총국장 윤병권, 대동강건설총국장 최영환, 시행정및경제지도위원회 원림관리국장 김성대, 시사로청위원장 김동년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4일 평양시내 중요건설대상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이 건설대상들을 완공하면 수도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또한 우리 당에서 광복거리건설을 다그쳐 성과적으로 끝내고 그 기세로 평양시전반을 더 잘 꾸릴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수도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한 현대적도시로 꾸리기 위한 대건설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전국산업미술전람회 개막

전국산업미술전람회가 8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에는 전국의 산업미술창작가들을 비롯하여 미술가들이 창작한 장식도안과 장식조각 400여점이 전시되였다.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열린 이번 전람회에는 거리장식도안을 기본으로 하여 공원과 유원지, 봉사시설, 빼스 장식도안들이 전시되였다.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환영탑도안과 축전거리 장식도안, 축전야회무대장식도안, 극장소개관형태도안, 축전용관광빼스색도안 등 여러가지 장식도안들은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한 세계청년학생들의 대회합으로 되는 이번 축전이 보다 의의있는 축전으로, 참신하고 특색있는 축전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인민과 청년학생들의 성의있는 노력을 잘 반영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신 예금액 1조 4천억원 돌파!

제6차3개년계획목표를 1년 앞당겨 초과달성

조선신용조합의 총예금액이 1조 4천억원을 돌파하였다.

3월 31일현재로 38조합의 예금량합계가 1조 4,183억원, 지난 한해동안의 증가액이 1,575억원으로서 년간장성률은 12.5%에 달한다.

이는 명년 3월까지 벌리게 되는 조신발전 제6차3개년계획의 목표를 1년이나 앞당겨 초과달성한것으로서 총련조직에 굳게 뭉친 동포들의 단결된 힘, 진정한 동포들의 민족금융기관인 우리 조합의 위력을 크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

장기적인 전망, 참신하고 기발한 기획들

우리 조합들의 예금장성률은 언제나 일본의 신용조합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장해왔다.

재일동포들의 참된 민족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해마다 착실하게 장성해온셈이다.

최근시기 조합사업들은 종전보다 더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기관적인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도꾜, 오사까를 비롯한 각 조합들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 여러 행사와 사업들을 련속적으로 짜고들고있으며 동포들의 구미와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기발한 자양각색의 기획들을 세우고있는것이다.

창립 35돐을 앞두고 《잠프 35운동》을 성과적으로 추진한 조은도꾜신용조합에서는 지난해말에 《예금고 2천억원달성기념예금운동》을, 3월결산을 앞두고는 지점마다에서 《감사의 날》, 《하루지점장》사업, 후원회결성기념모임들을 조직진행하여 예금량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조합의 군중적지반도 더욱 튼튼히 닦았다.

조은가나가와에서는 지난해 10월까지를 《마음담아 안녕하십니까 35》 기념선전기간으로 정한후 《신규거래 1천구좌 획득운동》, 《안녕정기적금 1구 100만원계약 4천구좌획득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지난해 후지사와지점을 새로 개점하고 예금량도 17% 장성시키게 되였다.

한편 조은후꾸오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555(삼오)운동》을, 조은사이다마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가 주인, 넓히자 조신의 뉴대 30》운동을 벌리는 등 각지 크고작은 조합들에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 밑에 사업들이 추진되였다.

그러면서 이 기간 《건강저축계획〈건강〉》(도꾜 이께부꾸로지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려행적금(후꾸오까)을 비롯한 여러 기획과 상품들이 나왔다.

각 조합들에서는 최근년간 량적확대와 더불어 질적개선에 큰 관심을 돌려왔다.

예금의 안정된 장성, 공고한 예금의 확보, 경영의 효률화와 건전화 등을 주안으로 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례컨대 《하루리사장》, 《하루지점장》 사업들도 종전과 달리 장기적인 예금증가운동 등을 총련과 조청, 녀성동맹을 비롯한 전기관적운동, 전동포적운동으로 벌린데 토대하여 그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추진되였다. 지난 3월에는 51점포에서 진행되였는바 여기에 8,600여명의 동포들이 찾아와 흥성거리였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기적금확대를 위주로 하였으며 소액거래자들을 더욱 확대하는 등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하고 안정하고 공고한 예금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벌어졌다.

이에 따라 각 조합의 리사, 총대, 동포조합원 그리고 후원회 성원들이 동포들을 호별방문하면서 적금계약자를 수많이 확대하는 모범들을 창조하였다.

각 조합의 일군들은 우리 동포들의 자세가 이 몇해동안 많이 달라졌으며 《우리 조합을 발전시키자》는 주인다운 자세가 뚜렷이 나타나고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동포들은 복잡하고 긴장된 정세하에서 더욱 분발해나서는 애국열성을 발휘하였다.

이런 모습에 크게 고무되면서 조합일군들도 여느때없이 이악하게 사업하였으며 봉사성을 더 높이고 실무적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힘쓰군 하였다.

이번 3월결산의 실적은 이런 사업들이 은을 낸결과들이라고 할수 있다.

각지 조합들에서는 수지결산에서도 견실하게 마무리하여 조합사업을 더한층 발전시킬 토대들을 닦았다.

지금 조합들에서는 당면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앞두고 예금액 1조 5천억원을 달성할 목표를 내걸고 분발해나서고있다.



조신은 해마다 안정된 장성률을 보장하면서 공고한 예금을 확보해나가고있다.(사진은 조은도꾜 아다찌지점)

북남학생회담을 마련하려는 청년학생들의 진출을 억제할수 없다

평양기계대학, 경공업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들이 담화

【평양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 조선통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가 민족화해를 위한 《국토종단행진》과 공동체육대회의 개최를 협의하는 북남학생회담을 가질데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발기에 지지를 표시한것과 관련하여 평양기계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과 경공업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들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 회담할 의사를 각각 표시한것은 북과 남의 모든 청년학생들의 일치한 지향과 확고한 통일의지를 반영한 애국적소행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담화들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삼엄한 경계와 탄압 속에서도 북남학생회담을 발기하였고 그것을 지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총장에게 보낸 편지를 대자보로 게시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을뿐아니라 총학생회발대식을 가지고 학생운동을 《남북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굳은 결의를 다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북과 남의 대학생들의 의사가 방송으로나마 서로 소통되여 그 뜻이 일치함을 확인한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담화들은 서울대학교 학우들의 통일열망을 억제하고 통일구국의 귀중한 싹을 무지막지하게 짓밟아버리려고 필사적인 발악을 하고있는 남조선군사불한당들의 책동에 격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들은 민족분렬주의자들이 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을 가로막으려고 제 아무리 발악한다고 하여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억센 통일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으며 북남학생회담을 마련하려는 전체 조선청년학생들의 진출을 억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대학생 300여명이 지역로조의 활동 보장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소속된 대학생 300여명이 8일 단국대학교 교정에서 파쑈도당의 로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남부지역청년학도결의대회를 가지고 지역로조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학생들은 지역로조의 활성화를 위해 로동자들과 학생들의 련대투쟁을 강화할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집회를 끝낸 학생들은 가두시위에 떨쳐나섰다.

청년학생들의 진출에 당황한 파쑈도당은 이날 폭동진압경찰을 내몰아 그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이에 격노한 학생들은 달려드는 폭동진압경찰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며 용감히 싸웠다.

1988학년도 조선대학교 입학식에서 한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의 연설

사랑하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교직원들과 학부형 및 리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일흔여섯돐을 앞둔 매우 뜻깊은 시기에 1988학년도 조선대학교 입학식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신입생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이 되는 력사적인 해에 고급학교를 졸업하여 민족교육의 최고학부인 조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였습니다.

대학정원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여난 화창한 봄날에 조선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들의 가슴은 커다란 희망과 포부로 하여 높뛰고있을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조선대학교에 입학시키게 된 학부형 여러분들도 크나큰 기쁨에 휩싸여있을것입니다.

북은 혹가이도로부터 남은 규슈에 이르는 일본 각지에서 모여든 신입생들의 름름한 모습을 보니 우리의 기쁨도 한량없습니다.

나는 조선대학교 입학의 행복을 지니게 된 신입생들에게 그리고 학부형 여러분들에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조선대학교를 대표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들!

조국멀리 떨어져 이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가고있으나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오늘의 이 기쁨과 행복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사랑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습니다.

새 사회 건설에서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의 민족교육사업과 조선대학교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빛나는 발전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민족교육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총련의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사업과 조선대학교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가지가지의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한없는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총련은 유치반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민족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조국과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어엿한 역군으로 키울수 있게 되였습니다.

1957년 4월부터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혜택은 대학 전반사업과 함께 학생들의 대학공부를 확고히 담보하는 밑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올해만도 1월에 조국을 방문하였던 우리 대학 학생조국방문단을 접견하여주시고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어주시는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오늘의 입학식에 즈음하여 공화국교육위원회와 각 대학들에서 동포애에 넘치는 축전까지 보내도록 배려하여주시였습니다.

조선대학교에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배려는 참으로 바다의 깊이에도 산의 높이에도 비길데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총련사업과 조선대학교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주체위업의 영명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들

오늘부터 대학생활을 누리게 된 신입생들은 우리 조선대학교가 어떤 대학인가 하는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조선대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해외대학으로서 1956년 4월 10일에 창립되였습니다.

우리 조선대학교는 해외에 있으면서도 조국의 륭성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려는 민족간부, 재일조선인운동의 여러 사업분야를 책임질 지휘성원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 어느 나라 할것없이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가지지 않고서는 새 사회를 힘있게 건설해나갈수 없으며 나라의 번영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총련애국사업도 준비된 간부들에 의하여 그 발전이 담보됩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운명을 책임지는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조선대학교입니다.

물론 민족간부가 요구된다고 하여 조선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관리운영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총련은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도 조선대학교사업발전에 그야말로 커다란 힘을 돌려왔으며 후비간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기관과 모든 사업초소들에서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조선대학교는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놀아야 할 역할도 대단히 큽니다.

신입생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앞날을 떠메고나가는 민족간부양성기관인 조선대학교에 입학하게 된것이 얼마나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는것을 깊이 간직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대학교는 또한 과학연구의 전당입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높은 과학지식과 최신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애국사업을 추켜세우지 못할뿐아니라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도, 조국의 통일위업에도 크게 이바지할수 없습니다.

보통교육기관과는 달리 조선대학교는 전문분야별로 학부가 구성되여있으며 학생들은 학부, 학과의 전공에 따라 기초리론과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조선대학교는 공화국의 높은 학위학직을 소유하고있을뿐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학위를 가진 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리론수준이 높은 과학자들이 있기때문에 조선대학교에서는 과학기술을 탐구하려는 학생들의 희망과 요구, 재능을 얼마든지 꽃피워줄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대학을 졸업하여 자질높은 과학자, 기술자로 자라나 오늘은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 사람들도 수많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대학,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왕성히 벌려 그 이름을 내외에 크게 떨치고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서 열린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주체사상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우리 대학 부학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여 주체사상을 국제적으로 해석선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입생들이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조선대학교는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며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올리고있는 과학의 전당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기간 경제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시설과 설비를 부단히 개선강화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대학교는 3만평의 부지에 제1, 제2 연구당과 사무당, 후생당, 조선력사박물관과 조선자연박물관, 도서관, 강당 그리고 8채의 기숙사를 비롯한 여러 시설을 갖추어 대학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최신과학기술을 더 잘 소유시켜야 할 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에 조선대학교에서 제3연구당을 건설하게 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도 새로 건설하고 강당도 보수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생활을 보다 문화위생적으로 꾸릴수 있도록 기숙사도 수리하게 됩니다.

이번 건설사업은 대학력사에 길이길이 남을 거창한 일입니다.

지금 건설위원들과 리사들이 중심이 되여 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고있는데 오는 7월에 착공하여 래년 6월, 우리 대학 학사이전 30돐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건설사업이 잘 수행되면 조선대학교는 시대의 요구에 대응할수 있는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재일동포들의 높은 애국열성이 있기에 조선대학교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펼쳐지고있으며 조선대학교에서 배우게 된 신입생들의 미래도 희망찬란할것입니다.

신입생들이 세계의 교육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해외교포대학인 조선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것은 참으로 기쁨에 넘쳐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복잡합니다.

이른바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을 계기로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으며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여느때없이 대규모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소동까지 벌려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습니다.

그러나 내외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나라의 번영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결코 멈춰세울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습니다.

지금 조국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제3차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는 경제적위력에서나 인민들의 물질생활에서 선진국가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것입니다.

특히 오늘 조국의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편지와 구호를 받들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맞이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크게 떨칠 기세로 200일전투를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는 지금 전두환역도의 동생 전경환의 대규모적부정협잡행위에 대한 사회적분노가 절정에 달하고있으며 전두환역도의 군사파쑈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로태우도당은 당황하여 허둥지둥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욱 앙양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그것은 로태우도당이 《6.29선언》을 비롯한 《민주화공약》을 그대로 실현할수 없고 남조선의 경제형편으로 보아 로동자, 농민들의 요구를 해결할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청년학생들과 진보적민주세력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반미자주통일을 강력히 지향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올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지난해보다 그 성격과 내용이 한단계 심화되고 로태우도당은 더욱 궁지에 빠지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신입생들은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대학생활을 보내고 21세기에 한창 활약하여야 할 새세대들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세계는 물론이고 조선의 형편은 크게 달라질것입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나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나 재일조선인운동에서나 커다란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신입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부강한 통일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포부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전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선대학교 창립 3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하문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학습은 학생들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안에 학습규률과 학습기풍을 세우고 모든 학생들이 큰 포부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력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력사를 전진시키는데서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화국북반부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3대혁명소조에 적극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치고있으며 남조선의 청년학생들도 반미자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남북반부청년학생들처럼 시대앞에 지닌 높은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애국운동의 대를 훌륭히 이어나갈수 있도록 대학공부를 잘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은 자신을 유능한 민족간부로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은 또한 학습제1주의 방침을 높이 들고 학부양성목적에 맞게 공부를 잘하여 쓸모있는 전공자질을 소유하며 과학의 높은 요새를 하나하나 점령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힘을 든든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투철한 주체의 세계관, 전공자질과 함께 높은 모국 양은 조대생들이 갖추어야 요한 자질입니다.

신입생들은 우리 말과 글 바르게 배우고 쓰는 운동을 게 벌려 대학재학기간에 모 소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은 조청조직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할뿐아니라 패타락한 자본주의사상문화 염되지 말며 고상한 도덕 갖추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입생들도 잘 알고있는 같이 우리들의 주위에는 조 람이면서 민족적주체를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말을 모르고 나라 글로 의사표현을 못하 람을 주권국가의 훌륭한 라 할수 없고 그런 사람은 민족의 문화와 과학을 잘 켜나가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니 조선대학교 학생 지닌 임무는 대단히 무겁다 할수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대학기간에 총련애국사업의 발전을 위 조국통일을 위하여, 사회주 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유능한 민족간 준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학부형들도 사랑하는 아들 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지휘성 로 키운다는 관점에서 대학 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시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 지도자동지의 각별한 혜택을 는 조선대학교에 대한 우리 과 총련 그리고 동포들의 기 매우 큽니다.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은 위 수령님의 축하문교시를 철 관철하여 대학안에 주체의 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튼 세우며 올해에 대학의 기본 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앞에는 총련대 튼튼히 다지고 공화국창건 돐을 빛나는 애국사업성과로 이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인민들이 기세 벌리고있는 200일전투에 추어 총련사업에서 새로운 을 이룩하여 조국의 륭성번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더욱 이바지함으로써 공화국의 해 민된 높은 긍지와 영예를 온 상에 크게 떨쳐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뭉쳐 승리의 신심도 드높이 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남조선 야당과 재야민주세력에 대한 미제의 분렬와해책동을 규탄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고발장을 발표

【평양 4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의 야당과 재야민주세력에 대한 미제의 분렬와해책동을 폭로하여 9일 고발장을 발표하였다.

고발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야당통합문제가 내외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일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당후보단일화》문제도 성사되지 못하였고 야당통합문제도 실현되지 않고있다.

그것은 미국의 교활한 분렬책동에 기인된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저들의 식민지예속하에 있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분렬정책을 로골적인 형태로 실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분렬책동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조작한 이후 미제는 애국적민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야당과 민주세력을 분렬와해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미제는 리승만《정권》말기와 박정희파쑈통치말엽에 이르러 야당을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놓고 그중 어느 한쪽을 매수하여 내부 분쟁과 분렬을 조성하는 비렬한 책동에 매달렸다.

특히 미제는 1979년말에 남조선인민들의 10월민주항쟁에 의하여 박정희역도가 제거되자 형식상 최규하를 《잠정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세 김씨 사이에 맹렬한 각축전을 벌리게 함으로써 야당과 재야세력을 사분오렬시키고 그들사이의 대결을 조장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의 야당과 민주세력을 분렬시켜놓고는 그 막뒤에서 전두환, 로태우군사깡패를 부추겨 《12.12숙군쿠데타》와 1980년의 5.17파쑈폭거, 광주살륙전을 감행하여 인민의 피바다우에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을 만들어놓았다.

남조선에서 야당과 재야민주세력에 대한 미제의 분렬와해책동은 파쑈헌법개정을 요구하는 1,000만명서명운동과 민주화투쟁이 고조되던 1986년이후에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였다.

남조선에서 조성된 통치위기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 미제는 괴뢰들을 《여야타협》과 《합의개헌》에로 부추기는 한편 야당과 재야민주세력, 청년학생들과 민주세력 사이에 쐐기를 박고 분렬시켜 각개격파하는데로 나갔다.

미제는 《합의개헌》의 기만적구호밑에 우선 신민당을 일방으로 하고 청년학생들과 재야민주세력을 타방으로 하는 민주세력내부를 분렬시키는 작전을 벌리였다.

1986년 5월 3일 인천사태는 그의 뚜렷한 실례로 된다.

미제는 신민당과 재야민주세력 및 청년학생들간의 분렬을 조성하였을뿐아니라 신민당내부를 분렬시켜 당자체를 존재할수 없게 만들었다.

남조선의 야당과 재야민주세력에 대한 미제의 분렬와해책동은 지난해 괴뢰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욱 집중적으로 그리고 교활하게 감행되였다.

미제는 겉으로는 《미국은 특정한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있다》고 떠들어대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정보모략기관과 어용선전수단까지 동원하여 로태우역도를 적극 뒤받침하였다.

지난해 9월에는 로태우역도를 미국에 불러들여 레간자신이 그를 직접 만나 추어주는 놀음을 벌렸다.

《워싱톤 포스트》지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신문들은 로태우역도의 미국행각을 평하면서 그것은 《로태우를 다른 정치인물들과는 구별되는 지위로 격상시키고 미국의 지지를 나타내기 위한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 미제는 로태우역도에게 가장 유력한 적수들이 《후보단일화》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물고 뜯도록 부추겼다.

미제가 남조선현지《총독》인 릴리를 시켜 김대중과 김영삼을 각자 찾아가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지지할것》이라는 미국의 립장을 전달하게 하였고 령남과 호남 지방간의 지역감정을 고취한것은 그 표현이다.

인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중순부터 남조선에서는 민주당, 평민당, 한겨레민주당 사이에 통합협상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40여일동안의 협상은 결국 결렬을 가져오고말았다.

이것 역시 야당을 분렬시키고 야당지지표를 분산시켜 《민정당》에 유리한 《선거》표발을 조성하려는 미제의 야당분렬책동에 기인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야당분렬책동의 주역을 담당해 나선것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제임스 릴리와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장 제이 스타인이다.

승냥이 이발을 가진 이 두놈은 남조선에서 파쑈헌법개정과 민주화투쟁이 고조되던 1986년 10월에 파견되였다.

릴리와 스타인은 남조선에 파견된 현지 지배자, 조종자로서 처음부터 미국집권자들의 립장대로 각개격파, 분렬와해공작에 매달리였다.

릴리는 그후 미의회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자기의 활동에 대하여 말하면서 전직자 워커는 부임이래 한번도 김영삼, 김대중과 만나지 않았으나 자기는 김영삼, 김대중, 리민우 등 많은 인물들과 접촉하면서 보다 확신성있게 《에쓰—비작전》을 추진시키고있다고 하였다. (《에쓰—비작전》이란 미제의 야당분렬공작에 관한 략칭이다.)

모든 사실이 증명하 는바와 같이 미제의 분렬책동은 그들이 남 의 《민주발전》에 대 요란스럽게 떠들어대 그것은 다 가짜이고 이며 그들은 오직 식 지배를 위한 군사파쑈 를 유지하는데만 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국은 지금까지 남 에서 언제 한번 야당 야민주인사의 집권을 하지 않았으며 《국 야당화도 허용하지 다.

오직 저들이 길들 친미주구, 군사깡패 권력의 자리에 바꾸어 였을뿐이다.

이것은 미제가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정책을 집행할 군사파 재가 남조선에 필요하 문이다.

놈들의 이러한 변함이 없다.

남조선에서 인민대 의사와 요구를 반영 진정한 민주선거를 참다운 민주정권을 세 면 무엇보다도 미제를 아내고 미제의 지배와 섭을 끝장내야 한다.

조청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서 첫 돌파구를!

청년학교와 호조반 사업에서 앞장에

《우리 말과 글을 배워 국창건 40돐을 맞이 자!》는 구호밑에 각지 청조직들에서는 청년학 와 호조반 개강운영준비 업에 자별한 힘을 돌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특징은 언어, 말로써 표현됩니다. 조선말을 모르면 일본사람이 되고맙니다.…

동무들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조선사람을 만드는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광범한 청년학생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민족자주의식을 안겨준다는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지난 시기 청년학교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올해사업에 착수하고있는 조청조직들에서는 호조반과 청년학교를 적절히 배합하는것과 함께 비전임일군, 열성청년들의 《우리 말 교실》을 운영하여 이에 5천명의 청년들을 망라할것을 전망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수강생들의 요구와 사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학교를 내오는데 주력하면서도 일고재학조선학생, 조신, 상공회 거래자를 위한 교실, 야간반교실 등을 내오는 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또한 수강생들에 대한 교수, 교양 사업을 책임적으로 착실히 진행하여나가는데도 힘을 기울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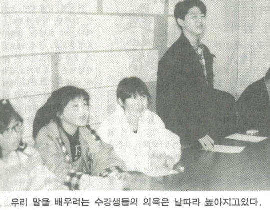
청년학교의 과정안을 정확하게 집행하는것을 철저히 지키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동시에 익혀나가는 방향에 따라 교수사업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조치도 취했다.

우리 말 배우기의 질적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실시하여 단계마다 수강생들의 실력을 배양해나가는것과 함께 새로 출판한 《조선어강좌》(내용은 별항)를 통일교재로 설정하여 실속있는 교수사업을 짜고들게 된다.

이러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직접적담당자인 강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요구되는것만큼 조청에서는 강사들의 모임을 수시로 조직하면서 교수교양사업에서의 우결함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고있으며 이미 중앙적규모의 강사강습회를 출발로 해서 이 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현재 《5만명조선청년실태조사사업》을 힘차게 밀고나가고있는 각지 조청조직들에서는 이 사업을 통하여 전반기청년학교 수강생망라목표를 달성하여 학교와 호조반을 착실히 개강운영하는 준비에 여념이 없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서 첫 돌파구를 열자는 조청의 기세는 날따라 고조되여나가고있다.



우리 말을 배우려는 수강생들의 의욕은 날따라 높아지고있다.

청년교양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각지에서 속속 개강

오늘 각지의 조청조직들에서는 금년도 청년학교, 호조반 개강운영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의 높은 요구성에 따라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전반기사업에 착수한 조청원들은 새세대 청년교양사업의 주인된 자각과 책임을 더욱 뜨거이 하면서 수강생모집을 잘하며 그들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교실을 내오자고 분발하고있다.

조청 오사까부본부에서는 일고재학조선인학생회사업과 꾸준한 방문담화를 짜고들면서 이미 관하 많은 지부들이 청년학교의 문을 열었다.

지난 3일, 히가시오사까동지부의 청년학교 개강을 출발로 해서 10개 지부가 전반기수업을 시작했으며 다른 지부들도 15일까지 개강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조청 효고현본부관하 각 지부들에서도 3월 30일 이후 니시고베, 히메지 등의 지부들이 청년학교를 개강하였다.

조청 교또부본부는 일고재학조선학생들의 콘사트(3월 21일) 등의 행사에 수강대상자방문사업을 결부시킴으로써 전반기 수강생망라목표를 달성하여 청년학교와 호조반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조청 기후현본부는 3월 21일에 일고재학조선학생들의 예술공연을 하는 한편 지부별로 개강하고있다.

조청 도꾜도본부는 벌써 년초부터 목적의식적인 수강생모집행동을 벌려옴으로써 2월말부터 3월말까지에 각 지부, 반단위에 청년학교와 호조반을 꾸렸다.

조청 가나가와, 야마구찌현본부들에서도 관하 여러곳에서 청년학교, 호조반의 시작종을 울리고있다.

개강된 청년학교와 호조반들에서는 교재 《조선어강좌》에 의한 통일적인 교수를 진행하고있으며 강사들은 받아들인 수강생들이 다 우리 말과 글의 실력을 배양하도록 질높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보장하고있다.

전반기수강생 망라목표 달성

조청 교또부본부

조청 교또부본부에서는 조직사업을 깐지게 짜고들어 올해 전반기청년학교 수강생망라목표를 달성하여 지부들에서 개강모임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였다.

3월 23일에 있은 본부적인 궐기모임이후 이곳 일군들은 2주일간 각 지부마다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벌렸으며 상공회, 조신에서 사업하게 될 조고졸업생들도 3월의 사업준비기간의 틈을 타서 지부에 나가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 항상 30~35명이 발동되여 300호 가까운 대상집을 방문한 우꾜지부, 청년학교사업을 반단위운동으로 밀고나간 후시미, 니시징지부를 비롯하여 니시, 사꾜, 미나미야마시로, 나까교, 야마시나지부들이 목표를 달성하였고 다른 지부들도 목표달성의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성과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올해에 벌어지는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서의 청년학교사업의 위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토대우에서 정력적으로 사업을 벌린 결과 이룩된것이다.

이곳 일군들은 《청년들속에 많이 들어가면 능히 해낼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청년학교사업을 실속있게 운영해나가고있다.

교재소개

60시간으로 우리 말을 습득할수 있는 새 교재 《조선어강좌》

동포들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자는 기운이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으로 더욱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조선청년사에서는 새로운 교재로서 《조선어강좌》를 발간하였다.

지난 시기 각지의 청년학교사업에서는 강사들의 노력으로 독자적인 교재와 자료들이 수많이 작성되여 활용되였는데 그런 경험과 효력에 토대하여 주로 회화습득을 위하여 준비된것이 이 교재이다.

새 교재는 4권으로 되여있는바 ①은 4급, ②는 3급, ③은 2급, ④는 1급의 등급제로 되여있으며 모두 60시간에 우리 말의 일상회화용어와 문자, 기본적인 문법도 동시에 배울수 있게 되여있다.

뿐만아니라 수강생들의 여러 사정에 맞게 청년학교, 호조반, 통신강좌, 자체 학습 등 배우는데 있어서의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교재①(4급)에서는 여러 장면에 맞는 인사말과 간단한 문자의 읽기, 쓰기, 발음법의 기초를 습득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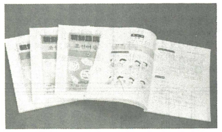
교재②(3급)에서는 일상회화와 함께 사전의 리용법, 문자의 읽기, 발음규칙을 기본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교재③(2급)에서는 상시 쓰이는 회화표현을 30의 문형으로 배움으로써 회화의 기초와 발음규칙을 다 습득하게 한다.

교재④(1급)에서는 ①~③까지 배운 회화를 위한 문형을 실지 여러 장면에서 응용할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2천개의 단어를 가지고 편지, 일기를 쓰거나 자기의 의견을 말할수 있게 한다.

《조선어강좌》(①~④)는 전 30과로 되여있고 매과에 2시간의 수업을 요한다.

과별로 학습목표가 정해지고있으며 만화를 통한 설명, 조언, 기본회화에 따르는 전개 등이 밝혀져 있다.



조선청년사에서 새로 발간된 《조선어강좌》

노래집 《우리 노래》 가사와 카세트

우리 말을 배우기 위한 교재들이 다수 작성, 보급되고있는 속에서 노래를 통하여 우리 말을 습득할수 있는 교재인 《우리 노래》(노래집)가 나왔다.

《우리 노래》에는 흔히 듣는 노래, 널리 알려져있는 노래 15곡이 수록되여있으며 가사집과 록음테프(카셋트) 2개가 있다.

가사의 하나하나에는 《가다가나》가 찍혀져있으며 테프는 에이(A)면에 가사(노래)가 수록되여있고 비(B)면에는 반주(《카라오케》)만이 흐르도록 되여있어 노래를 배운 다음에 반주에 맞춰 부를수 있게끔 구성되고있다.

수록되여있는 노래—《삼지연의 새벽길》, 《내나라》, 《아! 조국이여》,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 《내고향》, 《고향의 봄》, 《다정한 동무여》, 《희망의 길》, 《림진강》, 《봉선화》, 《아리랑》, 《도라지》,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노들강변》, 《옹헤야》

투고

우리 말을 옳바르게 쓰는데서 일군들이 앞장에 서자

리 도 문

지금 재일동포들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2세, 3세의 새세대들속에서는 우리 말과 글을 모르고 심지어는 일본당국의 동화정책에 말려들어가는 현상이 적지 않게 빚어지고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이를 놓고 외세에 의해 우리 나라가 량단되여 반세기가까운 세월이 흘러간 과정에 이국땅 일본에서 태여나 자라난 조건에서 일어난 《산물》이라고만 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말이자 곧 민족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밝은 앞날, 륭성번영은 새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분렬된 조국을 두면서도 이국땅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 말과 글을 배워 애국애족의 길에서 떳떳이 살아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각지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은 시기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까운 이웃동포들부터 다 망라하여 이 운동을 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일군들이 옳바른 우리 말을 쓰는데서 앞장서야 할것이다.

갖가지 조건으로 일본말 자체가 어지러워지고있는 속에서 우리 일군들이 쓰는 말에도 적지 않게 그 영향이 미치고있는 측면을 찾아볼수 있다.

특히는 웃사람을 대하는 말과 자기 동무, 아래사람을 대하는 말을 구분하여 쓰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이런 측면을 주의하여도 《그것은 복고주의》라고 제멋대로 결론짓는 사람도 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례의지국》이라고 불리워왔다. 례의란 말과 행동을 통털어서 말한다. 그러므로 웃사람과 벗들간에서 쓰는 말은 마땅히 구별하여 써야 한다.

일군들이 옳바른 우리 말을 쓰고 행동도 겸손하게 하여야 동포들과의 사업에서도 신뢰감이 오가게 되는 법이다.

이를 명심하여 일하는것이 애국사업발전의 또하나의 열쇠라는것을 알고 아름다운 우리 말을 꽃피워나가자. (가나가와현거주)

《내가 15명을 책임지겠다》

박양자강사 (조은후꾸오까신용조합 본점 업무부 주임, 23살)

조은사업으로 보낸 5년간은 청년학교 강사로서 활동한 기간이기도 하다.

박양자청년(23살).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이 개시되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5년동안에 가르친 수강생수 15명에게 맞먹는 동포청년들에게 운동을 통해 우리 말을 배워주겠어요.》 하는 대단한 결심을 다지고있다.

고생과 노력, 결실로 새겨진 지난 사업경험이 그를 이 운동의 선구자로 내세우는것 같다.

야마구찌조선고급학교를 졸업한후 배치된 일터가 조은후꾸오까신용조합 본점, 사정도 잘 모른데다 실무능력을 키워야 할 바쁜 나날에 조청 후꾸오까지부에서는 청년학교 강사로 사업할것을 권유해왔다.

《불안도 컸고 본신사업외에 또 저녁에 판이한 일을 해야 하니 처음은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고민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책임지고 다 훌륭한 조선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에 되새길 때,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자란 자신의 립장에 비추어볼 때 그는 거절할수가 없었다고 한다.

처음은 녀성수강생 2명을 맡았다.

수강생자신의 향학열이 높아 걱정은 없었고 수업을 매우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합에서 예금확대운동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수다한 실무사업이 제기되는 다망한 나날을 보내는 속에서 강사사업은 점차 힘겨운 사업으로 여겨졌다.

본신사업이 보조일치와 통일성을 요하는 집체적인 활동이여서 그런 때에 청년학교가 있다고 나가기가 매우 거북하기도 했다.

맡은 수강생수도 점점 불어났지만 겨우 시간을 만들어 수업에 림하면 결석자가 많다, 수업이 뜻대로 안된다 등 그의 열성과 어긋나는 결과뿐이였다.

《사업을 조절하는것이 야단이였습니다. 짜증이 나서 그만두자고 느낀 때도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련애문제로 고민하던 한 수강생이 울상으로 그를 찾아왔다. 친언니처럼 대해주는 그를 보고 수강생은 《정말 걱정해주어서 고마와요.》 하는 것이였다.

강사일을 놓고 모대기고 있는 자신을 친구라고, 강사라고 해서 고맙게 여겨주니 자기 사업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것을 그는 깨닫게 되였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있듯이 그의 강사활동의 부단한 실천이 보람차고 기쁜 결과만을 계속 가져왔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 동포청년을 다 조선사람으로, 애국사업의 주인으로 만드는 실천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의 생일에는 수강생들이 기념품을 주고 수료한 청년도 하까다에 올 때면 꼭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것도 기쁜 일이다.

그보다도 수강생이 우리 서적을 읽게 되고 또 즐겁게 조선노래를 부를 때 그는 기울여온 열성과 노력의 성과를 보았다.

5년의 세월을 강사사업으로 이어온 리유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지금은 히가시후꾸오까지부관하에서 청년학교의 밤을 보내고있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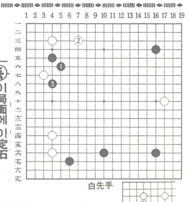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더 많은 청년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울수 있지요.》

8개월운동에서 앞장서게끔 자질향상과 교수교양의 수준 제고에 힘쓰겠다고 그는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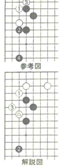


바둑 다음한수

이局面에 이定石



白先手



参考図

解説図

左上隅 黒1~3은 黒의 주문입니다. 定石이라고 参考図까지 응하면 黒4의 벌림이 左下隅 白에 다가서는 好点으로 되고맙니다. 그러면서 左上隅에 다음가는 수단이 없는것입니다.

이 경우는 解説図처럼 白 1, 3에 두는것이 좋습니다. 黒이 左辺에 전개한 경우에도 白에는 △의 오른쪽에 나가서 끊는 수가 남아있기때문입니다.

문화

평론

재일동포문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귀중한 싹들

◇1.4분기에 발표된 시작품을 놓고◇

김 정 호

최근시기 이 1~2년동안 재일동포문화(특히 문학)에 관한 론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시기 있어보지 못한 빈도로 문학심포즘, 좌담회가 조직되고 그 기사와 문학론설, 평론들이 《조선신보》를 비롯한 우리 출판물, 잡지들에 눈에 뜨이게 실리게 되였다.

그런데 이 기간 신보에 게재된 기사들의 표제를 주어보며는 그 수다한 론의들이 다 한곬에 흘러들고있음을 잘 알수 있다.

《우리 문학이 수렴해야 할 동포생활의 현실》, 《오늘의 현실과 우리의 문학창작활동》, 《새로운 환경에 맞게 문예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포문학의 의미를 보는 하나의 시각》, 《통일과업과 동포생활의 결부》 그리고 《〈문예운동의 활성화〉란 말을 두고》 등등……

요컨대 새로운 재일동포문학의 창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그 초점을 동포들에게 읽히는 문학—동포들의 생활에 필요한 문학이라는데 두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본디 문학을 하는(쓰고 읽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원초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고 그에 대한 대답의 하나로서 보편성(전형성)의 획득이라는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을수 있는것이 아닌가?

보편성이라는게 심리, 감정의 공체험(共体験), 추체험(追体験)에 의해서 크게 담보되는것만큼 소설보다 시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수 있는게 아닐가?

1.4분기에 나온 지역문예지들인《산울림》 28호(도꾜), 《문예효고》 6호, 《봉화》 2호(이바라기)에 실린 시편들과 신보에 게재된 11편의 시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공동체험의 서정적 공간 마련하고저

흔히 시는 이미지의 산물이라는데 그 이미지를 독자에게 안겨준다는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그것은 수단) 목적은 그를 통하여 독자에게 절실한 공체험을 시키는것이다.

이 공체험—《아, 이 마음 알수 있다!》, 《그래, 이럴 때가 있(었)구만.》을 시키는 힘이 전형성(보편성)을 작품에 부여하며, 이는 우선 생활감정에 의해서 담보된다.

로진용의 《사랑련시》(《문예효고》)와 리우자의 《그대 걷는 길이기에》(《봉화》)는 이것을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시들은 그 시비는 있을수 있으나 솔직한 생활감정의 표출(공유할수 있는 서정)이란 점에서 작품과 독자의 관계성립의 가능성을 엿보여주며 생활 혹은 생활감정이 없이 《알몸의 사상》 제시로 그친 지난 시기 일부 경향의 타개에 한몫 끼여준다. (공유할수 있는 감정, 안겨주어야 할 서정—이것에 우리의 생활이 있어야 하고 문제제시가 있어야 하고 지향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이것들이 융화된것이 사상이 아닌가.)

그렇다고 련애를 주제로 한 시에 《조직》이나 《조국》을 갖다붙이면 《보편성 있는》, 《괜찮은》 작품이 되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생활감정은 곧 련애감정이라는 무섭고 부끄러운 착각은 꼭 피해야 한다. (생활을 그린다고 해서 무의미한 《사랑의 장면》을 삽입하는 문예작품이 최근시기 가끔 보인다.)

우리 동포생활의 한단면, 한토막을 깊은 관찰밑에 날카롭게 베여내고 거기에 따뜻한 그리고 공유할수 있는 서정의 입김을 불어넣어주는 창작적탐구가 요구되고있는것이다.

이 점에서 로진용의 《싸움》과 《다시는 이런 술은》은 많은 시사를 주는 작품이다. 술과 친구와 푸념 혹은 싱갱이질—동포생활의 한 단면을 그린 두편의 시에는 확실히 독자가 추체험할수 있는 서정이 깔려있으며 이는 은근한 지향에로 곱게 승화되여있기도 한다.

보편성 획득을 위한 서정의 표출(①)과 함께 놓쳐서는 안될 또하나의 기둥이 문제포착의 예리성 즉 시점의 예리성(②)이다. 이건 물론 시에 한한것이 아니라 문학일반에 꼭 요구되는것이지만 ①이 표면상 보며는 생활감정에 의하여 일정하게 담보되는 것만큼 ②의 구비여하는 어느 의미에서는 ①보다 긴요하게 제기되여있다고 볼수 있다. ①보다 더 시의 사회적가치를 좌우하게 된다는것이다.

시와 산문의 표현적특질의 차이는 무용과 보행의 차이로 비유되기도 한다. 산문에 비유되는 보행이란 하나의 대상을 향하여 진행되는 행위로서 그 목적은 대상에 도달하는데 있으므로 그 행위의 도중에 있어서의 상태는 제1차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무용은 그 행위의 양상 그 자체가 문제로 되여온다.

보행의 첫걸음은 목적의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괜찮으나 무용의 첫걸음은 긴장과 감동에 안받침되여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우리 생활속에서 같은 문제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산문과는 비할바없이 작은 그릇에 그것을 담아야 하는 시인것만큼 그 끊어낸 단면은 훨씬 날카로와야 한다. 무용은 첫걸음을 잘못디디면 실패인것이다.

이 기간 《조선신보》와 지역문예지들에 실린 적지 않은 시편들은 오늘날 시문학이 요구성에 있어서 다른 문학형태들을 앞서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통일을 《우리 생활의 문제》로

그 성과는 무엇보다도 다종다양한 주제(그것으로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질만한)들을 재일동포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속에, 이를테면 우리의 《수비범위》안에 끌어당기고있는 점이다.

《8개나 했어요 / 우리나라 선수가 탄 메달 / …… 8개가 아니였어요 / ……우리는 언제나 더하기 마음 / 16개였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탄 메달》(최영진《8개》), 《갈라진 내 조국도 / 우리 힘으로 / 꼼짝 달싹 못하게 / N와 S로 하자 하셨네》(최영진《N와 S》), 《오늘도 산수시간 재미나는 문제풀이 / ……온 가족 합치면 얼마나 될가요? / / 나는 나는 머리에 그려보며 세였지 / ……아버지가 언제나 생각하시는 고향땅의 할머님을 더 합하여》(장귀자《산수시간》), 《그래도 이역땅에서는 / 〈남〉태생 바지저고리와 / 〈북〉태생 바지저고리가 / 한자리에 모여앉을수 있어도 / 조국은 그대로 두 동강이 / / …옳지옳지 이러자 / 알맞춤해진 〈북〉의 저고리 입고 / 〈남〉의 바지 합쳐입자》(최태순《바지저고리》), 《엄마의 공부시간 / 아가야 잘 자거라 / 너의 꿈은 통일의 꿈 / 너도……분렬조선을 알아야 하는가봐》(서일순《아가야》)

한부분을 인용한 이 시들은 특히 통일문제를 우리 생활속에 완전히 녹여버림으로써 조국통일이라는것에 구체적인(생활적인) 표상을 주는데 성공하고있다. 생경한 사상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문제》로서 접수가 되는것이다.

여기에 시점의 독자성, 예리성의 발현이 있으며 《생활과의 결합》이라는것이 가져와주는 또하나의 보편성 획득의 묘법, 아니 정법이 있다.

눈에 뜨인 또하나의 주제가 《대를 잇는다》는 문제인데 《아버님 진갑날에》(강룡수), 《소리》(정화흠)는 일본에서, 《아버지가 태여난 땅》(류광자), 《해바라기 피는 고향길》(강명숙)은 조국방문의 길에서 얻을수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구체적이고 풍부한 이미지(내려 쌓이는 눈과 백발, 봄을 알리는 갖가지 소리, 은파호의 물, 해바라기 등)로써 내놓았다.

이렇게 보니 2, 3세의 젊은 시인들의 대두가 눈부시고, 그 대두가 오늘날 제기되고있는 문학적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각기 안고있는 현상으로서 상황타개에 밝은 전망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것이 주제와 작품의 경향이 정비례하고있는게 아닌가는 문제다. 방법이나 시풍을 두고 경향이라 하고있는데 물론 주제에 따라 방법을 의식적으로 바꾸고있는거라고 생각하고 또 바꾸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주제니까 이런 시풍—이와 같은 제한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써오던 말을 빌린다면 ①공유할수 있는 서정과 ②문제포착의 예리성이 한작품안에 공존하지 못하고 왕왕히 ②로 그치거나 혹은 ②가 없이 ①만 드러나거나(잘못하면 자기 감정의 강요) 하는것이다.

새로운 시점에서 포착한 문제를 서정에로 승화시킨다—이 기간 발표된 작품으로 말한다면 조국을 노래한 시와 사랑을 노래한 시의 융합, 합체가 더더욱 시도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대 문학부 교원)

맛좋고 몸에좋아

계절에 맞는 우리 음식

봄편

1 더덕구이

라 제 구 (식품학연구자)

요즈음 동포들속에서는 건강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 속에서 이 둘을 합친 건강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있다.

우리 조선음식을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거기에는 오랜 력사적기간을 거쳐 우리 민족이 축적한 생활의 지혜가 담겨져있으며 약식동원(薬食同源)의 사상이 관통되여있다.

오늘부터 한달에 두번씩(2주와 4주) 1년간에 걸쳐 련재하게 되는 코람《맛좋고 몸에 좋아》는 그러한 음식들속에서 ①재료를 구하기 쉬운 음식, ②비교적 간단히 만들수 있는것, ③계절에 맞는 음식들을 골라서 소개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그 음식에 쓰이는 재료와 만드는 법, 음식이 건강에 어떻게 유익한가를 내용으로 담는다.

식품학연구자인 라제구씨, 료리연구자인 정숙희씨, 김순자씨들이 집필한다.

인삼 비슷한 성분 있어 강장, 강정에 효과 많아



이 음식은 보통 밥 반찬으로 하지만 술안주로도 좋다. 더덕성분의 섬유질은 씹으면 마치나 육고기와 같은 맛을 준다. 그때문인지 불고기를 할 때 더덕구이가 있으면 아주 고급한 료리로 된다.

더덕은 옛날부터 한방약재로 잘 쓴다. 껍질을 벗기면 인삼(人参)과 모양이 비슷하기에 별명으로 백삼(白参), 사삼(沙参)이라고도 한다.

인삼이 가지는 사뽀닌 성분과 닮은 성분이 있기때문에 강장(強壮), 강정(強精)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그점에서는 나이많은 사람들의 반찬으로 좋을것이다. 또 더덕의 성분은 내장을 강하게 해준다.

위(胃), 장(腸), 폐(肺), 비(脾)장, 신(腎)장 등 내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그 힘을 돋군다는것이다. 특히 건위(健胃), 건장(健腸) 작용은 잘 알려져있다.

또 어린이나 녀성들의 피부를 곱게 해주는 효과도 나타낸다.

이처럼 약용적인 효과는 많지만 식품카로리는 적다. 이 료리는 상술한 4명분으로 전체 카로리가 200카로리이며 한 사람당은 50카로리밖에 안된다. 그러니 더덕은 많이 먹어도 몸이 나지 않는 저카로리 약용식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더덕은 4월중순부터 5월중순에 산에 가면 캘수 있다. 요즘은 조선음식재료점에 부탁하면 구해주는데도 있다.

양념장을 바르기전에 한번 굽는게 비결

재료(4명분) 200카로리 더덕 150g, 파 1뿌리, 마늘 1½쪽, 고추장 큰술 1, 간장 큰술 1, 사탕 큰술 1, 참기름 적당량, 깨소금

만드는 법 ①더덕은 껍질을 벗겨 물에 잘 우린 다음 방망이로 두들겨 넓게 편다. ②간장과 참기름으로 기름장을 만들어 더덕에 발라서 굽는다. ③고추장, 간장, 사탕, 다진 파, 마늘,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풂인다. ④양념장을 더덕에 발라 석쇠(金網)에서 잘 굽는다. ⑤깨소금을 뿌려서 먹기 좋게 그릇에 담는다.

더덕구이에서의 비결은 ④의 양념장을 발라서 굽기전에 미리 한번 굽는데 있다. 직접 양념장을 발라 구우면 겉만 타기 쉽기때문이다.

더덕뿌리가 큰것은 두들겨 펴지만 작은것은 그냥 썰어서 구워도 좋다.

한겨레선생



알림 **독자들에게**

4월 16일 《조선신보》는 휴간입니다.

4.24한신교육투쟁40주년 민족교육심포즘

때—4월 17일(일) 오후1시

곳—조은오사까본점 강당



심포즘에서는 기조보고에 이어 《민족교육과 금후과제》, 《가정교육에서 노는 어머니들의 역할》, 《일교재학조선학생의 현상과 과제》의 제목으로 파넬토론을 가진다.

저류

신상옥, 최은희는 미정보국의 앞잡이

허위날조로 얼룩진 수기

일본잡지가 분석

일본잡지《데이즈 재팬》(창간호 88년 4월)은 아오끼 나오도씨의 글《홍콩에서 〈랍치〉된 영화감독부부의 중대한 의혹》을 실어 신상옥, 최은희가 미중앙정보국의 앞잡이였음을 각종 정보, 현지답사결과를 통해 폭로분석하고있다.

글은 먼저 신상옥, 최은희의《랍치》운운이 남조선비행기사건과 때를 맞추어 갑자기 부각되였다고 전제한후 그 의혹을 두가지로 분석하고있다.

하나는 신상옥자신이 《랍치》되였다고 말한 현장(홍콩 레파르스베이)에 대한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그자들이 미국에서 발표했다는 수기에 대한것이다.

필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레파르스베이가 홍콩굴지의 관광지로서 인파가 많고 경비가 심하여《랍치》가 불가능하다는것 그리고 홍콩의《한국총령사관》의 김경해공보관이란자가《그(신상옥)가 78년에 북으로 갔을 때 그자신이 랍치되였다는 자각이 있었던가 어떤가 모른다》고 말한 사실을 밝히고있다.

또한 수기에 대해서도 시일, 장소가 너무도 치밀한 점, 북에서의 생활이《랍치》된 인물의 생활이 아니라는 점, 도청테프 8개와 300장의 사진을 소지하고있었다는 점들을 의문으로 들고있다.

그러면서 수기의 내용에 정통한 어느 워싱톤보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그는 두명의 〈랍치〉사건이 사실 북의 범행이라면 북의 대응은 모순투성이이지만 반대로 그들자신의 자발적인 망명이라고 하면 두명의 수기에는 큰 허위날조가 숨겨져있음을 새삼스레 지적했다.》고 썼다.

끝으로 어느 정보관계자의 증언이라고 하면서 신상옥, 최은희가 83년 10월부터 86년 3월까지 동방, 서방의 나라들을 넘나들면서도 도주하지 않았던것은《미정보기관의 의향을 받은 북의 정보수집이 목적》이였다고 주장하였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金日成主席誕生76周年 各地で熱烈に祝う

来る十五日に迎える金日成主席の誕生七十六周年を熱烈に祝って、今年も各地でさまざまな集いが催されている。総聯各県本部の慶祝大会をはじめ、支部や分会、各階層別に祝賀宴、野遊会、文芸の集い、体育競技など、多彩な集いが行われ、同胞らは主席の誕生日を心から祝福している。絶好の春日和の中、十日に行われた埼玉県朝鮮人大野遊会、総聯大阪府分会対抗ソフトボール大会(決勝戦)、福岡県朝鮮青年祭をクローズアップしてみた。

慶祝大会と大野遊会　総聯埼玉

十日、埼玉朝鮮初中級学校で開かれた埼玉県朝鮮人大会には、県下同胞ら約六百人が参加した。

同校講堂で行われた第一部の記念集会では、同県本部・金甲鎮委員長があいさつに立ち、県下同胞らの敬慕の念を込めて主席の万年長寿を祝願した。

第二部は同校運動場で大野遊会が催された。この日は天候にも恵まれ、絶好の野遊会日和となった。

運動場では同胞らが、支部別に七輪を囲んで焼肉を食べたり、それぞれの家庭で持ち寄った弁当を開いて楽しいひとときを過ごした。

仮設ステージでは北関東朝鮮歌舞団の公演が披露され、この日の大会に花を添えた。

また、のど自慢大会には支部・分会の"名歌手"がウリ民謡や歌謡曲を歌って自慢ののどを競い合い、その周囲では老若男女を問わず、喜びに満ちた笑顔でオッケチュムの輪を作っていた。

参加者たちは「一世から三世、四世のちびっ子まで、みんなで楽しめるなんて素敵ですね」「来年も、ぜひ参加したいですよ」と語っていた。



七輪を囲んで焼肉に舌つづみ、楽しいひとときを過ごす

分会対抗ソフトボール　46チーム、600余人参加　総聯大阪

大阪朝鮮高級学校のグラウンドでは十日、第二十三回総聯大阪府分会対抗ソフトボール大会(三月二十日~四月十日)が催された。

この大会は、十二年前から毎年二回、定期的(春、秋)に行われ、総聯分会の活性化に役立ってきた。

先月の二十日に開幕した今回の春の対抗戦には、四十六チーム、六百余人の選手らが参加。一・二部、三部に分かれ十日までの毎週日曜日(三日を除く)、大阪朝高グラウンドと久宝寺競技場でトーナメント形式で勝敗を競い合ってきた。

この日、竹渕分会(東阿支部)と天下茶屋分会(西成支部)の間で一・二部(十六チーム参加)の決勝戦が行われた。

金日成主席の誕生日を祝う大阪府慶祝大会終了後に試合が開始されたとあって、多くの同胞らが観戦、熱い声援が飛びかった。

過去二回優勝(竹渕)、そして幾度も準優勝(天下茶屋)した強豪同士の対戦とあって、予想どおりの接戦を展開。五回裏、猛打撃で天下茶屋が一点差に迫ったが六回表、竹渕がランニングホームランで二点を入れて逃げ切り、八対五で勝利、三回目の優勝に輝いた。

三部(三十チーム参加)は同じ支部(東大阪南)である長瀬、渋川分会の対戦。十二対十で渋川分会が優勝した。

試合後に行われた閉幕式では、総聯大阪府本部から優勝旗、カップ、メダル、優秀選手賞などが贈られた。

竹渕分会の李龍世監督は「よもやの勝利ですわ。これをバネに、もっとチームを強化していきたい」と述べていた。



この日の決勝戦では白熱した接戦を展開した

朝鮮青年祭に280人参加　朝青福岡

十日、北九州市立総合体育館では福岡県朝鮮青年祭が催された。同青年祭は、民族的慶事を祝うとともに、今年に入って朝青福岡県本部管下の各支部、班単位で繰り広げてきた「愛国栄誉旗獲得運動」に取り組む準備に基づき、班単位の運動を本格的に推し進めるきっかけにしようと企画されたもので、二百八十人の地域青年たちが参加した。

朝青本部では三月七日から今月の十七日まで「一千人朝鮮青年訪問談話運動」を進めてきたが、その結実として同青年祭の盛況となった。

青年祭では、第一部として第七回班対抗バレーボール大会が行われ、第二部は参加者が一堂に会しての食事(焼肉)会が持たれた。

第一部、バレーボール大会には十三の支部から二十九の班が出場して、熱戦を展開した。一回戦は八ブロックに分かれ、総当たりで競技を行い、二回戦は、各ブロックの優勝チームによるトーナメント戦で勝敗を競い合った。

そして、その成績にしたがって準決勝、決勝と競技が進行された。その結果、小倉支部Bチームが優勝の栄誉に輝いた。

バレーボール大会を終えて参加者たちは、焼肉を囲んで食事会を開き、互いの労をねぎらいながら今後の班活動に向けた決意などを語り合った。

共和国最高人民会議 第8期第3回会議開かる 88年度国家予算を採択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八期第三回会議が金日成主席の参席のもと五日、平壌の万寿台議事堂で開かれた(~七日)。会議では、政務院財政部長である尹基貞代議員が議案「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一九八七年度国家予算執行の決算と一九八八年度国家予算について」報告。各代議員が討論を行った後、八七年度予算執行の決算と八八年度国家予算について全員一致で採択された。

最高人民会議第八期第三回会議には、金日成主席をはじめ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政治局員と委員候補、中央人民委員会委員、党中央委員会書記、副総理、最高人民会議常設会議委員、そして最高人民会議代議員らが出席した。

楊亨燮最高人民会議議長が開会の辞をのべた後、尹基貞財政部長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一九八七年度国家予算執行の決算と一九八八年度国家予算について」報告を行った。

尹財政部長は報告の中で、人民経済部門で新たな高揚が起こり、社会主義の物質技術的土台と国の自主的財政土台が強化された結果、昨年度国家予算は成功のうちに執行されたと強調した。

報告によると、昨年度国家予算歳入総額は三百三億三千七百二十万ウォンで計画比一〇〇・一%に超過遂行、一昨年比一〇六・三%に増大した。また国家予算歳出総額は三百億八千五百十万ウォンで、計画比九九・三%が執行され八六年比一〇五・九%に増大した。これによって二億五千二百十万ウォンにのぼる歳入超過をもって決算された。

一九八八年度国家予算は、歳入と歳出総額は各々三百十八億五千二百十万ウォンで、昨年に比べて歳入総額は一〇五%、歳出総額は一〇五・九%に増大することになる。

※　※

最高人民会議——共和国の最高主権機関。人民の代表機関として、立法権を行使する唯一の機関であり、他のいかなる国家機関もその権限を代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最高人民会議は、人民の総意を代表し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主席を選出し、主席の提議によって副主席、中央人民委員会書記長、委員と政務院総理、国防委員長などを選出、または召還する。同会議はまた、国家の対内外政策の基本原則を樹立し、人民経済発展計画と国家予算を承認し、戦争と平和に関する問題を決定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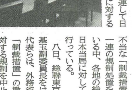
最高人民会議は、定期会議と臨時会議を有しており、定期会議は年に一ないし二回招集される。臨時会議は、最高人民会議常設会議が必要と認める時、または全代議員の三分の一以上の要請がある時に招集される。

最高人民会議代議員は、人口三万人につき一人の割合で、任期四年をもって選挙される。選挙権および被選挙権は、満十七歳以上のすべての人民に与えられている。

「制裁措置」撤回を要求　総聯東京の代表ら

KAL機事件と関連して日本政府当局が共和国に対する不当な「制裁措置」を発表、一連の規制処置を取り続けている中、各地の総聯代表らが日本当局に対して抗議要請を行っている。

八日、総聯東京都本部の河基玉副委員長をはじめとする代表らは、外務省を訪ねて、「制裁措置」の撤回と総聯に対する規制を中止するよう抗議した。また、併せて在日朝鮮人の人権を尊重する具体的な処置を取るよう要求した。



日本法務省に「制裁措置」の撤回を求める総聯東京の代表

朝鮮の民話劇に子供たちが喜ぶ　東京第五初中

東京朝鮮第五初中級学校の生徒たちのための演劇「宝のつるはし」が十一日、東京・墨田区の曳船文化センターで催された。

この演劇は、一昨年の夏、風の子劇団による朝鮮民話劇「宝のつるはし」を見た、同校の李文子、金幸順オモニの提案で企画されたもの。

「子供たちにぜひ見せてあげたいと思ったんです。チョソンの民話を本格的な演劇で見る機会も少ないし。その場で楽屋を訪ねて頼んだんですよ」

そしてオモニたちはバザーや文化祭で得た収益金で劇団を呼び、この日の公演となった。

約二時間におよぶ「宝のつるはし」は働き者のかじ屋の息子セドリを中心に繰り広げられる昔話。貧しい生活でも正直物で正義感が強いセドリとチョソンを我が物にしようとたくらむ"まおう国(日本)"の王子との間で起きる様々な出来事のなかで笑いあり、涙ありの演劇は子供たちの心をしっかり捕えてしまった。

初級部四年の李福愛トンムは「もう一回見たいなあ。すごく楽しいし、勉強にもなりました」と語る。

また、この四月に入学したばかりの宋光守トンムは「トラが一番面白かった。大きくて、セドリを乗せて席に走って来た時は驚いちゃったよ」と、セドリを助けた勇敢なトラに自分も乗りたそうだった。



トンボの街かど

交流深めるストライク　三多摩の朝青員らがボウリング大会

四月の慶事を祝って、三多摩朝青員たちのボウリング大会が九日、立川市のボウリング場で行われ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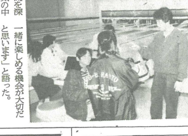
会場には、八十余人の同胞青年たちが参加し、ワンフロアまるごと借り切ってゲームが行われた。

ストライクをとるたびに歓声がわき、またガーターを投げた者がいれば笑い声が起きる。隣り合ったフロアの者も拍手を送り、互いのプレーをたたえあった。また、フロアのあちこちでは、即席の「ボウリング教室」とばかりに、熱心にアドバイスする姿も見られた。

労働青年から日高在学生まで、年齢も職種も様々な幅広い層の青年たちが集まり、参加者たちはゲームを通じて交流を深め、終始和やかな雰囲気の中で大会は進められた。

この日の実行委員長を務めた朝青三多摩・西部支部の全北南委員長は、「みんな昼間はそれぞれ違う所で働いていて、夜に顔を合わせるといっても支部の仲間ぐらいですからね……。やっぱりこういう風に、たくさんのトンムたちと一緒に楽しめる機会が大切だと思います」と語った。

なおゲームの結果、六支部対抗の団体戦では西部支部が、個人戦男子は八王子支部の趙徳来トンム、女子は中部支部の任忠順トンムが優勝。また「ブービー賞」や「ピタリ賞」などの表彰も行われ、テレビやCDプレーヤーなどの賞品が贈られた。



水曜訪問

還暦の大学生

この4月、東洋大に推薦入学した一世同胞の 姜泰順さん

「私の生き方が若い人たち、そして同じ一世同胞たちの励みになってくれれば……。学んだことは社会で役立ってこそ生きたものになるでしょう」

生きいきとそう語る姜泰順さんはさる六日、東洋大学に入学したばかりの一世同胞。今年還暦を迎える。

日帝時代、貧しい農家に生まれた姜さん。幼いころから「女も学ばねばならない」というアボジの口癖と、十八歳にして医者の資格を得た兄の影響を受けて育った。

「生きるためには学ぶことが何よりもの力だ」と十六歳の時、ひたすら学びたい一心で単身、日本に渡ってきた。

空襲下、東京のど真中でも「一人でも惨めな生き方はしたくない。何でもいい、どうせ働くなら学べる職を」と、誰もがいやがる結核病院の看護婦見習いもした。結婚後も「主人と一緒に無我夢中でした。教育のためなら何でもしましたよ」。

貧しい生活の中でも「学ぶことに対する信念」は変わらず、五人の子供たちを学者や教員に育てた。そして一段落した七年前、「これからが私の時間」と夜間中学に通い始める。

「授業中、ディス・イズ・ア・ペンの発音が出来なくて、悔しさ、悲しさ、情けなさのどん底でした」

一世同胞女性の意地でもあった。家のあらゆる所にアルファベット表や数学、物理の公式表を張り付けた。話をしていても手でABCをいつもつづった。

「視野を広げたい。そして何よりも植民地の悲哀を二度と経験したくない。だから社会についてたくさん学びたいんです」と、社会学部を選んだ。

大学では、多くの日本の若者たちと触れ合い、自分の姿を通じてチョソンサラムをより理解してほしいと語る。

そして今、姜さんは「ここまで来れたのも主人の支えがあったからです。誰よりも私を応援してくれました。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と幸せそうな表情を隠さない。(恵)



1928年12月6日、済州道に生れる。16歳で日本に渡り、20歳の時に結婚。72年に息子3人が共和国に帰国。81年に荒川第九中学夜間部に入学、今年都立上野高校を首席で卒業した。現在、主人と長男、末娘との四人暮らし。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260)5881
内線 453・435
436・428



熱意に支えられもうすぐ1年

目標は毛筆で年賀状を書くこと

女性同盟・名中支部 習字サークルを訪ねて

女性同盟愛知・名中支部では、文化教室の一環として習字のサークルを催している。昨年の五月に開講し、現在、参加者は十人。講師の指導のもと週一回、技量を磨いているオモニたちを訪ねた。（香）



2時間ひたすら練習に励むオモニたち

土曜の午後、名中支部には文具を抱えたオモニたちが集まってくる。習字サークルに参加するオモニたちだ。

名中支部は、管轄地域が広い。そこで同支部では、昨年の五月から七月まで、移動文化教室と銘打って、支部と各分会ごとに総合的な文化教室を開いた。

そのとき、支部で開いた教室の科目の中に習字があった。

「ペン字はや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筆は運びが難しくて…。日ごろ帳簿などでよく字を書くのでやりたかったんです」と朴静枝さん。

文化教室の終了後、参加者に意見を聞いたところ習字の人気が高く、「継続してほしい」という声があったので、習字サークルは今でも続いているのである。

始めたとき、オモニたちの中には、書道の経験者は一人もいなかった。

そんなオモニたちを懇切丁寧に指導してきたのが、名古屋市役所に勤める清悦幸さん（七段）である。

「以前、朝鮮の方に教えた縁で、支部でも教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が、皆さん礼儀正しく、のみこみも早いようです。書道は十年でやっと一人前。終身つづける気持ちでやってほしいですね。私も要望があるかぎり指導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きびしい」と自称する先生の添削を受けるオモニたちの姿は先生の前に立つ小学生のようだ。先生のアドバイスに一喜一憂しながら、指摘された所を直そうと必死だ。

土曜の午後は、保育園や幼稚園が午前中に引けるので、時間をとるのもなかなか難しい。

一時は、参加者が一人しかいないときもあったという。

しかし「とにかく続けたい」という、オモニたちの熱意でサークルは続いてきた。

「二時間の講習はあっという間に終わってしまうので、おっくうなことはないです。家でも週二回、二時間ぐらい」

講習を一度も休んだことのない、"皆勤生"の金洋子さん。"宿題"の時間は、家族も協力してくれると、うれしそうにほほえんだ。

また、姉妹でサークルに参加している崔節子さんと崔富子さん。姉の節子さんは、パートを休んでの参加である。

「字を書きだして面白くなってきました。とにかく続けることが大切だと思っています」と、感想を述べた。

オモニたちは皆、自宅でも練習している。

そのかいあって、一年たらずの講習でオモニたちは、なかなか達筆になった。

女性同盟名中支部の権純恵委員長は「字は、人を表すといいます。それに毛筆は冠婚葬祭など使う場合が多いですね。女性たちの意見を聞き、日常生活に使い道のあるものを選んだことが、長続きした一番の理由でしょうね」と語る。

オモニたちの当面の目標は、年賀状を毛筆で書くこと。

ますます意気の上がる名中支部の習字サークルである。



朱を入れる先生のみごとな筆さばきに思わずため息が…

健康と食事

見直しましょう 毎日の食生活

朝からしっかり食べる キムチ類はほどほどに

先週（六日）のこの欄では、栄養過剰や栄養の偏りによる成人病が増えている中、健康を維持するためには、規則正しい日常生活を送るとともに欧米型、都市型、夜型の食生活を是正するように努力することが大切であると述べました。

今回は健康づくりのための食生活、食事について紹介することにします。

1、朝鮮料理の持ち味を生かし、一家団らんの楽しい食生活を心がけましょう。

①食生活調査では、朝食の簡便化、洋風化がみられる。朝からしっかり、食べる習慣を。

②主食と主菜・副菜をそろえてバラエティーに富んだ食事を。

③朝鮮料理、和洋折衷など色々な調理方法で食事を楽しく。

2、よく体を動かし、食事内容にゆとりをもたせましょう。

①自分の食べる量を守り、規則正しく食べる。

②毎日、軽い運動を行い、週一回以上はいい汗を流す。

3、循環器疾患、高血圧症等の成人病予防のためにも、薄味を心がけましょう。

①一般的に、同胞は塩分のとりすぎ。食塩は、一日十㌘以下を目標に。

②汁ものは、野菜、海草類、豆腐等の大豆製品の具をたくさん入れて、汁は少な目に。

③うどんやラーメンの汁は残す習慣を。かけしょう油、かけソースはなるべく避けて。

④にんにく、しょうが、とうがらし等の香辛料やセリ、ニラ等の香味野菜、酢、レモンの酸味等を生かし、無理のない減塩対策を。

⑤キムチ、塩辛類は、ほどほどに。

4、動脈硬化を促進する、コレステロールを多く含む食品は、気をつけて食べましょう。

①脂身の多い肉類、バター、ラード、ヘット、サラミ、ベーコン、生クリーム、チョコレート、品質の悪い植物油は、たくさん食べない。

Aの食品→脂身の少ない肉類、卵類、牛乳、チーズ等の乳製品。

Bの食品→魚類、大豆、豆腐、納豆、ゆば、ふ等の大豆製品。

AとBの食品を一対一の割合で食べる。

②新鮮なサラダ油、ゴマ油、コーン油をうまく料理に生かす。

5、野菜類、海草類を欠かさず、毎食食べるようにしましょう。

・色々な調理方法で、一日平均、自分の両手一杯を目やすに食べる（緑黄色野菜百㌘、淡色野菜二百㌘）。例えば、ナムル、チゲなどのなべ物、チシャ・かぼちゃの葉・キャベツ・ゴマの葉等のサム、大豆もやしのスープ・大根やにんじん・しいたけがたくさん入ったカルビスープなどが良い。

6、在日同胞は、砂糖、菓子類、し好飲料（アルコール飲料も含む）を多く摂取しています。

これらは、カロリーの過剰を招きやすいため、栄養のバランスをくずしやすく、食のあり方が問題になります。注意して食べましょう。

以上のように、自分の生活リズムをふりかえり、実行可能なことから一つ一つチャレンジしましょう。

（共和病院栄養士 康和代）



京都

日・朝親善サッカーフェスティバル

初のイベント、今後は定期的に

うららかな春の日ざしに包まれた十日、京都市南区の吉祥院グラウンドで日・朝親善サッカーフェスティバル（主催—京都府サッカー協会、在日本朝鮮人京都府体育協会）が催された。

このフェスティバルは、一昨年に迎えた京都朝鮮蹴球団結団二十周年を機に高まった「サッカーを通して相互親善を深めよう」との朝・日双方のサッカー関係者の思いがようやく実り、実現したもの。

このようなサッカーイベントが共催によって行われたのは、今回が初めてである。

この日、京都では七年ぶりの在日朝鮮蹴球団の招待試合をはじめ、初・中・高級部、一般の五試合が行われ、延べ一千人を超える同胞や日本のサッカー愛好家が観戦した。

特にウリ同胞・学生チームの対戦相手は、府下で一、二を競うトップレベルのチームとあって、各試合とも白熱し、観衆も大満足。

中でもウリハッキョ初級部選抜チームと京都朝高サッカー部は大健闘。

府内の少年サッカークラブと高校サッカー界の頂点にそれぞれ立つ、紫光少年団、山城高校と対戦、「負けてもしょうがない」との前評判をくつがえし、選抜チームは一対一の引き分け、朝高は二対一で勝利を飾ったのだ。

また、在日朝鮮蹴球団は、関西社会人リーグベスト3圏内にいる柴光クラブと対戦し四対一で勝った。

今回のイベントを企画し、その実現のため奮闘した京都朝鮮蹴球団の団長は、「厳しい情勢で一時は開催も危ぶまれたほどですから、実現できてうれしい。朝・日親善を願う気持ちが一つになったんです。これがウリハッキョのレベル向上につながれば幸いです」と語った。

このフェスティバルは、これから毎年、定期的に開かれる。

試合結果は次のとお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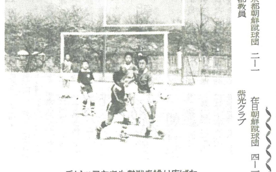
初級部選抜 一—一 紫光少年団

中級部選抜 〇—五 中学校選抜

京都朝高 二—一 山城高校

京都朝鮮蹴球団 二—一 京都教員

在日朝鮮蹴球団 四—一 紫光クラブ



チビッコたちも熱戦を繰り広げた

ふれあい

社会人2年生

東京都 金美淑

社会人になって"一歳の誕生日"を迎えた。なんて時間の流れが早いんだろうと驚くばかりだ。

ただただ勧められるままに入社したのが、現在ワープロオペレーターとして働いている、総聯のある事業体。

だから目標や希望なんか、まったく不透明だったし仕事に対する不満や悩みが高じて、キーボードを見るのもイヤになり一日をムダに過ごしたこともあった。

連日、夜遅くまで残業する先輩たちの姿に接しながらも、「なぜ、あんなに頑張るの」と、冷ややかな目で見たものだ。

そんな私が、一年たったいまでも職場に踏みとどまっている。

なぜなんだろうと思う。

もちろん、「一年も満足に働きもせず、他の所でやっていけるのか?」という気持ちにかられたのもあったろう。が、それよりもやはり人との[illegible]きかったと思う。

一人でボーッとしていると「具合が悪いの」など、だれもが心配してくれたし何をするにも誘いの声を掛けてくれた。

こんなこともあった。

それまで仕事といえば与えられた資料内容をキーボードで打ち清書するだけだったが、ある日、自分で資料収集し整理するように言われ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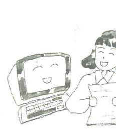
初の本格的な仕事に喜びはしたものの、いざ"出陣"となったとたん、どのようにすれば良いのかさっぱり分からず頭をかかえてしまった。

そんな私を親身になって手とり足とり教えてくれた同僚、先輩たち。

幼さがありありと表れた資料であったが、それが"完成"した時の晴れ晴れとした気持ちは、今日も鮮明に覚えている。

この間の、いろいろな経験を通して、少しだけど精神的に成長したような気がする。

これからはもっともっと色々なことをどん欲に学んで、何にでもチャレンジし、自分を一回りも二回りも大きくするために努力したいと思っている。



演劇連絡会「アラン三世」6月に旗あげ公演

朝鮮大学校演劇部出身者など、演劇にたずさわる幅広い同胞青年たちによって、演劇グループ「アラン三世」が結成された。

「アラン」（阿娘）とは、わが国各地に伝わる古来よりの「アリラン伝説」のうち、最もポピュラーな「アラン伝説」のヒロインの名であり、「三世」は在日一、二、三世それぞれの生き方を一つのものに作りあげて、在日同胞の「存在」の意味を問い続けていこうとの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

また三（サム）には、朝鮮語の삶（サム＝生、生命）の意味を託している。

来る六月十七〜十九日にかけて、東京で行われる旗あげ公演のタイトルは「光の街、パランセ伝説」（第一部—オドゥム山の孤児たち）。

一九八〇年五月の光州市民蜂起、および全羅道一帯に伝わる「パランセ伝説」に題材をとったもので全編ウリマルで上演する。

会場は千代田区の法政大学学生会館大ホール。後援は文芸同東京支部、朝大同窓会事務局。

また十四日には、制作発表を池袋で行う。

連絡・問い合わせは、朝大師範教育学部・姜相根まで。

書籍紹介

疑惑の「真由美事件」

あの大韓機はどこへ行った?

中川信夫 著

KAL機事件を本格的に取り上げた初の単行本である。

国家安全企画部（NSP、前KCIA）をはじめ南朝鮮側から漏れる怪情報に、日本の多くのマスコミが踊らされ無批判に報道している中で、著者は客観的な追跡と分析を通じ、KAL機事件の本質と疑問点を鋭く突いている。

著者は同書のまえがきで「自白のみで物証皆無の条件での有罪断定は許されぬ—これは根幹的な道理だ。…戦後日本における主要な冤（えん）罪事件のすべてが、捜査側強要の自白のみに基づいたものであったという事実をも、ここで想起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そして「北朝鮮犯行説には無理がありすぎる」と述べながら、事件を南朝鮮体制内の強硬派の所業とすれば「一番、辻褄（つじつま）が合うのではないか」と推理する。

この本は、総論—「KAL機失踪（そう）・『真由美』・『恩恵』」、第一部—「『真由美事件』疑惑の構造」、第二部—「重大な五つの疑問点」、第三部—「資料」などで構成され、これまで公表された様々な資料と情報を豊富に使って、多角的に分析し、同事件の本質に鋭く迫っている。

【著者—中川信夫、発行—拓植書房、定価—千四百円】



パンフ紹介

KAL機行方不明事件と在日朝鮮人への人権侵害

真相調査団

このパンフは、日本の法律家らで組織された、（KAL機事件）真相調査団によって三月の二十五日に発行された。

パンフには、「KAL機行方不明とその後の経過」、「事件の法的問題」、「巧妙になされた情報操作」、「在日朝鮮学生らと朝鮮総聯機関への暴行・襲撃」、「学生らへの人権侵害の特徴と日本人の対応」と、関係資料などが収められている。

この中で、KAL機事件とその後、日本の各地で多発している学生をはじめ在日朝鮮人、そして総聯機関に対する、いわれなき差別、暴力と脅迫事件、破壊行為がいかなる政治的、社会的背景のなかで発生しているかが法律家の立場から詳細に分析、検討されている。

特にそのなかで、KAL機爆破という事実の存否及び「真由美」とのかかわりについては重大な多くの疑問、違法な手続きの積み重ねがあり、「真由美」のいわゆる自白にしても、任意性に疑いがあり証拠能力を有しないと述べられている。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14일 (음력 2월 28일) 목요일 【루계 제10183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사 설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오직 충성의 한길로!

우리는 주체위업의 앞길에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고 재일조선인운동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벅찬 시기에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한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1912년 4월 15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자주, 자립, 자위로 무궁토록 륭성번영하는 조선을 기약하는 력사의 새아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활동의 60여성상은 가장 오랜 기간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온 로련한 령도자의 력사이며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고 공산주의미래를 확신성있게 앞당겨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영재이시다. 사회주의조국땅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전취물들, 겨레의 신상에서 일어난 전변은 그 어느것을 불문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와 하나로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을 성취하시였으며 주체형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어제날 세계지도에서 빛조차 잃었던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시키시고 보다 양양한 전도를 열어놓으시였다.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주체위업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추켜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벅찬 대건설투쟁에서 날에 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대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바로 그 로정우에서 서해갑문건설식으로 전진하는 80년대대진군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며 태천발전소, 30만정보의 간석지와 광복거리 등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속속 일떠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마련해주시려고 깊이 심려하시며 로고의 세월을 수놓아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남녘겨레들에게 하해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의 반파쑈민주화, 반미자주화 투쟁의 진로를 밝혀주시였으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북남련석회의 소집방안은 온 민족과 세계인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서 해내외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평화애호인민들 속에서도 커다란 지지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한없이 고무추동하신 그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5대륙인민들의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며 그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의 빛발로 재일조선인운동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해주시며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온갖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망국노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재일조선인운동을 건져주시고 총련을 무어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이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 보람있고 긍지높은 삶을 향유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한길을 떳떳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처럼 긍지높은 인민이 이 세상 그 어데 있으며 재일동포들처럼 자랑스러운 해외교포가 또 어데 있겠는가.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사스러운 4월명절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의 성취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전진운동에서 충성의 탑, 애국의 탑을 더 높이, 더 크게 쌓아올려갈 불같은 결의로 가득차있다.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변함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우리모두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와 더불어 승리와 창조의 세월을 줄달음쳐온 우리 인민과 재일동포들의 벅찬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증시된 불변의 진리이며 고귀한 교훈이다.

모든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 영광의 한길에서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맞는 올해를 애국사업의 빛나는 성과와 풍만한 열매로 장식해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애국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총련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받들어모시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일본정부는 부당한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하라

일본 각계 대표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정계, 경제계, 로동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문화인, 부인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 200여명의 저명인사들이 참가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이 괴뢰들의 자작자연극임이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공화국에 대하여 취한 부당한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인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12일, 일본의 정계, 경제계, 로동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문화인, 부인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 200여명의 저명인사들이 중의원제1의원회관에서 각계 대표자들의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행방불명이 된 비행기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아무런 물적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공화국에 대해 취한 《제재조치》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일조우호관계촉진에 찬물을 끼얹는 그릇된 행위로서 일본의 외교력사에도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일치하게 지적되였다.

이날 모인 일본의 각계대표들은 부당한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조선민족에게 가해지고있는 민족적 차별과 박해를 하루속히 없애도록 일본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채택하였으며 모임이 끝난후 선출된 대표들이 수상관저를 찾아가 이 요망서를 내각관방장관에게 넘겼다.

《제재조치》철회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긴급행동을 취한것은 일본 전역적으로 번져가고있는 《제재조치》철회요구운동에 박차를 가하는것으로서 매우 주목된다.



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재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일본 각계 대표자들의 모임

수상관저에 대한 요청행동도

이날 각계 대표자모임은 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당소속 야스이 요시노리중의원의원,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인 자민당소속 구노 쥬지중의원의원, 일조무역회 회장인 자민당소속 다니 요이찌중의원의원, 공명당소속 시오데 게이스께참의원의원, 무소속 우쯔노미야 도꾸마참의원의원, 사회민주련합상임고문인 덴 히데오참의원의원, 총평 구로까와 다께시의장, 국제문제평론가 가지다니 요시히사씨, 도꾜도립대학 스즈끼 지로명예교수, 변호사 모리까와 긴쥬씨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된것이다.

모임에는 이외에도 9명의 일본사회당 중, 참의원의원들을 비롯한 저명인사들이 참가하였다.(명단은 별항)

일조국민회의 가또 데쯔오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먼저 총평 구로까와의장이 발기인을 대표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먼저 일본정부가 부당한 《제재조치》를 취한 이후 총평이 초청한 7개 공화국의 대표단과 총평의 8개 방조단의 상호교류가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중대한 영향이 나타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녀자의 《자백》을 가지고 취해진 이 조치는 일조교류뿐만아니라 남북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의 민주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있다고 하면서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모임에서는 일본사회당, 공명당, 사회민주련합; 일조의련을 대표하여 4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배우 다다라 쥰씨가 연설하였다.(연설 요지는 4면)

또한 모임에서는 변호사들인 모리까와 긴쥬씨와 기다자와 요시히로씨가 변호사의 립장에서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발생시 일본의 위조려권협의밖에 립증할 사실이 없는 상황하에서 제1차수사권을 포기하여 《마유미》를 남조선에 넘겨준 일본정부의 부당한 태도, 사건직후부터 재일조선청소년과 총련기관들에게 가해지고있는 폭행, 파괴 행위 등을 고발하였다.

또한 일조무역회 아이까와 리이찌로전무리사는 《제재조치》를 구실로 실지로는 《경제제재》까지 가해지고있는것이 실상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경제인들의 상호인적교류가 완전히 중단상태에 빠지는 등 구체적사실을 들어 설명하였다.

3면에 이음

참가자 주요인사 명단

일본사회당 부위원장인 오노 아끼라참의원의원, 일본사회당소속 의원들인 가와가미 다미오중의원의원, 노사까 고오껭중의원의원, 이노우에 이즈미중의원의원, 시마자끼 유즈루중의원의원, 기마 아끼라중의원의원, 야다베 오사무참의원의원, 가즈야 데루미참의원의원, 나고야대학 신무라 다께시명예교수,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이찌까와 마꼬도부위원장

공화국이 경제수역내에서의 일본어선들의 오징어잡이를 허가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구노 쥬지회장은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조의련사이에서 작년 12월에 다시 체결된 일조민간어업잠정합의서에 기초하여 일본전역의 679척의 어선에 대해 공화국으로부터 경제수역내에서의 오징어잡이를 허락하는 어업허가서가 발행된 사실을 밝혔다.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고있다.

일조의련 등 일본의 관계자들은 이번 허가조치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부당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는데 반해 공화국은 합의에 따라 우의를 지켜주고있다고 일치하게 환영하고있다.

시대를 밝히시며

주체사상을 창시케 한 두가지 정신적바탕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실수 있었던데는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영향이 있었다.

◉…◉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투쟁의 반세기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엮어져있다.

인류해방의 과학적학설인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에 대한 혁명적인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열정과 실천활동의 원천이며 본질, 내용의 전체이다.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무권리와 가난에 신음하던 인민들을 투사로 키워 침략자, 략탈자들을 쳐부시고 온 민족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사랑이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해방된 인민을 다시 계급적으로 해방하고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고된 로동과 낡은 사상과 인습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해주며 지상의 모든 소중한것을 인민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 사랑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압제의 사슬을 끊는것으로부터 인민의 자주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일제의 쇠사슬에 신음하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의 운명을 심려하시면서 자라나시였고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사색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최고철학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놓았으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케 한 사상, 수억만 인민대중을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 누구나가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 휘황한 길을 밝힌 불멸의 주체사상은 실로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
아버님으로부터의 혁명적영향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0년대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꿰뚫어보시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면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해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이것이 다름아닌 주체사상창시의 출발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혁명투쟁의 실천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시여 새로운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관하게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는 출발점을 찾게 되신데는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아울러 아버님이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영향이 많이 작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이러한 사상을 가질수 있게 된데는 아버지의 혁명적영향도 많이 작용하였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의 한사람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당시 반일민족해방운동안에서 파벌싸움을 하여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으며 오직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싸워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계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파벌을 반대하고 단결을 주장하시였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아버님의 이러한 사상적영향을 많이 받으시면서 혁명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형성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하시고 그를 조선혁명의 실천에 적용하는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렇듯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가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해나가시였으며 마침내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던것이다. (계속)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우리 학습실

수령, 당, 대중 사이에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이기때문에 그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개별적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수령, 당, 대중 사이에 필연적으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이루어지는것은 수령, 당, 대중이 공동의 요구를 지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집단이기때문이다.

문헌은 수령, 당, 대중 사이에 이루어지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보다 높은 차원의 원리로 된다고 밝히고있다.

주체사상도 자유와 평등이 귀중하다는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그보다 한층 높은 단계의 원리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첫째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관계가 있다고 하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둘째로, 두 원리가 작용과 기초에서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개인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한다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람들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사회적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힘있게 작용을 한다.

또한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개인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있다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있다.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한 사회적집단안에서나 사회적집단들 사이에서 다 제기되는 원리이지만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뭉친 인민대중의 사회적 집단안에서만 제기되는 원리이다.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에 참가하여 —

우리같은 박수와 만세 소리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전체 인민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진행된것으로 하여 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회의개막을 앞둔 만수대의사당은 인민의 대표자들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그리고 방청자들의 뜨거운 숨결로 들끓고있었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열렬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오전 10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가 개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우리와 같은 박수와 만세 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회의참가자들이 목메여 부르고 또 부르는 《만세!》의 환호성,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조국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와 뜨거운 충성심의 발현이였다.

이 환호성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국인민들의 불패의 통일과 단결의 일대 시위였다.

만수대의사당에 차넘친 감격과 환희,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은 그대로 힘찬 메아리가 되여 온 나라에 울려갔다.

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었으며 여러 분야의 수많은 대의원들이 토론을 했다.

토론자들은 지난해 국가예산이 새 전망계획의 첫해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1988년 국가예산이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수 있도록 정확히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아다싶이 지금 조국에서는 9월의 대축전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200일전투는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제건설전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0일전투를 제3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여는 전투라고 규정하시면서 몸소 총사령관이 되시여 이 전투를 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200일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고계신다.

200일전투에서 주공전선은 기본건설이다. 기본건설은 발전소건설, 탄광건설, 금속공업기지건설, 대화학공업기지건설, 경금속생산기지건설, 광복거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다.

200일전투에서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 이것은 다시말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례없는 대건설행군을 다그치는것을 말한다.

대건설행군은 오늘뿐만아니라 래일의 행복, 나아가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거창한 건설사업이다. 그러므로 조국인민들은 래일의 휘황찬란한 조국을 위하여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우리에게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습니다.》, 《올해과업은 방대하지만 수령과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강력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있으며 수도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힘이 있는 한 못해낼것이 없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는 조국인민들이 어렵고 방대한 대건설행군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앞을 막아나서는 애로와 난관을 굿굿이 이겨나가고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평양에서 본사기자】

한장의 사진에서

안동마을 아이들과 내각결정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으로 우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1950년 12월의 어느 날 저녁,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순천군의 내남리 안동마을을 지나시였다.

그이께서는 길가에 나앉은 어느 한 집에 들리시였다.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된 집 아주머니는 감격과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이 집 아주머니는 미국놈들의 학살로 리세포위원장으로 일하던 남편을 잃고 군대에 나간 두 아들속의 하나도 잃었다. 이런 사연을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은 몹시 아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원쑤놈들에게 빼앗기고 이제는 어린 세 아들딸만이 남았다는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새우잠을 자고있는 아이들을 측은하게 바라보시였다.

아주머니에게 더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격하신 마음을 애써 참으시여 웃옷의 목단추를 벗기시는 위대한 수령님.

《아주머니, 얼마동안만 참으십시오.

이 애들을 아버지있는 애들 부럽지 않게 키워봅시다.》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시며 《이 애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딸답게 나라의 튼튼한 기둥감으로 키워야 합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밤 12시가 될무렵에야 이 집을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안에서 부관을 보시며 물으시였다.

《우리가 그 애들에게 무엇을 주었더라?》

어린것들에게 무엇인가 더 안겨주지 못하고 떠나오신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물으시는 말씀임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부관은 무엇이라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그날부터 약 2주일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웠던 1951년 1월, 내각결정으로 여러곳에 학원을 설치하여 부모잃은 모든 아이들을 국가에서 맡아 키우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날 밤 그이께서는 안동마을의 아이들을 보시면서 전국에 널려있는 부모잃은 아이들을 생각하고계시였던것이다.

이런 뜻깊은 사연이 깃든 내남리는 그후 오늘까지 수차례에 걸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된 내남리 안동선거장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영광 끝없어라

민족최대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도서 《위대한 사랑의 길》 감상발표모임

숭고한 사랑의 자욱 뜨겁게 아로새겨 대를 이어 애국의 꽃을

총련 도쿄도 아라까와지부

4월명절을 드높은 정치적열의로 맞이하기 위하여 도서 《위대한 사랑의 길》을 아침에 독보하여온 총련 도쿄도 아라까와지부에서는 12일 아침, 감상발표모임을 가졌다.

4월초부터 매일 아침 집체독보의 형식으로 진행하여온 도서학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이곳 일군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높이게 하였으며 그 충성심은 자기 맡은바 사업에서, 뜻깊은 명절을 분회와 동포 단위에서 다양하게 경축하는 사업에서 표현되였다.

지난 10일, 젊은 동포들의 모임인 《우리 아라까와회》가 모든 기획, 추진을 맡아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 운동장에서 450명을 넘는 동포들의 참가밑에 진행한 4월명절경축 꽃놀이모임.

14일에 총련 미야찌분회에서, 24일에는 총련 닛보리3·4분회에서 경축모임이 진행되는 등 지부는 학습을 통하여 심화시킨 충성심을 4월명절을 맞이하기 위한 사업, 동포들과의 사업에서 높이 발휘하였다.

《이 도서의 갈피갈피마다에서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품성을 틀어잡을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로선이나 방침을 제시하실 때도 항상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를 그대로 구현하시는 수령님의 사업 방법, 작풍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특히는 직접 동포들과 사업하는 지부일군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것을 배워줍니다.》

이날 아침 사무소에서 진행된 감상발표모임에서 녀성동맹지부 현경옥조직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과정이자 곧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배려의 과정이며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은 오직 인민의 기쁨과 행복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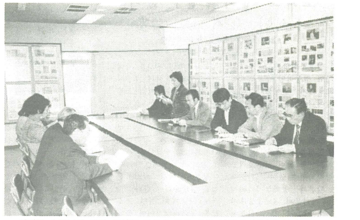
진정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십니다.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 관하 조청원들을 애국의 길에 묶어세우며 조국통일사업을 힘차게 밀고나가겠습니다.》(조청지부 김동주위원장)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이란 부름은 나에게 있어서 신념화된 부름입니다.

오늘까지 50여년동안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따라온 애국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 떳떳이 걸어가렵니다.》

총련지부 현인규부위원장은 감명깊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담아 매일 아침에 꾸준히 집체독보를 하는 총련 도쿄도 아라까와지부 일군들

총련일군된 영예를 간직하고 애국과업수행에 박차를!

총련 오사까부 히가시나리지부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보다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총련 오사까부 히가시나리지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로정을 엮은 도서 《위대한 사랑의 길》에 대한 학습을 왕성히 벌리고있다.

11일, 이곳 지부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이 도서에 대한 학습을 보다 깊이며 배운것을 자신의 사업에서 적극 구현하기 위한 감상발표모임을 진행하였다.

《해방직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로정을 배울수 있었습니다.》고 말한후 고복만부위원장은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품에서 살며 일하는 일군된 자랑과 행복을 가슴뜨겁게 이야기하였다.

백청화조직부장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편히 쉬실 틈도 없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로정은 그 무슨 말과 글로도 다 표현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진정 인민의 지도자이시며 그 품은 자애로운 어버이품입니다.》고 하면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세상에는 사랑이란 개념도 많고 지도자도 많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은 그 어떤 사랑에도 비길수가 없으며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지내시며 그들의 웃음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령도자는 우리 수령님뿐이십니다.》고 말하는 오승택부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나가는 총련일군된 영예에 대하여 감명깊이 이야기하였다.

김영수조청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을 받으며 일하는 일군으로서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본분입니다. 수령님대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쳐나가겠습니다.》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위업에 이바지할 결심을 피력하였다.

총련지부 오수진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0여년간 언제 한번 자신을 위해 지내신 날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그런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자라난 총련일군된 영예를 항상 잊지 말고 애국과업수행에 떨쳐나섭시다.》고 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길에서 자신의 보람을 찾는것이 총련일군이 나아갈 참된 길이라고 하면서 애국과업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총련 오사까부 히가시나리지부 일군들은 배운것을 자신의 사업에 적극 구현하기 위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학습을 깊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덕성을 깊이 따라배운다

녀성동맹 가나가와현하 모든 지부들에서 해설모임

민족최대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녀성동맹 가나가와현본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욱 높이 모시기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는 해설모임을 관하 모든 지부들에서 조직하고있다.

해설모임은 3년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본부관하 젊은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이의 고매한 덕성을 학습하는 해설모임을 일반화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지부단위에서 조직되고있다.

올해도 2월 18일에 본부적인 해설모임을 가진데 이어 6일에 진행된 쥬호꾸지부를 출발로 니시요꼬하마, 가와사끼, 남부지부 등 모든 지부들에서와 세이쇼지부관하 오다와라, 히라쯔까분회들에서 진행된다.

11일, 본부관하에서 두번째로 녀성동맹 싱꼬지부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높은 덕성을 해설하는 모임을 지부사무소에서 가지였다.

해설모임은 지부관하 젊은 동포녀성들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는바 3명의 녀성들이 해설을 하였다.

해설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화음악단 노래강사와 강선의 로동자들에게 돌려주신 사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깃든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해설자들은 우리 인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서도 자녀교양사업과 특히는 녀성동맹분회를 강화하는 사업에 젊은 사람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내외원쑤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시기에 진행된 해설모임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욱 높이 모시고 총련애국사업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었다.

녀성동맹 가나가와현본부에서는 지부별로 해설모임을 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덕성을 학습하는것과 동시에 존경하는 김정숙녀사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예술영화 《기다려다오》를 4월말까지 각 분회단위로 상영하고있다.



녀성동맹 가나가와현본부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는 해설모임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녀성동맹 싱꼬지부)

4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

경축대회 진행

총련 사이다마현본부

봄기운도 완연한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76돐을 경축하여 총련 사이다마현본부관하 동포들은 뜻깊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였다.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에 모여든 관하 600여명의 각계층 동포들은 경축대회를 가진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민족최대의 명절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따사로운 봄볕아래 경쾌한 장고소리에 맞추어 《좋다! 좋지》하면서 어깨춤 추는 1세동포들.

지부와 분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정하게 애국사업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는 2세 젊은 동포들.

관하 지부, 분회들의 《명창가수》들이 출연하여 진행된 노래자랑.

흙투성이가 되면서 유쾌하게 뛰여다니는 어린이.

그리고 기다간또조선가무단의 노래와 춤 등등.

맑게 개인 하늘아래 70고령을 넘은 1세동포로부터 3세, 4세 어린이까지 이날 참가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부르며 춤도 추면서 4월의 명절을 축하하여 뜻깊은 하루를 보내였다.

총련 남부지부 와라비분회 배광행분회장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유쾌한 하루를 보낼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되찾아주시고 우리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의 떳떳한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셨기때문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명심하게 되였습니다.》고 말하였다.



10일, 총련 사이다마현본부에서 진행된 경축대회

조선청년제

조청 후꾸오까현본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6돐경축 후꾸오까현 조선청년제가 지난 10일, 기다규슈시립종합체육관에서 있었다.

청년학교 수강생과 조청맹원 확대를 위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1천명조선청년방문담화운동(~4월 17일)을 짜고든 이곳 본부는 4월명절을 계기로 특히는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반단위에서 심화하자고 이날 청년제를 가지였다.

현하 13개 지부, 29개 반의 280여명 청년들이 참가한 청년제에서는 7차로 되는 반대항배구경기와 불고기모임이 진행되였다.

배구경기는 8개 조로 나뉘여 조(3팀~4팀)마다에서 련맹전을 실시하고 각 조 1위팀 8개가 준준결승에 올라 승자전으로 우승을 겨루는 방법으로 벌어졌다.

결승전은 조청 고꾸라지부 나팀과 가한산지부관하 반팀사이에서 진행되였는바 고꾸라팀이 우승을 쟁취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조청활동에서 계속 분발하여 후꾸오까현본부의 힘을 더 크게 과시할 결의를 안고 돌아갔다. 【조청후꾸오까】

1면에서 이음

모임에서는 일본의 여러 지역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계인사들의 결의표명이 있었다.

또한 모임에서는 《제재조치》의 즉시철회를 요구하는 요망서가 채택되였다.

끝으로 모임에서는 평론가 가지다니 요시히사씨가 연설하였다.

그는 일본정부는 1965년의 《한일조약》체결로 남측과 일방적인 《관계》를 맺었으나 공화국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의 과오를 시정안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 적대시정책과 차별을 오늘도 지속시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조선비행기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일본정부의 《제재조치》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구체적표현이라고 지탄하고 백해무익한 이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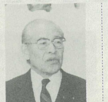
모임이 끝난후 야스이요시노리중의원의원, 가지다니 요시히사씨 등 4명의 대표들은 일본수상관저를 찾아가 내각관방장관에게 요망서를 넘겨주면서 부당한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정부는 대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각계 대표자모임에서 한 일본인사들의 연설(요지)

《제재조치》는 그 어떤 리유로써도 합리화될수 없다

야스이 요시노리(安井吉典)
(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 위원회 위원장, 중의원의원)



일본사회당은 조선로동당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오늘까지 깊여왔다. 현재 일어나고있는 칼기사건처럼 의혹투성이의 사건은 없다.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취한 《제재조치》는 그 어떤 리유로써도 합리화될수 없다.

일본과 공화국사이에서는 어업문제, 《제18후지산마루》문제 등 현안문제가 있다.

공화국측이 우의를 지켜 연어, 송어에 이어 오징어의 경제수역내에서의 조업을 허용하였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다.

《제18후지산마루》문제도 일본정부가 실마리를 단절해놓고 불리익을 스스로 초래케 하였다.

정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 이런 목소리를 높여나갈것이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있는가를 주시하며 정부당국에 대조선정책시정을 요구해나서는것이 중요하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어린 소녀들이 박해를 당하고있는것은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러우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긴장완화와 조선통일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

덴 히데오(田英夫)
(사회민주련합 상임고문, 참의원의원)



일본인이 조선문제를 볼때 두개의 기둥이 있다. 그 하나는 36년간의 부당지배에 대한 반성, 또하나는 조선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웃사람으로서 협력해야 한다는것, 구체적으로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실현을 위해 힘써나가는것이다.

이번 《제재조치》는 조선통일의 기초로 되는 긴장완화에 역행하는것으로서 극히 중대한 사태이다. 그 계기가 《마유미사건》인데 비행기의 소재도 모르고 아무런 물증도 없는 속에서 《근거》로 된것은 《마유미의 증언》만이다.

《자백》 그자체가 의혹투성이이지만 이미 공화국과 총련의 발표앞에 그 일각이 무너지고있다.

《꽃다발증정문제》에 대해 공화국의 정희선이 《그건 나다》고 증언함으로써 《마유미자백》의 허구성이 드러나고있다.

이번 《제재조치》는 일조간은 물론이거니와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일본정부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원래 공화국과의 인적, 문화, 스포츠, 경제 교류 등을 강화해나가야 하는바 그런 방향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정부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한다

일조의련 구노 쮸지회장의 담화



일조의련 구노 쮸지회장은 공화국이 일조민간어업잠정합의서에 따라 일본어선의 공화국경제수역내에서 오징어잡이를 허가한것을 환영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일본의 오징어잡이어선의 공화국수역내에서의 조업이 허가된것은 일본의 령세어민에 대한 조선의 따뜻한 배려에 의한것이다.

관계자들은 물론 일본국민도 이 조치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표하고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소위 칼기사건과 관련한 《제재조치》라고 하여 공무원이 아닌 조선의 상사원들에 대해서까지 사증발급을 안하고 인사왕래에 대해서도 정지상태로 되고있다.

이는 평화를 희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도적차원에서도 용납할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일본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정부에 대하여 단호한 항의태도를 표시해야 한다

시오데 게이스께(塩出啓典)
(공명당소속 참의원의원)



공명당을 대표해서 발언하겠다.

우리는 이번 칼기사건과 관련한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제재조치》에 대해서 시종 반대해왔다.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북의 테로》로 《단정》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마당에서까지 공화국을 공격하였는바 이제까지의 경위는 한쪽에만 가담하는 자세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공화국대표들의 일본입국에 관한 문제도 이 《조치》를 확대해석하여 지나친 규제를 하고있다.

이런 모임을 가지는것은 의의가 크다. 우리의 태도를 표명하고 정부에 항의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에로 나갈 우려가 있다. 힘을 합쳐 싸워나가야 한다.

오징어잡이를 허가하는 등 우의를 지키는 공화국정부

히로세 히데요시(広瀬秀吉)
(일조의련 사무국장, 중의원의원)



오늘 공화국이 일조어업잠정협정에 따라 연어, 송어에 이어 경제수역내에서 오징어잡이를 위한 조업허가를 내렸다는 희소식이 들어왔다.

이것으로 약 700척의 일본어선이 5월의 황금기를 앞두고 오징어잡이를 할수 있게 되였다.

공화국은 일본정부와는 달리 약속한대로 실행하는 우의를 표시해주고있다.

일본정부는 《제재조치》 발표시 《경제제재》는 안하겠다고 했으나 이 《조치》후 실질적으로는 일조간의 경제교류는 중단상태에 빠지고있다. 칼기사건은 의문많은 사건이며 이번 성의를 보더라도 공화국이 《테로》를 할리가 만무하다는것은 명백하다.

정부는 총련의장이 공화국을 방문하는것에 대해서도 재입국허가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런 어리석은것을 해서는 안된다.

14일에 외무상과 일조문제를 가지고 만나기로 되고있는데 《제재조치》를 철회하고 중단된 경제교류를 하루속히 재개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우리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룩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측면노력을 해야 한다.

일본의 언론은 공정한 보도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다라 쥰(多々良純　배우)



지금의 상태는 50년전에 되돌아선 느낌이다. 당시 군벌치하에서 배우들도 각본내용이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일방적으로 삭제당하는 등 숨막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이번 칼기사건을 자기 문제로 삼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있다.

일본매스콤의 이번 사건보도는 지난날의 《다이홍에이발표》처럼 검증도 없이 한쪽정보만을 일방적으로 흘린것이였다.

언론인으로서의 량심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의 보도는 세계속의 일본이라는 위치상에서 보더라도 적어도 서로의 정보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칼기사건과 관련해서는 나의 부인이 지역에서 어머니배구모임 등에 참가하고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평범한 일본인들속에서도 그 《자백》은 신용할수 없다고 말하고있으며 꾸며진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이런 소박한 의문은 매스콤의 일방적보도로 이제 말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가 우려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숨막혔던 지난 시기의 과오를 되풀이한것이 아닌가.

알림

독자들에게

4월 16일《조선신보》는 휴간입니다.

4.24교육투쟁40돐 효고현 기념행사

△사진전시회(재일조선인아동작품전)

때 : 4월 19일～22일 오전 10시～오후 7시 (단 19일은 오후 2시부터, 22일은 오전중)

곳 : 현민아트갈라리 (JR元町下車, 현청히가시효고현민회관 3층)

△효고현조선인대회

때 : 4월 23일 (토) 오전 10시

곳 : 효고현립문화체육관 (山陽電鉄 西代駅下車)

△기념심포즘

때 : 4월 24일(일) 오후2시～5시

곳 : 효고현교육회관 5층

총련아이찌현 가모지부 고문인 홍소룡동지가 세상을 떠났다

총련 아이찌현 가모지부 고문인 홍소룡동지가 폐암으로 인하여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 7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홍소룡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여주시고 총련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한 애국사업에 헌신해왔다.

그는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1961년 8월까지 총련 가모지부 아스께분회 분회장으로, 1961년 9월부터 1968년 6월까지 총련 가모지부 위원장으로, 1968년 6월부터 1971년 2월까지 아이찌체협 부회장으로, 1971년 2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총련 가모지부 위원장으로 그리고 1981년 1월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총련 가모지부 고문(비전임)으로 총련애국사업발전에 기여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지금까지 그에게 국기훈장 제2급(2번), 제3급(2번)을 각각 수여해주시였다.

고 홍소룡동지의 고별식은 총련지부장으로 12일 자택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4.19인민봉기 28주년, 미제와 로태우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소동과 분렬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때 : 4월 19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곳 : 日本教育会館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15일 (음력 2월 29일) 금요일 【루계 제1018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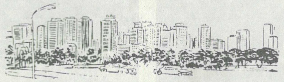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5番地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130503(〒162)
〔日刊〕 月額 2,000円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1.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
어버이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은 꽃폈습니다



2.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렵니다

위대하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인민들은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고계시는 위대한수령님을 모신 조선인민의 영광 끝없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쏘련공산당 고르바쵸브총비서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로므니아의 챠우쉐스꾸대통령과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민주독일의 청소년학생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축하문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민의 축원속에 봄꽃들도 만발하는 오늘 우리는 크나큰 기쁨과 한량없는 감격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날에 즈음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인류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불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은 어둠속에 잠겨있던 조국과 겨레에게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기약하는 찬란한 새아침을 안아온 력사의 장엄한 해돋이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60여 성상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조국과 혁명 앞에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찬란한 빛발아래 영웅적항일혁명전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주체형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민족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위업은 만년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줄기차게 추진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두리에 충성의 대오로 철통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앞날을 확고히 내다보면서 제3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대건설을 다그치고 있으며 서해갑문건설식으로 나아가는 80년대진군길우에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태천발전소, 30만정보의 간석지와 광복거리 등 백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세인을 놀래우며 솟아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셨기에 우리 조국은 만방에 빛을 뿌리는 주체의 조국으로 되였고 우리 인민은 인류의 리상사회를 열어나가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조국강토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어떻게 하나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시려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 의하여 조국의
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은 오
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수
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를 소
대한 획기적인 구국방안은 온
통일열망과 신심을 비상히 북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지지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지난해 구국항쟁을 과감히 벌
제의 식민지통치체제에 심대한
안긴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더욱 의식화, 조직화되였으며
의 기치아래 민주주의와 조국
위한 투쟁대오는 보다 확대강화
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앞
신 불후의 공적으로 하여 전
보적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
니시고 높은 존경을 받
수령님께서 령도하심으로 하여
인민의 위업에 대한 세계인민
지와 전투적련대성은 날로 더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재일
망국노의 처지에서 영원히 해
신 재생의 은인이시며 천대와
을 받아오던 동포들에게 진정
을 안겨주시고 온갖 육친적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자애로운

니다.
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해외
운동사상을 창시하시여 총련을 무
시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을 환히 밝혀주시며 착취와 억압
서 시달리던 재일동포들을 공화국
존엄있는 해외공민으로, 주체형의
자로 키워주고계십니다.

대한 수령님께서 현명하게 령도하
시고 은혜로운 친어버이사랑으로
며주시기에 우리들은 이역의 모진
속에서도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며 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
모략책동도 단호히 물리치고 조
영예와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켜
의 한길을 떳떳이 나아가고있는것
다.

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향도따라
이어 애국의 길에서 조국의 영
빛내이며 민족의 슬기를 떨쳐나
우리 재일동포들보다 보람차고
한 해외교포들은 그 어디에도 없
다.

일의 명절을 크나큰 기쁨속에서
히 경축하고있는 전체 총련일군들
재일동포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

위업을 위한 한길에서 끝까지 충성다하여나갈 불같은 결의로 가득차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나가시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우리들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9월의 축전을 빛나는 애국사업의 성과로 장식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총련을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충성의 대오, 주체의 해외교포조직으로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우리들은 정세의 요구에 맞게 민족단합사업과 일본인민들과의 련대성운동을 더한층 강화하며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북남련석회의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견결히 옹호하며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영예롭게 이바지하며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200일전투에 발맞추어 모든 일군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이 애국혁신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함으로써 총련사업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은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가장 커다란 행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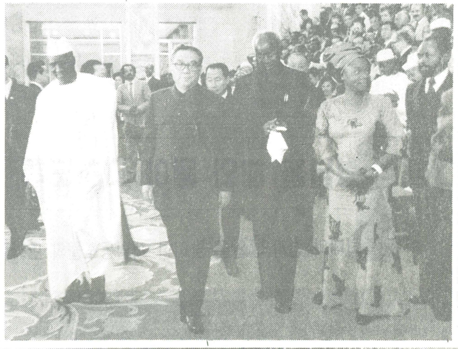
우리 조국의 통일독립과 륭성번영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완성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인류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 앙 상 임 위 원 회

1988년 4월 15일　일본 도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중국의 등소평동지와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해마다 많은 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정을 표시하는 베를린시민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을 깊이 따라배우기 위하여 그이의 로작들을 탐독하는 세계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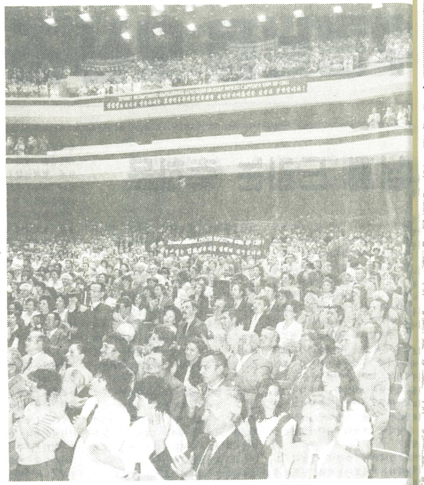
민족의 태양이 높이 솟아오른 4월의 만경대



수도 평양의 밤하늘에 축포가 오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벌가리아의 쏘피아시민들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리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을 맞이한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마음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 높이 솟아오른 력사의 새 아침,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이 밝아온 영광의 이 시각.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슴을 태우면서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1세동포들의 충성심은 오늘 수령님의 품속에서 나서자란 새세대 젊은 동포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있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 그 영광의 날은 일생 잊을수 없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경사의 날을 맞으면서 총련 도꾜도 쥬오고또지부 에다가와분회 부분회장인 젊은상공인협의회 《청상협》 렴민웅회장은 지난해 단기조국방문단의 한성원으로서 사회주의조국을 찾았을 때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집단체조를 관람한 추억을 더듬어 감명깊이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단 한번이라도 뵙고싶었습니다. 저의 일생의 소망이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영광과 행복으로 이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습니다.

일생을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갈 결의로 충만되였지요.》

조국에서 다진 결의를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하여 그는 오늘도 젊은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로 적극 이끌어나가고있다.

갖은 학대와 멸시 속에서 허덕이며 광산, 탄광들에서 망국노의 피눈물을 뿌리던 재일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을 받아안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참된 삶을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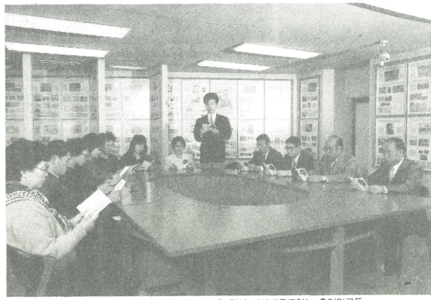
오늘 재일동포들이 누리는 그 모든 생활은 오로지 수령님의 사랑과 령도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니 그이에 대한 충성심과 흠모의 정이 어찌 그들의 가슴속에 끓어번지지 않으랴.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조선민족의 넋을 찾고 오늘은 어엿한 조신일군으로, 분회의 호주로 자라난 총련 군마현 세이모지부 다까사끼분회 정호도분회장은 뜻깊은 명절날을 맞으면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뜨거운 결의를 다진다.

《조국과 민족도 모르고 헤매이던 저에게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일본사회에 파묻혀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제가 조선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조신에서, 분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사업하는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수령님의 그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동포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사업하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깊이 따라배우고있는 총련일군들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매일 2시간 보장해오면서 10여년동안 분회장으로서 자기 분회를 《모범분회》로 꾸린 정분회장.

뜻깊은 4월명절을 맞으면서 그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만 가며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할 결의에 차넘친다.

이런 모습은 북은 혹가이도로부터 남은 오끼나와에 이르기까지, 1세동포들로부터 2세, 3세, 4세 새세대 젊은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데서나 찾아볼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날을 경축하여 관하동포녀성들의 충성심과 경모의 정을 김일성화를 한송이한송이 마련하여 꽃바구니증정모임을 가진 녀성동맹 미에현본부관하 동포녀성들.

4월명절을 축하하는 선물로 하자고 모든 조청원들이 《충성의 과학서적모으기운동》을 힘차게 벌려 수많은 도서들을 사회주의조국에 보낸 조청 도꾜도 아라까와지부관하 조청원들.

충성의 마음을 담아 매일 반별로 꽃을 한송이한송이 뜨고 빨간 천에 노란색 꽃잎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새긴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조청원들.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려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마음은 그 얼마나 뜨겁고 깊은가!

력사의 이 아침,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충성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른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전체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총련애국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해나갈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흠모의 정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영웅조선의 상징이다》

오늘 세계의 광범한 사회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칭송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마다가스까르통신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재생의 려명을 안아온 력사의 장엄한 해돋이였다.

그이께서 걸어오신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로정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여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한 걸출한 수령의 빛나는 력사이다.

민주예멘신문 《알 라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으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참된 삶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고 지적하였다.

아세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소장 티.비.무케트지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활동을 벌리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서 찾으신다고 말하였다.

부룬디신문 《러누보》는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주권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여 근로인민대중은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은 자신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다 바치시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실 때에는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의 지향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애급문화성 대외관계국 예술담당실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시고 그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인도 델리종합대학 모틸랄 네루대학 교수, 박사 디.엘.쎄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넓은 포옹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김일성주석의 품은 곧 인류의 태양의 품이다.

에티오피아 쇼아지구 교육부 통계및계획국장은 《김일성 그이는 인민의 위대한 태양》에서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 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원한 영광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격조높이 서술하였다.

세계의 광범한 사회계는 조선인민이 이룩한 모든 세기적변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영웅조선의 상징》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마다가스까르신문 《아프리까》는 조선인민은 지난 시기 100만의 일제침략군을 때려눕혔으며 1950년대에는 미국과 그 15개 추종국가 군대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영웅적인민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뉴 이슌》은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따라 남들이 한세기 지어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세기적기적을 창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벌가리아신문 《오떼체스뜨벤 프론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또도르 쥡꼬브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시 서해갑문건설장을 참관하고 놀라운 건설이라고 하였다.

이런 방대한 건설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만이 할수 있다.

스위스신문 《트리뷴 드 제네브》는 《조선인민이 오늘 세기적변혁을 이룩하고 모든 행복과 영광, 존엄과 긍지를 누리게 된것은 그들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사상리론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 길출한 군사전략가, 인민의 참된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수령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있기때문이다》라고 썼다.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18일 (음력 3월 3일) 월요일 【루계 제10185호】

昭和27年 8月 1日第3種郵便物認可 發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108번째로 1억 2,570만원 도합 388억 1,045만 2,433원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재일동포들에게 108번째로 1억 2,570만원(일본돈으로)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지난 30여년간 보내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모두 388억 1,045만 2,433원(일본돈으로)에 달하게 되였다.

뜻깊은 4월의 명절을 앞두고 베풀어진 이 은정깊은 배려는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올해에 총련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을 고무하게 될것이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 발전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총련의 상공인들에게 《김일성훈장》이 수여되였다

동해상사주식회사 안상택회장과 총련 도꾜도 김인권상공인에게

【평양 4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동해상사 주식회사 안상택회장과 총련 도꾜도상공인 김인권동포에게 14일 《김일성훈장》이 수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리종옥부주석이 랑독하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재일조선인운동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총련애국사업에 크게 공헌한 안상택회장과 김인권동포에게 《김일성훈장》이 각각 수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모두의 심장속에 불타는 경모의 마음, 끝없는 충성의 씨앗을 심어주고 자랑찬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가득 꽃피워주는 4월의 봄명절.

크나큰 기쁨, 감사의 정으로 일군들과 동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만 가는 속에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날 부풀어오르는 환희를 달래며 명절옷을 차려입고 달려온 총련 도꾜도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로 꽉 메워진 회장내에는 시종 열기가 차고넘쳤다.

명절일색으로 장식된 회장정면에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와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또한 회장내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련을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며 주체조국의 존엄을 굳건히 옹호하자!》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총련중앙 한덕수의장과 리진규제1부의장이 리계백, 서만술, 신상대, 허종만, 배병두, 전연식부의장들, 권순휘사무총국장, 각 국장들, 단일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래》의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경축보고를 하였다.(보고 전문은 2~3면)

한덕수의장은 보고 서두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4월명절에 즈음하여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하여 108번째로 1억 2천 570만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는것과 이제까지의 총액은 일본돈으로 388억 1천 45만 2,433원에 달한다고 전하였다.

순간 대회참가자들은 일어서서 우렁찬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축하문이 랑독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절을 맞이하여 더욱 마음 경건해지는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올해 조국인민들이 벌리고있는 200일전투에 발맞추어 더욱 분발하여 내외원쑤들의 온갖 모략책동을 짓부시고 애국사업에서 커다란 비약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대회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대회가 끝난후 경축예술공연이 있었다.(예술공연의 글과 사진은 4면)

한편 각지 총련조직들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여 다양한 행사를 조직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6돐축하연

43개국 700여명이 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76돐 축하연이 14일 저녁,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축하연에는 총련중앙 한덕수의장과 리진규제1부의장이 리계백, 서만술, 신상대, 허종만, 배병두, 전연식부의장들, 권순휘사무총국장과 각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동포상공인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축하연에는 쏘련, 중국, 꾸바, 웽그리아, 니까라과를 비롯한 여러 나라 주일대사관 대사들과 참사들 그리고 일본사회당 도이 다까꼬위원장, 오노 아끼라, 오까다 도시하루, 야마모도 마사히로부위원장들, 이시바시 마사시, 가쯔마다 세이찌 이전 위원장들, 다나베 마꼬도 이전 서기장,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 야스이 요시노리위원장을 비롯한 이 당소속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 일조의련 구노 쮸지회장, 히로세 히데요시 사무국장, 자민당 다니 요이찌중의원의원, 공명당 시오데 게이스께, 후시미 고오지참의원의원들, 사민련 덴 히데오참의원의원, 무소속 우쯔노미야 도꾸마참의원의원, 중의원 다가야 신뻬부의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이찌까와 마꼬도 부위원장, 조선통일지지일본위원회 이와이 아끼라의장, 일조문화교류협회 가지다니 요시히사리사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인 릿교대학 이노우에 슈하찌교수, 도꾜대학 에가미 나미오명예교수, 리쯔메이깡대학 세끼 히로하루교수, 메이세이대학 스즈끼 지로교수, 요꼬하마국립대학 모도하시 아쯔시교수, 가꾸슈잉대학 미야지마 나오시교수, 일조관련 가와무라 징야부의장, 총평 가또 데쯔오국민운동국장, 일본부인회의 시미즈 스미꼬의장, 일조무역회 아이까와 리이찌로전무리사, 엔.에취.케이 요꼬이 아끼라부회장, 텔레비아사히 나라이 징이찌취체역, 평론가인 야마까와 아끼오, 후지이 하루오, 마이야 겐이찌로씨, 배우인 다다라 쥰씨, 가수인 신따니 노리꼬씨 등 일본의 정계, 경제계, 학계, 로조, 법조계, 문화계, 언론계의 저명인사들 도합 43개국 700여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축하연에서는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연설하였다.

한덕수의장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6돐 축하연에 참석한 여러 손님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3면에 이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에서 한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의 연설

총련일군들과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해내외 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경축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봄명절은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더없는 민족적긍지와 뜨거운 신념을 꽃피워주는 참으로 뜻깊은 경사의 날입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여 지금 사회주의 조국에서는 온 나라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절을 축하하는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정으로 뜨겁게 휩싸여있으며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200일전투를 벌리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높은 혁명적 열정과 기세로 들끓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절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재일조선녀성대표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는 재일조선예술인대표단, 금년도의 첫 단기조국방문단 성원들인 총련효고현본부관하 동포들을 비롯한 수많은 일군들과 애국적상공인들, 각계층 동포들이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서 민족최대의 명절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맞이하고있습니다.

조국에서만이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경축행사들을 조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으며 대륙과 대양을 넘어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예술단들이 축원의 인사를 안고 혁명의 수도 평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가 길어 반만년을 헤아리지만 온 나라가 자기 수령의 경축행사로 끓어번지고 세계인민들의 축복속에서 민족적명절을 성대히 기념한 일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수억만 인민이 우러르며 칭송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수령님의 탄생절을 축하하고있으니 이 기쁨과 이 행복을 그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이 뜻깊은 명절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108번째로 1억 2천 570만원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또다시 돌려주신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에 접하여 우리모두의 가슴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와 감사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탄생 76돐을 맞이하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는 4월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과 같으신 위대한분을 자기의 수령으로 모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더욱 가슴부풀어오르게 됩니다.

오늘 세계에는 나라와 민족이 많이 있고 민족마다 제각기 자기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한민족의 참다운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의 위대한 수령을 모셨는가 어떤가,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졌는가 어떤가에 달려있습니다.

조선인민은 걸출한 수령,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인민으로서 우리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이 세상에 비길데 없습니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나라잃은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여성상의 낮과 밤, 세세년년을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인류의 해방과 진보를 위하여 고스란히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장군으로 항일대전을 선포하시고 혈전만리길을 달리시였으며 피바다속에 잠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당과 인민의 주권국가와 인민무력을 창건하시고 세기적숙망이였던 민주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시였으며 조국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를 후려갈겨 미제가 내리막길에 굴러떨어지게 하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들을 재더미우에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마침내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워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의 이름을 세계만방에 크게 떨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생 76돐을 맞으시는 오늘에도 매우 옥체건강하시며 천재적예지와 불굴의 투지를 지니시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고계십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전인미답의 길에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여 조국과 민족 앞에, 력사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탁월하고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업적 가운데서 청사에 영원히 빛날 가장 커다란 업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민족과 인류의 력사에 새시대, 주체시대를 펼쳐주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자기운명의 주인도 자기자신이라는 불멸의 진리와 신념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자기의 앞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게 되였습니다.



특히 오래동안 봉건의 깊은 잠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드디여 일제의 침략을 당하여 신음하고있었을 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은 민족재생의 홰불로, 륭성번영의 기치로 되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두고 말한다면 5천년의 민족사를 가진것도 사실이고 한때는 《해동성국》이라 불리워 그 찬란한 문화와 나라의 위력을 떨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슬기로 뛰여난 인민을 가지면서도 봉건의 구박과 질곡,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사대주의때문에 현대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지게 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 나라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맞이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게 됨으로써 얼마나 커다란 변혁을 이룩하였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빼앗겼던 조국을 되찾아주시였을뿐아니라 조국땅우에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이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기와 세기를 거듭하면서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여왔던 우리 인민을 력사의 참된 창조자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그처럼 오래동안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를 좀먹던 사대주의가 영영 없어졌으며 주체의 진리로 무장한 우리 인민들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주성과 창조적열성을 높이 발양하고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일심단결하며 어떤 역경도 어떤 곤난도 이겨내고 시대를 주름잡아 전진하는것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오늘의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모습이며 기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국가활동의 대원칙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민이 자기의 결심에 따라 자기 힘을 믿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이러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경제건설도 국방건설도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하며 과학과 기술, 교육과 문화도 자기의 념원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은 오늘까지 외세의 책동에 의한 어려운 고비들을 여러번 겪어왔습니다.

해방후만 하여도 미제는 조국에 대한 무력침공과 새 전쟁소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주권을 침해하려는 책동도 하였고 경제봉쇄와 사상문화적침습도 하였으며 오늘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벌리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히 맞섰으며 우리의 존엄에 대한 조그마한 침해에 대해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그를 철저히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얼마나 자주성이 강하고 높은 존엄성을 가진 위력있는 나라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날 조선이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그 빛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조국, 주체조선은 전체 인민이 하나로 단결되고 온 사회가 한집안식구처럼 화목하게 살며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가지고 주체교육과 주체과학, 주체예술을 꽃피우며 세계무대에서 조선의 본때를 크게 과시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빛나는 조선의 이름입니까.

우리 나라가 얼마나 자주성이 강한 나라인가 하는것은 최근 감행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에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로태우도당을 부추겨 남조선려객기 실종사건을 계기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렸으며 심지어 《제재조치》까지 부당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경제대국, 군사대국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의 지배층들이 어찌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이렇게 악랄하게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는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강대국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는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혁명하는 나라들과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고있기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내외반동들은 남조선에서 식민지군사파쑈통치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저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번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같은 모략까지 꾸며내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헐뜯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입니다.

하기에 우리들은 내외반동들이 모략책동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사회주의조국의 위력과 국제적위신을 더욱 확신하고 추호의 동요없이 떳떳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인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고 만년대계의 구상을 실현시켜 나가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휘황한 전망과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우리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고계십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그이의 사상과 의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에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이 문자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규모로, 또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지금 조국은 어디에 가나 대건설로 들끓고있습니다.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이 얼마나 방대하고 거창한 사업인가 하는것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5년동안으로 일떠세운 세계 굴지의 서해갑문과 같은 대규모의 건설을 지금 수많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것만 보더라도 태천발전소와 금강산발전소를 비롯한 수력 및 화력 발전소건설, 김책제철소 제2단계확장공사, 북부철길공사와 30만정보의 간석지 개간, 20만정보의 새땅찾기, 50만정보의 밭에 분수식관수를 하기 위한 사업, 평양의 광복거리건설과 안골체육촌건설,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건설 등 참으로 방대한것입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생명선이며 희망봉이 하시면서 이 건설에 커다란 힘을 이고계십니다.

지금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화학제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적이고 현대적인 대공장으로 크게 되고있습니다.

그 규모는 공장건물이 490여동 되고 부지면적이 국제적으로 공인 구장의 면적의 2천 3백배나 되 것을 금년 9월까지 완공하여 조 개시한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 까.

앞으로 제3차7개년계획이 성과 로 추진되면 우리 나라 인민경제는 욱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되고 사 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 튼튼히 마련하게 되며 인민들이 입고 쓰고사는 문제도 완전히 해 게 될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 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우리 조상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주독 가를 일떠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조 창창한 미래를 환히 펼쳐주시고 그 현을 확고히 담보해주시는 우리 인 찬란한 태양이시며 한없이 자애 어버이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최대의 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십니다.

국토분렬로 인한 우리 인민의 고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는 경 는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 5대방침,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등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구국방안 뚜렷이 제시하여주시고 통일의 밝 길을 열어주시며 그 실현에로 모든 인민들을 현명하게 이끌어 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에 통일의 길우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 기 위한 평화제안을 내놓으신데 올해에도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 한 획기적인 구국방안을 제기하 써 온 겨레의 가슴을 통일열망과 으로 더욱 불타게 하여주시였습니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자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 번지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은 지난해 온갖 파쑈폭압에도 않고 파쑈도당들의 《4.13조 대투쟁과 6월인민항쟁, 7～9월 동자들의 투쟁과 군정종식을 위한 월투쟁을 과감히 벌린데 이어 계속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화의 구호, 통일의 구호를 추켜들 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고있습

3 면 에 이 음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우러러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쳐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는 대회참가자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6돐기념 총련간부강연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기념 총련간부강연회가 12일 조선회관 강당에서 있었다.

강연회에는 총련중앙 한덕수의장과 리진규제1부의장이 리계백, 서만술, 신상대, 허종만부의장들과 권순휘사무총국장, 각 국장들, 단일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그리고 조선회관에서 사업하는 일군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강연을 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력사에 영광스러운 주체시대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빛내이시였으며 그 은혜로운 빛발은 이역땅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에게도 따사로이 비쳐지고있다고 강연서두를 뗀 다음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방침을 밝히시고 총련조직을 무어주심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은 비로소 주체형의 혁명가, 진정한 애국자로 될수 있었으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더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형의 참다운 해외교포조직을 가지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심장에 받아안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나가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한때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를 세우지 못한탓으로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게 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이 애국의 뜻, 혁명의 뜻이 있어도 그것을 이룩하고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없었던 지난날을 상기시키면서 리진규제1부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방침과 그를 구현할수 있도록 취해주신 조치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우에 올려세운 휘황한 등대였으며 재일동포들에게 재생의 밝은 빛을 비쳐주고 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은혜로운 해발이였다고 이야기했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재일조선인운동, 재일동포사회의 현실, 총련사업발전의 현실을 놓고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신 방침의 위대성과 커다란 생활력을 감회깊이 돌이켜볼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이 영원히 주체의 길을 대를 이어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도록 그 기본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총련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총련안에 새로운 사업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방침, 동포상공인들을 기본군중으로 확고히 믿고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애국사업을 밀고나갈데 대한 방침, 총련의 사업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갈데 대한 방침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롭게 제시해주신 전환적방침들은 우리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일군들이 주체형의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로서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한생을 보람있게 살아나가도록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역땅에서 애국사업을 위해 한몸바쳐나서고있는 총련의 전임일군들을 직업적혁명가, 공화국을 진정으로 받드는 핵심부대로 높이 평가하시고 가지가지의 사랑과 정치적신임을 다 돌려주고계시는데 대하여 지적한 다음 리진규제1부의장은 수령님의 이 믿음은 애국의 길, 혁명의 길에 나선 총련일군들이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워나가도록 하여주는 혁명적신념의 기둥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리진규제1부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일군들을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로 이 크나큰 정치적신임이 있기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의 길에서 더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6돐기념 총련간부강연회

리진규제1부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상공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나설수 있도록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인공으로 적극 내세워주고계신다고 말한 다음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하여 오늘날 동포상공인들은 애국의 길에 이바지하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기업가로, 총련의 지도성원, 군중핵심으로서 보람찬 길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마음껏 누리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끝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의 신념,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조국인민들이 벌리는 200일전투에 발맞추어 내외원쑤들의 온갖 모략책동을 짓부시고 애국사업에서 커다란 비약을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강연이 끝난 다음 예술영화《조선의 별》제10부가 상영되였다.



조선회관에서 진행된 축하연

위대한 수령님 탄생 76돐축하연

1면에서 이음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60여성상 오로지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오시였으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탁월한 령도력과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고매한 덕성으로 류례없이 어렵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한덕수의장은 올해 창건 40돐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고 령도해오신 혁명과 건설 위업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해서 훌륭히 계승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미래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확신에 차넘치고있으며 재일동포들도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당하게 생활하고있다고 힘주어말하였다.

그리고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련석회의제안을 내놓으시였다고 말한 다음 그와 반대로 남조선괴뢰도당은 정당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뿐아니라 미제의 부추김밑에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과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을 벌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한덕수의장은 끝으로 우리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며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하여,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우호와 친선 관계를 깊이기 위하여 노력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2 면 에 서 이 음

특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 속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무한히 흠모하며 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대오가 날과 더불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자주화의 길에서 모든 나라 인민들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혁명의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고있습니다.

올해는 도꾜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여 10돐이 되는 해입니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제3세계나라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오늘에는 구라파나라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습니다.

그 연구와 보급 활동이 대륙별로도 나라별로도 계층별로도 왕성히 벌어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생활의 신조로,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참다운 무기로 삼아 실천에 옮기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국제회의들도 련달아 열리고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제1차평양영화축전, 세계민주청년동맹 집행위원회 회의 등이 진행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세계인민들의 경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고 평양에서 국제회의들이 련이어 열리고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국제적권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는것으로서 우리의 더없는 기쁨으로, 크나큰 영광으로 됩니다.

동포 여러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재일동포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주시고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십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일제시기에도 해방후에도 조국멀리 떨어진 일본에서 이국풍상을 맞아가며 생활하여왔습니다.

일제시기 식민지망국민족으로서 천대와 학대를 받아온 우리 동포들은 해방후에도 일본당국의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의하여 민족적 차별과 박해속에서 살아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재일동포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희망을 걸었습니까.

그것은 조국의 보호와 사랑이며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품을 가지는것이였습니다.

조국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만 사람답게 살수 있고 조직에 뭉쳐서만이 사람값을 할수 있는 재일동포들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이와 같은 처지와 심정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이국땅에서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품이며 우리들의 애국운동과 단결의 무기인 총련조직을 무어주시고 공화국의 권위있는 해외교포조직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재일동포들이 총련조직을 가지게 된것, 이것은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속에서도 가장 귀중하고도 고마운것입니다.

총련조직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애국의 기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굳건히 고수하고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을 위한 숭고한 민족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었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며 우리 총련일군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확신에 넘쳐 애국의 길을 대를 이어 꿋꿋이 나아갈수 있도록 계속 극진한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십니다.

특히 재일동포들을 아끼고 보살펴주시며 뜨겁게 믿으시고 내세워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접할 때마다 그 고마운 은정에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후더워졌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속에서 기본군중이 된 상공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일본에 있는 우리 상공인들을 민족적혁명성이 있는 애국적상공인이라고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우리 상공인들이 총련애국사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십니다.

이역에서 사는 우리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국사에 참가하며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받고 국가 수훈과 표창의 영예를 지니게 된것도 다 어버이수령님의 덕분입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처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극진히 보살펴주고 계시기에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어렵고 복잡한 이국땅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위업을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는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흠모의 심정을 담아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께 삼가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 여러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이 한길에 재일조선인운동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참된 삶과 보다 큰 앞날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애국활동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모두가 체득한 귀중한 진리이며 철석같은 신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주체위업의 영명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 은혜로운 향도의 빛발아래 조국과 민족의 양양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존엄있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고 자랑찬 애국의 길을 걸어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어떤 애로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오직 변함없는 한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받들고 애국의 길, 충성의 길을 꿋꿋이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올해 1988년은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공민된 끝없는 긍지와 주체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공화국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총련조직을 강화하고 총련의 애국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총궐기해나서고있는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에 발맞추어 총련애국사업에서 보다 큰 대중적혁신과 빛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충성의 축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체 일군들과 더 광범한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총련조직을 충성의 대오로, 공화국의 위력있는 해외공민단체로 한층 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창건 40돐을 앞두고 잃었던 나라를 되찾아주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주체의 조국을 빛내여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며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동포애적시책과 은혜로운 배려를 가슴깊이 간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국의 따사로운 품이자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품이라는것을 잘 알고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더욱 충성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총련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여 그들을 애국애족의 길로 이끌어주고 동포들의 생활상, 기업경영상 문제를 비롯한 애로와 요구를 성심성의로 풀어주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들을 우리 조직에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각계층 동포들이 총련조직을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품으로 진정으로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더 크게 이바지해나서야 합니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려 전쟁의 위험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내외원쑤들의 전쟁책동과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며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맞받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200일전투에 떨쳐나서 제3차7개년계획을 과감히 수행하고있는 조국인민들과 똑같은 립장과 심정에서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전동포적인 애국운동으로 힘차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외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복잡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국통일에 계속 유리하게 돌아가고있습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그 공명정대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지지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괴뢰도당의 가혹한 파쑈탄압속에서도 남조선의 사회민주당이 이 제의에 동의를 표시하였으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남북청년학생대표들의 회담과 내행진, 체육대회 등을 제의해나선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와 로태우도당이 반공대결을 고취하고 파쑈폭압과 모략, 기만술책으로 식민지파쑈통치의 유지와 《두개 조선》 조작을 추구하려 하고있으나 그 무엇으로써도 민족통일에로의 우리 인민의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고 북남련석회의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일본인민들과 세계인민들 속에 보다 널리 해설선전하며 애국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크게 확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련대성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공화국 기치따라 주체조선의 주인된 영예를 지키며 빛내여온 그 뜨거운 충성심과 애국열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올해 모든 애국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뜻깊은 9월의 국경절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자랑차게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에 대한 신심도 드높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와 주체위업의 영명한 계승자이시며 은혜로운 스승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끝없는 행복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노래



합창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하여 큰절 드립니다》



합창 《축원의 노래》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6돐 경축 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는 예술공연이 14일 오후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축대회에 이어서 막을 올린 예술공연을 총련중앙 한덕수의장과 리진규제1부의장이 리계백, 서만술, 신상대, 허종만, 배병두, 전연식부의장들, 권순휘사무총국장과 각 국장들, 단일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과 총련 도꾜도본부관하 일군들 그리고 수많은 동포들과 함께 관람하였다.

합창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하여 큰절 드립니다》로 시작된 공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은 수많은 노래들이 피로되였다.

인민배우 장해월의 녀성독창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 《당은 어머니 모습》에 이어 조청도꾜노래소조와 녀성동맹도꾜 아다찌지부 어머니노래소조들이 무대에 오르자 회장내는 더더욱 명절일색으로 들끓었다.

경축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속에서 남성독창 《력사는 찬연히 빛을 뿌리네》, 《우리 대에 통일만세를 높이 부르자》(장기생), 녀성동맹도꾜 기다지부 노래소조의 《아, 평양》 등이 련이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 남녘의 고향에 높이 모실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흥겨운 민요가 피로되자 장내의 곳곳에서 춤판이 벌어졌다.

매 종목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끝없는 행복과 승리에 대한 뜨거운 신심이 차넘쳐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금강산가극단과 도꾜, 기다간또 조선가무단의 전문예술인들과 함께 일반동포들이 경축의 무대에 수많이 오름으로써 공연은 뜻깊은 4월명절을 빛나게 장식하는 마당으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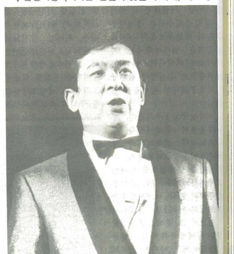
각 종목에 출연한 약 60명의 참가자들의 합창 《축원의 노래》가 장엄하게 울려퍼지자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가다듬었다.



민요련곡 《금수강산 노래부르세》



◀녀성독창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 인민배우 장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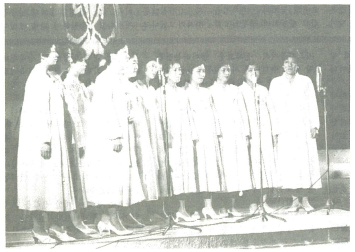


▼남성독창 《력사는 찬연히 빛을 뿌리네》 장기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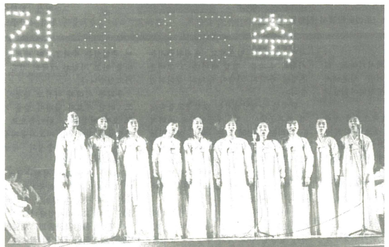


남성중창 《소방울소리》 조청도꾜노래소조





녀성중창 《아, 평양》 녀성동맹도꾜 기다지부 노래소조



녀성중창 《우러러모시는 한마음》 녀성동맹도꾜 아다찌지부 노래소조.

녀성 4 중창 《뽕따러 가세》 김휘순, 림옥순, 리종희, 진찬희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金日成主席誕生76周年祝賀

4月の慶事祝う心一つに 在日本朝鮮人中央大会

各地で金日成主席の誕生七十六周年を祝賀する行事が催される中で、十四日には四月の慶事を祝う在日本朝鮮人中央大会、祝賀宴がそれぞれ開かれた。



金日成主席誕生76周年を熱烈に祝賀する中央大会参加者たち（東京・朝鮮文化会館）

この日、在日本朝鮮人中央大会が開かれた東京・北区の朝鮮文化会館には、総聯中央・韓徳銖議長と李珍珪第一副議長をはじめ、李季白、徐萬述、中相大、許宗萬、裵秉斗、全演植の各副議長、梅淳徹事務総局長と各局長、中央団体、事業体の幹部をはじめ、関東地方の活動家、同胞らが参加して、金日成主席の誕生七十六周年を熱烈に祝った。

大会では、韓徳銖議長が、金日成主席と金正日書記から在日同胞子女の民主主義的民族教育の発展のために百八回目の教育援助費と奨学金一億二千五百七十万円（日本円）が送られて来たことを参加者らに伝えた。これで今までに送られた教育援助費と奨学金の総額は、三百八十八億千四十五万二千四百三十三円（日本円）となった。

続いて報告を行った韓徳銖議長ははじめに、今日われわれは金日成主席の誕生七十六周年を内外の同胞、世界の進歩的人民とともに、民族最大の慶事として祝うことになったと述べ、この日はわれわれすべての同胞の胸に限りない民族的誇りと勝利への信念を抱かせる慶事であると語った。そして在日同胞の敬慕の情を一つにして、主席の誕生日を熱烈に祝賀した。

韓議長はつづいて、わが朝鮮人民が金日成主席という傑出した領袖、卓越した指導者をいただいた人民として、その民族的自負心は限りないと述べ、朝鮮の革命と建設を賢明に導いている主席の業績について具体的に語った。

また韓議長は、主席の指導と配慮によって総聯が結成され、共和国の権威ある海外組織として育まれてきたことを指摘、今後も金日成主席と金正日書記の指導のもとに、総聯活動の新たな革新と成果を目指そうと呼びかけた。

大会が終わった後、金剛山歌劇団や朝青、女性同盟が出演した公演が行われた。

43ヵ国700余人が参加 祝賀宴も盛大に

十四日の夕方、朝鮮会館（東京・千代田区）で開かれた金日成主席誕生七十六周年祝賀宴には、ソ連、中国、キューバ、ハンガリー、ニカラグアをはじめとする各国の駐日大使館の大使と参事、日本社会党の土井たか子委員長と小野明、岡田利春、山本政弘の各副委員長、石橋政嗣前委員長、日朝友好促進議員連盟会長・久野忠治衆議院議員、事務局長・広瀬秀吉衆議院議員、谷洋一衆議院議員、公明党の塩出啓典副書記長、伏見康治参議院議員、衆議院副議長の多賀谷真稔氏、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日本委員会・岩井章議長、日朝文化交流協会・梶谷善久理事長、朝鮮の統一と平和のための国際連絡委員会・市川誠副委員長、加藤徹夫総評国民運動局長、清水澄子日朝婦人会会長、相川理一郎日朝貿易会理事長、井上周八立教大学教授、江上波夫東大名誉教授、鈴木二郎明星大学教授、日朝科連・川村仁也副議長、評論家・山川暁夫氏ら政界、学者、文化人、言論界の人士、計四十三ヵ国、七百余人が参加した。

また、総聯中央・韓徳銖議長と李珍珪第一副議長をはじめ、各副議長、局長、中央団体、事業体の幹部ら多数が参加した。

祝賀宴では韓徳銖議長があいさつに立ち、主席が提示した祖国の自主的平和統一方針の実現を目指し、また朝鮮とアジアの平和、日本をはじめ世界各国人民との友好親善の一層の発展のために積極的に努力していくと述べた。



祝賀宴には各国の駐日大使館大使と参事、各界各層の日本人士らが参加し、主席の誕生日を祝った

民族和解の旗のもとに 南北連席会議40周年に寄せて

金勇起 (上)

解放後史における〝四月〟

解放後の朝鮮の運動史を振り返るとき、〝四月〟という月が持つ格別な意義に誰しも目を見張る。

まず〝四月〟といえば、一九六〇年の李承晩専制支配を打ち倒した「四・一九人民蜂起」が南朝鮮において燃え上がった月である。この人民蜂起が私たちの民族史に永遠に記される偉大な出来事であることは、多言を要しないであろう。

そして、さらに歴史をさかのぼれば、解放朝鮮の分断と統一の岐路にあって、アメリカ帝国主義と李承晩一味の策動に反対し、祖国の自主的平和統一を求める朝鮮人民の英雄的で粘り強い闘争がたたかわれた、もう一つの意義深い〝四月〟に私たちは行き当たる。

一九四八年四月、つまり今から四十年前のそのもう一つの〝四月〟は、米帝とその手先たちがくわだてた祖国の分断化政策に反対する朝鮮人民の闘いが巨大な一歩を記した月として歴史に刻まれている。

この四月、一方では済州島人民が史上まれにみる英雄主義を発揮し、「四・三蜂起」として知られる単独選挙阻止のための武装闘争を開始した。さらに特記すべきは、やはりこの四月、全朝鮮人民の熱烈な支持と期待を集めた南北朝鮮の政党・社会団体による代表者連席会議（以下、連席会議）が開かれているのである。

ここでは、連席会議四十周年の記念すべき節目に際して、この会議のもたれた歴史的背景と意義についてもう一度振り返ってみたい。

連席会議の背景

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解放後、南北朝鮮の歩んだ道はきわめて対照的であった。北部朝鮮には中国東北地域での抗日闘争を経て凱旋した金日成将軍の指導とソ連軍の協力があり、民主社会建設への展望が切り開かれつつあった。

これに対して、四五年の九月に三八度線以南に進駐した米軍は、朝鮮人民を解放人民としてではなく日本と同様の敵国人民として扱い、自己の命令への絶対服従を強いた。彼らは、国内の民族反逆者や親日派、「韓国民主党」などの反動的右派勢力と手を結び、朝鮮民族の新たな支配者として君臨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一九四五年十二月、モスクワで開催されたソ、米、英の三国外相会議は、朝鮮の戦後処理問題を協議し、統一的な朝鮮民主主義臨時政府の樹立と、完全独立に向けての経過措置として四大国（ソ・中・米・英）による五年間の「後見制」（いわゆる信託統治）の実施に合意をみた。

しかし、解放された民族として真に独立した民主主義社会の実現を求める朝鮮人民の政治的成長を目の当たりにしたアメリカ進駐軍は、モスクワ会議で取り決められた政治的な枠組みでは、全朝鮮の隷属化は困難であるとの考えに至った。そのため彼らは、朝鮮民族が同意し、世界的にも承認されたモスクワ会議の取り決めを反古にすることを画策した。

アメリカ軍政当局はモスクワ会議の決定内容を偽って公表したうえ、反動勢力を動員して「信託統治反対」を叫ばせた。その一方で、臨時政府樹立のための協議機関とされた「ソ米共同委員会」を意図的に決裂させ、戦後処理についてはなんら権限をもたないはずの国連に朝鮮問題を持ち込んだ。

彼らは、そこで「国連臨時朝鮮委員会」なる機関をでっちあげ、同機関の監視による南朝鮮地域だけの単独選挙を強行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この単独選挙が南北分断の恒久化に道を開くものであることは誰の目に明らかであった。

連席会議は、こうした危機的な状況に対処すべく、金日成主席と朝鮮労働党（当時は北朝鮮労働党）の積極的なイニシアティブのもとで開かれたものである。

一九四八年三月末、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戦線の名で「南北朝鮮諸政党社会団体代表者連席会議」がすべての朝鮮人民に向けて公式に発議され、四月二十日から二十八日にかけてのピョンヤンにおける同会議の開催が用意された。

会議は、金九、金奎植など分断の恒久化を憂慮する南の良心的な民族主義者の積極的な支持と参加を得ることになる。会議参加をめざして、左派右派を問わず南の多数の団体の代表が米軍政の厳しい監視をくぐりぬけ、競うようにして三八度線を越えた。

会議への正式参加総数は五十六団体六百九十五人（そのうち南からの代表は三十六団体三百九十五人）にまで及んだ。まさに全民族の祖国統一への祈願がこの会議に込められていたのである。



1948年4月、南北連席会議で提示した金日成主席の自主的祖国統一方針を支持する平壌市民大会

中央ゴルフ大会成功に向け 在日朝鮮人ゴルフ協会第4回理事会

在日本朝鮮人ゴルフ協会第四回理事会がさる七日、静岡カントリークラブで行われ、文秉彦会長をはじめ理事たち二十人が参加した。

同日の理事会では、第二十四回在日本朝鮮人中央ゴルフ大会の準備と総聯ゴルフ商工人祖国訪問団の組織、そして一九九〇年に中華人民共和国の北京で開催されるアジア大会のゴルフ競技部門に参加する共和国代表選手に関する問題などを討議した。

その結果、中央ゴルフ大会は来る十一月七、八日の二日間にわたり、静岡カントリークラブ・浜岡コースで行うことを正式に決定した。

同ゴルフ大会は、一部と二部に分けて競技進行し、団体戦と個人戦の成績を競うという。団体戦は五人で一チームを構成し、二日間で三十六ホールを回って各チーム上位四人の成績（一部はストローク、二部は新ペリア方式）を総合して順位を決定する。五人原則であるが、四人でも一チームを構成できる。

参加資格は、一部ハンディ十二まで、それ以外は二部と定める。また、シニア（五十五歳以上）の団体戦も行うという。

経済ニュース

共和国 各地で工場新設される

共和国では二百日戦闘に入ってから、各地で工場が新たに建設されている。

東海岸では近代的な綿野製塩工場を建設中で、塩が工業的方法で量産されるようになる。年間生産量は、一つの郡の耕地面積ほどの塩田と同量の塩が生産され、干拓地を開いて塩田を造成するよりも投資が少なくなる。さらに自然条件に関係なく生産を正常化出来るようになる。

一方、順川ビナロン連合企業所ではタンパク質飼料工場の建設を始めた。ここで生産される製品を原料にすると三十万トンのタンパク質飼料が生産可能になる。

また各地セメント工場では年初の一週間に、昨年同期比二一％増のセメントを生産した。特に順川セメント連合企業所と二・八セメント連合企業所では同期間に四〇％のセメントを増産した。

南朝鮮 大宇労働者ストに突入

南朝鮮の大手造船会社である大宇造船が、会社側のロックアウト措置で十二日から完全に生産中止となった。

同社労組は三月初め、基本給の五五・三％にあたる十二万ウォン（一ウォン＝約〇・一七円）の引き上げを求めて会社側と交渉に入ったが折り合わず、今月一日から同社巨済造船所の全面ストに突入した。

同社は現在、国内外から合計三十四隻を受注・建造中で、今月中にタンカーなど三隻を引き渡すことになっているが、納期が遅れることは必至で、同造船会社の信用問題につながる可能性が濃厚となってきた。

また大宇自動車も、十二日から富平など四工場で無期限ストに突入した。

花見会で楽しい一日 岡山朝信倉敷支店「モンラン会」

さる七日、岡山朝鮮信用組合・倉敷支店婦人後援会「倉敷モンラン会」の主催による花見会が催され、会員ら四十二人が参加した。

あいにくの悪天候のため、公園から急きょ、同朝信講堂に場所を移すことになったが、参加者は思いおもいに楽しい一日を過ごした。

はじめに同後援会・金福南会長が、昨年十一月の発足時からの活動報告を述べ、今後も朝信後援会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ため活発な活動を展開していこう、とあいさつした。

つぎに崔剛士支店長が、三月決算の報告と以後の取り組みについて語った。

この日の花見会には、同後援会幹事の手作りの料理がふんだんに用意され、参加者は料理と歌と踊りを楽しみながら、朝信や学校のことなどの話に花を咲かせた。

視標 経済現象、事実把握の一助に

世界経済、日本経済が一大変革期、転換期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より経済不振にあえいでいると言った方が正確かも知れない。論理的に整理はできなくても、変わ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実感できる昨今である。

日本経済は資本主義世界経済体制の変化により、経済構造の転換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これは個々の企業活動においても大変重要な問題を提起している。生き残りという問題を。

昨年一年間で社長が交代した会社（資本金一千万円以上）は四万社だという。それで昭和生まれ社長が七四％、平均年齢が五十三歳六カ月になったという。企業トップを若返りさせないと、厳しい経済・経営環境に立ち打ちできないからなのだろう。

新聞、雑誌等から現〝時代〟を特徴づけたコピーを拾ってみると次のようだ。

〝知価革命の時代〟〝ソフト化の時代〟〝選択の時代〟〝情報化時代〟〝多様化時代〟〝二極化時代〟〝先行投資時代〟等々。

それぞれ経済現象を捕えた名コピーだが、このように多いのは複雑に絡み合い、体験したことのない経済現象を一言で捕えるのが難しいからなのだろう。

わが同胞が日本で生活し活動するのに、この経済環境を無視できないばかりか、むしろこの環境に立ち向かわなければならない。

若輩者の筆者が読者諸兄の期待にどれだけこたえられるかわからないが、複雑な経済現象の事実を正確に捕え、同胞の立場から論じて見たいと思う。

（尹弼錫・朝鮮大学校）



集いでは、日本政府に対する「要望書」が採択された

不当な「制裁措置」の即時撤回を求める 日本の各界代表が集い開く

KAL機事件と関連して日本政府当局が共和国に対し不当な「制裁措置」をとり続けている中、同「措置」の撤回を求める日本の各界代表人士たちの集いがさる十二日、東京・千代田区にある衆議院第一議員会館で行われた。集いには政財界と学界、法曹界、そして言論人、文化人、労働団体と婦人・市民団体など各界人士二百人が参加した。

今回の集いは、日本社会党・安井吉典衆議院議員（同党朝鮮問題対策特別委員会委員長）、自民党・久野忠治衆議院議員（日朝友好促進議員連盟会長）、自民党・谷洋一衆議院議員（日朝貿易会会長）、公明党・塩出啓典参議院議員、無所属・宇都宮徳馬参議院議員、社民連常任顧問・田英夫参議院議員、総評・黒川武議長、評論家・梶谷善久氏、東京都立大学・鈴木二郎名誉教授、弁護士・森川金寿氏の発起により開かれた。

はじめに、発起人を代表して黒川議長が演説し、総評が招請した七つの共和国代表団と、八つの総評訪朝団が「制裁措置」により、来日および訪朝が中断状態にあると指摘、さまざまな悪影響を及ぼしている不当な同「措置」の撤回を強く求めた。

つづいて、社会党、公明党、社民連、日朝議連の代表ら国会議員四人と俳優の多々良純氏が演説した。また、弁護士の森川氏、北沢義博氏、日朝貿易会・相川理一郎専務理事、梶谷善久氏らが演壇に立ち、KAL機事件発生と「制裁措置」発動以降の憂慮すべき事態について述べた。

集いでは、日本政府に対する「要望書」が採択され、安井議員ら代表四人が内閣官房長官に手渡した。

愛知・シンポ
現代朝鮮女性の生き方

四月の慶事を祝って、愛知朝鮮女性たちのシンポジウムが十三日、朝銀愛知信用組合講堂で催された。同実行委員会（朴美蘭会長―女性同盟瀬戸支部非専従副委員長）の主催で開かれたシンポのテーマは「現代朝鮮女性の生き方」。この日、一部では講演と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二部では祝賀宴が行われた。（昌）



雨模様にもかかわらず280余人の同胞女性らが会場に詰めかけた

同胞女性たちを対象にこのようなシンポが開かれたのは、同県下でも初めてのこと。

その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昨年七月、大阪で開かれた東海、近畿、北陸の三地方合同による同胞商工人夫人たちのシンポジウムであった。

このシンポには愛知県下からも多くの商工人夫人らが参加したが、「祖国と総聯組織、同胞たちのエネルギー、そしてパワーがいかに強いかを改めて再認識」（実行委・辛鈴順副会長）したという。

まさにゼロの状態から出発して今日の強固な愛国的基盤を築いた一世同胞のパワーをいかに二世、三世に伝え、将来へと継承していくのか、同胞社会における国際結婚や帰化、同化問題に対処して民族的な主体性を持って生きることが大切である――などの意図から今回のシンポが企画されたという。

そして二十人の各界同胞女性らで実行委員会が発足（二月）され、女性同盟のバックアップのもと動員をはじめ、すべての準備が力強く推し進められたという。

〝一世のパワー〟継ぎ 未来を開く

幼いころから民族の自覚を

この日、朝から雨模様で出足が心配されたが、十一時の開演時間間際には、準備された座席はほぼ満席の状態。参加者は二百八十余人となり、シンポに対する同胞女性たちの期待と実行委員らが注いだ熱意のほどがうかがえた。

一部では、まず朴美蘭会長があいさつに立ち、「より良い未来を築くためにも、同胞女性らが知識を高め団結するとともに、「時代の流れに敏感になり、いかに生きるべきかを知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述べた。

続いて総聯本部康潤環委員長が祝辞を述べ、祝電が紹介された。その後、社協西日本本部常任顧問の朴鐘鳴氏（関西学院大学講師）が「現代朝鮮女性の生き方」と題し、約一時間二十分にわたり講演を行った。

その中で朴氏は特に、子供たちを立派な朝鮮人に育てるためには、彼らに幼いころから朝鮮民族であることをはっきり自覚させて育て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指摘しながら、母親の決定的役割について詳細に述べた。

そして子供たちに「民族の支え」を与えなかった場合、帰化問題が生じ新しい差別構造が表面化するであろうと強調した。

講演後は三人のパネラーによる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最初に討論をした金弘善さん（名南支部）は自らの生活体験を交え一世同胞の生きざまを語った。

そして若い世代が「一世の気持ちを忘れることなく歩んでほしい」と言葉を結んだ。

また林静子さん（中村支部）は、「朝鮮人としての主体性を持って、日本社会でいかに生きていくかが大切」であると語りながら、一世の意志を継いで、子供たちに民族の誇りを持てるような生活環境を残してあげようと訴えた。

最後に李三順さん（名港支部）が十二年前に受講した文化教室を通して「親子ともども祖国と民族を知り、誇りある生き方が出来るようになった」と、その喜びについて語った。

講演とパネラーの語りは、参加者に深い感銘を与えるとともにさまざまな問題意識を呼び起こした。

金有子さん（名南支部）は、「討論の内容には、まったく同感です。民族心を育むためにも、一世が歩んだ歴史を知ることが、第一条件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れからはもっと広い視野で自分たちの生活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と語っていた。

また、実行委員の一人である朴明子さん（岡崎支部）は「ちょっと欲を言えば、オモニの役割だけじゃなく、もう少しいろんな生き方について語ってほしかった。そのためにもこの様な場がもっとたくさん必要ではないでしょうか」と感想を述べていた。

二部の祝賀宴では、和気あいあいとした雰囲気の中、金剛山歌劇団のディナーショーが行われた。



祝賀宴では金剛山歌劇団のディナーショーが行われた

各地で〝春の集い〟

楽しさ〝満開〟 東京・中央江東

さる十日、金日成主席誕生七十六周年祝賀東京・中央江東支部花見会が東京朝鮮第二初中級学校運動場で行われた。会場には五百余人の地域同胞が詰め掛けた。

中央江東青年商工人協議会（青商会）の年中行事として毎年開かれる花見も今回で五回目。年々その内容も充実し参加者数も増え、現在は五百人規模に大きくなっている。

とくに昨年からはウリ学校で行うようになり同胞たちの喜びもひときわ大きい。

同胞たちは「それもこれも協議会のおかげ」と語る。

それは協議会が動員活動から始まり、抽選会、模擬店など二ヵ月も前からその準備に取り組んできたからだ。

また、そもそも同校運動場で花見が出来るようになったのも、愛校事業の一環として三年前に植えた十本の桜の木があったおかげである。

あいにく花のほうは満開とはいかなかったが、いろいろな話題や歌、踊りで大いに盛り上がり、楽しさは〝満開〟となった。また子供たちは、模擬店が並びいつもと様子の違う運動場を、所せましと駆け回っていた。模擬店から得た収益金は学校の体育器具の倉庫を建てるため使われる。



500人参加の野遊会は楽しい雰囲気に包まれていた

愉快な一日に満足 神奈川・川崎地域

さる十日、神奈川・川崎地域朝鮮同胞たちの野遊会が行われ、民団と未組織同胞らも含めて約五百人の地域同胞が参加した。

初めに総聯川崎支部・李五龍委員長が、「みなさん、今日一日を十分に楽しんで下さい」と、あいさつした。

支部が準備したのみものと、分会別に持ちよった弁当を囲み、みんなで楽しく食事をした後は、お楽しみのゲーム大会。

小学生以下の子供たちによる宝さがしや中学生の綱引き、分会対抗のど自慢大会など、老いも若きも一緒になって楽しいひとときを過ごした。

ある民団同胞は「愉快な一日でした。民族的な雰囲気に時がたつのも忘れるほどでした。また参加したいですね」と感想を述べていた。

月曜セミナー
日本経済の混迷②
株価大暴落と「産業空洞化」

日本経済は昨年につづいて、今年もある程度の景気向上を予想する見方が大筋のようです。しかし、円高、株式市場の波動等、不安定要素を抱えながら急変するとされる懸念も少なくありません。

日本経済は、少なくとも昨年十月の株式暴落以前までは、比較的順調な景気回復がなされました。それは主に個人消費と住宅建設ブームの主導的役割によるものでした。

「財テク」と土地価格の高騰により資産が増大し、消費も増大しました。また、低金利と所得税減税を含む六兆円規模の「総合経済対策」（八七年五月二十九日）により住宅建設部門も活況を見せ、建材・鋼材生産も拡大し、民間設備投資も改善されました。

ところが、昨年十月以降、株価の大暴落と引き続く円高・ドル安の慢性化の影響により、日本経済は暗雲に包まれたのです。

まず第一に、株価下落の影響です。周知のように日本では最近のこの二～三年の間、超低金利下のカネ余り現象を反映し、いわゆる「マネーゲーム」と呼ばれる金融投機の大盛況を表しました。八六年後半期までは日経平均株価が一万七千円前後で推移していたものが昨年には二万円台を突破し、十月の暴落直前には二万六千円の史上最高値（東証日経平均株価）を記録しました。平均利回りはわずか〇・五％という驚くべき低い利回りにしかならず、株式の株価収益率（一株あたりの利益金に対する株価の倍率）が七十倍を超える（欧米諸国はいずれも二十倍にも達していない）という、まさに驚嘆すべき高水準にあったのです。

しかし、実はこのような株価の上昇が、これまでの景気の下支え、回復に大きく貢献したのです。時価表示の個人の金融資産は大幅に増加し、株や債券の売買を通じて個人投資家は多額の「財テク収入」を得たのです。こうした投資効果や「財テク収入」の増加は個人消費を押し上げる方向に働いたのです。

ところが昨年十月、日本においても、一四・九％（三千八百三十六円）という史上最大の暴落を起こしました。年間国家予算を上回る六十兆円の株式資産価値が一日にして消失したのです。

このような株価の下落が、今までの景気回復の原動力でもあった個人消費に与えるマイナス影響は決して少なくありません。東海銀行の調査によれば、株価が千円下がった場合、経済成長率は〇・三％落ち込むと推定されていますが、これによればすでに一％成長率減少が不可避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いずれにせよ、世界的な同時的株価の暴落は日本経済の先行きに暗雲を投げかけていることは疑いないでしょう。

第二に、不安定な為替相場の動向が日本経済の先行きに大きな不安要素となっています。一九八五年（G5のプラザ合意）以降の急速なドル安―円高は昨年十月の株価大暴落をきっかけにより加速し、ついに一ドル百二十円台を記録するまでに至ったのです。

今や、ドル安傾向は慢性化しつつあり、ドル相場は危険な段階に差しかかっているといえましょう。外為市場の不安は極度に高まっています。そもそもドル相場のとめどない下落の元凶はアメリカの双子の赤字とそれによる米国経済の不信にあります。それゆえ、相場安定の鍵は米国経済の推移にあるといえます。しかし双子の赤字が急速に改善されるメドは立たず、これといった対応策も示されていないのが現状です。

一時小康状態を踏まえながらも円高基調が続くことは避けられないというのが共通した見方です。もし、米国の貿易赤字が縮小しなければ、今年の半ば以降からも円高圧力が一段と強まる懸念さえ出ています。輸出主導型構造の日本経済にとって、ドル相場の下落は海外需要のマイナス効果をより一層促進させ、貿易構造の再編を余儀なくされます。このことはまた、経済構造そのものを外需依存型から内需依存型へと転換させ、さらなる内需拡大を迫られることを意味するのです。それは当然、輸出関連製造業のより一層の停滞を深刻な不況に陥れる反面、代替輸入の増大と生産拠点の海外転換を促進させ、いわゆる「産業空洞化」を強め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池永一）

アジアNICsからの日本の輸入
（前年同期比増加率、%）

	1985	86	87/1―10
日本の輸入総額	−5.1	−2.4	13.3
南朝鮮	−2.9	29.3	51.0
台湾	5.7	38.5	54.4
香港	−8.9	39.9	50.7
シンガポール	−10.2	−8.2	37.1
アジアNICs計	−1.9	27.2	50.6
(日本の輸入総額に占めるシェア)	(7.6)	(9.9)	(12.4)

（注）ドル金額ベース

味じまん
家庭の味をだいじに
お好み焼き食事処 いぷに 川埼市

カウンターに椅子が九つ、座敷はテーブルが二つと、こじんまりした店がまえの「いぷに」は「家庭の味」を楽しませてくれると、多くの人に親しまれている。

子供たちがウリ学校で心置きなく学べるようにと、店を始めたのが一年と五ヵ月前。

「当初は初めての商売とあって不安も多かったけれど、総聯支部をはじめ同胞、まわりの人たちの手助けがあったおかげで軌道に乗りました」と店主の許芳子（三九）さんは言う。

お店のメーンはお好み焼きで、そのメニューはバラエティーに富んでいる。

お好み焼きはもとよりキムチ、ナムル、トック、ピビンバ、チヂミと朝鮮料理も楽しませてくれる。

とくにキムチ玉（五百円）、ナットウ玉（五百円）、細かく刻んだモチをまんべんなく入れたモチ玉（五百円）と珍しいメニューが人気をよんでいる。

のみものは本物の梅を入れた梅サワーがよく出る。

季節ものから、子供に人気のモンジャまで、すべて自家製、オモニの味である。

それで、店は小さいながらも連日盛況だ。

「いぷに会」を結成し、毎月一回必ず宴会をするグループもあるそうだ。

開店から閉店まで大忙しのオモニを助け、娘の美香（一三）ちゃんも学校から帰ると店を手伝ったり、家事をみたり。オモニに似てしっかり者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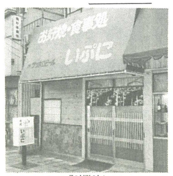
「どんなに忙しくても家庭をだいじにする」という芳子さんは、子供の授業参観から家事まで、一つとして怠らない。そんなオモニの堅実さも人気の秘密らしい。

味よし、品よし、値段よしの三拍子そろい、子供連れからグループ宴会までみんなが楽しめるお店である。

川崎市川崎区大島一―十一―一四 ☎〇四五（二三三）九六七九



許芳子さんと娘の石美香さん



マンガ「이쁜이」にちなんで屋号をつけた

ウリマル講座 14
文・朴点水

会話

요새 건강이 어떻습니까?（この頃お体はいかがですか）
예, 덕분에 건강합니다（はい、おかげさまでいいです）
오래간만입니다. 그새 안녕하셨습니까?（お久しぶりです。その間お元気でしたか）
네,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ええ、おかげさまで元気でした）



☆ワンポイント☆
久しぶりに会った知人どうしで交わすあいさつのことばです。「요새 건강이 어떻습니까?」を「요새 건강이 어떠합니까?」「요새 건강하십니까?」とも言えます。「요새」は「요사이」（この間）の短縮形です。
「안녕하십니까?」を「안녕하셨습니까?」と過去形にして用いると、「お元気でしたか」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

発音と文字

複合パッチム「ㄶ〔n〕、ㅀ〔l〕」の発音

左側のパッチムを発音しますが、後に平音「ㄱ、ㄷ、ㅂ、ㅈ」が続くと「ㅎ」と交わり激音「ㅋ、ㅌ、ㅍ、ㅊ」に発音されます。また「ㄶ」、「ㅀ」の後に母音が続くと、「ㅎ」の音が消えて、左側の「ㄴ」、「ㄹ」が連音されます。

パッチム 文字	パッチム 音	例
ㄶ	ㄴ〔n〕	많다〔만타 ma：ntʰa〕多い
ㅀ	ㄹ〔l〕	옳다〔올타 oltʰa〕正しい

単語と文

괜찮다〔kwentʃʰantʰa クェンチャンタ〕かまわない
잃다〔iltʰa イルタ〕失う
많아요〔ma：najo マーナヨ〕多いです
잃었어요〔irɔs'ɔjo イロッソヨ〕失いました
그것은 옳지 않아요 それは正しくありません〔kɯgɔsɯn oltʃʰi anajo クゴスン オルチ アナヨ〕

豆知識
朝鮮のことわざ

말이 말을 만든다（言葉が言葉を生む）＝噂が噂を呼ぶ（日本）
호랑이（범）도 제말하면 온다（虎も自分の噂をすれば来る）＝噂をすれば影がさす（日本）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4월 19일 (음력 3월 4일) 화요일 【루계 제10186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총련의 여러 대표단들과 상공인들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17일,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총련의 여러 대표단들과 상공인들을 접견하시였다.
【평양～도꾜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7일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총련의 여러 대표단들과 상공인들을 접견하시였다.

여기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박정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녀성대표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최병조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상사일군대표단, 홍령월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예술단, 총련금강산가극단후원회 박정규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금강산가극단후원회대표단 성원들과 총련동해상사주식회사 안상택회장일행, 총련 도꾜도상공인 김인권일행이 참가하였다.

허담동지와 녀맹중앙위원회 김성애위원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박재로부의장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7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6돐을 열렬히 축하하고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 대표단 성원들, 상공인들과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표단 성원들과 상공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축하방문하여온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만나시였다

【평양 4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4일 수령님의 탄생 76돐에 즈음하여 축하방문하여온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를 만나시였다.

오진우동지, 리근모동지, 박성철동지, 리종옥동지, 김영남동지, 허담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덕신부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박정현위원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수령님의 탄생 76돐을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드리고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을 접견하시였다

【평양 4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인민해방군 광주군구 정치위원 장중선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을 접견하시였다.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온업담과 대사관무관 왕대혜가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손님들은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축하와 친서, 선물,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미하일 쎄르게예비치 고르바쵸브동지가 축하와 친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축하와 친서, 선물을 14일 우리 나라 주재 쏘련특명전권대사 겐나지 바르또쉐비치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방문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황장엽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 지도자들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중국의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이 축하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축하와 꽃바구니를 14일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온업담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방문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황장엽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대사는 위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리는 등소평, 조자양, 양상곤, 리붕, 만리, 리선념동지들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따뜻한 축하의 인사와 꽃바구니를 전한다고 말하였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야씨르 아라파트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우리 나라 주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대표 무쓰타파 알 싸파리니가 14일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과 무관단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과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장,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외교단의 꽃바구니와 축하장을 외교단단장대리인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대표 무쓰타파 알 싸파리니가, 무관단의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단장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무관 프란츠 슈와르츠가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사설
북남련석회의를 실현시켜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의 40돐에 즈음하여―

오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높이 받들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소집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40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48년 4월 평양에서 소집된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는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전민족적인 정치협상회의였으며 민족의 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빛나는 리정표를 세운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당시에 군정을 선포하여 남조선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을 유린하고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던 미제는 1948년에 이르러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며 괴뢰정권을 조작하려고 발악하였다. 이것은 실로 우리 민족의 앞길에 엄중한 난국을 조성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적발기에 의하여 소집된 남북련석회의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가한 가운데 력사의 막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국의 장래와 후손들의 행복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사상과 리념, 소속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으며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과 모든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섬으로써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파탄시키고 미제의 분렬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구국을 위해 함께 싸울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민족단합의 력사적회합이였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40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념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전쟁과 영구분렬의 위험만이 커가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대규모적인 전쟁소동을 감행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작년 11월말부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국제적모략책동인 려객기 실종사건을 날조하여 반공화국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리는 한편 북침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켜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영구분렬과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와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구국조치로 된다.

이와 같이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그 취지의 정당성과 제기된 문제의 절박성, 그 해결방도의 합리성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정당한 구국제안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애국적발기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사회민주당 위원장이 북남련석회의소집제의에 동의를 표시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울대학교 등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을 제의해나섰다. 바야흐로 남녘땅에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열망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우리는 40년전의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서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이 민족단합을 이룩한 빛나는 본보기를 따라배워 남조선당국자들과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이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하는 용단을 내리고 전민족적인 대화의 광장에 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그 어떤 세력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줄기찬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내외정치선전사업을 더욱 왕성히 벌림으로써 조국통일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모두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 실현에로!

《북남련석회의가 마련되면 북과 남의 격폐상태를 마스고 온 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을것입니다.》

김일성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대한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의 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100일이 된것과 관련하여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대한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의 토론회가 11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허정숙동지와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정신혁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덕신부위원장, 전금철서기국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태섭부위원장,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이 정당, 사회단체, 당간부양성기관, 과학, 교육,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같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서기국장의 보고에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은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구국방안》,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은 북과 남사이의 전쟁위험과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구국방안》,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은 온 민족의 총의를 집대성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협상방식》,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은 올해를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시기적절한 구국대책》, 《북남련석회의의 소집제안의 실현을 반대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적립장》,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북남 대화와 협상리론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독창적인 협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섭,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정금석,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인 교수, 박사 전영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박영수, 민주조선사 기자 배원숙, 김일성종합대학 원사, 교수, 박사 박시형이 출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은 전쟁위험을 막고 격화일로를 걷고있는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돌려세우기 위한 가장 시기적절한 구국대책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며 진실로 대화와 완화, 통일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에 지체없이 응해나올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단행본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출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의 40돐을 맞으면서 단행본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급변한 정세에 대처하시여 1947년 10월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회의준비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령도사적이 서술되여있다.

책은 회의 조직과 준비 및 진행 전과정을 철저히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서술함으로써 공산주의와 담을 쌓고 한생을 반공으로 보내온 완고한 민족주의자였던 김구, 김규식을 비롯하여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어떻게 되여 한자리에 모여 국난타개의 방책을 토의하고 완전한 의견일치를 볼수 있었는가 하는데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옷을 벗으니

민족대단합의 기치 높이 드시여

해방된 조선이 영구분렬의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던 1948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높이 드시여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영구분렬의 위기앞에서

당시 미제는 조선에서 통일적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사소한 가능성마저 봉쇄해버리고 남조선에 단독괴뢰정권을 세울것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제2차회의에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해낸 미제는 이것이 통일독립을 요구하는 우리 민족의 강력한 반항에 부닥치게 되자 또다시 조선문제를 유엔소총회에 끌고가 남조선지역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비법적인 결정(1948.2.26)을 꾸며냈다.

미제의 《단선, 단정》책동은 민족적위기를 더욱 증대시켰다. 만약 이것을 허용한다면 우리 민족사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오며 살아온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는 장벽은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였다. 그 장벽이 높아질 때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의 비극을 눈앞에 두고 온 겨레가 가슴쳤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기로에 선 엄중한 이때에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성된 민족적위기를 남북의 모든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타개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3월에 소집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통일적인 민주주의인민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애국적력량과 민족적량심이 있는 인사들을 단합하여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파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온 민족의 관심 모으고

나라의 정세가 말할수없이 첨예하던 당시에 주의주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앉아 구국대책을 론의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투쟁의 길에서 전민족이 단합될수 있다고 굳게 믿으시여 첫 대민족회의를 위한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당시 남조선신문들에는 《북에서 제1신은 왔다. 남조선애국적인민들의 감격은 폭발하고있다.》(《중앙일보》 1948.3.30), 《이 회담에 대하여서는 세계의 아무도 이 정당한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막지 못할것이며 국내의 누구도 이 인민의 충만한 의욕과 의기를 방해하지 못할것이다.》(《자유신문》 1948.3.30)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적인 사들은 성명서와 결정서를 발표하여 남북련석회의를 지지환영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948년 4월 19일, 온 민족의 관심속에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회의에는 극반동을 제외한 남북조선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가하였다. 이속에는 한평생 반공을 일삼던 극우익이며 《상해림시정부》계대표인 김구와 중간세력의 대표자로 알려진 김규식도 있었다.

미국의 문필가 존 간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회의의 남조선대표가운데는 리승만을 제외하고 남조선에 있는 우수한 인물이 거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포함되여있었다. 이만큼 다수의 남조선인이 출석을 수락하였다는 사실은 비록 사정이 어떻든지간에 조국통일에 대한 그들의 본능이 얼마나 뿌리깊은것인가를 보여주는것》이다. (《맥아더의 수수께끼》)

미제는 남조선대표들이 평양에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책동을 하였으나 통일을 원하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막지는 못하였던것이다. 해외교포대표들도 회의에 참가하였다.

단결만이 승리를 보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보고 《북조선정치정세》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망국적단독선거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이 거족적투쟁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파와 종교의 소속, 정치적견해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단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단결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남북조선대표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열렬한 토론들이 벌어졌으며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와 호소문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 채택(1948.4.23)되였다.

이것들은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을 확인하고 남조선의 망국적단독선거와 단독《정부》수립을 반대배격하며 북조선의 민주개혁과 건설성과를 자주독립의 토대로 인정하며 쏘미량군의 동시철거를 3천만 동포의 이름으로 요청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남조선단독선거강행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개최한것으로 정점을 이루었》(미국민주주의극동정책기성위원회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으며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으로 미제가 실시한 5.10단독선거는 사실상 파탄되였다.



망국적 5.10단독선거 분쇄투쟁을 힘차게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정견, 신앙의 차이 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시고 지도하신 4월남북련석회의는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기치아래 조선인민의 애국적민주력량을 총단합시킨 력사적인 회합이였다. 회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는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단결하여 싸울수 있으며 조선문제는 능히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세상에 시위하였다.

우리 인민의 애국지심과 굳은 단결력을 내외에 과시하여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결속된 남북련석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견지하여오신 민족단합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민족분렬의 첫시기부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것을 변함없는 철칙으로 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까지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심혈과 노력을 기울여오시였다.

그 과정에 바로 민족사상 처음으로 되는 대민족회합도 마련되였고 사상과 정견을 달리하는 수많은 인사들과의 합작도 이루어졌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 40돐이 되는 올해에는 오늘날 긴장완화의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한 방도로서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새롭게 내놓으시였다.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을 이룩한 남북련석회의정신은 40년세월이 흘렀으나 변함없이 살아있으며 그것은 오늘날 더더욱 절박한 민족적요청으로 나서고있다.

(본사기자)

금력행정선거

목소리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럽고 렴치가 없는것을 두고 낯가죽이 두껍다고 하는데 얼마전 남조선《국회의원총선거》날자의《공고》때에《민정당대표위원》이란자가 로태우를 대신하여 뇌까린《공명선거》운운의 비단같은 소리는 괴뢰도당의 낯가죽이 발바닥보다도, 소가죽보다도 두껍다는것을 말해준다.《민정당은 후보중에서 불법이나 부정사례가 발생된다면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는 극단적인 조치도 각오하고 있다》등등. ▼그런데 실상은 《선거일공고》이전부터 《민정당》패거리들이 금권과 관권을 총동원하여 도시와 농촌 할것없이 남조선전역에서 《권력형》타락선거, 부정협잡의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골몰. 일부 지역에서는 군수가 도로포장공사기공식에서 주민들을 향해 공공연히 《민정당》후보지지를 강요하는가 하면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관들을 통하여 여당후보의 선거유인물을 배포하고 선전하며 공무원들의 《주민등록》까지 이전시켜 여당후보의 득표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이런 《행정선거》양상과 함께 혹심한것이 《금력선거》라 하겠다. 한 실례로 《공고》전야 서울 종로에 있는 고급음식점에서는 여당거물후보가 주민들 2천 5백여명을 긁어모아 초호화판 《동네잔치》를 벌려놓고 일방적인 선거홍보와 야당간부후보에 대한 흑색인신공격을 하여 《유치해서 못듣겠다》는 반발까지 샀다. 이때에 3층 음식점 건물을 메운 사람들 앞에 차려진 음식은 1인당 1만원씩의 여섯가지 코스료리와 술판이였는데 여당후보의 연설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음식에 정신이 팔린 탓인지 신통치 않은것》이였다 하니(《동아일보》 4.8) 우습기도 하다. ▼벌써부터 날따라 시간따라 성행하는 《민정당》후보들의 불법, 부정사례들을 눈앞에 두고 로태우일당은 《자신의 손가락》이 아니라 제놈의 손발과 머리를 잘라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걸 기대할수 없다면 놈들의 소같은 낯가죽을 깡그리 벗기고 어떻게 하나 《선거전》에서 쫓아내야 할것이다.

상품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

조선과 벌가리아 정부사이

【평양 4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88년도 상품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13일 쏘피아에서 조인되였다.

우리 나라 무역부 총회 철부부장과 벌가리아무역성 부상 안겔 가네브가 의정서에 수표하였다.

친선의 왕래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 서기장 몰 페터를 단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 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동해상사주식회사 안상택회장일행과 총련 도쿄도상공인 김인권일행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북남 련석회의와 학생회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리라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의 40돐을 앞두고 각지 학생조청원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릴 결의를 굳게 가다듬고있으며 특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과 함께 최근 평양과 서울의 두 대학교 학생들이 발기하고 호응한 북남학생회담과 국토종단대행진 및 체육대회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나설 결의를 다지고있다.

조선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제기한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제의를 지지하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긴급모임이 지난 10일 저녁, 이곳 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였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행진대오에 함께 들어서자는 학생들의 불같은 열의로 들끓은 모임에서는 먼저 조청조대위원회 김정도 정치부장이 보고를 하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앞으로 보낸 편지가 랑독되였다.

이어 16명의 학생들이 연단에 올라 뜨거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제의를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하면서 통일의 대문이 눈앞에 보이는 격동된 시기에 사는 우리 학생들이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더 적극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보고와 토론의 사이사이에는 《현해탄을 건너 판문점에로!》,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에 우리들도 참가하자!》라는 구호가 연거퍼 울려퍼졌다.

조청조대위원회 김성봉 조직부장은 18일에도 이 자리에 모여 전체 대학생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한 조청 조선대학교위원회 결정을 채택할것을 제기하였다.

【조청조대위원회】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제의를 지지하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긴급모임

각지 조고들에서

각지 조청조고위원회들에서도 련일 긴급집회를 가지고 북남청년학생대표회담제의를 적극 지지성원해나갈 뜨거운 목소리를 높이였다.

야마구찌(9일), 도호꾸, 이바라기, 고베, 히로시마(11일), 규슈(12일, 교직원, 학생 모임), 혹가이도, 도꾜, 아이찌(13일), 교또(16일) 조고위원회들에서 열린 집회들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공개서한)가 랑독된후 해설보고와 함께 대표들이 수많이 연단에 올라 남조선대학생들의 발기에 마음뜨거워옴을 금치 못해하는 자기의 심정들을 열렬히 토로하였다.

집회들에는 한피줄을 이은 조선청년으로서 이번 제의를 지지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정력적으로 떨쳐나설것과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 결의가 차고넘쳤다.

지금 학생들자신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한 도꾜조고위원회, 이번 제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가두선전을 적극 벌릴것을 예정하고있는 도호꾸조고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조청원들의 기세는 높아가고있다.

우리의 발걸음도 합쳐

서울대생들의 《국토종단행진》 발기에 접하여

김 나 래

태여나
걸음마를 배워 오늘까지
우리 걸은 걸음은 얼마인가

세워보면
세상 한끝까지 다 갔을걸
지구도 몇바퀴 돌았을걸

그러나 절통하구나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아직도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는
우리의 걸음
제 나라 제 땅인데도
한나라 한지맥인데도

그 무슨 쇠사슬이
두발을 칭칭 휘감았는가
40여년
겨레의 발목을 꽉 잡아놓질 않는
그 그림자는 누구냐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한나산에서 판문점까지
하나의 지맥을 한뜻으로 걸어갈
너무도 당연한 서울의 부름이여

온 겨레가 환호하고
온 강산이 화답하는 이 사실에
되려 눈물이 쏟아지는
이 노릇이 참으로 분통하구나

가야 하리
의로운 학도들, 나라의 아들딸이 든
통일구국의 기발아래 모여
남녀로소 다같이 가야 하리
징, 꽹과리 다 들고
덩실덩실 춤추며 가야 하리

가야 하리
몹쓸 장벽도 허물고
분렬의 화근도 짓밟고
이 행진 가로막는
총칼의 위협도 짓아뭉개고

가야 하리
온 세상이 다 바라보게
하늘땅이 진감하게
5천만의 발구름 울리며
바다건너 이역의 발걸음도 합쳐

태여나 걸음마를 배워 오늘까지
두발이 있어도 아직은 못간
남북의 길, 삼천리의 길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릴 결의를 가다듬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민족화해의 새봄을 앞당기려는 의로운 소행

공화국 각지 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들이 계속 담화를 발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민족화해를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북남학생회담제의를 환영하는 회담편지를 보낸것과 관련하여 함흥화학공업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과 청진광산금속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4월 12일 이를 지지하는 담화를 각각 발표하였다.

그들은 담화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국토종단행진》과 체육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북남학생회담을 발기하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이에 적극 호응한것은 민족화해의 새봄을 앞당기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려는 북과 남의 모든 청년학생들의 지향과 의지를 반영한 의로운 소행이라고 하면서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분계선장벽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오해와 불신은 심화되여도 젊은 세대들사이에는 분계선이 없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언급한 다음 북남학생들의 소원은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담화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것마저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이 거부하였을뿐아니라 요즘에는 언론계를 강박하여 학생회담제의가 개별적학생들의 주장이라느니 북이 개별적학생들의 주장을 되받아가지고 그것을 《대남적화전략》에 리용한다느니 뭐니 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남조선대학생들의 대화제의를 지지하는것이 《적화전략》으로 된다고 하는것은 적들의 반대화, 반화해, 반통일의 립장을 다시금 똑똑히 드러내놓은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반공화국모략책동과 일본당국의 《제재조치》를 견결히 규탄

일본사회당 나라현본부가 정기대회에서 결의문

일본사회당 나라현본부 제41차정기대회(10일, 나라시 가이호쎈타에서 진행)에서는 일본정부의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의 즉시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나라지국】

히로시마현 일본녀성들이 시국학습회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히로시마현 부인의 회가 9일, 조선문제에 대한 시국학습회를 가지고 일본정부의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의 즉시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시국학습회참가자들은 먼저 비데오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 《꽃다발을 준 소녀는 저입니다》를 보았다.

이어 최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하여 총련 히로시마현본부 제갈덕부장이 강연을 하였다.

히로시마현 부인의 회는 이날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때를 같이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이 대대적으로 감행되였을뿐아니라 일본정부가 미국에 추종하여 《제재조치》를 취한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지탄하면서 그의 즉시철회를 요구하였다.

【녀성동맹히로시마】



히로시마현 부인의 회가 주최한 시국학습회



고찌현일조우호촉진협회의 주최로 진행된 학습회

고찌에서도 학습회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모략을 규탄하는 학습회가 지난 8일, 고찌현일조우호촉진협회의 주최로 진행되였다.

고찌회관에서 있은 학습회에는 현, 시의회의원들을 비롯한 현하 75명의 일본인민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학습회에서는 비데오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꽃다발을 준 소녀는 저입니다》가 상영되였으며 총련본부 황영신조직부장이 강연을 하였다.

그는 강연에서 지난 3월 15일과 4월 1일에 총련중앙에서 가진 기자회견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이번 모략사건의 정치적 기도와 배경 그리고 《안기부》의 정체를 력사적인 사실을 들고 낱낱이 폭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인식하고 조선의 통일을 위한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다지고있었다.

【고찌지국】

효고에서는 긴급집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효고현청년학생위원회는 6일 저녁,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을 생각하는 긴급집회를 중앙로동쎈타에서 진행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먼저 《조선시보》 리동기편집장이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의 진상을 발가놓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이어 앞으로의 일조련대운동에 대하여 강연한 일본사회당현본부 청년대책부 쯔노 기미오부장은 이 사건의 진상을 더 많은 일본인민들에게 알리는것과 함께 반동세력의 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시기일수록 일조청년들이 단결하여 이 책동을 짓부셔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래년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평양에서의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강연이 끝난 다음 질의응답이 있었다.

【조청효고】

조청 효고현본부에서 가두선전 전개

조청 효고현본부관하 일군들과 청년들은 얼마전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남조선괴뢰들과 미일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폭로규탄하기 위한 가두선전을 벌렸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치밀어오르는 분격을 안고 이곳 조청원들은 련일 현하 주요역두에 나가 가두선전을 힘차게 전개하여 1만장의 삐라를 뿌리였다.

【조청효고】



가두선전을 힘차게 전개하는 조청효고 일군들과 청년들

28번째의 4.19

통일기운 크게 앙양

자주, 민주, 통일에로의 도도한 흐름

4.19인민봉기 28돐을 맞는 올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이 계속 앙양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지난해의 괴뢰대통령선거에서의 교훈에 튼튼히 립각하여 반미자주화구호를 더욱 선명히 내걸고 반미, 반독재 투쟁을 한층 강화하고있다. 이에 있어서 청년학생들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과 공동투쟁을 벌리는 등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4월초 서울대생들이 공화국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청년학생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청년학생체육대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등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는 통일기운이 여느때없이 앙양되고있다.

광범한 공감 불러일으킨 《국토종단대행진》과 《체육대회》 발기

불사신의 용맹으로 파쑈광풍을 이겨내며

지난 4월 1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나선 이 대학교의 김중기학생(회장후보)과 유재석학생(부회장후보)이 《김일성종합대학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한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속에서 그들은 ①오는 8월 1~14일까지 북의 학생들은 백두산~판문점, 남의 학생들은 한나산~판문점까지 각각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청년학생 국토종단순례대행진》을 한 뒤 8월 15일 판문점에서 만나 대동제를 벌리고 ②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청년학생체육대회》를 서울대 또는 김일성종합대학중 한곳에서 열고 ③이를 위한 량대학 학생대표의 실무회담을 6월 10일 판문점 또는 제네바 등 제3국에서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제안에 대한 회답을 4.19인민봉기 28돐이 되는 4월 19일까지 줄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표되자마자 광범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커다란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서울시내의 주요대학들에 이 제안을 지지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으며 서울과 지방의 여러 대학들에서는 제안실현을 위한 집회, 시위 등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이 서울대학교의 총학생회와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울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로태우일당은 이 제안을 한 두 서울대생을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지명수배하여 탄압기도를 로골화하는 한편에서 김일성종합대학측의 편지를 받는것도 거부하고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 앙양되는 통일기운을 봉쇄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그이후의 사태전개는 그 어떤 탄압으로써도 날마다 앙양되는 통일기운을 가로막을수 없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괴뢰악당의 탄압책동이 로골화되는 속에서도 서울대학교에는 ·6일에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 및 총장의 편지가 대자보로 나붙었으며 7일에는 이 대학 수원분교에도 대자보가 나붙었다. 뿐만아니라 9일에는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괴뢰악당의 처사를 《민족통일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견결히 규탄하면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앞에 공개》할것을 요구해나섰다.

바로 이와 같이 남조선청년학생들은 괴뢰악당의 파쑈탄압을 박차고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결연히 일떠서고있는바 이러한 움직임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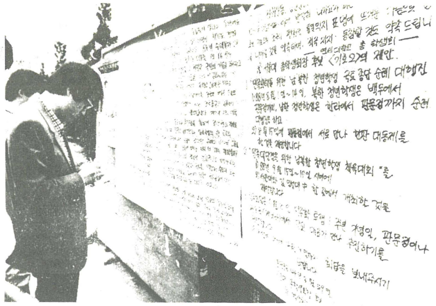
례컨대 지난 11일 《전방입소훈련》에 끌려간 국제대학교 학생 116명은 군당국자들에게 ①대남방송에 대한 감상문 제출을 의무화하지 말것, ②《충성》구호를 《통일》로 바꿀것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이날중으로 군부대를 빠져나와 학교에 돌아와 롱성투쟁을 전개하였다.

국제대학교 학생들의 이와 같은 투쟁은 민족대결에로 내모는 괴뢰악당에 대한 견결한 항의인것과 동시에 민족적화해와 통일에로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4.19인민봉기 28돐을 맞으면서 날마다 앙양되는 통일기운은 그 어떤 파쑈폭압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로태우의 부정집권을 규탄하여 명동성당앞에서 벌어진 가두시위(2월 25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내놓은 《국토종단순례대행진》 등의 제안을 지지하여 연세대에 나붙은 대자보



격렬한 반미구호를 웨치면서 서울《미문화원》점거투쟁을 벌리는 학생들(2월 24일)



《미국―청와대독재체제 타도》구호 전면에 내걸어

로동자, 농민들과의 공동투쟁에 주력하는 청년학생들

올해 들어서면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있다. 그들은 작년 가을의 괴뢰대통령선거의 교훈에 기초하여 남조선의 현 통치체제를 《미국―청와대(괴뢰대통령부)독재체제》(년초에 발표된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의 《청년학도투쟁선언》)로 락인하고 반미반독재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특히 그들은 미국산농축산물을 강요하고 농민들의 희생을 초래케 하고있는 미국의 경제침략반대투쟁과 로동자들과의 로학련대투쟁을 반미반독재투쟁의 관건적고리로 삼고 로동자, 농민들과의 련대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이는 반미자주화투쟁의 대중화를 노리는것으로서 주목되고있다. 그외에도 특징은 ①례년보다 일찌기 투쟁에 궐기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②반미자주화와 시국문제, 학원민주화 등 투쟁 구호와 건수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량적으로도 증가하고있다 ③로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이 늘어나고있다 ④통일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반공이데올로기타파에 주력하고있다 등등을 들수 있다.

특히 그들은 2월 25일의 로태우역도의 괴뢰대통령취임놀음을 전후하여 반미반독재투쟁을 과감히 벌렸다.

《취임식》놀음을 하루앞둔 2월 24일에는 연세대, 고려대 등 5개 대학 학생들 15명이 서울《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독재지원 내정간섭 미국은 즉각 물러가라》고 웨치면서 로태우군부깡패를 부추기고있는 미국을 단죄규탄하였다. 이날 명동성당에서 가두시위를 벌린 수천명의 학생, 로동자, 시민들도 《로태우일당 지원하는 미국놈 물러가라》고 웨치면서 과감한 투쟁을 벌렸다. 로태우역도의 《취임》놀음을 규탄하는 시위는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전주, 수원, 안양 등 남조선전역에서 수만명의 참가하에 련일 세차게 벌어졌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4월의 임금인상계절을 앞두고 위장페업에 의한 로조파괴, 구사대에 의한 로동자폭행 등 민주로조탄압에 나서고있는 괴뢰도당과 악질기업주의 횡포를 반대하여 싸우는 로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을 벌리는 등 적극 지원해나서고있다.

지난 4월 2일에는 연세대에서 서울시내 10개 대학 학생 1천여명이 모여 《로동운동탄압저지를 위한 청년학생궐기대회》를 가지고 로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3일에는 이 대학에서 《현대그루빠로조탄압 규탄, 체포로동자 석방》이라는 구호를 들고 《전국로동자궐기대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청년학생들과 로동자들 5천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집회가 끝난후 힘찬 가두시위를 벌렸다. 이러한 학생, 로동자들의 공동투쟁은 지난 3월 24일 중앙대학교에서도 있은것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아사히신붕》(4월 1일부)이 《3월의 신학기에 들어서면서 서울시내의 각 대학에서 작년의 같은 시기를 릉가하는 격렬한 시위를 련일 벌리고있다》고 지적하고있다.

그들의 투쟁은 4.19기념일과 4월 26일의 괴뢰국회의원선거, 5월의 광주인민봉기 8주년, 6월인민항쟁 1주년, 7~9월의 폭발적인 로동자투쟁 1주년을 계기로 더욱 거세차게 타번질것이다.

총련의 모든 조직을 참다운 애국조직으로 만들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4월 20일 (음력 3월 5일) 수요일 【루계 제10187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오지리공화국 국회대외정책위원회 전 위원장일행을 접견하시였다.

(평양~도로간진승,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들을 보시였다

【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들을 보시였다.

공연들에는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다함없는 존경과 만수축원의 마음을 안고 세계 5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온 국제음악경연수상자들과 명배우들을 비롯한 우수한 배우들로 무어진 예술단과 교예단들 그리고 재일조선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은 꽃바구니들을 드리였다.

오진우동지, 리근모동지, 박성철동지, 리종옥동지, 김영남동지, 허담동지, 강희원동지, 정준기동지, 황장엽동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덕신부위원장 그리고 평양시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책임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들을 보았다.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총련의 여러 대표단과 방문단 성원들이 공연들을 관람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민주주의캄보쟈 주석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전하와 그 일행, 중국인민해방군 광주군구 정치위원 장중선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 오지리공화국 국회대외정책위원회 전 위원장 프리쯔 마르쉬일행, 레바논사회진보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대외관계부장인 푸레이드 야기일행, 기타 외국손님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였다.

공연들에 앞서 예술인들이 무대에 나와 뜨거운 축원의 마음 안고 대륙과 대양을 넘어 평양에 모인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를 모시고 공연하게 된것을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석각하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공연무대들에는 음악, 무용, 기악, 교예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명단은 2면)

출연자들은 공연들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공연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의 신심 드높이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고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무용리사회 부위원장, 국제음악리사회 집행서기, 각국 예술단 단장들과 배우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오지리공화국 국회대외정책위원회 전 위원장일행을 접견하시였다

【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8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오지리공화국 국회대외정책위원회 전 위원장 프리쯔 마르쉬일행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황장엽비서와 김용순제1부부장이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프리쯔 마르쉬 전 위원장은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님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혁명연극 《경축대회》 공연을 보시였다

【평양 4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국립연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혁명연극 《경축대회》 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예술인들이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은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오진우동지, 리근모동지, 박성철동지, 리종옥동지, 김영남동지, 계응태동지, 연형묵동지, 전병호동지, 최광동지, 현무광동지, 강희원동지, 조세웅동지, 정준기동지, 황장엽동지, 허정숙동지, 최태복동지, 서관히동지, 김창주동지, 윤기복동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덕신부위원장, 평양시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 당 및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 항일혁명투사들이 공연을 보았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총련의 여러 대표단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혁명연극 《경축대회》는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국립연극단 예술인들이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혁명연극 《경축대회》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각색한것이다.

혁명연극 《경축대회》는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허장성세하여도 놈들의 멸망은 불가피하며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고 반제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설득력있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벌가리아국가쏘베트 위원장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평양 4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쥡꼬브동지가 선물을 보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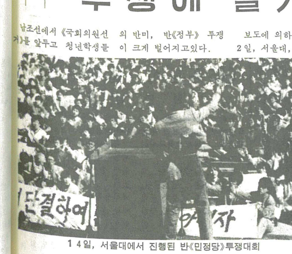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선물을 15일 우리 나라 주재 벌가리아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뻬떠르 다나일로브가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독재를 타도하라》, 《군사〈정권〉 몰아내라》

남조선의 여러 대학들에서 견결한 반《정부》투쟁

서울 2,000여명 학생들이 투쟁에 궐기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청년학생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이 크게 벌어지고있다.



14일, 서울대에서 진행된 반《민정당》투쟁대회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10개 대학 학생대표 2,000여명이 로태우도당을 반대배격하여 견결한 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이날 서울대학교 광장에 모여 서울지역대학생총련합건설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그들은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투쟁거점으로 될수 있는 민주주의적국회만이 로태우의 파쑈공화국을 꺼꾸러뜨릴것이다》라고 견결히 주장하였다.

그후 학생들은 《독재를 타도하라》, 《로태우〈정부〉를 몰아내라》고 웨치면서 힘찬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같은 날 고려대학교 학생 600여명은 교내에서 《현〈정권〉의 집권을 분쇄하자》라는 구호밑에 반《정부》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학생들은 괴뢰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파쑈권력과 금력에 의한 《당선》조작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로태우일당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투쟁으로 《현〈정권〉을 규탄》하며 분쇄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16일에도 건국대, 서울사립대학교 등 10여개 대학 학생 250여명이 건국대에서 학생련합발족식을 가진 뒤 시위투쟁을 단행하였다.

발족식에서 학생들은 현 파쑈《정권》이 《올림픽개최로 조국분단을 영구화하려 하고있다》고 단죄하고 《광주사태관련자를 처벌하고 로동자들의 행동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가 끝난 뒤 학생들은 시위를 막아나선 괴뢰경찰의 탄압을 박차고 힘찬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전의 한남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금오공과대학, 남조선강원도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떨쳐나서 견결한 투쟁을 벌렸다.

서울과 광주의 학생들 《민정당지구당》 사무실과 괴뢰파출소를 공격

100여명의 서울시내 남녀청년학생들이 15일 괴뢰파출소와 《민정당》의 선전차를 공격하였다.

이날 저녁 7시경 서울 중구 퇴계로2가파출소앞에 나타난 그들은 그곳에 세워둔 《민정당》의 《국회의원후보》지원용선전차를 발견하자 거기에 불을 질렀으며 그것을 《보호》해주고있는 괴뢰파출소를 들이쳤다고 한다.

한편 광주의 청년학생들도 16일 괴뢰파출소를 공격하는 투쟁을 벌렸다.

이날 오전 8시경 150여명의 청년학생들은 괴뢰광주서부경찰서 중흥2동파출소에 보도블로크를 깨뜨려 던졌으며 같은 시간에 50여명의 청년학생들은 효죽파출소를 들이쳤다.

또한 서울시내 대학생 30여명이 16일 아침 6시경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민정당지구당》 사무실을 공격하였다.

미제침략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도발행위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14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 경무관회의에서 공화국측 경무관은 미제침략자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자동무기를 끌어들이면서 이 구역의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였다.

공화국측 경무관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 4월 13일 4시 25분경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남쪽 경비병침실에 있던 미제침략군놈들은 자동무기를 휴대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스웨리예 대표단 숙영소 입구초소에 갔으며 13시 25분경에는 이 경비병침실에 8정의 자동무기를 끌어들이였다.

이보다 앞서 4일에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동남쪽에 위치한 감시대초소에 섰던 적측경비병놈은 공화국측 경비인원을 향하여 자동무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도발하였다. 그리고 6일에는 공동경비구역 남쪽 차단초소에 있던 미제침략군 경비병놈이 자동무기를 휴대하고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남쪽에 있는 경비병침실까지 오는것이 목격되였다.

11일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였다.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적들의 도발과 위반 행위는 25건이나 된다.

14일 회의에서 적들은 《증거》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제놈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다.

공화국측 경무관은 공동경비구역에서 사건을 막자면 적들이 죄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동무기를 지체없이 끌어내야 하며 다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일전투 혁신으로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

세차게 타오르는 증산투쟁의 불길
련일 혁신적성과를 달성

철강재생산에서 일대 혁신
—40일동안에—

철생산기지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제철, 제강소 로동계급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철강재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그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총진군운동이 시작된 이후 근 40일동안에 금속공업부적으로 그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선철은 133%, 강철은 128%, 압연강재는 138%로 생산이 늘어났다.

우리 나라 굴지의 대야금기지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은 올해 1,20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실현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집단적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올려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철강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소결로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그 생산성을 1.3배로 높여 철강재생산장성의 앞길을 열어나갔으며 용광로의 송풍능력을 높이고 고압조업을 실현함으로써 40일간에 그 이전시기에 비하여 훨씬 많은 선철을 생산하였다.

특히 그들은 앞선 용해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톤당 전력소비기준을 훨씬 낮추고도 그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3배에 달하는 강철을 생산하였으며 압연강재생산은 1.5배로 높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도 철강재생산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이곳 기업소에서는 200일전투에 들어선후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선철과 강철은 각각 1.6배, 압연강재는 1.9배로 생산을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편 철광산들에서는 철광석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광부들은 총진군운동기간에 철정광생산계획을 1.4배로 넘쳐수행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생산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굴착기와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요즘 전투이전시기에 비하여 하루평균 1.2배이상의 철광석을 생산하고있다.

1.4분기 석탄생산계획 넘쳐수행
—석탄공업부문에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석탄부문의 탄부들이 1.4분기 석탄생산계획을 102%로 넘쳐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탄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 나라 굴지의 대탄전인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덕천지구, 순천지구, 태천지구, 강동지구 탄광련합기업소, 북부지구석탄공업총국산하의 각지 탄광들에서 계획을 앞당겨끝냈다.

특히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룡림탄광의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앞장서고있다.

룡림탄광 탄부들은 앞선 채탄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3월계획을 143%로 빛나게 완수하고 1.4분기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였다.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산하 탄전들에서도 석탄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기업소적으로 3월석탄생산실적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7%로 장성시켰다.

한편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흑령탄광 탄부들은 막장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1.4분기계획을 105%로 초과수행하였다.

이밖에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강서탄광종합기업소산하 탄광들을 비롯한 여러 탄광들에서도 1.4분기계획을 빛나게 넘쳐수행하고 4월에 들어와 그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뜨락또르조립을 더욱 다그친다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에서—

우리 나라 굴지의 뜨락또르생산기지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에 200일전투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주강장과 가공장, 조립장들의 로동자들이 《천리마》호, 《풍년》호 뜨락또르조립을 더욱 다그치고있다.

공장에서 200일전투기간에 1,00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뜨락또르를 보다 현대화하고 그 생산능력을 지금의 1.3배이상으로 높일 목표를 세워 이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주물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용선로들에 열풍장치를 도입하고 질좋은 특산물을 생산하여 주물품생산의 실수률을 지금보다 12% 더 높이며 그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지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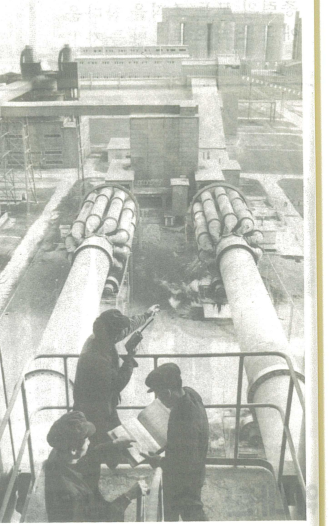
주물직장 로동자들은 총련의 애국적상공인들과 힘을 합쳐 주물자동조형선을 설치하고있는데 15동에 156대의 설비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다그쳐 지금 1호조형선과 혼사선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있다.

주강, 단조 부문에서도 새로운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생산공정들에 설비들을 더 보충완비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정밀형단조, 직접형단조 비중을 높이기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실현해나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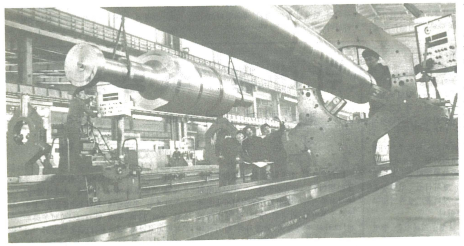
가공직장 로동자들은 자동흐름선의 관리와 점검보수를 잘하여 기관본체가공을 훨씬 앞세워나가고있으며 크랑크축생산실적을 전투이전의 2배로 끌어올리고있다.

공장에서는 또한 뜨락또르를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도 잘해나가고있다.

뜨락또르의 시동성을 개선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이곳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가열전생산능력을 훨씬 확장하고 열쇠갱페기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등 직접 시동문제를 훌륭히 해결해나가고있다.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순천세멘트공장의 로동자들



기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9월의 축전을 큰 로력적성과로!

자강도내 광산들 생산계획을 1.4배로

자강도내 광산들에서 혁신의 발파소리 높이 울리며 새로운 총진군운동을 다그치고있다.

특히 광산들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로력과 설비, 자재를 집중하여 광물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고있다.

도내 광산들에서는 200일전투전에 비하여 1.4배나 높이 세운 굴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함경남도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소형발전소를 도처에 많이 건설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에서는 타빈식수력발전소와 물레방아식수차에 의한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고있다.

도에서는 200일전투기간에 20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조업할 목표를 내걸었다.

이 발전소들이 조업하게 되면 여기에서만도 수만키로와트의 전력생산능력이 새로 조성되게 된다.

간석지개간사업활발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서호간석지(평안북도)개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서호간석지 1구역 1호, 2호 제방공사를 맡아나선 건설자들은 4월중순까지 제방건설을 끝낼 목표밑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간석지개간사업에서 보람찬 위훈을 세우고있다.

서호간석지는 40여리의 날바다에 6개의 제방을 쌓아 3,000여정보의 새땅을 얻어내는 큰 규모의 공사이다.

100여만립방메터의 토량을 처리하고 많은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이 어렵고 방대한 공사가 끝나면 서호간석지는 비단섬과 더불어 조국의 대화학섬유원료생산기지로 전변되게 된다.

강원도에서 수산물생산을 늘인다

강원도 앞바다는 세소어업으로 활기를 띠고있다.

높은 수산물생산성과로써 9월의 축전을 빛내이기 위하여 도내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내부예비를 더 찾아내여 소태망, 행망, 거망, 사돌 잠수 등 세소어업건수를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이였다.

보람찬 200일전투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지닐 한마음으로 이곳 어로공들은 배마다에 3~4가지의 어구를 싣고 다니면서 물고기들이 떼지어다니는 길목에 그물진을 치기도 하고 잠수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날마다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고있다.

그들은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어황조건에 불리한 요즘 20일동안에 고급어족을 비롯한 수산물생산실적을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늘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씨리카트벽돌살림집건설도

강원도내 건설자들이 씨리카트벽돌살림집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내 건설자들은 공화국창건 40돐전으로 1,700여세대의 씨리카트벽돌살림집을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200일전투의 첫 시작에서부터 높은 건설속도를 창조하고있다.

파라핀공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현대적인 파라핀공장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이곳 건설장에서는 공사에 착수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2만 7,000여립방메터의 기초굴착과 혼석매몰작업, 원료저장공정, 파라핀분리공정, 정제공정의 기초공사가 끝나고 성형장의 지붕공사와 생활실의 건구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평양에서 본사기자】

동해안의 금야땅에 현대적인 소금공장이 건설된다

동해안의 금야땅(함경남도)에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현대적인 소금공장이 건설되게 된다.

공업적방법으로 소금을 한해에 30만톤 생산하게 되는 이 공장은 우리 식의 과학연구성과에 의거하여 설계되였으며 짧은 기간에 완공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의 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소금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시여 여러 차례의 교시를 주시고 금야땅에 현대적인 소금공장을 건설할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설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소금공장만은 꼭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단계별로 조성할 생산능력을 제시하시고 친히 공장건설위치까지 정해주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모든 생산공정이 기계화, 자동화된 설비들로 꾸려지게 되는 이 공장은 동해의 짠물과 주변의 연료, 동력 자원을 리용하여 소금을 생산할수 있게 되여있는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된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련환공연 출연자 명단

조선—국립교향악단, 재일조선인예술단

아세아—중국청해성가무단, 중국국제음악경연수상자, 파키스탄예술단, 몽골예술단, 인도예술단, 요르단음악가, 일본예술단, 레바논예술인, 마카오예술인, 타이요술단, 중국교예단

구라파—프랑스음악단, 로므니아예술단, 민주독일베를린경음악단, 유고슬라비아류블랴나예술단, 쏘련국제음악경연수상자, 말따국제음악경연수상자, 쏘련국립옴쓰크로씨야인민합창단, 벌가리아예술단, 웽그리아무용단, 영국예술인, 쏘련교예단, 뽈스까교예배우일행, 스웨리예교예배우일행, 체스꼬슬로벤스꼬요술단, 민주독일교예단

아프리카—에티오피아예술단, 애급레다무용단, 꽁고음악단, 마다가스까르예술인, 수단예술인, 탄자니아예술단

라틴아메리카—니까라과예술인, 베네수엘라예술인, 페루예술단, 메히꼬예술인, 꾸바교예단

전국과학기술축전 활발
—도별축전 마감단계—

지난 2월에 시작된 전국과학기술축전이 활발히 벌어져 지금 도별축전을 마감짓고있다.

공장, 기업소와 시, 군 축전을 거쳐 진행된 도축전에는 32만 4천여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참가, 2만 3천여건의 가치있는 과학론문과 기술혁신안들이 제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 결정에 접한 축전참가자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새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나라를 더욱 부강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높은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가지고 의의있는 여러건의 과학론문과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음으로써 축전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이번 축전은 과학연구기관과 대학들에서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였는데 특히 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 학생, 연구사, 교원들은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우리 나라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여러가지 과학연구성과와 경험들을 내놓았다.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축전에서도 훌륭한 과학론문과 기술혁신안들이 제출됐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장에서는 먼지잡이와 가스청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한 비날론생산분야의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명한 과학론문들이,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건설장에서는 폐수의 종합적처리와 회전로에서 나오는 폐열의 회수처리 등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320여건의 가치있는 과학론문과 기술혁신안들이 제출되였다.

각도축전에서 선발된 우수한 과학론문과 기술혁신안들은 앞으로 진행될 중앙축전에서 발표된다.

(본사기자)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는 철정광생산계획을 1.4배로 넘쳐수행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탄광마다에 창광원식) (목욕탕이 일떠선다)
평 안 남 도

우리 나라 굴지의 석탄생산기지 평안남도의 탄광마다에 창광원식목욕탕이 일떠서고있다.

정양소, 영양제식당, 로동자문화회관, 인민병원, 학교, 상점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는 탄전들에 새로 일떠서는 이 목욕탕들에는 대중탕, 독탕, 한증탕, 리발실, 양복점, 세탁소, 청량음료점, 의무실 등이 갖추어져있다.

목욕탕들은 탄부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갱입구들의 중심지들에 위치하고있다. 그리고 굴진직장, 채탄장들과 목욕탕들 사이에는 운수수단이 갖추어져있으며 탄부들이 갱을 드나들 때마다 리용할수 있게 설계된 목욕탕들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 떨치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넘쳐)
총련 도꾜도본부관하 지부들

꽃 놀 이
아라까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76돐경축 아라까와동포들의 꽃놀이모임이 지난 10일,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총련 도꾜도 아라까와지부관하 젊은 동포들의 협의회 《우리 아라까와회》가 기획하고 조직한 이날 모임에는 1세동포들로부터 3세, 4세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45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이날 모임장소에는 이곳 학교가 걸어온 40년의 로정이 사진으로 전시되였으며 술, 김치, 고기 등의 매대들이 참으로 멋있게 꾸려졌다.

꽃놀이모임에서는 총련과 녀성동맹 분회대표들 6명이 출전한 분회대항 바줄당기기(총련 마찌야분회가 우승), 초급부생들의 조선씨름 등이 진행되여 운동장 여기저기서 동포들의 환성이 울랐다.

또한 학교전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약 150개)이 전달되였다.

동포들은 불고기를 먹으면서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젊은 동포들이 1세동포들의 대를 이어 떳떳이 애국사업에 나서자고 《우리 아라까와회》는 자기들이 꽃놀이모임을 기획하고 여기에 수많은 동포들을 망라하기 위하여 준비사업을 짜고들었다.

량명원회장을 비롯하여 강영식, 강봉우동포들 17명으로 실행위원회를 가지고 한달전부터 이날 모임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힘을 돌려왔다.

수백명 동포들이 먹을 수 있는 불고기, 각종 경기종목과 그의 추진, 매대의 준비 등등.

또한 지난해 1세동포들의 대를 이어 애국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결의의 발현으로 동포들의 학교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밑에 학교에 벚나무 두그루를 심은 그들은 꽃놀이를 이곳 학교에서 가짐으로써 각계층 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던것이다.

이런 준비사업이 있어 이날 모임은 수많은 동포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동포대야유회
아다찌, 2천 700여명으로 성황

봄기운이 완연한 맑게 개인 하늘아래 2,700여명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소리높이 구가, 조은도꾜 아다찌지점 개점 20돐기념 아다찌동포대야유회가 17일, 구내의 모또후찌에공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일련의 기념행사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야유회의 성과적추진을 위해 총련지부에서는 《1만2천호방문담화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전기관적, 군중적인 힘을 돌림으로써 이날 여느때없이 수많은 동포들이 참가하여 단결된 힘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다.

총련중앙 배병두 부의장겸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먼저 진행된 기념집회에서는 개점 20돐기념행사실행위원회 김창수위원장, 총련지부 강호문위원장, 조은도꾜 주영식리사장, 아다찌지점 강범구지점장들이 연설하였는바 3월결산목표를 훨씬 넘쳐수행하는 등 이곳 지점을 참다운 민족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아낌없는 방조를 준 동포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단결된 힘으로 총련의 제반 애국사업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자고 말하였다.

또한 아다찌구의회 아다찌 마사오끼의원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이어 무대에서는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 학생들의 노래와 춤, 취주악연주, 권도연무 그리고 도꾜조선가무단의 예술공연, 안성우씨의 요술공연 등 다채로운 종목이 피로되여 야유회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이날 야유회는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단결된 힘으로 짓부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총련의 제반 애국사업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창건 40돐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이곳 동포들의 기개를 다시한번 크게 떨치는 의의깊은 마당으로 되였다.

동포경축모임
다 이 또

4월 12일, 총련 도꾜도 다이또지부관하 동포들의 4월명절경축모임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신절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모여온 110명 동포들의 한없는 기쁨과 만수축원의 마음으로 들끓었다.

먼저 비데오 《우리모두 한마음》이 상영되였다.

비데오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지자 장내에서는 터질듯한 박수갈채가 울렸다.

특히는 공연을 끝마친 학생들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직접 만나주시여 그들을 한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손수건을 눈굽에 가져가는 동포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엿볼수가 있었다.

비데오상영이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속에서 모임은 축하연회로 이어졌다.

총련지부 임한병위원장의 축배사와 선창에 따라 동포들은 일제히 잔을 들었다.

무대에서는 도꾜조선가무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하는 노래가 피로되고 또한 민요가 흐르니 동포들도 더욱 흥에 겨워 《명가수》들이 무대에 오르고 장내에서는 춤판을 벌려 모임은 명절일색으로 장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신절을 경축하는 이런 모임에는 절대로 빠질수가 없지요.

지난 시기 1세동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우리 젊은이들도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라가려는 신념을 가지고있지요.

오늘 이렇게 수많은 동포들이 모이고 젊은 동포들의 얼굴도 여느때없이 많이 볼수가 있은것도 결국 우리 동포들의 충성심의 발현입니다.

지부에서 이처럼 많은 동포들과 함께 명절을 맞이하니 기쁨도 크고 절로 힘이 솟아나는듯합니다.》

다이또젊은상공인협의회 김문전부간사장은 시종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였다.

동포들의 노래와 춤판이 그칠새없이 벌어지는 속에서 이날 동포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을 즐겁고 의의있게 보내였다.



2,700여명 동포들로 성황을 이룬 도꾜 아다찌동포들의 대야유회



도꾜 다이또동포들의 축하모임

각지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4월명절을 뜻깊게 경축

《충성의 신념으로 살리라》
총련 교또부본부관하 지부들

총련 교또부본부관하 각 지부들에서 4월명절을 경축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니 시 징

위대한 수령님 탄생 76돐 총련 교또부 니시징지부 축하모임이 12일, 교또조신 니시징지점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총련 니시징지부관하 7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 교또부본부 신상무부위원장이 강연을 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날로 복잡해지는 내외정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애국과업수행에 더욱 분발해나서자고 호소하였다.

강연이 끝난후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축하연회가 있었다.

미나미야마시로

총련 미나미야마시로지부에서는 10일, 민족적 단합과 우호친선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꽃놀이를 우지가와강반의 도노시마에서 가졌다.

관하 총련과 미조직, 민단 동포들과 일본인민들 200여명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총련지부 박성금위원장과 3명의 일본인사들이 연설하였는바 우지시의회 아사이 아쯔노리의원은 《남조선비행기사건과 관련하여 정세가 복잡한 속에서 이렇게 많은 재일조선동포들과 일본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앞으로도 계속 일조 두 나라 인민들의 우호친선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노래와 춤, 어린이들의 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여 참가자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미나미야마시로분국】



총련 니시징지부 축하모임

동 포 대 야 유 회
총련 아이찌현본부

4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총련 아이찌현본부관하 동포들의 야유회가 10일,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2,300여명의 각계층 동포들이 모여들어 맑게 개인 하늘아래서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4월의 명절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이날 회장에서는 동포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였으며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무용소조원들과 도까이조선가무단의 공연이 명절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특히 관하유치반원아들의 멋진 농악무가 피로되여 참가자들을 더 흥겹게 하였으며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을 크게 과시하였다.

경축대회 및 꽃놀이
총련야마구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야마구찌현대회가 10일, 850여명의 참가밑에 야마구찌조선고급학교 강당에서 열리였다.

대회에서는 총련본부 엄장범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제2부에 운동장에서 꽃놀이를 즐기였다.

4월의 봄명절을 맞은 기쁨에 넘치면서 참가자들은 불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춤판을 벌리는 등 의의있고 흥겨운 한때를 지내였다.

【야마구찌지국】

대회와 연회
총련시마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시마네현 대회와 연회가 10일 고료소에서 있었다.

대회에 이어 진행된 연회에는 이곳 일군들과 동포들, 각계일본인사들 130여명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먼저 총련본부 박태영위원장의 연설이 있은 다음 중의원의원인 일본사회당현본부 요시하라 요네하루위원장, 하마다시의회 부의장인 조선통일지지 시마네현위원회 야마자끼 료위원장, 현평 이노우에 나오도의장, 시마네대학 나이도 세이쮸교수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회에서는 상잉조선초중급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시마네지국】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4월남북련석회의 40돐 -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이 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전체 조선인민들이 이를 적극 지지환영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벅찬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소집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에 걸쳐 평양에서 소집된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는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전민족적인 정치협상회의였으며 민족의 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에서 빛나는 리정표를 세운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본지는 4월남북련석회의가 소집된 당시의 정세와 회의내용, 그 력사적의의 그리고 이번에 제의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과의 호상관련성에 대하여 해설한다.

애국적민주력량을 총단합시킨 력사적회합

1948년에 들어서면서 조선반도에는 민족분렬의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다.

8.15해방직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민족분렬의 비극이 시작되고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자주권은 여지없이 유린당했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반미투쟁은 가혹하게 탄압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반미자주화투쟁앞에 더는 군정을 유지할수 없게 된 미제는 단독괴뢰정권을 조작하는데 광분하였다. 미제는 1947년 3월에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랭전》정책인 《트루맨주의》를 선포하였으며 11월에는 유엔총회 제2차회의에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고 그 허수아비기구에 조선에서의 《선거관리권》을 비롯한 광범한 《권한》을 부여할데 대한 비법적결의를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그이후 미제는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로 하여금 5월 10일에 남조선에서만 《유엔감시밑의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비법적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협이 더욱더 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48년 3월 9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반동적남조선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에서 미제의 《단독선거단독정부》음모를 짓부시고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실시되는 단독선거를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할 목적으로 1948년 4월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고 련석회의소집을 제의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이 남북련석회의제의가 알려지자 남조선인민들은 크나큰 감격을 안고 그를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그러나 회의를 소집하는데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 시기 반공으로 민족앞에 죄를 저질렀거나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우익정객들이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의 길에 나서는데서 동요하고 주저하였으며 미제와 리승만도당이 이를 리용하여 그들에게 위협과 탄압을 가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구국통일전선에는 당파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 기업가, 상인, 종교인 등 모든 반미애국력량을 튼튼히 결속시켜야 합니다. 비록 과거에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진심으로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고 미제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려 한다면 그의 과거를 백지화하고 함께 손잡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반미구국의 한길에서 민족적단합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앞길을 환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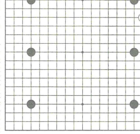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파견원은 3월 28일,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남북련석회의를 제의하는 공개서한과 함께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관한 수령님의 의도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전달받은 남조선의 정계인사들은 그속에 흐르는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민족적단합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적위기를 타개할데 대한 가장 정당한 구국의 진로에 깊이 감동하여 이에 열렬한 지지와 찬동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한국독립당》의 당수인 김구를 비롯한 우익정치인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온갖 방해와 위협, 탄압을 박차고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하였다.

드디여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에 걸쳐 온 민족의 관심속에 1,000여만명의 당원과 맹원을 가진 남북조선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의 참가밑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개최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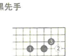
4월남북련석회의는 북과 남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해방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의 분렬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대책을 토의한 전민족적인 첫 회합이였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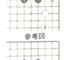
바둑 다음한수
이局面에 이定石



黑先手



参考図



解説図

6子局. 白△의 걸침에 대하여 参考図처럼 応하는것을 定石이라고 두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으로 나빠지는것은 아니지만 白을 安定시키는것이 불만입니다.

이 경우는 解説図처럼 마늘모(尖)붙임해서 白의 근거를 앗아가며 공격하고싶은것입니다.

인터뷰

《4.24한싱교육투쟁을 기록하는 회》의 홍상진씨에게 듣다

우리는 멀지 않아 4.24교육투쟁 40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 투쟁은 해방후 내외원쑤들의 폭압을 박차고 민족교육을 피로써 지켜내려는 동포들의 첫 대중적투쟁이였으며 그 투철한 애국정신은 오늘도 우리 가슴속에 맥맥히 살아있다. 이번에 효고에서는 체험담을 묶은 《4.24한싱교육투쟁》을 출판하였다. 《4.24한싱교육투쟁을 기록하는 회》의 총무인 홍상진씨한테 책이 나오게 된 경위와 내용, 특징들에 대하여 들었다.



홍상진씨

해방후 동포들의 첫 체험담

—먼저 이번 나온 책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

홍; 이제까지 4.24에 관한 책은 한권밖에 안나왔다. 이번에 나온 책은 체험담을 묶은 기록이다. 《4.24한싱교육투쟁, 민족교육을 지킨 사람들의 기록》이란 제목을 달았다.

이번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해방후 재일동포들의 체험담을 처음으로 묶어내였다는것이다. 이제까지 강제련행을 비롯하여 해방전의 체험담은 있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이 재일동포들의 애국투쟁을 파악하는 기초로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하나 특징은 이번 책이 사건을 안받침하기 위한 체험담이 아니라 표제 그대로 우리 동포들이 어떤 마음으로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켜왔는가↙ ↘하는 말하자면 사람중심, 동포중심으로 서술한 책이란것이다.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번 책에는 사진을 많이 썼다. 큰 사진을 50장, 작은 사진을 30장 썼는데 모두 미공개사진이다. 이제까지 일부 혼돈되면서 소개된 사진도 적지 않았는데 이번 사진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찍었는가를 명기했다. 그래야 력사적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또 사진을 많이 써야 누구나 쉽게 볼수 있다. 우리는 력사적인 가치에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읽을수 있는 책을 만들자는데 력점을 두었다.

—책이 만들어진 경위는 어떤가.

홍; 연구회성원들은 10년전부터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4.24한싱교육투쟁을 기록하는 회》가 결성된것은 작년 9월이다. 《효고조선관계연구회》가 작년 8월에 《광산과 조선인강제련행》출판기념모임을 가졌을 때 동포들속에서 명년이 4.24 40돐이 되는 해인데 책을 내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후 광범하게 호소하여 송순종씨가 회장으로 또한 내가 총무로 그리고 교원, 젊은 상공인, 가정주부, 회사원 등 21명이 모여 《기록하는 회》가 무어졌다.

새로운 사실과 자료들을 발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은 일화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

홍; 취재과정에 71명의 동포들을 만났다. 체험담은 51편인데 좌담회도 들어있고 일본사람도 2명 들어있다. 책구성은 지역적으로 했다. 또한 체험담을 주로 하면서 투쟁의 흐름을 파악할수 있도록 개요를 30페지 실었다.

또 사진은 10년간 찾아도 안나온 새로운 사진이 많이 나왔다. 례컨대 《한싱교육투쟁화보》는 1948년 10월에 도꾜에서 출판되였는데 당시의 상황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이번 책에는 김태일소년이 오사까 닛세끼병원에 입원하고있을 때의 사진, 4월 28일 인민장(人民葬)을 했을 때의 사진 등이 실려있다. 또한 효고의 조련사무소가 파괴당한 사진, 박주범선생(당시 조련효고현본부 위원장)이 옥사하기까지의 사진, 강습소당시 모든 학교의 사진 등 많이 발굴되였다.

—체험담을 수집하면서 어떤것을 느꼈는가.

홍; 1편의 체험담을 가지고 여러번 토론했다. 체험담을 안받침하기 위한 자료와의 대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각 시정촌사(市町村史), 효고현청이 가지고있는 자료, 미점령군이 가지고있었던 자료 그리고 여러 신문 등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론증해나갔다.

체험자들은 2세인 우리가 찾아가자 잘 왔다고 악수를 청하고 40년간의 가슴속 울분을 다 털어놓았다. 그런 과정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물론 지부의 소개를 받아 선두에서 싸운《군사재판》에이～씨급의 동포들도 만났지만 중요하게는 일반동포대중이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데 많은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교육투쟁이 대중적인 투쟁이였다는것을 론증하려고 했다.

—4.24를 전후한 시기의 상황은 어떠했던가.

홍; 우리는 동포들의 대중적인 투쟁으로 4.24를 이겨내였다. 그러나 미점령군은 그날 밤 비상사태선언을 내렸다.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 되는 일이다. 미군놈들은 카빙총을 들고 거리란 거리에 섰고 그런 상황이 한달정도 계속되였다.

다까사고지역을 취재한 동무는 그런 속에서 그곳 동포들이 4월 26일에 고베까지 요청운동을 하러 갔다 하는데 그런 일이 사실 있을수 있는가고 반신반의였다. 그러나 자료를 재삼 찾아보니 지방신문의 구석에 그 기사가 나와있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동포들이 얼마나 투쟁을 용감히 벌렸는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투쟁의 의의는 어디에 있었는가.

홍; 효고에서는 4.24교육투쟁이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토대로 되였다는것이다. 효고에서는 49년 4월에 히가시고베초중이 준공되고 9월에는 니시고베초중이 준공되였다.

이는 놈들의 탄압책동을 물리친 힘을 동포들이 학교건설에 고스란히 돌렸다는것이다.

대중적인 운동으로 력사를 밝혀야

—체험담을 수집하는데서 류의한 점은 무엇인가.

홍; 이제까지는 다만 체험담을 들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기풍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우리 말로 수집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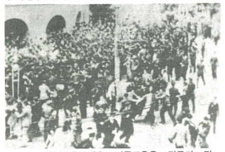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이번 사업을 일부 국한된 사람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범위를 대담하게 넓힘으로써 중요한 경험을 쌓았다. 학생들속에서는 80여편이 나오고 그중 3편을 책에 실었는데 그들은 1세들의 이야기를 통해 4.24란 무엇인가를 실감적으로 느끼게 되였을것이다. 또한 가정주부, 교원들도 이제까지 말로만 알던 4.24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많은것을 배우게 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동포들의 력사를 수집하는 사업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벌릴수 있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그럴수록 이런 사업들을 일본 각지에서 벌렸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오사까나 도꾜에서도 교육투쟁을 잘 벌렸으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게 될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1세들이 줄어져 이제 못하게 될것이다. 우리도 있는 자료는 다 내놓고 방조를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

홍;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방대한데 이번에 모인 성원들을 발동하여 지하공장에 대한 조사사업을 시급히 완성하고싶다. 효고에서도 문헌상으로는 10개의 지하공장이 있었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 니시노미야공장밖에 조사못하고있다. 늦어도 2년내에 완성하고싶다.

민족교육을 피로써 지켜낸 동포들의 기록



4.24한싱교육투쟁은 민족교육을 피로써 지켜내려는 동포들의 대중적투쟁이였다.(사진은 1948년 4월 24일, 효고현청앞에서)



한해동안의 활동성과를 과시

◈문예동 도꾜지부 미술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76돐기념 문예동 도꾜지부 미술전이 12일부터 17일까지 도꾜 긴자의 아사히아트갈라리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번 전람회는 지난해 3월 새로 꾸려진 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벌려온 1년간의 미술부활동을 매듭짓기 위하여 진행된것으로서 도꾜지부적으로는 7년만에 진행되였다.

전람회에는 유화 24점, 조선화 9점, 수채화 12점 그리고 도자기, 조각, 서예, 설계도안 등 28명의 56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였다.

그간 미술부에서는 부위원회를 달에 평균 2번씩 진행하여 부 운영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벌리였으며 《미술통신》을 4호까지 발행하여 부활동을 맹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맹원들 호상간의 교류를 깊이 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는 주에 한번씩 미술교실을 독자적으로 개강하여 맹원들의 기술기량을 제고했을뿐아니라 문을 넓혀 애호가들도 여기에 적극 망라하였다.

부위원회와 《미술통신》, 미술교실—이 3개의 기둥을 세워 미술부에서는 20～30대 젊은 맹원들을 중심으로 1년동안 끈질긴 활동을 벌리면서 이번 전람회를 준비하였다.

하여 이번에 출품된 유화 《인물》(김임호), 조선화 《청춘》(지정숙), 아동화 《심부름》(김정애) 등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은 세련되고 의욕적인 화풍으로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미술교실 수강생들의 코너도 차려져 미술운동이 착실히 동포들속에 확산돼나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으며 서예, 설계도안 등 이제까지 없던 쟝르의 작품들도 출품되여 운동의 폭이 확대되여가고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문예동 도꾜지부 강상인 미술부장은 이번 전람회가 《1년간의 사업의 맺음이고 시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미술통신》과 미술교실, 부위원회를 강화하여 맹원대렬을 확대하며 동포들속에 더 깊이 뿌리내린 새로운 미술운동을 전개해나갈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미술전은 총련 14전대회 결정을 받아물고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미술운동을 활성화해나가는 젊은 작가들의 기백과 정열을 느끼게 하였다.



미술전은 한해동안 부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온 젊은 작가들의 열기를 느끼게 하였다.

무한한 서정에 넘쳐

재일동포음악가 김홍재씨가 지휘하는 도꾜시티필하모니관현악단의 연주회

지난 4월 13일 재일동포음악가 김홍재동포의 지휘하에 도꾜시티필하모니관현악단 연주회가 우에노문화회관 대홀에서 1천여명의 청중들의 관람밑에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날 무대에서는 조선민요를 주제로 한 관현악 《아리랑》, 쇼펜 작곡 피아노협주곡 제1번 그리고 브람스 작곡 교향곡 제2번, 재청에 조선곡 《림진강》이 피로되였다.

특히 《아리랑》은 청중들의 절찬을 받은 좋은 연주였다.

현악기군이 울리는 제시주제선률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청결하고 서정이 넘쳐흐르고 치밀한 계산에 안받침된 감정조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곡세계에로 들어서게 하였다.

이날 김홍재동포는 안정감있고 색채감이 짙은 연주를 통하여 그의 솜씨를 손색없이 잘 보여주었다.

행사안내

교또조선학생피아노연주회 오디숀

때; 5월 7일(土) 오후 2시～5시

곳; 旭堂楽器店 (싼홀)



확대경

발전하는 우리 나라 관광업

—조선국제려행사 사장의 인터뷰에서—

반만년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에는 세계적인 명승고적과 력사유물들이 매우 많아 국제적으로 이름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조선국제려행사의 한병호사장은 《통일신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나라의 발전된 관광업에 대하여 흥미있는 발언을 하였다.

사장은 먼저 우리 나라 관광업의 력사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직후부터 시작되여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뒤부터 더욱 인기를 끌게 되였고 특히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더욱 성황을 이루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특히 지난해 7월에 새로 관광총국이 설치됨으로써 그 발전전망이 더욱 환히 열리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관광이라 하면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민경제의 발전면모, 력사유적 등에 대한 구경인바 사장은 자본주의나라에서의 관광은 리윤추구의 수단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그 어떤 리윤추구보다 제 인민들간의 자주와 평화,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목적을 두고있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인기가 높은 관광지는 금강산, 원산, 개성, 백두산, 묘향산을 비롯한 9개 지역이다.

사장은 그중에서도 백두산과 개성이 앞으로 발전전망이 매우 유망한 관광지라고 접찍고있어 흥미를 끈다. 백두산에 대해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력사가 깃든 성지이며 산악지대로서의 이채적인 자연지리적 환경으로 개발이 촉진될것이라고 말하였고 개성은 력사유적과 인삼밭, 박연폭포들에 대한 관광이 획기적으로 늘어날것이라고 하였다.

사장은 또한 현재 우리 나라 관광총국에서는 60여개 나라 관광기구들과 정식련계를 가지고있고 80여개 나라 인민들이 관광객으로 찾아오고있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광을 통한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 (260) 5881
内線 453・435
436・428

"民族教育の歴史忘れまい"

4・24阪神教育闘争40周年 民族教育シンポジウム

大阪

米占領軍と日本政府当局による弾圧から民族学校を守るため、同胞たちが体を賭して闘った「四・二四阪神教育闘争」から今年で四十年。さる十七日、在日本朝鮮社会科学者協会西日本本部主催の「四・二四阪神教育闘争四十周年　民族教育シンポジウム」が、朝銀大阪信用組合本店講堂で開かれた。会場には約二百人の同胞が詰めかけ、基調やパネラーの報告に熱心に耳を傾け、同胞子女の教育問題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た。



シンポジウム会場には約2百人の同胞が詰めかけ、基調やパネラーの報告に熱心に耳を傾けた

シンポジウムではまず、総聯大阪府本部・金炳淑副委員長が「四・二四教育闘争四十周年にあたって、民族教育のさらなる発展のために開催されたこのシンポは、大変重要な意義を持っている」とあいさつした。

そして社協西日本本部・李大煕会長が基調報告を行った後、「日本の教育情勢と民族教育の抱える諸問題について」「家庭内における教育をどうすべきか」「日本学校における民族学級の現状について」パネラーが報告。討論を行った。

李会長はまず、四・二四教育闘争について「のべ十二万余りの同胞が参加し、三千人の逮捕者、二人の犠牲者、数百人の負傷者、軍事裁判による日本国外退去者三十三人、損害額四億八千万円（当時）を出す激しい闘争であった」と強調。

四・二四当時、解放直後から日本の各地に設けられた「国語講習所」を母体に、六百六校の民族学校が建てられ、大阪府内にも六十校の民族学校があったが、これらに対して日本政府当局の指令により、大阪府の下した「学校閉鎖令」が闘争の始まりであったと指摘。その後の警官隊の一斉射撃による金太一さんの死亡、五月上旬に勝ち取った府当局との五つの合意など、大阪における闘争の経過について、また今日に至るウリハッキョの現状について報告した。

そして李会長は、民族教育の歴史を忘れてはならないと述べながら「民族教育の発展のために必要なこと」「日本学校在学生の問題について」「家庭内での教育について」それぞれ提言を行った。

引き続いて会場を二つに分け、パネラーの報告が行われた。

オモニたちやウリハッキョの女性教員たちが主に参加した家庭内における教育に関する討論では、大阪朝高の金松伊教員が「子供たちを学校だけに任せておいて良いのか」「商品の氾濫した日本社会で子供たちの物の見方をどう育てていくのか」などについて、オモニたちに問題を提起した。

またもう一つの会場では、社協西日本・金肯煥副会長が「現在の日本教育の抱える問題点について」「民族教育の目的について」「ウリハッキョ教育の独自性について」などを、また日本学校の同胞講師から「民族学級の現状について」報告され、日本の教員からも「日本人の立場から見た民族教育、民族学級について」意見が発表された。

これに対して参加者たちからは「民族性を育て自己に対する認識を深めてこそ、日本人とも仲良くつきあうことが出来る」「民族としての主体性を育てるなら、まず言葉を知ることが大切である」「今の子供は物質的には恵まれているが、精神面では満たされていない。親がしっか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どの意見が出された。

また参加者らは「日本社会で朝鮮人としての主体性を育て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再認識した」「日本学校で学ぶ同胞生徒の民族教育も、日本人教師と協力して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うした意見交換の場をもっと作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などの感想を述べていた。

「四・二四」四十周年を迎え、民族教育の重要性について再確認することの出来たシンポジウムであった。

民族和解の旗のもとに

南北連席会議40周年に寄せて

金 勇起 (下)

連席会議の内容

連席会議では金日成主席が、当面する政治情勢と祖国の平和的統一のために提起される諸課題について報告を行った。

金日成主席は、緊迫する政治情勢のもとにあって朝鮮人民の前に提起された最大の課題は南朝鮮の単独選挙を破たんさせ、民主主義の原則に基づく自主的な統一政権の樹立を求める闘争を強力に展開することにあると、明確に指摘した。

また、その課題を遂行するためには、朝鮮のすべての愛国的民主勢力が統一団結し、米帝の凶悪な策動をことごとく暴露・粉砕することによって、彼らの単独選挙の陰謀を破たんさせるとともに、祖国の統一独立を達成するための救国案と対策を緊急に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提起したのである。

会議参加者たちは、その思想・信条の違いにもかかわらず、北側の示したこの方針に全面的な支持を表明した。

会議において「祖国なければ民族なし」と題して単独選挙粉砕と統一政府樹立を力説した金九などの右翼の巨頭たちも、金日成主席をはじめとする北の人びとの祖国統一への熱い思いと賢明な路線に深い共感を示した。それはかりか彼らは、解放後の短い期間に北で達成された民主的諸改革のすべての成果にいたく感銘し、惜しみない称賛を送ったといわれる。

連席会議は、統一・民主・自主・独立国家の実現を高らかにうたいあげた「朝鮮の政治情勢に対する決定書」を採択した、と同時に会議は、ソ・米両政府に対する要請書を採択したが、そこでは単独選挙反対とともに、「国連臨時朝鮮委員会」の撤収と、ソ米両軍の同時撤退後の全朝鮮地域における統一選挙の実施が訴えられていた。

連席会議の意義

このように連席会議は、祖国の分断と南朝鮮の永続的な植民地化をもくろむ米帝の企図が日増しに露骨化するという深刻な局面にあって、南北の政党・社会団体の代表が初めて一堂に会した意義深い会議であった。

会議終了後、金九などの有力な民族主義指導者たちは南に帰り、単独選挙反対の闘争を精力的に推進したが、四九年六月、金九は李承晩の密命を受けた刺客の凶弾に倒れる。まさに民族の統一と独立に殉じた生涯であった。

金九は、「三八度線を枕にして死ぬことがあっても、平和統一を成し遂げる」という決意を胸に連席会議に参加したのだった。

この金九の行動に象徴されるように、連席会議はいかなる思想、信条、政見の違いがあろうと、祖国の統一・独立という気高い理念の下ではすべての政党・社会団体や個人が堅く団結することは可能であり、またその旗の下に団結すべきであることを明確に示した歴史的な会議であった。

南北朝鮮のすべての人民は、会議において示された方針に基づいて、南朝鮮地域での亡国的な単独選挙に反対する大衆的な闘争に決起した。

アメリカ帝国主義と李承晩一味は、ありとあらゆる暴力とテロを動員したにもかかわらず、救国闘争に立ち上がった朝鮮人民の革命的進出を防ぐことは出来ず、単独選挙は事実上破たんした。

彼らは、全くの虚偽によって「選挙結果」なるものをでっち上げ、政権の正統性を欠落させたまま単独「政府」を構成せざるをえなかったのである。

そして、単独選挙に抵抗する人民の巨大なエネルギーはその後、真の統一政府樹立のための礎として南朝鮮地域での秘密選挙の全面的な勝利を支え、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創建へと引き継がれていく。

今日、四十年の歳月を隔てて、連席会議の理念が再びよみがえろうとしている。

周知のように、金日成主席の新年の辞に基づいて共和国政府は、数度にわたって南朝鮮の当局者までも含む諸政党・社会団体・各界人士に対して南北連席会議招集を呼びかけた。ソウル大学総学生会や南朝鮮の社会民主党などがこれに呼応する英断を示しはじめている。

私たちが歴史を振り返るのは、私たち自身が現に直面している主体的課題に即してのことであろう。今私たちは、一九四八年の連席会議の歴史的経験を正しく総括し、民族の和解と統一への新たな展望を切り開く今日の南北連席会議の実現へ向けて、積極的に闘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キム・ヨンギ、国際政治）



南北連席会議参加のため妨害をはねのけ38度線を越える金九（写真中央）一行

合弁

ダンボール工場の年内操業に向けて

㈱西東京商事拡大総会

総聯三多摩本部管下の株式会社・西東京商事と共和国の平壌食糧連合企業所の合弁による「平壌包装材合弁会社」が、ダンボール工場の操業に向けて工場建設・整備やプラントの準備などを着実に進めている。

そんな中でさる十四日、株式会社・西東京商事の拡大総会が総聯三多摩本部講堂で開かれた。同総会では、昨年十月の契約調印以降、現在までの事業経過報告と生産計画等が明らかにされた。

同日の総会には、総聯三多摩本部・李鍾活委員長と三多摩商工会・金重権会長、金永根社長をはじめ同社役員たち、そして合弁事業に携わっている同胞商工人ら三十二人が参加した。

総会では初めに金重権会長があいさつに立ち、KAL機事件で情勢が緊迫する中、役員たちの地道な努力により機械を含めたプラント購入も終えるなど、年内操業に向けて準備が整いつつあると指摘した。

つづいて、事業経過報告を行った金永根社長は「昨年十月に三多摩商工人代表団と平壌食糧連合企業所の間で契約が調印され、その事業推進のために西東京商事が設立された」と述べながら、その後の経過と今年度計画について次のように説明した。

昨年十二月に西東京商事代表が共和国を訪問し、ダンボール工場建設の状況と、今年度の展望について確認してきた。それによると、工場建設は五月末～六月初旬に終える予定で、操業式を七月中旬に行うことが内定した。

またその間、西東京商事としては、日本の大手ダンボール会社との連携を持ち、主要設備と付帯設備、プラントの購入などを基本的に終え、法的手続きを含めて準備が滞りなく進んでいる。

生産計画としては、今年が百二十万枚、来年は二百万、四年後からは四百万枚のダンボールを生産する。

総会では、利益計画と投資形式に関する説明が行われた後、参加者による意見交換の場が持たれた。

今後は、合弁事業の推進に向けた出資を募る問題を大衆的な運動として展開していく計画だ。

水曜訪問

朝鮮の色、形をめざす

20回目の支部展を開く文芸同神奈川支部の美術部長

李 正 雨さん

文芸同の数ある地域美術展の中でも、最も息の長い支部展を十九回に次いで今回（二十五～三十日・かなしんギャラリー）も運営にあたる。

「先輩たちが築いたものを継承して、納得のいく良い美術展にしたいですね」と、今展の抱負を語る。

神奈川では支部展をはじめ、女性美術家たちによる「コスモスの会」美術展、日本の画家たちとの日朝友好展など、年にいくつもの美術展が開かれている。

しかし「絵を描く人、とくに若い人をもっと増やしたい。日本の若い人とも接触したいですね」と、現況に甘んじない様子だ。

支部展が終わると日朝友好展（六月三十日～七月五日）が控えている。

「去年の友好展は、中央美術展の直後で、全国からの作品が集められました。今年はまた、神奈川だけで質、量ともに前回の水準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少し大変ですね」

この友好展も実に二十六回を数える。李さん自身も十四、五年前から参加、思い出深い展覧会だという。

「神奈川の美術家たちはみんな兄弟みたいです。その横のつながりで、どの美術展も長続きし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よ」

しかし"主催者"にまわった今、自分が描くだけにはいかなくなった。

「年も社会経験も多い先輩ばかりなので、低姿勢で臨んでいます」と笑う。

今年の十二月には、初の個展を開く。

李さんの絵は、民族的なものがモチーフになっている。年を追うごとに故郷への思いが募り、イメージが無限に広がっていく。

しかしイメージ通りに筆を運べず、ジレンマに陥ることもしばしばだとか。

「今、朝鮮画に興味があるんです。油絵に、あの色の新鮮さや線の美しさを取り入れられないものかと」

そして目指すものは「朝鮮の色と形」である。独自の作風を生み出そうと、日夜研究を重ねている。

四十二歳。絵の話になると、目が少年のように輝いて見える。（香）



1946年2月25日、茨城県で生まれる。11歳のとき川崎に移転、川崎初中に編入し、神奈川中高を卒業する。幼いころから絵が好きで高級部では美術部に入る。空調設備の仕事に携わりながら絵を描く。去年、美術部長になる。

恒例の春のスポーツ大会

総聯三重県本部

総聯三重県本部主催の分会対抗ソフトボール大会と女性同盟支部対抗バレーボール大会が十七日、三重県鈴鹿市青少年スポーツセンターで開かれた。

晴天となったこの日、会場には参加選手をはじめ、お弁当を持って応援に駆けつけた家族連れなど、約百人の同胞たちで大にぎわい。そんな同胞たちの声援の中で催された大会には総聯（四チーム）、女性同盟（二チーム）ともに予選リーグを勝ち抜いて来た代表チームが参加し、好プレーを展開した。

分会対抗のソフトでは六年前、町内のリーグに加盟して地道な練習を重ねている四日市支部楠分会チームが三回目の優勝を果たし、"勝利の旗"を獲得。二位には上野支部市内分会チーム、三位には四日市支部川原町分会チームが入賞した。

また、女性同盟のバレーボールでは松坂支部チームが四日市支部チームを下し、初優勝を飾って、優勝カップを手中にした。

毎年、春と秋に行われ、県下同胞たちの年間行事として定着しているこの大会。「今春の大会では入賞出来なかったが、秋には必ず優勝してみせる」と、秋の大会に向けて、どのチームも今から意気込みが高いという。

トンポの街かど

潮干狩りで楽しく過ごす

総聯三多摩・八王子支部

さる十七日、総聯三多摩・八王子支部同胞たちの潮干狩りの集いが催された。

姜勝紀商工会会長を中心に構成された同実行委員会によって企画・準備されたこの集いには、同支部管下の高尾、八王子第一、八王子第二分会の同胞百五十人が参加した。

この日、分会別に乗車した大型観光バス三台とマイクロバス一台が到着したのは神奈川県三浦半島の走水海岸。普段は静かなこの浜も、分会対抗の綱引き大会やのど自慢大会での同胞たちの声援や笑い声で、終始お祭り騒ぎとなった。

このように、互いの力やのどを競い合った大会は同胞たちを大いに喜ばせたが、なんといってもメーンとなった潮干狩りでは大人も子供もズボンのすそをまくり上げ、小さなスコップを片手に一時間半の大奮闘。みんなわれこそはとばかりに頑張ったが、結果は韓玩文さん(六三)が一キロ以上ものアサリを拾い、一世の腕を披露した。

同支部で三年ぶりに催されたこの集い。前回よりも二倍以上の同胞が参加した大規模な行事となり、同胞たちの交流を深め、団結を強化する絶好の機会となった。





レンズに向かいポーズをとる園児たち

保育・幼稚班の無料制実施

制服はプレゼント、保育時間も延長

尼崎東朝鮮初級学校

尼崎東朝鮮初級学校では、新学年度から幼稚班、保育班の無料化が実施されている。また、共働きなど父母の実状に沿って、保育時間を午後五時まで延長する措置が取られ、初級部の新入生や編入生、保育班の児童らには制服がプレゼントされた。

ウリ幼稚班、保育班で無料制が実施されたのは、今年で五年目を迎えた東大阪朝鮮第二初級学校に続き、同校が二番目。もちろん日本の幼稚園ではみられないことである。

◇　◇

「うれしい反面、戸惑いやこれから先々どうなるのか…」というのが、今回の措置に対する同胞学父兄らの心境だと関係者は率直に語ってくれた。

いうまでもなく民族教育の発展には、財政問題の解決が不可欠である。まして無料化には多額の費用がかかる。

だから父兄の中から懸念の声が起きるのも無理からぬことと思われる。それだけに無料制の実施に踏み切った同校教育会関係者の熱意は相当に高い。

「資金があってや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民族教育の発展は、同胞社会の将来を左右するもっとも大切な事業です。そのためにも学生数を増や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一環として、おもい切ってやったのです」（教育会・崔種楽非専従会長）。

無料化問題が教育会で討議されたのは、昨年の一月二十日、念願だった新校舎が竣工された後からだった。

それまで学生数を増やすにおいて大きなネックとなっていたのが、「老朽化した校舎と施設の不備だった」（李玉禮校長）という。

新校舎の建設によってその壁を一つ乗り越えたが、問題がすべて解決されたわけではなかった。

民族教育の実効性、経済的な負担、そして保育時間など幾多の問題が持ち上がった。

「教育会でできることは何かと真剣に意見をかわしました。教育の実効性は、教員の [illegible]

その過程で「先だつ物がない」「無料化とはどの様なことであるか、知らずに語っているのでは」などの意見もでたという。

だが卒業生と新入生の数においては、昨年、今年とわずかに新入生数が減ったものの、その反面、保育班、幼稚班の児童らが増え、全般的には学生数が上昇をたどり、かつ卒園児たちがそのまま初級部に入学しているという事実に教育会の関係者は、改めて保育、幼稚班教育の重要性を再認識したという。

特に昨年の九月、若い同胞らを中心に教育会理事会が新たに発足した後、財政の問題など無料制を実施するための準備が本格的に進められた。

そして財政問題を「学父兄らに負担をかけずに、自立的に解決する」ための方法が考えられ現在、その実現を目指し準備が着々と進められている。

「一時は苦労するかもしれませんが、最後まで責任を持ってやるつもりです。一日も早く教室が児童でいっぱいになってほしいですね」と崔会長は語る。

李校長も「教員らに課せられた責務をひしひしと感じています。教育の実効性を高めることによって、同胞らの熱意にこたえたい」と力強くのべていた。



オモニの愛情がこもったお弁当はとてもおいしい

子供たちとともに 分会の新たな出発

「入園・入学・卒業を祝う集い」

女性同盟神奈川・西横浜支部星川分会

十七日、横浜市旭区の生活クラブ旭センターで女性同盟神奈川・西横浜支部星川分会主催による「入園・入学・卒業を祝う集い」が開かれた。

今年で三回目を迎えた集いにはこの春入園した児童と初、中級部一年生をはじめ六十七人の同胞が参加し、楽しく有意義な一時を過ごした。

集いの一部ではまず新入生全員にオモニたちの手作りによる記念品が贈られた。

記念撮影も行われ、赤い花を胸につけた子供や父兄の顔には喜びが溢れていた。

「とてもうれしい。今日のために一生懸命準備したオモニのためにも、これからは自分のことは自分でやります」と張珉順さん（中一）。

昼食は各自持ち寄った料理を囲んでパーティー。

二部ではゲームやクイズが行われ、明るい笑いで会場は大いに沸いた。また、初級部二年の子供たちが歌をうたって一年間の〝成果〟を披露し拍手を浴びた。

進行のはしはしにまでオモニたちの温かい愛情が行き届いたこの集いは、ウリハッキョや日本の学校に通う子供たちと親たちが、朝鮮民族として心を通わせ合う絶好の場となった。

「よその子供を自分の子供のように祝うことができる。素晴らしいですね。これも分会の団結の力だと思います」（金益子さん）

一昨年「新入生を祝ってあげよう」という素朴な気持ちから始められたこの集いは、オモニたちの交流を広げ分会の力を高めるうえで重要な位置にある。特に、前回の集いがきっかけとなり料理教室（月一回）とエアロビクス教室（週一回）が設けられ、現在四十人が参加している。このサークルの運営を通じて分会の動きはより活発になった。一月からは新聞「星の広場」も発行している。

「今回の集いと準備過程には一年間の蓄積が反映されています」と李知淑分会長は語る。本格的な準備は一ヵ月ほど前から進められたが、参加者の動員などすべて順調に事が運んだ。仕事の割り当てに不満も出ず、すすんで記念品の製作などに協力するオモニもいた。そして今年もまたこの集いをきっかけに、分会に「新しい顔」が増えた。

「一人より二人、二人より三人とオモニが力を合わせたら大きな力になる」（朴順恵さん）とオモニたちは自信を深めている。

春を迎えて新入生をともに、また〝新たな〟出発をした星川分会。今後に大きな実りが期待される。



〝大家族〟の記念撮影。アボジもオモニも子供たちも喜びでいっぱい

朝鮮大学校選手健闘

ライトフライ、ライト級で優勝

—88アマ・ボクシング東京選手権大会—



優勝した全東律選手（左・ライトフライ級）と鄭賢峰選手（ライト級）



朝鮮の四季 祈りの暮らし

山道に咲く 晴れ着の花



絵とカット・李耕…

2,700人の同胞で大盛況

朝銀東京・足立支店 開店20周年記念 足立同胞大野遊会



叙情豊かな演奏

金洪才指揮、東京シティフィル演奏会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4월 21일 (음력 3월 6일) 목요일 【루계 제10188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13일 자강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전병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자강도당 책임비서인 리봉길동지를 비롯한 관계부문 책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온 나라가 혁명적앙양으로 들끓고있는 가운데 자강도에 또하나의 현대적인 철강재생산기지 8호제강소가 일떠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8호제강소와 강계시안의 공장,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자들이 높은 창조적적극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현대적설비와 문화적로동조건을 갖춘 제강소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는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과학기술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이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라고 하시면서 근로자들의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고 후방공급사업을 일층 개선하며 강계시를 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규모있고 알뜰하게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동차공업부문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평양 4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동차공업부문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전병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동지와 관계부문 책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자동차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자동차생산을 늘이고 그 물질적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동차공업부문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새로 만든 고급승용차의 시제품들을 보시면서 이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와 자재로 현대적인 고급승용차를 만들어낸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우수한 과학기술력량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어떤 현대적인 기계설비도 다 만들수 있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새로운 생산부문을 개척해나감으로써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그 주체화, 현대화 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수요와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자동차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200일전투기간에 고급승용차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나라의 자동차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가 열렸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릴것을 제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가 20일 도꾜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총련중앙 한덕수의장과 리진규제1부의장이 리계백, 서만술, 신상대, 허종만, 리말상, 배병두, 전연식부의장들, 권순휘사무총국장과 각 국장들 그리고 중앙위원들, 감사위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지명된 일군들이 회의를 방청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들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9월의 국경절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20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날에 날마다 새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총진군에 발맞추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애국열성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 군중적인 애국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토의결정하게 된다.

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의 두리에 광범한 재일동포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조성된 정세와 총련사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을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로 더욱 강화하고 올해의 애국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획기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회의에서는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는 애국사업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를 보고하였다. (보고전문은 2~3면)

(보고전문은 2~3면)

리진규제1부의장은 보고에서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내이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장엄한 총진군이 벌어지고있는 올해야말로 모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한없이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조직과 애국사업의 획기적인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분발해나서야 할 력사적인 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애국적지향을 담아 5월부터 9월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릴것을 제기하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이 운동의 특징과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주체조선의 주인된 영예도 드높이 조국인민들과 함께 공화국창건 40돐을 민족적대경사로 맞이하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지향을 반영한 충성의 애국운동이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은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조직의 군중적지반을 크게 확대강화하고 조국통일을 비롯한 모든 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이며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보다 큰 발전의 앞길을 열어놓기 위한 보람찬 전진운동이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의 목적은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적열의와 힘을 최대한 발양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올해 6가지 주력과업과 8가지 주요목표를 모두 넘쳐달성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충성의 축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는데 있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5개월애국혁신운동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찍어 말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조국의 륭성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며 로태우군사파쑈《정권》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동포들, 상공인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묶어세우고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확대공고화하여야 한다.

계속하여 리진규제1부의장은 5월부터 6월말까지의 기간을 제1단계로, 7월부터 8월 20일까지를 제2단계로, 마지막 제3단계를 8월 21일부터 9월말까지로 정하여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게 된다고 하면서 매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과업을 밝힌후 총련의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신념을 가다듬고 높은 사상적각오와 혁명적기백으로 혁신운동의 앞장에 서며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신운동을 동포들자신의 대중적운동으로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회의는 계속된다.

《독재를 타도하라》, 《양키는 제집으로 돌아가라》

서울시내 10개 대학 학생 2만여명이 반미, 반《정부》 시위

평화협정체결, 올림픽공동개최, 미국핵무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

서울에서의 외신보도에 의하면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으로 리승만독재《정권》을 꺼꾸러뜨리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흔들어놓은 4.19인민봉기 28돐을 기념하여 18일 서울시내 2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이 반미, 반《정부》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시내 10개 대학 학생들이 《독재를 타도하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라》고 웨치면서 고려대학교로부터 4.19기념탑이 자리잡고있는 수유리까지의 왕복 16키로메터마라손에 합세함으로써 해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가지는 이 행사가 대중적인 시위로 전환되였다고 한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학생들은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성원을 받으며 《민정당을 몰아내라》고 씌여진 수백개의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민주쟁취》 등을 웨치면서 기세를 올렸다.

학생들은 수만장의 삐라를 뿌렸는데 거기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조선반도내의 모든 핵무기를 철폐하며 남북공동올림픽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파쑈도당은 이날 수천명의 폭동진압경찰들을 내몰아 학생들을 탄압해보려 하였으나 그들의 드높은 기세에 눌려 감히 덤벼들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마라손에 참가한 5,000여명의 청년학생들은 다시 고려대학교로 돌아와 로조의 권리를 지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가한 그들은 로태우파쑈《정부》를 반대하는 깜빠니야를 더욱 강화할것을 다짐하였다.

학생들은 집회에서 《양키는 제집으로 돌아가라》고 연방 웨쳤다.

그들은 또한 《미국핵무기들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며 올가을에 진행되는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공동으로 주최하도록 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19일에는 서울지역 대학생들 3천여명이 4.19기념집회를 열어 《여당 민정당 타도》, 《남북통일》, 《대한항공기사건의 진상규명》을 호소하였다.

집회후 수백명의 학생들은 서울시내 종로구일대에서 시위를 벌렸는바 그들을 탄압하려는 괴뢰기동대에 항의, 수백발의 화염병을 던져 그자들의 뻐스를 훼손시키는 등 견결한 투쟁을 벌렸다.

4.19인민봉기 28돐에 즈음하여 서울시내 청년학생들이 단행한 대중적인 반미, 반《정부》 시위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파쑈도당의 군부독재에 종지부를 찍고야말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지를 그대로 보여준것이다.



19일 반미, 반《정부》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서울시내 대학생들(로이터 산 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는 애국사업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한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의 보고

중앙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는 9월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4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40년동안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에 찬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9월의 국경절을 뜻깊은 전민족적명절로 빛내이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들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200일전투에 총궐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의 거창한 대건설전투에 크게 고무되면서 력사적인 올해의 영예로운 애국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분쇄함으로써 공화국기치따라 나아가는 총련애국대오의 단결된 위력을 과시하며 국경절을 빛나는 애국사업성과로 자랑차게 맞이할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있습니다.

오늘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긴장되고있으나 전반적정세는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위업에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련앞에는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자기 조직을 더욱 위력있게 꾸리고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조국의 륭성번영과 통일위업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본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총진군에 발맞추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애국열성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 군중적인 애국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토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의 두리에 광범한 재일동포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조성된 정세와 총련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을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로 더욱 강화하고 올해의 애국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획기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공화국창건 40돐은 조국청사와 재일조선인운동의 년대기우에 새로운 승리와 영광의 장을 아로새길 우리 민족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되며 자랑스러운 력사적리정표로 됩니다.

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이 벌린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며 참다운 자기 조국을 가지고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의 빛나는 실현이였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나라를 빼앗긴탓으로 갖은 구박과 천대를 받아오던 비참한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40년의 로정은 가장 흉포하고 간악한 내외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민족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을 영예롭게 지켜내며 가장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지난날의 락후한 식민지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전변시킨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 세기적 변혁과 기적으로 수놓아져있습니다.

공화국이 걸어온 40년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백전백승하여온 영광의 40년이며 국가건설과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새 력사 창조의 40년입니다.

공화국의 창건과 빛나는 40년의 력사는 이국땅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도 근본적인 전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지난날 망국노의 처지에서 살아야 하였던 재일동포들이 오늘은 자주독립국가 해외공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가슴펴고 떳떳이 살며 애국사업의 한길에서 민족의 슬기를 떨치면서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인민의 주권인 공화국의 국가적보호와 높은 국제적권위가 있기때문이며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례가 없는 극진한 동포애적시책으로 재일동포들을 살뜰히 보살펴주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해외동포들을 보호하는것을 언제나 자기의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 재일동포들에게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주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내외반동들의 탄압박해책동이 감행될 때마다 성명을 발표하여 그를 단호히 규탄, 분쇄하는 강력한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재일동포들을 포근히 안아주고 극진히 보살펴주는 조국의 품이 있음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은 총련과 같은 존엄있고 위력있는 해외공민단체를 가질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과 왕래도 실현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국에서 1957년부터 오늘까지 388억 1,045만 2,433원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었기에 우리는 이국땅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생명수로 하여 우리 민족교육사업을 오늘과 같이 자랑스럽게 발전시킬수 있었습니다.

내외반동들의 민족적 차별과 박해가 끊임없이 감행되는 자본주의이국땅에서 우리 동포상공인들이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상공인 된 영예를 떨치고 주체조선의 과학자, 예술인으로서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며 후대들을 조국과 민족의 미래로 훌륭히 키우고있는것은 모두다 은혜로운 조국의 품이 있기때문입니다.

지난날 조국을 빼앗기여 설음과 원한만이 맺혀있었던 재일동포들의 피멍든 그 가슴우에 오늘은 공화국의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박사, 인민교원, 인민예술가 등의 높은 국가적 칭호와 수훈의 영예가 빛나고있으며 우리가 주체조선의 주인된 자랑을 안고 일본에서는 물론 국제무대에까지 나가 활약하고있으니 참으로 공화국은 우리의 값높은 생명을 낳아키워주는 더없이 고마운 어머니품입니다.

재일동포들은 자기 생활체험을 통하여 오늘의 행복도, 삶의 보람과 기쁨도, 앞날의 희망도 오직 조국의 륭성번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는것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불변의 진리로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동포들은 자기 운명을 사회주의조국에 의탁하고 공화국기치따라 지난 40년동안 변함없이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워왔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원쑤들의 책동으로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을 굳게 믿고 불굴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내외반동들의 파괴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굳건히 고수하였습니다.

최근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위기에 처한 남조선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체제를 계속 지탱하고 서울올림픽을《두개조선》조작에 악용하려는 음흉한 기도밑에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꾸며내여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미친듯이 벌렸습니다.

미제의 지휘밑에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모든 선전수단을 다 동원하여 온갖 허위와 날조로 꾸며진 류례없는 모략소동을 벌리는 한편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파괴와해책동과 인권침해, 폭행을 악랄하게 감행해나섰습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한걸음도 물러섬이 없이 원쑤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대내외정치선전사업과 군중투쟁을 줄기차게 벌렸습니다.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은 치솟는 적개심으로 이번 사건이 전두환, 로태우도당이 꾸민 자작자연극이라는것을 내외에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총련과 동포들에 대한 원쑤들의 파괴와해책동과 인권침해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습니다.



특히 총련중앙이 지난 2월 4일과 3월 15일, 4월 1일에 각각 진행한 기자회견은 내외원쑤들의 모략책동과 그 범죄적본질을 까밝히고 비행기사건을 공화국과 결부시키려는 반동들의 음모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투쟁에 대한 내외의 광범한 지지여론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성적인 활동으로 단시일내에 수백만부의 선전물과 수만개의 비데오편집물을 보급한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의 그 투쟁모습, 조국과 총련을 옹호할 일념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의 투쟁을 물질적으로 안받침해나선 수많은 동포상공인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수많은 일본인민들이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지지성원해나선 모습들은 그 어떤 모략책동도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의 억센 의지와 단결된 힘을 깨뜨릴수 없으며 우리의 정의의 투쟁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시위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기치따라 조국인민들과 언제나 한대오에서 조국의 부강발전과 통일위업을 위한 애국의 한길을 끝까지 나아가는것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오랜 투쟁을 통하여 굳힌 철석같은 신념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한결같은 지향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1988년은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며 총련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새해에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공민된 끝없는 긍지와 주체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공화국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총련조직을 강화하고 총련의 애국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것, 이것은 사회주의조국의 위용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누리에 떨치는것으로 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과 해외교포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내외원쑤들에게는 더 큰 타격으로 될것입니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간악한 원쑤들을 쓸어눕히던 그 기세와 열정으로,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던 그 의지와 기백으로, 거창한 70일전투를 벌리던 그 패기와 기개로 200일전투 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습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내이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장엄한 총진군이 벌어지고있는 올해야말로 모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한없이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조직과 애국사업의 획기적인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분발해나서야 할 력사적인 해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애국적지향을 담아 본중앙위원회를 계기로 5월부터 9월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5개월애국혁신운동(략칭―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릴것을 제기합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벌리는《5개월애국혁신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주체조선의 주인된 영예도 드높이 조국인민들과 함께 공화국창건 40돐을 민족적대경사로 맞이하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지향을 반영한 충성의 애국운동입니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은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조직의 군중적지반을 크게 확대강화하고 조국통일을 비롯한 모든 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이며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보다 큰 발전의 앞길을 열어놓기 위한 보람찬 전진운동입니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의 목적은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적열의와 힘을 최대한 발양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올해 6가지 주력과업과 8가지 주요목표를 모두 넘쳐달성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충성의 축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는데 있습니다.

총련의 모든 조직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사업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라는 구호밑에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의 충성심과 애국적열의, 힘과 지혜를 5개월애국혁신운동에로 남김없이 동원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5개월애국혁신운동기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조국의 륭성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일군들과 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락관에 넘쳐 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조국애교양을 잘하는것입니다.

총련의 모든 조직들은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 우리 인민의 피어린 투쟁으로 수놓아진 공화국의 창건과 40년의 력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 약동하는 조국의 현실과 휘황한 전망에 대하여 재일동포들의 체험과 결부시켜 더 잘 생동하게 해설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잃었던 나라를 되찾아주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주체의 조국을 더욱 빛내여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동포애적시책과 바다같이 높고 깊은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해설교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부와 분회마다, 사업분야마다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총련사업에 한생을 묵묵히 바치고있는 애국자들을 널리 소개하며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외원쑤들은 앞으로도 공화국의 권위를 헐뜯으며 총련을 파괴하려는 새로운 모략을 꾸며 악선전을 벌릴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조국을 허위와 날조로 함부로 훼손하려는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과 반동적사상공세를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5개월애국혁신운동기간에 우리는 동포들속에서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민족적인 자각과 애국적인 생활기풍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말과 글을 옳바르게 배우고 쓰며 지키는것은 민족의 얼을 고수하는 사업이며 애국애족운동의 존망에 관한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조직들과 일군들이 달라붙어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벌려 1만조의 호조반을 꾸리고 운영하는것을 비롯하여 모국어를 배우며 지키는 운동에서 반드시 획기적전진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포들속에서 민족적정서와 애국적기풍을 높이기 위하여 군중문화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려 사회주의조국의 명곡들과 대중가요들을 널리 보급하는 사업과 금강산가극단의 공연, 지방가무단의 기동예술활동을 적극 짜고들며 군중적인 체육경기, 예술경연모임, 문예창작활동도 왕성히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조직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진행하는 사회주의조국방문사업을 목적의식성있게 조직하고 여기에 젊은 상공인들과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을 더 많이 망라하여야 하겠습니다.

총련 각급 조직들은 종합적인 동포교양망인 조선문화강좌와 상공인이동경제학원 등을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조선신보》를 비롯한 출판보도선전과 영화와 비데오편집물 등의 모든 교양수단들을 다 발동하여 그의 실효성을 나타내게 하며 우리의 교양망에 새세대동포, 젊은 상공인을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을 크게 망라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들이 공화국공민된 자각과 영예감을 더욱 높이고 언제나 조국과 함께 숨쉬며 총련애국사업에 힘차게 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은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수준과 과학기술적토대를 선진국가의 높이에로 확고히 올려세우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말 그대로의 만년대계를 위한 거창한 사업입니다.

조국인민들은 앞날의 휘황한 전망을 확고히 내다보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200일전투에서 날에 날마다 혁신과 위훈을 창조하고있으며 온 나라는 제3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장엄한 대건설로 들끓고있습니다.

이 력사적인 대건설전투에서 조국인민들이 빛내여나가고있는 로력적위훈속에 재일동포들의 애국지성을 함께 꽃피우게 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일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지혜,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백방으로 발동하여 조국의 기술혁명수행과 경공업발전에 전동포적인 애국운동으로 이바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포생산업자, 과학기술자, 애국적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구체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사업을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조국과의 합영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이 사업에서 실지로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년에 우리 나라에서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립니다. 반제자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대규모적국제적행사인 5대륙 청년학생들의 대축전이 조선에서 열리게 된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일이며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도 크나큰 민족적 자랑으로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적인 대축전에 참가하는 사업과 축전준비를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화국의 위용과 국제적 위신을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5개월애국혁신운동기간에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며 로태우군사파쑈《정권》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의 40년간의 력사는 우리 민족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성스러운 력사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미일반동들과 로태우괴뢰도당의 악랄한 정치모략책동과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인하여 극도로 긴장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민주화세력은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보다 위력한 력량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앞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더욱 앙양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전통적인 《투쟁의 봄》인 4월에 들어서서 《총선거》와도 결부되여 다시 타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사파쑈《정권》으로서의 로태우도당의 정체는 《조각》과 《정치범석방》, 《민주화합》 놀음들을 통하여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로태우역도는 그 매국배족적이며 군사파쑈적인 본질로 하여 제아무리 《민주화》를 표방하여도 진정한 민주화를 실시할수 없습니다.

상극하는 민주세력과 파쑈세력간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정세가 우리에게 한층 유리하게 돌아가는것은 필연적인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의 반로태우투쟁을 지지성원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과 《새마을운동본부》의 부정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로태우도당은 회유기만과 모략, 민주세력에 대한 내부와해책동에 매달리고있습니다.

특히 로태우역도는 광주사태문제와 관련한 사회적반발을 어떻게 하나 무마하기 위하여 《민주화합》이니 《광주사태치유》니 뭐니 하면서 음흉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광주인민항쟁 8돐, 6월인민항쟁과 로동자들의 7～8월투쟁 1돐을 계기로 광주대학살의 두목인 로태우파쑈정권의 정체와 기만술책을 폭로하는 전동포적인 정치선전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공화국이 제기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지지실현시키기 위한 각종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화국이 제기한 새로운 구국방안은 그 공명정대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커다란 지지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괴뢰도당의 가혹한 파쑈탄압속에서도 지난 3월 28일에 사회민주당 위원장이 이 제안에 동의를 표시하였으며 3월 29일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남북청년학생대표들의 회담과 대행진, 체육대회 등을 제의찬동해나섰고 올림픽공동주최를 주장한 사실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6.25, 7.27, 8.15 등 모든 계기성을 적극 살려 전체 재일동포들과 광범한 남조선인민들 속에 공화국이 제기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널리 선전침투하며 그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제와 로태우도당의 핵전쟁을 가상한《팀 스피리트 88》군사연습과《두개 조선》조작을 노린《서울올림픽》단독개최놀음을 철저히 폭로분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주화구호와 함께 통일구호가 힘있게 울려퍼지게 하며 광범한 민단, 미조직동포들이 자주적평화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적으로 총단합해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세와 일본의 사회실정에서 대외사업을 전기관적, 전군중적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고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면에 이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는 애국사업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2면에서 이음

우리는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의 길을 개척해온 공화국의 40년간의 력사와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 공화국의 정당한 조국통일 방침과 방안들을 널리 해설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외반동들의 정치적모략과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철저히 폭로선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본인민들속에서 공화국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깊이고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확대하며 조선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더욱 광범히 벌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미제의 사촉밑에 한층 로골화되는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세력의 새로운 유착관계를 반대하며 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제재조치》의 철회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인민들의 각종 운동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5개월애국혁신운동기간에 우리는 동포들, 상공인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묶어세우고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확대공고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은 총련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조직로선입니다.

광범한 동포들, 상공인들을 더 많이 묶어세우는 문제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총련조직건설의 기본요구일뿐아니라 총련의 대중적지반을 허물려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교묘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현실정에서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섭니다.

우리는 5개월애국혁신운동기간 군중전취사업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내외원쑤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대중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공화국과 총련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더욱 자랑차게 맞이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동포들, 상공인들과의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상교양사업과 결부하여 그들의 권익과 실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듦으로써 동포들이 총련조직을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품으로 굳게 믿고 진심으로 따르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내외반동들이 꾸민 모략사건을 계기로 재일동포들과 상공인들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박해가 날로 더욱 심해지고있는 복잡한 환경속에서 재일동포들의 진정한 권익옹호단체인 총련조직에 대한 우리 동포들의 기대는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총련의 모든 조직들은 애국혁신운동기간 동포들, 상공인들에게 애국사업의 주인된 자각을 더욱 높여줌과 함께 그들의 생활상, 기업경영상 요구와 고민을 일상적으로 알아내고 성심성의로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의 기업옹호와 기업방조, 세금문제, 자녀교양, 자녀결혼을 비롯한 길흉사문제, 취직, 자격취득 문제, 년금, 보험 등의 사회보장문제, 교통사고, 상속, 국적 등 법률문제 등 동포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공회, 조신, 금강보험들을 비롯한 산하단체, 사업체와 힘을 합쳐 제때에 원만히 해결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총련본부들에서는 6월달안으로 《동포생활상담소》, 《이동동포생활상담소》 등을 반드시 내오며 본부와 지부들에서 《생활상담의 날》, 《경영상담의 날》, 《건강진단의 날》도 정하여 실속있게 운영함으로써 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당국은 새로운 《대형간접세》의 도입을 획책하고있을뿐아니라 《풍속영업법》을 악용하여 우리 동포상공인들의 기업활동을 악랄하게 방해해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당국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동포상공인들의 기업을 옹호하기 위한 사업에 전기관적인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조직들에서는 동포들에 대한 내외반동들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사소한것이라도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이른바 《개정등록법》이 시행되는바 우리는 이를 계기로 《등록법》의 시정요구투쟁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포대중이 공화국과 총련조직을 굳게 믿고 단결하여 나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5개월애국혁신운동기간에 관하동포들을 정확히 장악하고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확대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총련 각급 기관과 분회들, 산하단체들에서는 국경절을 앞두고 《조선사람되찾기운동》, 《동포전호방문운동》을 종래의 10만호방문운동보다 더 큰 규모로 거듭 강력히 짜고들어 총련동포들을 다지며 새로운 대상동포들을 적극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부는 물론 지부와 분회들에서 각계각층 동포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각종 문예소조와 체육소조, 로인들을 위한 장수회,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동창회, 조신후원회, 어머니회와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각종 교실, 야유회, 운동회 등 동포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민족적뉴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9월～10월에 모든 본부에서 조직하게 되는 공화국창건 40돐축하 동포대야유회에 총련동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을 최대한 망라하여야 하겠습니다.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교육회, 조신, 사협, 과협, 의협, 문예동, 체협, 류학동, 금강보험 등 총련의 모든 산하단체들과 사업체들도 자체 조직의 대렬을 크게 늘이고 총련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공고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상공단체에서는 6월에 큰 규모로 가지게 되는 재일조선젊은상공인중앙모임을 계기로 젊은 상공인들을 더 많이 묶어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동포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확대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학교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힘쓸뿐아니라 학교운영사업을 개선하며 학생대렬을 늘이는 사업에 지난해보다 더 큰 힘을 넣어 명년도 새학기 학생 및 유치반원아 인입목표를 기한전에 넘쳐달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련조직에 더 많은 동포들을 묶어세우고 그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오직 공화국과 총련조직에 굳게 뭉쳐나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단결된 위력을 크게 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벌리는 5개월애국혁신운동은 그 목적과 내세운 애국과업으로 보나 운동기간에 예견되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으로 보나 일찌기 없었던 아름차고 보람찬 력사적인 전진운동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공화국의 기치따라 걸어온 애국의 한길에서 꾸려놓은 총련의 애국력량을 총동원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고 애국혁신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차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이 승리적으로 조직전개되면 우리는 더없이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애국적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크게 떨치게 될것이며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비약과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총련의 모든 조직들에서는 이번 5개월애국혁신운동의 높은 요구성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강력히 짜고들어 애국혁신운동[illegible]하루를 새로운 전진, 새로[illegible] 나날로 자랑스럽게 장식해나가야[illegible]습니다.

우리는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3단계로 나누어 5월부터 6월말까지의 기간을 제1단계로, 7월부터 8월 20일까지를 제2단계로, 마지막 제3단계를 8월 21일부터 9월말까지로 정하고 혁신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게 됩니다.

제1단계에서는 애국혁신운동에 대한 사상동원을 잘하고 모든 조직들에서 집행계획을 정확히 세워 일군들이 동포들속에 일제히 들어가 집중전을 벌려 긍정을 수많이 창조하고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내세운 사업목표 수행에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제2단계에서는 전면적혁신을 일으켜 애국혁신운동기간의 모든 애국과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단계인 제3단계에서는 미진된 사업에 힘을 넣어 모든 사업목표를 넘쳐수행하며 공화국창건 40돐을 경축하는 각종 기념행사들을 전동포적으로 성대히 조직하고 뜻깊은 국경절을 빛나게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애국혁신운동을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일군들이 높은 사상적각오와 혁명적기백으로 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서 투쟁하는것입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공화국창건 40돐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불타는 충성심과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모두가 애국혁신운동의 기수, 혁신의 창조자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의 성과여부는 우리 일군들이 지휘성원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한 의지로 어떻게 애국혁신운동을 완강하게 밀고나가는가, 다시말하여 우리 일군들이 어떤 사상관점, 사업기풍, 일본새로 사업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지난 시기 혁신운동의 경험을 보면 우리 일군들이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굳게 합심하여 사업에 투신하며 언제나 패기있게 투쟁한 단위에서는 례외없이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그러지 못한 단위에서는 제자리걸음이나 하고 전반사업발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일심단결하여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애국혁신운동을 왕성한 기세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과 규률을 확고히 세우고 패배주의, 현실추종주의, 권태증, 소극과 보수 등 온갖 낡은 사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며 언제나 정열에 넘쳐 2배, 3배 일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일군들은 내외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지고있는것을 똑똑히 알고 항상 경각성있게 대처하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사업해나가야 하겠습니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고리는 모든 일군들이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동포들이 살며 일하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이 운동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있습니다.

애국혁신운동기간에 전체 일군들이 깊이 명심하고 높이 들어야 할 구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라는 구호이며 일군들이 사업해야 할 초소는 혁신운동이 벌어지는 현장, 바로 분회입니다.

전체 일군들은 동포들과 분회에 들어가 사업하는것을 애국혁신운동의 제1차적요구로 간주하고 첫째도 둘째도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련중앙과 본부, 지부는 물론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조신, 금강보험 등 단체와 사업체의 일군들 모두가 동포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하는 제도와 규률을 강하게 세워 그를 철저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애국혁신운동기간에 분회담당소조사업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이 체계에 따라 모든 일군들이 구체적인 임무와 분공을 맡아 동포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부와 지부 단위로 장기와 단기로 분회집중방조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우리 일군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벌리는데서 또 한 중요한 문제는 이 운동이 철두철미 동포대중자신의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하는것입니다.

동포대중의 애국적열성과 힘을 크게 발동시키지 않고 몇명의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의 테두리에서 사업한다면 애국혁신운동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이번 애국혁신운동기간에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는 언제나 동포대중들, 젊은 동포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과 의논하고 해결방도를 찾으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백방으로 조직발동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녀로소할것없이 전체 동포들이 공화국공민된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총련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분회에서 주는 한가지이상의 분공을 맡아 애국혁신운동에 떨쳐나서며 고마운 어머니조국인 공화국 창건 40돐을 자랑차게 맞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단체, 사업체들도 자기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을 최대한 조직동원하여 애국혁신운동에 모두가 주인답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 각급 조직들은 애국혁신운동정형을 제때에 장악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이 운동을 군중적으로 계속 힘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지금 총련의 기층조직들에서 벌리고있는《애국영예기쟁취운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그와 밀접히 결부시켜 통일적으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들은 6월에 총련본부단위로 진행되는 분회열성자모임을 잘 조직하여 창조된 사업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고《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총련사업을 대중적앙양에로 이끌어나가며 이르는곳마다에서 긍정과 모범, 혁신적성과가 수많이 창조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앞에 제기된 과업은 방대하지만 그것은 더없이 보람차고 영예로운 애국과업입니다.

총련의 각급 기관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200일전투의 대진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조국인민들과 같은 투지, 같은 기백으로《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전동포적으로 힘차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사업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백전백승의 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승리에 대한 신심도 드높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분렬책동을 분쇄하고 북남 련석회의와 학생회담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4.19인민봉기 28주년, 재일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진행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참가자들

《북남 련석회의와 학생회담을 기어이 실현시키자!》

《민족화해의 기수가 되고 통일운동의 주역이 되자!》

대회장 량편에 나붙은 횡단막, 울려퍼지는 구호소리.

4월 19일 저녁, 도꾜 일본교육회관에서 진행된 4.19인민봉기 28주년, 미제와 로태우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소동과 분렬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는 대회장을 꽉 메운 1천명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의로 들끓었다.

총련중앙 오형진조직국장과 조청중앙 김학수위원장이 청년학생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4.19인민봉기로부터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으나 통일된 강토에서 전체 인민이 함께 살려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념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평화제안을 외면하고 대규모적인《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한편 《민주화》란 허울좋은 간판밑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으니 재일조선청년들의 민족적 분격은 치달아오르기만 한다.

청년학생들의 분격의 목소리가 차넘치는 속에서 먼저 조청중앙 김학수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4.19인민봉기의 나날에, 또한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의 나날에 피끓는 청춘과 생명을 바친 모든 용사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해방후 40여년동안 남쪽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전체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견결히 단죄규탄하였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비롯한 갖은 모략적수단으로 저들의 더러운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는 로태우괴뢰역도의 범죄적행위를 폭로규탄하면서 보고자는 민주화의 허울좋은 간판아래 파쑈와 전쟁, 매국과 분렬을 일삼고있는 로태우악당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규탄단죄하였다.

보고자는 끝으로 반미자주화투쟁을 반독재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반미반파쑈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갖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열어놓기 위한 그들의 북남학생회담제안을 비롯한 평화통일제안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일조중앙청년련대위원회 대표위원이며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 사노 아끼라청년국장, 일본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이또 마사아끼부위원장이 래빈연설을 하였다.

다음으로 조청조대위원회 주상초청년, 조청가나가와조고위원회 리은숙청년, 류학동간또 문웅삼청년, 조청산따마 량의일청년들이 성토하였다.

성토자들은 일치하게 미제와 로태우도당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과 평화를 짓밟고 인민들을 탄압하는 파쑈적폭압을 폭로규탄하면서 평화통일실현에로 줄달음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에 발맞추어 북남련석회의를 실현시키며 통일세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청춘정열을 다해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본대회명의로 채택됐다.

이날 대회시작에 앞서 《모략 ―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이 상영되였다.

각지에서도

18일, 조청 오사까부본부가 총련 이꾸노서지부 사무소 강당에서 350여명 청년학생들의 참가밑에 대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조청 히로시마현본부와 조청 후꾸오까현본부에서, 19일에는 조청 기후현본부에서 4.19인민봉기 28주년대회가 진행되였다.

평양에서는 기념보고회

【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남조선인민들의 4.19봉기 28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18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렴태준의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는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생활을 요구하여 일떠선 대중적인 반미반파쑈구국항쟁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오랜 주구 리승만괴뢰정권을 꺼꾸러뜨린 4월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투쟁에서 얻은 교훈은 옳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려야 하며 미제에게 투쟁의 예봉을 돌려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세울 때까지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악랄한 파쑈통치에 매달리는 한편 범죄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그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그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투쟁리념으로 하여 련공통일운동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파쑈도당의 방해책동을 분쇄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기한 북남학생회담의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통사람》의 미명하에 감행되는 로태우의 새로운 부정축재

친동생 로재우를 시켜 《서울항공》 리권을 독점

부정자금념출은 군부독재유지의 필연적귀결

로태우역도는 예견한대로 《새마을의혹사건》을 전경환개인의 《비리사건》으로 《한정》처리하고 권력형부정부패의 진상을 가리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내외여론의 진상규명압력앞에 마지못해 전경환을 《체포》하였으나 82년의 《대금융부정사건(일명 장령자어음사기사건)》때와 같이 하수인으로 《체포》한 전두환의 처숙부 리규광(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처럼 1년후엔 《병보석》으로 《석방》시키는것이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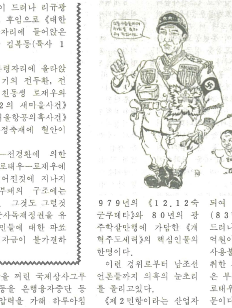
《새마을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로태우는 전두환과 달리 《비리》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들을 류포시키고있다.

로태우가 괴뢰내무부장관시기에 이 단체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감싸주었던 사실이 남조선신문들에서도 지적되고있다.

《대금융부정사건》이 드러나 리규광이 《체포》당한후 그 후임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자리에 들어앉은것도 로태우의 처남 김복동(륙사 11기)이란자이다.

로태우는 괴뢰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바람으로 지난 시기의 전두환, 전경환형제와 똑같이 친동생 로재우와 짝을 이루면서 《제2의 새마을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서울항공의혹사건》이란 새 형태의 부정축재에 혈안이 되고있다.

말하자면 전두환—전경환에 의한 엄청난 부정부패가 로태우—로재우에 의해 부정축재에 이어진것에 지나지 않으며 권력형부정부패의 구조에는 아무런 다름이 없다. 그것도 그럴것이다. 반인민적인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에 대한 파쑈탄압과 엄청난 부정자금이 불가결하기때문이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발행하는 《말》 21호에 전재)
군사파쑈분자 로태우를 풍자한 만화(남조선의

《서울항공의혹사건》은 본지가 처음으로 폭로(3월 29일부)함으로써 드러난것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로태우역적이 새로 취항을 허용한 제2민간항공기업선정과정에서 제놈의 친동생 로재우가 고문직을 맡고있는 중견매판기업체인 금호그루빠에 리권을 넘겨줌으로써 새로운 권력형부정축재의 자금원으로 삼으려고 하고있는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난 2월 12일에 괴뢰교통부는 제2민간항공기업에 금호그루빠(회장 박성용, 본사 서울)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 그루빠는 항공기회사명칭을 《서울항공》이라고 이름지어 올해 12월부터 서울—부산, 서울—광주의 2개 로선을 취항시키기로 하고있으며 국제항공로선도 시급히 취항시키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있다.

금호그루빠선정에서의 표면상의 리유에 대해 괴뢰교통부는 ①초대형재벌그루빠는 처음부터 배제했다 ②제2민항설립방침결정후 면허인가신청을 한것은 금호그루빠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작년 9월에 괴뢰정부는 제2민항설립방침을 결정하고 허가신청을 허용했다고 하고있으나 이 방침자체가 다른 매판재벌에는 알리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되고있었으며 유독 금호그루빠에만 그 사실이 알려진것이다. 따라서 금호그루빠만이 허가신청을 할수가 있었는바 이는 로태우—로재우가 한짝이 되여 처음부터 이 기업을 선정하는것을 결정해놓고있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새마을의혹사건》과 관련해서도 전경환이 《청와대》에 헌금을 꺼린 국제상사그루빠 등을 은행융자중단 등의 압력을 가해 하루아침에 도산케 하여 《한일합성》에 산하기업을 넘겨주기도 하였다. 이는 전두환역적의 독재권력을 배경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일뿐아니라 그자체가 바로 전두환의 《의도》였던것이다. 다만 전경환은 괴뢰대통령인 전두환이 못한 일을 대행해서 집행한따름이다.

이번 비리는 이러한 《리권》나누어먹기를 전두환—전경환라인으로부터 로태우—로재우라인으로 바꾸어놓은데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더구나 원래 이 허가를 내릴 자리인 괴뢰교통부의 장관 차규헌이란자가 전두환, 로태우와 한짝이 되여 권력의 일익을 담당하는 군사무리의 한놈이다.

륙사 8기출신인 이자는 전두환, 로태우와 함께 1979년의 《12.12숙군쿠테타》와 80년의 광주학살만행에 가담한 《개혁주도세력》의 핵심인물의 한명이다.

이런 경위로부터 남조선언론들까지 의혹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제2민항이라는 산업자체적인 측면보다 정치적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련합통신》 2월 13일발), 《공식발표하기전에 비공식적인 당정협의를 거쳐 전두환대통령과 로태우차기대통령의 내인가를 받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주간조선》 2월 28일호), 《업체선정 등 설득력 없어》(《대구매일신문》 2월 13일부)라고 지적하고있다.

전두환과 로태우는 이미 《새마을의혹사건》이 드러나는것을 예견하고 추궁의 초점이 전두환에게 직접 돌려지지 않도록 로태우가 압력을 가할것 등을 이미 《합의》보았다고 하는 《밀약설》이 나돌고있다.

왜냐 하면 추궁의 초점이 전두환에게로 직접 돌려질 경우 그자와 한짝이 되여 《삼보증권부정사건》(83년 봄에 일부 사실이 드러나게 되였는데 197억원이라는 《삼보증권》의 사용불명금을 로태우가 횡취한 의혹이 짙다.) 등 갖은 부정축재를 일삼고있는 로태우도 무사하지 않기때문이다. 의혹의 진상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면 《리익공동체》로서의 군부독재정권의 붕괴를 초래케 하는 일대 위기로 번질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로태우, 전두환일당은 진상은폐에 혈안이 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로태우—로재우에 의한 새형의 부정축재사건 《서울항공의혹사건》은 《제2의 새마을사건》에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일대 정치의혹사건이다.

남조선단신

미 군 사 령 관 또다시 전쟁망발

남조선강점미군 사령관 메니트리란자가 9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간의 《군사협력관계는 긴요》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개최》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것이라고 떠벌였다.

이 호전광놈은 이날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고있는 침략군놈들의 《위로연회》를 벌린 자리에서 이와 같이 줴쳤다.

이것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드러내놓은 침략자의 망발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북침을 노린 대규모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다그쳐지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놈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미제는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견결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전쟁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천백배의 보복적타격을 면치 못하리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할것이다.

일본건설업체들 리윤 1천여억원을 짜내

일본의 50여개 건설업체들이 남조선에서 지난 23년동안 1,000억원이상의 리윤을 짜냈다.

일본건설업체들은 괴뢰도당과 매판자본가들을 내세워 60여건의 공사계약을 맺고 이렇듯 막대한 리윤을 짜내여 저들의 나라로 가져간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이 일본의 수탈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도당은 무역과 공업은 물론 건설부문에 이르기까지 일본독점자본에 개방하여 예속시킴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폭압 획책

괴뢰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8일 《국회의원선거》일공고에 즈음한 《담화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담화문》에서 이자들은 그 무슨 《공명선거》를 운운하면서 이를 해치거나 《사회혼란을 유발》시키는데 대해서는 《엄단》하라느니 뭐니 하고 올러댔다.

괴뢰법무부에서는 이에 앞서 남조선전역의 《검사장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단속대책》에 대해 떠들어댄바 있다.

괴뢰들이 《회의》요 《담화》요 하면서 련속 폭압기도를 드러내고있는것은 로태우군사불한당이 오는 26일에 벌리게 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또다시 관권과 폭력에 의한 부정협잡으로 《민정당후보》들의 《당선》을 날조해내려 하고있음을 폭로해주고있다.

《민정당》패거리들 《국회의원당선》 날조하려고 책동

괴뢰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정당》패거리들의 《당선》날조를 위한 협잡행위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다.

대전에서 출마하기로 되여있는 《민정당》깡패는 득표공작의 일환으로 제놈의 고향으로부터 주민 600여명을 대전으로 이주시켜놓았으며 전라북도에서 출마하기로 된 《민정당》패거리는 자기의 회사직원들을 《위장전입》시키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안양 갑구에서 출마하기로 된 《민정당》의 김 아무개란자는 《선거》돌격대로 써먹을 사람들을 근 50명이나 자기 집에 데려다 대기시켜놓았다.

《국회의원당선》날조를 위한 《민정당》패거리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동사무소》는 물론 《면사무소》의 행정기능도 수라장이 되고있다고 한다.

재일본조선인도꾜도나까스기상공회 상임고문인

고광삼동지가 세상을 떠났다

재일본조선인도꾜도나까스기상공회 상임고문인 고광삼동지가 18일 오전 5시 54분, 간장암으로 인해 64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고광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 옹호사업,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 헌신해왔다.

그는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총련 나까노지부 부위원장으로, 1960년 3월부터 도꾜제9초급교육회 상임, 도꾜중고교육회 상임, 도꾜제1초중교육회 총무부장으로, 1964년 6월부터 총련 나까노지부 부위원장으로, 1966년 7월부터 총련 나까스기지부 부위원장으로, 1969년 5월부터 도꾜제9초급교육회에서 부회장, 회장, 고문으로 사업하였으며 1981년 5월부터는 나까스기상공회 리사장, 부회장, 상임고문을 력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생전에 그에게 국기훈장 제2급(2번), 제3급(2번), 공화국창건35돐기념메달을 수여해주시였다.

고 고광삼동지의 고별식은 20일 총련지부장으로 스기나미구 고엔지의 쬬류지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올림픽경기를 전쟁의 제물로 삼으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올림픽경기를 전쟁도발의 방편으로 삼으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10일 보도 제459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4월 7일 일본주둔미군 사령관 제임스 데이비스는 도꾜에 있는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가진 회견에서 《서울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위하여 주일미군을 《임의의 시각》에 남조선에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떠들었다.

이자는 그 누구의 《올림픽방해》에 대처하여 주일미군은 《긴급즉응태세》를 갖추고있다고 떠들면서 남조선《정부》가 《요청》하면 《주일미 해군, 공군을 즉시 출동》시키며 필리핀주둔미군의 《파견도 가능하다》고 줴쳤다.

이것은 평화와 친선, 단결의 제전인 올림픽을 기어이 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미제의 범죄적기도를 더욱 명백히 드러내놓은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올림픽을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위한 리용물로 삼으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평화와 올림픽운동리념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로, 올해에 조선반도정세를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있는 우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로 인정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미제는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발광하고있는 저들의 책동이 마치도 그 누구의 《올림픽방해》때문에 필요한것처럼 떠들고있으나 그것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식민지통치에 위기가 조성되는 경우 침략전쟁을 도발하고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올림픽경기를 전쟁의 제물로 삼으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미제는 우리를 반대하는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책동을 그만두고 침략군대와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제二八기정기총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朝銀山口信用組合

제二四기정기총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滋賀朝鮮信用組合

제三三기정기총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宮城朝鮮信用組合

제二六기정기총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和歌山朝鮮信用組合

제三一기정기총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朝銀埼玉信用組合

제二五기정기총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新潟朝鮮信用組合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22일 (음력 3월 7일) 금요일 【루계 제10189호】

昭和27年1月1日第三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민족의 태양이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이시여,

오늘 우리들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4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거창한 대건설전투가 벌어지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를 가지였습니다.

회의에 모인 우리들은 조국땅우에 세기적 변혁과 창조, 영웅적 위훈과 기적을 수놓아온 공화국의 40년의 력사와 공화국의 기치밑에 내외원쑤들의 온갖 파괴모략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치면서 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총련의 투쟁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끓어넘치고있습니다.

회의에서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벌리고있는 장엄한 200일전투에 발맞추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충성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릴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나가시는 우리 공화국은 해내외의 모든 우리 인민들의 진정한 조국이며 재일동포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리게 하여주는 희망의 등대이며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품입니다.

지난날 망국노의 원한이 사무쳤던 가슴가슴에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민족적존엄과 높은 영예를 안고 살게 된 재일동포들은 자기의 오랜 생활체험을 통하여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오늘의 행복과 값높은 삶도, 앞날의 희망도 오직 조국의 륭성번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는것을 심장깊이 간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기치따라 조국인민들과 언제나 한대오에서 조국을 견결히 수호하며 주체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나아가는것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불굴의 의지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 밑에 애국의 한길에서 쌓아올린 총련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힘을 5개월애국혁신운동에 총동원함으로써 9월의 뜻깊은 국경절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충성의 축전, 승리자의 명절로 빛내일 불같은 결의로 가득차있습니다.

혁신운동기간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 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이라는 충성의 신념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공화국의 공민된 애국적기풍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며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전동포적인 애국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발전하는 조국통일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통일구국의 기치밑에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들을 더욱 광범히 묶어세워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며 남조선에서 식민지군사파쑈체제의 유지와 《두개 조선》조작을 노리는 미제와 괴뢰도당의 음모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고 공화국이 제기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벌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의 길을 헤쳐온 공화국의 빛나는 건설성과와 유일정당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 방침과 방안들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우리 인민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이 더욱 광범히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운동기간에 우리들은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상공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더 광범한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시키며 총련조직을 존엄있고 위력있는 주체형의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믿음직하게 꾸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들을 옳바른 애국의 길로 이끌며 그들의 생활과 권리를 성심성의로 지킴으로써 총련에 대한 내외반동들의 파괴와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더한층 확대공고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총련애국대오의 불패의 힘과 애국적기개를 다시한번 자랑스럽게 떨치고 9월의 국경절을 크나큰 민족적경사의 날로, 총련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의 앞길을 열어놓는 자랑찬 리정표로 뜻깊게 맞이하겠습니다.

회의에 모인 우리들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불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조국의 통일과 무궁한 륭성번영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

1988년 4월 21일 일본 도꾜

5개월애국혁신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호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가 끝났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가 21일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날회의에 이어 많은 중앙위원들이 의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는 애국사업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것은 사회주의조국의 위용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누리에 떨치는것으로 되며 남조선인민들과 해외교포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내외원쑤들에게는 더 큰 타격으로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5월부터 9월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릴데 대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제기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여느때없이 악랄하게 감행된 내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맞받아 한걸음도 물러섬이 없이 대내외정치선전사업과 군중투쟁, 언론전을 줄기차게 벌려 그를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사회주의조국과 총련조직을 견결히 옹호보위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사실은 그 어떤 모략책동도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의 억센 의지와 단결된 힘을 깨뜨릴수 없으며 우리의 정의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시위한것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5개월애국혁신운동기간에 조국을 사랑하고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업,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확대공고화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올해 6가지 주력과업과 8가지 주요목표를 모두 넘쳐달성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애국혁신운동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사상관점, 사업기풍, 일본새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지적하면서 혁명적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일심단결하여 왕성한 기세로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특히 첫째도 둘째도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이 운동을 동포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벌려나가도록 하겠다고 결의다지였다.

회의에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는 애국사업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와 총련중앙위원회 호소문(호소문 전문은 2면)을 전원일치로 회의결정으로 채택하였다.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이틀간에 걸친 회의의 맺음을 하였다.

한덕수의장은 먼저 토론들을 통하여 총련의 각급 기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 실로 많은 사업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찾은 귀중한 교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면에 이음

제3차깅끼부인주체사상연구집회 진행

각계각층 일본녀성들 150여명이 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76돐을 열렬히 축하하여 지난 4월중순 제3차깅끼부인주체사상연구집회가 교또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깅끼지방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적극 따라배우고있는 각계각층 일본녀성들 150여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집회에서는 먼저 주최자측 대표연설과 래빈연설이 있었다.

이어 사이다마대학 가마구라 다까오교수가 《우리들의 생활과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자는 얼마전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서 진행된 제10차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한 감상과 심화되는 현대세계의 위기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간적 경제와 사회의 창조 등의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강연에 이어 오사까, 와까야마, 교또, 효고 대표들의 리론실천보고가 있었다.

집회에서는 마지막으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을 폭로규탄하는 특별결의가 채택되였다.



교또에서 진행된 제3차깅끼부인주체사상연구집회



남성독창 《경사스러운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

【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지난 7일 평양에서 개막된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18일 폐막되였다.

이날 2.8문화회관에서 폐막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 총리인 리근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정무원 부총리인 축전준비위원회 위원장 정준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 책임비서 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강희원 등과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감사편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감사편지가 채택되였다.

모임에서는 여러 나라 예술단체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모임에서는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예술부 장철부장이 폐막사를 하였다.

모임끝에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공연이 있었다.

(관련기사 4면)

모두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5개월애국혁신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총련일군들과 동포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4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습니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끝없는 열정으로 받아안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에 총궐기하고있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도 조국인민들의 거창한 대건설전투에 고무되면서 올해의 영예로운 애국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이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을 조작하고 미친듯이 감행해나선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서 원쑤들에 …

이처럼 뜻깊고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창건 40돐을 앞두고 우리 어찌 가만히 있을수 있겠습니까.

공화국의 창건 40돐을 끝없이 빛내이며 총련사업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여 공화국공민의 영예와 기개를 세상에 떨치는것은 우리모두의 신성한 의무이며 본분이며 한결같은 지향입니다.

총련중앙위원회는 다가오는 국경절을 앞두고 5월부터 9월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5개월애국혁신운동(략칭 —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전동포적으로 힘차게 벌릴것을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히 호소합니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의 목적은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이 애국적열의와 힘을 높이 발양하여 올해 6가지 주력과업과 …

… 포들 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며 애국혁신운동의 앞장에 섭시다.

총련일군들과 동포 여러분!

5개월애국혁신운동기간에 무엇보다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조국의 륭성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전동포적으로 보다 힘있게 벌립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 공화국의 영광과 투쟁의 40년 력사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에 대하여 더욱 깊이 배우고 알도록 합시다.

내외원쑤들은 참으로 간악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화국을 헐뜯으려는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기 위 …

[illegible]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

1988년 4월 21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4월남북련석회의 40돐 — 중 —

사상, 리념 초월하여 민족 단합을 이룩한 빛나는 본보기

[illegible]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가 끝났다

(1면에서 이음)

[illegible]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실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40돐기념 연구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illegible]

판문점에서 뜨거운 손 잡자!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제안에 접하여—

문 희 철

[illegible]

(조선대학교 문학부 학생)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김홍곤씨와의 회견기

[illegible]

온 민족의 총의 반영한 회의

[illegible]

40년전 민족대단합의 그 정신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illegible]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시위

[illegible]

력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구국을 위하여 함께 싸울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크게 과시한 민족적대사였던것이다.

절실한 북남련석회의 소집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최대과업인 조국통일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그간 김홍곤씨는 조국해 …



때문에 현시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제일 긴요한 문제는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가 하루빨리 실현되는 문제인 …

[illegible]

재일본조선인골프협회 제4차리사회가 있었다

중앙대회조직 등 문제를 토의

[illegible]

일조우호보링대회

교또 마이즈루에서

[illegible]

(교또지국)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자주시대의 지향을 반영한 참다운 예술

만수축원의 마음 흘러넘치는 무대

예술인들의 련환공연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교예배우들의 련환공연이 13일 평양시내 여러 극장들에서 진행되였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조별공연에서 평가된 음악, 무용, 기악종목들과 교예종목들이 련환공연무대들에 올랐다.

공연무대들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 그이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축원의 마음을 담은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며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의 정을 뜨겁게 형상한 작품들도 무대들에 올랐다.

출연자들은 우리 나라 노래들을 잘 형상하였으며 자기 나라 인민들의 고유한 민족적 생활풍습과 정서를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국제교예축전과 요술축전에서 입상한 우수한 《공중교예》와 요술 등 종목들도 관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공연들이 끝난 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출연자들에게 보내시는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부주석들인 박성철동지, 리종옥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정무원 부총리인 축전준비위원회 위원장 정준기동지 그리고 기타 간부들이 련환공연들을 관람하였다.



재일조선인예술단의 녀성고음독창 《수령님 사랑속에 우리 행복 꽃피네》

명배우들의 세련된 기교
국제콩클수상자들의 공연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있는 국제콩클수상자들과 명배우들의 공연이 12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있었다.

공연에는 이번 축전무대를 통하여 관중들의 호평과 절찬을 받은 국제콩클수상자들과 인민배우를 비롯한 이름있는 독창가수, 연주가, 무용가들이 출연하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중국,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벌가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몽골, 프랑스, 뻬루 그리고 총련에서 온 명배우들이 출연하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예술부 장철부장,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과 시내 근로자들, 예술인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뻬루의 이름있는 남성독창가수인 라울 루나 빌룬은 《내나라》를, 벌가리아예술단은 목관5중주 《조선은 하나다》를 훌륭히 재현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남성독창가수 베른드 리텔은 우리 나라 노래 《사향가》를 잘 불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명배우들은 자기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풍습과 고상한 정신세계,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모습을 민족적색채가 짙게 잘 형상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리였다.

중국중앙악단 포혜교의 피아노독주와 벌가리아예술단의 가수인 스또얀 뽀뽀브의 저음독창 《두비누슈까》, 조선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몽골예술단의 쯔. 푸레브도르지의 저음독창 《아름다운 몽골이여》, 벌가리아예술단의 아르쎄니 아르쏘브의 고음독창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중에서 《렌스끼의 아리아》, 프랑스음악단의 디디에 앙리의 독창 가극 《카르멘》중에서 《에스까미오의 아리아》 등 여러 나라 명배우들은 국제콩클들과 외국방문 및 국내경연무대들에서 관중들의 호평을 받은 세련된 종목들과 우리 나라 노래 종목들로 공연무대를 더욱 풍만하게 하였다.

공연무대에 오른 명배우들의 작품중에서 관중들을 매혹시킨 종목의 하나는 국제발레축전수상자이며 몽골예술단의 인민배우인 유. 오윤과 즈. 남난바야르가 출연한 2인발레 가극 《돈 키호테》중에서 《빠데데》였다.

특히 재일조선인예술단 공훈배우인 엄국지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노래 《닐리리》와 《아리랑련곡》을 흥취나는 장단에 맞추어 민족적색채가 짙게 형상하여 관중들에게 커다란 인상을 남기였다.



쏘련국립옴쓰크로씨야인민합창단의 무용 《마부춤》

《조선의 예술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예술》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반향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축전인상을 발표하였다.

마다가스까르혁명적문화예술성 과장인 랄라 이나리브 노엘 하르베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의 존함은 오늘 자주시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운명과 뗄수 없이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눈부신 발전모습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인도예술단 단장 모한 우프레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예술축전에 여러번 참가하였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처럼 사상예술성에 있어서나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이렇듯 규모가 큰 세계적인 축전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예술전문가로서 이번에 예술공연들을 관람하고 조선의 예술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참다운 예술이라는것을 더 잘 알게 되였다.

유네스코대표 떼레싸 안나 와그네르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사이의 문화적 련계와 협조를 더욱 촉진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성대한 국제예술축전이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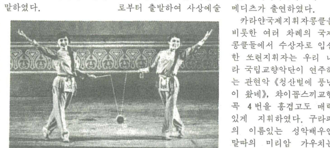
그러면서 그는 유네스코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예술성이 높고 규모가 큰 평양예술축전을 적극 장려하며 그의 성과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파키스탄의 독창가수 알림 기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해마다 평양에 와서 축하의 노래를 부르게 된것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터쳐놓치 않고서는 가수로서의 격동된 심정을 진정할수 없기때문이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인간애를 지니고계시는 그이를 칭송하여 노래를 부르는것은 우리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평화애호적인 나라 조선에서 진행되는 예술축전무대에서 칭송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것은 우리 예술인들의 크나큰 영광이다.



중국교예단의 《죽롱재주》

훌륭한 예술적재능 발휘

참가자들의 음악회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의 음악회가 12일 모란봉극장에서 있었다.

음악회에는 시내 근로자들, 음악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음악회에서는 쏘련지휘자 니꼴라이 알렉씨예브, 말따독창가 미리암 가우치, 오지리지휘자 게르트 메디츠가 출연하였다.

카라얀국제지휘자콩클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국제콩클들에서 수상자로 입선한 쏘련지휘자는 우리 나라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챠이꼽스끼교향곡 4번을 홍겹고도 매력있게 지휘하였다. 구라파의 이름있는 성악배우인 말따의 미리암 가우치는 독창 《나를 잊지 말아다오》를 풍부한 성량으로 잘 형상하였다.

특히 그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간절한 축원의 마음이 담긴 불멸의 꽃에 대한 노래 《김정일화》를 맑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정서깊게 잘 불러 참가자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였다.

국제콩클수상자이며 이름있는 음악가인 오지리지휘자는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관현악조선노래 《문경고개》와 베토벤교향곡 7번을 지휘하였다.

이날 출연자들은 자기들의 예술적 재능과 기교를 훌륭히 발휘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들이 전달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참가단체와 참가국

△참가단체

단마르크문잠예술단, 요르단음악가, 단마르크트빈드교원대학예술단, 파키스탄독창가, 꾸바아바나현악4중주단, 니까라과음악단, 베네수엘라독창가일행, 수단독창가일행, 알제리예술단, 오스트랄리아음악가, 유고슬라비아《에모나》류블랴나예술단, 프랑스음악단, 쏘련국립옴쓰크로씨야인민합창단, 몽골예술단, 웽그리아민족무용단, 뽈스까 와르샤와타악단, 이딸리아예술단, 스위스음악단, 벨지끄3중주단, 말따독창가일행, 메히꼬모노불랑꼬민족음악3중주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베를린경음악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뢰베현악4중주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독창가일행, 레바논음악단, 마다가스까르5중창단, 일본예술단, 벌가리아예술단, 에티오피아예술단, 수리아음악단, 영국음악단, 노르웨이독창가일행, 중국청해성가무단, 희랍예술단, 꽁고음악단, 뻬루예술단, 오지리예술단, 애급 레다무용단, 홍콩독창가, 탄자니아예술단, 인도예술단, 재일조선인예술단, 핀란드 삐빨로음악단, 로므니아와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예술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교예단, 스웨리예교예배우일행, 타이요술단, 평양교예단, 쏘련교예단, 웽그리아교예배우일행, 벌가리아교예배우, 스위스교예배우일행, 조선인민군협주단교예배우들, 중국교예단, 체스꼬슬로벤스꼬요술단, 꾸바교예단, 뽈스까교예배우일행, 몽골교예배우일행

△참가국

조선, 중국, 몽골, 홍콩, 일본, 타이, 인도, 레바논, 수리아, 요르단, 파키스탄, 쏘련, 뽈스까,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로므니아, 벌가리아, 유고슬라비아, 핀란드, 스웨리예, 단마르크, 오지리, 희랍, 노르웨이, 스위스, 말따, 영국, 벨지끄, 프랑스, 이딸리아, 애급, 에티오피아, 마다가스까르, 탄자니아, 꽁고, 알제리, 수단, 꾸바, 니까라과, 메히꼬, 베네수엘라, 뻬루, 오스트랄리아

(세계 5대륙의 45개 나라에서 온 70개의 예술단과 교예단, 해외동포 예술인들이 참가)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162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2番4号 朝鮮新報社
「日本語版」編集部
TEL 03 (260) 5881
内線 453・435
436・428

南朝鮮 総選挙、不正はや続出

「史上最大の堕落選挙」 マスコミも非難の声

八日に公示され、十六日には合同演説会が各地で行われた南朝鮮総選挙は、すでに「十当八落」（十億で当選、八億なら落選）といわれるほど官権、金権がはびこる不正選挙の様相を呈している。日用品や現金のプレゼント合戦、支持者を水増しするために他の選挙区から大挙住民登録を移させる偽装転入など、選挙違反は続出しており、「史上最悪の汚れた選挙」を懸念する声も出ている。



不正選挙の実態を大きく報じる南朝鮮のマスコミ（11日付東亜日報）

「割り当て票をつくり出せ」

さる八七年十二月十六日の「大統領」選挙が行われた直後、「東亜日報」が行った世論調査（各地の二千二百人を対象）によると、投票直前に金品を受けた人三七・六％、与党から直接接待攻勢を受けた人六五・四％、統班長の選挙運動を受けた人三六・六％にのぼった（十六日付東亜日報）。質問の性格からして、実質的にはこの数字をはるかに上回る不正があったことは疑いない。

地方によっては、投票前日に統班長を通じて一万～二万ウォンの現金が各世帯に配られた地域もあり、五千ウォンの洗剤が里長を通じてもれなく分配された地域もあった。

また官権の介入も露骨に行われ、選挙直前には全斗煥が各地の郡守（郡の行政責任者）や市長に直接電話をかけ、「どのような手段を使っても、すでに割り当てた盧泰愚候補の得票量をつくり出せ。後の責任は私が取る」などと不正を強要していた事実も、最近明らかにされた。

票集めに走る地方行政機関

昨年の「大統領」選挙で二兆ウォンもの巨費を使い、「堕落選挙」と非難を浴びた民正党は、今回の選挙でも官権、金権を総動員した不正を行っている。

南朝鮮には地方自治制度はなく、地方の役人はすべて「政府」の任命制。民正党はこうした南朝鮮行政組織の特性を選挙にフルに利用している。

民正党代表委員の蔡汶植は十五日、慶尚南道昌原市の昌原ホテルに、慶尚南道の行政担当者を呼び付け、「あなた方が今一歩努力してくれれば、与党候補に大きな助けとなる」「これから十日間、わが候補者の当選に向け全力を挙げてほしい」などと、官権の動員を露骨に強要した。

ちなみにこの会合には、慶尚南道の道知事、昌原市長など行政組織の幹部、文教関係者など、主だった面々が顔をそろえた。

その他にも、農水産部長官、建設部長官など、地方の利権にからむ担当長官らの地方出張も目立って増えている。

また各地では、邑、面、洞の長が直接与党候補の選挙運動を行ったり、統班長が自ら与党候補の"贈り物"を届けているケースも少なくない。

大邱市西区坪里などでは、民正党の鄭鎬溶候補がばらまいている三キロの砂糖袋やタオル、宣伝物を、統班長が直接戸別訪問を行って配っている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

最大の武器はカネ

与党が選挙の最大の武器にしているのはやはりカネだ。法定選挙費用は七千万ウォンから二億ウォン（選挙区によって異なる）となっているが、関係者の間では十億ウォン（約一億七千万円）が当選相場だという。

南朝鮮の休日である五日の「植木日」には、レジャー観光地に各地から観光バスが詰めかけ大混雑となった。

慶尚南道の釜谷温泉や、忠清北道の水安温泉に殺到した観光バスは、その多くは立候補予定者が費用を出した選挙用の観光団だった。

その他、ブランド物のライター、サイフ、ビール、高級傘などといった"贈り物攻勢"が白昼堂々と行われている。「最近は農村も高級化して、ビールに有名ブランドの運動靴でないと受け取らない」とボヤく与党候補もいると、南朝鮮マスコミは伝えている。

有権者の不法転入も各地で表面化しており、ソウル郊外安養市の民正党・金貞淑候補宅には、自宅のアパート所在地に選挙区外の住民四十九人の住民票を移転登録。記録上は二十六坪の家に候補の家族を含め五十二人が住んでいる形になった。

また大田では六百余人が不法転入していることが、野党の追及で明らかになっている。

一口世評 疑惑発覚の真相

全斗煥の実弟である全敬煥セマウル運動本部名誉会長が逮捕され、「国会議員選挙」を控えた南朝鮮では現在、セマウル疑惑が民衆とマスコミの注目の的になっている。

全斗煥は事件の責任を取って公職から退くことを表明した。

アメリカのある週刊誌は、全斗煥の政敵が全の政治生命を抹殺するために実弟の疑惑を東亜日報にリークしたと報じた（USニューズ&ワールド・レポート四月四日号）。

また、「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四月十三日付）は、盧泰愚は今回の事件を盧と全は違うのだということを印象付け、現「政権」は旧「政権」の不正にメスを入れることも恐れないのだということを大衆にアピールすることにより、四月二十六日の選挙が与党に有利になるよう利用していると指摘した。

確かに、盧が今回の事件を全の影響力を排除するために利用しているのは事実であろう。しかし、セマウル事件をただ単に盧が全との「違い」を印象付けるために利用した事件であり、すべて盧の計算通り事が進んでいると見るのは早計だ。

長い間の権力者たちの不正腐敗に憤慨した民衆やマスコミの思わぬ追撃に遭い守勢に回った盧が、すべての責任を全に転嫁し、あわよくば選挙で与党に有利になるように利用しようとしているとみるのが真実に近いのではないか。

盧自身も内務部長官当時の疑惑が指摘されており、セマウル事件を徹底解明しようとすれば当人にも捜査のメスが向けられる。こうした危険な賭けを盧自らが行うはずもない。

盧がいくら全との「違い」を強調したところで、光州事件での役割一つをとって見ても、所せん同じ穴のむじなだ。「違い」があるとすれば、あからさまな弾圧政治を行った全よりも、その手法が巧妙になったことだけのことであろう。

西側ジャーナリズムは、二月二十五日に発足した盧新「政権」を「前途多難」と表現したが、さしずめセマウル疑惑は新「政権」を揺るがす波乱要因の強力な第一弾となった。（南）

"フォーラム"に向けて一丸

'88大阪朝鮮青年商工人協議会幹事講習会
総会で新役員も選出



府下25地域、約140人の同胞商工人の参加のもとに開かれた幹事講習会

'88大阪府朝鮮青年商工人協議会幹事講習会が十六、十七の両日にかけてグランドホテル新東洋（大阪府高石市）で開かれ、府下二十五地域、約百四十人の同胞商工人が参加した。

初日の開講式では、まず大阪府協議会会長の呂光市氏があいさつに立ち、今回で八回目を迎えた講習会を意義深いものにし、六月の青年商工人フォーラムと九月の大阪府商工会結成四十周年記念大会を成功させよう、と呼びかけた。

つぎに大阪府商工会・高茂松理事長があいさつし、協議会活動の原点をもう一度見直し、役員・幹事たちはウリマル習得に力を入れ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開講式の後は生野、東大阪、中大阪、南大阪、北大阪の各ブロックに分かれて食事を共にしながらのディスカッションがもたれ、地域の特色や抱えている問題、展望などが話された。

二日目は午前九時から講演会が開かれ、大阪府商工会・文秉彦会長が「経営理念と青年商工人に対する提言」というテーマをもって演壇に立った。

文会長は、「まだ地域に埋もれている同胞たちを早く迎え入れることが幹事の役目である」「幹事たちは常に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共和国の海外公民としての誇りと自覚をもって、協議会活動と商売に尽力してほしい」と語った。

つぎに呂会長が事業報告を行った。

氏は報告の中で、昨年六月に府下二十三番目の協議会として「住吉協議会」が、また十一月には二十四番目の「東大阪東協議会」がそれぞれ発足し、現在では二十四の地域協議会と二百三十人の幹事、そして千五百余人の会員を網羅するまでになったと指摘した。

また、「大阪府協議会」はこれら地域協議会のけん引車的役割を果たし、多種多様な催しを企画して、地域同胞社会の発展のために大きく寄与してきたとしながら、各地域での活動内容と成果について述べた。

さらに、運動の先頭に立つ幹事たちは、自らの立場と役割を自覚し、それを一層高める一方、各地域協議会と密接な連絡をとり、ブロック別交流を盛んに展開する必要がある、と語った。

つづいて東同協議会会長・姜達来氏、坪協議会会長・朴成次氏、東大阪東協議会副会長・李昌国氏が討論し、さらに七人の役員・幹事たちが自由討論に参加、熱弁をふるった。

ブロック別ディスカッションのまとめには生野・朴哲勝氏（生野南協議会会長）、東大阪・李相民氏（東大阪北協議会副会長）、中大阪・李禎煥氏（河北協議会会長）、南大阪・金重喜氏（泉州協議会会長）、北大阪・尹徳政氏（西協議会会長）らが各ブロック別における地域性と活動の特徴、展望などについて報告した。

昼食をはさんで午後から総会が行われた。

総会では、第三代目の会長として金希祚氏、副会長に金永昌氏（事務局長兼任）、任玉鐘氏、呂有渕氏、そのほかに事務局七人が選出された。

新しく会長となった金希祚氏は、「会長という大変な重責を担うことになったが、協議会はみんなが主人公です。全員で力を合わせて、協議会を発展させていきたい」と、抱負を語った。

同協議会が結成されて今年で十年。その節目の今回の講習会で約五年ぶりに役員の交代が行われ、新たな船出となった。



2日目の総会で新しく選ばれた役員たちが紹介された

外登証不携帯に無罪判決
抜本改正運動に弾み —大阪—

さる十九日、大阪高等裁判所で、外国人登録法違反の「罪」に問われていた、琴尚一さん（26歳・大阪市東淀川区）に対する控訴審判決公判が開かれ、無罪が決定した。

裁判では、在日外国人に義務づけられている外国人登録証明書の常時携帯が、個人の尊重などを保障した日本国憲法に違反するかどうかが争点となった。

琴さんは、関西大学生だった一九八四年五月十二日の夜、外登証を持たずに同市東成区の路上でビラをはっていたところを警官の職務質問を受け、外登法違反の現行犯で逮捕された。

控訴審で琴さんは、登録証の携帯に神経を使わねばならず、日常生活で緊張を強いられている実態を指摘し、これが人格権など個人の尊重を保障した日本国憲法第十三条や、転居、旅行、日常の外出などの自由を保障した同二十二条に反していると主張してきた。

これに対し石田登良夫裁判長は、登録証の常時携帯義務は合憲としながらも、「学生証など他に身分を証明できるものを持っており、罰するほどの違法性はなかった」として、罰金八千円を言い渡した大阪・生野簡易裁判所の一審判決を破棄、逆転無罪の判決を言い渡した。

この判決は、不携帯を一律に罰している公安当局に対し、運用の慎重さを求めた司法判断となった。

だが焦点となっていた常時携帯義務の違憲問題については、「常時携帯義務は在日外国人にとって精神的な緊張を強いているが、社会通念上著しく過酷な要求ではなく、移動の自由や人格権などを侵害していない」として違憲主張を退けた。

「登録証の常時携帯制度について違憲判決が出なかったのは残念。しかし運用に一定の風穴を開けた判決は意味がある。制度に引き続き反対していきたい」と琴さんは語っている。

第2回朝鮮問題懇談会
北海道・札幌

全北海道労協と日朝連帯道民会議主催による「第二回朝鮮問題懇談会」が十五日、百余人の参加のもとに「KKR札幌」で行われた。

会議では、日朝連帯道民会議事務局次長が開会のあいさつをした後、総聯北海道本部・金重満副委員長が報告を行った。会議ではまた、KAL機事件と関連したビデオが上映された。

そして活発な意見交換がなされた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対する敵対的『制裁措置』とチーム・スピリット88に抗議し、即時中止を求める」と題した決議を採択した。

また同日、「KKR札幌」では、「日朝国際関係で踏まえたいこと」と題して、札幌学院大学・三好宏一教授の講演会も行われた。

今週の出来事

4・19蜂起28周年記念 平壌市報告会が開かる

十八日、南朝鮮人民の四・一九蜂起二十八周年記念平壌市報告会が行われ、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中央委員会の廉泰俊議長が記念報告を行った。議長は、南朝鮮人民の四月蜂起は民主主義的な新政治、新生活を要求して立ち上がった大衆的な反米・反ファッショ救国抗争であったと述べた。

また南朝鮮青年学生や人民は、独裁集団の妨害を粉砕し、ソウル大生たちが提起した南北学生会談の実現を目指し、最後まで闘うであろうと指摘した。

全斗煥に7項目の公開質問 金大中氏が記者懇談会で

十三日、平民党の金大中前総裁は全斗煥に光州事件と執権期間中の非理および、「一二・一六大統領選挙」不正などに関する七項目の公開質問を行った。

内蔵山観光ホテルで行われた記者懇談会で金氏は、①光州事件と関連し、盧泰愚「政権」が光州市民の抗争を「民主主義のための努力の一環」と発表しているが、全氏は自ら行った弾圧に対しどのように考え、責任をとろうとしているのか②当時「中央情報部」地下室に監禁され、事態発生すら知らずにいた自分を「背後首謀者」に仕立てあげ、「死刑判決」を下し、数十人に拷問、脅迫を行った事実をどのように考えるのか、現在の立場を明らかにせよ③全一族の政治関与とぼく大な不正、米国およびヨーロッパ諸国への財産逃避に関する国民の疑惑に答えろ——など、全斗煥の罪悪を追及した。

全斗煥、すべての公職を辞任

十三日、全斗煥は記者会見を行い、弟の全敬煥の「セマウル」疑惑に関連し、すべての公職を辞退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全は、「国家」元老諮問会議議長と民正党の名誉総裁を辞退すると言いながらも、党員の資格はそのまま持つと述べた。

「韓」日軍事協力強化を論議 米下院公聴会

米下院軍事委員会の「同盟国の責任分担に関する専門部会」は十九日、アジア・太平洋問題に関する公聴会を開いた。公聴会では、日本と南朝鮮の軍事協力体制強化や駐「韓」米軍の段階的撤退など、米国の経済力低下などの情勢下で、新しい三角軍事同盟関係のあり方が、中心議題となった。この日は証人として、ケートー研究所のバウ・バンドウ、米海軍元提督のジーン・ラロック、米戦略研究所の浜田和幸の三人が出席した。

証人からは「アメリカの国防予算削減などの結果、アジア各国との相互軍事協力関係で変革が迫られている」「五年間で駐韓米軍を段階的に撤退させ、日本、南朝鮮間の軍事面での協力強化を側面から支援する」などという提案があった。

物語 朝鮮の歴史と文化 ⑬

王仁と慧慈

王仁の役割

百済の近仇首王（在位三七五～三八四年）の時、要請されて日本に渡り、初めて漢字と儒学を伝えたのが王仁です。

日本の最も古い歴史書である「古事記」（七一二年）や「日本書紀」（七二〇年）には、日本の学芸の発達史における大事件として王仁（または和邇吉師―ワニキシ）の来日の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

それによると、応神王の時、百済から日本に渡った阿直岐（アチキ）は、その優れた学識を認められて皇子に学問を教えましたが、百済にはさらに優れた学者がいるとして、王仁を推薦しました。日本では荒田別（アラタワケ）を百済王に送り王仁の派遣を要請したので、王は孫の辰孫王とともに「論語」十巻、「千字文」一巻を持たせて日本に送ったといいます。

千字文は、「天地玄黄、宇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のように漢字四字ずつで句を作り、唱えて学びやすくしたもの。二百五十句からなっており、わが国でも初学者必習のものでした。

論語は、いうまでもなく儒教の経典。二千年以上前の孔子（前五五一～四七九年）を中心とする言行録が後代に編さんされたもので、その後長い間東洋社会で最も多く読まれ研究された書物の一つです。

日本では王仁のもたらした文字、書物と、その指導によって、口伝えだけの生活から、文字のある生活へ、原始的な信仰を中心とする世界観からより発展した世界観へと移行する重要な精神的変化の契機を与えられたことになります。



当時の朝鮮の服装（天寿国繍帳の部分、法隆寺蔵）

王仁は、高い尊敬を受けながら重用され、その子孫は文（ふみ）氏を名のり、代々河内に居住しながら学問によって仕え、古代日本の文化の発展に寄与しました。

王仁は日本でこのように大きく扱われましたが、母国の百済の記録にその名は出てきません。全く不思議なことです。これはつまり先進国では名を残す程でもない学者が、おくれて発達した国では超一流の役割を果たしうることの一例ではないでしょうか。

仏教文化の伝播

三国時期の初期に、中国から伝えられた仏教は朝鮮を通って日本に伝えられます。

高句麗と百済に、儒教とほぼ同時に伝えられた仏教は、観念論的であるにしてもともに人間性と人間の運命についての考察において、わが国の人々に深刻な影響を与え、人間についての解明の深化に一つの契機を与えました。

その後、わが国では優れた儒学者、僧たちが輩出しましたが、より大切なことは仏教が当時の高い技術文化に支えられて周辺国に影響を及ぼした点です。

特に古代日本の国家の成立を前後する時期の社会、技術文化については、当時大量に移住してきた朝鮮三国の知識人、技術者の集団や僧たちの役割を抜きにしては考えられません。

たとえば、日本最古の本格的な寺院といわれる奈良県の明日香村にある飛鳥寺を見ましょう。安居院といわれるこの小さな寺は、何度かにわたる考古学的な調査によって、その伽藍配置が高句麗や百済のものと全く同じものであり、本尊仏をはじめ、その設計図から建築の様式、土台の作り方から屋根瓦の文様に至るまで、すべて百済の技術者の指導のもとに作られたことが判明したのです。

同じようなことは、その後に作られた四天王寺、法隆寺、薬師寺などについてもいえます。

飛鳥寺の本尊である飛鳥大仏（金銅釈迦仏）を作った鞍作鳥（クラツクリノトリ）は、百済からの渡来者だといわれ、聖徳太子のために法隆寺の有名な釈迦三尊像も作っています。

なお、聖徳太子を二十年間にわたって教え、古代日本国家の形成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慧慈は六一五年に任務を終え高句麗に帰国しますが、幼い時から進んだ朝鮮文化の濃厚な雰囲気の中で育った聖徳太子と、慧慈との会話は、当然朝鮮語で行われたと思われます。

（金哲央）

崇高なまでの民族愛ひしひしと

4・24 民族教育を守った人々の記録
同胞一、二、三世によって出版

兵庫

民族教育の歴史において、輝かしい記録として語り継がれている四・二四教育闘争。その四十周年を迎え、大阪、兵庫でシンポジウムをはじめ多彩な記念行事が催されている中、このほど兵庫県下の同胞二世、三世らによって編書「四・二四阪神教育闘争―民族教育を守った人々の記録」が出版された。

この本は、四十年前、民族教育を守るために闘った一世同胞たちの歴史を、当時の体験者に聞いてまとめた貴重な記録である。

出版したのは、県下のウリハッキョ教員や総聯活動家、若い商工人や主婦ら二十一人のメンバーで、昨年の九月七日に発足した「四・二四阪神教育闘争を記録する会」（宋純鐘会長、略称―四・二四を記録する会）。

アメリカ占領軍と日本の警察、司法、行政権力によって行われた、民族教育に対する凄まじい弾圧を、ウリ同胞らが団結力ではねのけた誇るべき闘いであった四・二四教育闘争。

特に神戸を中心とする兵庫県下では、非常事態宣言が発令され、四、五千人にのぼる同胞らが逮捕、三十七人が占領軍による軍事裁判などにかけられるなど最も激しい闘いが展開された。その闘争によって民族学校は、自主学校として守り抜かれた。

だが、闘争の経過や流れを記した本はこれまで出版されたが、体験談をまとめたものはほとんどないに等しかった。体験者の高齢化に伴い、記録として残すことも日増しに難しくなった。

その様な実情から、「なんとか一世同胞の闘いを記録にとどめ、後世に語り伝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歴史から忘れさられるか、不当に評価されている闘争の意義を正しく伝えておくべきだ」などの声が二世、三世同胞の間から起こり、「四・二四を記録する会」が結成されたのだった。

メンバーらは四十周年までに一世同胞の体験談をまとめた本を出版することを目標に、身銭を切り時間をさきながら、体験者の発掘、聞き取り作業を精力的に行った。このような若い同胞らの熱意が口コミで一世の間に広まり、協力を申し出る同胞が相次いだ。聞き取り作業の過程は、「感動に心洗われる日々であった」とメンバーはいう。

また、事実関係を正確に記すため各学校沿革誌、市町村史をはじめGHQ（連合国軍総司令部）の資料、兵庫県庁の資料に至るまで、十余年かけて集めた数千㌻にもなる資料から裏付けを取る熱の入れようだった。

◇　◇

今回、出版された本は、A五判、二百三十二㌻。中には神戸及び阪神間、播州地方の三地域における闘いに参加した五十一人の一世同胞から聞き取った証言が収録されている。

拳銃をぶらさげ教室に入ろうとした警官を、「こぶしだけしかなかったけど一歩も入れさせなかった。それこそ生きるか死ぬかの闘いでした」と語る李寿珠さん。「学校を取られたら、もう朝鮮人はおしまいや。何が何でも学校を守るんや」と声を張り上げながらMP、警官隊と闘ったという朴月生さん。「血まみれの少年まで連行した」（[illegible]）、「警棒で殴られ、床がみるみるうちに真っ赤な血で染まった」（崔週鎬さん）などの証言から、当時の闘いの激しさ、崇高なまでの民族愛と祖国の未来を担う次代を育てんとする一世同胞の熱い思いがひしひしと伝わってくる。

その他、未公開の写真八十枚と三地域における闘争の概要、座談会、一九四八年十月東京朝連中部支部発行の「阪神教育闘争記録画報」が資料として収められている。

◇　◇

発行―ブレーンセンター、☎〇六（三六五）六三〇三、千三百円。



官憲の弾圧をはね返して（1948年4月24日、兵庫県庁前で）



西日本高校サッカーフェスティバル
第14回四国放送杯
神戸朝高が準優勝

神戸朝高サッカー部が、先ごろ徳島で開催された第十四回四国放送杯西日本高等学校サッカーフェスティバル（主催―四国放送、徳島県サッカー協会）で準優勝する好成績を収めた。

このフェスティバルには、初出場の神戸朝高をはじめ四国ユース大会で優勝した徳島高校選抜、県下一、二位の徳島市立、城内高や関西の強豪、北陽高校（大阪）など十六校が参加し勝敗を競いあった。

神戸朝高は予選リーグ（Bブロック）で、高知農、宇治、徳島市立と対戦。二勝一敗の成績でブロック一位になり、決勝トーナメントに進出した。朝高は初戦の相手である城内を二対〇で下し、北陽との決勝戦に進んだが、四対〇で敗れ、惜しくも大会二位となった。

同朝高サッカー部の指導員は「この大会の経験を生かし夏の中央大会に向けて、基礎体力を養い、テクニックをより向上させる練習に励みたい」と語っていた。

東京第五初中に新しいバス
墨田、葛飾、江戸川の同胞らが贈る

新学期を迎えた東京朝鮮第五初中級学校では、六日から新しいスクールバスが走っている。

冷暖房を完備したこのマイクロバスは、墨田、葛飾、江戸川の各支部管下同胞らによって寄贈されたものだ。

新しいバスに生徒たちは大喜び。

「父兄と同胞のおかげで生徒たちが朝夕安心して通学する姿を見て、とてもうれしく思います」（李鐘兌校長）

これまで同校には、二年前父兄の寄附で購入した二台のバスを含め三台のスクールバスがあった。

しかし、それだけでは葛飾地域を回ることができず、葛飾に住む生徒の中には、朝のラッシュをくぐり抜けバスと電車を乗り継ぎ一時間かけて登校する者もいた。これは低学年の生徒には大変な苦痛であり、父兄にとっては心配の種であった。交通の不便が問題となり子供を日本の学校へ送ろうかと考える父兄も少なくなかったという。

「もう一台バスがあれば……」というのが学校と父兄の切実な望みだった。

これを受けて教育会理事と三支部の委員たちが話し合い、具体的な準備を進めたのがこの二月から。教育会の副会長たちと各支部の委員たちは同胞の家を一軒一軒訪ねて協力を求めた。この呼び掛けに、葛飾支部管下の同胞ばかりでなく墨田、江戸川の同胞たちも積極的にこたえ、バス購入の費用が集められたのだった。

この春、第五初中には例年を上回る三十五人の新入生が入学した。葛飾地区から通う一年生は十一人。そのうち九人が新しいスクールバスを利用している。

葛飾支部の李公海委員長は「スクールバスが増えて、学生受け入れ事業の新たな展望が開けました。また、今回のことは葛飾、墨田、江戸川の三支部管下の同胞が学校を中心に団結し協力し合う良い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と語る。

スクールバスにこめられた同胞の熱意はウリ教育を支える大きな力となっている。



「アボジ、オモニ、コマプスムニダ」
新しいバスに大喜びの子供たち

対外試合成績 ③ 3月

三月は各朝高とも春休みをフルに利用し、様々なフェスティバルや親善試合（結果は本紙に掲載済み）、朝高同士の交流試合を盛んに行い、新学年度に向けて新チームの一層の強化を図るために力を注いでいる。

東京朝高
卓球（男子―四戦四敗、女子―二戦二勝）

京都朝高
サッカー（二戦一勝一分）
ラグビー（四戦四敗）
バレー（二戦一勝一敗）
陸上（女子）
新体連近畿選抜陸上大会・記録会
百㍍―二名予選落ち
二百㍍―一名予選落ち
四百㍍―一名決勝四位
千五百㍍―一名決勝四位
一名決勝七位

神戸朝高
サッカー（六戦五勝一敗）
バレー（男子―二戦一勝一敗）
※春期神戸市リーグに出場し三位。（四戦三勝一敗）

広島朝高
サッカー（四戦一勝二敗一分）



春休みには様々な親善試合が行われた（写真は東京朝高卓球部）

ぼくらの先生



金明淑ソンセンニム
（三多摩朝鮮第一初中級学校）

明淑ソンセンニムは、とても明るく、生徒一人ひとりを大切にしてくれる良い先生です。いろんな面でアドバイスをしてくれたり、私たちの力になってくれるのでみんなに親しまれています。

絵・文　鄭在華（中２）

サークル紹介
三多摩朝鮮第一初中級学校　民族器楽部

V7を目指す



ぼくたち民族器楽部は今、気持ちも新たに練習に励んでいます。

今回ぼくは、民族器楽合奏部門で、六年間連続金賞という記録と、素晴らしい伝統を持つ、この民族器楽部の部長に選ばれました。

ぼくは部長として、楽しく明るい部にしたいと思います。

また、今年V7を目標にしたいと思います。

そのためには、ぼくを含めた中三がまず一つになり、責任感を持って後輩に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何といっても民族楽器は、魅力があって吹いていると（ぼくはタンソを吹いています）楽しくてしょうがありません。

とにかくぼくは、がんばるつもりです。

中級部三年　金成哲

우리 말과 글을 배워 공화국 창건 40돐을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4월 23일 (음력 3월 8일) 토요일
【루계 제10190호】

1952年6月10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 [illegible]
電話 東京(260)0131(代表)
振替口座東京5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4월련석회의의 숭고한 의지와 뜻을 살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4월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로작 발표 40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4월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로작 《북조선정치정세》를 발표하신 40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부주석인 박성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허정숙동지 등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계응태동지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여시고 4월 21일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작 《북조선정치정세》에서 북조선정세를 평가하시고 조선의 분할을 꾀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과업에 대하여 밝히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의 분할을 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그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원칙적립장을 밝히심으로써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이 환히 열리게 되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로작은 련석회의에서의 견해의 일치를 보장하게 한 강령적지침일뿐아니라 북과 남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이 실현되여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게 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 《북조선정치정세》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지난 40년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신 자랑찬 로정으로 빛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 전체 조선인민앞에는 력사적인 4월련석회의의 숭고한 의지와 뜻을 살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하며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전민족의 거족적인 위업인 조국통일은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대단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력량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변함없이 주장합니다.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면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할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단체 및 재야의 각계인사들은 물론 집권자들과도 인민들의 의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아무때나 만나 대화를 할것이라는것을 한두번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영구분렬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해나서야 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와 각계층 인민대중이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절실히 요구해나서고있는 오늘 서로 반목하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지체없이 응해나와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세를 바로보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하며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

현 남조선집권자들은 군부독재를 연장하고 나라의 분렬을 지속시키려는 범죄적책동을 걷어치우고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대로 권력의 자리에서 지체없이 물러나야 합니다.

21일부 이곳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발표 40돐에 즈음하여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한 사설을 실었다.

평양국제문화회관이 개관되였다

현지에서 개관식 진행

우리 당의 구상에 따라 수도의 한복판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국제문화회관이 개관되였다.

4월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앞두고 개관되는 평양국제문화회관에는 우리 나라 문화예술성과를 소개하는 전시장들과 빨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악기전시장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랜 세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억눌리고 짓밟혀온 우리 인민의 민족적재능과 우수한 문화전통은 우리 시대에 와서 찬란히 개화발전하게 되였으며 주체의 조국인 우리 나라는 문학예술분야에서도 그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3월 31일, 완공된 평양국제문화회관을 돌아보시고 회관이 쓸모있고 보기 좋게 잘 건설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11일, 현지에서는 평양국제문화회관 개관식이 진행되였다.

장철, 김주영, 최영화, 김재숙, 리현식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평양시내 문화예술기관, 예술교육기관 일군들과 같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평양국제문화회관 개관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총련대표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조국에 머무르고있는 총련의 여러 대표단들과 예술단 성원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개관식에는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그리고 유네스코 대표가 초대되였다.

개관식에서는 문화예술부 장철부장이 개관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고있는 때에 내외의 큰 관심속에서 평양국제문화회관을 개관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오늘 개관되는 평양국제문화회관이 짧은 기간에 쓸모있게 건설될수 있은것은 회관의 터전으로부터 건축형식과 내부구성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건설의 전과정을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평양국제문화회관건설에 적극 기여한 재일동포 상공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애국충성을 높이 평가하며 회관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관계일군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얼마전 평양국제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회관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강조하고 당의 의도대로 회관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국제문화회관이 문화정서생활과 문화교류활동의 튼튼한 기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과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을 대표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대표 무쓰다파 알 싸파리니, 유네스코 대표 메레싸 안나 와그네르가 연설하였다.

개관식에서는 평양국제문화회관 개관을 축하하여 세계 여러 나라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총련의 여러 단체들, 애국적상공인들과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보내온데 대하여 소개되였다.

개관식이 끝나자 회관중앙홀에 드리운 붉은 천을 장철부장이 끊었다.

모임참가자들은 회관의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았다. (관련기사 2면)

이날 문화예술부에서는 평양국제문화회관 개관과 관련하여 연회를 차렸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평양국제문화회관 개관식모습

사설

더욱 강화발전시키자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4·24교육투쟁 40돐에 즈음하여—

4월 24일은 재일동포들이 민족교육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4.24교육투쟁을 용감하게 벌린 때로부터 40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벅찬 시기에 이날을 맞이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그 당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만난을 무릅쓰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강화발전시켜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신들은 해방후 이국의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로 학교를 꾸리고 동포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외반동들의 온갖 파괴와 탄압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교육의 신성한 권리를 굳게 지켜왔습니다.》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고 새 조선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재일동포 1세들은 후대들을 위해 우리 나라 말과 글로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을 조국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려고 일본의 방방곡곡에 제힘으로 학교를 우뚝우뚝 일떠세웠다.

조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은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여 불과 몇년사이에 동포사는 여기저기에 566교의 초등학교와 7교의 중학교를 세워놓고 5만여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조선을 강점한 철천지원쑤 미제는 어떻게 하나 공화국북반부까지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침략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재일동포들의 애국운동과 민족교육을 탄압말살하는데 환장이 되여 미쳐날뛰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1948년 4월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선학교를 강제로 폐쇄하기 위한 기도밑에 일본무장경찰을 시켜 파쑈적탄압을 감행해나섰다.

《학교를 지키는것은 바로 민족을 지키는것》이라고 소리높이 웨치며 재일동포들은 《조선학교를 목숨으로 지키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학교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재일동포들은 총탄까지 마구 퍼부어대는 무장경찰들의 파쑈적폭압앞에서도 굴함없이 목숨걸고 용감히 싸웠다.

16살의 김태일소년이 원쑤의 흉탄에 맞아 귀중한 생명을 빼앗긴것을 비롯하여 억울하게도 수백명의 동포들이 중상을 입었고 수천명의 동포들이 체포구금되였다. 몇해동안 병상에 누운채 끝내 세상을 떠난 동포도 있었고 옥중에서 사망한 겨레도 있었다.

커다란 희생을 당하면서도 재일동포들은 한걸음도 물러섬이 없이 피흘려 싸움으로써 민족교육의 권리를 끝끝내 지켜내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였다.

40년전에 재일동포들이 벌린 이 애국적인 투쟁이 있었음으로 하여 일본에서 민족교육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고 오늘까지 발전의 일로를 걸어올수 있었다.

특히 주체의 산아인 총련이 결성된후 초급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꾸려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은 활짝 꽃피게 되였다.

세월은 흘러 당시 부모와 교원을 따라 우리 학교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어린이들도 50대, 60대가 되였으며 지금은 그들의 아이와 손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이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켜왔기에 세대가 바뀌여져도 우리는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고있는것이다.

그 어떤 세력도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로운 투쟁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우리 학교를 더욱 사랑하고 교육환경을 알뜰히 꾸리며 한명이라도 더 많은 동포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리하여 명년도 학생 및 유치반원아 받아들이는 목표를 기한전에 넘쳐달성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각급 학교 교직원들은 정열의 화신이 되여 민족교육의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금싸래기같은 학생들을 한사람한사람 극진히 보살펴나가야 할것이다.

김정숙탁아소가 새로 건설되였다

수도 평양에 김정숙탁아소가 새로 건설되였다.

모란봉기슭 안상택거리에 7,600여평방메터의 연건평을 가지고 일떠선 이 탁아소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의하여 건설된 현대적인 어린이보육교양기지이다.

김정숙탁아소를 개소하며 당중앙위원회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4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 책임비서 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강희원동지와 보건부 리종률부장,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이 시내 근로자들과 같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강희원동지가 개소사를 하였다.

모임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과 탁아소관리운영을 위하여 김정숙탁아소에 보내는 귀중한 선물이 전달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김정숙탁아소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기네대통령이
공화국의 모든 자위적조치 지지

기네대통령 란사나 꽁떼가 9일 기네주재 우리 나라 김진기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그는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기네정부의 립장은 확고하다고 하면서 기네는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국제적인 문화예술교류 발전의 거점의 탄생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지성을 높이 평가

평양국제문화회관

손색없이 꾸려진 문화예술기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3월 31일에 평양국제문화회관을 몸소 찾으시여 세심히 돌아보시면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국제적인 문화교류 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문화활동을 벌릴수 있도록 회관을 보기 좋고 쓸모있게 잘 건설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며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릴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지어져있습니다.》

평양국제문화회관은 건축미학적견지에서나 리용가치에 있어서 손색없이 훌륭하게 꾸려진 또하나의 문화예술기지의 본보기이다.

평양국제문화회관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조국의 문화예술성과를 널리 보급하며 우리 나라와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문화예술교류를 더욱 활발히 벌릴수 있도록 내용있게 잘 꾸려져있다.

연건평이 근 1만평방메터에 달하는 평양국제문화회관에는 민예품전시장, 미술전시장,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민족악기전시장, 음악감상실, 무용전습실, 창작실, 회담실과 면담실, 영화감상실, 연회장, 민족료리식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평양국제문화회관이 이처럼 훌륭히 멋있게 건설된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 배려가 있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평양국제문화회관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새 건축물로 창조하도록 친히 그 형성도안을 보아주시고 터전까지 잡아주시였으며 공사의 시작부터 건설의 전과정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무한히 고무된 군인건설자들은 첫시작부터 목표를 높이 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였으며 1년 남짓한 사이에 평양국제문화회관을 일떠세웠다.



평양국제문화회관 전경

회관운영을 다양하게, 특색있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1층에 있는 민예품전시장부터 돌아보시였다.

민예품전시장에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회화작품, 도자기, 공예품, 민속품들과 음악작품, 민족악기 등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3,000여종의 작품들이 진렬되여있다.

이날 전시된 민예품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미술작품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이것들을 대외에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전시장에 진렬된 조국과 재일동포상공인들사이에서 합영으로 만든 2대의 피아노를 보시고 아주 멋있게 만들었다고 치하를 주시였다. 그리고 피아노생산을 많이 하여 대외에 수출하며 학교교육사업에도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라선계단을 거쳐 2층에 있는 미술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여기에는 조선화, 유화, 서예, 공예품들을 비롯하여 국가미술전람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280여종의 작품들이 전시되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시장입구 맞은편에 보기 좋게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 여러나라 예술인들의 흠모의 정을 그린 유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최명식, 박호성)을 보시고 유화를 잘 그렸다고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지하에 있는 민족료리식당도 돌아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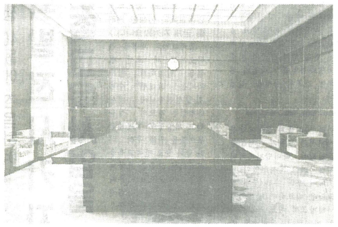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식당경영을 특색있게 하여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조선료리를 널리 소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회관건설에 기여한 재일동포상공인들의 애국지성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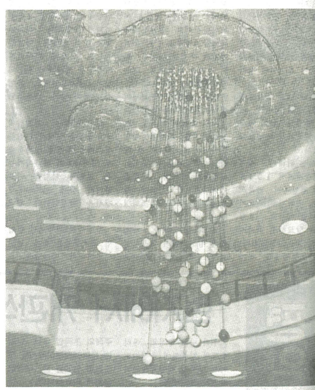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평양국제문화회관의 내부 방들을 돌아보신후 1층 중앙홀에 나오시여 회관을 그 사명에 맞게 다양하게, 특색있게 운영하여 문화예술교류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회관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이의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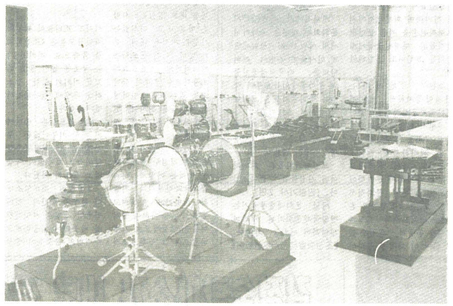
【평양에서 본사기자】



회담실



중앙홀 장식무리등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민족악기전시장



조선의 고유한 민족음식들을 맛볼수 있게 하는 식당



비둘기로 보이지

목소리

화를 복으로

일본당국의 이른바 《제재조치》를 두고 《평화를 희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도적차원에서도 용납할수 없는 조치》(일조의련구노회장)라는 목소리가 일본의 사회계에서 높아지고있다. ▼이 사건직후 산따마지역에서는 피한들의 범죄적소행이 특히 빈번했다. 《승공련합》패거리들은 그 무슨 《대회》란 놀음을 벌려놓고 악의에 찬 허위나발을 불어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원쑤들이 총련본부회관의 주차장안에 있던 선전차를 파괴하고 이 회관과 학교를 야밤에 습격, 수십장의 유리창을 까부시고 도망쳤다. ▼헌데 문제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어떤 피한놈이 도꾜중고에 다니는 녀학생에 대해 뒤에서 끈으로 목을 메여 죽이려고 한 살인미수사건이 일어난것이다. 백주에 공중앞에서 귀축같은 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됨으로써 사태는 내외의 빈축을 사고 치떨리는 분격을 자아내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다.》(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 야스이위원장)는 목소리가 나오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 ▼게다가 동포들의 일상생활과 상기업활동에까지 이러저러한 위협과 규제를 가하는 일이 속출했다. 본부에서는 대책위원회를 내오고 단호히 맞서나갔다. 녀학생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 히노시의 경찰당국과 경시청에 대한 항의를 벌렸다. 각계층 동포들을 반대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본 정내회며 로조,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의욕적으로 조직하여 진상을 널리 알려나갔다. 그러자 그들속에서 《이런 인권침해는 일본국민의 책임이다》는 여론이 점차 조성되였다. 그래서 일본사람들까지 자기들도 싸우겠다고 총련기관을 찾아와 함께 삐라뿌리기에 나서게 됐다. ▼이런 가운데 히노시의회에선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시장은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도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일본인민들과의 우호와 련대는 더욱 깊어졌다. 화를 복으로 돌린 일군들과 동포들의 일본새가 빛난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결성모임 진행 라고스에서

【평양 4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결성모임이 4월 11일 라고스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나이제리아 이그보그보정부교원대학 학장은 연설에서 친선협회결성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나이제리아 이그보그보정부교원대학 학장이 친선협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친선의 왕래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장 한스 클레카츠키일행이 1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 진형권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총공회대표단이 1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특집 4.24교육투쟁 40돐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꽃피우자

니시고베지역 동포좌담회

《쏠테면 쏘라!》고 미국놈이 휘두른 권총 총구를 향해 가슴을 내댄 동포, 무력으로 교문을 돌파하자는 놈들의 장갑차앞에 《우리를 깔아뭉개여 죽여라》고 한몸 내던져나선 어머니들.

40년전에 벌어진 4.24교육투쟁은 바로 이러했다.

동포들은 우리 학교를 지키는것이 해방된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지킨다는것을 쓰라린 식민지노예생활을 통하여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기에 목숨을 내걸고 희생을 각오하며 《학교폐쇄령》의 철회를 요구하여 대중적항거로 나선것이다.

치렬한 투쟁끝에 우리 학교의 자주권을 지켜낸 효고현 니시고베지역의 동포들의 투쟁을 돌이켜보면서 4.24교육투쟁 40돐에 즈음하여 대를 이어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자고 총련 니시고베지부는 니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리고있다.

우리는 니시고베초중을 지켜낸 당시의 투쟁에 대하여 이 학교 교원,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면서 투쟁에 직접 참가한 일군, 동포로부터 귀중한 체험담을 들었다.

(참가자)

리호권(총련 효고현본부 부장, 니시고베에서 참가)
서정수(총련 니시고베지부관하 분회장, 니시고베에서 참가)
김병현(총련 니시고베지부 위원장, 히가시고베에서 참가)
신동률(니시고베초중교육회 회장, 오사까에서 참가)
강룡수(니시고베초중 교원)
김성수(니시고베초중 학생)
황려수(니시고베초중 학생)

우리 학교는 우리의 목숨, 민족의 존엄

민족의 넋 꿋꿋이 지켜

《학교페쇄령》에도 굴함없이

리—4.24교육투쟁은 우리 동포들로 하여금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를 깨닫게 하였지요.

나라없는 망국노의 신세가 얼마나 억울한것이였던가.

나는 19살때 해방을 맞이했는데 자기 나라 말과 글도, 조선사람의 정신도 잃어버리고있었지요.

왜놈들의 천대와 멸시를 모면하려고 《일본인보다 나은 일본인》이 되려는 억울한 노력의 결과가 그랬지요.

하기에 조련 청년학교에서 민족의 넋을 되찾았을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앞길이, 가슴이 확 트이는것 같았지요.

나라가 있어야 한다, 자기 민족의 존엄을 다시는 뺏겨서는 안된다는것을 온몸에 새겨넣었지요.

그러던 때에 미군놈들과 일본정부가 우리 학교를 없애치우려 한다는 말을 들었지요.

하여간 가보자고 당시의 니시고베조선초등학교가 있던 나가다의 가구라소학교로 친구와 함께 달려갔지요.

학교운동장은 동포들, 남녀로소로 꽉 찼어요. 모두들 분노로 치떨고있었어요.

서—그때 우리 아이들이 모두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있었는데 나는 지난날 우리가 못배워서 나라를 빼앗겼다, 우리 학교를 빼앗기는건 조선사람의 정신을 빼앗기는거라고 매일 학교로 나와 싸웠습니다.

리—나는 곧 행동대에 들었지요. 학교교실에서 자가면서 현청에 항의하러 가는 동포들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동포들의 기세는 정말 높았어요. 그땐 하루 일을 쉬면 밥거리가 끊어질 때입니다. 밥을 못먹어도, 일자리가 없어져도 좋다, 우선 학교부터 지켜야 한다고말입니다.

김—당시 우리 학교는 일본학교의 교사를 빌려 쓰고있었는데 3월말까지 내놓고 모두 일본학교에 편입하라는거요.

효고현에서는 사실상 자주학교로 남아있던 니시고베, 히가시고베, 나다초등학교가 그 대상이였지요. 이 부당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수가 있어요.

리—대표들은 련일 현청에 나가 철회하라고 요구하였지요. 그런데 4월 10일 고베시장이 교사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일방적인 통달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15일에는 현지사와의 면회를 요구한 동포들을 검거하고 투옥하였지요.

김—나는 당시 히가시고베에 있었는데 23일 미군과 일본경찰들이 무리로 달려들어 끝끝내 우리 학교를 빼앗았지요.

서—그때 니시고베에도 놈들은 달려들었지요. 엠피놈들은 권총을 빼들고 동포들을 위협하며 철갑모를 쓴 일본경찰들은 6척곤봉(약 2메터)으로 동포들의 머리가 깨지도록 때리고 차고 했어요.

리—미군놈이 《복종하지 않으면 쏜다》고 권총으로 우리를 겨누는데 어느 한 동포가 《쏠테면 쏘라!》라고 웨치며 총구앞에 가슴을 내니 도리여 총을 가진 놈이 기가 죽었지요.

서—부인들도 대단했어요. 교문에 매달리는 사람, 교문을 돌파하자는 장갑차, 군용트럭 앞에 《우리를 깔아죽여라》고 한몸 내던져 드러눕는 사람 등 어머니들은 용감했어요.

리—우리는 죽었어도 절대로 학교를 내놓지 못한다고 동포들은 완전무장한 엠피, 일본경찰과 맞섰지요.

그러다가 24일에 드디여 《조선인학교페쇄령》을 철회시키고 자주학교의 존속을 인정케 했다는 승리의 보고가 날아왔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동포들은 운동장 한복판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투쟁할 때 쓴 구호판, 횡단막, 선전삐라 등을 불태우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판을 벌렸지요.

서—우등불이 밤하늘에 활활 타오른 그 광경이 눈에 선하오.

교육을 전동포적인 사업으로

아담한 새 교사 일떠세워

리—그런데 25일 아침 놈들이 학교를 빼앗을것 같다고 하기에 《설마》하고 학교로 달려갔지요.

운동장엔 우등불 재가 남아있었고 학교는 태풍이 지나간 뒤처럼 조용했지요.

그래 옥상에 올라가 해뜨는 동쪽하늘을 보면서 《아, 우리는 기어코 학교를 지켜냈구나.》라고 감개무량함에 잠겼지요.

그런데 교문으로 통하는 길이 소란해졌어요. 무언가 하고 보니 까마귀가 떼를 지어 막 달려들듯이 경찰놈들이 학교로 밀려오지 않습니까. 동포들도 급히 달려왔지만 새벽에 기습해온놈들을 당해내지 못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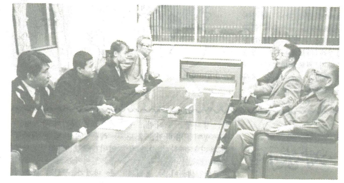
김—24일 야밤부터 《조선사람잡이》를 감행했지요.

미군은 효고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련간부들은 물론 동포 청장년, 녀성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했지요.

리—조선사람이면 사정없이 잡아가두었어요. 그저 체포한것이 아니라 곤봉으로 때리고 차고, 지어는 우연히 고베에 찾아온 동포까지 잡아가두었지요. 나도 잡혔지요.

서—간또대진재때의 《조선사람잡이》 그대로였지요. 고베시내 경찰서란 경찰서, 감옥이란 감옥은 우리 동포들로 가득차서 지어는 아까시에까지 트럭으로 동포들을 수백명 실어가고 군사재판을 벌렸거던.

강—그런 속에서도 동포들은 민족교육을 지켰으며 푼푼이 모은 돈으로 현재 자리에 우리 학교를 일떠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좌담회참가자들

리—교실이 없어 학생들은 10명, 20명씩 바다가 모래터에서, 공원에서 공부를 계속했지요.

탄압선풍이 휘몰아치고 생활은 곤난했어도 동포들은 기어이 지킨 우리 학교와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금을 했지요. 12월에는 학교설치인가도 취득하고.

서—학교를 짓는데 정말 전동포들이 적극 나섰어요. 목재를 나른다, 터를 닦는다, 돈도 내고 몸도 내여 참 그땐 《근로봉사》를 한다고 했지.

리—아주머니들이 이때도 활약했지요. 당시 《련맹아지메》라고 불리우던 이들이 여러명 계셨는데 한집한집 찾아가 돈이나 쌀을 상당히 모았지요.

김(학생)—우리 할머니도 투쟁에 참가하셨는데 4.24를 잊으면 안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리—1949년 9월 9일에 새 교사가 준공되였지요.

니시고베지역에 큰 경사가 난거지요.

4.24때 우리가 학교를 지켰으니 이런 경사를 맞이한다고 웃는 얼굴들에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서—나라가 없으면 돈이고 무엇이고 별수 있는가. 나라를 찾았으니 아이들을 조선사람으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지. 우리 1세들은 그것만은 똑똑히 알기에 4.24때 피를 흘리며 목숨도 내놓고 싸웠고 돈이 없어도, 왜놈들이 갖은 지랄을 해도 굴하지 않고 우리 학교를 세웠다는걸 젊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지.

신—4.24교육투쟁 40돐이 되는 올해 대를 이어 민족교육을 발전시키자고 2세 젊은 동포들이 나서서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을 기획, 조직하여 대중적운동으로 벌리고있지요.

우리 교육의 투쟁력사를 젊은 동포들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어요. 알면 그들도 나섭니다.

황(학생)—학교에서 4.24에 대하여 듣고 배웠는데 권총을 빼든 미국놈앞에 가슴을 내밀었다는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자기가 배우고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명심하여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김—총련 니시고베지부는 올해를 《교육의 해》로 하자고 합니다. 젊은 동포들에 대한 조국애, 민족애교양에서도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문제를 4.24교육투쟁과 잘 결부하려고 합니다.

리—간고한 투쟁속에서 희생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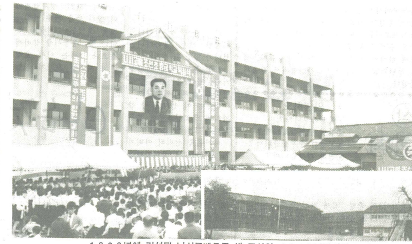
그러나 민족의 존엄을 지켜야 사람답게 산다, 민족도 나라가 있고 지도자가 있어야 빛이 난다고 동포들은 확신하였기에 모든것을 각오하고 나섰지요.

동포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 학교를 정말 빛내여 나갑시다.

(정리 본사기자)



조선의 어엿한 역군으로 자라나는 효고현하 우리 학교 학생들



1966년에 건설된 니시고베초중 새 교사와 1949년당시의 교사

애국의 뜻 고스란히 이어

니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 동포학부형들

학교사랑하는 운동을 적극 벌리는

《우리 학교는 4.24교육투쟁에서 민족교육과 교사를 끝끝내 지켜내였지요. 이것이 우리 동포들과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니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 교직원, 학생, 교육회일군들은 물론 동포들은 투쟁당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1948년 4월 한신지역에서는 《조선인학교페쇄령》을 분쇄하며 민족교육의 자주성을 지켜내기 위한 일대 항의투쟁이 대중적으로 벌어졌으며 동포들은 《어린이들에게 두번 다시 망국노의 신세를 되풀이시켜서는 안된다》란 일념으로 경찰들의 곤봉과 미군의 총구를 맞받아 과감히 싸워 우리의 민족교육을 목숨으로 지켜내였다.

니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는 바로 관하 동포들의 불타는 애국지성과 4.24교육투쟁의 그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해왔다.

오늘 이곳 학교를 위하는 학부형들과 동포들의 지성과 당시의 투쟁정신은 학교사랑하는 운동에로 고스란히 이어지고있다.

광범한 동포들과 학부형들을 망라하여 《재정위원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회》를 조직하고 학교운영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을뿐아니라 4.24교육투쟁 40돐을 보다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사수축공사를 비롯한 애교운동이 한창 벌어지고있다.

지난 3월에 동포학부형들로 조직된 추진위원회에서는 선전부, 기획부, 모금부 등의 부서를 설치하여 그 역할을 백방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꾸리고 이 사업을 동포군중에게 튼튼히 의거한 대중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으며 그 첫단계로 되는 운동장배수공사가 지금 마감단계에 들어서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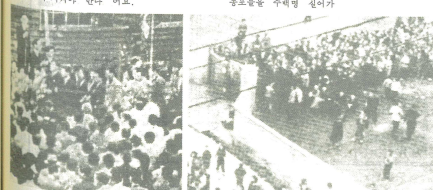
특히 4.24교육투쟁에서 끝까지 지켜낸 우리 학교를 더욱 빛내이자는 추진위원들의 호소는 오늘 광범한 동포들속에 깊이 스며들고있으며 이곳 니시고베초중의 애교운동은 그야말로 일대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여가고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5월 8일에 교육심포즘을, 29일에는 4.24교육투쟁 40돐 동포축하대회를 예정하고 활동에 계속 박차를 가하면서 동포들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열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이 운동은 모든 동포들의 찬동을 받고있지요. 세대는 바뀌여도 동포들의 애국애족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이러한 동포들이 있는 한 우리 니시고베초중은 계속 발전할것입니다.》

신동률회장은 이렇게 미더운 동포들의 모습에서 교육회사업에 대한 보람을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





내외반동들의 민족교육탄압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는 당시 효고현하 동포들

효고에서 기념사진전 진행

조선인아동작품전도

4.24교육투쟁 40돐에 즈음하여 재일조선인 4.24한신교육투쟁 40돐기념 사진전과 효고현 조선인아동작품전이 동 기념행사실행위원회와 학교법인 효고조선인학원의 주최로 19일 효고현민회관내의 갈라리에서 개막되였다.

사진전에는 《조국해방의 기쁨》, 《민족교육의 시작》, 《학교를 지키자》, 《민족교육의 원동력》, 《오늘의 민족교육》 등의 내용으로 117점의 사진(미공개사진 65점)이 전시되여있다.

한편 학생작품전에는 효고현하 우리 학교 학생들의 미술작품 486점이 전시되여있다.

이날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총련 효고현본부 리복남위원장과 효고현교육회 송순종회장이 개막의 테프를 끊었다.

사진전과 작품전은 22일까지 진행되였다.



동포들의 관심을 모은 기념사진전

모두다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로!

총련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광범한 동포들에게 민족자주의식을 안겨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지금 총련의 각급 기관과 동포들 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동기간 본지에서는 오늘부터 한달에 한번씩 우리 말 학습란을 내놓는다. 성인학교, 청년학교 사업, 호조반사업들에서 활용해주기 바란다.

일상회화

1. 안녕하오

①안녕하십니까?
②밤새 안녕하십니까?
③안녕히 주무셨습니까?
④편히 쉬셨습니까?

学習参考

·안녕(安寧): 아무 탈없이 平安한것. /祖国의 安寧, 집안의 安寧.
·밤새: 《밤사이》의 준말 / 밤새 비가 오다.
·주무시다: 《자다》를 높여 이르는 말 / 便히 주무시다.
·편히(便~): 편하게. /便히 앉다.

2. 오래간만에

①오래간만입니다.
②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③그간 건강하셨습니까?
④다들 무고하십니까?

学習参考

·오래간만: 어떤 일이 있은지 오래된 뒤에 다시 그런 일이 있게 되는것. /오래간만에 만나다.
·그동안: 그사이.
·건강(健康): 몸이 正常的으로 活動하는 状態 / 健康法, 健康診断, 健康美.
·무고(無故): 아무런 縁故나 事故가 없다. /無故하다. 無故히 지내다.

3. 여보시오

①여보십시오.
②계십니까?
③좀, 뵙고싶어 왔습니다.
④좀, 볼일이 있어 왔습니다.

学習参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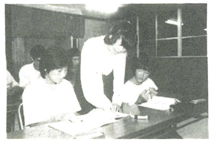
·여보: ①男子들사이에서 相対편을 허물없이 부르는 말 / 여보, 잘 있었나? ②夫婦사이에 서로 相対편을 부르는 말 / 여보, 아침 드세요.
·여보게: 《여보》를 《하게》할 자리에 쓰는 말.
·여보시오: 《여보》를 높여 이르는 말.
·여보세요: 《여보시오》를 多情하게 이르는 말, 흔히 女子들이 쓴다.

4. 어서 오시오

①어서 오십시오.
②어서 들어오십시오.
③어서 드세요.
④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学習参考

·어서: ①늦추지 않고 빨리 / 어서 읽소. ②(주로 《오다》와 함께 쓰이여) 반갑게 받아들이는 뜻. /어서 오게, 오래간만일세.
·수고(受苦):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힘을 들임. /좀 受苦를 해줘야겠소.
·들다: 《먹다》를 점잖게 이르는 말.



옛이야기

아는것이 탈



한 마을에 글 잘한다고 자랑만 해서 돌아다니는 선비가 있었다.

하도 문자자랑을 늘어놓기때문에 마을사람들은 실머리가 날 지경이였다.

하루는 이 선비가 막 잠자리에 들고있을무렵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가본즉 선비의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것이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집을 뛰여나온 이 유식한 선비는 동네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저 큰소리로 웨쳤다.

《원산지호(遠山之虎)가 자근산래(自近山来)하여 오인부친(吾人父親)을 착거야(捉去也)하니 유총자(有銃者)는 지총래(持銃来)하고 유창자(有槍者)는 지창래(持槍来)하고 무총무창자(無銃無槍者)는 개지(皆持) 몽둥이하고 속속래(速速来)해주시오!》

한데 선비가 아무리 밤새도록 야단을 치면서 온 동리를 돌아다녀도 사람들은 당초에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저 사람이 밤중에 무슨 야단인고?》하면서 쑤군대기만 했다.

날이 훤히 샐무렵에야 이 말의 뜻을 겨우 알아챈 몇몇 로인들이 서둘러 총이나 창, 몽둥이를 준비케 했으나 그때는 이미 호랑이의 자취는 보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이 고을원님은 그를 고약히 여겨 선비를 옥에 가두어버리고 말았다.

딱하게 된 안해는 날이면 날마다 옥에 가서 울기만 했다.

하루는 옥밖에 앉은 부인의 손을 잡아보려 했으나 손이 닿지 않자 선비는 슬피 울며 한탄하였다.

《여수(汝手)가 단(短)하거든 오수(吾手)가 장(長)하거나 오수가 단하거든 여수라도 장할것을…》

한문을 너무 좋아하고 자랑하는탓에 이렇게 옥살이까지 하면서도 여태까지 그 문자 쓰는걸 버리지 못한 남편을 보고 안해는 하도 기가 막혀서 집으로 되돌아가버렸다.

며칠이 지난후 원님은 선비를 끌어내여 《이제도 또 문자나부랑이를 아무데나 쓸텐가?》하고 물었다.

《예, 차후로는 갱불용문자(更不用文字)하오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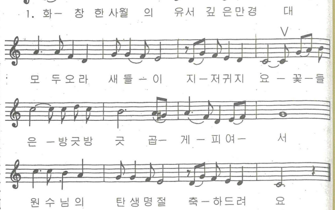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원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입맛만 다시는것이였다.

이달의 노래

문예동중앙에서는 총련의 군중가요운동을 더 활발히 벌리기 위해 재일조선창작가들이 지은 노래를 해설과 리듬형태 및 반주화음을 붙여 달에 한곡씩 싣는다.

만경대를 노래해요

김종구 작사
오영철 작곡



2. 만경대는 우리를 반겨맞아주고
나비들은 좋아하여 춤을 추지요
우리들도 당실당실 춤을 추면서
원수님의 탄생일을 노래하지요

▲리듬형태 ▲속도 ♩=130~140정도

아버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의 아름다움을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명랑하게 노래하는 아동가요이다.

선률은 순차진행으로서 부르기 쉽게 만들어지고있으며 약박자부터 시작한 노래는 2단째 마지막소절에서 한박자반의 약박자로 변화되여 점점 고조돼나간다.

노래형상은 《꽃들은 방긋방긋》하는데는 절도있게 부르고 《곱게 피여서》는 부드럽게 부르며 《원수님의 탄생명절》때 좀 악센트를 놓고 고조시키면서 마지막에 가는것이 좋겠다.

계절의 말

봄기운~봄의 기운 또한 느낌.

례; 산과 들 어디를 보나 화창한 봄기운이 물결치고있다.

봄나물~봄에 산이나 들에 돋아나는 나물.

례; 봄철에는 아낙네와 아가씨들이 고사리, 고비, 참나물, 수리취, 두릅, 냉이, 씀바귀, 물쑥 등 봄나물을 하러 산과 들로 나간다.

꽃샘잎샘~이른 봄철의 꽃필무렵에 추워지는것 또는 그 추위.

례; 기다리던 봄이 왔다. 꽃샘잎샘을 하던 이른 봄 스산한 바람도 자고 강산에 온갖 초목이 푸른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아지랑이~주로 맑고 따뜻한 봄날에 아물아물 피여오르는 대기의 움직임.

례; 날씨는 엷은 아지랑이에 약간 흐리터분하나 무르익어가는 봄날의 무거운 대기가 무언지 모르게 구수한것 같았다.

화창하다~날씨가 따뜻하고 맑다.

례;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화창한 봄날에 우리는 꽃구경을 하려고 백화만발한 뒤동산에 올랐다.

3월삼질(삼짇날)~들놀이를 하면서 꽃지짐을 지져먹는 화전놀이를 하는 날이다.

한식~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데 청명을 전후한 1~2일에 해당한다. 한식에는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서 겨울동안 얼었다가 녹은 무덤을 손질하고 돌아오는 풍습이 있었다.

어휘수첩



속담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한자리에 머물러있지 않고 돌돌 굴러가는 돌은 이끼(苔)가 끼지 않는다. 사람도 일상적으로 부지런히, 꾸준히 노력해야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뜻이 비슷한 속담에 《늘 쓰는 가래는 녹이 쓸지 않는다》가 있다.

그외에도 근면성을 나타낸 속담으로는 《개미 금탑 모으듯》, 《부지런한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소리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등이 있다.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감나무밑에 누운채로 열매가 떨어지면 주어먹자는 게으른 성질을 뜻하는 말이다.

우의 속담과는 정반대로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만 바라는것을 비웃었다.

홍시(紅柿)는 빨갛게 익은 감을 말한다.

기타 게으름을 나타낸 속담으로는 《그늘밑의 매미신세》, 《먹기는 아귀같이 먹고 일은 장승같이 한다》, 《손바닥에 털이 나겠다》 등이 있다.

문법교실

1 発音

1) 母音

모음은 홑모음(単母音)과 겹모음(複合母音)이 있는데 겹모음은 홑모음에 일정한 요소가 덧붙은것이므로 홑모음만 정확히 발음할수 있으면 겹모음은 쉽게 배울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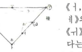
일본말발음에 익숙된 우리가 우리 모음을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비하면서 그 차이를 잘 알고 발음해야 하며 또 일어에 없는 소리를 새로 익혀야 할 것이다.

조선어와 일어 홑모음을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일어— あ お う い え

※일본말에는 없는 소리

우에서 본바와 같이 모음발음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ㅓ, ㅗ》와 《ㅜ, ㅡ》, 《ㅐ, ㅔ》의 구별 그리고 《ㅚ》, 《ㅟ》발음을 새로 익혀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을 발음삼각도로 본다면 우와 같다.

※○을 친것은 입술을 둥글게 하여 발음한다.

※발음삼각도는 입안에서 모음이 발음될 때의 혀의 위치를 가리킴.

련습 ①ㅓ: 어머니, 저고리, 버드나무, 서로
ㅗ: 조선, 고기, 노래, 보다, 모기
②ㅜ: 우리, 수자, 주소, 구두, 국
ㅡ: 모음, 가슴, 금고, 그것, 들다
③ㅐ: 개, 새, 내, 애국자, 대나무
ㅔ: 게, 세다, 네, 메, 베다, 에누리
④ㅚ: 외국, 괴뢰, 쇠, 뢰성, 뵈옵다
⑤ㅟ: 귀, 뒤, 쉬다, 쥐, 위장, 뛰다

우리가락 팔도기행 ①

본란에서는 력사적으로 전해내려온 명시들을 조선8도별로 소개한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 시들을 한달에 한수씩 암송하여 애국사업과 생활에 활용해주기를 바란다. 시는 우리 나라 민족시가의 대표적형식들을 골랐다.

평안도편

조선의 이름

최영년

하늘좋고 땅좋고 살기 좋은곳
대동강기슭에 새 터전 마련했네
봄빛넘친 금수강산 그림같은데
빛나는 아침이사 내나라 이름일세
(《해동죽지》에서)

이 시는 임진조국전쟁을 겪은후 17세기부터 하나의 사조로 대두하기 시작한 악부시의 하나이다. 악부시란 민간의 노래를 바탕으로 창조된 민요풍의 한자시를 말한다. 시는 평양의 아름다움과 결부시켜 조선의 이름의 유래를 격조높이 읊은 명작이다. 악부시에는 이처럼 조국에 대한 사랑을 훌륭히 읊어낸것들이 많은바 《하늘닭》(18세기 《북새잡요》, 홍량호)도 《하늘닭이 홰를 치니 / 천하 닭이 다 울고 / 바다빛도 푸름푸름 / 아침해살 솟아오네 / / 온 세상 밝은 빛이 / 동방에서 퍼져가니 / 우리 땅은 동의 동쪽 / 아침빛도 선참 솟네》라고 노래하고있어 《조선의 이름》과 맥을 같이한다.

《조선의 이름》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활동한 최영년의 《해동죽지》에 수록되여있다.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25일 (음력 3월 10일) 월요일
【루계 제10191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쏘련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평양~도꾜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쏘련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평양 4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2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쏘련국방성 제1부상 대장 뽀뜨르 루쉐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동지와 조선인민군 김광신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쏘련특명전권대사 겐나지 바르또쉐비치가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손님들은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나라 주재 로므니아신임특명전권대사가 신임장을 봉정

【평양 4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우리 나라 주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니꼴라에 그르보가 19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신임장봉정식에서는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우리 나라 주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관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임장을 받으신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시였다.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

1989학년도 학생받아들이는 사업목표 달성

16년간 련속하여

총련 군마현본부

총련 군마현본부에서는 래학년도 학생을 받아들이는 사업목표를 13일현재로 110%로 넘쳐달성한 기쁨을 안고 4월의 봄명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이로써 이곳 본부는 16년간련속하여 이 부문사업목표를 달성한것으로 된다.

해마다 4월에 다음 학년도 학생받아들이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있는 이곳 본부에서는 새해벽두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6돐을 이 부문사업에서의 성과를 가지고 빛내이려는 결심밑에 제반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왔다.

민족교육사업을 항상 애국활동의 중심에 놓고 학생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년간을 통한 사업으로, 전기관적인 사업으로 밀고온 이곳 본부에서는 올해 벌써 원서를 접수한 대상자들과 새로운 대상자들과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원서를 접수한 대상학생들전원이 기쁜 마음으로 입학식을 맞이했으며 또한 이 부문 사업목표를 자랑차게 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던것이다.

지금 이곳 본부관하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계속 드높은 기세로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힘차게 벌려 공화국창건 40돐까지 제기된 사업목표를 기어이 해치울 결의를 다지고있다.

150%로 넘쳐수행

총련 후꾸시마현 하마도오리지부

총련 후꾸시마현 하마도오리지부에서는 학생받아들이는 사업을 적극 벌려 4월명절을 이 부문목표를 150%로 넘쳐달성하는 성과로 맞이하였다.

이는 이곳 지부가 학생받아들이는 사업을 년간을 통한 일상적인 사업으로 벌려온 결과 이룩된것이며 이로써 3년련속 목표를 달성하게 되였다.

이곳 지부에서는 지금 공화국창건 40돐을 지향하여 목표를 200%로 초과달성하기 위해 계속 분발해나서고있다.

【하마도오리분국】

제9차아세아탁구선수권대회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의 모든 성원들이 참가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지금 제9차아세아탁구선수권대회(니이가다시, 5월 15일~22일)에 참가할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의 일본입국문제가 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 19일, 일본탁구협회는 조선체육지도위원회 부국장이며 공화국탁구협회 부회장인 아세아탁구련맹 리정호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역원 8명, 심판원 1명, 선수 9명 계 18명)의 일본입국허가증발행을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대리신청했다.

1971년 나고야에서 진행된 제31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후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열린 세계, 아세아 3대륙 등 여러 국제탁구선수권대회에 아무런 지장없이 출전하여 탁구인들의 우호친선 강화와 탁구기술의 향상에 이바지해왔다.

원래 국제체육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나라가 대회참가선수단의 입국을 비롯한 모든 편의를 도모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아세아탁구련맹의 결성(1972년 5월)에 주도적역할을 놀았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1부위원장(회장대리)직을 맡아 련맹의 강화발전에 기여하고있을뿐더러 세계탁구계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의 대회정식참가표명은 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와 탁구애호가를 비롯한 일본인민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지난 시기의 관례대로, 아세아탁구련맹의 규약에 따라 우리 탁구선수단의 모든 성원들이 제9차아세아탁구선수권대회에 당당히 참가할수 있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못할것이다.

분렬주의정체를 가리워보려는 허공에 뜬 기만선전

로태우의 기자회견놀음을 규탄하여

보도에 의하면 괴뢰두목 로태우는 21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떠들었다 한다.

로태우가 이날 《긴장완화》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올림픽이후에 《정상회담》을 가질것을 《제안》했다느니 뭐니 떠벌인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마다 높아가고있는 통일기운을 무마하고 분렬주의자로서의 더러운 정체를 감추어보려는 어리석은 수작이다.

특히 괴뢰국회의원선거가 한창 벌어지고있는 때에 로태우가 요란하게 기자회견을 벌려놓고 원래 전두환역적이 들고나온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운운해나선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로태우역적이 마치도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묘사함으로써 렬세에 빠진 괴뢰국회의원선거의 형세를 만회해보려는 기만극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동으로써는 내외여론을 오도할수는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제와 괴뢰악당에 의한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과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된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의하여 극도로 긴장되고있다.

미제와 괴뢰악당이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반공화국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신을 헐뜯으며 가을에 예정된 올림픽경기의 단독개최를 강행함으로써 《두개 조선》조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보려는 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미제와 괴뢰악당의 이러한 분렬주의기도는 올해초에 공화국이 제안한 북남련석회의제안을 거부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팀 스피리트》를 비롯한 큰 규모의 군사훈련의 중지문제, 다국적군축회담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 올림픽공동주최문제, 호상비방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한 북남련석회의제안은 나라의 긴장을 완화하며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는데서 당면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다.

바로 그러기에 남조선의 사회민주당은 이 제안을 《원칙적으로 접수》하여나섰으며 또한 남조선청년학생들도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남북청년학생체육대회》를 가질데 대한 제안을 내놓는 등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이 여느때없이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로태우일당이 돌연히 낡아빠진 《남북정상회담》을 들고나온것은 인민들의 통일기운을 무마하는것과 함께 분렬주의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악랄한 기도의 표현이다.

로태우일당이 조금이라도 긴장상태의 완화와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아무런 현실성도, 타당성도 없는 《정상회담》에 대하여 운운할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긴장완화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화국의 북남련석회의제안에 당장 응해나서야 마땅하다.

한편에서는 통일을 요구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탄압하며 또 한편에서는 악랄한 반공화국소동으로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는 자들이 아무리 《정상회담》을 운운하여 미사려구를 늘어놓아도 이것으로써는 저들의 반민족적죄행을 가리울수는 없다.

사설

조선인민군 창건 5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 창건 56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1932년 4월 25일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것은 우리 나라에서 새 형의 군대, 주체형의 무장력의 탄생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이 무장력은 창건된 첫시기에 벌써 수령의 위업을 무력으로 보장해나가는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진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승리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보위하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왔으며 당과 혁명 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백두의 수림속에서 첫 총성을 올린 우리 인민의 혁명무력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커다란 업적을 수놓아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5성상에 걸치는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마침내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그후 조선인민혁명군을 직접적으로 계승하여 해방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적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조국의 자유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전후에도 조선인민군은 원쑤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물리치면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켰으며 사회주의건설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조국땅우에 마련된 모든 혁명의 전취물들과 창조물들의 그 어느 하나에도 인민군장병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그들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전체 인민의 그토록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무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외래침략세력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제재》에는 제재로 대답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조국의 안전과 주체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3자회담제안과 단계적무력축감제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특히 공화국이 일방적으로 조선인민군 병력을 15만명이나 평화적건설에 돌리고 10만명을 제대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것은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성실한 립장을 실지행동으로 보여준것으로 된다.

그뿐만아니라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려는 념원으로부터 긴장완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들을 토의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왔다.

이에 대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려객기실종사건을 조작하여 광란적인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며 악랄한 공격작전연습, 핵전쟁연습으로 되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이른바 《올림픽안전담보》의 구실밑에 무력증강책동을 로골화하여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려는 태도로 대답해나섰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위협하며 건드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원쑤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것이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존엄있는 공화국공민으로서 사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오늘은 조선인민군절

조국을 굳건히 옹호보위하는 인민의 군대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옹호보위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오늘은 조선인민군절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던 시기에 몸소 그 첫 대오를 꾸리시고 장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키우신 혁명적무장력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무력을 창건하는 사업은 결코 순탄한 일이 아니였다.

주권도, 민족군대의 토대도, 그 어떤 외부의 지원도 없으며 게다가 온 나라가 일제의 폭압망으로 뒤덮인 조건에서 나라의 광복을 위한 인민의 군대를 창건하는 사업은 간고한 투쟁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식민지나라에서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초행길을 헤쳐나가야 하였던것만큼 그 어디에서 배워올만한 군사경험도 없었으며 군사적으로 준비된 지휘력량도, 무기도, 군사교범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어렵고 복잡한 이 사업은 오로지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해야 한다는 천재적인 예지를 지니시고 오직 우리 인민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만이 푸실수 있는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여름(6.30~7.2)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의 첫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으며 1931년 12월 명월구회의에서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명월구회의방침에 따라 유격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2년 3월 오래전부터 몸소 키워오신 청년전위들인 차광수를 비롯한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두만강연안의 여러 조직들에서 활동하던 우수한 청년들로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하시였으며 왕청, 연길, 화룡, 훈춘 등 두만강연안의 각 현에서도 소규모의 유격대오들이 련이어 조직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지에 무장대오를 꾸리는것과 함께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에로 유격대성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여 1932년 4월 25일 안도현 소사하의 토기점골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1934년 3월에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강화발전)가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상비적인 인민무력을 가지고 일제침략자들을 무력으로 때려부실수 있게 되였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가장 높은 단계, 조직적인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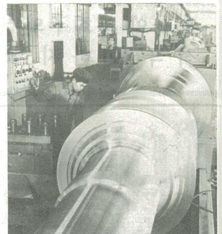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나라의 광복과 민족의 번영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마침내 간악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성취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으로부터 정규적인 인민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오늘은 그 어떤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는 강철의 대오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군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옹호보위하는 최전선에 서있는 조선인민군을 열렬히 사랑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있다.

200일전투
혁신으로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

3월 한달동안에 350여대의 대상설비를 제작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대상설비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곳 로동계급은 충성의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지난 3월에 그 전달보다 훨씬 많은 350여대의 전동기, 변압기, 발전기와 여러가지 설비들을 생산하여 순천과 태천, 광복거리 등의 중요건설장들에 보냈다.

그들은 4월에 들어와 더 높이 세운 결의목표를 날마다 넘쳐수행하면서 로력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로동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치고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60여대의 발전설비들을 생산한데 이어 태천발전소에 보낼 12만 5천키로와트발전기생산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고정자와 회전자, 타빈취수법을 비롯한 중요부분품제작을 기일보다 훨씬 앞당겨끝냈다.

발전설비 2가공직장의 로동자들도 12만 5천키로와트발전기 권선지지판가공에서 능률적인 가공방법을 받아들여 10일간의 작업량을 2일동안에 해제끼는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주강 2직장의 로동계급은 타빈작업날개와 안내날개 조형작업에서 매일계획을 150%이상으로 넘쳐수행하고있다.

대상설비제관직장의 로동자들은 이미 여러대의 고압탑들을 생산하여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장에 보내주었으며 지금 초산농축탑을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제작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전동기직장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기기계부문의 로동자들은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속도전을 벌려 기술적요구가 높은 500키로와트 2극전동기와 각종 전동기 190대, 많은 전기기계설비들, 70여대의 변압기들을 만들어 광복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건설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중요대상건설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세멘트생산 1.2배
—세멘트공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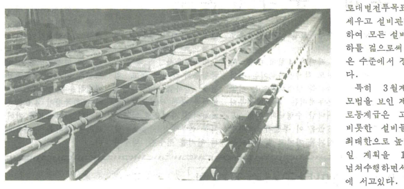
각지 세멘트 련합기업소, 공장들에서 200일전투의 주공전선인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이달 첫 한주일동안에 건설건재공업위원회적으로 세멘트생산이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1%로 장성하였다.

세멘트생산의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와 2.8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이 4월에 들어와 세멘트생산을 3월 첫 주에 비하여 140%이상의 수준으로 높이고있다.

천내리세멘트련합기업소 세멘트생산자들은 4월에 들어와서도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여 소성로의 능력과 가동률을 높여 로의 시간당 생산능률을 110%로 올리고있다.

부산리세멘트공장 세멘트생산자들은 1.4분기계획을 넘쳐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원료공정과 가공공정간의 련대적혁신을 일으키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이밖에 해주세멘트공장과 부래산세멘트공장에서도 4월에 들어와 일정계획을 초과수행하고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린비료생산계획을 날마다 넘쳐수행
—해주제련소—

해주제련소에서 올해 시비년도 린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3월분 린비료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이곳 로동계급은 4월에 들어와 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3월에 비하여 높이 세운 계획을 날마다 넘쳐수행하고있다.

류산직장, 비료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서는 로대별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설비관리를 알뜰히 하여 모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걺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특히 3월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제1류산직장 로동계급은 고압송풍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매일 계획을 130%이상 넘쳐수행하면서 계속 앞장에 서고있다.

【평양에서 본사기자】

조선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발표회가 평양에서 있었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지난 8일부터 10일에 걸쳐 조선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발표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발표회에는 우리 나라 문화예술부 김창국부부장,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과 시내 무용표기전문가들,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에는 유네스코대표 메레싸 안나 와그네르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몽골, 벌가리아, 중국, 알제리, 웽그리아, 인도,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 쏘련 예술인들과 무용표기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재일조선예술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새롭게 창제된 자모식무용표기법이 이룩한 과학리론적성과들과 그것을 무용예술창조와 교육사업에 리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을 토론하였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김창국부부장이 연설을 하였다.

이어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론문 《자모식무용표기의 원리와 수단》이 발표되였으며 과학영화 《자모식무용표기법》이 상영되고 여러건의 론문이 발표되였다.

또한 조선무용과 여러 나라 무용에 대한 표기 및 독보, 무용타자기와 전자계산기에 의한 무용표기 실천을 검증하였다.

10일에는 폐막식이 있었다.

폐막식에서 연설한 조선민족무용위원회 박경실위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우리 나라에서 새롭게 창제된 자모식무용표기법의 과학리론적성과와 그 도입에서 얻은 경험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예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새로운 계기로 되였으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연설한 쏘련극장일군동맹대표단 단원 우랄쓰까야 왈레리야 이오시포브나는 조선의 무용표기전문가들이 새로운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창제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경탄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무용표기법의 창제완성을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여준 훌륭한 조건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무용예술의 표기에 관한 리론과 실천에 대한 관심은 우리 시대에 와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인류가 몇세기전부터 음악에서 악보와 같은 무용표기법을 창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어 중국무용표기대표단 단장인 라반무용표기학회 부회장 오정주가 연설하였다.

그는 중국무용표기대표단과 중국예술인들을 대표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배려와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예술인들이 새로운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창제한 특출한 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기록영화 《백두산일대에서 새로 찾은 혁명전적지》가 나왔다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는 기록영화 《백두산일대에서 새로 찾은 혁명전적지》를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백두산밀영과 그를 중심으로 자리잡은 여러 밀영, 숙영지들 그리고 여기에서 찾아낸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화면을 수록하고있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천명하신 백두산근거지창설방침에 따라 1936년 9월에 천고의 밀림속에 꾸려진 백두산밀영을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6년 9월이후 여러 차례 머무르시며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백두산밀영의 사령부귀틀집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남포등을 밝히시며 짓밟히고있는 조국에 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그날에 쓰시던 사적물들을 화면에 담았다.

영화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아담한 귀틀집과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억세게 자라실 때 쓰시던 사적물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쓰시던 사적물들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영화에는 우리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할 높은 뜻을 안고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간 경위대원들의 정연한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에 대한 화면도 편집되여있다.

영화는 백두산밀영을 비롯하여 압록강안 련락소, 와사봉밀영과 곰노는산밀영, 선오산밀영, 간백산밀영과 소연지봉밀영, 무두봉밀영, 대각봉숙영지와 쌍두봉숙영지 그리고 국사봉일대와 무산, 회령, 온성, 새별, 은덕, 선봉 등 여러 지역에서 수만대의 껍질벗긴 나무와 700여대의 구호를 쓴 나무, 수십개소의 집터자리와 천막자리, 수백개소의 우등불자리 등 수많은 유적, 유물을 찾아낸데 대하여 소개하고있다.

특히 영화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나무에 쓰신 구호 《백두산에 장수별 떴다. 백두산 장수별 삼천리를 비친다》를 비롯하여 나무에 씌여진 구호들을 보여주면서 새로 찾아낸 혁명적구호들에 담겨진 사상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려는 확고한 혁명적수령관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영화는 새로 발굴된 구호들이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과 주체적인 혁명로선, 조선민족의 긍지와 애국주의정신 등 풍부한 내용을 반영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백두산일대에서 새로 수많이 발굴된 사적자료, 유물들은 더없이 귀중한 우리 당의 재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88 만평 채준

10당 8락

목소리

핵참화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23만명의 일본인민과 강제로동으로 끌려온 조선동포 4만여명을 순식간에 무참히 살해한 미제는 그 이듬해 태평양에 떠있는 섬 비끼니에서 원폭실험을 또다시 실시하였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산호가 있고 어업으로 화목한 나날을 보내는 미클로네시아인이 사는 평화로운 이 섬이 침략에 이골이 난 미제에 의하여 핵실험장이 되고말았다. 이는 세계제패를 노리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비끼니섬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의한 반핵투쟁으로 유명하게 되였으나 미제가 저지른 실험모습은 40여년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미해군이 극비밀리에 보관해있었던 당시의 필림을 소재로 미국의 한 텔레비존제작자가 《비끼니핵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였다》라는 기록영화를 작년에 만들었다. ▼그것이 얼마전 일본텔레비존에서 방영되였는바 핵이라는 대량살륙무기가 가지는 잔인성, 방사능이 가져오는 후유증의 무서움, 고향을 강제로 쫓겨난 주민들의 슬픔 등등이 실감있게 상세히 그려져있어 핵무기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케 한다.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는 실험》이라고 뇌까리면서 국제여론을 무마한 미국은 비끼니섬실험의 성공을 계기로 핵무기의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배치하였다. 현재 미국의 보유량은 3만발 또는 4만발이라고도 하며 그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의 100만배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남쪽땅에도 1천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배치한 미제는 지금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도발책동에 미쳐 날뛰고있다. ▼기록영화의 마지막에 《섬에 돌아가고싶다. 나서자란 그 락원에서 인생을 끝맺고싶다.》고 절절히 부르짖은 비끼니섬에서 살던 로인의 모습이 생생하다. 이것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핵저장고로, 핵전쟁시험장으로 되고있다. 미제가 계속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한 우리 민족은 어떤 참화를 입을지 모른다. 해내외에서 침략의 원흉 미제가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적극 벌려 제반 과업수행에서 조청이 앞장선다

《조국통일, 반강화 60일운동》

반단위대중사업의 계기로

조청 히로시마현본부

조청의 제반 사업에서 언제나 앞장서고있는 조청 히로시마현본부에서는 지난 3월 3일부터 《조국통일, 반강화 60일운동》을 독자적으로 벌리고있다.

이 운동은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는 구호밑에 《8개월 우리 말 배우기운동》과 대내외정치선전활동을 적극 짜고들자는것으로 전개된 운동이다.

이곳 본부에서는 년초에 비전임일군, 열성청년들의 1박2일강습을 가지고 올해 사업방향에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했다.

그리하여 5월 1일까지의 기간을 10일씩 단계 구분하여 사업을 벌리고있는것이다.

500명 동포청년담화를 통한 실태조사, 반 위원회와 학습회의 정상화, 맹원확대, 청년학교와 호조반의 개강운영 등의 목표를 세워 그 실천과정에 반위원, 지역청년들의 수준과 역할을 제고할것을 주안으로 사업을 심화했다.

한편 괴뢰도당의 모략책동과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기 위한 정치선전활동도 주로 방문담화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부, 지부, 사업체, 비전임, 반 일군들 50명이 제각기 10명의 사업대상을 분공맡아 현하 7개의 모든 지부와 반들에 들어갔다.

본부일군은 그동안 주에 2번만 본부사무실에 출근하고 그외는 담당지부에 내려가 그곳 조직들의 사업을 도왔으며 상공회, 조은의 조청원들도 주에 몇번씩 저녁에 지부사업을 적극 방조하였다.

조청 아끼지부 안무호조직부장(비전임, 하나도반 반장을 겸임)은 정세와 60일운동의 요구를 받아물고 트럭운전을 하는 바쁜 나날에도 본부와 지부에 매일 나가 관하청년들에 대한 방문담화사업에 나섰다.

니시히로시마지부의 박정옥위원장(비전임)도 자기 일을 뒤로 미루고 청년학교 수강생모집과 정치해설선전을 벌렸다.

60일운동을 통해 히가시히로시마지부 하꾸시마반을 비롯한 4개 반들이 구체적목표를 가지고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궐기하였으며 8개 반들이 위원회와 학습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형태로 움직이게 되였다.

청년학교와 호조반 개강준비도 다그치였다.

지난 3월 26, 27일에 강사강습회를 진행하여 올해 성인교육사업의 중요성과 강사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수강생모집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이제 많은 단위에서 수강생모집목표를 달성하여 전반기청년학교를 개강하였다.

60일운동은 올해사업을 반을 거점으로 한 대중적운동으로 밀고나가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청년학교 개강운영의 성과로 운동을 마무리하고있는 이곳 조청본부는 지금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 결정에 따라 5개월애국혁신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기 위한 사업 목표와 태세를 갖추어나가고있다.



조국통일사업과 반강화사업에 힘을 넣어 깐지게 일하는 조청 히로시마현본부관하 일군들

《모범학생회쟁취운동》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지 조청조직들, 일고재학조선학생과의 사업 강화

각지 조청조직들에서는 지금 《모범학생회쟁취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종래 여름방학강습회시기에만 집중되고있었던 일고재학조선학생들과의 사업을 일상적이며 기관적인 사업으로 전환할뿐아니라 본부, 지부 단위의 학생회와 역원들의 역할을 제고하며 맹원을 더 확대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미 3월말에 있은 일고재학조선학생들의 봄방학강습회(각지의 역원들 130명이 참가)에서 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호소하였는바 참가자들은 운동에 주인답게 나서 반드시 자기 지방의 학생회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활동을 더 활성화할것을 결의하였다.

각지 조청조직들에서는 4월말까지를 1단계, 6월말까지를 2단계, 8월말까지를 3단계, 마지막 10월 10일까지를 4단계로 정하여 단계별목표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그리하여 학생회역원의 확대, 1만 8천명의 포착 및 실태조사, 청년학교사업 추진, 여름방학강습회의 성과적수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긍정창조와 일반화, 호상 경험교류와 경쟁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이에 호응하여 오사까, 효고를 비롯한 각지 학생회들에서는 학습반을 시작하였으며 전반기청년학교의 호조반들에 수많은 일고재학조선학생들을 망라하였다.

또한 《새세대》, 《조선청년》(일문판)을 보다 많은 회원들이 받아읽도록 하기 위하여 출판물독자확대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모범창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일고재학조선학생들

조선분단고정화책동을 규탄
4.19일조련대도꾜청년집회

4.19일조련대도꾜청년집회(주최 일조련대도꾜청년위원회 집회준비위원회)가 19일, 스이도바시에 있는 젠데이회관에서 진행되였다.

150여명의 참가밑에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조청본부 김경호위원장의 련대연설에 이어 마에다 야스히로기자가 《최근의 조선반도정세와 일본—남조선비행기사건의 허위를 폭로한다》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계속하여 조청본부일군이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침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특별보고를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련대하며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미일남조선반동들의 조선분단고정화책동을 규탄하고 남북대화의 조기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집회에 앞서 비데오편집물 《꽃다발을 준 소녀는 저입니다》가 상영되였다.

【조청도꾜】

《제재조치》철회요구 결의
조선통일지지 미야자끼현위원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미야자끼현위원회 결성 10돐기념 총회와 대강연회가 지난 16일, 미야자끼시 중앙공민관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고다마 히데자도사무국장이 결성후 지난 10년간의 보고를 한 다음 총련 미야자끼현본부 김진곤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총회가 끝난후 마에다 야스히로기자가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강연자는 최근시기 급속히 변화되고있는 남조선정세와 조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말하고 일본인들이 조선문제를 제3자적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미야자끼지국】

4월명절에 즈음하여
아이찌에서 동포녀성심포쥼

조선사람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안고 떳떳이 살리라

아이찌현에서 처음인 녀성들의 심포쥼이 지난 13일, 조은아이찌본점 강당에서 300명의 동포녀성들의 참가밑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심포쥼이라고 하니 어렵게 생각하여왔지만 참가해보고 사업과 생활의 절실한 문제들이 알기 쉽게 론의되여 좋은 자극을 많이 받게 되였다고 하는 동포녀성들이 대다수였다.

이날 돈으로는 살수 없는 귀중한것을 얻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마당을 마련해주면 하는 감상들이 여러군데서 들렸다.

후대교양에서 어머니들이 큰 역할을

심포쥼의 제목은 《현대조선녀성의 삶》.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일조선녀성운동을 밀고나갈 주인공인 젊은 녀성들이 어떻게 살며 애국사업에 이바지하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등의 문제를 다같이 생각해보자는것이였다.

오전 11시, 개막시간이 다가오자 비오는 속을 한사람, 두사람 또 지부별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속에는 소형뻐스를 타고 찾아온 가모지부 녀성들도 있었다.

녀성들만의 심포쥼의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를 향상시키자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것인가 알고싶어서 하는 녀성들의 기대가 차넘치는 가운데 심포쥼이 시작되였다.

주최자측의 개회연설에 이어 사협 서일본본부 박종명고문이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는 이국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후대들을 참된 조선민족으로 키워나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거기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자못 크다고 이야기되였다.

어머니들자신이 참된 조선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세와 립장을 똑똑히 세워 학교와 가정이 하나가 되여 후대교육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되였다.

《오늘 이야기된것은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살아나가기가 바빠서 잊어버리고있는 문제이지요.

조선사람으로 살아나간다, 그 당연한 문제이지만 언제나 명심해야 할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하도록 해주었습니다.》(녀성동맹 모리야마지부 김경자녀성)

자기 향상을 위한 녀성들의 노력

강의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였다.

1세를 대표한 김홍선녀성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두고 투쟁하여온 1세들의 마음을 살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또 2세를 대표한 림정자녀성은 우리는 1세의 피나는 투쟁결과로 민족교육을 받고 많은 일을 해올수 있었다, 1세가 단결해서 마련해준 이 환경을 후대들에게 긍지를 가지고 넘겨줄수 있도록 하자고 토론했다.

또 딸과 함께 다닌 문화교실을 통하여 조선녀성으로서 살아나가게 됐다고 하는 리삼순녀성도 언어가 민족의 원점이기에 원점에 서는것이 민족의식을 심어주는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의 경험을 토론했다.

《일본에서 산다는것은 조선사람으로 자기를 단련시키는데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자기는 집안에서 바깥의 세계도 모르고 생활하고있는데 이렇게 많은 녀성들이 자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모습에 놀랐다.》

《실천을 통하여 재일조선인으로 힘껏 살아나가고있는 녀성들의 모습에 감탄했다. 현시대를 사는 녀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 설득력이 있어서 공감을 느꼈다.》

토론을 듣고나서 참가자들은 자기들의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있었다.

오까자끼시에 사는 정춘자녀성은 《지금 가장 생각해야 할 문제—조선사람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아이들에게 전하려면 어머니인 우리들이 똑똑히 배우고 그것을 거듭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재인식했습니다.》고 감상문을 썼다.

아이찌동포녀성심포쥼은 젊은 녀성들에게 후대들을 위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떳떳한 조선녀성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굳은 신념과 인생관을 다시한번 안겨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강연을 진지하게 귀담아듣는 심포쥼참가자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4월남북련석회의 40돐 —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북남련석회의 소집방안

1948년 4월에 열린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40돐이 되는 올해 첫아침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안은 올해에 북남사이의 몇가지 당면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1988년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전환의 해로 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된것으로서 그 취지자체가 공화국정부의 애국애족적인 숭고한 리념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합니다. 북남련석회의가 마련되면 북과 남의 격페상태를 마스고 온 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을것입니다.》

이 방안이야말로 현시기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대결관계를 화합관계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결정적인 새 국면을 마련할수 있는 가장 시기적절하며 정당한 구국제안이다.

1948년의 4월남북련석회의와 이번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는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 호상관련성이 있다고 볼수 있다.

두개의 련석회의방안의 공통점은 ①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회의들을 직접 발기하시였다는것 ②회의들에서 조국과 민족 앞에 닥쳐온 당면한 민족적위기(분렬과 전쟁)를 타개하는 구국대책을 세우자는것 ③사상,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자는것 ④회의들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거족적의사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전민족회의, 정치협상회의의 성격을 띠고있다는것 ⑤방안제의 배경으로서 자주, 민주, 통일, 평화를 열망하는 남조선민주세력의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이 앙양되고있다는것 등을 올릴수 있다.

또한 량자의 차이점으로서는 ①4월련석회의의 목적은 미제의 《단선단정》음모 등 민족분렬책동에 대처하고 당면하여 조선의 분렬을 막고 전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자는것.(통일문제) 그러나 이번 제안은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자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긴장완화와 평화보장) 그것도 제안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근본문제를 제기한것이 아니라 군사연습중지, 다국적군축회담실현, 올림픽공동주최, 비방중상중지 문제 등 당면하여 풀지 않으면 안될 시급하고 최소한의 현안문제를 제기했다는것이다.

차이점으로서는 ②4월련석회의에서는 리승만, 김성수를 비롯한 극일부의 친미친일세력을 협상대상에서 배제했다. 그것은 회의에서 협의할 문제가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단선단정》의 음모 저지파탄과 통일적중앙정부수립에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의 제안은 남조선당국자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도록 되여있다. 그것은 이번 회의에서 협의할 문제의 직접적당사자가 남조선당국이기때문이다. 로태우도당은 미제의 사촉밑에서 핵전쟁을 위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하고있으며 올림픽을 단독으로 개최하여 분렬을 국제적으로 고정화하려 하고있으며 대화상대방을 비방중상하고있다. 동시에 작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자 1,250만명(64%)의 인민들이 군정연장을 거부하고 민주정부수립과 조국통일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제안에서는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광범히 참가할것을 호소하고있는것이다.

량자간의 호상관련성을 본다면 4월련석회의의 성과와 경험, 교훈에 토대하여 그리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한 그 빛나는 본보기에 기초하여 이번 북남련석회의는 해방후에 진행되는 두번째의 전민족적인 회합으로 된다는것이다.

이번의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이 실현되면 그것은 실로 커다란 현실적의의를 가지게 된다. ①북남련석회의가 소집되여 4가지 현안이 풀리면 그것이 근본문제(미군철수, 조미간의 평화협정 체결, 북남간의 불가침선언 채택)를 푸는 돌파구로 되며 그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크게 전진될것이며 ②제안이 실현되여 북남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앉으면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이루어져 대결의 시대가 종식되고 민족단합의 시대가 열리게 될것이며 ③긴박한 올해를 화해와 단합의 해로 하는 전기가 마련될것이며 ④전체 조선인민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서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도 조국인민들과 함께 북남련석회의의 소집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것이다. (끝)

(최종헌)

피로써 지킨 민족교육을 계속 강화발전시키자

4.24한싱교육투쟁 40돐 민족교육심포쥼 오사까에서 진행

4.24교육투쟁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투쟁이였다.

올해 4.24교육투쟁 40돐을 맞이하여 동포자녀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우는 민족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시기 치렬한 투쟁이 벌어진 한싱지역의 오사까(조은오사까본점 강당)에서 17일 사협 서일본본부의 주최로 4.24한싱교육투쟁 40돐 민족교육심포쥼이 진행되였다.

먼저 연설한 총련 오사까부본부 김병수부위원장은 심포쥼이 사협일군은 물론 모든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한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로 될것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심포쥼에서는 《4.24교육투쟁과 민족교육 40년의 걸음》이라는 사협 서일본본부 리대회회장의 기조보고가 있은 다음 민족교육.민족학급과 가정교육의 두개 분과로 나뉘여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였다.

기조보고에서는 4.24교육투쟁이 일어나게 된 정치적배경 즉 조선에서의 침략전쟁도발에 광분한 미일반동세력이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적인 지향, 민족교육의 권리를 총칼로 탄압하는 조선민족말살정책, 동화정책에 대하여, 해방된 민족의 영예도 드높이 아들딸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조국의 역군으로 키워내려는 재일동포들 특히 한싱, 오사까 지역동포들의 희생적인 투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였다.

기조보고에서는 피로써 지켜낸 민족교육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총련이 결성되여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를 확립하게 됨으로써 강화발전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강조됐으며 현시기 민족교육사업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문제들이 이야기되였다.

이어 진행된 분과회에서는 《일본의 교육정세와 민족교육의 제 문제》, 《일교재학조선학생들의 실태와 과제》, 《가정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은 다음 참가자들의 질문, 의견제기와 토론이 활발히 벌어졌다.

또한 일본학교에 재학하는 조선아동들의 교육을 생각하는 회의 오따 도시노부교원이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에 련대하는것은 일본교육의 민주화를 위한것이라고 특별토론을 하였다.

이날 심포쥼에서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계속 굳건히 지켜나가며 특히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4.24교육투쟁과 그 의의에 대하여 젊은 동포들에게 적극 알려 민족교육을 지켜나가자는 사회적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4.24한싱교육투쟁에 대해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기조보고를 듣는 참가자들

《등록증》불휴대에 무죄판결

《형벌 가할 정도의 위법성 없다》

—오사까고등재판소에서—

《등록증》불휴대를 리유로 체포당하고 벌금형까지 받은 동포청년에 대한 공소심판결공판이 19일, 오사까고등재판소 형사4부에서 진행되여 1심판결(벌금 8천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언도하는 역전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에서는 《등록증의 상시휴대, 제시의무는 헌법상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제한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체포되였을 때 신분을 증명하는 학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것만큼 형벌을 가해야 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었다》는 주목할만한 판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불휴대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려는 지나친 법운용들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대할것을 사촉하는 사법판단으로서 《등록》제도자체의 발본적인 시정을 주장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요구와는 아직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날로 고조되는 내외여론과 지난해 일본국회에서 채택된 부대결의의 취지들을 일정하게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수 있다.

이 재판은 오사까시 히가시요도가와에 거주하는 금상일청년(26살)이 5년전 《등록증》을 깜빡 잊은채 간사이대학에서 수업을 받은후 저녁에 남조선민주화를 요구하는 삐라를 붙이고있다가 길가에서 《등록법》위반으로 체포당하게 된데로부터 일어난것이다.

이꾸노간이재판소에서의 1심에서는 《공공복지의 범위내에서 하는수 없는 일로 해석된다》고 구형대로 벌금 8천원의 부당한 판결을 내리였다.

이에 있어서 1심판결에서는 《등록법에서의 휴대란 제시를 요구당했을 때 그에 응할수 있는 상태나 정도에 있어야 하는것이다. 상시휴대제도에 의한 이동의 자유의 제약도 시인한다》는 무지막지한 판단이 기초에 깔려있었다.

일본당국이 지난 시기 《등록법》을 휘둘러 재일조선인에게 닥치는대로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며 깜빡 잊은 경우에도 체포하며 인권침해행위를 거듭해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년간에도 《등록증》불휴대로 검거당하며 략식기소나 벌금에 처하고있는 수는 일본 각지에서 년간 2천명에 달하고있다.

하기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상시휴대의무, 형벌제도 폐지를 비롯한 《등록법》의 발본적인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한편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심히 유린하는 지나친 법운용을 시급히 시정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해온것이다.

이번 공소심공판에서도 피고와 변호측에서는 재일외국인이 항상 《등록증》휴대에 신경을 써야 하며 외출하다가 불휴대를 깨달았을 때에는 자택까지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인 긴장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실태를 밝혀왔다.

이런 속에서 이번 공소심판결에서는 ①체포당했을 때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 대용할수 있는것들을 제시하였다 ②체포장소는 자택으로부터 전차로 약 1시간으로서 생활권으로 인정할수 있다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형벌을 가해야 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것이다.

《등록증》상시휴대와 관련한 재판으로서는 1967년 9월에 고찌간이재판소가 《행동한 범위도 좁고 시간적으로도 짧았다》고 무죄판결을 언도하고 69년 3월에 다까마쯔고등재판소에서 확정된바가 있었다.

이번 판결은 재일조선인을 범죄인취급하며 《법》을 휘둘러 인권유린행위를 거듭하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가 내외의 지탄을 받고있는 속에서 나온것만큼 무게가 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지난해 일본국회에서 채택된 중의원과 참의원의 부대결의의 취지에 맞게 《법운용에서는 람용하는 일이 없도록 상식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처할것》을 촉구한 사법판단이 되였다.

그러나 공소심판결에서는 법운용을 일정하게 제한하였을뿐 상시휴대의무를 비롯한 《등록》제도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있다.

《등록법》을 휘두른 인권침해사건들이 없어지지 않는것은 재일조선인을 치안대상으로 보고 관리규제하려는 《등록법》과 《등록》제도 그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본당국은 이번 오사까고등재판소의 공소심판결에서 교훈을 찾고 《법》운용에서 신중히 대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요구하는대로 《등록법》을 발본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할것이다.

발본적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총련 오사까부본부 신기일사경부장 담

《등록증》불휴대에 대한 재판에서 오사까고등재판소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역전무죄판결을 내린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다.

상시휴대의무제도에 의하여 항상 인권을 침해당하고 불안속에 있는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 고무적인 판결내용이다.

이로써 《등록증》의 상시휴대의무의 부당성은 더욱 명백해졌다.

우리는 법무성과 경찰당국이 판결을 엄숙히 받아들여 금후 지문압날과 상시휴대의무 제도, 부당한 벌칙제도 등의 폐기를 지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주간일지

4월 6일(수)～4월 19일(화)

북반부

6일(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수리아대사가 신임장을 봉정.

7일(목) 위대한 수령님께 짐바브웨와 인도네시아의 대사들이 신임장을 봉정.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 폐막.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18일 폐막)

8일(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주의캄보쟈 주석을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심.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심.

11일(월) 평양국제문화회관 개관.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대한 정치인, 학자, 언론인 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13일(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안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심. ◆김정숙탁아소 새로 건설.

14일(목) 위대한 수령님께서 108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심. ◆위대한 수령님께 쏘련, 중국의 지도자들과 여러 나라에서 축하와 친서, 선물,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옴.

15일(금)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16일(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연극 《경축대회》 공연을 보심.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을 접견하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동차공업부문사업을 지도하심. (16일호 《로동신문》이 보도)

17일(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련환공연을 보심.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의 여러 대표단들과 상공인들을 접견하심.

18일(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지리국회대외정책위원회 전 위원장일행을 접견하심.

19일(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40돐기념 연구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재일동포

8일(금) 한덕수작사 가요선곡집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 출판기념모임 조선회관에서 진행. ◆총련 도꾜도본부 대표들이 일본외무성을 찾아가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철회하며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규제를 중지할것을 요구.

10일(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의 참가밑에 1988학년도 조선대학교 입학식 진행.

14일(목)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와 축하연 진행.

17일(일) 4.24한싱교육투쟁 40돐 민족교육심포쥼, 사협 서일본본부 주최로 오사까에서 진행.

19일(화) 4.19 28주년 재일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진행.

남조선

7일(목)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 16개 대학 학생 2천여명, 평화통일대행진 전개.

8일(금)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 학생 1,500여명, 파쑈도당의 폭압만행에 항의하여 반《정부》시위 단행.

9일(토) 카톨릭농민회 등 재야단체, 반《민정당》총선투쟁민주련합을 결성.

12일(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10개 대학 학생대표 2천여명, 로태우도당을 반대배격하여 견결한 투쟁 전개.

16일(토) 건국대, 서울사립대 등 10여개 대학 학생 250여명, 건국대에서 학생련합발족식을 가진후 견결한 반《정부》시위 단행.

18일(월) 서울시내 10개 대학 학생 2만여명, 《독재를 타도하라》, 《양키는 제집으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견결한 반미, 반《정부》 투쟁 전개.

국제

12일(화) 일본의 각계 대표들 200여명이 중의원회관에서 일본정부의 부당한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짐. ◆《워싱톤 포스트》지가 남조선정치범들에 대한 군사파쑈도당의 폭압만행을 폭로.

14일(목)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이 이 나라 주객들과 우리 나라 대사를 만나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지지한다고 언명.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共和国創建40周年を輝かしい事業成果で

「5ヵ月愛国革新運動」を展開

今年度の課題、超過達成を

総聯中央委・14期3回会議

総聯中央委員会第十四期第三回会議がさる二十、二十一の両日、東京で開かれ、共和国創建四十周年を輝かしい事業成果で迎えるための「五ヵ月愛国革新運動」を大衆的に繰り広げることを提起、決定した。会議では李珍珪第一副議長の報告に次いで多くの中央委員らが討論した。同報告と、革新運動を呼びかけた中央委の文書が採択された後、韓徳銖議長が会議の結語を行った。九月九日の国慶節に向けて五月から九月まで、各地で革新運動が展開されることになる。

李珍珪第一副議長は報告のはじめに、民族の慶事であり歴史的里程標となる共和国創建四十周年の意義について言及、その四十年の歩みは朝鮮人民が金日成主席と金正日書記の周りに固く団結して、革命と建設を前進させた栄光と創造の歴史であったと述べた。

そして、共和国の創建と四十年の歴史は、異国に住む在日同胞らの事業と生活にも根本的な転変をもたらせたと指摘しながら、自己の生活体験を通して祖国の繁栄と自己の運命とが一つにつながっていることを自覚するがゆえに、在日同胞らは過ぐる四十年間、変わらぬ気持ちで愛国・愛族の道を歩んで来たと語った。

つづ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創建四十周年を輝かしい事業成果で迎えるための五ヵ月愛国革新運動」（略称―五ヵ月愛国革新運動）を提起した第一副議長は、同運動がすべての活動家と同胞らの意思と志向性を反映したものであり、愛国事業の新たな転換、在日朝鮮人運動の一層の発展を切り開く大衆運動であると、その特徴を述べながら、今年の六つの課題と八つの重要目標を超過達成して、九・九節を迎えることが同運動の目的であると強調した。

また、運動期間の活動については、①祖国の社会主義建設に寄与する②南朝鮮人民の闘争を支持し、統一偉業を促進させる③組織の大衆的地盤を拡大する――などの三つの点を挙げながら、その具体的な内容と方途について語った。

とくに第一副議長は、同運動の決定的なポイントが大衆路線の貫徹であるとしながら、現在行われている「愛国栄誉旗獲得運動」と絡めて、同運動を同胞ら自身の運動として展開していこうと呼びかけた。

報告に続いての討論では、KAL機事件と関連した内外反動らの反共和国、反総聯謀略策動を粉砕するための様々な活動や経験、今運動へ取り組む中央委員らの意欲や決意が反映された。

会議では韓徳銖議長が結語を行った。

討論を通じて、謀略策動に対処した各地の活発な活動経験や成果が総括されたと述べながら韓議長は、その教訓として、活動家と同胞らが一致団結して祖国と組織を守るために立ち上がるならば、いかなる難関も乗り越えられる、また、情勢を正確に分析し、方法論を確立して事に当たるならば、複雑な環境の中でも運動を絶え間なく発展させることが出来る、と指摘した。

韓議長は、その教訓を生かすためにも、活動家たちの運動に取り組む姿勢が問われると、その役割向上について言及、活動家らが今運動の目的と意図、要求性を十分に把握して、先頭に立って運動を繰り広げてほしいと語った。

今回の中央委の決定に基づき、各地では一斉に本部執行委員会をはじめ各単位で運動へ取り組む準備に入る。

「五ヵ月愛国革新運動」は第一段階（五月～六月末）、第二段階（七月～八月二十日）、第三段階（八月二十一日～九月末）に分けて進めら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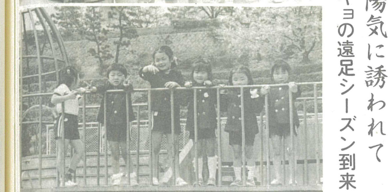


各地の分会では「愛国栄誉旗獲得運動」を力強く展開している（同運動推進とウリ学校卒業生、新入生を祝う集い―総聯大阪・堺支部西分会）

話題

ポカポカ陽気に誘われて ウリハッキョの遠足シーズン到来





春、遠足のシーズンである。

各地のウリハッキョでは、四月に入ると課外授業の一環として、野へ山へと出かける。

西播朝鮮初中級学校の幼稚班の子供たち二十八人（保育班児含む）は、春のなごりの桜の花びらが舞う手柄山公園（兵庫県姫路市）へ遠足に行った。

公園内の植物園では、珍しい花や木を見た子供たちが「あれ何の花？」「この木の名前は？」と、好奇心いっぱい。

遠足といえば、お楽しみはお弁当の時間。子供たちはオモニが作ってくれたおいしい弁当に大満足。おかずを交換したり、おやつを分けたりして楽しいひとときを過ごした。

大変だったのはソンセンニムたち。この日一日、子供たちのわんぱくぶりにてんやわんや。ご苦労さまでした。

カルバラム 칼바람

大学学長と労働者妻の死

十八日付「東亜日報」の社会面に「自殺」に関する記事が二つ出ていた。一つは、ソウルにある建国大学校農科大学学長・李庚熙が学内の研究室で自殺したという記事で、あと一つはソウル九老区に住む日雇い労働者の妻が家で自殺した、という記事だった。

建国大農科大では、実習農地を図書館通路にする、と大学側が決定したことに対し学生が反発。さる十四日から総長室を占拠して決定の取り消しを求めていた。警察当局は「学生の過激な動きに悲観したため」と発表したが、南の新聞ではその発表に疑問を投げている。実習地を通路にしないでほしい、という学生の要求は正当であり、それが自殺とは結びつかないからだ。「当局側から圧力がかかったのが原因ではないか」（「韓国日報」十九日付）。疑問の死である。

九老区での「自殺」とは、鄭武炫という労働者の妻がバスの中で一万五千ウォン（二千六百円）をスラれたことを悲観、「夫が汗水流して稼いだお金なのに…」と言い残して自殺した事件。ゆがんだ社会構造が生んだ、悲しい事件だ。

チャリティーゴルフ

実行委の努力実る

愛知中高創立40周年記念

愛知朝鮮中高級学校創立四十周年記念チャリティーコンペがさる十九日、同実行委員会（権五成会長）の主催により、額田郡にある額田ゴルフクラブで催された。

二十日が愛知中高の創立記念日ということで、同ゴルフコンペはいわば"前夜祭"。昨年末から当日まで四ヵ月間にわたって実行委のメンバーがち密な準備を進めた結果、卒業生をはじめ二百人の同胞が早朝から会場にかけつけた。同日、総聯愛知県本部・康潤環委員長、愛知中高・金宗鎮校長をはじめ、関係者らが多く参加した。

朝八時にプレー開始。ペリア方式で昼過ぎまで競技を楽しんだ後、表彰式を兼ねた立食パーティーが持たれた。

当日の賞品は四十周年にちなんだものが多かったが、それらはすべて実行委員（十二人）が"寄贈"したもの。テレビや自転車など、実用的で豪華な賞品を手にしながら参加者たちは笑顔に包まれていた。

来る二十四日には、学校創立四十周年記念行事として連合同窓会が愛知中高で開かれる。

協議会間の交流深める

京都第一初級

京都朝鮮第一初級学校チャリティーゴルフコンペがさる十九日、宇治田原カントリークラブで行われた。

同地域の青年商工人協議会である伏見協議会「伏見経済同友会」、南協議会「南友会」、西協議会「西友会」の共同主催で開かれた同コンペには、同胞商工人ら百二十余人が参加した。

毎年春さきに行われてきた同コンペも今回が三回目。各協議会の交流と団結も年々強まり、その内容、規模も充実、同胞たちのチャリティー熱も高まっている。

とくに今回は、五十余人の商工人たちが協賛金、賞品など、準備を進んで買って出た。そのかいあってコンペの方は盛況。プレー（優勝―姜炳天さん、準優勝―鄭義雄さん）はもちろん休憩に至るまで、楽しく規則正しく進められた。



3回目のコンペ、年々内容も充実（京都）

朝日親善と友好兼ねる

三重・鈴鹿協議会

三重青年商工人協議会チャリティーゴルフコンペが十九日、三重・鈴峰カントリーで行われた。

三重・鈴鹿協議会「朝鈴会」（申秀九会長）の主催で開かれた同コンペには、青年商工人や同胞たち、また県・市会議員九人を含む日本の友人ら二百五十余人が参加した。

これは学校へのチャリティーと朝日友好のため開かれたもので、六年ぶり二回目になる。

あいにくの雨と風で条件は悪かったが、プレーのほうは順調に進み、盛況だった。

家族ぐるみで親ぼく

第5回ソフトボール大会 京都・「西友会」

京都・西地域協議会「西友会」主催、第五回ソフトボール大会が十七日、京都朝鮮第三初級学校運動場で催され、会員をはじめ同地域同胞ら九十七人が参加した。

前日まで雨天つづきで開催が危ぶまれたが、当日は朝から晴れわたり、絶好の"野球日和"となった。

定例行事として催されている同ソフトボール大会は、会員はもとより夫人や子供を含めた家族ぐるみの親ぼく行事として定着しており、当日も四十五人の子供たちがアボジ、オモニと一緒に楽しいひとときを過ごした。

この日、会員たちで二チームを構成し、五回戦で三試合を行った。そして、一試合が終わったところで「西友会」が準備した焼き肉を囲んで食事会が催され、子供たちにはお菓子が配られた。

金孝吉会長、宋慶相幹事長ら協議会役員たちの努力が実って、同日のソフトボール大会は盛況を収めた。

東日本地方

活性化への具体策講ずる

協議会代表者たちの集い開く

東日本地方青年商工人協議会代表たちの集いがさる十一日、東京・上野にある朝鮮商工会館で行われた。

共和国創建四十周年を迎える意義深い今年、協議会活動をはじめ祖国と組織に寄与する活動に一層取り組んでいくことを目的とした同日の集いには、関東・東北地方の協議会代表と、商工会の担当者らが参加した。

はじめに、商工連合会・崔一洙理事長があいさつに立ち、現情勢に照らした協議会運動の重要性と役割について言及した。

つづいて、各地域協議会代表たちが昨年一年間の活動報告を行った。報告では、文化講座、経済セミナー、情勢講演会、それにチャリティーコンペや敬老会、ソフトボール大会など地域の特性と同胞の要求に応じた様々な行事を企画して成功を収めた経験が語られ、併せて、高まる要求に対処するうえで解決すべき問題についても率直に語られた。

集いでは、協議会活動をより活性化するための商工連合会の報告がなされた。

「情勢が緊迫し、若い同胞たちが民族自主意識をしっかり堅持して組織に結集することが何より大切な問題として提起されている」としながら報告では、①協議会会員の拡大②会員たちの要求に応じた活動の展開③幹事たちの役割向上④機関を挙げての協議会活性化に向けた努力――などが主要課題として指摘された。

報告の後、今後の活動に関して活発に意見交換が行われた。



集いでは、協議会活動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討議された

視標

日本経済の"戦後"

日本がGHQの占領支配下にあった時、元駐米大使であった朝海浩一郎氏がポーレ米大使（当時）から米国の賠償政策を聞き出して報告をしたことがあった。その報告の中で日本に年間百二十万㌧の鉄生産を許すという話を聞いて、涙を流さんばかりの喜びを表したのが当時商工大臣だった小笠原氏だったという。

一九五六年の日本経済白書は、「もはや"戦後"ではない」と新しい時代の到来を告げ、話題になった。

サンフランシスコ単独講和条約が一九五一年九月に結ばれたので、日本がいわゆる「独立」してから今年で三十七年になるが、すべてがアメリカの許認可下にあった戦後は終わったのであろうか。

アメリカの強烈な圧力は、姿を変えた形で今日も続いている。

四月八日、ジュネーブで開かれた関税貿易一般協定（GATT、ガット）の臨時理事会で、「日本の牛肉・オレンジ輸入制限はガット違反だ」とアメリカは日本をたたいた。数量制限廃止を突きつけている。

五十兆円という日本市場を狙って米企業の参入を許したのが日米建設交渉だった。すでに（四月六日）米商務省は、米企業が参入機会を得た事業として総額二兆二千億円にのぼる十五の大型事業リストを発表している。

無理を通せば道理が引っ込むというのだろうか。政治的な圧力に屈している日本を哀れむか、落ち込んでまで暴力を振るっているアメリカを憎むか、むずかしいところだ。（尹）

東京中高芸術サークルが出演

東京ディズニーランドが主催のミュージックフェスティバルに

東京朝鮮中高級学校の芸術サークルが来る五月三日、東京ディズニーランド開園五周年を記念して催されるミュージックフェスティバルに参加する。

このフェスティバルは、東京ディズニーランドのオープニング以来毎年行われているが、ウリハッキョが参加するのは初めて。

フェスティバルには同校の声楽部、民族楽器部、舞踊部、吹奏楽部、ギター部のサークル員ら百二十人が出演し、舞踊「万豊年」をはじめ民族楽器重奏、女性重唱など四十分間におよぶ芸術公演を披露する。

※出演時間―午前十一時～十一時四十分、アドベンチャーランド

会社スポット

二十八年前に鉄くず業を興し、生産業一筋に会社を営んできた李炳潤氏（愛知・西三商工会会長）が経営する「中山商店」は、一般生活の中に深く浸透したゴムの生産と加工を主要業務として着実に業績を伸ばしている。とくに、氏が開発した「ゴム・カッティングマシーン」は現在、その優れた性能が内外の注目を集めている。「中山商店」の「カッティングマシーン」とはどういう機械なのか。また、同機械製造に至るまでの「中山商店」の歩みはどうであったのか。今回は、日本はもとより世界的なシェアを誇る同社のキラリと光る一面にスポットを当ててみる。（完）

中山商店

ゴムの生産加工で躍進遂げる

ゴム・カッティングマシーンの開発に成功

ミクロンの精密さ求めて

「カッティング」とは物を切ることであるが、李氏が開発した「ゴム・カッティングマシーン」はOA機器、オーディオ製品の駆動する部分に使われるゴムベルトを、用途に応じて切断する機械である。

しかし、ただ単に切るのではない。製品の可不可を左右するこのゴムベルトの製造には、ミクロン—百分の一ミリという精密さが要求される。幅や長さの寸分の誤差はオーディオ製品にままみられる雑音発生の原因となるからだ。

氏が開発した機械は、柔らかいゴムを希望のサイズに正確無比に切断するもので、現在、日本の大手電気メーカーのOA機器、オーディオ製品に使われている駆動ベルトの五〇%は、中山商店の「ゴム・カッティングマシーン」で切断されている。

従来の機械と比べた場合、操作が簡単であるということが何よりの特徴だ。

旧式の機械はカムとギアだけの旋盤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これは専門的な知識と技術が必要とされ、素人では扱いにくいとされていた。しかし、中山の機械はデジタルスイッチを採用しているため、基本的な操作方法さえ覚えれば誰にでも使える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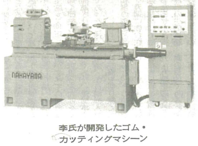
つぎに切断寸法が一定している点である。中山の機械にはNC（切断幅を一定にする制御装置）が組み込まれており、これがベルトを切断する際に生じる微妙な誤差を無くすのである。また、切断するスピードも従来のものに比べて数段速い上に材料のロスも少なく、耐久性にも優れている。

このような利点から「ゴム・カッティングマシーン」は、日本のみならず世界の市場でも絶賛され、先月の十三日から十九日にかけてドイツ民主共和国で開催された「ライプチヒ春季国際市場」（参加国六十五、参加企業九千社）で、金賞の栄誉に輝いたのである。

氏は受賞式当日を振り返って、「現地の駐在大使の方が、私の受賞を本当に喜んでくれました。祖国の発展に寄与できたと思います」と語ってくれた。



ライプチヒ春季国際市場で金賞に輝いた李炳潤氏



李氏が開発したゴム・カッティングマシーン

「私の技術は祖国の技術」

中山商店は一九六二年に設立された。当初は自動車部品を加工する機械を作る、小さな下請け会社であった。

「会社を経営するからには、どんなに小規模でも自社製品を作らなければ、と十年の下請け時代に思いました」

そこで着目したのがゴムを使っての生産業であった。

「その当時、ゴム関係はあまりメジャーな部門ではなかったんです。扱いもむずかしい上に、ましてや百分の一ミリの世界でしょう。でも、そこが狙い目なんです」

それからは、以前の工場操業を一年間ストップさせて、ゴム切断機の開発に乗り出した。どうすればあの柔らかく、扱いにくいゴムを自在に切れるか、あれこれと試みた。苦心を重ねた結果、十二年前に最初の機械を作るのに成功し、販売を開始した。そして氏は、その機械にさらに改良を加え、現在の「ゴム・カッティングマシーン」を三年前の一九八五年に完成させたのである。

「開発精神というか、常に上を見る姿勢が大切だと思います。一つひとつの経験の積み重ね、改良に改良を加えた結果が今の機械を完成させたんでしょうね」

氏は「ゴム・カッティングマシーン」の開発に携わるかたわら、ゴムの生産にも目を付けた。つまり自社製のゴムと機械を使って一つの製品を作ろうと考えた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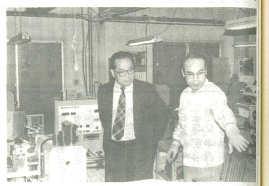
ゴム生産で難しいのは原料と薬品の配合であるが、氏は配合の技術を息子に学ばせることによって問題を解決し、五年前に「オーディオゴム・テクニカル株式会社」（東京・墨田区）を設立した。

同社では原料と薬品の配合からロール、プレス、研磨、加工に至るまでの一貫生産を実現させ、今では全ての工程を自社の機械と製品でまかなっている。

「大学を出てすぐ、小さい会社ながらも社長になりました。自分でも少し頑固な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でも私と同じ年代の人には、なにに対しても一本筋を通す姿勢が見られます。そういう人は、例えば私のように生産業を営む同胞は製品管理が徹底していて、ち密な計算と、常に五年から十年くらい先を見通していると思います。会社経営の基本はこういうところに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愛知では、氏のように生産業を経営する人は少ない。

「私の技術は、すなわち祖国の技術だと思っています。同胞商工人の中で生産業者は多くありませんが、キラリと光る存在でいたいですね」と、最後に語ってくれた。



技術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欠かせない

月曜セミナー

日本経済の混迷③

常軌を逸したジャパンバッシング

日本の貿易は、一九八七年（一月～十月）の輸出額が千八百七十億ドル（二十七兆六千百億円）、輸入額が千二百五億ドル（十七兆八千億円）であり、この結果、貿易収支は六百六十五億ドル（九兆八千百億円）の大幅な黒字となっています。他方、アメリカの貿易は、同時期に輸出額が二千四十三億ドル、輸入額が三千五百一億ドル、すなわち貿易収支は千四百八十五億ドルの大幅な赤字でした。これらの基本的な数値から一見して分かるように、現在の日米両国はそれぞれ非常に大きな貿易不均衡を有しており、資本主義世界経済システムを不安定なものに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貿易不均衡は日米間の貿易状況にその典型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昨年（一月～十月）、日本の対米輸出額は二百五十五億ドルで、収支は四百三十億ドルの輸出超過でありました。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貿易不均衡の是正と貿易構造の転換は、日本経済にとって迫られている構造転換の要といえます。

プラザ合意（一九八五年十二月）以降の円高、とりわけ一昨年から昨年にかけての急激な円高は、さしあたり日本の貿易構造に大きなインパクトを与えました。

円ベースで見ると、輸出は昨年初めから前年同期比でマイナスに転じており、八六年七月～九月期には対前年同期比でマイナス一八・五%に達しています。八六年の輸出額は一五・一%減少しました。これは日本の輸出産業にかなりの打撃を与え、その「構造調整」を迫るものでありました。のみならず、ドル安の結果として出てくるインフレ懸念と為替レートの修正による貿易収支への改善効果には限界があるという認識もあいまって、アメリカの対日貿易圧力がより高まっていることも見逃せません。しかし、日本の輸出は約六〇%の円高にもかかわらず、原油をはじめとする輸入原燃料の価格低下と、輸出産業の大規模な合理化、再編成（リストラクチュアリング）にもとづくコスト・ダウンによって輸出数量の減少を一～二%程度にとどめました。（輸出数量の基本的特徴）このことが、また他方では諸外国、とりわけアメリカとの間の貿易摩擦を激化させることにもなったのです。

一九八五年から八六年にかけて日本の対米貿易黒字幅は円ベースでは約八〇%減少しましたが、ドルベースでは約三〇%増加したためアメリカ議会においてさまざまな保護貿易法案が提案されました。

とりわけ、八七年四月に第三国市場でのダンピングを理由にアメリカが日本からのパソコン、カラーテレビ、および電動工具に百%の輸入禁止的関税を課したこと、および東芝機械のココム違反を理由としてジャパンバッシング（日本たたき）はまさに常軌を逸するものでした。このような円高と保護貿易政策の圧力は、日本の貿易不均衡の是正と貿易構造の再編をよぎなくするものであり、一層の市場開放に迫るものであります。

こうして、貿易摩擦の激化とそれによる保護貿易圧力、とりわけ円高にともなう輸出関連製造業の停滞と代替輸入の増大、生産拠点の海外移転といった「構造調整」は、今後、一段と加速するものといえます。（池永一）

日本の貿易収支（単位・億ドル）

	対米輸出	対米輸入	対米貿易収支
1980	329	207	122
81	398	216	182
82	399	207	192
83	435	216	220
84	604	236	368
85	724	226	497
86	855	269	586
87	880	282	598

同胞と相続税（1）

今日、在日同胞社会において世代交代が進む中で、「相続税」問題は同胞の間でも頭痛の種となっています。にもかかわらず、相続税に対する一般知識は、相続問題に対処できるレベルに達していないのが現状です。この欄では、「相続税の計算構造」「相続税の節税対策」「相続税法改正の展望」の三回に分けて、相続税に対する理解と対応力を身につけることにします。

相続税の計算構造

相続税とは、ある個人の死亡により、その個人が生前に所有していた財産（これには土地、建物等の積極財産と借入金の未返済額等の消極財産が含まれます）を継承した者に対して課せられる税金です。

相続税額は、次のような段階を経て算出されます。

（一）課税価格の計算→（二）相続税の総額の計算→（三）各人の納付税額の計算

（一）課税価格の計算

まず、税率を乗じる元となる課税財産の「価格」を計算します。

相続税において相続財産の価格は、原則として相続開始時（被相続人の死亡時）の時価としています。しかし、次のような資産については例外的にその評価方法を定めています。

①宅地（宅地の上に存ずる借地権を含む）—路線価方式（時価の三〇～五〇%）

②建物—固定資産税評価額（時価の四〇～七〇%）

この他、農地、山林など時価が確定しにくい資産についてもその評価方法を定めています。

（二）相続税の総額の計算

つぎに、（一）の計算を受けて相続税の総額を計算します。

相続税は、相続をした各人ごとに超過累進税率（税額速算表を参照）が適用されるため、遺産を細かく分割すれば適用税率が低くなり、納税者が有利になると思われがちです。

税法ではこのようなことを回避するために民法の「法定相続人」の規定を準用し、その割合いに従って財産を相続したと仮定します。そしてその各法定相続人の課税価格にそれぞれ超過累進税率を適用して算出した相続税額を合計します。

（三）各人の納付税額の計算

最後に、（二）で算出した相続税の総額を、実際に相続をした各相続人がそれぞれの相続財産の割合いに従ってあん分し、そのあん分した後の金額が各相続人の納付すべき税額となります。

なお、配偶者については、相続した財産が課税価格の総額の二分の一、あるいは四千万円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れば相続税が全然かからないという「相続税の配偶者控除」が認められています。

（四）おわりに

相続税はその計算構造がしめすように遺産分割にいくら工夫をしても納める税額がほとんど同額か、あるいはかえって増える場合もあります。

また、財産の種類によりその評価方法が異なるため簡単に見積り計算ができない面もあります。特に相続財産の大部分を占める宅地の評価は地価の上昇等を加味して毎年一回改訂されるため地価の上昇の激しい近年においては、以前の見積り額と実際の納付税額とが非常にくい違うケースがますます増えるでしょう。

「備えあれば憂いなし」という諺が示すように、身体の定期検診と同様、一回は商工会等の専門家による「相続税の定期検診」を受けることが必要でしょう。金光龍（朝大・経営学部教員）

相続税の速算表

法定相続人の法定相続額	税率	控除額
200万円以下	10%	—
500 〃	15	10万円
900 〃	20	35 〃
1,500 〃	25	80 〃
2,300 〃	30	155
4,800 〃	40	435 〃
10,000 〃	50	1,025 〃
18,000 〃	60	2,225 〃
50,000 〃	70	4,375 〃
50,000万円超	75	6,825 〃

ウリマル講座 15

文・朴点水

会話



☆ワンポイント☆

食事をしたかどうかを目上の人に聞くときは、「식사하셨습니까？」「저녁 잡수셨습니까？」といいます。同年輩の人や目下の人に対しては、ふつう男性は、「식사했소？」（食事した？）、「밥 먹었소？」（ご飯食べた？）といい、女性の場合は「식사했어요？」（食事しました？）、「밥 먹었어요？」（ご飯食べました？）と言えばいいでしょう。

「식사」（食事）や「저녁」（夕方）、「밥」（ご飯）のところを「아침」（朝）、「점심」（昼）、「저녁」に入れ替えるとそれぞれ朝食、昼食、夕食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

発音と文字

複合パッチム〔ㄺ〔k〕、ㄻ〔m〕、ㄼ〔p〕、ㄿ〔p〕〕の発音

このパッチムは全部右側をパッチム音として発音します。あとに母音が続くときは、左の子音をパッチム音に発音し、右の子音を連音させて発音します。複合パッチム「ㄺ、ㄼ」の後に、「고、기、게」がきた場合、パッチム音が「ㄹ〔l〕」に発音されることが多いようです。このとき「고、기、게」は「꼬、끼、께」に発音されます。

パッチム 文字	パッチム 音	例
ㄺ	ㄱ〔k〕	흙〔흑 hɯk〕土
ㄻ	ㅁ〔m〕	젊다〔점따 tʃɔmt'a〕若い
ㄼ	ㅂ〔p〕	넓다〔넙따 nɔpt'a〕広い
ㄿ	ㅂ〔p〕	읊다〔읍따 ɯpt'a〕朗読する

単語と文

읽다〔ikt'a イッタ〕読む

닮다〔tamt'a タムタ〕似る

밟다〔papt'a パプタ〕踏む

넋〔nɔk ノク〕魂

나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nanɯn abɔdʒirɯl talmas'ɯmnida〕

私は父に似ています

책을 읽고나서 시를 읊었습니다

〔tʃʰɛgɯl il(ik)k'onasɔ ʃirɯl ɯlpʰɔs'ɯmnida チェグル イル(イッ)コナソ シルル ウルポッスムニダ〕

本を読んでから詩を朗読しました

豆知識

朝鮮のなぞなぞ

물은 물인데 물우에 떠다니는것이 무엇이냐？

（水は水でも水の上に浮かんでいるものナーニ）

答 얼음（氷）

모두다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26일 （음력 3월 11일） 화요일 【루계 제10192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을 만나시였다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스위스로동당 총비서 쟝 슈필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을 만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황장엽비서와 김용순제1부부장,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천연옥부위원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님들과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쟝 슈필만동지는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을 만나시였다.

【평양~도꾜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 손님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쏘련군사대표단

【평양 4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쏘련군사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쏘련국방성 제1부상 대장 뽀뜨르 루쉐브단장이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

【평양 4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중국인민해방군 광주군구 정치위원인 장중선단장이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오지리 국회대외정책위원회 전 위원장

【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오지리공화국 국회대외정책위원회 전 위원장 프리쯔 마르쉬가 선물을 드리였다.

사설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줄기차게 벌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는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4월 20일과 21일의 이틀간에 걸쳐 열렸다.

（1）

이번 중앙위원회는 조국인민들이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에 총궐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이 파쑈폭압을 무릅쓰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리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빛나는 애국사업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와 총련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이 회의결정으로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회의의 전과정은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을 짓부심으로써 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총련의 애국사업을 크게 발전시켜온 일군들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차넘쳤으며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 모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함으로써 국경절을 빛내이려는 회의참가자들의 충성의 결의로 끓어번졌다.

이번 총련중앙위원회의 목적은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총진군에 발맞추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애국열성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 군중적인 애국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토의결정한데 있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두리에 광범한 재일동포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조성된 정세와 총련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을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로 더욱 강화하고 올해의 애국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획기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창건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공화국은 해내외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이며 어머니의 품인양 우리들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고 인생을 꽃피워주며 우리 인민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행복의 보금자리이며 희망의 등대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히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 죽음과 설음에 젖은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

해와 달도 빛을 잃었던 일제의 암담한 식민지통치시기에 재일동포들은 진정한 조국을 가지지 못한 해외교포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가 하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공화국을 일떠세워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은 비로소 자기 운명을 내맡길수 있는 참다운 옹호자, 진정한 조국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재일동포들은 설한풍 휘몰아치는 이국땅에서 살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존엄과 긍지를 안고 희망에 넘쳐 보람찬 삶을 떳떳이 누릴수 있게 되였다.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참된 조국, 그것은 사람들의 참다운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진정한 조국이 있어 재일동포들은 세상에 다시 태여나고 새 생명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열렬한 애국자로 자라나 세계해외교포운동의 앞장에 서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지구상에는 수천에 달하는 민족들이 200여개의 나라를 이루고있지만 오늘 우리 재일동포들처럼 이국땅에서 살면서도 민족의 영예와 자랑을 떨치며 조국의 뜨거운 숨결로 보람차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해외공민은 이 세상에 없다.

오랜 생활체험을 통하여 조국은 목숨보다도 귀중하다는것을 불변의 진리로 체득한 재일동포들은 자기운명을 사회주의조국에 의탁하고 40년동안 공화국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워왔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원쑤들의 책동으로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사회주의조국을 굳게 믿고 불굴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내외반동들의 파괴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왔다.

（2）

공화국기치따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한길을 끝까지 굿굿이 나아가는것—이것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장구한 투쟁을 통하여 굳힌 철석같은 신념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88년은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며 총련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우리 인민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으로, 진정한 어머니로 부르는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여 40돐이 되는 매우 뜻깊고 경사스러운 해이다.

조국인민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언제나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숨결로 값있게 사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도 장엄한 총진군을 다그치는 조국인민들의 불같은 충성심에 열화같은 애국충정을 합쳐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총련조직과 애국사업의 획기적인 강화발전을 위하여 용약 떨쳐나서야 한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국경절을 빛내이기 위하여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릴것을 결정하였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은 공화국창건 40돐을 민족적대경사로 맞이하려는 일군들과 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지향을 반영한 충성의 애국운동으로서 모든 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이며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보다 큰 발전의 앞길을 열어놓기 위한 보람찬 전진운동이다.

5개월애국혁신운동의 목적은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열의와 힘을 최대한 발양시켜 올해 6가지 주력과업과 8가지 주요목표를 모두 넘쳐달성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충성의 축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는데 있다.

회의는 애국혁신운동기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심과제를 제기하였는바 그 하나는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 혁명적신념을 더 깊이 심어주는것, 다시 말하여 수령관, 사회주의조국관을 철저히 세워주며 사회주의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내외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 로태우괴뢰역적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지게 하며 우리 위업에 대한 일본인민들의 지지여론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다른 또하나는 상공인을 비롯한 더 많은 동포들을 교양쟁취하여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확대공고화하며 학생수를 늘이는것이다.

이번 5개월애국혁신운동은 조성된 정세와 총련사업발전의 견지로 보나, 운동의 본질과 목적, 그 아름찬 과업에 비추어보나 총련의 모든 조직들,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을 총동원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총동원, 이것은 금번 혁신운동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구이다.

총련의 모든 본부, 지부, 분회는 물론 모든 단체와 사업체들이 하나로 분연히 떨쳐나 자체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3）

애국혁신운동을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일군들이 높은 사상적각오와 혁명적기백으로 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서 아글타글 애쓰며 간고분투하는것이다.

혁신운동의 성과여부는 우리 일군들이 어떤 사상관점, 사업기풍, 일본새로 일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리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군들이 일심단결하여 극성스레 달라붙고 아득바득 노력하는 단위에서는 언제나 혁신과 전진을 이룩하지만 그렇지 못한데서는 제자리걸음이나 하고 전반 사업발전에 제동을 걸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벌려온 혁신운동, 대중운동에서 얻은 심각한 교훈이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일심단결하여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애국혁신운동을 왕성한 기세로 이악하고 직심스럽게 벌려나가야 한다.

애국혁신운동을 추동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말 그대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해축전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는 전투적구호를 주시였다.

이 구호는 전체 총련일군들이 무조건 받아물고 지체없이 관철해야 할 지상명령이며 한순간도 어길수 없는 활동의 좌우명이다.

지금은 이 구호를 일반적강조로 굼뗄것이 아니라 즉각 실천할 때이다.

전체 총련일군들은 동포들과 분회에 들어가 사업하는것을 애국혁신운동의 제1차적요구로 간주하고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분회담당소조원으로서 구체적인 임무와 우리 말 호조반 등 분공을 맡아 동포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늘 분회와 동포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동포들의 애국열성을 최대한 조직동원해야 한다.

총련의 각급 기관과 일군들은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국인민들을 따라배워 충천한 기세와 들끓는 열정으로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전동포적으로 힘차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펄펄 휘날리자.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이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킨 커다란 성과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충성의 축전으로 빛내이자.

내외반동들의 책동에 의하여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의연히 긴장된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정세는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위업에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제3차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휘황찬란한 앞날이 펼쳐지고있으며 남조선에서는 가혹한 폭압속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이 계속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조국통일에 대한 국제적련대성도 날로 강화되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그 어떤 세력도 백전백승하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다그치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줄기찬 전진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모두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시대를 밝히시며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 창조적인 사상리론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사상리론활동의 특징은 그 전과정이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인민대중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시고 모든 사고와 행동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두고 벌려오시였으며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

과학성과 혁명성을 보장하는 근본요구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습니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리는것은 사회력사발전과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옳바른 혁명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며 사상리론활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로 된다.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일어나고 발전한다.

따라서 력사발전과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자면 사상리론활동의 중심에 인민대중을 놓아야 한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상리론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상리론활동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상리론활동의 근본사명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옳바른 혁명사상과 리론을 밝혀주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그들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인것만큼 이 투쟁을 향도하는 혁명 사상과 리론은 마땅히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는것은 이처럼 사상리론활동의 과학성과 혁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로 된다.

◉…◉

새 세계관 확립과 그 발전과정

◉…◉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은 그이께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하시고 발전시키신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란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다는것인데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철학적문제들을 제기하고 해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것은 종래의 모든 사상리론가들이 내놓은 철학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 새롭게 확립한 독창적인 철학적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사람, 인민대중을 고찰의 중심에 놓으심으로써 새로운 혁명적세계관,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창시하시였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을 위주로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밝혀주었다. 그리고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고 사회발전의 동력이며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고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한다는 사회력사의 합법칙성을 밝혀주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이 창시됨으로써 사람의 지위와 역할의 견지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하는 새로운 철학적사고방식이 확립되였으며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리론을 전개하는 철학사발전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그이께서 내놓으신 모든 사상과 리론, 방법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세계관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로 되게 되였다.

이렇듯 인민대중을 고찰의 중심에 놓은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려오신 사상리론활동의 비할바없는 독창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계속)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우리 학습실

혁명적 의리, 동지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는 통일적으로 구현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등의 원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함으로써만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와 집단의 통일을 강화하는 문제를 다 같이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혁명적의리, 동지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는 통일적으로 구현되여야 한다.

혁명적의리, 동지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호상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들사이에 평등이 보장된 조건에서만 참다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가 이루어질수 있는것이고 둘째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억제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믿음직하게 보장하여주며 셋째로, 이 두 원리가운데서 그 매개 측면을 놓고 볼 때에도 다른 측면과 결합시켜야 그자체가 잘 보장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면 혁명적 의리, 동지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사회적집단의 통일은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은 어디까지나 집단의 통일을 보장하는 테두리안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와 집단의 통일을 강화하는 문제를 다 같이 풀어나가자면 반드시 통일적인 지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수령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기때문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있기때문에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마땅히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개별적사람들사이의 의리와 동지애와는 달리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탄자니아혁명당대표단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탄자니아혁명당대표단사이의 회담이 22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황장엽비서와 당중앙위원회 길재경부부장,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탄자니아혁명당 전국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전국집행위원회 비서인 운공발레 므위루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리근모총리가 벌가리아신임대사를 만났다

리근모 정무원 총리는 22일 의례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뻬떠르 다나일로브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한장의 사진에서

버드나무와 로인의 소원

1972년 어느날, 아침 일찍 시내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영광거리(이전의 역전거리)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서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이 버드나무가로수는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다른 나무를 심어서 점차 버드나무를 찍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버드나무를 누가 찍자고 합니까?》**하고 매우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일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해방된 이듬해, 가로수 하나 똑똑한것이 없는 거리를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몇몇 로인들이 모여앉아 즐기고있는곳으로 가시였다. 그리고 그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거리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로인들은 평양은 예로부터 버드나무가 유명하였는데 버드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들의 말을 들으시며 평양의 오랜 자랑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인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였으며 그후 여러곳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시였다.

그런데 전후에 건설부문에 있던 종파분자들이 버드나무는 나쁘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나무를 심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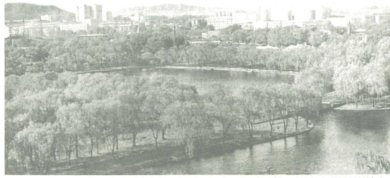
이런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안의 로인들로부터 평양은 옛날부터 버드나무가 많아 류경(柳京)이라 하였는데 버드나무를 다 베버리면 되겠는가고 안타까와하는 편지를 받으시였다.

편지에서 로인들만이 아닌 시민모두의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평양역과 대극장사이의 거리에는 버드나무로 가로수를 심도록 하시였던것이다.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버드나무가 관리하기 좀 힘들고 가로수로서 적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인민들이 원하여 심은 나무이니 찍어서는 안되오. 인민들이 원하고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다 좋은것이요.》

예로부터 류경이라 불리운 평양을 오늘도 그대로 자랑하듯 잘 가꾸어진 버드나무 가로수에도 소박한 인민들의 의사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뜨거운 인민적풍모에 대한 이야기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예로부터 류경이라 불리운 평양은 오늘도 버드나무 가로수가 푸르싱싱하다.

쏘련청년관광단이 광복거리건설을 지원

【평양 4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우리 나라를 방문한 꾸지미나 왈렌찌나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청년관광단 성원들은 21일 광복거리건설을 지원하였다.

교예극장건설장을 찾은 손님들은 200일전투의 불길 드높이 대상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이곳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단장은 광복거리가 매우 웅장화려하게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있는데 대하여 감동을 표시하면서 공화국창건 40돐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이곳 건설자들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조선, 나이제리아 정부사이의 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서 조인

【평양 4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정부사이의 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서가 19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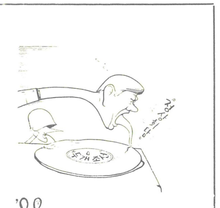
스위스로동당대표단 평양에 도착

[illegible]

목소리

광주문제의 해결

[illegible]



낡아빠진 레코드

상공인들의 권익옹호를 첫자리에!

《세금신고》사업을 년간을 통한 일상적인 사업으로

미야기현상공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의 주요사업대상은 중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총련조직들은 중소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역땅에서 사는 재일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 생활권을 적극 옹호하는데서 상공회조직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미야기현상공회는 자체 조직이 놀아야 할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에 기초하여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일상적이며 년간적인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군건히 옹호하고 올해 동포상공인들의 《세금신고》사업을 원만히 해결해주었다.

《세금신고사업을 비롯한 상공회사업은 년간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곳 상공회 송원호리사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세금문제에 대한 옳은 인식과 지식을

동포상공인들의 《세금신고》사업을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이 사업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옳바로 세워주는 문제이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경제생활환경이 변화되고 일본 《세법》도 개정된 조건하에서 상공인들이 《세금신고》사업, 특히는 기장의무화에 대하여 깊은 리해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도록 하여야만 이 문제는 성과적으로 해결되는것이다.

그런데 아직다나 일부 동포상공인들속에서는 그 요구성을 따라잡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었다.

《금년에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1세동포상공인들은 아무런 준비도 안한채 상공회를 찾아왔다.

또한 최근시기 새로 장사를 시작한 몇몇 젊은 동포상공인들속에는 재산관리, 세금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지식도 없이 불균형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속에서 상공회는 《세금신고》사업을 직전에 와서야 아득바득 손대며 모두 도말아해주듯이 하던 지난날의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일상적이며 년간적으로 지도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갔다.

항상 아래에 내려가 직접 동포들과 접촉하고 그들이 경영활동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료해하고는 적절한 방조를 주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센다이시내는 물론 센세끼, 센보꾸지역을 비롯한 먼 지역에도 차를 몇시간이나 타고 내려가 세밀하게 방조하였다.

례컨대 어떤 동포상공인이 자택을 건설한다고 할 때에도 수속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세금문제와의 관련속에서 방조를 주군 하였다.

업종별, 건별로 세밀한 지도를 주면서 상공인들이 세금문제에 대한 옳은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간주하고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사업하였다.

세금강연회는 동포들에게 세금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고 지도하는데서 하나의 유력한 수단이라 이곳 상공회는 그것을 여러번에 걸쳐 조직진행하였다.

그러면서도 강연회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지식과 지도를 대주는데 지나지 않으며 동포들이 서로 업종도 다르고 규모도 제각기 다른것만큼 상공회에서는 대상을 놓고 그의 경영활동에 맞게 구체적으로 지도하여나갔다.

힘겨운 대상, 복잡한 대상의 집을 찾아가 경영활동을 료해하고 구체적인 장부를 놓고 하나하나 배워주었다.

이 활동을 《세금신고》전에 되여서야 하는것이 아니라 년간을 통하여 밀고왔다.

동포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일상적인 지도에 의하여 그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점차 깊어졌으며 장부, 서류를 잘 갖추어 찾아오는 동포들이 점차 많아졌다.

장부기장은 일상적으로

동포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사업과 함께 그들이 일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상공회는 늘 동포들속에 들어갔다.

먼저 상공회일군들자신이 전문지식을 똑똑히 소유하자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배우도록 하였으며 경험이 어린 일군들도 모두가 부기자격자로 준비하였다.

또한 장부기입에 관한 자료들과 구체적인 계산서를 마련하여 《세금신고》로 찾아왔을 때뿐아니라 있는 기회를 다 리용하여 동포들에게 나누었다.

그리고 업종별로 기입방법을 대주고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하나하나 배워주고 도와주면서 건별로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러한 사업들에 기초하여 올해 상공회에서는 《확정신고》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1박2일강습을 가진 후 2월초부터 세금신고를 위한 문서작성사업에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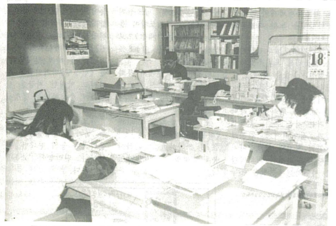
일부 《청색신고》와 큰 규모의 기업을 제외하여 기본적으로 2월이내로 신고준비를 끝낸 이곳 상공회는 3월에 들어서서는 먼 지역에 있는 동포들과 큰 규모의 동포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방조로 이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이곳 상공회는 제반 환경속에서, 회원들이 류동적인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약 20건 취급건수를 확대하게 되였다.

《세금신고》사업을 년간사업으로 전환하여 일상적으로 지도해옴으로써 상공회는 올해 신고사업을 원만히 해결한것이다.

오늘 이곳 상공회는 말은 동포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다지는 사업》을 공고히 하면서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고있다.

이곳 상공회에서는 지금 동포상공인들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 장부기장을 비롯하여 기업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지도방조해나가고있다.



동포상공인들의 권익 옹호사업을 잘하고있는 미야기현상공회 일군들

오사까 히가시나리 나까미찌지역

6개 분회합동 가족운동회

힘이 하나로 합쳐져 애국의 마음으로 젊은

오사까 히가시나리 나까미찌지역 가족운동회가 17일, 오사까죠공원에서 총련 나까미찌1～6분회의 합동주최로 관하동포들 250여명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운동회에서는 실행위원장인 나까미찌5분회 김동호분회장의 개회사가 있은 후 각종 경기가 벌어졌다.

경기는 어린이로부터 로인에 이르는 모든 남녀참가자들이 즐길수 있도록 준비되여 동포들의 호평을 받았다.

모든 경기들은 분회대항, 가족대항으로 진행되였으며 특히 분회대항줄당기기에서 운동회의 분위기는 최고도로 고조되였다.

동포들은 저마다 경기에 출선 참가하여 서로의 친목과 교류를 깊였다.

또한 운동회마지막에 진행된 추첨회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에게 상품이 차례졌다.

동포방문의 폭을 넓혀

은을 낸 실행위원들의 준비활동

한달여에 걸친 준비사업의 결과로 이날 운동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말 그대로 전호방문했지요. 실행위원들이 지난 시기 깊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동포들 지어는 안면조차 없는 동포들도 찾아가 운동회의 취지를 설명했거든요.》

실행위원장은 가가호호를 다니는 실행위원들의 모습에 관하동포들이 큰 감명을 받아 적극 호응해 나선 결과로 운동회가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1분회 김성수분회장, 4분회 고방수위원, 3분회 리영수위원, 2분회 조영부위원 그리고 나까미찌지역 소프트볼소조 전광남주무 등 여러 실행위원들이 낮에 밤을 이어 동포집을 방문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운동회를 같은 지역에서 사는 동포끼리 친목도 깊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쓰는 계기로 그리고 서로 기탄없는 의견들을 나누는 계기로 조직진행하자고 호소하였다.

녀성동맹에서도 준비사업에 적극 달라붙었다.

이러한 과정에 적지 않은 동포들이 운동회준비사업에 협력해나섰을뿐아니라 새로 총련회원, 회비납입자로 나서게 되였다고 한다.

《오늘의 운동회와 그 준비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젊은 동포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친숙해진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젊은 동포들이 힘을 합쳐 애국운동을 밀고나가는데 일정한 전망을 가질수 있었다는것이 가장 기쁩니다.》

김동호분회장은 운동회의 각종 경기에 즐겁게 참가하는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만족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가족운동회모습(사진 우)과 실행위원들

4.19오사까집회 진행

1,200여명 일본인민들이 참가

남조선민주화투쟁에 련대성 표시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규탄,

아세아의 긴장완화와 핵군축,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조선려객기사건의 규명과 미《한》군사연습을 반대하는 4.19오사까집회가 동 집회실행위원회와 오사까일조공투회의(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남조선의 민주화투쟁에 련대하는 오사까부민공투회의),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오사까부인의 회, 일조음악예술교류회, 도요노일조우호련락회, 니시요도가와일조우호친선의회, 총평 미나도지협 일조공투실행위원회의 주최로 19일, 모리노미야 피로티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일본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시민들 1,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 앞서 기록영화 《꽃다발을 준 소녀는 저입니다》가 상영되였다.

집회에서는 오사까일조공투회의 가쯔마 요시에대표위원의 연설에 이어 기조보고가 있었다.

기조보고는 ①우리는 무엇때문에 모였는가 ②남조선려객기사건은 핵군축의 전망이 열리고 남조선민중들이 민주헌법을 쟁취하며 민주화에로 나아가려고 하고있을 때 일어났다 ③그이후 사태로부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④일본정부의 움직임과 기도 ⑤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사건의 배경과 본질에 대하여 지적한 다음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위협, 폭행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반동들의 비렬한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남조선려객기사건에 있어서의 일본의 언론보도》란 제목으로 영화감독인 오사까경제법과대학 오까모도 요시히꼬교수가, 《쏘미랭전구조의 붕괴와 조선반도》라는 제목으로 리쯔메이깡대학 세끼 히로하루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재조치》의 즉시철회를 요구하며 일조련대투쟁의 강화와 반핵, 군축의 국제적행동에 련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조선통일을 위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4.19오사까집회 참가자들

조청교또관하 8개 지부에서

가두선전 전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 지지를 호소

4.19인민봉기 28돐을 맞이하여 조청 교또부본부관하 8개 지부들에서는 19일 주요역두들에서 일제히 가두선전을 벌리였다.

이날 가두선전에는 《팀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하며 공화국이 제기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지지실현시키자는 한마음으로 150여명의 조청원들이 참가하였다.

가두선전에 나선 조청원들은 합동군사연습을 통한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와 그 침략적야망을 날날이 폭로규탄하였다.

【조청교또】



가두선전을 힘차게 벌리는 교또부하 조청원들

북남학생회담제의를 지지하여 긴급모임

조청 효고현 히가시고베지부에서

조청 효고현 히가시고베지부에서 북남학생회담제의를 지지하여 13일, 긴급모임을 지부사무소 강당에서 가지였다.

모임에서는 북남학생회담제안에 대한 해설에 이어 이곳 지부의 명의로 된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이날 모임참가자들은 각기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조국통일을 둘러싼 격동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청활동을 힘차게 벌려나갈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조청 히가시고베지부】

남조선 고향에 보내는 편지

로태우에겐 광주사건을 해결할 의사란 없습니다

벚꽃이 만발하는 시절이 어느새에 지나가니 나무가지들도 갈수록 푸르러집니다.

선생님께선 별고 없으십니까.

요즘 고향땅에서 《민주화합》이요, 광주사건의 《화합적치유》요 하는 언사들이 한결 소리높이 들려오는데 저에겐 그것이 어쩐지 국민대중을 기만하려는 권력자들의 소행이 자꾸만 교활해지는 상징적인 현상으로 보이기만 합니다.

하긴 최고권력자로 된 로태우자신이 전두환과 함께 《12.12숙군쿠테타》를 계획, 실천하고 광주학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닙니까.

이번 《총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압도적우세》를 확보해보려는 권력층의 저의가 그대로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 해외교포들도 저 악몽같은 광주대학살사건을 잊을수 없는데 어찌 고향에 계시는 선생님의 머리속에서 어느 순간인들 그 저주로운 나날의 추억이 떠나가겠습니까.

군정을 반대하여 평화적인 데모를 전개하던 광주시민들에게 들씌워진 그 엄청난 참극, 학생도 로인도 아이도 지어는 임신부까지도 모조리 총검으로 찔러죽이고 쏘아죽이고 때려죽이고 시체까지 소각해버린 그 치떨리는 만행이 어찌 뇌리에서 지워지겠습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토록 갈망하다가 희생된 2천여명의 령혼에 대해 《불순분자의 소란에 대한 진압》이라는 허황한 소리로 모독해놓고는 사건진상을 오늘에 이르도록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분격으로 우리의 몸을 부들부들 떨리게 합니다.

게다가 로태우는 광주사건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어 《민주화합추진위원회》란것을 발족시켰는데 이걸 철저히 여당색으로 만들어놓고 보상금이요, 명예회복이요 하고 떠들면서 국민들의 진상규명요구에 대해선 계속 무시하고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두고 국민들이 로태우에겐 광주사건을 해결할 의사도, 민주화조치를 실행할 능력도 없다고 규탄하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로태우의 집권은 본질상 전두환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것이 이제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오죽하면 《동아일보》가 현 로태우체제를 두고 《정권교체는 이룩되였다지만 아직도 권력층내의 〈권력승계〉, 〈군정연장〉 선상에서 파악》할수 있다고 썼겠습니까.

《민주화합》이 아닌 《군사독재》에 매달릴수밖에 없는 로태우는 그자신이 자꾸 말하는 《보통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해외교포들속에서까지 그에겐 조그마한 기대도 걸수 없다는 소리가 자자해지고있는것이 과시 우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빕니다.

1988년 4월 26일

일본에서

로태우일당

류례없는 부정협잡《선거》로 독재기반강화를 기도

《돈봉투와 각종 선물이 이렇게 뿌려지는 타락선거는 처음 본다》

남조선인민들이 견결히 규탄

오늘 남조선에서 제13대 괴뢰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된다. 로태우일당은 이 《선거》놀음을 통하여 괴뢰국회를 틀어쥐고 독재체제의 기반을 강화해보려 8일의 후보등록이전부터 금품공세, 인신공격, 관권개입 등 온갖 부정선거를 일삼았다.

특히 괴뢰여당《민정당》패거리들은 올해들어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청년학생들과 재야민주세력이 여당《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한데 당황하고 폭력과 매수, 사기와 협잡, 기만 등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나 저들의 《당선》을 조작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괴뢰악당의 이와 같은 책동에 의하여 관권과 금권을 동원한 별의별 불법타락선거의 바람은 전역에서 휘몰아쳤다.

《10당 8락》
로골적인 매수행위

이번 《총선거》에서는 《10당 8락》즉 《10억원을 쓰면 당선하고 8억원을 쓰면 락선한다》느니 십지어 《15당 10락》이란 말까지 공공연히 나돌고있다.

야당《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정당후보들이 엄청난 돈을 뿌릴것》이라고 미리부터 지적해온데서도 나타나고있듯이 《10당 8락》이니 《15당 10락》이니 하는것은 괴뢰악당이 감행한 엄청난 금권선거의 실상을 고발, 비유하는 말이다.

괴뢰여당은《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자기들의 금권과 관권을 최대한 리용한 불법선거를 더욱 심화시켰다.

《민정당서울서대문을지구당》은 대내용으로 작성한 《13대총선중점추진계획》에서 통장 2백 63명에게 1인당 5만원씩 1천 315만원, 반상회지원비로 1억 1천 34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강남을지구당》에서는 통반장 1천여명을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1인당 3만원씩을 돌렸다고 한다.

또한 《서대문구을지구당》에서는 이밖에 투표구선관위원 40명에게 3만원씩과 선관위에게 20만원, 동 사무소 8곳에 각각 50만원, 파출소 10곳에 30만원씩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로골적인 매수행위는 남조선전역에서 공공연히 감행되였다.

례컨대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한 《민정당》의 리종찬은 구청장, 경찰서장이 참석한 제1회방범대원체육대회자리에 나와 《격려금과 선물》을 마구 뿌렸으며 부산동구의 《민정당후보》 허삼수는 네차례에 걸쳐 이른바 《유권자교육》을 실시하여 스카프 및 현금 1만원이 든 누런색봉투를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공주지구 리상재는 청년단발대식에 참가하여 그후 몇명 그룹별로 부근 다방으로 데려가 《수당》과 5권짜리 대하소설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여당패거리들은 금품전달이나 양산, 수건, 라이타 등의 고급품을 돌리는 선물살포는 물론 그 이외에도 유권자들을 비롯한 투표자들을 온천과 유명관광지에 초대하는 선심선거 관광과 동창회, 향우회라 이름붙인 각종 정치적모임들을 마구 감행하였다. 이러한 소동이 얼마나 우심하게 감행되였는가 하는것은 관광빠스회사들이 《선거》일직전 주말인 4월 24일까지 완전히 예약상태에 있었던 사실이나 온양, 백암 등 온천지호텔들도 매일과 같이 초만원을 이룬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금품을 마구 뿌리는 여당패거리들. 이러한 매수행위는 전역에서 로골적으로 감행되였다.

드러난 위장전입
당국이 비호

여당패거리들은 또한 관권을 리용한 온갖 부정행위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들은 자기 선거구에 고향의 선거민이나 관련기업 및 지지자들의 주민등록을 대거 이전시키는 부정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대전서구에서 립후보한 《민정당》의 리재환은 자기 고향인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 주민 600여명의 주민등록을 집단으로 자기의 선거구로 이전시켰으며 전라북도 정읍의 림철수도 자기 소유의 회사사원들을 위장전입시켰다.

또한 안양갑구의 《민정당후보》 김정숙의 주민등록에 26평의 아파트에 김정숙의 가족 3명을 포함하여 52명이 함께 살아있는것으로 위장되여있었던 사실이 탄로나 인민들의 견결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민정당》의 이런 허위유권자조작행위가 각 지역에서 빈번히 벌어지고있는 속에서도 각 지역 행정관리들은 이것을 묵인 또는 협조하여나섰다.

바로 이와 같이 관권과 금권을 총동원한 로태우일당에 의한 부정은 남조선전역에서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지난해의 《대통령》선거때 콤퓨터조작까지 일삼으면서 제놈의 《당선》을 날조해낸 로태우일당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감행한 불법, 타락, 부정 선거는 파쑈독재체제의 기반을 강화할것을 노린 파쑈폭거이다.

그러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곳곳에서 로태우일당의 부정선거놀음을 견결히 규탄하여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이 《돈봉투와 각종 선물이 이렇게 뿌려지는 타락선거는 처음 본다. 흑색선전과 류언비어가 란무해 정치와 선거에 혐오감마저 든다.》고 하면서 괴뢰악당을 지탄하여나선것은 응당한 일이다.



여당《후보》 김정숙이 고향사람들을 자신의 선거구에 위장전입시킨 부정행위를 립증하는 주민등록표. 이러한 부정놀음은 남조선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를 크게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무너져나간 괴뢰도당의 《통화증가억제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한달동안에 남조선의 총통화량은 괴뢰도당이 올해 《통화증가억제선》으로 정한 18%선을 1.8%나 초과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통화팽창현상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태우일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을 조작하기 위하여 불환지폐를 람발하였다.

그런데 놈들은 올해에 들어와 《정권》강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대통령취임식》놀음과 식민지《정권》을 지탱하는데서 시녀의 역할을 하게 될《국회》를 《민정당》패거리들로 꾸리려고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총통화량을 팽창시키고있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에서는 물가가 걷잡을수 없이 올라가는 등의 련쇄반응이 일어나 인민들이 고통을 겪고있다.



파쑈폭군하에서의 공명선거는 기대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지적

【평양 4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요즘 로태우일당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남조선전역을 준비상계엄상태에 몰아넣고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파쑈폭압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민정당후보》의 《당선》을 조작하기 위해 온갖 부정협잡행위를 일삼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9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461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요즘 로태우일당이 《국회의원선거》가 림박해지자 남조선전역을 무시 무시한 준비상계엄상태에 몰아넣고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파쑈폭압을 일층 강화하고있을뿐아니라 《민정당후보》의 《당선》을 조작하기 위해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태우일당은 저들의 부정선거운동에 《민정당》족속들은 말할것도 없고 괴뢰행정기관과 관제어용단체들을 비롯한 크고작은 모든 공,사조직들을 끌어넣고있다.

놈들은 야당《후보》들의 경력을 날조하여 비방중상하고 거짓선전으로 야당에 대한 불만을 조장시키고있으며 야당측의 지역선거관리위원들을 위협공갈하여 사퇴하게 하는 비렬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민정당후보》들속에서는 관권과 금권으로 자기 선거구에 고향사람들과 관련기업직원들을 매수하여 집단적으로 위장거주시키는 부정행위까지 성행하고있다.

괴뢰도당은《선거》를 앞두고 통, 반장들을 제놈들의 심복들로 교체하는 놀음도 광범히 벌리고있다.

심지어 로태우일당은 경찰특무들과 깡패들을 내몰아 야당인사들의 선거운동을 악랄하게 방해할뿐아니라 그들에 대한 테로행위까지 공공연히 자행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로태우일당이 광고하는 《공명선거》요 뭐요 하는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며 놈들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독판을 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로태우역도와 같은 군사깡패, 파쑈폭군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한 공명선거는 절대로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의 민주세력과 야당들은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의 부정협잡선거놀음을 단호히 배격하며 놈들을 타도할 때까지 끝까지 견결히 싸워야 할것이다.

강도적본색 드러낸 폭압지령

《로동신문》 론평

22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에서 괴뢰국회의원《선거》날자가 다가옴에 따라 군사파쑈도당의 폭압책동이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지난 18일 로태우역도가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선거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괴뢰경찰에 폭압령을 내린데 이어 19일 괴뢰치안본부장은 《유세장》안팎에 경찰들을 배치하고 《폭력사태관련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구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8일에는 괴뢰국무총리가 《치안관계장관회의》라는것을 열어 《선거폭력사태》에 대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라고 고아댔다.

로태우일당의 이 광기어린 위협공갈과 폭압지령이 《선거법위반》과 《폭력행위》에 걸어 인민들의 손발을 얽어매고 야당립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 반대파세력의 활동을 철저히 봉쇄한 가운데 폭력과 부정협잡으로 저들 《민정당》패거리들의 《당선》을 날조해내려는 범죄적기도에서 출발하고있음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를 저들의 앞잡이들과 특무들로 꾸리고 야당과 민주세력의 《선거》운동을 가로막으며 인민들의 손발에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조작되는 《선거》가 류례없는 파쑈란동으로, 《민정당》패거리들의 독판치기 협잡판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것이다.

로태우일당의 로골화되는 폭압소동은 폭력과 부정협잡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저들자신의 더러운 정체를 드러내여 인민들의 보다 큰 증오와 격분만을 불러일으킬뿐이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朝 鮮 新 報

1988년 4월 27일 (음력 3월 12일) 수 요 일 【루계 제10193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

우리들은 오늘 각하의 탄생 76돐을 경축한 기쁨속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를 가지였습니다.

본집회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리사장을 비롯하여 각국의 리사와 일본의 주체사상연구자들의 참가밑에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우리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꾜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된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불과 10년동안에 주체사상이 급속히 보급되고 세계정세를 진전시키고있다는것을 실감하고있습니다.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주체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있는 일본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력사의 자주적주체로서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전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주체사상을 배우며 자주의 길을 걸어가려는 결의를 안고 활동하는 우리들에게 전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웅대한 로선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오늘 주체사상은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투쟁의 지침으로서 우리들에게 미래의 전망을 환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각하의 령도아래 인류가 력사적위기에서 벗어나고 전인류의 진정한 행복과 항구적인 평화를 향유하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명시한 혁명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각하께서 몸소 가장 엄혹한 항일혁명투쟁속에서 사람중심의 투쟁을 전개하시고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며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창시된 현시대의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혁명사상입니다.

우리들은 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다만 리론적으로 깊이 연구할뿐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 자기자신의 투쟁속에서 체득하며 인간중심의 리상사회를 건설해나가는데 적극 살려가자고 결의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을 계기로 우리들은 력사앞에 지닌 긍지높은 사명을 한층 더 자각하고 주체사상의 기치 드높이 일본과 세계의 자주화를 추진시키는 활동을 급속히 발전시킬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김일성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인민의 리상사회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회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남련석회의소집에 관한 제의를 전면적으로 지지하면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할것을 표명합니다.

세계의 자주화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마음속으로부터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참가자일동

1988년 4월 23일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 드리는 편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

우리들은 오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을 기념하여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를 가지였습니다. 본집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 참가하여 오늘의 모임을 한층 의의깊은것으로 하였습니다.

집회를 끝맺으면서 우리들은 각하께 존경과 감사의 정을 담아 삼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와 기대를 모아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국제연구소의 창립은 현시대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의 연구보급과 세계 평화와 자주화의 실현에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이 10년간 주체사상이 전세계에 급속히 보급되고 130여개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게 되였으며 일본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활동도 힘있게 추진되였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된후 10년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은 언제나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께 드리는 감사의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있습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보편적진리성을 깊이 해명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원리를 발전풍부화하시고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생활하며 투쟁하는 우리들에게 주체사상에 대한 더욱 깊은 확신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각하의 저작들은 주체사상의 연구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을 가져다주었으며 연구수준을 현저히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각하의 현명한 지도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하여주었으며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전진하는 일본과 세계의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을 맞이한것을 계기로 김정일각하의 활동을 더욱 깊이 따라배우며 주체사상을 신념화하면서 자주화된 일본과 세계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길 결의를 새로이 하고있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

오늘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제3차7개년계획을 힘있게 추진하고있으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일본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인류의 리상사회가 건설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실현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 건강에 류의하시고 주체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참가자일동

1988년 4월 23일

《주체사상은 인류공동의 사상리론적재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제23차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도꾜에서 진행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가 4월 23일 일본 도꾜의 이께노하다문화쎈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인스부르크대학 교수이며 오지리공화국 이전 법무상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한스 클레카츠키, 아세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이며 빠도나대학 이전 부학장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인 다라 부산 무케르지, 구라파지역주체사상연구학회 리사장이며 빠리제1종합대학 교수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인 에드몽 쥬부, 릿교대학 교수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인 이노우에 슈하찌, 오지리주체사상연구학회 회원이며 오지리국회직속 인민신소처리국장이며 인스부르크대학 교수인 비크토르 삐크르, 오지리주체사상연구학회 회원이며 남치롤르경제사회연구소 교수이며 인스부르크대학 교수인 크리스토흐 빤 등을 비롯하여 주체사상을 깊이 따라배우고있는 세계와 일본의 각계인사들 350여명이 참가하였다.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리계백부의장과 함께 집회에 초대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현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그를 영생불멸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1978년 4월 9일에 창립되였다. 창립된 이후 지난 10년동안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국제적인 거점으로서 온 세계에 주체사상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왔다. 하여 집회참가자들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된 이후 10년동안의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드높이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할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집회에서는 주최자측을 대표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노우에 슈하찌부리사장이 연설을 하였으며 이어서 집회에 참가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을 비롯하여 외국대표들이 소개되고 그들에게 꽃다발이 증정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앞으로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집회장에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모임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선물에 접하여 한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였다.

집회에서는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 전문은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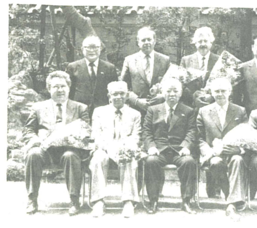
또한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야마모도 마사히로, 혹가이도대학 교수 싱까와 시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문화인 데지마 가쯔꼬 등이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세계와 일본 각지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집회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한스 클레카츠키리사장이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일본과 세계를 자주화하자》라는 제목으로 기념보고를 하였다. (기념보고 요지는 3면)

집회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들인 다라 부산 무케르지와 에드몽 쥬부들이 연설하였다.

2면에 이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일행이 23일 총련중앙을 방문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일행이 총련중앙을 방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에 온 외국인사들이 23일 오전 총련중앙을 의례방문하였다.

총련중앙 한덕수의장과 리진규제1부의장이 리계백, 허종만부의장, 조선회관에서 사업하는 일군들과 함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인 오지리 이전 법무상, 교수 한스 클레카츠키선생,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들인 아세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다라 부산 무케르지리사장, 빠리제1종합대학 교수인 구라파지역주체사상연구학회 에드몽 쥬부리사장 그리고 오지리국회직속 인민신소처리국장인 인스부르크대학 비크토르 삐크르교수, 인스부르크대학 크리스토흐 빤교수일행을 따뜻이 맞이하였다.

한덕수의장과 리진규제1부의장은 손님들과 친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대학교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한스 클레카츠키리사장과 그 일행이 25일 오후 조선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조대 남시우학장과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외국손님들을 따뜻이 맞이하였다.

손님들은 조대기념관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고 교직원, 학생들과 친선의 정을 나누며 뜻깊은 한때를 보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견인력, 불패의 생명력을 과시한 자랑찬 10년

주체사상의 선전보급사업과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 위업에 보다 이바지하리라는것을 믿는다

집회에서 한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의 축하연설

존경하는 한스 클레카츠키리사장선생

친애하는 벗들

본래같으면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나라 대표가 참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여야 하는데 일본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의하여 그것이 실현안된것을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을 열렬히 축하하며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련대인사를 보냅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이 시대적추세로 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으로서 참으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일이였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창립이래 오늘까지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보급선전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왔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로작과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을 해설선전하기 위하여 학술잡지 《주체사상연구》와 《백봉문고》 출판보급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연구소는 이 10년동안에 아세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구라파 등에 연구조직을 확대하고 이 조직들과의 깊은 련계밑에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15번이나 조직진행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국제연구소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에게 불멸의 주체사상을 안겨주고 그들을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사회 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나는 국제연구소의 영광찬 로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국제연구소를 도꾜에 설립할것을 발기하고 초대리사장으로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연구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친 고 야스이 가오루선생을 잊을수 없습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창립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체사상을 세계인민들속에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력대역원들과 연구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북남련석회의 소집방안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이 공명정대한 구국방안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이 획기적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나갈것입니다.

오늘 예속과 전쟁을 반대하고 자주화와 평화를 요구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운동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나는 국제연구소가 지난 10년동안 쌓아올린 경험과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주체사상연구자대렬을 더 많이 늘이며 주체사상선전보급사업의 국제적거점으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임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에 보다 훌륭히 이바지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축하연회 성대히 진행

4월 23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축하연회가 일본 도꾜의 이께노하다문화쎈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세계와 일본 각지에서 모여온 각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총련중앙 리진규제1부의장이 리계백, 허종만, 배병두부의장들과 함께 초대되여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주최자측을 대표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노우에 슈하찌부리사장이 연설을 한데 이어 오지리주체사상연구학회 회원이며 오지리국회직속 인민신소처리국장이며 인스부르크대학 교수인 비크토르 삐크르, 오지리주체사상연구학회 회원이며 남치롤르경제사회연구소 교수이며 인스부르크대학 교수인 크리스토흐 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이날을 계기로 앞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전진해나가자고 힘주어말하였다.

연회에서는 금강산가극단 성원들과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성원들이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을 축하하는 공연을 하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축하연회

평화와 자주를 위해 주체사상의 연구활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서 한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련락회의 히가시다니 도시오회장의 기본보고(요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인 한스 클레카츠키선생을 비롯하여 먼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여러 선생님들

일본 각지에서 참가하고있는 여러분

나는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를 소집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련락회의를 대표하여 련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1

1978년 4월 9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된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연구소창립선언이 강조하고있는바와 같이 이 연구소의 창립은 자주시대에 살며 자주시대의 기치인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이를 따라배우려는 여러 나라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일치한 념원을 반영한것입니다.

창립후 10년간 국제연구소는 주체사상의 국제적학술기관으로서 시대의 요구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는 활동을 벌려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간에 진행된 세계적, 지역적 주요국제토론회는 15번을 헤아리고있으며 특히 1984년이래 리스봉(84년), 윈(86년), 아테네(88년)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문자 그대로 전세계적규모의 토론집회로 되여 주체사상의 보편성과 생명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제연구소가 우리 일본의 수도 도꾜에 설치됨으로써 일본에서의 주체사상연구수준이 제고되였으며 그 보급에 큰 도움이 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국제연구소의 창립 10주년을 마음속으로부터 축하합니다. 아울러 초대리사장인 고 야스이 가오루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연구소가 이 기념할 올해를 비약대로 하고 보다 크게 발전하여 현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리라는것을 기대하는바입니다.

2

지난 3월 30일부터 3일간 구라파철학의 발생지이며 유구한 문명의 력사를 가진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서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세계 65개국과 8개 국제기구에서 82개의 대표단과 대표가 참가하였습니다. 이속에는 세계의 저명한 사회, 정치 활동가와 과학, 교육, 문화, 언론계의 이름난 인사가 포함되여있습니다.

나는 이 국제토론회의 성과에서 배우면서 오늘 평화와 자주를 지향한 우리의 투쟁에서 제기되고있는 절박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국제토론회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된것은 오늘 인류가 세계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빠져들게 하는가 아니면 전쟁을 저지하여 평화를 옹호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여 전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향유하는 새로운 21세기의 세계를 맞이할수 있겠는가 하는 유구한 력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는 기본적인 인식밑에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은 전체 인민의 제1차적인 투쟁이라고 규정한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인류공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옹호하는것을 최고목적으로 하고있는 전인류공동의 리익과 념원에 부합된 보편적인 사상》(한스 클레카츠키리사장의 기념보고)이며 《인간간, 국가간의 불평등,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인간의 자주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것과 동시에 여러 나라 인민간의 친선과 단결, 국제적협력을 옹호하는 철저한 국제주의적사상》(우와 같음)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전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는것을 밝혔습니다.

국제토론회에서 한스 클레카츠키리사장은 《인민대중에게 전쟁위험의 근원을 옳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제국주의자가 준비하고있는 핵전쟁이 얼마나 무모하고 범죄적인가를 폭로하는것으로 하여 제국주의자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여 단호히 싸워나가도록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으며 《평화를 지키는 투쟁은 전체 인민의 제1차적인 투쟁이므로 평화운동에는 …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민이 한결같이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제기는 그대로 우리의것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세계의 주인인 인민대중으로서의 자각을 확고히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사태를 깊이 인식하며 무엇보다도 핵전쟁저지, 핵병기완전페절을 지향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군비증강을 반대하고 군사지출의 삭감, 교육과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를 요구하고 세계적규모에 있어서 인권이 존중되며 전체 인민대중이 정치, 경제, 사상,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자주적인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여 분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구한 력사의 전환기에 있어서의 우리 인민대중의 기본적 과업이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3

오늘 평화운동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상적무장과 사상적단결이 불가결의 요구로 나섭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본질적우점과 우월성은 《인간을 세계의 주인, 새 세계의 창조자의 지위에 놓고 인간중심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해명함으로써 인간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정하여 인류의 발전과 번영의 길을 명시한》(리사장의 기념보고) 점이라고 확신하기때문에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연구하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무기로 하여 평화와 자주화를 지향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을 깊이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저작을 보다 더 깊이 학습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김정일비서의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한층 심화발전되고있는것은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주체사상의 학습, 연구와 보급활동은 전번의 국제토론회에서도 또 이번의 국제토론회에서도 주체사상의 보편적진리에 기초하여 각국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여야 함이 강조되였습니다.

각국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서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는것과 함께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또 각국 인민대중이 가지는 구체적과업과 그것을 실현하는 로정도 각각 고유한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사상은 주체사상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것입니다.

우리도 제23차전국집회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연구보급활동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밀고나갈 방침을 새로 강조하여 내놓았습니다.

1970년대초 일본에서 주체사상의 연구가 선각자에 의해서 시작된 때로부터 십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련락회의가 일정한 조직적정비를 한것이 국제연구소의 창립과 같은 해인 1978년이였으나 이것도 또 올해에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기간 우리의 활동에서는 적지 않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그 대렬도 확대되였습니다.

오늘 제국주의, 식민지주의, 인종주의자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불굴의 투쟁이 모든 대륙, 모든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수많은 곤난과 시련이 있으나 침략과 전쟁을 저지하고 자주화가 실현된 새 세계를 건설한다는 인민대중의 가장 절박한 요구에 기초한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투쟁에 련대하고 반전, 반핵, 평화를 기둥으로 삼고 우리에게 맡겨진 력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분투합시다.

그러기 위해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를 계기로 우리의 연구수준을 한층 높여 주체대렬의 확대강화를 위해 노력할 결의를 새로이 합시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1면에서 이음

그들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비서께서 발전풍부화하시는 주체사상이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사회관을 안겨주고있기때문에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주체사상연구활동이 광범히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은 단결과 미래에로의 확신을 주는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실현해나가자고 힘주어말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주석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 만세!》, 《주체사상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집회에서는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련락회의 히가시다니 도시오회장이 《평화와 자주를 위하여 주체사상의 연구활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자》라는 제목으로 기본보고를 하였다. (보고 요지는 별함)

이어 집회에서는 《오끼나와의 반기지투쟁은 지역의 자주화, 일본의 자주화, 세계의 자주화에 통한다》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련락회의 부회장, 오끼나와대학 교수 사꾸가와 세이이찌), 《주체의 교육리론을 따라배운다》(일본교직원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 다께모도 요시미), 《주체사상과 로동운동》(고꾸로신깡센 조선문제학습회 네끄가끼 마사후미), 《주체사상의 원리적해명과 그의 체계화과정에 대하여—문헌에 기초한 고찰》(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룡) 등의 연구보고가 있었다.

집회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존경과 경모의 정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편지를 각각 드리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이 모임을 계기로 하여 주체사상을 보다 더 널리 해설선전하며 주체사상연구수준을 더한층 높이고 주체의 대렬을 가일층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굳고굳은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일본과 세계를 자주화하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서 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한스 클레카츠키리사장의 기념보고(요지)

주체사상을 따라배워 자주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본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일치된 지향을 반영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과 력사적의의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지향이 류례없이 높아지고 주체사상을 배우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된 력사적현실을 반영하여 창립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으로 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보급되였으며 주체사상을 배우는 사람들의 대오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나가려는 사람들의 지향이 커가고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이 한 나라, 한지역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인 활동으로서 진행되는 현실은 주체사상연구보급을 위한 국제적조직의 창립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976년 9월 마다가스까르의 수도 안따나나리부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이 제기되였으며 1977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국제적인 학술기구를 설립할것을 결정하고 그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야스이 가오루선생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 성원과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창립준비가 성과리에 추진되여 마침내 1978년 4월 9일 도꾜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를 열고 력사적창립을 온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은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이 위대한 사상으로 전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자는 사람들의 장엄한 길우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에 의하여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국제적거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국제연구소의 창립으로 하여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활동은 세계적범위에서 더욱 폭넓게 적극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국제적교류가 성과리에 실현되게 되였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은 자주성의 실현을 위해 싸우는 진보적인민을 힘있게 고무하여 자주성에 기초한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은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일본과 전세계의 자주화를 지향하는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전환으로 된 력사적인 사변이였습니다.

2. 주체사상국제연구소 10년의 자랑찬 로정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에서는 국제연구소를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국제적학술단체로서 그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세계 각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로 수억만 인민대중을 자각시키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창립이래 10년간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자기의 창립선언에서 천명한 이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강화되고 많은 나라들에 주체사상연구조직이 질적, 량적으로 강화된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장 큰 성과입니다.

주체사상연구조직은 량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으로도 일층 공고해졌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로작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주체사상연구의 기본방도입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의 저작에는 주체사상이 원리적으로 해명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달성한 성과와 경험이 집대성되여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저작집인 《백봉문고》를 52호에 이르기까지 번역, 출판하여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의 저작이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각국의 민족어로 번역, 출판되였습니다. 특히 김정일비서의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이 전일적체계속에 집대성된 저작이 수많이 출판보급되여 주체사상학습의 귀중한 교과서로 리용되고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발행하는 기관지 《주체사상연구》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놀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연구》는 국제연구소의 창립과 함께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40호를 발행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이래 국제연구소의 리사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학자들이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사상, 리론적 업적을 찬양하고 주체사상과 그 위대한 생명력을 깊이있게 론증한 많은 책을 집필, 출판하였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이며 일본 릿교대학 교수인 이노우에 슈하찌씨의 《현대조선과 김정일비서》와 《주체사상개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 엘. 다파니케스기넨(핀란드)의 《참된 인민의 지도자 김정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티. 비. 무케르즈(인도)의 《김일성주석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과 《주체의 인생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이며 프랑스 빠리제1종합대학 교수 삐에르 브도의 《밝은 아침의 나라의 빛나는 금강석》을 비롯한 많은 단행본이 세계 많은 나라에서 출판, 배포되였습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창립이래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를 널리 조직함으로써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활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켰습니다.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는 주체사상에 대한 리론적연구를 심화시키고 이 사상을 구현하여 거둔 성과를 일반화함으로써 인민의 자주위업을 고무하는데 큰 의의를 가집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이래 세계의 100여개국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전국토론회, 연구조직토론회, 대학토론회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을 깊이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주체사상에 관한 강의와 강습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깊이 체득한 학계의 진보적인사가 대학에서 주체사상을 강의하고있는것은 고무로 됩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이래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이 깊어지는데 따라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쥐고 자주시대의 력사적전진운동을 밀고나가는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되였습니다.

창립된후 10년, 이 짧고도 영광찬 과정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국제적인 학술연구조직으로서의 사명에 맞게 세계적범위에서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일본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고무하여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크나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비서께서 심화발전시키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견인력, 불패의 생명력의 확실한 과시로 됩니다.

나는 영예롭고 경사스러운 이 자리를 빌어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인간해방과 자주화위업에 한평생을 바치고계시는 김일성주석과 빛나는 예지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비서께 우리들의 한결같은 경모의 정을 담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한생을 바칠 결의를 굳게 다지고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전력을 다하고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리사와 사무국의 성원, 참사, 연구원, 일본과 세계 각국의 주체사상연구자의 여러분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3. 주체사상의 보편적진리성

지난 10년간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거둔 성과는 주체사상의 보편적진리성과 그 뛰여난 견인력의 결과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인간해방의 사상입니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근본적지향인 자주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인간이 모든 형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는 길을 해명한 사상입니다. 이제까지 주체사상과 같이 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 실현방도를 밝히며 자주성이 종국적으로 실현되는 새 사회를 휘황한 화폭으로 펼쳐놓은 사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존엄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진보적인민대중은 주체사상을 자주와 독립의 상징으로 여기며 이 위대한 사상으로 자주성의 숭고한 리념과 지향을 실현하는 참된 길을 걸어가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한 사람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가장 발전된 위력한 존재로서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세계와 자기 운명 개척에 있어서 결정적역할을 수행한다는 진리를 해명한 인간에 대한 신념의 철칙입니다.

철학적세계관의 근본적사명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해명하는데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인간의 자유와 역할을 해명함으로써 인간의 운명, 민족의 운명,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는 가장 참된 길을 밝혀놓았습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사상을 해명함으로써 수억만 인민대중이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들은 자주적인 의식을 좀먹는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숙명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대중이 주체사상을 그만큼 따뜻이 맞아주고 자기의 것으로 하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 있어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옳은 해답을 준 과학적학설이며 자주와 독립, 새 사회 건설을 떠밀어주는 기치입니다.

주체사상은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옹호하며 모든 지배주의와 배타주의를 반대하고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인류의 영원한 번영을 이룩할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사상은 참된 국제주의사상이며 철저한 평화옹호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모든 인민대중의 공통한 지향을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기여한 고금동서의 모든 진보적사상을 아량있게 포섭하며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사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사상은 조선에서 창조된 사상이기는 하나 인류공동의 사상리론적재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4. 일본과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은 현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업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지난날 억압받고 멸시받은 인민대중은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가고있으며 자주성의 격류가 세계의 온 대륙을 뒤덮고있습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입니다. 자주성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며 그 누구도 남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힘찬 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은 드디여 지배와 예속의 낡은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사발전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일본과 세계 진보적인민들 앞에는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전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자주화된 세계는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를 완전히 일소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한 세계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부세력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단호히 견지할 때 전세계의 자주화는 실현되는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나라와 민족간의 관계를 자주화하는것입니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어도 높은 지위에 있는 나라와 낮은 지위에 있는 나라,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란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때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됩니다.

세계의 인민대중은 제국주의와의 종속적인 동맹관계를 해체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수탈을 방지하며 모든 나라가 자주성에 기초한 평등과 친선협력관계를 더한층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은 새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항구적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주체사상은 전세계의 자주화와 그 실현방도를 명시하여 자주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미래의 세계를 밝은 화폭으로 펼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적으로 존엄있게 살기를 원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자주의 상징으로 여기며 이 위대한 사상에서 전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참된 길을 찾고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진정한 사명도 인민대중속에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며 전세계의 자주화위업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을 세계의 자주화위업 수행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은 각국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매개 나라마다 그 제도와 신앙, 발전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은 각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진행하지 않으면 인민대중에게 주체사상의 진리를 옳게 인식시킬수도 자주화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주체사상의 생명력을 높이 발휘시킬수도 없습니다.

각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에서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의 연구보급에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큽니다.

우리들은 기관지 《주체사상연구》를 비롯한 각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서 발간하는 잡지와 신문들의 편집수준을 높이고 그 질을 개선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또한 주체사상토론회와 강습, 강의, 연구발표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 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을 더 발전시키고 전세계를 자주화하는데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비롯한 각 연구조직들을 더 생기발랄한 조직으로 확대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배우려는 사람들은 모두 따뜻이 포섭하고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배워주는 방법으로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을 확대발전시켜 광범한 대중을 자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일본과 세계 진보적인민대중속에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전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에 적극 공헌해나갈것입니다.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대중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10년간의 자랑찬 성과를 더듬으면서 주체사상의 연구보급활동을 계속 활발히 벌릴 결의를 가다듬는 집회참가자들

학생들의 변화에 깃든 어머니들의 열성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어머니회◦

가나가와현하 동포들속에서 최근 조고생들에 대한 평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공부에 욕심을 가지게 되였다》, 《지각, 결석 등 무질서한 현상이 없어졌다》 등등.

사실 올봄에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가 《모범반》의 영예를 지니고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했으며 가나가와조고의 현안, 소원이였던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변신》하여 《학년상》으로 빛났다.

가나가와조고학생들의 《변모》를 두고 학부형어머니들의 가슴엔 은근한 기쁨이 넘쳐흐른다.

《어머니회를 내와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

초급부 못지 않게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

아들딸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민족적정서를 마련해주자고 몸과 열성, 지어 돈을 아낌없이 내여 분투한 어머니들도 아이들이 조고에 진학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리려는 관심이 사라지기마련이다.

조고생들에 대한 좋은 소문과 함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이제 다 컸는데 어머니가 무엇때문에 나서겠는가》, 《우리 애는 다르다.》라고 얼버무리고만다.

가나가와현하 초급학교에서 《어머니회》의 활동을 적극 벌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교양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온 30대, 40대의 어머니들도 그러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에 나가본 그들은 교문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다.

시업종은 벌써 울렸는데 지각생들이 교문에 수두룩하게 몰려있었다.

옷차림도 단정치 못한 학생들의 얼굴엔 《잘못됐다》는 가책의 빛은 없었다.

초급부시절엔 보지도 못한 광경이였다.

(그 애가 그 애인데…?)

초중시기의 좋은 버릇이 어디로 갔는지.

《고급부는 수업참관이 없다》느니 《통지서가 없다》느니 하면서 학교의 소식을 전혀 알리지 않는 아이들의 말소리가 한 어머니의 귀를 때렸다.

조고생이 되였다고 미덥게만 보고 더 관심을 돌리지 못한 어머니들.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해도 이렇게 지각생이 많아서야 학풍이 설리가 만무하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결합.

초급부어머니회 활동의 취지를 중고에서도 계속 살리자.

어머니들은 중고생들 특히 조고생들의 학부형들에게 호소하였다.

년령, 심리적으로도 조고생들의 성장을 위해 어머니들은 눈초리를 더 많이 돌리자고.

2년전의 1986년 6월 가나가와중고 《어머니회》가 무어진 계기는 바로 이러했다.

은을 낸 가정과 학교의 련계 강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니가 가정교양을 잘 주면 학교에서나 사회조직에서 교양하기 매우 헐합니다. 어머니가 교양을 잘하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도 잘할수 있습니다.》

참된 조선사람으로서의 자각과 긍지, 혁명적세계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고급부이다.

이때 좋은 품성과 높은 학력을 키워주어야 쓸모있는 애국운동의 역군이 된다.

어머니들은 《어머니회》 활동의 중심내용을 바로 이러한 고급학교교육에 들어맞는 가정교육과 그를 위한 어머니들의 련계에 두었다.

때마침 조고의 교복이 새로 바꾸어지는것을 계기로 학부형어머니들의 모임을 가지고 적극 호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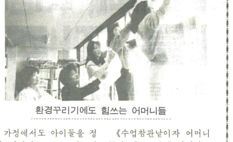
관하 10개 지부들에서 2명씩 역원들을 내여 중고생 학부형들에 대한 련락체계를 완비하였다.

학교행사와 그에 따른 통지서의 내용이 학생들을 거쳐서만이 아니라 이 련락체계에 따라 빠짐없이 침투되게 되였다.

《고급부에선 없다》던 수업참관, 학부형모임이 전달에 침투되고 지역(지부)별어머니들의 모임이 수시로 조직되는 과정에 수업참관시 부모들의 참가수는 실로 4배로 늘어났다.

어머니회에서는 특히 학풍을 세우기 위해 어머니들이 학생들의 지각을 없애자고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어머니들이 차례로 아침 등교정형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환경꾸리기에도 힘쓰는 어머니들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정한 시간에는 꼭꼭 내보내도록 하였다.

매일, 매주, 매달 학생들의 등교정형을 어머니회가 장악하였다.

1년간 어머니회는 학교와 그리고 련락체계에 따른 어머니들과의 련계를 꾸준히 강화하였다.

3개월, 반년 드디여 어머니회가 무어져 1년이 된 지난해 새학년도를 계기로 가나가와조고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오래 끌던 지각현상이 가셔지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속에서 질서가 서게 되였으며 옷차림, 복습, 예습, 소조활동에서 걱정되던 점들이 크게 개선되였다.

물론 이것은 교원들과 조청조고위원회의 노력에 의한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달라붙어 이것들을 해결한》(학교)것은 어머니회의 활동의 결과인것이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고무되여

《아이들에 대한 요구성만을 높일수가 없지요.》(김행자회장)

어머니회역원들속에는 밤에 장사하는 사람, 남편과 함께 분주히 일하는 녀성들이 많다.

아이들을 학교에 내보내기 위해 잠을 줄이는것은 응당한 일로 치더라도 학교에 나가는 날, 어머니회를 가지는 날이면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다 내놓아야 한다.

《수업참관때는 어머니회 역원이 솔선 참가하였지요. 때로는 남편과 함께.》(김민애녀성)

자신뿐만아니라 련락체계에 따라 자기가 맡은 학부형들을 자동차에 태우고 같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수업참관날이자 어머니들의 정보교환의 날이기도 하지요.》(김경순녀성)

초중급시기 아이들을 위한 일과 고급부 아이들을 위한 일이 다르다는것을 인식하게 된 어머니들이다.

그런 속에서 어머니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고에 있는 도서실을 더 잘 꾸리는 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렸다.

《동포들이 어머니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적극 협력해주며 1천권이상의 백과사전, 과학기술, 문학서적을 보내주어 정말 힘이 났지요.》(박광자녀성)

그러나 사실은 역원들의 수고가 많았다.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어머니들도 성장해야 하지요.》(추정순녀성)

어머니회는 조고위원들과의 간담회(2월)를 가졌다.

참된 조선사람으로서 떳떳이 살자는 기개에 불타는 조고생들의 름름한 모습은 어머니들에게 《큰 자극》, 《충격》을 주었다.

《무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아이들이 더 또렷한 견해를 가지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양을 더 잘해야겠다고 지난 4월, 도서 약 1천권과 도서실 카텐을 비치한 어머니들은 새 역원을 선출, 보강하여 1학기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 주된 내용은 도서실을 더 잘 꾸리기 위해 2차로 《한가정 한권 새 책 모으기》를 벌려 340권의 새 책을 갖추며 전체 학부형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소년기로부터 청년기에 들어서는 중고생들의 신체, 심리 발육에 맞게 가정교양을 잘하자는 강연회(6월)를 가질것 등이다.

(본사기자 로정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어머니들의 얼굴엔 자신과 보람이 흘러넘친다.

후대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

새 통학뻐스를 훌륭히 마련

도꾜제5초중 학부형들

뜻깊은 4월 초하루 입학식날, 도꾜조선제5초중급학교에 총련 가쯔시까, 스미다, 에도가와지부에 거주하는 이곳 학교 학부형들이 새 통학뻐스를 기증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기울이고있는 이곳 학교 학부형들.

그들은 이곳 학교창립 40돐을 뜻깊게 맞이한 지난해에도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귀여운 후비대들과 학교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성으로 막대한 금액을 모여 새 통학뻐스 2대와 도서실, 콤퓨터실을 마련하였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사랑어린 뻐스앞에서 기쁨의 손벽을 치는 학생들

올해 또다시 관하학부형들이 마련한 새 통학뻐스를 타고 새로 입학한 35명의 꼬마들과 재학생들은 씩씩하게 학교로 등교하고 있다.

【도꾜제5초중】

후꾸시마초급 어머니들

후꾸시마조선초급학교 《어머니회》에서 이곳 학교 창립 40돐(7월 1일)을 기념하여 통학뻐스를 회사하였다.

1일의 입학식에서 전달된 통학뻐스 《어머니호》는 수년간에 걸친 《어머니회》의 꾸준한 활동과 학부형들의 열성으로 마련되였다.

《어머니회》 회비, 운동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의 매점리득금, 동포학부형들의 찬조금 그리고 이곳 교육회의 방조로 하여 구입된 새 뻐스.

랭난방장치 등이 다 설치된 통학뻐스는 오늘 이곳 학교 학생들과 유치반원아들의 친근한 길동무로서 적극 활용되고있다.

【후꾸시마초급】



《어머니호》 넘스 학교창립 40돐기 화려하게 장식된 뻐

학교에 신통, 발관 회사

가나가와중고 공룡학부형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제11기(1967년)졸업생인 공룡동포가 이곳 학교에 교직원, 학생 및 외래자용 신통과 발관을 회사하였다.

그는 늘 《졸업을 하여도 언제나 잊을수가 없고 그리운것이 정든 모교이지요. 모교가 날따라 발전해나가는것은 우리 졸업생들의 더없는 기쁨이며 자랑입니다.》라고 하면서 모교를 위해 할 일이 없는가고 생각하고있었다.

때마침 금학년도부터 가나가와중고에서는 교실에서는 웃신을 신기로 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신통과 발관을 마련한것이다.

4월 6일, 이곳 학교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참가밑에 선물전달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기증목록을 전달한 공룡동포에게 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앞으로도 계속 학교사랑하는 운동에 앞장서나가겠다.》고 하는 공룡동포의 말 그리고 그의 높은 애교심의 발현인 선물을 전달받으면서 학생들은 앞으로 학과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해나갈 결의를 다지고있었다.

【가나가와중고 오통신원】



감사의 꽃다발을 안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조청 오사까부본부관하 일군들과 청년들이 힘찬 가두선전

조청 오사까부본부관하 일군들과 청년들이 22일 아침 공화국이 제기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의 실현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가두선전을 힘차게 벌렸다.

제이아르 오사까, 쯔루하시역들을 비롯한 부내 14개의 주요역두에서 있은 가두선전에는 350여명의 일군들과 지역청년들이 떨쳐나서 통근자, 통학자들에게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통일제안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날 조청 오사까부본부가 진행한 가두선전에서는 3만 5천장의 삐라가 살포되였다.

【조청오사까】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을 안고 삐라살포를 하는 조청오사까 청년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民族教育の尊さ改めて思う

4.24教育闘争40周年を記念して

県大会、シンポジウム 写真展が開かる ・兵庫・

南朝鮮における米帝の「五・一〇単独選挙」を反対して闘争に立ち上がった在日同胞らに対する米占領軍と日本政府当局の弾圧から民族教育を守るため、朝聯中央の指導のもと東京をはじめ各地で展開された四・二四教育闘争。その四十周年の節目を迎えて総聯兵庫県下では、さる十九〜二十四日にかけて様々な記念行事が催され、多くの同胞が参加、闘争の激しさ、民族教育の尊さを思い起こす貴重な場となった。

記念大会

二十三日、兵庫県立文化体育館で行われた「四・二四教育闘争四十周年記念兵庫県朝鮮人大会」（総聯兵庫県本部主催）には県下同胞三千七百人が参加し、盛況を収めた。

大会一部は記念集会。

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中央委員会、朝鮮職業総同盟中央委員会、朝鮮社会主義労働青年同盟中央委員会をはじめ、今大会あてに贈られてきた祝電の紹介の後、総聯中央・徐萬述副議長があいさつに立った。

徐副議長は、民族教育事業の発展のために尽力している県下同胞と、四・二四闘争過程で犠牲になった同胞たちの遺族に総聯中央のあいさつを送った。

また、現在の緊張した情勢の中、民族教育を固守し発展させることが大切であるとしながら、来る九月の共和国創建四十周年を「五ヵ月愛国革新運動」の輝かしい成果をもって迎えよう、と述べた。

つぎに総聯兵庫県本部・李福南委員長が報告を行った。

李委員長は、当時の闘争を振り返り、四・二四闘争は朝聯中央の方針に基づき、日本での民族の尊厳を守り抜いた闘いである、同胞が一丸となって闘えば出来ないことはなく、これからも大衆的運動で民族教育を発展させていこう、と語った。

大会では四・二四を記念した県下朝鮮学生による作文コンクールおよび美術作品コンクールの受賞者が表彰され、作文部門と美術部門の金受賞者を代表して宋金盛君（阪神初級・初五）と黄聖愛さん（西播初中・中三）が賞状を受け取った。

大会二部では、県下朝鮮学校の学生八百人の出演による音楽舞踊構成詩「花ひらく民族教育」が上演された。祖国解放当時の喜びの場面から民族学校で学ぶ子供らの姿、日本政府の弾圧、闘い、祖国からの援助、学校建設、未来の主人公たちのはばたく姿を描いたスケールの大きい感動的な舞台となり、観衆の中には目に涙する同胞もいた。



記念大会の２部に行われた芸術公演のフィナーレ（２３日、兵庫県立文化体育館）

シン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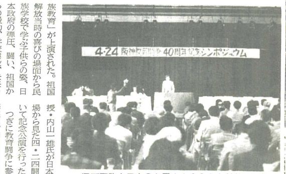
一方、二十四日には兵庫県教育会館において「四・二四阪神教育闘争四十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が、教職同兵庫県委員会と日本の各界人士らの呼びかけによって開かれた。

同シンポには日本社会党・土井たか子委員長をはじめとする衆参議員、県議会・市議会議員、各界人士たちから多くの祝電が寄せられてきた。

シンポの前に記録映画「朝鮮の子」（在日朝鮮映画人集団製作、一九五五年）が上映された。

開会のあいさつを教職同兵庫県委員会・李鐘九委員長が述べた後、朝鮮大学校助教授・金徳龍氏が在日朝鮮人運動の見地から、また天理大学教授・内山一雄氏が日本人の立場から見た四・二四闘争について記念公演を行った。

つぎに教育闘争に参加した李聖徳、李浩権の両氏が、当時の闘いのし烈さを振り返りながら体験談を語った。



県下同胞と日本の各界人士２８０人が参加したシンポジウム（２４日、兵庫県教育会館）

写真展

大会、シンポに先立ち、十九〜二十二日には兵庫県民会館内の県民アートギャラリーで、四・二四阪神教育闘争四十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と学校法人兵庫朝鮮学園の主催による、記念写真展（兵庫県朝鮮人児童美術作品展）が開かれた。

同写真展には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の祖国解放当時から民族教育の始まり、GHQと日本の警官隊から学校を守る闘い、教育の発展模様、今日の民族教育の姿などの写真百十七点（未公開写真六十五点）が展示された。

また、児童美術作品展にはウリハッキョの幼稚園児から高校生たちによる絵画と粘土細工品（四百八十六点）が所せましと展示されていた。

写真展に訪れた盧珖球氏は当時、姫路市にあった網干朝鮮小学校の三年生。「GHQと日本政府のために学校が閉鎖されると聞いて、当時の学友、父母、先生たちと学校で三、四日くらい寝泊りしながら事態に備えました。いま思えば幼いながらも学校は自分たちの手で守るんだという気持ちでいっぱいでした」と、当時を振り返る。

当時、神津朝鮮小学校（兵庫県伊丹市）の校長を務めた李玉根氏（尼崎市武庫之荘在住）は、「祖国の未来の担い手を育てなければ、という一心で闘いました。そのかいあって今では私たちの〝誇り〟が立派に育っているのを見ると感無量ですね」と、感慨深げに語っていた。



写真展で当時の様子を振り返る同胞たち（県民アートギャラリー）

南北連席会議の時を回顧して

将軍との出会いが人生の転機に

真の共産主義者をみる

李 克 魯（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議長団メンバー）

南北連席会議四十周年の節目に当たり、当時、南からこの会議に参加した李克魯氏（現八十八歳）の回想の手記を紹介する。

□ □

一九四八年は、私にとって忘れることのできない年である。

それはこの年はじめて、金日成将軍に直接お目にかかり、その時から私の苦難に満ちた生活は終わりを告げ、光明と希望に満ちた新しい生活が始まったからである。

四月のある日、思いがけなく平壌から南北朝鮮政党、大衆団体代表者連席会議への招請を受けた私は、北半部に向かう前日、親友の家で一日泊まり、翌十九日の早朝に汽車でソウルをたった。

その夜、警戒のものものしい三八度線を無事に越え、われわれの到着を知った警備隊の同志らの案内を受けたが、その時の感激を生涯忘れることはできない。

翌日、南川で市民らの歓迎を受け、二十一日の早朝に平壌に着いた。

その足でわれわれは、連席会議が開かれている牡丹峰劇場に向かった。

会議場にはすでに多くの参加者が来ており、休憩室に案内されたわれわれはそこで背の高い一人の若い幹部を紹介された。私はすぐ、この方が金日成将軍であると直感した。

「ああ、李克魯先生ですか、ここまでおこしになるのに本当にご苦労さまでした。どんなに大変だったことでしょう」

私のあいさつより先に将軍はこう言いながら、われわれを歓迎してくれた。

そして、「祖国の独立のためにどんなにかご苦労なさったことでしょう」との私の言葉に、かえって「いいえ、国内におられた皆さんこそもっと苦労されました」と言いながら、私の手をとって椅子をすすめてくれた。

会議は二十四日まで続いた。私は、当面する政治情勢と祖国の平和統一のために提起される諸課題を示した将軍の報告を感動のうちに聞き、くり返し読んだ。

「…単独選挙はわが祖国を永久に分断し、南朝鮮をアメリカ帝国主義者の完全な植民地、軍事基地に変える結果をもたらすでありましょう。

……

…祖国と民族の運命を憂慮するすべての人々は、党派と宗教の違い、政治的見解のいかんを問わず、必ず団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会議で採択された、統一・民主・自主・独立国家をうたいあげた「朝鮮の政治情勢に対する決定書」やソ・米両政府に対する要請書はもちろん、会議の全過程を通じて私は、統一戦線政策を示した将軍の賢明な指導に驚嘆の念を禁じえなかった。

四月二十五日には、連席会議の成果を祝う平壌市民の慶祝大会と午さん会が催された。

明るく、力強く、活気に満ちた市民と朝鮮人民軍の行進、そして解放後の短い期間に成し遂げられた民主改革の成果をまのあたりにして、われわれ南朝鮮から来た人士は皆、深い感銘を受けた。

私は当時、金九が自分の心を打ち明けながら語った言葉を今も記憶している。

「私はこの目で北朝鮮のすべての現実を見てはじめて、金日成将軍のような方こそ真の共産主義者であることを心から感じました。このような共産主義者ならば、どうして共産主義者を悪いと言えましょう…」

これは金九だけが受けた感銘ではなく、南から来たすべての代表が受けた一致した印象であった。

私自身も元来、共産主義者ではなかった。朝鮮語学研究に志を抱いた一人として、民族の言葉と文字を正すために解放前から朝鮮語文学運動に携わって来たが、日帝の支配時期はもちろん、南朝鮮にいる時も朝鮮語文学の研究活動を思いどおりに進め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だが、北半部に来てはじめて私は、心おきなく同僚たちとともに研究活動に専念することができたし、主席の配慮のもとに幸せに暮らしている。

そして今、老いたりとはいえ、南の兄弟たちを思い、祖国の統一に全力を尽くす決意を新たにしている。



南北連席会議の共同声明を支持してデモをする平壌市民（１９４８年４月）

水曜訪問

同胞社会に貢献する活動を

大阪府青年商工人協議会の新会長に選ばれた

金 希 祚さん

「何事をするにも自分が先頭に立って動き、みんなを引っ張った、前会長（呂光市現顧問）の意気込みを見習いたいと思います」

この二月に結成十周年を迎えた大阪府青年商工人協議会。その二代目の会長に、さる十七日に就任。

「これまで十年間、各地域での協議会組織づくりに熱心に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若い商工人たちだけでなく、地域の同胞たちの間にも協議会が根を張るよう、力を入れて来ました。これからは全大阪協議会的な活動を盛り上げていく段階ですね」

これまでは前会長の下で副会長として、活動を盛り立ててきた。

協議会活動にかかわるようになったのは八年前。八〇年に宝塚市で開かれた協議会の講習会がそのきっかけ。「当時はウリハッキョ出身の会員が少なくて、講習会の参加者も日本学校出身者ばかりだったんですよ。その人たちが仕事も忙しいのに、仲間を集めて祖国について真剣に学んでいる姿に、衝撃を受けましたね」

その時以来、協議会活動に熱心に参加するようになり、八一、八四年には協議会の代表団の一員として祖国を訪問する。

自分の会社のある東南地域（大阪市南区、東区）にも、四年前に協議会を結成するため奔走。会長として野遊会やチャリティーゴルフなど、幅広い活動を繰り広げてきた。

中でも力を注いだのが学校を愛する運動。会員や同胞たちとウリハッキョ（中大阪初中）の見学を企画し、卒業後初めて母校を訪れたという人や日本学校出身の人たちに、民族教育について真剣に考え、運動に加わるきっかけを作った。

「より多くの若い世代が祖国を、そして自分の置かれた立場を知り、同胞たちのために、ひいては祖国の統一のために貢献することが出来るよう、協議会活動を活性化していきたい」と、新会長は抱負を語る。

六月の青年商工人フォーラムを「全国の仲間と語り合える」と、今から心待ちにしている。（里）



1948年５月17日、東大阪市で生まれる。東大阪第二初級学校入学後、朝大まで民族教育を受ける。家業の不動産、金融業を手伝い、11年前に大希観光株式会社を設立。現在、在日本朝鮮人大阪府商工会常任理事、東南商工会理事長。

トンボの街かど

生徒120人招き芸術公演催す

総聯秋田・「学父母会」

東北朝鮮初中高級学校の生徒ら百二十人がさる十五日、金日成主席の誕生七十六周年を祝う総聯秋田県本部の慶祝大会二部に参加し、芸術公演を披露した。

秋田県で同校の生徒たちによる公演はこれまで何度か催されてはいたが、どれも主に県下の学生らによる小規模公演。今回のような〝大部隊〟による公演が行われたのは初めてのことだ。

これは管下の父兄たちで構成された「学父母会」（金基出会長）が、「生徒たちの姿を通して、一人でも多くの同胞が民族教育の素晴らしさを直接感じてほしい」と企画・準備したもの。

この日、生徒たちは歌とお話「頭のはげたおうむ」（初級部）、女性重唱「マンギョンデを歌うよ」（中級部）、詩と歌「祖国の愛は温かい」（高級部）など、一時間にかけて多彩な演目を披露。

生徒たちが一生懸命準備した公演に父兄たちは「父兄らが中心となってこのような大きな行事を催したのは初めて。これをきっかけに、ウリハッキョのためにさらに頑張っていきたい」と語っている。

また、ある同胞は「子供たちがとても明るく、異国でもチョソンサラムとして立派に育っていることがよくわかった。生徒たちの公演を通して、祖国統一を早く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痛感した」と感想を述べていた。



民族の心守る貴重な場

広島、朝鮮文化講座

総聯広島県本部管下で多くの同胞を集めて朝鮮文化講座が開かれている。四月十四日、広島本部は、去年の下半期、同講座に六百人を動員した経験を踏まえて、今年は五百人参加を目標に講座を運営している。各支部とも三月中旬に実行委員会を設け、若い商工人を中心にすべての準備を進めてきた。

十八日に広島市内のダイヤモンドホテルで行われた西広島支部の講座（講師＝総聯中央・朴礼石部長）には、約五十人の同胞が参加した。朝・日関係史を中心に同胞二世と子供らの前途について講義が行われ、参加者は多くのことを考え、学び取った。

「具体的な資料を挙げて行われた講義は、朝鮮民族の誇りを与えてくれた。この講座はわれわれ新しい世代が民族の心を守るうえで貴重な場となっている。今後はより幅広く、多くの同胞を集めたい」と、同講座の実行委員会・金鎮浜委員長（西地域商工会副理事長）は語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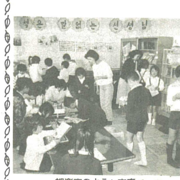
講座はこの後、五月中旬まで各支部単位に、次々と行われる。

本部会館において百十人の青年を対象に行われたのを皮切りに、西広島（十八日）、北広島（十九日）、呉（二十二日）、福山・尾道合同（二十四日）の各支部でそれぞれ文化講座が開かれた。



生徒はみんな本が大好き

静岡初中「セナル文庫」



娯楽室のような文庫で、楽しそうに本を選ぶ子供たち

静岡朝鮮初中級学校では、昨年五月からオモニたちの協力を得て、学校内で文庫を運営している。「セナル文庫」という同校の文庫は今年度もさる二十日にスタート。この日を待ち望んでいた幼稚班から中級部三年までの生徒たちが押し掛けたくさんの図書が貸しだされた。

◇　◇

校舎の一教室に設けられた「セナル文庫」には、ウリナラの本をはじめ世界の童話や文学書、絵本や図鑑、専門書など三千五百冊が学年別に整理整頓されている。

貸出し日は毎週水曜日、午後十二時から五時までの間、オモニたち数人が事務を取る。昼、休み時間、放課後を利用して生徒たちがひっきりなしに訪ねて来る。

「文庫ができる前は、おこずかいを節約して本を買ってました。今ではいろんな本をたくさん読めて、オモニたちに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とうれしそうに本を選ぶ許南海トンム(中三)。

幼稚班の園児らも楽しそうに自分の好きな絵本を選ぶ。自分でなかなか選べない子は、オモニたちが一人ひとりアドバイスをしてくれる。

ウリハッキョでは、めずらしい文庫。発端は昨年の四月、同校の李恵順教員の呼びかけからだった。

「最近、本を読む子供たちが少なくなりました。創造性を養い、想像力、感性を豊かにする情緒教育の一環としても読書はとても大切です」

李教員の気持ちはこの問題に関心の高いオモニたちに伝わり、すぐに実行に移されたという。そして五月に初歩的な段階ではあったが文庫を設置した。

「文庫形態にしたのは、生徒らに読書を楽しいものに感じてもらいたかったからです。だから強制はしないんですよ」

最初は好奇心で文庫を利用していた生徒も今では読書が生活の一部として根づいてしまったとか。成果はこの一年で少しずつ出ているようだ。

オモニの情熱がこもった文庫

文庫に置かれているアンケート箱の中はいつも用紙でいっぱいだ。「〇〇〇の本が読みたい」などの注文が入っているが、中には「オモニたちありがとう」「いつもご苦労様」などの感謝の言葉も。

「生徒たちの言葉にいつも励まされるんですよ」という中心メンバーの曺順子、朴玉辰、李明順、南裕子オモニ。今では生徒たちと友達のようだが、そこにはオモニたちの地道な努力があった。

「初めは少しでも早く子供たちに溶け込もうと一人ひとりの名前を覚えました。貸出しのリストもつけているのでみんなの好む本もわか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と語る朴玉辰オモニの言葉からもその情熱が感じられる。



低学年と幼稚班の子供たちが借りた本はソンセンニムが一度読んでくれる

そんなオモニたちは、「より多く、そして多種多様な本を子供たちに」と、市営の図書館の理解を得て、毎月百冊以上もの本を借り受けているので、三ヵ月間には五百冊近い本をローテーションさせることになる。また、月一度、図書館で催される講習会に参加するなど、子供の図書について随時、研究している。

「子供のためばかりじゃなくオモニたち自身の社会活動でもあるんです。だから自分の子供が卒業しても続けていきます」と曺順子オモニ。

そんな"オモニ文庫"が開かれる水曜日が生徒たちの一番の楽しみだという。(恵)

愛知中高創立40周年を祝う

愛知朝鮮中高級学校がさる二十日、創立四十周年を迎えた。同胞や父母の温かい支援と熱意に支えられながら発展してきた同校の創立を祝う記念の集いが二十四日、同校で催された。

記念集会

この日、総聯中央・金守鎮教育局長、総聯愛知県本部・康潤環委員長と県下の同胞、同校教職員、学生、そして広島、東京、大阪をはじめ東海地方から駆けつけた五百余人の卒業生らの参加のもと、記念集会が同校体育館で開かれた。

記念集会では、まず、祖国の教育委員会と連携学校である平壌楽浪第一高等中学校、平壌倉田男子高等中学校から贈られた祝電と祝旗が紹介された後、総聯県本部委員長が祝賀あいさつをし、同校の創立は「東海地方での中高等教育機関の創設として、民族教育と愛国運動の発展に大きな意義を持つものであった」と強調した。

続いて同校・金宗鎮校長が記念報告をした。

その中で、三つの教室、二百人の学生で開校した後(名古屋市)豊明市に現校舎が定まる(一九六一年四月)まで、五回も移転をする曲折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同校は今日、千余人の学生と六十の教室、コンピュータ教室など現代的な設備が整った学校に発展したと述べた。

そしてこの間、六千余人の卒業生(その内、千余人祖国に帰国)を社会に送り、また教育と学生の育成を通して数々の成果を収めたと述べながら、四十周年を機に祖国を愛し学校を愛する運動を幅広く行い、教育の質向上と民族教育の権利を擁護する活動を力強く推し進めようと語った。

集会終了後、学生たちによる祝賀公演が行われた。

連合同窓会結成

「卒業生たちが一丸となり母校の発展に尽くそう」と、この日、愛知朝鮮中高級学校連合同窓会が発足された。

結成の集いでは、まず、連合同窓会準備委員会(去年の三月に組織)の金在武副委員長(朝高第四期生)が経過報告した後、会則の発表と役員の選出が行われた。

会則では同会の目的を「祖国と母校を愛する精神を育み、期別同窓会相互の連携を強化し同窓生らの親ぼくを深めていく」(第四条)ことにあると記している。

そして母校の発展に寄与する事業を行うとともに、同窓生らの便り、期別同窓会の活動や学校の便りを知らせることを活動内容としている。

初代会長として、鄭禧昇氏(第三期生)が選ばれた。

祝賀宴会では、期別ごとに卒業生らが舞台に上がり「赤いチョゴリ」や「オンヘヤ」など、学生時代に愛唱した歌を披露しあい、楽しいひとときを過ごした。



同窓生たちは祝賀宴会で楽しいひとときを過ごした

月間論調

日本の雑誌―5月号の論調

KAL機事件など 日本のマスコミの報道検証
巧妙な情報操作、脈絡のない憶測記事

KAL機事件ほど、見事に日本のマスコミが踊らされた事件はない。今月の論調は期せずして日本のマスコミ報道の問題―情報のタレ流し、あるいは意図的ともいえる無視を考える材料を提示している。

その中で、きわだって説得力ある内容で綴られているのが、「マスコミ市民」の特集「大韓航空機事件をめぐる現場記者の検証」(山本良昭氏)であるといえる。

現場記者である山本氏は、自身の記事を含めKAL機事件に関するほとんどの記事が、脈絡のない憶測記事であったとしながら、「『憶測』はすなわちデッチ上げだ。デッチ上げは書かれることで、あたかも事実のような体裁をとりはじめ、その結果、巧妙な情報操作のワクにはまっていく」と指摘。

さらに「新聞がみな同じことを書き始めるとき、国は最も大きな危機にさらされていることを記者は肝に銘ずるべきだろう」と戒めたこの特集では、①消えた「大韓機」②爆破③爆弾は持ち込めるか④二人の不審な軌跡⑤「宮本」報道の謎⑥「真由美」君は誰?"⑦二人の不可解な部分⑧目に見えないカ―以上の体系で、五十ページにおよび事件を巡る謎を原点にもどって検証している。

「現代」には、「韓国『国家安全企画部』の全貌を明かす」(韓桂玉)がある。セマウル不正を始め、数々の不正事件のカゲで暗躍した悪名高い南朝鮮情報謀略機関の実態をえぐり、KCIA=「安企部」とつづく謀略の系譜もたどることができる。

「噂の真相」は、「日本のマスコミが黙殺を決め込んだ韓国学生運動の"深層"」(谷口一也)を載せている。

ここでは谷口氏が、いわゆる「六・二九宣言」以後、特に「大統領」選挙、KAL機事件に続く報道攻勢とは裏腹に、日本のマスコミ報道から"消えた"民主化闘争の実態を探るために訪ねた(「大統領就任式」の直前)南朝鮮での学生たちとの会見内容が記されている。

「反体制学生運動は、閉塞状態にあるのか」との質問に、「そんな事はない」ときっぱりと言いながら、学生たちは「六・二九」までは「街頭における活動が主体」であったが、それ以降は「戦術を転換」しただけで、「沈静化」「閉塞」したわけでなく、「特別宣言で無視された労働者、農民地位の向上に重点をおいて活動をつづけています」と語っている。

学生たちと話していて谷口氏は、かえって「六・二九」以降、「学生運動は多様化」していたのだと感想を述べている。

いま、南朝鮮で労働者、農民による闘争が拡大し、セマウル疑惑追及に始まった権力型不正―全斗煥・盧泰愚一派に対する厳しい追及が行われている現状は、まさにそれを物語って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

「世界」には、「白書・日朝不正常関係」(山本剛士)と「韓国第六共和制と民の声―盧新政権下で、韓国はいま」(伊藤千尋)、インタビュー「韓国民衆・民族文学は何をめざすか」(白楽晴)がある。

また、同誌の「編集者への手紙」欄に、T・K生の「韓国からの通信」休止に関して一読者の声が掲載されている。

マスコミ報道に右往左往せず、主体的な立場に立って情報を判断するしっかりした見識を養いたいものである。(〇)

見過ごせぬ人権侵害

切替遅延に罰金7万円

「誰かが立ち上がらなければ」

東大阪市長瀬町に住む張炳珠さん(五二)は四月二十五日、総聯活動家や大阪社会文化法律センターの弁護士らとともに同市役所を訪れ、"うっかりミス"で外国人登録の確認申請(登録切替)期限が経過したことを理由に警察に告発した市当局の措置が、人権への配慮を著しく欠いただけでなく、張さん一家が母子家庭である実状などを無視したものと強く抗議した。

張さんは市当局の告発が端緒となり、法違反に問われ、罰金もしくは労役場留置に処するとの略式命令を受けている。

「目の前が真っ暗」

張さんは一九八六年末、外国人登録済証明書が必要になった際、ついうっかりしていたため登録切替期限から一年が経過し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あわてて東大阪市役所に出向き、事情を説明して登録の切替をすませた。

張さんは登録切替期限の遅延問題が解決したものと安心していたが、一九八七年八月、布施警察署から呼び出しを受け、切替えが遅れた理由などについて事情聴取された。さらに一カ月後には検察庁に呼び出され、警察での事情聴取内容の確認を求められた。

「別に悪いことをしたわけでもなく、だれかに迷惑をかけたわけでもないので、率直に述べました。それなのに……」

だが、検察庁の担当官は「一カ月後に七万円程度の罰金刑に処するとの略式命令が送られ、前科がつくことになる」と冷たく言った。

「その瞬間、目の前が真っ暗になりました」

母子家庭の張さんにとって、七万円の罰金が大きな負担にな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そのうえ、生涯前科がつきまとうとあっては到底容認できなかった。

検察庁の担当官が言明したように同年十一月、東大阪簡易裁判所から罰金七万円、それが完納できない時は二千円を一日に換算した期間、労役場に留置するとの略式命令が発せられた。

「非常に悩みました。正式裁判に持ち込めば、お金も時間もかかると聞かされていただけに本当に悩みました」

張さんは悩んだ末、知人や総聯の励ましを頼りに、裁判に持ち込もうと決断した。

「この問題は私一人の問題ではなく、在日同胞すべてに共通した問題です。子供たちや在日同胞の将来を考えても、泣き寝入りすべきではないと思ったのです」

大弁護団に支えら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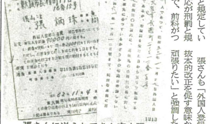
在日外国人の居住、身分関係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外国人登録法は、氏名や生年月日、性別、住所、職業、勤務先など二十項目もの登録と、これらの事項に変更が生じた場合、変更申請を要求し、そのうえ五年毎にこれらの登録事項が事実にあっているかどうかの確認(登録の切替)を求めるだけでなく、所定の期限内にこれらの手続きがなされない場合、懲役一年もしくは罰金二十万円以下の刑罰に処すると規定している。違反への対応が刑罰と規定されているので、前科がつく。

ちなみに日本国民の居住、身分関係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住民基本台帳法、戸籍法では、職業や勤務先などの登録は求めておらず、また登録事項の確認申請などというものもなく、さらに所定の手続きを期限内に行えなかったとしても「五千円(住民基本台帳法)~三万円(戸籍法)以下の過料」で済み、もちろん刑罰でないので前科はつかない。

「いずれ誰かが立ち上がらなければ」と裁判に持ち込むことを決断した張さんに対する支援の輪は、在日同胞の間で大きく広がり、また大阪社会文化法律センターをはじめ日本の弁護士が百人もの大弁護団を組んでたたかいをバックアップすることにしている。

第一回公判は来る五月六日、大阪地裁大法廷で開かれるが、関係者は「昨年の国会で人権を保障する方向での法の弾力的運用について、衆・参両院が全会一致で付帯決議を採択したさなかでの罰金命令であるだけに問題は重大」とみなしている。

張さんも「外国人登録法の抜本的改正を促す意味からも頑張りたい」と強調した。



張さんに送られてきた東大阪簡易裁判所の略式命令

祖国と民族のための医学を

医協西日本本部結成10周年を祝う集い

在日本朝鮮人医学協会西日本本部の結成十周年を祝う集いが先頃、大阪のなにわ会館で行われた。

一九七八年四月二十三日に大阪で結成された医協西日本本部は、この間多くの成果を収めてきた。

初め八十七人だった会員は三百三十人に増え、現在管下では共和病院など六つの支部と協議会、医師部会、薬剤師、看護婦など九つの専門部会が活動している。結成当時十八カ所だった同胞医療機関が四十八カ所に増え、学校保健事業にもより一層の力が注がれるようになった。また、活発な研究活動を行い、多くの研究論文を発表してきた。それと同時に、医療器具や資材、医学書籍と雑誌などを祖国に送る運動を進め、約六千冊に及ぶ書籍と雑誌を送った。

この日、あいさつに立った医協西日本本部・洪淳道会長は十年間を振り返りながら「医学には国境がないけれど、医学者には自分たちの祖国と民族があります。祖国と民族は私たちの母体であり、すべての活動の原点です。祖国の統一と医学発展のために一層努力しましょう」と述べた。

集いでは総聯大阪府本部・曺令鉉副委員長、医協中央・玄鐘完会長の祝辞の後、功労者らに記念品が贈られ、続いて祝賀宴が行われた。



祖国と同胞に貢献してきた参加者の表情は誇りに満ちている

모두다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4월 28일 (음력 3월 13일) 목요일 [루계 제10194호]

発 行 所 朝鮮新報社

日刊 月額 2,000円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창건 56돐에 즈음하여 인민군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5일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56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813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조명록상장과 군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흠모의 정을 담은 꽃다발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조선인민군 창건 56돐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행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날 군부대장병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란회교공화국 대통령특사일행을 접견하시였다.

【평양~도꾜간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란회교공화국 대통령특사일행을 접견하시였다

【평양 4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이란회교공화국 대통령 쎄예느 알리 카메내이각하의 특사인 외무성 부상 사바드 민수리일행을 접견하시였다.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외교부 박의춘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이란회교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싸이드 모함마디 레지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특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이란회교공화국 대통령 쎄예느 알리 카메내이각하의 친서와 선물을 전해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영국조선친선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과 한 담화》를 영국조선친선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발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57년이래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 발전과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체 조국인민들이 200일전투를 벌려 사회주의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벅찬 시기에 또다시 108번째로 1억 2천 570만원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이로써 조국에서 30여년간 보내여온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모두 388억 1천 45만 2,433원에 달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재일조선 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23일 저녁 조선회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08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재일조선 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총련중앙 권순휘사무총국장, 교직동중앙 박광택위원장, 중앙교육회 로재호고문, 총련중앙 김원한 교육국 부국장, 류학동중앙 배직수위원장을 비롯하여 간또지방의 각급학교 교원들과 교육관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중앙 권순휘사무총국장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소개한데 이어 교직동중앙 박광택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민족최대의 경사인 4월의 명절을 열렬히 경축한 커다란 기쁨을 안고 며칠전에 진행된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의 호소문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오늘의 모임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 4월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한 1988년도 국가예산에서 재일동포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계속 보내주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또다시 108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말했다.

또한 보고에서 격동되는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며 전체 교육일군들과 과학자, 류학생들이 《공화국창건 40돐을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사업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는 애국적구호를 들고 5개월애국혁신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그는 강조했다.

보고에 이어 도꾜조선제8초급학교 강정모교장과 도꾜도교육회 손호주회장이 토론을 하였다.

이날 모임참가자들은 5개월애국혁신운동에 적극 떨쳐나서 공화국창건 40돐을 민족교육사업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거듭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민족교육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자

4.24교육투쟁 40돐 기념 효고현조선인대회

4.24교육투쟁 40돐 기념 효고현조선인대회가 23일, 효고현립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대회장 홀에서는 4.24교육투쟁 40돐 기념 사진전과 학생미술작품전이 진행되여 대회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대회장에는 《모든 동포자녀들을 우리 학교에서 공부시키자!》, 《피로써 지켜낸 민족교육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자!》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 총련 효고현본부 리복남위원장, 효고현상공회 강철회장, 효고현교육회 송순종회장, 4.24교육투쟁 40돐 기념행사실행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동포들과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그리고 고베시 미야자끼 다쯔오시장으로부터 보내여온 축전들이 소개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40년전의 투쟁정신 그대로 오늘도 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투신하고있는 효고현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한 다음 4.24교육투쟁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미일반동들의 탄압을 분쇄하고 민족교육의 자주권을 피로써 지킨 의로운 투쟁이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족교육이 걸어온 로정은 말 그대로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일관되였으며 민족교육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발전해왔으며 총련조직이 있음으로 하여 주체의 기치따라 승리와 전진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변화된 환경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더 크게 발전시켜야 할 과업에 대하여 언급한후 총련 효고현본부가 총련중앙위원회가 제기한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리라는것을 믿는다고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 효고현본부 리복남위원장이 대회보고를 하였다.

위원장은 보고에서 조국해방직후 4.24교육투쟁에 이르는 정치정세와 교육사업에 바친 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열성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 내외원쑤들의 탄압책동이 얼마나 부당하고 악랄한것이였는가를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어 지적하며 민족의 존엄과 교육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낸 4.24교육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교육현황과 후대육성사업을 통하여 민족교육을 지켜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확증할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육사업을 애국사업의 중심에 놓고 더 강화발전시켜나가자고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4.24교육투쟁 40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효고현하 조선학생들의 문학작품 및 미술작품 현상모집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제2부로 효고현하 800명 학생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구성시 《꽃피는 민족교육》이 상연되였다.

(관련기사 3면)

남조선인민들이 군정연장을 견결히 배격

로태우일당, 《선거》결과로 심각한 궁지에

26일 남조선에서 진행된 괴뢰국회의원선거 결과는 총칼에 의한 파쑈폭압과 온갖 부정이 감행되는 속에서도 굴함없이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와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로태우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관권과 금권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파쑈폭압이 란무하는 총칼선거를 감행하였다.

괴뢰악당은 이른바 《선거》위반의 명목으로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과 야당선거운동원을 마구 체포하며 《선거》직전에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하는가 하면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로골적인 매수행위에 매여달리는 등으로 일대 관권, 금권 선거, 류례없는 부정협잡선거를 감행해나섰다.

그러나 괴뢰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괴뢰국회의석의 과반수도 차지하지 못하고 《소수여당》으로 전락하게 되였다. 이것은 군사깡패무리인 로태우도당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으로, 패배로 된다.

지난해의 괴뢰대통령선거때에도 관권과 금권에 의한 온갖 부정협잡선거를 감행하였으나 겨우 3분의 1의 표밖에 얻지 못한 로태우도당은 이번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인민들의 반대배격을 받아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말았다.

이것은 군정을 반대배격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민의를 정당하게 반영한것으로서 로태우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가 빚어낸 필연적결과이다.

로태우일당은 당초에 저들의 목표를 지방구의석 224의석의 과반수인 115의석으로 삼아 총칼선거,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그러나 27일의 개표결과를 보면 여당《후보》들의 당선자수는 85의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평민당은 56의석, 민주당은 45의석을 각각 차지하였는바 이는 도합 101의석으로서 로태우일당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태우일당에게 있어서 특히 심각한 것은 여당이 괴뢰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지방구 224의석, 전국구 78의석으로 괴뢰국회가 구성된다. 전국구는 지방구에서 차지하는 의석에 따라 배분되는바 괴뢰악당은 지방구 제1당이 전국구의 과반수인 38의석을 무조건 차지하게 《국회의원선거법》을 조작해놓았다.

지방구에서의 득표률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방구 제1당이 전국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 《국회의원선거법》자체가 여당이 괴뢰국회의 과반수를 횡취하기 위하여 조작해놓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파쑈악법인것이다.

이리하여 괴뢰여당에 돌아가는 전국구의 38의석을 합해도 로태우일당은 괴뢰국회의석의 과반수인 150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였다.

지난해의 괴뢰대통령선거를 릉가하는 총칼선거, 부정선거가 감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뢰여당이 이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것은 반외세, 반파쑈 민주화투쟁에 궐기한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의 결과이며 로태우에 의한 군정연장놀음을 결연히 배격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심판은 내리졌다.

남조선인민들은 군정연장을 반대배격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로태우일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권》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 창건 56돐기념 중앙보고대회 평양에서 진행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56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24일 2.8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와 당과 정부의 기타 간부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대장 최광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무력건설의 튼튼한 정치군사적준비를 갖추신데 토대하여 무장대오를 조직하시고 마침내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 혁명무력의 전투적로정은 우리 인민의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여온 영웅적위훈의 력사로 찬란히 빛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반세기가 훨씬 넘는 간고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된 우리 혁명무력이 당의 령도밑에 전군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위력과 면모를 더욱 뚜렷이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건육성되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치렬한 계급투쟁의 시련속에서 더욱 단련되였으며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최신군사기술로 장비된 필승불패의 조선인민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안전과 우리 혁명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고 보고자는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우에 아로새겨진 모든 위훈과 업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위적군사사상의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날로 강화되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극도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한사람같이 일떠서 싸울것이며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신성한 조국땅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분별한 소동에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저들의 파멸만을 재촉할뿐이라는것을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일본당국은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박해하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간교한 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괴뢰들을 전쟁에로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최광은 날로 로골화되는 적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민군대 및 인민경비대 장병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도 철저히 배격하고 언제나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하면서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원쑤들의 그 어떤 전쟁도발책동도 제때에 철저히 짓부셔버릴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력사우에 아로새긴 위훈과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의 크나큰 사랑과 신뢰를 받고있다.


오늘 인민군군인들은 사회주의건설장에 진출하여 위훈을 떨치고있다.

조선인민군 창건 56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 간부들이 화환을 진정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56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 간부들과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은 25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혁명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놓여있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 사회단체, 항일혁명투사들,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기관, 평양시내 당 및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들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인민군렬사탑 화환진정도 있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이어 인민무력부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한편 이날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무관단도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인민군렬사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인민대표단들이 조선인민군부대들을 방문

【평양 4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56돐에 즈음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로 구성된 인민대표단들이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방문하고있다.

조선인민군 부대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56돐을 맞으며 인민군부대들에 보내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인민대표단 단장들이 선물을 전달하였다.

인민대표단들은 부대군인들과 함께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56돐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

인민대표단들은 지금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적지들과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지들을 참관하고있다.

인민대표단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56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부대들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행사들에 참가하여 조선인민군 창건절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군인들을 축하하고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면서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예술인들이 인민군 구분대들에서 순회공연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56돐을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의 예술인들이 인민군 구분대들을 방문하여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피바다가극단과 평양예술단, 평양교예단, 국립연극단, 국립교향악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과 각 도 예술단과 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은 여러개의 편대로 나뉘여 인민군 구분대들을 찾아 순회공연을 하고있다.

순회공연의 무대에는 양악, 기악, 무용, 화술, 교예 등 사상예술성이 높고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다채로운 예술작품들이 많이 오르고있다.

예술인들은 특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예술작품들을 무대에 올려 군인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또한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력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 관중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이밖에 예술인들은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전쟁도발책동을 폭로하는 예술작품들도 무대에 올리고있다.

예술인들의 순회공연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남조선비행기사건은 파렴치한 국제모략극

국제모략은 미제의 중요한 세계제패수단이다. [illegible]

미제의 대조선 정책의 산물

[illegible]

일본당국도 반공화국소동의 공범자

[illegible]

...려온 공범자임을 실증하여주고있다.

하기에 일본당국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라는것을 발표하자마자 그에 뒤따 [illegible]

(라기태)

따사로운 사랑속에 민족교육의 대화원에서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희망 넘친 무대

효고현하 우리 학생들의 음악무용구성시 《꽃피는 민족교육》

4.24교육투쟁 40돐기념 효고현조선인대회의 제2부에서 진행된 음악무용구성시 《꽃피는 민족교육》은 규모와 내용 그리고 예술기량의 높이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공연이였다.

투쟁의 력사, 영광찬 로정

3장 12경으로 구성된 공연은 들끓는 해방의 기쁨속에서 민족교육을 시작한 감격의 그날로부터 내외원쑤들의 류혈적탄압을 박차고 끝내 우리 교육을 지켜낸 4.24교육투쟁의 나날을 거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사랑 속에서 만발한 대화원을 이룬 오늘까지 민족교육이 걸어온 투쟁과 영광의 력사를 감명깊이 보여주었다.

공연은 서경 《수령님 사랑속에 우리는 행복합니다》로 막을 올리였다.

꽃이면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영원히 계속 피는 꽃이 되라고
사랑의 따사로운 해빛 주시는
오늘의 이 기쁨을 노래합니다

200명의 고정합창단, 80명의 취주악단, 250명의 무용수, 총인원 800여명이 출연한 음악무용구성시는 서경으로부터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무대에서는 꽃송이와 꽃잎을 형상한 무용수들이 무대가 비좁도록 화려한 춤판을 벌렸다. 마치도 그 모습은 크고 화려한 민족교육의 화원을 련상시켰다.

제1장은 《피로써 지킨 민족교육》.

무대에서는 해방의 기쁨으로부터 내외원쑤들의 탄압을 박차고 우리 교육을 지켜낸 4.24까지를 형상한 군상(群像)과 무용이 펼쳐졌다.

여기에 출연한 고급부 남성무용수들은 모두 첫 체험자들.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투쟁을 학습을 통해 배우고 단기간에 예술기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숙을 하였다.

우명호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일이 없었기에 학교에 숙박하여 아침 4시경까지 련습한 일도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높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면 반드시 관중들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것이다.》

그를 비롯하여 남성무용수들의 힘찬 동작, 빛나는 눈빛이 감명깊이 안겨왔다.

제2장 《수령님 총련을 무어주셨다》와 제3장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사랑속에 꽃피는 민족교육》은 동포들의 애국적인 투쟁으로 지킨 민족교육이 오늘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였는가를 학생들의 름름하고 씩씩한 모습을 통하여 감명깊이 펼쳤다.

1시간반에 걸쳐 진행된 이날 공연을 위해 6곡의 가요와 무용곡이 새로 창작되였고 6개나 되는 무용이 새로 만들어졌다.

실로 공연은 최대한의 힘과 열정을 한곬에 모은 인상깊은 공연이였다.


1세동포들의 투쟁정신을 형상한 무용

《후대들이야말로 민족의 재산》

이날 공연에는 효고현하 13개의 학교가 모두 참가하였다. 비록 련습기간은 짧았으나 련습과 교양사업을 동시에 짜고들고 합동련습과 총련습을 3번에 걸쳐 진행하여 효고현하 교원들과 학생들만의 힘으로 4.24교육투쟁 4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훌륭한 무대를 마련한것이다.

200명의 고정합창단의 지도는 주로 고베조고 성악부 학생들이 맡았다.

그들 역시 4.24를 말로만 아는 새세대들이다. 교원의 이야기를 듣고 체험수기도 학습했으며 기록영화 《조선의 어린이들》을 감상하여 4.24교육투쟁을 하나씩 리해해나갔다.

한옥순학생은 《4.24교육투쟁에 참가한 동포들이 공연을 보러 올것인데 우리가 시시하게 하면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과시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련습에 달라붙었다.》고 말했다.

무용부의 김선옥학생은 무용이 먼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체험을 형상한것이였기에 무용세계에 쉽게 들어갈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체험자들의 수기를 읽고 1세들이 우리 학교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얼마나 과감히 싸웠는가를 감명깊이 느끼게 되였다. 앞으로 우리들이 1세들이 지킨 민족교육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4.24의 그날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동포들의 그 투쟁정신, 그 숭고한 뜻은 조금도 풍화되지 않고 우리 새세대들의 가슴에 면면히 이어져 나가고있는것이다.

효고현교육회 최주호고문은 공연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의 공연이야말로 교육투쟁의 성과가 아닌가. 자라나는 후대들이야말로 민족의 재산이고 조국의 미래가 아닌가. 그들이 어엿이 자라나고있는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을 금할수 없다.

4.24의 그날이 생생히 되살아났고 그러기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사진고향 우리 삶의 이모저모 ⑫

긴장한 표정으로 책상앞에 앉은 신입생들, 그들의 눈은 유난히도 빛난다.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탓인지.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등교길도 이젠 다정해졌고 학급동무들과도 친숙해져 매일매일이 즐겁기만 하다.

지금은 국어시간.

《가갸표》에 따라 우리 나라 자모를 익혀나간다.

《선생님, 〈ㅗ〉와 〈ㅓ〉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또한번 가르쳐주세요.》

수업태도가 제법 몸에 배인듯 질문도 날카로운 정천화학생. (산따마제2초중)

《학생들, 선생님이 부르는 말에 따라 그 물건을 손에 가져봅시다.》

《연필》, 《지우개》

《옛》, 《예!》

교실안에 밝은 소리가 방울처럼 울린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신입생.

누가 먼저, 누가 더 잘 우리 말과 글을, 지식을 습득하는지.


무용 《국어강습소에서 배우는 기쁨》

4.24교육투쟁 40주년기념 사진전 및 학생미술작품전

그날의 투쟁을 전해주는 력사의 증언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효고현민회관 3층 대전시실에서 진행된 4.24교육투쟁 40돐기념 사진전(120점 출품)은 해방직후로부터 오늘까지 민족교육이 걸어온 고난과 영광에 찬 발자취를 생동하게 펼쳐주었다.

한편 486점이 출품된 학생미술작품전은 오늘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배우는 우리 학생들의 밝고 명랑한 정신세계를 감명깊이 보여주었다.

특히 사진은 첫걸음을 뗀 민족교육을 뿌리채 없애려는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과정을 아무런 허위와 과장도 없이 력사의 증언자로서 뚜렷이 보여주어 내외관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첫날 사진전을 관람한 효고현총평 가리따 노리야스씨는 다음과 같이 감상을 말하였다.

《4.24교육투쟁으로부터 40년, 오랜 력사와 투쟁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민족교육이 있다는것을 생각하면 4.24투쟁은 력사적으로 의의깊은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제 36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조선인민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정을 귀중히 여겨 과거의 어두운 력사를 교훈으로 삼아 일본과 조선 인민의 우호와 련대를 깊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올해 70살을 맞는 이마이 미찌오씨는 사진전을 보고 《일본사람으 [illegible] 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도 계속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분격을 느끼였다. 우리는 한층 깊은 반성을 하여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나갈것이다.》

사진전은 일본사람들은 물론 동포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다까라즈까에 거주하는 손영자녀성은 《사진에서 자기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았고 또 그전날에 알던 아저씨들이 그려져 눈물없이는 볼수가 없었다.

피로써 지킨 우리 학교를 우리들 세대에 없앨수 없다는것을 통감하였다.》고 말하였다.

김경자녀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속에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까지의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대지에 든든히 발을 붙여 아이들을 키워가야 할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학교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사진을 보고 조국해방의 기쁨 그리고 한편으로 내외원쑤들에 대한 분격으로 온몸이 뜨거워졌다.》(학생회 박건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걸고 지켜주신 우리 학교와 귀중한 전통을 다음은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느꼈다.》(히가시고베초중 최미자)라는 우리 학생들의 말에서 40년의 세월은 흘렀어도 뜨거운 애국의 넋이 면면히 이어지고있다는것을 느꼈다.

비록 색은 바래졌어도 4.24의 귀중한 투쟁정신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사진은 관중들의 가슴마다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력사를 새겨주었다.


관중들의 호평을 받은 전시회

민족교육의 필요성 깊이 인식

효고에서 심포쥼 진행

4.24교육투쟁 40돐기념심포쥼이 24일, 조일 교육관계자들과 각계인사들의 참가밑에 효고현교육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심포쥼의 성공을 축하하여 일본사회당 도이 다까꼬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로부터 축전이 보내여왔다.

심포쥼에 앞서 기록영화 《조선의 어린이들》이 상영되였다.

교직동 효고현위원회 리종구위원장이 개회연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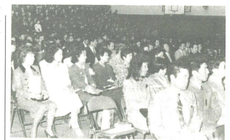
이어 조선대학교 김덕룡교원이 재일조선인운동 특히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의 견지에서의 4.24교육투쟁의 위치, 의의 등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또한 덴리대학 우찌야마 가즈오교수가 일본인의 견지에서 4.24교육투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계속하여 4.24교육투쟁에 직접 참가한 리성덕, 리호권씨가 당시의 치렬한 투쟁에 대한 체험담을 생동하게 이야기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민족교육에 대한 동포들의 견결한 자세와 립장을 다시금 깊이 인식케 하였다.

【효고지국】


민족교육사업발전을 위해 분발할 결의를 가다듬는 참가자들


수많은 졸업생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기념모임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창립 40돐기념모임 진행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창립 40돐기념모임이 24일,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관하 동포학부형들과 교직원학생들 그리고 500여명의 졸업생들이 참가하였다.

기념모임에서는 먼저 공화국교육위원회에서 보내여온 축전과 조국의 련계학교인 평양제1락랑고등중학교와 평양창전남자고등중학교에서 보내여온 축전과 축기가 소개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 아이찌현본부 강윤경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에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 속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가 걸어온 40년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총련애국사업과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일으켜나가자고 말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조국인민들의 거창한 사회주의건설투쟁에 발맞추어 공화국창건 40돐을 지향하여 총련중앙이 제기한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축하연설에 이어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김종진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기념모임에 이어 학생들이 출연하는 축하예술공연이 있었다.

한편 이날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련합동창회 결성모임이 진행되였으며 회칙을 채택한후 역원들을 선출하였다.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총련본부에 콤퓨터일식 희사

교또부상공회 정해운부회장

4월의 명절분위기가 떠도는 교또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꽃이 피여났다.

이곳 부상공회 정해운부회장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6돐과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총련본부에 최신식 인쇄기, 와프로, 콤퓨터일식을 희사하였던것이다.

정부회장으로 말하면 이제까지 교또 제1초급, 제2초중, 제3초급, 마이즈루초중에 통학뻐스, 텔레비죤을 마련하여주었을뿐만아니라 조국소식을 정확히 청취할수 있도록 관하 총련지부들에 단파라지오일식을 희사하는 열성을 발휘하여왔다.

그리고 10년전에는 근대식인쇄기일식을 마련하여 선전활동을 보다 많이 벌릴수 있도록 하는 등 총련애국사업발전과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의 앞장에서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12일, 교또조선회관에서 있은 전달모임은 기쁨에 휩싸였다.

총련본부 신중학위원장에 이어 발언한 정부회장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76돐과 공화국창건 40돐을 열렬히 축하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국통일과 총련애국사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해나갈것을 결의합니다.》고 말하였다.

이 아름다운 소행에 마음 흐뭇해짐을 느끼면서 모임참가자들은 더 분발하여 애국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것을 결의다지고있었다.

【교또지국】


콤퓨터일식을 희사한 정해운부회장

려객기실종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일본사회당 후꾸오까현 죠꾸앙총지부 주최

일본사회당 죠꾸앙총지부(후꾸오까현)의 주최로 남조선항공기실종사건을 생각하는 모임이 지난 20일, 노오가다시내에 있는 시중앙공민관에서 있었다.

모임에서는 비데오록화편집물 《모략—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과 《꽃다발을 준 소녀는 저입니다》가 상영된 다음 주최자를 대표하여 일본사회당총지부 기노 요시미부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총련본부 서호식국제부장이 괴뢰악당의 허위날조극의 배경과 진상을 구체적으로 까밝히고 우리의 립장과 정치선전사업, 금후 활동에 대한 리해와 련대를 호소하였다.

강연내용에 따라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날 모임이름으로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 지지, 일본당국의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즉시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된 호소문과 함께 일본내각총리에게 보내는 요청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죠꾸앙분국】

에이즈 남조선에 더더욱 만연

올해들어 감염자 속출

최근 남조선에서 현대의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불리우는 불치의 병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가 계속 퍼져 인민들을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신문에 의하면 올해들어 벌써 7명의 에이즈감염자가 《발견》되였으며 특히 외항선원들이 많은 부산일대에서 집중발생하여 괴뢰당국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이제까지 외부로부터 침습해들어온 에이즈가 남조선내부에 깊이 침습, 심지어는 감염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전염한 사실이 드러나 에이즈공포의 심각성을 더더욱 부각시키고있다.

괴뢰악당들은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채 올림픽을 앞두고 남조선이 에이즈만연지대로 되고있는 현실이 드러나는것이 무서워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하고있다.

괴뢰당국은 사실을 감추려고 혈안

특수접대부, 외항선원에 집중적으로

보도들을 종합한데 의하면 올해들어 남조선 각지에서 에이즈감염자가 급격히 속출하고있다.

그 수는 괴뢰당국의 발표로써는 7명(그중 1명 사망)에 지나지 않으나 감염자가 외항선원이나 특수접대부 등에 집중되고있을뿐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전염되고있는 사실로 보아 수다한 사람들이 감염되고있다는 추측이 나돌고있다.

그에 의하면 4월만 보더라도 1일, 서울시 리태원에서 특수접대부가 에이즈로 감염, 《특별관리》를 받고있는 사실이 괴뢰보사부의 발표에 의해 밝혀졌다.

이 환자는 당국의 관할보건소가 실시한 검진에서 《확인》되였는바 그 원인도 외국인과의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것으로 밝혀지고있다.

또한 그 다음날인 2일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의 외항선원이 에이즈로 감염, 이 남성은 지난 72년이래, 미국, 아프리카, 구라파 등지를 돌아다닌후 지난 3월에 귀국하였지만 회사측이 실시한 검진에서 항체양성자임이 밝혀졌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올해들어 부산시일대에서는 련속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발견》되거나 사망하는 등 인민들을 더더욱 공포에 몰아넣었다.

2월 22일, 지난 86년 7월에 에이즈감염자로 《확인》되여 《특별관리》를 받고있는 40대 녀성이 복막염수술후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 녀성도 부산시내에서 특수접대부로 일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녀성이였다.

또한 지난 2월 22일과 24일에는 당국자들이 실시한 검진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외항선원이 련이어 에이즈감염자로 《확인》되였으며 그중 1명은 피부암의 한종류이며 에이즈환자에게 나타나는 《카포시육종》으로 판명되였을뿐만아니라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그 부인까지도 에이즈로 감염되는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났다.

남조선에서는 이제까지만도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수많은 매춘부들에 의해 에이즈균이 확산되고있는 사실이 알려져왔으나 외항선원들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감염된 사실은 괴뢰당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있으며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남조선신문들은 이 사실을 두고 《드디여 안방까지 파고든 에이즈공포》(《한국일보》 2월 24일부) 등 급격히 파급되는 《에이즈선풍》에 우려를 표시하고 조속한 방지책을 취할것을 호소하고있다.

괴뢰보사부의 발표에 의하면 남조선에서의 에이즈감염자는 현재 20명(그중 3명이 사망)으로 극히 적은 수로 되여있지만 남조선지방지 《부산일보》(2월 25일부)는 《기존하는 양성반응자 15명이외 17명이 에이즈환자 또는 양성반응자》라고 폭로하고있어 괴뢰당국이 발표한 이상으로 그 수가 많다는것이 명백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신문은 괴뢰《보사부가 에이즈방지를 위해 강제검사를 한다고 하고있으나 료정, 차점, 유흥업자의 종사자 13만명을 비롯하여 특수접대부 1만 2천명, 외항선원 4만 5천명 등 약 18만명에 달하는 검사대상자가 거의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고 그 실태를 폭로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에서 에이즈감염자가 더욱 퍼져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무관심한 괴뢰당국

사태는 매우 충격적인 지경에 이르고있으나 괴뢰보사부는 에이즈반응자들의 존재를 되도록 감추는데 혈안이 되고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올해 에이즈감염자로 《확인》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중 병원측의 무대책적인 조치에 의해 도중퇴원, 그냥 방치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있다.

실지 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첫 에이즈반응자가 《발견》되였다고 하는 85년이래 3년이 지난 오늘에도 에이즈감염자들을 치료할 전문기관, 연구기관 하나 만들지 못하고있으며(《조선일보》 3월 2일부) 《발견》된 감염자들의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있는 판이다.

한 남조선신문은 《현재 시행중인 에이즈예방법으로는 감염자들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 당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있다… 강제검진대상들에 대한 검사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있다.》고 전하면서 괴뢰당국의 무관심한 에이즈대응실상을 폭로하고있다.

이러한 괴뢰당국의 태도에 대해 인민들속에서는 불만과 분격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이와 같이 공표된 일부 자료만을 보아도 남조선에서 에이즈문제는 더욱 심각성을 띠고있으며 이대로 둘수 없는 사회적문제로 되여가고있다.

괴뢰악당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나 에이즈가 만연되고있는 사실을 감추어보려고 책동하고있으나 그것으로써는 사태를 절대로 수습할수 없다.



에이즈공포에 대하여 보도한 남조선신문들

남조선의 전 《국무총리》가 로태우의 죄행을 폭로

12개 항목의 《량심선언》 발표

려객기실종사건은 로《정권》의 출현을 노린 국제사기극

조선중앙통신(22일발)은 18일의 남조선문화방송을 인용하면서 전 《국무총리》 김정렬이 미제와 주구들의 모략행위를 폭로하여 《량심선언》을 발표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김정렬이 《량심선언》을 한 사실은 4월 17일 충청남도 대전시의 삼성국민학교에서 있었던 합동유세마당에서 야당 평민당의 신동국《후보》(대전시 동구을에서 《국회의원선거》에 립후보)가 폭로한것이다.

이에 의하면 김정렬은 《량심선언》에서 지난 《대통령선거》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 세 《정부》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콤퓨터 조작극이며 려객기실종사건은 미국, 일본, 바레인, 남조선 네 《정부》가 사전에 공모하여 꾸민 로태우《정권》을 출현시키기 위한 국제사기극이였음을 증명한다 등 12개 항목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한다.

《대통령선거》에서의 콤퓨터부정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김승훈신부)과 천주교공정선거감시단(단장 오태순신부)가 지난 2월 16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정권》이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콤퓨터를 도입, 여기에 사전에 결정된 수자를 입력해놓고 시간마다 마치나 개표된 수자를 집계한것처럼 발표하고 이것을 어용방송인 남조선방송공사(KBS)가 방영하였다고 지적하고 구체적물증을 제시한바 있다.

김정렬은 전두환역적으로부터 로태우에로의 기만적인 《정권》교체과정에 《국무총리》직을 맡아 작년말의 《대통령선거》를 《관할》하는 립장에 있었던자이다. 그는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에 대한 괴뢰국가안전기획부의 모략적인 《수사결과발표》놀음이 있었던 1월 15일직후에 벌어진 괴뢰내각개조과정에서 경질당하였다.

김정렬의 《량심선언》은 괴뢰권력층내부에 있었던 자의 처음 되는 고발로서 그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괴뢰국회는 《민정당》깡패들의 독무대, 파쑈독재《정권》의 시녀

로태우일당은 괴뢰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무슨 《공명선거》에 대해 떠들었던가 하면 남조선《국회》가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여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구이기나 한것처럼 고아대였다.

그러나 이것은 《민정당》깡패들의 독무대로서 파쑈독재《정권》의 시녀노릇밖에 하는것이 없는 괴뢰국회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체를 《민주주의》의 너울로 감싸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남조선의 력대《국회》는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고있는 친미주구들과 매국역적들인 여당패거리들만이 판을 치는 활무대로 되여왔다.

남조선《국회》가 식민지파쑈통치의 위장물이며 군부독재《정권》의 시녀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력대 괴뢰국회들이 저질러온 반인민적행적들이 더욱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사실에 있어서 괴뢰도당은 《민정당》패거리들로 하여금 파쑈권력과 금권의 뒤받침밑에 부정협잡선거로 《국회》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하고 이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저들이 들고나오는 반동적인 《의안》들을 《법문화》하여 강압통과시킨것이다.

1985년말에 있은 제128회《정기국회》에서 괴뢰정부《예산안》을 야당과의 구체적토의도 없이 《국회》청사의 뒤고방에서 《민정당》패거리들만을 모여놓고 단 몇분동안에 《통과》시킨것을 비롯하여 괴뢰국회가 인민들의 배격을 받고 야당측의 반발을 사는 《의안》들을 《통과》시킬때마다 날치기수법에 매달림으로써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월에 열렸던 제139회《림시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정당》패거리들이 저들끼리 《국회내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원로자문회의법안》등을 날치기수법으로 《통과》시키는 횡포를 감행한것도 괴뢰국회가 로태우역도의 사설깡패당인 《민정당》의 독판치기무대이며 파쑈독재《정권》의 시녀라는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실례의 하나였다.

사상 류례없는 테로폭압과 부정협잡으로 제놈의 《대통령당선》을 날조해낸 로태우역도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후보》들의 《당선》을 조작해내려고 책동한것은 바로 괴뢰국회를 《민정당》깡패들의 독무대, 군사독재《정권》의 시녀로 더욱 철저히 전락시키자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다.

남조선인민들과 사회각계에서 로태우일당의 광란적인 폭압소동과 선거부정행위를 날카롭게 폭로규탄하면서 《민정당후보》들의 《당선》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는것은 응당하다.



한겨레선생 (전철)

《5대양집단변사사건》의 유가족들과 채권자들 100여명이

사건진상의 해명을 요구

지난해 8월 경기도 룡인에서 발생한 끔찍한 집단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5대양집단변사사건》의 유가족들과 채권자들 100여명이 6일 서울에 있는 괴뢰검찰청 청사앞에 몰려가 사건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들은 당시 5대양주식회사 사장이였던 박순자가 전두환역도의 동생 전경환놈과 《각별한 사이》에 있었던 관계로 하여 범죄적 살인사건의 내막이 밝혀지지 않았을뿐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 장막속에 묻혀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하여나섰다.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4월 29일 (음력 3월 14일) 금요일 【루계 제10195호】
昭和27年8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자

각지에서 본부집행위원회 진행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총진군에 발맞추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애국열성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 결정에 적극 호응하여 각지에서 총련본부집행위원회가 진행되고있다.

집행위원회들에서는 애국혁신운동기간 자기 본부가 수행하게 될 높은 사업목표와 계획이 뚜렷하게 세워졌다.

집행위원회에 참가한 일군들은 내외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소동이 대대적으로 감행된 매우 어렵고 긴장된 정세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조국과 총련조직을 굳건히 옹호하고 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온 귀중한 사업 성과와 경험을 쌓은 자부심을 안고 금번 총련중앙이 제기한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통하여 총련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총련사업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고야말 굳센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총련 도꾜도본부 집행위원회

《공화국창건 40돐을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사업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는 구호밑에 관하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열의, 모든 힘과 지혜를 5개월애국혁신운동에서 남김없이 발휘하자는 비등된 분위기속에서 총련 도꾜도본부 집행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가 27일, 조선출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총련중앙 배병두 부의장 겸 도꾜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들과 지명소집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총련중앙위원회 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할 총련본부의 확고한 결심을 반영하여 5개월애국혁신운동기간에 수행할 높은 사업목표와 구체적인 사업대책에 대한 배병두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10명의 집행위원들이 토론을 하였다.

그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며 조국의 륭성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격동하는 남조선정세에 대처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내외사업, 광범한 동포들, 상공인들을 더 많이 묶어세우고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확대공고화하는 사업을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벌려 올해 총련의 6가지 주력할 과업과 8가지 주요목표를 모두 국경절(9월 9일)까지 넘쳐달성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200일전투를 벌려 간고분투, 자력갱생하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충성의 축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할 결의를 일치하게 하였다.

집행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는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첫째도 둘째도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동포군중을 애국혁신운동에 총동원하는데 그 성과적수행의 비결이 있다는것이 지적되였다.

총련 도꾜도본부는 우리말 호조반, 《도꾜동포문예체육의 날》(매달 제3일요일, 도꾜중고에서), 단기조국방문 등등 특색있고 참신한 기획으로 동포들을 여러 교양망에 적극 망라하면서 분회강화를 위한 모든 분회에 대한 10일간집중방조사업(5차례에 걸쳐 조직)을 짜고들며 상반년의 성과에 토대하여 1만 2천호동포방문담화운동을 계속 벌려나간다.

그리하여 모든 애국과업을 수행한 자랑도 드높이 3만명규모의 동포대야유회(9월 11일)의 성공으로 애국혁신운동을 긍지높이 결속할 합의를 보았다.

집행위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의 신념을 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가져올 5개월애국혁신운동에서 동포군중의 앞장에 서나갈것을 다짐하였다.



총련 도꾜도본부 집행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

인민들의 철저한 버림을 받은 로태우도당은 《정권》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남조선괴뢰국회의원선거의 결과와 관련하여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이 담화 발표

남조선괴뢰국회의원선거의 결과와 관련하여 총련중앙 서만술부의장은 2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난 4월 26일 남조선에서 진행된 괴뢰국회의원선거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계속 유지하고 군정연장을 노리는 로태우도당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철저한 버림을 받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로태우도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안정다수》를 확보하여 군사독재지반을 강화하고 식민지파쑈통치를 합법화하려고 온갖 발악적책동을 다하였다.

로태우도당은 남조선전역에 《비상경계》우에 《갑호비상경계》까지 펴고 무장경찰을 총출동시켰으며 관권개입, 금품공세, 인신공격 등 온갖 부정협잡행위를 다하였을뿐아니라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파쑈폭압을 서슴없이 감행했다.

지어 로태우도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경찰특무들과 깡패들을 내몰아 선거관리위원들을 위협공갈하는 한편 야당인사들과 민주세력의 선거운동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테로행위까지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태우도당은 금번 《선거》에서 저들이 내건 《의석》확보는커녕 과반수도 차지하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고말았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흉악무도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인 로태우역도와 같은 군사깡패, 파쑈폭군, 민족반역자를 단호히 거부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결과는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남조선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요구하고있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하여주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로태우도당은 지난해 소위 《6.29선언》을 내놓고 《민주화》요, 《민주화합》이요 뭐요 하는 기만적인 《공약》들을 람발하며 갖은 파렴치한 부정행위와 파쑈폭압을 자행하였을뿐만아니라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까지 날조하고 광란적인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려 《대통령》자리를 횡취하였다.

그러나 로태우도당은 제아무리 기만술책, 모략책동을 일삼아도 미제의 더러운 앞잡이, 군사독재자로서의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속일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로태우도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은것은 지극히 응당한 일이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에 비추어 로태우도당은 마땅히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요구대로 모든 매국배족행위와 기만술책을 그만두고 《정권》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로태우《정권》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도,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통일도 절대로 바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와 부정부패, 전쟁소동과 민족분렬에 광분하는 로태우역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히 벌려나갈것이다.

미국과 일본당국은 남조선인민들의 버림을 받고있는 로태우도당을 더는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총련은 민단동포들을 포함한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의 민족적단합을 한층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지성원할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화해와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북남련석회의의 실현과 조국의 통일위업의 성취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투쟁하여나갈것이다.

미군유골을 돌려달라기전에 자신들의 부당한 립장부터 바꾸어야 한다

군사정전위원회 공화국측 비서장이 천명

【개성 4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 제492차비서장회의에서 우리측 비서장 김련기대좌가 적들이 들고나온 미군유골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래 지난 전쟁시기 북반부지역에서 사상한 미군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참가한 원쑤들이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유골을 발굴하여 돌려줄 하등의 리유가 없고 게다가 전후에 진행된 유골인수사업이 1954년에 끝나고 해당한 합의와 기구들이 폐기된 오늘에 우리에게는 유골을 발굴하여 돌려주어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도 책임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측이 거듭 요청하고 또 유골을 찾아가려는 그들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인도주의적립장으로부터 미국측이 제기한 미군유골문제를 우리의 해당부문에 전달하였던것이다.

이러한 때인 올해 1월 9일 미국측이 돌연히 군사정전위원회 제490차비서장회의를 소집하면서 여기에서 발굴된 유골들을 인도인수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이 인도인수사업에 미국의 국회의원 3명이 참가할것이라고 했다.

유골발굴문제가 군사정전위원회와 관련이 없고 해당부문 일군들사이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인도인수할데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발굴된 유골 역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넘겨줄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해당부문은 미국측이 3명의 국회의원들을 판문점에 보내여 유골인도인수에 참가시키겠다고 한 사실을 고려하여 지난 1월 20일 쌍방 비서장들의 비공개개별접촉을 통하여 미군유골인도인수절차문제를 협의할것을 위임하였다.

이리하여 발굴된 미군유골들이 미국측에 전달되고 미군유골발굴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때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미국회의원들이 인도인수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통보해왔다.

그리고는 인도인수절차문제를 토의하기로 한 날자를 하루 앞두고 그것을 1월 27일로 연기하였을뿐아니라 다음날에는 우리에 대한 미국정부의 이른바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미국측이 우리와는 물론 미국자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조선려객기실종사건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도전적인 조치를 취한 조건에서 우리는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군유골이 제때에 인도되지 못하고 유골발굴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책임은 이처럼 미국측에 있다.

미국측은 미군유골을 돌려달라기에 앞서 자신들이 취하고있는 부당한 립장부터 바꾸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힘주어말하였다.

4.15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평양을 떠났다

【평양 4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27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정준기부총리와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이 축하단을 전송하였다.

소년단원이 축하단단장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남조선로동자투쟁 크게 앙양

—로태우일당에게 심대한 타격—

올해 들어와서만도 375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이 여느때없이 급격히 앙양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에 크게 확산되고있다.

일본언론들은 일체 묵살하고있으나 《민주로조 설립을 인정하라》, 《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내건 로동자들의 거세찬 투쟁의 불길은 지금 현대, 대우, 삼성을 비롯한 매판재벌들을 포함하여 전역의 공장, 기업소들, 교통운수업계와 금융업계에까지 확대되여 나가고있다.

특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로동자들은 민주로조설립을 전면에 내세우고 지난 16일, 1,500여명에 달하는 로동자들이 철야롱성투쟁을 벌린것을 시작으로 계속 투쟁에 궐기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대우조선소, 대우정밀공장,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등 계렬회사로조로동자들은 4월초순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견결한 투쟁을 벌리고있는바 회사측이 좀처럼 로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견결한 시위를 벌리면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에서는 30여일간이나 작업이 중단되였으며 대우자동차에서는 인천, 부산 등지에서 자동차생산이 전면중단되는 등 관계업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그외에도 남조선에서는 부산에 있는 《대한》조선공사, 창원에 있는 삼미금속, 남조선강원도내 23개 탄광로조, 《조흥》, 《한일》은행 등 금융업계 로조간부들이 임금인상과 기본적권리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와 같은 로동자들의 투쟁은 작년 7, 8월에 거세차게 벌어진 로동자들의 투쟁을 방불케 하며 생존권마저 유린당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견결한 투쟁의지를 보여주는것이다.

그것은 올해초부터 벌어지고있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괴뢰당국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375건에 달하며 4월 한달만 해도 151건의 투쟁이 일어난 사실을 보더라도 뚜렷하다.

괴뢰악당들과 악질기업주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고있는 로동자들의 투쟁은 확산일로를 내닫고있는바 이는 앞으로 로태우군사파쑈일당을 타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심적위치를 차지해나갈 기미를 보이고있다.

(관련기사 3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성대히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일을 기념하는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15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날 대회에는 1만 2,000명의 학생소년들과 학부형들, 전국 각지에서 온 모범소년단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또한 총련의 여러 대표단, 방문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부주석인 박성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 책임비서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강희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허정숙동지, 최태복동지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 위원장의 대렬보고가 있은 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아버지원수님께 전체 조선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올리는 경축사가 랑독되였다.

경축사에서 소년단원들은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은 주체조선의 탄생, 온 세상을 밝게 비쳐준 새시대의 장엄한 해돋이였다고 하면서 아버지원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위대한 인류의 태양이시며 그 빛발아래 꽃피는 우리 시대는 위대한 주체시대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축사에서 소년단원들은 나라와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새세대모두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고있는 은혜로운 우리 당을 높이 칭송하고 4월의 명절을 맞는 뜻깊은 영광의 이 아침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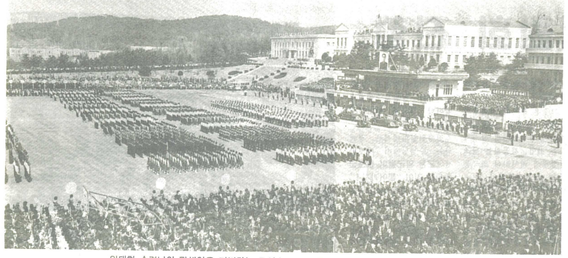
경축사에서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충성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 천만년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 입단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장에서는 소년단원들의 사열행진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선박공업절을 제정

매해 6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8년 6월 23일 남포조선소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처음으로 무어낸 450톤급 강철배 《신흥》호의 진수식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선박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우리 나라 선박공업 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1948년 6월 23일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해마다 이날을 선박공업절로 쇠게 된다.

이 정령은 1988년 4월 21일부로 발포되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뜻깊은 4월의 명절을 경축하여 진행된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15일 저녁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4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수도의 청년학생들이 광장에 모여 춤과 노래로 명절밤을 즐기였다.

《수령님께 드리는 축원의 노래》가 광장에 울려퍼지자 야회참가자들은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자랑과 행복을 아름다운 춤률동에 담아 펼쳐나갔다.

서로서로 손에 손을 잡고 돌아가는 남녀청춘들의 춤바다가 펼쳐진 광장에서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에게 오늘의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의 여러 대표단, 방문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외국의 벗들도 우리 청년학생들과 함께 명절의 밤을 즐기였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주체적인 사법정책을 밝힌 강령적문헌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발표 30돐에 즈음하여

1

4월 29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전국 사법, 검찰일군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교시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력사적인 날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벅찬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30년전에 주신 사법정책에 관한 가르치심의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슴뜨겁게 간직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법정책에 관한 교시를 하신 1958년은 우리 나라를 둘러싼 내외정세가 가장 날카로운 시기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전면적인 사회주의적개조사업을 끝내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었으며 현대적인 공업, 농업국가를 전망하면서 혁명의 원천지인 민주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할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여가던 시기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에 기초하여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전체 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조선로동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데 큰 계기를 가져왔다. 특히 1956년 8월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인 최창익, 박창옥도당들의 죄악적책동에 대한 폭로는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그 여독을 청산하는데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

당시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던 미제와 괴뢰도당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파괴암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반공반쏘》깜빠니야가 요란한 시기였다. 특히 리승만도당의 《북진》소동이 가장 우심한 시기였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외부로부터 침습한 국제수정주의사조에 동조하여 나섰으며 나라의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당과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저들의 영향하에 있던 사법검찰기관내에 잠입하고있던 소수분자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소위 《인권옹호》니 《합법성》이니 하는 허울좋은 구호를 내걸고 범죄자들을 의식적으로 비호하며 사법검찰기관의 독재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책동하였다.

후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사법검찰기관내의 일부에서는 반국가적범죄자에 대하여 《조국을 반역한것은 범죄자의 출신이 적대계급이므로 부득이한것》이고 《종교인이 범죄를 감행한것은 그가 종교적교리를 잘못 인식한것》이므로 그자들에게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없다는 등 황당무계한 론리를 떠벌이면서 그들을 비호하고 석방까지 하였다. 심지어 국가재산략취 및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그들의 범죄동기가 《생활상 곤난》, 《일시적흥분》, 《단순한 동기》, 《정신혼돈》 등에 있다고 하면서 법적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만이 합법성의 수호자이며 인권옹호의 초소에 서있다.》고 떠벌이면서 《변호사들이 반국가적범죄를 변론함에 있어서 무죄를 완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것은 계급성이 없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변호사가 국가적, 계급적 립장을 버리고 오히려 사건을 날조하여 피소자를 교사하는 범죄적행동으로 굴러떨어진것으로 된다.

더욱 엄중한것은 당의 사법정책에 대한 《시정사업(是正事業)》이라 하여 공화국내에 이미 수립된 법률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약화시킬수 있게 하였다.

《시정사업》은 혁명적준법성을 약화시켰을뿐만아니라 당의 사법정책을 란폭하게 위반유린하였던것이다. 무엇보다 사법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거부하려고 책동한것은 가장 엄중한것이였다.

그들은 헌법에 규정된 《판사는 재판에서 독립적이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외곡하고 당의 령도를 배제하려고 책동하였으며 법률에 대한 기술신비주의를 제창하였다.

이처럼 《국제사조》에 맞장구를 치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은 그 더러운 정체를 드러내놓았다.

2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전국 사법, 검찰일군회의가 1958년 4월 23일부터 1주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였으며 허정숙사법상의 보고에 의거한 토론이 높은 정치적분위기속에서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회의마감날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정치보위자로서의 사법검찰기관은 당의 사법정책을 직접 집행하는것을 위임받은 당의 재판소이며 당의 검찰소이다. 다시말하여 재판소와 검찰소는 당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의 령도하에 사업하여야만 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 우리 당의 정치로선과 정책을 모르고는 법을 집행할수 없습니다.》

사법검찰기관 일군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행사할 중대한 권한을 당으로부터 위임받은 당의 사법정책의 영예로운 집행자이라는것을 항상 깊이 간직하고 당의 기대와 신뢰에 어긋남이 없이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서 싸워야만 한다.

당의 사법정책은 인민주권을 침해하려는 계급적원쑤들을 진압하며 국가사회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민주주의적법률질서를 확립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법적으로 보장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은 없으나 그 잔여분자들은 남아있으며 그들의 반혁명적준동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한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도 근로자들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을 크게 방해하므로 일반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국가의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반혁명과의 투쟁이나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며 그 결정적담보는 사법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사법활동에서 계급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적아를 옳게 가리게 되였으며 모든 범죄현상을 계급적견지에서 분석하는 기풍이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사법검찰일군들이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근로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면서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진압하고 혁명의 편에 끌수 있는 절대다수의 군중을 전취하는 당의 방침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사법검찰기관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사법 정책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사법검찰일군들을 령도하고계신다.

오늘 공화국의 법질서와 국가사회생활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와 구상에 따라 진행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사회주의적인 법무생활기풍이 확립되여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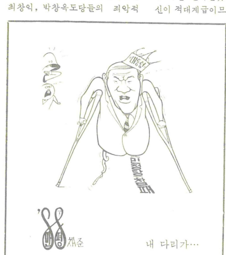
오늘 공화국을 둘러싼 내외정세는 착잡하며 국제로동운동도 《개혁》이요 《법률과 민주》요 하며 크게 진동하고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일념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들은 올해에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온갖 적대분자와 파괴분자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모든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보위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김 규 승

(재일본조선민주법률가협회회장)



내 다리가…

목소리

《선거》결과

남조선의 《국회의원선거》결과가 판명되였다. 약바른 고양이 앞을 못보듯 《과반수》로 파쑈독재기반을 구축하려고 꿈꾸던 로태우 《민정당》패거리에게는 커다란 타격. 그처럼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관권, 금력, 폭력의 부정타락선거를 감행하였는데도 《유력후보》들마저 속속 락선, 사면초가의 가련한 신세만이 부각되였다. ▼당초 그자들은 뭐라뇌까렸는가. 224지역 선거구의 55%인 125의석을 차지하겠다, 《전국구의석》을 합쳐 166의석의 《안정과반수》를 얻겠다, 득표률은 40%가 목표이다 운운. 괴뢰도당은 전번 《대통령선거》에서 류례없는 부정협잡수단으로 로태우의 《당선》을 날조함으로써 《정통성》문제가 다시 거론된것을 의식하여 로태우의 《인기》가 50%까지 올라갔다느니 뭐니 하고 여론을 기만한데다가 이번 《선거》에서 《안정과반수》를 날조하여 《정통성》문제도 모면해보려 한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과반수》는커녕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수여당국회》가 초래되였고 득표률자체가 《대통령선거》때를 룡가하는 악독한 부정수단을 다 동원하면서도 그때보다 더 후퇴한 33%정도의 꼴이니 《안정다수》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불안소수》의 고아신세. 패배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하겠다. ▼이 《선거전》을 보도하는 일본신문들도 무엇이 어떻게 되였는지 《공정성》간판을 내던지고 로태우패거리편에서 《우세》니 《과반수》니 하는 《예측》, 《평론》을 계속 흘리였다. 필자가 거주지에서 읽어보는 모 《대신문》은 개표결과를 알리는 27일 조간에 이르러서도 《여당과반수기세》, 《야당패배》설을 대서특필하여 저들의 흐려진 감각과 현실인식을 드러내놓았다. (13판) 후에 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편견에 찬 보도자세, 취재자세로써는 독자들을 납득시킬수 없다. ▼인민의 철저한 배격을 받고 《정통성》이 없는 로태우일당은 물러나야 하며 일본언론은 남조선민심동향과 사회정치의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할것이다.

책《사진기행과 그 기술》을 발행

— 꾸 바 에 서 —

꾸바의 오리엔떼출판사에서 최근 책 《사진기행과 그 기술》을 발행하였다.

책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제목밑에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린 시절을 따라배우고있는 어린이들과 나라의 도처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터와 놀이터들 그리고 유치원에서 학교전교육을 받고있는 어린이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편집하였다.

사진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두터운 사랑과 배려 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민주로조설립 인정하라》,《생존의 권리 보장하라》

민주주의실현을 요구하는 남조선로동자투쟁 크게 앙양



렬차편으로 서울에 와 롱성투쟁을 벌리는 경상남도의 대우정밀 로동자들

지난해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적인 투쟁으로!

대우, 삼성, 현대 등 재벌기업들에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올해초부터 삽시에 서울, 울산, 창원, 부산, 인천, 남조선강원도 등에 퍼져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다.

또한 로동자들의 투쟁은 조선부문, 자동차부문을 비롯하여 기계, 전자, 금속, 탄광, 교통운수 등의 주요업종과 이제까지 표면화되지 않았던 금융업계에도 확산되고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각 기업들마다에서 로동자들의 투쟁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는바 점차 중소기업중심으로부터 대기업과 그 계렬회사들에 퍼져나가고있다.

현대, 대우, 삼성을 비롯한 매판재벌들과 전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들고일어나고있는 로동자들의 요구는 민주로조결성과 임금인상, 로동조건개선, 부당로동행위반대 등의 대우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요구는 남조선로동자들이 놓인 처지로 보아 너무나도 응당한 권리이며 초보적인 요구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이러한 최저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로태우일당과 악질기업주들의 탄압만행에도 굴함없이 거세찬 투쟁을 전개하고있는것이다.

특히 민주로조결성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련일 롱성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로동자들의 투쟁은 대표적실례이다.

이곳 로동자 1,500여명은 지난 4월 16일부터 민주로조설립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작업을 중단, 완강한 롱성투쟁을 벌리고있는바 특히 로조설립을 위한 서명작업을 적극 추진, 그것을 가지고 군청과 회사당국에 로조수립을 인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괴뢰당국자들은 자주적로조의 결성을 막아보려고 삼성중공업측에서 이미 내놓은 어용로조의 《로조설립신고서》란 것을 방패로 하여 《이미 로조신고가 있었다》느니 《한회사에 두개 로조는 필요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로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려고 날뛰였다.

이에 분격한 로동자들은 그것은 민주로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측이 만들어낸 《어용로조》라고 견결히 규탄하고 거제군청을 점거하여 《민주로조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로조설립신고를 접수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결의밑에 철야롱성투쟁을 전개하였다.

삼성중공업 로동자들은 현재도 계속 민주로조설립을 위해 완강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대우조선소 로조로동자들은 지난 3월중순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견결한 투쟁을 벌려왔는바 회사측이 좀처럼 로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회사측이 응할 때까지 시위들을 벌리면서 끝까지 싸웠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11일부터 직장을 페쇄, 현재까지 30여일간이나 작업이 중단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또한 같은 계렬회사인 대우자동차에서는 이곳 로조로동자 4천여명이 12일부터 무기한총파업에 들어가 인천, 부산 등지의 4개 공장에서 자동차생산이 중단되는 등 괴뢰악당과 회사측을 당황케 하고있다.

그외에도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 동양정밀공업 등 대기업계렬회사들과 남조선강원도내 23개 탄광로조들이 계속 임금인상을 비롯한 생존의 권리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조흥》, 《한일》은행 등 남조선금융계에서도 로조간부들이 롱성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작년 7, 8월에 크게 일어난 로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방불케 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거세찬 투쟁은 괴뢰당국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올해들어 375건(4.19현재)에 달하며 그중 78건의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이 수는 작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 약 5배나 되는 수이며 4월 한달만 보더라도 19일현재 151건의 투쟁이 일어나는 등 더더욱 로동자들의 투쟁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또한 로태우역도의 이른바 《6.29선언》이후 로동자들의 투쟁이 급격히 앙양된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로동조합은 그이래 3월말까지 1,515개나 새로 결성되였다.(《동아일보》 4.19)

이러한 로사분규의 급증과 로동자투쟁의 앙양에 누구보다도 겁을 먹고있는것은 로태우일당이다.

로태우일당은 지난 15일에 괴뢰로동부장관을 시켜 《담화문》이란것을 발표하여 《로동자들의 과격시위를 진압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로동자들의 투쟁을 로골적으로 위협해나섰다.

뿐만아니라 정의의 시위를 벌리는 로동자들을 최루탄과 사과탄으로 탄압하는 등 파쑈폭압놀음에 미쳐날뛰고있다.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보다 대규모로 앙양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를 탄압하려는 괴뢰도당의 파쑈폭압책동은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조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로동자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대우조선 로동자들

자료

백골단을 투입하여 무자비 진압

현대엔징 로동자투쟁 현장에서

해외교포신문 《월드 스트리트 저널》 4월 14일부는 남조선현대엔징회사 로사분규에서 괴뢰악당들이 로동자들에게 감행한 탄압실상을 폭로한 글을 실었다.

아래에 그 글을 소개한다.(철자는 우리 식으로 고침)

로동문제특별대책위원회는 3월 22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현대엔징로사분규 진상보고대회를 개최했다.

4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는 동위원회에서 파견한 조사단(법조계, 로동계, 각계인사 15명으로 구성)의 조사보고가 있었는데 조사단은 《현대사태의 원인이 현대재벌측의 전근대적기업경영과 그 도덕적파탄에 있다》고 규정하고 《정부당국은 87년 12월 24일 통과된 개정로동법을 스스로 무시, 부정하고 현대사태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폭력적개입을 로골화했으며 또한 현대재벌측과 결탁하여 부당로동행위를 눈감아줄뿐만아니라 롱성로동자들에 대한 수배, 구속 등을 하는 등 공권력개입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현대재벌측의 압력과 정부당국의 보도통제가 깊숙이 개입되여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통하여 《백골단이라 자칭하는 현대그룹 구사대의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려온 로동자들은 회사측이 3월 16일 권용목위원장 등 3명의 협상대표를 강제로 끌고가 감금하고 롱성장으로 방석차를 돌진시키자 강제해산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위의 수단으로 투석을 하며 맞설수밖에 없었다. 이 사고는 그동안 자본가들이 민주로조를 파괴하는 가장 간교한 수단으로 즐겨 사용해왔던 구사대를 동원한 로동자사이의 리간책동이 빚어낸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사고당일의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 과연 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현대중공업 로조위원장 권용목씨 등 구속자 전원 석방과 수배조치 즉각해제, 구사대에 의해 자행된 폭행의 진상을 밝힐것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였다.

한편 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를 통해 ▲3월 7일 사태에 대한 증거자료에 나타난 《칼빈소총》, 《백골단, 백골부대》 등의 동원을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그 동원의 저의와 백골단의 정체를 밝힐것 ▲로조집행부임원(8명)선거를 불법이라고 한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시의 결정은 개정로동법조차 위반한 명백한 공권력의 독단적횡포가 아닌가? ▲사건의 명확한 규명 없이 사태의 책임을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현대중공업 권용목로조위원장, 김진국로조부위원장 등 로동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살인방조죄로 구속하겠다고 하는것은 이번 사건을 로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처사가 아닌가?고 질의하였다.

기승을 부리는 파쑈적탄압

최루탄, 사과탄 세례에 집단폭행까지

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파쑈악당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여 완강한 투쟁에 궐기해나선 로동자들을 어떻게나 억압, 진압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파쑈도당은 투쟁에 일떠선 로동자들에게 최루탄을 마구 퍼붓고 수많은 경찰과 깡패들을 동원하여 투쟁참가자들을 습격하고 무차별폭행을 가하는 등 온갖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특히 괴뢰로동부장관이 란자가 급증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과 관련하여 15일 《담화문》이라는것을 발표하고 생존권쟁취를 위한 로동자들의 시위와 롱성투쟁을 《극렬행위》, 《부당행위》로 몰아대면서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괴뢰도당들은 지난 3월 10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원전기구로공장 종합사무실에서 어용로조 퇴진 등을 요구하여 견결한 롱성투쟁을 벌리고있는 로동자들을 이 회사 관리사원, 구사대 등을 동원하여 무차별구타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자들은 롱성로동자들을 불잡고는 바지를 벗겨 무릎을 꿇린후 전기줄로 손과 발을 묶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차별로 구타, 강제해산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10여명에 달하는 로동자들이 중상을 당하게 된것이다.

또 이 회사의 한 경비원이 로동자들에 대한 《구사대》놈들의 폭력에 충격을 받아 음독자살하는 충격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괴뢰악당들은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동양정밀공업 로동자 1,100여명이 임금인상과 시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리던중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 사과탄을 마구 쏘아대며 로동자들을 탄압해나섰다.

이때 최루탄파편이 수십명에 달하는 로동자들에게 박혀 합계 21명이 중상, 부상을 입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뢰악당들의 로골적인 야수적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또한 같은날 괴뢰악당들은 어떻게나 로동자들의 민주요구투쟁을 탄압해보려고 서울로동운동련합 위원장을 그 무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강제구속하였으며 정의의 투쟁을 벌린 로조간부들을 닥치는대로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등 책동을 가하고있다.

또 12일에는 대우조선 로조원 2명이 로조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뒤따라온 자동차에서 내린 7명의 괴한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입원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있다.

로동자들에 대한 괴뢰악당들의 탄압책동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있다.

생존권마저 유린당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민주로조의 결성을 요구하여 싸우는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당국의 시책을 규탄하는 련합철강로동자들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의 군사결탁과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규탄한다

총련중앙 백한기국제국장이 담화를 발표

총련중앙 백한기국제국장은 최근 미,일,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소동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7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소동은 지금 보다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올해 2월부터 사상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4월 27일부터 일본과 남조선의 치안, 군사 당국자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도꾜에서 이른바 《올림픽관련안전대책일〈한〉련락협의회》란것을 가졌다.

또한 보다 엄중한것은 남조선괴뢰국군합동참모회의 의장이 지난 14일에 일본에 기여들어 방위청과 일본《자위대》 최고간부, 재일미군사령관 등과 밀담을 거듭한후 오끼나와에까지 가서 미군해병대기지 사령관과 밀담을 벌려놓은 일이다.

일본과 남조선괴뢰간의 《협의회》에 일본방위청당국자가 공공연히 참가하고 남조선괴뢰군 최고간부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오끼나와주둔미군기지 사령관과 회담한 일은 종전에는 있어보지 못한것이였다.

이것은 미,일,남조선간의 군사결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또한 미국은 《서울올림픽》개최기간중에 항공모함기동부대를 조선해역에 배치하려고 하고있으며 일본의 해상《자위대》도 사상최대규모의 대연습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일련의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미일의 부추김밑에 날조한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이 민주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조선반도를 영원히 분단함으로써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의하여 꾸며진 사건이였음을 말해주고있다.

미,일,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것으로 되며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또한 우리들은 일본과 남조선당국이 소위 《올림픽안전대책협의회》에서 반공화국소동과 함께 《치안대책》의 구실밑에 총련에 대한 부당한 탄압 강화를 노리고있는데 대하여 분격을 금할수 없다.

우리들은 일본당국이 당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재일조선공민들의 기본적인권을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류례없는 국제모략의 진상을 낱낱이 폭로

《모략은 드러났다—칼(KAL)기 실종과 〈마유미〉의 수수께끼》 출판

총련취재반의 성과를 집대성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이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악당이 한짝이 되여 꾸며낸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모략책동임을 낱낱이 폭로한 단행본《모략은 드러났다—칼(KAL)기실종과 〈마유미〉의 수수께끼》가 출판되였다.(출판 에이 엔드 엠출판, 발행 엔터프라이즈)

이 단행본은 괴뢰악당의 날조모략정보가 일본언론을 통해서 홍수처럼 류포되고있었던 상황에서 정력적인 취재활동을 통하여 그 모략적진상을 밑바닥으로부터 폭로하는데서 큰 역할을 논 총련의 취재반이 밝혀낸 사실을 취재반 성원인 조선신보사 사회부장 문광우와 박명순이 엮은것이다.

이 단행본은 제1장《발자취를 추적하여—의문투성이의 궤적》, 제2장《연출된 기자회견—〈수사결과〉와 〈마유미자백〉의 허구성》, 제3장《무너진 유일한 〈물적증거〉—교묘한 조작》, 제4장《사라진 기체의 의문—사건의 원점에 돌아가서》, 제5장《증폭된 허위—일〈한〉의 정보유착》, 제6장《사건의 배경을 추적한다—미일〈한〉운명공동체와 기도》로 구성되고있으며《수많은 의혹과 모순점》,《신상옥, 최은희사건의 진상》으로 되고있으며 권말에《자료》들이 수록되여있다.

이 책을 일독해보면 매개 장들이 철저한 취재와 치밀한 분석에 의거하여 서술되고있으며 괴뢰악당에 의한 모략소동의 허구성을 중점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설득력있게 까밝히고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흥미를 끄는것은《마유미》가 1972년 11월의 남북조절위원회때 평양에 온 남측대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주었다고 한 괴뢰들의 파렴치한 허위조작을 구체적인 사실로 낱낱이 폭로한 과정을 엮은 제3장이다.

괴뢰들이《꽃다발증정》을 운운하면서 그《물적증거》로 내놓은 몇장의 사진은 모두 엉터리이며 당시 평양에서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준것은 평양외국어학원 교원으로 있는 정희선녀성이라는 사실은 총련중앙의 기자회견(3월 15일)을 통하여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과 평양에서의 현지취재의 상황을 생동하게 엮었으며 정희선녀성과 괴뢰들에 의하여《마유미》로 조작된 개성시에서 사는 왕영숙녀성과 림윤복녀성의 생생한 증언도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이를 안받침하는 수십장의 사진들도 수록하여 괴뢰도당의 모략소동을 여지없이 폭로하고있다.

이와 같은 괴뢰들의 파렴치하고도 교묘한 모략이 모래우에 선 루각이 무너지듯 붕괴되여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반영하였는데 이러한 생동성이야말로 다른 책에서 찾아볼수 없는 본서의 특징이라 할수 있다.

단행본의 필자는 제4장의 표제를《사라진 기체의 의문—사건의 원점에 돌아가서》라고 달았다.

필자들이 단행본의 서두에서《…이번 사건을〈폭파사건〉이 아니라〈칼(KAL)기실종사건〉으로 부르는것은〈폭파〉되였다고 하는 기체의 잔해가 아직껏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폭파〉를 뒤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기때문이다》고 지적한바와 같이 기체의 행방이야말로 이번 모략사건의 원점이다.

제4장에서는 괴뢰들이 기체에 대한 수색을 의식적으로 회피한 사실,《발견》되였다고 하는《고무뽀트》는 조작되였다는 사실을 까밝히면서 미제가 괴뢰들의 모략을 뒤받침한 사실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이 기체문제는《꽃다발증정》을《증명》하는《물적증거》로 날조된 사진의 허구성과 함께 이번 사건이 류례없는 국제모략임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이 단행본에서는 언론을 교묘하게 리용하면서 사건을《은혜》문제에로 끌고가는 등 국제반동들의 악랄한 날조정보의 조작과정도 낱낱이 폭로하고있다.

미, 일, 남조선반동들이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꾸민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붕괴의 위기에 처한 남조선의 반공안보체제를 구출하며 올림픽의 서울에서의 단독개최를 강행하는것으로 저들의《두개 조선》조작책동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소동을 합리화해보려는 수작이였다.

필자들은 제6장에서 미, 일, 남조선반동들의 이와 같은 음흉한 기도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규탄하고있다.

남조선비행기행방불명사건의 모략적진상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낱낱이 폭로한 이 책의 출판은 미일반동들과 괴뢰악당이 꾸민 모략의 추악성과 악랄성, 미제의 침략정책과 괴뢰들의 매국성을 고발하고 폭로, 규탄하는데서 큰 힘으로 될것이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저자; 문광우, 박명순, 총련칼기실종사건특별취재반, 출판; 에이 엔드 엠출판, 발행; 엔터프라이즈, 236페지, 값; 1,400엔, 일반서점들에서 취급)



어서 가자 웨치는
배고동소리

바람은 꽃바람
오색테프 춤추는데

마음은 벌써
금강산엔가

(흠)

20차의 자랑찬 결실

문예동가나가와지부미술전 진행



미술전의 개막식을 진행하는 참가자들

제20차문예동가나가와지부미술전이 지난 4월 25일에 요꼬하마시 가나싱갈라리에서 개막되였다.

동 미술전은 1961년에 1차를 가진후 몇번의 중단을 거듭하면서도 27년의 력사를 새겨왔다. 귀국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초에 관하 7명의 미술가들로 시작된 지부미술전은 그간 문예동 가나가와지부 미술부와 지역동포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미술전에는 2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각양한 세대의 일군, 교원으로부터 가정주부, 로동청년, 상공인에 이르는 폭넓은 미술인들 14명의 유화, 수채화, 공예, 사진 등 25점이 출품되였다. 또한 20차를 축하하여 공화국의 공훈예술인 리준언, 김상식화가들의 작품 4점이 특별전시되였다.

개막날 회장에서는 출품자들과 동포들, 일본의 지원자들 약 30명의 참가밑에 축하소연회가 있었다.

연회에서 문예동 가나가와지부 박관범위원장은 20차지부전의 개최를 열렬히 축하하면서《민족적특성이 짙은 이 미술전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지원자를 대표하여 연설한 가나가와신문사의 와끼사까 시게끼차장은《국제도시 요꼬하마에서 재일조선인의 미술전이 해마다 진행되는것은 매우 반갑고 훌륭한 일이다.》고 하였다.

미술전에서는 유화《무용수》(전견지),《룡악산》(백령)을 비롯하여 민족정서가 넘치는 다양한 작품들과 사진《조선학교 학생들의 파레드》,《장고춤》(리주봉) 등 동포들의 락천적인 생활정서를 나타낸 여러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문예동 가나가와지부에서는 동포화가들의 작품을 더 많은 동포들속에 소개선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조은가나가와 본점, 고스기지점, 가와사끼지점들에 조합원의 회화코너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사업들을 벌리고있다.

미술전을 관람한 조은가나가와의 김종태부리사장은《지금 재일동포들속에서 문화생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미술가들이 전람회를 통해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표시하였다.

이번 미술전에는 리정우미술부장을 비롯하여 초창기부터 계속 활동해온 화가들이 4명 있는바 백령고문은 20차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민족미술을 일본에서 기어이 해보겠다는 공통된 일념이 20차의 결실로 되였다.》고 회고하였다.

가나가와에서는 이번 지부전을 계기로 제26차조일우호전과《코스모스의 회전》등이 개최된다.

문예동 가나가와지부 미술전은 래일까지 진행된다.

연극련락회 《아랑3(삶)세》 6월에 첫 공연

조대 연극부 졸업생들을 비롯하여 폭넓은 동포연극인들을 망라한 연극련락회《아랑 3(삶)세》가 최근에 발족되여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에 걸쳐 창단기념공연을 진행한다.

호세이(法政)대학 학생회관 대홀에서 진행되는 연극《빛고을 파랑새전설》(제1부 어둠산의 고아들)은 88올림픽전야의 광주를 무대로 억눌린 민중들의 화신인 어둠산의 고아들이 광주봉기의 정신을 되살려 투쟁에 떨쳐나서는 이야기이다.

공연은 문예동 도꾜지부와 조대동창회사무국의 후원으로써 진행된다.

동 련락회는 지난 4월 14일에 제작발표모임을 가졌는바 여기에는 문예동중앙 연극부의 서상각부장과 문예동도꾜 연극부의 김영순부장들이 참가하여 공연출연자들을 고무격려하였다.

정 정

4월 28일부 본지 1면《4.24교육투쟁 40돐기념 효고현조선인대회》의 기사중에서 효고현상공회 회장의 이름이 틀렸기때문에 리경호회장으로 정정합니다. 본인과 관계자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행사안내

△朴仁進(朝鮮民話, 壁画)切絵展

때: 4월 24일~5월 7일

곳: 마스타즈갈라리 新潟市古町通4番町643 ☎0252(24)8884

맛좋고 몸에좋아 계절에 맞는 우리 음식

봄편 2 도라지생채

물에 담그어 씁쓸한 맛을 빼는것이 비결

재료 도라지 200g, 소금, 사탕, 식초, 다진 마늘, 다진 파, 고추가루, 참기름

만드는 법 ①도라지는 가늘게 찢어 절인다. ②①을 손으로 잘 주물러 도라지의 씁쓸한 맛을 빼낸 다음 찬물로 2~3번 잘 씻고 물기를 뺀다. ③도라지에 고추가루를 넣어 버무려 약간 빨갛게 물들인 다음 소금, 사탕, 식초, 참기름, 파, 마늘로 만든 양념으로 고루고루 잘 무친다.

도라지생채의 비결은 도라지의 씁쓸한 맛을 빼내는데 있다. 하나는 도라지를 물에 담그어 잘 붙게 하여 껍질을 곱게 벗기고 심을 빼고 될수록 가늘게 찢어 찬물에 우리는데 있다. 마른 도라지를 쓸 때는 더군다나 이 작업이 중요하다.

또 도라지를 소금으로 주물러 씻어 나물을 무치기도 하는데 팔팔 끓는 물에 잠간 넣었다가 건져 식히고 기름으로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빛갈도 희게 되고 맛이 더 좋다.

정 숙 희 (료리연구자)

폐장이나 기관지에 좋은 《사뽀닌》 들어있어



도라지는 식품성분으로는 특별히 불만한것은 없다.

그러나 약용성분으로는 가치있는것이 있기에 이것을 음식으로 먹으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약용적인 역할은《사뽀닌》이라는것이 한다.

감기들어 기침이나 가래가 나올 때 이 가래를 밖에 잘 내주는 힘을 가진것이 도라지성분이다.

또 폐장이나 기관지(気管支) 등이 좋지 못할 때 도라지의《사뽀닌》은 효과적이다. 감기들거나 기침이 나오면 약을 마시고 고치는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음식에서 도라지료리를 만들어 먹으면 감기같은 호흡기병(呼吸器病)을 예방할수 있다.

일본에서 생도라지뿌리를 많이 구하기는 좀 힘든다. 고운 꽃을 피우는 도라지는 꽃집에 가면 구할수 있기에 이것을 집에서 심어 재배하여도 좋다.

또 최근에는 조선음식재료점에서 마른 도라지를 구할수 있다. 이것을 사서 물에 잘 붙게 하여 잘 찢어 쓰면 좋을것이다.

朝鮮新報 조선신보 日本語版

投書をお待ちします
「日本語版」へのご感想、ご意見そして皆様の住む地域の様々な行事をお知らせ下さい。

南朝鮮総選挙 軍事腐敗集団に鉄つい

民正党惨敗 底流に軍政終息の民意

二十六日の南朝鮮総選挙は、与党・民正党が「史上最悪」といわれるほど激しい金権、官権、暴力選挙を行ったにもかかわらず、過半数を大きく割り込み、少数与党に転落した。また得票率をみても民正党は三三%余と、昨年の「大統領」選挙の得票率（三七%）からもさらに落ち込み、"三割政権"といわれる基盤の弱さを改めて露呈した。一方、野党は平民党が七十議席、民主党が五十九議席獲得し、在野民主人士らも各地で当選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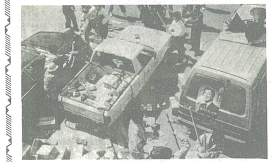
買収、暴力でも三割票

昨年末の「大統領」選挙でも野党票を大きく下回った民正党は、今回の選挙で過半数ひいては安定多数を得るべく、金権、官権に暴力団まで動員した類例のない"堕落選挙"を展開した。

しかし、あくまで軍政に反対する民衆は買収、暴力にも反発、再び惨敗を喫する結果となった。

民正党は、議席を大きく減らしたばかりでなく、元内務部長官高建、前「国会」副議長崔永喆、前院内総務の李大淳など、盧泰愚側近の閣僚経験者、党実力者なども相次いで落選した。

今回の得票数を見ると、反民主勢力は、民正党、そして共和党まで含めてもなお過半数に至っていない。あくまで軍政終息と、全斗煥に替わる盧泰愚集団の民主化の実現が民意だということが、今回の選挙でさらに明白になった。



民正党候補の"贈り物"を配っていた車を摘発した市民に対し、角材や鉄パイプで暴力を加える民正党「運動員」（24日釜山）

史上最悪の「堕落選挙」

「史上最悪の金権堕落選挙」といわれるように、今回の総選挙では、与党の金権、暴力選挙の実態がいつになく浮上し、世論の非難を浴びた。民正党は、今回閣僚から統・班長にいたるまで行政組織を総動員した官権選挙を行った。

また通貨の乱発に加えて「十当八落」、さらには十五億、二十億、五十億ウォンをつぎ込む候補が出るほどに、民正党の"現ナマ攻勢"は、露骨に繰り広げられた。

慶尚南道の安東市では二十四日、民正党候補・権重東の名で二万ウォン（約三千五百円）入りの封筒四千三百通を有権者に郵送しようとした事件が発覚。二十三日にもソウル市東大門乙区で、民正党候補・金栄亀名の二万ウォン入り封筒を統・班長が配っているのを平民党員が見つけ、警察に突き出した。その他二十四、二十五日にかけて二、三万ウォン入りの与党候補名の現金封筒が、各地の行政組織を通じて配られている。

民正党が雇った暴力団員による、野党運動員への暴力行為も続発した。釜山では二十四日、民主党員が民正党員の金品配布現場を押さえたところ、暴力団とみられる民正党"運動員"三十人が角材、鉄パイプをもって襲撃。民主党員十人が重傷を負った。また全羅南道和順では二十五日、平民党運動員ら三人が、暴漢に刃物で刺され、一人が重態となっている。

また投開票でも不正が行われた京畿道光明市では、住民六十人が選挙人名簿から消され、その代わりに一人の与党支持者に百十枚の投票通知票が束になって送られた。済州道では、文化放送のテレビ・リハーサルで「民正党候補当選」の放送が流され、野党側から「MBCは開票結果をコンピューターに入力しており、不正選挙の証拠」と非難を浴びた。

◇ ◇

評論家の中川信夫氏 "三割政権"といわれる盧「政権」の基盤の弱さを改めてさらけ出したという点で、順当な結果だと思う。

民正党は、選挙当初は優勢な戦いを進めたが、セマウル疑惑など不正事件発覚で後退した。同事件では、ばく大な「誠金」の流れや財産の海外逃避など核心部分は、なんら手が付けられなかった。こうしたことが、全、盧は"同じ穴のムジナ"と有権者に映ったのではないか。

昨年の「大統領」選挙にもいえることだが、今回ももし野党が統合していれば局面はまた変わっただろう。投票率が低かったことも含めて、その責任は重い。今後野党内の世代交代も進むだろう。（文責、カッコは編集部）

南朝鮮で高まる 南北相互理解と交流の気運

李 南 柱

八〇年代の後半に入って、南朝鮮青年学生と民衆の祖国統一をめざすたたかいは新たな転換を遂げつつある。

八〇年代中期までのそれは、民族のあるべき姿としての統一の当為性について宣伝し、民主化と統一を一つの課題として理解し把握することに主眼が置かれていた。いわば観念的論議の域を出ぬものであった。

しかし八〇年代半ば以降になってからは、統一の具体的方途を模索し、統一の前提条件をつくり出す闘争へと大きく変化した。いまや統一問題をもっとも切迫した実践的課題としてとらえ、具体的な行動に乗り出す段階へと踏み出したものといえよう。

八六年十月末の建国大学での「全国反外勢反独裁愛国学生闘争連合」結成式におけるスローガン「祖国統一阻む米帝駆逐」、「韓民族滅亡させる核武器撤去」などはこうした変化をよく示している。また今年三月末、ソウル大学総学生会会長候補者によって出された「南北学生体育大会」開催の提案は、統一対話の新たな転換をもたらすものとして重要な意義がある。

さらに合法的制度圏内の動きの中でも八六年十月の兪成煥議員の「反共ではなく統一が国是とならねばならない」との「国会」発言や、昨年十二月「大統領」選挙時の金大中候補による一民族二体制の「共和国連邦制」提案などは、統一運動の大衆化を示す動きとして注目される。

民族自主意識の定着

実践闘争へと大きな発展を遂げつつある今日の統一運動は、内容の側面から見れば以前のそれに比べて二つの顕著な特徴を示している。

まず第一は、広範な青年学生と民衆によって反外勢・民族自主の理念が共有され、定着したことである。そして階級、階層によって程度の差はあれ、反米・反外勢・民族自主化を中核として、民主化と統一のための闘争が総体的に遂行されるようになった。

南朝鮮青年学生と民衆は、八〇年代の実践闘争と、特に八〇年代半ば以降に活発に進められてきた社会科学的探究を通して、分断の原因と歴史について、また南朝鮮社会の構造とその変化について認識を深めた。そしてアメリカによる分断と支配、「親米反共分断従属国家」（青瓦台）の形成と政治・経済・軍事・文化の従属的性格と矛盾について明確に認識するに至った。こうして、民主化と統一を根本において阻んでいる外勢・アメリカに反対する自主化闘争が不可欠のものとして繰り広げ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また、朝鮮半島における核の状況と、アメリカと軍事独裁者の対決・緊張激化政策に対する認識が深まり、「反戦・反核・平和」のための闘争が深刻な課題として提起されるようになった。

共和国認識の転換

第二の特徴は、北半部に対する認識の根本的ともいえる転換である。いま南朝鮮の青年学生と知識人の中で、社会主義と北半部の実情について正しく理解し、南北の誤解と不信を解き、民族的和解と団結を求める声が高まっている。このことは、八〇年代後半の際立った特徴を成している。

顕著な動きの一つは、「北」を正しく知ることについての関心と研究が高まるにつれて」（延世春秋4・4）北半部に関する客観的研究の成果が単行本や大学新聞などに続いて発表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そしてこのことは、青年学生や知識人が「反共意識」の呪ばくから脱却し、「韓半島全体的観点から問題を考察できるようにする」（高大新聞87・11・2）うえで大きく寄与している。

つぎに顕著なことは、南北の相互理解と和解のための具体的提案が数多く出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一般総合雑誌にも「当局」に統一と南北関係改善への決意と誠意ある行動を促す論調が数多く現われている。またこうした世論を背景にソウル大生によって南北学生交流提案と「オリンピック共同開催を闘い取る闘争」が提起され、広範な支持を受けている。

このように南朝鮮青年学生と民衆は、核の惨禍を防止する切実な願いから民族自主と南北相互理解と和解に向けて行動に立ち上がっている。

（リ・ナムジュ、朝鮮問題研究所副所長）

強制連行の傷跡この目で

地下軍事工場見学会に日本の市民ら130人参加 兵庫・西宮



「地下軍事工場を見学した市民らは、保存しなければ…」と一様に語っていた

さる二十三日、日帝が敗戦のまぎわに強制連行してきた朝鮮人を酷使し建設した、大規模な地下軍事工場（兵庫県西宮市甲陽園）を見学する会が持たれた。

この地下軍事工場は「兵庫朝鮮関係研究会」（兵朝研、徐根植代表）によって昨年の暮れに発見されたもの。

主催したのは「戦争を記録する西宮市民の会」（二日発足、代表＝小田実氏）。「自分の目で市の歴史を確めよう」というのがこの集いの趣旨。会には県下はもちろん大阪、和歌山などの各地から主婦やサラリーマン、小学生のグループをはじめ百三十人の日本人が参加した。

この日、まず「市民の会」代表の小田実氏が、会を持つ意義と聞き書き調査への協力を呼びかけた後、参加者らは四グループに分かれ地下工場のトンネル内へ入った。

五歳になる二男に戦争を"経験"させようと一緒にやって来た仲村修さん（神戸市立教育研究所職員、三八歳）は「本来、私たち日本人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調査を、朝鮮関係研究会の人たちが手弁当で始められた。これからの保存や調査はわれわれが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感想を語っていた。

市内の高校教員も「こんな近くに戦争の傷跡があるなんて知りませんでした。戦争の恐ろしさと日本人が朝鮮人に対してしてきたことを、生徒たちに教えることの必要性を痛感しました」。

また、男女九人のクラスメートでグループ参加した、地元の小学校に通う梶原さん（小六）は「中は暗くてとっても薄気味悪かった。こんなトンネルをなぜ、よその国の人を無理に連れて来てまで作ったのか、もっと勉強します」と述べていた。

見学会終了後、近くの公園で今後の活動への呼び掛けが行われた。

なお、この地下軍事用トンネルが発見された後、各方面から確実な資料が提供され、それによって「兵朝研」の調査にほぼ間違いのないことと、トンネルに通信指令部の送信部や受信部が置かれていたという事実が新たに判明した。

また、西宮市は「市民の会」の要望を受け入れる現地調査をし、保存に本格的に乗り出す。

地域同胞社会に貢献を

奈良県青年商工人協議会が結成

奈良県下で広範な青年商工人たちを網羅した協議会が発足した。

さる二十四日、奈良朝信本店講堂で、同協議会の結成大会が行われた。集いでは、県商工会・金龍副理事長の祝辞があり、四十八人の会員の発表と役員（会長＝李達圭氏、副会長＝安祐司氏、金徳祚氏）の選出が行われた。また、全十条からなる会則も採択された。

協議会結成のために同地域では準備委員会（李達圭会長）を作り活動してきたが、今日に至るまでは数々の困難があった。とくに地域の範囲が広く同胞の業種も様々で、その動員活動も大変だった。

奈良県では十年ほど前に北和、中和の両地域に協議会があったが、会を活性化できず会員たちは自然に離れていった。そして、発足後間もなく解体状態に至ったのである。

それがここ数年、同胞社会の環境の変化や経済の情報化と企業の多様化の中で二世、三世の同胞たちが様々な共通した問題を抱え、これらを解決していくことが切実に要求されるようになった。

三年前から若い商工人たちの熱意が高まる中で「このままではだめだ」と彼ら自身が問題意識をもったのが協議会結成のきっかけとなった。そして以後、ウリ学校にバスをはじめとするいろいろな器材を寄贈したり、チャリティーゴルフ、敬老の集いなど幅広い活動を繰り広げてきた。

協議会はこのような流れの中で発足されたわけだが、結成大会に参加した会員たちは一様に「同胞社会に貢献する協議会にしていきたい」との決意を述べていた。

奈良県協議会は五月中旬に第一回幹事役員会を開き、本格的な活動を行っていく。

ディナーショーと総会開く

京都・「洛西会」

京都・右京地域同胞青年商工人協議会「洛西会」のディナーショーが二十三日、京都ファミリー内マンダリンパレスで催され、同協議会の会員と夫人ら合わせて百八人が参加した。

ディナーショーに先立って同協議会第十一期定期総会が行われた。

総会ではまず、同協議会長の金正雄氏が昨年一年間の活動報告を述べた後、これからも講演会やチャリティー事業などを通して地域に根差した活動を展開していこう、そして一人でも多くの若い同胞を会員に網羅しよう、と抱負を語った。

つづいて役員の選出が行われ、現在の役員が引き続き第十二期の運営にあたることが満場一致で決められた。

総会終了後のディナーショーでは諸口あきら氏（毎日放送ニュースキャスター）を迎え、幼いころ釜山で生まれ育ち、朝鮮の友人が多いという氏の楽しい語りと歌が披露され、参加者は和やかな雰囲気に包まれた。

集いの最後に副会長の金正樹氏が、第十二期もここに参加している全員が一丸となって盛り上げていこう、と呼びかけた。

600人が参加した大野遊会

大阪・泉州地域

さる二十四日、大阪・泉州地域同胞大野遊会が浜寺公園で開かれ、同胞約六百人が参加した。

はじめに泉州商工会・柳俊男理事長があいさつに立ち、商工会の会員が三百人を突破し、地域の発展につながったのは同胞商工人たちのおかげである、これからも頑張ってほしいと述べた。

つづいて来賓を代表して総聯大阪府本部・李末祥委員長が、このように多くの同胞が一同に会して野遊会を開くことは素晴らしいことである、今日を機に「五カ月愛国革新運動」に積極的に参加しよう、と呼びかけた。

野遊会では大焼肉パーティーを皮切りに、大阪朝鮮歌舞団の公演、百点にのぼる景品が準備された抽選会などの様々なイベントが催され同胞たちは大満足。「このような催しならいつでも参加したい」「たくさんの同胞たちに会えて楽しかった」と、感想を述べていた。

今週の出来事

南北スポーツ交流開催を主張 全南大学に宣伝物

二十一日、全南大学第一学生会館前に南北青年学生スポーツ大会の共同開催を主張する宣伝物がはられた。この宣伝物には三月二十九日、ソウル大学総学生会会長候補の名で金日成総合大学学生委員会名儀の書簡とそれに対する金日成総合大生に送る書簡内容が記されていた。

また、今年八月一日から十四日まで「民族和解をめざす南北朝鮮国土縦断大行進」を行い、九月十五日から十七日までは「民族大団結をめざす南北朝鮮青年学生スポーツ大会を開催しよう」との内容が含まれている。

日本卓球協会が共和国選手団の入国を代理申請

日本卓球協会は十九日、新潟市で来月十五日から開かれる第九回アジア卓球選手権大会に参加する共和国卓球選手団の代理申請を法務省で行った。

申請によると、朝鮮体育指導委員会副局長で共和国卓球協会副会長のリ・ホンジョ団長（アジア卓球連盟会長代理）をはじめとする役員八人、国際審判員一人、選手九人（男子五人、女子四人）の計十八人で、五月十三日から十三日間の滞在を予定している。

これに伴い日本外務省首脳は二十日、共和国選手団の入国を原則的に許可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た。

平和統一問題に関し仁川で討論会開かる

十九日、仁川のある教会で宗教人をはじめ、各界人士の参加の下に朝鮮半島の平和統一問題と関連した討論会が行われた。

討論参加者は、南朝鮮の宗教団体であるキリスト教会協議会が発表した平和統一宣言文の背景と内容を紹介し、「今こそ民族の自主性を語る時である」と語り、統一論議は公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また、ある大学教授は「この間以南では事実上統一論議はなかったが、以北では論理的で一貫した統一論議を行ってきた。統一への意識が先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南朝鮮の前「国務総理」がKAL機事件の謀略を暴露

二十二日付の朝鮮中央通信は、十八日の南朝鮮文化放送（MBC）の放送を引用する形で前「国務総理」金貞烈が「良心宣言」を行ったと発表した。これは十七日、忠清南道大田市の三星国民学校での合同演説会で野党・平民党の中東国候補が暴露したもの。この「良心宣言」の中で金貞烈は、KAL機事件は、アメリカ、日本、バーレーン、南朝鮮の共謀による謀略であったとしている。また、昨年の「大統領」選挙での盧泰愚の当選は、米、日、南朝鮮の合作によるコンピューターねつ造の結果であると指摘したという。

踊りも上達、親密さも増す

女性同盟京都伏見舞踊サークル

さる十四日、京都で行われた金日成主席の誕生七十六周年を祝う京都府大会第二部の記念公演に、ウリ学生や歌舞団員たちにまじって、女性同盟のオモニたちも出演した。その中でも昨年九月に結成されたばかりの、女性同盟伏見支部舞踊サークルのオモニたちは、「モランボン」の曲に合わせプチェチュム（扇の舞い）を披露し、同胞たちから盛んな拍手と声援を受けた。

伏見のオモニたちが、同胞たちの前で踊りを披露したのはこれが二度目のこと。

初めての舞台は、三月二十七日に行われた、京都朝鮮信用組合・伏見支店の開店十周年記念式のとき。

「まだ始めたばかりだし、恥かくぐらいなら出ない方がいい」。出演依頼のあったとき、踊りの指導をしている柳幸順オモニは、そう言って他のメンバーを止めたという。

ところが他のオモニたちは「せっかく…ら」とやる気まんまん。練習場所（同支店講堂）を借りていることでもあり、前向きに討論を重ね「やれば出来る」との一致をみて、出演に踏み切った。

二月からは週に一度の練習では足りないと、一人二人と自発的に集まり、やがて全員で毎日練習するようになった。按舞も「こういう動きがいい」と、全員で意見を出して自分たちで決めた。

結果は大成功。観覧した人たちは、「みんな経験者みたい」と、巧みな踊りにびっくりしていたという。

柳オモニは初級部時代から、結婚するまで舞踊を続けた、サークルの中でただ一人の本格的な経験者。

「それだけに、まだ技術不足だということがわかったんでしょう。でも私たちはほとんど初心者やったから、逆に開き直って、いわば〝知らない者の強み〟でしたね」と、副責任者の申正姫オモニは笑いながら語る。

そして迎えた十四日の祝賀…

…「もう一度」との声におされ、出演がすんなり決定した。

「初めてのときは緊張して、踊るだけで一生けん命だったけど、今回は他の人を見るゆとりもあった」と、みな人前で踊る楽しさを覚えたようだ。自宅で家事をしているときでも、つい練習を思い出しては、メロディを口ずさみながら、身振り手振りが出てしまうという。

女性同盟伏見支部では今でも五十、六十代のオモニたちが、先頭に立って支部の活動を引っ張っている。

そこで「若いオモニたちも負けずにがんばらなくては」と、まず二十、三十代のオモニたちの交流をはかるために舞踊サークルが結成された。

「舞踊サークルに参加して、初めてトンポ女性と知り合ったオモニもいますが、みんな本名で呼びあって、私生活でも親密につきあっています」と、支部の役員をつとめる金斗林オモニは誇らしげ。踊りが上達すると同時に、オモニたちの団結も強まってきたようだ。

次の目標は九月に行われる予定の、総聯伏見支部事務所の竣工式。実はサークルの発足時に「竣工式のときに披露できたら」と、ひそかに目標にしていたのがこの集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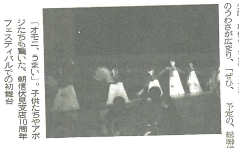
自分たちの予想をはるかに上まわり、とんとん拍子に成長した舞踊サークル。最初のころは「何でこんなにむずかしいの」と文句を言いながら練習に参加していたオモニたちも、「みんなで助け合ってやって来たから」と、団結することの強さを認識。

「新しい支部には、練習にまで使えるような大鏡を、ぜひ備えてもらおう」と夢をふくらませているオモニたち。「そのためにも実績を作っておかなくちゃ」と、オモニたちは練習にはげんでいる。（里）



週に一度の練習には、家事や仕事をやりくりして皆が集まって来る

結成半年で　二回の晴れ舞台



「オモニ、うまい」。子供たちやアボジたちも驚いた、朝信伏見支店10周年フェスティバルでの初舞台

物語　朝鮮の歴史と文化 ⑭

日本古代国家の形成と三国移住民

日本列島において統一国家が形成されていくのは、朝鮮で三国が形成されてよりはるか後れた五世紀も後半に入ってからのことです。そして、それは朝鮮との関係を抜きにしては語れません。

先進文化をもった人々が朝鮮から日本に移住し、進んだ技術と道具によって生産力を高め、社会の発展を促し、政治制度を発達させたのです。

かつて弥生文化を北九州にもたらし、稲作をはじめ、青銅器、鉄器を伝え、日本社会に飛躍的な発展をもたらしたのも朝鮮からの移住民でありました。

その後も朝鮮三国からの移住民は、各地にグループを作って集団的に生活し、それぞれの村や分国を作り、高い文化と技術によって指導的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

また、五世紀には百済と新羅の中間に位置する南海岸の加羅諸国で、谷ごとにまとまっていた村落国家の統合が進み、安羅国（咸安地方）、加羅国（金海加羅）、多羅国（慶南陜川郡）、大伽耶（または高霊加羅、慶北高霊郡）などが形成されます。ところが、これら加羅諸国は百済と新羅に圧迫されたため、発達した新文化をもって日本に渡る人々も多くなりました。その中でも、安羅出身の漢氏（あやうじ）や金海加羅出身の秦氏（はたうじ）などが代表的な氏族だといえます。



日本のすえ器との深い関係を示す幾何文長頸壺（新羅）

漢（あや）氏の発展

安羅（慶北咸安地方）の出身だと考えられる漢氏は、東漢（やまとのあや）氏ともいわれます。かれらは五世紀の後半に渡来して、いくつかの集団とともに南大和の檜隈（ひのくま、有名な高松塚古墳のある地方）に居住し、大きな勢力を築きました。

かれらは間もなく一代目から分かれたという六十三の同族集団を形成し、内部に優秀な手工業技術者の集団をかかえて政治的に大きな影響力を持ちました。とくに、それまで日本で広く見られなかった製鉄技術をもって鉄を鍛え、武器を作り、…な生産道具…し、日本の統一国家の…に大きく寄与したので…

漢（あや）氏は、六…に入ってからも百済な…地方から来る「今来の才伎」（いまきてのひと…新来の技術者）の管理…たり、ますます勢力を…し、各地の新興豪族や…系政治集団の結集する…となり、統一国家の…成長していく地盤とな…のです。

古代日本国家の形成

皇国史観のなごりも…

…族も含む、いくつかの豪族の連合によって成立した政権です。ところが…紀の末ごろに、畿内大…横穴式石室の古墳が…紀の末ごろに横穴式石室に変わっています。金先生はこれこそまさに、北九州に位置していた朝鮮系勢力が畿内に攻めて、新しい権力を樹立した事実を反映したものとみなしています。すなわち、いわゆる「神武天皇の東征説話」こそ、いろいろな変形と意味づけをえられているけれど、実は九州にいた征服民が大和地方に攻め込み、…原住民を征服する話で…はないかというのです。…の同系統移住民と妥協…に心憎い歴史の解釈でありませんか。（金哲央）

スポーツに賭ける

情熱が強さの秘訣

「ボクシングの一番の魅力は何といっても、勝ったときの瞬間です」

法政大学ボクシング部の主将を務める南秀治選手（二二）。クラス切っての強打者と恐れられる南君は通算五十七勝五敗、うち四十七戦がRSC・KO勝ちというフェザー級の選手だ。

ボクシングを始めたのは中学の卒業を控えた十二月。「男なら強くなりたい」、そんな一心で従兄にトレーニングを受けた。

高校入学とともにすぐさまボクシング部の門を叩いた。新人戦で優勝。その後一時伸び悩み、スランプに落込んだ時期もあったが、がむしゃらにトレーニングに励み広島県大会、中四国大会を制覇する。

高校卒業時、就職するつもりの南君に多くの大学から推薦の声がかかる。

「やっぱり未練があったんですね。もう一度、力を試したいと思ったんです」

一年の時、初の大学リーグ戦で一ランク上のライト級に参加。不安だったが初戦を一ラウンドKO、「出来る」と思ったそうだ。二戦目に十㌢以上の身長差がある選手を相手に対戦。二ラウンド二点を減点されながら終了まぎわに、左フックが決まり、逆点KO勝ちを果たす。これまでで一番印象深い試合となった。

「ハングリー精神は全く無いんですよ。ただ、いつも倒すしかないっていう気持ちです」と言う南君。ボクシングに賭ける情熱が〝強さの秘訣〟のようだ。

「自分にとってボクシングは人生の先生です。何事も努力で成し遂げられるという姿勢を習い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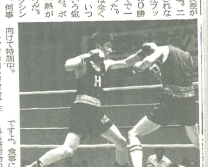
現在、来る五月二十五日に行われる全日本アマチュアボクシング選手権大会に向けて特訓中。

今、留学同の寄宿舎で生活する南君は「試合を控えた時はみんなが神経を使ってくれるし、応援にも来てくれるんです。一番の励みですよ。食事に気を使ってくれる寄宿舎のオモニの愛情に応えるためにも必ず優勝したいですね」。最後に、試合に賭ける心境を語ってくれた。（恵）



南秀治選手

1966年9月15日生まれ。広島第一初級卒業後、日本の中、高校へ。高3の時、中四国大会で優勝、インターハイ8位入賞。来る五月、広島県代表として全日本アマボクシング選手権に出場する。現在、法政大経営学部に在学中。



共和国の国家選手として世界の舞台で活躍するのが夢

北九州初中

夏も冬もこれで快適

門司、若松の同胞が最新バス2台を寄贈

「新しいバスが来た！」

福岡県の北九州朝鮮初中級学校で先ごろ、新しい通学バス二台の購入を祝う集いが行われた。

これまで寒い冬も暖房の入らない、旧式のバスで通学していた生徒たち。寒風の吹きすさぶ街かどでバスを待ち、乗車してからも体を暖められない生徒たちに心を痛めた、門司、若松区に居住する父母たちをはじめ、同胞たちが募金運動を展開し、新しいバス二台を購入したのだ。

特に若松から通う十一世帯の若いアボジたちは、仕事の終わった後みんなで集り、「なんとかしなければ」「子供たちのために」と話しあい、他の同胞家庭も回って、募金を呼びかけるなど、先頭に立って運動を進めた。

こうしたアボジたちの熱気に動かされ、一世のハラボジ、ハルモニたちも運動に協力。二万円、三万円とお金を持ちよった。

もう孫さえも、学校を卒えて社会人になっているというハルモニも、「子供たちのために」と、協力を申し出たという。

冷暖房付の最新バスに、大喜びしたのは、もちろん子供たち。これまでは通学の車中で、態度の良くなかった子供たちも、新しいバスが来てからは、「バスをきれいにしよう」と、靴を脱いでからバスに乗るようになった。

またアボジたちは「せっかく新しいバスを買ったのだから」と、手分けしてセメントをしき、扉を付け、校庭に車庫まで作った。

広い地域（七支部）から通って来る、北九州の生徒たち。これで同校の通学バスは八台になった。

今日もバスは、子供たちの喜びと、同胞たちの〝安心〟を乗せて走っている。



「アボジ、オモニ、コマプスムニダ！」待望の新しいバスに生徒たちも大喜び

明るさ目を引く作品群

＝文芸同神奈川支部展＝　30日まで

二十五日から横浜のトーヨコかなしんギャラリーで第二十回文芸同神奈川支部展が開かれている。

一九六一年から行われてきたこの作品展も今回で二十回目。回を重ねるごとに作品の水準は着実に向上し、内容が充実してきた。

今回は十三人が二十五点の絵画、陶芸、写真などを出品した。また、会場には友情出品として、祖国の功勲芸術家である李俊彦、金相植両氏の絵も展示されている。

題材、手法ともに多彩な作品が並び、生活感のある自由で伸び伸びとした作風が印象的だ。その多くは、明るく清潔な色彩を基調としており、同胞の美意識を反映したものとして共感を呼ぶ。

同系色の濃淡を巧みに使い描かれた李正雨氏の「風景」は、寒色を用いながらも落ち着いた暖かみを感じさせる。

金直樹氏の「風景」は、空、海、野原を大胆な構図でとらえ、パステルトーンで仕上げた若々しい作品である。

特殊な絵の具を流し込み一気に描き上げたという朴萬鐘さんの「老木のうた」は、強烈ながら深みのある赤に生命の喜びを表現して見事だ。

その他、全絹枝さんの「舞踊手」、姜珍元さんの「マーガレット」など力作ぞろい。

日ごろ精力的に活動を繰り広げ各自の技量を錬磨してきた同支部の成果が現れた作品展だ。

※三十日まで、会場＝トーヨコかなしんギャラリー（JR関内駅下車、徒歩八分）



会場には力作がずらりと並んだ

「コマプスムニダ35躍進」運動に拍車

京都朝信・支店対抗バレー大会

京都朝信・支店対抗バレーボール大会がさる十六日、管下十支店と本部（A、B）の十二チーム、朝青員ら百六十余人が参加し西京極体育館で催された。

今大会は他支店との交流を深め、三十五周年を迎えた同朝信の「コマプスムニダ35躍進」運動に拍車をかけようという趣旨で初めて行われた。

試合は、一チーム男子四人、女子二人の混合で、予選リーグ（四ブロック）、決勝トーナメント方式で行われ、どの試合も技術よりも気迫を競うゲーム展開となった。

決勝戦は、本店チームと朝青班長を中心に最近とくに仕事、朝青活動とも活気づいてきた西京支店チームが対戦。その勢いで同支店チームが本店チームを二対一で下し、みごと優勝に輝いた。

京都朝信・金孝男朝青委員長は「これからも多彩な文化、スポーツ行事を催して、朝青員の団結を図り、組合事業にも一層励んでいきたい」と述べていた。

お知らせ

五月二日（月）、四日（水）、六日（金）付の「朝鮮新報」日本語版は休刊します。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더 크게 이바지하자

조선신보

朝鮮新報

1988년 4월 30일 (음력 3월 15일) 토요일 【루계 제10196호】

昭和27年9月1日第3種郵便物認可　発行所 朝鮮新報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2番4号　電話 東京(269)0131(代表)　振替口座東京6893 (〒162)

〔日刊〕 月額 2,000円

림춘추부주석의 서거에 대한 부고

【평양 4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인 림춘추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를 27일에 발표하였다.

부고에 의하면 림춘추동지는 오랜 병환끝에 1988년 4월 27일 17시 40분에 76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림춘추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실한 혁명전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우수한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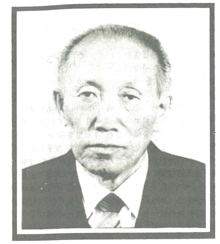
림춘추동지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한생을 바쳐 싸워온 공산주의혁명투사이며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전쟁과 당과 국가 건설, 새 사회 건설에서 커다란 공적을 쌓은 우리 당과 국가의 충직한 활동가이다.

림춘추동지는 혁명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일편단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림춘추동지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장기간 일제를 반대하는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다.

림춘추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건당, 건국, 건군 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공화국북반부 혁명기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였다.

동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대렬을 강화하고 후방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동지는 전후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로선을 받들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빨리 발전시켜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동지는 당이 제시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받들고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 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림춘추동지는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을 강화하며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였다.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력사로 새세대들과 인민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그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림춘추동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수령관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림춘추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불굴의 투쟁정신과 고결하고 소박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림춘추동지의 전생애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견결한 공산주의자의 한생이였으며 그의 혁명정신과 혁명가적풍모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모범으로 되여왔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인민의 충직한 아들을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다.

림춘추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슴아픈 손실로 된다.

그러나 림춘추동지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고귀한 투쟁공로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림춘추부주석의 략력

【평양 4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림춘추동지는 1912년 3월 8일 중국 길림성 연길현의 빈농가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림춘추동지는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일찍부터 군중정치사업에 참가하였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감옥생활을 한후 지하공청 및 당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렸다.

동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정치일군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위원, 7련대, 8련대 비서를 비롯한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일제침략군을 격멸하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림춘추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동지는 1945년 12월부터 북조선공산당 평안남도위원회 제2비서, 1949년 6월부터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의 공고발전과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동지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지방당과 인민군대 안에서 사업하면서 후방을 공고화하며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림춘추동지는 전후 지방행정기관의 중요직위에서 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으며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외국주재 대사로 사업하였다.

동지는 1962년 10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1972년 12월부터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1983년 4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으로서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였다.

동지는 1961년 9월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고 1966년 10월부터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였으며 1966년 10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1974년 2월부터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거되였다.

동지는 1963년 12월부터 1967년 5월까지, 1968년 11월부터 1972년 12월까지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1975년 9월부터 1976년 2월까지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사업하였다.

동지는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의원으로 선거되였으며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때부터 계속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다.

동지는 공화국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 3개와 공화국영웅칭호를 받았으며 여러개의 국기훈장제1급, 자유독립훈장제1급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림춘추동지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하였다.

고 림춘추부주석의 국가장의위원회 구성

【평양 4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인 고 림춘추동지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고 27일에 발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서는 고 림춘추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김 일 성 동 지

김 정 일 동 지

오진우동지	리근모동지	박성철동지	리종옥동지
서 철 동 지	김영남동지	계응태동지	허 담 동 지
연형묵동지	서윤석동지	강성산동지	홍성남동지
전병호동지	최 광 동 지	현무광동지	강희원동지
김복신동지	조세웅동지	정준기동지	홍시학동지
황장엽동지	허정숙동지	최태복동지	서관히동지
김창주동지	김 환 동 지	김윤혁동지	윤기복동지
한성룡동지	오극렬동지	강석숭동지	주창준동지
백학림동지	양형섭동지	지창익동지	리몽호동지
황순희동지	한상규동지	방학세동지	김병률동지
리을설동지	주도일동지	전문섭동지	리두익동지
김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조명선동지	김철만동지
손성필동지	최인덕동지	태병렬동지	오재원동지
전문욱동지	김룡연동지	려연구동지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조전

고 림춘추부주석의 국가장의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인 림춘추동지가 오랜 병환끝에 76살을 일기로 4월 27일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는 비보에 접한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커다란 슬픔에 잠기고있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깊은 비통에 잠기면서 고 림춘추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림춘추동지는 혁명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조국의 자유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전생애를 바쳐 견결히 투쟁하였습니다.

림춘추동지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청년전위전사로 일찍부터 참가하여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림춘추동지는 해방후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면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전쟁과 당과 국가 건설, 새 사회 건설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당이 제시한 3대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였습니다.

림춘추동지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림춘추동지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조선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실로 림춘추동지의 전생애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빛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김일성주의자의 숭고한 한생이였습니다.

림춘추동지는 고귀한 생애를 마치고 우리의 곁을 떠나갔으나 그가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고귀한 혁명업적과 불굴의 혁명정신은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우리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며 동지가 생전에 그렇게도 바라고 그를 위해 싸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김일성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것입니다.

고 림춘추동지여, 고이 잠드시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88년 4월 28일 일본 도꾜

4.15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이 돌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76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28일 오후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총련중앙 박재로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이날 신도꾜국제공항에서 총련중앙 허종만, 배병두부의장들과 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총련 지바현본부관하 일군들, 축하단성원들의 가족, 친척들이 마중하였다.

이날 비행장에서는 축하단단장에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명의로 된 꽃다발이 증정되였다.

대우중공업산하 4개 공장 로동자들이 무기한파업에로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매판기업 대우중공업산하 인천, 창원, 안양, 영등포의 4개 공장 로동자들이 27일부터 무기한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임금 35%인상을 요구하여 기업주측과 세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렸으나 그것이 파탄되자 이날 아침부터 일제히 총파업에 진입하였다.

한편 본사가 있는 인천공장에서는 2,000여명의 로동자들이 오전 8시경부터 운동장에 모여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여 롱성을 벌리고있다.

비인간적인 착취를 반대하여 들고일어난 로동자들에 의하여 지금 대우그룹 계렬의 공장들은 세찬 투쟁의 불길속에 휩싸여있다.

군사정전위원회 공화국측 비서장이 남조선괴뢰들의 방화사건과 포사격행위를 규탄

【개성 4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 제492차 비서장회의에서 우리측은 적들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비무장지대안에서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우리측 비서장 김련기대좌의 말에 의하면 남조선괴뢰군은 지난 4월 17일 13시 35분경 강한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게 되자 세명씩으로 구성된 두개 조의 방화자들을 군사분계선에 접근시켜 미리 준비한 인화병으로 풀과 나무가 무성한곳들에 불을 지르게 하였다.

이 산불로 하여 3명의 우리측 인원들이 심한 화상을 당하였으며 끝내 사망하였다. 그리고 1,200정보의 산림, 여러개의 민경초소와 군사분계선표식물, 수천키로메터의 통신선과 전주들이 불탔다.

우리측 비서장은 적들이 이번 사건을 외곡하여나서자 사건현장에 나갔던 우리 조사단성원들의 록화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번의 방화사건은 남조선괴뢰들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감행된것이라는것을 론증하였다.

남조선괴뢰군이 지난 4월 21일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쏜 포탄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성원들의 신변을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시설들을 파괴하였다.

우리측 비서장은 현지에 나갔던 우리 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록화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도발행위도 남조선괴뢰군이 감행하였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준다고 말하였다.

평양에서 《세계청년체육대회》가 진행된다는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무근거한것

조선체육지도위원회 대외사업국장이 언명

【평양 4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4월 27일 조선체육지도위원회 대외사업국장은 일본의 한 신문이 평양에서 《세계청년체육대회》가 진행된다고 보도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는 지난 23일 우리가 《서울올림픽》직전에 평양에서 대규모적인 청년체육대회를 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한 일본의 한 신문의 보도를 들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신문은 이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일조우호촉진의 원련맹관계자가 밝힌것이라고 하였으며 경기대회 날자는 8월하순부터 9월중순이고 경기대회 명칭은 《세계청년체육대회》이며 이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통하여 조일관계자에게 경기대회초청장이 전달되였다고까지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허황한 소리이다.

우리는 이런 경기대회가 있다는것조차 모르고있다.

보도에서 진실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나는 일본신문이 무슨 목적으로 무근거한 사실을 외곡하여 류포시켰는지 리해할수 없다.

나는 일본신문의 보도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무근거한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한다.

끝없는 영광을 충성으로 빛내여가리라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신

들끓는 조국에서

제115차단기조국방문단을 따라서

고베항에 처음으로 입항한 사랑의 배 《삼지연》호를 타고 조국을 방문한 제115차단기조국방문단 성원들은 크나큰 기쁨과 감격 안고 21일,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번 방문단은 총련 효고현본부관하 각계층 동포남녀로소 285명으로 집단적으로 조직된것이였으며 방문단성원들의 절반가까이가 난생 처음으로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동포들이였다.

방문기간(4월 4～21일) 우리 조국은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로 들끓고있었다.

그런 속에서 방문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76돐이 되는 민족최대의 경사를 조국땅에서 뜻깊게 맞이하였으며 수십년만에 부모형제, 친척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벅찬 현실과 조국강산의 절경을 자기 눈으로 보는 등 감격과 기쁨에 찬 나날을 보내였다.

(글과 사진 본사기자 리영인)

따사로운 품에 안긴 효고현하 동포들

조국건설에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 탄생 76돐을 조국의 품속에서 맞은 제115차단기조국방문단.

동포들은 방문단이름으로 이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선물을 드린것을 비롯하여 총련, 조청, 녀성동맹 지부마다에서도 지성어린 선물을 드리였다.

그속에서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린 동포들을 소개한다.

《아리따야끼》 만경대초가집

구본규동포



위대한 수령님 탄생 76돐에 즈음하여 총련 나다지부관하 구본규동포는 《아리따야끼》로 된《만경대초가집》을 삼가 드리였다.

그는 지난해 방문했을 때는《와지마누리》로 만들어진《만경대초가집》을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더 좋고 훌륭한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가슴불태운 그는 올해에 조국방문을 계기로《아리따야끼》로 된《만경대초가집》을 마련할것을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규슈에 3번이나 찾아가 그의 지인인 13대리삼평 이마이즈미 이마에몽씨에게 거듭 부탁하여 1년간 바치였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쌓아도 고개를 끄떡하지 않는다는 13대목이였으나 구동포의 충실성에 탄복을 금치 못해《만경대초가집》을 명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위한것이라면 아까울것이란 없습니다.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번영하는 우리 조국을 목격할수 있었으며 그때마다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지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의 결의는 뜨겁기만 하다.

의학관계백과사전

김칠식동포



히가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 교육회 김칠식고문은 뜻깊은 4월명절에 즈음하여 5,000종의 약용식물이 게재된 의학관계백과 《원색중국본초도감》(전 25권)속의 8권과 약용료리관계료리책 8권을 인민대학습당에 희사하였다.

《조국에 이바지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행복》으로 여기는 그는 학교운영을 위해 약장사를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의학관계의 귀중한 책을《조국에서 리용되는것이 가장 좋겠다.》고 구입하여 보냈던것이다.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요. 백과사전은 앞으로 25권 모두 보낼 생각입니다. 다음에 손자와 함께 방문했을 때 그것을 실현하자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은 조국애에 차넘치고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련환공연을 본 방문단조청원들

조국을 멀리 떠나 사는 우리 재일동포들이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념원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멀리서라도 한번 만나뵈왔으면 하는것이다.

이번 방문단중 55명의 조청원들이 이 절절한 소원을 풀수 있는 날이 왔으니 그들의 흥분된 마음이야 이루 다 헤아릴수 없었다.

4월 17일, 그날은 2.8문화회관에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되였다.

이 행사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영속에 회장에 들어서신 순간 조청원들은 자기들에게 차례진 너무나도 큰 영광과 행복에 휩싸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부르는 청년들, 북받쳐오르는 감격으로 목이 메여 눈물만 흘리는 청년들, 어버이수령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모시고싶은 심정으로 몸을 앞으로 내미는 청년들,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흠모하여마지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뵈온 순간은 참으로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가장 귀중한 영광의 시각이였다.

조청원 55명중 44명이 처음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청년들이다.

예술축전이 끝나도 흥분을 아직 삭이지 못해하는 박부영청년(조은효고 다까라즈까지점)은 《처음으로 어머니조국을 방문한 제가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실수 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을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고 말하고있었다.

리명숙청년(히가시고베)은 《이 영광의 마당을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오직 충성의 한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가겠습니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으며 박동수청년(조은효고본점)은《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통일만세를 목청껏 부를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맡은바 사업에서 앞장서겠습니다.》고 힘주어말하였다.

4월 17일, 참으로 이날은 방문단조청원들에게 조청사업을 보다 힘있게 떠밀고나갈 새힘과 새 결의를 안겨준 영광의 날, 그들이 일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행복의 날로 되였다.



크나큰 배려와 신임을 받아안은 조청원들은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고 조국을 떠났다.

《효고현동포들의 그 지성 잊은바가 없어요》

《은비녀》 영화배우들과 상봉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찾아간 동포들은 배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평양시에 자리잡은 주체영화예술의 전당 조선예술영화촬영소.

4월 14일, 이곳 촬영소를 찾아가는 방문단성원들의 얼굴표정은 여느때와는 달랐다. 어쩐지 설레이기만 하는 마음을 억제할수 없는것 같았다.

그도 그럴것이였다. 1985년 이곳 촬영소제작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창작한 합작예술영화 《은비녀》, 《봄날의 눈석이》의 촬영무대는 효고현이였다.

하기에 효고현하 동포들에게 있어서 그 어간 제작단성원들과 친혈육처럼 함께 지낸 잊을수 없는 배우들이 많았던것이였다.

이날 동포들을 맞이한 문예봉, 서경섭, 김준식, 김룡린, 김옥희, 황민, 김성수배우 등 《은비녀》, 《봄날의 눈석이》 출연자들을 비롯한 배우들과 연출가들, 일군들은 일본체류 30여일간의 주된 촬영지였던 효고현동포들의 따뜻한 지성의 하나하나를 한시도 잊은바가 없었다.

하기에 그들 역시 효고현동포들과 상봉하여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있었다.

동포들이 참관하는 사이 한시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인민배우 문예봉은《효고체류기간 동포들은 우리들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해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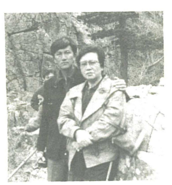
그들은 우리의 식사, 의상 등 사업과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그 모든것을 보장해주느라고 밤을 지새우군 하였어요. 수많은 일군들과 동포들이 우리들을 물심량면으로 격려, 방조를 해준 덕택으로 영화를 훌륭히 만들수 있었지요. 정말 잊을수 없는 나날이며 잊을수 없는 우리 동포들입니다.》고 하면서 감격을 금치 못해하고 있었다.

그때 식사당번을 맡아 밤새웠던 리명순(히가시고베)녀성은《조국에서 그들과 다시 만날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많은 동포녀성들이 그때 식사준비를 분공맡아했는데 그들도 다같은 심정이라 느껴요.》라고 몹시 기뻐하고있었으며 의상관계를 책임졌던 리경자녀성(이다미)도 촬영소를 떠날 그 순간까지 배우들의 손을 놓지를 않았다.

이날 뜻깊은 상봉을 한 동포들은 총련사업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이룩할 결의를 새로이 하고있었다.

동포사진관

상봉의 한장, 기쁨의 한장



▲헤여져 사는 외아들(추병호)과 함께 금강산에 올라가는 정분선어머니.(히메지)

어머니에게는 아들과 만나는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니시노미야의 김오봉동포(오른쪽)는 4.24교육투쟁을 비롯한 민족교육옹호투쟁에서 같이 싸운 친구 박계순, 배기영씨와 만나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조국방문에서 얻은 새 친구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한 강도자녀성(니시고베), 윤정자녀성(아마가사끼히가시), 박송자녀성(나다)들은 서로 초면이였으나 방문기간에 형제처럼 친한 사이로 되였다.

그들은 가족, 친척들과 상봉했을 때의 기쁨이며 조국의 발전된 모습,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에 접한 감격 그리고 가정문제, 자기 고민에 이르기까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리해하여나갔다.

방문기간 참관지에서 해설원의 말을 귀담아들으면서 많은것을 배웠다고 하는 윤녀성.

《나는 일본사람들속에서 살아왔기에 〈윤정자〉라고 불리운것은 처음이였지요. 같은 조선사람이기에 그들과 마음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할수 있었고 조국방문을 통하여 진정한 벗을 얻은 감이나요. 앞으로 우리 조직과 깊은 련계를 맺으렵니다.》

직접 자기 눈으로 조국을 보고 조국애에 넘치는 동포들과 접한 윤녀성의 마음에 민족의 기쁨이 넘쳤다.

3살우인 윤녀성을 《언니》처럼 대하는 강녀성은 쾌활한 성미로 동포들의 이목을 끌었다. 축판이 벌어져 수집어하는 윤녀성의 팔을 당겨 함께 춤을 추었다.

이번 방문단속에는 그들처럼 조국방문의 길에서 새 친구를 얻은 동포들이 많았다.





조국은 어머니품

조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삼지연》호안에서 동포들은 삼삼오오 모여앉아 방문기간에 있은 이야기들로 꽃을 피웠다.

《참말, 말할것없이 좋은 조국방문이였다.》고 말하는것은 문혜순, 문분순자매들이다.

8년전에 조국을 방문했던 문분순녀성(다까라즈까)은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언니 문혜순녀성(아마가사끼히가시)과 함께 함경북도 고원군에서 사는 형제들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 방문길에 올랐다.

맏형, 두 남동생, 녀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낸 그들.

《고원군에서는 우리를 위해 연회를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조국에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었고 성의껏 즐거운 나날을 보낼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정말 조국은 자애로운 어머니품이였습니다.》, 《육친과 동생의 묘를 찾아 정말 곱게 꾸려지고있었으니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제들의 생활도 좋았고 사업도 잘하고있으니 그것이 제일 기뻤습니다.》

서로 기쁨과 감격을 나누며 동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평양골프장에서

아버지 오련환동포에게 효성을 다하는 오세일청년의 모습이 한결 눈에 띄였다.

▶예술영화《홍길동》주인공 리영호배우를 만난 안복남녀성(다까라즈까)과 김립혜녀성(이다미)



애국의 대를 이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나서자

조선문화강좌 속속 개강

년간 1,500명 망라를 목표로

총련 히로시마현본부

총련 히로시마현본부관하 지부들과 단체들에서 조선문화강좌(제1기)가 속속 개강되고있다.

14일, 조청본부에서 문화강좌가 개강된것을 시작으로 하여 18일에는 총련 니시히로시마지부, 19일에는 기다히로시마지부, 22일에는 구레지부가 낮과 밤의 두번에 걸쳐, 23일에는 후꾸야마지부와 오노미찌지부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히가시히로시마지부, 우지나지부합동(5.18), 녀성동맹(5월초순)에서도 개강할 예정이며 5～6월에는 상공회 매개 지역단위 이동경제학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선문화강좌에서는《우리들과 후대들이 나아갈 길》이란 제목으로 강연이 진행되였으며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동포들은 재일동포들의 장래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조국과 민족을 굳건히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떳떳이 살아나갈 결의들을 다지고 있었다.

앞서는 두 지부

지난 18일에 개강된 총련 니시히로시마지부와 19일의 총련 기다히로시마지부에서의 조선문화강좌에서는 총련중앙일군의 강연이 있었다.

재일동포들은 이역땅에서 생활하여도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며 조국통일위업과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사업에 대를 이어 떳떳이 이바지해나가야 한다는 강연은 참가자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후대들을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강좌에서 취급한 문제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의 높이를 보여주듯 강연이 끝난후 참가자들로부터의 질문이 많이 나왔다.

니시히로시마지부 조선문화강좌에 참가한 니시지역상공회 부리사장이며 본강좌실행위원회 위원장인 김진빈동포(38살)는《조선문화강좌는 우리 젊은 동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마당이다. 이제까지 말로는 알고있었으나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진행되는 강연을 들어보니 조선민족의 피줄을 이은 긍지가 가슴에 가득찼다. 이러한 강연은 모든 재일동포들이 들어야 한다. 앞으로 한명이라도 더 많은 동포들을 이 마당에 망라하기 위해 힘써나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기다히로시마지부 조선문화강좌에 참가한 총련지부 오광호선전부장(비전임, 33살)은 강의가 아주 생동하고 알기 쉬웠다고 하면서《우리 새세대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이것은 민족앞에 지닌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이다. 앞으로 우리 조직을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자기자신을 더 부단히 준비시켜나갈것이다.》고 결의를 굳게 하였다.

젊은 동포들이 주인이 되여

이곳 본부관하에서 진행되고있는 조선문화강좌사업의 특징은 젊은 동포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주인답게 기획하고 조직한데 있다.

본부는 올해 이 사업에 년간 1,500명의 동포들을 망라할 목표를 내걸고 젊은 동포들의 힘에 의거하여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였다.

지부들에서는 젊은 동포들을 주인으로 내세워 실행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그들의 열성을 불러일으켰다.

결과 이곳 본부에서의 문화강좌사업은 모든 지부들에서 수많은 동포들을 망라하여 속속 개강되고 있으며 소기의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나가고있다.



총련 히로시마현 니시히로시마지부 조선문화강좌



녀성동맹가나가와 쯔루미지부 조선문화강좌 참가자들

젊은 동포들을 주인으로 내세워

총련 도꾜도 오따지부



총련 도꾜도 오따지부 조선문화강좌에 참가한 관하동포들

총련 도꾜도 오따지부 조선문화강좌(제1기)《오따경제, 문화강좌》가 17일 오후, 이곳 지부사무소 강당에서 개강되였다.

지난해 이 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튼튼히 토대하여 한달간에 걸친 준비사업밑에 진행된 이날 강좌에는 2세, 3세 젊은 동포상공인들을 중심으로 40여명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경제강연과 함께 재일동포들의 장래문제에 관한 강연이 진행된 조선문화강좌는 동포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그들속에 조국애, 민족애를 더 깊이 심어주는 중요한 마당으로 되였다.

경제동향문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날 조선문화강좌에서는 먼저 조선대학교 윤필석교원이 출연하여《일본경제환경의 변화와 대응책》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상공인들의 경제적지위가 어떠하며 발전하는 경제환경속에서 동포들은 경영활동을 어떻게 개선하고 내밀어야 하며 그 대응책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이야기된 강연은 참가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다음으로《우리들과 후대들이 나아갈 길》이란 제목으로《조선시보》은종기부편집장이 강연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며 조선민족의 한 성원, 재일동포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론리적으로 말하면서 강연자는 2세, 3세 젊은 동포들은 일본에서 민족의식을 철저히 고수하고 민족의 한성원으로서 떳떳이 살아가야하며 후대들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의 환경속에서 이와 같은 강연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것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시기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된 속에서 경영활동뿐아니라 애국운동을 어떻게 벌려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이 론의돼왔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지난 시기와 같은 감각, 개념으로 사업해나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은 단결하여야만 자기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젊은 동포들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 힘에 의거하여 경영활동도 잘하고 우리 조직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맘먹고있습니다.》

철장사를 하는 오따젊은상공인협의회 배룡환회장은 강연을 들은후 뜨거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녀성동맹 마고메분회 김영애부분회장은《오늘 강연은 참으로 호소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경영활동이나 애국사업을 발전시켜나가자면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리사를 하는 교육회사업에서나 분회사업에서 오늘의 요구에 맞게 연구를 깊여 거기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는데서 오늘 배운것들을 살려나가겠어요.》라고 말하였다.

민족의 슬기와 넋을 심어주어

녀성동맹가나가와 모든 지부들에서

녀성동맹 가나가와현본부관하 모든 지부들에서 동포녀성문화강좌를 일제히 개강하였다.

동포녀성문화강좌는 젊은 녀성들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풍습, 미풍량속을 배움으로써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며 또한 지역동포녀성들의 친목과 교류를 폭넓게, 한층 깊여나가자는 취지밑에 진행되고있다.

문화강좌는 각 지부마다 강사를 고정화하여 통일된 과정안에 따라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번씩 진행될 예정이며 그중 사회견학으로 우리 나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이다마와 교또, 나라를 다니게 된다.

지난 8일, 현하에서 맨선참으로 녀성동맹 쯔루미지부가 쯔루미동포녀성문화강좌를 개강하였다.

이곳 지부에서는 지난해까지 문화교실과 소조를 계통적으로 진행하고 젊은 녀성들을 묶어세운 경험에 토대하여 학교어머니회와 분회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놀고있는 젊은 녀성들 8명으로 문화강좌실행위원회를 무었다.

또한 6개의 분회를 반으로 정하고 반장들과 실행위원들의 합심하에 동원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47명의 동포녀성들이 문화강좌를 수강하게 되였다.

이날도 눈이 오는 속을 많은 수강생들이 아이들의 손을 이끌면서 첫 문화강좌에 참가하였다.

첫 강의에 앞서 실행위원회의 이름으로 쯔루미문화강좌에서 강사를 맡게 된 조선대학교 강성은교원에게 꽃다발이, 전체 수강생들에게 기념품인 메모장과 펜이 전달되였다.

첫 강좌는 《도자기—고려청자, 백자에 대하여, 조선의 도공이 전한 지혜》란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쯔루미동포녀성문화강좌는 조선무용소조, 에아로빅스소조, 새로 꾸릴 사교단스소조와 동시에 밀고나가게 된다.

총련 오사까부 스이다지부 새 사무소 준공

총련 오사까부 스이다지부 새 사무소 준공모임이 24일에 있었다.

새 지부사무소는 부지 57평, 연건평 100평의 3층건물로서 내부에는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비롯하여 총련과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사무실, 50명을 수용할수 있는 강당과 식당이 꾸려져있다.

준공모임에는 총련본부 리말상위원장과 총련지부 고석호위원장, 지부사무소 건설위원회 박희표위원장을 비롯하여 지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사업보고를 했다.

보고자는 1세들이 꾸린 지부사무소를 이어나가자고 한 동포들의 열성으로 새 사무소 건설문제를 15년만에 해결하게 되였다고 말하면서 내외반동들의 모략책동과 그와 때를 같이한 사무소건설방해책동 등을 짓부시고 이날을 맞이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다하자는 동포들의 티없이 맑은 충성심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 사무소 건설을 계기로 5개월애국혁신운동을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 조국통일사업을 비롯한 총련애국사업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자고 호소하였다.

총련본부 리말상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한 다음 건설사업에 열성적으로 나선 동포들에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감사장을 전달했다.



새로 준공된 총련 오사까부 스이다지부 사무소

《등록》갱신지연에 벌금형은 부당하다

오사까부의 동포녀성이 정식재판

《등록》갱신이 늦었다는 리유로 벌금 7만원이란 부당한《략식명령》을 받은 오사까부의 동포녀성이 이번에 정식재판을 벌려 벌금취소를 요구하게 되였다.

이번에 제소하게 된 동포는 총련 히가시오사까남지부관하의 장병주녀성(51살)인바《등록》갱신이 약 1년 늦었다는 리유로 부당한《처벌》을 받게 된것이다.

그는 갱신기한이 1985년 12월 25일이였으나 과부의 몸으로 4명의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했으며 병으로 드러눕고있던 시어머니의 간호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어《확인신청》의 수속을 깜빡 잊어버리고있었다.

약 1년후에《등록》갱신 수속을 하러 갔는데 히가시오사까시당국은 그를 경찰에 고발, 지난해 11월에《략식명령》이 나오게 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등록법》에서는 5년마다《등록》사항을《확인》한다는것으로《확인신청》(《등록》갱신)을 하기로 되여있으며 그를 못했을 경우에는《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여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의하면《등록법위반》으로 송검당한 재일조선인수는 1986년에 2,625명, 그중 갱신지연으로 송검당한 수는 692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대부분은《략식명령》을 받고 벌금에 처하고있다.

장동포는 이번에 이런 실태들과 함께 실제로 의논해본 동포들중에서 벌금 18만원을 비롯하여 십여명의 동포들이 벌금에 처하고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여 정식재판을 결심하게 된것이였다.

그는《이 문제는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포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고 하면서《등록법》의 부당성을 전면적으로 지탄해나설 의향이다.

이에 따라 관하동포들도 이 투쟁에 전면적으로 합세하기로 하고있으며 특히 변호요청에 따라 오사까사회문화법률쎈타에서는 문제의 중요성에 맞게 일본 각지 변호사들로 100명의 변호단을 구성하게 되였다.

제1차공판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사까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된다.

총련대표들 시당국에 항의

총련대표들과 오사까사회문화법률쎈타 변호사들 그리고 장병주녀성은 지난 4월 25일 히가시오사까시역소를 찾아가 깜빡 잊어《등록》갱신이 늦어진데 대하여 시당국이 고발한 처사는 재일조선인의 인권은 물론 장동포가정의 실정도 무시한 부당한 조치이라고 항의하였다.

어서어서 자라라



리아의(녀-4살)

1984년 4월 27일생

아버지 리충생(28살), 어머니 김혜자(28살)

총련 오사까부 호꾸세쯔지부관하

올해 4월부터 보육반(3년)에 다니게 된 아의. 다니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나 걸리지만 즐거운 보육반생활을 생각하면 괜찮다.

너의 아버지도 이 지역에서 가장 먼 나리아이(成合)에서 꾸준히 학교를 다녔단다.

(할머니)

괴뢰국회의원선거

로태우일당에게 큰 타격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결과

26일에 있었던 괴뢰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로태우일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온갖 파쑈폭압과 관권, 금권을 총동원한 부정협잡선거가 감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민정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도 차지하지 못했던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구 115의석이상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민정당》패거리들이 지방구(총 224의석)에서 차지한 의석은 87의석에 불과하며 평민당(54의석), 민주당(46의석) 량 야당이 차지한 의석은 합계 100의석으로서 로태우일당을 압도하였다.

이와 같이 로태우일당은 지방구의 과반수도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구 제1당이 전국구(75의석)의 과반수인 38의석을 차지하도록 부당하게 조작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125의석을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총《국회》의석수 299의석의 과반수인 150의석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한것이다.(전국구를 포함한 평민, 민주, 공화당의 의석수는 각각 70, 59, 35)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일부 일본언론들은 그 무슨 《국민의 견제심리》요 《지역대결》이요 하는 말을 퍼뜨리고있으나 이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결과로서의 《선거》결과를 희석시키려는 랑설이다.

단결과 투쟁 속에서만 전진이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일본신문들이 떠드는것과 같이 그 무슨 《국민의 견제심리》가 《작용》한 결과가 아니며 《지역대결》의 귀결도 아니다.

그것은 지난해의 괴뢰대통령선거에서 얻은 교훈에 기초하여 《선거》과정을 투쟁과정으로 여기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견결하게 싸운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의 결과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괴뢰대통령선거가 있은 직후부터 대렬을 재정비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로태우일당의 파쑈폭압과 기만소동이 우심해지는 속에서 반미자주,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더욱 선명하게 내밀어 집회, 시위 등의 각종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지난 3월말에는 북과 남의 대학생들에 의한 민족의 화해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학생회담제안을 내놓는 등 통일의지를 과시한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대렬을 재정비해온 그들은 특히 《선거》를 앞둔 4월중순 서울지역대학생총련합을 결성하여 과감한 《선거》투쟁에로 궐기하였다.


与党惨敗 盧政権に打撃
盧政権に大きな衝撃
37減らし123議席に
平民党、第一野党へ
ソウル特派員に聞く
マウル不正、響く
金権選挙に国民の不信も
野党、地盤で抜群の強さ
守勢迫られる盧

괴뢰국회의선거에 대하여 보도한 일본신문들

이에 있어서 그들은 어느 보수야당을 지지하는것이 아니라 《반민정당련합전선》을 펴고 지금까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싸워온 재야인사 등 《민중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싸우는 인사들을 지원해나선것이다.

이리하여 4월 14일에 서울대에서 진행된 《반민정당총선투쟁민주련합》 주최의 집회에서는 《민중의 리익을 대변할 실천의지가 많은 민주인사를 적극적으로 밀》것을 결의하였으며 4월 12일에 부산대에서 열린 《민정당일당독재저지를 위한 부산시민단결본부 발족식 및 시국대토론회》에서도 《민정당후보저지투쟁을 전개할》것을 호소한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청년학생들은 소위 《선거혁명》의 환상에 빠질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을 투쟁과정으로 여기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등 견결한 투쟁을 전개한것이다.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재야민주세력도 반로태우련합전선을 결성하여 반미자주,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강화해나섰다.

지난 3월 5일에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2.27석방자일동, 전국민주화운동옥중투쟁위원회,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등이 주관한 《량심수전원석방, 수배해제쟁취 및 반독재투쟁결의대회》는 단결하여 반외세, 반독재 투쟁에 나설데 대한 지향성을 뚜렷이 하였다.

민주세력이 단결하여 투쟁할것을 지향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선거》를 앞두고 크게 앙양된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로태우일당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것은 바로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이와 같은 투쟁의 결과이다.

원래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에서의 《선거》란 괴뢰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다. 파쑈체제의 유지를 노리는 괴뢰악당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여 온갖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조건에서 《선거혁명》이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선거》과정은 《선거혁명》의 환상에 빠질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으로 여기고 싸울때만이 민주세력의 전진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선거》과정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밑에 견결하게 투쟁하였다. (사진은 4월 6일에 서울대에서 진행된 총학생회의 집회모습)

정당한 주장, 의로운 투쟁

《로동신문》 론평

25일부 《로동신문》은 《정당한 주장, 의로운 투쟁》이라는 제목의 개인론평에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괴뢰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쟁의 예봉을 《민정당》에 돌리고 있는데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론평은 남조선 도처에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민정당》패거리들의 《선거》유세장을 반독재투쟁마당으로 만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것은 군부깡패무리인 로태우일당과 《민정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사무치는 증오와 울분의 폭발이며 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단호한 의지의 분출이다.

《민정당》으로 말하면 로태우역도의 손발이 되여 인민들이 바라는 민주발전의 길을 총칼로 차단하고 군정을 연장한 군부파쑈깡패집단이다.

《민정당》깡패들은 인민을 희생으로 치부하는 부정부패의 원흉들이다.

로태우역도는 이른바 《제13대국회》의 다수 의석을 제놈의 손때로 절은 《민정당》족속들로 채움으로써 살인, 고문통치, 반역통치를 보다 강화해보려고 꾀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벌리고 있는 반《민정당》투쟁은 《민정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군부독재의 명줄을 끊어버리고 민정, 민주화를 이룩하는 문제도, 자기들의 생존을 지키는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는 교훈으로부터 출발한 정당한 애국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전에 로태우일당과 함께 깡패정당인 《민정당》에도 정치적사형을 선고하였다. 청년학생들과 재야단체들이 반군부독재투쟁선언대회를 열고 이번 《선거를 독재민정당을 패배시키는 민중과 군사독재의 투쟁장》으로 만들것을 선언한것은 놈들과 결판을 볼 때까지 싸우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견결한 의지의 표시이다.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정을 이룩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세계사회계가

미제의 침략정책의 하수인인 남조선《정권》을 폭로

【평양 4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세계의 광범한 사회계는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조작된 남조선괴뢰정권의 예속적이며 매국반역적인 본질에 대하여 폭로하고있다.

국제학생동맹잡지 《세계학생소식》은 남조선의 이른바 《정부》는 미제의 식민지침략정책에 복무하는 허수아비정권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을 대신할수도, 그 어떤 자주권을 행사할수도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정권》은 미국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정책》을 작성하며 그의 통제와 감독 밑에서만 움직인다.

마다가스까르신문 《이룽구 바우바우》는 론평에서 미국이 남조선에서 저들이 길러낸 앞잡이들을 내세워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남조선《정권》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워주는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고 썼다.

인도신문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스》는 남조선의 《대내외정책》과 《협정》들은 남조선주재미국《대사관》이나 미국의 《군사 및 정치 고문》들에 의하여 작성된다고 지적하였다.

꾸바신문 《뜨리바하도레스》는 론평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쫓겨난 《대통령》과 새 감투를 쓴 《대통령》이 《쌍둥이》임을 잘 알고있다.

이자들은 워싱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폭압의 대변자, 자유와 안전의 유린자들이다.

미국의 사관학교 동창생인 이자들은 반동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다.

벌가리아신문 《나로드나 아르미야》는 론평에서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며 저들의 리익을 계속 추구하려는 미제에 의하여 로태우역도의 괴뢰정권이 조작된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 반동적본질을 까밝혔다.

알바니아신문 《바슈키미》는 남조선의 현《정부》역시 미국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하수인으로 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주간일지

4월 20일 (수)~4월 26일 (화)

북반부

20일(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4월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로작 《북조선정치정세》발표 40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22일(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군사대표단을 접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쏘련군사대표단이 선물을 드림.

24일(일) 조선인민군창건 56돐기념 중앙보고대회 평양에서 진행.

25일(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 창건 56돐에 즈음하여 인민군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심.

26일(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란회교공화국 대통령특사일행을 접견.

재일동포

20일(수) 총련중앙위원회 제14기 제3차회의 진행.(~21일)

23일(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재일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4.24교육투쟁 40돐기념 효고현조선인대회 진행.

24일(일) 4.24교육투쟁 40돐기념심포쥼 효고에서 진행.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창립 40돐기념모임 진행.

남조선

21일(목) 창원에 있는 삼미금속공장 로조원 720여명,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여 파업에 들어감. ◆경북대생 5천여명, 구속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반《정부》시위 전개.

22일(금) 남조선카톨릭농민회를 비롯한 6개 농민단체 회원들과 학생들 800여명, 건국대에 모여 미국농축산물수입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 단행. ◆중앙대, 동국대, 숭실대 등 서울의 9개 대학 학생 500여명, 중앙대에서 남부지역대학생결의대회를 가지고 반《정부》시위 전개. ◆대구의 경북대생 2천여명, 로태우도당의 탄압행위에 항의하여 반《정부》시위 단행.

25일(월) 남조선강원도 서북광업소 로동자 800여명,임금인상 등 요구하여 작업거부투쟁 벌림.

국제

20일(수) 국제금속로동자련맹이 로동자들의 투쟁 지지하여 성명 발표.

22일(금) 꾸바올림픽부위원장이 공화국의 올림픽공동주최안에 지지를 표시했다고 쁘렌싸 라띠나통신이 보도.

23일(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10돐기념 제23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도꾜에서 진행.

알림 《조선신보》는 3,4,5일호를 휴간으로 하겠습니다.

朝 鮮 新 報 社
東京都新宿区筑土八幡町２－４
電 話 (269) ０ １ ３ １ ～ ８
振 替 東京６８９３・１３０５０３
昭和27年８月１日 第３種郵便物認可
１９８８年２月29日 発 行